발간 등록 번호
11-B553921-000016-01

구술로 기록하는 제주의 세시풍속 조사 사업 1
- 구술 자료집(제주시 동부지역)

새철 드는 날 2021 꼬넷기아정 뎅기민 베염 난덴 골아

연구 책임 김순자
공동 연구 최연미 오경임 김미진 권미소 현혜림



JRI 제주학연구센터

〈차례〉

Ⅰ. 연구 개요 ····· 5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 7
2. 연구 기간 ····· 7
3. 연구 방법 ····· 7
4. 연구진 ····· 8
5. 주요 연구 내용 및 성과 ····· 9
6. 기대 효과 ····· 10
7. 사진 자료 ····· 11
7.1. 제주시 삼양1동 조사 장면 및 제보자 ····· 11
7.2. 제주시 삼양2동 조사 장면 및 제보자 ····· 12
7.3. 조천읍 대흘리 조사 장면 및 제보자 ····· 14
7.4. 조천읍 신흥리 조사 장면 및 제보자 ····· 17
7.5. 구좌읍 송당리 조사 장면 및 제보자 ····· 19
7.6. 구좌읍 김녕리 조사 장면 및 제보자 ····· 20
7.7. 구좌읍 종달리 조사 장면 및 제보자 ····· 22

Ⅱ. 제주의 세시풍속 제주시 동부지역 구술 자료 ····· 25

1. 제주시 삼양1동 ····· 27
2. 제주시 삼양2동(1) ····· 135
3. 제주시 삼양2동(2) ····· 214
4. 조천읍 대흘리 ····· 240
5. 조천읍 신흥리 ····· 362
6. 구좌읍 송당리 ····· 437
7. 구좌읍 김녕리(1) ····· 507
8. 구좌읍 김녕리(2) ····· 574
9. 구좌읍 종달리 ····· 628

Ⅰ. 연구 개요

Ⅰ. 연구 개요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 세시풍속은 예로부터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행하던 여러 가지 행사로, 제주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월별로 살필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임.
❍ 사회 변동과 환경 변화로 제주의 세시풍속과 관련한 문화와 언어가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어 정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실정임.
❍ 이에 따라 이 사업은 제주 지역을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별로 제주의 세시풍속을 조사하여 각 권역별 세시풍속 관련 어휘와 문화를 기록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연구 기간

2021년 3월 22일 ~ 2021년 12월 31일

3. 연구 방법

❍ **연구 방법**: 제주의 세시풍속 질문지를 토대로 제주도 동부지역 7개 마을을 선정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함.
❍ **조사 지역**: 제주도 동부지역 중 해안 마을과 중산간 마을을 선정해서 조사함. 해안마을로 제주시 삼양1·2동, 조천읍 신흥리, 구좌읍 김녕리와 종달리를 조사하였고, 중산간 마을은 조천읍 대흘리와 구좌읍 송당리를 대상 마을로 선정하여 조사하였음.
❍ **제보자**: 해당 마을의 노인회장과 마을 이장 등의 추천으로 조사 지역에서 오래 생활한 토박이 주민을 대상으로 함. 이번 조사의 주요 제보자는 제주시 삼양1동 2명, 제주시 삼양2동 3명, 조천읍 대흘리 8명, 신흥리 3명, 구좌읍 송당리 2명, 김녕리 2명, 종달리 4명 등 모두 24명임.
❍ **조사 기간**: 2021년 4월 7일~12월 20일.

<표 1> 지역별 제보자, 조사일

번호	조사 지역	제보자	성별	출생 연도	조사일
1	제주시 삼양1동	김하종	남	1939년생	2021. 4. 7.
2		한복생	여	1939년생	
3	제주시 삼양2동	김건의	남	1936년생	4. 7., 4. 14.
4		홍성관	〃	1940년생	

5		강병숙	여	1929년생	
6	조천읍 대흘리	홍경만	남	1941년생	4. 14., 4. 28.
7		부연옥	〃	1949년생	
8		홍경찬	〃	1950년생	
9		김창수	〃	1948년생	
10		이숙자	여	1951년생	
11		한창매	〃	1951년생	
12		고옥심	〃	1949년생	
13		문지자	〃	1942년생	
14	조천읍 신흥리	김석은	남	1938년생	4. 28., 11. 8.
15		손정국	〃	1945년생	
16		강치훈	여	1937년생	
17	구좌읍 송당리	김수생	남	1935년생	10. 28.
18		김민순	여	1937년생	
19	구좌읍 김녕리	강순배	남	1942년생	10. 28., 12. 20.
20		이삼년	여	1932년생	
21	구좌읍 종달리	김수길	남	1939년생	11. 3., 11. 10.
22		문군삼	〃	1947년생	
23		우봉선	여	1944년생	
24		이병생	〃	1937년생	

❍ **조사 내용**: 문헌 조사와 현장 조사 12회 실시. 현장 조사는 강영봉ㆍ김순자(2016)의 ≪제주어구술채록질문지≫(제주특별자치도ㆍ제주대학교국어문화원)의 '제1부 구술', '10. 세시풍속' 중 관련 문항을 기초로 하여 연구진 회의에서 개발한 <구술로 쓰는 세시풍속 이야기 월별 조사 질문지>를 토대로 지역별로 세시풍속 전반에 대하여 조사함.

❍ **질문 문항과 형식**: 질문 문항은 월별 세시와 절기에 따른 농사일, 금기어 등 질문을 구술채록 형식으로 조사함. "정월멩질 허젠 허믄 어떵 준비를 헤수과?", "그다음엔 걸궁 ᄀᆞ튼 것도 헤수과?", "단오멩질은 언제까지 헤수과?"처럼 제주어로 묻고 제주어로 구술하는 형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제주의 풍속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함.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풍습이나 민속, 어휘가 나오면 추가 질문하는 형식으로 조사하여 내실화함.

4. 연구진

연구진은 연구책임을 포함하여 센터 내부 연구원 3명, 외부 연구원 2명 등 5명의 연구진과 연구보조 1명, 자문 감수 1명 등 7명으로 구성되었음. 분야별 연구진 현황은 <표 2>와 같음.

<표 2> 연구진 현황

구분	이름	소속	연구 역할
연구책임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	총괄, 조사, 자료 확인 및 교정, 집필
공동연구	김미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조사, 자료 확인 및 교정, 집필
	권미소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조사, 자료 확인 및 교정, 집필
	오경임	(사)제주어연구소 이사	조사, 전사, 집필
	최연미	돋을양지책드르 관장	조사, 전사, 집필
연구보조	현혜림	제주학연구센터 위촉연구원	사진 및 영상 촬영, 정리
자문, 감수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이사장	자문, 감수

5. 주요 연구 내용 및 성과

❍ **주요 연구 내용**: 제주의 세시풍속을 제주어 구술로 채록함. 조사 지점별로 △ 농사일, △ 명절, △ 마을제, △ 문전철갈이, △ 명절과 제사, △ 신구간 등 월별 세시 등을 조사함.

❍ **녹음 및 영상 장비**: PCM-A10 녹음기 소니와 캐논 FDR-AX100 캠코더를 이용하여 녹음 및 영상 촬영을 하였고, 사진은 카메라와 휴대 전화 등을 이용하여 촬영함.

❍ **채록 자료**: 채록 자료는 한글로 전사하여 제주 동부지역의 세시풍속 관련 구술 자료집을 발간함. 전사 자료의 @는 조사자, #은 제보자를 의미함. 조사자가 여럿일 때는 조사자 정보를 @1, @2…처럼 표시하고, 제보자가 여럿일 때는 #1, #2, #3…처럼 나타냄.

❍ **성과**: 이 자료집은 제주학 아카이브 자료로 탑재하여 제주의 세시 등 제주문화 관련 연구와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휘와 용례 자료 등은 ≪제주어대사전≫ 집필에 활용할 계획임.

❍ **결과물**

1) 책자: 제주 동부지역의 세시풍속 구술 자료집 ≪새철 드는 날 끄넷기 아졍 뎅기민 베염 난덴 골아≫ 발간 외.

2) 녹음·영상·사진 자료:
녹음 자료: 22시간 46분 17초, 영상 자료: 21시간 15분 33초, 사진 600장.

<표 3> 조사 지역별 성과물

조사 지역	성과물			
	녹음(시간)	영상(시간)	사진(점)	자료집
제주시 삼양1동	2:40:34	2:37:58	30	구술자료집 외 1건
제주시 삼양2동	3:34:36	2:56:40	155	
조천읍 대흘리	3:05:07	3:26:02	63	
조천읍 신흥리	2:06:42	2:05:16	28	
구좌읍 송당리	2:14:45	2:17:48	26	
구좌읍 김녕리	3:38:29	2:29:20	279	
구좌읍 종달리	5:29:04	5:22:29	19	
7개 마을	22:46:17	21:15:33	600	

6. 기대 효과

❍ 이 구술 자료집을 통해 제주의 세시풍속과 관련한 어휘와 민속 등 제주의 다양한 문화를 들여다 볼 수 있음. 제주 사람들의 지역별 월별 세시풍속, 제주어, 제주민속 등을 담아 자료를 구축함으로써 타 마을 조사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차를 살피는 데도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음.

❍ 사라지는 제주의 세시풍속과 관련한 문화들을 콘텐츠화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제주어와 제주민속 등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기초 자료와 교육 자료로 활용이 가능함.

❍ 채록 자료는 소멸 위기의 제주어 보전과 전승을 위한 밑거름이 될 뿐 아니라 관련 어휘와 용례, 사진 자료 등은 ≪제주어대사전≫ 발간에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음.

7. 사진 자료

7.1. 제주시 삼양1동 조사 장면 및 제보자



현장 조사 모습(2021. 4. 7.)



제보자 김하종 씨



제보자 한복생 씨

7.2. 제주시 삼양2동 조사 장면 및 제보자



현장 조사 모습(2021. 4. 7.)



외부 현장 조사 모습(2021. 4. 14.)



제보자 김건의 씨



제보자 홍성관 씨



제보자 강병숙 씨

7.3. 조천읍 대흘리 조사 장면 및 제보자



현장 조사 모습(2021. 4. 14.)



현장 조사 모습(2021. 4. 28.)



제보자 홍경만 씨



제보자 김창수 씨



제보자 부영옥 씨



제보자 홍경찬 씨



제보자 이숙자 씨



제보자 한창매 씨



제보자 고옥심 씨



제보자 문지자 씨

7.4. 조천읍 신흥리 조사 장면 및 제보자





현장 조사 모습(2021. 11. 8.)



제보자 김석은 씨



제보자 강치훈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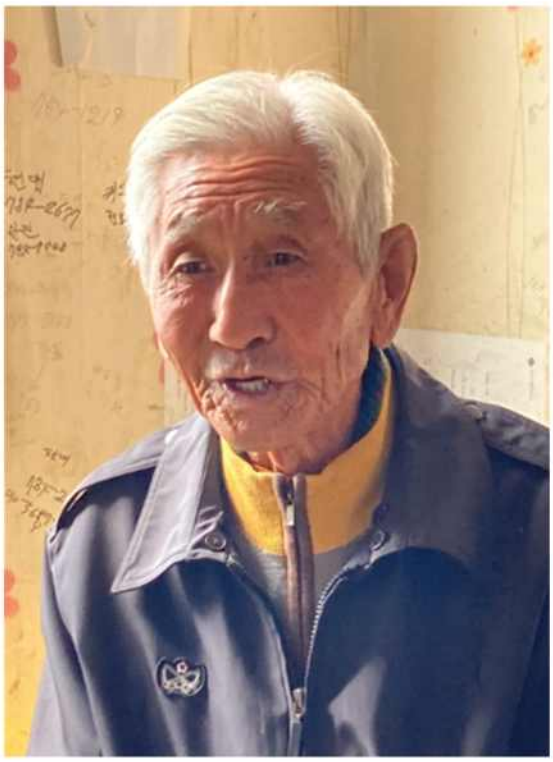


제보자 손정국 씨

7.5. 구좌읍 송당리 조사 장면 및 제보자



현장 조사 모습(2021. 10. 28.)



제보자 김수생 씨



제보자 김민순 씨

7.6. 구좌읍 김녕리 조사 장면 및 제보자



현장 조사 모습(2021. 10. 28.)



현장 조사 모습(2021. 12. 20.)



제보자 강순배 씨



제보자 이삼년 씨

7.7. 구좌읍 종달리 조사 장면 및 제보자



현장 조사 모습(2021. 11. 3.)



현장 조사 모습(2021. 11. 10.)



제보자 김수길 씨



제보자 문군삼 씨



제보자 이병생 씨



제보자 우봉선 씨

Ⅱ. 제주의 세시풍속 제주시 동부지역 구술 자료

1. 제주시 삼양1동

- 조사 일시: 2021년 4월 7일
- 조사 장소: 삼양1동 복지회관
- 조사자: @1 김순자 @2 김미진 @3 최연미 @4 오경임
- 제보자: #1 한복생 #2 김하종 #3 지기연

일월

정월 멩질

@1 자, 우리 아까 얘기헷던 것처럼 여기 이 마을에 세시풍속 조사하는 거라예. 헤서 이제 우리 여자 삼춘부떠 들어보쿠다. 정월 멩질, 집에 멩질 하영 헷지예?

#1 예.

@1 정월 멩질 허젠 허믄 어떵 준비를 헤수과?

#1 정월 멩질 허젠 허면은 섣둘그뭄날 흔, 예를 들엉 초ᄒᆞ루, 정월, 섣둘이 으, 삼십일끄지 잇덴 허면은 스무일레부떠 시작헤근에 뭐, 아니, 한 이십오일부떠 시작헤근에 콩ᄂᆞ물 놓곡, 고사리 헤근에 숢아근에 무우쪄근에 숢곡. 또 쏠 컷당은에 이제 방엣간에 가근에 거 뻣아다근에 거 셍펜허곡 기름떡허곡 침떡 치곡 허젠 허믄. 경헹 준비허여근에 그냥 정월 멩질엔 아시날덜 그냥 예를 들믄 동서들이 셋이다 허믄은 세 동서가 다 왕 그 집이 와근에 이제.

@1 으.

#1 막 준비덜 허곡. 옛날 쌀밥 엇일 때난 보리밥에 풋 놔근에 뻘겅케 밥허믄 그냥 그 밥허여근에 이젠 방상덜신듸덜토 이제 갈 때라근에 흔 낭푼썩 아졍 가렌 헤근에 문 멕여. 식구덜 멕이렌 헹 보내곡. 멩질날은 그냥 아들덜 똘덜 홀 거 엇이 막 모여들믄게 멩질허다 보면은 어떤 집안들은 흔 세 시, 네 시끄지. 우리 강칩이는 네 시 뒈사 제 봐 부난 나 막 울어낫수다, 씨집이 간.

@1 으.

#2 제관들 많아 부난.

#1 제관들 하 부난. 방상덜 하 부난.

@1 방상 하 부난예, 예.

#1 예, 예. 예, 경허고 방상 엇인 사름덜은 그냥 간단간단허게 허고예. 첨, 허무허게 살아십주게.

@1 예, 그추룩 헤근에 이제 준비를 헹.

#1 예.

과세

@1 게믄 저기 정월 초ᄒᆞ룻날은 뭘 허여?

#1 초ᄒᆞ룻날은 이제 멩질 끗나면은 기냥 어룬덜 영 앚아시민은 이제 동넷 어룬덜 과세.

@1 예.

#1 그냥. 집집마다 돌아뎅기멍 나이 어룬, 든 어룬네 집이 뎅기멍덜 문 그냥 훈 집이 서이믄 서이썩 손 심으멍 집집마다 삼양일동 거의 다 돌앗주게.

@1 아.

#1 오널 못 돌믄 낼.

@1 으.

#1 낼 못 돌믄 모리. 훈 오일까지는 그렇게 돌앗어. 우리 옛날 어릴 때는.

@1 게난 그 과세헐 때 허게 뒈면 또 음식들 준비헷당 주곡.

#1 음식도 집이 잇는 거 허면은 먹켄 허민덜 영 상 출령 내불어 둠서.

@1 으.

#1 여기 영 출령 내불어 둠서 아이고, 이제 앚으라, 이레 앚앙 무시거 ᄒᆞ꼼 줍앙 먹엉 가라, 영 허믄 줍앙 먹엉. 아이고, 오늘은 저 저듸서 먹어 부난 안 먹쿠다, 영 허믄.

@1 응.

#1 아이 게믄 게도 먹어보라, 먹어보라. 게믄 아니 먹엉 가는 분들은 그대로 가곡 어떤 분들은 앚아근에 적, 소주 훈 잔에 적갈 훈 점 영 줍아먹곡.

@1 으.

#1 경 헹덜 가곡.

@1 경 허영 가곡예?

#1 또 뭐헌 어룬덜은 돈 그냥 세뱃돈 애기덜 와시믄 영 줍아주곡.

@1 으. 게난 세뱃돈은 꼭 줘구나?

#1 꼭 줘주. 건 첨 똑 준돈덜 바꽈당 놧당 첨 꼭 줘주.

차례

@1 으. 게믄 이제 그 제헐 때는 멧 시부떠 제는 지내마씨?

#1 멧 시부떠가 아니고.

@1 응.

#1 아칙이 이제 방상 한 집이들은 한 일곱 시 반부떠 준비헤근에 허면은 이 집이 강 일곱 시 반 뒈엉 허면은 한 일곱 시 사십 분, 오십 분 뒈민 또 요 집이 가곡. 요 집이 강 절만 헤둬근에 또 요 집이 가곡.

@1 으.

#1 경 허멍덜 헨 돌아가멍덜 그 방상이, 그 동서들이 한 집안엔 초상들이 한 집이들은 경 허당 보면은 어둑으는 집이 많앗주.

@1 그니까 삼춘네는 큰집이엇구나. 게난 네 시에 허니까.

#1 우리는 우리는 둘째 집인디.

@1 으.

#1 큰집이 허곡. 그냥 우리는 그냥 계속 ᄀᆞ찌 강 헤야 뒈.

@1 아.

#1 큰집이 같이, 어머니네가 네 동선디 네 동서가 그냥 식게고 멩질이고 빠지지 안허영 안 가믄 벌금 낼 정도로 그냥 그렇게 단체가 좋게시리헨 우린 먹어나 부난.

@1 으.

#1 그 행실을 이제도 헴주게.

차례상

@1 게믄 그 설 때, 이런 차렛상예, 그거는 어떤 것들 올려?
#1 그냥 과일은 기본으로 세 가지. 옛날은 어려우난.
@1 예.
#1 세 가지만 올리곡.
@1 으.
#1 저 생선허곡 떡허곡.
@1 으.
#1 그냥 메 올리곡 콩ᄂᆞ물허고. 여기는 채소도게 삼 가지만.
@1 예.
#1 콩ᄂᆞ물허고 고사리허곡 또 저 옛날은 시금치. 이제 잡채 나와가난 잡채 이제 허곡.
@1 아.
#1 그 옛날에는 잡채 엇일 때는.
#2 잡채가 엇엇주게.
#1 엇일 때는 콩ᄂᆞ물허곡 고사리허곡 그냥 시금치. 경허영 데왕 올리곡, 경헷주게.
@1 게난 여기도 집집마다 쫌 상차림이.
#1 틀리지.
@1 틀리지예?
#1 하영 출리는 집, 족영 출리는 집. 다 틀려.
@1 상 이렇게 허게 뒈면 맨 앞에예, 여기가 신위 이렇게 모시면.
#1 모시면.
@1 젤 앞에는.
#1 밥.
@1 밥허고.
#1 으.
@1 겡, 겡하고 메하고, 겡하고.
#1 으.
@ 이렇게 놓을[놀] 거 아니예?
#1 밥, 으, 거긴 밥.
@1 숟가락은 영 놉니까, 영 놉니까?
#1 게난 것이 집안마다 틀리데.
@1 예.
#1 영 놓는 집 싯고, 영 놓는 집 싯고. 집안마다 틀려.
@1 게난 삼춘네 집은 어떵 놔?
#1 우리 집안은 다 이렇게 놔.
@1 이렇게, 이렇게, 이 앞에예?
#1 으.
#2 정석으로.
@1 예?
#2 정석으로.
@1 정석으로.

#2 으.
@1 게믄 이게, 저기 숟가락이 밥 먹는, 이쪽에 들어갈 거꽈?
#1 안으로 들어갈 거주게.
@1 아니, 아니. 숟가락 순서는 영 뭘 건가?
#1 아니, 영 ᄀᆞ찡이 올령.
@1 으.
#1 수저허곡 하시허곡 허민 이건 수저, 이건 하시 영 헤근에 영, 영 헹 올리면은 그냥 수저 앗앙 먹곡 그다음 하시 헤근에.
@1 수저가 앞에예?
#1 그렇지.
@1 아, 이렇게 옆으로 안 놓고 이렇게 놓는 거라예?
#1 으, 우리 집안은 그렇게. 이제 우리 강칩이도 그렇고 우리 한칩이도 그렇고. 그렇게.
@1 한칩하고.
#1 강칩.
@1 강칩예. 게믄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는 무시거 놔?
#1 그다음엔 채소.
@1 채소. 채소가 아까 시금치.
#1 콩ᄂᆞ물, 고사리.
#2 고사리.
@1 예, 거기 떡은 안 놔?
#1 떡은 그다음에.
#2 그다음에이. 이.
#1 그다음에.
@1 아, 이 밥 다음에, 밥 다음에는 채소 올려마씨?
#1 채소 올리곡 그 옆으로는 떡.
@1 이렇게 세 개.
#1 응.
@1 떡은 이 옆으로?
#1 떡 옆으로 영 양쪽으로. 저렇게 상 놓면은 양쪽으로.
@1 양쪽으로 떡 올려?
#1 으, 멩질 때, 멩질 때는.
@1 예. 멩질 때 이거.
#1 멩질 때, 아, 멩질 때는 송편, 시리떡 허면은 한 세 군데 올리곡.
@1 예.
#1 그 마지막 절허는 쪽에 저쪽에는 과일.
@1 여기는 과일 올리고.
#1 동쪽에는 파란, 첨 저 저 빨간 사과, 이제 그 사과.
@1 동쪽으로는 사과. 예.
#1 가운디는 뭐.
@1 귤.
#1 감이나 귤이나 무시거 올리곡.

@1 예.
#1 또 서쪽으로는 배.
@1 으. 게믄 그 양쪽으로 떡을, 떡을 양쪽으로 올려예?
#1 그렇지.
@1 그다음에 그 고기 같은 거는?
#1 고기 같은 것도 그냥 이 채소 뒤에 영 놓는 거주.
@1 그 바닷고기허고 육고기를 ᄀᆞ치, ᄀᆞ치 놉니까?
#1 어떤 분덜, 어떤 집안은 바닷고기에 육고기에 이런 전을 한꺼번에 허는 집안도 잇고.
@1 예.
#1 또 따로따로 허는 집안도 잇곡. 게난 예를 들러서 초상이 많은 집에는 따로따로 이렇게 올리고.
#2 겸헤 가지고이, 겸헤 가지고.
#1 첨 많은 집에는 겸헤서 그냥 올리고.
@1 으.
#1 초상이 얼마 엇인 집에는 따로따로 그냥 이거, 전, 고기, 뒈지고기, 생선 이렇게 따로 허곡.
@1 음.
#1 이제 초상이 많은 집에는 그냥 겸헤서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올려근에. 예를 들엉 오늘 우리 집이가 이제 초상이 여덥 분이다 허면은.
@1 으.
#1 여덥 개에다가 그냥 하나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려근에.
@1 쌓아근에.
#1 놓곡.
@1 예, 예.
#1 엇인 집이는 그냥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놓곡.
@1 아.
#1 게난 가족 한 집이덜은, 초상덜 한 집이덜은 막 경헹, 겸헹 올려도 넘어나면은 차롱에 그냥 솜박. 그냥 막 넘치주.
@1 예, 근데 이제 우리 삼춘네는 따로따로.
#1 따로따로.
@1 으, 따로따로 헹은에. 여기.
#1 친정에는 하지 아녀난 따로따로. 씨집이는 시아방이 여덥 분이라부난 그냥 한꺼번에 그냥.
@1 으.
#1 ᄒᆞᆫ 사람 찍시, 두 사람 찍시 헤근에. 그냥 모둠으로 이렇게 올리고.
@1 모둠으로. 거기에 육고기 적갈부떠 시작헹 생선까지 다.
#1 생선까지.
@1 아.
#1 경 헹 전까지. 계란전까지 헤근에 올령.
@1 아, 여기 계란전까지.
#1 으. 게난 그 집이 초상이 멧 명이냐에 따라서 상이 부족지 아녀면은 이렇게 펴 놓곡. 상

이 좁앙 우린 밥을 열일곱 개 올려 놓니까[노니까]예.

@1 으.

#1 우리 강칩인 나가 밥을 열일곱 개 올려 놓니까. 밥 올리는 것도 이런 상 두 개 놓민은[노미는] 막.

#2 족아.

#1 왕 다대길 정도로 앚앙 잡솽 가게 뭘 정도 뒈주게.

@1 으.

#1 열일곱 갤 거려 놓니까.

@1 예.

#1 이 상이 두 개에.

@1 아이고, 초상이 진짜 한 디구나.

#1 난 골 아판 살지 못헌 사람. 이제는 합제헤 부난 헤도 첨, 한 오륙 년끄지만 헤도 이 열일곱 번을, 멩질끄지 열일곱 번을 헌 사름이라.

@1 일 년에. 흔 달에 두 번?

#1 어떤 땐 두 번, 세 번.

@1 어. 아이고, 속앗수다게.

#1 어떤 땐 두 번, 세 번. 폭삭 속앗주게. (웃음)

@1 예.

#2 게난 자손이 많은 집안에 대헤 가지고는 형제간들이 많으믄, 게니까 제사는 보통 뭐, 지금 뭐 그 유림 계통에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고 잇겟지만은 고조는 지제를 헤 버려, 고조는.

@1 예. 고조는예, 증조까지만 허고.

#2 거의가 어느 집안이든지 다 그렇게 하는 걸로 보는데. 증조, 당조, 당조까지만 하는데 그 당조 형제가 만허니까, 아까 지금 십칠 명, 메를 열일곱 갤 올리젱 헤믄 그 상당히 형제가 많다는 거라.

#1 아니.

@1 일고, 여덜 허민게 할머니 둘 헌 데도 잇일 거고.

#1 아니.

#2 (웃음) 큰시어멍도 잇고.

#1 아니, 아니, 게난 큰시아방, 큰시아방, 큰시아버지네가 아덜 군인 간 죽어 부난 세 분, 어머니 아버지에 세 분. 이제 셋아버지네가 또 두 분에서 아덜 둘 다 ᄉᆞ삼사건에 영 군인 간 죽어 부난 경허난 일곱 번. 그디 또 고모 하나 부찌난 여덜 번. 시어, 시할망, 시하르방, 시어멍, 시아방 이렇게 헤 가니까 열일곱 번이 뒈 부난 멩질끄지 허민 열일곱 번 뒈어.

@1 예. 경 허크라.

#1 게난 매날, 그냥 매날 식게칩이주게, 매날 식게칩.

콩ᄂᆞ물 놓기

@1 게난 옛날엔게 콩ᄂᆞ물여 놓젠 허민 맨날 놔시큰게예?

#1 경 헷주게. 경 헤근에 어떤 땐 썩으믄. 게난 또 옛날은 콩ᄂᆞ물 놓민은 잘 썩주게.

@1 예.

#1 물 줄 줄도 모르고 지금은 약으로 허는데.

@1 으, 으.

#1 그때는 경헹 허면은 또 만일에 이제 썩엉 못허면은 이제 옆집이 이제 궨당집드레 전화 허영은에 콩ᄂᆞ물 남으크냐? 헤믄 남으켄 허민 ᄒᆞ꼼 ᄃᆞ렌 헹 아져당 허곡.

@1 예, 맨날 놔도예?

#1 맨날 놔도게, 그게 썩어 불믄 그냥. 옛날은 시리에 이렇게 놓면은 그게 발효가 잘 안 뒈더라고. 아, 이젠 허믄 잘 허지.

@1 으.

#1 그때는 그냥 둘아뎅기당 보믄 그냥 잊어불엉 물 안 주곡. 어떤 땐 또 즘잣당 보믄 또 잊어불엉 안 주곡 허민은 허는디 지금은 허젠 허민 잘 허주게.

@1 예.

#1 모든 것이, 이젠 늙으난 이젠 다 경험이 하부난.

옷 준비

@1 예, 맞아예. 맞수다. 게난 그추룩 헹은에 이제 하고. 정월 멩질에 특별히 뭐 옷, 준비허거나 이런 건?

#1 하이고, 한, 한복 남저들은 한복바지 저고리덜 헤근에 ᄉᆞᄆᆞᆺ 다령 문 헤 놓곡 여자덜토 한복덜 입엉덜 꼭 뎅기곡. 아기덜토 문딱 한복덜. ᄉᆞ나이덜은, 한 남자 한복바지 저고리.

@1 으.

#1 여자들은 또 치마저고리 헤근에 색동옷덜 헤근에 주멩기덜 둘멍덜 문헨. 우리 이제 마흔다섯 난 아덜덜ᄁᆞ지 마흔둘 난 똘ᄁᆞ지 또 그추룩 헹 키왓주게.

@1 아.

#1 그때ᄁᆞ지만 헤도게, 아주 첨 멩질이 궹장헷주.

@1 으. 게믄 그때 다 그 때때옷으로 그냥 한복헹 다 입혓어예?

#1 그렇지, 응. 다 입져야지.

@1 아.

#1 안 입지민 놈으 집 아이 입어시믄은 집이 왕 둥그렁 그냥 난리가 낫주게.

@1 으.

#2 때때옷도 잇는 집안.

@1 잇는 집안예, 맞수다.

#2 없는 집안은 그걸.

#1 게믄 없는 집안은 광목치메에, 흰 광목저고리 입어근에 그냥.

#2 그렇게 헷주게.

@1 으.

#1 껌은, 껌은 광목치마에 흰 저고리.

@1 흰 저고리예. 삼춘네는 막 부자라난.

#2 궨찮게 사니까.

#1 으, 우리, 우리덜은 궨찮으게 산 집안들이주게.

@1 예.

#1 이 회장님네는 아주 더 부제주만은 우리.

#2 부자. (웃음)

#1 더 부제주만은, 할르버지가 ᄒᆞᆫ 분 헤서 막 부젠디, 우리는 하르버지는 부젠디 아들덜 니개라 부난 헤도게, 우리도 막 첨 두 번째 가렌 허민 서운헐 집이주게.

떡국멩질

@1 음. 그추룩 허영은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혹시 여기는 저쪽 선흘 가면예, 새벽에 멩질 지내기 전에 국멩질이렌 헹.

#1 떡국.

@1 떡국멩질, 여기도 헙니까?

#1 여기도 허는 사람도 잇고 아녀는 사람도 잇고.

@1 아, 삼춘은 헤난?

#1 우리는 친정엔 아녀는디 시집인 헤여.

@1 아, 그.

#1 웨냐허면은.

@1 떡국멩질 굴아줘 봅서.

#1 떡국멩질을 그냥 뭐 옛날은 그냥 메리치 국물 끓영, 아 겐디 우리는 소고기 헤다가 그 소고기로 헤근에 떡, 떡 놩. 무사 헤신곤 허난, 아까 말헷주만은 우리 집인 돌아오젠 허면은 혼 세 시 넘어 불어. 겨믄 할머니, 하르버지 배고팜젠 헤근에 새벽에 나가 헤당 좍 그냥 그 떡국을 헹 올렷다근에.

@1 그 열 멧 개를 다?

#1 으. 열일곱 개 거려근에 올령.

@1 아.

#1 겨믄 하영은 아니곡, 혼 국자썩게.

@1 예, 예.

#1 혼 국자썩 허믄 이젠 또 집에 이신 사름은 거 먹곡, 제 보레 뎅기는 사름덜은 제 봥 오다근에 젤 마지막에 오면은 그땐 메 올령. 밥이 막 그냥 바닥바닥 물를 정도로 식주게.

@1 으.

#1 경헤도 어쩔 수가 없지, 방상이 하 놓[노]니까.

@1 그러니까.

#1 으.

@1 게믄 떡국멩질 헐 때는 그 떡국은 무신걸로 헤수과? 옛날 모멀로도.

#1 옛날 메밀, 메밀로 헤근에 그 저 반죽허여근에 저 밀어근에 그 썰어근에게. 채 써, 채 썰엉. 우리 지금 요지금도 저.

#2 ᄀᆞ레 굴앙.

#1 칼국수 이렇게,

@1 칼국수 허듯이.

#1 칼국수 헹 먹켄 허는 것이 그거주게. 경헹 반죽헤근에 그거 밀아근에 그거 썰어근에 허면은. 계란 집이서 둑세기 나면은 그거 하나 탁탁탁탁 풀어놔근에 그자 그거.

@1 아, 그런 식으로 헹은에 여기도 떡국멩질 헹은에예?

#1 허는 집인 잇어.

#2 허는 집인 허고 안 허는 집은 안 허고.

#1 게난 어느 정도 사느냐에 따라서.

#2 지금 말씀헤 가니까 허는데 난 처음 듣는 이야기라.

@1 게난. 김칩인 안헷구나.

#2 명일날.

#1 아니, 우리 회장님네는 아무 분시도 몰르게 밥 집이서 먹으믄 그냥 걸로 끗나지. 집이서 어떻게 어멍네가 하는 걸 몰라.

#2 경허주만은 이.

#1 하도 귀허게 난 아덜덜이라 부난.

#2 신도.

@1 예.

#2 오늘 멩일이니까 신이 다 내려올 거 아니라게.

@1 예.

#2 게. 명일을 찰려 드리는데 오시느라고 배고플 것이다. 제라하게 멩일을 할 멩질을, 본제 지내실려면은 한 열한 시나 열두 시, 이런 시간이 뒈기 때문에 그간에 배 고플 것이다 헤갖고 사전에 이제 조상님들안테 인사를 드리기 위헤 가지고 이제 떡국을 헨에 올렷던 그.

@1 예. 게난 그 떡국멩질은 멧 시에쯤 올려마씨?

#1 한 여덜 시, 아홉 시 뒈믄.

@1 여덜 시, 아홉 시? 거난 다른 동네는 새벽에, 둑 울 때 헌덴 허거든예?

#2 여기는.

#1 아, 우리는 그런 건 아녀고.

@1 그런 건 안 하고.

#2 딴 데는.

#1 그런 건 아니고, 둑 울 때.

@1 게믄.

#1 그디덜은 그 저.

#2 둑 울 때.

#1 그 선흘쪽드레는 농, 촌이다 보니까, ᄒᆞ꼼 그런 면도 잇엇주게.

@1 으. ᄒᆞ꼼 ᄯᅮ나예? 예.

#1 ᄯᅮ나, 이 풍속이 틀려. 웨냐허면은 여기는 ᄒᆞ꼼양, 즉 말허면 양반 동네로 표현을 허, 허믄 뒈고.

#2 (웃음).

@1 으.

#1 거기는 중간.

@1 으.

#1 저 남군드렌 가면은 더 막 그 옛날 그.

@1 못 살고.

#1 으, 그런 것이 잇주게.

금기 사항

@1 예. 그다음에 이제 정월 멩질, 뭐 떡 치거나 이런 거나 헐 때 뭐 허지 말라 허는 금기사항도 많아예. 뭐, 정월엔 바농질도 허지 말렌 허고. 이런 말은 엇수과?

#1 섣둘그믐날은 줌자지 말렌.

@1 으. 섣둘그믐날은 줌, 음.

#1 무산곤 허난, 눈썹 희여 분덴.

#2 머리 흰덴, 눈썹 흰덴.

@1 예.
#1 (웃음)
#1 눈썹 히어 분덴 헹 우리 ᄀᆞ만히 앚안 살아낫어.
@1 어, 섣둘그믐 줌자민 눈썹 흰덴예. 예.
#1 눈썹 흰덴 헤영. (웃음)
@1 그다음에 저 뭐는. 멩질날은 겅 허지 말렌 헌 건 엇어?
#1 그런 건 엇어.
@1 아.
#1 그런 건 엇고.
@1 멩질날은 엇고예.
#1 정월 보름날이믄 올레 베꼇디 나가지 말라.
@1 으.
#1 정월 보름날은 무산곤 허난 그 예를 들렁 오늘 우리 집이, 금년에 우리 집이 저 애환이 잇겟다, 궂겟다 허면은 그 미신 만들어다근에 질레 놔 불민은 그거 봉 놀래면은 이제 저 아픈덴 헤근에 정월 보름날은 못 나가게 헤근에 안 나가게시리 헤근에 딱 금지 내려낫주.
@1 무신 거 만들아마씨?
#1 그냥 그 도체비, 도체비 무시거옝 ᄀᆞᆯ 거꽈? 무시거 만든덴.
@1 허멩이, 허멩이처럼.
#1 그 저 굿허는 디 가면은 이렇게 그 산듸찝으로 헤근에 만들어근에 구신 만들잖아요, 영.
@1 예, 예.
#1 이 사름 옷 입진 것 ᄀᆞ추룩 헹.
@1 예.
#1 경헤다근에 그디 그냥 집이서 음식 만들어근에.
@1 끌레기 영 헹은에.
#1 ᄒᆞ꼼썩 ᄒᆞ꼼썩 헤근에 그냥 질레에 놓면은 넘어가는 사름덜 막 놀래어근에 난리나주게.
@1 으.
#1 경허민 그추룩 못허게시리 헹 정월 멩, 보름날이면 못 나가게 허곡.

방쉬

@1 게난 정월 보름은 그게 방쉬?
#1 방쉬. 방법, 것이 방법.
@1 방법.
#1 방법.
@1 방법 헹예?
#2 액운을 혹시 액운이라도 받앙 올 건가.
#1 액운 마타 오카 부덴.
#2 헤 가지고. 경헹 자손들을.
#1 아니 경헹 액운 마타다근에 뭐헌 사름덜토 많아.
#2 정월달에는 뒈도록이면은 외출을 금지하도록 헤. 부모들이 다스리주게. 자식들한테.
@1 정월 대보름날엔예?
#2 어.

@1 어. 게난 액막이도 그날 허는 거 아니라예?

#1 그럼, 보름날 액막이 허는 거주.

연날리기

@1 액막이 하고. 거난 그 보름날 액막이도 허주만은 그 뭐냐, 연날리기도 하고 이런 것도 헤수과? 여기도?

#2 아, 여기도 그 건 명일날 하기, 하기에는 뭐 제를 일찍 봐 가지고 하면은 그 세뱃돈을 연으로 만들어 주면은.

@1 예.

#2 연으로 만들어 주면은 그 연을 애들이 갖고 나가 가지고 밖에서 연 놀이를 하는데.

@1 예.

#2 하는데 거의가 근래가 와, 아주 옛날에는 마, 그것도 하나의 자손들이 그 조상들이 준 선물이라.

@1 예.

#2 아주 즐겁게 연놀이도 헷던 적들이 잇는데.

@1 예.

#1 어, 우리 회장님. (웃음)

@1 게난 게난, 예전에는 세뱃돈 식으로 연도 멘들아 줜예?

#1 그렇지. 연도, 연도 대 헤다근에 까까근에 문 집이서 아버지들이 문 까까근에 만들어 주곡.

@1 으.

#1 이제 그 연 만드는 것도 엇인 집잇 아이들은 그냥 책장으로 헤근에 이런, 지금은 이런 책들, 공부허단 책들 헤근에 찢어근에 걸로 허영 만들앙덜 쓰곡.

#2 부쳥.

@1 부쳥. 부쳐근에.

#1 부쪄근에.

@1 으.

#2 신문지도 없지.

#1 으.

@1 예.

#2 신문지는.

#1 엇인, 잇인 집잇 애기덜은 그 창호지.

창 불르기

@1 창호지 헹은에.

#1 그 옛날은 정월 멩질 허젠 허민, 팔월 멩질 허젠 허면은 문 다 뜯어근에 ᄆᆞ딱 시쳐근엥에 그 종이 문 떼 둬근에 풀 쒀근에 것도 풀 쒕.

@1 예.

#1 풀 쒀근에 그 창호지 헤근에 새로 다 이제 창을 불르주게.

@1 예. 팔월 멩질 때?

#1 으, 팔월 멩질에. 경허당 남은 걸로 놧다근에 이젠 연 멘들아 도렌 허민 걸로 만들아,

아이덜 만들아 주곡. 옛날은 복잡허게 살앗주게, 아주. 정월, 팔월 멩질 나믄 종손칩이 가근에 그 스뎅그릇 문 여자덜 산듸찝으로 헤근에.

#2 따끄곡.

#1 저 모살헤다근에 문 그거 반짝반짝허게시리 밀어근에 그 저 그릇덜토 문딱 그 종손칩이 가근에 문 밀엉 내놓곡.

@1 예.

#1 옛날, 옛날은 밧딘 일 허당 보믄 방상 일 허당 보믄 그냥 어둑억붉악 헌 거 닮아마씀. 헐 것이 엇어.

#2 어쨋든 집안에 그렇게 아까도 그 뭐 조상들이 많은, 많지 않드레도.

@1 예.

#2 으, 명일을 차리기 위헤 가지고 지내기 위헤 가지고는 젯그릇을 단, 마련을 헤야 뒈는데, 젯그릇을 그 따까 넣어야 뒈는데 그럴려면은 아주머니들이 모여앉아야 뒈어.

@1 예.

#2 메누리들이.

#1 메누리들이 문 모영. 종손칩이.

#2 다서여섯 모여 앉아 가지고. 그 따끌 물건이 없어. 그러믄 재, 재.

@1 예, 재.

#2 재하고 그 산뒤찝, 산뒤.

@1 예, 산디찍.

#2 산뒤찝 헤 가지고 모래 적셔 가지고 하면은 이게 또 놋쉐 같은 건 잘 다껴요.

@1 예.

#2 반직반직허게.

#1 게난이 모살허곡 재허곡 서끄믄 뭐, 백발백중이라.

#2 어, 잘 다껴.

@1 아, 여기 검은모래들.

#2 뭐 검은모래 쪼금 묻히면서 하면은.

#1 기가 멕히게 지어.

#2 아주 첨 윤기 나게 따끼주, 그걸 하루 일과로, 일과로.

@1 으.

#2 멩일이 닥치, 닥치기 전에는.

#1 게민게, 멧그릇만이라게. 메 뜨는 동이, 밥자. 밥자도게 그 놋, 놋밥자 이만은.

@1 예, 예.

#1 이만은 허주, 이만은 헌 거.

#2 낭푼이여, 다.

#1 낭푼, 그냥 종지여, 미시거여 다허면은 그냥.

#2 하루 일과, 하루 일과라.

#1 첨, 하루 일과를 흔 서너너이 앚이면은 하루종일 다까야지.

@1 예. 게난 그때 써난 그 동이들 이수과, 집에?

#1 아이고, 우리, 우리 종손 그거 그냥 그 그릇 바꾸는 사람 완 바꽈 부난 우리 아부지안티 매만 안 맞안 ᄉᆞ뭇 내조치다시피 헤낫주.

@1 으.

#2 일제, 일제시대에.
#1 그 작산 할아버지 거 다.
#2 일제시대는 일본 사름들이 거.
#1 아, 그거 잇인 집이 흔 집이 잇다.
@1 아.
#2 화약을.
#1 고 선생네 집이.
@1 동이, 동이.
#1 고 선생네 집이 동이ᄁᆞ지는 모르고 낭푼허곡 놋그릇은 많이 있어.
#2 거, 우리, 우리도 있어, 집이.
@1 아. 나중에 사진 좀 찍으믄 좋을 거 닮아예?
#2 어.
#1 예, 예.
@1 에, 헷던 거.
#2 것도 따까야지. 지금 고대로 창고에 쳥 내비 둼.
@1 아니 경헤도 찍고 웨냐면 세시풍속할 때 요, 요렇게 같이 사진이랑 요렇게 놓으면 좋을 거 닮아예? 저희들 책 만들, 이거 책 만들 거거든마씨.
#1 아.
@1 예.
#1 아이고, 아주 좋주.
@1 예, 거난 그런 거 쫌 저기 잇는 분들예 헤서, 사진.
#1 고 선생네 집이 허고 저 회장님네 집 허고 고 선생네 집잇 거 허민 충분헐 거우다, 아마.
@1 예. 그렇게 이제 하고. 아까 연날리기 헐 때, 그 정월 대보름 할 때 연을 저기 불부쪙 방쉬허지는?
#1 그런 건 엇어.
@1 그런 건 엇고예?
#1 으.
@1 그다음에 게믄 액막이헐 때는 그 아까 그 그 끌레기 헹은에 거기에 밥이영 이런 거 낭 놓는 것만?
#1 그런 사름덜은 많이가 아니고 어떵, 어떵허당 그런 사름덜이 이서 부난 못 나가게 헌 거고.
@1 으.
#1 우리 이 우리 삼양에서 내온 풍속은, 이제 그 정월달 나면은.
@1 음.
#1 액막이 허는 것이 집안에 그 저 아이고, 무시거옌?
#2 춤 어려운 자손덜이 발생뒈거나.
#1 저, 칠성제.
@1 예.
#1 조왕제.

마을제

@1 으.

#1 이거를 이제 정월, 정월 나근에 첫 소날에 마을제 헴수꽝?

#2 마을제.

#1 정월 멩질 넘어근에 첫 번 소날이우꽝? 무신 날이꽝? 범날인가?

@1 정해일.

#2 정해일로 뒈지날.

@1 정해일, 뒈지날.

#2 어, 뒈지날이나.

#1 뒈짓날이나 그 정월둘 나면은 첫 번으로 그 달력에서 첫 번으로 그 뒈지믄 뒈지날에 이 마을젤 헐 거 아니꽈?

@1 마을젠 어기서 헙니까?

#1 옛날에는.

@1 응.

#2 당이 잇어, 여기.

#1 저기 공회당이 이신디, 공회당에서 이제 제관이 그때 일곱 사람이엇든가, 아홉 사람이엇든가 허면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아버지가 동네.

@1 일하니까?

#1 유지고, 말젯아버지가 또 서기고 지금 같으면 총무.

@1 으.

#1 경 헨 허믄, 그, 심부름을 헤 부난에 알암수다게.

@1 예.

#1 경허믄 그 제관들이 그냥 공회당에 강 잠자. 집이 못 와.

@1 응.

#1 그디 딱 ᄉᆞᆺ 메여근에 허면은 거기서 허면은 거기서 이제 그 마을에 이제 돗 잡는 하, 하르방이 옛날 셔나수다게. 겨믄 그 어른이 돗 잡으면은 창자만 빼곡 그냥 고스란히 돗 ᄒᆞᆫ 마리치를 그 어른이 지어근에 요디 당이 이수다.

@1 예.

#1 그 당이 이제 엇엇졋지예?

#2 이 당이 시가지.

#1 요디 이제 아파트 짓이멍 이제 그거 엇어져실 거우다만은 그게 이제 당을 이렇게 저 담으로.

@1 음.

#1 이렇게 싼 잇어.

@1 예에.

#1 웬당봉 가민은 이제.

#2 제단 모양으로 제단.

#1 제단ᄀᆞ치룩.

@1 으.

#1 경 헹 허민은 그디 가근에 그냥 돗 ᄒᆞᆫ ᄆᆞ리 그냥 딱 허게시리 그냥.

@1 으.

#1 상 우이 탁 엎어지와근에 영 헹.
@1 으.
#1 경헹 엎어지와근에 이젠 그 마을제를 헤나면은 그걸 지엉 또 공회당엘 와.
@1 으.
#1 오민은 이제 그때사 각각이 이젠 찢어근에 잡아근에 그걸 숣아근에 먹젠 허믄 두 시, 세 시 뒈도록 그거 궤기 흔 점 얻어 먹젠 동네 사람덜이 다 강 몰려 앚앙.
@1 음.
#1 조랑조랑조랑 앚앙. 경 허믄 난 우린, 우린 가 보진 아년디 우리 아버지가 궤기 영 적꼬지에 뀅 와.
@1 음.
#1 댓 점을 뀅 오믄. 이제 그거 먹으렌 허믄은 우리 어머니가 오늘도 많이 간? 영 허믄. 아이고, 이것도 난 안 아졍 오젠 헤가난. 우리 어머니가 ᄒᆞ꼼 몸이 안 좋안 아프난에.
@1 으.
#1 할망 안네젠 헨 아져 왓어 허멍 적꼬지 헤근에 그 대고젱이 영.
@1 예.
#1 댓 점 뀅 아졍 오곡게. 그 예, 먹을 것이 엇어. 다 갈라 먹당 보믄예.
@1 으.
#1 멧 점썩, 멧 점썩 안네다 보면은 돗 흔 ᄆᆞ리 잡은 걸로는 족주게. 지금 ᄀᆞ트믄 막 잔치 허주만은.
@1 예.
#1 어려운 시대니까.
#2 석 점. 요만씩 끈어 가지고.
@ 석 점.
#1 경 헹 허단에 지금은.
#2 석 점 정도.
#1 지금은 이 회관에서 준비허곡.
@1 음.
#1 이, 이칭에서 헴수광?
@1 마을제.
#2 마을제를 쭉 한 멧 년 전까지만 하드레도 이 이 구획정리하기 이전에.
@1 예.
#2 구획정리는 헌 지가 얼마 안 뒈 부난에.
#1 이십 년 전에는. 이 지금 구획정리 헌 지가.
#2 지금 얼마 안 뒈니까.
#1 마무리 시작허건 디가 딱 십구 년이우다게.
@1 십구 년. 예.
#1 예, 게난. 십구 년 전에는 거기서 헤수다.
@1 음. 당에서예. 예.
#1 예. 건디 마을 이제 구획정리헌 다음에는 내가 몸 아파 부난에 지금 마을에서 허는 것을 회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잇는데 저도 막 큰 환자라나부난.
@1 음.

#1 암환자가 십팔 년인데.

@1 아이고, 아픈 거 닮지도 안헌디.

#1 예, 경헌디. (웃음). 경헌디 지금도 멩심헴수다게.

@1 예.

#1 경헨 헤신디. 그 마을에서 이젠 헐 때. 이제는 이 회관에서 그자 와근에 다 여기서 다 모영덜 청년덜이영 임원덜이영 다 이제 모여 앚앙 놀곡. 이제 여기서 준비허곡.

@1 음.

#1 여기서 이제 다 행사허곡. 경허믄 또. 지금은예, 머리 하나로 허니까.

@1 음.

#1 미리 고기를 갈라당 쏢아.

@1 아, 옛날엔 다 생으로 헷잖아예?

#1 예. 쌩으로 헷는데 지금은 그냥 오늘 저녁에 헐 거다 허면은 뭐 회니 사시미니 뭐 궤, 고기니 둑이니 먹구정 헌 냥 헤당덜 막 잔치로 헹 먹곡. 이제는, 옛날은 그 마을젠디 이제는 동네 잔치.

@1 동네 잔치가 뒈 불엇구나예?

#1 뒈 불언마씨게.

@1 으.

#1 그런 식으로 지금 헹사허고 이수다.

@1 예.

#3 이제도 올리는 건 셍으로.

@1 아, 올리는 건 셍으로 이제 하고?

#1 돗머리 하나.

@1 하나는 음.

#1 머리 하나.

@1 음.

#1 경허믄 남은 건 노인당 할머니들 안넵센 헤근에 둣날은 노인당에 아져오곡. 머리는.

@1 음, 머리는.

#1 예, 익은 것들은 그날 또 회식허곡.

@1 음. 게난 정월 멩질이 아니라 그 마을제 헌 날이 젤 크컨게, 이제는예?

#1 예.

#2 제일 행사로는 그 저 시습, 그 우리 풍습으로.

@1 예.

#2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로는 제를 봉행하고 난 다음에는 전부 여기에서 여기가 이빠이.

@1 예.

#2 여기가, 어.

@1 아, 여기 요번에 왕 보니까 진짜 합디다게.

#2 이렇게 많이들 참석을 헤 주고, 또 그 부조를 한다고 헤 가지고 다소 얼마씩 자기 정성껏.

@1 예.

#2 저 제물을 올려 보태 가지고, 올려 주십사 헤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잇고 헤서.

#1 돈도 가져오곡 음료수도 가져오곡 술도 가져오곡 다.
#2 기금도 상당히 많이, 많이 조성이 뒈고.
@1 아.
#1 것도 허젠 허민예, 우리 저 일동에 가면은.
@1 으.
#1 이 저 빨래터렌 헤근에 보면은 거기 물통이.
@1 물통.
#1 일곱 개 아니우꽈?
@1 예.
#1 겐디 지금 그디 가면은 이거, 이거는 빨래터라예?
@1 예.
#1 겨믄 옽로 가면은 여기가 물통 잇어예.
@1 예.
#1 요 안에 가믄 모욕허는 여자 모욕탕예.
@1 으.
#1 게믄 이 물이, 옛날에는예. 여기 솟을 딱 메여.
@1 음.
#1 산디찝으로 끄네기로 헹 영 꼬아근에.
@1 으.
#1 경헹 여기 솟 메믄 이 물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
@1 으.
#1 일주일 동안은.
@1 응.
#1 마을제 끗날 때까지는. 게믄 이 물 질어다근에 모욕 시기곡, 이 물 질어당 제물 허곡, 다 준비허곡.
@1 응.
#1 경 헨 허다가 흔 한 삼사십 년 뒛지?
@1 응.
#1 그때부떠는 그 물을 이용을 안 헤수다게.
@1 예.
#1 예, 나는 지금 나서 여기서 컷기 때문에.
#2 수돗물 나오기 시작하니까.
#1 수돗물 나오기 시작허난에 이젠 이디 솟 메는 건 엇곡 마을에는 솟을 메다가.
@1 응.
#1 솟 메는 것도 구역 정리 끗나난 솟 안 멤서양?
#2 아, 지금도 멥니께, 쩌 밖으로.
#3 회관 안에덜.
#1 게난, 회관만 멤주. 동네 마을에.
#2 밖으로 메어. 밖으로 메어.
#1 저 그 전에는 이동 골목으로도 메곡, 차부 골목으로도 메곡, 신촌 골목으로도 메곡.
@1 못 오게시리예?

#1 못 오게시리. 다 이 동네 마을제 헌다 허는 표실 헤근에 메어나신디.
@1 으.
#1 이제는 그냥 이 둘레만 쪼꼼 허여근에 그 옛날 방식은.
#2 정성으로.
@1 예.
#1 예, 엇어마씸.
#2 정성으로.

물 이름

@1 예, 예, 예. 게난 그 아까 설개에 물통이 일곱 개렌 헷잖아예?
#1 예.
@1 물통마다 다 이름도 이수과?
#1 예.
@1 그 일곱 개 물 이름을 골아줘 봅서.
#1 엉덕.
@1 엉덕.
#2 엉물, 엉덕물.
#1 아니, 엉덕물.
#2 엉덕물.
#1 저, 족은엉덕.
@1 족은엉덕.
#1 또 셋더레.
@1 셋?
#2 셋더레.
#1 셋드레, 셋드레.
@1 셋ᄃᆞ레.
#1 셋드렛물. 셋드렛물. 셋드렛물.
@1 으, 셋드레물.
#1 셋, 셋드렛물. 드렛물.
@1 예, 셋드렛물.
#2 큰물.
#1 큰물. 또 여자 모욕탕. 또 남자 모욕탕.
@1 음.
#1 또, 아이구.
#2 ᄃᆞᆨ텅에.
#1 ᄃᆞᆨ ᄃᆞᆨ, ᄃᆞᆨ ᄃᆞᆨ텅에, ᄃᆞᆨ텅에.
@1 예, ᄃᆞᆨ텅에. 텅에 닮앗구나.
#1 멧 개 써졋수과?
@2 일곱 개.
@1 일곱 개.
#1 으.

@1 게믄 이 중에 아까 그 저기 제 때 써난 그 물은 어느 물에 숫 메는 거?
#1 게난, 경허난 그, 그디 가믄은예, 저 물허벅 젼에 영 빕는 비석이 세와졋수다.
@1 으, 예.
#1 그 바로 그거 부뜬 물.
@1 그 물 이름은 뭐?
#2 큰물? 아니.
#1 아니,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걸 큰물이엔만 헷주게.
@1 아, 큰물.
#1 음.
@1 응, 큰물을 이제 제로 쓰는 거라예?
#1 글로, 글로 들어가믄 또 여자 모욕탕.
@1 으.
#1 그냥.
#2 큰물에서 이 생활하는 사람들은 생활하는 주민들은 전부 허벅에 물, 거기 가서 지어, 져. 이용을 헷주게, 물을.
#1 동네서 저 칠성제, 집이서 칠성젤 허나 굿을 허나 허젠 허면은 또 그 물 질어당 허곡.
#2 그러니까 그렇게 고귀하게, 고귀한 물로 주민들이 여겨 가지고 춤 사용을 헷고.
@1 큰물예?
#1 막 깨씃허게 사용헷주, 그 물은.
#2 게니까 이 제를 보거나 큰 대제를 치루게 뒈면은 우선 그 물에 범하지 않게끔.
@1 예.
#2 깨끗헌 물 저, 범하게 않게끔 하기 위헤 가지고 새끼를 매어 가지고.
@1 음.
#2 잡인을 다니지 못하게끔 헤 가지고.
@1 음.
#2 그 끗난 다음에 물론 뭐 길어다 먹지 아녈 수는 없지만은.
#1 길어당 먹읍니다.
@1 예.
#1 게난예.
#2 수돗물이 없엇을 때.
#1 아니, 그거는 제일 특별허게시리.
#2 정성으로.
#1 정성허는 거는 마을제 홀 때.
@1 마을제 헐 때.
#1 원 주목으로 그디 그 물을 써수다게. 그 물은 마을제 홀 때는 절대 아이고, 어른이고 들어가지를 못헤.
@1 으음.
#1 딱 숫 메여근에.
@1 숫 메영예?
#1 이렇게 그냥 딱 숫 메믄 또 들어가지도 못허고.
@1 그렇지.

#1 영 고개 안 들엉은.

@1 예.

#1 게난 옛날도 또. 옛날은 순진헌 사람들이난 말도 잘 들어수게게. 지금ᄀᆞ치룩 쉐ᄀᆞ치록 들러키지 아녕 그때덜은 곧는 말 쏠쏠 잘 들어신디 이제는 그냥 송애기ᄀᆞ추룩 들럭켜 놓[노] 난양.

조왕제

@1 송애기ᄎᆞ록예. 게 그렇게 하고. 아까 그 조왕제하고, 예?

#1 칠성제.

@1 칠성제. 이건 언제 헤마씨?

#1 그거 정월ᄃᆞᆯ 나면은. 마을제 끗나면은, 이녁이.

#2 마을제, 어짼든 대제를 끗난 다음에.

#1 마을제 끗나나면은 우리 집이 예를 들어근에 소띠가 엇다 허면은 그날 허곡.

#2 조왕제를 허여.

@1 으.

#1 또 우리 집이 독띠가 엇다 허민 또.

#2 택일헤 가지고.

#1 택일헤근에기 나에 맞는 날로 헤근에 허는 것도 또 그 저 집이서 그 칠성제 허는 거는.

@1 예.

#1 그 원만헌 집인 안 허고.

@1 음.

#1 조왕제는 한 팔십 프로가 다 헌 거 닮아마씀.

@1 아.

#1 조왕제는.

@1 아, 조왕제는 어떤 식으로 허는 거마씸?

#1 조왕제는 그냥 그디 ᄉᆞᆺ 메여근에 삼일만 잇다근에 ᄉᆞᆺ 클러근에 그 심방 불러, 빌어다근에 ᄒᆞᆫ 세 시간, 네 시간?

@1 음.

#1 헤근에 그냥 다데떡 그.

@1 예.

#1 하얀 쌀로 헤여근에 다데떡 허곡 또 요만헌 헌 보시로 헤근에 보시.

@1 시리.

#1 시리떡이엔 헤근에 그거 쳐근에 그 두 가지 쳐근에. 떡이엔 ᄒᆞᆫ 건 그거허곡, 과일허곡, 메허곡, 생선은 올려.

@1 음.

#1 겡 헤근에.

@1 생선은 무신 생선 올려?

#2 돔.

#1 그냥, 돔. 삼양은 돔 그자, 삼양 사람은.

#2 고등어, 고등어도.

#1 백 프로가 다 아니라도 한 칠십 프로는 다 돔으로 씁니다.

@1 예.
#1 삼양은.
@1 삼양은, 여기 바당?
#2 바다 제물론 돔으로.
#1 돔으로 많이 씁니다.
#2 말려 가지고, 말려 가지고, 말렷다가.
@1 게난 옥돔 아닌 거잖아예? 옥돔 말고?
#1 옥돔이주게, 옥돔.
@1 아, 옥돔?
#1 옥돔으로.
#2 옥돔.
@1 그냥 황돔 이런 게 아니라 옥돔?
#1 예, 옥돔으로.
@1 겡은에 조왕제 헐 때는 어떤 식으로 허는 거마씨? 그?
#2 조왕, 조왕은.
@1 거난 아까 보시시리하고 다데떡하고.
#2 어.
@1 몃 개씩 만들어? 그거는?
#1 그거는 세 개 올리믄, 보시떡 하나 올리믄 그 우터레 다데떡 ᄒᆞ꼼 잘사는 집은 하영 허믄 일곱 개 올리곡.
@1 으.
#1 못사는 집인 세 개만 올리곡.
@1 아.
#1 세 개 아니믄 일곱 개. 그 홀수로.
@1 예.
#1 짝수로 아녕 홀수로만 헤근엥에 올리곡.
@1 겡 그거는 어기, 조왕에서 제를 해?
#2 조왕에, 조왕에.
#1 그냥 마루에서 허여근에.
@1 예.
#1 조왕 찍시 ᄯᅮ루 앚져.
@1 아.
#1 경허민 이젠 다 끗낭 조왕에도 가근에 영영 놓곡.
@1 으.
#1 마루에서 이제 허곡 허면은 조왕제 지내난 다음엔 이 마루에 가근에 제 지내근에 이젠 케우릴 건 문 캐우려둬근에 심방 가 불면은 거 나눠 먹곡, 또 듯날은 동네들 문 나눠 주고.
@1 아, 동네도 다 나눠 주고?
#2 제는 조왕 앞에서.
@1 예.
#2 다시 말씀드리면이.
@1 부엌 그?

#2 에, 우리가 식사를 하는 데.

@1 예.

#2 밥을 헤야 뒈고, 국을 끌려야 뒈곡, 반찬을 헤야 뒈곡. 요, 세 가지의 에, 식기는 솟은 이제 정상적으로 어떤 집이든지 쪼끔 크냐 족으냐 그거뿐이지, 전부가 잇어. 잇는데.

#1 부억은 다 이서 부난게.

@1 예, 예.

#2 그걸, 그걸 상징헤 가지고 우리 식구들을 베고프게 하지 말고 잘 먹을 수 잇게끔 도와주십서 헤 가지고 이제 조왕님한테 이제 제를 올리는 거라.

@1 예, 예.

#2 제를 올리는 거라. 그러니까 아까 그 제물은 그렇게 헤나믄 남은 거는 이 찻방에 와 가지고 찻방이라믄 그.

@1 밥 먹고 허는 데?

#2 으, 으. 그 찻방에서 이제 식구덜하고 나눠 먹고. 또 잇는 집안은 이웃도 나눠 주고.

#1 이웃도 나눠 주고.

#2 그렇게.

#1 게난 삶에 따라서 다.

@1 예. 게도 아까 칠팔십 프로는 헷덴 허니까, 조왕제는.

#2 조왕제는.

#1 조왕제는 칠팔십 프로 허고.

@1 그 조왕제가 요즘 우리 안택 허는 거하고 ᄀᆞ튼 개념인가마씨?

#1 지금 마을제 허는 거 허고는 비슷헌디, 이거는 가정에 거니까 작게.

@1 예.

#1 쪼끔.

@1 쪼끔.

#1 겐디 이제 고기 ᄀᆞ뜬 것만, 뒈지고기 ᄀᆞ뜬 것만 아니 올리지. 그냥 쪼끔 그냥.

@1 게난 그걸 이름을 조왕제.

#1 예, 조왕제로 그냥.

@1 그 식게 때도 무사 조왕에 좀 허잖읍니까예?

#2 예.

@1 그거허고는 ᄠᅡ로잖아예?

#1 ᄠᅡ로마씀.

@1 으.

칠성제

#1 그 그 어떤 집이, 어떤 집에는 그 조왕 이 집에 이거 저 저 조왕제 허는 집이는 두에 보믄은예, ᄂᆞ람지 이신 집이 이섯수다게.

@1 예, 예. 칠성.

#1 칠성 모신 집이.

@2 예.

#1 그디 그거 이신 사람덜은 좀 크게 헙주마씸?

@1 으.

#1 경허믄 그 칠성제 허는, 허는 것도 여기서 허면은.
@1 으.
#1 우리는 우리 집이는 친정에는 그 칠성제 헷는데.
@1 으.
#1 이 칠성제 지낸 것을 그냥 둠뿍둠뿍 올려근에 그디 강 올려.
@1 음.
#1 근데 그, 그 그것이 구역 정리허니까 완전히 이 동네가 그것이 엇어져 불엇수다.
@1 음.
#2 거의가 많이 잇엇어.
@1 아.
#1 아니, 엄청 많이 잇엇는데 구역 정리허연에 나가 서울 병원에 갓다 와 보니까 아무도 아녀는 거라. (웃음)
#2 아, 미신타파. 미신타파렌.
#1 그난 그 옛날은에, 옛날은 올레만 나오믄 막 구신도 잇고.
@1 예.
#1 막 사삼사건에 막 그런 막 도체비도 잇곡, 구신도 잇곡 막 헤영헌 옷 입은 사름도 삿다근에 무신 사라졋저. 우린 봐 본 도레 엇어도 경 헷저.
@1 으.
#1 막 무시거 헷저 허여도 훈디. 그것이 ᄉᆞ삼사건 넘언에 총소리 나니까 그것이.
#2 엇어져 분 거주.
#1 구신이 엇어져 분 거야.
@1 음.
#1 일절. 도체비도 엇어져 불고, 구신도 없어져 불고.
@1 으.
#1 겨니까 이 어떤 집이덜은 일 년에 한 번 굿허는 집이 잇어, 또. 무당 빌어당 큰굿허는 집.
@1 예.
#1 그런 집덜토 싹 엇어져 불언.
@1 아.
#1 구역 정리헤난 후제는예, 곧 춤 백 프로로 엇어져십디다.
@1 귀신들이 집을 못 찾앙 오는 거 닮아. (웃음)
#1 음. 아니, 그 말이 잇주게.
#2 굿을 할려면은.
@1 예.
#2 보통 집은 할 수가 없어. 예산 때문에.
@1 예.
#2 그 심방이, 무당이 한 사람만 오는 것이 아이고.
#1 다섯 사람.
@1 다섯 사람.
#2 같이 협조헤 주는 사람.
@1 예에, 소미들.

#2 세 사람, 네 사람이 와. 오민은 이게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름까지 연속을 한다 말이여.

@1 예.

#2 계속. 거기서 잠자곡, 게민 그거 전부 뒤처리를 할려면은 그 예산이 얼마나 들 거라? 그러니까 아예 없는 집안은 그런 굿이란 걸 헤 보질 못하고. 쪼끔 점 여유가 잇다면.

@1 아. 큰굿이네, 열나흘굿예?

#2 어, 보름 동안을 헤여, 보름.

#1 나 흔 옛말 곧지예. 우리 어머니가예, 애 낳단에 그냥 그 피 부족헨에 막 오래 머물단 돌아가셧수다게.

@1 예.

#1 애 놓단 피 부족헤연. 견디 무당을 빌어단 우리 굿을 엄청 헷어예.

@1 예.

#1 한 번은 굿을 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딱 죽어 불언마씸게, 구둘에 누워신디. 딱 죽어 부난에, 우리 아버지가 마당에서 굿허는디, 아이고, 어머니 아부지 어머니 죽, 저 숨 안 쉬엄수다 허난, 아버진 화작착허게 방에 가곡.

@1 으.

#1 무당들은 한창 굿허단예.

@1 도망가 불언?

#1 그 북덜 비리카부덴 그냥 아젼덜 다 도망가 부는 거라.

@1 으.

#1 겨난 울아버지가 뭐옌 허는ᄀᆞ라 이 무당놈의 새끼덜 경허니까 인정을 못 받안 너네덜 쌍 거니까.

@1 으.

#1 이제 아이안티고 어른안티고 흡센 말을 못 듣는 거 아니냐? ○○네, ○○네덜게, ○○네, ○○ 족은아방 가물개예, 양○○네 홀 때. 아, 그르후제부떠 우리 어머, 우리 아버지가 굿을 딱 설렷수다.

@1 음.

#1 칠성제도 설러 불곡.

@1 아.

#1 그때.

@1 아.

#1 그때에, 무당덜 이거 도독놈덜이엔 헨, 그때 그냥 딱 설릅디다게.

@1 아.

#1 그난.

@1 칠성제헐 때도 이제 무당 빌엉 허고.

#1 예, 무당으로 헤야지.

#1, 2 조왕제 홀 때도 무당 맞앙 허곡.

@1 아.

#2 게 소미들을 한 사람을 데려오느냐, 두 사람을 데려오느냐.

@1 으.

#2 여기에 그 비용 지출 부담이 많은 거라.

@1 그러니까.
#2 어.
#1 게난예, 아니 와야 ᄒᆞ루 굿허는 건 서이 오곡.
#2 으. 서이.
#1 한 멧 사람, 메칠 ᄒᆞᆯ 거는.
#2 다섯.
#1 다섯 사람.
@1 예.
#1 게믄 그 사름덜 밥, 밥헹 계속 멕이멍 ᄌᆞᆷ 재우멍 헤야지.
@1 그러니까.
#2 보름 동안을 그것도 할려면은이 ᄎᆞᆷ 그 많은 예산이 아니주.
#1 힘들엇수다. 힘들엇어. 옛날예, 그 어둑은 살림덜양 참 고셍 많이 헤수다.
@1 으.
#2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1 그렇지. 다 이유가 잇엉 헤실 거 아니라예? 집안에 안 좋거나.
#1 예게. 조상덜게, 조상덜 기냥.
#2 인위적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뒈곡.
@1 음.
#2 베고픔도 해결이 안 뒈곡 하니까 이거라도 하면은 조상님덜이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에서. 그걸 막 미혹적으로 하는 거라.
#1 미신을 막 그냥 믿는 거라.
@1 예.
#1 미신을 막 믿언.
#2 믿언.

마을제

@1 거난 아까 이제 그 마을제 같은 경우도 당에 강 헷잖아예?
#1 예.
@1 당에 헹 왕, 또 마을에 왕 또 헙니까?
#1 아니.
@1 그건 아니고?
#1 예.
@1 음.
#2 일단 제는 당에서.
#1 그날 허는 날 어부도게 같이 허곡.
@1 예.
#1 예.

해신제

@1 바당, 바당도 그날?
#2 해신제.

#1 해신제라고 헤서 어부덜이. 우리 여기서 음식흔 거를 나눠 줘.
@1 응.
#1 가졍 강 허렌 헤근에.
#2 고기를 많이 헤 가지고 자손덜 배부르게 좀 멕여 주십사 헤 가지고 풍년, 풍년, 풍년 기원.
#1 풍년, 풍년을 이루렌 헤근에게 경.
@1 게믄 해신제는 어디 강 헤마씸?
#1 바당에 그디 또 그디도 그 엉덕물이엔 흔 우이가 이수다.
@1 예.
#1 그 앞궤 가면은, 그 저 빨래터 가면은 엉덕이엔 흔 우이 보민은 폭나무가 이서마씀.
@1 예.
#1 그 폭나무 영 돌아가믄 폭나무 우이가 그디 제, 우리도 보진 아녓수다만은 그디 강 제 봐.
@1 아.
#2 기니까 없애 노니까 물자를 많이 투제를 못 헤여. 제물로.
@1 음.

거릿제

#2 그리고 또 거릿제라고.
@1 예.
#2 거리 가다가 돌에 부닥쳐 가지고 넘어져 가지고 상처 나지 말게 헤 주십서.
@1 예에.
#2 그런 거를 또 이제 기원하는 뜻에서 거리에 한복판에 놓아 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조그만한 그 돌담 옆에다가 돌을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웃음) 미신으로 믿어 가지고 거릿제[거리쩨]를 지내, 지내오다가.
@1 예.
#2 이제는 밖으로 내놔 가지고 쟁반도 올리고 헤 가지고 하다가, 이제는 첨 아까 발전뒈는 과, 과정에서 그런 신도 에, 이거는 첨, 믿어서는 안 뒈겟다 헤서.
@1 예.
#1 (웃음)
#2 미신타파, 타파하면서.
@1 아, 거릿제옌도 헤예?
#2 거릿제.
@1 거릿제도 제물 이렇게?
#2 어, 제물 올리고.
@1 제물 올리고.
#2 아까 상에 올리듯이. 뭐 무신거 펜이여, 설기여 다 만들엇다가 걸 제물로 헤 가지고 올려.
@1 아, 게믄 거릿제도 정월에?
#2 어, 그 그 저 마을제 허는 날.
@1 마을제 허는 날?

#2 마을제 하는 날.
@1 아아. 그러면?
#2 해신제도 마을제 하는 날.
@1 음, 예.
#2 우리는, 화북은 별도로 마을제는 않고, 해신제만 헤여.
@1. 해신제. 예, 거기 저 해신.
#2 화북은.
@1 저기.
#1 해신 터가 이시난에.
@1 예.
#2 그런 걸로 봣을 때는 우리는 복합, 복합적인.
#1 화북은 해신제를 막 크게 허주마씸게.
@1 예.
#2 어부들이 주로.
#1 그 옛날 그 저 풍선, 그 풍선이곡, 화북으로 들어와 나부니까 그 해신제를.
@1 이제까지.
#1 화북선 크게 허곡. 여기는 그런 것이 엇어 버리니까, 화북허고 조천은, 조천도 크게 헴실 거우다.
#2 조천도.
@1 예.
#1 게난 화북도 이 동착이는 관심을 안 두는디 서착이 중부락에서가 그거를 관리를 막 헤예.
@1 음.
#1 웨가가 화북이우다게. 겐디 우리 동부락은 그런 것이 없는디, 중부락 서부락은 아주 그냥 그거를 그냥 대환영으로 헤근에 그냥 막 우리ᄀᆞ라도 오렌. 어뜬 땐 오레비덜 헙네다만은.
#2 화북 포구가.
@1 예.
#2 교통 제일, 일이거든.
@1 예, 예, 조선시대에.
#2 우리 제주도에서는.
@1 예, 예.
#1 항구가 제일기.
@1 예, 예.
#2 게니까 임금도 여기 저 들어올려면은.
@1 화북으로.
#2 화북포구로 들어왓엇고.
@1 음. 조천포구보다 더 컷구나.
#2 임금은 아니지만.
#1 예, 원래가 조천포구보다 더 커 부난 여기 저 해신제를 크게 헴수게게.
@1 예, 예.
#2 해신에 대헤서만 정성을 들이고.

@1 예.
#2 화북은 마을에 대헤서는 안 헤여, 아예.
@1 여기는 해신이라고 용왕신이렌 안 합니까? 요왕신이렌 안 하고?
#1 그런 말은 안 하고.
@1 그냥 해신이렌 골아예?
#2 해신으로만.
@1 그니까 마을제 헐 때 마을제 허곡, 거릿제도 허고, 거 끗난 다음엔 또 조왕제. 이것도 날 받앙은에.
#2 그건 개인이 허고.
@1 개인이 허는 거.
#1 허는 사람은 허고, 안 허는 사람은 안 허고.
#2 개인이 허는 거고. 하.
@1 게민 해신제하고 거릿제는 마을제 허는 날 허는 거예?
#1 혼꺼번에.
@1 어. 아, 특이하네.
#2 그날 제물을 같이 찰렷다가 제관덜만 나눠 가지고.
#1 옛날엔 아주 컷수다.
#3 해신제는.
@1 예.
#3 어부회에서 마타서 하고.
@1 예, 어부.
#2 지금은 어부회에서. 어쨋든 그날.
@1 예, 그날예?
#2 어. 제를.
@1 그다음 영등은 또 해녀들은 영등 허고?
#1 영등은 안 헙니다.
@1 아, 여기는 영등제는 안 헙니까?
#1 여기 삼양은 아녑니다.
@1 아.
#1 예.
@1 해신제로 대신헤 버리는 거구나.
#1 그냥 아무 것도 아녑니다.
#2 해신제 주관은 어부들이 주관이 뒈고. 영등.
@1 예.
#1 해녀, 우리 저 영등굿이엔 혼 거는 엇이.
@1 음.
#1 옛날에 그 바당에 고기 나끄레 갓단 그 이디 고○○, 고○○ 아버지허고 이제 멧 분이 바당에 간 돌아가셧수다게. 돌아가시난 그때 신을 못 찾앗어예?
@1 음.
#1 신을 못 찾이난 우리, 산짓물로 떨어져근에 그냥 조천끄지. 그땐 속곳 입을 때주게. 지금은 고무, 고무옷인디.

@1 으.

#1 속곳 입어근에 그디 왕 화북포구에 들어근에 내리면은 죽 흔 직 먹어근에 몸 풀령 또 조천끄지 가멍 허여근에 메칠을 츶아도 못 츶이니까.

#2 시신을 찾지 못헤서.

#1 그때에 그냥 저 무시것고? 영등굿을 헷수다게.

@1 예.

#1 그 심방 빌어단 이제 그것이 그냥 해녀, 해녀굿이 뒈분 거라.

@1 음.

#1 처음에 시작은 그 어룬덜 무혼굿으로 흔 것이 심방덜이, 해녀들이 그걸 헤야 뒈켄 헤연에 멧 년을 헤수다게. 멧 년을 허다가 우리가 경 헷주게. 그땐 나 회장 마트젠 홀 땐가? 이거 설러 불겐.

@1 으.

#1 우린 아무 필요도 엇이 삼양은 그런 것이 원 엇이 마을에서도게 해신제라는 건 엇고 흔디, 우리 영등굿 홀 필요가 엇덴 헨에, 그때 딱 설러 불언 아니헨. 그때에 멧 년만.

@1 으. 해녀굿 헷구나.

#1 예, 그때에 그 어룬덜 바당에 간, 그 애기덜이 그 어룬 바당에 간 돌아가신 후에 애기덜이 아덜덜 다슷 성제가 대한민국에서 일등 부제우다, 지금.

#2, 3 (웃음).

#1 아니, 그때예 어떵 헤신고믄예, 바당에서 그때 해신굿을 홀 때 그 신 홀려 오젠 굿을 홀 때예, 심방이예, ○○신디 둘아젼예 셋놈아, 나 느 막 잘 뒈게 헤주마. 잘 뒈게 헤주게. 심방이 둘려간 막 경 헌 거라예.

@1 아. 소름 끼친.

#1 경흔디 찐짜로 막 과수원만 만 평 잡앙 이수게게.

@1 으.

#1 그 아덜만 특별히[특별리]. 다른 아덜덜토 다 잘 뒌디.

@1 예.

#1 그 아덜만 특별히 잘 뒛어.

@1 아.

#2 게, 게난 그 당시는 어쨋든 조류상의 그런 문제도 잇을런지, 잇엇을런지 모르지만은 시신, 시신을 찾질 못헷어.

@1 예.

#2 이 앞바다에서 헷는디이.

@1 예.

#2 어디 먼 데로 밀려나 분 모양이라.

#1 난 츶지 말라. 난 요왕에 갓저.

@1 음. 심방이.

#1 (웃음)

#3 용왕을 태웟다고.

#1 예, 난 요왕에 가시난 츶젠 말라. 난 막 어려완 정말 하루 한 게니 밥 먹엉 살앗수다게.

@1 아.

#1 예, 경헌디예. 그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예, 진짜로 그냥 날로 그냥 부제 뒈분 거라, 날

로.
@1 아.
#1 거 이상 헙디다.
@1 그난 그 굿을 잘 헷네.
#1 예.
#3 그 사름이 동네 사름이난게.
@1 예, 예.
#3 그 지금 칠머리당굿 보유자가 이 동네 사름이라.
@1 아, 원래 여기꽈?
#1 여기 무당 이수다.
@1 김, 김○○ 심방?
#1 으, 으. 원래 삼양 사람. 그건 족은아방 아덜.
@1 족은아방 아덜.
#2 큰아버지 잇어 부니까.
#1 큰아버지는 저 ○○이라고 아주.
#2 산지 살앗는데 큰아버지가 아주 무당으로서는 제일 이, 권위 잇는.
@1 예.
#1 겐디예.
@1 큰아버지한티 베웟덴 헙니다.
#2 어.
#1 견디예, ᄯᅳ시 나가 옛말을 ᄀᆞᆯ쿠다. 그 어른덜이 무당이 아니고.
@1 음.
#1 그 ○○ 하르부지.
@1 예.
#1 증조하르부지가 아버지 아이, 아버지 딱 돌아가시니까.
@1 으.
#1 구산을 허레 그냥 밥 지언 메칠을 뎅겨도 구산을 못헌 거야.
@1 으음.
#1 경 헤서 이제 그 정시 하르방이 저 그 ○○ 하르, 하르부지신디 여기를 쓰면은 자손이 많이 나곡 좀 어렵게 살 거지만은.
@1 으.
#1 여기는 쓰면은.
@1 심방.
#1 자손도 많이 나곡 돈도 많이 버는디 우선 한 가지가 잇저 허난. 한 가지 무시거우꽈? 허난 무당 남직허다.
@1 으.
#1 겨난 자기넨 돈도 엇고 자식이 엇이니까 그냥 돈 벌곡, 애기 한덴 소리엔 경 ᄒᆞ쿠다, 헌디 딱 ○○이가 무당을 헤분 거라.
@1 음.
#1 나 이건 우리 아부지네가 우리 집이 완 그 ○○이네가 ᄀᆞᆯ은 말이우다게.
@1 예, 예, 예.

#1 경 헨 그 무당을 흔디, 진짜로 그 무당 허면서 그 애기덜이 막 잘살곡.
@1 음.
#1 애기덜토 막 하곡. 경 헤근에 그 이디 셋아방 아덜넨 여기 이수다.
@1 아.
#1 음.
@1 삼양에 살암구나예? 예, 예.
#1 음. 이수다게.
#2 셋아방도 아덜덜도 중간엔 이런 저 조왕제 할 때도 빌어다가 하고.
#1 뎅기곡.
@1 아.
#2 이렇게 하다가 뭐 이젠 돌아가셧주만은.
#1 작년에 돌아가셧주.
@1 예에. 거난 이런 식으로 하고. 게니까 여긴 안택허는 게 조왕제허는 거구나? 이 동네는 예?
#1 예, 예. 이 동네는 그거우다.
@1 조왕제허고.
#1 예, 예. 크게 미신 허는 건 엇수다.
@1 칠성허고예?
#1 으.
@1 칠성도 보니까 눌을 두 개 허는 집도 이십디다, 옛날에 보니까.
#1 우리 삼양은 엇수다.
@1 아, 하나. 여기는.
#1 예, 여기는 하나우다.

보리밧 밟기

@1 으. 그런 거 이제 하고예. 정월에 허면 옛날 농사들도 하영 지으니까, 보리밧 여기도 불랏덴 허멍예?
#1 예게. 그것사 불룹주게. 자동으로. 자동으로 그거는 그냥 물 이신 집이덜은 물 멧 집이, 집이 거영 수눌어근에, 목에다 다 물 무꺼근에 그냥 얼러러러러 허민은 물은 다다다다다다도 허곡 허여근에 그거 막 붋곡.
@1 아.
#1 겐 남저는 그냥 막뎅이 ᄒᆞ나 들러근에 사서 그냥 돌만 허는 거야, 이렇게 돌면은.
@1 보리, 보리왓디도 물 담앙은에?
#1 물덜이, 물덜이 그냥 자자자자자자 다섯 ᄆᆞ리를 담아근에.
@1 아. 어제 물 담앗네. 아.
#1 그렇게 헤근엥에. 경 아년 집이덜은 또 낭. 낭테렌 헤근에.
#2 낭테라고 나무로 만든 바퀴를 헤 가지고 돌려서.
#1 낭테, 낭테라 헤근에 낭테에 이디 발을 문 돋진 거라.
@1 예.
#2 겡 헤근에 끗는 거라.
#1 발 돋지믄 그걸로 헤근에 물 헤근에 끗는 거라.

@1 응.
#1 뭘 엇인 집인 사람으로 끌어.
@1 조 볼리듯이?
1 예. 조 볼리듯이 끌르, 끌르고. 경 허멍 이 농사를 지엇수다게.
#2 이게. 이게.
@1 예.
#2 과학적으로 한겨울에 한파가 닥치고 나면은.
@1 음.
#2 땅이 부꺼.
@1 예, 예.
#1 부꺼 부난.
#2 겐데 그 보리가 그 겨울에.
@1 보릿발 들러졍예?
#2 보릿발이 들러진 거, 들러졋기 때문에.
#1 게난 땅이 곳앗덴 허는 거주게.
#2 열매가 여물지 못헤여.
@1 응.
#2 그래서 그걸 이제 막 달구질 하다시피 헤 가지고 그걸 밟으는 거라.
#1 눈 와 부난 땅이 곳아 불언.
#2 그걸 밟은 집안은.
@1 예.
#2 보리, 보리밥이라도 좀 먹곡.
@1 예.
#1 게난 그거를 알아야주, 곳아 불언.
#2 안 밟, 안 한 집안 그게 염질 못헤 가지고. 다 불려나가는 그런 쌀이 뒈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1 게난 옛날에 이 삼양이 완전 뜬땅이구나? 모살이영 허난.
#1 농사는 췌고 잘 뒈는 동네 아니꽝?
#2 그 보리만큼은 그런 겨울에 한파 때문에 이걸 밟, 때려 밟아 주지 않으믄 작물이 영글질 못헤여.
#1 삼양은예, 백오십 평, 한 평.
@1 음.
#1 한 평, 백오십 평, 한 평에다가 여기서 흔 말지기옌 허주게.
@1 흔 말지기, 예.
#1 흔 말지기 헤사 아무리 못 헤도 보리 두 섬.
@1 아, 흔 말지기예.
#1 예.
@1 어.
#1 여기는 그런 고팡이라.
@1 아.
#1 이 지형은.

#2 많이 나는 거주.
#1 예, 췌고, 농사를 췌고 잘 뒈는 동네우다.
@1 음. 게믄게 어쨋든 이런 보리밧 불르기도 하고. 것도 다 정월에 허는 거 아니라예?
#2 예, 정월에.
#2 예게. 정월에. 멩질 넘으믄 다 헙니다.

걸궁

@1 멩질 넘으면. 그다음엔 걸궁 ᄀᆞ튼 것도 헤수과? 거리굿?
#2 거리굿, 걸궁.
@1 응.
#2 걸궁, 걸궁은 이제 뭐 우리 그 저 동민들하고 단합 차원에서도 헷겟지만은.
@1 음.
#2 이 워낙 동 살림살이가 어렵다 보니까 이 궁릴 한 거라.
@1 음.
#2 우리 걸궁이라도 하면, 헤 가지고 쪼꼼 잇는 분들안테는 협조를 받는 방향으로 하자, 헤 가지고 이제 걸궁이.
#1 집집마다 영 돌아뎅기는 거.
#2 시작뒌 집집마다 이제 돌아뎅기멍.
#1 부젯칩이만 들어가.
#2 주인도 즐겁게 만들아 주고.
@1 예.
#2 게 하면 즐거운, 기분이 좋단 말이여이.
@1 예.
#2 겨믄 쌀도 한 두어 말 이렇게 한 말도 주곡.
#1 돈도 주곡.
#2 이런 것이 유래가 뒈 가지고 쭉 한 것도 걸궁도 오랫어.
@1 으.
#2 한 지가.
@1 예.
#2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여기 건너편에 뭐 삼양이동이라든지 도련이라든지 건 뭐 그렇게 하나의 흥에 겨운 이야기는 뒈겟주만은.
#1 즉 말허믄 동네에서 부주 받젠 헌 거주게. (웃음)
@1 예.
#1 어렵기 때문에.
@1 예, 마을회가 중심이 뒈서 허는구나예?
#2 어.
#1 예. 부주 받젠.
@1 그것도 정월에.
#1, 2 정월에.
@1 모든 게.
#2 한가헐 때, 질 정월이 한가한 때.

#1 그 촌이다 보니까.
@1 예.
#1 섣둘, 이 섣둘 십일월달부터 정월ᄁᆞ지벳기 노는 시간이 없어.
@1 아.
#1 지금은 일 년 열두둘 다 돈을 버는데.
@1 음.
#1 그때는 돈 벌 것이 밧데벳기 엇이니까 그 섣둘은 추워 부난 밧데도 못 가곡, 그냥 아무것도 못 홀 때니까. 그때에 놈도 잘 놀곡.
@1 음.
#1 허여 먹는 것도 잘 헤 먹곡.
#2 (웃음)
#1 이렇게 동네선 놀이도 잘, 잘허곡.
#2 감저도 치엉 먹곡.

문화재

@1 음. 감저도 쳥 먹고. 게믄 이 동네는 이제 뭐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이수과? 이 삼양일동에는? 이 설개에는?
#2 삼양, 삼양일동에는 지금 이 저 불탑사.
@1 예.
#2 불탑사가 이제 문화재로 이제 지정이 뒈 가지고 어, 지금 꾸준히 관리하고 잇, 잇는디. 건 지방청에서 하는 거니까 건.
@1 으.
#2 우리는 우리, 그.
#1 원당봉, 원당봉이예.
@1 예.
#1 칠봉이우다게.
@1 예.
#2 원당봉.
@1 예.
#1 이 원당봉이 칠봉이니까 칠성제 허는 사람들이 웬당봉에 강 허는 이유가 그디 제청이 이수게예?
@1 예.
#1 그것이 거기 칠봉이니까 칠성제를 지내는 거라.
@1 아.

비우제

#1 게난 애기도 못 낳는 사람도 그디 가서 허곡. 그냥 못 길루는 사람 뭐 허는 사람 허곡. 또 옛날에는 비 아니 오믄 비우제 잇엇수게게.
@1 예, 예.
#1 겨믄 동넷 어룬덜 문딱.
#2 기우제.

#1 벵에니, 주젠지로니, 무슨 낭푼이로니 무신 물 질엉 강 그디 강 비우제 허곡.

@1 음.

#1 경허는 것이 우리 원당봉이 하나의 그 목적이우다게.

@1 그 비우제니 뭐니 이런 것들은 어느 그런 계절이 엇어마씨?

#1 계절 엇이 그냥 여름 나근에 그냥 막 ᄀᆞ물앙 그냥 밧도 막 딱딱 벌러지멍, 조도 그냥 막 줄아 불곡, 막 그냥 농사도 안 뒈어가면은 비우제 지내야켄 헤근에 홀 때는 그냥 날 봐근에 메칠날 허키여 허면은, 집집마다 그냥 그릇덜 졍 오멍 허벅덜 졍 나오멍 헤근에 물 졍, 그 웬당봉ᄁᆞ지 올라가근에 그 비우제를 헤난 것이 기억이 나마씀. 겐디 것도 흔 삼십 년 전이라양?

@1 음.

#1 삼십 년 전이ᄁᆞ진 헤도 그후루젠 안 헷수다.

#2 으.

@1 예, 여긴 워낙 물이 좋아도 이제 그 물이 이제 비가 안, 안 오면예?

#1 비가. 이 삼양은예? 겨을에 바람은 많이 부는데 비도 덜 오곡, 더움도 췌고 더웁니다게.

@1 아.

#1 여기 이상한 동네라마씀.

#2 게난 기우제를 여름에는 안 헤, 여는 가물아 가지고 작물이 안 뒈니까.

@1 예, 예.

#2 비가 와줘야 뒈는데.

@1 음.

#2 그래서 그걸 막 염원헹 강 집집마다.

@1 아.

#1 흔 삼십 년 전이ᄁᆞ진 흔 것 닮아마씀.

@1 기우제를예?

#2 그 아까 그 불탑.

@1 불탑사.

#2 불탑사 우에, 제단이 잇는데.

@1 예.

#1 웬당봉에 가민 그냥 막바로 이실 거우다.

#2 원당봉 원당사 우에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한 지는 아마도 흔 백여 년.

@1 아.

#2 저게 우리 셍각으론 백여 년 더 뒌 거 같은데. 한 이백 년?

@1 지금도 그런 제단이 남아 잇어?

#1 제단 이수다.

#3 보수를 헷수게.

@1 보수 헨마씸?

#3 육천만 원인가 들여서.

@1 아.

#1 보수 잘 헤놧수다.

@1 게믄 어느 쪽에 이서마씸?

#1 게난 웬당봉 쭉 올라가믄은 여기, 절간이 실 거야. 원명사가, 아니.

@1 예, 예.
#2 문강사.
#1 문강사 잇는데.
@1 문강사.
#1 그디, 그디 가기 전에.
#2 입구예.
#1 입구예 그냥, 입구예.
@1 아, 문강사 바로?
#1 운동기구들 신 디.
@1 예, 예, 운동기구.
#1 바로 그디, 그디.
@1 아아, 알아지쿠다.
#1 그 집 터.
@1 돌, 돌 영 싸진 디.
#1 돌, 돌. 그거, 그거, 그거.
#2 으, 으. 그것이 원래.
@1 아.

제청

#1 제청이우다. 것이 제청이엔 헴주. 우리가 일름이 제청, 제청.
#2 제청, 제청.
@1 예, 예. 제청. 게믄 칠성제도 거기 강 헤마씸?
#1 거기덜 강 많이 헤마씸.
@1 아, 집에서 안 하고?
#1 집에서 허는 사람은 허는데.
@1 어.
#1 막 정성 들영 허는 사람들은 그디 가근에 그냥 허곡.
@1 아이고게, 절이 양쪽 세 군데나 잇지 않우꽈? 거기예?
#2 어.
#1 어, 저.
@1 태고종은 나중에 헌 거?
#1 아니, 태고종이라? 원당봉에 헌 것이?
@ 거기 문강산 천태종.
#3 천태종.
#2 천태종.
#3 아, 천태종.
@1 천태종은 문강사.
#3 예.
@1 그 옆에 불탑사 앞에는 태고종.
#2 태고종.
@1 그 불탑사는 조계종.

#2 으, 조계종.
@1 세 개가 다.
#1 게난 웬당봉, 웬당봉 굼부리 안에 이신 거는.
@1 천태종.
#1 들어온 지가 한, 한 오십 년?
@1 아.
#1 사오십 년?
@1 아.
#2 오십 년 뒈신가?
#1 사오십 년.
@1 아, 사오십 년.
#1 저게, 저게 목포서 온 절간입주게.
@1 예.
#1 저 밧이 한칩이 땅이라.
@1 아.
#1 한칩이 이제 저 ○○이네 밧인디.
#3 음.
#1 우리 아버지가 저걸 소개헤 줘에 산에, 저 사람들 완 절간 짓이난 그 첫 번 온 보살님은 우리 집이 살다시피 헤수다게.
@1 아.
#1 경헌디 그거 왕 짓인, 짓언 그 땅 푼 사름이 짓이난, 동네서도 막 난리난에 그때 난리국이 데싸져 나수게. 그디 완. 게도 그 절간 짓인 후제 삼양이양.
@1 막 잘 뒌?
#1 아니, 솔직이, 솔직이.
#2 아니 별로 큰 해가 없어.
#1 결론은예, 편안헤마씀.
@1 아.
#2 큰 해는 없고.
#1 예, 이 사람 사는 과정에서 내가 보건디는, 내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보믄은 사람덜 커오는 과정이나 아이덜이 이렇게 다니는 발자취나예, 큰 손해가 엇이민 잘 뒌 거 아니꽝? 음.
@1 그렇지예.
#1 그렇게 봐져마씀. 저 셍각엔.
@1 아.
#2 게난 이렇게 지나가는 이야기로 듣는 사람은 삼양의 맥인데.
@1 예.
#2 원당봉이.
@1 예.
#2 맥인데, 맥에다가 그런 저 사찰을 지엇을 때 해를 입지 않겠느냐.
@1 음.
#2 그런 기우심만 가져 가지고 막 반대들을 한 거라.
#1 막 난리낫주게.

#2 겐디 밧 주인은 뭐 자기가 첨 팔고 싶어 가지고 파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첨 진헹이 뒛는데.
@1 으.
#2 마, 그런 것도 하나의 뭐 이 큰 해는 없지 않느냐?
@1 으.
#2 허는 데서 이제 넘어가 부린 거지.
@1 으.
#2 세상이.
#1 아니 게난.
@1 절에서 계속 기도도 헤 주난 잘 뒈신가?
#2 으. (웃음)
#3 오○○이 국회의원이 낫잖아.
#2 오○○이도 나오고.
#3 지금도 신도회장이라, 거기.
#1 그디 총무라나수게. 오○○이가.
#3 아니, 신도회장.
@1 아, 기우꽈?
#2 신도회장, 신도회장.
@1 신도회장 헨? 오○○ 의원이?
#1 지금도 지금도 아주 열성.
#3 지금도 신도회장이라.
@1 아, 문강사 뎅겸구나.
#1 에구, 막 난리.
@1 난리?
#1 예.
@1 삼양도 잘헤 주컨게. 여기 설개. 근데 원래 설개, 설개 아니 아니우꽈?
#1 아니, 여기 삼양 사람 아니.
#2 저기 성산.
@1 그니까.
#3 남원, 남원.
#2 남원.
#1 저기 삼양 사람들이 이 절간 때문에 다니기로 삼양 사람덜이 많이 밀어줘십주.
@1 음. 아이고, 그건 또 몰랏네.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하고예. 아이고, 일월 넘어가기가 진짜 힘들다.
#2 (웃음).

이월

@1 이월에 영등에 대헤근에 이제랑은에 들어보쿠다.
#1 영등은 엇어.
@1 영등은 엇어도 옛날에 뭐 빨레허지 말라. 영등 들어올 때.

#1 아, 영등 들어올 때 빨래 숧지 말라.
@1 예.
#1 빨래를 이 숧는 거를, 숧지 말렌.
@1 음.
#1 웨 숧지 말라 헤신곤 허믄은, 누, 누룽, 그 무시거꽈? 그 이렇게.
@1 구데기.
#1 구데기.
@1 음.
#1 구데기 일어. 거 참말로 구신이라.
@1 음.
#1 빨래 삶아나믄예.
@1 으.
#1 진짜 구데기 감당 못 홉니다.
@1 아.
#1 거 알게 그렇게. 이거 빨래 이젠 안 숧암주만은 그전에 숧아, 숧을 때는예, 그 진짜 숧으믄 알아지게시리 구데기가 궤영.
@1 으.
#1 그 때문에 못 쏢게 흔 거.
@1 구데기.
#1 영등 들어오면.
@1 영등 들어오면.
#1 예.
@1 여기서는 영등은 언제 들어옵니까?
#2 저 정월.
@1 이월 초ᄒᆞ루?
#1 이월 초ᄒᆞ룰날 들어와근에.
@1 으.
#1 열나흘날 나가근에.
@1 으.
#1 소섬 강 ᄒᆞ룻밤 장 가는 거.
#2 (웃음).
@1 음.
#1 거 나 봣주게.
@1 (웃음).
#1 아니 그게, 영등이라는 영등할망이라는 것이 무시 못 허는 이유가.
@1 예.
#1 저 해녀 아니꽈게?
@1 예.
#1 바당에 가믄 저도 삼양에선 일등으로 가는.
@1 상군.
#1 지픈 디, 상군이우다게.

@1 상군.
#1 겐디 몸 아판 아니 헤신디 몸도 아프고 이젠 또.
@1 나이도 들고.
#1 어, 경헨 헌디.
#2 (웃음).
#1 바당에 강 보믄에, 진짜로 전북껍데기가 탁탁 갈라졍 잇어.
#2 거 이상허네.
#1 멀쩡허게시리.
@1 아, 다 까먹은덴 허잖아. 어.
#1 예, 헤영케. 소라는 그런다 치곡 이만썩 헌 전북예.
#2 이상하게 영등할망이.
#1 거 구신, 구신이라.
#2 왓다 가면은 그게 빈 껍데기가 발셍헤.
#1 예, 빈 껍데기가 보여.
#2 그러니까 그걸.
@1 아, 게난 옛날 그런 말이 나온 거라예?
#2 조류.
#1 그예, 평상시에 갈 때는 전북껍데기라는 걸 못 보주마씸게.
@1 예.
#1 경헌디 영등할망 들어왓당 강 이월 나근에 삼월, 이삼월 뒈영 물질을 가 보면은 진짜로 예, 거짓말 아니고 첨 한 사람만 줏이믄 일등 부제 뒐 정도로 빈 껍데기가 잇어.
@1 아.
#1 거 알아지게 그럽디다게.
@1 그, 그때 죽는 철인가?
#1 예, 영등할무니가 왕 먹언 가 부난.
@1 게 먹엉 가 부난.
#1 까먹언 갓젠 허주게.
@1 예.
#1 꼭 그 전복뿐만 아니라 그 어패류 같은 게.
@1 음.
#2 꼭 그 시기에 그 어떤 뭐 직, 직격탄을 받는 모양이라.
@1 음.
#2 그래서 그게.
@1 그난 오죽헤야 그 말이 나와예?
#2 죽, 죽어 가지고 알멩이는 없어져 버리고. 껍데기만 남는 거주게.
@1 음. 거난 다.
#2 구제기도 이서, 구제기도.
@1 음, 다 제주도에도.
#2 이십니다게.
@1 제주도 돌아 뎅기멍 거 다 까먹엉 가고, 갈 때는 씨 뿌려줘동 간덴 허잖아예?
#1 경 헤부난 소섬 가근에 그냥 ᄒᆞ룻밤 장 간덴.

#2 씨 뿌려 주난 또 남실 테주게.
#1 아니, 씰 뿌리난 남주게.
@1 예, 그추룩 헤영은에 허고예? 게난 영등에 허는 거는 그런 거밖에 엇어마씨?
#1 예.
@1 여기는 영등굿을 안 허니까예?
#1 안 허니까. 예.
@1 아.
#1 예, 안 허니까. 영등에 관심 엇입네다.
@1 아, 거난 이 동네는. 거난.
#1 완전 완전 우리 삼양 오 개동은 관심 엇입네다.
@1 삼양은 해녀들도 한 디도 경 헴저예?
#1 예, 안 헙네다.
@1 해신제 헤 부니까?
#1 해신제 허고 아녀고 관계엇이 안 헙니다.
#2 해신제 그것이 중심이 뒈는 것은 아니지만은.
@1 아.
#2 안 헤여.
#1 해녀들 일 년에 흔 번 바당에 강.
@1 지 싸거나 이런 것도 안 헤여, 여기는?
#1 안 헤여.
#2 어려와서 안 허는 건지 몰라도.
#1 아무 것도. 아니, 어려운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그런 것이 엇입데다.
@1 아.
#1 난 스물일곱에 베완 물질 헤수다만은 스물일곱에, 스물일곱 살 나사 베완 물질을 헷는데 옛날부터 그런 것이 없어.
@1 음.
#1 게난 우리, 우리 오라바님들이영 우리 아버지들이 테왁을 멧 개 벌러신지 몰라. 물질허지 말라고.
@1 음.
#1 겐디 나는예, 촐 비레 갓다 왕 팔월[팔뤌]에 촐 비레 갓다 와근에 이 앞갯물 아래 저, 북제기옌 헌 디 강, 그냥 모욕허레 가면은 이런 안경 영영 안경 썽 가믄은 전복을 진짜로 구덕으로 하날 잡앙 와.
@1 음, 음.
#1 경허민 우리 어머니예, 다 못 풀아근에예, 동네도 문딱 줘낫어.
@1 아.
#1 하도 그냥 바당에만 갓다 허민.
@1 완전 테왓, 테왓구나, 완전.
#1 경허난 경 헤도 못 허게 허단에 스물일곱 나난 그냥 어쩔 수 엇이 살기 바쁘니까 거라도 헤 보주긴 헨 간디 일등 상군헨, 헷주게.
@1 음. 경헤도 영등굿을 안 허고, 해녀굿도 안 허고.
#1 아니, 일절.

@1 음, 알앗수다.
#1 우린 속곳만 입언 물질 헤수게게.
@4 음. 스물일곱은 씨집간 후잖아예?
#1 음, 후제. 하도 어려우난.
#2 소중이, 소중이만 입언에.
#1 그냥 먹고 살젠 허난. 어멍네 집이 강 도렌 허젱 헤도 부끄럽곡.
@1 음.
#1 경허난.

삼월

한식

@1 그다음에 삼월 하면은 한식은 또 헤실 거 닮아.
#1 한식 허는 집은 헷주.
@1 예.
#2 한식도 전체는 안 하고.
#1 아니고, 전체는 아니고.
@1 아.
#1 한 삼십 프로, 이십 프로?
#2 어, 한 삼십 프론 헤실 거라. 한식 멩질.
#1 한식 멩질.
@1 삼춘네는 헨, 안 헨?
#1 한 삼십 프로.
@ 삼춘네는 안 헨?
#1 안 헨.
@1 아.
#1 오월달.
#2 오월달.
@1 아, 한칩이도 안 허고, 강칩이도 안 허고.
#1 예.
@1 어. 김칩은 헷수과?
#2 오, 오, 오월 단오.
#1 오월 단오는 잇주.
@1 아.
#2 단오는, 한식은, 한식은 멩질은.
#1 한식은 우리 일동에는 허는, 허염젠 헌 말이 엇어.
#2 들어보질 못헷어게.
@1 어, 이동에는 이선게만은.
#1 아.
#2 한식 멩절을?
@1 예.

단오

#2 단오 멩질은.

@1 찬밥 헤갖고 헷다고.

#2 훈 삼십 프로.

#1 그건 우리 동네는 엇수다.

@1 거난예, 이웃마을인데도 엇저예? 게믄 단오 멩질은 허고예?

#2 단오 멩질은 헤수다. 많이 헷어.

#1 단오 멩질은 헤수다. 우리도.

청명

@1 게믄 삼월 나면 청명에들은 일들 좀 출리잖아예?

#1 청명에는 그냥 산에들 가근에 그 저 산소에 강 검질메는 거주게. 풀, 잡풀덜 나지 말게. 난 것덜 강 메어 드리곡 그자.

@1 예.

#1 산에 강 돌봐 오는 거는 그냥.

#2 새철 들엇다고 헤 가지고 이제 묘소를 돌, 돌, 돌아보는 거주게.

#1 돌아보는 거는 이수다.

#2 자손들이.

새철

@1 아이고, 아까 새철 잘 굴아줘수다. 정월에 그 입춘. 새철 드는 날 굴아 줍서.

#1 새철 드는 날이믄.

#2 입, 입, 입춘 아니라 무사?

#1 음. 끈에기덜 아졍 뎅기지 못허게 허주. 끈에기덜.

@1 끈에기?

#1 예, 그거 베염 난덴.

@1 아.

#1, 2 (웃음).

@1 야, 이거 처음 듣네. 또.

#1 예, 물에 들레 갈 때도.

@1 예.

#1 우리는 그때는 허벅, 집이서 테왁을 젼 뎅겻주게.

@1 예.

#1 그날은 그냥 끈에기 엇이 그냥 읖등이 구덕을 지엉 가. 테왁이영 다.

@1 아.

#1 영 헤근에.

#2 뱀 난덴.

#1 베염 난덴 헤근에 그냥 그 저 아예 그냥 끈에기를 안 헹 뎅겨.

@1 음.

#1 게난 읖등이에 찌엉 뎅겨.

@1 그 저기 새철 드는 날 저기 바농질 헤도 손 찔른다, 이런 말 안 허고?

#1 그런 말은 엇고. 우리 해녀들은.
@1 어.
#1 딱 이 줄, 줄 아져 뎅기믄 베염 난덴 헤여근에예.
@1 예.
#1 이디 ○○이 성님은 이제도 경 헤여.
@1 음.
#1 경 믿는 게.
@1 아.
#1 이제 저 이제 ᄋᆞ든다섯 난 어른 물질허는 어른은 이제도 저 새철 들, 들 때는 절대 올레 베끗디도 안 나곡, 안 나가곡.
@1 음.
#1 그런 할망 시우다, 하나.
#2 자기 정성으로이.
@1 예. 아이고, 놈이 집 안 가고예?
#1 아이구, 그 어른. 예. 그 어른은 놈이 집도 안 가.
@1 으. 그 할무니 한 번 만나봐야커라. 무사 경 헴수광? 헹은에.
#1 완전, 완전 옛날 구가다.
@1 예. 아, 끈에기 들렁 뎅기믄 베염 난다고?
#1 예, 그거.
@1 야야. 요거 하나 또 추가하고. 그다음에 그 새철 드는 날, 여자들은 놈이 집이 안 가주만은 남자들은 가도 뭐, 뭐렌 안 헌덴 허멍예?
#2 글쎄이. 그, 그 전날 어디.
#1 견디 새철 드는 날 어디 가곡 오곡 허는 사람들이 별로 엇주게.
@1 아, 엇인가?
#1 여자들이나벳기. 여자들이나 주책엇이 잘 뎅기주.
#2 남자도 정성이라. 남자도.
@1 그다음엔 그때 입춘첩들도 쓰고, 저기 대문에 입춘대길 부쳥?
#1 절간에들 뎅기는 사람들만 헤당 부칩니다.
@1 아. 여기서는 안 헙니까? 입춘대길.
#1 아직ᄁᆞ진 그런 것이 엇어.
#3 글 쓰는 사람은 써서 부치고.
#2 여기 옛날 서당, 서당 할 때에는 그거 그 서당에서들 쓰렌 연습덜 허면서 집안에 부치기도 헷어.
#1 아니 멘촌은, 멘촌은 변○○이가 살아 이실 때ᄁᆞ진 경 헷일 거우다. 멘촌은. 변○○이가.
#2 여기도 장 소장 살아 이실 때 그거를 많이 집집마다 많이 부쳣어. 장칩이도 헷는데 그 서당이 없어지니까 그것도.
@1 별도로?
#1 별도로 그냥 이 마을에서 허는 거는 없고.
@1 예. 많이 허질 안헷구나예? 여기는예, 입춘대길헤서.
아, 지금도게 부찌는 집.
@1 그 입춘첩 이렇게도 안 헤여?

#1 안 헤마씀.

보름떡

@1 정월 보름에 보름떡 헤 먹거나도 안 허고?

#1 그건 옛날 시리떡 쳔 먹엇주.

@1 아, 그 말 골아줘 봅서.

#1 옛날은예, 정월 보름 나면은.

@1 으.

#1 집이서 쳐 먹는 것이 아니고.

@1 으.

#1 이 동네 친구덜끼리덜 쏠 흔 작박썩 모두와당 물에 컹.

@1 음.

#1 방엣혹에서 찌엉, 그 옛날 돌ᄀᆞ레 영 돌아가멍 허는 디는 많이 헌 사람들은 그렇게 허곡.

@1 음.

#1 아니 헌 사람들은 집이서 그 돌혹 방에에서 이제 뼛아근에 이 오메기떡을 헹 먹으나 시리떡을 헹. 게난 시리떡을 많이 허는 원인은. 시리떡이 이제 징징이 놉니다게.

@1 예.

#1 징징이 이렇게. 예를 들믄 큰성님, 둘째, 셋째 허멍 영 헹 징징이 놓면은.

@1 으.

#1 이 가운디 것이 이 사름이 그 해에 궂젠 허민 이 가운디 사람이 꼭 설어, 그게.

#2 (웃음)

@1 으.

#1 아이고, 꼭 구신이라, 진짜로.

@1 예.

#1 겨난 그때, 그런 땐 미신 엇덴 뭐. 우린 안○○이 각시 살 때는 우린 안○○이네 집이서 많이 헤 먹엇수다게, 그거를.

@1 으.

#1 ○○이네 집이 강 그거를. 안○○이 어머니네 집이.

@1 예, 예, 예.

#1 안○○이 어머니기 친목이난. 그때 그 집으로 가근에 그냥 그 어른이 경 좋은 어른이난 그 집이 강 떡을 치는디. 중간엣 사름, 이 사람들이 설게 뒈믄 이 옆이 것이 꼭 어디 그 경 허믄 그 사람이, 예를 들엉 영 앚이면은 그 사람이 떡 썬 사람 꼭 그 집이 똑 무신 일이 나.

@1 어. 게난 떡점을 헌 거라예?

#1 예. 그난 그거를 그 경험을 헤보젠 허민 것도 쌀떡도 아니, 좁쏠떡으로.

@1 아. 좁쏠로?

#1 예. 쌀떡으로 아녀 부난 좁쏠로 헹 쪄야. 그 좁쏠떡이 좀 치기가 까다로웁니다게.

@1 예.

#1 원만허믄 잘 안 익어. 옛날도예.

@1 흐린좁쏠?

#1 예. 떡 치다근에예, 바깟디 졸락졸락 화장실에 갓다 오민예, 떡이예, 파파파파파파팍 그

냥 막 ᄇᆞ름을 나 불어, 그냥.
@1 예, 예.
#1 기냥 떡 치다근에 화장실에 갓다오면은, 화장실에 갓다 오면 손 시쳐야 뭴 거 아니꽈?
@1 예.
#1 경 헤도 그 부억에 들어오면은 그 떡이 기냥 날벼락이 쳐 불어.
@1 으.
#1 그 떡마개를 이렇게 허지 아녑니깡?
@1 예, 예.
#1 그것이예, 팍팍팍팍 터져.
@1 음.
#1 거 이상케 경 헙디다?
@1 게난 조왕허고 칙간이 안 좋은 이유가 잇어.
#1 예, 그것이 잇어.
@1 아.
#2 기술이 부족헌 건 아니고?
#1 아니, 아니. (모두 웃음)
@1 아, 게난 그 저기 정월에는 그런 그 떡예. 모둠떡 헤근에 보름떡.
#1 신수보기.
@1 신수보기 허는 거.
#1 신수보기주.
@1 예, 그런 신수보기 허잖아. 게믄 그 새철 드는 날도 그런 거 허지 안 헤마씸?
#1 안 헤마씸.
@1 다른 덴 가난 저기 일동에. 그 대죽에예, 콩 열두 방울 헤 갖고 물에 동강은에 저기 운헷덴, 콩점 헷덴 헨게만은.
#1 그거 이동에서 경 흡디강?
@1 예.
#1 그거 삼양 사람, 원레 삼양 사람 아니고 어디 저 동촌 사람일 거우다.
@2, 3 (웃음)
@1 아니.
#1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웨냐허면은.
@1 으.
#1 동쪽드레는 저, 저 김녕.
@1 음.
#1 아니믄 저.
#3 성산?
#1 아니, 성산, 성산 넘어가믄 어디고?
#3 온평.
#1 저.
@1 드른둘 사람이렌 허든데?
#2 드른둘?
@1 예, 어제 들른둘.

#1 이름이 뭐?
@1 홍, 이름이 뭐니?
#3 홍○○이?
@1 예.
#2 홍○○이네가 그걸 헤신가?
#1 홍○○이?
@1 예.
#1 홍○○이 원래, 원래 드른둘 사람 아닌데? 그 사름 봉개서 내려온 사름인데? 아버지네가?
@1 응, 어쨋든 간에예, 경 헤근에 헷덴마씸.
#2 지금 드른둘 산덴 말이주.
#1 아니, 그 취락구조에 살암주만은. 그 사름네 원래가 각시는 어디 저 동촌 여잔가 몰라도예.
#2 아니, 저 아라, 아라.
#1 홍○○이, 홍○○이는 원래에 봉개선가 어디선가 내려왓수다게.
@1 음. 어쨋든예, 그런 거 경 헙디다게.
#1 어, 그디?
@1 어머니네 그 어룬.
#1 어머니가 어디 사람이지?
@1 그니까. 예.
#1 아, 홍○○이가 경 헹?
@1 예. 오늘 그 말 콩 이렇게 헤 갖고 그 대죽 쏘곱에 그거 열두 개 놩은에 헷덴.
#1 (웃음). 처음 듣는.
@1 예, 여긴 안 헷구나.
#1 난 첨, 첨, 처음 들어 봠수다. 제주도 적으로 처음 들어 봠수다.
@1 음.
@3 아버지 때가 그렇게 하신다고.
@4 아버지가 그렇게 헷다고.
#1 아버지가 헷젠?
@1 예, 어른 그 전에.
#1 아.
@1 거난, 거 봐낫덴예.
#1 음.
@1 예, 그런 거 비슷헌 말 저도 들어보긴 헷는데.
#1 으.
@1 그냥 삼양에서 나오난 여기도 헴신가 헤 갖고.
#1 아니, 절대.
@1 아니, 절대?
#2 처음 듣는 말이라서. (웃음).
@1 어쨋든 마을마다 쪼금씩 다르기도 허고예.
#1 예.

@1 일동하고 이동도 뚜나고.
#1 예, 틀립주마씸게.
@1 예.
#1 첨, 또 정월 나면 또 하나 시우다.
@1 예.
#1 가물개당이 이수다게.
@1 예, 가물개당.
#1 당. 거기는예, 정월 나믄 또 마을제 지내나면은.
@1 응.
#1 똑 당에덜 가마씀.
@1 예.
#1 그런 거는 우리 일동에 사람 흔 칠팔십 프로가 다녓수다.
@1 예.
#1 나도 아프기 전이는 다녓는디 귀획정리헨 그 당이 엇어져 부난 안 다녓주마씨.
@1 게난 본향이 여기?
#1 어, 본향.
@1 여기 사람도 그 가물개당을 간 거구나?
#2 가물개 많이 다녓주.
#1 본당이주게, 그것이 본당.
@1 거기 본당, 아.
#2 본당. 거기 갓다 오면은 애들 피부도 좋아지고.
@1 예.
#2 감기도 안 걸리곡. 그렇게 하드라 헤 가지고.
#1 그것이 ○○, ○○ 어멍이 마탄, 도마탕 헤나수다게.
@1 예.
#2 ○○ 어머니가 건 그 관리를 헷어.
#1 도마탄 헷어.
@1 그래도 거기서 막 굿하는 게 아니라 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닌덴 허멍?
#1 으, 개인적으로.
#2 어,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조그만씩 담아서.
#1 개인적으로. ○○ 어멍안티 강.
#3 어디서든지 다 그러니까. 주인이 엇어.
#1 그냥 주인이 엇으니까 정성허는 사람은 ○○ 어멍 강 데려다근에 돈 만 원 놓면은 그거 가졍 가곡 쌀 가져가곡 헤근에 허곡.
@1 음. 비념헤 주고.
#1 또 경 아년 사름덜은 우리대로 가근에 말명으로 할무니 삼양일동에 설개서 누게 누게 완 감수다양.
@1 음.
#1 좋게 헤 줍서양. 아프지 말앙 오래오래 삽서양. 허여근에 인사만 헤동 또 와.
@1 음, 말명으로만예?
#1 예.

@1 게난 그추룩 헹 마을제 헤나면?
#1 헤나면 가.
@1 헤나면 꼭 간덴 허드라고예?
#1 음. 마을제 헤나민, 마을제 안 헤나믄예, 아무 디도 움직이지 안헙니다.
@1 겅 허니까, 음.
#1 예. 집이 제사벳기 다른 거 헐, 헐 거 엇어.
@1 거믄 그 포제단은 마을제 헌 다음에 그거 가고?
#1 예, 예, 당에. 흠마 잊어불언.
#2 그 마을, 거기 간 거는 한 이십오 년?
@1 예.
#2 이십오 년 정도밖에 안 뒛어.
@1 예.
#1 아니, 나는 구획정리 흔 후제 안 뎅겨 불엇주. 이십 년.
#2 어, 게메. 구획정리 하게 뒈니까.
#3 지금도 잇는데?
#1 잇긴 이수다.
#2 자그만치 만들언.
#1 이신, 이신디. 그때는 폭나무가 아주 컷주마씸게.
@1 으.
#1 경허곡 막 가지 벌어젼 헤신디. 그게, 그게 이제 구획 생기멍 엇어 부난 이제 쪼꼴락허게시리 놀이터 에염에 ᄒᆞ꼬만허게 헤 놓앗는데 나 간 봐신디 그거는 정성이 아닙디다게.
#2 (웃음)
@1 으. 거난 요즘은 포제단 헤난 딘, 다 마을회관 지어 불고예?
#2 공용, 공동.
#1 다 짓어 불언.

사월

초파일

@1 겡은에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월 뒈면 초파일, 절에도 뎅겸수과?
#1 절에는 그냥 막 막 지극 정성은 아녀고 그자 ᄒᆞ꼼 잊어불지 아녈 땐 흔 번썩 가곡.
@1 음.
#1 경 아녀민 안 가곡.
@1 게난 삼춘넨 문강사?
#1 우리는 저.
#2 웃절?
#1 저, 저.
#3 수운교 아니?
#1 수운교.
@1 아, 게믄 저 봉개 감수과? 봉개?
#1 봉개. 이동에 잇다근에 봉개 가 부난.

@1 아, 원래 이동에 잇어난?
#3 그 전에 이동에 맥상에 잇단 걸 치우라고 헤서 그디 가 분 거.
#1 아니, 원래는 삼양삼동.
@1 음.
#1 임○○네 집.
#3 예.
#1 임○○네 집 잇다가 임○○네 집이서 이동을 완에.
@1 음.
#1 이동 잇다가 막 오래 잇다가.
@1 이제 막 크게 지어십디다? 봉개?
#1 이젠 봉개 간 막 크게 짓어수게. 막 크게곡 말곡 엄청 크게 짓엇어.
#2 ○○, ○○가 담당이라.
#3 ○○ 어머니가 나안테 그러드라고. 그 맥상에 잇는 거니까 동네에서 치우라 헤서 거기 갓다고.
@1 으음. 맥.
#2 아, 여기서?
#3 이동에, 이동에.
#1 귀획정리 허멍게.
#3 구획정리 헤도 일단 맥상에 잇으니까.
#1 아.
#3 거기를 간 거라. 이○○ 씨 땅인데 거 비싸게 줘신디. 그때 당시 사십만 원 주고 샀어.
#2 그때는 비싸게 샀어.
@1 그 초파일 때는 뭐 헙니까?
#1 뭐 초파일 집이서 ᄀ만히 놀곡, 저 흔 열두 시 뒈민은 저 그 절간 뒤에, 불탑사 뒤에 그 망오름이엔 헌 디 올라가근에 그냥 허벅 장단 두들멍 그냥 놀당덜 오주게.
@1 아, 초파일 때 그렇게 놀안마씨? 여기서?
#1 어, 어. 허벅 장단덜 아져강덜 그냥 그.
#2 초파일날 노는 멤바덜이 신촌, 조천, 화북.
@1 예.
#2 으, 그에서 젊은 친구들은.
#1 그디서 그냥.
#2 그날.
#1 다들 모여서.
#2 막 기들(?) 살기 위헤 가지고 와, 와.
@1 예.
#2 소 매면 소 싸움 부트듯이 막 그 장정들이 싱키려, 거기서. 허다가 이제 좀 싸움도 언쟁도 좀 허곡. 이렇게 하, 하, 하고. 또 그 당시는게, 이 술덜이 없어, 귀헤 가지고.
@1 예.
#2 없엇으니까 경 먹어보질 못헷는데. ᄉ월 초파일날 같은 때는.
@1 아니 ᄉ월 초파일, 거기 절들 막 이신디 그디 강 놀아?
#1 그 아래.

#2 그 우에. 그 우에.
@1 알, 알오름.
#1 그디가 오름 이름이 망오름인디.
#2 노는 장소가 좋아.
#1 그디가 장소가 좋아.
@1 아.
#1 장소가 펜펜헌디 시니까예, 멧 군데로 그냥 이 판 이 파대로, 저 판 저 파대로 메영 막 놀주게.
@1 어.
#1 경 헹 놀당 그냥 이녁 시간 볼 일 시민덜 살살살살. 가라 오라 안 헤. 그냥 자기 자유대로 그자 갓다리 왓다리 그자 헹은에.
@1 ᄉᆞ월 초파일날 그치룩 강 놀아예?
#1 예.
@1 따른 날 아니고?
#1 따른 날 아니고 그날.
#2 술 먹는 젊은 사름들은 어쨋든 의식을 잃을 정도로 먹으니깐.
@1 아, 그날은?
#2 어. 그래서 절간이 와서 이 저 예배를 드리고.
@1 예.
#2 드리고 나서 오, 나오면서 자기 신발이 어디 어느 건지도 몰르고 남이 신발 신고 와 가지고. 이튿날은 나 신발 잊어버렷다고 헤 가지고 막 찾이레 다니고.
#1 신 바꾸레덜 뎅기곡.
@1 아. 신 바꾸레 뎅기곡?
#1 예.
#2 그런 적이 잇어.
@1 옛날부터 여기, 이 동네는 그추룩 놀안예? 망오름 강?
#1 예. 이 웬당봉도예.
@1 예.
#1 웬당봉도 지금 삼분이 일은 신촌이고 삼분이 이는 삼양일동 거우다게.
@1 삼양, 으, 예.
#1 것이 어떻게 경 뒈엇냐면은 신촌 사름ᄒᆞ곡 우리 설개 사름ᄒᆞ곡 싸움을 부튼 거라.
@1 으.
#1 이기민 이 웬당봉을 주켄 허연 저거 반착만인디.
@1 으.
#1 우리 설개 사름이 우리 강칩잇 하르방이 저 싸움헨 이견에.
#3 한칩이 하르방이렌 허든데? 한칩이 하르방이렌?
#1 아니, 강칩잇 하르방. 강칩잇 하르방이엔 홉데다.
@1 으.
#1 나도 지금 확실힌 모른디 우리 아부지가 굴은 건, 우리 아부지믄 우리 조상이엔 곧주.
#3 한칩잇 하르방이 힘이 세어 가지고 이겨 가지고 찾앗다고.
#1 강칩잇 하르방이엔, 이견에 어쨋던 간에 겡 헨 이견에 삼분이 이를 가져온 거야.

@1 어.
#1 지금. 그믄 그디 딱 말목 박안 이수다.
@1 아. 신촌 거영, 여기 거영? (웃음).
#1 으. 웬당오름 꼭대기에 가믄 딱 오름 중심지에 잇어, 거기.
@1 아.
#1 지금도.
#2 행정적으로 분할이 됴엇지.
@1 예, 예, 예.
#1 거난 지금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이거 무신 말툭인고 헴주만은 우리는 가면 그냥 그거 이거 무신 춤 본당을 다 알암주마씸.
@1 예.
#1 (웃음). 재미난 동네우다.
@2 거기가 망오름마씸? 혹시 나부기엔 헌 말은 그디 아니꽈?
#1 아니. 우리 설개는 나북은 없어.
#2 저쪽에.
@2 원당오름 쪽이렌 헨게만은.
#1 웬당봉오름 쪽에 나북?
@2 나부기.
#3 나부기오름이 잇다고. 칠봉이니까. 원당오름이 칠봉이니까.
#2 칠봉에 들어가는 나부기는.
@2 아아. 칠봉 중에 하나가 나부기오름이 이수과?
#3 에, 에. 그렇지.
#2 봉오리, 봉오리.
@2 기구나.
@1 봉오리 중에?
#2 어떤 사름은 잘 몰라.
@1 게믄, 게믄 원당봉이 칠봉이잖아예? 칠봉마다 다 이름이 잇어?
#3 예.
#1 이름은 이신디 다 모르쿠다.
#3 아까 나부기 같은 것이 그 하나의 이름.
@1 잠깐만예? 앞봉.
#2 앞봉.
@1 예.
#2 원봉.
@1 예.
#1 망오름.
@1 망오름.
#1 앞오름.
#2 망오름, 앞오름.
#1 에고.
@2 나부기오름?

#1 나부기오름. 또 요디ᄀᆞ라 뭐옌 ᄀᆞᆫ나만은. 아이고, 잊어불엇저.
#3 앞오름에 속하주게.
#1 요건 앞오름. 망오름. 앞오름도 두 개 아니꽈게?
#2 으, 게난. 이쪽이 잇고, 저쪽이 이시난.
#1 으, 게난. 그 이름을 모르크라. 망오름.
#2 저.
#1 또시 저 망오름도게 봉이 두 개옌 흡디다.
#2 음.
#3 나 어디 적어 논 거 잇는디 거. 교육 받을 때.
#2 평부 잘 알앗는데.
@1 어짯든 한번예?
#1 평부가 잘 알 거우다. 그디 막 이 앞오름 밧 이수게.
#2 밧 이시난 잘 알아.
@1 음.
#1 하르방 밧.
@1 한번 알아봐 줍서. 일곱 개. 거난 일곱 개 중에 나부기오름, 봉이로구나.
#1 아니, 김○○ 씨가 죽어부난.
#3 아, 지금도 금방 오○○이안티 전화허민 알 수 잇어.
@1 아니, 오○○안티 전화허민 안 뒈고, 이 설개 사람안테 들어 봐야 뒈.
#2 그렇지.
@1 오○○ 선생은 오○○ 선생대로 조사헤서 헷지만.
#2 으.
@1 우리는 설개 사람 입을 통헤서 알아야 뒈마씸.
#3 예.
#1 아.
@1 그지. 설개 사람 헌 말이 정확한 거니까.
@2 오○○ 선생님헌테 물어볼 건 우리 책으로, 책 찾아보민 나오고.
@1 학자들 헌 이게 아니라, 우리 본토배기들은 어떻게 불르는지. 경허난 우리가 조사허는 거마씸.
#1 아.
#2 칠봉에 나부기오름이.
#1 칠봉이 이름을 그냥.
#2 원봉, 전, 전봉.
@1 아, 원봉도 잇고, 전봉, 아, 앞오름이 전봉.
#1 원봉이 원당봉이주게.
#2 원당봉을 원봉이엔 허고.
@1 예.
#2 전봉은 앞오름.
@1 예.
#1 망오름.
#2 망오름. 앞오름, 망오름. 어느 구석이 뭘는지 몰라도.

@1 예. 거기에.

#2 망을 옛날에.

@1 망 봐난 디예? 으.

#1 예.

#2 방화를 티와 가지고 망을 봣던 전달헷던, 통신.

#1 아이고, ᄉ삼사건에 웬당봉에 불 놩. 아이고, 아이고. 망 훳불 들렁 헤난 거 셍각허민 아이고, 대가리 아파.

@1 음.

#1 웬당봉이 원목 아니꽝게.

@1 으.

#1 우리 삼양 지역 전체 지역은, 웬당봉에 왕 훳불 하나 딱 비추면은 그땐 폭도들이 막 왕상허게 내려와근에 문 가져가곡 죽이곡 헤수게게.

@1 으, 으. 웬당봉에서예?

#1 경허난 이젠 둣날은 산림청에서 소나무 싱그레 글렌 핑계 헨에 그때 웃절간에 간 열 멧 사람을 심어 왓주게. 웃절간 그 천장에 곱은 거. 그때 빌레 아시덜 안○ 고○○이 이모도게, 그디 간 심어 오난 우리 하르버지 그냥 콩, 콩 마당질허는디 베낏디로 영영영 웽겨 놓는 작, 작데기가 이수다게.

@1 으.

#1 그걸로 헨 허단 그냥 우리 아덜 내놓렌 헨 강 그냥. 난 이제도 ○○이 봐지믄양, 그 셍각벳기 안 납네다. 우리 하르버지 그냥, 우리 족은아버지 ᄀ만이 집이 시난 심어당 죽여 불엇수게게.

#3 음.

#1 폭도덜 둘아가카 부덴게. 경허난 그때에 열 멧 사람 간 심어 와낫주. 웬당봉에 훳불 싸난.

@1 음.

#3 그땐가 그믄. ○○이 삼춘이 얘기하니까, ○○이 어멍이 여기서 산지까지 수영헤서 갓데.

#2 경 헷덴 허여.

#3 예. 독종이라고.

@1 음.

#1 그때 아녀민 죽을, 죽을 거난게. ○○이, ○○이 아방이 그때 뭐 헨, 주장을 허연덜, 헤부난에게. 게 빌레넨예, 멩 지난 살앗수다.

#3 (웃음).

@1 게난예. 그놈의 사삼이 정말예.

#1 예, 어이고.

@1 그다음엔 사월 초파일엔 강은에 망오름 강은에 겅 놀고.

#2 놀고.

@1 예, 그거 말고는 엇어?

#1 엇어.

#2 축제주, 축제라.

@1 축제, 예.

@3 망오름 강 놀 때 저기 올 때, 허벅장단이 무시거꽈?

#1 허벅게, 물허벅게.
@1 허, 허벅으로 장단 치멍.
#1 물허벅 헤근에 얼씨구나 좋다, 저얼씨구 아니 놀지는 못허리라. 이렇게. 장구주게, 장구라.
@1 이야, 노래도 좋다. 못허는 게 엇인 거 닮아.
#2 장구주, 장구.
@1 소리 좋다.
@4 머리도 안 까까마씸? 초파일날은 아이들 머리 까끄는 건 엇어마씨?
#1 그런 거는 막 옛날은 헷젠 허여.
@1 으.
#1 옛날은 초파일날 머리 까깟젠. 머리 잘 돋으렌.
@1 예.
#1 겐디 그런 걸 우린 본 도린 엇어. 경 굴음만 헷주. 어머니덜이.
@1 아니, 삼춘네 애기 키울 때는 안 헤 봔?
#1 우린 아녀봔.
@1 아이고야, 나도 머리 까까나신디.
#1 나는 우리 아덜덜은 다 길러근에 나 아덜덜토 다 파마 헤 줘낫어.
@1 아. (모두 웃음) 저도 어린 때 헤근에 머리 까까난 저기 잇어예.
#1 으.

오월

단오 멩질

@1 그다음에 이제 오월 단오 멩질.
#1 단오 멩질덜은 다 헷주게.
@1 단오 멩질 어떤 식으로 헤수과?
#1 단오 멩질은 간단헤.
@1 으.
#1 떡도 안 허곡.
@1 아, 떡 안 허고마씨?
#2 어, 무사 떡?
#1 으, 우린 떡 아녑디다.
#2 저, 침떡 올리는디. 돌레.
#1 설기떡, 돌레떡 치는 집인 치는디.
@1 으.
#1 아녀는 집이는 그냥 밥허곡 채소허곡 과일만.
@1 으.
#1 경 흡디다게. 간단허게 그거는. 막 방상덜 돌아뎅기멍 먹지도 안허곡.
@1 아, 집에서만예?
#1 으.
@1 게, 언제까지, 단오 멩질은 언제까지 헤수과? 여기는?
#1 단오 멩질도.

#2 한 삼십 년.
#1 이 구획정리허난덜 구획정리흔 후제는 다 엇어진 거 닮아.
@1 그놈의 구획정리허니까.
#2 (웃음).
@1 아니, 집들이 다 달라지고예?
#1 그게 웨냐면은.
@1 으.
#1 우리 삼양일동 원주민이 삼벡 멧 세대거든.
@1 예.
#1 견디 반 이상을 나가 불엇주게.
@1 아.
#1 지금. 경허난 그때에 허던 어른덜이 돌아가셔 불고 나가 불고 허니까 애기덜은 부모덜 허는 거 분시 몰랑 잘 안 헤 버리니까.
@1 음.
#1 그게 엇어진 거야.
@1 아.
#1 그게. 안 허젠 헨 아년 것이 아니고 아무 분시도 몰르니까 엇어져 버린 거지.
@1 음. 자연적으로 엇어져 분 거예?
#1 음, 자연적으로.
@1 예, 예. 시대 흐름도 그렇고. 겡은에 이제 농사헐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오월, 음력 오월이면 막 보리하고 헐 때잖아예?
#1 보리허고.
@1 게 그때 얽힌 뭐 이런 이야기들 이신가마씨?
#1 무시거?
@1 망종에 어떻게 헌다, 오월 망종 전에 보리 다 비어 들이라, 뭐 이런 말.
#1 아니, 그런 건 엇고.
@1 으.
#1 그런 건 엇곡, 저 그냥 흔저 보리 비어근에 조 불리곡, 보릿그르에 감저 싱그젠덜 막 바당바당바당바당헤근에 문 비엉 ᄂᆞ람지 둘러근에 눌어둬근에, 그디 농사지어뒁 보리 훌트곡 장만허는 거는 그냥 기계로 아녀근에 그냥 두드리멍 허는 거니까.
@1 으.
#1 한걸히 그자 노는 시간에 헌 거거든.
@1 음.
#1 다른 농사지젠 허민 빨리 걷어야 뒈니까.
@1 예.
#1 그런 것만.

유월

조 불리기

@1 그런 것만. 게믄 조는 언제 불려마씨?

#1 유월, 유월.
#2 유월 망종.
#1 유월달 나면은.
@1 응.
#1 보릿그르 갈아근에 번헷당.
@1 예.
#1 흔 열흘, 스무날 잇다가 그때는 또시 가근에 밧 갈아근에 조 불리주.
@1 으.
#1 조 불릴 때는 아까 식으로 또시 이젠 막 물 헤근에 그냥 얼러러러 허멍 그냥 그 조밧 문 불려근에 허면은.
#2 씨 그 씨 잘 나올 수 잇게끔.
#1 씨 잘 나면 비 잘 와근에 씨 잘 나면 그게.
#2 풍년이고.
#1 풍년이고.
@1 으.
#1 씨 잘 못 나근에 그냥 뜸뜸뜸뜸 나 불믄 놈의 밧듸 강 그 조 문 뽑아다근에 이거 문딱 싱거사주.
@1 아.
#1 그냥 흔 뻠 사이로. 문 싱거. 경 허젠 허믄 여름에 비 올 때는 집이 강 집이서 낮잠 자는 날이 없어.
@1 으.
#1 그 비 맞이멍이라도 그 조를 싱거야 뒈니까.
@1 게난 보통은 조를 하영 낭은에 소끈덴 허잖아예?
#1 으.
@1 근데 그 놈의 밧듸 소끈 저기 헤당은에 싱그는 거 뭐 헴덴 헙니까?
#1 조 소까다근에 그 밧 임제신디 곧주게.
@1 예.
#1 조, 느네 밧듸 하영 낫언게 ᄒᆞ꼼 줄 티야, 허민. 예, 소까 갑서. 허면은 조 가근에 소까다근에 싱그는 거주, 그냥.
@1 그냥 싱근덴 헙니까?
#1 응.
@1 다른 표현은 엇고?
#1 다른 표현은 엇어.
@1 어, 그렇게.
#1 조, 조 불류와근에 안 나면은 안 난 밧듸는 그냥 조, 모종 메다근에 그냥 싱그는 거뿐.
@1 음. 그추룩 허민 잘 살아마씸?
#1 아이고, 막 잘 살주게.
@1 아.
#1 게난 그 온도를, 게난 안 골앗어? 비 맞일 때 싱거야.
@1 예.
#1 또 벳 나 불믄 다 죽어 불 거니까게 옛날은 비료도 엇곡 허니까.

@1 예.

#1 순전 뒈지걸름허고 또 저 소걸름벳긔 엇어 버리니까 그거 걸름 잘 놓는 집이덜은, 소 몰 메는 집이덜은 농사를 잘 뒈곡, 그냥 맨 바닥에서 허는 사람들은 그냥 깡깡 몰른, 흔 섬 날 거를 예를 들어 서른 말 날 거믄 스무 말벳긔 안 나곡.

@1 예, 예.

#1 농사를, 그 비료를 엇이. 지금은 비료만 주곡 이제 약만 잘 주민 뒈는데 그때는 거름이라는 건 쉐똥허곡.

@1 음.

#1 도세기똥벳기 엇주게. 게난 그자 우선 담는 거는 그냥 쉐 또꼬냥에 허곡 도세기 통에 그자.

#2 검질 담는 거.

#1 보리낭 검질 담는 거만 일이주게.

@1 예.

#1 걸름을 만들어야 뒈니까.

@1 음.

#1 게난 통시를 크게 만드는 거라. 뒈지 길루는 디.

@1 예.

#1 경 헤근에 그냥 그디 그냥 비만 와 가도 그냥 담곡. 불르렌.

@1 불르렌?

#1 불르렌 헤근에.

@1 아. 게난 그 유월에 그 조 불리는 건 음력 유월에 허는 거?

#1 음. 음력 유월에.

닭 잡아먹는 날

@1 음력 유월에예? 겡 그추룩 조 다 불려나면 둑 잡아먹곡 헤수과?

#1 아, 그런 거는 엇고게.

#2 (웃음).

@1 유월 쑤무날?

#3 유월 수무날.

#1 아, 유월 스무날 건.

#2 복날?

@1 으.

#1 아, 복날게. 딱 일 년에 흔 번. 이제는 초복, 중복, 말복 허는디 지금은 그때 그냥 유월 수무날 딱 하루.

@1 예.

#1 유월 쑤무날.

@1 유월 쑤무날.

#1 유월 쑤무날.

@1 유월 쑤무날엔 게난 저기.

#1 둑 잡아먹는 날.

@1 둑 잡아먹기는 헨?

#1 으. 건 하늘이 무너져도 잡앙 먹어야 뒈어.
@1 아. 그 말 혼 번 굴아 줍서. 얽힌 이야기.
#1 그냥 얽힌 이야기 아니고, 그날 유월 수무날은 집이서 독 잡는 거. 두 ᄆᆞ리, 식구에 따라서 다섯 식구믄 두 ᄆᆞ리나 세 ᄆᆞ리 잡곡.
@1 으.
#1 두 식구민 하나만 잡곡 헤근에 옛날엔 독이 오죽 컷어게?
#2 집에서 질룰 때니까.
#1 경허믄 그거 허영 잡아근에 그냥 쏢아근에 그냥 튿어 먹곡.
@1 으.
#1 튿어난 국물로 헤근에 죽 쒕덜 먹고.
@1 음.
#1 겐 무신 지금 쏠이라? 그 옛날 나룩쏠.
@1 산듸.
#1 산듸쏠. 따락따락혼 거.
@1 응.
#1 그거 헤근에.
@1 음.
#1 겡 헹 먹엇주게.
@1 삼춘네는 게도 부자니까 두 개도 쏢앙 먹고, 세 개도 쏢앙 먹고 헌 거 아니?
#3 (웃음).
#1 아니, 독을 많이 길루니까.
@1 음.
#2 집에서 길루난에.
#1 아니 경 허면은 독을 질룹당 보믄은 옛날엔 독집도 엇주게. 게난 이런 이런 집가지 아래.
@1 예.
#1 아래에 옛날엔 초가집이니까 이런 집가지 아래 이렇게 흑으로 만든 데 잇어.
@1 예, 예, 예. 반축 영 헤 갖고?
#1 영 헤근에 그런 디 시민, 그디가 독망이라.
@1 아.
#1 겡 헹 놔두민은 이눔이 청년들이 그냥 이 집이 부젯칩이렌 헹 강 독.
#3 (웃음).
#1 겐디예, 독 심어 가는 날은예, 독도 주꾸지도 아녑니다.
@1 (웃음).
#1 거 이상케 겅헤여. 겡 헹 심어당덜 잡앙 먹어 불곡. 겅 헷자 욕허지도 아녀곡. 옛날은 그런 거 보통이난.
@1 아.
#1 그냥 그런 거 밧듸 강 감저 파당 먹곡, 그냥 웨 타당 먹곡, 이런 수박 같은 거 헤당 먹으믄 도독으로 아녕 그땐 막 먹을 때니까.
@1 예.
#3 서리한다고 헤서.

@1 으.

#1 예, 그냥 감저 쳥 먹겐 허믄, 감저구뎅이 강 퍼근에 주어둬근에, 난 줌자다근에, 아칙인 구뎅이 누게 읋아낫저 허민은 무시거? 경. 감저구뎅이 누게 읋앗저 허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경헤근에 줌자 불곡.

@1 감저구뎅인 읋아줘 놓고?

#1 읋아근에 퍼 줘동.

@1 퍼 줘동. (웃음).

#1 난 자는 거주게. 경 허믄 이젠 도독이 아니주게, 난게.

@1 예. (웃음).

#1 난, 똘은 집이 셔난 거주게.

@1 예.

#1 게믄 퍼만 줘 분 거주. (웃음).

@1 예, (웃음).

#1 경 헌, 게난 먹을 거 엇일 때난. 막 그땐 먹을 거 엇일 때난게.

@1 삼춘은 먹을 게 이시난 이제 이제 헤 주고.

#1 아니, 그냥 구뎅이 거 퍼 주믄 뒈난게, 그냥.

@1 음. (웃음).

#3 참, 참고적으로예.

@1 예.

#3 삼양일동 경로당에는 전통적으로 유월 스무날은 둑을, 둑죽을 쒀 줍니다게.

@1 아.

#3 참고로.

@1 참고로.

#1 동지날 풋죽.

@1 풋죽? 동짓날 풋죽도 쑤고?

#3 여하튼, 유월 스무날은 닭으로. 동지날은 풋죽이지만은. 닭죽을 그 전통적으로 허는데 그 전에 오○○ 씨가 엠비시에서 인터뷰를 허면서.

@1 예.

#3 유월 스무하루날이라고 골아 분 거라.

@1 응.

#3 게 이 동네 난리가 난 거야.

@1 어. 우리는 쑤무날 허는데.

#3 에. 스무날인데 당연이. 그래서 엠비시에 그날 전화를 헷지.

@1 으.

#3 그래서 정정헤 달, 정정 방송을 헤 달라니까 안 헤주더라고.

@1 아.

#3 나중에 오○○ 씨가 사과헷는데, 맞다고. 스무날이 맞다고, 오○○ 씨는.

#1 거 전통으로 옛날.

#3 자기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헤 불어.

#1 유월 스무날은 그냥 ****도 다 헤 먹으니까.

#3 그래 가지고 여하튼 지금까지 멧 년 전부터는 이제 생활이 풍부헤 지니까.

#1 초복 중복은 아니 헹 먹어도 그거 하루는 딱 헤 먹어.
@1 예.
#3 닭을 먹을 그 한가할 때 먹고, 닭을 먹어야 이제 그 힘을 쓴다고 헷어.
#1 더위를 깬덴 허영. 더위를 깬덴 허영.
@1 예. 더위 깬덴예?
#3 예, 그것이 변화됀 가지고 전복죽으로 먹엄수다, 이젠.
@1 음. (웃음).
#1 (웃음).
@1 요즘에야 뭐 삼계탕도 하고예?
#1 아이고 삼계탕 매날 먹어놓난[노난].
#3 예, 그것이 하나의 방패로 먹엇던 것이거든. 어떤 거 같으면. 의미가 부녀회에서 허는 거기 따문.
#1 그때는 더위를, 더위를 깨렌 헤근에 그 유월 스무날 그 둑죽을 먹어십주게.
#3 예, 예. 그니까 하나의 방패로 먹는 건데 변화됀 부니까.
@1 음.
#3 아쉬운 점이라, 그게.
@1 예.
#1 에에, 이젠 우린 안 먹엄수다게. 유월 스무날게. 에이구.
#3 (웃음).
@1 이젠 안 먹어 불엄수과?
#1 매날 삼계탕 먹고 매날 전북죽 먹는디.
@1 (웃음). 매날 삼계탕, 맞아. 옛날은 딱 한 번?
#1 그거 막 ᄉᆞ뭇, 별미주, 별미.
@1 예, 예.
#1 완전, 일 년 열두 둘에 그거 막 ᄉᆞ뭇 별미로 먹는 거주게.

칠월

칠성제

@1 음. 게믄 칠월 들면 칠월 칠석도 헤?
#1 칠석은 게난 칠석 태운 사름덜만 칠성제를 ᄒᆞᆫ다니까.
@1 아, 칠성제는?
#1 칠성 태운 사람덜.
@1 아.
#1 예를 들엉 우리 영 가족이 싯다 허민은 야이 칠성 태왓젠 허민은 야이 울엉 허곡.
@1 아.
#1 이런 식으로게. 게난 다 허는 게 아니고.
@1 아니고. 거난 칠성 태운 사람.
#1 예게.
@1 그난 우리가 칠성 허면은 칠석을 또.
#1 예.

@1 칠성 그 얘기를 허지예? 아, 게믄 절에서는 칠석날 저 불공허고 허잖아예?
#1 막 크게 헙니다.
#3 젤 크죠. 절에서는.
#1 칠성 불공은 완전 초파일보다, 초파일 다음이우다.
#3 초파일보다, 그 자손. 조상 천도니까.
@1 예, 음.
3 백중이 저 우란분재일이라 헤서.
@1 예.
#3 그 절에서는 가장 크게 치루는 게 잇어요.
@1 으.
#3 조상 천도허는 데.
@1 거믄 회장님은 어느 절에 다니멘?
#3 난 절이 없지요.
@1 웬당봉?
#3 향교에를 다니니까.
@1 아, 향교에 다니는데 우란분절을 알암구나. (웃음).
#3 (웃음).

백중제

@1 그다음에 칠성하고. 백중은 어떵헤? 백중제?
#1 백중도 그냥.
#3 여긴 헙니다. 우리 마을에.
#2 마을에서.
#1 간단허게게.
#2 이 저.
@1 어떤 식으로 허멘마씸? 여기서는?
#3 당사자**.
#2 게, 백중제는 주로 우마를 위한.
@1 예.
#2 양육을 위헤 가지고 이제 어디 도망도 막 가지 말곡 잘 커, 커 달라는 그런 기원에서 하는데 에, 거의가 목장에서 지내어.
@1 예.
#2 목장에서 아까 제물을 만들, 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 목장에 올라가 가지고, 소, 말 뛰어노는 데.
@1 음.
#2 이제 거기서 이제 제 지내는 거.
@1 그때 게믄 칠성제 헐 때예, 거는 무슨 칠성제렌 헙니까? 칠성 아니 백중제렌 헙니까?
#2 백중.
@1 백중제? 백중고사?
#1 백중제.
#3 백중제.

#2 백중제.
@1 그때는 제물은 어떤 것들 헹 가마씨?
#2 과일, 오 종허곡.
@1 으.
#2 이제 거 뭐 이서게? 그 제물 올리는 건.
#1 시리떡허곡.
#2 메허곡.
@1 으.
#1 시리떡허곡, 메허곡.
@1 시리떡허고.
#3 그때 산메 헙니까? 그땐 산메 안 허지예?
#2 산메는.
#1 원래는 산메 헤야 뒙니다. 원래.
#2 산메 헷일 거라.
#3 백중에는 산메를 안 허는 거 같애.
#1 백중에는 안 허는디 이런.
@1 으. 큰제 헐 때는?
#3 마을제 헐 때는 산메 쳐.
#1 그런 때는 삼제를 헙니다.
#2 산메 지곡.
#1 이 우리 산에 가도게 삼제를 허지 아녑니까게. 그런 식으로 삼제.
@1 삼메예?
#1 백중제는 살아 잇는 거는.
@1 상웨떡 ᄀᆞ튼 것도 헙니까?
#2 에?
@1 상웨? 상웨떡 안 헤?
#1 이 동네 사람덜은 상에도 상웨떡 아니 올립네다.
@1 아.
#2 건 바람떡이라고 헤 가지고 으, 저, 제사에 안 올려.
#1 일절 아니 올립니다. 제사에고 멩질이고 이건 절대 개인으로는 먹지만은 이런 헹사 때는 절기 때는 안 먹읍, 안 헙니다.
@1 아. 여, 여름에도 안 헤마씸? 여름?
#3 상웨떡을 마을제 헐 때는 거릿, 거릿, 거릿제 상에는 상웨떡을 올리는데?
#2 올려?
#3 올렷잖우꽈? 웨 저.
@1 거리 헐 때?
#3 웨냐믄 상을 본 마을제 상이 잇고, 옆에다 그건 닭을 올려예?
@1 응.
#3 거릿제는.
@1 으.
#3 그레서 상웨떡은 올라가는데 거기에?

#2 상웨떡을 만들어보질 안헷어.
@1 아니, 아니.
#3 똥골똥골헌 거 그게 상웨떡 아니꽈? 무사?
@1 저 송편?
#3 아니, 말고. 납작하니 헤서.
@1 아, 다데, 다데.
#1 다데떡, 다데떡.
#3 예.
#1 회장님, 건 다데떡.
#3 아.
#1 다데떡. 냅작헌 거.
#2 속에, 속에 바람이 들엇다고 헤 가지고.
@1 돌레떡 닮은 거.
#1 상웨떡이라는 거는 지금.
#3 네 개씩인가 헤서 네 개를 다.
@1 다데, 다데.
#1 회장님. 회장님, 회장님 말허는 거는 신춘 보리빵칩ᄀᆞ추룩 ᄒᆞᆫ 것이 저.
#2 ᄇᆞ름떡, 상웨떡.
#1 저 보리빵 상웨떡. 옛날 어른덜 상웨떡.
#3 상 웨에 허는 떡이라 헤서 상웨떡이라는 거?
#1 아이, 아니.
@1 아니, 그런 말 아니고예, 아, 여기는 전혀 안 헤마씨? 상웨떡을?
#1 상에 안 올립니다.
@1 아.
#2 제사에도 안 올려.
#1 제사에고 멩질에고 일절 안 올립니다.
#2 제사에도 상에는 못 올리고.
@1 예.
#2 가져온 사람 성의를 셍각헤 가지고 그 앞에.
@1 예.
#2 앞에다 놓는 경우.
#1 놧다근에 집에 가져가는 사람 싸 주는 거.
#2 친척들끼리 나눠먹는 거는.
#1 싸 주는 거는 그게 멧 개씩 들어오면은 놔.
@1 예.
#1 겐디 아니 들어오면은 또 안 놓고게.
@1 아니 저쪽 가면은, 여름에는 쌀떡들은 잘 쉬니까.
#1 으.
@1 그 막걸리 헤 갖고 밀가루 헹은에 떡 헷잖아예?
#1 으.
@1 그 밀가루 떡들은 안 헤 봔 여긴?

#1 안, 아니 허영 먹는디 상에 올리는 거는 전연 그런 건 엇수다.
@1 아.
#1 예.
@2 아까 산메떡은 산멘 어떵헹 허는 거마씨?
#1 산메?
@2 예.
#1 산메는 낭푼에 이제 쏠을 시쳐놓면은, 이제 이것이 낭푼이라면은 쌀 시쳐 놓면은 쌀 이만큼 놀 거 아니?
@1 예.
#1 게믄 물 이만큼 놓면은 이 밥이 익으면 ᄀᆞ득을 거 아니?
@1 예.
#1 경 허믄 그 산메가 중요헌 거.
@1 으.
#1 집안이 잘 뒈젠 허민 이 산메가 코찡허게시리.
@1 봉긋허게
#2 깨끗허게.
#1 깨끗허게 익거든.
@1 으.
#1 만일에 집이 궂젠 허민은 ᄀᆞ튼 쏠을 올려놔도게 울퉁불퉁 울퉁불퉁허면서 그냥 그림도 그려지곡 막 그추룩.
@2 치는 거지예?
#1 치는 거는 그냥 시루징 놔근에 그냥 우리 만두 쳥 먹는 것추룩.
@1 그릇 속에 놔근에.
@2 아.
#1 시리 영 징 놔근에 그냥 그 우트레 놔근에 치는 거.
@2 아.
@1 게난 그 산메 쳐 갖고도 그 점 보고 헷덴 헙디다. 보름날 이럴 때? 떡한 것처럼.
#1 아, 그거는 초상 이신 집덜.
@1 으.
#1 건 초상 이신 집덜.
@1 아, 초상 이신 데예.
#1 예를 들어서 우리.
@1 김○○.
#1 응 ○○네 집 ᄀᆞ튼 디. 그런 그 저 무신 초상덜 이신 집이주.
@1 으.
#1 우리 개인적으로 사는 일반인들은 그런 것이 엇어.
@1 아. 거난 산메로 점도 치고? 영?
#1 음, 칠성, 칠성제 지내젠 허면은 꼭 산메를 치주게.
@1 으.
#1 산메를 치면은 것도게 수저도 안 올리고 생꼬로 헤근에 이렇게 꼽주게.
@1 으.

#1 생꼬 세 밧딜로. 두 개썩 헤근에 세 밧듸 영.
@1 으.
#1 꼽아근에.
@1 산메 친 거에예. 예.
#1 그때는 수저를 안 써.
#3 여기서는 향은 꼽주. 향 짤라 가지고.
@1 아까 향은예?
#1 에, 향은 꼽는 거.
@1 칠성제 할 때?
#1 음. 향, 향으로 꼽아.
@1 예. 겡 이제, 백중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헤서 강 말명처럼 이렇게 헹 오는 거라예? 게 삼춘, 멧 년을 헙디가? 그거.
#2 어디 그 백중제?
@1 백중제. 으.
#2 산에?
@1 응.
#2 우마가 없어 놓니까 같이 따라다니기는, 따라다니기는 멧 번 헤 봣는데.
@1 예.
#2 고대로 그자 그 저 무슨 거라, 이 낭푼에 밥 넣어 가지고.
@1 응.
#2 밥 넣어 가지고, 에, 이 헤, 그러니까 그 적갈 같은 거이. 적갈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적갈이지. 적갈 만들어 가지고 헤서.
@1 으.
#2 제주하고 막걸리하고 갖고 가서 거기서 부어 올려서 절을 한 헤, 마음속으로는 소도 잘 크게 헤 줍서.
@1 으.
#2 말 도망가지 말게 헤 줍서 허멍. 그게 큰 재산이라.
@1 예.
#1 우린 말도 소도 길롸신디 우리 아버지넨 그냥 그런 것이 없어.
@1 아.
#1 우린.
#2 테우리덜이 헤실 거라.
#3 그 대신 마을에서 허지 안헙니까?
#1 게난, 개인으로도 우린 말도 소도 막 하영 길러. 계속.
#2 헷어, 헷어.
#1 막 헌디.
@1 테우리덜이 그 담당허는 그 사람이 헤줫나 보구나.
#3 지금도 마을에서 헌 이야기를 헤 줘야지. 개인 얘기를 헴수과?
@1 마을 자체에서도 백중제를 허는 거라예?
#3 백중제를 헤서, 이 회관에서 허다가 이제 저 그 원당봉에 가서 헴수게.
@1 아.

#3 당사자가 안 헌다고 하니까.
@1 게, 소 키우는 게 아니고 마을에.
#1 회장님 거 백중제 아니?
#3 백중제. 지금 백중제 얘기 하는 거.
#2 백중제는 헤여.
#3 마을에서 하는 거.
#1 백중제는 그 제청에 강.
@1 제청에 강은에.
#2 제단에 가서 백중제는 지내고. 또.
#1 조합장님 지금 무신 말 굴암시니? 백중.
#3 백중.
#2 게메, 개인이.
#1 게난.
@1 옛날 그 쉐 키우는.
#3 개인이 헐 때는 목장에 가서 허는 거고.
#1 건 물테우리, 쉐테우리들 허는 거곡. 개인으로 허는 사름덜은 안 허곡.
#3 안 허곡. 마을에서 헴잖아. 지금도 허고 잇다고.
#1 마을에서 이제 그 원당봉 제청에 가서 허는 거주.
@1 아, 제청에 가서 마을제를 백중에 헤예?
#3 예.
#1 칠월 칠석날 그디 강 제 지내.
#3 아니, 마을제가 아니고 백중제를 헌다고.
@1 칠월 칠석이우꽈? 백중이우꽈?
#3 백중.
@1 백중에. 칠월 메칠?
#1 열나흘.
#3 십오일날. 십사일날 저녁에 허는구나.
#1 십사일날.
#2 십사일날 저녁일 거라.
#1 원래 백중이 십사일.
@1 예, 제주도는 십사일.
#3 그 물 들어오는 때 허지요이.
#2 응, 물 들어올 때.
#3 바닷물 들어올 때.
@1 아.
#2 시계로 허면 흔 다섯 시쯤 뒈어.
#3 예.
@1 아, 시계도 한 다섯 시. 게난 들물 헤여근에 싹 물 들어올 때.
#3 에, 들어올 때. 그 제를 올려.
@1 보름, 게 일곱물이네?
#1 일곱물이난.

@1 예, 여기선 보름 일곱, 보름 읏섯 헙니까?
#1 일곱물.
@1 일곱물.
#2 보름 일곱.
@1 보름 일곱.
#2 보름 일곱물.
@1 아, 거난 일곱물이니까 물 들어올 때가 다섯 시.
#1 여섯 시 반, 일곱 시.
@1 아, 여섯 시 반, 일곱 시 뒈? 그때 제관은 누게가 뒈마씨? 백중제는.
#3 마을 제관, 마을회장.
#2 마을에 헌관이 제관 뒈주.
#1 마을회장 허는 분이.
@1 게민 세 명 다 저기를 헤 갖고, 초헌?
#2 집사 둘.
@1 예.
#2 경헹 다섯이.
@1 다섯이 강은에 허는 거예?
#1 옛날은 하얀 옷 입곡 갓 쓰곡 헤근에 제관은 헤낫주게. 겐디 그건 갓이 없어. 이젠 대대로 물려오는 갓이 엇수다게.
@1 예.
#1 그게, 우리 아부지네 마을제 헐 때는, 똑 와근에 설랍에 포따리에 싸근에 보관헷다근에.
#2 제, 제, 제복이로.
#1 예, 제복으로 우리 썻단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엇어졋어.
@1 음.
#3 예.
#1 그게 엇어져.
@1 그 옷도 엇어져 불고?
#1 예, 옷도 엇어져 불고예. 이젠 옷도 개인으로 입엄수게예?
#3 아니, 마을에 이수다. 옷이. 마을에서 다 준비헤수다.
#1 게민 옛날 거는예, 검은 관 잇지 않우꽈?
@1 예.
#1 그거 쓰곡, 여기 영 끈 메곡 헤근에.
@1 으.
#1 두루막 입곡 헤근에 막 하얀 옷에 두루막 입곡 헤근에 막 우알까지도.
@1 그 도포, 도포 입엉.
#1 도복으로 헤근에.
@1 도복으로.
#1 겡 헹 입어낫주게. 겐디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엇어진 거라.
@1 삼춘, 게믄 우리 그 백중제 헐 때는 여자들 가져?
#1 안 따라가.
@1 안 따라가. 아니 우리 사진 찍어야 뒈는디게.

#2 백중제 헐 때?
@1 예.
@2 회장님한테, 회장님한테 부탁헤야지. 회장님한테 부탁.
#2 여자는 없어.
@1 누게 누게 가? 제관 다섯 명만 가? 남자들은 가지예?
#2 아이, 저 부녀회장 강은에 저 뭘 허주게.
#1 출려주는 거.
@1 출려주는 건 허고.
#2 설상. 제물.
@1 게믄 마을 이장님은 제관일 거 아니?
#2 게난 이장은 제관.
@1 예.
#2 헌관.
@1 으, 헌관예?
#1 마을회장.
@1 회장, 마을회장은 하고. 노인회장도 하고.
#1 그디 강 훈번 그거 헐 거?
@1 예. 우리가 사진을 찍엉은에, 책 나올 거니까. 그런 장면들이 사진 찍어야 뒈거든.
#2 노인회장은 집례나 헤영.
@1 집례하고.
#1 여자랑 나가 허주게, 게건.
@1 예.
@2 백중제는 소말을 번성하게 헤 주라는 뜻으로 하는 건데, 그럼 마을에서 허는 거는 재산을 불려 달라고 하는 뜻으로? 어떤 의미로?
#1 아니, 게난 옛날 *느직 옛날 어른덜 허여온 대롬 그냥 지금 사람덜은 분시도 모르고 그냥 허여오는 축기대름(?) 허는 거야.
#2 그날 제사를 지내는 거야.
@1 게난 쭉 헤온 거잖아예?
#1 그냥 내가 보건데론 옛날 부모님덜 허단 거를 지금 자연으로 그자 물려오면서.
@1 으.
#1 예를 들엉 제물도게 옛날ᄀᆞ추룩 아녀근에 그냥 ᄒᆞ꼼 영 까까, 아까 식으로 ᄒᆞᆫ ᄆᆞ리 잡다가 머리로 허듯이.
@1 으, 으.
#1 그런 식으로 헤근에 그냥 간단, 간단허게시리 허는 거지. 그냥 기본으로는 다 허는 거주게.
@1 예.
@4 그래도 지금 여기에 소나 말 키우는 사람은 잇지 않우꽈?
#1 개인으로 질루는 사람은 없어.
#2 이제는.
@1 이제는. 웨냐면 목장이, 삼양 목장이 없어졋다고 아까 헷잖아이.
#2 농기계, 농기계가 많이 저 발달뒈 놓니까.

#1 농기계 허기로 말, 소말은 없어져, 개인으로 허는 사람은 엇고.
#2 영업으로.
#1 영업으로 목장에 허는 사람은 잇어.
#2 영업으로 하는 목장 주인덜은 지금도 백중제 산에서.
@1 하고?
#2 지내니까.
@2 그럼 여기서 저기, 하시, 하시는 백중제는 상에 뭐 올라가마씨?
#2 상에?
#1 과일허고.
@2 과일허곡?
#1 떡허고. 떡도 헙니깡?
#2 떡허고.
#3 제물이 다 올라가지. 제물이 다 올라가.
@2 아까 산?
@1 마을제 허듯이 다 올라가마씸?
#2 마을제 허듯이 다
@1 마을제 허듯이 산메 치고예?
#3 그렇게 막 크게는 안 하지만.
#2 크게는 아녀는디.
#1 막 크게 특별허게시리 무신, 무신 떡허곡 무시거 허곡은 아녀곡 그자. 기본으로 모냥.
@1 그, 예. 마을제 흘 때는 제물들이 익히지 않고 그냥 올리지 아녑니까?
#3 예.
#1 다 익혀. 저 고기만 안 익형 다른 건 다 익히주게, 무사게.
#3 아니, 마을제.
@1 마을제는 다 저 산 채로, 생으로?
#3 생으로 헙니다. 생으로. 천제 같은 때는.
#1 무사, 다 떡도 다 첨수게게.
#3 아니, 산메도 다 나중에야 익혐주.
#1 산메만이주. 떡은 다 쳥 올렴수게.
#3 떡은 안 올리지. 떡이야 무슨, 떡 이수과?
#2 다데떡, 다데.
#1 다데떡덜 헴수게게. 나도 제물을 헤나신디.
#3 거릿제 헐 때는 봣지만 본제에는 없어, 떡이.
@2 본제에는. 음.
#1 나가 제물을 헤낫인디 그걸 몰릅니까게?
@1 으.
#3 아니, 지금 본제에는, 마을제 본제에는 쌀만 올립니다게.
@1 떡은 없었던 거 같애.
#1 다데 아니 올렴수광?
#3 예.
@1 다 눌 걸로 문딱 하고.

#3 거릿제 허는 거에만 올리는 거고. 그 거릿제 하는 데만 올리는 거고, 본제에는 떡은 없지.
#2 아녓던가? 난 막 죽장 집례 홀 때는.
#1 사진 엇인가?
@2 게믄 백중제도 똑같아마씨?
#3 아, 틀리지 좀.
@1 백중제는 좀 약허게.
#1 간단허게게. 간단허게 그냥.
@1 게난 간단허게 허드레도.
#3 경 허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거는.
@1 예.
#3 이런 포제라든가, 하늘에 지내는 거는 생 걸로 다 올리는 거마씀.
@1 익히지 안허지예?
#3 익히지 않은 거우다.
@1 희생도 마찬가지고? 예, 예, 예.
#3 원칙이라 그게.
#1 쌀도 생으로 가고.
@1 웨냐면 생선들도 다 생으로 올리드라고예?
#3 예.
@1 음, 아니 그래서 백중제 할 때라든가 요거 사진을 좀 찍어야 뒈는데에?
#3 찍어 놓은[논] 거 어디 잇을 텐데.
@1 아니, 아니. 올헤 거 우리가 조사를 하니까, 올헤.
#3 올헤 얼마 안 잇으믄 헐 거니까 그때 와서 허세요.
@1 예, 에.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찍어도 욕들카 부덴.
#2 아니, 아니. 그거야 뭐.
@2 여자분들도 가도 뒈요?
#3 아니, 목욕재계만 잘 하고 와서.
@1 예, 목욕재계는 뭐 날마다 목욕재계 하니까 그거는 하고.
#1 요지금은 여자들은 흔 팔구십 프로가 매일 모욕허난 뭐 무신.
@1 예. (웃음).
#1 (웃음). 사우나 엇이믄 못살 거난.
@1 잊어불지 말고 기록헤 놧당은에 사진 찍어야. 아우야, 백중제 이렇게 하는 데는 또.
#3 아주 엄숙한 분위기에서 마을을 위헤서 허는 거우다.
@1 그러니까.
#3 원래 나라에서 지내준 제사가 다.
@1 음.
#3 한라산 영신제니 뭐니 그런 것이 다 백성들에게 부담이 안 가게 헤서 나라에서 다 지내주는 거예요.
@1 예.
#3 어, 그런 거.
@1 그니까 이런 그 백중제가 남아 잇는 흔적이 목장에서만 남아 잇는데, 이거는 마을 자체

에 그냥 같이 마을에 안녕을 기원하는 거 아니라예?
#3 그 전엔 우리 옥상에서 허다가 이제 원당봉 제단에 가서 헌다고.
@1 이 마을에선 백중제가 없어져 보지는 않앗겟다 그러면은예?
#2 경헷주.
@1 계속 삼춘네 어렷을 때부터 이제까지 쭉 본 거니까.
#1 예.
#2 어부들이 잇기 때문에.
@1 예, 이것도. 아, 백중제도 어부하고도 관련 됍니까?
#1 어부덜도 백중제 지내주게.
#2 지내주게.
@1 아. 어부들도?
#1 어부덜도 어부덜대로.
@1 게믄 여기서 백중제 헤근에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따로.
#1 아, 지네 만씩 그냥.
#2 자기네 배 선원이 세 사름이다 하면은 세 사름이 모아 가지고 그 배에서, 배에서 만선을 기원하는 뜻에서.
@1 으.
#1 배마다 그냥 영 저.
#2 배마다 지내.
@1 아.
#2 배마다 제를 지내.
@1 백중제를예?
#2 예. 백중제를.
@1 지금 이 설개에도 배 부리는 사람 이수과?
#1 많아.
#2 많아.
@1 아, 아직도?
#1 엄청 많아.
@1 아, 그렇구나.
#1 이번에 이 저 이 귀획정리 헤 가지고 이 포구를 막 늘린 다음에는 외각지에서 오는 배도 많주만은, 이 동네에서 사람들토 엄청 많아. 흔 이십 명 뒐 걸?
#2 음.
@1 아, 옛날부터 쭉 오래헷던 베 헷던 사람도 이신가마씨?
#1 이서. 아기덜.
#2 잇어.
#1 애기덜.
@1 아, 나이 많은 분 중에.
#3 이대가 헴수과? 이대가?
#1 예.
@ 나이, 나이 많은 분 중에, 나이 많은 중에 어부 헷던 분. 흔 팔십 대 이상 뒌 사름 잇어?
#1 저 누게. 저 무○이, 무○이.

#3 그 배 헴수과?
#1 오우, 예.
#2 배 아녀, 이젠.
#1 게메 이젠 아녀는디.
@1 옛날에.
#1 옛날 허난에 아기덜신디 물린 거지.
@1 아이들, 자식덜은 허고예?
#1 무○이 아덜덜 허는 아이가 없지?
@1 아, 이젠 없고?
#3 예.
#1 엇어도게.
@1 으.
#1 족은아덜도 혼 멧 헤ᄁᆞ지 허단 안 헴서.
@1 아, 그분이 오래 헤신 분?
#2 나이가 들엇지.
#1 나이가 오래.
#2 지금 팔십오 세.
@1 팔십오 세예?
#2 으.
@1 그 분 만나면 요런 그 저기를 알 수 잇구나?
#1 잘 모를걸.
#2 뭣에 대헤 가지고?
@1 아니, 아니 그분이 그니까 바다에 관련헤서 아까 우리.
#1 잘 모를걸.
@1 해신제든 뭐든 이런 거는 알건가?
#1 ○○이가 더 알지 아녀카?
#3 아, 거기도. 이쪽으로 들어보는 게 좋수다게. 그거는.
@1 아니, 아니. 아까 해신제도 허니까, 음.
#3 당사자보다는. 헤도 그 사람들은.
@1 음.
#3 주관이 뒈서 헤 보지를 못헷고.
#1 그예.
@1 으.
#1 옛날에는 여기가.
@1 음.
#1 뗌마주게.
@1 뗌마예?
#1 어, 겐디 기곗베 허는 거는 일 톤짜리 배라.
@1 음.
#1 그 작은 배덜만 헤 버리니까 그렇게 막 이 배에 정성들이고 뭐 허는 거는 개인으로만 헷지, 없어.

@1 음. 여기는 아까 그 저기 당 잇덴 헷잖아예, 해신제 허는?
#1 예.
@1 여기는 개당이든, 돈짓당이든 이런 말?
#1 그런 건 엇어.
@1 그런 건 엇고예?
#1 으.
@1 아, 특이하네.
#1 예, 이 동네예?
@1 으.
#1 하나로 말할 거 같으면 간단하면서도 아주 멋지게 행사허는 동네우다.
@2, 3 (웃음).
@1 전통적인 건 또 지키고?
#1 예. 간단하면서도 아주.

모래뜸

@1 예. 그다음에 여기는 저쪽 그 가물개는 모래 뜸질 허잖아?
#1 설개 모래찜.
@1 아, 설개 거?
#1 거 설개 거.
#3 거기는. 가물개는 바다가 없는 동네우다양.
@1 아.
#1 가물개는.
@1 수원지 그거 하나 잇구나.?
#1 아니. 뭔 수원지.
@1 수원지는 여기 거? 설개?
#1 아니, 수원지는 가물개 거.
@1 으.
#1 그 수원지를 중심 잡아근에예.
@1 예.
#1 바다가.
@1 으.
#1 지금 이것이 삼양이동, 아 삼동.
@1 으.
#1 이거 이동.
@1 이동.
#1 이거 일동 아니?
@1 으.
#1 게믄 바다가 이것이 영 허믄 바다가. 이것이 이동 바당 뒐 거 아니?
@1 으.
#1 이동 바당이 어떵 뒈냐 허믄은 이렇게 뒛어, 이렇게.
@1 아.

#1 이렇게, 이렇게.
@1 아.
#1 이렇게. 게니까 삼동에도 못 부트곡 일동에도 못 부트곡. 이동은 그냥 바당에는.
@1 바당이 거의 엇구나.
#1 권한이 없어.
@1 아.
#3 바다가, 해녀가 없잖아.
@1 아, 그러니까. 모래뜸질 골아 줍서. 게거들랑. (웃음).
#1 모래뜸질은게 그냥.
@1 으.
#1 유월달 나면은.
@1 음.
#1 유월달 나면은 그냥 그 신경통 이신 사람덜.
@1 음.
#1 신경통 이신 사람덜 그냥 유월달, 유월 보름이 넘어가야, 유월 한 십일 넘어가야, 이.
#2 벳이 따가워.
#1 벳이 뜨거우면은 이 모래가 파삭파삭 뜨거와.
@1 아.
#1 게믄 우리가 발을 대도 못 디딜 정도로 그냥 막 모래가 뜨거우면은 그때에 신경통 이신 사람덜이, 누게 가라 오라 아녀도게.
@1 으.
#1 거길 가근에 그냥 찜질을 허면은 진짜 신경통이 나아.
@1 게난 모래뜸질은 음력 유월에 허는 거우꽈?
#1 유월에부터 칠월끄지.
@1 아.
#1 백중 넘도록.
@1 백중 넘도록, 으.
#1 칠월 한 스무날끄지.
@1 아.
#1 백중을 대목 보는 거주.
#2 절기로 백중이 뒈면은 햇빗이 하얘져.
@1 예.
#2 그러면 그것이 뜨거움이 그냥.
@1 죽어지잖아예?
#3 죽어져.
#1 게난 유월달에 허영.
@1 응.
#1 일주일을 허나 구일을 허나 허여근에 허민은 쉬어.
@1 음.
#1 지치니까.
@1 예.

#1 쉬엇당 또 훈 번 강 허여.
@1 음.

물맞이

#1 경 그때는 한 삼사일, 삼일. 경 헤근에 그냥 실픈 사람들은 아녀곡, 경 아년 사람들은 절물 맞이레 역불로 가.
@1 물 맞이러?
#1 절물, 절물 강 맞이면은, 절물을 나도 어머니 따랑 뎅겨봣지만은, 절물을 물 맞이레 가면은.
@1 으.
#1 몸 궂인 사람. 영장밧딜 뎅긴 사람이나 오당 무시거 본 사람이나 뭐 헌 몸 궂힌, 멘스 온 사람이나 가면은 구렝이가 그냥 좍 허게 그 절물에 그자 벋어졍 잇어.
@1 아.
#3 (웃음).
#1 거 구신이우다. 게난 나가 저 절물 튿을 때에양, 나가 걱정헌 것이 멧 사람을 휘자칠 건고 나가 헤낫수다.
@1 음.
#1 솔직히 나가 어머님 때문에 절물을 많이 뎅긴 사람이주.
@1 으, 으, 음, 예.
#1 물 맞이레.
@1 예.
#1 겨고 나무허레도 매날 뎅기고, 절물은.
@ 으.
#1 경헌디 그 정말 구렝이가 이만헌 구렝이가 경 나둥굴어.
@1 아.
#1 경허믄 누게가 몸 궂혀시니 허믄은 그 사람 와 불믄 엇어져.
@1 아.
#2 (웃음).
#1 견디 그 절물은 지금 엇어져수게게.
@1 희안하다예?
#1 그 묘허게시리 이상허드라.
@1 음.
#1 아니, 그거 고칠 때에 죽엇젠은 헙디다만은 그냥 크게 말 아녀난 헴주, 사고는 낫젠 헙디다만은.
@1 아. 절물 막 저기 공사헐 때?
#1 아주, 그디 물은예, 청심환보담도 더 맛 좋아.
@1 아.
#1 우리 낭고지를예, 그 절물오름을 이틀에 훈 번, 삼일에 훈 번 낭허레 아부지영 ᄀᆞ찌 구루마 끗엉, 마차 끗엉 뎅겨신디.
@1 으.
#1 그 물에 강 밥을 먹으민예, 반찬 엇어도 밥이 잘 내려가.

@1 아.
#1 그 정도엿수다.
@1 음. 겡 몸 궂이믄 또 안 뒈고.
#1 예.
@1 게 그 물 맞이레는 언제 가? 보통.
#2 칠월에.
#1 그냥 칠월달에 가지.
@1 칠월에.
#1 추웡 못 허니까.
@1 으음.
#1 그때 가도 닥닥닥닥닥 텁니다게.
@1 음.
#1 경 허민 그기에 낭.
@1 백중에 물 맞진 안헤?
#1 백중에 물 맞이는 거는 크게 생각을 아녀고 그냥 이 모래찜 헤나면은 꼭 그디를 가주게.
@1 아.
#1 경 아녀믄.
@1 아, 더위 식히러 또 가는구나.
#1 경 아녀믄 사라봉 아래가 굴 소곱이 잇어.
@1 예.
#1 그디가 또 물 맞는 디가 잇어.
@1 아.
#1 예. 경 헹 허곡. 이 찜질을 허면은 신경통 허는 사름이 하도 좋아 부난.
@1 음.
#1 아니, 어느 날부터는 이것이 막 유해가 뒈 가지고 뭐 일본서니 미국서니 그냥 우리 제주도 아는 사름덜은 다 그렇게 와.
@1 음.
#1 왕 그냥 모래찜 헹 가.
@ 음.

모살찜

#1 경 헹 허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아니 왓주. 이 선반질 저 누게고? 백, 백, 아이고.
#2 누게, 백칩이?
#1 백칩이 그 저.
#2 백○○이네?
#1 백○○이 ᄉᆞ춘, 알, 알동네 이서낫수게. 우리 집 알, 알녁 이. 옛날 구루마 허곡 헤낫는디.
#2 에, 에.
#1 그 집이 그, 그 집잇 똘이 일본 가근에 막 크게 그냥 무판을 헤근에 돈을, 신촌 친족들

밧이여 집이여 막 사주고 친정덜토 막 사주고 헷주게, 그때.
@1 으.
#1 경헨 헌디. 그 어른이 일 년에 두 번을 모래찜 허레 와.
@1 오.
#1 모래찜 헹 가면은 일 년 열두 달 감기를 안 걸린다는 거라.
@1 음.
#1 경헌디 이거 작년부터는 안 뎅기, 코로나 때문에 못 와근에 아년디.
@1 예.
#1 그 어른이 지금 팔십, 구십 낫주게.
@1 예. 경헤도 일 년에 두 번씩 와예.
#1 이디 전○○이 누이. 꼭 옵니다. 전○○이 누이.
#2 ○○?
#1 ○○게.
#2 ○○?
#1 우리 동창 ○○.
@1 음.
#1 가이도 꼭 와. 게믄 가이는 친정집이도 오라방집이도 안 가곡, 문 할망네 집이서 줌자당 가.
#2 웃기는 할망이여.
#1 저 문○○이 각시 살 때에, 그디만 와.
@1 음.
#1 오라방네 집이 안 강. (모두 웃음)
@1 경헹 강. 그 모래뜸질, 여기 모래뜸질이렌 헙니까? 모살구침이렌 헙니까? 여기선.
#2 모래뜸질.
#1 모살, 모살뜸질.
@1 모래뜸.
#1 모래뜸이 아니고 모살찜.
@1 모살찜.
#1 옛날 이름으론 모살찜, 그다음에는 모래찜.
@1 음, 모살찜.
#2 모래뜸.
@1 게난 모살찜 헤 갖고 이 목만 헹은에 헌덴 허멍예?
#1 아니, 사름에 가. 목ᄁᆡ지 허는 사람.
@1 음.
#1 나 ᄀᆞ뜬 경우에는 이 안경만 요렇게 둘라동 다 헤여.
@1 아오야, 머리도?
#1 난 경 헹 사십 분을 자.
@1 으음.
#1 소금 아져당 뿌려, 나는. 얼마나 아파야 그렇게 헐 거라?
@1 음.
#1 소금 아져당 ᄒᆞᆫ 관뒈 아져강 아래 꼴곡.

@1 음.
#1 이렇게 누면은 우터레.
@1 소금 허면은 더 뜨겁잖아예?
#1 뜨거우는디 그것이 이 저, 몸에 ᄒᆞ꼼 막 저 뭐허니까.
@1 으.
#1 경 헹 허면은 진짜로 한 오일만 허면은 알아지게 개운헤.
@1 아.
#3 아.
@1 겐 늘 그렇게 헤수과?
#1 오랫주. 오래 허다가 이거 지금 이 아판 수술 헤난 후제도게 두 헤 헌디.
@1 으.
#1 아, 어떵어떵어떵허당 보민게 못 가곡 못 가곡,
@ 놀쳉.
#1 올레칩이라도, 올레칩이라도.
@1 올레칩이라도.
@2 (웃음).
#1 거 마트 두깡이 우리 집이주게.
@1 아.
#1 겐디 그 마트 두깡이 우리 집이라도 그냥 그 집이서 옷 입엉 갈 거랏자 거 이상케 못 가.
@1 음.
#1 게 늙어가난 그 기분인 모양이라.
#2 모래뜸이 효력이이.
@1 예.
#2 옛날에도 그 어떤 일화가 잇는고 하니 맨날 아주머니덜은 할머니덜은 밧듸 강 검질만 메곡, 영 헤당인에 여름에 그 모래찜을 허면은 올 때는 마차를 이용헤 가지고 이 삼양 설개에 와.
@1 예.
#1 갈 땐 걸엉 가.
#2 경 헹 ᄒᆞᆫ ᄒᆞᆫ 삼사일, 일주일, 뭐 오래 사는 사람은 한 일주일씩도 하는데 그렇게 헤 가지고 잇으믄 자연적으로 나아 가지고 갈 땐 자기 발로 간다고.
@ 아아.
#1 겅헌디이.
#3 걸어가.
@1 아.
#2 그런 일화가.
@1 그런 일화가 이서예.
#1 으, 으.
#2 그런 효능이 과학적으로 증명뒛어.
@1 으.
#1 모래찜 허면은예, 집이 안 옵니다. 우리 어머니네 헐 때도.

@1 음.
#1 그냥 그디 살면은 아칙이 조반 헹 강 안네곡, 점심끄지 헹 강 안네곡, 저녁에.
@1 바당에서 그냥 자 불어?
#1 그냥 그디서 자.
@1 으.
#1 그냥. 경 허믄예, 밤에도 자면은예 모기 엇겟다, 뜨뜻흔 모래겟다.
@1 으.
#1 찜을 더 뒛, 더 잘 뒈는 거주게.
@1 아.
#1 거난 삼 배로 찜질 헤지는 거주게.
@1 아, 아하.
#1 겅 헤영 그 모래찜을 헴수게.
@1 게, 한 번 헐 때 메칠을 헤마씸? 보통은?
#1 보통 막 바쁜 사람은 삼, 짝순 안 뒈. 홀수로.
@1 홀수로.
#2 저 지청은에 헤질 못헤여.
#1 삼일 허는 사람, 오일 허는 사람. 일주일 허는 사람.
#2 하루만 헤도 한 이틀만 하믄 뻗어, 뻗어.
@1 음.
#2 기력이 없으믄. 그렇게.
#1 경 허믄예, 미숫가루 헹 가나 아니믄 수박을 헤근에 그냥 냉챌 헹 가나 헤근에 먹어사.
@1 으. 게믄 이 설개 사람들은 한 번 이상은 다 모래찜 헤시키여예? 모살찜?
#1 아니. 이 우리 설개 사람들이.
#3 더 못 하주. 오히려.
#1 우리 삼양일동 사람도게 삼십 프로나 헤시카?
#2 아이고, 아니주.
#1 나, 집 세렌 허민, 모래찜 허는 집 다 세어.
@1 으. (웃음).
#1 그만큼 에로운 사람덜이 헷주이. 원만헌 사람들 안 헙니다게.
@1 으.
#2 병원이 좋아 놓니까.
#1 병원이 좋아 놓고 우리 어머니 헤도 병원에서 ᄉᆞ못 첨, 버스 대절허멍 살아도게 모래찜질 허멍 살아수다게.
@1 으음. 게난 거 신경통에 그렇게예?
#1 예.

물맞이

@1 게고 물맞이는 물 맞이레는 절물 가고.
#1 아니, 우리 요 우무세 물 맞이는 디 이제 셔낫수다.
@1 예, 어디?
#1 이제 저 포구 만들어 부난 헷주, 저 동카름.

@1 동카름에?
#1 동카름에.
@1 그 동카름에.
#1 우무세, 우무세옌 헤근에.
@1 우무세?
#2 우무세.
#1 우무셋물.
@1 으, 우무셋물예?
#1 우무셋물, 예. 알로 쾅쾅쾅쾅 솟는 물 잇어낫수다.
@1 아, 우무셋물에 물 맞이곡.
#2 용천수가 막 솟아. 그래서 그 용천수를 너무 바다에 버리는 것이 아깝다.
@1 으.
#2 이걸 이용헤야 뒈지 않느냐 헤서 그 일원을 그 물을 중심으로 헤 가지고 일원을 막은 거라.
@1 예.
#2 삼수원지를 멘든 거라, 지금.
@1 으.
#2 사라봉에 잇는 거는 삼양이동 물이 글로 가 잇고.
@1 예.
#2 요거는 이제 삼수원지를 만들면서 관을 이 원당봉으로 올렷어.
@1 아.
#2 겐디, 이 저 좀 짜게, 물이.
@1 음.
#1 게난 우리가.
#2 그난 지금 그 물이 어디에 잇는고 하니, 이걸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그냥 원당봉에서 멘 촌으로 간 거라. 멘촌으로, 도련.
@1 예.
#2 도련 가 가지고 지하수하고 그걸 혼용헤 가지고 사용하고 잇어. 음료수로.
@1 아, 게믄 지금 삼수원지가?
#2 삼수원지.
@1 아까 우무셋물이 그쪽으로 온 거라?
#2 우무세, 우뭇세주. 우뭇세물.
#1 아, 그난예, 그거 용역허레 와시난 나가 굴앗주게. 용역허레 오신 분안테.
@1 으.
#1 저 삼춘덜 이렇게 허믄 안 뒈고, 여기는 물 온도가 우무세는 이 우리 빨래터 닮지 아녕.
@1 으.
#1 물이 짜는 시간이 많아마씸게. 막 솟긴 헤도.
@1 음.
#1 게난 그 솟는 자체가 우리 앚인 둘레벳긔 안 헤.
@1 음.
#1 저 이 문은 아니고, 우리 요롷게 앚인 둘레벳긔 아녀근에 막 팡팡 솟주마씸.

@1 으.

#1 겨믄 빙허게 돌아가멍 돌빌레라.

@1 음.

#1 돌빌레난 그디 그늘도 지곡 헤근에, 막 물 맞기 존딘 디. 아니, 이 사람덜은 이디 물 잘 나완 먹어보민 둘곡 먹어보민 둘곡 허난 이젠 막 범위가 크게시리 이만큼을 둘러 분 거라.

@1 음. 짠물까지 이제 물 들면?

#1 예게.

#2 (웃음).

#1 경헤놓[노]난예 수원지를예, 엄청 크게 만들어 놓난 그 물이 둘 거우꽝?

@1 음.

#1 거기 무신 작업홀 일 잇언 들어오렌 헨 간 보난예, 들어가난예 문딱 쭌물게.

@1 음.

#2 아, 겐디.

#1 게난 그 물을 이용 못헴수게.

@1 음, 헤놓고도예?

#1 예.

#2 이름은 수월암이라고 헷어. 이름은.

@1 수월암?

#2 음. 물 수 자, 달 월 자, 바위 암 자 써 가지고.

@1 예.

#2 거 첨, 여름, 한여름쯤 가 가지고 초생둘이나 비칠 쯤 뒐 경우에는 상당히 좀, 정서적으로 좋은 자리라.

@1 아. 그 우무셋물이예?

#1 그렇지.

@1 그 한자로는 수월암이렌 헤마씨? 여기서는?

#2 수월암.

@1 으.

#1 완전, 완전 폐기돼 불엇주게.

#2 그 물을 올려 가지고 이렇게 올려 가지고 지금 집도 지어잇주게, 그.

@1 예.

#1 크게 지언 잇주.

#2 크게 지어 가지고 잇는디 그 물을 올려서 이젠 그걸 이젠 도련으로 가 가지고 도련에서 지하에서 나오는 물하고.

@1 서껑.

#2 혼합헤서 하니까 음료수로 적당하다.

@1 음.

#2 판정이 나니까 지금 공급하고 잇는 거주게.

@1 예.

#1 조합시기난에.

@1 조합시기난.

#1 산에서 내려오는 거허고 헨에 이젠 조합시기니까 이젠 먹을 수 이시난에. 아, 게난 원래

는 굉장이 좋은 물이주게.

@1 음.

#1 겐디 너무 범위가 커 버리니까.

@1 음.

#1 작게 하고 또 다른 딜로 또 작게 헷으믄 헐 건디, 한꺼번에 막 크게 둘러 버리니까 그게 안 뒈 버리는 거주.

#2 그때 그 하나의 에피소드가 잇는디 그 바로 우에.

@1 으.

#2 주정, 주정공장이라고 감자로 전분을 만드는.

@1 예, 예, 예.

#1 흔 육십 년 뒛주.

#2 거기서 주정공장을, 물이 좋으니까.

@1 예.

#2 하겠다. 헤 가지고 헷는디. 그러믄 그 물을, 물이 막 들엇을 때도 이용 가치가 잇겟느냐 헤서 사이다 맥주병, 맥주병에다가.

@1 으.

#2 이 막는 거를 헝겁으로 만들어 가지고 물 막 들엇을 때 그 오메기 막 솟을 때 이걸 속에 넣어 가지고 딱 막고 나온 거라, 이젠이. 딱 나와 가지고 그걸 먹으니까 짜 가지고. (웃음). 그 머리덜이 그때는 그 정도벳기 안 뒈주게. 그니까.

#1 아니, 경도 허고예. 태○네 집이.

#2 음.

#1 그 저 우무세 그 태○네 집. 태○네 집이 비만 오면은예, 그냥 부억에 물이예, 진짜 생수예, 엄청 나와.

@1 음.

#1 지금도 나옵니다. 태○네 집이엔 흔 데는 아주 지대가 하늘광 땅, 막 높은 디. 집만은 높은 디에다가.

@1 으.

#1 집을 짓언 사는 그 집인디.

@1 음.

#1 그 부억에 물 엄청 골르니까 그 주정공장에서가 이제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를 춪젠 헨에 그 주정공장 만들젠 헨에 백오십 메다를 파도게 물줄기를 못 춪인 거야.

@1 으.

#1 그래 가지고 그때 그냥 첨, 흔 육십 년 뒛주. 육십 년 뒛어양?

#2 으, 육십 년뒛주.

#1 그때에 그냥, 그 사름덜 많이 손헤 봔 그때 나가멍 헨디. 지금도 그 물줄기를 못 춪암주마씸게.

#3 으.

#1 그 태○네 집은 지금도 물 골라.

@1 으.

#1 뭐 비만 와 가믄 그 부억에서예 그 물 질어당 별걸 다 허여.

@1 음, 아하.

#1 거 이상훈.
@1 음.
#3 집터 자리론 안 좋앗겟다.
#1 경훈디도.
#3 수맥이 잇어서.
#1 겨난 그 집이 경 사는 사름마다 안 뒈엄수게.
@1 음.
#1 게난 그 집 놈 빌려주난 모른 사람 살암수다.
@1 음. 동산인데도 그렇게 물이 난예?
#1 예.

팔월

처서

@1 음. 삼춘, 그다음에 가을 들어가민 처서. 처서에 뭐 어떤 일거리라든가 무슨 얘깃거리 이신가마씨?
#1 그런 걸. 처서에는 별로 엇어양? 엇어. 그냥 조, 조 헤들이곡 감저 파곡 뭐 콩 꺼끄는 거벳기 다른 거 뭐 엇수다. 이 동네는.
@1 으. 그때 감저 헙니까? 처서예. 상강에 허지 않고?
#1 아니, 그냥 시월 나믄은 감저 파근에 뻿데기 만들아사.
@1 음.
#1 예. 하영 싱그는 집인, 뭐 우린 밤이도 새벡 두 시 뒈도록이 비 오믄 감자뻿데기 줏이레 밤이 가야.

도소분

@1 으, 그다음엔 게믄 잘못 제가 질문헌 거고. 팔월. 팔월 초ᄒᆞ루.
#1 초ᄒᆞ루.
@1 음력 팔월 초ᄒᆞ룬 뭐우꽈?
#2 뭐라?
#3 벌초.
#2 팔월 초ᄒᆞ루부터?
#3 도소분이잖아.
#2 도소분? 벌초?
@1 예. 벌초. 옛날 소분허는 날.
#1 팔월 초ᄒᆞ룻날은 도소분을 헷주게.
@1 예.
#1 도소분을 허민은 우리 씨할머니 식게라. 그날.
@1 으.
#1 경허믄 도소분헹 왕 우리 집이 왕 문딱 먹어불믄 난 그냥 울곡.
@1 음, 도소분이 뭐우꽈?
#1 방상이 전부 이 가지 저 가지 산 이신 디 모여 가지고 한꺼번에 허는 거.

@1 우리 모둠벌초허는 거?
#1 으, 지금 모둠벌초주게.
#2 모둠벌초를 도소분이엔 헤.
#1 지금 모둠벌초. 이제는 일요일날 춪아서 허잖아요.
@1 으.
#3 젤 웃대 선조를 말하는 거.
@1 음.
#1 지금은 일요일날 춪아서 허는디 옛날엔 팔월 초ᄒᆞ룻날은 도소분날.
@1 음.
#1 겨믄 우리 산은 팔월 초ᄒᆞ루 전이들 다 허는 거.
@1 음.
#1 경 아녀믄 팔월 초ᄒᆞ루 넘어야 허곡.
@1 음.
#1 경허곡 팔월 초ᄒᆞ룻날은 하늘이 무너져도 여자, 남자 다 합쳐근에 도소분허는 거.
@1 음. 웃대 산?
#1 웃대 산부터 ᄌᆞ근ᄌᆞ근 그냥 그 멧 대 ᄌᆞ순 산을 다 허는 거주.
@1 예.
#1 거 도소분.
@1 여기선 도소분이렌 허는구나예. 게난, 옛날엔 게난 저 팔월 초ᄒᆞ룻날은 벌초허는 방학도 허고 헤나지 안헤수과예?
#1 방학도 헷주, 옛날에.
@1 으.
#1 방학 헷주.
#2 지금도 잇지 아녀?
@1 방학은 안 허고 요즘은.
#3 벌초방학들.
@1 벌초방학 안 합니다. 이제는.
#1 이젠 아녑니다.
@1 예.
#1 벌초방학 허여나건 디도 ᄒᆞᆫ 이삼십 년, ᄒᆞᆫ 이십 년.
@1 예.
#3 그러니까 아이들이 싸가지가 없는 모양이네.
@1 예. 그걸 헤야 뒈는데.
#1 게난 안 ᄀᆞᆯ암수과게. 젖소만 많이 먹어 부난 문딱 깡충깡충 뛰엄수게.
@1 깡충깡충. (웃음).
#1 (웃음).
@1 젖소 먹어서 깡충깡충 뛰는구나, 요즘. 다 연예인만 허켄 허고. 도소분예, 아.
#3 예.
#1 도소분은 춤 유명헷주게.
@1 예.
#1 비와도 강 헤시난.

@1 게난 제주도 사름은 그날은 문딱 나강덜예?
#1 문딱 문딱 모영 나가근에.
#2 남자 없는 집은 여자분들도 이제 강. 허여.
#1 여자분들이 밥허영 점심 헤영 질구덕에 지언 뎅겻주게.
@1 으. 게믄 그날도 도소분허젠 허면 일들은 준비를 하영 헤야 뒈겠네.
#1 그렇지.
@1 뭘 뭘 준비헤수과? 도소분허젠 허믄?
#1 그냥 밥허고. 그냥 산에 강 올릴 거는 아녀곡.
@1 음.
#1 밥허곡 반찬, 그냥 국허곡, 찌개허곡 그냥 그런 것들만. 그냥.
#2 산에서 제사는 안 보내고.
@1 제사는 안 허고예?
#1 제사는 안 허고 그냥.
@1 벌초헐 준비허젠 허면은 전, 전날부떠 막.
#1 점심 때 점심덜 식구들 멕이젠.
#2 전날 멧 사름이 갈 거, 거기에 맞은.
#1 오십 명이면 오십 명분을 헹 정 가야 뒈니까.
@1 아아.
#2 마차믄 마차에 실코 가야지.
#1 경 헤난.
@1 여기는 그 도소분을 뒈게 크게 헷나 보네예.
#1 막 크게 헷주.
@1 예.
#3 제주도 자체가 크게 헌 거 아니?

팔월 멩일

@1 예, 예. 그다음에 그 이젠 팔월에 허면 제일 큰 뭐 아까 정월 멩질 다음에?
#1 이제 팔월 추석.
@1 팔월 추석예? 팔월 멩일 어떵헙니까? 팔월 멩일에는 그 팔월 멩일에만 허는 떡이 이시카마씨?
#1 아니. 여기는 똑같애.
@1 여기는 겅 안 헤?
#1 여기는 똑같애.
@1 으.
#1 남군ᄀᆞ추룩 무신 다데떡이니 무신 돌레떡이니 그런 것이 엇어. 여기는 똑같애.
@1 으. 그다음에 게믄 떡은? 팔월 멩질에 허는 떡은 어떤 거? 친떡하고 설기떡.
#1 설기떡허고, 송편허고 지름떡.
@1 으, 딱 세 가지만 허여?
#1 세 가지. 기름떡은 꼭 헤야.
@1 으.
#1 (웃음).

@1 다른 데는 다른 데는 다섯 가지 허거든마씨? 저기 서쪽에는?
#1 게메 게난 돌레떡도 허곡, 그저 세미떡도 허거든.
@1 으.
#1 다른 데덜은.
@1 예.
#1 겐디 여기는 그런 거 엇어.
@1 송펜은 요즘 동글랑헌 송펜 헤?
#1 그냥 우리 저 동글랑ᄒᆞᆫ 것에 전 부쪄근에.
@1 예, 전 부쪄근에?
#1 전 부쪄근에.
@1 으.
#1 반착 전 부쪄근에.
@1 반착 부쩐예? 겐 그 딱 세 가지만 허는구나?
#1 세 가지만.
@1 게믄 만약에 삼춘네 집에 그 떡 올릴 때, 설기떡은 몃 개 올려?
#1 아, 게난 설기떡 영 영.
@1 멧 빗?
#1 ᄒᆞᆫ 빗.
@1 아.
#1 ᄒᆞᆫ 빗 헤근에 올리곡, 그 우이 송편 ᄋᆞ슷 개 올리곡.
@1 예.
#1 기름떡 세 개 올리곡.
@1 아, 아.
#1 우린 경 혀.
@1 하영 안 올렴저예?
#1 하영 안 올리주게 경. 워낙 많으니까.
@1 아니 그니까 그 떡을 ᄒᆞᆫ 사람치가 그거? 아니믄 전체 다 한 사람씩 다 이렇게 올려?
#1 두가시 찍시가 하나.
@1 아.
#1 두가시 찍시가 하나 이렇게.
@1 게믄 이 젯상이 완전 커야켜예?
#1 아이고, 게난게 이거 두 개 헤도게 상이 ᄀᆞ득앙 무시걸 못헷젠 허난.
@1 아, 따로따로 올리니까.
#1 거 멍청허게 왜 경 헤져신고양?
#3 정성이니까.
@1 우리는, 우리는예 따로 안 헹 한꺼번에 올리거든마씨?
#2 음.
@1 예, 식구가 없으니까 식구가 없으니까 허는지 몰라도.
#1 아, 식구 엇이난.
@1 예.
@2 설기떡은 하얀 백설기 얘기하는 거지예?

@1 으, 으.
@2 팥 넣지 않고마씨?
#1 백설기에도, 폿 놩.
@2 아, 폿 놔?
#1 으, 폿 놔근에.
@1 으, 숨메, 숨메. 그거.
#1 숨메 놔근에 폿 ᄒᆞ쏠 놓곡 헤근에.
@1 으.
#1 경 헤사 떼어근에 이제 상에 영 올리곡.
@1 근데 요즘은 그 왜 폿은 귀신들 쫓는다고 헤서?
#1 건 구신이 아니고 초상이니까.
@1 초상이니까. 음.
#1 굿ᄒᆞᆯ 때는 아녀는데.
@1 예.
#1 제서 때, 멩질 때는 허거든.
@1 아.
#1 굿ᄒᆞᆯ 때는 안 헤.
@1 예.
#1 건 구신 몰아친덴 헤근에 안 헤.
@1 음.
#1 겐디 그 떡허는 방식이.
@1 예.
#1 이건 초상덜 먹을 거니까 그냥 우리 먹는 방식대름 허영 올리고.
@1 으음.
#1 굿ᄒᆞᆯ 때는 이런 폿숨메 ᄀᆞ튼 건 안 쓰주게.
@1 게난 조상들은 귀신이라고 생각 안 허는구나.
#1 아니, 우리 식구.
@1 식구, 예. 죽어도 귀신이 안 뒈는 거예. 우리 조상은?
#1 그렇지.
@1 으, 초상 먹는 거난.
#1 옛날 어른덜은 그런 식으로 헨 살아 부난.
@1 예.
#1 우리도 그런 인식을 받는 거주게.

창문 불르기

@1 예. 그 아까 팔월 멩질 전에는 그 창문도 불르곡 막 영 헷덴 허멍예?
#1 (웃음). 기가 멕혓주게. (웃음).
#2 (웃음).
@1 반드시 팔월 멩질 전에는 헤마씨?
#1 꼭 헤야.
@1 아.

#1 뭐 놋그릇 밀곡, 창문 불르는 거는 뭐 하늘이 무너져도 헤사.
@ 아.
#1 거 이상케시리 팔월 추석에는 그 창호지 헤여근에 그 작산 창문을 다 불라시난게.
@1 마 지나니까 그런 건가? 장마?
#1 그 여름에 장마지곡 막 일 년에 묵은 거를.
@1 예.
#2 제서 지내젠 허니까 좀.
#1 그 곰팡이 비 오곡 막 눈 맞곡 허니까 곰팡이도 일곡, 막 그냥 막 얼룩얼룩허자녀게.
@1 예.
#1 비 들이삐어낭. 옛날은 막 비 들이삐면은 창호지도 막 얼룩얼룩허여근에.
@1 음.
#1 막 노란색, 빨간색 그렇게 허면서 막 무늬를 놓잖아.
@1 음.
#1 그런 거를 이젠, 팔월 추석에는 싹 새 걸로 단장헹 그추룩 허더라고.
@1 음.
#1 그 정성이 뭔지 모르겟어. 우린.
@1 예. 팔월. 그러면 일 년에 한 번 도비를 하는 거라?
#1 일 년에 한 번은 딱 뒤집는 거.
@1 아. 그러면 팔월 멩질 허젠 헤도 메칠 준비를 헤야켜예?
#1 경 헴주게덜게.
@1 음.
#1 창문 한 집이덜은 첨 누게 말적 아니라도 춤 복삭 속아.
@1 예. 여기도 달구경허고 영 헤수과? 팔월 멩질에 우리 제주도도?
#1 막 달구경이여 무신 달맞이여 무신 거연 아녀.
#2 젊은이덜이야 허주.
#1 으, 그런 건 엇언.

촐 비기

@1 팔월 멩질 끗나자마자 촐 비레 가고?
#1 촐 비레, 밧듸 강 촐 비엄시믄 멩질 끗나믄 구루마로 밥 시껑 완 우린 먹언.
@1 아, 멩질헐 때?
#1 멩질헐 때도 우린 밧듸 가근에 촐 비엄시민은 제 본 사람덜이 밥을 아졍 왕 우린 먹언. 놉 빌어근에 그냥 가.
@1 아.
#2 멩질날이라고 놀질 못헷주.
@1 멩질날이라도 놀질 못하고예?
#1 멩질밥이엔 헹 ᄀᆞ찌 앚앙 ᄃᆞᆺ인밥 먹어본 역사가 없어. 그냥 밧듸 강 이시믄 그냥.
@1 제관만 딱 놔둬은에 가는구나.
#1 놔둬근에 그냥 가는 거주.
@1 아.
#1 게믄 밥헤근에 그냥 구루마에 시껑 오믄, 차롱에 놔근에 시껑 오믄 그땐 둘아졍덜 그

밥, 차롱밥, 여남은 이가 그냥 앚앙덜 돌아강 앚아둠서 거리멍 먹어.
@1 음.
#1 무신 지금ᄀᆞ추룩 떵 먹엄서? 무시거 헴서? 그릇채.
@1 그추룩 안 헹예? 예. 겅 허고 우리 절기 백로여 추분이여 허는 이런 것들은 안 허지예? 우리는.
#1 그런 것도 우리는 허는 거 못 봣어.
@ 으. 그런 건 모르고예? 그다음에 여기 아까 당 잇엇덴 허잖아예? 이 당에도 저기 가을 뒈면 제 지내고 헙니까? 여기도?
#1 아니.
@1 여기는 정월에만?
#1 정월에만. 정월에만 일 년에 흔 번 과세 가는 거주, 과세.
@1 예, 과세 가는.
#1 과세, 세배 가는 거주.

상강

@1 음. 딱 한 번 감구나. 게믄 그 상강. 옛날엔 상강 그 농사헐 때 상강 허게 뒈면 뭐 상강 전에 다 저 보리 비어들이 아, 저기 감저 다 헤야 된다, 이런 말들은 잇잖우꽈?
#1 게, 그건 잇주게.
@1 거, 그런 말헤 줍서.
#1 상강, 이 고구마를.
@1 으.
#1 상강 넘엉 파면은 썩어 불어.
@1 음.
#1 상강 전이 파야.
@1 상강 전이예?
#1 상강 넘엉 파민은 문딱 놔두면 구뎅이에 놩 놔두믄 문 무락무락 문 썩어 불어.
@1 아. 거난 ᄀᆞ실은 다 상강 전에 허렌?
#1 그렇지.
#2 추위, 추위를 한 번 맞이면은.
@1 예.
#2 저, 그냥 종자로도 사용을 못 헤여.
@1 사용 못 허고예?
#1 그 감저를 파다근에.
@1 음.
#1 두에다가 이제 이만큼 구뎅이를 파주게.
@1 예.
#1 게민 감저를 멧 가마니 묻느냐에 따라서 구뎅이를 크게 파곡, 족게 파곡 허여.
@1 예.
#1 이렇게 파면은 우리 키로 이제 요만큼 오게시리 파.
@1 예, 허리쭘에.
#1 으, 파면은 밑에다 이제 욮으로 조칩을 짝허게시리예.

@1 으.
#1 놓아.
@1 예.
#1 읖으로.
@1 으.
#1 읖으로 조칩을 쫙허게시리 놓면은 아래는 조칩 끈 다음에.
@1 음.
#1 그냥 저 조칩이 하영 엇일 때에는 콩꼬줄.
@1 콩꼬질.
#1 그런 것도 놓곡 헤근에 이젠 감저를 그디 팡팡 빕주게.
@1 으.
#1 비우믄 이젠 감저 이제 이만큼 올라오민은 이젠 조칩을 헤근에 이젠.
@1 으.
#1 조칩을 우트레 문딱 이렇게 모둡는 거야, 이렇게.
@1 으.
#1 문딱 모두와근에 이젠 무꺼근에 이젠 영 영 ᄂᆞ람쥐ᄀᆞ치 무꺼근에, 이제 ᄂᆞ람쥐 헤근에 삥허게시리 새로 여끈 걸로 헹 둘러근에, 주젱이 체와근에 딱 놔두주게.
@1 으.
#1 경 허민은 그냥 그거 그냥 그 봄 나두룩 그거 옴푸멍 그냥 눈 오는디도 그것 강 옴푸멍 막 먹는 거라. 밥홀 때도, 보리밥홀 때도 감저 멧 개 놩 밥허곡. 조팝홀 때도 그냥 감저 멧 개 썰어 놩 밥허곡. 범벅헹 먹을 때도 그냥 보릿ᄀᆞ리범벅, 모물ᄀᆞ리범벅 헹 먹을 때도 그자 꺼내엉 먹곡. 그자.
@1 으.
#1 그냥 겨울살이는 그게 그냥 간식이라.
@1 감저가예?
#1 감저가 간식이주. 지금 ᄀᆞ뜨면 간식이주. 우린 그런 거 지금 주믄 안 먹주만은 옛날은 거 막 간식으로 그냥 별미로 그냥.
@1 으.
#1 하이고, 막.
#2 그것만 먹어졋주.
#1 그것만 그냥 부젯칩이엔 헹 감저 그냥 ᄒᆞᆫ 솟 치면은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모다들엉덜 앚앙 놀멍덜. 역불로 어머니가 옵센 허곡 노상.
@1 으, 그렇지. 잇는 집. 다른 데 없는 거 알고 하니까. 게믄 그 감젓눌 잇잖아예? 멧 개를 눌어수과? 삼춘네는?
#1 아, 게난 식구에 따라서. 게난 다섯 가마니 묻느냐, 세 가마니 묻느냐 그것에 따라서. 두 개 허는 집, 하나 허는 집.
@1 음.
#1 하나만도 요만큼 ᄒᆞ는 집도 잇고.
@1 으음.
#1 먹을 사름 엇어근에.
@1 게믄 씨감저 헐 거예? 씨감저 헐 것은 언제 파마씸? 감저?

#1 그냥 ᄀᆞ치 팡 묻엇다근에 그냥 그 구뎅이에서 그냥 정월, 정월 나면은 그냥 저 감저 묘종을 놓는 거야.

@1 정월에.

#1 으. 그냥 ᄀᆞ찌 놔두는 거.

@1 아. 따로 감저 묘종을.

#1 감저 묘종헐 거 따로 허는 거 그런 거 엇어. 그냥 ᄒᆞᆫ 구뎅이에 놧다근에 성헌 걸로 골롸근에 강 묻어근에.

@1 으.

#1 묘종 내와근에 싱그주게.

@1 으, 예.

#2 묘종, 묘종 그 감자를 묘종 놓기 위헤 가지고 이제 전부 끄집어 낼 거 아니라?

@1 예, 예.

#2 끄집어 낼 때 보면은 순이 이렇게 나와.

@1 아.

#1 뾰죽뾰죽.

@1 뾰죽뾰죽.

#2 막 그 그 쏙에, 쏙에 온기가 도니까.

@1 예, 예.

#2 발아균이 팔팔 사니까. 근데 육지 거는 같은 종자라도, 같은 감자라도 고구마라도 가져오면은

@1 순이 안 나고.

#2 그 상강인가 뭐 그 어간에 가져온 거는, 여기 넣어, 넣어두면은 안 나. 발아가.

@1 아.

#2 다 썩어 버려.

#1 아마도 그 약ᄒᆞ는 과정에서 틀리는 거 닮아.

@1 음.

#1 안 썩게 ᄒᆞ는 그 약ᄒᆞ는 과정이 틀리는 거 닮아. 지금 무우에서 동지 안 사게끄름 허듯이 허는 거 닮아.

@1 으.

#1 우리, 건 나 생각에만.

@1 예, 예.

#1 그 감저를 사당 먹어보면은 그런 확률이 많으니까.

@1 음.

#1 그런 것이 좀 이신 거 아닌가. 생각이.

시월

@1 음, 자연적으로 아니고예?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시월 절기에는 뭐 허는 거 엇수과? 시월에.

#2 시월에?

#1 그냥 정월 멩질ᄁᆞ지는 별로 ᄒᆞ는 거 엇어.

@1 그다음에는 엇어예?
#1 이 동네 이상한 동네. 구신도 엇고 그냥. 짐승도 엇고.
@1 짐승도 엇고. 근데 이제 동지에.
#2 풋죽 쑤어 먹는 거.

십일월

동지

@1 십이월 이십이일인데 음력은 십일월 나잖아예?
#1 풋죽 쒕 먹는 거 하나.
@1 으. 게 풋죽 헤근에 뿌리기도 헨마씨? 동지에?
#1 뿌리는 집도 별로 엇어.
@1 으음.
#2 몰라. 좀 케우리는가? 문전에.
#1 아, 난 팔십 년 살도록 한 번도 난 안 케우려 봐수다.
#2 그런 걸 보아보질 못헤시난.
@1 예. 아니, 다른 데는 정월 대보름 허면은 오곡밥도 헹 먹곡 허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안 허곡.
#1 이딘 이딘 그런 것도 잘 엇곡.
@1 어, 요즘이야 그냥 헤 갖고예? 근디 풋죽은 헤 먹어?
#1 헤 먹주게. 풋죽은. 풋죽도 안 헹 먹는 집도 잇어.
@1 으. 근데 풋죽 안 쑤는 날도 잇잖우꽈? 오동지, 애기동지.
#1 아기동짓날.
@1 아기동지.
#1 옛날은 그런 거 엇어신디. 요지금 그걸 그것이 나완.
@1 아, 옛날에는 엇어수과?
#1 옛날에는 그런 것이 무조건 동짓날은 그자 죽 쒕 먹는 날.
@1 음.
#1 무조건.
@1 무조건.
#1 게민 풋죽 쑬 때도 고구마 멧 개 놔근에 죽 쑤주게.
@1 어.
#1 경 헤.
#2 애기동지가 언젠지. 뭐 거.
#1 애기여 무시거여. 경허멍, 풋죽 쑬 때도 고구마를 멧 개 놔.
@1 아.
#1 아, 또 또 풋죽 쑬 때 친 감저는 더 맛 좋아.
@1 아, 풋죽에 고구마 놩 먹은 거는 안, 새알 저기 헤근에.
#1 새알은 없어. 이 동넨.
@1 이 동넨 엇고예. (웃음).
#1 중간에 육짓 어른덜 완 살면서 그 새알 문제가 나완게.

@1 으.
#1 그게양. 그게 중간에 육짓 사람덜 완 살 때에 새알 문제가 나완 새알을 놓기 시작 헷주예.
@1 응.
#1 우리는 떡국도 안 놔 봣수다.
@1 떡국도 안 놔보고예?
#1 예, 겐디 첨.
@1 감저는 놔보고.
#1 고구마는 놔봣주.
@1 음, 그 왜 떡국 저기 헹은에 이 골미떡이렌 헹은에 안 멘들아 봅디가?
#1 그런 것도 잘 이 동넨 아녑니다.
@1 아. 골미떡 들어보기는 헙디가?
#1 들어보기는 허지게.
#2 골미떡 먹어도 봣주게.
@1 어떻게 뒈어, 골미떡?
#2 동그랗게 만들아 가지고 기냥.
@1 어, 우리 떡국처럼. 으.
#2 그럼 이건 뭐 긴 거는.
@1 짤랑?
#2 이 짤라 가지고. 골미떡이라 헤 가지고.
#1 그거는 정미소에 강 빠단 먹엇주게.
#2 게메게. 그것이 골미떡이주게.
@1 으. 겡 헤근에, 떡국도 골미떡 헤 갖고 헷잖아예?
#1 떡국이 골미떡이주게, 떡국이.
#2 으. 떡국.
@1 거난 여기는 멩질 때 정월 초ᄒᆞ루, 떡국들은 안 헤? 그런 떡은?
#1 잘 안 헤.
@1 안 헤예?
#2 풍습이.
#1 완전 이 동네는 그냥 토속으로 그자.
@1 옛날식으로 그대로.
#1 옛날 할망 식으로만 그냥 살안.
@1 아. 특이하네.
#1 예, ᄒᆞ꼼 특이ᄒᆞᆫ 동네우다게. 막 영.
#2 뭔가 부족한 점이 잇으니까 그건가?
#1 쎄련뒈질 못헤영 거주게.

대한·소한

@1 으. 옛날에 그 대설, 소설 뭐 대한예? 소한, 이런 거에 얽힌 이야기들도 잇지예?
#1 대설 소설에 나가민 저 집 못 들어온덴 ᄒᆞ주게.
@1 으.
#2 춪아보지 말렌.

#1 춪아보지 말렌.
@1 대한하고 소한.
#3 소한, 대한.
#1 원체 눈이 만이 온다는 거주게.
@1 으.
#1 옛날은.
@1 으.
#1 우리 옛날은 그 지금 그 김○○네 올레 넘어가젠 ᄒᆞ믄 동산 몰래, 모래 올라 강 또 내려오곡 헷수게게. 평부네 집도 그 돌, 모래판이라 낫수다. 그디예, 이 집만은 눈이 싸면은 그디 올라가근에 또 내려오면은.
@1 으.
#1 엇인 사람덜은 게단 신엉 뎅겻주게. 고무신이 엇어서.
@1 예.
#1 초신 게단을 신언 뎅겻주. 우리 초등학교 뎅길 때는.
@1 예.
#1 초등학교 이학년 때에 ᄉᆞ삼사건에 집이 불부떠 부난 우린 학교도 엇이 공부헌 사람이주만은. 그렇게 헷는데 그 신을 신엉 학교 갓다 오면은 발이 이만큼 터.
@1 음.
#1 젖어근에 막 곳아 불믄. 부르터근에.
@1 그렇지. 초신이난예.
#1 초신이난.
@1 음.
#2 양말이 이시카? 어떵 헹 보선 여자들 신는 보선.
#1 광목으로, 광목으로 헹.
#2 광목으로 멘든 거 헤믄 물 ᄒᆞᆫ 번 젖이믄 그 어떻게 마를 수가 잇어?
#1 에이고. 말도 못 헷주.
@1 아.
#1 우리 산 건 삶 아니고.
#2 곳아 가지고.
@1 삶 아니라마씨?
#1 삶 아니.
@1 요즘 삶은 어떵허우꽈?
#1 아이구, 이거 이런 풍년이 어디 서?
@1 응.
#1 나는 이제 죽는 것이 을큰은 ᄒᆞ는디 애기덜 ᄌᆞ들라지카 부덴 재기 죽젠 헴주.
#2 (웃음).
#1 영 살기 좋은 세상은 엇주게.
@1 으.
#1 견디 더 오래 살앙은. 왜 나가 이 말을 곧느냐면은.
@1 으.
#1 노인당에도 왕 보곡, 이런 저 양로원에덜토 첨 많이 봉사 다녓주만은 너무 힘드는 거야.

@1 으.

#1 그 사람들 사는 광경을 보면은.

@1 예, 예. 그렇지. 나이 들면은예?

#1 경 ᄒᆞ니까 우리가 이제 영 활발헐 때에 안 죽으면은 애기들이 얼마나 피곤헐 거라. 장 목시 각시도게, 족은뚤이 산소 호흡 찔러 부난에 지금도 살앗젠 헴수게.

@1 음.

#1 족은뚤이 그냥 우견에 성덜 오라방덜 이견에 기냥 산소 호흡 꼽아 불엇젠 헴신게.

@1 어.

#1 게난예, 지금 그거 때문에예, 나 생각이우다게. 나 생각인디, 재산도 못 물려주곡, 요지금 막 벌엉 살젠 아둥바둥 아둥바둥허는디 부모덜 아울라 저추룩 헤놓믄 얼마나 애들이 줓일 거. 베낏딜론 아무런 표현도 아녀는디 쏙으로야 마음이야 부모 마음인디 어디 갑니까게? 경허난 그런 것도예, 막 황당허곡예. 자식들신디 강 얻어먹젠 허믄 눈치보레난. 당신만 얻어먹젠 허믄 국도 엇인 밥 먹곡 반찬도 엇인 밥 먹곡. 경 헷자 어디 강 하소연도 못 허곡.

@1 으. 맞아예.

#2 다 운명이우다게, 운명. 세월도.

장 담그기

@1 그 여기에 집 일고 그다음 장 담그는 건 어느 철에 헤마씨?

#1 집 이는 것도 저 십일월달.

@1 양력?

#2 십일월.

#1 음력으로.

@1 음력? 음력으로 십일월달.

#1 시월, 촐, 새를 시월돌에 비어.

@1 예.

#1 새를 이제, ᄀᆞ실 다 헤여 나믄은 조 ᄒᆞ곡, 콩 ᄒᆞ곡 다 헤나면은 이젠 새가 그땐 익주게.

@1 예.

#1 익으면은 그때 이제 새밧덜 사근에 이젠 큰 밧 사믄 열이나 다섯이나 이제 동아리헹 사근에.

@1 응.

#1 ᄀᆞ찌 강 싹 비어근에 열 ᄒᆞ면은 열 동에 놔근에 ᄌᆞ근ᄌᆞ근 크면은 큰 대름 영영영 놓곡 헤근에.

@1 음.

#1 짝 허여근에 거기서 이제 제비 뽑아근에 갈라당.

@1 으.

#1 이제 동짓돌 나면은 그 집을 일어. 아니 경헹 이제 그 각단이엔 헌 거는 이제.

@1 으.

#1 질에염에 거영 무시거여 쫄른 거 헤다근에 이젠 줄 놔근에.

@1 응.

#1 겡 헹 이젠 그거 일면은 두 헤에 ᄒᆞᆫ 번.

@1 두 헤에 ᄒᆞᆫ 번 여기서는?

#1 두 헤에 혼 번, 두 헤에 혼 번 집을 일곡. 이제 그 엇인 집이들은 삼 년에 혼 번도 일곡, 그냥 줄만 새로 메엇당.

@1 예.

#1 줄만 새로 멧당 경도 ᄒᆞ곡. 그자 하도 농촌이곡, 초가집이곡 하도 박ᄒᆞ게 살아 놓난 무신 정신 히여득헤영 ᄀᆞᆯ아지크라, 으이구.

#2 (웃음). 맞주게.

@1 게난 이제 음력 십일월에 집을 이는 거라, 이 동네는예?

#2 예.

@1 그 장 담그는 건 언제 허는 거?

#1 그 시월ᄃᆞᆯ에 장 담는 거.

@1 장은?

#1 장도.

@1 집, 집 이는 것보다도?

#1 앞이도 ᄒᆞ곡 두에도 ᄒᆞ곡 건 혼 엇어. 그냥.

@1 아.

#1 콩 거려와지면은 그건 자유대름 헤근에 솖, 솖앙, 이젠 그거 장, 메주 만들어근에.

@1 예.

#1 메주 ᄆᆞᆯ류왓다근에 것도 이제 지금은 무슨 나이롱줄이여, 무신 그냥이여 ᄆᆞᆯ루는디, 옛날은 산듸찝으로 ᄒᆞ여근에 꼬아근에 그 집, 집 만들어근에 ᄃᆞᆯ아메영 ᄆᆞᆯ류와낫주게.

@1 예, 예, 예.

#1 그거를.

@1 음.

#1 경 ᄒᆞ믄 섣ᄃᆞᆯ그뭄날이믄 날 안 본덴 헤근에 그자 무조건 섣ᄃᆞᆯ그뭄날 그 장 담젠 ᄒᆞ믄, 낼 장 담을 거믄 오늘 ᄆᆞᆫ딱 시쳐놔야 낼 멩질 출릴 거 아니?

@1 예.

#1 경ᄒᆞ믄 메주 시쳐근에 ᄆᆞᆫ딱 소쿠리에 놧다근에 그날 아칙인 그자 섣ᄃᆞᆯ그뭄날 아칙 새벡인 그자 톡톡 들이쳐 불주게.

@1 아. 아. 여기서는 장 담는 게 섣ᄃᆞᆯ그뭄날 담아예?

#1 섣ᄃᆞᆯ그뭄날은 날 안 봥 담곡, 그 전이 담는 사람덜은 날 봥 담아.

@1 음.

#3 손 없는 날이니까.

@1 손 없는 날이고.

#1 섣ᄃᆞᆯ그뭄날은 아무 것도 안 보는 날이엔 헤근에 딱 그날들을 담앙, 혼 구십 프로 백 프로 다 그날 담앗주, 옛날은.

@1 아. 섣ᄃᆞᆯ그믐예. 그 바쁜 가운디.

#1 그 바쁜 가운데.

@1 아.

#1 진짜로 게난 안 ᄀᆞᆯ암서게. 정신이 하나토 엇넨 허난.

@1 아, 웨냐면 옛날은 장들도 하영 담앗잖우꽈?

#1 하영 담앗주. 닷 말 담앗주. ᄋᆞ답 말 담곡.

@1 음.

#2 식군 하지.
@1 식군 하지.
#1 (웃음). 우린 쑤물, 쑤물닷 말짜리 항에.
@1 예.
#1 울 어머님, 우리 친정아버, 할르버지덜ᄁᆞ지 사난에 열 멧 식구 사난에 읏답 말 숣아낫어.
@1 음. 장을예? 혼 사람이.
#1 옛날엔 혼 사람이 혼 말 먹어낫덴 헤낫주게.
@ 혼 말 먹넨 헷잖아예?
#1 옛날은 혼 사람이 혼 말. 왜냐믄 뒌장벳긔 반찬이 없어.
@1 으.
#2 그렇주게, 응.
#1 뒌장으로 ᄂᆞ물 싸 먹지. 무신 그냥 그걸로 헤근에.
@1 뒌장국.
#1 국 끌령 먹지. 그냥 찌개도 찌개멍 말멍 그냥 두루치기 헹 먹는 거지.
@1 응.
#1 무신 짐치 놔근에 무신 고등어 놩 지져 먹는 것도 돈 하영 들카 부덴 아녕 먹어.

엿 하기

@1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헹은에 장도 담그고. 옛날에 엿허는 것도 봐 봅디가?
#1 엿허는 거.
@1 언제 엿헙니까?
#1 나는 엿 잘 허주.
@1 아.
#1 것도 시월둘 나믄, 십일월둘 나믄 묵은헤에 다 만들어.
#2 엿 엿, ᄒᆞ는 날 보고 뭐라고 헌다만은?
@1 남평날.
#2 남평날. 음, 남평날. 남평날 허면은.
#1 난 남평날 아니라도 지금이라도 엿 담아 먹고정 허면 엿 담아.
#2 보통 남평날 허면 엿 담, 만드는 날.
@1 예.
#1 거 ᄌᆞ꿉는 거니까 새철 들기 전이 ᄒᆞ렌 헤근에 묵은 헤 다 ᄒᆞ는 거주게.
@1 아.
#1 ᄌᆞ꽈 부니까.
@1 ᄌᆞ꽈 부니까 못 산다고예?
#1 옛날 어른덜 그 공부들 안 헤도 머리가 좋기가.
@1 음.
#1 방식, 그 하나하나 ᄒᆞ는 방식이 우리가 따라가질 못ᄒᆞᆯ 정도로.
@1 으.
#1 옛날 어른덜 산 거야.
@1 게서 맨날 내가 옛날 어른들 지혜롭다고. (웃음).

#1 으. 춤말로 그 어떵사 헨 살아신지 몰라도게 그 유명ᄒᆞ게시리 잘 살앗단 말이여, 그게.
@1 으. 게난 그 엿도 약으로 허는 엿들도 잇덴 허멍예?
#1 응. 약으로. 꿩으로 ᄒᆞ는 사람, 닭으로 ᄒᆞ는 사람.
@1 음.
#1 뒈지머리로 ᄒᆞ는 사람. 막 여러 종류.
@1 음.
#1 게난 그거 아이, 그거 세 가지는 기본이야.
@1 옛날 막 종기 나면 엿 부쳉은에 허기도 허고.
#1 아이고 그건 아니. 종기 나면은 야펜이 잇어.
@1 야편.
#1 그 야펜이 뭐냐면은.
@1 으.
#1 옛날 그 ○○ 어른마씀게.
#2 으.
#1 그 하르방. ○○이 어머니 아버지. 그 어른이 그 야편을 집이서 야편 싱거근에.
@1 으.
#1 그 야편 고약을 만들어근에 풀아.
@1 으.
#1 요만끔 ᄒᆞ면은 십 원이면 십 원 헤근에.
@1 응.
#1 그거 사당, 그거 부쪗주. 엿으론 아녀.
@1 으.
#1 근디 그 야편이 뭐냐 허면은.
@1 아편.
#2 직통이 아편.
#1 그 아편이 뭐냐면은 지금 방법 나 ᄀᆞᆯ아주카? 이모들신디?
@1 으.
#1 종기 나면은.
@1 예.
#1 무조건, 십 원썩 내놔.
@1 으.
@3 (웃음).
#1 무조건 커피.
@1 예.
#1 커피에다가 소주를.
@1 으.
#1 여기 종기를 나면은 소주를.
@1 으.
#1 손에 영 무쳐근에.
@1 으.
#1 커핏가루로 톡ᄒᆞ게시리 여기 부쪙 놔 불면은 그냥 좋아 불어.

@1 아.

#1 백발백중 그냥 이 이 등창 난 것도 나가 커피로 헨 다 구완헤 줜 소고기를 멧 근 먹은 중 알아?

@1 으.

#1 저 ○○이 손지양, 멘돈지 저 큰아덜의 손지. 이 뒷고개에 등창 난게.

@1 으.

#1 뒷고개에 등창 난 이디 막 던덕젼. 우리 집 에염에 살레 와신디.

@1 음.

#1 야, ○○ 어멍아, 야이 무사 영 헤시니 ᄒᆞ난. 아이, 몰루쿠다. 암만 약 헤도 안 뒈고 병원에도 가도 안 뒘수다 ᄒᆞ난. 그때에 저 우리 큰아덜 웨국 베 탈 때난, 커피 아져올 때주게. 그때 웨국 술이난 사십 도라게.

@1 음.

#1 경 헨 그 술을이 그 술을 술잔으로 헹 요만큼 주곡.

@1 음.

#1 커피를 그 소주잔으로 두 갤 줫어.

@1 으.

#1 이거 헤영 불라 보라. 나 생각에 이것 야편 닮다. 쓴 거 보난 야편 닮다 헨. 그때 그거 불란 가이 그거 좋안게.

@1 으.

#1 게난 그디서 소고기도 삼 키로 사와십디다. 그때.

@1 (웃음).

#3 아.

#1 가이 이제, 가이 이제 서른, 흔 마흔 남실 거우다.

@1 으.

#1 그때.

@1 아이고, 그 커피 약은 이 삼양동 약이구나게.

#1 최고, 그거. 나가, 나가 그건 진짜로 나가 젤 먼여 개발헤실 거라. 지금 흔 삼십 년 넘어시니까.

@1 얼, 얼마 전에 삼양동에 어느 보살님이 종기 나난예, 그 커피 헹은에 불라 줍디다게.

#1 게, 최고.

#3 아.

#1 최고우다게.

@1 겅 헨 낫앗덴. 우리 절에서.

#3 나 오늘 처음 들엄수다.

#1 가려울 때도양, 술 헤근에 커피 헤근에 싹 불랑 놔둬 봅서. 그냥 엇어져 불어.

@1 술은 안 헤신디, 커피로 경 헤근에 불라근에 낫앗덴 굴읍디다게.

#1 여기를 종기를 낫는데, 나가 지금.

@1 으.

#1 옛날에 종기를 낫는데 도시 죽어도 안 나으는 거라. 거난 나가 이 멍청ᄒᆞᆫ 아고, 나 커피를 처멜 걸 안 처메졋구나 겡헨 커피를 두 번 처메니까 뻥 터지는디 쏘곱으로 애옥이 이만큼, 훈작 아니 진짜 이만큼 나오는 거라.

@1 아.
#1 그걸 터지지 못ᄒᆞ는 거라.
@1 도 못 춪아 갖고?
#1 도 못 춪안. 겐디 거 부쩐 놔두니까, 그때이 이제두기 이제두 페적 콩알만은 셔. 페적이.
@1 아.
#1 그때에.
#3 이명네 고약은 아무 것도 아니네.
#1 저, 병원에 강 고약 살 필요 없어. 커피ᄒᆞ고 소주믄 최고.
@1 음. 커피 허믄. 커피 허믄. (웃음).
@2 (웃음).
#3 잘 헤놧다가 거 저.
@1 아니, 요번에 누가 커피 불르는 사람 십디다게.
#1 게난 난 사우나 강도게 누게 무시거 나시민, 야, 이거 집이 강 빨리 커피 불르라. 커피 불르라.

신구간

@1 음. 삼춘 경 허고예. 엿헤는 거허고. 신구간. 여기는?
#1 옛날은, 옛날은 신구간을 막 ᄉᆞ뭇 크게 헷주게. 일주일게.
@1 예. 신구, 신구간에 대헹 굴아봐 줍서.
#1 일주일, 일주일.
@1 일주일.
#1 아이구 난, 이사 안 뎅겨봐 부난 잘 몰르크라.
@1 으.
#1 신구간은 저, 저 새철 들기.
#3 으, 대한 후 삼일 입춘 전 오일.
#1 예,
@1 대한 후 오일부터 입춘 전 삼일까지.
#1 으, 경 헤근에 오일, 일주일.
@1 예.
#1 경 헤근에 그때라사 이사허영, 절대 그 전인 이사 아녀곡, 그르후제도 이사 안 헤.
@1 응.
#1 삼양 풍속은 경 허다가 요지금은 새 유헹 뒈니까 그냥 아무 때라도.
@1 으.
#2 이젠 뭐 날짜가 엇주게, 이사가.
#1 예, 이젠 날짜가 엇어. 그냥.
#2 그때는 그때 이삿날 아니면은 신구간 아니면은 이사옌 헌 거는 염두에 두어보질 못헤 봣주.
#3 그렇지.
#1 생각도 못헤 봣주.
@1 그니까 이사도 허지만은 집 고치거나 이럴 때도 그때 헷잖아예?
#1 그것도, 응.

#2 신구간에.
#1 겨고 날 봐야.
@1 날 봐야.
#1 꼭 날 봐야.
@1 으.
#1 날 안 봥은 무슨 동틸 나도 나.
@1 아.
#1 어, 건 첨 그렇게 허더라. 그거.
#3 근데 ○○이 아방이 나안티 그럽디다. 본 사람은 계속 봐야 뒈거든?
@1 예.
#3 게 ○○이 아방이, 김○○ 씨라고 저 제주대학 교수.
@1 아, 예. 교수님.
#3 그 아방이 그 봐낫다고.
@1 응.
#3 그니까. 아, 이 사람아, 무슨 그 지금 볼 거 잇나? 동티 날까 봐서 본다는 거라. 그거를.
#1 그렇주게. 예게. 예게, 예.
#3 뭐 이제 삽질 헌다거나, 뭐 땅을 판다, 막 어디를 손댈라면 그 하르방안티 가서 꼭 봣다고.
@1 음.
#3 이젠 볼 필요 엇어요, 헤 불드라고.
@1 으.
#3 이제는 포크레인으로 다 헤 불지예.
#1 예게, 예. 경ᄒᆞ난.
@1 손으로 안 하니까.
#3 예, 동티 날 리가 없다는 거지.
@1 음.
#1 게난예, 나도 아이덜 이사허는 디고 무시거 허는 거고예, 그자 저 구일날, 십구일날, 이십구일날 헤 붑니다.
@1 손 엇인 날.
#3 손 엇인 날. 예, 예.
#1 손 엇인 날로. 구일, 십구일, 이십구일, 그냥. 경 헹 헤 불주. 날 보라, 무시거라 안 헤.
@ 으.
#1 ᄒᆞ루 돈 십만 원씩 주멍 봣자 무신 그것이 그거주. 강 봐도 그날이라.
@1 음, 손 없는 날예? 그다음에 집에 띠 엇인 날이고.
#1 경 ᄒᆞ민 그냥 소금ᄒᆞ곡.
@1 풋ᄒᆞ곡.
#1 풋ᄒᆞ곡 헤근에 서꺼근에 잘 짝짝짝짝 뿌려근에 그냥 헤 불믄.
@1 으.
#1 이녁이 의심 가지면은 소금ᄒᆞ곡 콩, 저 풋ᄒᆞ곡 헤근에 그자 뿌려 불믄 걸로 끗나는 거.
@1 으.
#1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

@1 거난 방법은 소금ᄒᆞ고 풋이구나.
#1 풋.
@1 아무디나 헐 때도?
#3 귀신.
@1 으, 귀신 쫓는 거?
#1 이디도 고치젠 ᄒᆞ민 이디 왕 착 뿌령 그냥 내불어, 그냥.
#3 고춧가루 서꺼서.
@1 고춧가루 서꺼서?
#1 아이구, 건 안 서꺼도 뒙니다.
#3 고춧가루 서꺼서.
@1 육지는 저 고춧가루 서꺼서 허는가 보다.
#3 아니 여기 와서 헤수다.
#1 우리는예, 영장을 나갈 때도 풋ᄒᆞ고 소금 헙니께.
@1 으.
#1 또시 집이서 무신 일 ᄒᆞ젠 헤도예, 미리 딱 그걸 뿌렴수께.
@1 으. 미리 뿌려 놩 헴구나.
#1 또 풋도 ᄒᆞ곡.
@1 으.
#1 게난예, 영장 나갈 때도 풋ᄒᆞ고 소금 뿌리는, 영장 나가믄 탁ᄒᆞ게시리 그냥 도 나가자마자 그냥 뿌리잖아요.
@1 나가자마자 그냥.
#1 게민 집안마다 싹 뿌려 불어.
@1 예.
#1 경 헤근에 요지금은 집이서 아녀난 헴주. 옛날엔 경 ᄒᆞ믄 또 식초.
@1 예.
#1 족은 병 사다근에 딱 두 개만 사다근에 마루ᄒᆞ고 방 이서난, 저 뭐 헌 어른 이서난 방 ᄒᆞ곡 헹, 뚜껑 열앙 내불민은 아무추룩도 안 헤.
@1 식초도 그렇게 허는구나예?
#1 식초도 큰 방법이주게.
@1 아.
#1 식초, 어떤 사람들은 식초 뿌리잖아.
@1 식초 뿌린덴 헌 말은 안 들어봣수다.
#1 아, 우린 식초도 뿌려봔.
#2 식초 허여, 식초 뿌려.
#1 우린 영장 날 때.
#3 오늘 여러 가지 베우네.
@1 지역마다 이렇게 ᄄᆞ나.
#1 식초도 좋은 거라.
@1 예. 그추룩 헹은에 하고.
#1 오늘 우리 집이 영장 나근에 사람 직헐 사람, 산에 가젠 허난 사람 직헐 사람 엇어. 게믄 식초 놔둬 가믄 뒈.

@1 으.

#1 게믄 마귀가 못 들어온다는 거주.

@1 거니까예. 아, 식초도. 그다음, 그때 그렇게도 허고 옛날에 그 항아리 같은 것도 벌른덴 이런 말도?

#2 미신.

#1 것도 옛날엔 그 영장 나가믄 장텡이 하나 놧다근에 파싹 벌러낫주게. 무뚱에서.

@1 으. 경헌덴 그 말은 들어나신디다가.

#2 것도.

@1 그다음에 이제 그 신구간 이사허고예. 이사헌 집에는 뭐 가져가마씨?

#1 아니, 옛날은 경 아녀곡 그냥.

@1 으.

#1 그런 부주도 엇어나고.

@1 으.

#1 그냥 못사는 집인 쏠이나 흔 말 아져다 주곡.

@1 으.

#1 그자 무시거 영 곡식으로 갖다 줘주, 돈으로 갖다 주곡 부주허곡 그런 건 엇어낫어.

@1 으. 엇어예.

#1 이제 ᄉᆞ뭇 영 하도 돈 널어질 때난들 돈 자랑 헴주. 옛날엔 그런 거 엇어.

@1 (웃음).

#1 (웃음).

@1 게난 옛날 그 겨울에는 소한하고 대한을 젤 크게 저기 헤수과?

#1 소한하고 대한을 허진 아녀고.

@1 으.

#1 나간 사람 들어오지 못헌덴. 춤 저 춪지 말렌 헌 때문에.

@1 으.

#1 대한ᄒᆞ고 소한은 멀리 나가지 말렌덜 당부만 ᄒᆞ주게.

@1 예, 많이 추웟다는 뜻이지예?

#1 너무 추웟다는 거주게, 너무 추웟다는 거주게, 그때가.

옛날과 오늘날 풍습 비교

@1 이런 식으로 헤 갖고 이제 일 년은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살아오면서 예전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비교헷을 땐 어떵 헤마씨? 이런 풍습들이 옛날 방식대로 하는 거하고, 식게 같은 경우도 막 합제도 허곡 허잖아예?

#1 그렇지.

@1 으, 어떵 생각 듭니까? 그런 거, 달라진 거?

#1 난 좋은 걸로 생각 들지.

@1 으.

#1 시대가 변화 뒈가니까, 살림도 변화가 뒈니까 아주 아름답게 산다고 생각헤.

@1 아름답게? 옛날 삼춘 너무 고셍헤 부난 경허는 거 아니?

#1 아니, 아니. 고셍허지, 고셍헌 거를 생각을 안 헤도.

@1 음.

#1 요지금 아이들은 하도 머리들이 좋아 놓니까 사는 방식이 다 제 방식대로 살아도.
@1 으.
#1 ᄀᆞ만히 내불어. 옛날엔 오죽 시겻수과게? 영 ᄒᆞ라 정 ᄒᆞ라 막 ᄉᆞᄆᆞᆺ.
@1 으.
#1 시겨신디. 요지금은 자연으로 내불어도 자연으로 잘 살아.
@1 음, 삼춘네 식구만 겅 사는 게 아니고?
#1 아니.
@2 (웃음).
#1 난, 우리 식구를 비ᄒᆞ는 것이 아니고 나가 동네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가.
@1 봣을 때도?
#1 많이 이제 이 젊은 아이덜 사는 과정을 나가 많이 접헤 보면은.
@1 음.
#1 이 중간 중간 삼십 대, 사십 대, 오십 대, 육십 대 이렇게 사는 거 보면은.
@1 예.
#1 아주 춤 기가 멕혀. 나는 잘한다고 봐.
@1 음.
#1 그거는.
@1 그래도 과거에 옛날게 또 좋은 것도 없지 않아 잇잖아예? 어떤 건 좋은 거는 어떤 거렌 생각헤?
#1 옛날식으로 나눠 먹는 것이 좀 모자라주게.
@1 요즘은?
#1 음, 요지금은 나눠 먹는 거. 나벳긔 모르는 세상이라부난.
@2 예. 맞아.
@1 예.
#1 옛날은 이렇게 포옹을 많이 헷는데 지금은 나벳긔 몰라.
@ 음.
#1 지금은. 웨냐면은 이거 이 말 굴앙 죽을 말이냐.
@1 (웃음).
#1 요지금 젊은 아이들은 아방신디도 나 이제 안 들어갈 거니까 밥 춪앙 먹어이.
@1 (웃음).
#1 경헹 지네 수다 떨어.
@1 예전에는 진짜 남자가 밥을 떠서 먹는 법은 엇어신디.
#1 그렇지게. ᄀᆞ만이 앚앙 상 출령 들러다 주믄 먹엇주게.
@1 으.
#1 요지금은 안 그러잖아.
@1 으.
#1 아니, 어제 아척이, 어제 아척이 아니 난 부애가 난 것이 어떵 헤신고 허믄 어제 아척이 저 쏠 엇이난 쏠 사레 가멍 에에, 해장국이나 ᄒᆞᆫ 그릇 사당 놧당 우리 경 아덜 오거들랑 먹으렌 주주게 헨 해장국 사레 가난. 엄마.
@1 (웃음).
#1 영 ᄇᆞ려 보난 똘이 해장국 먹으레덜 친구들이영.

@1 (웃음).

#1 (웃음). 어떵사. 엄마, 엄마도 먹엉 가 ᄒᆞ관데. 엇다 난 집이 가근에 아침은 쪼금 거려 먹고 저 이것 저 사레 왓저 허난. 엄마 나가 돈 물크라 허난. 엇다. 난 나냥으로 물엉 가켜 헨. 집이 오난 피지직헨. 아니, 경ᄒᆞᆫ 중은 알지게.

@1 예.

#1 요지금 아이덜 그걸, 그거는 기본이야.

@1 예.

#1 견디 생각헤 보난. 망할년 서방은 애쓰게 돈 벌레 가는데. 어치냑 술 먹어나난 해장국 먹으레 왓구나. (웃음).

@1, 2 (웃음).

#1 (웃음). 지금은 그런 시대게.

@1 예.

#1 너무 정말 사는 것도 펜안허고 즐겁곡 너무 세상이 아름다와 가니까 아이덜 마음덜토 그렇게.

@1 예.

#1 넓게 표현ᄒᆞ면서 사는 거 닮아.

@1 만약에 그게 똘이 아니고 메누리라시민?

#1 아, 난 메누리도 경 ᄒᆞ여.

#3 쫓아내지. 쫓아낼 거 아니?

@1 (웃음).

#1 아니, 난 메누리신디도 경 ᄒᆞ렌 헤여.

@ 예.

#1 으, 먹고 싶은 거 시민 먹곡 ᄒᆞ렌 헤여.

@1 예, 맞아예. 아이고 어쨌든 고맙수다. 오늘은 너무 재미잇는 말들도 많이 듣고. 나중에 또 저기 그 필요한 거 잇으면 전화드릴 거고예.

조사 마을 지명

@1 설개 동네가 멧 개로 뒈어 이서?

#1 동카름, 새동네, 선반질, 앞밧동네, 둑둣거리, 넙을팡, 장석굴.

@2 아이고 잘도 하다예.

#1 막 하. 막은굴. 섯가름, 굴동산, 굴동산은 저 기와헤난 디ʔ라 굴동산.

@1 기와 궈난 디.

#1 굴동산, 또 설개.

#3 설개 동네가.

#1 아까 넙을팡 써샤?

@2 예.

#2 넓은팡.

@2 열 개.

#1 넙을팡은 송○○이네 올래가 어무니네 살아난디가 넙을팡.

@2 설개 마을이 열 개로 뒈어.

#1 아, 경 뒈언? 응.

#3 아니 아까, 지름개[지름깨]도 지름개는 어디 저 우에.
#1 지름깬 이 굴각물ᄀ라 지름개엔 헴수게. 것도 우리 동네게, 지름개. 굴각물, 건 굴각물.
#3 굴각, 강이 아니 각이라이.
#1 아까 굴은 우무세도 잇고.
@1 지금은 지명을 다 곧는 거고. 이 지명 말앙 설개에서 마을이 잇잖아. 웃동네.
#1 응, 마을이 앞이 거 다. 열 개.
@1 열 개가.
@2 열개나 뒈?
#1 굴아봅서, 회장님 굴아봅서. 못 굴메.
#3 지금은 일통, 이통, 삼통, 사통.
@1 아, 사통으로 뒈고예, 게난 이제 합쳐졋구나. 일통에는 뭘로 뒈고 가장 여기가 설촌헌디가 설개에서 헷수과?
#1 설촌이 설개.
@1 설개에서예?
#1 설개가 우리 일동 기본.
@1 거난 그 설개가 포구잖아.
#1 아니 포구가 아니고 삼양일동을 그냥 하나로 중심 세완에 지금 가지가 열 개가 나온 거야.
@1 예.
#1 설개에서.
@2 설개엔 헌 이름이 혹시 무슨 뜻인가 이런 게 잇나 헤서.
#2 설개란 이름이 자연 지명으로 호미 잇잖여, 호미, 낫. 낫같이 이 포구가 뒈엇다고 헤가지고 서흘.
@2 아, 서흘개엔도 굴읍니까?
#1 서흘개, 굴각물, 우무세.
#2 서흘개 마을이다. 마을 이름은 서흘개.
@1 겐디 서는 호미고 흘은 뭐우꽈? 호미 서 한자를.
#3 선흘 뭐 허듯이.
@1 아, 그런 흘이에요?
#1 나는 서을개로 아는디.
#3 흘이우다. 거 대흘, 선흘 허는 그 흘이고. 그니까 이제 설개허면은 이제 개는
@1 포구가 호미 모냥이라는 거라마씨?
#2 응. 개, 포구를 개라고. 앞개.
@1 앞개.
#1 굴각물은 굴각물이엔 헌디.
#2 앞개, 그런 개.
@1 예, 개는 포구라는, 자연포구 이름이니까.
#3 그래서 설개라는.
#1 게고 또 굴각물이엔 헌 디는 지금 저 수원지 옆엔디 굴각물이엔 헌 디는 굴겡이로 이렇게 보말 잡젠 헨 파단 보난에 물이 나오난 거 굴각물이라.
@1 옛날에 겅 굴앗구나게.

#3 그 물을 살려야 뒈는디.

#1 살려야 뭽니다게.

#3 그때 살릴라고 헤서 옛 나이 육천만 원까지 나왓어요. 동장이 딴 데 용도 변경을 헤분 거라.

#1 거 이번에 살려야 뭽니다게.

#3 원래 그 바다 지름개라는데 바다에 암반 제거를 많이 헷어. 원래는 제거를 하면 안뒌답니다.

#1 그거 큰일 난 거주게. 잘못한 거주게.

#3 원래 그 밑에가 이렇게 암반이 잇어야 뒈.

2. 제주시 삼양2동(1)

- 조사 일시: 2021년 4월 7일, 4월 14일
- 조사 장소: 삼양2동 복지회관
- 조사자: @1 김순자 @2 김미진 @3 최연미 @4 오경임
- 제보자: #1 홍성관 #2 김건의

조사 마을

@1 동네가, 삼춘네 동네가 어디?
#1 우리는, 옛날에는 여기가.
@1 옛날말로.
#1 으?
@1 옛날말로 골아 줍서.
#2 옛날말로.
#1 이 밑에는 가물개엔 허고 우에는 두른들이엔 헤나십주게.
@1 예.
#1 게난 나도 인제 가물개 살단 두른들 간 사는데.
@1 예. 두른들.
#1 두른둘.
@1 게난 도련하고가 아니라 두른들이엔 헷어예?
#1 두른들.
@2 두른들.
#1 거석동이엔도 허고 그러는데. 쪼꼼.
@1 게믄 이 삼양동이예, 삼양동이 어떤 마을로 이루어젼마씨?
#1 삼양동은 설개.
#2 가물개.
#1 가물개.
#2 버렁.
#1 또 버랑동, 벌랑동. 또 삭으내옌도 허고. 또 도련일동은 저 드, 도련.
@1 예.
#1 또 도련이동은 멘촌.
@1 게난 도련일동이 도련드르잖아예?
#1 예.
#2 도련들.
@1 예, 도련들.
#2 도련동.
@1 예, 도련동. 예. 멘촌. 게난 원래 삼양은 설개, 가물개, 벌, 벌렁.

#1 예.
@1 으. 벌?
#2 버렁.
@1 버렁. 삼동예.
#1 원래는.
#2 벌랑동이 아니 버렁.
#1 게난 벌랑동도.
@1 예.
#1 삼양이동에 속헤낫주게.
@1 으.
#1 게난 사삼사건 때 자꾸 그 뭣고, 그 사삼사건 그에 쪼꼼 이제 그 뭣고, 심어당 바당에 인제 그 뭣고.
@1 수장헤 버린 거.
#1 수장시켜 부니까.
@1 예.
#1 그게 인제 자꾸 인제 바닷가에 밀려오니까 그걸 인제 그 뭐허기 위헤서 인제 삼양삼동은 떼어분 거라, 저[쩌]쪽으로. 삼양삼동으로.
@1 예.
#1 구분헤 불언.
@1 게믄.
#1 게난 그런 게.
@1 으. 게믄 삼양은 일동은 저쪽에 이제 설개잖아에?
#1 설개.
@1 게난 설개를 서흘개렌도 골앗수과?
#1 서흘개.
@1 아니, 삼춘네가 골 때는 뭐렌 불런? 여기선?
#1 설개.
@1 설개.
#1 으.
@1 으, 설, 설개 이렇게 헷는데 어떤 사름들은 서흘개 이런 식으로 헷구나?
#1 으.
#2 으, 설개, 설개.
@1 설개. (생략) 게니까 이제 설개하고. 그다음에 가물개는, 가물개 헷다가?
#1 가물개 헷다가 감수동.
@1 예.
#1 또 그다음 인제 가물개도 인제 가물개, 두른들.
@1 두른들.
#1 거석동.
@1 예.
#1 두른들이 거석동.
#2 두른들, 웨 이 거석동은 웨 거 두른들이냐 허면은.

@1 예.
#2 옛날에 돌이 들러 잇는 돌이.
@1 들러진 돌이 잇엇구나?
#2 잇엇어.
#1 들른돌.
#2 들른돌이 잇엇어.
#1 그전에 멍돌이엔 헌 걸, 영 들럿주게.
#2 여기 삼양에 지금 요디 가면은 파출소 저 학교 올라가는 들른돌 잇어.
#1 옛날 어른덜 힘 자랑허는 거.
#2 아니, 거 말고 큰 들른돌이 잇엇어.
@1 들른돌예. 우리 듬돌이라고 하는 거를 이 동네서는 들른돌 이렇게.
#2 아니, 듬돌이 아니고 들른돌.
@1 들른돌.
#2 완전히 돌이 이만큼 허여.
#1 아, 그거는 옛날 저.
#2 그것이 들른돌.
#1 옛날 저 그 뭣고, 큰 돌들 이렇게.
#2 들른돌만 거기서. 다른 덴 엇고.
@1 예.
#1 그기 우리 그 벵뒤에, 벵뒤엔 헷주, 그전엔.
@1 예, 예.
#1 거기 한 일곱 개가 그런 돌이 잇엇주, 옛날. 이렇게 받쳥. 지금도 인제 그.
#2 잇어, 두어 개.
#1 그 뭣고. 보육원 엠에 그걸 이제 영 놔뒀주, 인제.
@1 예.
#2 들른돌이 잇어.
@1 고인돌 잇은 데지예?
#1 고인돌, 고인돌.
#2 고인돌이 들른들이라.
@1 웨냐하면 고인돌, 여기 삼양 고인돌 잇지 않우꽈? 거 지금 막 아파트 그 잇인.
#1, 2 응.
@1 그 동네가 들른돌이구나.
#2 아니, 그 옛날에. 여기서 간 거.
@1 여기서 간 거예.
#1 아니, 여기가 그 들른돌인데 그 밧테, 옛날 밧테덜 인제 그게.
#2 바로 여기에.
#1 잇어 놓니까[노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삼화지구로.
@1 옮긴 거구나.
#1 옮겨 분 거주게.
#2 아니, 아니. 그 자리 그대로.
#1 으.

@1 그 자리, 옛날엔 밧이엇잖아예? 거기가예.
#2 밧인디 그 자리.
#1 밧이엇주.
@1 아. 드른돌이 그.
#2 여기, 여기가 들른돌 여기 잇어낫주게.
@1 예.
#1 옛날 거기는 벵뒤밧이엔 허영 넓은 밧들이 잇엇주.
#2 집 잇는디, 집 잇는디 잇어낫는데 거 치와 불엇주.
@1 아, 그 들른돌이, 이제 풀렷수다. 그다음에 게믄 이, 이 가물개는 두 개로 나누는 거고예. 가물개하고 들른돌하고.
#1 으.
@1 설개는 몃 개로 뒈어 잇수과?
#1 설개.
#2 거기도 일동, 이동 잇지.
#1 설개는 인제 대개 인제 동카름, 서카름.
@1 아, 거기는 동카름 서카름하고.
#1 으.
@1 이제 버렁개는? 벌렁개는?
#1 삭으내, 버렁.
#2 버렁.
@1 으.
#1 벌랑동 이렇게 헷주. 또 우리 이제 이동도 뭐 저 물가름[물까름], 동카름. 알가름[알까름], 이런 먼머리 이런 식으로 그 구분헤영. 지금 같으면 통이주, 인제.
@1 예.
#2 통이주.
#1 이렇게 이렇게 허는데 그렇게 이제 첨 사람 구역 구역 누겐 어느 그 물가름에 살암서, 어느 사람은 동카름 살암서 이렇게.
@1 으.
#1 지금 같으면 행정구역이주게.
@1 예.
#1 그런 걸 알아먹기 쉽게 그렇게 살앗주게.
@1 게믄 물가름은 요기 물 나는 여기?
#1, 2 예.
@1 하는 거라예.
#1 게난 감수동.
@1 예.
#1 가물개는 달 감 자 썽 감수동이엔 헷주게.
@1 으.
#1 그, 그 후에 이제 감수동이엔 허연 첨, 거기 인제 물통도 이렇게 잇엇는데 지금은 수원지로 이제 바꽈져 불엇주.
@1 으.

#1 거.
#2 수원지 물이.
#1 물이 원체 이제 물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때 인제 수, 수원지를 인제 그 만들아 분 거라마씨.
@1 게믄 그 물 이름은 무신 거라낫수과?
#1 저, 가물개물, 가물개물 물가름, 어.
#2 가물개물이주.
@1 가물개물예?
#1 으.
#2 가물개물.
@1 예, 가물개물. 그리고 이 가물개는 바당에 모살도 거멍허지 안헙니까?
#2 거멍, 검은모래주.
@1 어. 검은모래.
#1 검은모래.

오름

@1 으.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예. 이 여기 오름은 하나 이수과?
#1 여기 오름은.
#2 우리 이동에는 엇어.
#1 여기가 지ᄉᆞ오름이엔 헌 거 하나 잇엇주게.
@1 예.
#2 이제 집덜 다 짓어 부난.
#1 이 지사오름허고 여기는 무슨 오름이꽈? 형님 사는 디.
#2 게메 여기도 저 ᄀᆞ뜬 일름이라. 지서오름.
#1 어, 지서오름.
@1 지서오름?
#1 으, 지서오름.
#2 견디 우리 다 치와 부니까.
#1 여기가 쪼꼼 노파낫주, 인제.
@1 아.
#1 이 지형이 노파낫어. 겐디 인제 집덜 짓다 보난 막 밀어둰. 이제 좀 어느 정도 노프지 안허게 만들앗주.
@1 게난 원당봉 말앙.
#1 우리.
@1 여기도 지사오름이렌 헷어예?
#1 초등학교 뎅길 때만 헤도, 여기 막 첨 노파.
#2 우리 집이가 노프는디. 이디가 완전히 모래사장이라낫주게. 여기.
@1 아.
#2 바닷물 올라오는 디.
@1 예, 예.
#2 여기도 마찬가지. 그 줄기.

@1 아.
#2 게 여기 바로 밑에.
#1 옛날에는.
#2 저 동카름이엔 헌 디가 그디 배도 올라와낫어, 옛날에.
@1 예.
#2 옛날에는.
@1 으.
#2 그 정도 배가 들어와낫주.
#1 옛날에는.
#2 물이 올라와서, 바닷물이 올라와서.
#1 모래가 첨 대개 보면 그 물 잇는 곁에는 모래가 잇어나지 안헷어게. 이 여기가 모래가 많이 잇엇주.
#2 막 많이 잇엇주.
@1 모래밧에, 그래서 지사오름 헷구나.
#1 경허연 요 밑에까지 배들 들어와서.
@1 모래땅, 모래땅이라는 거잖아예?
#2 으. 여기도 마찬가지주.
#1 경허연 선사 유적지가 그전에 모래를 이렇게 걷다 보니까 인제 유적들이 나완.
@1 아.
#1 겐 선사 유적질 인제 그 만든 거주게.
@1 예.
#1 지금도 인제 선사 유적지 인제. 게난 우리 삼양동이 물이 좋난[조난] 옛날부떠 아마도 옛날 조상들이 여기 살앗던 거라.
@1 예. 물 따랑예?
#1 어. 예.
#1 선사시대부떠.
#2 아니, 뭐냐하면은, 말 끝에 말인데, 우리 집에.
@1 예.
#2 에, 집을 짓언 옛날 어른덜 살앗는데. 에, 모살을 치완 보니까 밧, 밧 저 고지가 잇어.
@1 으.
#2 밧 갈아난 고지가 잇엇어.
@1 예, 예.
#2 야, 이거 옛날 살아낫구나 헌 디, 흔 밧듸 보니까 돌칼이 잇어, 돌칼.
@1 아.
#2 완전히 요만헌 거. 게서 방송국ᄁᆞ지 간에 서울ᄁᆞ지 갓는데. 어떵허쿠과 허난 나 그냥 내불켄 헨 내불엇는데. 거 잇어시민 좋은 건디 그냥 내불엇어, 엿날에는. (모두 웃음)
#1 그러다 보니까 인제 옛날 유적들이.
#2 야.
@1 예.
#1 돌칼, 뭐 돌망치 이런 게 나와가니까 인제. 이 저기가 선사유적지로 그 만들엇주게.
@1 예.

#1 그러다 보난 삼양동, 우리 이동 사람들은 집 하나 짓젠 헤도 상당히 불편헤.
@1 맞수다.
#2 건 완전.
#1 그 문화재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백 메다 이상은, 이하는.
@1 건축물이.
#1 으. 자꾸 땅을 인제 조사허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허여.
@1 예.
#1 여기 이.
@1 좋은 점도 잇어도예?
#1 이런 어른덜 때문에 문제는 살기가. (웃음)
#2 나가 우리 집 지을 적에 구획 정리헨 집을 지을 적에 흔 삼층 짓어불젠 헷어. 삼층을 못 짓언.
@1 예.
#2 저 도로변에서.
@1 오백 미터 안 뒈 부니까.
#2 아이, 이백 메다가 안 뒈 부니까.
@1 음.
#2 이백 메. 쪼꼼 모지렌에 이백 메다 안 뒈 부난 못 짓언.
@1 예.
#2 게 이층으로도. 차, 첨 골치 아파. 겐에 그때 기와로 헷거든. 스라브 짓젠 허난 안 뒈언.
@1 예.
#2 겐 이제 기와로 헷덴 말이라. 씰데엇인 돈 다 들엇어.
@1 에고, 게난예.
#2 허는 것이 원.
@1 게난 삼춘, 아까 여기가 다 모래 동산들이렌 헷잖아, 지사예.
#2 으.
@1 이 모래가 불령 와 갖고 만들어진 땅예, 그 땅은 뭐렌 헙니까?
#2 아니, 그 땅은 우리가 몰르지, 거 지서오름.
@1 그냥 지서오름이렌 헨예?
#2 지서오름허고 엉덕, 오름 이거 ᄀᆞ튼 줄기니까.
#1 엉덕.
#2 엉덕, 지서오름.
#1 엉덕도 첨엔 몰래.
@1 몰래엉덕예?
#1 몰래엉덕이엇주게.
@1 으.
#2 게 땅, 땅은 지서오름이주 뭐. 지서오름이 에, 모래가 온 거지.
@1 예, 게니까 예전에 원당봉 같은 그런 게 아니라.
#2 아니고.
@1 모래로 만들어진 오름이엇구나.
#2 어.

@1 아.
#2 나무도 잇고 다.
@1 나, 거기에 나무도 잇고예. 게난 지금 그 모래들은 다 어디 가신고예?
#2 전부 다 농장에 갓주게, 옛날에.
@1 아. 농장에.
#2 거 거름이 최고 좋아.
@1 아.
#1 아니 다 거둰 집도, 집 지을 때도 사용허고.
#2 아, 건 전부다.
@1 예.
#2 농장에 강.
#1 거 막 시, 시에 집 지을 때 그땐 육지서 모래 안 들어오난 제줏 모래로 대개 집 지엇주게.
@1 게난 여기는 검은모래니까 이제 다 쓸 수가 잇엇구나, 으.
#1 으.
#2 검은모랜데 바닷 거는 안 뒈, 세면도.
@1 으.
#2 이 모랜 뒈도 바닷가에는 안 뒈어.
#1 우리 삭으내 삼동.
@1 예.
#1 그 입구에 우리 저 중학교 뎅길 땐데 아까 거기 간 영 그 학교 갓다오단 영 보니까 몰래덜 이제 장난 이렇게 허다 보니까 이런 그 엿날 돌아가시면 그 항아리에 담앙 이제.
@1 예.
#1 모래 이제 묻은 게 잇어.
@1 예, 옹관, 옹관, 옹관묘.
#1 옹기에, 으 그런 걸 보이더라고.
@1 아.
#1 으, 그때.
@1 게난 이 삼양동이 옛날부떠 사람들이 아주 오래 전부떠 살앗다는 증거들이라예?
#1 으.
#2 오래 사니까 유적지가 나온 거지.
@1 예. 여기 우리 환해장성도 잇잖우꽈? 저기 삼동 가면.
#1 건 화북허고 삼양삼동허고 거 사이에.
@1 경계.
#2 경계.
#1 환해장성.
#2 경계.
@1 경계예.
#1 거는 첨, 왜적덜, 일본 사람덜이나 인제 첨 들어올 때 막기 위헤서 헌 거고.
@1 예, 게믄 그 환해장성에 대헤서는 여기서 불를 땐 뭐렌 불런마씨?
#2 우리는.

#1 여기서도.
#2 우리 이동엔 엇어나 부니까.
@1 아. 여긴 가물개 동네니까.
#2 여긴, 여긴 엇잖아게.
@1 예, 예, 예.
#1 환해장성.
@1 그러면 가물개에서는 나는 물이 하나, 가물개 하나?
#1, 2 하나.
@1 으, 설개는 또.
#2 설개도 물 나는데 설개물허고 우리 가물개물허고 차이가 잇엇어.
@1 으.
#1 그 동카름에 첨 물싼 때는 물이 좋고, 들어올 때는 그냥 바닷물이 같이 유입뒈 불어.
@1 거기는 바로 잇으니까예?
#1 으. 경 헹 물이 돈은 많이 들영 헷는데 쓰질 못허고 잇어.
@1 으.
#1 겨난 이제.
#2 물이 조금 짜.
#1 으.
@1 아, 여기 가물개도 짜마씨?
#2 아니.
@1 가물개는 단물 아니우꽈예?
#1 가물개는 진짜 단물이주게.
#2 물이 원체 쎄 놓니까 이 감수물은 너미 쎄어 놓니까 짠물 와도 아무 일 없어.
@1 으.
#1 우리 여기 감수동 물은 제주도에서 멧 째 안 가주게. 일 강정, 또.
@1 예.
#1 산지물 다음 삼양물이주게.
@1 아.
#1 으, 경헤도 인제 삼양물이 최고지 인제. 제주도 일대는 거즘.
#2 로타리 동쪽엔 전부 다 삼양물 안 먹은 사람 엇어낫어.
#1 일도이동까지 전부 먹엄시난, 삼양물.
#2 전부 다 먹엇주게.
@1 아, 여기 물이.
#2 예.
#1 그 전엔 건입동만 멕이단 이젠 전부.
#2 사라봉에 헌 것이 다 삼양, 삼양.
@1 여기 수원지 생긴 거는 언제 생긴 거마씨? 삼양 수원지?
#2 에.
#1 수원지 생긴 때 그때는 그 전두환 시절에.
@1 으.
#1 그때는 이제 거기서 뭐 하자 허민 그냥 헤야 뒈.

@1 예.
#1 그때 주민이 뭐옌 허민 그때는 첨.
#2 권한이 엇엇주게.
#1 대개 방(?)첩대나 그런 디 심어당 이제 조사헤 불민.
#2 권한이 엇엇주. 잘못허민덜 앞으로 나간 사름은 다.
#1 죄 아닌 죄를 이제 지어졋으니까 아예 말을 못헷주게.
#2 일로 와 헤 부니까, 으.

당

@1 우리 한 사람씩만 헤 줘예. 그다음에 여기 삼양동도 당이 잇어나수과?
#2 당 잇엇주.
@1 당 어디 잇어마씨?
#1 요 밑에 인제 그 동카름이엔 헌 그 당이 잇엇주. 동카름당.
@1 동카름당.
#1 그 당이 삼양동 사람들 거즘 왕 그 본향이엔 허주, 거기.
@1 본향예. 예.
#1 본향. 본향이엔 헹 거기 왕 제덜 드리주. 게 거기 왕 제 드리곡 그다음 바닷가에 강 인제 해신제.
@1 으.
#1 인제 집, 집안마다 인제 그렇게 이제 바깥에 나강 육지라도 간 자손이 잇으면 강 해신제 지냇주.
@1 해신제 지내는 데도 당이우꽈?
#1 당에 강 몬첨 지내.
@1 아, 본향에 몬첨 지낸 다음에.
#1 몬첨 지내낭 그다음.
@1 일반 바다에?
#1 어, 바다에 강, 바닷가에 강. 제주도는 일본드레 많이 갓잖아이.
@1 예, 예.
#1 일본, 일본 강 이제 첨 돈 보내오곡 이런 걸 하니까 일본에 식구도 잘 뒈게 헤 줍서 헤서 해신제 지냇주.
@1 아. 해신제를 이 동네는.
#1 으.
@1 게믄 그걸 해신제렌 골아예? 지금도 그 본향이 잇어마씨?
#1 어.
#2 하나 잇어,
@1 아, 하나 잇구나.
#2 여기 거 저기 웽겨간 거 잇어.
#1 그때는 컷주.
@1 아, 옮겨간? 어.
#2 으, 하나 잇어.
@1 어, 원래는 어디 잇어나수꽈?

#2 바로 요디.
#1 요 앞쪽에.
#2 이제는 집 다 지어 버렷어.
#1 으.
@1 으.
#1 그때는 이 당도 크게 헤영 그 뭐 폭낭덜.
@1 예.
#1 으, 폭낭이엔 허주, 제줏말로.
@1 예. 폭낭.
#1 그게 이제 흔 멧 그루 잇엉 당도 당, 상당히 거 신이 잇는 것처럼 모셔낫주, 인제.
@1 으.
#2 아, 우리 나는 안 뭐 헌디, 도련 멘촌, 타동에서도 왕, 이디 왕 제들 봣어.
#1 이 어른은.
@1 본향, 본향이니까예?
#1 으. 교회 믿어 부니까. (웃음).
#2 나만 안 갓주만은 다 완 도련 멘촌 전부 다.
@1 예게, 원래 우리 제주도가. 으.
#2 다 왔어.
#1 게, 마을제 지낼 때도 우선 본향에.
@1 예.
#1 그 당에 강 제 지냉 온 다음에 마을젤 지내주.

포제

@1 게난 마을제 하는 디는 포제허잖아예?
#1 포제.
@1 그 포제단은 어디 이수과?
#2 아, 우리 이 여기.
@1 아.
#1 원래 이 자리.
#2 이 자리. 이 자리.
#1 이 자리가 포젯자리인데 이젠 마을회관 지으니까 마을회관에서 허거든. 여기.
#2 하튼 여기, 여기.
@1 아, 그러면 지금도 포제, 마을제는 하잖아예?
#1 으, 마을제 허주.
@1 지금도. 지금도 그 마을제를 하는데 마을제는 게믄 언제 허는 거마씨? 그 마을제는?
#1 거 이제.
#2 거 음력으로.
#1 음력 멩질 지낭.
@1 예.
#2 일주일 잇당.
#1 게난 음력 멩질이 지나도 새철이 안 들면 못 헤낫어이.

@1 으.
#1 게난 새철 들엉 또 그 날짜 인제 정해일이나 날짤, 좋은 날 택헹 허주게. 경헹.
@1 해일에 헴수다예?
#1 으. 해일.
@1 해일.
#1 으, 대개 인제 그날이 정해일이나 또 정묘일이나 이런 날 택헹 허주게.
@1 음. 그러면 지금도 당에 또 본향젤 헤마씨?
#1 으.
#2 모르겟는디. 요새 젊은 사람덜 헴신가.
#1 그 가는 사람도 나이 먹은 분들은 가주게.
@1 예.
#2 겐디.
#1 젊은 사름이 이제 신경 안 써. 우리 집사람도 인젠 그 전엔 열심히 가단.
#2 안 가는 거 닮아.
#1 이젠 안 가, 안 가.
@1 아, 이젠 안 가고예?
#1 안 가.
#2 나 이거 공원인디, 공원에 저거 하나 잇는데.
@1 예.
#2 나가 영 가끔 영 강 봐도 안 뎅기는 거 닮아.
@1 음.
#1 거기 갈 땐 아침 새벽이 가니까 뭐, 가는 건 몰르는 거라게.
#2 아니, 그게 보믄 가나믄 알아지거든.
@1 물색.
#1 으.
#2 제물 놔난 거 알아져.
@1 예, 맞수다, 물색도 걸어지고.
#1 으.
#2 게난 강 보면은 아, 요샌 안 뎅겸구나. 나 헤져.
@1 어쨋든 이제 이 동네 아직 당이 잇고 포제단은 없어졋지만 마을에서 마을제 지내고 잇는 거라예?
#1 마을제.
#2 마을제 지내.

문화재

@1 예, 혹시 이 마을에 문화재렌 허면 아까 선사유적지 잇고. 또 어떻게 이 가물개에 문화재렌 허면 뭐가 이시코예?
#1 가물개 문화재는 아까 선사유적지 그다음 특별히 인제 나산 거 없어.
#2 그거 없어.
#1 이 수원지가 인제 문화 유적지가 뭘 건디.
@1 예.

#1 진짜 수원지는 이 ᄀᆞ물 때는 도련, 회천까지 왕 물 질어다 먹엇으니까.
@1 예, 그때 가물개헐 때예예?
#1 으. 최고의 어떤 첨 저 물이 이 생명줄이엇주게. 옛날에는.
@1 예.
#2 엿날엔 첨 제일 좋아낫주, 물이.
@1 게난 옛날에는 거기 다 돌, 담 닿아 갖고들 다 뒈난 건데 다 으, 이제 수원지로 만들아 버린 거구나.
#1 지금 여기 가면 초가집 잇주게? 요 밑에 가면.
@1 예, 예.
#1 거기가 이제 하나의 문화재로 인제 멘들앗주.
@1 예, 거기. 맞수다예.
#1 거기가 영 보민 그 지, 집에 원래 거기서 태어낫던 분덜이 그 박사들이 많이 나왓어.
@1 아.
#1 으, 강, 그 일본 가신 강재○이 형.
@1 강재○, 강재○.
#1 어, 재○. 그분도 다 국문학 박사 아니라? 일본어.
@1 예, 예, 예.
#1 박사고. 강재○이도 그 첨 육군사관학교 교수 헷고, 중앙대 교수 헷고.
@1 예.
#1 그렇게 헷.
@1 여동생도 잇잖아? 여동생?
#1 으?
#1 여동생도.
#2 여동생 잇엇어.
@1 강재○.
#1 여동생은 또 강재○이라고 또 미국 간.
#2 미국 간.
@1 예.
#1 그 전에 교환교수로 ᄒᆞᆫ 번 와낫어.
@1 맞습니다. 저도 만난.
#2 우리 동창인디.
#1 나도 그 분 밑에서 공부도 쪼꼼 헷는디.
@1 아.
#1 야튼 남자같이.
@1 예, 저도 만나봔마씨. 그 강재○ 교수님.
#1 으. 그 분이.
#2 완전 남제 성격이라. (웃음)
@1 예. 여군 출신.
#1 게난 군인, 군인도. 그때.
@1 여군 출신?
#2 어, 맞아.

#1 영관급으로 제대헷주게.
@1 예.
#1 상당히 머리들이 좋아, 그 집안이.
@1 아, 저디가 강재○ 교수님네 그 집안이구나예?
#2 집, 원래.
@1 그 집. 아 이제 강재○ 교수님도 돌아가셔 갖고 이제.
#1 으.
@1 일본에서예?
#2 하이튼.
#1 으. 그 집안이 상당히 알아줫주.
@1 아, 기구나. 예, 예.
#2 강댁이 왕왕 헷주게.
#1 으.
@1 우리 요 동네 출신, 강요○ 선생.
#1 요○, 으.
@1 그림 그리는예? 다 그, 그쪽들 그 집안.
#1 같은 권당들이주이.
@1 권당덜예?
#1 권당 지금.
#2 다 ᄀᆞ뜬 권당.
@1 으.
#2 요○.
#1 요○, 거○.
@1 예. 거○ 선생님도 돌아가시고.
#2 거○ 불쌍허게 죽어 불고.
#1 거○는 서강대 교수 헷고.
@1 예.
#1 겐디 너무 고집스러와. 고집 펴.
@1 예.
#1 아, 거, 대학 교수나 뒈민 담배도 쫌 권찮은 담배 먹어얄 건디 그 뭣고, 봉초 닮은 담배.
@1 예, 예.
#1 옛날 담배, 그런 담배로 피우곡.
@1 강거○, 강거○ 선생님?
#1 어, 또 강거○ 선.
#2 게난.
#1 상당히 소박허게 살앗어.
#2 말 끝에 말인디예, 아버지가 놈 앞이 ᄒᆞ꼼도 궂은 얘길 안 들을 사름이라.
@1 으.
#2 아부지가.
@1 예.

#2 게서 어머니는, 그 요○ 어머니는 농, 농장에 갈 때도.
@1 예.
#2 똑 몸빼 입고 치마, 하양한 치마를 입곡 농장엘 갓어.
@1 예.
#2 집안들이 참 거. 견디 큰똘이고, 셋똘이고, 족은똘이고 영 헹 허는 거 보면은 똑 어멍 성질이라.
@1 아. 그 어머니도 제가 한 번 뵈엇수다. 그 강요○ 선생님이 전시할 때 오셧거든예.
#2 아, 건데 하튼 원래 첨.
@1 아, 기구나게. 이제 저 귀덕 강 살아 불엄신디.
#1 죽엇젠 허난.
#2 이 동네 삼양에.
@1 아니우다. 강요○ 선생님은.
#1 게메 죽엇젠.
#2 아니, 아니. 죽지 안헹 살앗어.
@1 강거○ 선생님만 돌아가시고.
#1 거○는.
#2 그 아시 살안.
#1 멧 년 안 살안.
@1 그림 열심히 그렴수다게. 으.
#1 요○가 쪼꼼 그림 그려도 그 엿날 그 사삼에 대한 걸 많이 헤 부니까.
@1 예, 으.
#1 쫌.
@1 마을에서는.
#1 빛[삧]을, 빛을 빨리 못 본 거라이.
@1 게도 그 이후에 자연 헤 갖고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화가, 이제.
#1 으.
@1 예.
#1 게난.
#2 지금 애월에 살암서?
@1 귀덕.
#2 귀덕?
@1 예, 귀덕에 크게 작업실 지엉예?
#2 어, 귀덕 일, 이리가 잇는데 어디?
@1 일, 이리쯤 될 거 같애.
#2 이리?
@1 바다 동네 말고예, 산 동네.
#2 우에.
@1 예.
#2 어.
@1 거기 살암수다. 안 죽엇수다. (웃음). 자, 그 다음에 삼춘, 계속 그 여기서만 살안, 삼춘은?

#2 아니.
#1 아니, 나도 육지도 간 살단 왓주게, 한.
@1 멧 년이나 삽디가? 육지 강은에.
#1 육지 강 훈 십 년 살단 오란.
@1 어.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계속 어떤 일들을 헨 거라?
#2 농사지엇주.
@1 농사예, 예.
#1 농사.
@1 예, 알앗수다. 그 집에 혹시 옛날 결혼헐 때 사진들 잇지예? 지난번도 골앗주만은.
#1 으, 이실 거라.
@1 예. 다음에 올 때 한 번 그거 우리 저 옛날 결혼사진 찍은 거.
#2 난 옛날 엇어.
@1 삼춘은 엇고?
#2 으.
#1 삼춘은 그거 찾아 봅서예.
#1 으. 난, 난.
@1 혹시 그런 거, 결혼헐 때 말고, 이 마을에 마을제 헐 때.
#2 여기 많이 잇어.
@1 마을제 헐 때 찍어논 사진들도 잇지예?
#1 으.
@1 나중에 게민 삼춘, 앨범 우리 한 번 봐야커라.
#2 여기 거, 마을에 거 춪아내면 뒈겟다.
#1 으. 여기 마을회관 거 나가. 이 동네서, 이 동네서 야튼 첨 청년회, 또 영농회, 마을회.
@1 마을 일도 하영 봣구나게.
#1 노인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
@1 예.
#1 마을제 헐 때는 한 거즘 나 한 삼십 년을 나가 인제 집행헤낫주게.
@1 아.
#1 뭐 초헌관 집례 이런 거. 나가 집례를 계속 그 집례는 그 제관을 모든 걸 관장허는 거 주게.
@1 예.
#1 그걸 헷주, 나가 영.
@1 총감독. 음.
#1 으. 그걸 한 거즘 한 삼십 년 뒈어.
@1 예, 마을제 조사는 딱이구나, 우리 삼춘예.
#2 딱, 나는 거는 거는. 나 안 골앗어? 나는 모른다.
@1 예.
#2 나는 예수 믿어 부난 모른다.
@1 삼춘은 태생부터 예수. (웃음).
#2 난 모른다.
@1 예수님만 믿고. 삼춘은 당에도 가고. 우리 여자 삼춘도 잘 알겟구나.

#1 우리는 옛날 구한문 쪼꼼 그 익어 놓난 이 그 옛날 풍습을 많이 인제 습득허젠 헤지주게.

일월

@1 예. 알앗수다. 이제부터는예,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조사헐 거 하는 거. 일월부터 십이월까지 이 동네서 일어난 세시예, 옛날 아까 양력도 굴앗주만은 우리 음력으로도 하는 것들이 이제 잇잖아예? 헤서 그런 거를 들어볼 거라예. 일월에 허는 저기 세시풍속이렌 허면 어떤 거 잇인고마씨?

#1 마을제?

정월 멩질

@1 예. 마을제도 잇고 맨 처음에는 정월 멩질.

#1 으. 정월 멩질 다음 마을제.

@1 예, 우리 정월 멩질은 헐 때 어떤 식으로 지냇수과? 정월 멩질헐 때 한 번 굴아줘 봅서. 정월 멩질.

#1 그 옛날에는 멩질 쉐면은 집집마다 돌아뎅이멍 세벨 헷주게.

@1 예.

#1 그래서 상당히 옛날에는 그 그게 하나의 그 미풍양속으로.

@1 음.

#1 그래도 인제 일 년에 흔 번이라도 웃어른 찾, 찾아뵌다는 그런 생각에서 인제 그 첨 어린 사람으로 나이 첨 어려도 다 돌아뎅겻주게. 식구덜 다 데령 이렇게 집집마다 강 세배허곡 이렇게 헷는데. 이 최근에는 이제 많이 엇어젼 마을회관에서 인제 그 세밸허주. 이제 영 보민 그 웃어른덜 오십센 헤연 청년들이 이제 세배허곡. 막 그런 것이 이제 최근에는.

@1 게난 요즘도 세배는 헴구나, 여기서는예.

#2 다 거.

#1 으, 신년하례식이라고.

@1 예.

#1 신년하례식.

@1 게믄 신년하례식은 양력 일월 일일 헴수과? 아니면 음력?

#2 아니, 음력으로.

#1 음력, 음력.

@1 아, 멩질날 게믄 언제? 신년하례식은 언제?

#2 멩질 넘엉 토요일날.

@1 아.

#2 일요일날. 일요일날, 멩질 넘엉.

#1 초, 초이틀날, 초사흘날 헷당 초이틀날 땡경 경헷주.

@1 아, 멩질 넘엉 일요일날?

#2 뭘 수 잇으면 일요일인디.

#1 아니, 일요일날 아니.

@1 안 헤도 초이틀?

#1 초이틀날.
@1 아, 초이틀날예?
#2 난이 나가 살앙 헤 보난 일요일날벳기 아니더라.
#1 이 어른은 교회 믿어 부난.
#2 나가 예배 봉 와근에 밥 혼 직 얻어먹는디.
@1 예.
#1 일요일날 허민 저 형님넨 못 와.
#2 난 못 온단 말이여게.
@1 아.
#1 일요일날 안 허여.
#2 그건 날 내미려서, 동네에서.
#1 초이틀날.
@1 게니까 예수 믿어 부니까. (웃음).
#2 예수 믿어 좋아.

차례상

@1 게난 정월 멩질헐 때 허면은 그 제 지내는 과정예, 게난 정월 멩질 출리젠 허민 전날부터 출려야 뒐 거 아니라예?
#2 그렇지.
@1 그 말씀을 골아줘 봅서.
#2 골아줘.
@1 예.
#2 자네 다 아니까.
#1 지금이야 인제 영 보민 송편허곡 막 이렇게 허잖아이.
@1 예.
#1 그 전엔 살기 어려워 놓난 그런 게 못 헷주. 묵 쑤엉.
@1 예.
#1 뭐 청묵 ᄀᆞ튼 거 쑤곡 적갈허곡 경 헹 제 지냇주, 영 보민. 뭐 떡도 인제 우리 어릴 때는 떡도 못 허고, 최근엔 이제 떡덜토 많이 허곡 영 첨 거나허게 상덜 출리잖아이. 인젠 그 그전에는 그런 게 엇엇어. 우리 ᄒᆞ꼼이라도 얻어먹젠들. 그때는 배고프니까 첨 멩질날 막 기다리주게.
@1 예.
#1 첨 고운 옷 입곡 첨 멩질 때라도 인제 첨 배불게 먹어 보젠들. 그런 생활을 많이 헷주.
@1 게난 삼춘네는 멩질허면 정월 초ᄒᆞ루 음력으로 헤수과, 양력으로 헤수과?
#1 음. 음력으로 헨.
#2 음력으로 헨.
@1 음력으로예. 으, 음력으로 허당 나중에 양력 돌앗당 지금은 또 음력?
#1 중간에 첨 양력으로 돌앗당. 게 그게 인제 송화수(?) 멩질이렌 헤영 쪼곰 양력으로 인제 게 일본 그 풍습을 따라야 뒌덴 헹 그걸 인제 막 다 권장헤낫주게.
@1 예.
#1 또 허다 보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 때도 인제 그렇게 권장헷어. 권장헌디 아무래도 인제

그 풍습은, 풍습은 옛 풍습이 좋덴 헤연 음력으로 돌렷주, 인제 영 보민.
@1 예.
#1 그 절기가 어느 정도 맞이니까, 경헨 우리.
#2 음력으론 절기는 안 맞아. 양력으로 맞주.
@1 게난 어쨌든 간에 음력 멩질 허면 이 삼양에는 먹을 게 그렇게 많지 않앗엇다라는 거네예.
#1 으.
@1 옛날에 떡을 안 헷으니까예?
#1 그렇주.
@1 떡국 같은 것도 안 헤마씨? 멩질날에?
#1 떡국.
#2 옛날엔 떡국이 엇엇수다게. 이 어른들아. (웃음)
@1 아니, 모물쿡시헤 갖고. 새벽에.
#2 모물쿡수도 못 먹을 때, 보리밥도 못 먹을 땐디 어디 모물쿡수가 잇어, 첨.
@1 삼춘네는 못 먹엇구나.
#1 첨 모물로 그.
#2 어이, 없엇어. 우리 클 때.
#1 청묵이엔 헌 거 헤낫주, 청묵.
@1 예.
#1 청묵허고.
#2 것이 최고. 부제칩이라야.
@1 으.
#1 첨 적고지로 영 영 만들엉도 허곡 경헷주게. 그전에는 야튼 그 청묵에는 모물로 인제 만든 저 청묵이엔 헌 걸 필, 필수적으로 많이 헤낫어.
@1 예, 올리는 거는예. 으.
#1 거 하나의 그 정성이주. 이 첨 집안에 이제 그런 제법은 정성을 들여야.
@1 게믄 상에, 상에.
#1 그 첨 복 받는다고.

상차림

@1 음, 정성예. 상차림헐 때는 게믄 어떤 식으로 상을 차린 거라마씨? 거기에?
#1 상 차릴 때는 게난 이제 반대로.
@1 으.
#1 게난 떡 이제 그 첫 번에는 앞줄에는 인제 사과. 이, 이 신을 모신.
@1 이게, 여기가 신위를 이렇게 모셧어예.
#1 으.
@1 이렇게 모시면, 여기는 뭐 놔? 삼춘네 집안에?
#1 아, 여기는 인제 떡.
@1 여기가 떡예, 삼춘네예?
#1 으.
@1 예, 예.

#1 그다음 여기는, 에.
#2 과일 뭴 거.
#1 묵.
@1 여기가 묵.
#1 묵. 그다음은 이 육고기. 음. 육. 그다음은 해어.
@1 예. 해어.
#1 으.
@1 그다음에.
#1 아, 그다음은 여기는 고사리.
@1 여기는 고사리.
#1 으.
@1 예.
#1 그다음은 콩ᄂᆞ물 채소.
@1 예.
#1 그다음은 여기는 인제 잡채나.
@1 예.
#1 에, 그다음은 여기, 여기 헹 삼 곳 헹 올리주게.
@1 삼 곳마씨?
#1 음. 세 가지.
@1 세 가지. 으.
#1 으, 그 외 여기도 무슨 채소 같은, 엿날엔 나물채.
@1 예.
#1 무수 이렇게 헤서 거 삶아서 인제 채소를 영 올렷주게.
@1 예.
#1 으.
@1 고사리 올리고예?
#1 으.
@1 거난 그 채소는 세 가지 올련마씨?
#1 으, 지금 세 가질, 세 가질 허주.
@1 예.
#1 대개 네 가지도 허는데 세 가지.
@1 아, 게난 옛날에는 고사리, 콩나물, 무수채 이렇게 올리고.
#1 그다음은.
@1 요즘은 잡채하고. 그다음.
#1 과일 이렇게 헹.
@1 과일은 멧 가지 올렷수과?
#1 과일은 세 가지.
@1 게믄 어디에 과일 놉니까?
#1 세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헷주게.
@1 예.
#1 게민 동쪽으론.

@1 예.
#1 뭐 빨간 과일. 그다음은.
@1 음, 사과 깉은 거예?
#1 으. 사과 같은 거. 그다음은 어, 이렇게 보면은. 에, 사과, 귤.
@1 예.
#1 귤, 그다음은 배.
@1 예.
#1 게믄 삼 곳 둼, 그 외 더 올리게 둼면 요새는 바나나.
@1 예.
#1 그다음은.
@1 바나나는 어디에 올려마씨?
#1 요쪽에.
@1 아, 바나나예.
#1 여기 또 뭣 잇으면 수박도 올리곡 또 벨 그런 거지.
@1 혹시 이 상차림에 안 올리는 해어나 고기나 뭐 채소나 이런 것도 이수과?
#1 옛날에는 그런 거 잇주. 이 비늘 없는 고기는.
@1 예.
#2 안 써.
#1 안 쓴다 헤영. 게난 고등어, 갈치.
@1 으.
#1 잘 안 썻주. 겐디 최근에는 갈치도 올리더라고이.
@1 예.
#1 그 비늘 영 거실려 둥. 갈치.
#2 비늘이 엇주게, 갈치는. 하튼 돔 종류. 돔.
#1 고등어 같은 거는 안 올렷어.
@1 삼춘, 여기허면 떡, 묵, 육고기, 해어 헷잖아예. 밥, 국은 안 올려마씨? 겡허곡 밥.
#1 아, 밥은 여기.
#2 올려, 올려.
#1 그 겡은 웬겡이엔 허여.
@1 웬겡, 예.
#1 으, 웬겡은 이 신을 모실 때는 웬겡, 그 살아 잇을 때는 우리 츨린 대로 그.
@1 오른쪽 국허고.
#1 아, 밥, 저 밥, 겡 이렇게 저 국을 허잖아이.
@1 예.
#1 엿날에는 메, 겡이엔 헷주.
@1 메, 겡.
#1 게난 그런 거, 메옌 허는 거라.
@1 예.
#1 게난 밥도 메옌 허주게.
@1 예.
#1 음, 메옌 허곡 또 국은 겡이엔 허는 거라. 음.

@1 예. 게믄 삼춘에, 신위가 우리가 살아 잇을 때하고 돌아가셧을 때 이렇게 앉을 때, 앉는 장소는 똑같은 거 아니우꽈? 우리 이 맞은 편이니까. 바라볼 때.
#1 아, 게난 그렇게 뒈민 이제 남자 여기 이렇게 뒈민 여자는 또 여자가 웬쪽에 앚.
@1 집에 촐릴 때 어떵 촐려마씨?
#1 음.
#2 집이 허는 거로만 헤 불어.
@1 예.
#1 으.
#2 다른 거 신경 쓸 거 엇이, 집이 허는 대로.
#1 남자 위주주. 남자가 이렇게 인제 오른쪽에 앉이민 여자 웬쪽에 이렇게.
#2 거, 집안마다 틀리는가?
@1 예.
#2 아니라.
#1 으, 거즘 같아.
#2 제물은 똑ᄀᆞ타.
@1 예. 그렇게 하게 뒈면 그 수, 숟갈 같은 거 놓는 것도 또 다르드라고예, 다른 데 가면?
#1 게난 숟갈.
@1 이렇게 놉니까, 이렇게 놉니까? 국, 밥헐 때. 아니면 영 꽂앙 헙니까?
#1 아니.
@1 예.
#1 게난 숟갈도.
@1 예.
#1 나가 저 하도 쪽에 가 보니까 숟갈을 이렇게 모영 놓더라고.
@1 예.
#1 겐디 우리 삼양 쪽에는 대개 숟갈을 그.
@1 가로, 가로.
#1 가로 놓주게, 영.
@1 게믄 밥, 국 앞에 놉니까?
#1 으, 앞에.
@1 여기, 여기?
#1 으, 여기 놓는 사람 잇곡 요기 놓는 사람 잇더라고.
@1 근디 삼춘넨 어디 놔?
#1 우리는 이 앞에 놓주기.
@1 앞에, 이, 이쪽으로.
#1 으.
@1 밥, 국 앞에 이렇게예?
#1 으.
@1 이, 이렇게 놓는 거예. 아아, 게믄 여기에서.
#1 숟가락이엔 안 허영 수저옌 허주게.
@1 수저예?
#1 으, 수저.

@1 어른들은 멩, 저 메, 밥, 수저예?
#1 으.
@1 수저허게 뒈민 젓가락도 같이?
#1 음.
@1 예. 게믄 여기에서 밥은 어느 거우꽈?
#1 밥은 게믄 우리는 앉앙 먹을 때는.
@1 예.
#1 밥허민 여기 겡 놓잖아.
@1 예.
#1 신을 모실 때는 여기가 밥허고 여기 겡.
@1 아아.
#1 웬겡이엔 허영 웬쪽에는.
#2 거꾸로, 반대로, 반대로.
@1 메, 여기는 겡 뒐 거예?
#2 반대.
#1 게난 신이 그 야튼 우리 이렇게 보면은 대개 거 웬, 웬겡, 반대, 이 살아 잇는 사람 먹는 거허고 모든 게 반대로 거 모시는 거라. 영 보니까 반대로.
@1 겐디 건 무사 경 헴신고예?
#1 어?
@1 무산고?
#1 그 돌아가시면 모든 게 인제 이치가.
@1 거꾸로 돌아.
#1 으, 달라진다는 거주게.
@1 아. 요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그 상차림은, 상차림은 정월 멩질이나 팔월 멩질이나 식게나 똑같아마씨?
#1 그렇주.
#2 제물 차리는 건 똑같으지.
@1 그래도 그 정월 멩질날 그 음식이라고 대표 음식이렌 허믄 아까 그 청묵?
#1 청묵.
@1 예.
#1 또 지금 와서는 떡국.
@1 아, 지금은 떡국허는데 옛날에는 허고. 그 멩질 전에 새벡국이라고 허는 이런 거는 엇우과, 여기는?
#1 새벡국?
@1 예.
#1 새벡국?
@1 예.
#2 집안엔 안 헤실 거라.
#1 으.
#2 나가, 나가 보기론.
#1 게난 그전에는 감주옌 헌 거.

@1 예.
#1 반드시 헷주, 감주.
@1 감주예?
#1 그니까 술.
#2 술 대신.
@1 술은 어디를 놓는 거?
#2 술이 아니고 감주랏주.
#1 술은 인제 요쪽에 놓주게, 요쪽에 놩.
@1 예.
#2 엿날엔 감주랏주.
#1 요쪽에 그 자그만헌 상 인제 그, 것보고 무슨 상이엔 다 잊어불엇저. 상로영 그 이렇게 놩 그 삼굿을 허주, 영 보민 대개. 영.
@1 예.
#1 엿날 지금도 삼굿을 대개 쓰는디. 게민 그 소주.
@1 예.
#1 또 막걸리 쓰나.
@1 감주.
#1 막걸리 또 저 뭣고, 아까 말헌.
@1 감주.
#1 감주.
#2 감주는 엿날이고.
#1 으.
#2 요새는 엿날 감주 못 만들 때 막걸리덜 요새들 술이엥 놈지.
@1 예.
#1 게난 요새는 음료수덜 놓주, 음료수.
@1 음료수예?
#2 으, 옛날은 옛날에는.
#1 옛날은 감주를 이주로 헷주게, 상당히 멩심헤영.
#2 감주. 감주는 보통 정신이 아니거든.
#1 이게 정성들영 헤야 좀 복 받넨 헹 감주를 참 멩심헤영 헷어. 꼭 감주를 헷주.

떡

@1 예. 게난 이제 정월 음식이 감주 뒈는 거고. 떡은 어떤 떡 올려수과?
#1 떡은 이제 송편.
@1 예.
#1 침떡허고 송편허고 둘.
#2 시리떡, 시리떡, 시리떡.
@1 시리떡.
#1 또 영 보민 에, 그 반달.
@1 예.
#1 것, 것보고.

@1 솔벤.
#1 음, 그런 떡도 허는 집안도 많아, 영 보민.
@1 예.
#1 으.
#2 집안이 다 틀려요.
@1 삼춘네 집인?
#2 겐.
#1 우린 인제 그런 것 안 헤여.
#2 게난 여기 허는 대로만.
#1 침떡허고 송편.
#2 허라. 다 틀려 집안이.
#1 요새 이제 메누리 저 우리 아덜덜한테 허렌 헹 놔두난 인젠 아예 사당덜 헤 불어. (웃음).
@1 예.
#2 다 사당헤여.
@1 사당헤여예, 맞아. 옛날에는 다 집에서 침떡허고, 송편허고.
#1 으, 하나의 그 정성이, 정성이 담긴 음식덜을 만들엇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엇어. 뭐 바쁘다는 핑계로 인제 다 사당 헤 불주게.
@1 예.
#1 으, 게난 거 뭐 잔소리도 허기 실프고.
@1 맞습니다.
#1 거 잘헴저.
#2 아니, 요새는이.
@1 착허덴만 굴아야 뒈어.
#2 거 착허덴 헤야주이. (웃음)
@1 게난 삼춘네 여기서는 송편은 어떤 식으로 송편 만들어마씨? 삼춘네는?
#1 송편?
@1 예.
#1 송편 만들 때야 그, 그냥 쌀가루 헤당.
#2 하튼 떡방에 강은에 굴아당.
#1 경헨 인제 그 뭣고, 술메는 픗 놩 허주만은.
#2 집에서 만들어 놩 놔.
#1 경허여. 경허주.
@1 순메는 픗 놓고예?
#1 으.
#2 요새는, 요새는 전부 사당 허는 때문.
@1 게믄 침떡 올리는 거는 설기떡. 침떡 올리는 것도 쉬 헙니까? 순메 놩?
#1 으. (생략) 술메로 허주, 인제.
@1 예.
#1 그전엔 그 감자로도 허곡.
@1 아, 감자로도 순메허영예?

#1 으. 감자 술메들토. 그때는 풋도 귀헷잖아이.

@1 예.

#1 게난 다 인제 풍부헤 가난 막 좋은 음식들을 더 만들주만은 그 대신 정성은 엇어져 불어. 그자 사당덜 헤 불곡.

#2 요새 보통 사당.

@1 음.

#1 경허니까 아주 간소히 허는, 막 인젠 그런 건 인제 출린덴 헤도 뭐 그저 그렇주, 영 보민이.

@1 예, 예.

#1 지금.

옷 준비

@1 그다음 옛날에 이제 그 멩질 때 허젠 허면 옷들을 준비헷잖아예?

#1 으.

@1 겡은에 꼭 그 설빔헤 갖고 옷.

#1 옷도 인제 두루마기덜 입엉.

@1 예.

#1 응, 두루마기 그 첨, 제, 젯복이엔 허주, 엿날부턴이.

@1 제복, 예.

#1 겐디 두루마기옌 헹 두루마길 꼭 입엇어.

@1 예.

#1 그 두루마기 입곡 헤영 제 지내주, 영 보민. 그 유건 쓰는 디도 잇고 유건 안 쓰는 디 잇고. 대개 유건을 안 썻주. 여기는.

@1 여기 삼양은예?

#1 우리 제주 사람덜은.

@1 예.

#1 큰, 인제 마을제 헐 때는 유건들 썽 허주만은. 이 육지 사람들은 반드시 유건 썽 허주게. 충청도 같은 데. 우리 제주도는 아주 개방됴서 그러는지 유건은 쓰질 안헤여.

@1 저 남쪽 가믄 유건 썽 헙니다.

#1 경헐 거라.

@1 이제, 이제도예?

#1 으, 맞아.

#2 집안이 다 틀리니까. 집안들이.

#1 그 하도나 저 표선 가민 유건 쓰는 데가 많아, 영 보민.

@1 예.

#1 으.

@1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예전에 그 삼춘 어렷을 때 멩질 됴믄 어떤 옷을 헤줍디가? 아이들도 꼭 새 옷 이렇게 만들어 주든지 뽈아 주든지.

#1 아고, 그때는 옷 뽈아 입으민, 입단 거, 뽈앙만 입어도 상당히 감지덕분이주게.

#2 (웃음).

#1 그때는 옷이 멧 가지가 잇어시냐게.

#2 (웃음)
#1 그자. (웃음)
@1 예.
#1 학교 갈 때도 이 동산, 이 동산 올라강 내려가젠 허민 추웡.
@1 예, 바닷바람.
#1 우리 초등학굔 저기 잇고 인제 내려가젠 허민 그땐 눈도 많이 오곡 헐 때난이.
#2 이제 양쪽에다가 나무가 헤 놓니까. 엄청 추웟어.
#1 멧 번 여기 왕 저 ᄇᆞ름 피헹 잇당.
@1 예.
#1 다시 또 그 내려갓주, 인제. 내려갓는 디도 막 그냥 그때는 추웡덜. 뭐 양말도 그렇게 막 지금ᄀᆞ치.
#2 양말이 어디 셔게, 맨발이주.
#1 양말도 그냥 그 보선 비슷허게덜 허영 신곡. 첨 그때는 어려왓주, 어려왓어, 우리가.
#2 우리는 초신 신언 뎅겨낫어.
#1 사삼사건 끝난덜 인제.
#2 초신, 남신.
#1 학교덜 뎅겨 놓니까.
#2 남신 알아지크라?
@1 예, 예게. 나무로 멘든 신.
#1 첨 어려웟주.
#2 초신 신엉. 아이구. ᄒᆞ루 갓당 오민 뒈쌍 신곡. 아이구, 아이구.
@1 게난 그때 생각하고 지금 생각허민 진짜 천지가 개벽헌 거라예?
#2 천국에 살암주게.
@1 천국에예?
#1 그렇주, 지금은 임금, 임금들 부럽지 않은 생활덜 허는 거라.
#2 천국에 살암주.
#1 저 엿날 임금들 이렇게.
@1 못살앗주.
#2 못살앗주게.
#1 못살앗주게. 첨 다 임금들이라.
(모두 웃음)
@1 게, 그런 생각헤집니까? 이렇게 밤에 누우면 옛날 생각도 막 날 거 닮아예?
#1 어, 우리야 그.
#2 생각나.
#1 난 인제 꿈에도 엿날 그 돌아뎅겻던 걸 자꾸 시꿉덴 허주게.
@1 예. 시꾸왕예?
#1 이 머리에 그 영감이 떠올르는 거라.
@1 예.
#1 경헹 삼양삼동 갓다 오는 것도 막 물 지쳐 부니까 막 그 물 피헹 뎅겨낫주게.
@1 예.
#1 뎅겨난 걸 아, 그걸 떠올라 이상허게 그 막 어륩게 산 거를 막 생각날 때가 잇어.

#2 생각 나, 생각이 나.
#1 어, 거 첨. 희안헌 거라, 사람 살다 보믄. 음.

정월 대보름

@1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정월에는 정월 대보름도 헤수과, 여기?
#1 어.
@1 정월 대보름에는 뭐 헙니까? 보통?
#1 대보름도 그 전에는 첨 헷주, 인제 영 보민 첨 거 막 출리진 안허고 그냥 출령덜 먹곡. 대보름엔 떡을 위주로 헷주, 영 보민.
@1 보름떡.
#1 으, 보름떡.
@1 그 떡헷던 거 쫌 골아 줍서. 어떤 식으로 떡을 헌 건지, 그.
#1 보름떡이렌 엿날엔 동그랗게도 허영 송편 안 헹.
@1 예.
#1 그런 떡을 허곡. 그 우린 잘 못살아 부난 그런 건 막 아녓주, 견디 잘사는 집덜은 경 헷어.
#2 보름떡 허는 집안이 삼양이동에 알다시피 멧 집 엇엇어.
@1 예.
#2 나 알다시피.
@1 으, 으.
#2 나보다 쫌 많이 우리 아버지네 어머니네보다 사는 집이 멧 집이 엇어낫어.

사주 보기

@1 음. 게난 이런 보름에 쏠들 모앙 떡헹은에 점 치곡 헷덴 이런 말덜도 잇엉, 잇언게만은.
#2 우리 중에는.
#1 어, 이제 그 보름엔 이제 그 엿날 청남결(?)이엔 헌 게 잇주게. 청남결 보레 가곡. 청남결이엔 헌 건 요새 그 뭣고, 책에 인제 영 헹.
@1 책력 보는 거?
#1 어, 책력 보는 거.
@1 예.
#1 게민 자기 인제 연, 난 날 놓곡 시간 놓곡 헹 그걸 보주게.
@1 으.
#1 사주펜론허는 거주, 영 보믄.
@1 예.
#1 사주 보는 거주.
#2 게, 일 년 살아올 걸 보는 거주.
#1 으.
@1 건 누게헌티 강 봅니까?
#1 그디 책 잇는 집에 강.
@1 아.
#1 으, 아무나 그걸 못 헷다고, 경허연.

#2 날짜, 날짜 봐 주곡 책 보는 디 가야 그런 걸 보는 거주게.
@1 경허난. 정시.
#1 어, 것도 책 잇는 집이 강, 응, 것도 인제 돈 ᄒᆞ꼼 줘 헷다고.
#2 ᄒᆞ꼼 주곡.
@1 어. 경헹은에 이제.
#1 으.
@1 게믄 그거 정월 보름에?
#1 으.

점치기

@1 음. 그걸 뭐 본덴 헤마씨? 아까.
#1 정월 보름 뒈민 우리 그 또 뭘 보는고 허민 그 대죽.
@1 예.
#1 대죽 허민 알 건가.
@1 예, 대죽.
#1 대죽낭 끝에 거 영 헹 보민 그 속이 쪼금 비주게이.
@1 예.
#1 그걸 긁어. 긁엉 인제 거기에다 인제 콩을 열두 개 놓는 거라.
@1 열두 개. 예.
#1 으, 게민 콩이, 경 헹 물에 담그는 거라, 물항에.
@1 예.
#1 담강 놔두민, 꺼내 보민 그 첫 번째 콩, 두 번째 콩 헹 일월달은 비 많이 올 거여.
@1 아.
#1 이월달은 비 안 올 거여. 이게 콩이 인제 무은 걸로 봥.
@1 예.
#1 경허는 거라.
@1 아.
#1 아, 지금은 뭐 박사들이 많으니까 다 뭐 허주만은. 그때는.
#2 엇어.
@1 아, 그, 그 점은 무슨 점이렌 헤마씨?
#1 점이엥 아녀는 거, 그거는.
@1 뭐렌 헤수과, 그 이름?
#1 농사짓는 사람덜, 그 저 뭐곡, 일월달은 비 안 온다, 이월, 이월달은 비가 많다, 이런 걸 헤영 농사지을 때도 쪼꼼 참고, 참골허주게.
@1 예.
#1 게민 그 농사도 그 비 많이 올 때는 무슨 농사가 좋다.
@1 예.
#1 또 그 그런 걸 인제 미릿 또 대빌 허주게, 영 보민이.
@1 예.
#1 옛날 어른덜토 경헹덜 그걸 이제, 그런 것도 허곡. 또 인제 이 놈삐엔 허주, 무수.
@1 예, 예. 놈삐.

#1 무수도 영 헹 건 이제 동짓날에 영 헹 무수 순 내왕 허는 거이.
@1 예, 예.
#1 그런 것도 허곡 영헷는데. 어쨌든 옛날 풍습이 난 많이 잊어불언.
@1 예.
#1 뭐옌 곧지 못.
@1 아, 아까 콩예, 대죽낭에다가 콩 열두 개 이렇게 한덴 헷잖아예?
#1 으.
@1 게믄 그거는 물항에 둥가?
#1 으, 물항에.
@1 물항에 둥강은에 게믄, 콩 싹 돋은 거, 순 나는 걸 보는 거잖아예?
#1 으. 아 나는 걸 보는 게 아니고 무은 거.
@1 아, 무은 거?
#1 무은 거.
@1 나지는 않을 거니까예?
#1 으.
@1 예.
#1 거 무은 거 보민 것도 대죽낭 영 헹.
@1 예.
#1 열두 개 영 헹 놓잖아, 경허민 실로 영 뎅영.
@1 예.
#1 막 물 들어가지 못허게 영 뎅영 놓는 거라.
@1 으.
#1 게민 그걸.
@1 양쪽으로 뎅여마씨? 아니면.
#1 으, 양쪽으로. 양쪽으로도 뎅이고 영영 중간에도 다 뎅영.
@1 중간에도 뎅영. 음.
#1 경 우리는 안 헤 봣는데 우리 부친님 살앗을 때 그런 거 헷주.
@1 예, 음.
#1 게난 그런 것덜이 그 첨 그 헤영 아, 어느 달은 금년에는 물이 만헤여, 영도 허곡. 경덜 헤낫주게.
@1 게믄 이게 많이 무으면 물 하켜 허곡.
#1 으.
@1 야이가 물 안 들어가면 ᄀᆞ물켜 허곡.
#1 ᄀᆞ물켄 허곡.
@1 아, 아이고, 이, 이거는 첨.
#1 으.
#2 게난, 열두, 열두 개 논 거 아니라.
@1 열두 개 놓는 거예.
#2 게난 열두 개 논 거.
@1 어구, 이건 처음 저가 들어봄수다.
#2 (웃음).

@1 그 저기 놈삐 저기 순 하는 거는 들어보긴 헷거든예?
#1 음.
@1 게난 놈삐는 어떤 식으로 굴읍디가? 그 놈삐 순 내왕은에 허면.
#1 게난 놈삐를 놩, 것도 잊어불엇저, 난.
#2 뭐냐면은 무수는.
@1 예.
#2 동지 아싯날.
@1 예.
#2 동지 아시날.
@1 동지 아시날, 으.
#2 동지 아시날을 반을 쩨겨.
@1 예.
#2 순이 없어서 견 놔, 놔두면은 일주일 뒈 가면 순이 나와.
@1 아.
#2 알로.
@1 예.
#2 게서 동지라.
@1 동지.
#2 경 아니면은 순이 절대 안 나. 음력으로 허믄 무수가 안 뒐 때고, 양력으로 허믄, 동지로 이십일 뒈면 딱 그 나가 헤 보니까 싹이 나.
@1 게니까 그 옛날엔 동, 동지에는 새 ᄆᆞ심 헌덴 헤 갖고 그때부터 이제 싹이, 새 기운이 올라온덴 그 말은 헙디다게.
#1, 2 으.
#2 게난, 게난.
#1 새 ᄆᆞ음을 먹으난 올라왐주이.
#2 게난 금년이랑 내년이랑 보리 잇잖아, 보리. 보리밧데 보리밧데 가서.
@1 예.
#2 이십일일날허고 이십이일 아침 새벽이, 열두 시 땡 헹 넘어강은에 하나 파 보라고.
@1 으.
#2 순이 낫나, 안 낫나, 뿌리가.
@1 으.
#1 뿌리가 나.
@1 거 동지에 헙니까?
#2 동지에.
@1 근데 또 보리점은 입춘에 보리점은 헤수게.
#2 아이.
@1 아, 동지에 순 나는 거 봥?
#2 으. 봐야지. 뿌리가 새순이 나와. 딱 뒈면은.
@1 아, 아.
#2 나 우리가 다 경험헤 본 사름이라.
@1 삼춘네 이제 그 동지에 가 갖고 매어 갖고 봣구나예?

#2 으.

@1 예.

#2 그믄 틀림엇어. 이 이십이일날 딱 아칙 새벽이 열두 시 땡 헹 강 헤 보면은 싹이, 뿌리가 나와.

@1 아, 새 ᄆᆞ심 허는구나, 진짜로.

#2 새, 새해라는 뜻이라.

@1 예. 맞수다. 아이고, 이거 십이월까지 가야 뒈는데 일월이 아직도 안 끗낫네. (모두 웃음).

액막이

@1 그다음에 그 정월에 허면 액막이들도 허지 안헤마씨?

#2 거 이 사름이 알주, 난 몰라. (모두 웃음).

@1 예, 그 액막이 헌 거는?

#1 으, 게난 그게 인제 정월달에 인제 딱 첨 본향에 강 첨 제드리곡 그게 인제 그 하나의 그, 집안에 잘 뒈 줍센 허는 거주, 인제.

@1 예.

#1 특별허게 액막이 허는 건 몰라, 인제. 삼신할망 빌어당 제 지내는 건 몰라.

@1 예.

#1 그 막 궂이켄 허민 그런 것도 허는 집안 잇어이, 겐디.

#2 집안이 다 틀리니까.

#1 액막이, 그 해 막 궂이켄 허민 뭐 **일이나 뭐 보앙 허민 아이, 이 사람 막 그 금년에는 안 좋아, 운이 안 좋덴 허민 액막이, 옛날엔 액막이도 잇주게.

@1 예.

#1 으, 게민 지금은 경 안 허주만은. 으, 그런 게 헷, 헷던 걸 알아져, 영 보민.

본향제

@1 예. 삼양 여기 본향당은 언제 제를 합니까? 본향제.

#1 아.

@1 본향당제.

#1 그때는 정월달.

@1 정월 메칠날, 여기는?

#1 정월 이제.

#2 하튼 보름 전에 허주.

#1 새철 들은 다음.

@1 예.

#2 넘은 다음, 보름.

#1 새철이, 새철엔 거 인제 그 뭣고.

@1 입춘.

#1 입춘. 입춘 들엉 날짜 봥 인젠 그 본향제 지내주, 이제.

@1 예. 게니까 본향제는 정월, 정월에, 이제 음력 정월에 허는 거구나예? 입춘.

#2 다 음력, 음력 정월.

@1 다 음력예. 예, 예, 예. 게난 딱 정월, 정헤지진 안헷수과, 날짜? 뭐 일월 십삼일이여, 이런 거 엇어?

#1 아니, 날짜 안 정헤.

@1 아.

#1 거 날이 좋은 날만 택헹 자기 식구들 인제, 식구가 많으민 아, 우리 식구에 인제 쪼끔 그 첨 연결 안 뒈영 좋은 날 택헹 허곡, 그 식구덜 놩 또 영헌다고, 영 보민이. 식구덜 생년월일 놩 아, 이날 허민 우리 집안이 쪼끔 제 지내는디 운이 돌아올 것이다. 경헹 제덜 지내주기, 영 보민.

@1 게믄 마을제 본향에 갈 때는 이 마을 사람들이 다 가는 거 아니마씨?

#1 아니, 아니.

@1 아, 여기는 따로 다니는구나, 이 마을은예?

#1 으. 한 사람씩. 아침 새벡이 그 첨 제물 출령 가주.

@1 아, 음.

#1 인제 새벽이, 어둑.

@1 게난 남의 동네는 가면 본향당에서 당굿을 허는데 이 동네는 당굿을 안 하고?

#1 당굿 안 허주.

@1 아.

#2 옛날엔 헷는데, 이젠 안 허여.

@1 이젠 안 허고예?

#1 옛날도.

#2 옛날 헷주게. 동카름선 헷지.

@1 예. 그러면은 포제는 해마다 헌 거고?

#1 으.

마을제·포제

@1 마을제, 여기는 이 동네는 포제? 포제로 마을제를 헌 거?

#1 으.

@1 으. 마을제는 언제 아까 헷, 헷지?

#1 아까 정월 멩질 지낭.

@1 예.

#1 또 그 입춘.

@1 예.

#1 그 새철 들어, 새철이 인제 들엉.

@1 이후에.

#1 이후에 허주게.

@1 게난 새해 절기에 맞춰 허는 거라예?

#1 으, 으. 새 절기 맞춰.

@1 그래서 아까 정해일.

#2 정해일이나 인제 정묘일이나.

@1 정묘일이나예?

#1 으.

@1 혹시 포제헐 때 그때는 제물들은 어떤 식으로 써마씨? 여기는.
#1 그때는, 제 지낼 때는.
@1 예.
#1 저 제물은 여기는 우선 그, 그.
#2 자네가 똑 참석헌 대로만 굴아 불어.
@1 예.
#1 으.
#2 난 건 몰르니까.
@1 예.
#2 제물, 뭐, 뭐 들어가는 것만 딱.
#1 뒈지, 그 삶지[쌈찌] 안헤영.
@1 예.
#1 뒈지.
@1 통뒈지?
#1 으, 통뒈지허영 그 뭐 창자 같은 것도 그냥 오고셍이 놩.
@1 아.
#1 오고셍이 놩이.
@1 그시령 이것만 헤 갖고?
#1 어, 그시리지도 안헤영.
@1 아.
#1 그냥 그 털만 싹허게 멘도칼로 영 헤영, 첨 깨끗허게 헤영 허주게.
@1 걸 희생이?
#1 으. 나 뒈지고기, 뒈지옌 허는 말도 이 쫌 틀려이.
@1 예.
#1 우리 제에 쓰는 건.
@1 뭐렌?
#1 거 잊어불언, 나 지금. 몰르켜. (웃음) 나이 먹으난. 게난 그.
@1 돗, 온돗 뭐 이렇게?
#1 아니, 아니. 그 우리 저 제에 쓰는.
@1 용어가 잇구나예?
#1 용어가 잇어이.
@1 예.
#1 경헹.
@1 튼내영 굴아 줍서.
#1 용어 잊어불어신게. 나 요샌 인제 안 헴주, 나.
@1 으. 안 허난 잊어불멘예?
#1 으. 요샌, 작년에는 아예 그 참석도 안 허고.
#2 이제는, 엿날에는 뒈질 잡안 허는데, 영 소식 들으민 요새는 간사허게 젊은 아이들이라 놓니까 하여튼 저, 날짜만 잘 지키민 뒐 거 아이라게.
@1 음, 음.
#2 축 뽑앗덴 허믄.

@1 예.
#2 요새는 머리 하나만 사당도 헤여. 요새는.
@1 아. 머리 하나만.
#1 겐디.
#2 웨냐하면은 이젠.
#1 옛날 풍습은 그냥.
#2 뭐.
#1 그 통채로 헷주, 통채로.
@1 통채로이.
#2 옛날은 통채 헷는디 이제는.
@1 어느 쪽에 놉니까? 이렇게 하게 뒈면. 여기가 신위, 포제 신위가 잇잖아예?
#1 신위, 그다음 그 요쪽에 놓주, 인제.
@1 아, 이, 이쪽에?
#1 으, 요쪽에 인제 허곡.
@1 예.
#1 여기는 산메 놓고.
@1 희, 희, 희생.
#1 희생.
@1 예.
#1 맞아, 희생. 저.
@1 희생이렌 말을 헌 거꽈?
#1 희생이엔 말을 잊어불언.
@1 예.
#1 뒈지옌 안 헹 희생이엔 헤이.
@1 예, 예.
#1 건 그 뒈지옌 허민 이건 예법에.
@1 어긋나 불어.
#1 어, 어긋 말이라.
@1 여기서는.
#1 희생이엔 헤이.
@1 예. 희생 놓고.
#1 으. 여기 이제 산메.
@1 산메.
#1 어.
@1 산메는 나란히 놉니까, 어떤 식으로 놉니까?
#1 아, 산메는 하나, 이렇게 헹 놓주게이.
@1 아.
#1 으.
@1 산메예, 산메허게 뒈면은 쌀은 무슨 뭐?
#1 쌀은 해쌀.
@1 아, 해, 햅쌀로 헤 갖고예?

#1 으.
@1 우리 곤쏠, 옛날 나룩.
#1 곤쏠.
@1 나룩, 저 산뒤.
#1 으.
@1 으, 산메로 놓곡예?
#1 산메 놓곡, 그다음은.
@1 겡은 안 허잖아예?
#1 으. 겡 안 헤.
@1 으.
#1 그다음은 채소, 이 그다음 놓고.
@1 어디, 이쪽?
#1 음.
@1 이거 채소.
#1 아, 채소는 여기 안 헤여, 욜로 놓곡.
@1 아, 여기로예?
#2 어, 흔 줄 위로 흔 줄.
#1 삼 곳. 채소 삼 곳 허고이.
@1 삼 곳예?
#1 으.
@1 게믄 채소는 뭐 뭐 놔?
#1 채소는.
@1 미나리.
#1 미나리.
@1 예.
#1 그다음 무채.
@1 예.
#1 그다음은.
#2 무수채. 또 고사리 안 들어가?
#1 고사리 안 들어갑니다.
#2 음.
@1 콩나물은?
#1 그다음 시금치 들어가나. 하튼.
@1 으. 여기, 미나리는 어느 자리우꽈?
#1 미나리가 젤 앞에 들어가주.
@1 이게 미나리?
#1 으.
@1 그다음에 여기는 무, 무채예?
#1 으, 무.
@1 그다음에.
#1 그다음은, 그다음.

#2 콩나물 안 들어가?
#1 안 들어가.
#2 안 들어가? 고사리허고.
#1 으.
@1 시금치?
#1 시금치, 시금치.
@1 고사리가 안 들어가는구나예, 고사리허고. 으.
#2 고사린 안 들어간다. 집이 허는 제사허고는 틀리네이.
#1 음.
@1 이것도 다 생 거 아니라예?
#1 세 가지.
@1 예, 세 가진데 생 거로 다. 익혀?
#1 아니, 아니. 익혀.
@1 아, 여기는 익히는구나.
#1 반 익형. 반 익혀.
@1 아, 반예, 반숙채예?
#1 으, 반숙채.
@1 예. 그러믄 이 세 가지하고. 그다음에 또 들어가는 게 뭐 이수과? 희생하고 해어는 안 들어가? 제숙, 제숙.
#1 그다음은 해어. 해언 인제 멩, 그 멩태.
@1 예, 멩태.
#1 멩테 말린 거이.
@1 예, 건 어느 쪽에?
#1 그것이 요기 세 개 들어가주. 으.
@1 세 개를 세 군데 놔마씨?
#1 으. 세 군데 놔.
@1 예, 세 군데 허면은 이게 다 멩태?
#1 음, 게난 여기는 산메 이렇게 크게 하나 놩. 어.
@1 아, 여긴 산메 이렇게 헹 놓고.
#1 어, 경헹 거기가 인제 전부 그 향을 꼽는 거라.
@1 아, 산메에예? 향을. 여기 산메 위에 향을 꽂고.
#1 요만씩 젯가락 비슷허게 영 만들앙.
@1 예.
#1 경헹 그걸 세, 세 가지, 세 곤데 꼽주.
@1 예.
#1 으, 경헹.
@1 세 곤데 이렇게 꼽고.
#1 으.
@1 그다음에 멩태가 세 개 놓고.
#1 음.
@1 그다음에 또 다시 올리는 건 또?

#1 과일.
@1 과일. 과일은 어디 놔마씨?
#1 과일은 여기, 이런 식으로. 사과.
@1 예.
#1 또 그다음. 음, 사과.
@1 사과.
#1 여기는 귤.
@1 예.
#1 그다음은 배.
@1 예.
#1 그다음은 대추.
@1 예.
#1 밤.
@1 아.
#1 경헹 오 곳을 허주.
@1 다섯 개예, 오 곳.
#1 으.
@1 요렇게 허고. 혹시 여기 귤은 어떤 귤 써수과? 옛날에.
#1 뎅우지.
@1 뎅우지.
#1 요 밑에 가민.
@1 이.
#1 귤이 뎅우지벳기도 없엇주.
@1 예, 예.
#2 엿날은 뎅우지.
#1 뎅우지 올렷주, 뎅우지.
@1 여기 도련 가면 그 귤 문화재도 잇고 영 허던데.
#1 으, 벤줄.
@1 예.
#1 벤줄도 허곡.
@1 이 동네 뎅우지들은 집에 집집마다 싱근 거?
#2 이젠 엇어.
#1 아, 엇엇어. 혼 집이 잇엇주.
#2 엇수다. 없어.
@1 아.
#1 게민 특이허게 인제 그 집에서 뎅우질 내놧주, 인제.
@1 예. 요런 식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술은 어떻게?
#1 술은 인제 그.
@1 여기도, 여기도 이.
#1 소주[쏘주], 청주 헷주, 청주.
@1 예.

#1 그다음은 그 뭣고.
@1 감주도 올련?
#1 감주가 생감주.
@1 아, 생감주로예?
#1 어.
@1 예.
#1 감주가 생감주. 으, 그다음 소주. 소주가 처음 뒈겟구나. 소주.
@1 예.
#1 청주, 생감주. 으.
@1 아, 생감주. 그다음에 여기 향은 요쪽에 헷잖아예. 우리 제사 때는 앞에 향을 피왓는데.
#1 아, 향은 또 여기 다.
@1 소주 잇는 데?
#1 으, 여기다 인제. 상이 이만헌 작은 상이 잇주, 인제.
@1 예.
#1 그, 그 상보고 뭐옌. 하튼 그, 그 상에 인제 별도로 인제.
@1 향돌?
#1 아니, 여기다.
@1 예.
#2 벨도로.
#1 술들을 여기다 놓주게.
@1 예.
#1 그다음 소주.
@1 예.
#1 청주, 그다음 그.
@1 생감주.
#1 어, 저 감주, 생감주.
@1 예.
#1 으. 경헹 삼 굿을 여기 놓주.
@1 아. 술예. 그다음, 그 향, 향은 따로 안 하고?
#1 향은.
@1 향료.
#1 향료상이 잇주게. 여기.
@1 여기가, 여기가 저기.
#1 여기 상로상이 잇어이.
@1 예. 여기도 나란히 소주, 청주, 생감주 순예?
#1 으. 청주, 청주옌 헌 게 저 뭐주.
@1 고소리술?
#1 아니, 아니 그.
@1 오메기?
#1 그 무슨 술이엔 허니, 그 쪼끔.
#2 좁쏠로 만든 거라?

#1 아니우다, 그 저, 저. 푸는 건디, 야튼 청주 아니민 또 그걸 올리주. 저.
@1 고소리술?
#1 아니, 술 안 먹어, 요샌 술 안 먹어가난 잊어불언.
@1 아, 식혜 같은 거? 감주 말앙예?
#1 아니, 아니, 그 저. (웃음)
#2 식혜가 존 거라게, 식혜.
#1 얼른 곧젠 허난.
#2 식혜 헹 좋주게.
#1 야튼 세 가지 허주이.
@1 순다리. 요렇게 허고. 혹시 그.
#1 청주, 청주가 좋주.
@1 이, 초 같은 건 안 켭니까? 촛불 같은 거는.
#1 촛불 허주, 이제. 촛불이 양쪽에 잇는 거주.
@1 어느 쪽으로 올려?
#1 제, 제사 때 여기 요 밑에 상, 영 상.
@1 아, 밑에예?
#1 게난 그.
@1 상로 앞에 잇는 데 초를, 촛불을 하는구나.
#1 음.
@1 여기, 여긴 어디? 우리 제사상은?
#1 제사상에는 제사상도 마찬가지. 여기 뚜로 인제 그.
#2 족은상에 놓는 거.
#1 족은상 잇잖아이.
@1 예.
#1 족은상에 이렇게 허주.
@1 향료 잇는 데 또 촛불 저기를 하는 거라예? 예. 향료 잇는 데 촛불을 하고. 우리는 저 앞쪽에 이렇게 하는데. 지역마다도 다.
#1 으.
#2 다 틀릴걸.

고팡제

@1 혹시 삼춘 여기에 그 안택 같은 거는 집에 안 헷수과? 문전제 이런 거.
#1 문전제 엿날엔 꼭 헷주게.
@1 예.
#1 요새는, 아 요새도 문전제 허는 사람 잇어.
#2 허는 사람덜 이실걸?
#1 거 안방제는 안 허더라고.
@1 아.
#1 그 엿날에 고팡이엔 헷주, 고팡.
@1 고팡예.
#1 고팡 알 건가?

@1 예, 예. 고팡, 안방. 광.
#2 아니, 아니.
#1 창고.
#2 저 쏠 놓는[노는] 디.
@1 예. 쏠 놓는[노는] 디. 으, 으. 큰 방 옆에.
2 어.
#1 어, 그건 인제 첨 농사 잘, 잘 뒈.
#2 고팡, 고팡이렌.
#1 쏠이라도 가득허게 헤 줍센 헤영.
@1 예.
#1 거 고팡젤 헷주게.
@1 아.
#1 으.
@1 여기서 고팡제렌 헤낫수과?
#1 으.
@1 이 고팡제는 언제 허는 거?
#1 안방, 안방제옌도 허곡 고팡제옌도 요새.
@1 안방제옌도예. 예.
#1 ᄀᆞ치허주게, ᄀᆞ치.
@1 어느? 식게헐 때마다?
#1 식게헐 때마다.
@1 아.
#1 똑 고팡제허고 조왕제옌.
@1 조왕제.
#1 거 조왕제는 인제 별도로 안 헤영.
@1 예.
#1 이거 다 별도로 안 헤영 그냥 그 끗날 때 그 문전제 끗나민 조왕할머니, 그 문전상에 잇는 거 거뒁 조왕할망이 그, 거 뭣고, 부억에.
@1 예.
#1 이렇게 올리곡. 그다음은 저 고팡제는 또 제 다 끗나민 이렇게 헤서. 인제 그 그 철변이.
@1 예.
#1 헌 걸 가졍 고팡드레 그 올리곡.
@1 음.
#1 또 별도로 인제 고팡제라 헹 모시는 사람이 잇어.
@1 예.
#1 건 제물 헌 거 헹 고팡드레 올리곡.
@1 그 고팡 항 우에 영 헹은에.
#1 게민. 그 해 인제 농사 잘 뒈게 헤 줍서, 고팡에 첨 곡식이라도 가득 차게 헤 줍서. 그, 그거주, 인제.
@1 겐 삼춘네는 고팡제 안 헤 봔마씨? 삼춘네 집안에서는.

#1 우리도 고팡젠 헤낫주, 인제.
@1 예.
#1 안방제옌 헹이.
@1 안방제예.
#1 으. 안방제 별도론 허진 안허고. 제물 헤영 이렇게 올려낫주.
@1 예.
#1 겐디 최근에덜은 그런 게 엇어젼.
@1 예. 아, 요즘은 안 헴수과?
#1 으, 으.
@1 게난 식게 물려줘 부난 안 헴구나. 그다음에 요런 거 말고 안택이렌 헹은에 정월에 이제 우리 집안 올해 한 해 잘 뒈게 헤 줍서 헤서 집에서 그 올레코시나 이런 것들은 안 헤 봣수과?
#1 아, 우린 안 헤연.

벨롱겡이

@1 아.
#1 그 영 보난 그런 거 허는 집이 잇더라고. 영 보민 그 제줏말로 인제 벨롱겡이엔도 허곡.
@1 예, 예.
#1 그 영 그렇게 그 첨 정월달 들엉 그 할망, 그 삼싱할망 빌어당 첨 정 읊으멍 그 빌더라고. 비는 집 잇어.
#2 하튼 음력 정월달이 젤 많이 허여. 제주도는.
#1 게난 그런 게 인제 꼭 해마다 허는 집안이 잇곡.
@1 예.
#1 우리는 그런 거 안 헤 봣주, 인제.
@1 예.
#1 대개 영 보민 김녕서 살당 오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 그 일 년에 흔 번 도세기 잡아낭 정월달에.
@1 돗제.
#1 제를 지내. 돗제를 지내.
@1 게 그거를 아까 벨롱제, 벨롱게?
#1 으. 벨롱. (웃음) 벨롱겡이, 벨롱겡이.
@1 벨롱겡이? 아.
#2 벨롱겡이.
@1 그 제 이름을 벨롱겡이렌 헤예?
#1 으.
@1 겡 벌롱겡이 헐 때 그 돗제, 뒈지 한 마리 희생 헤 놓고 헹은에 허는 거라예?
#1 으.
@1 이거는 집안이 하는 거 아니우꽈예?
#1 으.
@1 예. 집안마다 이렇게 허는 집 잇고 안 허는 집 잇고.
#1 예.

@1 근데 또 가끔 가다 보면 옛날에 이 삼양에도 보니까 우영에.
#1 우영에.
@1 예, 우영에 칠성 모시는 데도 잇인 거 닮아.
#1 어, 우영에 이렇게 보니까 그 주젱이옌 허지.
@1 예, 예.
#1 주젱이 이렇게 놩 걸 모시는 집이 잇더라고. 그 안엔 그 뱀이 들어 잇젠 허더라고.
#2 뭐냐면은 그 주젱이도 우리 이동에 사람은 없고.
@1 예.
#2 타동에서 살단 헌디.
#1 잇어낫수다.
#2 온 사람덜.
@1 예. 요 앞에 어느 집에도 잇어난 거? 나도 봐난 진 거.
#1 아니, 잇어낫어. 우○이 잇지 안우꽈? 우○이네 집이도 뒤켠엔 보니까.
#2 ○○이 아방넨 똑 완에 거긴 뱀이 잇데게.
#1 아, 게난.
#2 나 거 삼달리서 시집완 저 이사완 사는 사름덜이 잇다 이거라.
#1 맞아.
@1 아, 삼달리.
#1 주젱이 세 개가 모, 모셔, 영 보민.
@1 아, 하나가 아니고?
#1 어. 그 아마도 부인들이 대개.
#2 동이 여자.
#1 동이.
@1 예.
#1 표선이나 김녕이나 이렇게 그쪽에서 오신 분들이 아마도.
#2 잇어.
#1 이렇게 일로 시집오면은 신이 따라온덴 헹 아마도 그런 걸 갖다 놓는 셍이라. 경헹 그 별도로 거기 제 지내곡 영 허더라고.
@1 예. 그것도 이제 그 주젱이 골아주는예, 철갈이 허기도 허고.
#1 으. 갈곡 영. 나 꼭 거 뱀 잇어, 뱀 잇어. 어릴 때니까.
@1 예.
#1 딱 저껏디도 못 갓주. 인제 막 ᄆᆞᄉᆞ왕 허는데.
#2 나 딱 ᄒᆞᆫ 집이, 크니까 난 여기 ᄒᆞᆫ 집이 딱 봐낫는데. 다른 집이 안 봐봔.
#1 겐디 뱀이, 뱀이 꼭 잇는 건 아닌 거 가타. 그렇게 모시는 거주, 영 보민.
@1 것도 풍, 아까 고팡제 하듯이 부자 뒈게 헤 줍센 헤 갖고.
#1 응.
#2 맞아, 거 이녁 잘살기 위헤서 허는 거.
#1 다 인제 그 첨 신을 모시는 거주, 야튼. 어쨋든 잘 뒈게 헤 줍서, 식구들이라도 잘 뒈게 헤 줍서. 신을 모시는 거라, 영 보난.
#2 맞아, 거, 거주. 집안마다 다 틀리니까.

보리밭 밟기

@1 예. 그다음에 일월이면 보리밟기도 일월에 불랏수과? 보리밧 붋으는 거.
#1 어. 정월달에 보리밧 불라줫주.
@1 예. 그 얘기 좀 헤 줘 봅서.
#1 게난 정월달에 옛날엔 첨 그걸, 우리 보리 막 갈 때는 그 제주도는 또 그 화산회토가 많잖아이.
@1 예, 예.
#1 게난 땅이 부꺼 불어, 눈 막 와나니까. 그걸 이젠 그 정월달 뒈민 그걸 일부러 불랏다고.
@1 으.
#1 불라야 곡식이 여물곡 잘 안 자빠지곡 경헌덴 허영 일부러 그걸 막 불랏는데 우리 초등학교 뎅길 땐 일부러 막 그냥 학교 학생들 동원시켱도 불르곡 헷는데 인제 그런 거 없어.
#2 인젠 없어.
#1 우리 쫌 크니까 엇어져 불언, 그런 것덜.

연날리기

@1 아, 크니까예. 삼춘네 게믄 보리밟기 동원 뒛잖아예? 그때 연날리기도 헷수과?
#1 으?
#2 연날리기 헷지.
@1 연날리기, 정월에.
#2 우리 많이 헷지. 우리 클 땐게.
@1 정월에도 연 날리당 대보름 뒈면 날려 버린덴 허멍마씨?
#2 옛날 우린.
#1 연, 연 만들엉.
@1 예.
#2 잘 놀앗지.
#1 연덜 헤영 인젠 그 날리곡 헤낫주.
@1 으.
#1 겐디 우리 때는 어려 놓난[노난] 거 연 경 날리곡 그런 거 별로 엇엇어.
@1 으, 게믄 어른들은 정월에 연 하영 날련마씨?
#1 으. 그게 인제 액막이렌 허영.
#2 멧 사람, 멧 사람.
@1 예.
#1 이 동네도 날리곡 허영 경허연.
@1 으.
#1 헌 집안도 잇어.
@1 예.
#1 겐디.
#2 옛날 사름덜도 우리 선배들, 나보다 흔 댓 술은 우이.
@1 예.
#1 그 정도나 놀렷지, 우리ᄁᆞ지. 그 밑으론 안 헷어.

액막이

@1 으. 근디 아까 연날리기, 액막이는 어떤 식으로 헌덴 헙디가?
#1 액막이?
@1 으. 연날리기 헐 때.
#1 엿날에는 게, 영 보난 거기 이름 썽 이젠 잘 뒈게 헤 줍센 헹 거 연 띄왕 날리는 집안도 잇엇젠 허곡. 겐디이 그 사삼사건.
@1 예.
#1 사삼사건으로 인헤서 모든 게 엇어졋주, 풍습이.
@1 예.
#1 풍습이, 옛날 풍습이 많이 사라져 불언. 그전에는 옛날 그 할머니들 곧는 거 보민 그런 것도 허고 많이 헷젠 허는디 그 우리 커올 때는 많이 엇어젼.
@1 음.
#1 으. 사삼사건 끗나고 나니까 막 먹고 살기가 어려와 놓난[노난] 그런 게 어디 셔? 우리 그 영 보민 그 엿날 소까이덜옌 허잖아. 사삼사건에 인제.
@1 예.
#1 피, 피난 왕 저 여기 왕 저 방 하나 빌엉 살 땐디.
@1 음.
#1 게민 배는 고프곡 그 쌀은 없지. 게민 물룻 같은 것도 강 저 산, 저 이 밭에 강 그런 걸 줏어당 바다 인제 그, 그 바닷가에 나는 그 뭐 잇어.
@1 패.
#2 해초.
@1 패, 패.
#1 그런 거영 ᄀᆞ치 삶앙 묵을 만들앙 먹기도 허곡 경헤낫주, 우리.
#2 톨, 감저(?) 헹.
#1 게난 엿날에 그자 사삼사건으로 얼마나 우리도 궤로왓어. (웃음)
@1 예. 게난 모든 이 사삼이 풍습도 바꿔져 버리고.
#1 모든 게 바꽈 불엇어.
@1 예.
#1 사삼으로이, 풍습도 많이 엇어지고. 그래도 인제 제사, 멩질 같은 거는 그대로 헷주.
@1 그냥 가고예. 예.
#1 막 어려완.
@1 혹시, 새철 드는 날, 아까 새철, 여기 새철 드는 날 허는 거는 무신거 이수과?
#1 새철 드는 날이.
#2 뭐 허질 안헤실걸.
@1 뭐 금기허는 것도 잇고. 뭐 허지 말라, 으?
#1 어. 거 줄 메영이.
@1 예.
#1 줄 메영 헷주, 인제.
#2 오지 말라, 못, 못 들어오게 허는 거지.
@1 으, 금줄.
#1 게난 놈으 집이 그 불 담으레도 못 가곡.
@1 예.

#1 엿날엔 그 지금은 뭐 그런 생각이 엇주만은 엿날에는 집에 인제 성냥도 없고 허니까 놈으 집이 강 불 살르민 그걸 불 살른 거 이제 불 담아당 다시 그, 그걸 가졍 이제 밥헷어이.
@1 예.
#1 게난 그런 게 새철 드는 날은 놈으 집에 여자들은 함부로 못 갓주.
@1 음.
#1 으. 게난 그런 거. 또 아까 새철 드는 날은 또 아까 대죽 낭 헤연 그 콩 허는 거 잇잖아.
@1 예. 콩점.
#1 그거 허곡. 야튼 그런 게 인제 정월달에는 뭐 헷주.
@1 게믄 그 콩점 헐 때 그 콩은 어떤 콩을 쓴 거라마씨?
#2 그때는 메주콩벳긴 엇엇어.
#1 우리 메주콩덜.
@1 메주콩덜.
#2 엿, 엿날엔 메주콩벳긴 엇엇어.
@1 아. 메주콩 헹은에예?
#1 칠월베옌 허느냐, 예.
#2 으.
#1 옛날 콩은 칠월베주.
@1 음. 칠월베.
#1 으.
@1 칠월베는 무신 말이우꽈?
#1 그 쪼끔 콩이, 그 우리 제주도 재래식 콩이라.
@1 예.
#1 콩이 아주 크지도 안허곡 또.
@1 요즘 주름콩 헹 족은 것도 아니고.
#1 응, 상당히 ᄋᆞ물곡.
#2 장콩이라서.
#1 장콩이엔 헤영.
#2 거 주름콩보다 ᄒᆞ꼼 크주.
@1 거난 칠월에 수확허는 건가?
#1 어짼든.
#2 아, 칠월에.
@1 경허난 음력 칠월에 수확허니까 칠월베?
#1 어짼든 칠월베옌 헷어.
@1 예.
#2 하이튼 엿날 어른덜.
@1 팔월에 하는 것도 잇지예? 팔월베도 잇어?
#2 팔월베 잇어, 잇어.
@1 팔월벤 엇어?
#2 팔월베도 잇어.
@1 아, 팔월베도 잇어마씨?

#2 요샌 나왓어.
@1 아.
#2 엿날엔 엇엇는데 요샌 나와. 나 원.
#1 어, 칠월베가 이제 우리 제주도 그 첨 내려오는 콩이주.
#2 젤 문저 나오는 거.
#1 지금 칠월베가 엇어져 불엇주, 영 보민.

새철 드는 날

@1 그니까 옛날에는 그 절기예, 아까 삼춘, 양력으로 헌덴 헷잖아? 그니까 절기에 시작을 정월 멩질이 아니고 입춘 아니우꽈? 새철 드는 날이니까. 입춘을 새철 드는 날이렌 헷잖아예.
#1 아, 거는 입춘은.
@1 예.
#1 그 절기지, 새철 드는 날이지.
@1 예.
#1 거 멩질 찰리는 거는 정월 멩질날.
@1 허고.
#1 초ᄒᆞ루 저기허고. (웃음)
#2 하튼.
@1 절기허고.
#1, 2 어.
@1 그리고 이 입춘날, 놈의 집이 못 가는 것도 잇지만 뭐 문 앞에 뭐 입춘대길, 이런 것도 쓰고?
#1 어, 입춘대길 쓰고.
#2 어, 견디 경훈 집안이 멧 집이 엇엇어. 입춘이라고 쓴 집안 삼양에 멧 집 엇엇어.
#1 게난 새철 들어오는, 새철 들어오는 날은 입춘대길이렌 헤영.
@1 입춘첩?
#1 음, 첨 잘 뒈게 헤 줍서 허곡 또 그게 하나의 그 첨, 집안에 액을 막는 것도 뒈곡 그런 거주.
@1 예.
#2 게난 아무나 못 간다 허는 거, 입춘.
@1 아무 디도 가지 말고예?
#2 어디 가지 말고.
@1 뭐 돈도 쓰지 말라는 이런 말도 잇고?
#2 돈은 써야, 살아, 살아가는 데 돈을 안 썽 살아져?
(모두 웃음)
#1 돈, 돈이 귀헤 놓니까. 그런 말, 그건 엇엇주.
@1 아, 그런 말은 엇엇수과?
#1 으.
@1 놈의 집, 여자들 놈의 집 안 가는 거?
#2 으.
@1 불 담으레도 안 가곡?

#1 으.
@1 으, 그런 거예. 혹시 제주도도 우수렌 헹은에 절기 헙니까? 우수.
#2 우수 절기?
@1 대동강물 풀리는?
#2 우린 안 헤 봣어. 자넨 헤 봣어? 난 안 헤 봣어. 난 몰라.
#1 우수 경칩은 건 하나의 건 절기.
#2 절기지.
#1 으, 절기만.

방엣불 놓기

@1 절기. 우수는 언제 들어오는 거지? 이거는, 이거 잘못 여기 써진 거 같고. 방에도 여기 옛날 놔낫수과, 불들? 방엣불.
#2 아, 우리 축산허는 사람 다 놧지. 웃드르 강.
@1 아, 웃드르에 강?
#2 어.
@1 건 어느 절기에 놓는[노는] 거?
#2 아, 저 삼월달에.
@1 양력 삼월?
#2 어.
@1 아, 양력 삼월예?
#2 건 케와야 오월달 쉐들 올리거든.
@1 아, 그냥?
#2 새풀 나게.
@1 여기 밧 이런 데는 안 헤?
#2 안 헤.
@1 들불은 안 놓고예?
#1 으, 그건.
#2 산불은 축산허는 사름덜 완전 동원헹 강, ᄒᆞ루 강 놓는 거.
#1 건 이제 진드기.
@1 예.
#1 진드기 같은 거 방지허기 위헤서 허곡. 풀도 인제.
#2 새풀 나오게.
#1 새풀 나오게 허곡 허는.
@1 새풀 나오게.
#2 억새가 다 카 불거든.
@1 예.
#2 게믄 깨끗이 나와.
#1 게난.
#2 옛날 경헷어.
#1 진드기 때문에 더 허는 거주, 이제.

이월

영등제

@1 여기는 또 바당 동네니까 영등제 같은 것도 헷지예?

#1 어, 영등제 헷어.

#2 영등제 헷지. 옛날은.

@1 영등제는 언제 헙니까, 이 동네는?

#2 정월 넘엉 다 헷지 뭐.

#1 으, 정월, 정월달에 헷주. 정월 보름, 정월 보름에 인제 영등굿 헷주, 영등굿.

#2 하튼, 정월.

#1 야튼 영등할망 들어오기 전에.

@1 예. 이월 보름에?

#1 영등할망은 대개 이월달에 들어오잖아이.

@1 예.

#1 게난 그전에 인제 영등굿을 허는 거라.

@1 아, 미리? 어, 영등은 언제 들어옵니까, 여기?

#1 영등은 이월달에 들어올걸?

@1 초ᄒᆞ루. 이월 초ᄒᆞ루 들어오고.

#1 이월 초ᄒᆞ루, 으. 게난.

@1 영등에도 뭐 허지 말라 허는 거 잇지 않우꽈?

#1 그때 우리는 바당 영업을 안 허난 그런 건 별로 엇엇고.

#2 이제 몰를, 몰를걸?

@1 집에서 빨래 못 허는 거?

#1 맞아, 그.

@1 흰 빨래. 구데기예.

#1 그전에는 그.

#2 구데기 나온덴.

#1 뭐 헷주게. 거, 그 세제.

@1 예. 잿물?

#1 것보고 그 어, 그 잿물, 거 상당히 거 지금 같으면 세젠디 거 조금 독헌 거 잇엇어이.

@1 예.

#1 그런 걸 첨 영등굿, 영등할망 들어오기 전엔 쓰지 말렌 헷주게. 바닷물에 오염됌카 부덴.

@1 으.

#1 경헷주.

@1 빨래 같은 것도 못 허게 허고예?

#1 으.

@1 예.

#1 건 그 바당 영업허는 사람들 영등할머니 들어오기 전엔 젤 지냇주, 영 보민. 그 영등할머니 모시는 제를 지냇주.

@1 아까 해신제도 헷덴 헷, 헷잖아예?

#1 해신제도 이젠 거의 비슷헌 건디.

@1 그거하곤 또 다른 거?
#1 해신제허고 영등굿은 좀 틀리주.
@1 으. 그다음에 이월에 뭐 농사를 헌다든가 이런 뭐는 엇인가마씨?
#1 이월에 농사는 엇주.
@1 예, 으, 없고예. 일월에도 뭐허는 농사는 없고.
#1 으.
@1 정월에도예. 그냥 보리 붑는 거.
#1 보리 붑는 거. 또 그 노는 땅덜 중경시킨덴 허주게, 영.
@1 예.
#1 게민 그걸 갈앙 놔둬야 그 뭣고.
#2 검질도 덜 나고.
#1 눈, 눈 왕 그걸 인젠.
#2 밧이 부끄메.
#1 잡균이지. 그 밧, 밧테 지금은 약 치난 허주만은 그때는 그 균이 엇어진덴 헤영.
@1 아.
#2 충, 충.
#1 흔 번 뒤집어 놩 그 눈이 맞이면은.
@1 예.
#1 충이 엇어진뎅 허주.
@1 아. 어니까?
#1 으.
@1 그 중경허는 건 게믄 것도 정월에 헤마씨?
#1 어. 그것도 중경.
#2 중경허는 거는.
@1 예.
#1 보리밧디 중경허는 거주게.
@1 예.
#1 응, 맞아.
@1 아, 보리밧디 골 가는 거구나?
#2 예, 예. 보리를 갈면은.
@1 예.
#2 골오리, 골 저 보리도 갈곡 그대로 갈아도 일로, 저 쉐로 밧 땅 갈민 양쪽에 묻어져. 이딘 비어도 굽이 단단허니까 보리가 좋아.
@1 음.
#2 중경허는 거주게.
@1 음, 걸 보리 중경.
#2 예.
@1 그 보리 중경 허는 게 아까 정월에 허는 거마씨?
#2 예, 에 보리가 이월 말.
@1 이월 말.
#2 경 헤야 보리가 조금 묻어져도 궨찬여.

@1 거 양력이우꽈, 음력이우꽈?
#2 양력.
@1 양력 이월 말. 그러면 정월 저기 뒈겟구나, 음력으로는.
#2 음력으로.
@1 음력으론 정월 뒈고예?
#2 양력으로.
@1 그냥 노는 땅에 밧 갈앙 놔두는 거는 언제?
#2 것도 뭐 시간 뒈는 양 눈 오기, 눈 올 때.
#1 정월달에.
@1 정월달에, 예.
#1 으.
#2 게난 음력으론.
#1 대개 정월달이 춥잖아이.
@1 예, 예, 예.
#1 이 정이, 정이, 엿날은 정이월이 상당히 추웡.
@1 음.
#1 첨 지금은 잠바덜토 ᄯᅮ신 잠바 잇잖아. 엿날에는 (웃음) 그런 옷이 어디 잇나. 정이월 바람엔 어떻게 추운지 옷을 첨 그전에는 무명으로 헤영 그 옷을 만들앙 입엉 헤낫주게.
@1 예.
#1 또 갈중이엔 헌 거 잇잖아. 갈중이 적삼이 무명으로 다 만들엇잖아이.
@1 예.
#1 경헹 옛날에는 내복도 별로 엇엇잖아게. 그걸 이젠 겹옷 헹 만들앙 입곡. 겨난 엿날 어른들이 오죽 춥게 살앗나.
#2 (웃음)
#1 생각헤도 첨, 너무 슬픈 일이, 일들이주. 게난 지금은 첨.
#2 우리 클 때는 팬트가 엇엇어요.
@1 예.
#1 그대로 갈중의 바람에 저 만들어, 뭐예요. 미녕으로 만든 쓰붕 입엉 뎅겻단 말이야.
@1 게난 대통령 삶보다 더 잘사는 거주.
#2 지금은 대통령이 나만이 못 살주게. 신, 신경 쓰곡.
@1 삼춘, 아까 정이월이렌 헷잖아예.
#2 으.
@1 정이월은 정월허고 이월을 곧는 말이우꽈?
#1 으, 그렇주. 정이월.
@1 그때 속담 잇지예? 유명헌 속담.
#1 정이월.
@1 정이월 ᄇᆞ름살에.
#1 ᄇᆞ름살에 저, 뭐 암쉐.
@1 예, 검은 암쉐 뿔 오그라진덴예?
#1 뿔 오그라진덴. (웃음) 그런 말이 잇주.
#2 춥덴 말이주게, 춥덴.

#1 너무 추웡.
@1 게난 그 말을 여기서도 굴아마씨? 이 동네에서도?
#1 으.
#2 춥덴 말이주, 춥덴.
@1 그 말을 한 번 더 굴아줘 봅서.
#1 정, 정이월 ᄇᆞ름살에 검은 암쉐 뿔 오그라진덴이.
@1 예.
#2 (웃음)
#1 상당히 거 매섭다는 거라. 정이월 바람이.
#2 쎄다는 거주.
#1 춥다는 거주.
@1 뿔 오그라진다예?

삼월

한식 멩일

@1 그다음에 여기도 한식 멩질 헤신가마씨, 삼월 들면? 한식.
#2 한식 멩질.
#1 아, 한식. 한식 멩일 헤낫주이, 엿날엔이.
@1 예.
#2 엿날엔 헤실 거여.
#1 그 첨 엿날 우리 그 부친님이 곧는 거 보민, 자개추 그 엿날 신하가 인제 첨 결백헌 신하주, 영 보민. 그분이 인제 그 산속에 들어간 나오지 안허연 그걸 기념허기 위헤서 그거 헷젠. 상당히 그 첨 알아주는 신하엿던 모냥이라.
@1 예.
#1 경헨 그 제를 그 멩질을 옛날엔 헷어, 한식 멩질허고 단오 멩질은 우리 어릴 때도 그헌 걸로 알아져, 영 보민이.
@1 아, 삼양에서도 한식허고 단오는 헷어예? 예.
#1 으.
@1 그땐 뭐 차리는 거는 똑같아마씨? 차례 지내는 거는.
#1 한식 멩일에는 그 뭣고, 메허고 밥이 뜨신 밥을 안 헷주.
@1 아.
#1 그 첨, 그 어룬을 인제 생각헹 찬밥, 찬 겡을 헤영이, 경헹 올렷주. 먹는 데도 그렇게 허곡.
@1 아, 먹는 것도 그냥 찬 걸로 그냥 먹어예?
#1 으.
@1 다른 제숙들은 똑ᄀᆞ트고?
#1 아, 제숙도 이제 뭐.
#2 간소허게 허주게, 간소허여.
#1 막 간소허게. 막 잘 출리진 안허곡.
@1 예, 정월하고는 또 ᄐᆞ나고.

#1 으.

@1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게믄 한식에 그 음식, 절식은 찬밥 먹는 거구나예? 별도로 뭐 떡국이니 뭐 이런 형식의 거는 없다예. 한식에는?

#1 어.

#2 떡국은 안 허여.

#1 한식에는, 한식에는 막 잘 출리진 안허곡.

청명

@1 아, 그리고 옛날에 이제 한식 ᄀᆞ르에 허면은 청멩도 ᄀᆞ치 오는 거잖아예. 청멩?

#1 으?

@1 삼월, 한식이 언제우꽈?

#1 한식이 삼월달인가.

@1 으.

#1 하튼.

@1 음력으로 삼월.

#1 으.

#2 음력 삼월ᄃᆞᆯ게.

@1 예. 여기 청멩.

#2 청명.

@1 청명은 언제?

#1 청명.

@1 예. 옛날엔 청명에들도 일들 하영 허지 안헙니까? 산담도 고치고 집에 뭐 고치고.

#1 거, 사월달에 잇는가, 청명? 잊어불엇네. (웃음)

@1 예, 어제 식목일날 청명.

#1 맞아. 으. 그 대개 식목일 그 근방에 한식이 들더라고.

@1 예.

#2 청명은 항상, 식목일.

#1 첨 산에 가테도 허고 또 산에. 첨 아무 때나 산은 못 ᄆᆞᆫ직아낫주게. 이 어른넨 ᄆᆞᆫ직아도.

@1 예, 예.

#1 그 우리는 첨 잘못 ᄆᆞᆫ직당 동티난덴 헤영.

#2 동티나카부덴 못 ᄆᆞᆫ직아. 게 나가 대충덜.

#1 산에도 첨 그런 청명이나 그런 날 아니민. 한식날도 허긴 허여.

@1 예.

#2 젤 무난허여. 한식날이.

@1 한식허고 청명이예?

#1 으.

@1 게믄 옛날에 그 산소에 강은에 벌초예, 묵은 풀들 이렇게 허는 것도 그때 헤?

#2 그때가 젤 좋아, 한식에.

@1 한식에. 음.

#2 그전에 잘 안 헤여, ᄆᆞᄉᆞ왕덜. 우린 뒈는데, 이 사람덜은 안 뒈어.

#1 (웃음)
@1 게난 청명에 강은에 허고.
#1 으.
@1 게믄 그때 산에 풀 베러 갈 때, 아니면은 산담돌이라도 이렇게 옮겨 놓젠 허면?
#1 그거주, 이제 돌이나 가테엔 허주. 이제 그 산에 테가 잘라 내분 거.
@1 예.
#1 흑 파당 영영 첨 테도 잘 입히곡 허는 거.
#2 보수, 보수헤 주는 거.
@1 그것을 가테렌 헙니까?
#1, 2 으, 가테.
@1 테를 더 얹어 준다는 의미구나.
#1 으.
@1 아, 가테허는 거예?
#1 가테엔.
@1 예, 게 그거를 이제 청명에.
#1 게 또 옛날에는 운이 안 맞앙.
#2 청명에 허민 숭이 없어.
#1 뭐 허민 그 용미제절이렌 헌 것이 잇어이, 산에이.
@1 예.
#1 용미제절도 거 청명 때, 한식 때나 강 헤주주.
@1 예.
#1 아무 때나 뭐 안 헷어.
#2 아무나 안 허여.
#1 건 그 돌아가신 분이 운이 안 맞다 허민 용미제절을 안 뽑아, 일부로.
@1 아, 저기 장례 지낼 때예?
#1 으.
@1 예.
#1 경헷당 낭중에 강 한식 때나 청명 때 강 용미제를. 게믄 그날은 쫌 무숭무해허다는 거주.
@1 응.
#1 즉 그 어떠한 걸 문직아도 동티 같은 거. 옛날엔 동티옌 허잖아.
@1 예, 예.
#1 동티가 안 생긴다는 거주.
#2 용미제절를 다 놓게 뒈면 꺼꾸로 한 장썩 따로 놓는데, 경허는데.
#1 이 어룬은 그런 걸, 몰르주, 동티엔 헌 걸 몰르주만은.
#2 그 무덤이 만들앙 시신이 강 영장을 헤도.
@1 예.
#2 아, 저 제절허고 저 용미를 안 허면 건 헛봉분 싼 것뿐이라.
@1 봉분이 아니라, 아.
#2 봉분이 아니야.
@1 예.

#2 이걸 놔야 제라헌 영장이 뒈는 거.
#1 (웃음).
@1 아.
#2 이거 놔야.
@1 아, 예. 삼춘, 용미가 뭐우꽈?
#2 용미 저 사름, 묘가 영 잇잖아. 영.
@1 예.
#2 영. 여기가 용미라.
@1 앞에?
#2 아, 젤 두에.
@1 아, 뒤에가?
#2 머리쪽이가 개늘거든, 영.
@1 아, 미구나, 미예?
#1 으. 거기가 앞 뒐 거주, 원래는.
@1 게니까 산소가.
#1 우리는 앞을.
@1 산소가 이렇게 하면 둥그스름허고 뒤에는 쪼끔 이렇게 뽈아지지 안헙니까?
#1 어.
#2 뽈아진 디가 용미.
@1 아, 여기가 용미?
#1 여기가 쏙 이렇게 헷주, 옛날엔이.
@1 예, 예, 예.
#2 용미.
#1 여기가 용미.
@1 예.
#2 앞에가 제단, 제단이 잇인 것이.
#1 용미를, 운이 안 맞덴 허민 용미를 안 뽑아낫주기, 영 안 헤낫주게.
#2 제절 앞이가 제단.
@1 요거 제절, 제단을 제절이렌 허지 안헙니까? 예?
#2 으, 으.
@1 예. 아, 이게 머리 이렇게 눕는 거구나. 이렇게.
#2 으. 그렇지.
@1 이렇게 뒈는 거구나.
#2 발이 높아.
@1 발이 높고예?
#2 머리가 용미.
@1 게믄 우리는 절헐 때 발 앞에서 절허는 거?
#1 어.
#2 그렇지, 것이 원칙이지.
@1 웨냐면 이렇게 일어낭 앚일 거니까예?
#2 그렇지, 것이 원칙이지. 절허면 앞이서 절허지, 뒤에 강 절허나?

#1 게난 발더레 절헴젠 허지. (웃음)
#2 나신디 잘들 들어, 그런 거는 나가 잘 알아.
#1 우리 발덜에 절헴젠 허주게. (웃음)
@1 예.
#2 모른 사람 발, 딱.
@1 누우니까.
#2 앚이면은 딱 절 받는 거 아니여.
@1 예.
#1 이딘 산 위치옌 허메.
@1 예.
#1 산 위치.
@1 살아 잇는 것처럼 헤서. 거난 이 용미가 머리처럼 이렇게 영 뽈아졍 헌 거예?
#1 으.
@1 게니까 그 영장을 허드레도 이게 그 돌아가신 분에 운에 안 맞으면?
#1 으.
@1 산 사람이 아니고?
#1 으.
@1 어.
#2 게메 용미허고 제절을 안 허민 제를, 마지막 제를 못 보는 거여.
@1 아.
#2 이것이 날짜를 딱 봥 헌 다음에.
#1 제를 안 지냉 오주. 음.
#2 이거 논, 논 다음에 제 보는 거야.
@1 그 맨 마지막 허는 제가 무슨 제우꽈?
#1 일폿제.
@1 아니, 일폿제는 저기 전날 허는 거고.
#1 아, 일폿제가 아니고 저.
@1 하관제 지낭은에 다음에?
#1 하관제 다음.
@1 예.
#1 그.
@1 초, 초제?
#1 아니, 아니.
#2 거 마지막 제라, 것이.
@1 산제?
#2 잘 이십서, 신고허는 제라.
@1 예. 겡 집에 들어온 다음엔 이제 재우제허고 초, 초제, 재우, 삼우제 허는 거고.
#1 이 어룬은 천리허레 많이 뎅기난 그걸 알 거주만은 난.
#2 나는 그런 건.
#1 이제 잊어, 잊어불어신게.
@1 아우, 교회 다녀도 천리허레 뎅, 뎅겸수과?

#1 아이구, 첨 많이.
@1 선수?
#1 선수주.
#2 (웃음)
@1 선수.
#1 그 담도 잘 답고.
@1 아.
#1 이 어룬이 돈 오죽, 상당히 돈 많이 벌언.
#2 (웃음)
#1 나는 돈 못 번 사람이주만은 이 어룬은 그런 거 헹 돈 많이 번 어룬이야.
@1 옛날에는 이제 산담이나 이런 거 헐 때도 그 날 봥은에 허고?
#2 똑 날 봐야 뒈.
#1 날 봥 허주. 그, 그.
#2 돌 하나 문직는 거 날 안 보믄 안 뒈어.
#1 비석 세우는 디도 날 봥 허주.
#2 우린 아멩이라도 허는디, 이 사름네는 첨 정성을 다 허여.
@1 보통 산담허는 게 장 헐 때도 허는 경우도 잇지만, 따로 강은에 헐 때도 잇잖아예?
#2 따로게.
@1 언제 헙니까, 보통은?
#2 아, 건 그 집안에 그 산에 맞은 날짜가 잇어.
@1 아.
#2 그때 허는 거.
@1 예.
#2 아무 날 허는 거 아니고. 날짜 봐야.
@1 음. 그다음에 예전에 쉐 질랏덴 허니까.
#2 으.
@1 청멩에 쉐 뭐 목장에 올려보거나 이러진 안 헷수과?
#2 다 올렷주, 다.
@1 건 언제 올려?
#1 아니.
#2 오월.
@1 여긴 오월에?
#2 양력 오월.
@1 아, 양력 오월에 여기는.
#2 땡, 일일 딱 뒈면은 올렷어, 우리. 쉐 키울 때. 오월 일일날 다 올렷어.
@1 오월 일일예. 게난 거 신경 안 써도 뒈고. 그다음에 여기는 혹시 절에도 뎅깁니까? 사월 초파일에 뭐 허는 거 잇어마씨?
#1 절?
@1 예.
#1 으, 절에도 뎅겨.
#2 뎅기는 사람, 멧 사름 이실 거라. 우리 동네도.

@1 사월 초파일에는 뭐 허여? 여기는 또 삼양은 원당봉에 절이 또 옛날부터 오래 됏잖아예.
#2 오래 됀언. 절, 절에 뎅기는 사름은 똑 가.
@1 음, 별도로 뭐 허는 건 엇고예?
#1 으.
#2 없어.

오월

단오 멩질

@1 음. 그다음에 단오 멩질. 아직도 오월이야, 큰일낫저.
#1 옛날엔 단오 멩질은 상당히 그 막 노는 날이엔 헹이.
@1 예.
#1 그 풍습이 상당히덜 첨 치마저고리 입엉덜 막.
#2 놀곡.
#1 여자 어른덜 놀레 가곡 막 헷주.
@1 아, 우리 제주도에서도 단오는 그렇게 헹 놀레 뎅견?
#1 옛날엔 놀앗어.
@1 어, 예.
#1 뭐 그네뛰기도 허곡 헷는데, 우리 어릴 때 그런 걸 헷당 중간에 엇어져 불엇더라고.
@1 예.
#1 음.
@1 여기에서는 그네는 무신 거렌 골아?
#2 바, 음식?
@1 아니.
#1 그네?
@1 으, 그네뛰기. 그네.
#2 여긴 없어, 삼양은.
@1 아까 삼, 저기 그네, 그네뛰기헷덴 허멍?
#1 그네뛰기.
#2 그네뛰기 난 안 헤 봣어.
#1 아니, 널뛰기도 허곡 그네뛰기도 그 저 한 번, 훈두 번 헷다고.
#2 어디, 어디서 허연?
@1 낭에, 큰 낭에 베 메영은에?
#1 어, 베 메영이.
@1 예. 궁글뚜기 헙니까?
#2 겐디 우리 거석은 엇어 부난 못 헷어, 나도.
@1 아, 거석은 엇고?
#2 으. 가물개는 잇어도 거석은 엇어.
#1 (웃음).
@1 아, 삼춘은 가물개난.

#2 안 헤 봔, 난 안 헤 봔.
@1 널뛰기 허는 거랑 이런 것도 봐 봔에? 삼춘예. 음. 요렇게 허고.
#1 우리 엿날에 그런 거 헷수다.
@1 그 단오 멩질은 어떤 식으로 헙니까?
#1 단오 멩질도 인제.
#2 밥만 헹 먹는 거주게.
#1 간단허게, 경 막 거나허게 출리진 안허주게.
#2 밥만 헹 먹는 것들. 허는 집이 잇고 안 허는 집이 잇고.

입하

@1 아, 아까 입하 뒈면 농사허는 건 잇지예? 입하에, 입하철에 농사는 뭐 허는 거 엇수과?
#1 입하에 인제 그때는 이제 그 여름 농사헐 걸 준비허주, 입하에.
@1 입하에. 그다음에 보리 같은 경우는 언제 비어?
#2 유월.
@1 유월.
#2 양력으로 유월.
@1 어, 음력으론 오월. 망종이 언제우꽈?
#2 망종도 이, 음력으로 허, 허지.
#1 입하 다음 망종이난. 망종은 유월, 유월절 들기 전에이.
@1 예, 유월절 들기 전에.
#1 오월달, 음력 오월?
@1 옛날 보리 잘허면 망종 전에 뭐 보리 다 거둬 들어야 뒌다?
#2 요새는 망종 전이도 허는 사름 잇어. 빨리덜 갈아.
@1 아, 빨리 가난예?
#2 엿날엔 딱 제 시기를 헹 갈앗는데.
@1 예.
#2 요새는 정체 엇이덜 빨리만 갈앙 허고 뭐. 콩도 마찬가지.
@1 뚯아젼, 날이 뚯아져 부니까.
#2 경헌 모양이야.
@1 게난 삼춘네는 망종 전이 보리 다 비어 들여야 뒌다 허는 이런 말 안 헤?
#2 안 헤봣어, 우리는.
@1 아. 그런 말 엇고.
#2 아, 우리는 딱 보리를, 우리 엿날 보리헐 적에는 유월 현충일 넘어야 우린 비어낫어.
@1 으, 망종에?
#2 어. 경 헹 비어낫어.
#1 어느 정도 익어.
@1 예.
#2 경 헤야지, 정체 엇이 농사를 지엉.
#1 엿날에는 저 줄로 홀, 홀트지 안허영이.
@1 예.
#1 그 줄로 홀트는 건.

#2 손으로 비곡.
#1 좀 익어야주, 인제 좀 익어야 허니까.
#2 헤다가 전부 다 집이서.
#1 잘못헹 보리가 누워 불어.
@1 예.
#1 장마나 지어 불민, 이른 장마나 오민 보리가 문짝허게 누웡 그걸 비젠 허민 첨 힘들주. 이 어룬넨 그냥 태작, 아, 그 후에 태작헷구나.
@1 예.
#2 으, 다 엿날에.
#1 그전에는 보릴 훌텅, 도께로 인젠 그걸 때리주게.
@1 예.
#1 때령 거 속, 그걸 인제 그.
#2 곡석을 만드는 것이주.
#1 쏠을 만들곡 영 헷는데. 그 최근에는 그 태작허, 태작이엔 헤영.
#2 기계로 이제 허는 거난.
#1 기계로 허주만은. 비멍 인젠 기계 허주만은 그전에는 홀탓어이.
@1 예.
#1 홀탕 그걸 이젠 다 홀타 놓민 그 도께 첨.
@1 도께로.
#1 거 도께로 인제 그 때령. 게난 홀트는 사름이 많이 홀, 일 잘허는 사름은 홀트는 것도 잘허곡.
@1 예.
#1 그 흔 사름이 거 뭐 얼마 헷저, 영 허는디. 우린 그런 거 많이 못 헤 보난 헤도 홀탓주.

유월

@1 예. 그다음에 유월절 들면예? 유월에. 우리 풍속 중에 유월에 잊어불지 안허는 풍속 뭐 잇수과?
#2 음력 유월이라?
@1 예, 음력 유월. 이사도 안 헌다 뭐 이런 말들도.
#1 어, 게난.
#2 제주 사름들은 절대 안 허여.
@1 음.
#1 이사도 안 허곡. 집에 거찌질 안허는 거라.
@1 예.
#1 어. 집에 뭐 고칠 것도 고치지 안허고, 또 탕탕 울리지도 안허고 경헷주, 인제.
@1 유월절에는예. 아무 것도 건드리지 않는 거.
#1 게난 미릿 유월절 들기 전에 모든 거 허라 영허주게. 모든 거 다 준비허렌. 게민 집 고치는 거나 그 첨 방 불르는 거나.
#2 자유로이 못 헷주.
#1 유월절 들기 전에 인제 헷주, 영 보민. 음.

@1 방 불르는 것도 봄에 불랏수과, 여기는?
#2 봄에.
#1 어, 유월절 들기 전에들 헷주.
#2 다 봄에.
@1 봄에예. 방에 뭐, 도, 도비허거나 이런 것들도 봄에 헌 거라예?
#2 그다음은, 그다음은 시월 넘엉은에 허곡.
@1 시월 넘엉 하고. 게믄 유월절 들엉은에 허면 그 유월엔 맨날 검질은 하영 메실 거고예?
#2 검질로 살앗주. 엿날 약이 엇으니까 검질, 다 밧디서 멧주게.
#1 검질덜 메레덜 많이 갓주, 인제.
@1 유월 스무날은 뭐 허는 날이우꽈?
#1 유월 스무날은.
#2 음력?
@1 예.
#1 아주 덥덴 허잖어이.
#2 (웃음)
@1 예.
#1 게난 고넹이 그 뭣고, 코도 뜨뜻헌덴 허잖아이.
@1 예.
#2 멘도롱헌덴 허여.
#1 멘도롱헌덴 허영.
#2 고넹이 코도 멘도롱허다.
@1 유월 스무날은?
#1 어.
#2 유월 스무날은.
#1 게난 그만큼.
#2 덥다는 거주게.
#1 더웡.
@1 그니까 유월 스무날은 고넹이 코도 멘도롱헤 부니까 그날 뭐 음식은 뭐헤 먹엇수과?
#2 아, 없어.
#1 냉국, 냉국. 대개 냉국덜이주.
@1 으.
#2 여, 여름에는 무조건 물웨 사당은에.
#1 옛날엔 장쿡 헤영 그거주, 인제.
#2 장쿡.
#1 장쿡, 냉국 헤영이.
@1 네.
#1 그 장쿡 냉국도 첨 배불게 먹어지민 상당히 좋은 거고. 그전에는 그것도 배불게 못 먹엉덜 어렵게덜 살앗주.
@1 여기는 둑 잡아먹진 안헷수과, 유월 스무날?
#2 없어. 아, 둑, 둑은.
@1 으.

#2 요새 ᄑᆞ는 거 잡아먹는 거 사당 먹는 것사 먹지게.

돜 잡아먹는 날

@1 아니, 옛날엔 유월 스무날, 제주도에 돜 잡아먹는 날이라고 헹은에?

#2 것도.

#1 맞아, 그런 풍습도.

#2 잇긴 잇는데 것도 이 삼양이동이 열 집이믄 세 집이나 돜 먹카?

@1 으.

#2 그 정도로 에 엇어. 못 먹어요.

@1 삼양이동이 옛날에 엄청 못 살앗나 봐.

#2 못 살앗어.

@1 예.

#1 아니, 삼양동만이 아니고 제주도 전체가 못 살앗주게.

@1 게도.

#2 근디 삼양일동보다는 우리가 ᄒᆞ끔 더 잘 살앗어.

@1 일동보다는예?

#2 어.

@1 여기가 땅이 ᄒᆞ꼼 널럿구나?

#2 아니, 좁아도 저기 일동에는 엿날부떠 우리가 농사질 때 농사가 아니고 노는 사름덜이 한 셍이라. 막 가난헹 만헤낫어. 겐 요샌 쪼꼼 젊은 아이들이 나사. 옛날은.

#1 옛날이 이렇게 보면은 이 농사짓는 사람은 그래도 농사가 안 뒛젠 헤도 그 ᄌᆞ냥허멍.

@1 먹는디.

#1 어, 먹을 걸 다 저축허잖아이. 일동은 바당 영업을 많이 헷주게.

#2 엇어. 겐 엇어, 엇어.

#1 경헹 그 ᄒᆞᆫ, 그 여름철이나 이렇게 고기 잡힐 때는 이 사람덜이 배불게 먹당 그다음 인제 그 흉년이나 저 봄 뒈민 막 어려우는 거라.

@1 예.

#1 그때가 인제 그 장려가 나오는 거주, 그때.

@1 으.

#1 게민 쏠 인제 ᄒᆞᆫ 뒈 주민 얼마헤영 장려 먹주, 그때는.

@1 예.

#1 어려와 놓니까[노니까].

@1 그 장려 먹는 게 몃 월에마씨? 보리고개 헐 때, 그?

#1 으, 보리고개 넘어가민.

@1 음.

#2 보릿고개가 첨말.

#1 그게 바로 보, 보릿고개주게.

#2 보릿고개가 젤 무서운 거.

@1 예.

#1 그때는 첨.

@1 오, 그게 음력, 양력 오월쯤 뒈겟구나?

#1 으.
@1 사오월예?
#1 푸린 저 뭣고.
#2 아니.
#1 청보리.
@1 예.
#2 청보리는.
#1 헤당 솖앙 먹을 때.
@1 오월.
#2 청보리는 오월 때.
@1 양력 오월.
#2 오월 한 이십일 경에.
#1 우리도 한땐 청보리 헤단 솖앙 먹어낫어.
@1 게난 그 청보리 헹은에 밥 솖은 그 쏠은 무슨 쏠이렌 헙니까?
#1 솔오리쏠. 솔오리.
@1 어.
#1 솔오리 헤영 그걸 인젠 그 물량. 아, 솖앙 물량.
@1 예. 음.
#1 경헹 찌엉 먹어낫주게. 청보리엔 헤영.
@1 청보리예?
#2 경헨 밥을 헹 먹엇주게.
@1 예. 그게 이제 오월에. 양력 오월 뒈겟네.
#2 양력 오월, 혼 이십일 경에.
@1 예.
#2 십일부떠 이십일 ᄉᆞ이.
#1 쏠이 엇인 사람덜은 다 경헷주.
#2 열매를 ᄒᆞ끔 쏠이 앚아얄 거 아이라게.
@1 예.
#2 너무 빨리 허민 물벳긴 엇어. 겨난 경허영 혼 십오일, 이십일 경에.
#1 반 여문 거 헤당 먹는 거주, 반 여문 거.
@1 반 여문 거예?
#2 경헤당.
#1 게, 오죽헤야 경헐 거라게.
@1 음.
#1 경헨 죽 쒀 먹는 거라, 죽. 밥이 안 뒈고 죽 쒀 먹는 거라.
#2 불쌍허여. 살안.
@1 게난게, 아이고 어떵허민 좋고. 겡 삼춘, 경헤도 유월 스무날은 ᄃᆞᆨ 잡아먹는 날은 맞아?
#1 맞주. 음, 음.
@1 예. 여기는 초복이여, 저 중복이여, 말복이여 안 헙니까?
#1 최근에 중복이여, 말복이여 허지. (웃음)
@1 예.

#2 어, 엿날엔.
#1 엿날엔 중복이여, 말복이여 건 절기.
@1 절기뿐?
#1 으, 절기 이름만이지. 덥다, 춥다 저 저 아주 초복, 중복 이거는 더운 걸 표시헷지, 뭐 저 독 잡아먹곡 이런 건 표현 안 헷주게. 지금이난 독 잡아먹곡, 개 잡아먹곡 헷주.

조 불리기

@1 그런 식으로 하고. 조는 언제 불렷수과?
#2 예에, 칠월달. 칠월.
@1 칠월달. 양력 칠월에?
#2 양력 칠월에. 보리헤 둉.
@1 예.
#2 게 조 가는 거지게.
@1 으.
#2 음력으론 유월.
@1 음력으로는 유월. 음력으로는 유월에 조 불리고 그 양력으로는 칠월 뒈는 거예? 게믄 유월 말에 마걷이 조니까 장마 끗나야 허는 거네.
#2 어.
@1 뭐, 소서여 대서여 그때 음력 유월에 농사허는 거, 조 불리는 거 말곤 엇어?
#2 엇어.
@1 엇어예.
#2 그땐 야튼 유월둘에 뒈야 콩도 굴곡.
@1 예.
#2 조도 불리곡.
#1 감저 싱그곡.
#2 고구마 싱그곡 허는 거라. 딱 세 가지. 제주도는 엿날은.
@1 콩, 조, 감저 싱그는 거예?
#2 어.
@1 이게 양력으로는 칠월?
#2 칠월.
@1 음력으로는 유월?
#2 어.

칠월

@1 그다음에 칠월 뒈면 그 칠석도 헙니까? 칠월 칠석?
#1 칠월 칠석허주게. 소 질루는 사름덜은.
#2 백중고ᄉᆞ라 헤서.
#1 백중고ᄉᆞ렌 허주게.
@1 아, 백중고사예.
#2 어.

@1 백중고ᄉᆞ헐 때는 어떤 식으로 헨? 삼춘 저기 소 허니까?
#2 아, 나는 안 허니까.
(모두 웃음)
#2 이 삼양이동 사람덜이 나신디 돈 ᄃᆞ렌.
@1 어.
#2 난 하나님 다 키와 부니깐 돈 낼 거 엇다.
@1 으.
#2 알앙허라 헨 나신디 돈 달렌 안 헤.
#1 하나님 아버지 허는 사람들은 안 허고.
@1 안 허고.
#2 안 허고. 빽이 잇는데 뭘.
@1 어떵? 칠월?
#1 우린, 우린 돈.
#2 냇주게.
@1 백중고ᄉᆞ 헤 봅서.
#1 천 원씩 백 원씩 내주게. 백 원씩.
@1 으.
#1 또 그때는 소 풀아도 돈 냇다고.
@1 아.
#1 경헹 그걸로 소도 인제 그 뭐고 제도 지내곡.
@1 예. 그 백중고ᄉᆞ 허는 것은 어떤 식으로 허는지 ᄀᆞᆯ아줘 봅서. 게믄 여기는 어느 목장에 강 헤마씨? 여기.
#2 저기, 저. 삼양목장.
#1 그전엔이 저 삼양목장이엔 잇엇주게.
@1 아, 삼양목장이 따로 잇엇구나.
#1 으, 잇엇는데 최근에이 엇어진 거라. 전두환 시절에 그냥 이 목장덜을 다 합병시켜야 헌 덴 헤영. 또 소 많이 안 질루곡 허는 동넨 없애 불곡.
@1 아.
#1 에, 지금 사삼사건, 그 땅, 옛날 땅 찾기가 그거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주.
@1 예. 게믄 여기 삼양목장은 어디 동네라난?
#1 우리?
#2 봉개동.
@1 봉개동에?
#1 어, 회천동 그 우쪽.
#2 봉개동, 봉개동.
@1 거기에 이제 쉐를 올리는 거라예?
#1 으.

백중고사

@1 게믄 백중고사 헌 거 한 번 ᄀᆞᆯ아줘 봅서. 어떤 식으로 헤신지.
#1 백중고사는 그때도 인제 도세기 잡앙 헐 때 잇고.

@1 예.
#1 그냥 도세기 갈라당덜 허주게, 게민.
#2 게난 거 소덜 잇는 사름.
#1 으, 그때 인제 뭐 허는고 허민 일 년에 그, 돈 모은 것덜.
@1 예.
#1 게민 작년에 목장에서 올령 돈 받은 거, 또 그런 걸 다 그때 문서 닦주[딱쭈], 인제. 경헹 인젠 허다 보니까 우리 ᄆᆞ을에는 목장밧도 만들곡 영 헤낫주, 인제.
@1 으.
#1 그 후에 인제 그 지금 와서는 인제 엇어졈주만은 딱 그런 그 옛날 어른덜은 하나의 그 백중 그날이 인제 모든 걸, 그 소 질루는 사람 모영덜 회일 헤낫어.
@1 아. 백중에, 예. 게믄 여기는 백중은 몃, 며칠이 백중이우꽈, 이 동네는?
#1 으?
@1 메칠이 백중? 이 동네는.
#1 칠월 칠석 아니?
@1 아니.
#2 날짜를 그, 그때.
@1 칠월 십사일.
#1 으.
#2 으, 이 날짜를.
@1 음.
#2 칠월 보름 전이니까 거 제관덜이 날짜를 택헤여.
@1 예, 아.
#2 겐 나만 참석 아년 사름이주만은.
@1 게난 쉐는 질롸도 가지도 안헤여?
#2 안 가.
@1 아이고, 진짜, 아.
#2 어, 그거 원 무슨.
@1 아, 그때 잘 봥 놔둬시믄 오늘 ᄀᆞᆯ아줄 건디게, 안 가 부니까.
#2 나는 제관, 게난 안 ᄀᆞᆯ앗어? 이디 아녀민 난 그런 건, 절대 제는 모른다.
@1 예.
#1 이 어룬 게믄 지금 뭣고?
#2 무사?
#1 이 어른이 그 번영회 회장 뒛잖아.
#2 (웃음)
@1 예.
#1 이 사람이 돈도 안 탈 거주게.
@1 예.
#1 우리가 목장. 그 우리 소 질룬 사람덜 돈 모앙 목장밧도 만들곡 헷는데 돈 갈를 땐 꼭 같이 갈랏다고 이 양반이.
(모두 웃음)
@1 쉐 질롯다는 이유로예?

#1 어.
#2 나가 엇어시믄.
#1 이 어룬덜이.
#2 나가 엇어시믄 그 목장도 엇어.
#1 게, 이 목소리 큰 사름들이 대개 영 보민 대장허는 거라.
(모두 웃음)
@1 ᄒᆞ끔 더 크게 ᄀᆞᆯ읍서. (웃음)
#1 안 좋은 거라.
#2 나 아니라시믄이, 이 목장도 다 엇어져불 거.
@1 경헨 그거 목장 춧안?
#2 풀안. 다 갈라줘불언.
@1 다 갈라줜예?
#2 ᄒᆞ꼼 남앗주게.
@1 게믄 백중에 이제 저기 테우리꾼, 여기 뭐지? 아까 백중고사 헷잖아예. 그거 말고 당에 강은에 백중 마불림제 허는 건 엇인가마씨?
#2 건 엇어실걸.
#1 으, 엇엇어.

모살뜸

@1 그건 잘 그렇게 허고예. 여긴 삼양이니까 모살구침. 모살뜸?
#1 모살뜸, 음. 여기.
@1 그 모살뜸 헌 거 얘기 쫌 ᄀᆞᆯ아 줍서. 여기 삼양이니까 그게 제일 유명헌 거 아니? 여름에.
#2 으. ᄀᆞᆯ아 불어.
#1 아니, 뭐 다 아는 거 아니? 요.
@1 아니, 모릅니다게.
#1 해수욕장에, 그 해수욕장에 그 까만 모래, 그 모래가 인제 영 보민 상당히 뭐 신경통에 좋다, 뭐 소문나 놓난[노난] 막 많이덜 왕, 육지서도 오주게.
@1 아.
#1 또 일본에서도 오고. 경헹덜 그 헷는데 최근에는 쪼끔 덜 오더라고.
#2 경헤도 여름에는 많이 와.
@1 게믄 그 모살, 여기는 모살구침이렌?
#1 모살뜸.
@1 모살뜸예, 모살뜸은 어느 정도 허당 가마씨? 막 그디 강 살멍은에 모살뜸 허는 사람도 잇다고 헙디다?
#1 어, 일주일 동안 허여이.
@1 아.
#2 열흘 허는 사름도, 일주일이 젤 좋지, 일주일. 게민은 여기 파 놔.
@1 예.
#2 모래 영 파 놩. 거기 관리자가 잇어. 돈 받는 사람. 딱 들어가면은 딱 묻어줘. 모랠 묻어주면 요ᄁᆞ지. 딱 묻으민 일어나지도 못허여. 딱 묻엉.
@1 아, 얼굴만 내밀엉 다 묻엉.

#2 어, 얼굴만 딱 만들엉.
@1 익지 안헤여? 그 여름에.
#2 아니, 익어도 어떵헤게, 병 고찌젠 허민 헤야주게.
@1 근데 진짜 효험이 이수과?
#2 응, 잇어. 이디 저 노인복지 저 관.
#1 그 영 보민.
#2 하르방은.
#1 대개 신경통.
@1 예.
#1 신경통, 피부 이런 병은 쪼금 치료가 뒈는 모양이라, 영 보민이.
@1 으.
#2 잘 뒈어.
@1 예.
#1 치료가 뒈곡. 그게 이제 큰병들은 안 뒈주게.
#2 미스무시 잇어, 미스미시덜 엇어?
@1 미스미수. 예.
#2 어. 잇는 사람 여름에 왕은에 한 번 양말 벗고.
@1 예.
#2 신발 벗고 혼 번 걸어봐 봐, 딱 낫아.
@1 알앗수다. 올 여름에 꼭 와야 뒈켜.
#2 우시개 아니고.
@3 무좀?
@2 음.
#2 무좀.
@1 예.
#2 딱 좋아 불어.
@1 딱 좋아 불어예. 그것도 돈 받으카마씨?
#2 아, 건 건 모래, 모래밧 걸어가면 뒈어. 또 아칙이, 아척 새벽이 ᄋᆞ섯 시, 아니 다섯 시 사십 분만 뒈믄 왕 모래밧 걸어봐.
@1 다섯 시 사십 분에? 알앗수다.
#2 기가 막히게 좋아.
@1 다섯 시 사십 분에.
#2 깨나지도 못헐 거라게.
(모두 웃음)

물맞이

@1 전날 왕, 요 요, 옆에 똑 세왕은에. 자, 그런 식으로 허고. 여기도 물맞이도 헤마씨?
#1 엿날에 물 맞은 거 헤낫주게이.
#2 물 맞아나는 거 헤낫지.
@1 어디서 헤낫수과?
#2 물 나는 디. 바로 우에 잇어.

#1 그, 그 어 뭣고, 물 나오는, 우리 수원지 바로 우에, 엿날에는 요 그 가물개엔 헌 이 동네는 아무 디 강 훈 일 메다만 파민 물이 나와낫어.
@1 아.
#1 물이 지금도 물 나올 거라게. 게난 저기 인제 그때 그 밑에 한 삼, 삼 메다 판 물 올려낫주게. 경헹 그걸로 물맞이.
@1 백중 때?
#1 응.
#2 아, 아튼 여름 때는 그 물 맞으레 돈 주멍 왕 맞아 가.
@1 아, 사람들, 여기 이 동네 사람 말고도?
#2 으. 돈 주멍.
@1 돈 주멍예? 게난 그거 이제 더위 깨렌 맞는 거 아니라예?
#2 신경통 좋게.
@1 신경통 좋게.
#1 어.
@1 어,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뭐 처서니 입추니 이런 것들은 절기는 엇수과? 허는 거.
#2 예, 우리 이 동네는 엇을걸. 난 몰르켜만은. 엇지? 엇일 거라.
#1 절기 겅, 처서나 그런 건.
#2 엇일 거여.
#1 하나의 막 더운 날을 표시허는 거주.
@1 예, 예. 엇고예. 알앗수다. 칠월까지만 어떵. 점, 점심도 드셔야 뒈는데 저희들이 막 붙잡아 분 거 닮아.
#2 빨리 헤 불어.
@1 팔월, 구월부떠 십이월까지 가야 뒈는데.
#2 허여, 빨리게.
@3 빨리 허렌. (웃음)
@1 아, 이거예, 팔월 멩질 허당 보민 오래 걸릴 거 닮고.
#2 팔월 멩질. (웃음)
@1 저기 다음 주에 십사일날, 그날. (생략)

팔월

@1 팔월에 그 저 소분허는 날.
#1 소분ᄒᆞ곡 또 뭣 특별히 뭐 ᄒᆞ는 게 엇어. 팔월달엔 헤 보니까 추석 멩질.
@1 음.
#1 그거 인제.
@1 허는 거.
#1 으.

벌초

@1 거난 그 저기 팔월 초ᄒᆞ루 도소분헷덴 허멍예?
#1 도소분? (웃음).

@1 도소분은 무시거꽈? 으.

#1 도소분은 첨, 우리 그 영 보민.

#2 날짜, 저 팔월달에는 언제나 그 절기가 잊어 놓니까[노니까] 벌초허는 거주. 그 집안에 다 틀려.

@1 응.

#2 벌초ᄒᆞ는 것도.

@1 벌초허는 것도예? 응.

#2 어떤 집안은 일요일날 막 허는 디가 잇고. 어떤 집안은 토요일날 허는 디가 잇고. 이 공직에 잇는 아이들 잇어 부난.

@1 예, 요즘은 그렇게 허고.

#2 응.

#1 엿날에는.

#2 엿날은 거 엇엇고.

@1 응.

#1 초ᄒᆞ룰 팔월 초ᄒᆞ룰 인제, 어느 집안이던지 팔월 초ᄒᆞ룰은, 음력 초ᄒᆞ룰은 벌초ᄒᆞᆯ 걸로 ᄒᆞ연.

@1 예.

#1 어 경헹덜 약속덜을 헤낫주. 경헨 인제, 팔월달은 좀 이제 초상에 대한 그 성묘.

@1 음.

#1 그걸 인제 많이 생각ᄒᆞ곡 첨, 팔월 추석이야 인제 영 보민. 지금은 이제 그때 영 보민.

@1 으.

#1 그날로 기헤서 인제 가을 곡석덜 인제 거둬들이는 걸 많이 생각헷주, 영 보민.

@1 아, 팔월 멩질을 헤서예?

#1 음.

팔월 멩질

@1 게믄 팔월 멩질을 할 때는 특별한 특별식이 이신가마씨? 우리 정월 초ᄒᆞ루에 묵 쑤는 것처럼.

#1 으, 그 이제 팔월 추석도 인제.

#2 먹는 건 똑같을걸.

@1 으.

#1 그 달.

@1 예.

#1 달을 위주로 이제는 뭐 ᄒᆞ주. 달 위주ᄒᆞ곡 인제 곡식 거둬들이는 거.

@1 예.

#1 그런 거 위주로 헷주.

@1 음, 어쨋든 그난 우리 다른 데 같으면 추수감사제처럼 팔월에 이렇게 하는 거라예. 게, 팔월 멩질날 뭐 옷을 따로 허거나, 집을 창호지를 볼르거나 이런 것들은 안 허여?

#1 팔월 멩질날?

@1 예.

#1 그전에 허주, 그전에.

@1 그전에?
#1 으.
@1 보통 언제 헙디가?
#1 그 팔월 멩질 전에 인제 영 보민 창호지로 허영 창들 볼르지 아녀이?
@1 예.
#1 으, 그 전에들 헷어.
#2 하튼 저 멩질 전에들 허주.
#1 소님들 그.
@1 예, 멩질 전에예?
#2 으, 초상들 ᄒᆞ곡 깨끗ᄒᆞ게 와근에 문장도 ᄒᆞ끔 볼른 거 보곡 헹.
@1 음.
#2 게 헤영 오는 거주 무신, 경 아녀믄 할망덜 요새는 엇주만은. 엿날엔 경헷주.
@1 예. 게믄 이제 팔월 멩질은 아멩헤도 달이 뜨니까.
#1 음.
@1 뭐 그날 놀거나 이추룩들도 헤수과?
#2 엿날에는 놀앗지. ᄒᆞ끔이. 요새는 안 놀아. 요새는.
#1 엿날에는 첨, 팔월 추석 뒈민 달이 밝으니까.
@1 예.
#1 지금 같으면 전, 전깃불이 많으니까.
@1 응.
#1 그렇게 기대 안 허는데 그때는 달이 인제 밝으니까 인제 좀, 어린 애들토 나왕 놀곡, 거리에 막 그냥 많이덜 나왕 놀앗주, 인제.
@1 으. 주로 무슨 놀이를 헤마씨?
#1 그때는 영 보민 대개 오, 다스께, 오니다스께엔 헤여. 일본말로.
@1 예.
#1 그 오니 정헹 돌아뎅기멍 영 그 잡는 거 ᄒᆞ곡.
@1 응.
#1 또 이제 영 보민 그 여자들은 그네뛰기 거튼 거.
@1 응.
#1 그런 거 쪼금.
@1 그런 거 하고예? 그다음에 팔월.
#1 민속놀이.
@1 민속놀이예?
#1 민속놀이 대개.
@1 민속놀이 하고. 그다음 아까 이제 팔월 멩질을 고비로 헤 갖고 이제 추수허는 것들 헷잖아예?
#1 으.
@1 가을걷이들. 촐도 그때 허곡?
#2 촐.

촐 장만

@1 촐은 언제덜 헤수과?
#2 하튼 멩질 넘으믄 헤여.
@1 응.
#2 우리 엿날 우리 헐 저, 촐 빌 적에는 그전에 ᄒᆞ는 사름도 잇고, 멩질 넘엉 ᄒᆞ는 사람이 만허여.
@1 명질 먹엉예? 여기는 좀호미로 다 비지예?
#2 호미로.
@1 호미로. 응. 큰낫으로 안 허고예?
#1 음.
#2 거는 동이, 동이 사람들은 낫으로 허는디. 여긴 다 좀호미로.
#1 좀호미로 많이 헷주.
@1 으.
#2 게난 나중엔 나도 그 낫 흠 헤 봣는데 세 사람도 보단 더 비여. 낫이.
@1 아, 낫이.
#2 어, 비어 보니까.
@1 비어 보난예? 건디 그걸 알아신디 무사 좀호미로만 헤신고?
#2 그때는이.
@1 예.
#2 낫이. 여기 사람들 낫을 몰라.
@1 음.
#2 동인 헤도. 여기는 몰라.
@1 몰르고.
#2 동이 사람들은 무조건 봉분도 거 낫으로 다 허는데.
@1 예.
#2 여긴 호미로만 다 헷거든?
@1 예.
#2 겡헤 가지고 그 후에 낫 후에 기계가 나완 예초기로 비엇어.
@1 이제는 예초기로예?
#2 촐을.

구월

@1 예. 구월 들면, 상강 들면은 상강 관련한 얘기는 뭐 엇인가마씨?
#1 상강, 상강이 내리면은.
@1 응.
#1 이 곡식 ᄀᆞ튼 것도 인제 그때 뒈민 거즘 걸 걷어들엿주. 상강 내리면은.
@1 응.
#1 콩 같은 것도 그때까진 안 놧. 경헹.
#2 옛날 저 어른덜이, 나는 듣기론.
@1 응.
#2 저 상강 지면은.

@1 예.
#2 열매가 백 프로가 이거 다슷 개다, 이.
@1 응.
#2 세 개쯤, 두 개쯤 익지 않은 것이 잇어. 요거 익젠 허믄 밑에 것이 다 떨어져 불어.
@1 응.
#2 게 때문에 상강을 지면은 이거를 보지 말고 수확을 하라.
@1 응.
#2 옛날에 경헷어. 우리 헐 때.
@1 예.
#2 게 요즘은 몰라.
@1 상강 지면 익엇저, 설엇저 허지 말앙은에 다 걷어들이라.
#2 으, 다 비엇거든, 거두왓거든. 우리는.
@1 으,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2 음.
@1 그다음 입동에 보리는 어느 철에 가는 거?
#2 보리는 시월에. 양력으로.
@1 양력 시월에 보리 갈아마씨?
#2 으.
#1 아니주.
@1 음력 시월이 아니고?
#2 양력으로.
#1 양력 시월이민 너무 일러.
#2 양력으로 무조건 갈아, 갈아.
#1 (웃음).
@1 삼춘은 다 양력만 허겟다고.
#2 아, 양력으로 헤야 맞는덴 허니까.
#1 아, 이 어룬.
#2 모든 곡식 파종이고 뭐이고 간에.
#1 그런 걸 잘 알앗어.
#2 아이, 그 인정을 허여만은. 절기가 안 맞아.
@1 절기가 안 맞아.
#2 둘, 둘은이 헤도, 양력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맞아.
@1 양력으로 다 맞아?
#2 파종 뭐.

십일월

@1 게믄 양력 시월에 보리 갈고? 음, 그다음 십일월 동지 풋죽 헤근에 뭐 헌 건 이수과?
#2 그난 동지 때 동지 때 동짓날 허는 거주게. 십이월, 양력으로 십이월 이십이일날.
@1 으.
#2 그날이주게, 그날. 게난 음력으로 헤근에는 죽 못 먹어.

@1 죽 못 먹어예?
@2 (웃음).
@1 게난 절기를 양력, 음력을 딱 나눠은에 우리가 헤야 됌큰게.
#2 으, 걸 헤야지.

십이월

동지 풋죽

@1 동지 풋죽에는 뭐, 동지 풋죽으로 헤 갖고 그 뭐 방쉬를 허거나 뭐 집에 케우리거나 이런 거는 봐 봔마씨?
#1 엿날에는 어, 첨 풋죽 쒕.
#2 게 그런 거 먹는 건 엇어. 나 생각에는.
@1 응.
#2 몰라. 이디허고 나는 틀리니까. 우린.
@1 예수님 믿어 부난게.
#2 동지, 동지니까 음식을 헹 먹는 거지게.
@1 예.
#2 거, 똑같은 거야. 그.
@1 그렇지.
#2 제 허나 나 허나.
@1 제만 안 허는 거뿐이지.
#2 뭐 똑같은 거지, 거.
@1 게 삼춘네도 동지에 죽 먹잖아예?
#2 게 죽 쒕 먹지 놈 먹는디 안 먹어지나게.
@1 건 세시풍속이니까.
#2 아, 첨 이상허네.
@1 (웃음). 여기, 여기서도.
#1 것도 영 보민, 동지죽도.
@1 예.
#1 저거 애동지는 죽을 안 쑤주게.
@1 예.
#1 애동지에는이.
@1 예.
#1 뭐 그날은 죽 안 쑤고. 그 첨, 죽 안 쒕 그냥 넘기는 때가 만허여, 영 보민.
@1 으. 애동지는 언제가 애동지렌 헙니까?
#1 애동지는 이제 나는.
#2 절기가 ᄒᆞ꼼 틀리데.
#1 그 동지, 동짓날도 그, 검을 개 잔가? 저 어릴 개 잔가 여튼.
@1 으.
#1 개 자가 그, 딴 그 개 자가 잇어.
@1 예.

#1 그날 같이 겹치면은 안 허드라고.
@1 응.
#1 애동지옌 헹.
@1 애동지옌 헹예? 게 애동지에는 죽을 안 먹어.
#1 으.

집 일기

@1 풋밥 정도 먹어실 거고. 그다음에 그 동지 들어가면은 뭐 대설 이런 것도 오잖아예? 장 담그고 집 짓는 건. 집 저기 새 이는 거는 언제 헤? 집 이는 거.
#1 으, 건.
#2 봄, 저, 양력으론 일월달.
@1 예.
#2 일월덜에 집덜을 많이 일어.
@1 집에 일월에?
#2 경허믄 묵은해라.
@1 묵은해예? 으, 음력으로는 묵은해지.
#2 으. 양력으론 혼 일월, 이월달.
@1 아.
#2 게, 둣거든. ᄒᆞ끔게.
@1 으, 둣이난?
#2 으.
@1 게믄, 새 헤 들이는 건 언제 헤 들여?
#2 하튼 시월에.
@1 시월에.
#2 저 시월, 십일월에.
#1 음, 이 어룬은 많이 헤나난.

장 담그기

@1 응, 예. 그렇게 이제 하고예. 그다음에 장은 언제 담읍니까? 이 동네.
#1 무시거?
@1 장.
#2 장, 장.
#1 장 담는 거?
@1 예.
#1 에, 것도 잊어. 나는 잘 몰르겟네. 여자 그.
@1 맞수다.
#2 그 할망안티 들어보주게.
#1 으, 아까.
@1 예, 예, 예. 알앗수다.
#1 으.

신구간

@1 그다음에 십이월 허게 뒈면 그 옛날에 신구간에들은 남자들은 주로 무슨 일 헤신고마씨?
#2 신구간에 남저 홀 것이 잇어?
@1 무사 집 고치고 허는 것들도 헷덴 헨게만은.
#1 음. 거 신구간 뒈민.
@1 예.
#1 여튼 근, 그날 그 뭐 만져도 무숭무해헌다 헹.
@1 응.
#1 신구간에 집덜토 잘 고친, 많이 고쳣주.
#2 잘 고치고.
@1 응.
#1 뭐 쉐막 고치고 이런 거. 다 흑질허는 거 다 대개 많이 헷주.
@1 예.
#1 음, 미릿 또 그날 못허민, 그때 못허민 미릿 그 낭중에 고치쿠덴 헤영 망치로 닥닥허게 멧 곤데 때렷당.
@1 으.
#1 그 한글헐 때 인제 그 고치곡. 영 ᄒᆞ주게.
@1 미리 알렴구나예?
#1 으. 미리.
@1 신구간 때.
#1 으, 신구간에. 나 이날 다 못헴시메 딴 날 헤도 (웃음) 놀래지 맙센 헤영.
@1 아.
#1 그런 식이주게, 영 보민.
@1 말명 겅 헤난 다음에 허고예?
#1 으. 그추. 말명 안 헤도 망치로 몃 군데 때령 놔두민.
@1 음.
#1 건 하나의 그 예방법으로.
@1 예방법으로.
#1 응, 경 헷주.
@1 으, 그니까 숭보지 말렌 허는 거 아니라예?
#1 응.
@1 신구간은 언제가 신구간이꽈?
#1 신구간은 영 보니까 에, 음력 십이월.
@1 예.
#1 으. 뭐가 그.
#2 하여튼 음력으론 묵은헤. 다들 묵은헤 허는 거.
#1 아니, 아, 십이월 그 뭐 넘어가민 일주일 잇당 허는 건데.
@1 예. 대한, 대한.
#1 어, 대한. 대한 넘어.
@1 예.
#1 대한 넘어 한 일주일 넘으민, 그 사이에 인제 신구간 들기 전에이.

@1 예.
#1 신구간 그냥 잡앙 그 이사덜, 이사덜 허주. 영 보민.
@1 음.
#1 그때는 지금같이 그 한철허게 집이나 짓엉 사는 사람이 멧 안 뒈주게. 영 보민.
@1 예.
#1 그 집, 이사들을 많이 헷어, 자주.
@1 예.
#1 응.
@1 그때 이사는 다 신구간에들 허는 거 아니라예?
#1 응, 신구간에. (생략)
@1 예, 겡은에 그때덜 신구간. 예전에는 이제야 차 이시난 헴주덜만은 옛날에 이사헐 때들은 어떤 식으로 이사헤신고예?
#2 요즘은, 옛날엔 솟단지허곡.
#1 엿날에 이사헐 때는 우선 솟부터. 겨곡.
#2 솟ᄒᆞ고 요강단지ᄒᆞ곡.
#1 불도 인제 묵은 집에 불 담앙 ᄀᆞ치 헷주게, 인제.
@1 음.
#2 화로, 화로를 똑 앗앙 갓어. 화로.
#1 음.
@1 화로 헹은에 불 담앙예?
#2 불 담앙 화로.
#1 솟부터 문첨.
#2 솟, 요강단지허곡.
@1 요강단지허곡. 건 무사 그걸 앗앙 갓덴 헙니까?
#1 거 인제.
#2 젤 필요헌 것이 거라.
@1 으.
#2 다른 게 필요헌 거 없어. 다 거라. 불ᄒᆞ곡 요강단지 엇이민 어정 허렌.
@1 음.
#2 그 엿날엔 그것벳긔 읏어.
#1 그전엔 그 불이 귀헷주게.
@1 예.
#1 불이 먼첨 가면은 또 불이 모든 걸 집안에 그.
@1 일으켜 세워.
#1 으, 첨 모든 거 이제 잘 뒈게 헤준다는 그 뜻도 잇고. 불도 불이 이 귀허니까 우선 불부떠 가져강 그 불 소시, 그 불은 인준헌덴.
@1 예.
#1 불을 인준헌덴 헤낫어이.
@1 예.
#1 으, 경 헹 불ᄒᆞ곡 그 솟ᄒᆞ곡 우선 그걸 앞세왕 가져갓주.
소한·대한

@1 음.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예. 그다음에 우리 섣둘 뒈면 십이월 뒈면은 소한, 대한.

#1 그거 소한이. (웃음) 게난 그런 게 어디 이 엿날에는 소한, 대한에 나간 사람 첨, 돌아올 생각을 말렌 헤낫주게.

@1 예.

#1 그만이 많이 춥고 상당히 일기가 안 좋은 거라.

@1 으.

#1 경헹 그 말을 헌 거 닮아붸. 영 보민.

#2 엿날엔 경 헷지. 엿날엔.

@1 예. 요즘은 안 얼어예?

#1 으.

@1 옛날 비허면.

#2 엿날엔 또.

#1 지금은 뜨신 잠바도 잇고 모든 게 좋아지지 안 헷어이?

@1 예.

#1 그때는 그 옷도 상뎅히 귀헷주게. 게민 눈 오곡 ᄒᆞ민 추웡 얼엉 죽는 사람이 많앗주게.

@1 예.

#1 응. 얼엉 죽는 사람. 바다에 나간 사름. 풍파가, 파도가 쎄곡. 이런 거 때문에 소한, 대한을 상당히 거 위험스럽게 셍각헷주게.

#2 하튼 바다에, 바다에 어업허는 사람들은 소한, 대한에 나간 사람들은 춪아보지 말렌 헌 것이 그 말이라.

#1 음.

@1 예.

#2 가면은 오질 못헤여.

@1 바당엘 가든 어딜 가든예?

#2 ᄇᆞ름 불면은 쎄 놓니까. 엿날은 다 이거 아이라게.

@1 예, 예.

#2 이거라 놓니까. 돗대, 돗대 달앙 가는, 가당 보민 확 헹.

#1 낚베

@1 무신 베?

#1 낚베, 낚베

@1 낚베덜예.

#2 젓는 낚베덜.

#1 낚베, 나무로 만든 그추룩 작은 베보고 낚베옌 헤낫주, 그때는.

@1 예.

#1 경 낚베덜 헤영 갈치 잡으레도 가고 영 헷는데. 대개 이제 소한, 대한 사이에는 잘 멩심헹덜 안 갓어.

#2 멩심헹 안 가.

#1 으.

@1 음. 워낙 ᄇᆞ름도 쎄곡 허니까 추우니까.

#1 음. ᄇᆞ름도 쎄고 일기가 상뎅히 갑자기 불순허니까.

#2 혼동이, 그때 뒈민 혼동이, 바람이. 갑자기[깝짜기] 저항 받당도 경 헹은에 헤낫거든, 엿

날에.

@1 예. 어쨋든 그때 가장 춥고 허난예?

#1 음.

@1 그때는 조심헹 안 가기도 허고예?

#2 겟주.

@1 알앗수다. 요 정도로 하고 우리 사진 몃 군데 찍는데. 당허고예?

#2 글아 주마, 나가.

@1 예. 이제.

3. 제주시 삼양2동(2)

- 조사 일시: 2021년 4월 14일
- 조사 장소: 삼양2동 복지회관
- 조사자: @1 김순자 @2 김미진 @3 최연미 @4 오경임
- 제보자: #3 강병숙

팔월

팔월 도소분

@1 삼춘 옛날 그 도소분 헤난 얘기 ᄒᆞ꼼 헤줍서. 어떤 식으로 도소분은 헨마씸?
#3 도소분은 팔월 초ᄒᆞ를날, 팔월 초ᄒᆞ를날로 온 이제 자손들이 다 모영 선묘에 간.
@1 응.
#3 벌초헹 왓주게.
@1 게난 삼춘네는 도소분헐 때는 멧 명이나 모다들엉 헤연?
#3 멧 명, ᄌᆞ순 한 집안은 한 대로.
@1 응.
#3 작은 집안은 작은 대로.
@1 음.
#3 우리 친정은 이 삼양에 입도 하르버지가, 우리 입도 하르버지가 십오 대 손녀난.
@1 음.
#3 진주 강씨.
@1 예.
#3 경허난 모이믄 엄청나.
@1 음.
#3 경훈, 그전에는 육지서도 오곡, 제주도에서도 그자 시간 나는 대로 다 두 번챗날은 와.
@1 음, 그렇구나예. 게난 그 도소분 헐 때 아깐 강칩이 얘기헌 거?
#3 으, 으.
@1 강칩이 허는 거예. 게난 그 예전에 도소분 헐 때는 다 방학도 허지 안헤수과예?
#3 으, 어, 어, 어.
@1 그때 그 도소분 헌 다음에 집안 벌초 헙니까? 어떤 식으로 허여?
#3 어, 도소분 끗나믄 집안 벌초.
@1 음, 게믄 그때 도소분 헐 때는 이러한 그 산에 뭐 가져가는 것도 잇어?
#3 그렇지.
@1 뭘 가졍 가?
#3 뭐 과일 거뜬 거, 적갈.
@1 음.
#3 술, 다 할 건데.

@1 게난 다 선묘마다 다 헹은에 절허여예?
#3 으.
@1 이제도 겅 헴수과?
#3 이제도.
@1 음.
#3 이제도 허는 집안은 일체. 아니, 다 이 예수교 믿지 아녀는 사름은 다.
@1 음, 다 허고, 음. 요즘도 도소분 팔월 초ᄒᆞ룰날 헴수과?
#3 응.
@1 아, 삼춘넨 팔월 초ᄒᆞ룰날 허멘예? 이젠 막 일요일날 헹은에 옮기기도 헨게만은.
#3 아, 이제는 일요일날로 저 직장 손주덜이 이시난.
@1 음.
#3 일요일날로 대목 허주게.
@1 예, 거난 예전에는 다 팔월.
#3 초ᄒᆞ루.
@1 초ᄒᆞ룰날예?
#3 이전에는 팔월 초 일요일날.
@1 음. 그난 그 벌초는 ᄒᆞᆫ번만 헤수과? 일 년에 멧 번 헤수과?
#3 아, 그건 자손 성의가 잇어야.
@1 아.
#3 일 년에 팔월 이제 초ᄒᆞ룰날 ᄒᆞ곡 또 이 저 오월 단오 가차와 가믄 또 풀이 막 왕상허주게. 게난 맞아, 엿날은 두 번 허는 디 엇어. 이제는 대충 두 번 허대.
@1 아, 이제는 두 번 허고예? 거난 그 단오 가차와 가믄 헴구나.
#3 음.

팔월 멩질

@1 삼춘 그고 팔월 멩질, 팔월 멩질 헤젠 허믄 일이 하서예?
#3 하.
@1 어떵 헤수과? 준비헐 때부터 쭉 ᄀᆞᆯ아줘 봅서, 한 번.
#3 준비, 엿날은.
@1 으.
#3 이제는 이 공판장이 잇어근에 뒈지고기라도 허주. 엿날은 멧 집이 뒈지 ᄒᆞᆫ 머리 사당 잡아. 그걸로 ᄒᆞ곡.
@1 음.
#3 메밀ᄀᆞ를 받아당 메밀묵 쑤곡. 바다고기 헤영.
@1 음.
#3 콩ᄂᆞ물, 고사리 그거.
@1 그런 거 다 준비허곡예? 그 옷도 준비허지 안헨?
#3 옷은 으, 좀 이제 선비 집안에는 그 옷.
@1 예. 도복
#3 도복.
@1 으.

#3 그거 입지만은 그거 이젠 벨로.
@1 아, 그냥 제볼 때 그냥 깨끗한 옷만 입엉 헴구나예?
#3 으.
@1 으, 게난 옛날에는 그, 그니까 멩질옷덜 준비허젠 허면예?
#3 으.
@1 어른 것들도 잇지만 아이들도.
#3 아이 것도 허곡. 우리 것도 춤 입단 옷이라도, 엿날은 바느질헤영 입엇잖아.
@1 예.
#3 그 정도로.
@1 그 정도로. 거난 팔월 멩질 허멍은 막 힘든 일은 아녀봅디가? 힘들덴 생각은 아녀봔?
#3 난, 이제 집안에 장손으로 태어나지 아녀부난.
@1 음.
#3 장손집이 간 좀, 응, 도웨주게, 아시날까지.
@1 게난 장손칩 허는 거 보난 어떤 식으로 헙니까? 게도 강은에 도웨주긴 헐 거 아니?
#3 어. 어떤 식으로 허여? 아, 첨 뒈지고기, 적갈, 바다, 묵, 과일, 채소.
@1 음.
#3 그 정도로.
@1 그 정도로.
#3 이제토 그 뿐일 거라.
@1 팔월 멩질이엔 헤근에 특별한 음식을 따로 준비허는 건 엇어? 요즘 셍펜덜 허고 허는데.
#3 아, 송편도 잇지, 송편.
@1 음.
#3 기름떡.
@1 음.
#3 설귀떡.
@1 음.
#3 그 정도.

둘구경

@1 그 정도예? 팔월 멩질날 둘구경도 헤봐수과?
#3 달구경?
@1 응.
#3 거야, 당연허지. 마당에 가서 허는디.
@1 그난 그날 달 보멍 점도 치곡 허연?
#3 아이고, 점칠 충은 몰라.
@1 점칠 충은 몰르고?
#3 (웃음)
@1 음, 게도 팔월 멩질 헐 땐 옛날에 떡허고 영 헐 때 조심허렌 헌 얘기들도 하서예?
#3 그렇지.
@1 뭐 조심허렌 헤수과?

#3 으, 이 말조심.
@1 응.
#3 몸조심. 손 깨끗이 씻엉 손조심.
@1 음.
#3 그 정도.
@1 그 정도예? 예.
#3 들어오라 가민 손 씻엉 오랑 이 저 송편 만들라 헤여.
@1 응, 손 씻엉 오라, 먼저예? 예.
#3 으.
@1 떡 치는 디는 막 함부로 들어가믄 안 뒌덴 허멍예?
#3 (웃음). 엿날은 그랫지, 그것도 부정탄다고.
@1 예.
#3 에에, 이 그것도 헛소문.
@1 헛소문. 음, 그다음에 팔월에 하면, 옛날에 여기도 쉐덜 하영 질뢋수과?
#3 소?
@1 예.
#3 으, 우리도 소 질롸낫어.
@1 음, 게믄 팔월에는 멩질 헤난 다음에는 촐 비레도 가고.
#3 촐 비레도 가곡, 으.
@1 예, 게난 그 음력 팔월에 집안에서 허는 일들은 보통 어떤 일들을 헌 거라마씨?
#3 어떤 일, 소, 소말 질루는 디는 으, 촐 비레 가곡. 또 밧디 일 한 사람은 밧딧일도 가곡.
@1 음, 그때 밧딧일은 무시거?
#3 뭐, 풀 튿곡, 검질메곡.
@1 검질메곡 허는 거예?
#3 예.

구월

@1 예, 그렇게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음력 구월 뒈면 여기 당도 잇어낫지예?
#3 으, 당. 이제도 이서.
@1 아, 이제도 이서?
#3 어.
@1 그 당 일름은 무시거꽈?
#3 당 일름은게 가물갯당.
@1 가물갯당.
#3 으. 이것이.
@1 예, 가물개.
#3 감물개라낫주게.
@1 예.
#3 감, 물, 개. 엿날 초상님이.
@1 음.

#3 으, 우리 십오대 하르바지가 입도허여서 이 동네를 배헌 거라.
@1 음.
#3 배헌 건디. 감, 달 감 제, 물 수 자.
@1 예.
#1 다, 감수동이라고, 이제 지왓지마는.
@1 음.
#3 가물갯당.
@1 가물갯당.
#3 가물갯당이.
@1 음.
#3 육지서도 오라.
@1 아.
#3 으, 당이 쎄여.
@1 아, 여기도 당 쎕니까?
#3 으.
@1 게, 누게 모신 거? 그 감물당예, 감물갯당에.
#3 그전에는 저 심방.
@1 응.
#3 심방들 가근에 허여낫주만은 이젠 모실 사름은 그디 가근에. 나도 금년 이제 정월 초ᄒᆞ룰날 가차와가관테 간 청소 헷어.
@1 으.
#3 나 혼자.
@1 으, 음.
#3 두 번을 가서. 청소홀 때 그 백지.
@1 예.
#3 백지를 하영 술앙 올려야 홀 건디 그냥 ᄒᆞ믄 그디 곰펭이 피곡.
@1 음.
#3 그것이 안 좋은 거지.
@1 음.
#3 그거 이제 풀멍 술젠 ᄒᆞ난 그 소곱에 나 돈 이만 원 봉가 오라서.
@1 아.
#3 돈ᄁᆞ장 올려.
@1 음.
#3 경 허난 돈이랑 올렷당 가졍 오곡.
@1 음.
#3 그거 백지 ᄀᆞ뜬 거는 깨끗이.
@1 음.
#3 소화 시겨야 할 건디 그게 아니더라고.
@1 그냥 무껑은에?
#3 무껑 낭 우에 무껑 내불어.
@1 으.

#3 이제도 잇어.
@1 음, 게믄 그 가물갯당이 삼양 여기 감물개 본향이우꽈?
#3 본향.
@1 게믄 거기는 할망당 아니믄 하르방당?
#3 할망당.
@1 할망당? 음, 언제, 언제 가마씨? 거기는.
#3 막 오랫주게.
@1 음.
#3 이 이 동네 설립허난 그 당도. 경허난 웨냐 허믄 그 당이 어디 저 바닷가에 간 모셧단.
@1 으.
#3 아, 이 동네 강 모셔야 허겟다 헨, 바닷가에 당이, 겨난 산신도 잇고 해신도 잇어, 거기 예.
@1 아, 그 당에. 게믄 할망 하르방 ᄀᆞ치 모셧네?
#3 좀 떼영 잇지만은 또 아기당.
@1 예, 아기당도 잇고?
#3 으. 경허믄.
@1 세 개?
#3 배, 메 헤영 간 때는.
@1 으.
#3 세 그릇 헤영 가.
@1 아.
#3 경 허난 엿날도 이 저 배 중선.
@1 예.
#3 이 중선, 어디 육지더레 나가젠 허믄 그디 간 기도헤둥 나가곡 허멍. 재수 좋덴.
@1 응, 겅헷구나예? 게난 삼춘네도 쭉 다녀, 뎅겻구나? 거길.
#3 응, 금년꺼지는 다녓어.
@1 게믄 일 년에 멧 번 갑니까? 거기는.
#3 아, 우리는 ᄒᆞᆫ 번 가지. 게난 두, 건 성의로 메여.
@1 으.
#3 두 번 가는 사름도 잇고, ᄒᆞᆫ 번 가는 사름도 잇고.
@1 게믄 삼춘은 보통 언제 가마씨?
#3 나, 정월 초싱에.
@1 정월 초싱에, 으. 게난 마을이 전체적으로 강은에 굿허거나 영은 안 허는 거?
#3 아, 웨냐믄 이 사삼사건 지낼 때에, 넘어갈 때, 육이오사변.
@1 으.
#3 나도 결혼헤연 일주일만이 서방님 군인가 불어낫주마는. 경허멍 그게에 심방이 완 막 그냥.
@1 으.
#3 춤 빌어, 기도허여. 경허난 전사자가 이디 한 사람벳긴 엇어.
@1 아.
#3 다, 무사히 돌아오고. 죽어도 돌아왕 죽곡.

@1 음.
#3 겨난.
@1 그 당, 당이 그 할망이 다 도웨줫덴 헴구나.
#3 응, 무시 못 허여.
@1 응.
#3 겨난 당굿도 일 년에 두 번, 흔 번은 똑 허지.
@1 음.
#3 이젠 아녀.
@1 이젠 안 허고? 언제부터 안 헤수과?
#3 아녀건 디가 흔 십 년 넘엇지.
@1 아, 게난 십 년, 십 년 전에는 당굿 두 번을 헌 거라예?
#3 십 년 어, 으 십 년 더 넘엇지.
@1 예, 게믄 당굿 허는 날은 어제?
#3 거는 날 봐.
@1 날 봥은에?
#3 으. 철학관안티 가근에 택일헤여.
@1 으. 보통 어느 철, 어느 철?
#3 어느제, 저, 정월로부터 삼월까지.
@1 으, 으.
#3 그 사이에.
@1 당굿을 헤서예?
#3 당굿 헤여난.
@1 그다음에 뭐 구월에 허진 안헴구나?
#3 으.
@1 구월엔 안 하고예?
#3 으.

상강

@1 예, 예. 그다음에 그, 백로여, 상강 허면 옛날 농사헐 때는 상강 기준으로 곡석들 다 들이렌 허잖아예?
#3 으, 으. 상강 내렷저.
@1 예, 그때 그 얘기를 헤줍서. 가을 추수는 언제 허는지.
#3 가을 추수는 이 음력 구월돌 나믄.
@1 예.
#3 조도 비곡.
@1 음.
#3 콩도 허곡, 고구마도 케곡, 그추룩 헤여.
@1 음력 구월에 다 허는 거라예?
#3 음력 구월에, 게믄 시월달 나믄 보리도 갈곡.
@1 음.
#3 그랫어.

@1 시월에 보리 갈곡.
#3 음.
@1 게면 구월 상강 전이 모든 거를 다 끗난 거?
#3 어, 어. 상강 전이 끗나야.
@1 예. 상강 허면 그 속담 같은 건 엇수과? 상강 허기 전에 뭐 다 그 허여들인다 뭐 이런 것들?
#3 그거는 잘 모르겠네.

시월

@1 건 잘 모르고예? 그다음에 이제 시월에 이제 보리 갈곡, 보리 갈면 또 헐 일이 또 무시거 이수과?
#3 보리 갈믄 좀 쉬지.
@1 으.
#3 이 농민덜이 보리 갈믄 쉬엇다가 정월 보름만 넘어가믄 검질메.
@1 음.
#3 보리밧디.
@1 예. 그러면 보리 간 다음에 집에서 장 담거나 집일거나는 언제 허여?
#3 집 이, 장 담그는 것도.
@1 음.
#3 이제.
@1 메주 쑮고 허는 거는?
#3 메주도 콩 수확헤오믄 그걸로 메주 쑤엇당 장도 묵은해.
@1 음.
#3 묵은해, 엿, 이젠 몰라도 엿날은 묵은해 장 담아 불라, 묵은해 장 담아불라.
@1 음.
#3 그축.
@1 건 무산고예?
#3 글쎄, 아마도 소금기가 이시난 건가이?
@1 예. (웃음).
#3 (웃음).
@1 그난 묵은해. 삼춘네는 언제 장 담아?
#3 우리도 그거.
@1 음. 집은 언제 일엇수과?
#3 집도 이제 팔월 추석 끗낭 쪼끔 시믄 보리, 강 새 비어당.
@1 예.
#3 새 비어당 그자 정월둘도 좋고, 묵은해도 좋고.
#3 그건.
@1 아.
#3 이 그 집안이 일 차림으로.
@1 음.

#3 잘 이는 대로.
@1 게믄 새는 어느 철에 비는 거?
#3 새는 추석 끗나믄 비어.
@1 아, 게믄 촐 빌 그 ᄀᆞ르에 새도 빕니까?
#3 촐 비어난 다음에.
@1 음.
#3 새 비어당 그냥 집 일어.
@1 아. 게믄 그때 헹은에 물령 놔둿당?
#3 으.
@1 이제. 줄, 줄은 언제 놔?
#3 아이, 새 비어오믄 줄도.
@1 음.
#3 우리도 줄도 놔나곡.
@1 음.
#3 집도 일어나고.
@1 삼춘이 직접?
#3 아니, 우리가 줄은 우리대로 놓곡.
@1 으.
#3 집 이는 것도 그거 아무나 못 헤. 그것도 기술자라사.
@1 음, 집일 때도 날 보거나 영 허곡?
#3 으.
@1 언제 헙니까? 집이는 거는?
#3 그게 그 집안이 운수대로.
@1 운수대로.

십일월

동지

@1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십일월 뒈가면 이제 양력 십이월 이제 동지잖아예?
#3 동지.
@1 근데 동지는 양력으로 세주만은 절기는 음력이여 불고.
#3 음력.
@1 으. 동지에 대헹 ᄀᆞᆯ아 줍서. 동지 때는 무신거 헌 거?
#3 동지 때는 동지죽 쒀 먹어.
@1 음.
#3 으, 모든 푸새가 동지 넘으믄 새 마음 가져.
@1 음.
#3 으, 동지 전이는 푹 죽엇당 동지 넘으믄 일어산다.
@1 예, 푸새가예?
#3 모든 식물덜이.
@1 게난 그 동지 헤믄 다 새 ᄆᆞ심 헤갖고예?

#3 으.
@1 예.
#3 동지 넘으믄 다 으, 새 ᄆᆞ음 먹어근에 막 그냥.
@1 음.
#3 식물덜이 발달헌다 헌.

풋죽

@1 음, 그런 말하고. 풋죽은 무사 쒕 먹는 거우꽈?
#3 그것도 예방 같아이?
@1 으.
#3 감기 예방.
@1 감기 예방.
#3 이제는 코로나여 무시거여 헤도 엿날은 감기.
@1 어른들이 겅 골아난마씨?
#3 으. 감기 예방으로.
@1 감기 예방으로 풋 헤 먹곡. 삼춘네도 풋죽 쑤면 집 안에 영 뿌리고도 헤?
#3 아, 우리는 그추룩 아녀. 옛날 어룬덜은 그추룩 헤.
@1 아.
#3 응, 풋죽 쑤믄.
@1 으.
#3 그 정문 입구에 가근에 문 허곡.
@1 음, 삼춘네는 안 헤보고예?
#3 난 그런 거 안.
@1 뭐 풋죽 쒀 먹는 날 잇고 안 쒀 먹는 날 잇덴도 골읍니까?
#3 아, 그거는 먹구정 허믄 아무 때라도 쑤어 먹곡, 동지죽은.
@1 으.
#3 그날 정허는 날로 허여도 풋죽 먹구정 허믄 아무 때라도 쑤곡. 콩죽 먹구정 헤도 아무 때라도 허곡.
@1 음, 풋은 딱 정헤진 날 먹는 거라예? 혹시 엿도 헤난마씨? 삼춘.
#3 으. 엿도.
@1 엿 허는 날은 언제우꽈?
#3 아, 엿은 날 보멍 안 헤여.
@1 으, 경헤도 십이월 남평날에 허지 안헤여마씨?
#3 어.
@1 남평날은 뭐우꽈? 남평날.
#3 글쎄, 난 남평?
@1 납평이엔도 허고.
#3 몰라, 그거는.
@1 삼춘네는 무신 엿 헤난?
#3 닭엿도 허곡.
@1 응.

#3 또 뒈지고기엿도 허곡. 그거는 그자 우린 날 보지 아녀. 그자 여우 잇고 시간 이신 대로.

@1 음. 골은 뭘로 놧수과? 삼춘네는?

#3 골, 줄보리 잇잖아.

@1 예.

#3 꺽보리.

@1 꺽보리.

#3 꺽보리로 허여근에.

@1 음.

#3 그거 곧앙 밥허여.

@1 으.

#3 그 춤, 줄보리로 그 거세기헌 걸로 허영 서껑 놔두멍 그 쌀이. 밥쌀이 막 삭주게.

@1 음.

#3 겡 허믄 그거 짱 그걸로.

@1 그걸로 허믄 엿 뒈는 거라예? 여기 그 이사들은 어느 철에 가마씸? 보통.

#3 이사?

@1 음.

#3 이사, 신구간.

신구간

@1 신구간.

#3 으, 대충 신구간. 이제도 신구간 찾는 사람 만헤여.

@1 신구간이 언제가 신구간이우꽈?

#3 신구간이.

@1 으.

#3 웨냐허믄 그 이것이 이천일 년도 이천이 년도 사이.

@1 으. 그 사이에.

#3 응, 그 사이. 이천이 년도 뒈기 전이 그 사이.

@1 음, 음력으로예? 으, 음력으로 헹 그 사이에 이제 가고. 삼춘네도 신구간에 이사 뎅겨 봔?

#3 으.

@1 응, 게민 뭐 이사 가젠 허면 뭐 조심하거나, 아니면 이사 갈 때 무신 걸 젤 먼처 가져가마씨?

#3 솟.

@1 솟. 건 무사 솟을 옮겸신고?

#3 글쎄. 그거는 잘 모르겟네이.

@1 음.

#3 솟은 우선 솟부떠 먼여 강 앚져나서게.

@1 음.

#3 엿날 어른덜토.

@1 응.

#3 솟부떠 몬여 앞세우라.

@1 몬여 으, 솟부떠 앞세우라. 응, 그렇게 헤서 이제 이사 가고. 그다음 혹시 이사 갈 때 우리 집 짓엉 가기도 허주마는 놈이 집 빌령도 가잖아예?

#3 응.

@1 놈이 집 빌릴 때는 어떤 거에 주의허멍은에 빌리코예?

#3 글쎄, 그거는 그 자기 마음이주게.

@1 음, 자기 마음이고. 집 짓엉은에 집, 요즘은 뭐 집들이 헌덴 헴주마는, 옛날 이사 가면 가졍 간 것들은 무신거 가져 가마씸? 요즘은 돈 가졍 가도.

#3 세간살이 가져가지.

@1 응.

#3 성주내려.

@1 어, 성주 으.

#3 집 짓이믄.

@1 응.

#3 우선 직 성주내려와. 심방덜 데려당.

@1 예.

#3 성주내려와근에. 게난 성주내륩기 전이는.

@1 응.

#3 이제 모든 초상이 못 들어온다 헌 뜻으로 성줄내류믄 그자 초상님도 왓다갓다 자유롭게 헌다고 헤영 성주 보통 보면 내려.

@1 아, 거난 초상들 모시젠 허민 성주를 ᄂᆞ려야 뒈는 거구나.

#3 응.

@1 그 성주헐 때는 어떤 식으로 헹은에 허는 거우꽈?

#3 어떤 식으로게. 심방 ᄃᆞ려다근에 굿.

@1 으. 굿허는 거?

#3 굿허는 거.

@1 성주헐 때 삼춘네도 성주 ᄂᆞ려낫구나?

#3 으, 으.

@1 뭐 거기 밥이영 뭐.

#3 어.

@1 누구 나시 헌덴 헙니까? 보통.

#3 성주님.

@1 성주님이 누게라?

#3 글쎄, (웃음) 그거 성주님이 누게산디.

@1 게난 메는 멧 개 헙디가? 성주헐 땐?

#3 메는 세 개.

@1 으.

#3 묵, 세 개허곡 문전에 하나. 또 고팡에 하나.

@1 아.

#3 경 다섯 개.

@1 다섯 개. 그난 제 벌리는 데는 성주 세 개.

#3 으.
@1 그다음에 이제.
#3 문전.
@1 문전.
#3 고팡.
@1 고팡. 삼춘네는 칠성은 안 모셔낫구나?
#3 아, 칠성제도 나도 헤여낫어.

칠성제

@1 어. 칠성제도 헤나고예?
#3 으, 칠성제도 집이서도 심방 둘아단 헤낫고, 그다음은 절에 가서 허고.
@1 으.
#3 나가 아들 하나에 똘 넷이라 놓난.
@1 응.
#3 우리 친정어머니 살아 계신 때, 칠, 는 칠성 테왓저.
@1 응.
#3 것도 테운 것이 잇는 모냥이라.
@1 으.
#3 칠성젤 허라, 칠성젤 허라 헨 칠성제를 헤난.
@1 으. 거믄 그 칠성제는 어느 철에 허는 거마씨?
#3 정월둘광 칠월둘, 삼월둘 그 사이.
@1 아. 정월달, 삼월달 그 사이 허곡.
#3 으.
@1 칠월에도 또 허고.
#3 아니. 혼 번.
@1 아, 혼 번? 음, 게믄 삼춘네는 정월에 보통 허연?
#3 으.
@1 으, 칠성제 헐 때는 칠성제는 어디에서 허는 거우꽈? 집안 이렇게 허면?
#3 집안에서. 집안, 집안 안네서.
@1 그 집안 안네 그 눌 저기 ᄂᆞ람지 헹 눌도 눌곡?
#3 으.
@1 삼춘.
#3 아, 그거는, 그거는 아무나 허는 게 아니.
@1 아.
#3 그 우영팟디.
@1 예, 주젱이 헤 갖고.
#3 주젱이 헤근에 것도 신을 모시는 것도.
@1 음.
#3 우린 그런 건.
@1 그런 건 아니고? 그래도 칠성제는 허고예?
#3 으.

@1 조왕제도 헤연?
#3 으, 조왕, 칠성제 허는 거 보난 조왕제는 따라 가야지.
@1 아, 칠성제가 먼저 헤서 조왕제도 같이 허는 거우꽈?
#3 으.
@1 게난 칠성제 허는 이유가 무시거라마씨?
#3 (웃음) 별도 칠성 잇잖아?
@1 으, 북두칠성, 예.
#3 북두칠성이라고 헤서.
@1 으.
#3 그거는 자식덜 건강을 위헤서 허는 거주게.
@1 아, 돈 벌게 허는 게 아니고?
#3 집, 집안을 건강허게 도와주십사 허는 뜻으로 허는 중 알주만은. 몰라, 다른 사름은.
@1 게난 삼춘은 자식들 위헤서 계속 헌 거라예? 거는 일 년에 혼 번 헤마씨?
#3 일 년에 혼 번.
@1 아, 일 년에 혼 번 꼭 헴구나. 거 안택허고 ᄀᆞ튼 거우꽈?
#3 아.
@1 그거하고는.
#3 칠성제 헤가믄 안택도 같이 따라 헤야주.
@1 음. 건 같이 허는 거고예?

소한·대한

@1 그다음에 십이월 그 절기. 옛날 소한이여 대한이여 허는 말들.
#3 으, 으.
@1 그때 얘기헤줍서. 그때는 소한 대한은 어떵 허는 때우꽈?
#3 소한, 소한은 허, 아이고, 소한이여 대한이여 그, 그 사이에 춥다 허는 겨울이 온다는 뜻으로.
@1 음.
#3 으.
@1 그때가 제일 얼 때예?
#3 응.
@1 게믄 뭐 소한에 나간 사름 어떵 허지 말라?
#3 소한에 나간 사름을 들어올 걸로 믿지 말라.
@1 음.
#3 워낙 엿날은 워낙 추우가 추웟으니까.
@1 음. 소한이 더 추웁니까? 대한이 추웁니까?
#3 대한이 더 춥지.
@1 대한이 추워? 음. 경헤도 소한이 더 춥덴도 허기도 허고예?
#3 으, 그거는 헤우년에 따라.
@1 아, 헤우년에 따라근에 소한이 추울 때도 잇고 대한이 추울 때도 잇고.
#3 헤우년에 따라.
@1 음, 그럼 헤우년엔 어떤 헤운년이면 소한이 더 추워?

#3 글쎄, 그거는 잘 모르겟는데.
@1 으.
#3 그난 아, 추우믄 이거 아이고 소한이여게 대한이여게 영 헤근에.
@1 으.
#3 헌 거 뿐이주, 그 뜻은.
@1 그거는 잘 모르겟고예? 섣둘에는 일 마무리허는 헤 아니우꽈? 그 둘 아니라예?
#3 섣둘? 으, 으, 으.
@1 섣둘은 혹시 썩은둘이엔도 헙니까? 여기서?
#3 썩은달이라고.
@1 으, 건 무사 썩은둘이엔 헤신고예?
#3 겨난 섣달에는 이 조왕제, 칠성제 모든 걸 허지 아니, 썩은달이난 허엿자.
@1 으.
#3 이제 효괄 못 본다 허는 뜻으로 그 썩은달이라고.
@1 아. 칠성제 이런 것들 안 헷구나예? 그땐 안 하고? 예, 알안예.

일월

정월 멩질

@1 그 삼춘 그 멩질, 정월 멩질 때는 보통 뭐를 헨? 정월 멩질 준비허젠 허면 그 미릇에 준비헤야 뒈는 것들도 잇잖아예?
#3 메밀.
@1 으.
#3 메밀국수.
@1 아, 메밀국수 헨?
#3 으.
@1 그 메밀국수를 어떤 식으로 허는 거? 그거는.
#3 어떤 식으로 허여, 메밀ᄀᆞ루 ᄀᆞᆯ아다근에 그걸로 헤영 이제 반죽헤영 병으로 밀어놩 그걸로.
@1 음.
#3 겨난 멩질 끗나믄 똑 우리 친정 어머니네는 그거 헤영 또 제사 지네대.
@1 아.
#3 메밀국수 헤연.
@1 메밀국수 헤근에 제사 지낸예?
#3 ᄌᆞ손만 먹기 뭘 허니까 조상님안티.
@1 음. 그러면 정월 초ᄒᆞ룰날 음식이 ᄆᆞ물쿡수?
#3 응.
@1 그걸로 헹은에 제는 언제 지내?
#3 그날.
@1 그날.
#3 그 문전제 끗나믄 그 허여근에 그 메밀국수 헤영 또 올려.
@1 아, 제를 따로 헤난 다음에?

#3 으. 허여난 끗나믄.
@1 으.
#3 메밀쿡수 허잖아.
@1 예.
#3 경허민 또 그거 헤여근에 올령.
@1 본제 젯상 말앙예?
#3 으.
@1 게믄 삼춘네 만약에 집에서 그 친정에서 할 때, 친정도 여기 아니?
#3 으.
@1 거난 그 정월 멩질날 차례 지내는 순서를 한번 헤 줘봅서? 어떤 식으로 헷는지.
#3 어떵 헤게게. 차례는 젤 웃어른부떠.
@1 응.
#3 일 대, 이 대, 삼 대 이추룩 헤근에 허믄 자손덜토 주순 문여 앚지곡. 차손 문여 앚지곡. 경헤근에 제 봐.
@1 음.
#3 이제도 그게.
@1 이제도 겅 허고예? 게믄 그 젯상에는 뭐 올려난?
#3 젯상에.
@1 정월 멩질날은?
#3 젯상에게 메허곡 겡국허곡, 채소허곡, 뒈지고기, 바닷고기, 다 찰리는 대로.
@1 으음. 바닷고기는 뭐 썻수과?
#3 우럭.
@1 응.
#3 셍선.
@1 음.
#3 고등어 ᄀᆞ튼 건 안 올려.
@1 고등어 ᄀᆞ튼 건 안 올리고예.
#3 비닐 이신 거만.
@1 아.
#3 비닐 이신 거만 올리라, 영허여.
@1 예. 그다음 떡 ᄀᆞ튼 거는 어떵 뭘 헤?
#3 떡국, 송편.
@1 응.
#3 설귀떡, 기름떡.
@1 으, 세 가지? 떡은 세 가지 허는구나?
#3 으.
@1 근데 ᄆᆞ물국수를 꼭 헹은에 올려.
#3 ᄆᆞ물쿡수는 제 끗나믄.
@1 제 끗나믄예?
#3 으.
@1 다른 동넨 가니까 새벽에도 ᄆᆞ물국수 헤 갖고 올려.

#3 아 새벽에도 허는 집안이 이서. 경허난 이것이 자손이 먹기가 죄송합니다 헌 뜻으로 초상님안티 몬여 올려뒁 자손덜이 내중에 먹젠.

@1 아. 게믄 그 ᄆᆞ믈쿡수 올리기 전에는 제 벌인 거는 고대로 이신 상태?

#3 아니.

@1 다 끗난 상태에서 아, 그럼 따로 상 차령은에 올리는 거구나?

#3 으.

@1 아, 이것도 집안마다 ᄯᅮ나다예?

#3 으, 그렇지. 집안마다 다 풍속이 ᄯᅮ나.

@1 예.

정월 대보름

@1 그다음엔 삼춘, 정월에 아까 혹시 정월 대보름에도 뭐 제는 건 봣수과?

#3 어, 제 지내는 사람은 지내어.

액막이

@1 어, 정월 대보름?

#3 으.

@1 삼춘네도 지내난? 삼춘 그런 건 안 하고? 액맥이들은 허지 안헤수과?

#3 액맥이덜토 정월에 심방 둘아당.

@1 음.

#3 ᄌᆞ순덜 편안허게 지내게 헤줍센 헤영 액막이 헤여.

@1 음. 벨롱게는 뭐우꽈? 벨롱게.

#3 벨롱게도 그 뜻이라. 집안에 그 조왕제여 무시거여 허는 것이 벨롱게. 엿날은 이제는 조왕제여 칠성제여 허지만은 엿날은 에고, 저 집이 벨롱게 헴저.

@1 아, 겡 별도 저기 아니라 조왕제나 칠성제 허는 거를 벨롱게렌 허는 거라예?

#3 으, 그 뜻으로. 그 뜻으로.

@1 으. 게난 벨롱게는 무슨 말이라마씨?

#3 아, 글쎄. 그거는 말, 아, 지나가는 말로 생각헤 나는.

@1 으.

#3 벨로, 벨롱게, 벨로.

@1 으, 그난 그냥 벨롱게 헴저 이런 식으로. 누게네 집, 그럴 때 벨롱게 헐 때는 그 집에 가지는 안헙니까?

#3 아으 싹, 금줄 메어.

@1 아, 금줄 싹 메어 불어예? 메칠 전부터.

#3 칠성제 허젠 허믄 칠 일 금줄 메곡, 벨롱게 허젠 허믄 삼일 금줄 메곡.

@1 음. 칠성제가 큰 거구나예?

#3 아.

@1 음, 칠성제가 이제 큰 거고.

포제

@1 그다음에 포제, 여기가 포젯단이렌 허멍예?

#3 으, 이디가, 어, 이디가 포젯단, 이디가.
@1 포제는 언제 허는 거우꽈?
#3 포제도 포제 끗나기 전이는 다니도 못 가고 집안일도 못 헤여. 일단 포제 정월 초ᄒᆞ룰 날 넘엉은 또 응, 철학관안티 강 택일헤영.
@1 으.
#3 삼일도 좋곡 칠 일도 좋곡 헤영 그거 끗나믄 집안일도 다 헤여.
@1 아, 여기서는 포제를 더 크게 셍각헴저예?
#3 으.
@1 저 당보단예? 음.
#3 포제 헐 때는 당에도 가.
@1 예. 아, 그날은 당에도 또 가고.
#3 으. 이제도 허염서.
@1 어, 포제 헴수과? 어디서 헙니까? 포제는?
#3 어디서 허여? 여기서 허지.
@1 아.
#3 저 이층에서.
@1 아, 여기 이층에서 허여?
#3 응, 저기.
@1 저쪽에? 아, 마을에서 그냥 허는구나예?
#3 으, 마을제라고.
@1 마을제라고 헹은에 헤마다.
#3 포제가 마을제라고.
@1 응, 정초에 마을제를 허는 거구나, 이 동네는예? 그다음에 그 아까 칠성하고 조왕, 여기 거리제도 헌덴 헨게만은 거 거리젠[거리쩬] 뭐우꽈?
#3 글쎄, 거리?
@1 이, 이동은 거리옌은 안 헤? 안 하고예?
#3 허는 거 본 ᄃᆞ레 엇어.
@1 본 ᄃᆞ레 엇고. 여기는 저기 칠성제 저 어디 가진 안 헙니까? 칠석날.
#3 칠성당이 어디 이서?
@1 그 일동은 가난 원당봉 그 밑에 간덴.
#3 아, 아.
@1 건 뭐우꽈?
#3 여기는 칠성제.
@1 안 헤? 칠월 보름날 안 헤? 백중제.
#3 그, 백중은이 우마 길루는 사름덜.
@1 예.
#3 그거는 우마 길루는 사름만 허지.
@1 음. 우마 기르는 사람예? 그 방에 부치거나 이런 것들은 안 헤봔?
#3 방에 부찌는 거?
@1 방엣불 허는 거.
#3 입춘대길?

@1 어, 입춘대길은 어떵 헙니까?
#3 그것도 허는 사름은 허고. 아녀는 사름은 아녀고.
@1 예전에 입춘대길 허면 뭐 글 쓰거나 점치거나 이런 거 허는 건 안 봐난?
#3 아, 글은 쓰지.
@1 으, 입춘대길.
#3 이 입춘, 이 입 자에.
@1 응.
#3 봄 춘 자.
@1 으. 입춘대길 헤 갖고 딱 부치멍 뭐렌 곧진 안헙니까?
#3 아, 그건 안 헤나부난 몰라.
@1 뭐 떡 쳥은에 점 쳐보지는 안 헤수과? 정월 대보름 때.
#3 아, 정월 대보름 때 허는 사름은 헤여.
@1 아, 떡 모둠떡 헤영은에.
#3 응.
@1 그 일름 썽은에 허는 거예?
#3 으.
@1 삼춘은 안 헤봔? 으, 삼춘은 안 헤보고예?
#3 아, 우리 헐 저르 잇어서게?
@1 으.
#3 그냥, 에, 엿날 웨정 때에 학교 졸업허난 그 헤에 헤방뒀지.
@1 으.
#3 헤방뒌 얼마 엇이난 사삼사건 낫지, 사삼사건 끗나가난 육이오사변. ᄋᆞ, 우린이 철이 엇이 산 사름이난. 무시거 가정교육도 못 받고.
@1 으.
#3 받을 저리가 엇어. 그냥 숨으레만 뎅기단 보믄.

이월

@1 응, 기라예? 예. 삼춘 여기는 바당 동네난, 이 동네는 물질허는 사람이 엇수과?
#3 아, 잇어낫어.
@1 이서난?
#3 으.
@1 게믄 영등제, 이런 해신제 안 허여?
#3 저 삼동에서 허지. 일동은 일동. 이동은 바다가 벨로 엇이난.
@1 으.
#3 으, 저 삼동.
@1 삼동.
#3 삼동에 가근에 해신제[쩨].
@1 해신제.
#3 영등제[쩨].
@1 영등제, 으. 영등굿은 안 헙니까? 여기는?

#3 영등굿 그디서 허지. 해녀덜끼리.
@1 아, 언제 헙니까? 영등굿은.
#3 영등 들어오믄.
@1 언제 들어와?
#3 이월.
@1 이월.
#3 음력 이월에 영등둘이여 영등둘이여 허지게, 이월.
@1 예. 그러면 이월에 들어오고. 언제 나갑니까?
#3 이월 초ᄒᆞ룰날 들어오믄 보름날 나간다, 이거지.
@1 으. 초ᄒᆞ룰날 들어왕예?
#3 응.
@1 영등에 뭐 서답허지 말라, 이런 말도 허여?
#3 어. 영등에 풀도 허지 말라.
@1 아, 그 말 좀 ᄀᆞᆯ아줍서. 무사 풀허지 말렌 ᄀᆞᆯ암신고?
#3 아, 글쎄. 그거.
@1 으.
#3 그것이 잘 모르겠어이.
@1 응.
#3 엿날 어룬덜 아 영등 돌아와시메 풀허지 말라.
@1 응.
#3 영은 헤낫어.
@1 게난 옛날에는 옷들을 다 풀허니까예?
#3 어게.
@1 집안에 널지 말렌도 허지 안헤수과? ᄈᆞᆯ래 허지 말렌 이런 말.
#3 그런 말은.
@1 예, 풀허지 말라예?
#3 풀허지 말라 헌 말은 들어서. 아마도 곰펭이 필까봐 그랫는가이?

사월

@1 게메예. 산담 손질들은 언제 헙니까?
#3 산담?
@1 예.
#3 벌초허레 간 때.
@1 벌초허레 으.
#3 또 식목일날.
@1 으.
#3 가고.
@1 식목일날 허고예? 그 청명 이런 것도 헤여?
#3 어?
@1 한식 명절, 청명.

#3 아, 엿날은 헤낫어.
@1 응.
#3 엿날은 한식 멩절, 오월 단오.
@1 으.
#3 허여난디 이젠.
@1 그때는 무신거 헤근에 헤신고예?
#3 아, 다 마찬가지.
@1 똑같아? 제물은?
#3 으.
@1 응, 경허고예? 단오도 허고예?
#3 엿날 단오도 허여나고.

유월

@1 으. 보리는 언제 비엇수과?
#3 보리는 유월절.
@1 으.
#3 입하.
@1 입하.
#3 입하 들 무렵에. 아이고, 유월절 전이 보리 혼저 강 비어사키여, 영 허영 허여낫어.
@1 응. 유월절 들엉예?
#3 응.
@1 게믄 유월절 들면 보리 비어야고, 망종.
#3 망종은 가을 망종이?
@1 아니, 봄에, 여름에.
#3 아, 여름에.
@1 으.
#3 망종은 이제 망종 전이.
@1 으.
#3 유월절 전이.
@1 응.
#3 게 망종은 들믄 모든 식물이 막 그냥 사라진다 헤여.
@1 응. 겡 망종 전이 보리 비는 거고.
#3 응.
@1 그 유월절에는 검질메고예? 유월절에도.
#3 유월절 들어가믄 조도 볼리고.
@1 조도 볼리고. 유월절 들면 조 볼리고.
#3 콩도 갈고.
@1 예. 아, 유월절에 콩도 가는 거예?
#3 유월절에, 유월절 들기 전이.
@1 아.

#3 한 흔 열흘, 일주일 앞사근에 콩도 갈곡, 또 조는 전 삼 일 후 삼 일.
@1 응. 유월절 들기 전 삼 일, 후 삼 일.
#3 응.
@1 경헤근에 하고예? 그다음에 유월 쑤무날은 뭐허는 날이우꽈?
#3 글쎄, 이젠.
@1 둑 잡아먹는 날은 언제?
#3 그날이 그날.
@1 삼춘네는 그날 안 헤? 안 헤? 응. 요즘은 저기 삼복 허면 초복, 중복 이땐 뭐 헴수과?
#3 그대로 그자 평일과 같아.
@1 예, 평일허고 같고예?

칠월

@1 게믄 칠월에 음력 칠월에 주로 헷던 거는 백중제.
#3 칠월 칠석.
@1 칠석. 칠월 칠석은 뭐 헤?
#3 칠월 칠석도 이제 집안에 저 액막이도 허곡 허주만은 우린 그런 거 아녀.
@1 음, 칠석에 액막이 허고예? 백중제는 우마 허는 사람만 허고예?
#3 응, 우마 허는 사름.
@1 예. 그리고 이 삼양은 여기 앞바당 잇으니까 모살뜸도 하영 헤실 거 아니예?
#3 으. 모살뜸 헤마다 헤여, 이디.
@1 아, 무사 모살뜸은 허는 거우꽈?
#3 모래뜸은.
@1 음.
#3 이 가만히 생각헤 보믄 피부 나쁜 사름.
@1 음.
#3 모래뜸 허곡, 또 찬물에 들어강, 모래뜸 허믄 그 피부가 엇어진다.
@1 음, 겡 삼춘도 모래뜸은 헤난? 삼춘은 안 헨? 무사 좋덴 헌 거 안 헤신고?
#3 것도 피부가 나빠야지.
@1 아. 삼춘은 피부가 너무 좋으니까. (모두 웃음)
#3 성님은 헙센 헤도 나 피부가 막 좋아 부난.
@1 게난, 멘질멘질.
#3 나 피부 막 좋은 사름. 엿날 비리.
@1 예.
#3 비리엔 허엿잖여게.
@1 예, 비리 올른 사름들.
#3 그 사름들 간.
@1 아.
#3 또 이 몸에 저 담징 이신 사름덜.
@1 음. 담 들린 사람들예?
#3 이젠, 그 전엔 꽉 차나도 이젠 벨로 원.

@1 아. 그렇게 하고예. 여기 물맞이도, 백중 뒈가면 물도 맞앗잖아예?
#3 어.
@1 여긴 어디서 물 맞아?
#3 여기는.
@1 응.
#3 물 맞는 디가 없어. 경헌디 이제 여기서 그 기계로 올려.
@1 음.
#3 그걸로 잠깐 헤낫주.
@1 아, 아. 여기 물맞이는 데는 엇고예? 저 절물 가거나 영은 안 헤여낫수과?
#3 아, 나 우리도 절물 강 맞아낫어.
@1 물을, 백중날? 무사 백중날은 물 맞인덴 골아?
#3 글쎄, 그때는 시간이 잇어서 갓는지, 뭐 몸에 뭐 이해가 잇언 갓는지 그건 몰라, 그건 몰르고.
@1 그건 몰르고. 예, 무조건 가고.
#3 따라가기만 헷지.
@1 예. 그거 백중날 가는 거지예?
#3 벡중날 아니라도 가믄 뒈여.
@1 어. 백중날 아니라고 가믄 뒈고예? 예, 알앗수다. 삼춘 이렇게 살아오멍은에 그 속담이라든가예?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 이신고? 속담?
#3 속담도 이젠 잊어불엇저게.
@1 응. 고사리는 어느 철에 뎅기는 거우꽈?
#3 지금.
@1 삼춘, 응.
#3 나 고사리 꺼끄레 가와서.
@1 그니까.
#3 운동 삼아.
@1 운동 삼아.
@4 삼춘 저 윤달에는 뭐헤마씨? 윤달.
#3 어?
@1 윤둘, 윤둘.
#3 윤둘에는 제사 멩질도 안 허고.
@1 응.
#3 그자 썩은달이라고 첨, 섣둘 흔 둘광 윤달이나 ᄀᆞ튼.
@1 썩은둘.
#3 달로 추급허여.
@ 응. 경헤도 집안에 뭐 일허거나 뭐 고치젠 허면은.
#3 아, 윤달에 그런 거. 손이 엇는 날.
@1 예.
#3 손이 엇는 달이 윤달.
@1 예, 윤달예? 게믄 옛날에 호상들도 헹 놔두고 허잖아예?
#3 응, 호상도. 나도 헤영 이서.

@1 응. 게난 삼춘도 윤둘에 호상허연?
#3 으. 예순 환갑에 헤엿는디 이제.
@1 으.
#3 그것도 던져뒁 새로 헤사. (웃음)
@1 무사?
#3 너무, 너무 오래난게.
@1 너무 오래난. 그때 무신 걸로 옷을 만듭디가?
#3 명지.
@1 명지로 헤신디다가. 그때 좋은 명지 아니예?
#3 그럼, 비단.
@1 비단으로예? 겡 이런 식으로 이제 허고. 삼춘네 이제 살아오멍 옛날하고 지금하고 비교허면 어떵 헤마씨?
#3 아이고, 차이가 많지.
@1 예, 어떤 게 젤 차이 납니까? 살아보난.
#3 살아보믄 이 음식 ᄀᆞ뜬 거.
@1 으.
#3 이제 ᄒᆞ쏠 허믄 우리 똘덜토 오랑 먹당 남으믄 던져. 아이 던지지 말라게. 거 놔뒁 나 먹켜여 허믄. 어머니, 때가 이젠 모든 때가 음식도 다 때 춪안 먹엄수게. 영 허여도, 이 엿날은 그 누렁밥 헨 긁어 놩 먹곡. 이제는 사는 거 보믄 너무 너무 허탕스러와이.
@1 으.
#3 우리 엿날, 우리는 부모님 잘 만나서 배고픈 중은 몰란 살앗어.
@1 예.
#3 일제 때도 하이고, 학교 강 보믄 배고팡 영헌 학셍들이 만헷지만 우린 삼시 꼭꼭 먹엉 살앗으니깐.
@1 음.
#3 그 분심 몰라, 베고픔.
@1 음, 겅헤도 주변에 보면 그런 거 잇고. 거난 물, 아, 밥이나 이런 아무렇게나 헹 버리고 허는 게 이렇게 막.
#3 응, 너무 너무 불쌍 저이.
@1 응.
#3 저것이 줴 받으, 게난 우리 아버지가, 엿날 이제 소가 놈이 밧디 간 보리 먹어부난.
@1 음.
#3 저싱 가난 삼 년을 징역 살드레. 경허난 놈이 밧디 함불로 들어가도 말곡. 곡석 너무 저첨, 천대허지 말라.
@1 으.
#3 으, 쌀 한 방울이라도 우리 손으로 이것이 다 만들어 나온 거니까 소중허게 멕이라 영헌 말은 들어낫어.
@1 음, 아버지가 그런 말을 헤예? 저승 강 삼 년 산 건 어떵 알안?
#3 아이, 속담이 그렇다 이거지.
@1 아, 속담이.
#3 으.

@1 으, 게난 놈이 거 함부로 이렇게 하면 삼 년.
#3 그 저싱 가믄 삼 년 징역이다.
@1 삼 년 징역이다, 예.
#3 함불로 손대지 말라.
@1 남이 거를. 음, 게난 우리 쉐가 놈이 밧디 강 먹어불어도 나가 줴 받는 거네?
#3 응, 응.
@1 음.
#3 소 임제가 관리 잘못허민.
@1 예, 고사리는 멧 성제렌 헙니까?
#3 고사리?
@1 응.
#3 칠 성제.
@1 아, 일곱 성제렌 골아?
#3 으.
@1 으응. 건 무사 일곱 성젠고?
#3 고사리, 오늘 나믄이.
@1 예.
#3 이거 짤라 불믄 또 낼도 나.
@1 응.
#3 짤라 불믄. 경 그거 짤라 불믄 또 나곡, 또 나곡 일곱 번을 난다, 이것이.
@1 응, 일곱 번을. 어떤 딘 가난 아홉 성제렌 허곡.
#3 응, 아홉 성제도.
@1 어떤 딘 가난 열두 성제렌도 허곡. (웃음)
#3 그추룩 헤여 가믄.
@1 세여? 게난 고사리 꺼끌 땐 언제부터 언제까지 꺼꺼? 보통.
#3 아, 고사리 꺼끌 때는.
@1 초불고사리 언제 나마씨?
#3 초물고사린 지금 끗낫지.
@1 아.
#3 중물 이제 중물로 들어갓지.
@1 응, 벌써 중물 들어감구나.
#3 한식에 초물고사리.
@1 응.
#3 엿날 한식 멩질 헐 때 고사리 꺼꺼단 제 올, 이제 첨, 올려낫저.
@1 아. 초물고사리 꺼꺼당은에? 게믄 한식은 메칠 한식이꽈?
#3 한식은 해마다 뚜나.
@1 음.
#3 해마다 뚜나.
@1 겅헹은에 이제 하고. 이제 중물이고.
#3 으.
@1 막물은 언제?

#3 막물은, 막물은 칠월둘에도 나곡, 팔월 벌초허레 강 보믄 그때도 나.

@1 게믄 그것도 꺼껑 옵니까?

#3 아니.

@1 아, 그거는 껀진 안 허고? 게믄 초물하고 중물 거만 꺼끄는 거? 으, 요런 식으로 옛날도 고사리 꺼끄레 하영 뎅견마씨?

#3 우린 엿날 학교 뎅길 때에, 웨정 때에 고사리 꺼끄레 학교에서 간디.

@1 으.

#3 그거 처음이라.

@1 아.

#3 경헌디 결혼헤연 살멍 그때 마은넷엔가 고사리 꺼끄레 가자 헤연 따라 간디, 산중에 산꼭지에 잇는 줄 알앗어.

@1 아, 고사리가? 응.

#3 이 멍청허기로. 아, 지금은 그게 아니지이. 이 굴렁진 디.

@1 응.

#3 오목오목헌 디, 그런 디 나더라고.

@1 으. 겡 멧 설 때부터 고사리 꺼끄레 뎅견?

#3 나 혼 마은다섯 때.

@1 아, 그때 처음 다녕 그자 쭉 봄에마다 다녓구나예?

#3 예.

@1 응, 겡 그걸로 헹은에 이제 제사도 지내고. 알앗수다. 게도 옛날 말 옛날 거 잘 기억헴수다. 아흔세 살인디.

#3 아, 이젠 이것이이, 이것이 모지레여. 이것이 다 뒈연.

@1 음.

#3 다 뒈여놓난 누게 말이라믄 아, 그렇구나 헤영 생각 나곡. 말허기 전이는 좀 정신 나간 거 ᄀᆞ찌 멍헤져.

@1 그렇게 이제 하고예, 알앗수다. 이 정도 허면 될 거 같은데.

4. 조천읍 대흘리

- 조사 일시: 2021년 4월 14일, 4월 28일
- 조사 장소: 조천읍 대흘리 복지회관
- 조사자: @1 김순자 @2 김미진 @3 최연미 @4 오경임
- 제보자: #1 홍경만 #2 부연옥 #3 홍경찬 #4 김창수 #5 이숙자 #6 한창매 #7 고옥심 #8 문지자 #9 김계생

일월

멩질 준비

#1 정월 멩질 뒈가민 사람들 다 첨 걱정허주기게. 무사 걱정을 헴시냐민 그냥 조상덜 제지내젠 허난, 메칠 전부떠 그냥 떡헐 궁리도 엿날은 도세기덜도 잡아사주기게이.

@1 응.

#1 도세기덜 잡아근에 저 ᄒᆞ는 디는 그냥 집집마다 잡는 건 아니고. 동네에, 동네에 큰 동네 가사 큰 도세기 ᄒᆞ나 잡곡 경 아녀민 엿날 거 멕일 것들 읏엉 그 보리체들 멕이주기게이.

@1 예.

#1 보리체 멕영 집이 오난 도세기가 경 막 크질 못헤여게. 경 잔치나 허게 뒈민 그냥 칭 도세기엔 헤여근에 ᄒᆞᆫ 칭 멘들젠 허민 ᄒᆞᆫ 칭이 ᄒᆞᆫ 저 백 근을 말허는 거라게이.

@1 응.

#1 백 근 말허는 건디 백 근 도세기 키우젠 허믄 잘도 ᄒᆞᆫ 몃 년 키와사 허여. 겨난 그건 못 잡곡. 그자 ᄒᆞᆫ 오륙십 근, 칠팔십 근 ᄒᆞᆫ 건 잡앙 이제 그거 동네 ᄒᆞ나 잡으민 문 그땐 엿날은 돈덜이 잇어게.

@1 으.

#1 돈 엇인 때난 그냥 잘 갈랑, 하영 갈라가민 권당덜이나 좀 하곡, 경 ᄒᆞ민 ᄒᆞᆫ 세 근, 네 근 경 아녀민 ᄒᆞᆫ 근, 두 근 가졍 사당 저 멩질을 헷주기게이.

@1 응.

#1 멩질을 헷는디. 아, 그것도 춤 그 궤기덜 하영 주어 줘어게.

@1 응.

#1 겡 도세기, 도세기 잡앙 그거, 거 잡젠 ᄒᆞ민 끄시려사 허여, 엿날은.

@1 응.

#1 보리낭으로 허여근에 그거 저 도세기 돌아메엉 죽여놩 이제 또 이제 그거 끄실려근에 그 영영 도세기를 잡앗주기게.

@1 응.

#1 경 헤영 영 멩질을 출리젠 ᄒᆞ민 이제 ᄉᆞ나이덜은 도세기 어디 강 외상헤, 그것도. 엿날 돈이 어디 잇어서?

@1 응.

#1 돈 엇곡 기냥 외상헹 어디 강 저 쏠이나 흔 말 짊어지엉 강 저 조천장이나 함덕장이나 강 풀아사 돈 멘들앙 그거, 그걸 돈 헤여당 고기도 사곡 헷주기게, 옛날은.

@1 응.

#1 경 아녀민 숫도 구웡 저 어, 풀곡 낭도 짇을커.

@1 예.

#1 짇을커 허여당 지, 지게로도 지엉 가곡 구루마로도 시껑 가곡 허영 그걸 시장에 강 풀아사 그게 돈이 뒈엇어.

@1 응.

#1 게영 오랑 궤기도 사고, 바릇궤기도 사고. 또 저 뭐 오랑 ᄒᆞ젠 ᄒᆞ민 그, 그, 밀ᄀᆞ루, 엿날이사 밀ᄀᆞ루 잇엇어? 보릿ᄀᆞ루, 보리체주게.

@1 응.

#1 보리ᄀᆞ루 허영 그걸로 허영 떡허젠 허민 그것도 사오곡 무신 ᄑᆞ도 엇인 사름은 사곡 모든 걸 준비헹 오라근에 그 오랑 저, 멩질 지내젠 준비를 헷주.

@1 응.

#1 거난 그디 뭐 떡덜토 보기엔 뭐 엿날은, 요즘은 떡덜토 이젠 아니 먹곡 경 허주만은 엿날은 문 떡, 떡으로 그냥 춤 멩질을 출려시난.

@1 응.

떡 종류

#1 떡으로 허여근에 떡 종류도 잘도 하서, 엿날도 상웨떡이엔 허영 상웨떡도 멘들고. 뭐, 무신 뭐 모멀, 모멀이주 메밀이 아니라.

@1 예.

#1 모멀로, 모멀로 헤여근에 뭐 그걸 여러 가지 것도 떡을 멘들아지주, 그냥.

@1 으.

#1 뭐 어디 ᄆᆞ멀, 어디 나오는 것이 그 뭐 저 무수 놓곡 헤근에 멘든 거, 빈. 빈떡도 멘들고.

@1 으.

#1 또 ᄆᆞ멀로 또 무시거 허영 떡 멘들안? 저.

#2 물떡.

#5 무정떡, 무정떡.

#1 어?

#7 쥐기떡도 기, 쥐기떡.

#1 어, 그런 것덜 멘들멍 헤근에 멩질을 지냇주기게.

@1 으. (잡담) 여자 삼춘 여기 흔 분 요쪽 와봅서. 무정떡 아까 ᄀᆞᆯ은 분.

#6 무정떡이 뭐?

#5 무정떡 영 모물로 영 멘든 거 잇엇잖아.

#1 경허멍 멩질을 지냇어. 멩질을 지내젠 허민 거 옷덜토 엿날은 옷이 잇엇어?

#6 물떡? 물떡. (잡담)

#1 그냥 저 미녕바지 그거 곱닥허게 저 ᄲᆞᆯ앙 할망덜은 이제 풀허영 풀헤영 다려근에 그거 영, 영 첨 입곡. 그 멩질날 뒈사 그, 저 주웡 입은 것들 문 저 어디레 곱져둰 저 첨 풀헤여근에 곱닥헌 옷 입엇주 경 안 헤시민 문 바농으로 주웡 입언 살앗주기게.

#9 잘 차리는 사름은 솔벤, 절벤.
#1 돌아와가믄 경 허는 거, 예.

차례

@1 응. 그, 거난 그렇게 이제 출령은에 멩질을 헐 거잖아예? 멩질. 게믄 멩질날 아침부떠 차례 지내는 거예. 그 멩질날 그 풍경을 좀 굴아줍서, 아침 멧 시에?
#1 차례 지내젠 ᄒᆞ민이.
@1 예.
#1 차롄 그 육지는 보믄 산에 가서도 허곡 허는디 우리는 제주식은 거의 차례 지내는 게 그냥 멩, 멩질을 ᄀᆞ치 지내.
@1 응.
#1 ᄀᆞ치. 그냥 그 차례 헌 걸 산에 가서 조상님덜에게 인사드리는 거니깐 그냥 그 저, 저 젯상 체려 놓곡. 거 온갖 거 첨 저 그냥 평시에 못 보던 어, 떡이영 무신 뭐 저 바릇궤기영덜 허여근에 올리주기게.
#5 바릇궤기엔 허민 알 건가?
#1 그게 제일 치레허는 거주, ᄎᆞ례옌 헤근에 별도에 지내는 건 별로 엇곡.
@1 게난 그.
#1 문전상 ᄀᆞ튼 디는.
@1 응.
#1 문전상 ᄀᆞ튼 디도 제 지내기 전에 거의 문전상, 아, 엿날은 저 그 고팡이엔 허영 안네엔 헤여근에.
@1 예.
#1 요즘은 안네옌 말허는디. 엿날은 고팡 귀신이 잇엇어, 고팡신이 잇어신디. 고팡신이 이, 저 쏠 지금 ᄀᆞ트민 창고주기게이.
@1 예.
#1 창고에 고팡 저 창고신을 말허는 거라. 게난 고팡신 앞이도 절ᄒᆞ곡, 조왕신 앞이도 저 예를 지내곡 다 경헹 지냇주게. 그게, 그게 옛날 저 우리가 살아온.

국멩질

#4 옛날에 그 명절.
@1 예.
#4 설 지낼 때는.
@1 예.
#4 본 그 명절허기 전에.
@1 예.
#4 국멩질이라고.
@1 예, 국멩질.
#4 예, 국멩질이라고 부르는 거를 이제 그, 옛날은 제주도에선 메밀이 많이 나니깐 메밀국시, 이제 그 국시 헤 가지고 올려서 국멩질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본 이제 명절을 허는데, 그 명절 헐 때는 이 조상 차례대로 헤영 제일 야튼 데 집에서 먼저 허고 ᄎᆞᄎᆞᄎᆞᄎᆞ 올라서 젤 큰집에, 큰집은 제일 나중에 이제 그 멩절제를 지내고 그렇게 헷죠.

@1 게믄 그 차례상에예?
#4 예.

차례상
@1 차례상에는 아까 곧긴 헷지만은 뭐, 뭐 올라가마씨?
#4 그거는 형편에 따라 다 틀리주.
@1 집안에 따라 다르잖아예. 게믄 대 수 이렇게 하면 웃대가 왼쪽으로.
#4 예.
@1 예, 게믄 이렇게 헐 거 아니우꽈예? 게믄 맨 앞에는 무시거 놉니까?
#4 맨 앞에는 그.
#1 맨 앞이는 탕쉬 놓주게, 탕쉬.
@1 아니 겡하고 메허고?
#3 건 틀려.
#4 건 젤 병풍, 병풍 쪽으로.
#1 질 앞이 놓곡.
@1 아, 저 그니깐 사람 우리 차례로 하면 맨 앞이가 탕쉬 놓는 거?
#1 으.
#4 젤 앞에.
#1 우리가 보기엔 맨 앞엔 탕쉬 놓주, 탕쉬.
@1 으, 탕쉬는 뭐, 뭐 올려수과?
#1 탕쉬 고사리허곡
#4 콩ᄂᆞ물.
#1 콩ᄂᆞ물허고. 올리는 게 탕쉬주, 탕쉬 그게 콩ᄂᆞ물허고 저 고사리 헤영 올리는 게 탕쉬.
@1 예, 탕쉬예?
#3 탕쉬엔 허믄 그 당면허고.
@1 예.
#3 당면허고 고사리허고 또 묵.
#6 청묵.
#3 얍게 썰어근에.
#4 무, 무 썰어서 이제.
@1 무채.
#1 그것ᄀᆞ라 뭐옌 허는고?
#2 추석 때는 양에도 올리고.
@1 으, 추석은 이땅은에 허고예, 정월 멩질.
#2 아, 정월 멩질.
#1 묵 썰어근에 영, 이, 저, 요만씩 썰엉.
#6 보찌?
@1 보찌.
#6 보찌게, 보찌.
#1 보찌.
#6 보찌옌 허주. 으, 보찌.

#3 콩나물 무치고 고사리 무치고.
#6 보찌.
#3 당면 무치고 세 개를 한꺼번에 접시 하나에 올려.
@1 아, 접시에 하나에예?
#3 어.
@1 그렇게 이제 헤근에 탕쉬 올리고.
#1, 2 으.
@1 그 탕쉬 맨 앞이 올리고, 그다음 줄에는?
#3 그다음엔 과일.
#1 과일들 올리주.
@1 아, 과일을 중간에 탕쉬가 맨 앞이라예?
#1 어, 어, 어. 탕쉬가 맨 앞이.
@1 탕쉬가 맨 앞이. 상이 이렇게 뒈면 여기에 탕쉬를 올린다는 거지예?
#1 어.
@1 과일은?
#3 가운데게.
#1 가운디, 가운디.
#3 술잔허고.
@1 술잔, 여기는 술잔 허는 디고.
#1 어.
@1 가운데는 탕쉬 올리고.
#3 어.
@1 그다음 과일은?
#3 좌우측으로.
@1 어디?
#3 좌우측으로.
@1 오른쪽으로.
#1 아이 겨난 과, 저 탕쉬 여기다 이 라인에 놓곡.
@1 예.
#1 술잔도 이 라인에 놓곡.
@1 탕쉬는 몃 개 놓읍니까?
#1 이 탕쉰.
@1 탕쉬 놓는 데, 술잔도 ᄀᆞ치 놔?
#1 탕쉬는 구신 ᄒᆞ나에 ᄒᆞ나.
@1 어.
#1 구신 ᄒᆞ나에 구신 ᄒᆞ나에 ᄒᆞ나, 겨난.
@1 구신에 ᄒᆞ나우꽈, 부부에 ᄒᆞ나?
#4 부부에 ᄒᆞ나.
#1 부부에 하나. 겡 저 부부 저 할망, 하르방이면.
@1 으.
#1 둘리. 엿날은, 엿날은 그 저 그 첨 유교식들 말로 허민 저 마누라를 하영 얻엇주기.

@1 예, 예, 예.
#1 각시를 하영 얻엇주기게.
@1 할망 둘 헌 디도 잇어예?
#1 으, 할망 둘 헌덴 말이주. 겨민 탕쉬 그 위쉬에 따라근에 싀 개 올려사주게.
@1 아, 일인당 하나씩 탕쉬를 올려예.
#1 으, 일인당 ᄒᆞ나, 탕쉰.
#4 경허는 디도 잇고 겸허영 허는 디도 잇고.
#1 탕쉬는 놈 주는 거 아니. 자기 거.
@1 으.
#4 본관에 한 곤데만 올리는, 하나만 올리는 데도 잇고.
@1 예, 집안마다예?
#4 제법은 가문가례라 가지고.
@1 예.
#4 이게 설상하는 것도 집안마다 다 조금씩 틀리고.
@1 예.
#1 하튼 우리 집은 한 사람이 하나. 탕쉬는 놈 주는 거 아니.
@1 아.
#1 자기 다 먹어.
@1 게난.
#1 견디 엿날 사름 할망덜은 할망, 하르방덜은 그 탕쉬를 꼭 자기 거옌 헤여근에 춪아가더라고, 그게.
@1 으.
#1 이상허게, 그냥 이 떡 같은 거, 고기 같은 거는 겸상으로 올리는디, 탕쉬만큼, 또 술잔만큼은 똑 자기 거라.
@1 아, 따로따로.
#1 으, 자기 잔.
@1 게믄 홍칩이는 그렇게 허는 거?
#1 으, 우린 그리 허여.
@1 예.
#1 탕쉬도 자기만, 자기 위쉬만씩, 술잔도 위쉬만씩.
@1 으.
#1 겡 과일이나 떡 같은 거는 기냥 겸상헤서 어, 올리곡.

멩질 떡
@1 정월 멩질에 떡은 무신거 헙니까?
#1 떡은, 으, 여러 가지주게.
@1 으.
#1 엿날은 보릿ᄀᆞ루로 허여근에 상웨떡 멘들안 올렷곡.
#3 그 떡 만든 거는 여자 어룬덜안티 들어봐, 여자 어룬덜이 떡을 많이.
#4 상웨떡허고.
#1 침떡도.

#3 시루떡허고 상웨떡허고.
#1 송편.
#3 송편, 지름떡.
#1 지름떡.
#3 뭐, 등등.
@1 아니, 정월 멩질에도 상웨떡 헨마씨, 이 동네?
#1 으, 상웨떡 올리주게.
#3 엿날은 헷주. 이제는 간단허게들 허여서 그렇지, 상웨떡이렌 허는 건 상 웨에 상 밑에 올리는 거보고 상웨떡이렌 허는 거주게.
@1 음. 어쨋든.
#3 상에 올리는 건 상 웨 떡이 아니주, 상 밑에다가.
#1 우리, 우리 집안은이.
@1 예.
#1 그, 저 그 홍씨 집안이 그, 만허여.
@1 예.
#1 그 경허난 궨당덜이 ᄒᆞᆫ 모여왕이 그냥 상웨떡 허젠 허믄 그냥 뭐 보리 ᄀᆞ레로 ᄀᆞᆯ앙 헷주게이.
@1 응.
#1 ᄀᆞ레로 ᄀᆞᆯ앙 막 치곡 메밀, 모멀도 경허영 치곡 허는디. 궨당덜 모여왕 처도와줘.
@1 응.
#1 경허민 기냥 하, 저 식게, 아, 춤 멩질 집집마다 돌아뎅기멍 세믄이.
@1 예.
#1 적꼬지가 막 질, 질어낫어.
@1 으.
#1 겨민 그거에 궤기도 꿰엉 뎅기고 또 상웨떡이여, 또 떡 받은 것덜 이녁 그 받은 것덜 먹지 못허주게.
@1 예, 예.
#1 겨민 받아다근에 그걸 적꼬지에 꿰엉 집일 오라.
@1 응.
#1 집이 왕 허민 그 상웨떡은 막 며칠 둬믄 겨울이여도 쉬어게.
@1 예.
#1 쉬어도 맛 좋아, 그거.
#6 맛 좋아.
#1 으, 쉬, 그때 엿날은 쉰 것도 모른 거, 그런 것도 뭐 썩은 것도 몰랏어, 그냥.
#3 상웨떡은.
#1 으.
#3 이 정월 멩질에 쉴 염려가 경 많이 엇는데, 이 추석 때는 막 그 훼장님 얘기 허듯이 쉬도, 헤도 뭐 맛이 좋기가.
#1 아이구.
@1 예.
#1 겨울에도 그게 오래 놔두민 곰펭이가 피어, 그게.

#3 여름은 떡이 다 쉬엇주게.
#1 으, 그렇게 맛 좋아 겨민 탈도 엇엇어.
@1 게난 이 대흘이, 대흘이 막 산디 같은 게 잘 안 뒈난 모양이우다예?
#1 아유 대흘도 산디 잘 뒛주.
@1 잘 뒈?
#2 잘 뒈.
#1 잘 뒈어. 엿날은, 엿날은 곤쏠이렌 헤근에 저 제주돈 산디밥이주기게.
@1 예.
#1 곤쏠이엔 허믄 나룩을 애기허주만은 저 산디 지어근에, 산디쏠이게 그게 곤밥, 곤쏠.
#3 먹어졋어? 풀젠 헷주.
#5 찹쌀이주, 예?
#3 으, 촙쏠, 촙쏠.
#5 산디가 촙쏠이주.
#1 ᄎᆞ나룩, ᄎᆞ나룩이주.
#3 ᄎᆞ나룩보고
#5 예, 촙쏠.
@1 으.
#5 ᄎᆞ나룩.
#3 그거 먹어졋어게, 풀앗주기게.
#5 촙쏠, 산디가.
#7 산디가 찹쌀이 아니고, 밧디서 산에 밧디서 산디 농서헌 거.
#2 명질은 먹진 안헤도 제서 명질 허기 위헤서 항아리에 보관행 놧다가 써.
#7 산디옌 헌 게 ᄯᅳ로 서.
@1 예, 예.
#1 멩질 때나 저, 그 산디, 산디밥, 거 곤밥.
@1 예.
#1 곤밥. 그건. (웃음) 흔 숟구락 얻어 먹엇주게, 엿날 여자덜은 춤 쏠 서 말에치 먹지 못허영 시집갓젠 굴아낫어.
@1 아.
#6 보리밥.
#1 으, 엿날은.
@1 쏠 서 말어치 못 먹엉 시집간예?
#1 쏠 서 말에치 못 먹주게. 멩질이나 식게 때도이 식게 때도 저 곤밥 흔 사발 못 먹어.
@1 예.
#4 흔 사발 주지도 아녀는디.
#1 (웃음)
@1 흔 사발 주지도 아녀는디예.
#2 줄게 잇어? 잇어사 주주게.
#1 시집가젠 허민. (웃음)
#2 시집간 땐게.
#1 서 말어치 못 먹엉 갓어. 엿날은 스물 전에 문 결혼허지 안헤서게.

@1 예.
#1 열대여섯만 넘어 가민 어디 중신덜 오라근에 문 돌아가 부난 그 말이 맞아.

국수멩질

@1 게난 국멩질 먼저 헤낭 그다음 본 차례 지내낭 그다음에는?
#1 국멩질 아니고 국수멩질이주, 국수멩질.
@1 국시멩질, 으.
#4 게난 국수를 못 헤왓을 때는 옛날에 제주도는 메밀이 많으니깐 메밀.
@1 예.
#4 메밀칼국수, 요즘말론 칼국수.
@1 칼국수, 으.
#1 견디 그, 저 메밀국수헐 때는 국수멩질헐 때는 어떻게 헷느냐, 우리 그 저 조선시대부떠 음력을 줄창 헤오지 안헤서? 음력으로 헤영 살아오난 이제 일제시대 뒈니깐 양력으로 허라 허난.
@1 응.
#1 양력으론 지내는 집안덜은 그 일본말, 사름 말 들엉 양력으로 지내는 사람들은 정식으로 메 허여근에 지내고. 경 허민 이제 또 음력 설 들어오믄 섭섭허지 안허여?
@1 응.
#1 섭섭허난 그땐 이젠 국수멩질이라도 허는 거라.
@1 응.
#1 그냥 저 헤 넘지질 못허난. 경 헤영 그냥 으, 그때 뒈민 국수멩질이라도 허영 지내곡. 또 일본 사름덜 양력 설 허렌 막 허여도 이 저 동쪽드레는 시에서 동쪽드레는 그 말 아이 들엉 거의 음력 설 지내.
#4 거의 구정이라.
@1 예.
#1 어, 그 사름덜은 음력 설 뒈민 멧밥 허영 제라허게 올리고.
@1 응.
#1 또 양력 설 뒈민 저 국수멩질라도 허여근에.
@1 응.
#1 섭섭허난.
@1 예, 예.
#1 겡 제사옌 헌 게 거 조상 돌아간 날이 아니주게.
@1 예, 예.
#1 조상 돌아간 날이 아니고, 조상 앞이 헤 지면, 묵은헤에 가곡 새헤 와수다 허는 인사난.
@1 예, 예.
#1 겡 섭섭허난 국수멩질이라도 헨 올린 거주.
@1 응, 그렇게 허고예?
#1 으.

문전제

@1 그다음 아까 멩질헐 때 조상한테 출리는 그 상도 잇고예, 설상헐 때. 그난 문전제도 헌

덴 허멍예?
#1 으.
@1 문전제는 어떤 식으로 허는 거우꽈?
#1 문전제도 똑ᄀᆞ치.
#4 문전 꼭 마찬가지주, 찰리는 건.
@1 찰리는 거 똑같아.
#1 으, 똑같이.
@1 으.
#1 똑ᄀᆞ튼 귀신이주기게, 문을 직헤주는 귀신이고, 조상은 우리 선조고.
@1 예.
#1 게난 우리 문전제들은 집집마다 다 거의 뭐 안 지내는 집안이 없어.
@1 응.
#1 그 집안, 집이 들어와 가민 첫째 문부떠 들어가난 문 귀신이 받아주어사 가는 거 아니?
@1 응.
#1 저 들어옵서 헤사 오는 거 아니?
@1 예.
#1 그런 원 체격으로, 그런 체격으로 저 그 저 문 귀신은 저 위헤근에 경.
@1 게믄 문전제를 먼저 지냅니까?
#4 제일 먼저 지내.
@1 어, 제일 먼저 지내고 그다음에 이제.
#3 몸제.
@1 몸제렌 헤마씨? 조상님들한테 허는 건 몸제.
#1 으.
#3 몸제.
@1 아, 문전제, 몸제. 그다음에 아까 조왕제도 허곡.
#3 건 끗난 다음.
#1 조왕제는.
#3 저 문전제 끗난 다음에.
@1 문전제 하고.
#3 문전제상으로 그 저 부억드레 가져가지.
@1 아, 조왕 나시 이렇게?
#3 어, 어, 어.

고팡제

@1 고팡제는?
#4 고팡은 거, 거 안에, 그 몸제에 진설헤 놓은 그 방안에 따로 다른 그릇에다가 놧다가.
#1 출려, 출려 놓주게.
@1 출려 놓곡.
#4 으, 미리 출려 놓곡. 제, 제 끗날 무렵 뒈민 그걸 고팡더레 가져가.
@1 아.
#4 고팡에 가져가면은 어무니, 아버지, 저 어무니네가 저 고팡에 가서 어무니가 곳간 주인

이니깐 이제 거기서 이제 걸.
#6 어멍 나시, 여자 나시, 고팡에 건 여자 나시.
@1 여자 나시예?
#6 으, 어멍 거.
@1 응.
#6 고팡은 여자가 안 주인이니까.
#3 이젠 조왕제여, 고팡제여 엇어졋지.
#4 아, 이젠 고팡이엔 헌 거 엇어져 부니까.
#6 아니 엿날은 엇어지지 안헌 땐 그런 말 헤수다.
@1 으.
#6 그 고팡에 가난 건 어멍 적시, 여자 나시, 고팡 안주인.
#1 고팡 엇어진 지가 이건 뭐.
#6 안네 헤난 거.
#1 그렇게 오랜 세월이 아니라.
@1 예.
#1 으, 오랜 세월은 아니고.
@1 게도 지금도 허는 집은 이실 거라예?
#6 지금도 허는 집은 이십니다.
#1 이실 테주, 저.
#4 게난 거 조왕도 조왕 할망 나시도게, 거 문전제 지냇다가 상을 물리면은 이제 그건 이제 어머니들이.
@1 톧아근에.
#6 예, 톧앙.
@1 그거 톧앙 조왕신 앞에 이제.
#6 조왕에 올렷다근에.
@1 게믄 설상은 세 개 허는 거예?
#1 으.
@1 몸제 거허고.
#1 설상은 다 설상.
@1 문전제 거허고 그다음에 이제.
#1 조왕신.
@1 조왕 거는 설상 안 헌덴 허멍.
#4 조왕은 설상 안 허지.
@1 으.
#2 차판에.
#6 문전에 거 헤당 조왕에는 걷어근에 쓰는 거난 상을 안 놓주게.
@1 아, 차판에 조왕에 거예?
#6 예, 것도 뚜로.
@1 것도 집집마다 뚜난 모냥이라예? 거난 문전젯 걸 걷어근에 올리는 디 잇고.
#6 올리는 게 잇고.
@1 별도로 차판에 헹은에 올리는 경우도 잇고예?

#1 그냥 저 저 고팡제는.
@1 아, 고팡제.
#1 저 출려근에 고팡드레 강 놓곡.
@1 예.
#1 거기서 절허영 제만 안 허주. 고팡에 갖다 놓곡. 저 문전제허고.
#4 조왕.
#1 저 조왕제는.
@1 예.
#1 조왕제는 문전제 지낸 다음에 거기서 남은 음식으로 헤영 저 조왕 우이 올려놓곡.
@1 예.
#1 웨냐믄 그 문전제는 남편이고.
@1 예.
#1 조왕제는 그 집이 부인이라.
@1 음.
#1 그렇게 보믄 뒈.
@1 예.
#1 에, 경허난 그냥 조왕제 지낸 다음에 하르방, 남편이 먹어난 식사를 엿날은 다 경허지 안헤서게.
@1 예, 예.
#1 여자야 뭐 누넹이나 긁어 먹어시난.
@1 예.(웃음)
#1 에, 조왕 저 춤 문전제 지낸 다음에 거기서 그거 톧아 놔근에 그거 조왕 아니, 으, 조왕 할망 앞이 올렷주.
#7 우리 ○○이네 칩인 부억에 영 출려 놓는 건 고팡에 안 헤부난 경허는 거 아니?
#4 아, 거난 이젠 고팡이 엇어져 부난.
@1 응.
#7 게메 경허난 부억에 출려 놓는 거 아니?
#4 거 이제 부억에서덜토 거 출려 놓더라고.
#1 부억에도 또 출리는 사람은 출려놔.
#7 그추룩 허여.
@1 예.
#4 고팡 대신 그거 출려 놓는 사람덜 잇대.
@1 예.
#4 이젠 고팡이 엇어져부니까게.
#3 양옥집덜 지어 가난 고팡 엇어부난 이제 고팡제를 안 헷주게.
#6 고팡이 엇어 부난게.
@1 맞아, 고팡이 엇어 부난예?
#6 예.
#3 엿날 초가집이덜 고팡 잇엇주게.
#6 항 우에 놔수게, 항 우이.
#3 항아리덜, 고팡 안에 항아리.

#9 큰 항아리.
@1 으.
#3 쥐 들어와근에 먹지 못허게 항아리.
#9 근데 옛날에.
#3 항아리 저 곡식을 놔놧주게.
#9 밥을 떠 놔 가지고 올해도 농사 잘 뒈게 헤주십서 허고 밥 떠 놓는 거주.
@1 음, 예, 맞습니다.
#6 옛날 항아리 ᄀᆞ득헤 줍센 헹 올리는 거주.

칠성제

@1 음, 혹시 그 이런 멩질헐 때 칠성은 여기는 안 모십니까? 우, 우영에.
#3 아니.
@1 거기 ᄂᆞ람지, 이런.
#3 ᄂᆞ람지?
@1 주젱이 헤 갖고.
#3 주젱이, 주젱이.
@1 주젱이.
#3 ᄂᆞ람지가 아니고 주젱이.
@1 주젱이.
#1 주젱이.
@1 으, 그 주젱이 더껑 허는 거는 엇어마씨? 이 동네는.
#3 엇어.
#4 저 표선쪽드레 가믄.
#6 아니 허는 디는 엿날은 헨게마는.
#1 송칩이덜은 잇엇어.
@1 아.
#1 송칩이덜은이 그게 도깨비 귀신이주게, 흔 쪽으로 말허민.
@1 예.
#1 도깨비 귀신이라고 헤서.
#4 도깨비, 뱀.
@1 으.
#9 베염 구신게, 거 칠성이난.
#1 ᄂᆞ람쥐 그디 귀신을 모셧주.
@1 예.
#1 경헌디 그런, 그런 집안이 잇고. 또 그거 그 귀신이 엇인 집안은 거 안 모셔.
@1 겅 안 허곡.
#1 건 모시는 집안덜.
@1 거난 이 동네는 보편적으로 안 허는데 송칩이는 겅 헌다는 거지예?
#1 으, 송칩이덜.
#4 송칩도 다 허진 안허고, 허는 집이 잇어.
@1 예, 알아수다.

#1 거, 귀신 모시는 집이 잇어.

과세

@1 과세덜은 며칠 헙니까? 엿날에 과세.

#1 과세?

#2 보름끄지 허주.

#1 과세.(웃음)

#4 보름끄지, 보름.

@1 보름끄지, 아.

#6 엿날엔 차 엇이난 걸엉.

#9 보름끄지 헷어양? 보름끄지 헷어.

#1 과세는 보름끄지 가서.

@1 으.

#6 (웃음)

#2 웨 보름끄지 헷느냐면.

#1 (웃음)

#2 그 음력 정월달에는 뭐 밭에 일헐 게 벨로 없으니깐, 추우니깐.

@1 예.

#2 겨믄 이제 아침에 과세허레 나왓다가 한두 집 정도 다녕, 아침밥 거기서 끼니를 해결허고.

@1 예.

#2 앉아서 그 집안 어룬덜 허고 앚앙 놀멍 얘기허다가 낮 뒈민 다음 집에 강, 다음 집이 가서 한두 군데 다녀서 끼니를 먹곡 낮엔 또 앉앙 놀멍 먹곡 오후 뒈가믄 이제 또 다섯 시 넘어가민 이제 다음 집더레.

@1 으.

#2 넘어가서 경 헹 저녁 해결헤서 집이 강 또 다음 날.

@1 음.

#2 식사 해결허기 위헤서.

@1 식사 해결허기 위헤서예?

#7 먼궨당덜 걸어오젠 허면은 오래부난에 그축 헷주.

#4 먼친척덜은 이제 과세를 못허면은 보름날까지 이제 어떻든 만나면은 절헤야, 과세를 헤야 뒐 거 아니라, 경허난 이삼일 내에 다 못 허니깐 그래서 보름까지 가는 거라.

#6 걸엉, 걸엉, 차 엇엉.

#1 엿날은이.

#4 다 걸엉 다니고 헤시니까게.

#1 엿날은.

@1 응.

#1 저 도실, 도실꼿 피어사 저 사둔칩이 과세헌덴 헷어.

@1 아, 사둔칩은 먼 디니깐.

#1 으, 그.

@1 도실꼿, 으.

#1 똘을 풀면 똘을 저 신랑칩이서 과세 오는 것이 아니라.
@1 예.
#1 똘칩이서, 똘칩이서 신랑 저 부모 만낭 인사 드리레 와낫주기게.
@1 예.
#1 엿날은.
@1 똘칩이서가?
#1 으, 똘칩이서가. 게민 사둔칩이 과세허레 가젠 허민 빨리 가긴 헤살 건디.
@1 예.
#1 저 그럭저럭 어, 허당 보민 이녁도게 저 과세 나이 많으민 과세도 받곡 또 뭐 허당 보민 보름이 훨, 훽 지나불주기게. 겨민 과, 저, 도실꼿 피어사 헌덴 헌 말은 저 도실꼿이 저.
#6 복숭아꼿인가?
#5 정월, 복숭아꼿.
#1 도실꼿이 저 복숭아꼿이라게, 이.
@1 복숭아꽃.
#5 아, 복숭아꼿.
@1 아, 게난 삼월 날 때까지 가는 거지예?
#1 복숭아꼿 피어, 도실꼿이 필 때꺼지 이저 미루당 사둔네 집이 저 어 간뎅 허는 말이주, 아니 갈 수 엇고.
@1 네.
#1 에, 경헹 사돈 앞이 가근엥에 저 첨 과세헌덴 말이주.
@1 어.
#1 그때 경허영 도실꼿 피어사 저 사둔칩이 저 과세허레 간덴 말이, 허주.
@1 예, 예.
#1 옛날부떠.
@1 예.
#1 겨난 옛날은 문 걸엉 뎅기곡 허젠 허민 거 사둔칩두 영헹 동네이믄 뭐 좋주만은 막 멀리 칩도 잇주기게.
@1 예.
#1 예. 거 걸엉 가젠 허민 거 진작 가지 못허영 저 늦엉 가진 말주게.
#3 날 역벌영 허는 거라.
#1 도실꼿이, 도실꼿이 피젠 허민 첨, 피어사 간덴 헌 말은 그만큼 늦엉 간덴 말이주.
@1 예.
#1 빨리 가지 못허고.
@1 예. 과세를 오래헷단 소리겟지예?
#1 으, 으. 도실꼿은 첨 이월 나사 피는디 정월에. (웃음) 정월 보름도 넘어근에. 저 가지 못헹 헌덴 헌 건 말이 아니난. 그냥 늦어 간덴 말이주, 늦엉. 늦어도 간덴 말이주.
#3 동네 어른덜 우선 과세헤둬근에 사돈은 나중에 가는 거주게.
@1 예. 게믄 옛날부떠 이 대흘은 양반촌이라 난 거 닮다예, 웃드르예?
#1 으, 양반촌이주, 여기는.
@1 양반촌예.
#1 어, 양반촌이라.

정월 대보름

@1 정월 대보름은 어떤 식으로 지냇수과? 여기는.

#1 정월.

#3 정월 대보름은 엇엇주.

#1 정월 대보름도 엇어진지 잘도 오랫주이. 그거는.

#4 오랫주. 정월 대보름 엇어진지.

오곡밥

#1 잘도 오래서. 그땐 뒈민 저 오곡밥덜토이 거 보리, 거 옛날은 저 대죽이엔 허영이. 수수를 허영 갈아나서게이.

@1 아, 여기에, 예에.

#1 으, 대죽허영 거 빗자루로도 메곡 그거 쏠로 헤근에 그거 먹곡 헤영 헤신디, 거 오곡이엥 허민 꼭 대죽쏠이 들어가사 허여.

@1 예.

#1 좁쏠.

#5 오곡밥에.

#1 뭐 풋, 보리, 나, 사릅, 저 나룩허영은에 거 곤쏠. 경허영 다섯 가지 쏠이 오곡밥이라게.

@1 으.

#1 겐 대죽, 대죽 아니 들어가면은 오곡밥이 아니라낫어, 옛날엔.

@1 게믄 대흘에서도 오곡밥 정월 보름에 헹 먹언예?

#1 으, 으.

@1 아.

#1 허여 낫주만은 그거 잘도 엇어, 정월 보름 엇엇진 지 잘도 오래엇어. 우리 훈 우리 어렷을 때 엇어져시난.

@1 액막이 같은 거는 정월 보름에 허지 안헙니까?

#1 어, 정월 보름에.

#3 벨롱겡이엔 허주, 벨롱겡이.

@1 벨롱겡이.

#1 으. 정월 보름에도.

@1 벨롱겡이 굴아줍서. 벨롱겡이.

#3 거.

보름떡

#5 아니 경허곡 정월 보름에예.

@1 예.

#5 우리 어린 때는.

@1 으.

#5 보면은예, 그 쌀을 좁쌀.

@1 좁쌀.

#5 좁쌀을 방엣공장에 갈아당은에.

#2 흐린좁쌀.

#5 정월 보름날은 이저 이 시리떡 큰 그 검은시리에 한 징 한 징 놓곡에, 식구덜 이름 하나, 거 속지에 이름 써놩 일년 운수 보는, 운수가 그 떡이 잘 익으면 운수가 좋곡 떡이 설면은 그 해에 운수가 궂덴 헹예, 우리 어린 때는 막 그런, 그런 걸 헤낫수다.

@1 게난 그걸 무슨 떡헙니까? 그 떡을.

#5 그것이 좁쌀.

@1 좁쌀로 허영.

#3 좁쌀, 좁쌀.

#5 좁쌀 불려서 방에 강 골아당. 팥 놓곡.

@1 으.

#5 경헹예, 밑에 징, 한 징 한 징 놩. 것도 한 사름이 한 징을 썽 놔야주게, 그기.

@1 으. 이름 썽.

#5 이름을 써.

@1 예.

#5 게믄 그 떡이 안, 그 해 그 사름이 궂젠 허은 떡이 안 익어, 막 설어근에.

@1 으.

#5 게민 아이고 이거 올리 운수가 우리 궂일로구나, 허영 정월 보름만 뒈어가믄예, 그 운수 보젠 그거부떠 우린 멩심헤낫수다.

@1 게난 건.

#5 떡 쳥 먹젠.

@1 그니까 집, 집안에서 헙니까.

#5 어.

@1 아니면.

#5 집, 집안에서 허는디.

#3 집안에서, 집안에서.

@1 아.

#5 딴 사름도 같이 헐 수가 잇어, 그 징에서 한 징, 한 징 놓니까.

#1 정지에서, 정지에서 허주, 뭐.

@1 게믄 우리 집도 허고 삼춘네 집도 다 따로따로.

#5 어, 어 다른 집도 다 허여, 많이 헤여. 경헹 정월 보름만 뒈민예, 그 떡헹 떡 운수 보젠 그걸 막 헤낫수다.

@1 아.

#2 경헹 먹음도 허곡.

@1 먹음도 허곡.

#5 예. 경헹 먹음도 허곡.

@1 정월 대보름날에예?

#5 예. 한 징, 한 징.

#5 친구덜끼리, 친구덜끼리.

#5 아니, 식구덜, 아버지, 어머니, 딸, 아들 이름 다 써놩.

#3 거 식구덜 이름 다 써. 떡 하나에 식구 이름 다 써, 흔 사람씩.

#5 어, 어. 써놔근에 그 떡이 잘 익으민 아이고, 올리도 막 운수가 막 좋켜 허곡, 떡이 설민 아이고 멩심허라, 올리 어, 막 재수가 궂이켜.

@1 으.
#3 경헤난 거 생각납니다게.
@1 예, 다른 딘 가난 그걸 뭐 보름떡이렌 허고.
#5 예, 보, 정월 보름날에.
@1 예.
#3 아니.
#5 보름날에.
#1 보름날은.
#5 재수보젠.

본향 과세

#1 보름날은 저 본향당엔 허영 향, 당에 가주기게.
@1 아, 보름에 갑니까?
#1 당에.
@1 이 동네는.
#1 으.
#5 아니, 우린 그런 건 안 헷고 떡 허는 것만.
#1 당에덜, 당에덜.
#4 당에 다니는 사름은 가, 당에 가.
#5 당에 다니는 사름은 가곡 우리는 안 가낫어.
#1 떡도 허영 가곡 경허영 강 올리주기게.
@1 예.
#1 당에 가젠 허민.
@1 본향에.
#1 어. 옛날덜은 저 본향당에덜 하영 갓주, 다. 거의, 거의 백 프로 갓주. 거의.
@1 예.
#5 당에 가는 사름은 보름날.
#1 요즘덜은 잘 아니 가는디.
#5 세배, 보름날ᄁᆞ지 세배허레 간덴 헹 가낫수게예. 보름에 세배점.
#1 인사 가는 거주게.
#5 예, 인사 가는 거.
#1 할망 앞이.
@1 예.
#1 본향당에 강 저 비는 거주기게. 첨 금년 저 우리 식구덜 저 어 아무 탈 엇이 지내ᄃᆞ렌 헤근에 할망당한티.
#4 거 빌레 가는 거주게.
@1 예.
#1 비는 거주, 비는 거주.
@1 게난 여기는 그 할망당이 잇어난 거라예?
#1 으, 잇어낫주.
#3 할망당.

#1 지금도 잇어.

마을제

@1 마을젠 안 헙니까? 여기.
#1 어, 마을제도 이젠 엇어져 불언.
@1 아. 게믄 여긴 굿으로, 할망당.
#1 어, 굿허는 사름도 엇고.
@1 엇고.
#1 어.
@1 게난 그 본향당은 무슨, 당 이름이 뭐우꽈?
#1 본향.
#5 비자남밧할머니.
#1 그냥 본향당이엔 허주.
#5 아니, 비자남밧할머니엔 헤근에.
#1 대흘 본향.
#5 폭낭 밑에, 폭낭 밑에 잇엉은에, 이 대흘에 살아난 사람덜, 원래 사는 사람덜은, 떠나가분 사람은 안 허곡. 우리도 저 정월 지내나면예?
@1 예.
#5 삼 일끄지는 세배다 헤근에 갑니다. 요기이.
@1 아, 정월 멩질 끗나나면.
#5 어, 어. 끗낭 삼 일 전이. 삼 일 뒈 가면.
@1 어.
#5 영 봐근에 저디 그 멩질 헤난 거 다 영 그거 뒈지고기고 쉐고기고 다 거둬 놔뒀당.
@1 으.
#5 그디 강 절허곡 할머님 저 세배 왓수덴 헤근에 요디 가는 디 잇수다게.
@1 아, 그 당 이름이 무시거.
#5 비ᄌᆞ남밧할머니엔 헙니다.
@1 비ᄌᆞ남밧.
#5 예.
@1 아.
#8 비ᄌᆞ남밧.
#5 비ᄌᆞ남밧할머니, 우리도 난 또 이디 시집 온 디난 어르신네덜 곧는 말 들엇단에.
#1 비ᄌᆞ남밧할망예.
#5 예. 비ᄌᆞ남밧할머니엔 허영. 우리 간디, 이제 가는 사람 얼마 엇수다게.
#3 가는 사름이 엇어.
#5 이디 원래 대흘 사름이 엇어부난.
#1 이제 가는 사람이 엇어.
@1 예.
#5 우리 대흘 잇는 사람만 허주, 들어온 사름덜도 안 가고게.
#1 멧 멧 사람만 가.
@1 들어온 안 가고예? 예.

#5 우린 여기 아방이 토벡이난에 그디 감주, 경 안허민 안 가. 헤난 사람이나 가주.
@1 예. 게민 그거 ᄒᆞ꼼 잇당 물어 볼 거고.
#5 으.
@1 그 비ᄌᆞ남밧할머니는 그냥 정월에 삼 일까지 헹은에 세배 가는 거잖아예?
#5 예.
@1 그거 말고 거기에서 마을을 위헤서 굿을 허거나.
#5 아니, 아니, 건 안 헙니다.
#2 이젠 안 헙니다.
#5 안 헙니다.
#2 이젠 안 헙니다.
@1 옛날은 헤낫수과?
#5 옛날은 헤낫어.
#2 우리 어린 때 헤낫어, 열 솔.
#1 옛날은 헤나신디.
@1 아.
#2 구십 년 전에는 헷어.
@1 예.
#5 사름덜 많이 신 때.
#2 이 밧디서도 헤낫저. 굿허곡.
#3 예를 들어보면.
@1 예.
#5 당굿헷주, 여기.
#5 예.
#3 그 부락제를 지냇는데.
#5 이젠 사름덜.
#3 제관헷던 분들이 잘 안 뒌덴.
@1 아.
#3 그 누구나 제관을 허지 안허젠 허니까 그 제가 엇어졋젠 허는 말이 잇어.
@1 아.
#3 제관헷던 사름은 안 뒈부니까.
@1 게니까 그 마을제는 비ᄌᆞ남밧할머니안테 강 헷는데.
#3 어.
#5 예.
@1 어, 그런 말이 잇엇구나예?
#5 게난 이제도.
#3 경허난 누구 역시.
#5 마을마다 거의가 다.
#5 예.
#3 제관덜 안허젠 허니까. 에, 게민 우리 제 이거 설러 불자 헤 가지고.
#5 거기 갈 때, 메밀떡으로 돌레떡 동그랑케 헤 갖고.
#2 게 그때 당시에 그 굿허젠 헹 허면은, 어릴 때 보면 요 밧테 떡헹 올리곡 허는 걸 봐낫

는데.
@1 예.
#2 그루후엔 쪼꼼 저가 읔아 가지고, 그 웃어른한테 들엇는데 그 분덜이 먹을 거 없으니까 밤에 술쩨기 간 내련 먹어 불고렌.
(모두 웃음)
@1 아.
#2 먹을 거 엇이니까.
@1 올린 거예?
#2 으.
@1 예.
#2 겨울에 앉앙 놀멍 우리가 이제 이제 좀 읔으니까 스무남은 나가니까 걸 엿말로, 자랑으로 얘기 허는 거라. 먹을 거 엇이난에 그걸 먹어셰, 그거 사람이 헐 짓 아니주.
#3 신안테 올린 걸.
@1 예, 맞아.
#5 죄 받아.
(모두 웃음)
#5 그런 식으로 헹 살앗다는 거.
@1 으.
#5 출령 놔두난 작살로 간 쏘아둥 꺼넹 먹엇젠 헨게.
@1 예.
#2 ○○ 아버지 산 때 먹어나고렌 자랑허멍. 아이고.
#5 이젠 당에 가는 사름 얼마 엇입니다게.
@1 이젠 거의 없고예?
#5 멧 사름.
@1 멧 사름예?
#1 ᄆᆞᄉᆞ왕도 못 먹을 거주게.
#5 ○○하르방 잇어시민 잘 굴을 건디.

벨롱겡이

@1 그다음에 삼춘, 아까 벨롱겡이렌 헷잖아예? 우리 그 액막이 하는 거.
#3 으.
@1 벨롱겡이에 대헹 굴아 줍서. 어떤 식으로 헷는지.
#3 그게 그 심방 쪼끌락헌 저 심방 빌어다근에 집에서.
@1 예.
#3 집에서덜 헷주, 집에서.
@1 집에서들. 게 안택ᄀᆞ치 허는 거우꽈? 집안에 그 좋게.
#3 우린 벨롱겡이엔 말만 들엇지 그거 허는 걸 간 안 봐봔. 우린 미신은 원 믿지 않는 사람이난에.
#1 벨롱겡이엔 허영.
#5 도세기 데가리로 헌덴 헨게.
#1 집에서.

#5 아니우다게. 벨롱겡이, 무신 도세기 데가리, 저 어른도.
#6 일 년에 영 훈 번.
#5 어, 그런 건.
#7 것도 날 조왕제허고 문전제허는 집안에.
#5 예, 이녁 허는 사람, 이제도 허는 사름은 헙니다게. 요즘 제 허는 사름.
#6 막 큰심방 아니, 조그만헌 심방 빌어당.
#3 선심방 빌어당 허는 거주게, 선심방.
@1 선심방 빌어당예.
#5 어, 선심방 빌어당.
#3 어. 싸구리심방 빌엉다근에.
#5 싸구려심방. (웃음)
#3 벨롱겡이도 헤나면 제마다 헤야 뒌덴 헹 첨.
#5 예, 경헤근에. 제사나 마찬가지, 안네, 문전에 다 그 초상에 절허고 떡 올리고 다 그 식구덜 막 일 년 내내 좋게 헤줍센 헹. 거 우리도 헤낫수다게.
@1 예, 예.
#5 허여난.
@1 게믄 그거 벨롱겡이 헤난 다음에는.
#5 예.
@1 이제 그 음식들은 또 길 어디 강은엥에 영.
#3 거 집에서 먹고.
#5 아, 경예, 그.
@1 겅은 안 허고.
#5 거예, 온 사름덜 가져가곡 나머지 다 먹고 어디 버리곡 허는 건 아니.
@1 버리는 건 아니고.
#6 그거 허여 봉 집이 막 굿덴 허민 거 액도 막앗주게.
@1 응.
#6 액 막젠 허민 그거 출린 것덜 놓곡.
#1 벨롱겡이.
#6 어디 이런 길 삼거리에 가근에 꼭 차롱에 헤당.
@1 예, 예.
#5 우린 그걸 것ᄁᆞ지는 안 헤 보고.
#6 돈도 놓곡.
@1 응.
#6 경헹 그 떡 먹으나 돈 아져 가민 죄 받넨 허멍.
#3 그 떡 주멍 달래는 거주, 그거 귀신. (웃음)
@1 예.
#5 경헹 액막이도 허여.
@1 게난 그런 액막이허는 집안에서 허는 거를 벨롱겡이렌 허는 거라예?
#5 예. 벨롱겡이.
@1 것도 정, 정초에. 정월에.
#5 한 삼월ᄁᆞ진 헙니다. 삼월ᄁᆞ진.

@1 삼월끄지.
#3 삼월끄진 허여.
#1 저, 정월 보름날도 허주만은.
#5 정월, 이월, 삼월끄지 허여.
#6 집집마다 허여.
#1 꼭, 꼭 그날만 허는 것이 아니라 집이 무신 저 궂인 일 이시민.
@1 예.
#6 농사 잘 뒈게 헤줍센 허영. 농사 잘 뒈게 헤 줍센.
#1 거 벨롱겡이 꼭 저 허는 거.
@1 예.
#6 우리 처녀 때.
#3 거 정해진 날짜는 아니고.
#5 자기에 게도 날을 봥 좋덴 헌 날 헤근에게.
#6 원, 안 허메.
#7 게메.
#6 거의 다.

포제

@1 훈사름씩예, 그다음에 여기 포제 ᄀᆞ뜬 것도 헙니까?
#1 포제도 엿날은 헷주만은 이지금은 거 다 엇어젼, 것도.
#5 엿날.
@1 이젠 다 엇어지고예?
#1 으, 엇어젼.
#3 포제가 마을제주기게.
@1 예.
#1 포제.
#3 포제가 마을제라.
@1 으. 포제가.
#1 아니.
#3 포제가 마을제주게.
@1 아까 포제 헌, 제관헷던 사람덜 안 좋앙 헌 거예.
#3 어, 어.
#1 포제, 포제를 지내젠 허면 포, 당에 가근에, 당에 가근에.
#3 정성 들여사.
#1 제 지내는 게 포젠디. 그거 지내젠 허민 저 일주일 전부떠 칠일 전부떠 몸단장 곱게 허곡 미신 할망 옆이도 가지 말곡 경 허영 강.
@1 으.
#1 저 당에 강 지내는 게 포제라게.
@1 여기는.
#1 어. 견디.
#3 포제 지내는 자리가 잇주.

#1 당제가 엇어부난.
#5 제단.
#1 당제가 엇어부난 포제도 이젠 엇어져 볏주게, 여기는. 지금 와흘은 당제 허난.
@1 예, 예.
#1 일 년에 훈 번 당제 허는 디덜은 뭐 여러 군데 잇어. 와산도 허곡.
#5 일 년에 와흘, 두 번 헴수게.
#1 경헌디 강 그런 저 포제 지내는 거주게.
#5 백중날 허곡 정월에.
#1 대흘은 이제 엇어져 비언.
@1 여기는 엇어져 버리고, 개인적으로 아까 가고예?
#1 예 개인적으로 자기 집안 저.
#5 와산 저.
#4 옛날 이 저 *일르동드레 가는디, 그디가 포젯동산이주게.
#3 포제기동산?
#4 으. 거기가 포제 헤난 디주.
#2 아니, 아니.
#3 포제기동산.
#4 포젯동산.
#1 하튼 포제엔 허영은.
@1 예.
#4 포젯동산이엔 허지 안허여.
#1 포제엔 허영은.
#4 당에 가근에 지내는 제를 포제엔 허여.

입춘

@1 예. 그다음에 이제 정월 헤 가면 또 입춘이 잇잖우꽈예?
#1 으.
@1 입춘 때는 뭐헤마씨?
#2 입춘 때는 무슨.
#3 입춘 때는 뭐 안 허지.
#1 입춘, 입춘 때도 새해.
#4 새철, 새철.
@1 새철 드는 날.
#1 으. 새철이엔 헤근에.
#5 곤밥 헹 먹는 날.
#1 저 뭐 풋죽도 쒕 먹곡 헷주게.
#5 샛절, 그날부터 새해.
@1 예.
#5 그 전 해는 묵은 해.
@1 새철 드는 날 곤밥 헹 먹어?
#5 새철 드는 날은 놈의 집이 가지도 안허곡.

#4 새철, 여자들은 놈의 집에 안 가난에.
#5 여자덜 놈의 집이 가민 검질 하영 난덴 골아.
(웃음)
#1 여자 뎅겨가민 재수 엇덴 헤근에.
#5 재수엇덴.
#6 빨래도 솖지 말라.
#1 새철 드는 시간이 잇어이.
@1 예.
#5 검질 하영 난덴.
#1 그 시간엔 아니 가낫어.
@1 으.
#1 어, 스나인 가도 뒈주만은.
@1 아까, 삼춘 다시 한 번. 새철 드는 날 허민 뭐 허여?
#5 여자덜.
@1 예.
#6 놈의 집이 가민.
#5 놈의 집이 가민 검질 하영 난덴.
#6 검질 하영 난덴.
#3 밧디 검질 하영 난덴.
#5 검질 하영 난덴.
#6 검질 하영.
#5 놈의 집이 안 가, 게난.
@1 놈의 집의 안 가고예?
#6 그 시간에만.
#5 시간이 잇주게.
@1 으, 새철 들어오는 드는 시간에 안 가는 거.
#5 시간만 안 가.
#2 시간만 안 가.
#5 가민 욕 들어, 욕허여.
@1 아까 또 곤밥도 헤 먹고.
#5 으, 으.
@1 새철 드는 날 곤밥 헹 먹고예?
#5 잘 먹어야 일년내낭 잘 먹게 뒐 거난.
#6 옛날은.
#2 무사 옛날은 검질 짓넨사 골아신디.
#3 누게사 경 골아신디사.
@1 게믄 보리도, 보리도 뽑아당 점도 쳐신가마씨?
#3 진짜 여자덜 새철 드는 날.
@1 보리점 이런 건 안 허고. 새철 드는 날.
#6 빨래 솖으면은 집이 막 구데기 권덴 허영. 빨래도 못 솖게 허곡.
@1 새철 드는 날도예? 영등날 말고.

#6 바다에, 바다에 사는 사람덜은.
#5 건, 영등, 영등할망.
#6 바농질허민 바당에 강 솔치 쏘은덴 허여근엥에.
#7 영등할망. 영등할망 들어올 때 빨래도 못 허고.
#5 어어, 거믄 진짜 기어나. 베렝이 일엉.
#7 구데기가 그냥 막.
@1 바당에 뎅기는 사람덜은 솔치.
#6 솔치 쏘은덴 헤근에 바농질도 못허게 허곡.
@1 바농질 못허게 허곡예. 멩질, 저기, 새철 드는 날.

보리밭 밟기

@1 겅허고 여기 그때 보리 허면은 막 보리도 불르레 뎅기고 헷수과?
#3 보리 붋앗주.
#1 보리 불리우는 거.
#5 옛날은 붋아.
#1 남테로 헹도 불리곡덜 헷주게.
#5 보리 부꺼부난 불라근에.
#1 물 ᄆᆞ쉬헤당 ᄆᆞ쉬헤근에도 불리곡 남테로도 허영 불리곡 헌디. 남테도 엇어져 불곡. 소나 물 엇어부난 ᄆᆞ쉬로 불리는 것도 엇어져 불곡. 이젠 보리도 아니 갈아 불고.
#3 남테 찍엉 가컬랑 찍엉 가.
@1 아, 남테 잇수과?
#3 응.
@1 아, 알앗수다. (웃음)
#1 게 무시것사 먹엉 살암신디 보리도 아니 갈곡.
#2 남테도 헤다 놧어?
#3 나가 열 개 만들안 하나 만든 건 집이 가져왓주게.
@1 예.
#5 읍사무소서 만들엇주.
#3 읍사무소서 만든 건 다 나가 만든 거주.
@1 아.
#1 옛날은 곰베엔 헌 거 알아져.
@1 예, 예. 곰베.
#1 곰베 알아져?
@1 예게. 벙뎅이. 저기.
#5 벙뎅이 두드리는 거.
#1 벙뎅이, 벙뎅이도 아네이.
#3 어디라, 곰베 알아감시민 어디라?
#5 한경이난 그런 거 다 알주게.
@1 저, 저 한경면 촌년마씨.
#5 어, 어. 경.
#3 한경 어디, 우리도 한경인디.

@1 한경이라마씨? 한경인디 어떵 대흘에.
#3 고향만 한경.
@1 한경 우리 불그믓마씨.
#4 조수.
@1 조수이리.
#6 조수. 저지, 저지.
#5 저지, 저지.
#6 조수가 아니고 저지.
@1 아. 우리 불그믓.
#3 조수이리면은 ○○○읍장. 그 조수 출신이주게.
@1 아.
#4 ○○○이.
#3 으.
#4 조순가.
#1 조수주기.

방엣불 놓기

@1 기구나예. 그추룩 이제 하고. 방에, 여기는 또 저기 목축들도 하영 헷지예. 쉐들 질루는 거.
#1 아이고, 여기는 쉐덜 하영 질롸낫주.
@1 예.
#2 집집마다.
@1 집집마다예?
#2 멧 마리씩 키왓주.
@1 게믄 방엣불[뿔]도 놓고 헷수과?
#2 으.
#1 방엣불 놧주게.
@1 방엣불.
#4 아, 옛날사 다 방에 놓주.
@1 방엣불은 언제 놔마씨?
#1 거 삼월, 아, 이월에 놧어, 이월에이.
#3 그건 뭐 시도 때도 엇이 놔 불엇주.
#1 정월에 놧어. 정월에.
@1 정월에.
#1 으.
#4 정월에.
#5 풀 나기 전이 놩.
#2 저, 새풀 나기 전에.
@1 새풀 나기 전에.
#1 으.
#3 새풀 나기 전에. 옛날은 시도 때도 엇이 몰래 부쪄 불엇어. 요 중간에는.

@1 아.

#3 그 전에는 부쪄도 조림허기 전에는 부찌는 거 아무 말도 안 헷는데 조림헌 후에는 행정에서 못 부찌게 허니까는 소허는 사름덜 몰래.

@1 몰래.

#3 몰래 부쪄 불어.

@1 예.

#3 칠십 년대 중반까지.

#1 경허난 불은 왜 저 방화덜 헤시냐 허민 엿날은 다 집집마다 쉐들이 잇주게이.

@1 예.

#1 쉐덜 잇인디, 그 진드기게, 진독.

@1 예.

#1 진독 때문에.

@1 예, 진독.

#1 진독 때문에 거 불을 부쳣어게.

@1 으.

#1 옛날은 약, 저 진독이 막 궤민 쉐 저 이 글겡이 헤당.

@1 예.

#1 글겡이 헤당 막 거 진독 부뜬 거 막 긁엉 테어 줘낫주기게. 약도 엇곡 헹 허난. 요즘은 약 뿌려근에 허주만은 엿날은 약 엇이난 글겡이 멘들앙 쉐톱, 쉐톱 묵은 거 그거 헤당 걸로 저 글겡일 멘들아낫주.

@1 예.

#1 그걸로 헤근에 거 저 진드기 부뜨민 등어리덜 막 긁어주곡 헤가민. 저.

#5 게민 쉐 얼마나 좋앙덜.

#1 쉐나 ᄆᆞ쉬덜이 좋아허영이.

@1 으.

#1 막 그냥 사름 가가민 그거 긁어난 쉐나 ᄆᆞᆯ덜은이 사름 막 쫓아와.

@1 아.

#1 그거 긁어도렌. 얼마나 거 ᄀᆞ류와사 그거 아니라. 거 막 거 저 진독 먹어. 진독이 부구리가, 부구리엔 허주기. 그것ᄀᆞ라.

@1 예.

#1 요만씩 커.

#3 진둑 늙으민 부구리.

#1 어.

#5 예.

#1 경허난 거 그거 진독이 부구리 저 발생허지 못허게시리 불 부쳐낫주기게.

@1 예.

#1 게난 불, 중간엔 저 불 못 부찌게 헤낫주기게. 경허민 그냥 술짝술짝 강 불 부쳐 불곡 경헌디 엿날엿날에는 건 공식적으로 불 부쳣주기게.

@1 예.

#1 엿날에는 그냥 불 부치지 말렝 헤도 저 말렌 헨 일이 엇엇어. 그냥 공식적으로 이건 저 불 부치는 날이다, 허영. 겨난 새별오름에 지금 불 부찌는 그거주게.

@1 예, 예. 맞수다.

#4 게니까 옛날은.

#5 샛별오름.

#4 제주도가 목축 문화기 때문에.

@1 예.

#4 그 진드기 구제헐 목적도 잇주만은, 묵은 풀이 싹 그거 방에 놔 불면은, 거 타 불면은 새풀이 잘 올라오거든.

@1 예, 예.

#4 그래서 말이나 소 방목허면은 그 새풀도 먹어야 뒈고 이제 그 진드기도 구제헤야 뒈고 그렇게 헤서 방에를 논 거지. 그 후에, 오일육 후에 지산녹화 한다고 헤서 이젠 나무를 조림사업 헤 부니까 이젠 행정에서 못헌다 헨.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요기요기 새미오름 요 앞에도 산이 에, 전부다 이젠 조림사업으로 헤서 불을 못 허게 허니까 완전 이젠 다 곶산이 뒈어 버렷거든.

@1 예.

#3 곶산이 뒛는데 어떻게 생각헤 보면은 옛날 민둥산도 멧 군데 잇엇으면 오히려 이게 더 관광자원화가 뒛을, 뒈실 거 아닌가.

@1 게난마씨.

#3 저디 용눈이오름 ?튼 디도 거긴 나무가 없으니까 거기는 맨날 사람덜이 올라가거든. 지금 저 어디 들불축제허는 디도 그거, 거 민둥산이니까 거기서 들불축제를 허는데 제주도에 멧 군데 정도는 민둥산이 잇엇으면 오히려 더 좋앗지 않느냐. 요즘 관광, 관광허는데.

@1 예.

#3 그런 저 아쉬운 점도 남아 잇어요, 지금.

@1 예. 게난 그 방엣불 허는 거는 음력으로 정월에 뒈는 거우꽈?

#3 정월에 새풀 나기 전에 허는 거니까.

#4 정이월, 정이월.

@1 으.

#2 정월, 이월.

#1 저, 새풀 나기 전에.

@1 새풀 나기 전에예?

#1 으.

#3 그 방홧불 부치면 그 까시낭 잇죠?

@1 예, 예.

#4 장, 들장미라고 헤야지. 그것보고.

@1 예, 예, 예.

#4 그 불 부찌면 그게 다 타 죽어 불어.

@1 으.

#4 게믄 소들 먹을 풀이 많이 나기 위헤서.

@1 예, 예. 가시낭덜 테우고.

#4 지금은 불 안 부치니까 그 들장미가 그냥 막 어겨졋주.

@1 예.

#4 우거져서.

이월

영등

@1 그다음에 이제 일월 지나면 이월. 영등둘. 영등둘 허민 아까 이제.

#1 영등둘.

#3 영등둘은 여긴 웃드리라부난 영등둘은 아녀.

#5 여기는 그거 몰라.

#4 웃드리라부난.

#3 해촌에 가야.

@1 아, 영등제는 안 허니까.

#5 안 허여.

#3 배 허는 사름덜이나 허지.

#5 그거는 원 여기는, 웃드리는 해당 엇어.

@1 경헤도 저기 빨래 안 허는 건 안 허지 안헤.

#5 어, 그건 여자들이 멩심헹 안 삶주게.

@1 예, 며칠 동안 안 헙니까?

#6 보름.

#5 보름이니까.

#6 영등은 보름.

#5 정월 그믐날 왕 이월 보름날 나간덴 헤신가.

@1 정월, 이월 초.

#3 이월 초라.

#5 아, 게난 이월 초ᄒᆞ룰날 왕 정월 보름날 나가. 이월 보름날 나갈 거주. 경허난 한 그새민 보름, 보름.

#3 보름 동안 빨래 안 헤시민 팬티 ᄀᆞ뜬 거 보름을 입은 거 아니라게.

#5 십오일, 십오일 간을.

@1 십오일간을 빨래 안 허여.

#4 안 입엉덜 살앗주게.

#3 어?

#4 안 입엉덜 살앗주게. 엇이난게.

#6 빨리는 헤신디 삶질 안허엿주게.

#5 게난 ᄀᆞᆯ암주게. 삶지 안헌다.

#6 속곳을 숢질 말아야.

#7 숢으민 버렝이 궨다, 바농질허면은 솔치 쒜운다. 베 가졍 뎅기면은 그 집 베염 막 그냥 바글바글 나온다. 옛날은 그추룩헹 못허게 헤신디.

@1 그게 영등둘에?

#5 이월달.

#7 이월달.

#6 건 펭대 말이주, 여긴 저 구데기벳긔.

#5 어, 그런 말은 원 안 들어보고.

#4 영등할망 가불민 영등할망 다 까먹어 불엉덜. 빈 껍데기만.
@1 우리 삼춘은 펭대?
#7 펭대.
@1 평대.
#5 게난게 그 말 곧는 거.
#3 보말도 껍데기만 남은덴 허는 거주.
#5 여기는 그런 말은 안 헤봣어.
@1 예.
#1 경 안헹.
#7 여긴 웃드르라 부난.
#1 이 저 영등돌은.
#5 그자 빨래 안 숧는 거 ᄒᆞ나이 그자.
#1 이 저 영등할망이 어떵사 생겨신지 몰라도 그 어떤 땐 우장 씨엉 오주기게.
@1 예, 예.
#1 우장 알아져?
@1 예. 우장.
#1 우장이엔 허민.
@1 비옷.
#1 새로 허영은에, 새로 허영 막 여껑은에 옷을 멘들아.
@1 으.
#1 모가지만 영허영 톡 저 씨게 허영.
@1 예.
#1 그 영등할망이 그, 그 우장 씨엉 오주기게.
@1 예.
#1 경허민 뭐.
#5 비만 오믄 우장 썽 왓젠 헷주게.
#1 선ᄇᆞ름 나기 전이, 선ᄇᆞ름 나기 전이 꼭 비가 하영 와.
@1 으.
#1 견디 우장 아니 썽 온 날은 아니 오민 날도 똣곡 ᄇᆞ름도 읏고 경허여.
@1 아.
#1 그 할망 이상헌 할망이라고 그거. (웃음)
@1 게난 우장 썽 오민 비 와예.
#5 봐 납디가?
#4 보진 못허고.
#1 어.
@1 어.
#5 옷은 하영 입엉 오민 춥고.
#1 어, 옷, 옷 하영 입엉 오민 또 오늘은 똣구나만은 어제 ᄀᆞ치 얼어. 영등할망 이상헌 할망이라.
#6 영등 들어오는 날에 딸 데령 왐젠 헹 치마깍 날렴젠 헹 똘 데령 왓젠 허곡. 비 오면은 이젠 우장 쓴 하르방 들어왓젠 헤영 비가 오곡.

#5 할망.
#3 게난 그게.
#5 그 놈의 영등할망은 어떤 할망산디.
#3 지금 말허는 것 ᄀᆞ뜨민 꽃샘추위주게. 꽃샘추위.
#5 맞아.
@1 예.
#5 맞아, 맞아. 꽃샘추위.
#6 겐디 그 보말덜 까먹는 것도.
#5 응, 나가 불민 보말이 빈 거 뒈어.
#6 일 년 내내 그저 그 무신.
#7 알 싸렌.
#6 그 알 싸는 그 시기렌. 경허난 거 보말덜이 다 저 뭐헌덴.
#5 구젱이가 가불민.
#3 할망 까먹어 부난 거라.
#1 영등할망 오랑 문 보말 까, 까먹어 불엉.
#3 까먹어 부난 빈 껍데기 하영 나와.
#7 영등할망 까먹엉 가비엇젠 허영.
#3 게난 그, 그 둘에는 그, 정월허고 이월달에는.
@1 으.
#3 검은, 저 검은암쉐 뿔도 영 오그라진덴 헷어.
#5 추웡.
#3 영. 저.
#4 꽃샘추위에.
#3 추워, 추우니까.
#1 건 영, 영, 건 초정월이고.
@1 예.
#1 이월은 영등이난.
@1 예.
#1 초정월 ᄇᆞ름살에 저 감은암쉐 뿔 오그라진덴 허주게.
@1 예.
#1 건.
#3 것도 무사 꼭 검은 암쉐산디.
#5 검은 암쉐가 쎄어부난, 쎈 것도.
#6 옛날엔 검은쉐가 하낫주게.
#1 검은 암쉐 무사 뿔 오그라지냐 허면은.
#5 아니, 쎄어, 쎄어.
#1 이 추위를 견디는 건.
#5 으, 견딘다 허연.
#1 검은 색이 하영, 잘 견디주기게이.
@1 예.
#5 게난 쎄난게 경, 쎈 쉐도 오그라지고.

#1 노란색이나 빨간색보다도 검은색이 더 저 거 추위를 잘 견뎌.
#5 토종이란 난 셍이라.
#1 겨난 우리 겨울 뒈면 검은, 검은 색옷 입는 거 아니라.
@1 예, 예.
#1 그거 어난게 추위 방지허젠 검은색을 입엄서. 견디 검은쉐가 추위를 그렇게 잘 저 이겨내는 쉐가 뿔이 오그라질 정도민.
#5 언다는 거.
#1 노랑, 노랑헌 쉔 뒈와져 불 거 아니.
@1 예. 다시 한 번예, 정리를 허크라예.
#1 어.
@1 초정월 ᄇᆞ름살에 검은암쉐 뿔 오그라진다.
#1 감은암쉐.
@1 감은암쉐.
#1 으.
#3 정이월이엔 허주, 정이월.
@1 정이월.
#3 정월. 이월.
#1 초정월, 초정월 ᄇᆞ름살에 감은암쉐 뿔 오그라진다, 그런 말이주, 첨.
@1 예. 아까 우리 저 여자 삼춘 얘기 헌 거는 입춘날, 아니 저기.
#1 입춘날 저.
@1 영등에 빨래 숧으믄 어떵 헌다고?
#5 구데기 난덴.
#6 구데기 인덴.
#7 구데기 인덴 허고.
#6 옷에 나는 그 벌레가 잇어요.
@1 예.
#7 베 가졍 뎅기면 베염 많이 나온덴 허곡.
@1 예.
#7 또 바늘질 허면 솔치 쏘운덴 허곡. 바당에 가면은.
@1 예, 영등에예? 예. 게난 요런 것덜을 우리가 조사를 허는 거마씨.
#1 그것 때문에.
@1 예, 예.
#3 게난 어디서 옵데가, 난 이제사 와부난. (생략)
경칩
@1 그다음에 이월 이제, 이제 헤가면 경칩도 오는 거고예?
#1 으.
@1 게난 경칩 이런 말은 엇수과?
#1 어.
#5 경칩은 뭐 개구리 튀어 나온덴.
@1 엇고. 개구리 튀어 나오는.
#5 어, 그거 경칩.

#1 우수, 경칩.
@1 우수, 경칩.
#5 우수, 경칩헤영은에.
#1 우수, 경칩에 뭐 대동강 물도 풀려근에. 뚯뚯헹은에.
#6 줌 자다근에게.
#5 줌자당 깨어나는 날이주게.
@1 예, 게난 여기도 겅 굴읍니까?
#5 예. 지금도 굴아.
#6 건 아무 디도 마찬가지.
@1 아. 경칩. 개구리 줌자당 깨어나는 거렌예?
#5 예, 예.
@4 개구리를 뭐렌 굴앗수과?
#1 경허고 아까 아까.
#3 두테비엔 헌 디도 잇고.
#2 두체비엔 굴앗주, 옛날.
#5 두꺼비?
@1 두테비.
#1, 2, 3 두테비, 두테비.
#1 개구리.
#3 두테비.
#5 두꺼빈 표준말이라.
#1 두테비.
#3 두꺼빈 표준말이고 두테비렌 허주게.
#2 두테비가 맞아, 두테비.
@1 예.
#3 두터비주.
#3 올쳉이보곤 멘주기.
@1 멘주기. 으. 자, 그다음엔 삼월 뒈면예, 음력 삼월 뒈면.
#1 아니, 그거 허기 전에이 나 저 굴으카말카 허단에.
#5 굴으카말카.
#1 나 거 첨 이상헌 말이난 아니 굴아신디.
@1 예, 굴아봅서.
#1 경 넘어가긴 헤사 헐 사항이난 나 굴으쿠다.
@1 예.
#3 우스운 말이라.
#1 저 입춘.
@1 예.
#1 입춘 때엔 여자덜 어디 놈의 집이 뎅기지 말렝 허는 말 끗테 검질 짓인덴 허지 안헤서게.
@1 예.
#5 검질 짓인뎅.

#1 검질 짓인덴 허는 말은 여자 강알 짓이민.
@1 예.
#1 강알 짓인 사람 뎅기민 검질 짓인덴.
#5 검질 짓인덴.
#1 경허연.
#4 그런 말이 잇어.
#1 저 여자덜 놈의 집이 저 뎅기지 말렌 허는 거라게. 강알 짓어부난. 그거 무슨 말인지 알아지크라.
@1 예. 게난 그 정도로 넘어가도 뒈쿠다.
#1 그 정도로 넘어가자. (웃음)
#5 경허난 안 가는 거주, 입춘날덜은.

삼월

@1 예, 그다음에 이제 삼월 뒈면 여기도 한식 멩질도 헷수과?
#1 한식 헷주게.
#5 옛날엔 헤신가.
#3 아, 옛날엔 거의, 거의 안 헷주.
#5 거의 안 헤난.
#1 한식덜 다 헷주만은 이제, 이제는 엇어졋주게.
@1 예.
#1 옛날은 다 헷어.
#4 삼사월은 거의 이제 없고 오월 가민 단오.

오월 단오

@1 으.
#3 오월 단오도 아까 저 노인훼장님 말씀헷주만은 홍칩이가 제일 늦게까지 헷어.
@1 아.
#3 단오 멩질은.
@1 단오 멩질은.
#4 아니, 단오는 ○○이네도.
#6 부칩이가 제일 늦엇주.
#5 우리가 제일 늦게 헷주. 부칩이가 제일 늦언.
#6 부칩이가 제일 늦언 헷어.
#3 헤납디가, 집이도?
#5 젤 다 끗나도, 우리.
#6 요 멧 해 전꺼지만 헤도 헷어.
#4 단오는 멧 년 안 헷어.
#5 예, 부칩이가 젤 늦게 헷덴 헙네다.
#3 이제 단오 멩질덜 안 허여.
@1 이젠 안 허고예?

#2 이젠 안 헴주.
@1 어.
#5 제일 늦게ᄁᆞ지 부칩이가 질 나중에ᄁᆞ지 헷덴덜 굴읍니다게.
@1 경헤도 예전에 청멩에 뭐 산담 손질허거나 풀 베거나 이런 것도 헷수과? 여기도.
#4 그렇주.
#2 지금도 허는 사름은 헤.
#4 식묘, 식묘허는 거니까게, 청명 한식 때는.
@1 예.
#4 산, 묘, 이 저 손 보레덜 많이 뎅겻어.
@1 그.
#2 풀도 강 케곡.
@1 풀도 강 케곡예? 아, 요즘도 헴구나예?
#2 예, 헤.
#4 거는 지금도 허는 풍습인데.
@1 지금도 허고예? 예. 지금도 계속 하고 잇고. 거난 또 쉐헐 때 여기는 목장에 쉐 놉니까?
#1 어. 목장에덜 놧주게.
@1 아.
#1 여기가.
#3 쉐, 쉐 목장에 놓주, 바당에 강 놔?
@1 아니게, 목장에 올리는 거.
#1 목장이 여기.
#3 목장에 올리주게.
@1 아, 목장에 올려? 언제 올립니까?
#3 오월달에.
@1 아, 청명에 안 올리고.
#1 아니.
#3 청명에는 먹을 게 없어.
@1 아.
#1 견디 오월 전에 이 저 ᄉᆞ월, 나가 저.
#5 오월ᄁᆞ지 가신가?
#3 오월 초ᄁᆞ지.
#5 오월ᄁᆞ지 갓어. 집에서 먹이당예?
#1 엿날은, 삭쉐엔 헤근에.
@1 예.
#1 삭쉐를 나가 받안 멕여낫어.
@1 으.
#1 삭쉐옌 헤근에 옛날은 나 어린 땐, 스무남은 술 적에는 이 신촌, 조천 쪽에는 부룽이덜을 많이 허여나서게.
@1 예.
#1 부룽이덜. 부룽이덜을 많이 집집마다 키와근에 헤신디 부룽이덜을.

#3 부룽이엔 허믄 알아져.
#1 밧 저, 밧 갈젠게이.
@1 예, 밧갈쉐예?
#1 밧 갈젠 부룽이덜을 허엿주. 경 밧은 이녁 밧만 갈 것이 아니라 놈의 밧도 갈앙 돈벌이 허젠.
@1 아.
#1 경헨 부룽이덜 많이 헹 헤신디 경 나가 그 쉐를 모집허여단 저 원이엔 헌 디 잇어, 요디 올라가민.
@1 예.
#1 우리 그 선산도 거기 잇인디.
@1 예.
#1 그 막 들판이 널러. 겨난 그디 이 저 쉐덜 흔 육칠십 마리 부룽이덜.
@1 으.
#1 어 저 몰아다근에 그냥 저 삭으론 그땐 돈으로 준 디도 잇엇주만은 거의 쏠로이, 쏠로.
@1 예.
#1 쏠로 그냥.
#3 부룽인 더 받앗잖아, 암소보다 부룽이 더 받아.
#1 그때 쉐 흔 ᄆᆞ리당 얼마 받아져신디 이젠, 그거, 일 년 먹어 부난 뭐 것도 똥 싸 불민 엇어지더라고. 경 얼마, 얼마 받지 못헌 거라.
@1 예.
#3 부룽이는 무사 더 받는고 허면은 암소들은 도망 안 가는데 부룽이덜은 암소 봐지민 도망가 불어.
@1 아.
#3 겨난 부룽이 깝이 비싸.
@1 예.
#1 그때이 쉐 멕일 땐 그 육칠십 마리.
@1 예.
#1 관리허젠 허믄이 그 봄철 뒈면은 암쉐덜이 저 흘레물른 암쉐엔 허여근에이.
@1 예, 예.
#1 수놈 춪는 암쉐들이 잇어.
#3 발정 낭.
#1 발정 낭.
@1 으.
#1 겨민 그냥 그 이것이 그냥 숫놈 봐지믄 막 기를 쓰고 가는 거라. 숫놈 잇인디. 그믄 난리가 나. 그냥 그 암쉐에 반 죽어. 그냥 막 그 덩치 이만헌 것들이 올라 타 불민. 겨난 그거 암쉐 못 오게 그거, 암쉐 저만이 봐가믄 그냥 숫소 보기 전에 그냥 멀리서 돌로 마치멍 경 오지 못허게 막 막아낫주게. 경 오민 암쉐 죽어.
@1 으.
#1 으, 나 애써낫어. 쉐 멕임도.
@1 게난 삼춘이 그 신촌, 조천 이.
#1 어.

@1 이거를 이제 돌봐준 거라예?
#1 몰아당.
@1 그걸 삭쉐렌 헷수과?
#1 으, 삭쉐.
#4 삭쉐.
@1 으, 삭쉐. 아, 삭 받앙은엥에 이제 멕여주는 거.
#1 으. 삭 받안에 저거 흔 사월달쯤부떠 몰아오기 시작허민.
@1 예.
#1 가을ᄁᆞ지 멕엿주.
@1 으.
#1 가을ᄁᆞ지.
#4 시월달까지.
#3 시월 말.
#1 십일월달ᄁᆞ지 멕여서.
#3 시월 말.
#4 십일월달ᄁᆞ지는 아니고.
#3 시월 말. 오월 일일부떠 말까지난, 시월 말.
#1 십일월둘까지 멕이는 사람덜은 이, 자기 관리허지 못헐 사람이.
#3 육 개월.
#1 그런 사람덜은 저 시월 뒈 가면은 밧 갈젠덜 다 몰아가주기게이.
@1 예, 예.
#1 게난 그 사람덜 몰아간 나머지, 가져가지 못헌 사람들은 십일월ᄁᆞ지도 멕엿주. 그냥 풀 잇인 때까지는.
@1 아, 여기는 이제 목장이 널르니까 경 헌 모양이다예?
#1 게난 목장도 여기는이 여기는 이, 이수장, 삼수장이 잇주기게이.
@1 아.
#1 그, 그 목장이엔 헌 게 엿날 그 저 제국시대 멘들아졋젠 허여. 제국시대에 거 일본놈덜 공출 받을라고, 공출 받을라고 목장을 멘들앗주, 경. 이 이수장, 삼수장이엔 헌 게 성담, 담으로 영 다졋어게.
@1 으.
#1 한 높이 흔, 우리 키 정도 뒈주.
@1 예.
#1 어, 거 높이가 흔 일 메타 오십, 평균 뭐 그 정도 뒐 거라. 겡 담 쌍 그 안에 저 ᄆᆞ쉬들 가두완 길루왓주기게.
@1 예.
#1 경허영 목장 지대에덜 헷고. 중간에 우리 흔 설남은까지도 여기 이 우리 대흘 저 목장 지에도이 첨 쉐들이 야튼 백여 ᄆᆞ리 이렇게 잇어낫어게.
@1 으.
#1 견디 이젠 소들이 이젠, 이젠 다 엇어젼.
@1 아, 요즘은 쉐허는 사람 엇수과?
#1 이젠 허는, 허는 사람이 엇어.

#3 소허는 것도 기업, 기업.
#1 엇어.
@1 예.
#1 이젠 업첸 자기 저 개인이 허염주만은 이젠 기업화 뒈엉이.
@1 예.
#1 멧 백 마리씩 키우주.
#3 이젠 다 기업화가 뒈엇주.
@1 기업화가 뒈엉예. 그런 식으로 이제하고. 그다음에 그 산담 손질허는 것도 아까 청명에?
#4 청명 한식에.
#3 청명 한식에.
@1 청명 한식에. 예, 청명 한식에 하고예?

사월

@1 사월 초파일 뒈면 뭐 요즘도 절에 가거나 허는 이런 것도 잇수과?
#1 절에덜 가주게.
#3 절에 다니는 사람은 가주.
@1 으. 별도로 뭐 허진 안하고예?
#1 으, 별도로 허는 건 엇고. 건 절간 행사난.
@1 예.
#1 으, 절간 행사난 불교 믿는 사람덜 그냥 가서 부처님 앞이 가근엥에 뭐 공덕 비는 것벳기는. 안 믿는 사람은 뭐 관심도 엇고.
@1 으. 그러면 삼월, 사월 이때 농사허는 거는 뭐 잇수과?
#1 삼월 사월에 농사는, 옛날에는 삼사월에 농사 헐 거 읏어.
@1 아, 엇어.
#5 이제도 엇수다.
#1 으.
@1 엇어예.
#5 오월달 뒈어사.
#1 요즘은 비니, 비닐 나니깐 삼사월에 허지, 옛날은.
#5 사월달에는 고추 심어야주게.

농사일

@1 사월에 고추 싱거?
#5 으. 이제 막 오늘 이제 강 고추 싱경.
#1 아니, 옛날은, 옛날은.
#3 아, 옛날엔 고추도 집에서 먹을 거 정도 헌 거니까.
#6 유월둘 나면은 지슬도 싱글 거 아니.
#5 감자.
#1 고추덜.

#3 삼사월돌에 제일 농한기.
@1 농한기.
#1 고추는이.
#5 어디 가노렌 헹 갑니까게.
#3 아니, 옛날에는 삼사월엔 뭘 헷는고 허면.
@1 예.
#3 수박 심을려고 띠밧을 갈앗어.
@1 아, 여기 수박들도 하영 싱것수과?
#1 어, 어.
#3 여기 수박 제일 처음 헷주.
#4 어. 거 한 몃 십년 전.
@1 아, 띠밧을 갈안에? 그 새왓, 새왓. 새왓 이긴 거.
#1 새밧 갈앗주, 새밧.
#3 응, 새왓 갈앗주.
#1 새밧 갈앗주, 맞아.
#3 경헹 그걸 갈고 저 벙뎅이 두드리고.
@1 예.
#3 궹이로.
@1 그러면 새밧 가는 게 음력으로 삼월, 사월.
#3 이월부떠.
#4 새밧 가는 건 겨울에도 갈아야 뒈는 거.
#1 겨울에도 가는 거난, 겨울에 가는 거주, 겨울에.
@1 아.
#3 이월부떠.
#2 갈앙 놧다가 이제 봄 나면 벙뎅이 뚜드려야지.
@1 음.
#3 저.
#1 삼사월에 가는 게 아니고.
@1 예.
#3 새풀 나기 전이 그 벙뎅이를 때려야 뒈.
@1 아. 미리.
#3 새풀 나기 시작허민 벙뎅이가 질겨진덴 헤 가지고.
@1 예.
#3 저 풀이 새 마음 먹기 전에 그 벙뎅이를 풀롸근에 싹 놔둬.
@1 으.
#4 경헤근에 수박을 그때는 직파헷주. 씨를 찔럿주.
@1 예.
#3 씨로 파종헤 가지고 수박덜 헤 먹엇주.
@1 아.
#1 게난.
#3 지금은 점 부친 수박허니까는 허주만은. 그때 당시에는 전부 밧덜 갈아근에.

@1 그러면 대흘에서 수박 간 거는 언제부떠 언제까지 갈앗수과?
#1 엿날부떠.
#5 옛날부떠 수박 하영 놧어.
#1 저 수박 심은 지는.
#3 저 대흘 오래주.
#5 흔 오십 년.
#1 좀 오랫주, 우리가 어렷을 때부떠.
#4 제주도에는 제일 처음일 거라.
@1 아.
#3 옛날 그 함덕 수박, 함덕 수박 헌 게 다 대흘에서 나갓어.
@1 아. 기우꽈?
#3 으.
@1 으음.
#5 지금도.
#1 이 ᄉᆞ시주. 이 ᄉᆞ시라. 함덕 수박, 함덕 배추 헌 게 이 ᄉᆞ시라.
@1 게니까 함덕 배추도 유명허고예?
#3 어, 어. 그거 다 배추도 여기서 다 나가고.
@1 저기 함덕이 아니고.
#1 아니, 함덕도.
#4 아니, 함덕에서가 제일 먼저 시작은 헷는데.
#1 함덕이 시작허고.
#3 농토가.
#4 오래 허당 보면은 연작이 안 뒈니까.
@1 예.
#4 ᄎᆞᄎᆞᄎᆞᄎᆞ 이제 우쪽으로 올라온 거주. 올라오는데. 지금 신촌도 마찬가지라. 신촌도 주산지엿다가 다 이젠 거기는 안 허고.
@1 예.
#3 이제 이.
#1 애월 쪽.
#4 중산간 쪽드로만 다 올라와 불어.
#2 재배헌 것은, 생산헌 것을 이건 함덕 수박이다, 함덕 배추다 허는 거주.
@1 으.
#1 엿날.
@1 요즘도 헤마씨? 요즘도 안 허고.
#5 수박은 헴수게. 지금도 수박은 헴서.
#1 이 사름, 이 사름 수박 논 사름.
@1 아.
#5 게 흔 만 평 놈실 거우다.
@1 아, 수박을 만 평 놔마씨?
#5 예.
#1 만 평.

#4 만 평 아니고 요 우에 만 평허는 사람 잇어요.
@1 아.
#4 이 동네.
#1 엿날은.
@1 아, 여기도 수박 하영 허는 디로구나.
#5 만 평.
#1 겨난 엿날은 여기가 수박 고단이주, 요즘은.
#4 옛날은 집집마다 다 헷는데 이제는 ᄒᆞ는 사름은 뭐 불과.
#1 요즘은 저 감귤나무덜 미깡낭덜 싱건 허여 부니까 헌디.
@1 예.
#1 거의 집집마다 거 수박덜 놧주.
@1 으.
#1 수박을 놓젠 허면은 엿날은 새밧딜, 새밧디 저 수박을 놧어게.
@1 으.
#4 개간해, 개간헤 가지고.
#1 무사 새밧디 놈시니 허면은 새밧디 놔사 병충해가 저 덜허여.
@1 예.
#1 덜허난 새밧 이겨근에 거 밧 개간들 허영. 따비 그거 허젠 허민 그 쉐로도 밧 갈곡 기계 엇인 때난.
@1 으.
#1 경 아니허민 또 따비엔 헌 거 허영은에, 거.
#4 따비 알아?
#1 그걸로 헹은에 따비.
@1 예.
#1 저 서쪽 따비허곡 저.
#4 따비 어디 잇는디 이, 이 사람 하나 사줘 불어게.
@1 박물관에 이시쿠다만은.
#1 (웃음) 서쪽.
#3 박물관에 가면 잇어.
@1 쌍따비.
#3 쒜 두 개 영 돌아진 거.
@1 예, 예, 예.
#4 쌍따비.
#3 그건 이 조천읍 지역벳긔 없어.
@1 아, 쌍따비는 이 동네 허는 거우꽈?
#3 어, 여기서는 다.
@1 외따비 벤줄레.
#1 게난 서쪽.
#4 저 서쪽은 그.
@1 벤줄레. 하나 짜리.
#3 하나짜리.

#1 하나짜리.
#3 저기 저 밧 가는 장귀, 그 그 그것 보고.
@1 보섭 잇는데.
#3 어, 첨.
#1 보섭 메와근에. 게난 서쪽허고 동쪽허고 따비가 차이가 많아.
@1 예.
#1 어. 서쪽은 보섭 메와근에 쪼끌락허영 허주만은 여기는 따비엔 헤근에 최소한 흔.
#3 보섭 말고.
@1 뽀쪽허게.
#1 오십 센치, 칠십 센치 뒈주.
@1 아.
#1 쌍따비, 저 쌍가락 메와근에.
@1 예.
#1 경허영 그걸로 이제 밧 이겨근에, 밧 갈앙. 밧 이겨근에 그 이젠 그걸 이길 때도 요즘 삼사월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1 으.
#1 겨울에, 한겨울에 이겨사 거 이긴덴 허는 밧은 저 잔디밧을 뒤집어 놓는 거라.
#3 땅을 뒤집어 놓는 거.
@1 예, 예.
#1 영 이시민 이걸 뒤집어 놓면 뿌리가 하늘 우트로 올라올 거 아니.
@1 예.
#1 게민 찬ᄇᆞ름 맞앙 뿌리가 죽어.
@1 예.
#1 뿌리 죽이지 않으면 저 벙에 두드리젠 허민 힘들주기게. 겨난 야튼 겨울만 뒈민, 정월 멩질 먹엉 ᄒᆞ면은 밧 갈레덜 갓주, 다.
@1 아.
#1 그냥 서로 벗헤영덜 가근에 따비 가졍강 서로 밧덜 갈아주기도 허곡 또 품도 받앙덜.
#4 거 수눌, 수눌멍 다헷는데.
@1 예, 수눌멍예?
#1 품도 받앙덜도 헤주곡.
@1 예.
#1 경헌디.
#4 애월 쪽에 저 수박 참외 주산지에는 원래는 조천읍이 수박 주산지, 저 수박 저 배추, 참외 다 이 조천읍이 주산지엿엇는데, 이제는 애월 쪽이.
@1 옮겨 가 불언. 어.
#4 글로 가 불어.
#1 경헹 쌍따비로 허영 저 어 갈아놓민 벙에가이 거짓말 ᄒᆞ꼼 부찌민 이 저 의자 닮주.
@1 예.
#1 그렇게 크게 일어나 불어.
#3 두껍게 일어나.
@1 두껍게.

#1 겨민. 두껍게도 일어나야 경 넓게 헤지주게.
@1 예.
#1 게민 그거 궹이로 허여근에 나 젊은 때 놈의 밧, 그것도 두드려 봐서. 벙에 두드리레.
@1 으.
#1 그 먹을 거 엇이난 그거 두드리레 가신디, 그거 두드리젠 허민이 첨 젊은 때난 헷주.
@1 으.
#4 손 다 북물곡.
@1 으.
#1 경허영 그거 어 밧 이겨근에 수박 놩덜 수박그르에 이젠 저 유채.
#3 모멀, 수박그르에 모멀.
#1 유채도 싱그곡 유채 싱것당 이제 그거, 유채 싱그는 건 수박그르에 유챈 인칙 싱그주게. 인칙 싱거.
#3 일찍, 팔월.
#1 흔 팔월달에. 팔월달에 싱그민 겨, 저 십이월달 뒈민 크주게, 커. 경허민 그거 메어다근에 이제 또 다른 밧디 싱거근에 그거 또 저 허곡. 경헷주기게.
@1 아, 옮겨 심엉예?
#1 옮겨 심엉, 이식.
#5 경헤야 잘 뒈어.
#4 거 콩 헤고 나면은 그 콩 헷던 밧더레 옮겨 심는 거주.
@1 아.
#1 콩 헤난 다음에. 콩그르에 옮겨 싱것주.
@1 아, 유채도 옮겨 심엇구나.
#1 어.
#5 유채가 더 잘 뒈어. 옮겨 싱근 것이. 모종이 더 좋아.
#3 그때 그 시절이, 밀감나무 여기 심지 안헌 때.
@1 예.
#3 밀감나무 심기 시작허난 어, 유채도 안 갈고.
#5 아이고, 유채 태작허젠 허민.
#1 유채 갈젠.
#4 유채도 안 갈고 수박도 안 갈고.
#1 저 미깡낭덜 싱겅덜 막 헹덜 헤도 난 밧 엇인 사름이난 유채를 그때ᄁᆞ지 심어신디.
@1 으.
#1 그때 유채 싱건 나가 칠십만 원 돈을 허여졋더라고. 견디 그때 미깡 싱근 사름덜, 칠십만 원 돈 못 벌어봣어.
@1 아.
#5 유채 싱건 돈 벌엇수게게, 엿날 유채헤서 돈 벌엇주.
#1 어, 경 헹 헤봣주.
@1 예.
#1 겨난 나가 우리 각시 저기 잇주만은 밧마다 저 저 두린애기 업어근에.
@1 으.
#1 그걸 유채 메어당 그거 밧마다 싱그곡 허영 흔 만 평을 싱거낫주. 놈의 밧도 빌곡 헤근

에 싱겅. 경 헹 훈 칠십만 원 헤난 거 잊어불질 안허여.
#3 그땐 유채.
@1 사모님이 누게우꽈?
#3 그때 유채엔도 안 허연 지름ᄂᆞ물.
@1 지름ᄂᆞ물.
#3 지름ᄂᆞ물이엔 헷주.
@1 예. 지름ᄂᆞ물.
#1 싱거낫주, 경 허연.
#4 지름ᄂᆞ물이엔 헷는디.
#1 미깡허는 사름보다 더 벌어낫어.
#4 요즘 유채허고 틀린 거라.
@1 예.
#4 요즘 거허고 틀린 거.
#5 옛날은 그걸로 기름 빠멍 다 먹엇수게게. 유채ᄂᆞ물로 기름 빠멍.
#4 독성이 잇엉.
#3 독성이 잇엉 못 먹주.
@1 으.
#4 거 우리 그걸 몰르고 그걸 이제 기름 짜 먹고 헷는데 요즘은.
#6 그거 헤당 지름 빵 먹곡.
@1 지름 빵 먹곡예?
#5 그게 맛 좋아.
#3 지름, 지름ᄂᆞ물이엔 헷주게.
@1 지름ᄂᆞ물.
#6 유채 태작허젠 허민 거 막뎅이로 두드령. 너이가 두드리는 디 물 저 스피아깡 저 통으로 물 하나를 가근에 시껑 간 거 다 먹어.
#5 애썬.
@1 아.
#5 막 애썬.
#6 물만 먹엇다 물만 먹엇다 허멍.
#5 애썬. 애썬.
@1 애썬예?
#4 물만 먹을 수벳긔 엇주. 거 유채 먼지 나곡 허니까.
#5 더워 놓고.
#1 얼마나 애써, 더우난이.
#6 스피아깡으로 물 하나 시껑 간 거 너이가 다 먹언.
#1 똠, 똠이 엄청 나주기게. 겨난 그 물을 경 하영 먹어져. 훈 사름이 스피아통으로 하나 먹어져. 훈 사름이.
#7 ** 때난 질레 물 긑른 디 저디 베염 죽언에 흥얼흥얼허고 겡베리 바글바글허는 물 강막 질어당 먹어낫어.
#5 겡베렝이 그 영 문출락헌 거 영 잇어도 그 물 따라 먹곡.
@1 예.

#4 진쉬.
#5 먹엉 살젠 허믄게.
#5 진쉬 바글바글헌 것도.
@1 진쉬 바글바글헌 것도 먹고예.
#5 고사리 꺼끄레 강 물 엇이민 막 고무신 벗엉 그걸로 영 허게 물 헌 거.
#6 쉐똥 싸 논 물도 먹곡.
@1 (웃음)
#5 쉐똥이 등갈등갈헤도 그 물 먹곡, 아이고.
@1 아이고.
#5 게도 아프지도 안허영 그땐 잘만 살앗어.
#6 그땐 잘만 경 병도 엇어낫주게.
@1 그다음에.
#4 세상에 누게가 물을, 물을 돈 줘 사먹을 줄 누가 알앗어.
#5 예.

오월

단오 멩질

@1 이젠 오월가게마씨.
#5 오월.
@1 음력 오월엔 뭐 헷수과.
#4 단오.
@1 단오 멩질허고.
#4 단오 저, 이, 저 멩질 허던 어른덜.
#5 단오도 음력이나 마찬가지로 그 식으로 꼭ᄀᆞ치 헷수게게. 단오엔 뿐이지.
@1 단오라는 이름뿐.
#5 찰리는 과정이나 벌이는 과정이나 꼭 같애. 음력이나 단오나.
@1 꼭 같애.
#5 정월이나 단오나.
#1 음력허는 사람들은 다 단오.
#5 예, 꼭 같애. 꼭 같애.
#6 오월달에 농사는 저.
@1 보리는.
#6 저 뀌농사, 뀌 갈고.
@1 오월에 뀌 갈고.
#6 어.
@1 양력 오월.
#5 양력 오월.
@1 예.
#6 양력 오월에는 뀌 갈곡, 유월달에는 콩 갈고.
#7 게난 음력으로 초파일 때 가는 거주게.

@1 음력으로 초파일 때, 음.
#1 꿰농사도.
@1 예.
#1 꿰농사도 엿날은 꿸 갈지 안헷어게.
@1 으.
#1 머드레엔 허영.
@1 예.
#1 조팟디 꿰씨.
#4 하나씩 서끄곡.
#1 하나씩 뿌려근에.
#4 콩밧디도 하나씩.
#5 산디밧디도 허곡.
#1 콩밧디도 허곡 뭐 산디밧디도 허곡. 거 꿰씨, 요즘은 밧, 밧으로 허영 꿰밧을 가는디 엿날은 머드레엔 헤근에.
#5 머드레.
#6 머드레로 놧당.
#7 밧으로 갈민 안 뒈는 거?
#5 예, 머드레만 놩.
#1 꼭 저 ᄒᆞ나씩 뿌려근에 그걸 저 꿰 심엇주, 엿날.
@1 머드레로예?
#1 어.
#5 머드레로만.
#1 여기 이 지대에서 꿰 가는 법도 나가, 나가 저 가르켯어.
@1 아.
#1 나가. 그땐 꿰를 영 보니깐 머드, 머드레 영 놔근에.
#5 머드레로만 놘.
#1 그거 타젱 허젠 허민 콩밧디 들어강 다 불르멍 ᄒᆞᆫ 사름은 앉곡.
#5 ᄒᆞᆫ 사람은 타곡.
#1 ᄒᆞᆫ 사름은 꿰 비곡 허여근에 허여줘주게. 겨난 이 놈으 거, 꿰, 꿰를 갈 수, 그냥 밧으로 갈믄 안 뒈겟냐.
@1 으.
#1 이, 그냥 머드레로 놩 허는디 이걸 꿰로, 밧으로 ᄒᆞᆫ번 갈아보자. 겐 나가 ᄒᆞᆫ 이천오백 평을 갈아낫주.
@1 으.
#1 꿰를, 한번 헤 보자 헨.
@1 예.
#1 겐 그때, 그때 닷 섬?
#5 일곱 섬.
#1 일곱 섬? 꿰 일곱 섬 허난 이 아래 소문 다 나낫어.
@1 게 일곱 섬은 소문 나쿠다게. ᄒᆞᆫ 섬만 헤도 소문 날 건디게.
#1 그때 저 머드레꿰 헹 놈은이 하영 허민 서너 말벳긔 못헷주게.

#5 예, 서너 말.
#4 거 이녁 먹을 거.
#5 이녁 먹을 거.
@1 먹을 거.
#1 으. 서너 말, 이녁 먹을 거. 견디 일곱 섬을 헌 거. 어떵 뒐 거니?
@1 겐 다 풀아지긴 헨마씨?
#1 아이구, 경헨 그때 빚도 벗고 헷어.
@1 아. 꿰 갈앙예?
#1 어. 경헨 그때부떤 꿰 갈기 시작헌 거라.
@1 이 대흘이 꿰 하영 갈지예? 요즘도 하영 갈아?
#1 으. 많이 갈아.
#5 예.
@1 요즘도 하영 갈아?
#5 대흘, 와흘.
#1 많이 갈아.
#5 이녁 먹을 거.
@1 올해 꿰 살 수도 잇수과?
#1 꿰.
@1 살 수 잇어?
#5 철인 때 사주게.
#1 철인 땐 사주만은 금년은 우리, 우리 이젠 경 하영 갈던 꿰가이 이젠 늙으난 못 갈안, 그자 먹을 거 훈 삼백 평 갈앗주게. 작년ᄁᆞ진 갈앗어. 견디 우리 삼 년에 훈 번 갈암서, 이젠.
@1 아, 삼 년에.
#1 먹을 거.
@1 다 먹으면 또 갈고.
#1 어. 새끼덜 주곡.
@1 예.
#5 나신디 오민 꿰 두 말 풀아줄 건디.
@1 예, 알앗수다. 이제 풀 거 잇수과? 갈 때 오늘 상 가저.

망종

@1 그 하지나 이런 망종, 이런 거에 얽힌 이야기들도 하서예? 망종에 뭐 보리 곱기 전에 어떵 비라, 허는 말도 잇일 거고.
#3 망종 넘은 보리 없다고 헤낫주. 망종 전에 이제 보리를 다 수확을 끝낸덴.
#1 그, 엿날, 엿날. 옛날에는게.
#5 하지는.
#1 저 보리 곱곡 삼 거린덴 헌 말이 잇지이.
@1 예, 예.
#1 보리, 보리 이 보리 곱곡, 보리 오그라지곡 삼은 거리곡 허는디. 삼 거린덴 허는 말은 삼은 웨줄로 쫙 올라가야 거 미녕 멘들젠 허민.
@1 예.

#1 웨줄로 쫙 올라가야 주기게. 게난 삼 거리지 못허게 그걸 다 똗아줘야, 접순헤 줘야 뒈게이.
@1 예.
#1 다 톧아 줘야 뒈는디게 자, 삼 거리지 못허게 것도 톧아 줘야지, 보린 곱으민 저 비젱허면은 그거 날르기(?)지. 겨난 엿날도 다, 오죽 바쁜 말이라게.
@1 예.
#5 보리 곱고 삼 거린덴.
#1 보리 곱고 삼 거린디.
#5 보리 곱고 삼 거린덴.
#1 저 사둔, 사둔 앞이 저 밋구멍으로 인사헌다고.
#3 조름으로, 조름.
#6 조름으로, 조름으로.
#7 또꼬망으로 절헌덴 말이주.
#6 뒤트로 절헌덴.
#1 사둔, 보나마나 헌덴 말이주.
#7 가시아방 봐도 뒤으로 절헌덴 말은 헤도 미신 사둔, 가시아방.
#6 가시아방, 사둔.
#1 아니 사둔.
#3 사둔 봐져도 조름으로 절헨덴 말이 잇주게.
#3 바쁘난게.
@1 가시아방 봐도 조름으로 절허곡.
#5 막 바빠부난 기냥 영, 감수과 허여동 기냥 가.
@1 게난 그게 어느 절기라마씨. 망종?
#1 망종, 망종 때주.
@1 망종 때.
#1 어.
#4 보리가 망종 전에 수확을 다 끗나는 거니까.
@1 예. 거난 망종은 거난 막 바쁠 철이라는 말을 그렇게 얘기를 헌 거라예?
#1 바쁠, 바쁜 때주.

유월

조 불리기

@1 예. 그게 오월에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조, 조는 언제 불렷수과?
#1 으?
@1 조, 조. ᄌᆞ 불리는 거.
#1 조, 유월 보름 전에, 유월 보름 전에.
#5 유월절 나사 불르주.
@1 유월절 나사.
#5 으.
#1 으, 전에 그걸 갈앗주, 저.
#5 유월절 전이 콩 갈곡 허난.

#1 유월절 전이. 유월절 이삼 일 내에.
@1 전 삼 일 후 삼 일.
#1 예, 전 삼 일 후 삼 일.
@1 예.
#1 그때 보리, 첨 조 갈아근에 저 그때는 ᄆᆞ쉬 헤당덜 진짜 그땐 불렷주게.
@1 예.
#1 남테, 여기는 자갈밧이난 경 남테로 불리지 안 허고. 땅밧이라야 남테로 불리주. 이 신촌 지방이.
@1 예.
#1 땅밧덜은 저 남테로 헹 불렷어. 견디 여기는 남테를, 남테 뎅기지 못허여. 자갈밧이난. 게난 ᄆᆞ쉬로 헷주. ᄆᆞ쉬덜.
@1 여긴 ᄆᆞ쉬로.
#1 이딘 하나. 옛날은 그저 그 물허는 사람덜이 ᄒᆞᆫ 사름이 사오백 두 저 가져 뎅겻던 사름덜이 멧 사람 잇어.
@1 아. 사오백 두를 허여?
#1 어. 서촌에서는 생각도 못허는 일이주.
@1 예, 예.
#1 으. 사오백 두 가져 뎅겨시난. 멧 사람이. ᄒᆞᆫ 서너 사람이.
@1 으. 게믄 이쪽 동쪽에 거 다 불려시켜예?
#1 어, 그렇주. 막 큰소리치멍 뎅겨. 그냥 ᄒᆞ꼼 더 불려 줍센 허민 물 저 발자국만이만 허여 먹으렌 허영 가비어.
@1 아.
#1 어. 발자국, 물 ᄒᆞᆫ 바퀴 싹 돌민 발자국이 얼마나 하게.
@1 예.
#1 어. 게난 발자국만이만 헤여 먹어, 허영 가불어. 경 ᄀᆞᆯ아.
@1 오백, 오백 ᄆᆞ리를 그냥.
#1 으.
#2 게난 그런 분안텐 우선권으로 우럭, 바닷고기 우럭.
#5 대가리.
@1 예. 우럭헤근에.
#2 거 대접허여.
#1 아이구. 물 저 불리젠 허민 그땐 저 산신제엔 허느냐.
@1 으.
#1 저 제 지내엇어, 밧디 강.
@1 밧디 강.
#3 코사, 코사.
#1 물 들어오기 전에.
@1 으.
#1 그냥 떡허고 궤기허곡 허영 술허곡 허영은에 절허곡 고사 지내영.
#3 고사 지내. 고사.
@1 어.

#1 경허영 물 임제 앞이 불려주는 임제 앞이 대접허곡.
#4 우선, 우선, 우럭, 우럭.
#1 경헤사 불려줫어. 경 아무 집이나 경 불려주카부덴.
#5 우찬 험으로, 우럭 대가리로.
#3 물 임제 앞이 우선 우럭 갖당 받쳐야.
@1 우찬으로.
#5 우찬 험으로 우럭 대가리.
@1 우럭, 우럭 대가리.
#1 우럭이 맛 존 셍이라, 그거.
@1 게난예?
#3 거 물 하도, 그 물 전체 몰앙 오는 게 아니고.
@1 예.
#2 흔 삼사십 ᄆᆞ리.
@1 예.
#3 몰아 아졍 와근에 밧 싹 불려뒁 가주게.
#1 사오백 마리 들어갈 밧도 엇고게.
@1 그러니까.
#4 얌전헌 물들만 가져오는 거라.
@1 으.
#4 말 잘 듣는 것들. 그 얌전헌 것들.
#1 에고, 나 말 곧젠 허난, 나 이제 말 아니 곧젠. 목 아프다.
#5 이젠 그만 굴읍서게.
@1 말을 너무 재미지게 굴암수다게.
#5 역사가 경 저 회장님벳기 누게 경 말.
#4 말 헐 사름이 엇어.
#5 엇주게.
#6 오래 산 죄로. 오래 산 죄로.
#2 조 불리젠 허민 뭐 제 지내낫저 뭐헷저 그런 말은 난 들어보지 못헤서.
@1 어.
#5 예, 젊은 사름덜은 모릅니다게.
#1 물 머리에, 물 머리에 제 지냇어.
#5 무사, 제 지내 낫수다. 차롱헤당.
#4 게메 물 머리에 제.
#1 물 머리에 제 지낸덴 허영은에.
#2 게메, 그런 말은 오늘 첫 번 들엄서.
@1 첫 번 들멘예, 예. 거난 밧 불르레 들어가기 전에 이 밧머리에서 허는 거 아니라예?
#1 어, 어. 물 들어가지 전에.
@1 들어가기 전에.
#1 저, 이, 거 곡식신은 무시거라.
#4 으?
#1 곡식신 앞이 지내는 거주게. 그거.

#3 그렇주게.
@1 제석할망.
#4 으, 게난.
#1 아니.
#5 제석할망이 맞주게.
@1 자청비.
#1 제석헐망.
@1 제석할망.
#1 제석할망 앞이 지내는 거.
#3 영등할망.
#4 제석할망.
#1 제석할망 앞이 지내는 거.
@1 제석신한테.
#4 제석할망 알아?
@1 예, 제석할망.
#4 봔?
@2 봔. (웃음)
@1 우리 할머니우다.
(모두 웃음)
#4 아니, 아니. 저 농사를 지어서.
@1 예.
#4 요만은 거 그게 그 뭐렌 얘길 허나. 그걸 보면은 알, 알멩이가 가득을 때가 잇곡 ᄀᆞ득지 않을 때가 잇어.
@1 예.
#4 그러면 이거 제석할망이 배고팜저, 이제 배불럿저 이제 그렇게 허는데.
#5 아, 맞아, 영.
#4 그거 영 쪼꼬만 헌 거.
#5 으. 거 ᄀᆞᆯ르민 밥 ᄀᆞᆯ르민 제석할망.
#4 거 막 ᄀᆞᆯ라지면은 흉년이고 ᄀᆞ득으민 풍년이고.
#5 소복허민 농사잘 뒌덴.
@1 건, 그게 이름이 뭐우꽈?
#5 거 몰라. 땅에 영 검질메당 보민 까망헌 것이 영 호겡이 닮은 것에.
#6 종제기ᄀᆞ치 동골동골헌.
@1 예, 알아지쿠다.
#5 돌레떡 닮은 것이 영 소보록허게 잇곡, ᄒᆞᆫ 서너 개.
@1 씨 닮은 거 이렇게 박아진 거.
#5 어.
#4 게난 그게 ᄀᆞ득으면은 풍년이고 ᄀᆞᆯ르면은 흉년이라.
#6 곡석이 잘 뒌덴 허곡.
#7 이젠 것도 엇어.
@1 거, 이름 뭐우꽈?

#7 이름 뭔고, 나도 건 잘 알아져나신디.
#6 제석할마님. 제석할마님밥그릇이렌 허더라고.
#4 거, 제석할망밥그릇이주, 밥그릇.
#6 밥그릇이렌 골아. 곧긴 허는디.
@1 으.
#5 경헌디 그거 이름은 몰르크라, 우리도.
@1 버섯치룩 요렇게 요만큼 헌 거에예?
#5 예.
#6 쩨끌락허영.
@1 좁쌀, 좁쌀 같은 거 이렇게 담아진 거.
#6 예, 까물까물헌 것이 거기 부떵 잇어.
@1 예, 예, 예. 아, 거 제석할망밥그릇.
#6 예.
#5 밥그릇이엔.
@1 게난 그게 어느 철에 헤. 가을에?
#5 으.
#4 아니, 가을에.
#1 여름에 헷주, 여름에.
#3 저 수확허기 전에.
@1 수확허기 전에.
#1 여름에 검질메당 보민 거 잇어.
#3 그레 잇어, 거 잇는데 그걸 보고 이제 ᄀᆞ득아시면은 아, 풍년이다 허고 골르면은 이거.
#1 거 검질메당 보민이.
@1 예.
#1 거 쪼끄만허여.
@1 요정도주, 요정도주.
#1 땅풀이주, 땅풀.
@1 예, 예.
#4 어, 그 정도 헐 거라.
@1 예, 저도 봐낫수다. 저도 촌년이니까.
#1 거 잘 아네이, 젊은 사람이.
#3 겨난 듣자마자 헐 거 엇이 그냥 가도 뒈크라.
@1 대흘은, 대흘은 몰라부난. 아이고게. 이거 제석할망 그릇 이름을 알아야는디.
#5 겐디 이름을 몰라.
#4 제석할망밥그릇이엔 허여게.
@1 제석할망밥그릇인데 실체가 이서얄 거 아니우꽈게.
#5 일름이 엇일 거라게, 제석할망밥그릇이주.
@1 제석할망밥그릇.
#5 우리가 그 이름을 안 골아봣주게.
#2 젊은 여자엔 허지 말앙은엥에 저 뭐, 뭐엔 허나.
#4 저것이.

@1 으.
#4 어디, 그 기술센타에선 알 건가.
#1 에이, 몰라, 가네덜, 가네덜.
@1 게난 어디 뎅기당. 요즘은 잘 엇어예?
#4 엇주, 요즘은 잘 엇어.
@1 약 헤부니까.
#1 제초제 헤부난 엇주.
@1 게난 약 헤부난예?
#4 농약 때문에 다 엇어져불엇어.
#1 어.
@1 제석할망밥그릇, 나가 춪이쿠다, 이거.
#1 으.
#5 제석할망 그릇.
@1 예, 경헹 그걸로 점 보곡예? 그다음에, 저 여름에는 유월절은 막 더울 때 아니라예?
#2 막 더울 때.
@1 으.

유월절
#5 막 덥지 안허여, 유월절은 딱 칠월 칠일 양력.
@1 예.
#5 칠월 칠일이 그냥 유월절.
@1 더워?
#5 경헹 그 전 삼 일, 전 삼 일, 후 삼 일 콩 간덴 옛날은 헤신디.
@1 으.
#5 유월 십오일 뒈민 지금은 콩을 갈주게.
@1 예.
#5 겐디 옛날은 유월절에서 전 삼 일, 후 삼 일.
@1 조 불리는 거.
#5 조, 조도 그때.
#6 그때.
@1 조도 그때, 콩도 그때.
#5 콩도 그때. 가찌.
@1 조도, 콩도.
#4 게난 옛날보다 지금은 쪼꼼 먼, 일찍 갈주.

둑 잡아먹는 날
@1 그러니까 달라전예? 그게예. 그다음에 유월 뒈면은 둑 잡아먹는 거?
#5, 3 유월 스무날.
@1 예.
#3 유월 스무날.
#6 옛날은 스무날, 복날 미시거.

#5 음력으로 유월 스무날.
#2 둑 잡아먹는 날.
@1 음력으로 유월.
#5 유월 스무날.
@1 유월.
#3 유월 스무날 그 둑 잡아먹젠 허면.
@1 예.
#5 이젠 초복, 중복 헷주만은 옛날은.
#3 양력으로 양력 이월이나 삼월 뒈면.
#5 초복, 중복 그쯤엘 거라.
@1 예.
#6 게난 중간이주. 중간쯤에. 게난.
#3 집집마다 병아릴 사당 질루와.
@1 으.
#3 그 병아릴 사당 질루와근에 그때 뭥 잡아먹젠. 저 사당덜 질롸주.
#5 병아리 막 키왕 그거 훈저 키왕.
#3 음력 정월에 부화헌 병아리를.
@1 예.
#3 키우면은 음력 유월 스무날 정도 뒈면은 숫놈은 그때 금방 울 때라.
#6 것도 둑 이신 사름이 경 잡아먹주.
@1 아.
#3 그때가 닭이 가장 영양분이 많고 이제 몸에 좋은 성분이 많다 헤서 그 유월 스무날 잡아먹는다고도 허고, 또 에, 그걸 잡아먹어서 영양보충을 헤야 일을 많이 헐 것이다, 헤 가지고 헌다는 말이주.
@1 예.
#3 여름에 더위 먹지 말렌게.
#5 더우 이긴덴. 더우 이긴덴.
#3 더위 먹지 말렌. 잡아먹어서.
#5 일허는 게 아니고 더우를 이겨.
#4 일종에 영양보충허고 관계된 거주게.
#5 예.
@1 예, 또 일도 하영 허곡.
#5 할머니덜 경 골앗어. 에구, 둑 잡앙 먹어사 더우 이경 산다게, 더우에, 더우 버쳉 못 산다.
@1 으, 더위 깨렌.
#5 더우 깨렌, 그런 말로. 더위 깨렌.
@1 더위 깨렌.
#4 정월 병아리를.
#1 제석할망밥그릇이.
@1 예.
#1 저 좀누룩.

@1 찾아 불엇수과?
#1 예, 웃음.
@1 인터넷으로 찾아불언.
#1 좀누룩밥그릇인게게.
@1 좀누룩.
#1 어, 좀누룩.
@1 야.
#3 돌무룩?
#1 거 저, 풀이 아니라이.
#3 돌무룩 밥그릇이엔?
#1 어, 좀누룩.
#5 돌, 돌에서 그 무시거 나오는 거라.
#1 누룩, 누룩.
@1 좀누룩, 누룩처럼.
#1 예.
@1 곰팡이주게.
#1 어, 곰팡이.
@1 예.
#1 곰팡이 종류라.
@1 아우야, 누겐가 제석할망밥그릇이엔 올렷저예?
#1 어, 좀누룩밥그릇.
@1 좀누룩밥그릇이엔도 같이 나오고예?
#1 으.
#5 밥그릇이엔 나왓구나.
@1 아고야.
#4 게난 그거 누게 아는 사람이 인터넷에 올린 거 아니?
@1 예게, 나도 안 들어봐신디.
#5 좀누룩.
#1 좀누룩.
@1 좀누룩밥그릇.
#5 밥그릇.
@1 밥그릇은 동그락허잖아예?
#5 어떵 잘 찾아신게.
#1 좀누룩, 거 풀이 아니라게. 보민.
@1 예.
#1 그냥 진짜 거 곰팡이 같애.
@1 늣 같은 거예?
#1 어, 늣 같은 거.
#4 거 일종이 균이라 거.
@1 겐디 진짜 그 물 잇는, 물 앚는 밧디 잇는.
#1 물 앚는 디도 잇고 아니 그냥 물 아니 앚인 디도 그거 나와.

@1 예, 예. 아이고야, 그거 인터넷 누게가 올련?
#1 좀누룩, 좀누룩밥그릇.
@1 예, 그다음에 삼춘.
#5 검질메당 보민 그거 엇어.
#6 어게.
@1 이제 딴 말 허지 말고. 저기 그 유월 스무날 이제 둑 잡아먹고.
#5 예.

초서

@1 그다음 유월절 허니까 조도 볼리고 그다음에 막 더울 때, 초서, 대서 이런 거에 대한 얽힌 이야기도 잇일 거 닮아예? 대서 허민 막 더울 때잖아예?
#1 으.
#4 더울 땐 폭낭 아래 앚앙 놀아야주.
@1 폭낭 아래 강 놀고.
#5 폭낭 아래 애기구덕 아졍 강 흥글멍.
#2 요디 요디 폭낭.
#6 더우민 목욕허곡.
@1 더우민 목욕허곡.
#6 건드렝이 앚앙덜.
#5 수박 탕, 수박 탕 먹곡.
#3 남자들 등목허곡 여자들은 등목을 못 허주기게.
@1 예. 게믄 어쨋든 더위에는 그 조 다 볼려나면은 할 일이 엇구나예?
#4 아. 검질메사주.
#5 검질메사주, 검질.
#1 조 다.
#3 조밧디 검질메곡. 콩밧디 검질메곡.
#1 남자는.
@1 예.
#1 남자는 조, 조 조팟디 씨 뿌려 불민.
@1 으.
#1 끝나고.
@1 으.
#1 그다음은.
#5 여자덜이.
#1 할망덜이, 여자덜이 문 검질메곡.
#4 조 소끄곡 검질메곡.
#1 검질.
@1 검질메곡. 이 더위에?
#1 ᄉᆞ나이덜은 폭낭에.
#5 콩밧도 메곡.
#1 저 폭낭에 앚앙 아기구덕 흥글곡.

@1 아기구덕 흥글곡.
#1 쉐 보레 뎅기곡.
@1 아.
#4 쉐 보레 뎅겻주, 쉐 보레.
#1 물 보레 뎅기곡.
#6 애기구덕 잘 흥글엇주.
#5 애기 울어가민 젓 멕이레 어멍신디 애기 업엉 오곡.
#1 젓 멕이레 밧 구석에 또 춪앙 가곡.
#5 게, 할망덜은 검질메젠 허민게 아방덜은 애기 돌아당.
#3 애기 업엉 가가민 애기.
#4 문드령, 문드려 불엉.
#5 게난에 제주도 남저들은 호강이주, 여자들이 고생이주.
#4 애기 문드려 불엉.
#5 그 애기 내불어둥 오민 젓은 불곡 허민 아방은. 애기들 가져왕 일허당 멕이곡.
#1 게난 제주도, 제주도 저 ᄉᆞ나이덜 호강 헨덴 허주만은 애기 보는 것도 애기 보는 만이. 애기 봐줘사 검질도 메엉 살곡.
#4 아가씨덜 잇지, 애기 업엉 강 애기 젓 멕이젠 허민 젓이 막 뜨겁지 안허여게.
@1 예.
#3 찬물에 젓 ᄒᆞ꼼 시쳥, 식형.
@1 아, 너무 더우니까.
#3 뜨거운 거 멕이민 설사 나니까.
@1 예.
#3 찬물로 ᄒᆞ꼼 젓 ᄒᆞ꼼 시쳥 산도록허게 헤근에 애기덜 젓 멕엿주게.
@1 아.
#3 그 불더위에게.
@1 예.
#1 옛날 할망은 그냥 멕엿어게. 요즘.
#5 더울 때 멕이민 설세나곡게.
#1 요즘.
#6 설게 나서.
#3 설사 난덴 허영 식혔켯어.
#5 설사나곡게.
#4 무른 젓 멕이민 설사 나.
#5 한걸헤사 식이주, 그냥 멕이민 설사 헌덴 허난.
#1 요즘 사름덜은 헤도, 옛날은 그냥 멕엿어.
@1 더운 젓 멕이민 설사 난덴 굴읍니까?
#6 어, 애기.
#1 설사 낫주.
#5 어멍게 그 조팟디게 똠 좔좔 허곡게.
#2 설사 나, 나.
#5 애긴 울어가사 돌앙 오주게, 아방덜은 낭 아래 강 펜안이덜 애기 흥글곡.

#3 조그만이 더워게. 조작벳디 앚앙 검질메는디.
@1 예.
#3 그 불더위에게 사람 몸 그 온도에 젓이 변허지 안허여.
#5 젓은 막.
#6 게난 ○○아방, 게난 애기 둘아 봅데가.
#3 어게.
#6 에, 어느 때 둘아봣어.
#5 첨, 첨말로.
#4 애기 둘앙 검질메는 디 흔번도 안 가봐실 거여.
#6 에, 애기 둘진 안헤서.
#3 첨 나 애기 업엉 가가민 다리가.
#6 ○○ 아방허고 둘린 애기 둘아본 역사가 엇어.
#3 아, 이런 판이 잇나, 나가 다 키웟주.
#7 말이나 못 허믄은.

김매기

@1 삼춘네, 흔 사람씩, 흔 사람씩. 게난 이 대흘은 남자덜은 검질메레 잘 안 뎅겻수과?
#4 무사.
#5 안 갑니다게, 남자 검질메레.
#4 에이 첨.
#5 잘 안 가, 잘 안 가.
#1 거의.
#5 어디 남자 검질메레 뎅겻수과?
#5 막 옛날은 메서.
#1 아니, 남자덜 저 검질메는 사람 한두 사름 잇지.
#3 대흘 남자덜, 하영 메엇어.
#1 한두 사람 잇고. 대다수가 아니 메엇주.
#6 아이고, 게메 검질메언.
@1 안 메곡예.
#5 어디 남자덜 대흘 검질메는 사름 나 본 디 엇수다.
#1 생각헤 봐게, 애기, 두린애기나 이시민, 두린애기 보아줘사 검질멜 거 아니.
@1 예.
#1 이. 겨난 거의 ᄉᆞ나이들은 저 애기덜 봄으로 검질메렌 아니 갓주.
#4 난, 총각 땐 검질 하영, 많이 멧어.
@1 총각 땐 멧는데 결혼헹은 안 메고.
#5 총각 때 메나난 무사 장개가난 안 메연.
#4 각시 시난 안 멧주게.
#5 것도 거짓말이주.
#6 각신 검질메젠 둘아오난게, 검질메젠 둘아완.
#3 장겐 가난 공직에 잇어불지 안헤서게. 검질멜 시간이 셧어?
#1 에고, 팔자 존 사름덜은 검질도 안 멧구나만은.

@1 예.
#1 난 뭐 요작이ᄁᆞ지 메진 거 닮다.
#4 우린 총각 때 검질메곡.
@1 예, 총각 때 메고예?
#6 수박허고 배추허난 메긴 메실 거우다.
#7 남자덜은 밧만 갈아주민 뒌 거주게, 밧만.
#1 이 사름은 공무원허난 아니 메고.
@1 예.
#1 난 소낭밧디 풀 줍젠 허난 검질만 메고.
@1 예. 알앗수다. 이젠 너무 시끄러우니까 쪼끔 조용히 한 사람씩.
#3 넘어갑서, 이제랑.

칠월

수박 수확

@1 칠월에, 칠석 삼춘. 칠월, 칠월.
#5 십이월ᄁᆞ지 헐 거라.
#1 나 이제 줌쫌허크라.
#6 아이, 줌쫌허켄.
#3 양력 칠월엔 수박 타당 풀앗주.
@1 양력 칠월엔 수박 타당 풀고.
#4 으, 양력 칠월 말 뒈민 수박 타당덜 풀앗어.
@1 으.
#4 구루마에 실렁 성안 가는 사람.
#5 칠월달에 허는 일.
@1 에이고, 그다음.
#4 밤이, 새벽이 갓주, 새벽이덜.
@1 으.
#4 수박 실런덜, 구루마로.
@1 구루마로 풀레 가고.
#5 어디 식게칩이 간 식게 먹당 저 열두 시 뒈 가민 무시거 먹엉 수박 시끄레, 시껑 갓주게.
#4 어, 물구루마 헌 거는 게도 ᄲᆞᆯ르곡.
#5 구루마에 허영.
#3 쉐구르마는 뜨, 느리고, 물구루만 ᄒᆞ꼼 ᄲᆞᆯ르곡. 저 동문, 동문통드레 실러 아젼 갓주, 시에. 성안덜에.
#5 게 조그만이.
@1 으.
#1 아이, 진짜 목 쉬언 말 못허켜.
(생략)
#3 칠월달엔 수박 이거 타당 풀곡, 별로 헐 게 엇엇어.

@1 예.
#4 수박 다 풀아불민 배추 갈아야 뒈곡.
#5 배추허민 배추 풀레 뎅기곡.
#4 팔월 초 뒈면은 배추 파종.
@1 배추 파종하고예?
#4 파종.
(생략)
@1 칠석, 칠석. 칠월 칠석날은 뭐 헤?
#3 그때는 쪼꼼 한걸헌 때.
#4 칠월 칠석 여기선 허는 거 엇어.
@1 아, 칠석엔 뭐 허는 건 엇어.
#5 엇어, 칠석 그때는.
#1 칠석엔 뭐 먹는 건 엇주. 먹는 건.

백중제

@1 백중은 헐 거 아니?
#1 백중덜 허주.
#3 백중덜 쉐 허는 사람.
#5 백중, 쉐헐 때 저 가근에 출령 강 쉐신디 강.
#3 쉐허고 물허는. 물이영. 백중.
#1 백중젠 지냇어.
@1 백중젠 지내고.
#5 목장에 가근에.
#1 우리도, 우리도 저 노픈 동산에 강이, 거 쉐 잇인 디 강덜 지내는 사람도 잇고.
#5 출려아졍 가근에 그디 강.
#1 겨 아녀민 그냥 가기 실프민 어디 노픈 동산, 신선헌 디 가근에 제 지내는 사람도 잇주.
@1 예.
#1 우리도 경헷주.
@1 예. 삼춘 백중제 헌덴 허멍.
#1 이 사름 공무원이난 안 헷다니까.
#3 아니, 쉐헐 땐 헷주게.
#4 헷주게.
#3 이제 쉐 풀아 부난 안 헷주.
@1 게난 백중제 헐 때는 메는 뭐 가졍 강 헌 거 골아줍서.
#5 우린 그런 거 안 허난.
#6 차롱에 밥 ᄋᆞ졍강
#3 백중?
@1 으, 백중.
#3 메허곡 떡허곡 과일허곡.
#6 우린 백중을 안 헤나부난 몰르주게. 백중 안 헤낫수다.
#3 무사 안 헷어? 우린 헷는디.

#4 것도 바닷고기, 바닷고기 헤야 뒈고.
#5 헤나지 안헌디.
#3 것도 제물 다 헤야 뒈어.
#4 다 허여.
#5 헤야 뒈어.
#3 제물 다 헤여 골고루 다.
#4 많이만 안 가졍 가는 거지.
#7 고사리 숢곡, 머리 긑인 고기 하나 굽곡.
#4 경허영 옛날에는 그 소나 말 잇는 그 앞에 가 가지고 방목헌 앞에 가서 젯자리 딱 이디 꼴앙 이 저 다 진설을 헤 놓는 거라.
@1 으.
#4 진설 허영 밤, 이제 ᄌᆞ시엔 헤 가지고 밤 열한 시 쯤 뒈면은 그때 절허영 음복허곡.
#3 겐디 낮에 헷주, 낮에.
@1 절도 헙니까?
#4 아니 밤에.
#3 아니, 우린 낮에 헷어.
#5 밤에 허지 안헷수다게. 낮에.
#1 밤에 지냇어, 밤에.
#3 낮에.
#4 요즘은 다 이제 낮에덜 헤 불어.
#5 낮에 허영. 기냥 우리 헐 때는 그추룩 안허영 산메 치곡. 산메 치곡 고기 굽고 다 그추룩허영.
#6 산메 쳐사.
#5 떡, 떡 저 풋 놓지 말앙 생이떡 그 막걸리에 생이떡 헹 만들앙, 경헹 간 헷주 미신.
#6 맞아, 요만이 헌 낭푼에 산메 쳣어.
#5 우리도 헤낫주기.
#4 멧밥은.
#7 날 존 때는 밤에 간 헷어.
#6 멧밥은 그냥 솟디서 허지 말앙 그 낭푼에.
#3 낭푼에 헤 가지고.
@1 산메 쳥예?
#5 으. 그렇게 헤서.
#4 밥그릇에 허는 게 아니고 낭푼에.
#5 낭푼에 조그만헌 거 허영은에 낭푼에다가.
#6 고기도 막 우럭으로 이제 조기 닮은 거 말아 우럭.
@1 우럭.
#6 우럭이 옛날은 알아주주게.
#7 머리 큰 우럭.
#6 우럭으로 헹은엥에.
#7 우럭이 젤 머리가 커.
#6 어. 우럭헹.

#3 머리 큰 고기엔 헤근에게.
@1 머리 큰 거.
#3 머리 큰 고기엔 헷주게.
#5 심방덜이 말명허멍 우럭, 머리 큰 우럭 올렷수다 헹.
#4 수박밧디 고사 지내는 건 문어 올리곡.

수박밧 고사

@1 어디, 수박밧디도 고사 지내마씨, 여긴? 아고야.
#4 어, 수박막 짓엉 수박 직헤야. 직허레 돌아다녀야. 수박밧디 고사 허는 거는 문어로 허곡. 그거 돈, 문어가 부뜨는 거니까. 돈 부뜨렌 헤 가지고.
@1 아.
#2 문어 헹 올려낫구나, 수박밧디도.
#4 문어.
@1 수박밧디 게믄 고사는 어느 철에 지낸 거마씨?
#4 그거는 이제 저 수박 다 욜앙은에 이제.
@1 으.
#4 커, 커서 이제 남이 따 먹을 정도 뒈 가면은 가서 직헤야 뒈어.
@1 예.
#4 거 그때 이제 고사 지내곡 강 사름이 강 살곡 직헤사.
@1 아. 그.
#3 수박밧 거 지켜봣자라. 밤에는.
#5 다 도둑질헤 가불어.
#3 어떤 식으로 도둑질덜 헤 가신고 허면.
@1 예.
#3 그디 강 화토 치렌 헤근에 화토 치는 시간에.
@1 치는 추룩 허멍.
#3 수박 타다근에 이녁 밧디 갖다놔불어.
@1 으.
#3 게믄 줄 엇인 수박이 뒈어.
@1 으.
#3 도둑질 헨 간 거, 겡 다음날 그거 먹곡.
@1 게믄 이 동네 수박 갈 때는 수박밧디들 다 고사를 헤?
#3 원두막을 지엇주기.
@1 어, 원두막 지엉.
#3 수박막을 지어서, 수박막을.
@1 예, 예.
#3 돌 영 돌덜 다왕은에 우에 낭 걸쳥은에.
@1 지붕에.
#3 찝으로 ᄂᆞ람지 여껑은에 더껏어.
#4 비, 비 안 맞게끔 다.
#5 그디 줌자곡.

@1 게믄 이 그 동네 그 수박막들이 하나시켜예? 밧마다에?
#4 예, 잇엇주.
#3 잇엇주게.
@1 아.
#3 그거 타 먹을 거니까 직헷지. 못 타먹게.
#4 못뒌 사름덜은 수박밧 어염에 그디 강 화토 쳥 수박 임제보고 ᄀᆞ찌 화토 치렌 헤둉 ᄒᆞᆫ 쪽 멤바는 강 수박 서리, 서리 다 헤 먹어.
#4 도둑질 헤가는 거 모르주기. 화토 치당 보민 모를 거 아니라.
@1 게믄 그 지킬 때는 남자들이 강 그디 강.
#4 남자들이 강.
#3 게믄 여자들이 강 직헤져?
#5 아이고, 여자도 헷수다게. 나도 헷수다게. 완보난에. 그 노룬가 그 미시거 아침이 그거 맨날 먹어부난. 밤인 줌자지 말렌 허연 낭푼 막 멜라진 거 아졍 강 낭 닥닥 두드려야 뒈어, 밤새낭. 우리 경허멍 지켯수다게.
#3 건 짐승. 지다리.
#4 오소리. 오소리.
@1 오소리. 지다리.
#5 어.
#3 거, 지다리가 와근에 익은 것만 골라 먹어, 것도. 게민 그저.
#5 다 ᄀᆞᆯ라먹어 불어. 게민 나도 지켯수게. 여자 안 험이랑 마랑 여자 다 헷수다.
#3 냄비. (생략) 아니 그 구신 나는 동네에.
#5 어.
#3 구신 나는 동네에.
#4 밤이 ᄀᆞ찌 간 지켜낫어.
#3 게 그럴.
#5 막 그냥, 그냥 조라움은 헌디 두드리렌만 허난 막 두드리난. 두드려야 ᄃᆞᆯ아날 거 아니우꽈.
#4 거 오소리란 놈이.
#5 오소리. 나 헤낫어, 에이구 게난. 무신거 허레 시집 와져신고 헤낫어.
@1 예.
#3 그때 당시에는 오소리가 아니고 지다리.
@1 지다리.
#3 지다리.
#5 경 안허민 뒷날 익은 거 곱닥헌 거만 문 먹어불어.
@1 어.
#1 지다리가이 거 이상헌 거메.
#5 익은 것만 다 먹어불어.
#3 잘도 익은 것만 잘도 골라.
#1 그 놈으 거이.
@1 예.
#1 우린 익은 거 선 거 저 골르젠 허민 막 손으로 두드려 보곡 뭐 막 허잖아.

@1 예.
#1 견디 그 놈으 새끼들은 익은 걸 그렇게 잘 알아.
@1 아.
#1 꼭 익은 것만 그냥 먹어 불어, 거. 잘 알아. 사름보단.
#4 지금도, 지금도 노루가 잘 알아.
@1 노루.
#4 노루. 잘 알아.
#1 꿩도 허메, 꿩도.
#4 꿩도 잘 알곡.
#1 짐승덜 사름 욱, 욱 욱다고 뭐 이그러지다고 헤봐야 짐승만 못 허여.

백중제
@1 자, 백중, 백중제부떠 새로 헤야 뒈쿠다. 백중제, 백중은 언제우꽈?
#3 칠월 십사일날.
@1 예.
#1 음.
#3 십사일날, 소 잇는 데 가 가지고.
@1 예.
#3 그 노픈 동산, 깨끗헌 동산에 강 젤 벌이곡.
@1 예.
#3 자기 소 잇는, 소를 몰아와.
@1 으.
#3 그 자기 소 앞이서 제를 지내주.
@1 으. 뭐, 뭐렌 굴으멍 제 지냅니까?
#2 미시거 안 굴아.
#4 굳긴 미시거.
@1 게난 백중제허는 목적은 무신 거라마씨?
#4 게메이.
#3 백중은 그 저 테우리 멩질이거든.
@1 으.
#4 우리 쉐덜, 우리 쉐덜.
@1 으.
#3 거 백중이엔 헌 사름이.
@1 예.
#3 그 칠월 십사일날, 그 태풍 비바람 맞안 죽엇덴 허여.
@1 으.
#3 게난 그날로 그 백중, 그 테우리제주, 테우리제라.
@1 테우리제예?
#3 어.
#1 백중.
#4 소제가 아니고.

@1 테우리 멩질이렌 허고.
#3 어.
#1 백중이엔 헌 게.
@1 예.
#1 그 저 테우리를 말허는 거라이.
#3 테우리주게, 백중이.
#4 테우리.
@1 예, 예.
#3 테우리엔 허민 알아지크라?
@1 예게.
#3 소 보는 사람.
@1 예.
#2 목동.
#4 이 어른 테우리 오래 허지 안 헷어?
#1 ᄆᆞ쉬 이 거, 거념허는.
@1 으.
#1 테우리를 말허는디, 그 백중제를 지내는 건 첨 우리 쉐 잘 봐줍서, 허여근에 말로 허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라도 어 우리 가축 저 잘 저 백 저 테우리난.
@1 으.
#1 백중이 테우리난 우리 ᄆᆞ쉬 잘 돌봐 줍서, 허여근에 젤 지냇주기게.
@1 예.
#4 부탁허는 거라.
#1 겐디 그 엿날에는 그 저 것도 멩심허영 지내젠 허난 밤에 강 지냇어.
@1 으.
#1 밤에 강 지내신디, 근간에는, 근간에는 뭐 낮에이, 쉐 보레 강도 역불로 강 지내곡 경덜 헷주.
@1 예.
#4 이젠 다 낮이 지내 불어.
#1 어. 이제는 뭐 편허게 허기, 허기 위헤서. 겐디 옛날에는 밤이덜 지냇주, 밤이덜.
@1 으. 자시에 강예?
#1 우리도 저 둘밤 그땐 둘이 터.
@1 예.
#1 어.
#4 그땐 막 둘이 좋을 때주. 열나흘이난.
@1 예. 십사일이난.
#3 저기 ○○부친은 꼭 밤에 제 지내신디.
#1 둘이 트난. 둘이 트니깐 그냥 산에 강 어디 노픈 동산에 가근에 지내주.
#3 밤에 제 지내곡. 저 미시거 멩텡이에 딱헹 지어 아졍.
#4 그땐 다 멩텡이에덜.
#1 멩심허는 하르방덜은 우리 ᄆᆞ쉬 잘 봐줍서, 허영 말로도 허겟지만은 그냥 마음속으로 지냇주게.

@1 마음속으로예?

#4 둑다리 하나 주엇덴 허데. 게난 그 사람이 둑다리 하나 먹으난 부자 뒈엉.

@1 그리고 칠월 뒈믄 막 더우난 여기는 어디 삼양 모래찜 허레덜 가고 영 헤낫수과? 모래 뜸질허레.

#1 가는 사람도 잇엇주게. 거.

@1 으.

#4 물 맞으레 가주, 모래찜보다도.

@1 물 맞이레.

#4 저, 절물.

@1 아. 절물.

#3 절물 물 맞이레 가는 사람이 많앗고. 그 삼양 모래찜은 저 이 해촌분덜이 많이 갓지.

#1 저 모래 저.

#3 여기서는.

#1 찜질허레 가는 사람덜도 잇엇주. 뭐, 뭐, 무슨 피부병이 오거나.

@1 예.

#1 뭐 경허는 사름은 그디 강 허민 존덴 허영 간 분덜도 잇엇주.

@1 예.

#1 견디.

@1 물 맞이레 여기는 절물.

#3 절물. 더위 먹은 사람덜 물 맞이레도 가곡.

#1 절물 쪽으레 가근에 많이 맞앗주. 물 맞는 것덜.

@1 으. 그것도 백중에?

#1 으.

#5 백중에.

#1 백중 전이 뎅기주.

#3 그 ᄀᆞ리주. 그때가 젤 한글허난.

#1 백중 뒈가면은 쫌 추울 때난.

#4 한글허고 젤 더울 때고 허니까.

@1 예.

#5 그디 물 맞이레 갓단 저 누게네. ○○할망네, ○○ 어멍네, ○○어멍네 간 물 맞는디 막 생이도체비가 나완. 막 영장 허는 소리 막 헤가난 무서완에 그냥 낭푼 앗앙간 거 붉도룩 두둘당 보난에 붉앙 보난 문딱 멜라졋어렌.

@1 아.

#6 이상헌 거 봣구나.

#5 생이도체비 그냥 막 헹상 메 가는 소리 그냥 막 하도 헨에.

@1 삼춘, 생이도체비가 무시거우꽈?

#3 도깨비, 도깨비.

#5 거는 알고 보면 저 귀신이주게, 귀신.

@1 예.

#5 밤이. 게난 그거 막 옛날에는 생이도체비엔 허민 행상 메 가는 소리허곡 또 막 그냥 소리가 그냥 막 미신 소리산디 막 나면은.

#6 그 소리 춪앙 가보주게.
#5 그거, 그거를 생이도체비엔 헤근에.
@1 예.
#5 ᄆᆞᄉᆞ완에 그냥 막 낭푼 두들다 보난 붉안은 보난 낭푼이 몬딱 밥 거령 먹지 못허게 다 멜라젼 잇어렌.
@1 으. 절물에 가신디예. 물 맞이렌 갓당.
#6 물 맞이레 갓단. 실제 헌 거, 이거.
#5 실제 헌 거, 이거.
#6 흔 삼십 년 뒈실 거라.
@1 예.
#5 삼십년 안 뒛어.
#3 삼십 년 더 뒛주.
#5 안 뒛어, 안 뒛어.
#3 안 뒛어?
#5 삼십 년 안 뒈언.
#3 자, 이제 끝냅시다.
@1 예, 끝낼 때도 뒈는 거 닮수다. 너무. (웃음)

처서

@1 그다음은 처서, 처서에는 얽힌 이야기 잇잖아예? 뭐 모기도.
#3 모기가 입 삐뚤어진덴 허주, 처서에.
#4 주둥이 오그라져근에.
@1 으.
#3 모기도 처서 뒈어가민 입도 삐뚤어진덴 헷주.
#5 검질도 안 난덴.
#3 검질 안 난덴 허고.
@1 검질도, 처서에는 검질도.
#1 저, 처서, 처서에 저 모기 주둥이도 오그라지곡 풀도 울멍 돌아간덴 헷어.
@1 으, 나단 검질도 울멍 돌아간다.
#1 어. 울멍 돌아간덴.
#4 겐디 것, 것도 이제 옛날 이야기가 뒈어 불언. 요즘은 기후가 온난화 뒈어부난.
#3 더 나.
@1 예.
#4 이제 처서 넘어도 겨울에도 풀이 나곡.
#5 울멍 돌아간덴.
#4 모기도 겨울에도 하곡.
@1 게난예?
#1 게난 엿날 말덜 허여게, 이제, 이젯말 허지마랑.
#4 게난 이제 신식이라부난 그거.
@1 신식 말도 ᄀᆞ치 영 허긴 헤야 뒐 건디. 우리 나중에 한 번 더 와야 켜이.
#1 엿날 말덜 ᄀᆞᆯ으렌 헴잖아게.

#3 모기 겨울에 모기 잇는 건 하수구 만들아 부난 모기가 잇주기게.
#4 하수구에 기냥 살앙이.
@1 너무 일허레 저기 가야 뒐 거라 부난 오늘은 이마큼만 헤야 뒐 거 닮수다.

팔월

벌초

@1 옛날에.
#1 엿날은, 엿날은 이 저 벌초들, 팔월 나가민 벌초들 허주게. 겐디 거의 팔월 초ᄒᆞ룰 뒈민 문중 벌초들 ᄒᆞ여. 문중 벌초들을 허는데, 문중 벌초들 허젠 ᄒᆞ민 문 지물들토 ᄒᆞ영 가근에 저 산에 강 올리곡 ᄒᆞ젠 허민 지물로 ᄒᆞ는 것도 ᄒᆞ루 날덜 벌령 거 허주기게. 지물이엔 ᄒᆞ민 기냥 춤 ***** 이것저것 좀 멘들엉 강 떡도 멘들곡 무신 궤기도 어 저 사당 허곡. 바릇궤기, 바릇궤기덜토 올리곡 허젠 허민 그 막 멩심헤사. 엿날은 저 지금ᄀᆞ치 베도 큰 베 아니난 문 낙싯베 헹 가난이 바릇궤기도 귀헤여서, 웃드리는. 바릇궤기덜 미리 정성ᄒᆞ영 ᄒᆞ젠 ᄒᆞ민 문 첨 미리미리 사당 놔근에 저 물류왕 놔뒀당 그날은 저 구웡 가주게. 그 구웡 가젠 ᄒᆞ민 그거 저 요즘은 숫도 잇곡 뭐 뭐 낭도 흔ᄒᆞ난 낭도 헷주만은, 문 그땐 보릿낭 아니민 저 고사리 물른 것덜 그거 허영 그걸로 구난이, 궤기도 그냥 문 시커멍ᄒᆞ여.
@1 음.
#1 게도 엿날 구신은 맛 좋덴 먹어실 거라게.
@1 음.
#1 경 허영 문 저 준비헹 강 벌초를 ᄒᆞ는디 벌초도 저 ᄌᆞ손덜이 문 강 헷주, 엿날은. 아니 강 ᄒᆞ민 막 욕헷어. 겐디 요즘은 그냥 ᄒᆞᆨ셍이엔 ᄒᆞ영 공부험쓥 ᄒᆞ영 아니 가곡 ᄒᆞ영 ᄒᆞ민 문 하르방 늙은 것덜만 가근에 호미 들렁 강 ᄒᆞ젱 ᄒᆞ난 똠이 찰찰 나곡 그냥 또 허영덜 오라낫주게.
@1 예. 거기까지 허고. 훼장님, 훼장님도 저랑 체온이 같읍니까? 훼장님은.
#1 공포뒈니까. 요즘 마스크들 써 놓난덜 말덜 잘 아이 나완.
@1 예. (웃음) 경 헹 이제 헷는데, 그때 지물은 뭐 뭐 가졍 간마씨?
#1 지물덜 ᄒᆞ젠 ᄒᆞ민 차롱착에이, 차롱착에 저 그 음, 엿날은 요즘 ᄀᆞ트믄 뭐 빵도 하영 나오주만은 엿날은 문 차롱착에 그 저 침떡. 그 어 또 쳥 가주게. 침떡 쳥 가젠 허민 그 대바드렝이, 대바드렝이 이신 집은 대바드렝이 헤영 아래 놓아근에 ᄒᆞ는디 대 헤여당 끈어다근에이, 아래 영 받침대 멘들아 놩 게. 그때 저 그 침떡 ᄀᆞ루덜 영 놓젠 ᄒᆞ민 문 세부난이 양에덜이.
@1 음.
#1 양에덜을 헤여당 그거 꼴앙. 경 헤영 침떡 쳥 갓주기게. 침떡, 경 양에 아니 ᄒᆞ민 양에 엇이민 홀 수가 엇어. 엿날 미녕 ᄀᆞ튼 거나이, 경 허영 어 아래 꼴앙덜 헷주만은. 미녕도 엿날은 귀ᄒᆞ곡 ᄒᆞ난 양에덜 꼴앙덜 침떡을 치더라고.
@1 음.
#3 게 침떡도 쳥 가고, 이제 또 상웨떡도 헤영 가고. 상웨떡 ᄒᆞ영 가젠 ᄒᆞ민 ᄀᆞ레, ᄀᆞ레로 헤영 골아사 홀 거 아니라. 보릿ᄀᆞ루, 보리 헤영 골곡 또 이신 집덜은 무신 모물도 헤영 골곡. 경 ᄒᆞ젠 ᄒᆞ민이 그 ᄀᆞ렛방석이 ᄀᆞ렛방석이 저 멍석이 ᄒᆞ고 ᄀᆞ렛방석은 틀려.
@1 음.
#1 ᄀᆞ렛방석은 저 동글락헤여근에 저 ᄀᆞ레 ᄒᆞ나 놩 벵 돌아가멍 ᄒᆞ는 거. 요즘 사름덜 ᄀᆞ

렛방석이엔 ᄒᆞ민 잘 모른 사름덜도 이실 거라게. 그거 헤여근에 어, 떡 쳥덜 상웨떡이영 헹강 올리주게.

@1 음. 그렇게 이제 하고예?

#1 음.

벌초 준비

@1 그 벌초허젠 허면 준비허는 것들은 뭘 준비헤신고?

#1 준비ᄒᆞ는 건, 호미 ᄒᆞ나 들렁 가믄 뒈주게. 뭐 지물덜 헤영 가난, 뭐 점심 가졍 갈 일은 엇고. 으, 벌초헤여난 다음에 이제 문 저 이 지물 헤영 간 거 ᄒᆞ영 올려근에 헤영 점심 겸 헤영 헨 오난. 점심은 필요 엇고 그냥 호미주, 호미. 우리 저 이 서쪽ᄒᆞ고 동쪽ᄒᆞ곤 틀려. 서쪽은 저 호미 들렁 호미 들렁 가근에 호미 아침이 그냥 저 잘 ᄀᆞᆯ앙 가근에 헤영 ᄒᆞ민, 호미 ᄀᆞᆯ앙 ᄒᆞ꼼 헤여 나민 호미도 무껴 불주기게. 엿날은 물도 엇이난 또 ᄀᆞᆯ지도 못ᄒᆞ곡. 그 겨나저나 그걸로 썰어사주. 뭐, 뭐 그걸로 그차사주기게. 경ᄒᆞᆫ디 요 동쪽은 완 보니깐 낫이엔 ᄒᆞᆫ 거, 긴 거 ᄒᆞ영 걸로 ᄒᆞ난 막 쉬운 걸. 촐 이 서쪽 촌에는 잘도 어렵게 벌초도 헤여. 거 그냥 팔월에 게도 막 덥주기게. 무사 똠은 경 잘잘 흘림광.

@1 맞수다.

#1 경 헤근에이 헤낫주기게.

@1 게난 그 벌초헐 때 이 대흘도 그냥 좀호미로 허지예?

#1 좀호미로, 좀호미로 안 허여. 대흘은 저 낫, 좀호미로도 ᄒᆞ염주만은 낫 ᄀᆞ정덜 엿날 ᄒᆞ엿주.

@1 아, 이 동네도 낫으로 헷어예?

#1 아, 이 동네도 다 낫. 에, 긴 거.

#2 낫이옌 ᄒᆞ면은 장낫이엔 헤야 뒈. 낫이엔 ᄒᆞ면은 그 잘 모르고.

#4 큰 낫.

#3 자루가 우리 ᄒᆞᆫ 발은 헌다.

#1 자루가 ᄒᆞᆫ 발 ᄒᆞᆫ 뿜.

@1 음.

#1 ᄒᆞᆫ 발 ᄒᆞᆫ 뿜ᄒᆞ고 낫 기러기가 한 육십 센티 정도 ᄒᆞ주. 낫 기러기가. 겨난 춤 엿날 말로 큰 칼 닮주, 그거.

@1 예. 알앗수다. 게믄 그 문중 벌초허고.

#1 음.

@1 그다음 자기 집안하고도 ᄯᅮ나잖아예?

#1 으, 집안 벌초는 그 전에.

#2 ᄒᆞ는 사람도 잇고. 안 ᄒᆞ는 사람도 잇고.

#3 그전에 어 ᄒᆞ주게. 저 초ᄒᆞ루 전에 ᄒᆞ주만은 ㅅ루 전에 ᄒᆞ지 못ᄒᆞᆫ 사람들은 넘엉도 ᄒᆞ여. 견디 그 저 추석 멩질에ᄁᆞ지 벌초 아니 허영 넘어가는 사람들토 잇주게. 바빵 ᄒᆞ당 보민. 게민 막 저 욕헤낫어.

@1 응.

#3 막 욕ᄒᆞ주게. 이 저 어, 쌍것들이엔 헤근에. 저 조상, 엿날사 오죽 조상에게 멩심헤서게. 겡 헤영 벌초도 안 헹 내불엇젠 헤여근에 막 욕헷어. 게난 암만 안 헤도 저 추석 전에는 다 벌초 헤사 허주. 벌초 헤여근에. 아녓당은 춤 정말 멍석ᄆᆞᆯ이도, ᄁᆞ지도 ᄒᆞ여. 멍석ᄆᆞᆯ이엔 ᄒᆞᆫ

건 저 엿날 그 동네에서 저 좀 높은 어른이엔 ᄒᆞ민, 뭣고 이 그런 어른덜이 나와근에 이놈이 ᄌᆞ석, 조상에 벌초도 안 헷젠 헤근에 심어다근에 멍석에 뱅뱅 몰아다근에 막뎅이로 그냥 잠지 페기 두드려 놓고 헷주게이. 잠지페기 벌겅 허여낫어. 멍석으로 몰아도.

시제

@1 알안예, 그다음 이제 시제는, 시제는 뭐가 시제우꽈?

#1 난 모르크라. 나 목 아파.

@1 아.

#1 다 시제 아니 ᄒᆞ는 집안이 엇어. 게난 이 그게 시제엔 ᄒᆞᆫ 게이 경 허주게. 저 묘제ᄒᆞ고 시제가 틀려. 묘제옝 ᄒᆞ민 봄에 ᄒᆞ는 거고, 시제옝 ᄒᆞ민 가을에 ᄒᆞ는 거주게. 거 가을에 ᄒᆞ는 게 시제옝 ᄒᆞ는 건디 그 묘제ᄒᆞᆫ 집안은 봄에, 거 일 년에 식게도 일 년에 ᄒᆞᆫ 번 ᄒᆞ는 거 아니라이. 게난 식게주기게.

@1 음.

#1 식겐디이, 묘제ᄒᆞ는 집안은 저 시월에 저 시제를 아녀고 묘제 아녀는 집안은 또 이제 시제로 ᄒᆞ곡 ᄒᆞ는 거주. 그게 게난 그것이 구분이 경 뒈는 거라.

@1 예.

#1 겨난 묘제나 시제 안 ᄒᆞ는 집안이 없어.

@1 응.

#1 다 집안마다 그거 저 당ᄒᆞᆫ 고조 이하는, 고조 이하는 일 년에 ᄒᆞᆫ 번은 제사를 지내는디, 식게를, 식게를 ᄒᆞ는디 웃, 웃 저 하르방들은, 웃 하르방들은 고조 이상 하르방들은 식게를 아녀는 거 아니라게. 식게를 아녀난.

@1 예.

#1 일년에 ᄒᆞᆫ 번 저 시제로 봉 저 봉을 ᄒᆞ는 거주. 응.

@1 경 헨 허는데 그게 삼춘네 집안은 팔월 초ᄒᆞ룰날 헌 거라?

#1 어, 팔월. 게난이 그것도 경 구분이 뒈드라고. 도문중훼ᄒᆞ고 도문중훼ᄒᆞ곡 가지문중훼가 이신디, 도문중훼는 이 저 저 봄에 지내고. 봄에 지내는 거 아까 무시거옌 나 ᄀᆞᆯ아니?

@1 묘제.

#1 묘제를 지내고. 또 이 가지.

@1 응.

#1 가지벌초ᄒᆞ는 때는 그 시제를 지내주. 거의 다 경 헤여.

@1 가지에 허는.

#1 응, 가지에는 시제를.

@1 예.

#1 거난 봄에 큰 조상들은 봄에 묘제를 지내니까.

@1 예.

#1 어, 가지조상들은 시제를 벌초ᄒᆞ멍 시제를 지내주.

@1 예. 벌초허멍예?

#1 으.

@1 그다음에 게난 문중벌초허고 가지벌초렌 허는구나예?

#1 응.

@1 이렇게 보통 보믄예?

#1 어, 경 그렇게 얘기 구분도 헐 수 잇주. 경 가지, 경 가지를 칠 수 잇주.

@1 예.

#1 겨난 문중훼는 숫자가 하자녀게이?

@1 예.

#1 겨난 문중훼는 거의 거기 저 우리도 저기 저 우린 홍씨주만은 문중훼 저 시제를 ᄒᆞᆫ 멧 년 우리도 마탄 헤엿어.

@1 응.

#1 엿날 육십 년대로부터 ᄒᆞᆫ 육십오 년 ᄒᆞᆫ 멧 년도ᄁᆞ지 ᄒᆞᆫ 오 년간 헷주. 그땐 그 마탕 ᄒᆞ는 사람이 저 도제는.

@1 예.

#1 이시난 그냥 ᄒᆞ고. 가지는 또 막 벌겨지난.

@1 예, 예.

#1 어, 가지는 막 벌겨지난 이녁 가지만씩 또 ᄒᆞ는 거주기게.

팔월 멩질

@1 그렇게 헤서 이제 시제도 허고예. 그다음에 팔월 멩질. 팔월 멩질은 준비허젠 허민 또 헐 일이 하예?

#1 어.

멩질떡

@1 젤 큰 멩질이니까.

#1 팔월 멩질도 뭐 허주. 이레 할망 이레 와근에 팔월 멩질에 멩질날 ᄒᆞ젱 ᄒᆞ민 떡도 ᄒᆞ곡. 떡ᄒᆞ젱 ᄒᆞ민 어떡 ᄒᆞ는 거 왕 ᄀᆞᆯ아봅서. 이 벙어리ᄀᆞ치덜 앚앙 이서근에.

#8 아까 훼장님 말허듯이 ᄀᆞ레 ᄀᆞᆯ앙 상웨떡.

@1 예, 상웨떡.

#8 어, 메 갈앙, 상웨떡, 침떡, 송편, 송편에.

@1 예.

#8 팟 담아 송편. 기름떡 옛날은.

@1 예.

#8 기름떡도 이서야곡 거 고명.

@1 예.

#8 쪼꼬만허게 만드는 떡이 또 이서.

@1 게난 그 고명을 무신 떡이렌 헤수과? 여기서는.

#8 고명.

@1 고명이렌 ᄀᆞᆯ아예?

#8 어, 어, 어. 요만씩 만들앙 쪼꼬만허게 만들곡, 세미떡 만들곡 또 똥그랑허게 젠젠허게 만들앙 부찌곡. 옛날에는 그걸 ᄀᆞᆺ촤야 멩질제가 뒀어. 송편, 침떡, 기름떡, 고명, 세미, 세미떡. 세미는 영 납작허게 ᄒᆞᆫ 거.

@1 예, 게난 다섯 개를 헌 거라예, 삼춘예?

#8 어, 어.

@1 게믄 다시 한 번 들어보커라예?

#8 어.
@1 그 멩질 떡헐 때 맨 아래는 뭐 놔?
#8 침떡.
@1 침떡 놓고.
#8 어.
@1 침떡 멧 빗 놉디가?
#8 ᄒᆞ나믄 뒈여.
@1 아.
#8 어.
@1 ᄒᆞ나.
#8 크게.
@1 크게 놓는구나예?
#8 어. 요정도 크게.
@1 예, 정사각형으로 크게.
#8 어. 정반에다 놓고.
@1 그 우에는?
#8 그다음에 침떡 우에 송편.
@1 예.
#8 송편 요레 ᄎᆞ레ᄎᆞ레 놓고.
@1 게민 멧 개쯤 들어가마씸?
#8 송편이? 많이 들어가.
@1 아.
#8 ᄒᆞᆫ 열대ᄋᆞ섯 개 들어가. 송편이. 침떡 우이 놓젠 허민.
@1 예, 겡은에 송편 올리고.
#8 어.
@1 그다음은?
#8 그다음은 그 저 뭐 아까 굴은 거.
@1 세미떡?
#8 고명.
@1 고명?
#8 어. 세미떡 그다음 올려놓곡, 그다음 고명 놓곡, 그다음 지름떡 더프곡.
@1 지름떡이 젤 우에 더프는 거라예?
#8 응.
@1 게믄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보쿠다예?
#8 응.
@1 침떡 놓곡.
#8 송편 놓곡.
@1 예.
#8 세미떡 놓곡. 고명 놓곡. 그다음 지름떡.
@1 다섯 가지를 놧어예?
#8 어.

@1 게난 그게 옛날 이 회천에서 이제 헷던 방식이구나?
#8 어. 옛날에.
@1 옛날.
#8 어.
@1 게난 삼춘, 원래부터 회천?
#8 어. 원래 우리 헐 적에도 그렇게 헷어.
@1 아. 게믄 옛날에는 그렇게 헷는데 요즘은 어떤 식으로 헴수과?
#8 아, 요즘은 간단허게 허지.
@1 어떻게?
#8 어. 아, 간단허게. 난 떡도 아녀.
@1 음.
#8 어, 먹지 안허난 떡도 아녀고.
@1 떡도 잘 안 허고예?
#8 어.
@1 그 게믄 그거 제숙은 어떤 걸로 헤?
#8 어?
@1 지물, 제숙, 제숙.
#8 제숙?
@1 예.
#8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 뒈지고기.
@1 예.
#8 소고기, 바닷고기, ᄒᆞ꼼 ᄒᆞ젠 허민 상어적ᄒᆞ여.
@1 상어적허여근에 올리고.
#4 어, 거.
@1 적갈도 ᄋᆞ라 개 놈수다예?
#8 적갈?
@1 응.
#8 어.
@1 음, 그다음에 채소 같은 거는?
#8 채소 가뜬 거는 미나리, 고사리, 콩나물. 거 세 가지만 난 헤여.
@1 아. 삼춘은 어느 칩이?
#8 어? 집이 어디냐고?
@1 으.
#1 여기 대흘이고. 본적도 대흘이고, 시집도 대흘이고 친정도 대흘이고.
@1 으. 대흘예?
#8 어, 나 허는 방식은 그렇게.
@1 그다음에 뭐 그 팔월 멩질 때.
#8 어.
@1 제 지내제 허면.
#8 어.
@1 우리 그 본상이 이실 거고예? 몸제렌 헤신가, 그때 상을 멧 개 출립니까?

#8 상?
@1 예. 멩질허젠 허믄.
#4 아, 상이 하나 두 개가 아니고.
@1 응.
#8 제 벌이는 상이 잇어.
@1 예.
#8 크게. 상 이시믄 할머니, 하르버지.
@1 응.
#8 할머니, 하르버지. 큰할머니, 큰하르버지 허믄 두 분 네 분이 뒈는 거 아니?
@1 예.
#8 게믄 그 큰 상에 네 분. 멩질 때는 그렇게 찰려 놓곡.
@1 응.
#8 또 밑으로 또 돌아가신 분이 잇으면은 그 분 ᄎᆞ레 상을 또 놓곡.
@1 응.
#8 그렇게 헤여, 우리는.
@1 그믄 삼춘네는 멧 개, 상을 멧 개를 출려?
#8 우리 두 개로.
@1 두 개로.
#4 어.
@1 음, 두 개로 헹은에 조상들 출리고.
#8 어.
@1 그다음에 문전상도 헤야 뒐 거고.
#8 그렇지, 문전상.
@1 또.
#8 문전상 우선 출려 놔.
@1 음.
#8 어.
@1 그다음에 또 안네도 헙니까? 고팡에.
#8 안네는, 옛날에는.
@1 응.
#8 우리도 안네옌 헹 옆에 적도 꼭가찌, 떡도 꼭가찌 메, 밥 국, 밥, 채소도 꼭가찌 헹 옆으로 놔놧는디.
@1 응.
#8 이제는 안 헤여. 거 ᄒᆞ는 사름 없어.
@1 아, 밖에 칠성에도 헤낫수과?
#8 안 헤. 옛날, 옛날 ᄒᆞ는 딘 봐낫어. 칠성도 ᄒᆞ면은 그 두에.
@1 예.
#8 저, 저, 저 항아리 그 장 담는 항아리가 잇어. 거기 보면 주젱이 요렇게 더퍼.
@1 예.
#8 그게 칠성이렌 헤영 글로 강, 장독 두에 강, 올리는 사람도 봐나고. 집에서 옆으로 올리는 사람도 봐나고 헌디 우린 그거 그런 거 안 헤난. 아예 아년.

@1 어, 아예 안 허고예.
#8 어.
@1 안네는 고팡에는 허고.
#8 어. 안네는 그거 농사짓는 구신 나시옌 헹 그것도 ᄒᆞ다가 안 ᄒᆞ고. ᄒᆞ는 사람 없어.
@1 이제는 안 허고예?
#8 어.
@1 조왕에도 헤수과?
#8 아, 조왕에는 문전상에서 문전제 보아나면은 상 옆으로 돌라 놩 그건 제반 걷엉 조왕에게 ᄒᆞ곡. 문전상에 걸 나가. 저 조왕은 ᄯᅳ로 올리질 안 ᄒᆞ고.
@1 예.
#8 문전상에 거를 글로 나가.
@1 예. 게믄 팔월 멩질 헐 때 추석 헐 때예?
#8 어.
@1 옛날에 준비허는 것들, 이런 제 벌이는 거 말고.
#8 어.

옷 준비

@1 옷 허거난 이런 것들도 헤신가마씨? 옷 준비허거나.
#8 옷?
@1 예. 어떤 것들 헤수과?
#8 그 제복이라고.
@1 음.
#8 제복이라고 제 보는 옷을 출리지.
@1 예. 제복은 어떤 걸로 입언마씨?
#8 우리 홀 때는 사삼ᄉᆞ건이 지나부니까 결혼ᄒᆞᆫ 후제는 그런 거 ᄒᆞ는 집 별로 엇어낫어. 사삼사건 끗나난 삶이 하도 어려와 부난.
@1 음.
#8 옷, 먹고 살기도 힘들어 불언. 그런 제복 뭐 출릴 여유가 없어.
@1 게난 사삼 전에는 다들 제복들 입엉은에 헌 거라예?
#8 겅 헤실 테주. 우리는 어려 불언. 나 일곱 설 때 사삼사건을 만나 불언.
@1 예.
#8 그전에는 모르는디. 그 후예는 경이 초원에는 먹고 살기도 힘드난, 제복이여 뭐여 아년디 요즘 시제 출리는 거 제복들 ᄒᆞ여.
@1 에.
#8 어, 이 제주에도.
@1 삼춘네도 시제를 헤봔마씨?
#8 시제? 어, 시제. 이제 ᄒᆞ는데.
@1 으.
#8 제복 출려.
@1 아.
#8 그 옛날 영 쓰는 거. 뭐옌.

@1 유건.
#8 뭐옌 ᄒᆞ느니? 관.
@1 유건.
#8 관, 제관 ᄒᆞ민 관 쓰고.
@1 음.
#8 요즘 ᄒᆞ여.
@1 삼춘네는 시제는 언제 헴수과?
#8 어, 삼월. 음력 삼월 들엉 첫 번 일요일.
@1 아, 게난 집안마다 ᄒᆞ꼼씩 ᄐᆞ난 모양이다예?
#8 어, 어.
@1 집안마다예?

금기

@1 사이, 예. 혹시 멩질 떡허거나 영 헐 때.
#8 어.
@1 뭐 허지 말라, 허는 건 엇입니까? 어디 떡 치는데 오지 말라라든가, 뭐 몸 비리면 떡허는 디 오지 말라라든가.
#8 오, 옛날은 그래낫지.
@1 예, 뭐렌 ᄀᆞᆯ아낫수과?
#8 오지 말렌.
@1 응.
#8 어, 몸 비리면 오지말렌 ᄒᆞ곡, 자기 자신이 헤 먹을 때가 돌아오면은 밖에 안 나오고.
@1 응.
#8 일주인 전에는. 어, 일주일ᄁᆞ지는 밖에 안 나가. 영장 보아도 거 찰리믄 조상 비린덴 못 오게 ᄒᆞ곡.
@1 응.
#8 어, 그런 거 잇어.
@1 옛날엔 조심들 헤연예?
#8 어, 어.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1 음, 알앗수다. 삼춘은 거기까지.
#8 어.

꼴 장만

@1 자, 게믄 팔월 나믄 촐 허는 게 큰일이라예?
#1 큰일이주기게.
@1 예, 그 촐헤난 얘기 좀 ᄀᆞᆯ아줍서.
#1 촐.
@1 언제 비고 헙니까?
#1 촐ᄒᆞ젠 ᄒᆞ민이.
@1 음.
#1 저 팔월달에 저 그 무신 하늬ᄇᆞ름 올라와사, 하늬ᄇᆞ름 올라와사 그 촐이 포실포실 잘

ᄆᆞ르주기게이.

@1 예.

#1 경ᄒᆞ난 저 이 샛ᄇᆞ름이나 불곡 ᄒᆞ민은 출 ᄆᆞ르지 아녕 또 샛ᄇᆞ름 불어가민 비가 오라게이. 게민 출도 썩어불곡 ᄒᆞ난 꼭 하늬ᄇᆞ름주제 올라사, 하니ᄇᆞ름주제 올라사 출을 시작헤여. 게민 팔월 ᄒᆞᆫ 그자 저 이 멩질허여 먹어난 다음은 이젠 그때부턴 출덜 거의덜 허주.

@1 음.

#1 그때부터 허민 출비레 가젠 ᄒᆞ민덜 아침 새벽이덜 일어낭덜이. 난 줌꾸레기란 인칙 일어나도 못ᄒᆞ더라고.

@1 웃음.

#1 그냥 새벽이 일찍 ᄒᆞ는 사람들은 ᄒᆞᆫ 다섯 시만 뒈민 강 밧디 강 붉아.

@1 음.

#1 밧디 강 붉아근에 저 출들 비는디 우린 여기 완 보난 그 낫, 낫꾼이엔 ᄒᆞ영 저 정의 강, 정의 강 낫꾼 저 빌엉. 어느 날 오렌 ᄒᆞ민 그 정의 낫꾼이엔 허여근에 큰 낫덜 ᄀᆞ졍 왕 비어 주드라고 엿날엔.

@1 음.

#1 엿날이멍 말멍 이거 ᄒᆞᆫ, ᄒᆞᆫ 칠십 년 정도 뒛구만.

@1 음.

#1 ᄒᆞᆫ 육십 년은 넘엇어. 그때만 헤도 낫꾼들로 ᄒᆞ연 비엇주. 출 비엉 겐 게영 날짜 어느 날 오렌 ᄒᆞ민 정의서들 오라.

@1 음.

#1 경 영 남자들도 오곡 여자도 오고. 게민 남자 출 비민.

@1 음.

#1 하늬ᄇᆞ름 씩씩ᄒᆞ게 올라오민 여자들은 뒷날부터 무꾸주기게이.

@1 아.

#1 ᄒᆞ민 출을 무꺼근에 게영 출 눌젱 ᄒᆞ민 출 누는 것도이 거 아무나 못 눌어.

@1 음.

#1 건 첨 저 눌당 보민이 욮으로 베식ᄒᆞ게 그냥 자빠져 불곡이. 겨난 잘 솜씨 좋앙 ᄒᆞᆫ 사람은 곧작ᄒᆞ게 ᄒᆞ영 잘 ᄒᆞ는디, 우린 솜씨가 엇언산디 허당 보민 베식ᄒᆞ게 누워 불엉이.

@1 음.

#1 경 허당 보민 그냥 오래 뒈가민 넘어져 불곡 ᄒᆞ더라고. 경 헤영 출 ᄒᆞ영 눌엉 놔뒀다근에 거 이젠 겨울에 들민 그걸로 저 쉐 출 줘주기게.

@1 음.

#1 경헨 살아시난 그게. 사는 게 그 출 ᄒᆞ는 것이 가을 뒈민 그냥 집집마다 엿날은 ᄆᆞᆫ 저 쉐덜 물덜 게연 질롸시난. ᄆᆞᆫ 저 밧갈아사 살아가는 거난게. 겐 집집마다 ᄆᆞᆫ 출덜 헷주. 출덜 아녀는 집안이 거의 없어. 경 아녀민 쉐 하영 ᄒᆞ는 사름은 하영 ᄒᆞ곡. 우린 이 놈이 쉐라도 벵작쉐.

@1 음.

#1 벵작쉐들 헤낫주. 옛날은.

@1 예.

#1 벵작쉐들 메난에 여러 개, 여러 ᄆᆞ리 ᄒᆞ영 ᄒᆞ난 출도 하영 헤낫어. ᄒᆞᆫ 삼백 바리.

@1 삼백 바리.

#1 어. 삼백 바리씩 헤서. 삼백 바리 ᄒᆞ민 촐이, 촐 눌믄이 오십 바리 더 못 눌어.

@1 음.

#1 오십 바리 눌어도 막 높아. 게믄 삼백 바리 ᄒᆞ젠 ᄒᆞ믄 대여섯 눌은 눌 거 아니.

@1 음.

#1 경 헨 ᄒᆞ여낫주.

@1 게믄 여기에서는 ᄒᆞᆫ 바리에 촐 멧 뭇이우꽈?

#1 ᄒᆞᆫ 바리 ᄒᆞ믄 낫촐은, 낫촐은 서른 뭇. 좀호미로 빈 건 저 마흔 뭇.

@1 음.

#1 경 ᄒᆞ여.

@1 게난 여기도 좀호미도 비고 낫으로도 비고예?

#1 어. 여자들은 낫, 낫 ᄒᆞᆯ 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저 좀호미주게.

@1 예.

#1 견디 우리는 난 베움을 낫으로 베워 헤부난 좀호미론 못 비어. 기냥.

@1 음.

#1 원, 조침 앚아근에, 조침 앚앙 그거 ᄒᆞ젠 ᄒᆞ민이 허리도 데와지곡, 다리도 ᄆᆞᆫ 그냥 저 데와지곡 못 헤여. 게난 낫이, 낫으로 헤나민 그냥 막 저 하영 비어지곡게. 좀호미론 ᄒᆞ루 저 거 멧 바리 못 비어.

@1 음.

#1 그냥 서너 바리벳긔 못 비는디 낫으론 비민 ᄒᆞᆫ 잘 비는 사름은 ᄋᆞ남은 바리. 경 아녀믄 일고ᄋᆞ돕 바린 비주기게.

@1 예. 혹시 게믄 낫질허멍 노래 ᄀᆞ튼 것도 부르멍덜 헤낫수과? 옛날에?

#1 아이고, 노랜 우리 아시가 잘 헤나신디.

@1 응.

#1 저 낫도 잘 든다. 이 낫 ᄀᆞ졍 저 삼팔선 넘어 강 저 정일이 오렌 헤근에 그땐 정일이가 아니라 저 일성이 오렌 헤영 그냥 준둥이 훽 후려시민 좋키어 ᄒᆞ멍 우리 아시가 노래 잘 불러 나신디. 나 노래 불룰 충 몰르난 경은 못ᄒᆞ고.

@1 그 아시는.

#1 막 노래들 부르멍 헷어. 낫 훈둘멍. 낫 첨 그 뭐 노래엔 ᄒᆞᆫ 게 무신 가사도 엇고 곡도 엇인 거난. 그 그냥 자기 그저 생각나는 냥 불르, 불르멍 그냥 흥을 트는 소리들이주게.

@1 예.

#1 흥을 트는 소리 ᄒᆞ멍 비엇주. 저 좀호미꾼도 경 게영 뭐 앞 저 앞멍에랑 들어오라 뒷멍에랑 나가라, 허멍 막 불르멍 ᄒᆞ엿주.

@1 예.

#1 이 한탄ᄒᆞ는 시상 한탄ᄒᆞ는 소리들 ᄒᆞ멍 비엿주게. 그때는 첨.

@1 아까 이제 샛ᄇᆞ름 허면 비 오고 영 헌덴 헷잖아예?

#1 으.

바람 이름

@1 이 대흘에서 동쪽에서 오는 ᄇᆞ름, 서쪽에서 오는 ᄇᆞ름허고 다르잖아예?

#1 으.

@1 동풍은 무시거렌 헙니까? 여기서 바람.

#1 샛ᄇᆞ름.
@1 샛ᄇᆞ름.
#1 으. 서쪽은 섯갈ᄇᆞ름.
@1 예.
#1 하늬ᄇᆞ름. 북쪽에서 부는 거.
@1 북쪽은 하늬.
#1 어.
@1 남쪽은?
#1 서쪽은 놉샛, 아, 동쪽으로 부는 것도 놉샛ᄇᆞ름도 여기서 허여 놉샛ᄇᆞ름.
@1 놉샛ᄇᆞ름도 잇고.
#1 동북쪽으로 부는 게 놉샛ᄇᆞ름.
@1 예.
#1 놉샛ᄇᆞ름.
@1 그다음에 남쪽은.
#1 남쪽은 마ᄇᆞ름.
@1 마ᄇᆞ름예?
#1 어, 마ᄇᆞ름.
@1 이것 말고 바람도 더 이수과? ᄇᆞ름 이름들.
#1 그거벳긘 생각 아이 남신게. 또 거 무시거 셍각나민 ᄀᆞᆯ아봐.
#5 마ᄑᆞ름이엔 허잖여, 남쪽으로 오는 마ᄑᆞ름.
#1 건 마ᄇᆞ름이주게.
@1 마ᄇᆞ름이든 마ᄑᆞ름.
#1 남쪽으로 오는 건 마ᄇᆞ름이고.
@1 예.
#1 또 섯갈, 섯갈ᄇᆞ름이엔도 ᄒᆞ주. 섯갈ᄇᆞ름.
@1 섯갈ᄇᆞ름도 잇고예?
#1 어.
@1 예, 알앗수다.

촐 운반

@1 이렇게 이제 헤고. 그 촐 다 비어나면 그다음엔 무시거 헙니까?
#1 촐 다 비어나민.
#5 집이 실러 와야주.
@1 응.
#5 구루마에.
#1 집이 구루마 이신 사름덜은 우린 이 구루마 허연에 저 구루마로 허영덜 시꺼 왓주만은 촐 하영 아년 사람은 엿날은 등짐으로들 지어 왓어.
@1 음.
#1 쉐 ᄒᆞᆫ ᄆᆞ리 두 ᄆᆞ리 영 키우는 사름은 등짐으로들 지엇주.
@1 응.
#1 그 뭐 집집마다 ᄆᆞᆯ구루마 이신 딘 부젯집이라 옛날도.

@1 예.

#1 이제, 요즘 시상 ᄀᆞ트민 차 ᄀᆞ졍 뎅기듯이 물구루마 이신 딘 부제라. 또 여자 ᄒᆞᆫ자 사는 집덜도 쉐 ᄒᆞᆫ ᄆᆞ리씩은 질루난게. 거 어떵 ᄒᆞ여? 그 쉐막ᄁᆞ진 가져 오라사 쉘 멕일 거난게. 지, 지언 왓주게, 지언. 지엉 오젠 ᄒᆞ민 엿날은 베가 무신 경 질긴질긴ᄒᆞᆫ 베가 이서시카. 엿날 베 ᄒᆞ젠 ᄒᆞ민이 저 무시것고 저.

#5 쉐앗베.

#1 신사라.

@1 예.

#1 신사란이, 신사란이엔 헤근에 저 막 이서. 그거 물류왓당 그걸로 헤영 배 꼬앗어. 거 막 질긴질긴ᄒᆞ여. 그거 ᄒᆞ민.

@1 음. 신사로예.

#1 그거 ᄒᆞ영 베 꼬아근에 ᄒᆞ곡. 저 나룩찝 ᄒᆞ여근에 산디찝 ᄒᆞ여근에 걸로 헤여근에 헤영 오다근에이 지엉 오다근에 베 경 매날 매헤 경 베도 꼬아져게. 경 헹 오당 베도 끈어져근에 그냥 촐 ᄆᆞᆫ 헉데겨놩 그 이제 베 잇어근에 그거 또 그거 헤영 지영 오곡 ᄒᆞ여낫주기.

@1 음, 아이고.

#1 견디 신사라벤 첨 질겨, 그건. 겡 멩심헤영 ᄒᆞᆫ 사람은 신사라베 ᄒᆞ영 ᄒᆞᆫ디 신사라도이, 집집마다 이신 거 아니라. 이신 사람만 그거 멩심헤영 이신 사람만 그거 ᄒᆞ주, 집집마다 신사라 엇어. 거 그냥 우리 집도 엿날 신사라 헤여근에 그걸로 헤연 허여낫주.

@1 예.

#1 견디 신사라가 요즘은 어 읏어 그거.

@1 잘 엇어예?

#1 원 다 없애불언. 이젠 어, 생활이 좋아가난산디 베도 필요 읏고 ᄒᆞ난산디 집집마다 이젠 이제 그런 거 구경 못ᄒᆞ영 엇어.

@1 예.

#1 정원, 정원 ᄒᆞ는 디라도 ᄒᆞ나씩 이실 건가 허는디 정원에도 엇고.

@1 가끔은 보이긴 헙디다만은예?

#1 음.

@1 자, 삼춘, 팔월백중?

#5 팔월 백중에는.

@1 으.

#5 우리 그 고향에서는 저 물로.

@1 예.

#5 백 번을 치대기면은 그 감기도 안 걸리곡 잔병이 엇어진덴 허영 그 갯물에 가근엥에, 나는 물에. 그 바가지로 물을 ᄒᆞᆫ 백 번을 치데기곡 밤 뒈면은 이제는 저 남의 집이 가근엥에 그 저 정젯문.

@1 예.

#5 옛날에는 그 낭문 영 헌 거, 그거 튿어당 또 놈의 밧디 강은에 대축, 사당대축. 그거 비어당은엥에. (전화 소리) 그 **만씩 ᄆᆞ디ᄆᆞ디마다 다 쫄랑.

@1 으.

#5 경헹 그 대문, 밤에는 그 바당에 가근엥에 띄왕 그 우이 사름 ᄒᆞᆫ 서이 너이 올라탕 바당에 막 히어 뎅이멍 그걸 먹어.

@1 으.

#5 먹어근엥에 집이 와근에 또 몰르게시리 술허게시리 가져당 문도 둘앙 내불곡 그추룩허멍 헨 우리는, 우리 그 동네선 그추룩 헹.

@1 게난 삼춘네 동네가 어디엿지. 그때 평대?

#5 평대.

@1 으, 평대렌 헷잖아예? 게난. 다시 한 번만 그 얘기를, 그 얘기를 다시 한 번만 허게. 게믄 아까 그 문을 탕은에 바당에 강 히멍 논 거라예?

#5 바당에 강 히멍.

@1 으.

#5 그 사당대축을, 그거 다 먹곡 바당에 가근엥에 막 그냥 새가망케시리, 아니면은 감기나 무슨 잔병치레 헌덴 허영 바당에 히어 뎅기면서도 그냥 막 완전 씽기게, 옛날말로 씽기게시리 그 목욕을 허영 경허여근엥에 와근엥에 놀당 집이 가낫주.

@1 으. 경허난 감기 안 걸련예?

#5 걸려신디 안 걸려신디는 그거는 몰라.

@1, #5 (웃음)

@1 아, 그런 식으로?

#5 그추룩 헌덴 헤근에 우리는, 우리 세계에서는 그추룩헤근엥에 허곡 그추룩헹 왕 집에 갈게 아니고 놈의 눌에 둘아졍 저 뭐 헤신가, 작살로 감저, 감자 고구마 쏘아당은엥에 찌언 먹어져신가.

@1 으.

#5 그건, 그추룩은 헤나신디 그거는 어떵 헤나신디 오래부난 잊어불언.

@1 으.

#5 허지 못허쿠다.

구월

@1 예, 알앗수다. 자, 구월에, 음력 구월엔 뭐헤난마씨?

#1 뻬, 뻬, 뻿데기덜 헤난 말덜 골아봅서. 뻿데기덜 안 헤납데가?

#3 안 헤실 거라, 우리만 헷주.

#2 대흘은 안 헷수다.

#3 우린 헷수다.

#5 나는 서귀포서 살앗거든.

#1 뻿데기덜 허젠 허민.

@1 잠깐 삼춘이예.

#1 그 저 그.

#5 구시월 나믄 바쁘지. 소 키는 사름은 겨울에 멕일 소풀도 비어당 쟁여 놔야허곡 고구마도 캐야 허곡 헐 일이 꽉 차지.

@1 예, 알안예. 예, 그 감저 파는 얘기. 삼춘.

#3 감저 파젠 허민. 줄부터 걷어야 뒈어.

#5 파민게.

#3 감자줄.

@1 자, 스톱.
#1 감저 파, 팡.
@1 저, 훼장님. 동생안테 얘기허렌 허게.
#1 어, 어.

고구마 농사

@1 삼춘, 삼춘이 저 감저 파던 얘기 골아줍서. 마스크, 마스크 벗엉예.
#3 으. 건 고구마옌 허주만은 옛날에는 감저옌 헷주. 감저 파젠 허면 그 고랑에 그 줄을 다 일단 걷어야 뒈. 줄 걷, 다 걷는 것도 힘들어. 서로가 엉켜 잇기 땜에. 게민 호미로 거 짤르면서 그 줄을 다 걷어.
@1 예.
#3 걷엉은에 판, 파근에 쭉 그저 자기가 파난 디, 그저 쫌 보기 좋주. 벌겅헌 게. 옛날은 하얀 백감저도 잇엇고 붉은감저도 잇엇고 두 가지를 헷는디. 그거를 파근에 소구루마나 물구르마 잇인 사름은 그걸 실러아졍 강 촐밧디 강은엥에 썰어.
@1 예.
#3 촐밧디 강 널어놓민 이게 상품 가치가 잇어. 헤영허게 마르면.
@1 으.
#3 겐디 파난 자리에 썰엉 그 흑밧디 널면 흑이 묻어.
@1 으.
#3 게믄 그 흑을 손으로 털멍 그걸 마다리에 담아근에 팔아낫주.
@1 예.
#3 촐밧디 강 넌 거는 첨, 깨끗허게 보기가 좋곡. 겡 감자덜 허곡. 그다음엔 뭐 지금은 미깡이 이시난 허주만은 그때는 콩.
@1 예.
#3 콩 꺼꺼근에 무껑 실러당 집에 와근에 도리깨로, 도리깨엔 헌 거 표준이주만은이 이젠 그때는 도께.
@1 도께.
#3 도께로 두드렷주게. 멍석 페와낭은에.
@1 으.
#3 아이고, 그거 태작허젠 허믄 사람 손 다 북물곡. 눌어 논 거, 콩 눌어 논 거 빠젠 헤도 일이곡. 우이로부떠 헤싸근에 덕, 내리우멍 요것도 생곡이여 허멍 두드렷주.
@1 으, 것도 노래 부르멍예?
#3 노래 부르멍.
@1 으.
#3 지치, 지치난게.
@1 으. 요것도 생곡이여.
#3 으. 저것도 생곡이여.
@1 노래도 한번 불러봅서.
#3 에구, 이제는 다 잊어불언 뭐. 그땐 장난 삼아도 경 두드리멍 헷주만은 이제 그추룩헹 살렌 허민 살 사람 엇어.
@1 게난 그거 콩 꺼끄곡 허는 것도 음력 구월.

#3 어.
@1 상강 전에.
#3 아니, 콩이 그 시월달이지. 콩 꺼꺼당은에 콩이나.
#5 음력 구월에는 콩 꺼꺼.
@1 예, 예.
#3 음력 구월에 콩 꺼꺼?
#5 어.
#3 콩이나 감저나 ᄀᆞ찌ᄀᆞ찌허주.
#5 어.
@1 ᄀᆞ치ᄀᆞ치예? 게난 상강 전에 모든 걸 다 헤드리는 거 아니라예? 예. 그렇게 이제 하고. 시월 들면 뭐 헙니까?
#1 게난이 저 감저뻿데기 ᄒᆞ민.
@1 으.
#1 감저떡덜 먹어봔, 감저떡 감저.
#3 거 감저 **주 그게, 치엉근에.
#1 엿날은 먹엉, 먹을 거 엇이난. 저 감저뻿데기 ᄆᆞᆯ리왕은에 그걸로 그거 치민이 시커멍헤 낫어게.
@1 으.
#1 경 안허민 또 그걸로 저 ᄀᆞᆯ아근에 감저떡덜도 헹 먹곡. 경덜 헷주. 그 그거 감저뻿데기, 뻿데기 ᄆᆞᆯ리왕 ᄂᆞ 저, 떡헤영 저 치엉도 먹엇주만은 또 이젠 그거 어멍아방 모르게 ᄉᆞᆯ째기 그냥 보금지에 저 곱정 뎅기멍 ᄒᆞᆨ교 뎅길 때도 그거 먹곡. 또 벗덜 ᄃᆞᆯ아당은에 그것덜 그냥 ᄀᆞ찌덜 헤영 저 ᄒᆞ나씩덜 주멍 그것도 그 큰 과자옌.
@1 예.
#1 엿날사 과자 잇어게? 그거 먹을 거엔 벗들 앞이 또 큰소리허멍 그것도 줘주, 아무나 아니 줭.
@1 감저뻿데기 친 거?
#1 으. ᄆᆞ음에 아니 든 놈은 아니 주곡. 것도, 그거 감, 감저뻿데기 가진 사름은 왕이라게.
#5 감저가 아니라 고구마지게.
#1 으. 경덜헷주, 옛날은 첨.
@1 으.
#1 거, 겨고 감저, 감저떡도 허민이 첨 맛 좋아. 거 ᄒᆞ꼼 거무룽허긴 허여도 그거ᄀᆞ치 좋은 게 엇어. 감저떡도 헹 먹엇주게.
@1 간식처럼예?
#1 으.
@1 보통 감저떡은 어느 계절에 먹엇어마씨?
#1 그때게, 뻿데기허는 계절이주게.
@1 뻿데기허는 계절.
#1 뻿데기허는 계절. 거, 거 그냥 그것이 저 요 요즘은 저 저 어 냉장고도 엇곡 허난 그걸로 ᄆᆞᆯ리왕 놔둿당 그걸도 저 양식, 양식도 그걸로 헹 살앗주기게.
@1 예.
#1 경 아니허민 그냥 감저 파멍 저 주정공장더레, 저 풀기도 허곡.

@1 으.

#1 주정공장이 엿날은 이제는 저 술공장덜 뭐 무신 것사 놘 헴신지 몰라도 감저로 허연 술을 멘들앗주기게. 거 게난 감젓주시 헤나민 그것도 이제 저 주시 헤놩. 건 주정공장이 시에도 잇엇주만은 멧 군데 읏언. 저 모실포도 근간에ᄁᆞ진 모실포도 헤낫주, 모실포서 허민 감젓주시ᄀᆞ튼 걸 헤당 밧디덜토 저 버리곡, 저 거름으로 씨곡덜 헷주.

@1 으. 거름으로도 쓰곡.

#1 으, 으. 시, 거 금방 나온 것덜 먹을 거 엇인 때난게 그거 빤, 그거 주시덜 헤당 사람덜 먹곡. 사람덜 하영 먹엇어, 그거.

#3 주시덜 도세기도 멕여낫주.

@1 도세기도 멕이곡.

#1 도세기도 그거 멕영은에 첨 ᄒᆞᆫ 칭짜리 멘들앙 저 키와근에 아기덜 저 풀 땐 그걸로 허영 우침도세기엔 헤여근에 저 저 잡앙덜 잔치도 허곡.

@1 무신, 무시 도세기마씨?

#1 우침도세기엔 허주.

@1 우침도세기예? 으.

#1 우침도세기엔 헤근에 저 아이덜 결혼 시키젠 허민 역불로 저 위허영 키운덴 말이주. 우침이엔 헌 게.

#3 막 술지왕, 막.

@1 으.

#1 요즘말로 허민 우 앚져근에.

@1 으.

#1 첨 상전ᄀᆞ치 모션 키왓젠 말이주게. 경허민 잘 키왕 ᄒᆞᆫ 백 근, 경 아니허민 ᄒᆞᆫ 백, 백열 근 정도ᄁᆞ진 허여.

@1 으.

#1 경허민 그냥 저 그 비게덜이, 막 지름덩어리, 게도 지름덩어리 오죽 맛 좋앗어. 요즘은 그냥 그런 것덜 데껴 불곡 허주만은. 경허당은에 도새길 잡앙 멩심허영 키우당 보민이 그냥 보리쏠 궤영은에 그냥 허영 경헤도 그, 그걸 먹엇어. 엿날 하르방덜은 그걸 보리쏠 궨 걸 탁탁 털어둬 그것덜토 먹곡 헷주기.

@1 으.

#1 으, 경헨 살아신걸. 요즘은 보앙, 그런 거 보민 겁낭 그냥 천리만리 도망가주만은. 엿날사, 엿날사 그거, 그거 오죽 맛 좋앙 헤서. 그것도 그냥 쌩체로 먹는 사름도 하나서. 생채로.

@1 으. 생채로.

#1 그걸 보리쏠 궨 걸. 보리쏠이 무시건지 알암서.

@1 게난 거기 촌충 같은 거 든 거. 쏠 인 거.

#1 촌충이 아니주기. 그게.

@1 뭐우꽈?

#1 낭충이라. 낭충.

@1 낭충이우꽈?

#1 으.

@1 아.

#1 촌충은, 촌충은.

@1 영 짤라지는 거.
#1 그, 저 기어뎅기는 거주만은. 이건 똥글락헤근에 완전 낭충이라, 그게.
@1 으.
#3 보리쏠ᄀᆞ치록 쏠랑쏠랑헤근에.
#1 게난.
#3 살 소곱에 박아져.

시월

입동

@1 예, 예. 그, 그다음에 삼춘, 입동하면은 입동과 관련뒌 이야기도 이시카마씨?
#1 입동은게, 입동은 겨울 저실이주게.
@1 저실 드는 거예?
#1 으. 저실 드난 입동이주. 겨울 동 제 씨난.
@1 으.
#1 저실, 저실 들젠 허민 저 ᄀᆞ실커 문 허여들여 뒁은엥에 엿날은 저 이저 저실엔이 헐 일이 엇어. ᄉᆞ나이덜은, ᄉᆞ나이덜은 이제 저 집, 집 일주게이.
@1 예.
#1 집 일곡 여자들은 짐치 문 저 담으민 그걸로 끗이라.
@1 으.
#1 아, 겨울엔 경허민게, 겨울 들민 앚앙 뭐 엿날은 오죽 저 노름덜 헷어? 화투덜 침으로 덜. 애씨게 벌어 놩.
#3 무사게.
#1 놩.
#3 쉐촐 주곡 쉐걸름 내근엥에 데며낫수게게.
@1 으.
#1 겨난 앚앙 놀멍게 그, 그 그건 소, 소일이주게, 쉐촐 주곡.
@1 으.
#1 허는 건. 견 그것보다도 이제 돗부리허느라고 화투덜 치느라고 허영 저, 돈 일르민 쉐로도 이꺼가 불곡 헤낫어.
@1 게난 이 대흘에서 화투덜을 하영 쳣구나?
#1 하영 쳣주기. 옛날 하르방덜.
@1 아. (웃음) 게난 삼춘도 쉐 일러난?
#1 난, 난 그런 거 헐 줄을.
#2 몰라부난.
#1 난 노름이엔 헌 건 안 헤.
@1 예.
#1 이 거, 거 노름허영 헌 거이, 엿날 허여도 허여도 그걸 허더라고. 보니까 봄 나민이 쉐덜 문 이꺼가 불어.
@1 겨울에 저기 노름헌 것덜.
#1 노름허영은에. 아이구, 시상 사름덜. 경허영 저 쉐 이꺼가 불민 어떵헐 거라. 각시덜이

죽을 판 살 판 헐 거 아니?

@1 예.

#1 이, 이. ᄉᆞ나이덜은 저 똣똣헌 방에 가근에 손, 손뿌리 노려근에 허영 쉐 일러불민게 쉐만 일럿어? 밧도 일러 불곡 헷주게.

@1 어.

#1 밧도 저당허영. 옛날은 돈 엇이난.

@1 예.

#1 돈 엇이난. 그 미시거 노름허젠 허민 짝데기 뭐 막뎅이로 헤근에 뭐 그냥 끈엉 요건 얼마 짜리 요건 얼마 짜리 헹 경도 헷저, 허여고. 경허영 거 일러 불민 밧허영 저당허영 밧도 옷 벳겨불곡. 쉐헤영 쉐도 문 이꺼가 불곡. 아이고, 그거 시상 헐 노릇이라, 그거.

@1 게난, 그추룩헌 게 어느 철, 어느 년도까지 허연?

#1 어느 연도, 우리 어린 땐, 에, 에 육십 년대.

@1 으.

#1 칠십 년대까지도 경 허엿어.

@1 으.

#1 칠십 년대까지도.

#2 칠십 년 중반ᄁᆞ지, 중반ᄁᆞ지.

@1 칠십 대, 칠십 년대 중반까지예? 예.

#1 으.

@1 예.

#1 심허게 헷주. 뭐 요즘도 뭐 허주만은. 그땐 허여도 진짜 저실 들민 저실 들민 허여 볼게 엇이난. 요즘은 텔레비도 이시난에 텔레비 구경이라도 헌다, 엿날은 그것이 텔레비주기게.

@1 예, 맞아.

#1 마흔ᄋᆞ둡 ᄆᆞ리 ᄆᆞ는 거.

@1 (웃음)

#1 (웃음)

십일월

집 일기

@1 그다음은 삼춘, 겨울에 아까 집 인덴 헷잖아예? 집 이는 거는 어느, 몃 월에 헤?

#1 저, 저실 들민.

#3 정월.

#1 시, 저실 들민 집 일젠 허민 그 저 줄 놓아근에.

@1 예.

#1 야튼, 보리ᄀᆞ실 다 허영.

@1 으, 으.

#1 보리ᄀᆞ실, 보리ᄀᆞ실이엔 헌 건, 보리 갈아사주기게이.

@1 예, 예.

#1 보리 갈젠 허민 아메도 저 에 요즘 계절로 허민 음력으로 허면은 저 십일월 초나 영 뒈주.

@1 으.

#1 그때 뒈민.

#3 양력 십이월, 정월.

#1 갈앙 경헤영 영 들어앚이민 이제 헐 일이 없어. 겨울, 겨울에는. 겨울에 헐 일이 엇이난 그냥 이젠 그 집덜 남자덜은 집 이느라고 하고. 이제, 집 일젠 허민이 그냥 일어지는 거라게. 시월에 새들 몬 저 가불기 전이.

@1 예.

#1 흔 시월 말이나 십일월둘 초쯤에 강 새 비어 와사 허여, 새 비어 와사.

@1 그게 양력이우꽈?

#1 으, 양력으로.

@1 으.

#1 십이월 초쯤이나 뒈 가민 그때쯤에 새 비어사 허여.

@1 으.

#1 새 비엉 허영. 새도 경 엿날은 경 저 하낫주. 각단도 비어사 허곡.

@1 으.

#1 각단은 새보다 쫄른 거라게.

@1 예.

#1 각단은 비어당은에 저 집줄 놓곡.

@1 으.

#1 새는 각단보단 지난 우이, 지붕 우이 더끄곡.

@1 으.

#1 경허영 헷주게. 게난 그거 어, 새 비엉도 구루마 엇인 사람은 지엉 오곡. 각단도 지엉 오곡. 각단도 엇엉 허민 저 어욱 비어당은에 어욱으로도 집 일엇어.

@1 예.

#1 어욱으로도.

@1 으.

#1 어욱도. 어욱으로도 집 일곡. 우린 이 엇인 사름이난 그냥 저 엿날 저 수박막?치 멘들안 어욱으로 헤연 집 일언도 살아봣주.

@1 예.

#1 으.

@1 어욱으로도 이제 집 일엇고예?

#1 어욱으로도 허연 일언. 어욱 좋아. 어욱이 대가 질긴 거난. 이파리도 잇인 거난 어욱에 비 잘 발아.

@1 으.

#1 비만 비 발젠 그거.

@1 예, 맞수다.

#1 허는 거난게.

@1 예.

동지

@1 경허고 이제 겨울 뒈면 동지.

#1 으.

@1 동지에는 뭐 헙니까?

#1 동지는 동지, 저, 저 어.

#3 헐 게 엇주게.

#1 동지 뒈기민이, 동지풋죽이나 쑤어 먹곡게. 엿날, 엿날 하르방덜이 멘들아 논 것이 사계절 문딱 먹는 날이라. 사계절.

@1 (웃음).

#1 초ᄒᆞ룰날도 먹는 날, 보름날도 먹는 날, 그믐날도 먹는 날, 동지 이제 허민게, 첨 풋죽 먹는, 허영 먹는 날이주게. 동지허게 뒈민 모든 곡식 다 거둬들인 때난.

@1 으.

#1 다 거둬들인 때난 기냥 뭐 앚앙 놀멍 감저도 치어 먹곡. 뭐 동짓날 뒈민 풋죽도 쒀 먹곡 허주만은 동지날에 또 무시거 허는 것덜 잇어?

#5 풋죽.

#1 풋죽벳긔 몰라.

@1 풋죽헹 영 뿌리진 안헙니까?

#5 으, 풋죽?

#1 풋, 풋죽헹 뿌리진 안허여, 거 어디 제나 잇인 때. 거.

#5 뿌려, 뿌려.

#6 뿌려.

#5 감기 안 걸리렌 문 뿌려.

@1 삼춘. 이레 옵서. 삼춘, 동지, 동짓날. 죽 쒀 먹잖아예?

#5 예, 동지죽 쒀 먹곡.

@1 으. 동지죽은.

#5 동지죽은 쑤엉 새알도 놓곡. 동지죽 쑤면 그 장항뒤에도 강 뿌리곡 마당에서도 동지할마니, 동지죽 먹읍서 허멍 막 숟가락으로 사발에 거령 강 뿌리주게.

@1 으.

#5 영 마당에도 뿌리곡. 또 장항뒤 쪽에도 강 저 동지할머니, 동지죽 먹읍서 허멍 다 뿌리곡. 그걸 잘헹 뿌려야 그 모든 신들이영 우리 집안에 안녕뒌덴 허영. 걸 빨강헌 죽이난. 경헹 뿌리곡. 경헨.

@1 게믄.

#5 지금도 경허여.

@1 지금도 경허고예?

#5 어, 어.

@1 게믄 동지도 죽 쒀 먹는 동지도 잇고 안 쒀 먹는 동지도 잇수과?

#5 어, 어. 애기동지는 죽을 안 쑤곡, 어른동지는 죽을 쑤고.

@1 예.

#5 이제 음력으로 동짓둘 뭐 초열흘 안에 동지가 왓다 허면 건 애기동지. 올리가 애기동지.

@1 아, 올리가 애기동지. 으.

#5 으. 경허영 안 쑤곡. 이제 십오일 넘엉 영 십일 넘엉 이제 동짓날이 뒈면 음력으로 양력 이십이일이 항상.

@1 동지.

#5 동지난. 경허난 그때 음력에 날짜 맞추앙 그 애기동지는 그 저 십일 안에 들면 애기동지, 경허여근에 애기동지에는 죽 잘 안 쑨덴 허주게.

@1 예.

#5 어른동지에만 죽을 쑨덴 허여.

@1 어른 동지에만예?

#5 으.

@1 게믄 삼춘 옛날에는, 옛날부떠 동지죽들은, 풋죽들을 쑨 거잖아예?

#5 풋죽은 쒀.

@1 그, 풋죽 쑤젠 허면 미리 이렇게 풋 같은 것도 잘 준비헹 놔두고 헙니까?

#5 어. 준비헹 놔둬사 이건 동지 때 죽 쒀 먹을 거 허영 놔두곡.

@1 으.

#5 또 이젠 뭐 쌀도 경헹 시쳥 놓곡.

@1 특별하게 그 동지에 아까 케우리는 거 말고.

#5 으.

@1 제 지내거나 이러지는 않아마씨?

#5 그런 건 없고, 동.

@1 동지할망은 누게우꽈?

#5 동지할망은 뭐 뭐 말만 들엇주. 동지할망이엔. 우리 할머니네가 영 죽 쑤믄 저 마당드레 강 케우리렌 허영. 동지할머니, 동지죽 먹읍서, 허멍 영 막 저레, 멧 밧드레 막 울안드레도 케우리곡 막 눌 우트레도 케우리곡 경.

@1 으.

#5 장항뒤에도 강.

@1 장항뒤에도 하고.

#5 경허렌 허영 헤낫주게.

@1 게믄 또, 그 풋죽 먹으면, 동지죽 먹으면 감기도 안 걸린덴 헷잖아예?

#5 감기도 안 걸리곡.

@1 으.

#5 감기도 안 걸리곡 이 죽을 먹어야 이제 건강허곡.

신수 보기

#5 그 동짓날부떠 뒷날부떠는 새해가 에, 새해가 뒈는 날이엔 허영 막 무수허영 영 가운데 홈파근에 그거 영 물 놓곡 허영 둘아메영 거기 막 콩방울덜도 놓곡 헹.

@1 으.

#5 그런 것도 헤낫고.

@1 게난 그걸 것들이 동지에 허는 거잖아예?

#5 으, 동지에 허는 거.

@1 게난 무수 소곱에 콩방울 허영은엥에 키우는 거?

#5 으.

@1 게믄.

#5 경허영 물도 놓곡 경허영 영 둘아메어낫주게.

@1 예.

#5 집에. 게믄 알로는 썹파리는 영 자라.
@1 으.
#5 그것이 무수가.
@1 겡 그걸로 점도 보고 허지 안헙니까.
#5 으, 그것이 잘 크면 운이 좋덴 허곡.
@1 으.
#5 것이 잘 아니 컹 나오면 운이 나쁘덴 허멍. 그런 그추룩도 허주게.
@1 으, 게난 그거를 콩점이렌 헙니까? 무슨 점이렌 골아? 그거는.
#5 무슨 점이야, 일년 신수옌 허더라고.
@1 아.
#5 일년 신수.
@1 일년 신수예?
#5 어, 어.
@1 게믄 그걸 동짓날.
#5 으, 으.
@1 그거를 놓는 거라예?
#5 동짓날 만들어.
@1 아, 동짓날 만들어.
#5 어, 동짓날 만들엉 영 헹 놔두면.
@1 으.
#5 이제 한 달 영 커 가민 뒈어가민 것이 컹.
@1 으.
#5 무수 이파리가 영 요디 돌아메민 영 자라.
@1 게난 꺼꿀로.
#5 꺼꿀로.
@1 돌아멤구나예?
#5 어, 꺼꿀로 돌아메영.
@1 으. 꺼꿀로 돌아메영은에 하고.
#5 옛날, 막 옛날 건 모르주만은.
@1 예.
#5 그런 식으로.
@1 삼춘, 콩점도 헤난.
#6 으?
@1 그, 이런 거 헤낫수과? 삼춘도.
#6 이게 맞는 말.
@1 아, 맞는 말.
#6 어. 우리 경험한 말이 다 똑?뜬 말.
@1 예. 게믄 여긴 집집마다 다 그런 식으로 헷구나.
#5 예. 허고 싶은 사름만 허곡.
#6 다 집집마다는 안 헤.
#5 자기가 허고 싶으민 허곡. 경허는 거난.

장 담그기

@1 예. 그리고 동짓날 또 그거 말고 허는 거. 장 담그는 건 언제 헙니까?

#5 장 담그는 거는 항상 이제 동지 전이 메주를 삶아. 십일월달, 이런 때 메주를.

@1 으.

#5 삶앗당 이제 음력으로 음력 정월, 저 그 섣둘그믐날.

#6 섣둘그믐날.

#5 섣둘그믐날은 장을 무조건 장 담는 날.

@1 으.

#5 겡 이제 섣둘그믐날 담앙은에 삼 개월 잇당 이제 그 메주도 건져 내영 허영 담그곡 간장은, 간장으로 이제 또로 항아리에 놩은에 간장으로 먹곡.

@1 으.

#5 경허영 지금도 헴주게.

@1 게난 메주 솖으는 게 동지 전에 솖암구나예?

#5 어, 동지 전에 항상, 한 음력 정월 그믐에 저 담을 거난. 그 저 한 사십 일 전에 이제 콩을 삶앙은엥에 한 달은 ᄒᆞ꼼 족아.

@1 으.

#5 한 달 넘게 그걸 저 만들어근에 말려야 뭘 거난.

@1 예.

#5 틔우곡.

@1 예.

#5 곰팡이가 막 거멍헌 곰팡이 나오멍 허민 이제 잘 곰팡이 나오면 이젠 햇빛에 널엉은에 한 삼사 일 말령.

@1 으.

#5 경헹 놧당 소금물 갈앙은에 그레 드리쳥, 첨 시쳥은에.

@1 으. 정월 그믐에 이제.

#5 아니.

@1 장을 담아.

#5 십이월, 섣둘그믐.

@1 아, 섣둘그믐에 장을 담는구나예?

#5 어, 어.

@1 예.

#5 멩질, 내일은 멩지이믄 오널.

@1 게믄 잘도 바쁘쿠다예? 섣둘에는예?

#5 막 겨난 미리 그 섣둘그믐 뒈가면은 이제 그거 내일은 이제 멩질 출리곡 헐 거난 그거를 이제 미리 메주도 다 시쳥 놔두곡 군물도 이제 소금허영은엥에 군물도 골앙 경허영 이제 항아리에 딱 헹 놧당 그날은 아침이 새벽에 멩질 출리기 전이 새벽이 메주 아졍강 항아리에 담앙.

@1 으.

#5 디리쳐 불어. 디리침만 허믄 뭘 거난.

@1 아.

#5 미리 다 만들엇당. 경 헤 뒁은엥에 이제 멩질덜 출리주게. 적갈허곡.

@1 게난 멩질 출리젠 허면 완전 바쁘큰게, 그날은?

#5 어, 게난 그날은 바쁘난 미리 멩질 출리기 혼 이삼 일 전에 이틀 전에 메주를 다 시쳥경허영 깨끗이 허영 이제 영 벳난 디 널엇당 이제 콘테나에 톡톡 놧당은에 그날 저.

#3 옛날에 콘테나가 어디 잇엇수과게.

#5 (웃음).

#3 구덕.

@1 으.

#5 구덕.

#1 저 메주를이.

@1 예.

#1 석은돌에 담는 거여.

@1 으.

#1 석은돌에.

#5 썩은돌이 섣돌이주게.

#1 석은돌이 섣돌이라. 다뒌 돌이렌 말이주.

@1 으.

#1 으, 견 저 섣돌에 메주를 담앙 저 새해는 아니 담는 거난. 장도 새 첨, 섣돌엔 문 담곡 허는 거주게.

@1 으.

#1 서, 석은돌에 저 메주 멘든덴 허영 장 담근덴 굴아낫어.

@1 아. 썩은돌에 장 돔는다예?

#1 석은돌.

@1 예.

#1 메주 저 쒀근에.

#5 게난 섣돌그믐날 항상 담아.

#1 메주 쒀 둬사주, 그것도.

@1 예.

#1 거 숢는 것이 아니고 메주 쑤엇젠 허더라고. 게난.

@1 예, 메주 쑤는 거예?

#1 으.

@1 게난 메주 쑤고. 이제 썩은돌에는 헐, 썩은돌에는 헐 일이 엇어야 뒈는데 무사 영 헐 일이 한고예. 썩은돌엔.

#1 경허난게 여자덜은 저 장 담그곡 김치허곡.

@1 으.

#1 그걸로 끝나는 거고. 스나이덜은 집, 집 일곡.

@1 으.

#1 경허민 걸로 이젠.

@1 혼 해 끝나고.

#1 혼 해가 다 마무리라. 혼 해가 다.

@1 으.

#1 으, 경허민 겨울엔 앚아근에.
@1 노름허곡.
#1 화토 치주. (웃음).
#2 그 놈의 화토.
@1 게난 삼춘 정월에, 아니 정월 전에 섣둘에 허는 일이 뭐 잇수과?
#5 섣둘에 허는 일은 기냥 김장 거 담그곡.
@1 으.
#5 메주 삶으곡. 거 옛날은 막 보리밧디 강 검질메곡. 뭐 섣둘에도 허는 일이.
@1 게난 썩은둘이라도 한게.
#5 어. 헐 일이 많주게.

십이월

엿 만들기

@1 옛날에 엿들도 하영 헷잖아양?
#5 으.
@1 엿은 언제 헙니까?
#5 엿은, 엿도 항상 거 십이월달, 거 새해 나기 전이 헌덴 허여.
#1 엿도 하영 헷주. 옛날 꿩 심어당이 저.
#2 엿덜 먹어낫주, 첨.
#1 꿩코 놔근에, 꿩코 놔근에 그거 저.
@1 으.
#1 심어당은에 꿩엿도 허영 먹곡 허엿주게.
@1 으.
#1 거, 거 엿날은 그 저 콩도이 저 무꺼당 집이왕덜도 저 도께로 헨 두드렷주만은 밧디서덜도 헤헷주게. 경허민 밧디 그 꿩들이 그거 저 저 뭣고, 타작헤 나민이 그냥 꿩들이 그 콩 줏어 먹으레 그냥 막 오라. 겨민 저 꿩코 놩덜 어 꿩코에 들민 오랑덜 그거 엿덜도 허영덜도 먹곡.
@1 으.
#1 아기덜토 주곡덜 경헷주게.
@1 혹시.
#1 그거주게.
@1 꿩으로 헤갖고 제숙, 그 꿩 국 끓영은에 멩질헤 먹지 안헙디가?
#1 무사 안허여. 엿날이사 궤기 엇인 때 뭐.
#2 헤봐신디.
#1 그걸로 헹은엥에.
#5 국 끓리진 안허곡 모믈국수.
#1 제숙덜 헷주. 산, 산짐승이엔 헤근에. 저 사냥이나 허는 사름덜은.
@1 으.
#1 저 노리도 심어당덜 헷주만은 집집마다 경 노리 심는 사름은 엇어시난.
@1 으.
#1 그냥 사냥허는 사람덜이 저 개, 저 진돗개 저 사냥개엔 헷주, 옛날은 진돗개가 아니라.

@1 예, 예.
#1 사냥개에 헤당. 제주돗개가 엿날 경 영리헤낫어.
@1 으.
#1 그냥 사냥개엥 허영 지루당.
@1 게믄 껭, 꿩 잡는 철은 어느 철에?
#1 꿩은 겨울철에 잡는 거주게, 겨울철에.
@1 그것도 섣둘에.
#1 어. 섣둘부떠 이, ᄌᆞ, ᄀᆞ실 들민.
@1 으.
#1 ᄀᆞ실들민 꿩 잡는 거주게. 여름엔 꿩궤기 못 먹어.
@1 어.
#1 으, 게난 ᄀᆞ실 들민 봄 나도록 그냥 잡는 거주.
@1 으.
#1 봄꿩, 봄꿩은 그냥 겨울철에 먹을 거 엇이난 막 쭐어.
@1 예.
#1 경헹 쭐어도 그냥 엿날은 먹을 거 엇이난 거 꿩 사냥덜 하영, 하영 헷주, 요즘들은 뭐 뭐 아니헨 내부난 그냥 꿩이 그냥 거들거령 꿩꿩 헴주만은.
@1 (웃음)
#1 (웃음)
@1 요즘 진짜 꿩이 너무 하예.
#1 으. 꿩이이, 꿩이 요즘 꿩들은 꿩꿩 허멍 큰양거리는디, 지금 콩 갈앙 놔두민 그냥 콩들 먿 그냥 튿어 먹어불민, 원, 웬수여, 웬수.
@1 웬수우과? 이렇게 이제하고. 혹시 엿헤 갖고 약으로 쓰진 안헤수과?
#3 약으로 먹엇주덜. 약으로.
#1 그게 약이주게. 보약이주게.
#5 그것이 먹으면 약이주게.
@1 보약.
#5 보약, 보약.
#1 으.
@1 뭐 어디, 종기 난 디 불르진 않고?
#5 아니. 그런 건.
#1 아니 경. 종기 난 디 불르는 건 고약이엔 허연.
#3 그건 고약이주. 종기 난 디 불르는 건 고약, 고약. 고약 알아져?
@1 예.
#3 견디 미신.
@1 예.
#3 저 엿을 종기 난 디 불라.
@1 게난 삼춘네도 젊엇수다게. (웃음) 이제 여기까지 하고예, 삼춘 일름 뭐우꽈?

신구간
@1 아까 곧당은에 잊어분 거 하니 이신디, 신구간.

#5 신구간?
@1 신구간은 언제우꽈? 여긴.
#5 신구간은, 신구간이.
#3 양력.
#5 양력으로.
#3 일월.
#5 아이고, 이월. 이월 사일날인가. 이월 칠일날인가. 양력.
#6 이월 사일날은 새철.
#5 아니 이월 사일날은 입춘이주.
#6 새철이난 그 전에. 신구간은. 어. 입춘전. 이월 사일날 전에 신구간은.
#3 게난 일월 이십 육일부떠.
@1 자, 삼춘, 신구간이 언제.
#6 일월 사일이민 새철이 들어 불어. 새철 들기 전에 일주일간.
@1 아, 새철 들기 일주일.
#6 어, 어. 게난 사일이난 삼일, 곧 일월 이십육일, 칠일 경부떠 거 사흘 사이에 신구간.
@1 예.
#6 건 언제나.
@1 예, 알앗수다. 게믄 신구간 허면은 뭐 허는 날이우꽈?
#5 신구간허면, 이사도 허곡.
#6 구신 올라 가부난.
#7 묵은해가 가고 새해가 온다는.
#6 이사를 허여도. (생략)
@1 이젠 삼춘만, 삼춘이 굴 거. 신구간 뭐허는 거마씨?
#5 이사허는 달.
@1 으.
#5 이사허는 날. 일주일 간.
@1 일주일 간 이사허는 날예?
#5 으.
@1 이사허는 날 허면은 그 막 집에 고치기도 허지예?
#5 어, 집이 영 무시거 고칠 거 이시민 그때 문 고치곡. 신구간에는 그런 거 허는 날.
#3 동티 안 난덴 헤근에 그때게 귀신 엇는 날이난.
#5 손 없는 날.
@1 으.
#5 으.
@1 손 없는 날예?
#5 어.
@1 예.
#5 경헤근에 일주일간 그거 이제 허는 날이 그거 신구간.
@1 우리 아까 집, 저 집 일고 허잖아예? 새 집 짓고 하면 이사 가는 데 혹시 뭐 가정 가거나 허는 이런 것들도 잇입니까? 이사헐 땐 어떤 식으로 헙니까?
#5 이사헐 땐 기냥 그 문저 그 솟.

#3 솟.
#5 솟 아졍가근엥에 밥헹 먹는 거 솟 아졍강 우선 허는 것이 이사허는 날.
#2 가스렌지.
@1 으.
#5 으.
#3 가스렌지가 어디 셔?
#6 가스렌지가 문저 아니라.
#5 밥통, 밥통.
#6 요강단지, 요강단지. 오줌 싸는 요강단지.
@1 예, 요강단지 먼저 가졍가곡.
#6 솟허곡.
@1 예.
#6 밥허는 솟허곡.
@1 게난 조왕하고 칙간을 먼저 모셤구나.
#5 어. 경헤사 우선권.
@1 예. 경헤야 동티 안 난덴예?
#5 으, 으, 으.
@1 으, 알앗수다.
#3 동티가 뭣산디.

소한·대한

@1 그다음에 예전에 십이월허면 그 소한이여 대한이여 허는 날이 잇지예? 소한에 나가면 춪지 말렌도 허곡.
#6 소한 대한은.
#5 소한 대한은.
#6 날씨가 최고로 추워놓난.
#5 추워놓난.
#6 소한 대한 사이에 나간 사람은 춪아 보지 말라. 길가에 다니당 얼어죽넨 말로 소한 대한.
@1 소한 대한예?
#6 어.
@1 으.
#6 그거.
@1 삼춘.
#5 으. 게난 그런, 그대로게 소한에 나간 사람은 대한에 안 들어오면 춪지 말렌 헹 막 추운 계절이 소한에서 대한이 젤 추울 때주.
@1 소한에서 대한이 젤 추운 걸로 헤서 그렇게 얘길헌 거라예?
#5 예.

농사일

@1 자, 이제부떠는 우리 그 옛날예, 농사헷던, 일월부떠 삼춘네 농사헷던 거 잇잖아, 보리

갈고 헌 거부떠 헤갖고 그거를 한 번, 그냥 그 내용들은 허지 말고 일월엔 무슨 일허고 이월엔 무슨 일허곡 헤근에 간단하게 굴아줘 봅서.

#5 ○○어멍 이디 왕 굴라게.

@1 ᄀᆞ치 굴읍서, 둘이.

#5 이리 왕 앚아.

@1 삼춘 빨리왕은엥에.

#5 일월, 일월달엔 무슨 농사 짓엇어.

@1 게난, 농사. 일월부떠 십이월까지 삼춘네 옛날에 헷던 농사, 씨 뿌린 건 언제허고 이런 거. 일월에는 무신 농사를 헤신고.

#5 일월.

@1 양력, 양력으로 굴으쿠과? 음력으로 굴으쿠과?

#5 일월둘에 보리검질벳기 일월둘에 농사는 지을 것이 엇인 거 닮수다.

@1 으. 게난 그런 식으로.

#5 일월달엔 농사가 없어.

@1 그런 식으로 굴아주믄 뒈는 거라예?

#5 어.

@1 그런 식으로 보리검질 멧저.

#5 예.

@1 보리씨 뿌렷저.

#5 어어.

@1 이런 거를 게믄 삼춘이 굴아예. 자, 삼춘부떠 게믄.

#5 일월달엔.

@1 마스크.

#5 일월달에는 보리를 미리 갈아 논 거니까.

@1 으.

#5 이제 새싹이 나면 검질이 가찌 나주게. 게민 일월달부떠는 그 검질메레 여자들은 이 옆집이 사름덜이영 돈 없으니까 수눌어가면서. 게 하루 이 집이 일헤주곡 하루 이 집이 일헤주곡헤 경허영. 보리밧데 검질메는 일. 일월달엔.

@1 일월달에.

#5 예.

@1 그게 양력이우꽈? 음력이우꽈?

#5 음력뒈야 뒐 거 아니. 양력이 일월은 너미. 음력.

#6 음력.

@1 으. 음력으로예, 게믄 음력으로 굴으게예?

#5 음력으로 생각헤 부난에 양력 생각은 못 허쿠다.

@1 알앗수다. 음력 일월에.

#5 으.

@1 으.

#5 예. 검질메곡.

@1 검질메곡.

#1 아니라. 저 첨 정월에는이, 정월에는 검질 안 나. 이월달에나.

#5 아니우다. 정월 스무날예.
#6 겨울에 검질 멧수다.
#5 우리 삼춘 ○○할망 저 미신 거, 돌아가신 때 우리 장통밧디 검질메당 왓어. 보리밧디.
#1 밧 볼리는 거.
#5 아이구, 검질메어. 일월달에.
#6 정월에 밧 볼리주. 정월에 검질메곡.
#1 밧 볼리곡.
#5 예, 일월달에 검질메어.
#1 이월 나사 검질메어.
#5 정월 스무날, 할망 식게 아니우꽈? 그날 우리 장통밧디 검질메당.
#6 검질메어.
#5 할망 죽엇젠 허연 왓어.
#6 보리밧디.
@1 밧 볼리는 거.
#5 밧 볼리는 거.
@1 검질은 여자들이 잘 알 거 닮수다.
#5 건 우리가 잘 알쿠다게. (웃음)
@1 음력 일월에 무시거 다시.
#5 다시 새로?
@1 예.
#5 일월돌에.
@1 삼춘 이름부떠.
#5 아, 저 일월 보리검질.
@1 예.
#5 보리검질 메영 이제 검질메젠 허믄 돈 빌엉, 요즘 닮앙은 돈 헤근에 인부를 상 허주만은 엿날은 돈이 없으니까. 옆에 사름신디 우리 검질 오늘 하루 메어주민 낼은 저 언니네 검질 메주쿠다 허영 수눌어 가면서 보리검질을 메기 시작헤.
@1 으. 음력 일월엔 보리검질메곡.
#5 예.
@1 음력 이월 나믄 뭐헤?
#5 이월돌에도 뭐 검질메는 거, 초불 멧다가 두불, 세불끄지 메당보믄 보리에 질 첨은 싹 나와서 한, 한 오 센티, 셋 센, 십 센치 정, 정도로는 초불 메곡.
@1 으.
#5 쪼꼼 자라가민 두불 메고 세불 메당 보믄 이월돌이 가지.
@1 으.
#5 보리도 싹 나와가곡 꽃도 피곡 열 영 뭐 허젠 허믄.
@1 이월까지는 검질메곡.
#5 예, 검질메어야주.
#7 이월달에는 저 뭐 감자.
@1 예.
#7 지금은 감자 거 지실, 그거는 이월달에 놓고.

@1 음력 이월에 이제 지실 놓고예?
#7 으, 지실 놔.
@1 어.
#7 경허영.
@1 그다음에 지실 놓고 검질메고.
#5 같이같이 허여.
@1 그다음에 삼월에?
#5 삼월달에는.
@1 산디 갈고.
#5 삼월.
#7 산디 안 갈아.
#5 산디, 사월돌 뒈야 산디는.
@1 으.
#5 삼월까지는 검질메는 것벳긔 뭐 씨앗 허는 거는.
#7 꿰는 삼월돌에 안 가는가?
#5 삼월 아니. 사월돌에사 꿰도 갈곡.
#6 꿰 오월돌 뒈어사.
#5 예. 꿰도 사월 초파일 넘어사 꿰도 갈게 뒈어.
#7 삼월은 고사리 꺾끄레 뎅겨.
#5 음력으로 굴암수게.
@1 음력으로, 음력으로.
#6 삼월에도 고사리 아이 나.
#5 음력으로 말허는 거.
@1 예.
#5 예, 삼월에는 하여튼 검질 두불 세불 그추룩, 그 정도. 이, 이 유채 갈앙은에 꽃 피기 전이 메곡 허당 보민 삼월달까지 검질메여.
#7 삼월달에 고사리도 꺾껌직허다.
@1 예.
#5 삼월달에도.
@1 음력 삼월에예?
#5 어.
#7 고사리도 꺾끄곡.
@1 으.
#5 고사리도 초불 나고.
#7 고사리도 메칠 꺾끄레 가주게.
@1 예. 여기서는 고사리 하영 꺾끄는구나.
#5 으.
@1 예. 그다음에 음력 삼월에 고사리 꺾끄고.
#5 꺾끄고.
@1 게 사월 뒈민 막 바빠예?
#5 사월 뒈면은 초파일 뒈가가믄 꿰도 갈아야 뒈고 산디도 갈앙 막 불려야 뒈곡.

#7 이제 막 바쁠 때.
#5 그런 식으로 허지, 사월까지.
@1 사월에는 이제예. 그다음 오월에는?
#5 오월 단오 뒈어 가가면 보리도, 보리 헤 논 거 이젠 보리도 비고 유채도 비고. 거 비면서 이제 장만허젠 허면 보리도 비엉은엥에.
#7 콩도 그때 갈암직허다.
#3 지름ᄂᆞ물, 지름ᄂᆞ물.
#5 어허, 유채ᄂᆞ물.
@1 예, 예. 지름ᄂᆞ물.
#5 예. 그렇게 헤서 그.
@1 경헤근에 오월에는?
#5 오월달.
#7 콩도 갈암직허다, 오월달엔.
#3 아니.
#5 유월 뒈가야. 보리다.
#7 양력은. 양력은.
#5 보리 비어 불어사 그디 콩도 갈곡 헐 거 아니우꽈게.
#7 양력은 유월인데 음력은 오월.
#5 음력으로 ᄀᆞᆯ아가는 거라, 지금.
@1 으.
#7 게난.
#5 단오 말헤 감수게. 넘어야 ᄀᆞᆫ는 거라.
@1 예. 그다음에 음력으로 하고.
#5 으.
@1 어, 이른 콩은 이제 콩도 준비허고.
#5 어.
@1 유월에는.
#5 게 유월ᄃᆞᆯ에야 콩 갈주게. 유월 시작헤 가야게. 오월 그 유채도 가, 비어불곡 보리도 다 헤야 그 ᄀᆡ리에 조도 갈앙 조 ᄇᆞᆯ려야 뒈곡 콩도 갈아야 뒈곡. 그런 식으로.
@1 감저도 싱거야 뒈곡.
#5 감저도 싱거야 뒈곡.
@1 감저메는 언제 놉니까?
#7 고구마.
#6 묘종. 묘종.
@1 예, 묘종.
#7 그건 ᄒᆞᆫ 이월달에.
#5 아고 건.
@1 아까 거 잊어불어신게.
#5 어, 어. 이월 이월. 영등할망 오기 전이 놩. 넘엉은 안 뒌덴 허곡 영등할망 들어오기 전이 놔야, 씨앗을 놔야 뒌덴 헤.
#7 고구마.

@1 아. 감젓메는 영등할망 들어오기 전에 놔야.
#5 예, 씨앗이라 부니까. 영등할망 들어오민 잘 안 뒌덴 헤근에.
@1 으.
#5 모든 씨앗이 영등할망 오기 전이 쪼꼼 허여나고. 넘엉 허게 뒈민 지나가 불어야. 온 때는 씨앗을 안 논덴 우리 어린 때는 그런 식으로덜 허더라고.
@1 예. 영등할망.
#5 예.
@1 그다음에 이제 유월에 아까 불리잖아예?
#5 예, 게믄 유월둘에는 이제 보리도 다 헤나민 밧 갈앙 거기 이제 산 저, 무시것도 이제 여름에 조.
@1 조 불령.
#5 초불. 밧도 초불 갈고 두불 갈고 헤서 조 허젠 허믄 뭐 조허영 이제 남자 어른덜은 말 헹은에 남테, 옛날 남테로 헹 밧 불리젠 허민 밧도 불리레 뎅기고 막.
@1 으.
#5 밧 불리젠 허믄 동네에서 막 떡도 사가고 엿날 우럭, 제숙.
@1 예.
#5 잘 헤줍센, 코ᄉᆞ 지내젠 허믄 뭐. 멩텡이에 뭐 뭐 우럭 데가리도 막 헹 코ᄉᆞ 지내고. 그런 식으로 헷어.
@1 코ᄉᆞ 지내고예?
#5 으.
@1 밧 불리젠 허민.
#5 예, 밧 불리젠 허민.
@1 예, 게믄 칠월은. 또 또 잇어, 삼춘?
#7 칠월이, 칠월이 백중인가.
@1 예.
#5 예, 칠월 백중.
@1 백중.
#7 백중에는 어, 저 ᄆᆞ쉬덜 허는 사름덜은 그거 저 제 지내레도 백중에 가곡.
@1 으.
#7 이제 막 백중에 저 뭐 물 맞이레덜토 가곡 백중 물 맞이레덜토 가곡.
@1 으.
#7 백중 칠월달에는.
@1 그다음 검질메곡.
#5 예.
#7 검질메곡 경허연.
@1 그다음에 칠월은 그거.
#5 예. 칠월은.
@1 팔월은.
#5 팔월은 뭐, 추석 팔월 뒈민, 멩질헐 거, 추석 헐 거 출리젠 막 허고.
@1 으.
#5 그거 걱정허영은에덜 막 추석헤 가민 우리.

#7 벌초 갓다 오랑.

#5 예.

#1 여름 내낭 검질메는 거난.

#5 팔월 추석 돌아와가민 우린 그거 생각납니다. 우리 친정어머니가예, 팔월 한 십오일 멩질이난 한 열흘만 뒈 가가면 그 아버지네 두루막을 막 헹 입젠. 팔월 멩질에 입젠 허면.

@1 으.

#5 왜광목, 광목헤근엥에 막 풀헤근엥에 막 다듬이로 두드령 만들앙 경헹 그 하나하나 이제 바농으로 다 손질, 바농으로 헤영 윤, 옛날은 윤디, 윤디 헤영 그거 문 영, 윤디로 헤근에예, 불허멍 허곡.

@1 으.

#5 경헹 우리 아버지가 헹 입지면은 그냥 가근엥에 하루도 엇이 기냥 뭐, 술 잡수곡 허민 막 옷에 문딱 하루 막 흑 멕여 불민. 만드는 건 열흘 걸리곡 파손뒈는 건 하루도 안 뒈영 다 파손뒈난게.

@1 맞아.

#5 예, 그 막 곱게예, 왜광목으로 막 다듬이질 허곡 다, 윤디로 다리곡 경 파짝허게 입정 내놓면 술 잡솨근에 가근엥에 막 헤 불믄게.

@1 게믄 그거 헐려고 하면 칠월부떠 그건 헤야켜예?

#5 아니, 기냥.

@1 팔월에.

#5 팔월둘만 들면.

@1 팔월둘.

#5 열흘만 뒈어가게 뒈민 멩질허기 전이 우선 옷부떠 만들아 놔.

@1 으.

#5 두루막이엔 허영 딱 만들아 놔.

@1 예, 제 보젠 허니까.

#5 예, 우린 경헤낫수다. 우리 어린 땐 그런 식으로.

@1 예. 그다음에 아까 잠깐, 감물은 언제 들입니까?

#5 감물은.

#6 감물은 칠월.

@1 칠월에.

#5 으, 으.

@1 그 얘기를 헤줍서. 감물 들이는 거.

#6 칠월, 칠월달 뒈면 그거 감 타다근엥에 감 ᄲᆞᆺ아근엥에 도고리에서 ᄲᆞᆺ아근에 그거 짱 그거 감옷덜 만들어근엥에 감 멕영 널엇주게.

@1 으.

#6 경허민.

@1 보통 칠월 어느 쯤에 들여마씨?

#6 칠월 아무튼 백중 전이 허여.

#5 백중 전이.

#6 백중 전이 헐 거우다.

#5 백중 넘으면은.

#6 감이 세기 전에 막 그때가 물이 많아.
@1 으.
#6 어린 때가. 감 세어 불믄.
@1 감 세어 불믄.
#6 어.
@1 안 뒈고예.
#6 어. 안 뒈어.
#3 뒈긴 허는디.
@1 으.
#5 색깔이 곱지 안허덴 헤여.
#6 옷 색깔이 빨강허게 잘 안 나난 세면. 게 어린 때가 파랑헌 물이 잘 나와. 뿟앙.
@1 감 센 거 하고 저 아, 어떵 허영은에 그걸 구분허여 져. 센 건 어떵 알아?
#6 씨앗, 소곱에.
#3 씨가 영.
#5 씨.
@1 아.
#6 으. 겨고 굵어 가민. 굵으기 전이. 요 정도.
#3 게난 그 감 들이는, 감옷 들이는 거는 제일 풋감이엔 헤 가지고 요만헌 것덜, 요만헌 것덜.
@1 예, 예.
#3 막 커야 요만헌 거.
@1 이 동네도 풋감 이제도 잇수과?
#3 핫주.
#5 예. 이제도 이신 낭덜 잇는 집인 잇인디.
#6 잇어, 잇어.
@1 잇어예. 어. 게난 칠월 백중 전에.
#6 전에.
@1 이제.
#6 감옷 들이고.
#5 그거 들이젠 허민 뿟이민 그 씨, 그 알이 그 감씨가 연드러우믄 그것을 막 주워 먹주게. 맛 좋앙은엥에. 옆집이 가근에 감, 우리 집이 낼 감 들이켄 허믄 그거 그 감씨 먹을라고.
#6 줏어 먹젠.
@1 으.
#5 경헹 그거 세면은 맛엇엉 땅땅헹 못허고.
@1 예.
#5 게난 백중, 하여튼 백중 전에 헤영 들여야 햇빛도 강허여근엥에 색깔도 곱게 나곡 백중 넘으민 이 햇빛이 약헤서 희니까 안 좋덴 헤근에 흐린덴 헹, 백중 전이.
@1 예, 경헹 아까 파, 이제 백중에 하고 팔월에는?
#5 으, 으.
@1 아까 추석헤 먹젠 헤근에 그거 이제 하고. 그 팔월에 농사하는 건 엇어?
#5 팔월엔 농사.

#6 꿰.
#5 꿰. 아까 헌 거를 수확.
#6 수확.
@1 으.
#6 수확허는 거. 꿰 비엉.
@1 으.
#5 수확헤 들이는 거.
@1 수확허는 거고예?
#5 예.
@1 그다음엔.
#6 아까 칠월달엔가 모믈은 칠월달에 갈 거. 모믈도 갈앙.
@1 아.
#5 백중에.
#6 백중 전이, 백중에 굽 갈른덴 허여.
#5 어, 백중 전이.
#6 칠월 초 뒈면 모믈도 농사.
@1 으.
#6 모믈 갈앙.
@1 으.
#6 밧디 강 모믈씨 뿌령은엥에 옛날은.
#1 칠월절에 굽 갈른덴 허주.
@1 예, 예.
#5 백중에 굽 갈른덴.
@1 잠깐만예. 그 말을 다시 한 번 골아볼 거예?
#5 으.
@1 굽 갈른덴 헌 말은 무슨 말이우꽈?
#5 굽 갈른덴 허는 거는 영 저 많이 영 나민 이것을 굽 갈랑 영 소끄는 거.
@1 아.
#5 굽 갈라. 너무 많이 나면 영 소끄는 것이. 굽 갈른덴.
#1 굽 갈른다는 말은, 옛날은 모믈 갈젠 허민 저 체에.
#6 줍아 놔, 줍아 놔.
#1 체에 모믈덜 허영 영 씨 뿌리지 안허영 손으로 골체에.
#5 톡톡 줍아놩.
#1 씨 가정 뎅기멍 톡톡 줍아놧주기게. 줍아놓면 이게 여러 개 영 클 거 아니라.
@1 예.
#1 게 이게 영 벌어졍, 벌어진 걸 굽 갈른덴 말이주. 굽이 영 갈라졋젠 말이주.
#5 난 소끄는 게 굽 갈르는 줄 알안.
#1 그걸 굽 갈른덴.
@1 예.
#5 백중에 굽 갈른덴.
#1 칠월 나민 첨, 모멀 굽 갈른덴 헌 말이.

@1 으.
#1 그런 말이라.
@1 삼춘 말이 맞는 거 닮아예?
#5 으, 으.
@1 게난 여러 개 영 심으면.
#5 여러 개 나면. 영.
@1 빼 줘 불어얄 거 아니라예?
#5 빼는 것이 굽 갈르는 거.
#1 소끄질 안허고, 여러 개 영 이시민 영 헹 갈라지는 걸 굽 갈라진덴 헌 말.
@1 이건 삼춘 이야기고 삼춘은 또 새로 골아봅서.
#5 으, 나 생각에는 이것이 영 소까야 굽 갈른덴.
#1, 3 아니, 아니.
#6 모믈은 안 소끄는 거우다. 소끄진 안허는 거.
#3 모믈을 소까? 소끄진 안허고.
#6 회장님 말이 맞은 거 닮아.
@1 아.
#6 모믈 나면은 영 오고롯이 낫다가 것이 페와져근엥에 벙헤지면 그것이 굽 갈른덴.
@1 으.
#6 모믈은 소끄진 안허는 거난. (웃음)
#1 모믈 굽이.
#7 모믈은 소끄질 안허주게.
@1 으.
#1 영 갈라졈젠 말이라.
#6 예, 거 맞은 말 닮수다.
#5 항상 백중에 굽 갈른덴 그 말만 들엇주.
@1 예.
#5 백중 전이 갈아야.
@1 으.
#5 그것이 이제 요만이 크면은.
@1 예.
#1 유월절, 유월절 전 삼일 허여근에.
@1 예.
#1 조도 씨 뿌리곡 감자, 고구마도 저 유월절 전 삼일 헤근에 심으곡.
@1 으.
#1 유월절 넘으면.
@1 으.
#1 저 곡, 조도 죽곡.
#5 늦어.
#1 감자도 너무 뜨거왕 저 감자 싱그민 죽어 불곡.
@1 으.
#1 경허는 거.

@1 예.
#1 겨곡 저 신구간이엔 헌 건.
@1 으.
#1 저 귀신이 직허는 귀신이 하늘에 강 옥황상제안티 가근에 저 회의 허레 올라간, 귀신이 엇인 때.
@1 으.
#1 견 귀신이 올라간 헌 귀신이 엇인 때를 신구간이엔 허는 거.
@1 예.
#1 경헹 구신이 내려오민 저 집 이살 안 허는 거.
@1 예.
#1 그 구신이 알아분덴.
@1 예.
#1 으, 알앙 **** 헌 건 *** 헌덴 허영. 귀신 엇인 트멍에 확 이사헤 불곡 허는 거주게.
@1 예. 맞수다.
#1 엇이민.
@1 그다음에 구월에는 뭐헤? 이제 팔월에 경허고 음력 구월에.
#5 구월에.
#6 조도 비곡.
@1 조도 비곡.
#6 조도 비곡. 그때 구월달에 콩.
#5 구월에도 뭐, 뭐, 뭐, 콩이고 뭐고 헤 들일 거 아니우꽈, 문 수확을.
#6 콩 꺼끌 거 닮은디.
#5 수확을 헤 들여야주.
@1 으.
#6 구월. 음력 구월에는 콩 꺼꺼.
@1 콩 꺼끄곡.
#3 조 비기 전이 돔비부떠 타주기게.
#5 콩 꺼끄고.
#3 돔비, 돔비.
#6 돔비도 타곡.
#5 산디, 산디도 비곡. 산디 비, 나룩 빌 거로구나. 옛날 찹쌀, 여기는 ᄎ나룩 갈아나난.
#6 ᄎ나룩.
@1 아.
#5 예.
#6 ᄎ나룩 갈민 그때 구월 한 말일 뒈어 가면은 음력 구월 말일 뒈어 가면 나룩도 비곡.
@1 나룩도 비곡.
#6 어.
@1 감저는 언제 헙니까?
#5 감저는.
#6 고구마는 혼 시월달에.
#5 시월 뒈야 팔 거우다.

#7 것도 조헐 때.
#5 상강일 전이 판다 무시거 헌다 헤도. 시월달 나야 팔 거우다.
@1 구시월. 보리는 언제 갈아?
#6 보리는.
#5 보리도.
#3 시월달에 갈주.
#6 시월달.
#5 시월은, 시월도 초싱에 갈 거우다. 시월 늦어가민 안 뒈난.
@1 음력 시월 초.
#5 예, 예. 시월 초싱에 보릴 갈아.
#1 조, 콩, 뭐.
#5 예.
#1 저 고구마 다 캐난 다음에 허는 거 닮아.
#5 예, 예.
@1 예.
#1 저 섣둘 뒈야주. 십일월달 뒈어가사.
#6 시월, 시월 말에. 시월 중순 뒈어가사.
#3 구루마로 거름 실러당 보리 갈 거 아니. 문 거름 삐엉.
@1 으.
#1 거름.
#3 경헹 쉐로 갈아사.
@1 예. 게믄 음력 시월에 이제 시월에 보리를 가는 거고.
#5 예, 예. 시월에.
@1 음력 십일월 뒈면.
#5 십일월, 십일월 뒈민 헐 거 엇어.
#3 십일 달엔 게.
#5 씨앗 다 허난에.
#6 보리 갈앙.
#5 메주 쑨다, 뭐 새 비어당 집 일 거 준비헌다. 김장 담나, 막 그것덜 헤불면은 뭐.
@1 예.
#5 다 이젠 먹엉 곡석 들이민 먹어 잡수주.
@1 그다음은 먹어 잡수고.
#5 고팡이 다 놓민 이거 겨울 내낭 뭐.
#6 시월달.
#5 남자 어른덜은 화토덜 치곡 머, 여자 어른덜은 집이서 앚앙.
#6 메주 솖곡.
#5 메주 솖앙.
#3 감저 솖앙.
#5 애기덜 나 놓난 그 애기덜 심부름허곡.
#6 애기 하영 나부난.
#5 식게 멩질이나 여자덜 잘 허렌 헹 헤 먹을 일이나 잘 허민 뭐 그걸로 오케이주. 무신.

@1 으.
#3 감저 숣앙 먹엇주게.
@1 감저 숣앙 먹곡.
#5 으, 감저 숣앙 먹고.
#3 뻿데기 숣앙 먹곡.
@1 그때가 제일 여기는 한글허고.
#5 예. 좋은 때.
@1 좋은 때예?
#6 한글험이랑말앙 제주도는, 요 대흘은 물 엇어 놓난에 물 어디 강 질어와야 뒈곡.
@1 아이고, 물 질어 오곡.
#5 어, 맞아, 물 질어 오곡.
#6 빨래도 어디 못에 왕 영 떠내영 빨래 헤야.
@1 예.
#6 우리 시집 완에 물 엇언에.
#3 비만 와 가면은 여자 어른덜은 물 질레 다녀.
#6 수도 엇언, 수도가 엇어, 이디.
@1 으. 물 질레 가고예? 게믄 일 년에 농사하는 거는 다 뒌 거예?
#5 으, 다 뒌 거.

옛 지명

@1 회장님 이 대흘은 옛날 이름을 뭐렌 골안? 여기서.
#1 한흘.
@1 하늘.
#1 음.
#3 한흘.
@1 한흘.
#1 예.
@1 한흘이지예?
#1 한흘인디. 대흘 그 옛날 할망덜은 저, 지금도 하늘이엔 골아. 하늘이엔 골민 저 헤변더레 가민.
@1 으.
#1 헤변 사름덜이 무시거엔 곧는고 허민, 하늘 옥황상제님 내려, 내려, 내려왓구나마씸 허영 막 놀려.
@1 음.
#1 막 놀리는디. 하늘이엔 헌 게. 그 한흘이라. 흘이 많다, 흘이 많다고 헤서 한흘인디. 이 지대가 다 늪지대라 이 지대가.
@1 아.
#1 으, 이 집 짓인 디도 늪지댄디. 겐 흘이 넓어.
@1 음.
#1 넓으난 한흘이엔 헷주, 한흘. 겐 할망덜 곧는 말은 한흘이엔 곧지 안헤영 그냥 곧기 쉽게 하늘, 하늘이라 헷어.

@1 하늘, 하늘.
#1 어, 어디 살암서? 허민 나, 하늘, 하늘이라, 하늘서 살암서, 허민 아이고, 경헨 아이고 하늘서 오난 옥황상제님이 오셧구나마씸 허멍 굴아낫주게.
@1 으.
#1 겐디 하늘이 아니고 한흘인디.
@1 예.
#1 한, 하다는 말이라. 흘이 하다, 흘이 하다는 뜻을 한자로 애기허면은.
@1 으.
#1 한자로 애기허면은 큰 대 제를 써서.
@1 예.
#1 큰 대 제[쩨]에 흘 제[쩨]는 저 묏 산 변에 새 흘 제[쩨] 허연, 대흘이엔 헷주.
@1 예.
#1 겡헤연 한흘. 하늘이 아니라 대흘.
@1 예.
#1 한자로 허민 대흘. 한글로 허민 한흘.
@1 예. 한흘.
#1 경 헌 거주.
@1 예, 게난 이 한흘도.
#1 응.
@1 한흘만 말고 족은 마을들도 잇잖우꽈예? 몃 개동으로 이루어져수과?
#1 이딘 하주, 요디 동카름, 섯가름[서까름] 저 어디 그 어디고? 무신 마을고.
#3 일로동?
#2 솔대왓.
#1 솔대왓.
@1 응.
#1 또.
#3 뱀밧.
#2 아니 이 사름 살아난 디.
#1 사람 살아난 딘, 거 세 군데주. 저 솔대왓허고 동카름, 섯가름[서까름] 그 세 군데.
@1 세 개?
#1 으, 세 개.
@1 어. 그 솔대왓 이서난 디는 뭐 세와져나수과?
#1 어, 사삼사건엔 다 저 소까이덜 헤부난.
@1 으.
#1 다 소까이가 아니라 다 저 어, 어, 헤변 내려간덜 안 올라와부난 겡 폐동 뒈 불고.
@1 음.
#1 폐동 뒈 불어신디 요즘 이제 또 집 멧 호 어, 지언덜 살암서.
@1 아, 게믄 요즘은.
#1 복구, 복구 뒈엄주.
@1 동카름, 서카름 두 개?
#1 복구 뒈어도 대흘 사름이 아니고.

@1 예.
#1 웨지 사름덜이 오란 살암주.
@1 게난 지금 현재는 동카름하고 서카름으로 나눠져수과?
#1 으.
@1 서카름하고 두 개로만예?
#1 응.
@1 그다음에 여기에 뭐, 물 같은 거?
#1 물은 엇어. 대흘은 물은 엇인 동넨디.
@1 으.
#1 저 샘물은이 저 원이엔 헌 디, 원이엔 헌 디, 저 그 샘물이 잇어.
@1 예.
#1 우리 홍씨 기지 **에 에, 샘물이 이신디, 그 샘물 먹언 여기서 한 대충 한 사오 키로 뒈주.
@1 예.
#1 사오 키로 뒈난 그 물을 매날 먹지 못허고 물이 가물엉 비 아니 오곡 헌 땐 에, 그 물 질어당 먹곡. 경 아녀민 이디 저.
#3 봉천수.
#1 저, 늪지대난.
@1 으.
#1 거 물통 멘들안. 물통 멘들앙 먹는물, 사람 먹는 물, 쉐 먹는 물. 경혜영 구분헤영 저 갈라근에 경 비만 오민 저 여, 여편들이 그 저 박세기 들렁 가근에 그냥 허벅 지엉 강 막 물 똘라 놓주게.
@1 예.
#1 그 빌레에 거 똘라놔근에 그 물 질어당 먹곡. 경 헤영 물 떨어, 비 안 오민 또 먼 디 가사. 원에도 강 질엉 오곡.
@1 으.
#1 저 곱은다리 알드레 강 궤못디도 강 질엉 오곡, 경허연 먹엉 살앗어.
@1 궤못디?
#1 궤못.
@1 궤못.
#1 곱은다리 아래 궤못이엔 헌 물이 좀 것도 봉천순디 커.
@1 음.
#1 겅 그디 마을도 엇인 디난 사람덜 경 아이 먹으난 그, 그 물덜 질어당 먹으멍 헷주.
@1 거는 궤에 이수과?
#1 궤못이엔 허연에 그냥 속칭이 그 동네.
#3 그게 함덕 지경인데.
@1 함덕 지경?
#1 응. 저, 속칭이난 경 궤못이엔 허연 무신 궤가 잇언 헌 게 아니고.
@1 으. 아까 그 저 원에 물은 대흘이우꽈, 지경이?
#1 으 대흘이주, 대흘. 대흘인디 그 엿날도 그 물을 그 이장 이름에 못, 마을 재산, 재산을 이장 이름으로 문 헤낫주게. 웨냐믄 일제시대에 세금덜 하영 내나서게.

@1 으.

#1 겡 세금 하영 내니까 세금덜 마을에서덜 이장 이름으로 허영 공동소유난 이장으로 헤연 헤나신디. 부○이엔 헌 하르방 명의로 헤연에 그 물이 잇어낫어.

@1 으.

#1 이제도 어, 그 이름에 잇주. 음, 이신디 그 원래 마을 소유주.

@1 음.

#1 그 김선달이가 아니 온 다음은.

@1 그다음에.

#1 겡 원이엔 헌 디도 대흘인디, 에, 원이엔 헌 게 저 무사 원이엔 헴신고 허민 그 엿날은 거 원님이, 원님이 이디 정의골 가젱 허민 그디 꼭 저 성안서 어, 정의골 가젱 허민 그디가 꼭 중간쯤 뒈어. 중간쯤 뒈난 원님이 그디 강 좀 쉬엇당 가는 디주.

@1 으.

#1 엿날 걸엉 뎅기난 물 탕 뎅기고 허영 걸엉 뎅기젠 허난 그 쯤 오민 쉬엇당은에 또 정의골에 가곡 헤낫주, 거난 원이엔 허는 거라, 그디가.

@1 게난 그 물 이름이 엇수과?

#3 보문물.

#1 원물이주게 그것이.

#3 보문물.

#1 보문물.

@1 보문물.

#1 보문물이엔 헌 건, 보문물이엔 헌 건 우리 그 저 홍씨가 거기 저 입도 선묘라.

@1 으.

#1 겡 보문, 그기가 보문사라고 헤서 저 큰 집을 엿날은 지어낫어이? 엇어졋주만은.

@1 으.

#1 보문사를 아까 잇어나난. 보문, 보문물이엔 헤연.

@1 으, 거 저기 동부산업도로 가는 그 큰 길 옆에 잇는디 말헴지예? 원.

#1 어, 어.

@1 예

#1 저 그 평화로로 오당 보면.

@1 그 식당, 맞은편에 식당 잇곡 헌 디.

#1 나그네○○ 이신디.

@1 ○○나그네.

#3 어, 어.

#1 ○○나그넨가 그.

@1 어.

#1 이신디.

@1 거기가 원, 원터예?

#3 번영로, 번영로.

@1 음, 거기에 보믄 보문사 이렇게 써젼.

#1 예, 보문사. 맞아.

@1 거기에 물이 잇구나예?

#1 어. 거기 겐 보문사 **고 허난 보문물이엔 헤낫주.
@1 으, 보문물예. 경허고 이 대흘 지경에 혹시 오름 같은 것도 이수과?
#1 오름은.
#3 오름 같은 건.
#1 새미오름허고, 보문, 저, 보문.
#2 꺼꾸리오름.
#1 꺼구리오름. 꺼구리오름이엔 허주게. 꺼구리오름이.
@1 으.
#1 한 자로 허민 꾀꼬리 앵 자를 써서.
@1 응.
#1 꾀꼬리, 꾀꼬리 앵 자주. 게난 앵악봉이주.
@1 응.
#1 앵악봉인데, 꾀꼬리오름이엔 부르주, 동산.
@1 꾀꼬리오름이엔 헤? 아까 삼춘은 꺼꾸리오름이렌 헨.
#1 게, 꾀꼬리오름이 그거주게. 꺼꾸리오름이엔도 허고, 꾀꼬리오름이엔도.
#2 경 불러, 불러.
@1 아니.
#1 사름 곧는 말이주.
@1 이 동네서 불르는 말?
#1 꾀꼬리오름.
@1 꾀꼬리오름이엔도 굴아예?
#1 꾀꼬리오름엔 허주.
@1 그다음에 원오름은 어디우꽈?
#3 그게 꾀꼬리오름.
#1 원오름이 꾀꼬리오름.
@1 아, 원오름허고 꾀꼬리오름허고 ᄀᆞ튼 말?
#1 음.
@1 으, 새미오름은 어디 쪽에 이수과?
#1 새미오름은 우리 대흘서 영 가까운 디, 제일.
@1 아.
#1 새미오름 다음 저 꾀꼬리오름이주.
@1 새미오름이 혹시 샘이 납니까? 물 이수과, 거기도?
#3 어. 이서난.
#1 물은 샘, 샘은 엇인디.
#3 봉천수 거기도.
@1 으.
#1 샘이 엇인디, 그 새미오름이엔 불러, 그디.
@1 으.
#3 그 주위에서 모아진 물. 딱 대흘에 오름 두 개벳긔 엇어.
#1 아니 거 물도 건 중간에 영 우리가 판 거주.
@1 예.

#1 물이 엇어낫어, 그디.
@1 으.
#1 물이 엇언 허고 그 왜 새미오름이엔 부르는 지 몰르크라.
@1 거난 대흘일리에는 오름이 두 개예? 새미오름하고.
#1 으.
@1 아까, 저.
#1 꾀꼬리오름.
@1 꾀꼬리오름하고예? 그다음에 당은 여기 몃 개?
#1 하나, 당 하나지양?
#8 응.
#2 당 하나.
@1 당은 하나.
#1 거 무신 당이엔 헙네까?
#8 비자남밧당.
@1 비ᄌᆞ남당.
#1 비ᄌᆞ남. 비자낭은 엇인디.
#8 엿날 비ᄌᆞ남밧당.
@1 그거 이제 당 하나 잇고.
#1 예.
@1 가는 거고예? 어, 요 정도로 허면 뭘 거 닮수다. 혹시 삼춘 더 덧붙여주고 싶은 거, 아이고 이런 것도 이신디 안 골앗저헌 거.
#1 미시거 아니 골아진 거 뭐 잇어?
#3 저 아지망 저.
@1 아.
#3 (웃음)
@1 자, 삼춘 이렇게 하고.
#2 물.
@1 예.
#2 에, 저가 어린 때 들은 말인데.
@1 예.
#2 에, 친족 하르부지 이제 돌아갓는데, 거 큰일이엔 허면은 결혼식 때나 소상, 대상 이런 영장 때 그런 일보고 큰일이라고 허는데, 옛날 어룬덜.
@1 예.
#2 겡 그 물을 거 물이 귀허니깐, 그 물을 하룻밤을 이제 다음날 아침이 저 딴 사람이 물 질어가지 않기로 약속을 헌 게 지역 주민덜 허고.
@1 예.
#2 게난 하루 ᄌᆞ냑 물을 그 물 고이는 디 근무허니깐 허벅으로 스물다섯 허벅 나왓다 허여.
@1 음.
#2 게서 그 물을 질어다가 큰일을 헤낫덴.
@1 예.

#2 지역 주민덜이 이해를 허곡, 지역 주민덜은 그날 하루는 물이 없이 살앗지.
@1 게난 그 꺼꾸리오름에 물 이름은 무시거우꽈?
#3 보문물이엔 허난.
@1 보문물. 으, 그게 보문물예?
#2 예.
@1 알아수다.
#2 스물다섯 허벅이 나낫다, 하룻밤에.
@1 하룻밤에.
#2 예.
@1 알겠습니다.

놀이

@1 자, 버런들은 어떤 거 헙니까?
#7 아 우리.
@1 으.
#7 저, 놀 때. 저 곱을락이영 뭐 허멍 이젠 그 기마전.
@1 예.
#7 모살밧듸 그런 거 허멍 놀당 밤이 가근엥에 집안에 들어강 앚아근에 놀멍 솟두껭이 저 놀이허멍 놀게, 경허민 게 그거 헹 놀게 헹, 자꾸 헤나도 그것덜은 자꾸 그냥 뭐헤여. 그 사름덜이 자꾸 헤나면 잊어불언게.
@1 으.
#7 그땐 저 호얏불.
@1 예.
#7 호얏불 영 헨 싼 때난 저 호얏불 끄렌 헤근엥에 이제 가근엥에 솟뚜껭이, 저, 솟껌뎅이 막 손에 칠헹 와, 눈 다덜 곱으렌.
@1 으.
#7 눈 곱아근엥에 솟두껭이 둘아메시난 저레 보민 저디서 막 영화 봐진덴.
@1 으.
#7 (웃음) 경헤근에 허면은 눈 튼 사름은 못 볼 거난.
@1 으.
#7 눈 다 곱으렌 눈 터시냐 안 터시냐 보켄 헤근엥에 그냥 문딱 그 얼굴 가근엥에 그냥 솟껌뎅이 헌 걸로 강 문딱 강 영 문직아 불엉.
@1 으.
#7 경허민 이젠 영화 안 나와녠 허민 안 나왓젠 허민 게믄 눈 다 터낫구나, 그축헤근엥에.
@1 으.
#7 게민 불 싸켜 헤근에 불 싸민 이 사람도 저 사름 보믄 거멍, 저 사름도 이 사름 보면 거멍.(웃음) 그추룩허멍 헨 우린.
@1 으.
#7 헤나신디. 다음 끝.
@1 겡 그게 무신 놀이?
#7 솟뚜겡이놀이.

@1 솟뚜껭이놀이, 으.
#7 솟뚜껭이놀이 허겐 허영.
@1 솟검정들 이렇게 하고예? 예.
#3 감자는 파당 안 먹어보고?
#7 예? 감저 무사 뺏데기 도둑질이영 막 그냥 헤단.
#3 그런 말도 곧고.
@2 (웃음)
@1 그 말도 골아봅서.
#7 아니 뺏데기 도둑질은 헤단 치단 보난.
@1 으.
#7 그 뺏데기 임제가 완에, 그디 아들이 완 너네 뭐 허는 거냐 허난 뭐 불 숨단 놔둰 그냥 돌아간덜 책상 아래 이만인 헌 책상 소곱에 간덜 데가리만 영 디물안. (웃음) 그추룩 헤근엥에 너 일로 나와 헤근에 우리 거 설어내렌 가근에 고소허켄 허민 우리 그냥 막 벌벌 떨어근엥에 그냥 막 그땐 잘못헷젠 헤놔둥 또 다음엔 또 그 짓거리덜을 헤근엥에.
@1 으.
#7 놀앗덴 허난.
@1 삼춘은 버런을 하영 헤낫구나.
#7 난 버런헤근에 나만이 아니고 우리 친구 아이덜이 이십 명이 뒈는디.
@1 으.
#7 다, 다.
@1 다.
#7 다, 꼭ᄀᆞ치덜 버런헤근에.
@1 어. 게난 그런 식으로 허고 감사합니다.

비자남밧당
@1 삼춘.
#8 응?
@1 잠깐만 우리 할머니에 대헹 좀 얘기 헤줍서예. 이 당 일름이 무시거마씨?
#8 아까 비ᄌᆞ남밧당.
@1 비ᄌᆞ남밧당.
#8 밧당.
@1 예.
#8 ᄋᆞ.
@1 여기 옛날에 비자남 잇어나수과?
#8 몰라.
@1 그건 몰르고예?
#8 ᄋᆞ.
@1 여기 보난 할머니도 잇곡.
#8 ᄋᆞ, 이딘 큰할머니.
@1 예.
#8 할머니 하르부지가 아니고.

@1 예.
#8 여기 큰할머니, 여, 여기는 작은할머니.
@1 예.
#8 으. 그렇게만 뒈어 잇어. 여기는.
@1 아, 여기는 할머니가 두 분 잇구나예?
#8 으.
@1 예, 게믄 이 당에는 언제 오십니까?
#8 이 당에는 음력 정월 초삼일, 칠일.
@1 아, 초삼일허곡 초칠일.
#8 칠일.
@1 예.
#8 그때 못 오민 또 십삼일, 십칠일.
@1 아.
#8 으.
@1 게믄 정월에 와근에 할무니한티 세배허는 거구나.
#8 으. 게곡 나가 못 견딘 일이 잇다 허믄 아무 때나.
@1 아.
#8 아무 때나 왕 가도 복위 받곡, 덕도 잇곡.
@1 덕도 잇곡.
#8 으.
@1 게난 이 당은 이 대흘리 아까 하늘에서 한흘을 지켜주는 당, 할머니구나?
#8 으, 으.
@1 으.
#8 나 무사 와신고 허믄 이 밧 임제라 부난 아까 나ᄀᆞ라 당 ᄀᆞ르키렌 허는 거.
@1 예.
#8 이 당엔 아무나 경 오젠을 안 허여.
@1 예.
#8 어.
@1 게난 삼춘네 밧듸 이시난.
#8 으, 으.
@1 삼춘네는 덕을 하영 봠구나.
#8 으.
@1 할머니 덕.
#8 으.
@1 예.
#8 으, 그렇지.
@1 음.
#8 으. 아무 건강 뭐 엇이 기자.
@1 예.
#8 으.
@1 겡 올리도 왓당가고예?

#8 으.
@1 예, 예.
#8 난 일년에 흔 번은 똑 와.
@1 한 번은 똑 오곡.
#8 으. 오면은 재수도 좋곡.
@1 예.
#8 으, 몸도 건강하고.
@1 몸도 건강하고.
#8 맘 먹는 대로 뜻도 잘 뒈고.
@1 예, 이 할머니가 수덕 좋은 할머니구나?
#8 으, 그러는 거 닮아.
@1 예, 예.
#8 난 오면은 나 이 밧 임제 할망 와수다, 잘 뒈게 헤줍서. 아까 직원 말허듯이.
@1 예.
#8 펜안허곡 잘 뒈게 헤줍서. 경벳긔 안 헤.
@1 예.
#8 다른 말도 필요 엇곡.
@1 게난 이 당은 궹장히 오래된 당이다예?
#8 으, 그렇지.
@1 으.
#8 아유 역사가 나난 나온 당이니깐 오래됀.
@1 음.
#8 우린 설명도 몰르곡 본 것도 엇곡.
@1 응.
#8 으, 들은 대로벳긔 못 굴아.
@1 그니깐 삼춘네는 완전 다 이제 대흘이렌 헷잖아.
#8 으.
@1 한흘예?
#8 으.
@1 그니깐 할머니도 뎅겻고.
#8 으, 그렇지.
@1 예, 어머니네 뎅기고.
#8 으.
@1 그 얘기허면서 어무니네나 할머니네나 이 당에 대헤서 굴아준 것 중에.
#8 엇어.
@1 엇어.
#8 으.
@1 뭐렌 굴읍디가?
#8 아, 그자 나 본 거, 본 대로.
@1 본 대로예? 어머니네도 왕 허곡.
#8 으.

@1 음.
#8 본 대로, 들은 것도 별로 엇고 것벳긔 엇어.
@1 예. 알아수다. 당이 잘도 고운게, 이렇게, 동그랑허게시리 헤갖고.
#8 옛날은 왕 막 다녓는디 요즘은.
@1 음.
#8 시대가 그런 시대라.
@1 음.
#8 별로.
@1 음.
#8 나 밧 임제난 기자 영 잠깐 오곡, 아니믄 못 견딘 사름은 왕 가는 거 같고.
@1 예. 여기 보난 이렇게 지전이영, 예?
#8 우.
@1 걸려 잇는 거 보니깐. 실도.
#8 못 견딘 사름은 오곡.
@1 으.

수박농사

@1 수박은 어느 철에 헤마씨?
#7 옛날 걸로?
@1 으, 옛날허고 요즘허고 같이.
#7 아.
@1 옛날.
#7 옛날에는.
@1 으.
#7 어느 때고 지금이지.
@1 응.
#7 지금 이제 사월 이 뭐허난 한 오월, 오월 촌가 그때 뒈엉 밧 갈면은 옛날에는.
@1 으.
#7 씨로, 씨로 이렇게 영헹 찔러근엥에 헤나신디 병해충해가 엇이난 그거 산 거 거의 다 나.
@1 어.
#7 거의 다 나근엥에 허면은 옛날은 약도 안 치고 헤영 엄막 짓어근엥에 거 직허는디. 흔 번은 우리 친정할머니가 돌아가신디 우리 집의 아저씨가 나신디 저 널라근에 이거 직헴서, 날랑 가근엥에 저 영장밧듸 갓당 오커메 경 허연 흔 붉앙 둑 울 때쯤인가, 아니 난 직현 줌자는데 그 송당더레 가는 놈덜이 문딱 수박밧듸 들어완에 그냥 흔 스무남은 덩어리 그냥 다 **훼장 치는 것덜이라. 익지도 안허멍 따근엥에 탁 벌르민 설어시민 데껴불고 데껴불고 허멍. 경헨 헤나고. 지금은 그냥 밧듸서 목초, 목초 이젠 영 갈아근엥에 그 저, 수박 싱글 디만 놔둬 갈아근엥에 이젠 저 지금.
#2 멀칭.
#7 지금 이젠 밧 갈아근엥에 이젠 멀칭 헤영 이젠 오월달, 흔 오월 오일에서 흔 십일.
@1 으.

#7 늦으면은 훈 십오일 경헤근엥에 그냥 모종 사당 그대로 걸 싱거. 싱그멍 물 주곡 헤근엥에 싱겅 우에 또 비니루 또 이젠 씨영. 그추룩허민 끗.

@1 예전엔 무사 그 수박 헐 때 고사도 지냇덴 허지 안헤수과?

#7 옛날엔 수박 헐 땐 문어 헤다근엥에 쏢앙.

@1 응.

#7 경헤근엥에 옛날은 이제 ᄀᆞ치 뭐 안허난 소리바굼지 요멘이 헌 것에 밥헤근엥에 강 절허곡 헤근에 그걸로 케우려.

@1 음.

#7 수박 잘 뒈게시리 헤줍서 헤연 이젠 그추룩 헤나고.

@1 요렇게 쪽은 거를 소리바굼지렌 헤?

#7 소리바굼지.

@1 어.

#7 요만이 헌 소리바굼지.

@1 으.

#7 큰 것도 싯주만은 요만이헌 소리바굼지에 밥 훈 둘리나 훈 사름 먹을 거, 요만이 쪼그만헌 거, 소리바굼지에 헹 강 차롱 차로 놓곡 문어 놔근엥에 케우리믄 잘 뒈게시리 헤줍서.

#2 옛날 수박 놓젠 허면 구뎅이 팡 걸름 놓곡 비료 놓곡 그 말부떠 ᄀᆞᆯ아야주.

#7 아이, 우린 그추룩 안 헤나부니깐.(웃음) 우린 그런 거 안 헤난.

@1 삼춘이 ᄀᆞᆯ읍서, 게건.

#1 저 수박덜 놓젠 허면이.

@1 으.

#1 그 저 씨로들 수박을 놓아낫어. 요즘은 저 접 부쩡 허주만은 씨로 놓는, 저 접 부찔 줄도 몰르고 겨민 씨 놓앙 저, 허여신디 씨 놓앙 수박허기 전에 문 새밧덜 갈앗주기게.

@1 예.

#1 따비 허영 따비 헤영 새밧 갈앙 이젠 그 새밧 갈민 그거 문 벙뎅이 저 궹이로 허영 벙뎅이 문 부셩 북삭허게 헨 멘들아 놩 경 허영 구뎅이로 그냥 저 훈 두어 발에 ᄒᆞ나씩 허영 구뎅이 팡, 구뎅이 파근에 이제 또 그레 엿날 쉐들 하영 질룰 때난 거름 놓곡, 거름 놓곡 허여근에 굿 올령 그레 씨를 찌르주게. 씨를 훈 대여섯 방울씩, 씨를 찔러, 씨를 찔르민 수박은 저, 씨가 잘 나게. 겡 대여섯 개 나. 대여섯 개 영헤영 저, 그냥 저 영 줍아놔근에 헤영 허민 날 거 아니라? 게민 그거 키우젠 허민이 버렝이덜 하영 궤영 그거 저 떡입 나민 거 톧아 먹어 불어게. 톧아 먹어 가민 이제 그거 톧아 먹지 못허게, 엿날은 그 저 디디티가 잇어, 디디티 허여근에 거 미녕 험벅에 저, 미녕, 미녕 험벅이주. 미녕 험벅에 헤영 저 찰리 멘들앙 그거 디디티 영헤영 쌍. 게영 그 수박 모종 저 커가는 거 우트레 디디티 영 뿌리주게 막뎅이로 영 허영 영 톡톡 두드려가민 미녕이난 영 톡톡 털어지주게.

#2 베 험벅이주, 베 험벅.

#1 디디티 ᄀᆞ루가. 겨민 그 모, 수박 모종 우듸 디디티가 부떠 불민 버렝이덜이 저 잘 먹질 안허여. 경 헤영 키왕 놔두민 이제 그거 저 그 대여섯 개 영 헤영 난 거 이젠.

#2 소까.

#1 수박 소끄는 거라, 소끄민 저 ᄒᆞ나 씩 넹겨사 뒐 건디 욕심부리는 사름은 두 개도 넹기고, 세 개도 넹기곡 허여근에 그냥 사방으로 영 헹 벌기주. 벌겨근에 어, 허민 엿날은 이제 접순 똗을 중도 몰랑 그냥 그냥 키우는 거라, 그냥. 그냥 키우는디 난 그런 어, 영도 헤밧어, 엿

날은 이디 저 그 저 멜장시덜이 하영 뎅겨나서게. 게영 웃드르에 왕 멜 풀다근에 멜 저 오래 가민 저, 썩어불 거 아니? 썩고 헤불민 이제 풀지 못허영 허민 막 싸게 주어낫어, 싸게 주난 난 이제 저, 물똥 줏어당 물똥 하영 줏어다근에 에, 놔뒀당 물, 멜장시 오민 그거 싸게 헤영 사근에 물똥 한 징 놓곡, 멜 ᄒᆞ, ᄒᆞ꼼씩 영헹 뿌리곡 헤영 그냥 퉤비를 멘들안 놔서, 퉤비를 멘들앙 놧다근에 이젠 그걸 수박 놓젠 구뎅이 팡 그걸 담앙 허난이 저 그 수박이 잘도 훍어.

@1 으.

#1 이디 저 김○○이엔 헌 거허고, 저 차○○엔 헌 거 우리 나 쉐 저 정둣밧듸 놓안, 수박 직허염시난이. 에, 그 구신덜 둘이 올라완이, 요디 저 석 자짜리 저, 저, 수박 나오민 자기 그 저 김○○이엔 헌 건 자기 시계 내기허켄 경 허더라고.

@1 으.

#1 자기 시계 주켄 허더라고, 게민 좋다, 겡 허연 칙줄 걷언, 저 끊어단이 석 자 뽐안 영 허난이 그 ᄉᆞ방에만도 석 자 자리가 막 나와. 시계 도렌.

#1 나 막 경헤낫어.

@1 으.

#1 사름 우습게들 여견, 그게 그냥 물똥 허연. 그 저, 저 멜 놓안 헨 썩으난 그렇게 수박이 잘 뒈더라고. 경 헨덜 수박들 놓아낫주게. 경헤연.

@1 그 순 영 따주진 안헙니까?

#1 순, 엿날은 순 땀이랑말앙 그냥, 그냥 키왓어, 그냥. 그냥 키왕 허고 요즘은 저 순덜 따 주만은 엿날, 엿날은 그냥 헷어. 그냥 허영 저 웻, 웻막이나 짓엉이. 엿날은 저 먹을 거 엇이 난산디 그냥 놈이 수박밧듸 강 서리 저, 타가붐을 걸 잘헤서게.

@1 음.

#1 어디 쉐 보레 가멍도 타가 불곡, 물 보레 가멍도 타가 불고, 경헤여. 경허난 문 저 웻막 짓어근에 웻막도 들어가는 입구도 하나 냉겨둰 욜로 담고망 내곡, 절로도 담고망 내곡 허영 ᄉᆡ 군데 고망을 내어.

@1 응.

#1 영 게영 고망으로 헤영 누게 타레 온 사람이나 엇인가 헤영 ᄉᆞᆯ펴낫주게, 경헨. 경 헤영 그냥 으, 상인덜앞이 오민 풀곡. 경 아녀민 오지 아녕 풀 사름은 구루마에 시껑 성에서 성안장에 가근에 풀아오곡 헷주게.

@1 겨믄 이제는 귤농사들도 하영 허잖아예? 여기 대흘이 귤은 언제부터?

#1 귤은 여기도 육십 년대 말부떠 헷주.

@1 음.

#1 으, 육십 년대 말부떠 어, 덜 허엿주만은 으, 그때 헌 거는 거의 이문주덜이. 이문주엔 허믄 만생이라게.

@1 예, 예.

#1 만생 미깡낭덜 싱경 감귤나무덜 싱경 헌 사람들은 그렇게 수확덜 못 보단, 조생 싱근 사람덜은 저, 수확을 좀 봣주. 그때도 일본서 묘목을 와신디, ᄋᆞ망진 사람은 그냥 이파리도 너풀너풀허곡, 지러기도 질곡 헌 걸 가져가고.

@1 응.

#1 나ᄀᆞ치 미련헌 사름은 그냥 이파리도 쫄릉쫄릉허곡 그냥 낭도 졸른졸른헌 거, 어, 사당 싱근 사름은 조생을 가져당 싱그난 수확을 하영 보곡.

@1 응.

#1 읏망진 사름은 저 이문주.

@1 만생.

#1 으, 만생 싱그, 가졍 강. 그냥 올지도 아녀고, 애먹언 허단 문 끊언 다시덜 접 부찌멍 헷주. 겨난 미련헌 놈이 이겻어.(웃음)

@1 예.(웃음) 경허고 이젠 아까 저기 레드향도 헌덴 허멍예?

#1 이제 요즘은게, 하우스덜.

@1 미깡 수확철은 계절이 엇입니까?

#3 무사 엇어게.

#1 뭐, 계절이엔 허믄 거의 저, 어, 요즘은 어, 옛날 닮지 아녕 극조생부터 어, 하우스 만생꺼지 나오난.

#3 사시사철 나왐주게.

#1 이젠 팔월부떠 수확허면은 지금까지, 지금까지 수확을 허주.

@1 지금도예?

#1 예, 하우스허는 사람덜 지금까지 여, 수확덜 요작이, 요작이꺼지덜 수확덜 헷어.

@1 고맙습니다.

5. 조천읍 신흥리

- 조사 일시: 2021년 11월 8일
- 조사 장소: 조천읍 신흥리 복지회관
- 조사자: @1 김순자 @2 김미진 @3 최연미 @4 오경임
- 제보자: #1 김석은 #2 강치훈 #3 손정국

조사 마을

@1 옛날에 신흥 사람들은 이 마을 이름을 무시거렌 불럿수과?

#1 저, 그 엿날 엿날부터 왯개.

@1 왯개. 아, 게믄 이 동네를 왯개렌 헌 거라예?

#1 옛날에 왯개라고 하고, 내포라고도 허고.

@1 왯개, 왜포렌도 허고예?

#1 내포, 내포.

@1 아, 내포. 아, 내포렌 허고예? 게믄 이 신흥리가 멧 개 마을로 이루어젼마씨?

#1 엿날은 이거 신흥리가 에 독립헤 가지고 단독 그 왯개, 아 그 저 신흥리 이름이 부찌기 전에.

@1 예.

#1 옛날 이름을 부쪗는데 그 후에 이 마을, 요 진입로를 중심으로 헤 가지고, 서쪽은 조천에 속헤 잇고.

@1 예.

#1 동쪽은 함덕에 속헤 가지고 행정구역이 나눠졌습니다.

@1 예.

#1 그래 가지고 저 천구백십오 년.

@1 예.

#1 백 년, 그러니까 백 흔 이삼 년 전에 이디가 독립이 뒛거든요.

@1 예.

#1 독립 뒈 가지고 그때부떠 신흥리라는 명칭이 부떳어요.

@1 아.

#1 예.

@1 삼춘 우리 제주도 말로 그냥 굴아줘도 뒈예.

#1 예, 예.

@1 제주도, 이 동네 말로예. 게믄 지금 신흥리는 웃동네 알동네 허는 식으로 멧 개 자연마을로 이루어진 거라마씨?

#1 저 삼 개 동으로 이루어졋습니다.

@1 삼 개 동예?

#1 예.

@1 삼 개 동이 무시거, 무시거마씨?

#1 동동[동똥]

@1 예.

#1 중동[중똥]
@1 음.
#1 서동.
@1 음. 게믄 이거는 뭐 동동네, 중동네 이런 말은 안 써마씨? 여기선.
#1 여기선 잘 안 씁니다. 옛날은 써낫지.
@1 예, 옛날은 뭐렌 써?
#1 옛날은 많이 써낫지. 옛날은 많이 썻는데 지금은 뭐 신흥리로 통헤 가지고.
@1 예, 알앗수다. 그 이 동네는 오름 같은 건 엇곡?
#1 예, 오름은 엇고. 저기 저 쪼끄만헌 연딧동산이라고 헤 가지고 연딧동산이라 헤 가지고 동산이 잇는데.
@1 예.
#1 거기는 지금, 에, 제주도 자연사 그 뭘로 헤 가지고 옛날 그 봉화대 잇지 않습니까?
@1 예, 예. 예.
#1 봉화, 그것이.
#3 연대, 연대.
#1 연대가 잇어 가지고, 저기 저 서우봉하고, 신흥하고, 조천 연대허고 이렇게 연결뒈 가지고. 신호를 밤에는 불을 피와 가지고 허고, 낮에는 연기를 피와 가지고 이제 그 신호를 헷어요.
@1 예, 예. 게난 그 연딧동산은 그냥 여기는 연딧동산이렌만 헤마씨?
#1 예, 연딧동산.
#3 연딧동산.
@1 연딧동산예? 여기 보난 물들이 막 좋읍디다예?
#1 물?
@1 예.
#1 옛날엔 물이 신흥리 그 해변가를 중심으로 헤 가지고 여러 군데서 많이 그 용천수가 나왓는데. 지금은 족은 용천수들은 거의 다 말라 버리고, 이 부근에 잇는 용천수가 많이 좋습니다.
@1 예.
#1 물 수량도 많고.
@1 예. 그 저 물 이름은 무신거우꽈? 여기 보난.
#1 ᄉᆞ나이물, 예펜물, 게난 큰물.
@ 예.
#1 여기가 제일 큰 디가 큰물이고.
@1 예.
#1 저쪽은 남자 모욕탕 잇는데 사나이물이고.
@1 ᄉᆞ나이물.
#1 음.
@1 여자 목욕탕은?
#1 여자 목욕탕은 큰물 안네, 그 동서로 나눠져 가지고.
@1 예.
#1 엿날은 동쪽 담 이렇게 다와 가지고, 동쪽은 동쪽에 잇는 그 연인네들이 빨래도 허곡, 여름에는 모욕도 허곡.

@1 으.
#1 서쪽은 서쪽에 잇는 건 헤 가지고 헷는데. 지금 하나로 묶여 잇어.
@1 예.
#1 뭐 저 시설 뒈 가지고, 그렇게 공동으로 사용헙니다.
@1 요쪽 도로 보니까, 요 오른쪽에도 조그만한 물.
#3 건 ᄉᆞ나이물.
#1 ᄉᆞ나이물.
@1 거기 ᄉᆞ나이물?
#3 남자들만 모욕허는 곳.
@1 게믄 저 큰물은 여자들 먹기도 허고.
#1 여자덜 빨래도 허곡, 먹곡, 채소도 씻곡.
@ 예. 게믄 옛날에는 큰물, 큰물 헷구나예?
#1 예. 큰물허곡 또 큰물 바로 우에.
#3 먹는물.
#1 먹, 먹는물이 잇엇습니다.
@1 그 먹는물 이름은 무시거마씨?
#3 그 마찬가지 큰물로 그냥.
#1 큰물로 헤 가지고 연결뒌 거주.
@1 예, 그런 물통들이 잇엇던 거구나예? 여기 말고 물통이 잇는 거 엇수과? 이런 용천수.
#1 용천수는 엿날에 많이 잇엇는데 지금은 엇수다. 거의 다 말라 버려 가지고.

당
@1 그다음에 이 동네 당도 유명하잖아예?
#1 예.
@1 그 당 이름은 무시거마씨?
#1 여기 볼레낭할망당인데.
@1 예.
#1 옛날엔 거 하르방당이 잇고 할망당이, 할망당이 볼레낭할망당이고.
@1 으.
#1 하르방당이 잇엇는데 하나로, 이 하르방당을 이제 할망당으로.
@1 모션?
#1 옮겨 가지고 이젠 갓지.
@1 아, 게민 부부가 이렇게.
#1 부부가 아니고, 전혀 관계 없는 할망 하르방 당이주게.
@1 아, 할망 하르방 당이 한 군데에 다 이신 거라예?
#1 예에.
@1 그 당에는 언제 가마씨? 여기서는.
#1 음?
@1 이 동네 사람들 언제 갑니까? 당에.
#1 정월덜에도 가고, 삼월덜에도 가고. 음력에.
@1 예. 정월 가고.

#1 이제 거의 다.

@1 예.

#1 신흥리 출신 신흥리에서 생활허다가 웨지로 나간 분, 또 또 일본으로 나가신 분들, 일본에 나가신 분들은 볼레낭할망당에 가끔 찾아오는 그 교포들이 잇는데.

@1 예.

#1 거기서 좀 사업도 잘 안 뒈고, 좀 뭐가 헷을 때는 고향 방문 헷을 때는 그 당을 찾아갑니다.

@1 음.

#1 그리고 신흥리 거주하다가 웨지에 가서 사는 분들토 가끔 일 년에 한 번씩 와 가지고 이제 할망당을 찾아 가는 그런 경우가 잇습니다.

@1 이 동네에서는 뭐 거기가 본향이우꽈? 할망당이. 본향당 이런 말은 안 헙니까?

#3 본향.

#1 본향당.

#3 거기가 본향.

포제

@1 거기가 본향당예? 게믄 동네에서는 아까 삼월에 허고 정월에 헌덴 헷잖아예? 그때는 마을에서 강 제도 지내마씨? 심방 와 갖고.

#1 마을에서 헐 때는 뭐가 이 저 마을제 헐 때 포제, 포제라고 허는데.

@1 예.

#1 포제 헐 때도 가곡 또 해녀 해신제 헐 때도 그 당을 찾아 갑니다.

@1 아.

#1 그리고 신흥 주민덜토 뭐 쪼끔 뭐 헐 때는 찾아가고. 일 년 멧 번씩 찾아가는 분덜도 계세요.

@1 예. 그 우리 삼춘 포제는 언제 헤마씨? 여기 신흥리 그때.

#1 예. 음력 일월달에 헙니다.

@1 음력 일월 언제마씨?

#1 일월덜에 정축일. 아, 정해일을 택헤 가지고.

@1 음.

#1 에 그 일월덜 전에는 십이월, 음력 십이월덜에도 입춘뒐 때가 잇곡. 일월덜에도 입춘 뒐 때가 잇는데, 입춘이 들어 가지고 정해일을 택헤 가지고 헙니다.

@1 아아, 정해일에예?

#1 예.

@1 이거는 포제 일 년에 딱 한 번예?

#1 한 번.

@1 한 번. 아까 그 볼레낭할망당 가는 거는 메칠날 가마씨? 여기는 음력 정월에.

#1 음력? 그러니까 마을 포제허는 날.

@1 예.

#1 포제가 끗나는 날 저녁, 아침부떠 시작헤 가지고 그 저 해신제를 허거든요.

@1 아. 포제날 해신제를 헤예?

#1 예에.

@1 아아.
#1 그 해신제를 허면은 그 해신제에서 그 당을 찾아 갑니다.
@1 음.
#1 거기 가서 이제.
#3 게고 이 당에는 마을에서는 그렇게 가지만은.
@1 으.
#3 평소에는 그 가정에 식구들이 안녕을 빌기 위헤서도 가고.
@1 예.
#3 어린애들이 넉들이, 넉 낫을 때, 넉들이기 위헤서도 가고.
@1 예.
#3 어, 그렇게 이용을 헤요.
@1 예.
#3 가정에서덜토 이용을 헙니다.
@1 가정에서도 이제 개인적으로.
#1 예.
#3 개인적으로도.
@1 마을 자체에서 헐 때는 포제허는 날.
#3 포제허는 날.
@1 포제 끗난 다음에 해신제.
#3 해신제 끗나고 포신제 끗나고.
@1 해신제는 어디서 헤마씨?
#3 어촌계.
#1 어촌계 사무실.
@1 아. 어촌계 사무실에서 헌 다음에, 또 할망한테 강은에 우리 오늘 영영 헴수다.
#1 예.
@1 아, 고허는 거구나. 게믄 이렇게 하고. 삼월에는 언제 가마씨? 아까 볼레낭.
#1 볼레낭할망당 삼월덜은 옛날은 그 각 가정마다 삼월에 그 벨롱겡이, 벨롱겡이는.
@1 예, 벨롱겡이.
#1 벨롱겡이는 그 문전제주게. 즉 말허자면.
@1 예, 예.
#1 그거를 많이 헷는데.
@1 음.
#1 지금은 뭐 허는 집, 허는 가정이 멧 가정이 안 뒈고. 그렇게 헤 가지고 당을 잘 이용을 안 허는디 옛날은 정월덜 날을 택헤 가지고, 벨롱겡이 허는 날을 택헤 가지고, 허믄 그날 허기 전에.
@1 예.
#1 당을 찾아가 가지고 이제 기도 드리고, 집에 돌아와 가지고 집이서 문전제를 지내는데. 저 또 삼월달에는 칠성제라고 헤 가지고, 거 각 가정마다 차이가 잇습니다.
@1 예.
#1 일 년에 딱 문전제만 지내 가지고 벨롱겡이만 헤 가지고 끝나는 집도 잇고, 삼 년에 한 번 칠성제를 지내는 집도 잇고.

@1 음. 칠성제도 헤예?
#1 예, 옛날에 칠성제 많이 헷주.
@1 칠성제는 누게를 위한 거우꽈?
#1 그 저 저 자손덜 잘 뒈게 위헤 가지고.
@1 아, 그러면 뭐.
#1 가정, 가정의 평화가 더 잇고 뭐.
@1 그걸 이 동네에서는 칠성제렌 골아예? 거 북두칠성인가마씨?
#1 예, 북두칠성에. 그런데 북쪽으로 향헤 가지고 이제 그 제를 지내는.
@1 아. 삼월에? 음력 삼월?
#1 예.
@1 예, 이런 벨롱겡이라는 이런 말들이 우리가 중요한 거마씨.
#1 음.

문화재

@1 요런 것들 이제 하는 거고예. 그다음에 이 마을에 특이한 문화재 이시카마씨?
#1 문화재옌 헌 건 회장님이.
@1 문화재에는 우리 회장님이 골으렌 헴수다.
#3 특이한 문화재가 엇주.
@1 게도 우리 지난번에 이 마을에 백 년 뒈근에 뭐 이런 행사들도 헷덴 허는데 그런 특별하게.
#3 그 옛날에는 그 저 그 걸궁 헌 것이 그 정월달에 헷수과? 집집마다 지신밟기.
#1 음. 정월달에도 허곡, 팔월, 팔월 멩질에도 허곡 허주.

걸궁

@1 아, 멩질에 허면 걸궁을.
#3 걸궁, 걸궁.
@1 걸궁예?
#1 예.
#3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이제 그 놀이패들 하면서, 어, 그 지신밟기 옛날 허는 걸궁.
@1 예. 알앗수다. 그거는 이따가 또 다시 들어보고.
#3 문화재 옛날 그런 거 헷엇고.
@1 예.
#3 특이허게 허는 문화재는 엇곡.

일월

정월 멩질

@1 알앗수다. 그러면 이제부떠는 정월부터 한 번 들어가 보크라예? 삼춘 정월 멩질 허젠 허면 요즘은 정월 멩질 여기서 언제 헙니까? 음력 헙니까? 양력 헙니까?
#1 거의 다 음력.
@1 거의 다 음력예.

#1 딱 한 군데 양력 허는 가정이 잇습니다.
@1 아, 아직도예.
#1 예.
@1 아. 그러면 정월 멩질 허젠 허면, 준비는 메칠 전부떠 헤마씨?
#1 준비는 보통이 하루, 이틀 정도. 요새는 전에는 그 모든 것이 제물 ᄀᆞ뜬 것 출리젠 허면은 상당이 어려왓는데 지금은 마트 같은 거 잇으니까.
@1 예.
#1 그 담날, 전날 전날 가 가지고 거의 다 봐 옵니다, 장을.
@1 요즘은예.
#1 예.
@1 게도 옛날에는 정월 멩질 출리젠 허면 여자들이 일이 하서예? 어떤 일들을 헤신가?
#3 몸 정성들을 헤야지. 몸 정성.
@1 몸 정성, 음.
#3 몸 정성, 남자도 몸 정성을 삼 일 동안 하고.

떡국멩질

@1 음. 그 전날에 여기 뭐 떡국멩질 이런 거는 안 헤신가마씨?
#1 허는 가정도 잇습니다.
@1 그건 어떤 거를 떡국멩질이엔 허는 거우꽈?
#1 떡국멩질 그 전날.
@1 음.
#1 전날, 그 저 저, 당일날 정월 초ᄒᆞ를날.
@ 예.
#1 제 지내기 전에 밝아올 무렵에 이제 떡국을 끓여 가지고, 이제 뭐 즉 말하면 고시레.
@1 음.
#1 고시레도 허고. 이렇게 헤 가지고 이제 끗나면은 먹는데.
@1 음.
#1 그거 먹은 다음 이제 제를 뭐 허거든요.
@1 음.
#1 저 정월 멩질 제를 지냅니다.
@1 게난 삼춘네도 떡국멩질 헤난마씨?
#1 예, 옛날에 헤낫습니다만 지금은 아니.
@1 게난 그때 떡국멩질은 무슨 떡을 올렷수과? 떡국을.
#1 떡국 거의 다 이제.
#3 가래떡 헤근에.
#1 가래떡.
#3 이게 그거 썰고, 모믈 헤영 국수 만들엉.
#1 모믈국수.
@1 모믈국수를 주로 헷지예?
#3 서꺼 가지고.
@1 아, 서껑도 헙니까?

#3 서꺼근에.

@1 우리 회장님도 떡국멩질 헷구나?

#3 응, 떡국.

@1 게믄 날 붉아올 때 정도민 멧 시우꽈? 그때가 보통.

#1 정월달이 뒈면은 보통 요새 모르면 한 일곱 시 뒈야죠. 막 어둡네 일곱 시 전에.

@1 것도 집안마다 ᄒᆞ꼼씩 ᄐᆞ난 거 닮아예?

#1 예, 예. 여섯 시 일곱 시 사이에 허는 거.

@1 그러면 준비는 전날헷다가 아침에 날 붉아올 쯤에 떡국멩질 헤근에 조상덜안티도 올리고.

#1 예.

@1 음. 겡 그 그 조상안티 올려난 걸 아까 고시레도 허는 거라마씨?

#1 고시레, 고시레 허는 것도 잇고. 거 조상 앞이 올려난 다음에 자손들이 먹고. 또 지붕 위에 고시레도 허고.

@1 여기 지붕 우에, 지붕 위에 올리는 거를 건 육짓말 고시레고. 여기선 지붕 위에 올리는 걸 무신거엔 ᄀᆞᆯ읍니까?

#1 여기서?

@1 으.

#1 지붕 위에 올리는 거.

@1 으, 걸명 이런.

#3 잡세 헤 가지고.

#1 잡세지, 잡세.

#3 잡세 헤난 거 지붕 위에 올리는 거주.

#1 잡세.

#3 음식을 제 지내난 거를.

@1 예.

#1 전부 헤 가지고.

#3 쪼금씩 쪼금씩 다 모아 가지고. 어, 그 신들에게 대접을 하기 위헤서 지붕 위로 올리는 거.

@1 예. 요즘은 지붕 엇어 부난 다른 데 강 비우고예?

#1 예.

#3 으.

@1 그거를 잡세렌 헤마씨, 여기서?

#1 음.

#3 잡세옌.

@1 아. 잡세. 거난 음식을 쪼끔씩 쪼끔씩 허는 거를 잡세 헌덴예?

#3 제 지내난 음식.

@1 예.

#3 제물 헤낫던 음식들을 다 모아 가지고, 어.

@1 걸 잡세라고 하는구나. 그런 잡세 이런 말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3 이레 옵서, 이레 와근에 물어볼 것덜 이디. 옛날 잇어난 얘기들 좀 물어볼 거 이시난. 그레 앚아근에.

#1 그 해신제 지내난 말이영.

차례상

@1 삼춘 잇당 물어보면 대답허면 뭴 거예? 그다음에 잡세헤 갖고 하고. 그 주로 그 정월 멩질에 출리는예, 제물들은 무신 거 출려? 상에 뭐 뭐 올려마씨?

#1 과일, 엿날엔 과일 삼 종 정도벳긔 안 허고, 지금은 오 종, 보통 오 종 올리는데 옛날엔 삼 종.

@1 옛날 삼 종 할 때는 무신거 무신거 올려신고예?

#1 옛날 미깡, 저 뎅우지 잇잖아, 뎅우지, 뎅우지가 주 저 과일이고. 또 배.

#3 배.

@1 음.

#1 사과.

#3 사과. 이 정도?

@1 이 정도고. 요즘 오 종 헐 때는 뭐헴수과?

#1 오 종?

@1 예.

#1 배, 사과허고 귤허고 밤허고 또 곶감, 곶감이나 감이나.

#3 포도도 올리고 바나나도 올리고.

#1 집마다 틀리주. 꼭 정해진 건 아니고.

@1 예. 삼춘네는 곶감허고 이제 밤허고 올렴구나예?

#1 음.

#3 대추도 올리고.

@1 대추도 올릴 수 잇고예?

#3 큰 크게시리헐 때는 비자도 올리고.

@1 비자도 올리고. 그 삼춘네 그 떡 같은 거는 어떤 떡들 올려마씨, 이 동네는?

#1 떡은 엿날엔 그 저 모믈떡 이렇게 삼각, 헤 가지고 모믈떡으로 헤 가지고 이제 송편도 만들고.

@1 음.

#1 또 시리떡 만들어 가지고 것도 이제가찌 그 시리떡 우에 송편 놓고, 지름떡.

@1 예.

#1 옛날 지름떡. 지름떡은 다 집에서 찰떡으로 가루 만들어 가지고 하니까 상당히 엿날은 그 지름떡 먹는 것도 맛잇고[마딛꼬] 헷는데. 요새는 거의 다 이제 그 떡집에 가 가지고, 떡집에 가 가지고. 떡 하나 올리는데 하나 올리는 사람이 잇고 세 개 올리는 사람도 잇고 지름떡은. 형식적이지.

#3 생이떡도 올리주. 생이떡.

#1 세미떡.

@1 세미떡.

#1 요렇게.

@1 반달 모양.

#1 반달 모양으로 뒌 거이.

@1 거난 여기는 이 땅들이 다른 지역보다 좀 작은 편이우꽈? 이 동네는 바당 동네여서.

#1 예, 작아요.
@1 그니깐 쌀로 곤쏠로 헤 가지고 떡을 잘 허진 안헷구나예? 모멀로 하영 헹.
#1 모멀로도 허고.
#2 쏠로 많이 허주.
#1 곤쏠은 받아다가. (웃음)
@1 받아다가. 자, 우리 떡허는 거, 준비 하는 거, 우리 여자 삼춘이 하영 허니까.

멩질 준비하기

@1 그 아까 이제 그 정월 멩질에 그 얘기 헴거든마씨. 그 떡들허고 제숙 준비허는 거. 건 여기 여자 삼춘안티 들어 보쿠다.
#2 제숙?
@1 으.
#1 제물. 제물.
@1 제물. 제숙 헐 땐 제숙은 뭐 준비헴수과? 여기서는.
#2 응, 돼지고기허고 소고기허고.
@1 바당 거는?
#2 바당 거? 조기.
@1 조기로?
#2 으, 으.
#3 우럭.
#1 옛날은 우럭을 많이 헷주.
#2 옛날은 우럭 헤낫주만은 이젠 조기.
@1 이젠 조기?
#2 느 나 할 거 엇이 조기.
@1 조기.
#1 옥, 옥돔 ᄀᆞ뜬 거.
#2 옥돔허고.
@1 옥돔허고예? 아, 예전에는 우럭들을 이 동네는.
#2 많이 허주, 우럭.

멩질떡

@1 다 여기 잡아당 허는 거. 그 삼춘네 집안엔 떡 올리는 거, 뭐 뭐 올리멘?
#2 떡?
@1 예.
#2 송편허곡.
@1 송편허곡.
#2 기름떡허곡.
@1 예.
#2 이젠 설기떡헤당 놓곡. 거 뿐이주.
@1 설기떡예? 게난 떡 종류덜은 하영 올리진 안헴구나?
#2 응.

#3 침떡, 침떡, 침떡.
@1 예, 침떡이 아까 설기떡?
#2 음, 음.
@1 위에 기름떡은 꼭 올렴구나예?
#2 음, 위에 기름떡 놓주.
@1 이 동네는 계란 지져 갖고 더끄지.
#2 왜 그거는 저 적허여근에 올리는 디 계란 지졍 올리고.
@1 아, 적 우에 올립니까?
#2 으.
@1 게믄, 적은 어떵 쌓아마씨, 영 올릴 때?
#3 동그락허게 만들엉 적 우에 영 걸치는 거주.
#2 걸치는 거.
@1 게믄 소고기 뒈지고기적 같이 놓고.
#3 음.
@1 그 우에 그걸 이름을 뭐렌 굴읍니까? 그거는.
#3 뭐?
@1 계란전?
#2 계란전.
#1 독세기전.
#2 엿날은 독세기전.
#1, 2 (웃음)
#3 독세기전이주, 독세기전.
@1 혹시 이 독세기전 올리는 이유가 이시카마씨?
#2 저이 고사리 놩 이젠 그걸 지지민, 왕 먹엉 갈 땐 그것에 쌍 간덴. (웃음)
@1 아, 독세기전에. 게믄 그 계란전 헐 때 고사리 멧 개 영 놓지 안헙니까예? 거 멧 개 놔? 여기에.
#2 아이, 그건 뭔 이녁 놓구정 헌 대로 놓는 거난,
@1 고사리도 이렇게 세 가달 이렇게 헌 걸로 놓넨 헙디다? 지게 헹 갈 거렌 헹.
#1 으.
@1 그런 말도 잇수과?
#2 두 개도 놓곡 세 개도 놓곡이. 겨민이 파 헤근에게 또 실파 헹 영 헹 가운데 노민 파랑 허주게.
@1 게믄 곱고예?
#2 으.
@1 거는 조상들이 왕은에 떡이영 이거 쌍 갈 걸로 계랄전 올리는 거.
#2 (웃음)
#3 (웃음)
@1 독세기전 올리는 거예? 게난 이 독세기전 허는 데가 이 동쪽예? 또 안 허는 데도 잇드라고마씨?
#2 아.
@1 예. 동네마다 ᄯᅳ나. 그러면.

#3 아, 맞아 틀려.

@1 이 동네는 바당 동네니까 특별히 바당에 걸로 더 올리는 건 엇수과? 오징어를 올리든가. 문어를.

#2 오징어도 쓰지.

#3 문어.

#1 소라적 헤 가지고. 소라.

@1 소라적도 올리고.

#3 문어적도 올리고.

@1 문어적도 올려. 여기는예? 음.

#2 다 이녁네 각각이 틀려.

@1 집집마다 뚜나고예? 예, 맞수다.

#1 ᄒᆞ꼼 낫게 허는 사름은 또 이것저것 허고.

과세

@1 예. 거난 아무래도 바당 동네니까 바당 동네 것들을예, 좀 하는 거 닮아예? 그 다음에 옛날에 세배들.

#1 세배?

@1 예. 세배 뎅기는 과세?

#1 아, 옛날은.

#3 과세.

@1 메칠 헷수과? 과세허젠 허믄 여자들이 엄청 고생헷덴 헨게.

#3 (웃음)

@1 음식 허느라고.

#1 경우에 따라서 뭐 ᄒᆞᆫ 열.

#2 ᄒᆞᆫ 열흘.

#1 열흘도 저기서 저 저 육지서 사름 오게 뒈면 열흘 후에도 허곡.

#2 경 안 허민 그자.

#1 동네 사는 분덜은 뭐 당일에도 끗나고 뭐, 이삼일, 삼일까지도 다니곡.

@1 요즘은 어떵 헴수과?

#2 요즘엔 잘 안 다니주게.

@1 요즘은 안 다니고. 혹시 마을에서 세배 허는 날 헤마씨?

#1 예, 마을에서 여기서. 우리 노인정에서 모여 가지고, 저기 나이 기준을 헤 가지고예.

#3 합동으로.

#1 칠십 세 이상은 여기 앉아 가지고 과세 받고. 칠십 세 이하 분들은 사 가지고 절허면은 우리가 받는 거고. 나이별로 이제 과세를 헙니다.

@1 나이별로예. 게믄 이제 먼저 받은 다음에 칠십 대 앉으면 또 세배허고. 음. 거난 그거는 언제 헤마씨? 마을 과세하는 거.

#1 마을 과세는 정월 음력, 아니 음력이 아니고.

#3 일월 일일날.

#1 일월 일일날.

@1 아, 양력으로 과세는 미리 받아 불엄구나. 아, 양력 일월 일일예?

#3 떡국 헤 먹으면서.
@1 아, 그날은 뭐.
#3 떡국 헤 먹고.
@1 떡국 헤 먹고? 건 누게가 출려?
#1 그거는예.
#3 그거는 여기서 그냥 공동으로 출려근에.
#1 우리 자체에서도 출리고 또 웨지에서 살던.
#3 부녀, 부녀회에서.
#1 자식덜토 와 가 출리고.
@1 아, 게믄 일월 일일 양력 일월 일일 신흥리 오면 떡국 얻어먹을 수 잇구나.
#1 으, 으. 얻어 먹을 수 잇어.
#2 (웃음)
#1 겨고 절도 나이 들면 절도 받을 수 잇어.
(웃음)
@1 절도 받을 수 잇고. 혹시 절허면 세벳돈도 줍니까?
#1 세벳돈사.
#3 가정에서 그거는 가정에서.
@1 그건 가정에서 주고. 아니 난 세뱃돈이나 받아지카부덴 헤신디.
#2 (웃음)
#3 건 가정에서.

세뱃돈

@1 옛날엔 세뱃돈들은 어떵헷수과?
#1 옛날?
#2 옛날도 줘주게.
@1 예.
#2 하영은 안 줘도 족게.
@1 으. 세뱃돈들은.
#2 흔 천 원.
#1 만 원 주는디, 옛날은 우리 우리 어린 때는 만 원 주는 디도 엇고.
#2 으.
#1 그때는 천 원짜리도 엇고. 오 원, 일 원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이 화폐가 뒈 잇어 가지고, 우리 커 올 때는 거 받앗던, 받아본.
#2 없어.
#1 예가 별로 엇인 것 같애.
@1 일 원짜리는 받아 보긴 헙디가?
#1 일 원짜리 종이 지페.
@1 예. 지페.
#1 종이 지페.
@1 그거 받아 보긴 허고예?
#1 예.

#2 건 잇인 집이서가 그거 주주.

@1 예.

#2 엇인 집은 아니.

@1 어쨋든 옛날도 세배허믄 세배 값이렌 헹 떡을 주든 이런 거는 헷다라는 거잖아예?

#1 예.

#3 이 엿날에 멩질 때.

@1 예.

#2 세배를 하면 이제 그 손자들에게 주로 세배 주는 걸 원칙으로 허고. 저 아들덜 어린 아들덜 앞에. 근데 요즘은 시대가 바꽈지다 보니까 메누리안피덜도 세뱃돈 줘.

@1 예, 메누리안티도 줘고.

#2 으. 아이들 메누리들 똘들 절허믄 줘야지.

#3 메누리안피덜도 세뱃돈 줘.

@1 자식들은 세뱃돈이렌 헹 안 가져 옵니까?

#2 무사 안 가졍 와?

#3 가져 오지, 가져 오는데. 예를 들어서 십만 원 가져 오면, 이제 주는 거는 나는 메누리 앞에 만 원 주는 거. 인사차 주는 거지.

@1 예. 어쨌든 절값은 주는 거예?

#3 (웃음) 절값으로.

#2 오천 원 주고. (웃음)

속담

@1 삼춘 오천 원씩 줨수과? 잘 헴수다. 그다음에 어 혹시 정월 멩질헐 때 뭐 전날 줌자면 눈썹 흰다 식으로 이런 속담덜도 이시카마씨?

#2 그런 거 잇주.

#1 섣달그믐날.

@1 으.

#1 섣달그믐날은 하루종일 밤새낭 이제. 엿날은 요새는 테레비 잇으니까 극복헷는데 옛날은 아무거 저 오락시설이 없을 때는 그 섣덜그믐날, 정월 초ᄒᆞ를날까지 잠을 안 자면서 뭐 하면은 것도 어려운 일, 뭐 아닙니까?

#3 그게 섣덜그믐에 잠을 자면 눈썹 흰다는 얘기가 나온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잇는데.

@1 예.

#3 아까도 얘기헷지만은 놀이 할 것이 없으니까 놀이 하면서 밝기도 하고,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서 일을 하다가 멩질 때는 오래간만이 이제 자식들이 찾아와서 식구들이 모이잖아요?

@1 예.

#3 그러면 오래간만이 만나니까 할 얘기덜토 많을 거고.

@1 그치.

#1 어, 그러다보면 밤새도록 얘기를 허다 보면 날이 밝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

@1 음. 그다음에 삼춘 그런 말 말고 정월과 관련된 이런 속담도 이신가마씨?

#3 아까 곧던 게 아까 그 얘기.

#2 아까 그 얘기주 무신.

#3 눈썹 흰덴 헌 말이 속담이주.

#2 경허고게 초ᄒᆞ를날 인칙이 안 일어나민게 아이덜신디 아이고 눈썹은 헤영 헴시난 빨리 일어나라. (웃음)

벨롱겡이

@1 눈썹 헤영 헴시난예. 경허고 정월에 아까 이 이제 벨롱겡이영 뭐 정월에 문전제영 헌덴 허는데.

#2 응, 허지.

@1 정월 메칠에 헴수과? 삼춘네는 문전제 그거 여기 벨롱겡이렌 골아?

#2 이젠 안 허여.

#3 그것도 마을제 포제가 끝난 후에.

#2 마을제 넘어나야.

@1 아, 모든 게.

#3 모든 게 마을제부떠 먼저 끗나난 다음에.

@1 음.

#3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벨롱겡이는.

@1 예에. 거난 제일 크게 헌 게 마을제를 크게 세엇구나예?

#2 마을제 허기 전에는 못 헤.

@1 아, 게믄 그거 한 다음에 날 받아 갖고.

#2 으, 으.

#3 마을제 지내난 다음에 가정에서덜 날 받아 가지고.

@1 게난 그 가정에서 허는 게 아까 벨롱겡이?

#2 으.

#3 벨롱겡이.

@1 벨롱겡이예? 그때 벨롱겡이 헐 때는 어떤 식으로 헤마씨? 벨롱겡이.

#1 벨롱겡이 시절엔 벨롱겡이 허기 전에.

@2 예.

#1 당, 당을 찾아 가지고 할망당을 찾아 가지고 거기서 이제.

#3 무당들을 엿날에는 무당덜을 빌어서 많이 헤, 무당덜을 빌어서.

#1 그 제비 제비 줍아 가지고 쌀로 이렇게 던져 가지고, 메 멧 알 허는 거.

#2, 3 (웃음)

#1 보는 거 잇지 않습니까?

@1 예, 예.

#1 그것도 헤 가지고 이제 어느 자손은 어느 달에 좀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할망당에 가는 그.

@1 심방 빌엉예?

#1 심방 빌엉.

#3 심방들이 와근에.

#2 심방들이 오주게.

#1 거기 끗나고 오면은 집에서 벨롱겡이 제를 지내는데.

#3 쉽게 말허면 심방들이 와근에 가정에 식구들의 안녕을 빌어 주는 제야.

@1 예. 게니까 그 제비 뽑고 이런 거는 아까 볼레낭할망당에 가근에.
#1 거기서 하고, 집에서도 허고.
#3 집에서도 하고.
#2 집이서도 하고.
@1 아, 두 군데 이렇게예? 게믄 그.
#3 또 그거 잇잖아, 산판 놓는 거.
@1 산판 놓는 거.
#2 그거 놩 좋다 궂다 또 말허고 경허주게.
@1 예, 게믄 그 당시에는 정월에 허면은 집집마다 벨롱겡이 허는 집들이 하시켜예?
#1 예, 옛날엔.
#3 거의 다 헷지. 거의 다.
#2 많지. 겐디 이젠 안 헤.
@1 이젠 안 하고예? 그러면.
#2 허는 집만 허주 안 헤.
@1 날, 그치 중복 뒈는 날도 이실 거 아니?
#1 중복 뒈는 날 잇수다.
#2 으.
@1 아, 그러면 이 동네 심방은 멧 명이나 잇어마씨?
#1 심방은 엇고.
#2 여기서 안 헤. 웨부 저기서 빌어 오지.
#1 사름 빌어단.
@1 아, 빌어단.
#1 미리 날을 봐 가지고 심방안티 부탁을 허는 거지. 메칠날.
#3 저 계약헤여근에.
@1 이 동넨 심방 엇어낫수과?
#1 으.
@1 게믄 저 볼레낭 심방은 어디서 와? 볼레낭 심방.
#3 빌어다근에.
#1 빌어당 허고,
@1 아, 다 빌어당 허고.
#3 엿날에는 그 저 침 주곡 허는 할망이.
@1 예.
#3 우리 동네에도 잇엇는데 그 할머니가 죽어, 돌아가셔 버리난.
@1 음.
#3 어.

정월 대보름

@1 그다음에예, 그 포제가 끗나면 정월 보름에?
#2 으.
@1 정월 보름에는 이 동네서는 무신거 헷수과?
#1 우리 동네 정월 보름에는 뭐 별로 허는 게 엇어.

#2 허는 게 엇어.
@1 허는 게 엇어.
#3 거난이 아까 그 벨롱겡이 때에 주로.
@1 예.
#3 정월 보름에도 보면 액들 막고.
@1 액막이.
#3 음. 액맞이.
@1 그 액맥이허는 거는 정월 보름에 안 헤마씨?
#1 아니, 원래 정월 보름날 달 떠올 무렵에 가 가지고 바닷가 쪽에 가 가지고, 뭐 제를 싸 가지고 제, 제. 그 저 속지에다가 쌀이여 뭐여 동전 ?튼 것도 넣고 헤 가지고 바다에 던지면서 일 년 그 무병장수 비는 그런 행사가 옛날은 많이 잇습니다. 견디 요새는.
#2 이젠 안 헤.
#1 그런 허는 사름이 잇는지 모르주만은 옛날은 뭐 그런 분들은 많이.
#2 이젠 안 헤.
@1 이젠 안 하고예. 그게 정월 보름에 헷수과?
#1 정월 보름에.
@1 그거 지 싸 갖고.
#3 지 싸 가지고 던지곡 허는 거.
@1 액막이를 여기서는 바당에 강은에?
#1 바당에 바당 쪽으로.
#2 깨끗허게 바당에 강 헤낫주.

방사탑

@1 음,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그 방사탑들 하지 안허우꽈? 여기예?
#2 으.
@1 그 탑 이름은 뭐렌 헙니까? 이 동네서는.
#1 으, 으. 우리 회장님.
#3 그냥, 그냥 방사탑.
@1 방사탑.
#2 으.
@1 답.
#2 탑.
@1 탑. 음, 방사탑 안 헹 그냥 탑이엔.
#3 탑, 탑, 탑. 방사탑.
@1 탑이, 탑이 멧 개우꽈? 여기.
#1 탑이.
#3 원래 원래 두 개.
#1 두 개, 두 개.
@1 예.
#3 양탑, 음탑 헤 가지고.
@1 으.

#3 양탑은 ᄉᆞ나이탑을 말허는 거고.
@1 예.
#3 음탑은 여자탑을 말허는 거지.
@1 예.
#3 게믄 탑 우에다가 양탑은 뭐로 표시 뒈믄 돌을 뾰쪽헌 거로 세와 가지고, 그것이 양탑.
@1 예.
#3 그대로 우에 아무것도 안 논 것은 음탑.
@1 예.
#3 으.
@1 근데 여기는 다른 데와 달라서 바다 안에 세왓잖아예?
#2, 3 으.
#1 유일허지. 신흥리.
@1 예.
#3 그 이유가 잇어. 이유가.
@1 이유가 뭐우꽈?
#3 그 이유는 우리 그 마을 형태 지형이 바닷가에서 이제 그 액이 들어온다. 허, 너무 마을이 허하다. 바다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액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거 때문에 이제 그 마을 주민들이 이제 피해를 많이 당한다 헤서 그거 액을 막기 위헤 가지고. 그 액을 막기 위헤 가지고 그 탑을 쌓은 거예요.
@1 그니까 예전에 탑 쌓은 건 언제 쌓앗덴 ᄀᆞᆯ아마씨? 삼춘네 어렷을 때도 다 잇엇수과?
#2 모르지. 잇어낫주게.
#1 막 오래엇주게.
#3 그게 아마 저 조선시대 때부떠 쌓아진 것이 아닌가, 아주 오랜 옛날부떠.
#2 엿날부떠 헌 거난.
#3 우리 마을이 형성이 뒈 가지고 우리 마을 형성 뒌 것이 한 오백여 년을 보는데.
@1 예.
#3 에,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우리 옛 조상들이 우리 옛 조상들이 그것을 만들어 벌써, 만들어졋던 거예요. 그게.
@1 으, 나니까 잇으니까.
#3 우리가 예측허기로는 한 이백여 년이 뒈지 안헷나? 그 방사탑 쌓아진 것이.
@1 그리고 지금은 두 개가 아니라 더 여러 개 잇잖우꽈?
#3 다섯 개.
@1 지금 다섯 개.
#3 나중에 세 개 싼 이유는.
@1 예.
#3 그 어느 그 지리학자가, 옛날에는 그 지리학자라고 하게 뒈면 정시라고 헤 가지고.
@1 예, 지관들.
#3 산터도 보고.
@1 예.
#3 이제 집에 이런 들어가는 입구도 집터도 좋은지 나쁜지 보곡 허는 사름덜이 우리 신흥을 지나가. 그 사름들이 막 돌아 다니잖아요?

@1 예.
#3 돌아다니다가 우리 신흥에 들려 가지고 그 탑 싼 것을 봐서 탑이 두 개로는.
@1 부족하다.
#3 좀 모자라다.
@1 음.
#3 바다로 들어오는 액을 막기에는 모자라니까 탑을 더 쌓앗으면 좋겟다[조게따].
@1 음.
#3 그런 얘기를 들어 가지고 이 탑 나중에 따로 싸진 거는 얼마 안 되어. 한 십오 년 정도 벳긔 안 되요. 뭐 보충을 시킨 것이 한 십오 년.
@1 십오 년 더 됀 거 같은데?
#3 종전에 두 개 잇엇던 것은 한 이백여 년 되는데.
#2 십오 년은 넘어서.
#1 이○○ 이장 당시니까 한 십오 년, 아 이십 년.
#2 아니, 이십 년.
#1 이십.
#3 한 이십 년쯤 뒛구나.
#2 으.
#3 나 이장 다음에 헷으니까.
@1 저도 십오 년 더 전에 본 거 닮은디.
#3 으.
@1 여러 개 본 거.
#3 한 이십 멧 년 뒛다.
#2 이십 년.
#3 으, 으.
@1 어느 이장 당시마씨?
#3 이○○ 이장.
@1 이○○ 이장 당시.
#3 으.
@1 예.
#3 세 개를 추가로 더 쌓안.
#1 추가, 추가 세 개.
#3 어느 그 지리학자가 얘기헤 주는 말을 들어 가지고.
@1 그러니까 그거 쌓을 때는 만약에 이십 년 전에 쌓앗으면 마을 주민이 합심헹 쌓아시크라예?
#3 그렇죠.
@1 그때 어떤 식으로 쌓앗는지 골아줘 봅서.
#1 거 지금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그 돌을 움직일 수 없는 큰 돌이거든. 밑에 굽에 잇는 거는. 장비를 이용헤 가지고. 포크레인 이용헤 가지고 굽을 놓고.
@1 음.
#1 또 멘 우에 정도는 작은 돌 정도는 뭐 사름들이 쌓아서.
#3 동네 사름덜이 나가 가지고 그 주위에 잇는 돌로. 옛날 그디 그 바닷가에 돌들이 좀 잇

엇으니까.

@1 게믄 그때는 마을 전체가 이제.

#3 사람들 동원, 동원헤서 나가 가지고.

@1 지금 이○○ 이장님은 지금 살아 계시우꽈?

#1 예.

#3 으, 으.

#2 바로 이 집 앞이.

@1 아, 젊으신 분예? 나중에 연락 한 번 헹은에 물어보면 그 부분에 대헤서는 좀 알지예?

#3 그렇죠.

@1 그다음에 여기 그 방사탑 말고 옛날 다른 동네 가면 뭐 돌코넹이도 세우고 벽도 이렇게 높이 세우고 허는데 그런 건 엇수과?

#1 무시거?

@1 그 담들 높이 저기.

#1 아, 저 환해장성.

@1 으, 환해장성 헷수과? 이 동네.

#1 예. 여기도 흔적은 잇수다.

@1 어느 쪽에 잇수과? 그거는.

#1 이쪽으로 가민.

#3 저[쩌] 바닷가 해안도로로 헤 가지고 저[쩌] 바닷가 쪽으로 가민.

@1 게믄 아까 연딧동산 잇는 그쪽으로?

#3 그쪽으로. 그 뒤편 알쪽으로.

#1 바다쪽으로.

@1 음.

#3 그 바닷가 알쪽으로.

@1 알쪽으로예? 그 환해장성이렌 안 헹 이 동네 사름들은 그걸 뭐렌 불런마씨?

#1 지금 엿날.

#2 거 잊어 불엄신디.

#1 우리 공용으로 사용헨 환해장성이고 엿날엔 축성?

@1 으.

#1 잣성?

@1 잣성, 축성 성 쌓앗덴 헹 축성이엔.

#1 축성은 건디 잣성은 저 저.

@1 한라산 쪽이.

#1 한라산 쪽이 잇는 걸 잣성이라고 하고, 여긴 축성 싸 가지고. 저 엿날 그 왜군덜 많이 침범하니까 그런 것도 이제 방지하고 이렇게 헤 가지고, 바람도 막고 이런 형식으로 만들엇는데 지금 많이 허물어져 가지고 쪼끔.

@1 쪼끔 남아 잇어예?

#1 으, 쪼끔 남안.

포제

@1 예. 그다음에 포제는 아까 이제 정월에 정해일.

#1 정해일.

@1 예. 한다고 헷잖아예? 포제 준비허젠 허믄 어떤 식으로 헤마씨? 물은 어디 거 씀광.

#1 예?

@1 물, 물도 포제허젠 허믄 여기 물통도 영 막고 허지 안헷수과?

#1 아, 저 엿날은 포제 제관들이 뭐 하게 뒈면은 옛날은 이 포제 제가 날을 봐 가지고 제관을 선정허면은 옛날은 일주일 동안 정성을 헷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삼 일.

#2 삼 일.

#1 삼 일이고 옛날은 그 모욕탕이 없엇기 때문에 집에서 도고리 받아 가지고.

@1 음.

#1 물 지금 거기서 물 좀 뜨겁게 헤 가지고 이제 모욕을 제관들 모욕을 헷는데 지금은 뭐 밝기 전에.

@1 예.

#1 다른 사름들 보이기 전에 이제 제관들이 모욕탕에 가 가지고 그래 모욕헹 왕 이제 그날 저녁이 뒈면은 제를.

@1 거 언제 저녁에 몃 시에?

#1 다섯 시쯤에, 여기 요 우리 마을 ᄀᆞ뜬 경우는 여기가 이제 제청이 뒈고.

@1 아, 노인훼관이 제청.

#1 제청이 뒈고 그 우에 이층에 제청이 잇습니다.

#3 제 지내는 장소, 모시는 장소.

#1 모시는 장소가 잇고, 다섯 시쯤 뒈면은 이층으로 제물을 여기서 제물을 만든 거를 전부 올려 가 가지고 제를 모시고, 한 열한 시 정도 뒈면은 제를 시작허는데. 그러니까 오늘 허게 뒈면 오늘 제가 아니고 내일 제가 뒈는 거예요.

@1 예.

#1 옛날 그 저 축시를 기준 헤 가지고, 열한 시부떠 축시 아니? 다음 헤.

@1 자시, 자시.

#1 으, 자시.

@1 자시에 가 갖고 허는구나예?

#1 다음, 다음 날짜를 택헤 가지고.

@1 새날을.

#1 새날.

@1 음, 그러면 별도의 포제단이 잇는 게 아니라, 여기는 마을훼관에 제단을 마련헷구나예?

#1 막 엿날에 포제단, 포제단이라고 저 밖에 잇엇습니다게.

@1 예.

#1 경헨에 뭐 바람도 막기가 어렵고 옛날은 상당히 담으로 이렇게 둘러 가지고, 제관덜만 가 가지고 제를 모셧는데, 지금은 뭐 시설이 좋으니까 집 안에서. 또 중간에는 개인 집에서.

@1 아, 개인 집에서.

#1 개인 집에서 삼 일 동안 정성을 헤 가지고 또 제청으로 모든 제물을 모시고 와 가지고 이제 제를 지냅니다.

@1 음, 그럼 지금 제 지내는 공간은 다른 일은 안 헤마씨?

#1 여기?

@1 예.

#1 별로 허는 거 엇어.

@1 허는 거 엇고 딱 그 제 지내는 공간으로 따로 마련헷구나예?

#1 이 저 뭐 우리가 신흥리 탄생일이 일월 칠일날인데.

@1 예.

#1 그날을 기준으로 헤 가지고 이제 노인네 뭐가 경로잔치, 경로잔치는 그런 때는 사람이 많이 오거든요.

@1 예.

#1 외지 사람도 오고 본래 사람도 많이 오니까 여기가 자리가 부족허니까 이층으로 올라가 가지고 음식도 먹고 그럽니다.

@1 아, 그러면 일월 칠일 날 보통 포제를 지내마씨? 여기서.

#1 아니, 아니.

@1 그건 아니고?

#1 그건 아니고.

@1 경로잔치를.

#3 경로, 경로잔치를.

#1 마을, 그날이 일월 칠일날이 마을 탄생일이기 때문에 겸헤 가지고 이 경로잔치 헙니다.

@1 그러면 옛날에 세시풍속이 새로운 세시풍속이 된 거다예? 일월 칠일 경로잔치가 여기에서는.

#3 그렇지.

#1 예,

@1 마을 탄생일 헤서. 요런 것도 재미 잇네. 그다음에 이제 포제는 그렇게, 포제는 제물 ᄀᆞ뜬 것들은 어떤 거 헤마씨? 그 식게나 멩질허고 ᄯᅳ나지 않읍니까예?

#1 포제는예, 거의 다 제물이 생제물입니다. 날 거, 날 거.

@1 음. 게믄 포제헐 때는 희생은 뭐로 씁니까?

#1 옛날은 희생을 두 마릴 헷는데, 돼지.

@1 두 마리.

#1 예. 옛날에 아니고 중간에.

@1 예.

#1 옛날은 못살 때니까 그 돼지 헷는지 닥으로 헷는지 모르겟습니다만은 중간에는 두 마리 헷어요. 우리 마을의 경우는.

@1 예.

#1 그러다가 너무 이 식생활이 좋으니까 돼지 두 마리를 헤 가지고 나중에 그 처리 곤란. 먹질 안헤 가지고.

@1 아.

#1 그러니까 이제 한 멧 년 전에부떠 한 마리로 정하다가 중간엔 또 돼지 머리만 사용하고 잇습니다.

@1 예.

#1 한 마리는 거 왜 그러냐면, 한 마리는 희생을 헤 가지고. 희생이엔 헌 거는 돼지 잡는 건데 희생을 헤 가지고 다음 열두 뻬로 나눠 가지고.

@1 예.

#1 그걸 좀 삶읍니다.

@1 예.

#1 삶아 가지고 거는 이 뭐 원 제단에 쓰는 게 아니고, 해신제도 쓰곡, 또 뭐가 **허는 것이 갑자기 말하젠 허난 모르켜. 해신제도 가곡 또.

#3 해단제.

#1 하단제.

#3 하단제.

#1 포제허는 것은 상단이고, 그 포제가 끗나면 하단이. 하단은 뭐냐면은 이 무방친 귀신덜.

@1 예.

#1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밧 불리당 물발굽에 붋아 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또 돌아갓주만은 그 주인이 없는 사람들.

@1 연고예?

#1 연고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헤 가지고 이제 하단제는 밖에서 이제 제를 지내가지고. 모든 제물을 잡세헤 가지고 다 던지고.

@1 하단제를 헤예?

#1 예.

@1 아, 이 부분은 다른 데는 안 들어봔마씨.

#1 안 들어봔? 신흥은 상단제, 하단제.

#3 그러니까 쉽게 얘기허면, 상단제하고 하단제를 구분한다고 하면.

@1 예.

#3 상단제 지내는 거는 첫째는 마을의 안녕, 다음에 또 마을 출신들이 하는 사업이 번창을.

@1 사업 번창.

#3 빌기 위헤서 지내는 제고.

@1 음.

#1 하단제라고 하게 뒈면 밖에서 지내는 건데 이 잡귀신.

@1 예.

#1 모든 잡귀신 뭐 무슨 뭐 저 산에서 뭐 소말 지루다가 돌아가신 귀신들이라든지, 갑자기 뭐 이 저 자동차에 치여서 돌아가신 분들이라든지, 객사를 당한 사람덜. 어 이렇게 그 돌아다니는 잡귀신들을 대접을 하기 위헤서 지내는 제, 그게 하단제.

@1 하단제예. 그러면 상단제 헐 때 포제, 그 신위는 뭐우꽈? 여기는.

#1 으?

@1 신위. 앞에 영 저기 신위.

#1 포신지령?

@1 포신.

#3 지령.

@ 지령, 지령예. 그러면은 하단에 신위는?

#1 하단에는 없고.

@1 그런 건 없이.

#3 그런 건 없이. 그냥 축만 고허는 거.

#1 해신제라는 건 상단에는 포신지령이고, 또 해신제도 겸헤 가지고 허거든예.

@1 예.

#1 밖에 나가 가지고, 바닷가에 가 가지고 그거는 해신지령.

@1 해신지령.

#1 해신지령.

#3 그건 해신지령.

@1 예. 그니까 포신 끗낭 해신제 허는 거잖아예? 여기서는예.

#3 으, 으.

@1 밖에는 영은 없이, 그냥 잡신만.

#3 그냥 잡신만 대접허는 거.

@1 음. 그렇게 헤서 이제 하고예. 하단제를 하신다. 그다음에 당제는 또 그날 이제 가고. 저기 볼레낭할망당.

#1 거 끗난 다음.

@1 끗난 다음 강은에 우리 영영 고헷수다.

#3 아침에. 으, 으.

#1 끗난 다음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아침에 포제가 끗나, 끗나니까 포제, 그 마을 책임자 이장, 또 삼제관 초헌, 아헌, 종헌. 이 삼제관 그 나이를 놔 가지고, 이 네 분을 당에 가 가지고 제비를 좁아 보는 거지.

@1 예, 예.

#1 이 분들이 이제 금년 운수가 어떻게 뒈는가. 그 어느 달에 액이 잇는가. 이런 걸 헤 가지고 이제 와 가지고. 저 할망이 가 가지고 이제 들어 오면은.

@1 음.

#1 이제 이야기도 헤 가지고. 또 아주 나쁜 사람은 그 해신제 헐 때 가 가지고 그날 해신제 허거든요.

@1 예.

#1 해신제 허는 데 가 가지고 액도 막고 이렇게 합니다.

@1 액 막을 때는 아까 저기 지 싸 갖고.

#1 음. 개인적으로 이제 상 출려 가지고 가는 거지.

#2 상 출려 가지고.

@1 아, 상 출려근에. 아 해신제 헐 때도 상을 다 따로따로 출령 가예?

#1 예.

액막이

@1 그때 삼춘, 그 삼춘네도 해신제 허고 저기 액막이 헤 봤지예? 그때 뭐 담읍니까? 그 지소곱에는.

#2 무시거 담아?

@1 그 종이에 백지 헤 갖고.

#2 아, 이름 써근엥에 거기다 다 뭐 허주게. 경허민 이젠.

#3 이름허고 나이 쓰고.

#2 해신제가 끗나민 산을 받아보는 거라. 다 각자가.

@1 아, 해신제 끗낭 산 받는 거예?

#2 으.

@1 겐 산 받는덴 허는구나 여기는. 산 받고, 그 액할 때 그 뭐 계랄도 놓고 돈도 놓고.

#3 쓸, 쓸, 쓸.

@1 쏠도 놓고.
#2 쏠, 쏠.
@1 여기서는 뭐 놔?
#2 과일 놓곡이 쏠.
#1 거 상에 올렷던 거 다.
#3 쏠.
@1 아, 보통 쏠ᄒᆞ고 과일?
#2 으.
@1 다른 거 뭐 특별헌 거 이렇게.
#2 엇어.
@1 계랄 ᄀᆞ뜬 거 엇수과? 이 동네.
#2 그건 안 놔.
@1 아, 다른 동네 지 쌀 때는 꼭 계란 놓는 데도 잇어예?
#2 아, 건이 제 쌍 들이칠 때 계란이 들어가는 거주.
@1 들이칠 때는 계란이 들어가고. 상 출릴 때는?
#2 안 헤.
@1 안 하고예?
#2 상 출려 가는 사름덜은 안 헤.
@1 상은 그냥 과일 ᄒᆞ고, 쏠 ᄒᆞ고.
#2 으.
@1 밥 이런 건 안 하고?
#2 아니, 쏠 놓민 뒛주게.
#1 멧 천 원, 봉투에 돈도 멧 만 원 담고.
#2 돈도 놓고.
@1 아, 돈도 담고예?
#1 옛날에 멧 천 원이 지금은 멧 만 원.
@1 그렇게 헤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혹시 포제헤난 다음에 뭐 흑 뿌리거나 이런 것도 헤낫수과?
#1 흑 뿌리?
@1 흑, 흑. 헉, 흑들 영 뿌려? 그런 건 아니?
#2 아니.
@1 그런 건 아니고예? 그다음에 아까 안택허는 게 벨롱겡이예?
#2 으.

벨롱겡이

@1 벨롱겡이허고 여기 저기 문전제, 그 벨롱겡이는 따로 문전제로도 본 것 아니라예?
#1 거의 ᄀᆞ뜬 거주.
#2 ᄀᆞ뜬 거주게.
@1 ᄀᆞ뜬 건데 이 동네에선.
#3 아니, 아니. 벨롱겡이하고 문전제가 조끔 틀린 것이 잇지.
#2 문전제만 허는 사람도 잇곡.

#3 문전제는 토신제를 지내는 거, 토신제.
@1 아, 문전제는 또 뚜나마씨? 예.
#3 으, 토신제. 으.
@1 토신제만 지내는 사람 잇고.
#3 가정에서는 옛날에도 토신제도 지냇어.
@1 벨롱겡이는 심방 모셩 하는 거?
#2 으.
#3 으.
@1 으.
#1 심방도 것도 엿날 삼신할망. 심방 밑에.
@1 밑에예?
#1 삼신할망.
@1 삼신할망도 이제 허고. 벨롱겡이 헐 때도 특별이 음식을 준비허는 게 이시카마씨?
#2 특별이 허는 거 엇어.
#3 시리떡.
#2 시리떡허고 영 똥글랑한 떡을 만들앙 놓고.
#3 흰 시리떡. 벨롱겡이 헐 때는 흰 시리떡.
#1 벨롱겡이 헐 때는 그 저 하얀 쌀로 동그랗게 이렇게.
@1 보시시리.
#1 즉 말허면 납작허게 떡을 만들어 허고. 또 모믈떡으론 이 사각형을 만들아 가지고 각을 내어 가지고.
@1 예.
#1 그 저 하얀 떡 우에 거기 모믈떡을 올리주마씀.
@1 예.
#1 칠성제를 헐 때는 일곱 개를 헤 가지고 이제 밑에 상에 올리는 게 아니고. 평풍 쳐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우에 널판을 놔 가지고, 그 우에다 칠성제를 일곱 개를 모셔 놧습니다. 그 저 떡을.
@1 떡을예?
#1 예.
#2 겐디 이젠 다 거 안 허메.
#1 이젠 안 헤.

상단제

@1 그걸 상단제렌 헨마씨? 이렇게.
#1 칠성제 헐 때는 거 상단이주게.
@1 상단을 헤 갖고예?
#1 상단이, 칠성제가 바로 북두칠성을 의미허는 그런 뭐기 때문에 그 우에 평풍 우에 이렇게.
@1 음, 제단을.
#1 널판 놔 가지고, 그렇게.
@1 아까 이제 그 시리떡에 요만큼한 보시시리 허는 거 아니우꽈예?

#2 음, 음. 요만썩.
@1 삼춘네도 이거 보시시리렌 굴아?
#2 으.
@1 보시?
#1, 2 보시, 보시떡.
@1 보시떡. 이거는 시리떡 아니우꽈예? 보시에 쏠ᄀᆞ루 놩은에.
#1 으.
@1 시리에서 찐 거 아니?
#1 으.
@1 그다음에 거기 우에 모믈떡을 헷지 안허우꽈?
#1 아니 흰 떡 만들앙.
#3 동그랑한 떡.
@1 아, 동그란 떡.
#1 그 우에 모믈떡.
@1 게믄 동그란 떡허고 보시시리 말고, 동그랑헌 떡 또 만들아?
#1 으.
@1 돌레떡, 이거 무슨 떡?
#2 그레 올려.
@1 삼춘 돌레떡? 이름.
#1 돌레떡이주.
#2 으.
#3 납작허게시리 헹 만든 거.
@1 돌레떡예?
#1 돌레떡.
@1 돌레떡 우에 또 모멀떡 헌덴 헷잖아예?
#2 으, 으.
@1 모멀, 모멀떡은.
#3 그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2 예, 예.
#1 그 사각형.
@1 요렇게 요런 모양 아니우꽈예?
#1 맞아.
#3 으, 으.
@1 이 일름은 무신거우꽈?
#1 으?
@1 이, 이 떡 일름은?
#2 몰라.
#1 (웃음) 떡 이름?
#3 그거 헤당 굴아야지, 알아지크라, 그거?
@1 뭐 칼웨성이여 손웨성이여 이런 말 안 헙니까?
#2 아니 헤봔. 그런 거는.

@1 그냥 모멀떡이렌만 헨?
#2 으.
@1 그때 모냥은 이렇게.
#1, 2 으.
@1 마름모꼴.
#1 에.
#3 으, 마름모꼴 맞아.
@1 마름모꼴로예?
#3 으.
@1 게믄 보시시리 이렇게 올리고.
#2 으.
@1 여기 동글랑헌 돌레떡 올리고.
#1 으, 돌레떡 올리고.
#3 그 우에.
@1 그다음에 여기에 모멀떡 올리고. 이렇게 세 개를.
#2 세 개.
@1 게믄 벨롱겡이 헐 땐 멧 개 올려?
#2 마찬가지. 것도.
@1 벨롱겡이 허는데, 칠성제 헐 때는 그거를.
#1 쭉허게시리 영.
@1 일곱 개를 허고. 음.
#2 으, 으.
@2 음. 아까 벨롱겡이 헐 때 시리떡 크게도 헙니까?
#1 벨롱겡이 헐 때는게 세 가지 정도. 그 보시떡은 잘 안 허고.
@1 음.
#1 허는 집은 허고 안 허는 집은 안 허고. 그 칠성제 때는 보시떡이 꼭 들어갑니다.
@1 아. 벨롱겡이 헐 때는 시리떡이 들어갈 수도 잇겟다예?
#1 음.
#2 이제는이 옛날 닮지 안헤영 이젠 시리떡 맞추아당 영 짤르멍 헤여.
@1 아, 이제는예? 다 방엣간 맞춰당은에 허고. 벨롱겡이 헐 때도예? 근데 칠성제 헐 때는 이거 일곱 개 똑 올라가는 거. 예. 알앗수다.
#1 이제 칠성제 허는 집이 엇주게.
#2 이젠 엇주게.
@1 이젠 엇수과? 혹시 옛날 여기 이 바당 동네니까 보리농사예. 옛날 보리농사 허게 뒈면.
#2 보리농사 주로 잇주.
@1 보리밟기도 헤신가마씨? 정월에.
#1 보리밟기는 이 저 제주도는 보리밟기 잘 안 헙니다.
#2 불르지 안허여.
@1 여기는 안 불란예?
#1 별로 안 추우니까.
@1 음.

#1 저 땅이 곳아야 보리 밟는데.

걸궁

@1 예. 걸궁은 어떵 헙니까?

#1 걸궁은 엿날에 뭐 일 년에 흔 번 정월달에 헨에.

@1 일 년에 한 번 꼭 헨예?

#1 으.

@1 걸궁을 하는 목적은 뭐라마씨?

#1 응?

@1 걸궁은 누게가 준비헷수과?

#1 에, 집마다 이제 돌아다니는디 가 가지고, 그 집안에 일 년 내내 편안허게 헤줍센 헤 가지고 지신도 밟곡, 경헤 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는 거주게.

@1 예.

#1 즉 말허자면게 재미 반. 또 어떵 잘사는 집이 가면은 쌀도 주고 돈도 주고 이렇게 헤 가지고.

#3 옛날에는 마을 이정하는 데 돈도 엇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가정의 안녕을 빌기 위한 목적으로 걸궁을 가서 하는데 마당에 가서 막 갱이 소리 내고.

@1 으.

#3 춤도 추곡 하면서 허게 뒈면, 그 집에서 좀 먹을 것덜토 좀 대접하고 허는데 잘사는 집에 가면 쏠도 내놓고 돈도 내놓고.

@1 음.

#3 게난 그걸 모아 가지고 부락 살림에 보탬을 주는 그런 그 풍습이 잇엇어요. 옛날에는.

@1 예.

#3 걸궁에 대헌 풍습은.

@1 그 걸궁을 주도적으로 하는 주체는 누게라마씨? 게믄 마을에서? 청년?

#2 마을에서.

#3 마을에서.

@1 아, 마을에서.

#3 이장이 주관헤 가지고.

@1 이장이 주관헹예?

#3 그 이장보다도 그 마을에 옛날에는 향장, 향장이라고 잇어요. 향장.

@1 향장.

#3 으. 향장이라 그러는데 제일 마을의 웃어른.

@1 예.

#3 그런 분들이 주장을 헤 가지고.

@1 아, 게난 이장 위에 향장이 따로 잇구나예?

#3 지금 오늘날처럼 이런 노인회장이나 이런 것이 없엇거든.

@1 음.

#3 없엇을 때, 그때는 향장이라 그랬어요.

@1 이장 위에예?

#3 으, 이장 위에. 게서 제일 나이 많이 드시고 덕망 잇는 어른으로 향장을 선정헤 가지고.

@1 예.
#3 이장이 잘못허믄 이장 시키기도 하고.
@1 음.
#3 마을에 그런 큰 대사를 운영하는데 주도자 역할을 허는 그런 향장덜이 잇엇어요.
@1 그러면은 향장은 한 명이우꽈?
#3 한 명.
@1 한 명예?
#3 으.
@1 그 향약도 이서신가마씨? 여기.
#3 아, 물론 향약 잇지.
@1 아, 향약이 잇어?
#1 향약을 중심으로.
#3 향약은 지금도, 지금도 내려오고 잇는 거니까.
@1 아, 향약이.
#1 동 동장.
@1 예.
#1 동 동장, 중 동장, 서 동장. 신흥 같은 경우에. 향장 밑에.
#3 지금 향장 밑에.
@1 아, 향장이 잇고, 동장이 잇고, 마을 또 전체 또 이장이.
#1 전체적으로는 이장이.
#2 이장이.
@1 전체적으로 이장이 허고예? 게믄 그 향약은 다 문서로 헤 갖고 잇겟다예?
#1 예, 잇어요.
@1 아, 그렇구나. 그건 또 나중에 또 다른 우리 선생님들이 조사올 지 모르니까, 그때도 잘 굴아 줍서예?

새철 드는 날

@1 그다음에 입춘. 이것도 정월에 보통 들잖아예?
#1 입춘?
@1 예. 여기선 새철 드는 날.
#1 예. 새철 드는 날.
@1 새철 드는 날은 금기허는 게 하나지 안헷수과?
#1 뭐 엿날은.
#3 놈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지 안헌다 그러지.
#2 놈의 집이 여자덜 갈 수 엇어.
#1 여자는 놈의 집이 안 가고.
#3 입춘 드는 시간에는 바깥 출입을 허지 안헌다.
#1 또 씰허고 바늘.
@1 예.
#1 씰을 사용을 안 헷습니다.
@1 아.

#1 왜 그러냐면 입춘 드는 날 씰을 사용하게 뒈면은 그 일 년 내내 그 집 (웃음) 그 여름에 그 집에 베염[베엄]이 나타난다고 헤 가지고. 그런 풍습이 엿날은 잇엇습니다.

@1 예.

#1 씰을 사용 안 하는 풍습.

@1 바농은 무사 안 사용허는 거?

#1 아, 그니까 씰이 가는 데 바농이니까 그 바농은 필요 엇주만은 씰을 사용 안 헷주.

@1 음. 게믄예 그 말을 다시 한번 삼춘 다시 골아줘. 저기 새철 드는 날 뭐 허지 말라?

#1 음? 여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열 시에 새철이 든다. 그 시간에 그 시간을 피해 가지고 여자는 다니지 말렌 허고, 또 밤에는 여자가 잘 안 다니니까.

@1 예.

#1 낮에 시간에 또 입춘 들 때가 잇거든예?

@1 예.

#1 그 시간을 피하라는 거지. 여자들은.

@1 음. 그니까 새철 드는 시간에 씰 사용허면 진 거 뎅긴다.

#1 음.

@1 으, 이런 식으로. 이것도 처음 들엇네. 새철 드는 날 바농질허면 솔치 쏘은다 이런 말은 들어 봣지만.

#1 (웃음)

@1 진거 뎅긴덴 헌 말은.

#3 (웃음)

방엣불 놓기

@1 처음 들엇수다. 그니까 이게 필요한 거 세시풍속 조사가, 회장님. 여기 또 방에도 부쳐 신가마씨? 옛날에 여기 쉐들 질룰 때는 어떵 헷수과? 옛날 막 여기에.

#1 아, 방, 방화?

@1 예. 방화하는 거.

#1 저, 저 뭐 소 목장에 가 가지고, 그 풀이 말르면은 걸 방화를 헤 가지고 풀을 태와 버려야 다음 때 좋은 풀이 나오거든예?

@1 예.

#1 그런 예가 엿날은 많이 잇엇주마씀.

@1 건 어느 절 어느 절에 허는 거마씨?

#3 그 진드기 없애고.

@1 예. 진드기 없애고. 건 어느 철에 헙니까?

#1 건 거의 다 이제 십이월달이나 일월달쯤에 헤 가면서, 다음 헤 가민 봄에는 새 풀이 나주게.

@1 새 풀 나는 거예. 게난 정월에도 그런 일들을 헤시켜예?

#1 정월에도 헷주.

이월

@1 예. 그다음에 이월 음력 이월을 영등달이렌 허지 안헙니까예? 이 동네도 영등굿 헤신가

마씨?
#1 영등굿 안 허고.
#3 옛날에는 옛날에는 헤낫주. 옛날에는.
#2 옛날에는 헤낫주게. 겐디 이젠 그자.
#1 조천에서 헴수과? 영등굿.
#2 영등굿은 조천.
@1 아, 조천하고.
#1 우리도 영등굿은 허는디 일월달에 여기 제 지내난 다음날은 허주게.
#3 겸헤 가지고 겸헤 가지고 해신제로 이제.
#2 해신제로 헤근엥에.
@1 아니, 게난 옛날에는 다음날 헤낫수과? 영등굿을.
#2 아니, 이 해신제 헤난 이디 제 지낸 다음에 뒷날 허주게.
@1 아, 해신제도 허고. 해신제 다음날은.
#3 영등.
@1 영등굿을 헤서예?
#2 으, 으.
#3 그거 겸헤 가지고.
#2 겸헹 헴주게.
@1 겸헹. 이제는 겸헤 버리는 거고.
#3 으. 겸헤 버리는 거지.
@1 그 겸허기 전에는 언제까지 영등굿 헌 거 닮수과?
#2 그건 몰라.
@1 건 몰르고.
#1 마을굿은 헤난. 마을굿은.
@1 그니까.
#3 아니, 게난 마을제를 지내기 전에 오랜 옛날에는 영등굿을 헷다는 얘기만 들엇지. 보지는 안 헷는데.
#2 으. 흔 메칠씩 그냥 헤낫주.
@1 보지는 안허고예?
#3 으, 보지는 안헷는데.
@1 근데 지금은 해신제에 겸허고.
#3 지낼 때 겸헤서, 겸헤 가지고.
@1 해신제 그다음에 그 겸허기 전에는 해신제 다음날은 영등굿 허고.
#3 음.

속담

@1 그 영등에도 그 속담들 잇지 안허우꽈? 이 동네는 영등 언제 들어온덴 헙니까?
#1 이월달에.
@1 이월에. 겡 언제 나가?
#1 보름날. 열나흘날 소섬 갓다가.
#2 열나흘날 나가주.

#1 보름날 제주도로 나가.
@1 게믄 초ᄒᆞ를날 영등 들어와근에 소섬으로 나간덴 헴구나예?
#2 으.
@1 아, 그다음 영등헐 때 뭐 빨래허면 구데기 인다 이런 말도 들어봅디가?
#2 으, 그런 말은 잇어.
@1 응.
#2 겨난 아무 것도 허지 말아야지.
@1 영등에는예? 그리고 영등에 뭐 우장 썽 온 영등이여 이런 말도?
#2 그땐 날이 궂이민.
#1 드는 날, 비가 오고 바람 불면은.
#2 비 오면은. 겨민 우장 씨엉 오고. 날이 좋으면은 문딱 벗어뒁 오곡. 경헌덴 허는 말이주.
@1 으, 그런 식으로도 하고예? 게난 여기 삼춘네는 어렷을 때 영등에 빨래허면 구데기 인다 그런 말 들언?
#2 이런 말 허주게. 이런 말 헤여.
@1 예.
#2 영등 들어 오민 아무것도 허지 말라 이거주게.
@1 구데기가 무시거우꽈?
#2 막 이상한 냄새 나는 거.
@1 음. 옛날덜은 그런 거 하영 뎅겻어예?
#2 많이 뎅겻주.
#1 옛날 초가집이니까.
#2 초가집이는 그것이 나오주게.
#1 초가집인 그 저 부패뒈 가지고, 초가 막 썩어 가지고 거기서 구데기가 많이 나와.
#2 거기서 나와.

삼월

@1 아, 초가에서. 경허고예. 삼춘 이 동네도 한식 멩질 헤시카마씨? 한식도 헤 봅디가?
#1 한식?
@1 예.
#1 옛날은 헤낫주. 옛날은.
@1 언제까지 한식 잇어신고예? 한식은 언제 한식이우꽈?
#1 삼월달.
@1 으?
#1 삼월달에.
@1 음력 삼월에예? 하 한식은 어떤 게 한식허는 거우꽈?
#1 저 정월, 아니 저 사월 여기는 ᄉᆞ월 오일날 청명 한식인데. 양력으로는.
@1 양력으로는. 사월 오일예? 그때는 뭐 헤마씨?
#1 한식이엔 허면은 찬, 식사 찬 음식이엔 헌 뜻인데.
@1 음.
#1 그 상세한 그 내용은 모르고.

@1 아, 삼춘네는 직접 한식 멩질 안 헤 봣구나예?
#1 안 헤봔.
#2 아니 헤봣주.
@1 단오는마씨?
#1 단오도 옛날은 허고 지금은 단오가 안 헌 지가 꽤 오래 뒛주.
@1 단오는 헤 봅디가?
#3 단오는 다 지냇주.
#1 옛날은 헤낫주.

청명

@1 근데 그면 청명에 그 산에 가 갖고, 뭐 산소도 돌보고 영 허는 것도 헤마씨?
#1 응.
@1 게믄 청명에 대헹 골아줍서. 청명, 어떵 헤신지. 한식하고 청명.
#3 청명 한식이 하루 차이로 같이 드는데, 주로 이런 청명 한식에 보면, 어 이 산 묘소 관리, 뭐 옛날에는 뭐 산담도 하고.
@1 예.
#1 다음에 천리도 하고.
@1 음. 천리도 그때 허는구나.
#3 음. 주로 그런 청명 한식에 주로 그런 것들을 헷지. 저 산에 손볼 일이 잇을 때는 그 청명 한식을 택헤 가지고.
#1 잡풀도 가서 뽑고.
@1 잡풀도 뽑고예?
#3 소엥이덜 소엥이 케곡 헌 말이 그 말이주게.
#1 산에 일 볼 때는 보통 때는 날을 봐 가지고 산에 가서 이제 산을 손을 보고, 보는데.
@1 음.
#1 청명에는 걸 안 헤 가지고 요새는 많이 헙니다게. 날 안 봐 가지고.
@1 예.
#3 무숭무해에 헌다고 헤 가지고.
@1 음, 청명은 무숭무해구나.
#3 날을 안 봐도 무숭무해헌다.
@1 아.
#3 청명 한식에는. 으.
@1 게난 옛날에는 날 봥 안 하면은 동티들이 하영 낫구나.
#3 으, 으.
#2 (웃음)
#3 날 안 봥 허면 동티 나곡, 청명 한식에는 날 안 봥 헤도 무숭무해헌다.
@1 예.
#3 으.
@1 경헹 소엥이도 케고. 옛날엔 소엥이도 하나난예?
#3 산담도 고치고.
@1 산담도 고치고. 그게 청명에 이렇게.

#3 천리도 허고.

사월

@1 예. 그다음에 음력 사월 가면 혹시 초파일들도 헤신가마씨?
#1 여긴 뭐 절간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절간에 가 가지고 제 지내고. 또 등도 사 가지고 달고.
#2 절간에서 간.
#1 게 거 등 단 사람 달민.
#3 가정에서 허는 사람은 엇고 전부 절에 가 가지고.

오월

@1 절에 강예. 게믄 오월 단오 멩질 헐 때는?
#2 오월 단오 멩질은 안 헤.
#1 우리 기억으로는 오월 단오, 허긴 옛날은 막 우리도 알긴 아는데 요새 그 안 헌 지가 꽤 오래 됏주게. 그 내용은 잘.

유월

@1 건 모르고예. 유월 허면 삼춘 생각나는 게 뭐 잇수과? 음력 유월에. 앚은 방석도 고쳐 앚지 말라 허는.
#2 유월절.
#3 음력 유월절에는 아무 일도 허지 못허도록 하잖아요.
@1 예.
#2 유월절 들민.
@1 무산고? 거는.
#1 무산고 허면? (웃음) 그 일 년 중에 제일 더웁고 아주 이상한 둘이주게. 더운 날 무더운 둘이기 때문에 여기 돌아다니당 그런 사고도 잇지 안헐 건가.
@1 너미 더완예?
#1 으. 그런 의미도 잇고.
#2 막 그때 조심허렌.
#1 으라 가지 거.
@1 벳디 조심허렌 헤예? 으.
#2 그런 땐이 빨래도 안 숢잖아. 유월절 들민.
@1 아, 경헙니까?
#3 옛날에는 이 저 오유월에는 이 고양이 콧등에서도 땀이 난다고 하잖아요.
@1 예, 예.
#3 그렇게 덥다 허는 얘기지. 그러니깐 이제 해가 온다. 어, 그런 때 좀 힘들 일들을 하면.
@1 예.

#3 해가 오니까, 어, 좀 힘든 일들을 하지 않고 좀 편히 지내라고 하는 뜻에서 아마.
#2 조심허라.
@1 삼춘 유월절은 언제가 유월절이렌 헙니까? 여기서는.
#1 에, 유월절 소서.
@1 소서.
#1 소서가 유월절.
@1 예, 소서 유월절. 경헤근에 흔 덜예?
#3 흔 덜. 거의 흔 이십오일 뒈지. 흔 덜에.
#1 소서가 들어 가지고, 유월절이 시작 뒈는데 대서까지 십오일.
@1 음.
#1 하여튼 일 한 절기가 넘어가게 뒈면 십오일 아니꽈게?
@1 십오일 정도예?
#1 거믄 이십사 절긴데.
@1 예.
#1 여기서는 거 소서 십오일 동안 헤 가지고 유월절 허는 사람도 잇고.
@1 음.
#1 또 대서까지 흔 둘.
@1 예.
#1 대서까지 이제 유월절로 생각허는 사람도 잇고. 건 뭐 사람마다 쫌 다르고.
@1 겐디 어쨋든 소서부떠예?
#1 음, 소서.
@1 그믄 그때 금기허는 게 아무것도 삼춘 허지 말렌 허면 이사, 앚은 방석도 고쳐 앚지 말라 허고.
#1, 2 으, 으.
#2 이사도 아녀주게.
@1 이사도 안 허고.
#3 집, 집도 고치지 말라.
#1 집도 고치지 말라, 산에 무슨 손보는 것도 보지 말라.
#2 아무것도 허지 말라주.
#3 영장도, 그때는 결혼식도 안 올리잖아요.
@1 예, 결혼식도 안 허고.
#2 으.
@1 영장, 영장도.
#1 영장은 할 수 없지.
@1 예.
#3 엿날에는 토롱헷다 그래. 공식적으로 장사를 지내지 않고 비공식으로 장사를.
@1 유월절에 토롱하고예? 옛날 토롱들도 하니까.
#3 으. 토롱으로 헤 가지고.
@1 예.
#3 임시매장. 토롱이라고 허는 게 임시매장이거든.
@1 예, 예. 그니까 예전에는 진짜 그 여름에는 토롱허는 집도 하시켜, 게믄예?

#3 으, 으.
@1 요즘 다 헤도예? 요즘은 유월절에도 이사허는 데도 잇언게만은?
#1 음? 거 육지분들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보통 이사허주기.
@1 예.
#1 게믄 유월절 관계 엇이 그냥 다 허는 거.

둑 잡아먹는 날

@1 관계 엇이. 그다음에 유월에 삼복 헤 갖고 하면은 뭐 특별 음식 헹 먹고 헙니까?
#1 거의 다 이제 둑, 삼계탕.
@1 삼계탕.
#2 삼계탕들 먹곡.
@1 옛날은 유월 스무날 삼춘.
#1 삼계탕 먹곡.
#2 이제도 유월 스무날 먹주게.
#1 전복 ᄀᆞ뜬 것도 먹곡, 장어도 먹곡, 요새는 뭐. 다들.
@1 아, 요즘도 유월 스무날 헴수과?
#2 으. 먹엉. 먹는 사름덜은.
@1 음. 옛날에 어머님들이 막 일허당도 유월 스무날 뒈면 둑 잡아 주크메 일 혼저 허라, 이렇게.
#1, 2 (웃음)
#3 겐디 이젠 초복, 중복, 말복 이거 따졍들 허니까.
@1 예.
#1 엿날은 유월 스무날 택헨 허단 것들이 이제는 초복, 중복, 말복으로 이제는 그게 바꽈졋어.
@1 예, 아무튼 우리나라에 유월절은 되게 크게 새는 거라예?
#2 으.
@1 금기허는 게. 게도 삼춘네는 유월 스무날 둑 먹는 모양입디다.
#1, 2, 3 (웃음)

칠월

@1 그다음에 이제 칠석. 칠석에 허는 것도 이시카마씨? 칠월 칠석.
#1 특별히 하는 거 엇어.
#2 엇어. 칠월 칠석.
#3 칠월 칠석은 주로 집에서는 안 허는데.
@1 예.
#3 에, 저 절에 다니는 분들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지.
@ 음.
#1 아까도 이야기 헷주만은 삼월덜에 칠성제 허고, 칠월덜에 허는 디도 옛날은 잇주게.
@1 예, 칠성제예?
#3 으.

@1 게난 그 칠성제가 그거 뭴 거라예?
#3 으. 칠월 칠석 때 이제 헤서 이 저, 주로 절에 다니는 사람은 와서 조상들안테 천도제를 지내고.
@1 천도제예?
#3 으.
@1 예. 영단, 영가를 위헤서 이렇게 하고.
#3 어.

백중제

@1 경허고 그다음에 또 백중에도 헤시카마씨? 여기.
#1 옛날 소마, 우마헌 사름덜.
#3 우마헌 사름덜. 산에 가서 산신제덜 지냇지.
#2 산신제.
@1 산신제.
#3 우리 할아버지네도 엿날 물 질룰 때는 산에 강 제 지내나시난.
#1 지금도 여기 저 신흥엔 딱 소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잇는데.
#3 ○○○ 씨 허지예?
#1 으, ○○○ 흔 사름 허는데 여름에 방목을 시키거든요.
@1 예.
#1 산에 가 가지고 이제 돌보는 사름 앞이 부탁을 헤 가지고 방목을 허는데 백중날엔 꼭 찾아갑니다.
@1 아.
#1 그 소 메낀 사름이.
@1 예.
#1 주인이 찾아가 가지고 좀 뭐 거기서 간단하게 뭐 제도 지내고 영 허는 모양이라.
#3 또 그 백중에 또 우리 어릴 때는 바닷물이 밤중에 들어올 때가 셔.
#2 (웃음)
#3 모욕을 허면 허물 안 난덴 헤근에.
@1 아
#2 열 번 헤사.(웃음)
#3 경헤영 옷 멘들렉이 벗엉 밤이 강덜, 팡당팡당팡당 바닷가에 강 몸도 곰앗잖아.
@1 아, 자 그 말을 다시 한 번 골아 줍서.
#3 으.
@1 삼춘 백중에 어떻게 헌다고?
#3 강, 저 바닷물에 강, 몸 곰으면 허물 안 난덴.
#2 허물 안 나.
@1 멧 시에 강 곰읍니까?
#3 아, 밤이 어둑어근에 가근에, 시간 관계 없이.
#2 밤이 강.
@1 음. 백중날 밤이 바당에 강 몸 곰으면 허물 안 난다.
#3 허물 안 난다.

#2 (웃음)
#3 굵인 허물 안 난덴.
@1 것도 굵인 허물예?
#3 으.
#1 그거 아마 백중날 뒈민 그 제일 더운 시기 아닙니까?
@1 예.
#1 더운 시기니까 바닷물 염도가 높아, 높앗을 거라도 생각이 뒈는데.
@1 음.
#1 염도가 이제 그 즉 말하면 소독제가 뒈 부는 거주기.
@1 예, 맞아마씨.
#3 (웃음) 바닷물에 강 몸 곰으믄 허물 안 난덴, 굵인 허물 안 난덴 헹, 우리 어릴 때도 강 몸덜 곰아시난.
@1 예. 그 말도.
#2 막 들어갓다 나왓다 막 들어갓다 나왓다.
@1 아, 바당에 들어갓다 나왓다 이렇게 헤예?
#3 그때 ᄉᆞ나이나 지집아이들이나 옷 멘들렉이 벗엉 들어강.
#2, 3 (웃음)
#1 (웃음) 고정 듣지 맙서양. 걸랑.
@1 아니, 고정 들엄수다게.
#1 (웃음)
#3 아, 옛날 어린 때 저 ᄋᆞ서일곱 설 때, 그때야 여자 남자들 옷 멘들렉이 벗엉덜 ᄀᆞ찌 강 놀믄.
@1 맞아. 몰랏지.
#3 몰랏지. 무신 뭐 옛날 다 경헨덜 컷주. 어린 땐.
#2 다 경헨 컷주.
#3 이제는 이제는 여섯 설, 일곱 설 뒈면 어른 뒈고 다 성인 뒈 버리지만은.
@1 예.
#3 엿날에는 다 옷들 벗엉덜 ᄀᆞ치 컷으니까.
@1 아, 역시 바당 동네니까 이런 것도 나오네.
#3 (웃음)
@1 백중날 목욕하면. 근데 여기 그.
#3 다른 동네 가도 그런 말들 헐 건디.
#2 마찬가지. 다른 동네도 이 말은 헤.
@1 이 말은 헤마씨?
#3 으.

모살뜸

@1 으. 모살구침은 안 헙니까? 여기는.
#2 무사 저기 삼양 강 허는 사름은 허지.
#1 삼양도 허곡 옛날 여기서도 가끔 허는 사름 잇어.
@1 여기는 흰모살.

#1 으, 흰모살.
#2 흰모래.
#3 아멩헤도 열이.
#2 삼양은 검은모래니까.
#3 으.
#2 거기는 강 허민 다리 아픈 사람도 괜찮아.
@1 음.
#3 신경통.
@1 신경통에 좋다고.
#2 신경통 잇인 사람덜이.
@1 게믄 그건 언제 강 헤마씨?
#2 유월달에.
@1 음력 유월에?
#2 으, 막 더울 때.
@1 아.
#2 더울 때 가야 그 모래가 덥주게.
#1 옛날엔 거.
#2 건디 그 모래 덥지 안허민 들어가지 못해.
#1 절물 가 가지고 물을 많이 맞앗주게.

물맞이

@1 절, 절물에 강도 물 맞이곡.
#1 으.
@1 그 물 맞이레 가는 건 언제 가마씨?
#1 것도 여름에.
#3 것도 유월절에.
@1 보통 백중에 간덴 허지 안헙니까?
#3 아니, 아니. 그건 백중허곤 틀려.
@1 어.
#2 저이 그.
@1 다른 동네 가민 백중에 물 맞이레 간덴.
#2 모래뜸 헤영 나오면은 너무 덥잖아. 경허민이 거기 강 물을 맞아. 맞는 사름덜은.
@1 아.
#2 너무 더우니까 그거 식이젠 허민 강 맞아야 뒈.
@1 삼춘은 모래찜 안 헤봔?
#2 무사 안 헤여? 헤낫주.
@1 그니깐 어느 절에 강 헷수과? 어느 철.
#2 유월달.
@1 유월달에 강은에 모살구침허곡.
#2 이봐이, 삼 일 허곡이. 또 삼 일 더 허젠 허민 오 일.
@1 음.

#3 저 삼춘은 신촌 살아시난 삼양허고 가까운 디난.
#2 으.
@1 예.
#2 우린 뎅견.
#3 자주 강근에 그디 모래찜을 헷주.
@1 겡은에 모살구침 헹은에 그다음 절물 강은에 물은 멧 번 맞아?
#2 가근에 뭐 이녁 맞구정 헌 대로 맞잖아.
#1 맞구정 헌 대로.
@1 하루에 모살침 헹.
#2 모살뜸을 ᄒᆞ루만 안 헤.
@1 아, 살멍 헤? 거기.
#2 으, 거기서 살멍 허주.
@1 아, 삼일이나 오일?
#2 으.
@1 게믄 신경통 나십디가?
#2 (웃음) 몰라.
#3 (웃음)
#1 거 과학적으로 연구헤야 헐 문제주.
@1 과학적으로 좋덴 허난 허는 거라예.
#2 경헌디 모래뜸만 헤지민 좋은 거.
@1 음.
#3 난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네가 삼양에 간 헐 때, 줌자멍 그디서 솔박 가졍 간 모래 덮어 주고.
#2 자멍 헙니께. 그디 다 포장 쳐 놩이.
#3 도랑 파주고, 모래 덮어주고.
#2 포장 쳐 논 디는 돈을 내고.
@1 음.
#2 또 그냥 아니 헹 헌 딘 개인으로 강 ᄒᆞ꼼 허는 건 돈 안 내.
@1 예. 그다음에 물 맞으레는 언제 가마씨?
#2 물 맞으레도 여름에 가주게. 막 더운 때.
#3 그런데 여기 신흥서는 물 맞으레덜 잘 안 갓어.
@1 바당 이선예?
#3 으.
@1 여기도 물들이 써넝허지예?
#2 막 좋주게. 깨끗허고.
#3 여기 큰물허고 ᄉᆞ나이물 옛날 여름에는.
#2 잘도 차갑주게.
#3 그 물이 오분 이상은 강 커 앚지 못허니까.
#2 너무 차가와.
@1 다른 데 물 맞일 일이 엇구나?
#2, 3 으.

팔월

@1 그다음에예. 팔월 초ᄒᆞ를 벌초.
#1 음, 옛날에 팔월 초ᄒᆞ를날 문중벌초.
#2 팔월 초ᄒᆞ를날.
#1 개인 벌초는 그 전에 거의 다 하고, 문중벌초라고 문중 그 저 묘역이 잇거든요.
@1 예.
#3 집안 다 모여서 허는 벌초.
#1 거 옛날 팔월 초ᄒᆞ를에 헷는데 요새는 그 저 팔월 전에 일요일날 택헤 가지고 많이 합니다.
@1 음. 옛날 벌초 방학들도 헤신디예?
#1 으.

벌초

@1 게난 이제 문중벌초는 팔월 초ᄒᆞ루. 요즘은 모듬벌초 안 하고, 여기는 문중벌초렌 헙니까? 이름을.
#1 가족벌초옌도 허고.
#3 개인, 개인별로 벌초덜은 그 문중벌초 전에 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초ᄒᆞ를날 문중벌초덜을.
@1 초ᄒᆞ를날 하고예. 자 삼춘안티 다시 한 번예? 가족벌촌 무신거고, 문중벌촌 무신거우꽈?
#1 가족벌초는 요새는.
#3 직계.
#1 가족단위로 공동묘지를 많이 조성헷주마씀게.
@1 예.
#1 경허니까 건 가족이고. 또 문중벌초는 옛날 조상들. 멧 대조 조상들을 많이 ᄀᆞ찌 모인, 저 조성뒌 그 공동묘지가 문중벌초 허는 거.
@1 가족벌초는 개인 벌초렌.
#1 음. 개인 벌초나 마찬가지.
@1 그게 팔월에.
#3 게난 가지벌초주. 가지벌초.
@1 가지벌초.
#3 가지벌초.
@1 가지벌초가 가족.
#3 가족벌초.
@1 예, 예.
#3 가지.
@1 가지벌초.
#3 게난 이 조상덜이 우리 뿌리가 하나면 할아버지덜이 여러 할아버지들이 ᄌᆞ손이 생기니까, 이제 집안 이녁 직계 아버지 어머니 그런 것은 하나의 가지벌초로 봐야 뒈는 거고.
@1 예.

#3 이제 할아버지 증조나 고조는 문중벌초로 봐야 뒈니까, 그런 거는 초ᄒᆞ를날덜 다 ᄌᆞ손덜 모여서 하고.

팔월 멩질

@1 예. 그다음에 팔월 멩질?

#3 추석.

@1 아까 그 추석. 팔월 멩질은 어떤 식으로 준비헹 어떤 식으로 헤마씨?

#1 거의 정월 멩질이나 마찬가진데 오히려 이렇게 보면 팔월 아, 정월 멩질은 새해를 맞이하는 날이기 때문에 엿날 음력으로 그런 의미가 잇고. 팔월 멩질은 오곡백과가 무르익을 때 그 제를 지내기 때문에 그런 우리 살림에 보탬이 많이 뒈는 그 달이기 때문에. 그런 뭐가 잇는 거 아닌가.

@1 팔월 멩질에는 뭐 떡을 특별하게 허거나 허는 거 잇인가마씨?

#1 거의 다 비슷헤.

#2 떡허는 집이도 잇고.

#3 거의 다 비슷헤.

#1 거의 다 비슷허주.

#2 비슷헤 다.

@1 비슷헤?

#2 으.

@1 아까 그 저 송편 뭐 이런 올리는 건 똑ᄀᆞ타예? 으.

#3 육지부에서는 그런 그 멧밥이나 그런 거를 햅쌀로 헌다고 하지만.

@1 음.

#1 제주는 논이 없으니까, 어. 논이 없으니까. 평소와 마찬가지로.

놀이

@1 그래도 옛날 보면 팔월 멩질날 둘밤이들 막 놀기도 허곡.

#2 엿날은 많이 놀앗주.

#1 많이 놀앗주.

@1 어떵 놀앗수과?

#2 ᄒᆞᆫ 보름이나 놀아. 옛날.

@1 으.

#2 우리 신촌서는이.

@1 으.

#2 보름을 놀아.

@1 으. 언, 언제부떠?

#2 초ᄒᆞ를날부떠 놀기 시작허민 매날 놀아. 보름까지.

@1 팔월에?

#2 으.

@1 게 무신거 허멍 놀아?

#2 무신거 허멍 놀아? 춤도 추고, 장구 치곡.

#1, 2 (웃음)

#2 경헹 놀주.
@1 아, 신촌은 경헹 놀고. 이 신흥.
#1 우리 어릴 때는 팔월 멩질날 저녁에 달이 좋거든. 달이 막 둥근 달이 뜨면은 엿날 이 저 신흥리에 부둣가에 그 목선 어선들이.
@1 예.
#1 작은 어선들이 멧 척이 잇엇습니다.
@1 예.
#1 주인 몰르게 남녀 처녀 총각들이 타 가지고 즉 말하면은 선유놀이.
@1 으.
#1 바다쪽으로 나가 가지고 이제 물에도 몸도 굼곡 뭐 허면서 이제 들어오면은 주인 그 선주는 막 숨엇다가.
#2 (웃음) 막 욕 허고.
#1 (웃음) 막 때리곡, 물 뿌리고 영헤 가지고 그런 경험이 잇는데.
@1 예.
#1 밤에 뭐 옛날은 놀이가 없어서 그런.
#3 저 엿날에 팔월 추석이나 이렇게 헐 때 보면 오래간만이 이제 집 식구덜이나.
@1 예.
#2 이 친구덜 만나고 동네 친구덜 만나지 안헤게? 옛날 놀이가 놀이가 뭐냐면 요즘처럼 무슨 뭐 스마트폰이 잇어, 피씨방이 잇어?
#2 아무것도 엇엇주. 장구 치멍 노는 거주.
#3 여자들은 고무줄 놀이.
@1 고무줄 놀이.
@2, 3, 4 (웃음)
#3 남자들은 다스께. 다스께 알아요? 다스께.
@1 오니다스께?
#3 다스께.
#1 다스께.
#3 막 돌담도 발아서서 다니곡, 곱을다스께.
#1 곱을락이주.
#3 곱을락.
@1 아. 여기는.
#3 곱을락 다스께
#1 다스께는 일본말이고.
@1 예.
#3 그런 놀이들. 이런 팔월 추석 때 보면.
@1 달구경 허고 이런 거는 안 허고?
#3 어, 또 달구경 가고. 아까 전 노인회장님 얘기는 바닷가에 여자덜허고 놀레 가고 허는 것은 그때 당시엔 연애허는 사름덜 좀.
#1 (웃음)
#3 나이가 들어근에 흔 십오륙 세 이렇게. 이어가는 사람들은 연애허는 사람들은 그렇게 놀레 가고.

@1 몰래 이제.
#3 그 밑에 그런 내용 모른 사람덜은 다스께 허고.
@1 다스께 허고예?
@2 회장님은 다쓰케 허고.
#3 (웃음)
@2 나이가. (웃음)
@1 그 저 배 탕 놀레 가는 거는 무신 놀이헌덴 헙니까?
#1 즉 말허자면 선유놀인디, 달 붉으니까 배 탕 놀레가 가지고 거기서 장난도 허곡. 거 즉 말허자면.
@1 뱃놀이. 선 한자로 선.
#3 (웃음)
#1 선유, 뱃놀이.
@1 선유. 여기선 게난 선유렌 헷어예?
#1 엿날 거 조끔 뭐 학식이 뭐 헌 사름덜은 그런 표현을 하고 나는 뱃놀이로 봣지.
@1 예. 뱃놀이로 보고예?
#1 배 탕 놀레 가자 헤영.
@1 배 탕 놀레 가자. 맞수다. 이게 팔월 멩질날. 옛날 팔월 멩질 고비에 촐 비는 이런 거는 안 헤신가마씸?
#1 촐 비는 거?
@1 예.
#1 우마허는 사람들.
#2 우마허는 사람들 촐 비주.
#3 그 이후에.
@1 그 이후에.
#3 팔월 추석이 넘으면 하늬ᄇᆞ름이 풀기 시작허주. 하늬ᄇᆞ름.
@1 예.
#3 팔월 추석 전에는 샛ᄇᆞ름. 비가 오는 바람.
@1 예.
#3 다음에 이 팔월 추석이 넘으면 하늬ᄇᆞ름. 건조헌 바람이지.
@1 예.
#3 그래서 촐 비레 가고 그렇게 허는 거지.

바람 이름

@1 게믄예, 하나만 더. 그 우리 바람 허지 안헙니까예? 동쪽에서 부는 바람은 무신 바람이렌 헤?
#3 샛ᄇᆞ름.
@1 샛ᄇᆞ름. 그다음에?
#1 서쪽에서는 하늬ᄇᆞ름.
#3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하늬ᄇᆞ름.
#2 하늬ᄇᆞ름.
@1 북서쪽을 여기서는 하늬ᄇᆞ름예?

#3 그다음 놉ᄇᆞ름.
@1 놉ᄇᆞ름은 어디우꽈?
#3 저, 동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1 놉ᄇᆞ름은 동북쪽.
#1 마ᄑᆞ.
#3 마ᄑᆞ름.
@1 마ᄑᆞ름은?
#1 남쪽.
#3 남동쪽에서 불어오는 보름은 마ᄑᆞ름.
@1 남동이라마씨?
#3 남동쪽이주. 더운 바람이지. 그게.
@1 그니까 그냥 정확하게 북쪽으로 부는 바람.
#3 그게, 그게, 그게, 저, 저.
#2 그게 하늬ᄇᆞ름이주.
#3 하늬ᄇᆞ름.
@1 지금 막 꺼꾸로 골암수다. 북쪽 북서헤 갖고 하늬ᄇᆞ름이엔 헷당. 북쪽은 또 하늬ᄇᆞ름이엔 헷당.
#3 게난 그 북서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북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하늬ᄇᆞ름인데.
@1 예.
#3 주로 이 저 꼭 북쪽으로만 부는 것이 아니라, 서쪽으로도 같이.
@1 ᄒᆞ꼼 가도.
#3 으.
#1 거 동서남북으로 따지게 뒈면.
#3 으.
#1 샛ᄇᆞ름, 하늬ᄇᆞ름. 샛ᄇᆞ름은 동쪽.
@1 예.
#1 하늬ᄇᆞ름 서쪽. 남, 저 마ᄑᆞ름.
#3 그디 마ᄑᆞ름은 사잇바람이지, 사잇바람.
@1 음.
#3 이 저 마파람하고 놉ᄇᆞ름은 하늬ᄇᆞ름하고 샛ᄇᆞ름하고 사잇바람으로 봐야 뒈요.
@1 이게 ᄒᆞ꼼 다른 데하고 ᄒᆞ꼼 ᄯᅳ나예?
#3 으.
@1 마ᄑᆞ름은 남풍이렌 허는데 다른 데는.
#1 으, 남풍.
#3 남풍이렌 허주.
@1 하늬ᄇᆞ름은 북풍이고.
#3 남풍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1 하늬는 서풍이지.
@1 여기는 하늬는 서풍. 어느 쪽으로 오는 거꽈? 이 동네는.
#1 서쪽으로 부는 거지.
@1 아.

#1 서쪽으로 동쪽더레 불어 가는.
@1 서쪽에서 동쪽이 하늬ᄇᆞ름예? 이게 지역에 따라서 쪼끔씩 다른데 우리 저쪽 가면 하늬ᄇᆞ름은 북풍이거든마씨.
#1 음.
@1 근데 여기는 서쪽. 여기 동쪽은 어디우꽈?
#1 동쪽은 이쪽.
@1 이쪽?
#1 여기는 함덕이고.
@1 함덕쪽이 동쪽. 여기는 서쪽은 이 시엣쪽으로.
#1 예. 시엣쪽.
@1 거를.
#1 조천, 조천.
@1 조천쪽 그거를 여기서는 하늬ᄇᆞ름이렌 헨예?
#2 다 지역마다 틀려. 저 서쪽하고 동쪽허고 틀려.
#1 사이로.
@1 동서남북 사이로 부는 것은 아까 우리 회장님도 이야기 헷지만은,
#3 높ᄇᆞ름.
#2 말이 틀려.
#1 높ᄇᆞ름도 뒈곡, 동남풍도 뒈곡. 동남풍은 동쪽하고 남쪽.
@1 남쪽.
#1 사이로 부는 것이 동남풍이주.
@1 예, 동남풍이 놉ᄇᆞ름이우꽈?
#1 서북풍이 즉 말하자면 하늬ᄇᆞ름이라.
@1 서북, 서쪽하고 북쪽.
#1 음, 그 사이로 오는 바람이 하늬ᄇᆞ름.
@1 하늬ᄇᆞ름예. 예, 게난 이 지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예.

촐 베기

@1 자 어쨌든 그렇게 헤서 촐 비는데 이 동네는 촐 허는 일이 그렇게 크지는 안헌가 보다예?
#1 예에.
#2 아니 헷주게.
@1 바당일이 하영 헷수과?
#1 엿날은 그래도 저 농촌이기 때문에 소는 보통 가정마다 잇엇습니다.
@1 예.
#1 농사짓는 사람은. 밧 갈고 뭐하고 이렇게 헤 가지고. 요새는 경운기로 허지만 엿날은 소로 다 헷주. 잠, 잠, 잠데로 헤 가지고 밧 갈고.
@1 예.
#1 이렇게 헷는데. 엿날은 가정마다 소 잇는 사람은 다 촐 비엇수다.
@1 예. 그런 식으로 허는데 특별나게, 놈의 농네는 멩질 헤 먹엉 촐 비레 갓덴 헷거든예? 여기는 경 안 헷구나예?

#1 멩질 넘으면 가을철이 드는 거니까. 하늬ᄇᆞ름 부는 거니까.
#2 하늬ᄇᆞ름 불민 가주.
#3 멩질 먹엉 촐 비레 가는 사름덜 막 착한 사름덜.
@1 아, 기구나. 알앗수다. 음력 구월에 허는 건 뭐 잇인가마씨? 이 상강 들고 영허면.
#1 별로 허는 건.
@1 곡식 허여 드는 거. 상강에 뭐 허는 건 엇고예?

시월

@1 시월에 입동이여 소설이여 허는 거 이런 것들은?
#1 시월에는 거의 다 이제 하작도 끗나고 이제.
#3 입동 들기 전에 이제 엿날에는 시월달이면.
#1 겨울 농사,
#3 조, 조, 조. 콩, 고구마, 농사지을 때.
@1 예.
#3 가을 농사 걷어 들이는 시기고.
@1 입동 전에예?
#3 으, 입동 전에는.
@1 음.
#3 지금 이 시기는 뭐 이제 주로 헐 것이 없지. 없엇지, 이제.

십일월

@1 십일월 가면은 음력 십일월예? 저기 겨울, 양력을 십이월 뒈는데. 동지, 동지는 어떵 허엿수과? 여기는 동지 풋죽 헤?
#2 풋죽 쒕 먹주.
#1 풋죽 허면 우린 노인정에서 모여 갖고 풋죽 쒕 먹주.
@1 아, 노인정에서?
#3 동지로써 특별허게 허는 행사는 엇고.
#1 집, 집안마다 허는디. 풋죽 쒕 먹는디. 그거주게.
#2 엇어, 거의 엇어.
@1 혹시 풋죽 쒀 갖고 그날 집 주변에 뿌리고 영도 헤시카마씨?
#1 엿날은 많이 뿌렷주.
#2 우린 이제도 꼭 동지날은 풋죽 쒕 집 주위에 뿌려.
#3 지금도 허는 사름 잇어. 지금도 허는 사름 잇어. 지금도 허는 사름이.
#2 이제도 헤.
@1 이제도 헤예?
#2, 3 으.
#2 쭉 허여낫기 때문에.
#3 지금 지금도 하는 사람 잇어.
#1 붉은색이나 붉은 음식을 제일 싫어허는 게 귀신이 싫어허거든.

@1 예.
#1 귀신을 막기 위헤 가지고.
#2 쑤어근에게 다 뿌리주게.
@1 그 동짓날 풋죽 쒕은에 뿌리는 이유는 무시거우꽈?
#2 접촉, 구신 접촉 허지 말렌.
#3 잡구신 방제주.
@1 으, 잡구신 방지예?
#3 으. 잡구신 방지.
@1 그 다른 데는 동짓날 풋죽 먹으민 감기 걸리지 말렌 헌덴.
#3 그것도 잇고.
#2 그것도 잇어. 것도 잇고.
@1 그 말 삼춘이 잘 골아줘 봅서. 말로.
@2 으?
@1 동지에 풋죽 먹으믄 어떵 한다고?
#2 감기 걸리지 말라.
@1 감기 걸리지 안헌다예?
#2 으.
@1 그 여기는 ᄌᆞ베기, 동지에 새알이렌.
#2 새알도 헤놓는 사름이 잇주만은 이젠 안 헤, 것도.
@1 옛날에 헷수과?
#2 옛날덜은 막 집집마다 다 풋죽덜 쒕 먹고 허주게.
@1 음.
#2 겐디 이젠 안 헤.
@1 이제 안 헤.
#3 그 동글락헌, 동글락헌 거 만들젠 허민 성가시난게. 떡국덜 사당 떡국떡 놩덜.
@1 떡국 놩 먹고예?
#3 (웃음)
#2 똑기똑기 짤라 놔근엥에.
#3 그자 마트에서 간단헌 거 ᄑᆞ는 거 사당덜 놔근에.
@1 예.
#2 막 육지서는 동지들 막 세주만은 여기는 그다지 뭐허지 안헤.
@1 그다지는 안 허고예?
#3 이젠 다 펜안허게 사는 세상이라 놓난.
#1 알고 보민 제주보단도 육지, 육지가 이런 세시풍속 잘 허는 디라.
#2 엄청 많이.
@1 맞아예.
#2 이 풋죽 쑤는 거 최고로 잘허잖아.

장 담그기
@1 집에서 장은 언제 담읍니까? 된장 쑤고 허는 저 장.
#2 섣덜그믐날.

@1 예?
#2 섣덜그믐날.
@1 섣덜그믐날 장 담아예?
#2 장 담아. 으.
@1 섣덜그믐날 장 담으멍.
#2 섣덜그믐날은 장을 저 어둑아 가민 들이치주게.
@1 예.
#2 왜냐하면은 뭐 궤지 말라. 벌거지도 뭐 허지 말라 헤근에.
#3 음.
#2 그걸 장을 담주게.
#1 메주, 메주는 그 전에 헹 말리곡.
@1 메주는 언제 숢아마씨?
#2 메주는 동짓둘 흔 구물어가민 숢주기.
@1 아, 동짓둘 구물엉 숢아, 쉬엇당.
#2 물령.
@1 섣달그믐에.
#2 으. 담그주. 섣둘그믐에 담그는 사람도 잇고 거는 다 틀려, 이녁마다.
#1 거 발효 뒈는 거고.
#3 섣둘그믐 기준을 허는 거지.
#2 음.
@1 그래도 섣둘그믐날.
#2 제일 섣둘그믐날 들이치렌 허는 거주.
@1 아. 메주 들이치는 거예?
#2 으. 군물 굴앙 놧당이, 소금 헤영 놧다근엥에 섣둘그믐날엔 꼭 들이치렌 허는 말이주.

집 일기
@1 이 동네 집은 언제 일엇수과?
#1 집 이는 거?
@1 예, 옛날 초집헐 때 집들.
#3 지붕, 지붕 덮는 거?
@1 예.
#3 봄에, 봄에.
@1 아, 여기는 봄에?
#1 봄에 허주. 허는데 거 가을에.
#3 새를 헤다 뒷다가.
#1 새를 헤다가게 줄 놓곡 뭐 헤 가지고 다 헤신디.
#3 봄 나와 가면 이월 음력 이월쯤 뒈면 줄 놓면서.
@1 음.
#3 여하튼 이삼월에 이삼월에 줄 놓고 거의들 집들 일엇지.
@1 예. 게믄 새 준비 허는 건 언제헤마씨?
#1 초가, 초가집 ᄀᆞ뜬 경우는 격년, 격년제로 놧어.

@1 여기는 격년제예?
#1 격년제. 이년에 한 번.
#3 이년에 한 번.
#1 격년제로 허는데 그 새 헤당,
@1 음.
#1 저 말려 가지고 저 이제.
#3 눌엇다근에.
#1 줄 놩 꼬아 가지고 이제 다 준비헷다가. 그 좋은 날 바람도 안 불고. 여기 바람 불면은.
#2 안 뒈.
#1 제주도는 바람 많기 때문에 거 새를 더프지 못 헤여. 다 날라가 불엉.
@1 음.
#1 그런 날 택헤 가지고 아침 보통, 아침 시간을 많이 이용헙니다게.
@1 예.
#1 아침엔 바람이 별로 잘 안 불거든.
@1 음.
#3 경허난 그 집 이는 것도.
@1 예.
#3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고, 한두 시간 내에 마쳐야 뒈니까 동네 사람덜이 다 수눌어 가멍들.
#1 줄도 메 주곡.
#3 줄도 메 주곡. 여럿이 나와 가지고.
@1 그러면은 그날은 뭐 특별이 음식들 헹은에 멕이고 헤신가마씨?
#1 으. 멕이고 헤낫주.
#3 집이서 밥헹들.
@1 어떤 음식?
#3 우동, 우동 숣앙들 멕이곡.
@1 아, 우동도 숣앙 멕이고. 음, 그렇게.
#2 아이고, 아이고.
(웃음)

납평날
@1 그다음에 겨울 하면 엿 허는 날도 잇지 않우꽈? 삼춘.
#1 납평날.
@1 납평날예?
#1 납평날.
@1 납평날 헹은 엿도 약도 뒌덴 허멍예?
#1 약도. 납평날은 바로 그날 그날 엿을 허렌 허는 말이주게.
@1 음.
#1 닭 삶아 가지고 하는 것도 잇고, 옛날은 그 저 꿰로도 허고.
@1 아, 꿰도 놩.
#1 검은꿰로.

@1 오.
#1 보약이주. 보약을 허는 거.
@1 예.
#3 엿도이 다양헤. 엿 허는 것도 보면.
@ 예.
#3 이 ᄆᆞ작불히도 옛날 우리 보면 ᄆᆞ작불히엿도 헤근에.
#1 건 신경통에.
@1 예.
#3 우슬이지 우슬, ᄆᆞ작불히엔 헌 게 옛날 사투리로 ᄆᆞ작불히. 우슬엿도 허면 이 관절에 좋덴 헤근에.
@1 예.
#3 이 뻬 뻣는 디.
@1 예.
#3 신경통. 으. 그렇게 헤서.
#1 뒈지고기 비계로도 허는 사람이 잇고.
#2 으.
#3 고약으로써는 머리빡 고기 헤 가지고 삶아서도 하고. 뒈지머리.
#2 그거 먹으민 막 보약 뒘덴 허곡.
#3 으. 다음에.
@1 머리빡 그거예?
#3 으.
#2 닭으로 많이 허주.
@1 뭐 허여마씨?
#2 닭.
@1 닭으로?
#1 일년에 훈두 번씩 그저 우리 메누리 친구덜이 다 사무장 저 중산간에 사무장이난.
#3 오소리, 오소리.
#1 독엿이나 꿩엿.
#3 꿩엿.
#1 일 년에 훈 두서너 통 사당 먹주.
@1 아, 삼춘을 엿을 꼭 먹엄구나?
#1 으, 아으 우리는 옛날 할머니영 같이 살앗는데.
#2 허여. 허여난.
#1 할머니덜이 엿을 많이 헷주마씀게.
#2 겐디 정월은 나민 안 헤.
@1 아.
#2 엿은.
#3 이 엿을 만들젠 허면.
#2 섣덜까지만.
#3 이 엿을 만들젠 허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믄.
@1 예.

#1 골 만드는 거.
@1 골, 예.
#3 그 골 지금 사람들은 이 저 뭐를 만들지 못허잖아?
#1 그런 거 헐 중 몰라. 이제 사름덜은
#3 이 누룩, 누룩. 누룩 만들지도 못허고.
@1 골도 못 만들고.
#3 골도 못 만들고. 요즘 사람들.
#2 으.
#3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골도 잘 만들고 누룩을 잘 만들엇어.
@1 아.
#3 그래서 꼭 우리 어머니는 엿을 잘 헤 줘 가지고 우리도 잘 먹엇는데, 엿을 허는 거 보면 그 집에 환자들이 보면 아픈 거에 따라 가지고 엿도 다 그거에 맞촹 재료덜 사다근에.
@1 예.
#3 으.
#2 주로 닭이 제일 많이 허주.
@1 닭엿을, 독엿을 제일 하영 한 거라예?
#1 으, 엿날은 닭엿.
#3 독엿 독엿, 뒈지머리빡엿, ᄆᆞ작불리엿도 이제 위덜 아픈 사람, 우리 아버지 뭐 헐 적에, 이 아니헐 때는 ᄆᆞ작불리엿도 헨 먹어서.
#2 엿날은게 약이 엇이난 그걸 헷주.
#3 ᄆᆞ작불리엿.
@1 예, ᄆᆞ작불리엿.
#3 ᄆᆞ작불리엿.
@1 예.
#1 고령근도 허고. 고령근이엔 헌 거 알아졈수과? 고령근.
@1 고령근 나가 알기로는.
#2 ᄆᆞᆯ쿠실낭 뿌리.
@1 예, 뿔리.
#1 게메, 거 뿌리.
@1 아, 고령근으로도 허고예?
#3 으, 고령근로도 허고. 그 가정에 집에 환자들이 잇으면 그런 걸 엿을 만들어서 먹엇다고.
@1 아, 이 동네는 엿을 진짜 하영 헷나 보다. 신흥.
#1 엿날 그 저 윗병들이 잇어 가지고 즉 말하자면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면 암 비슷한 그런 윗병인데 거 정기적으로 허는 분들이 옛날은 잇엇습니다.
@1 예.
#1 고령근 뿔리를 케다가 말렷다가 이제는 그걸로 이제 달령.
@1 그 물에.
#1 그 병이 발생헷을 때는 그걸 먹거든게.
@1 음.
#1 게 가지고 이제 많이 효과를 보고. 또 옛날에 거, 요새는 먹는 것에 다 그 저 방, 방부

제가 아니고 약제가 들어갓기 때문에 회충이 잘 없는데 옛날은 회충 이만씩 헌 회충들이 많이 나왓습니다.
@1 음.
#1 또 촌충.
@1 예.
#1 쫄라지는. 그런 것을 방지헤 가지고 고령근을 많이 먹엇주.
@1 아, 회충 방지예?
#1 먹으면 싹싹 빠져 불주게.
#2 쓰잖아.
@1 아, 겅 씁니까?
#3 저, 비자, 비자.
@1 비자로도 엿 허고예?
#3 촌충을 구제허기 위헤 가지고.
@1 아, 이 동네 진짜 엿 하영 헷네. 이거 엿 만드는 거를 저기 베와 가야커라.
#1 그 간단헌 거주, 무시거.
@1 아, 골 놓고 이런 것들을 하면 좋을 거 닮아.
#2 좁쌀.
@1 좁쌀.
#1 골만 골만 준비허믄 뒈는 거난.
#3 골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주.
#2 흐린좁쌀.
@1 그거는 흐린좁쌀?
#2 으.
@1 흐린좁쌀로.
#2 으, 걸로 엿 허주.
@1 예, 흐린좁쌀로.
#2 겐디 찹쌀로 허민 더 많아. 이 흐린좁쌀로 허는 거보다.
@1 엿 양이.
#2 양이 많아.
#1 찹쌀로 허게 뒈면은 거의 다 빠지거든. 그 내용물이.
@1 예.
#1 찹쌀 알 속의 내용물이 거의 빠지고 좁쌀은 작은 것에 그 껍데기가.
#2 두꺼와.
#1 쪼끔 두꺼와이.
@1 주시가 잇구나, 거는?
#2 얼마 안 나오거든 양이.
@1 예. 아까 삼춘 엿은 저기 정월에는 안 먹어마씨?
#2 아니, 먹지 안허는 게 아니고, 허질 안허주.
@1 아, 허질 안허고.
#2 이거는 이 막 줓아부는 때문에 영 줓추는 때문에 정월은 나믄 안 헤.
@1 음, 그 엿은 다 그러면 그믐 섣둘 전에 다.

#2 음, 음, 음.
@1 정월 전에 다 엿은 멘들라 하는 거구나예?
#1 안에
@1 줓촤 부니까. 아, 엿을 이거 하영 만들아야겟는데.
#2 (웃음)
#1 만들앙 먹어. (웃음)

속담

@1 그 소한 옛날 그 속담허면 소한에 나간 사름 어떵 허지 말라.
#2 춪아보지 말라.
#3 대한에 나간 사름.
#2 대한에.
#3 소한이 아니고 대한에 나간 사람.
#1 아니 소한.
#3 아.
@1 소한 더 춥덴 허잖아예?
#1 소한이주기.
#2 소한 대한에 나간 사름은 춪아 보지 말라.
#1, 3 춪아 보지 말라.
@1 춪아 보지 말라.
#1 그만큼 추웟덴 허는 거. 옛날은.
#2 견디 우리는 소한에 대한에도 날만 좋민 바당에도 가곡.
#3 집 바깥 출입을 허지 말라 허는 말이주.
#2 으.
#3 그 말이.
#1 요새는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흔 이삼 년 전에 흔 번 눈이 요 정도까지.
@1 예.
#1 온 적 잇는데 옛날은 거의 다 이 정도 묻엇거든게.
@1 무릎 위로예?
#1 예, 예. 옛날은 눈 많이 왓습니다게.
#2 눈 많이 왓주.
@1 아.
#1 겨고 추위도 막 심허고. 대소한에는.

농사일

@1 이렇게 하고 요 정도 하는데예, 삼춘 옛날 이 동네는 농업이 주우꽈? 어업이 주우꽈?
#1 반어, 반어 반농.
@1 반농반어?
#1 응. 농사가 쪼금 많이 헷어.
@1 농사가 많아예?
#1 으.

@1 게믄 일월부떠 십이월에 농사 지엇던 거 일월에는 농사허게 뒈믄 무슨 일 헤신고예?
#1 무슨, 무슨 일?
@1 예. 일월에 허는 일은 엇수과?
#1 일월에 뭐 거의 다 농한기.
#3 보리, 보리밧디 검질메는 거.
@1 일월에?
#1 으.
@1 으, 보리밧디.
#3 김매기.
@1 김매기예, 검질. 보리로 점은 안 헙니까? 보리점. 보리 뿌리 영 헤근에.
#1 아니.
@1 그런 건 안 들어 보고예? 일월에 보리밧디 검질. 양력 이월에는?
#1 거 농사허는 사름 밧디 가서 일허는 거.
@1 밧디 검질 허고. 삼월에 허는 농사 잇인가마씨?
#1 삼월 옛날은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3 저 이월달에는이, 이월달에는 이 저 무슨 일덜 많이 뎅기냐면 짇을커 허레 많이 다녀. 짇을커.
@1 짇을커.
#3 짇을커, 솟강알에 짇을커.
@1 예.
#3 밥헤 먹젠 허믄.
#2 불부찌젠 허민.
@1 불부찌젠 허민. 그게 이월에 헤마씨?
#2 매날 매날.
@1 양력 이월?
#2 으.
#3 양력 이월.
@1 양력 이월예?
#3 솔입 걷으레 소낭밧디 솔입 걷으레 가곡.
#2 (웃음)
@1 솔입 걷으레 가곡.
#3 다음에 이 들에 설피 허레.
@1 설피 허레.
#3 설피가 뭔지 알아? 설피?
@1 이렇게 영.
#2 가시낭.
@1 예.
#2 가시낭도 다 비어낫저, 나 엿날.
#3 잡낭들.
@1 잡낭을 설피렌 헤?
#3 으.

#1 삭다리도 꺼꺼당 허곡.
#3 막 여러 가지 잡나무를 설피엔 허주게.
@1 음.
#3 그거 허레 뎅기고.
@1 예.
#3 으.
@1 이월에예?
#3 다음에 새도 비레 뎅기곡.
@1 이월에?
#2 집 일젠 허민.
#3 집 일젠, 집 일젠 허민
@2 새 비고.
#3 으.
@1 그다음?
#3 그런 거.
#2 그런 거주게.
@1 게믄 삼월에는?
#1 우리 어린 때는 그 저 소나무. 소나무가 옛날은 소나무가 좀 많이 잇엇던 모냥이라예?
@1 예.
#1 그거 이제 벌목 헤 버리면은 그 소나무 뿌리에서.
#3 솔칵.
#1 그 저 뭐가 많이 나오주게.
@1 솔칵.
#1 그 불 때는 뭐가 많이 나와.
@1 예.
#2 낭뿔리 허레.
#1 그거 뿌리가 좋앗주게. 우리 뿌리 케레 우리 많이 뎅겻는데 걸 헤당 막 케다가.
@1 눌엉 놔두고.
#1 이렇게 눌 같이 만들어 가지고 놓앗다가 일 년 내내.
#3 겨울에.
#1 땔감으로.
#3 구들묵, 구들묵.
@1 구들묵 짇고. 그 저기 그 솔, 소낭 뿔리 허레 뎅긴 거는 언제마씨?
#1 우리 어린 때.
@1 으. 게난 이월?
#1 흔 열다섯 설 정도.
#2 겨울 때에. 겨울에.
@1 으.
#3 겨울 때 일, 이월달에.
@1 예, 예. 삼월에 허는 일은 뭐 잇수과?
#1 삼월? 별로.

@1 으.
#1 삼월은 옛날은 우린 해촌이기 때문에.
@1 예.
#1 삼월에 그 톳을 많이 헙니다.
@1 아, 삼월에 톳예?
#1 채취를 헤 가지고 이제.
#3 바닷가.
@1 예.
#3 바다니까.
@1 톳 채취허고예. 음력 사월은?
#1 다 들어놓난 몰라.
#2 몰라.
@1 산디 갈고 뭐 허는 건 언제 갈아? 보리.
#2 보리는 지금.
#1 보리는 시월달에 지금 보리 갈아.
#2 갈암주.
@1 어.
#1 쪼끔 잇으면 보리 갈 거.
#2 음. 이제 콩 다 헤 불민 보리 갈 거주.
@1 예. 그믄 음력 시월에 보리 갑니까?
#1 거의 구월 구물어 가민.
#3 으, 시월이민 보리 갈주.
@1 예, 구월 구물어근에 허면 보리 가는 거예?
#2 보리 갈주. 으.
@1 그러면 사월에 허는 일은 엇어?
#1 사월에 허는 거는 그 하작. 즉 말허자면 보리가 구월달 말이나 시월달 초 뒈민 보리 갈 거든예?
@1 예.
#1 사월달 음력 사월달 뒈가민 이제 보리가 익어가죠.
@1 예.
#1 보리 일 끗나면.
@1 으, 보리 비고.
#1 농사 수확하는 거.
@1 보리 비고, 음력 사월예?
#1 으.
@1 그다음에?
#2 마농도 허고.
@1 마농은 언제?
#2 이 신흥은 마농쫑만.
#1 지금은 마, 마농을.
#3 신흥은 마농을 많이 허주. 보리는 하영 안 갈앗어.

#1 지금은 보리 안 허고.
@1 지금은 안 허고예?
#2 사월 나민 쫑도 꺼끄고.
@1 사월 나믄 마농쫑 꺼꺼예? 지금 음력? 양력?
#2 음력.
#3 음력이주게.
@1 음력, 마농쫑 꺼끄는 거예?
#2 게민 오월 나민 마농 케곡.
@1 음력 오월에 마농 케고. 예전에는 보리 비고, 아까 사월에 보리 비고.
#2 우린 원 보리 안 갈아 보난.
@1 예, 이제는 안 허니까. 유월에는?
#1 유월에는 하작헐 준비허고. 저 유월, 양력으로 유월 한 현충일 그 이전에 마늘 수확을 끝나 가지고 저 농협에 뭐 납품을 허는데.
#2 마늘 널곡.
@1 아, 현충일 전에예?
#1 으. 현충일 전에.
@1 으.
#1 지금은 그 끗나면은 한 삼 개월 동안, 삼 개월 아니고.
#3 공백 기간도 잇주.
#1 공백 기간이 한 이 개월?
#3 음력 육월이면 이제 조 조팟 불리는 거.
@1 옛날에 조팟 불리는 거예? 예. 음력 유월. 그다음에 감저는 언제 싱것수과?
#1 감자?
@1 예. 고구마.
#1 거는 유월달에.
@1 유월에, 음력 유월 조팟 불릴.
#1 양력 유월 중순 경에.
@1 아, 양력 유월 중순예? 고구마 심고.
#1 경헨 지금 뭐 시월 십일월 초순에 그 고구마 수확허고.
@1 십일월에 고구마 수확허고예? 그다음에 칠월에는 뭐 헙니까?
#1 칠월에는 뭐 마늘 심을 준비허고.
@1 아, 마늘 심을 준비.
#3 아니, 칠월은 공백 기간이지.
#2 마농 다 까고.
#1 공백 기간이지만
@1 마농 까고 이런 거.
#1 예.
#3 칠월은 공백 기간이주.
@1 팔월에는?
#3 마늘 심고.
@1 아, 팔월에 마농 심고예?

#3 음력 팔월엔 마늘 심고.
@1 음력 팔월?
#3 으.
@1 구월에?
#3 구월에는 조 수확허고, 콩 수확허고.
@1 조 수확, 콩 수확. 예전에예? 그다음에 시월에는 보리 갈고.
#3 보리 갈고.
@1 예. 그다음에 십일월에는?
#3 이제 십일월달 뒈면은 공백 기간이 뒈는 거주.
#1 십일월.
#2 놀아.
#1 요새는 저 저 농한기주게. 십일월달 뒈면은.
@1 예, 예전엔 농한기.
#1 지금은.
#3 농한기주게.
#1 밀감 수확 허주.
@1 지금은 밀감 수확예?
#3 요즘은 농한기. 밀감이주.
#1 옛날 기준으로 물어봐야지. 요새허고 짬뽕 뒈 불민.
@1 게난 옛날은 경허고. 요새예 이 신흥리에서 주로 허는 농사는 어떤 농사를 헤마씨?
#1 요새? 엿날이 아니고?
@1 예, 요즘은?
#1 요즘. 요즘은.
#3 마늘, 마늘.
@1 주가 마늘?
#1 신흥을 주작이 마늘.
#1 최고주 마늘. 신흥은 조천읍에서는 최고 신흥.
@1 아, 마농이예?
#3 마늘허고 그 양파.
#2 양파.
@1 양파허고.
#3 으.
@1 그다음에 과수원들도 잇수과?
#3 과수원 셔.
#1 과수원 허는 사름은 허고.
#2 허는 사름덜.
@1 거의.
#3 농사짓는 걸 백 프로로 봣을 때에.
@1 예.
#3 백프로로 봣을 때에 마늘 농사가 육십 프로.
@1 육십 프로.

#3 어, 다음에 양파만, 양파 한 이십 프로 밀감 이십 프로 이렇게.
@1 아, 귤을 많이 안 하는구나, 여기. 대부분 그러면 마농을 헴구나에?
#3 어, 마농 주로 농사.
@1 게믄 다른 뭐 브로콜리나 이런 건 안 하고?
#2 안 하고.
#3 그런 건 안 하고.
#2 그냥 마늘.
@1 마농만에? 마농 주산지.
#2, 3 으.
@1 마농은 허게 뒈면은 일 년에 멧 번 싱거? 한 번?
#3 한 번.
#2 한 번 싱그주.
@1 아까 마농 싱그는 게 언제우꽈?
#3 일모작. 마농 싱그는 것이
#1 구월 들엉, 양력으로 하게 뒈면 구월 하순부떠.
@1 구월.
#3 구월 중순부떠.
#1 구월 중순부떠 하순까지.
#3 양력으로는.
@1 구월 중순에 마늘 심고.
#1, 3 으.
@1 그다음에 마농도 허젠 허면 관리도 헤야할 거 아니꽈?
#1 관리, 약 치곡 뭐.
#2 약 치곡.
@1 그다음에 이제 크면 아까 사월에?
#2 마늘쫑 꺼끄곡.
@1 사월에 마늘쫑 꺼끄곡.
#3 오월에 마늘 수확허고.
@1 오월 마늘 수확허고. 그다음에 마늘 수확허면 준비.
#2 이제 또 경허민 또 준비헤 가는 거주.
#1 흔 이 개월 후에.
#2 마늘 이제 물류앙.
#1 말린 걸 까야주.
#3 지금 감귤 수확 할 때고.
@1 예.
#3 지금 양파 심을 때고.
@1 아, 지금.
#2 양파 싱글 거.
@1 시월 십일월이 양파 심고예?
#3 으. 수확 감귤 수확허고.
@1 감귤 수확허고. 양파 수확은 언제 헙니까?

#1 양파도 유월달에.
#3 양파 수확은 마늘 수확 끗난 후.
#1 끗나면.
#2 끗난 다음에.
@1 유월에 심어예?
#3 으.
@1 아, 수확
#1 유월 수확.
#3 수확.
#1 요새 양파 심을 거주.
#3 마늘 수확 끗나 가지고 흔 십오일 이십일 후면 양파 수확.
#1 나도 어저께 저 함덕장에 가 가지고 빨간 양파 모종 사당 심엉.
#3 벌써 심언?
#1 으.
#3 흔 판에 얼마헙디가?
#2 잘도 비싸.
#3 흔 만오천 원인가, 얼만가?
#2 으, 경 뒐 거라?
@1 지금은 마농들은, 아 저기 양파 이거 모종은 다 사당 싱검수과?
#3 사당 싱거.
#1 사당 싱그고 많이 헌 사름은.
#3 우리 조끔 가정에서 쓰는 것은 사당 싱그곡.
#1 모종 놓고.
#3 으. 업자로 저 농사.
#2 신촌 진드르 가민 그 모종 푸는 디 잇잖아.
#3 ○○네 집이.

바다일

@1 삼춘 아까 바당에 삼월에 톳 채취헌덴 헷잖아예?
#3 톳 채취.
@1 이 바당에는 뭐 뭐 하영 나마씨? 삼월하고 또 바닷가.
#3 옛날에는 천초도 많이 나고,
#2 천초도 최고로 나고.
#3 톳도 많이 나고.
@1 으.
#3 이렇게 미역도 많이 나고.
@1 으.
#3 각종 해산물도 많이 낫는데 이젠 다 고갈뒈 불엇어.
@1 다 고갈뒌. 삼춘 혹시 삼월 보름 물찌에.
#1 옛날엔 바릇 잡으레 뎅겻어.
@1 바릇 잡으러.

#1 바릇은 알지에?

@1 예.

#1 바릇 잡으러 삼월 보름 물찌가 물이 상당히 간조가 심허거든게.

@1 예.

#1 많이 들고 많이 나가고 헤가지고 물이 잘 싸니까 바릇을 잡으러 뎅겻는데.

@1 예.

#1 옛날은 그, 지금은 양식장을 헤 가지고 어촌 계원들이 그 관리를 허는디, 엿날은 그런 거 없엇어요.

@1 음.

#1 거 관리하는 사름이 없어 가지고 다 개인적으로 가 가지고 마음대로 잡아 올 수가 잇엇는데.

#2 이젠 못 헤.

#1 삼월 보름 물찌 뒈엉 물이 잘 싸면은 오분제기, 빗제기. 빗제기 알아지쿠과?

@1 전복 새끼.

#1 (웃음) 또 그런 거, 소라.

#2 (웃음) 전복 닮은 거. 전복 ᄉᆞ춘.

#1 소라.

#3 빗제기렌 허믄 전복 ᄉᆞ춘.

#1 또 가끔 가끔 해삼도 보이고. 그런 거 다 개인적으로 잡아오는 거주게.

@1 음.

#1 관리허는 사름이 없어, 이제 책임지는 사름이.

#3 그런데 그 옛날 바릇잡이 세시풍속이 없어졋어.

@1 이젠 엇어져 불언에?

#1 으.

#3 그 어촌계에서 일종 공동 어장으로 만들면서. 수산업법이 바꽈지다 보니까 통제구역이 뒈 분 거야.

@1 음. 마을 주민들안티는 손해네.

#3 손해만이 아니라 불평 불만이 그냥 뭐 그냥 뭐.

#1, 2 (웃음)

#3 어 고향에 와도 뭐 보말도 하나도 못 잡앙 오게 만든다고 불평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지.

#1 신흥 출신에서 웨지에 나강 사는 사람들. 가끔 우리가 바당에 가 가지고 그런 거도 허고 싶지.

#3 그 전에는 우리가 바릇잡이 헷던 것들이 전부 일종 공동어장 구역인데, 이제는 수산업법으로 일종 공동어장은 어촌계 이제 관리로 딱 만들어 버리니까.

#2 못 헤.

#3 일반인들이 출입을 못헤 가지고, 바릇잡이라고 허는 풍습이 없어분 거지.

@1 이야, 그렇구나. 게믄 여기에 바릇잡이는 삼월 보름 물찌에는 이 동네 사름들이 다 나갓구나예?

#3 아이, 경헷주.

#1 엿날은 경헷주.

#3 가믄 그냥 뭐 전복도 떼 오고.
#1 물건도 많이 잇곡 그땐.
#3 오분제기도 떼고, 문어도 잡고.
#2 옛날은 물건이 많아낫주게.
#1 이만큼헌 그 저 옛날 대바구니 잇지 안허우꽈?
@1 예.
#1 큰 구덕, 구덕.
@1 예.
#1 그런 거 가졍 두 사람만 가면은 큰 돌 일루거든게. 그거로 하나씩 잡아 왓지.
@1 음.
#1 소라나 전복 가뜬 거.
#2 물건이 없어 이제는.
#3 이제는 그것도 없고, 이제 일종 공동 외에 관리 안 하는 쪽에도 옛날에 가면 게 같은 거라든지 조개 같은 것들을 많이 헤다 먹엇는데 이제는 전부 그런 게 고갈 뒈 불어 가지고.
@1 그건 없고예?
#3 이젠 없어져 불언.
@1 아까 전초는 여기 우미를 전초렌 헴수과?
#1 음, 천초.
@1 천초.
#3 예, 옛날 우리 저 웬보말 헤당 또꼬망 톡허게 뭇앙 쪽하게 뿔아먹는 그런 웬보말도 어떻게 맛잇엇어? 그게 많앗엇는데 그건 거 다 없고.
#2 여기 막 많아낫주게. 겐데 없어, 이젠.
@1 웬보말은 어떵 생긴 게 웬보말이우꽈?
#1 길쭉허게.
#3 그 또꼬망 삐쭉허게 나온 거.
#1 이 볼펜ᄀᆞ찌 생긴 거. 요요 볼펜 앞이 ᄀᆞ찌.
@1 아니, 그 그 그 생이처럼 긴 거 아니?
#2 으.
#3 으, 으, 으. 또꼬망 삐쭉허게 나와 잇는.
@1 거무룽헌 거?
#1 한 이.
#3 아니 회색, 회색깔.
#2 검지 안헤.
#1 이 센치 정도?
@1 이 센치 정도
#3 회색 색깔
@1 회색이우꽈?
#3 으, 회색색깔이주. 것도 큰 것이 잇고 족은 것이 잇는데.
@1 예.
#3 주로 큰 거만 봉가다근에.
@1 가메기보말허고 웬보말은 ᄐᆞ난 거지예?

#2 틀려. 가메기보말허고.
@1 가메기보말은 가메기처럼 꺼멍헌 거고.
#2 시꺼멍헌 거.
@1 웬보말은.
#3 ᄐᆞ데기보말이렌 헌 것도 또 잇어주게. ᄐᆞ데기보말.
@1 코ᄐᆞ데기.
#2 코ᄐᆞ데기.
#3 (웃음)
#2 제주 사람이난 잘 알암신게.
@1 웬보말은 이렇게 뒌 거 아니우꽈? 이런 식으로 영 뒌 거 아니?
#3 아니, ᄒᆞ꼼 길쭉헤여.
#2 길쭉헤여.
@1 ᄒᆞ꼼 길쭉헤여?
#3 어, 어. 영 영 요 새끼손가락ᄀᆞ치 여긴 뾰쪽허고 요 대가리는 쫌 영.
@1 다슬기처럼 저기.
#1 다슬기주. 즉 말허자면.
#3 으, 다슬기 비슷헌 거. 다슬기 비슷헌 거.
@1 으. 생이보말은 ᄒᆞ꼼 길고 좀 족은 게 웬보말이구나예?
#2 게믄 그건 또꼬냥 톡허게 두드령 쪽 뽈민 나와.
@1 예, 으.
#3 돌포말은 껍데기 속에 알멩이 우에 짜끄만한 딱지가 붙어 잇어. 그게 돌포말.
@1 돌포말. 게난 보말 종류도 많아예?
#3 으. ᄐᆞ데기보말은 검은 건데 그 껍데기가 얇아.
@1 음.
#3 으.
@1 코ᄐᆞ데기렌 안 헹 여기는 ᄐᆞ대기보말이엔 헴구나?
#3 (웃음)
#2 코ᄐᆞ데기엔 허메.
@1 코ᄐᆞ데긴데 우리 삼춘은 우리 회장님은 코 안 헹은에 ᄐᆞ데기보말이렌 헴신게.
#3 (웃음)
#1 돌포말은 이 저 신장 나쁜 사람덜 그런 사람덜이 많이 잡아다 먹엇주게.
@1 당뇨에도 좋덴 허멍예?
#3 쓰주게 써, 써.
@1 우리 어릴 땐 먹지도 안 헤난 건디예?
#1 쓰주기.
#3 아니, 옛날에 좋앗지. 그걸 일부러 잡아다 먹엇주.
@1 아, 그거 잡앙 먹엇수과?
#3 돌포말을.
#2 써우릉헌 게 막 좋주게.
#3 ᄐᆞ데기보말보다 돌포말이 약이 뒌덴 헤 가지고, 이 술 먹는 사람덜 간에 좋덴 헤 가지고 많이 잡아다 먹엇주.

#2 이젯 엇어, 것도. 매날 잡앙.
@1 삼춘 아까 빗제기 허는데 옛날에 빗제기엔 이 동네 하영 헷구나예?
#3 오분제기가 빗제기.
@1 아니.
#2 빗제기가 전복 새끼게. 쩨끄만한.
#3 아, 빗제기가 전복 새끼우꽈?
#1 오분제기허고 틀려.
#2 틀려.
#3 아. 음.
@1 나는 저 동복 강 조사헐 때 빗제기렌 말을 헨게마는.
#3 (웃음)
@1 동복 옆이니까 여기도 빗제기렌 헴구나게.
#1 여자를 뭐 헤 가지고 빗제기엔도 허곡.
@1 음.
#1 전복이엔도 허고. 이런 뭐가 잇어.
@1 아.
#2 준 거는 빗제기엔 허고.
@1 전본 준 거예? 여성하고 이렇게 닮앗다고 이렇게 하는구나? 여자들도 빗제기 헷수과?
#1 몰라. (웃음)
#3 게난.
@1 아니, 비바리가 그거 아니우꽈?
#3 나이 많이 먹은 여자 분은 전복이고.
@1 예.
#3 나이가 어린 여자들은 빗제기고.
#2 (웃음)
#1 그런 거 무사 정허멘? (웃음)
@1 그런 비유를 헌 거 아니라예? 이 동네에서. 거난 빗제기 허면 어린 어린 여자.
#3 아니, 그거도 점점점점 사라져 가는 옛날 풍습이라.
@1 굉장히 좋은 얘기라예?
#3 옛날 나이 먹은 여자분덜은 전복이엔 별명을.
#2 아이고. (웃음)
#3 게고 어린 아이들은 빗제기엔 헌 거라.
@1 예.

조사 마을

#1 그 우리 신흥이 막 협소한 마을이우다. 농토도 적고 그런 마을인데, 그 신흥 농토가 밑에 암반도 많고, 빌레도 많고, 영 저 밧 갈기가 상당히 궂인 장소주게. 그런데 농토로는 제주도 일등이엔 헤도 과언이 아니라.
@1 아.
#1 옛날 조, 보리 농사가 그렇게 잘 됏거든게. 첫째 보리도 잘 뒈고, 조도 잘 됏지만은 신흥리 그 보리 조가 나오는 그 뭐가 질이 그렇게 좋은 땅입니다. 신흥리 농토가.

@1 예.
#1 그런데 협소허고 밧 갈기가 막 궂어. 굼빌레.
@1 굼빌레.
#1 넘빌레는 잇고. 굼빌레가 무슨 뭐냐면은 이것이 빌레고 이 사이에 흑이 들어가 잇거든.
@1 예.
#1 이 사이가 흑이 상당히 그렇게 좋은 거라.
@1 아.
#1 굼빌레엔 허곡 널빌레에는 농사가 안 뒈요.
@1 이거는 넘빌레, 널빌레?
#1 널빌레.
@1 널빌레. 널빌레는.
#1 평평하게.
@1 빌레로 짝 깔아진 데가.
#1 널빌레.
@1 널빌레.
#1 굼빌레는.
@1 굼빌레는 빌레 사이에.
#1 흑이 이렇게 잇는 거.
@1 예.
#1 게 신흥리 농토가 그 굼빌레.
@1 굼빌레.
#1 그래서 조농사가 잘 뒈고, 보리농사가 잘 뒈고.
@1 예, 오늘 최고로 멋진 말을 들어졋수다.
#1 옛날예 그 저저 동쪽에 거 서북쪽에는.
@1 예.
#1 보릴 갈젠 허면은 보리나.
@1 조나.
#1 보리씨나 거름이나 반반 놓고 이제 보릴 헷거든. 여기는 씨를 뿌려 가지고 헷지만은 거기는 저 소걸름이나 뒈지걸름에 보리씨를 놓아 가지고.
@1 서껑?
#1 막 발로 밟아 가지고 이제 밧에다 뿌려 가지고 보릴 갈앗는데.
@1 예.
#1 우리 마을에는 삼천 평, 아, 저 삼백 평이 보리씨가 얼마 안 들어가요.
@1 으.
#1 한 말도 안, 한 말 정도 들어가는가?
@1 아.
#1 이제 저 저 성읍쪽에는.
@1 엄청.
#1 보리씨나 무시거나 거의 비슷허게 비료나 비슷허게 들어가, 그만큼 농사가 안 뒌다는 거 주기. 그쪽에는.
@1 여기는 땅은 좁아도 토질이 그렇게 좋고. 아까 여기는 조도 불리면 붋지 안헨덴. 게믄

땅이 좀 진흑땅이우꽈? 좀 뒌땅이구나 여기는.
#1 저, 저.
#3 츤흑땅.
@1 츤흑땅.
#1 츤흑, 츤흑 성질이 많이 잇주기.
#3 아, 아, 츤흑, 츤흑땅.
@1 왜냐면 뜬땅이 아니, 뜬땅이면 밟아야 하는데.
#1 뜬땅은 쪼끔 산에 올라가면 검은, 검은. 거믄 농사 안 뒙니다.
#3 산간마을에 가면 뜬땅. 이 거무스름헌 땅은 뜬땅이고, 불그스름한 땅은 츤흑땅이고.
@1 음, 여기는 츤흑땅예? 그러면 그런 것들 뒌땅, 뭐 이런 말은 안 헤마씨? 그냥 츤흑땅.
#1 츤흑밧.
@1 츤흑밧, 츤흑밧예? 아, 삼춘 오늘 최고로 멋진 말. 곱빌레.
#3 (웃음)
#1 아니, 이거 마을 홍보허는 거니까 신흥리 농토에 대헤 가지고, 엿날 그렇게 쪼끌락한 마을이주만 농토는 협소허고 밧 갈기는 상당히 궂인 땅이지만은 조 보리 농사는 최고로 잘 뒛습니다.
@1 예.
#1 그만큼 질이 좋다는 거죠.
@1 웃동네는 보리 안 뒈니까 피농사 허고예?
#1 저쪽 동쪽더레는 보리 안 뒙니다.
@1 예. 우리 동네에서 여기 신흥 동쪽인데 여기에서는 서쪽이구나. (웃음) 곱빌레.
#1 여기서 동복으로부떠는 동쪽이엔 허고, 저 북촌 이쪽은 서쪽이엔 허여.
@1 아, 경헙니까?
#3 그러니까.
@1 저 조천허고 저 구좌허고를 딱 저기를.
#1 으, 경계를 만들어 분 거지.
@1 음.
#3 구좌하고 이 저.
@1 북촌.
#3 북촌 지역하고 땅 토질이 많이 다릅니다.
@1 아, 저기는 모래예?
#3 구좌는 모래 하고 뜬땅이에요.
@1 뜬땅.
#3 그러니까 동복에는 농사짓는 게 무슨 농사냐면 당근 재배만 하는 거예요.
@1 음.
#3 당근 재배. 양파, 당근 재배만 하는 허고.
@2 예.
#3 우리 조천 지역에는 당근 재배가 안 뒈요.
@1 그니까 마농하고.
#3 게난 마농, 마농이 전용이고. 츤흑땅이난.
@1 저쪽 대정하고 똑같네.

#3 으, 대정하고 똑같지. 모슬포 대정 쪽데레허고.

@1 예, 예. 거기가 진흑땅, 저기 츤흑땅이고.

#3 츤흑땅이고. 이 구좌에는 마농 ᄀᆞ뜬 건 안 뒈. 당근.

@1 예, 북촌, 북촌도 보난 마농 갈아십디다.

#1 북촌까지는.

#3 북촌까지는 우리 조천 지역이니까.

@1 이렇게 옮겨 가면서. 이거 말앙은에 이 동네에서 자랑헐 거 뭐 엇인가마씨? 바당과 관련헹 자랑할 것도 좋고, 물 자랑 헤도 좋고. 여기는.

#1 물은 뭐 좋은 편이주. 겐디 옛날은 그 식수를 거의 다 용천수에서 떠다가 먹엇는데.

@1 예.

#1 엿날에는 뭐 물도 많이 나오고, 또 그 지금은 이 뭐 중간에서 중산간에서 뽑아 가지고 관정을 만들어 가지고 뽑아 버리니까 물의 양이 적엇는데 엿날은 상당히 풍부헷수다. 신흥.

@1 으, 으.

#3 우리 마을의 자랑거리라고 허면 마을이 작다 보니까 큰 유명한 그런 업소나 뭐 이런 집은 없는 거고. 그 단합이 잘 뒈는 모범 부락으로 단합이 잘 뒈는 모범 부락.

@1 단합예?

#3 하나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잇냐면 엿날에는 지금은 이 저 소방서가 잇어 가지고 옛날에는 전부 초가집 아니에요. 에. 불이 화재가 나면 다른 지역에는 가만이 쳐다 보기나 하고 허다 보면 그 집이 전부 전소가 뒈 분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흥에는 어느 초가집서 불이 낫다 헤서 불이야 헤서 소리치면 집집마다 바게쓰를 전부 들고 와 가지고, 이런 바닷물이나 이런 샘물, 먹는물을 떠다가 그 집에 불을 껏어.

@1 음.

#3 그렇게 단합이 잘 뒈고 허다 보니까 그것이 이름이 알려져서 우리가 그 오일육 혁명 이후에 이 저 개발 사업 운동이 이루어지면서, 밀가루 보급을 나와 가지고 그 마을을 개발을 하기 시작하면서 새마을운동이 이루어지면서 세멘트 사업들을 많이 헷잖아요. 그런 그 운동 사업을 우리 신흥이 단합이 뒈서 잘 뒈 가지고 모범 부락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하사금을 받은 케이스예요.

@1 아.

#3 그래서 어 단합이 잘 뒈고 그 한 모범 부락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이 알려진 동넵니다.

인구

@1 그 인구가 어떵 뒈마씨? 신흥 지금 현재.

#3 인구가 많이 줄어들엇지. 그 전에는 한 팔백, 구백 가까웟는데 그 산아제한도 이렇게 헤 버리고, 젊은 사람들도 직장 생겨서 가 버리고 허다 보니까, 인구가 한 오백오십에서 육백으로 이렇게 줄어들엇습니다. 인구가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1 여기에서 원래 여기 원주민들예?

#3 원주민들.

@1 원주민 이거 이만큼? 새로 들어온 사람덜.

#1 아니, 새로 들어온 사람들 다 합쳥.

@1 다 합쳥.

#3 원주민이 거의 구십 프로고.

@1 예.
#3 아직은 웨지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 신흥은 많지 안헙니다.
@1 아.
#3 한 십 프로 정도 선.
@1 예.
#3 거의 구십 프로가 원주민.
@1 그러니까 단합이 잘 뒈는구나.
#3 교례 같은 디 곳만 가더라도 꺼꾸로예요. 거기는 구십 프로가 웨지.
@1 음.
#3 십 프로가 원주민.
@1 예.
#3 으, 이렇게 헷는데 우리 마을에는 아직도 한 구십 프로가. 이 아파트 들어온 것도 멧 군데 안 됏으니까.
@1 예, 예, 예. 요 앞에. 게도 하영 바뀐 거 같애마씨, 여기도.
#3 으, 그래도 원주민이 한 구십 프로.

붕모살

@1 알앗수다. 또 혹시 덧붙여 줄 말 뭐 속담이라든가, 이 마을에 얽힌 이야기라든가.
#3 속담은 엇고 우리 신흥에.
@1 예.
#1 이, 저 오실 만한 곳. 우리가 여기 저 붕모살이라고. 붕모살.
@1 북모살?
#3 북모살.
@1 예.
#3 이 저 바닷물이 밀물 때 싸면 모래판이 나와요.
@1 예.
#3 그래서 이제 그 해수욕장 역할을 많이 합니다.
@1 예.
#1 붕모살허고 ***동산이 역할이 뒈 잇는데 조용하다고 헤 가지고. 이 함덕해수욕장을 가지 않고 그걸 아는 사람들은 우리 신흥을 많이 와요. 왜냐면 물이 깨끗하고.
@1 예.
#3 장소가 이제 이용하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가족 단위라든지.
@1 예.
#3 이런 회사에서 휴가철에 보면 많이 찾아오는 곳이에요.
@1 그 그게 저 어디 쭉 나오는 데지예? 아까 탑 잇는.
#3 탑 잇는 쪽이에요.
#1 탑 잇는.
@1 탑 잇는 쪽. 거기가 북, 북모살이렌 헌 거? 거는 뭐마씨?
#3 바닷물. 바닷물이 싸면 모래판이 나와.
#2 판이 나오니까.
#1 모래가 나오니까.

@1 그거를 북모살이렌 헙니까?
#3 북모살.
@1 으.
#3 언제든 한번 오세요.
@1 예, 예, 예.
#3 우리 마을에서 천막을 쳐 가지고, 천막 하나에 십만 원씩, 한 오륙 평짜린데 받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오면.
#1 써비스로 공짜로.
#3 이제 우리가 이장님 앞에 요청헤 가지고 특별대우로 하나 드리라고 하겟습니다.
@1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센터 한 번 와야 뒈겟다.
@2 단합대회 와야 뒈겟네.
#3 으, 으.
@1 북모살예? 그니까 물 싹 나온 그 모래톱을 북모살.
#1 예.
#3 북모살.
@1 옛날부떠 그런 표현 잇엇수과?
#3 예. 옛날부떠.
@1 북모살예. 게난 해수욕장은 아니지만 물 쌋을 때 나오는.
#3 우리 마을에서 그것을 해수욕장을 만들려고.
@1 예.
@2 음.
#3 지금 많이 개발을 하고 잇어요. 이제.
@1 으.
@2 북은 무슨 뜻인고마씨?
#1 으?
@2 북은 무사 부쳐진 건고?
@1 북모살 헐 때.
#1 붕, 붕 떳다 이거지.
@2 아.
#1 물 싸면은 붕 떠가지고 그 모래가 나온다는 거지. 붕모살.
@1 게근에 붕모살. 기역이 아니고 이응이네.
@2 그 중문 같은 경우에는 진모살 이렇게 하거든요.
@1 진모살은 모살이.
@2 길다는 뜻이니까.
@1 기니까. 항상 물들 때는 다 물에.
#3 잠기고.
@2 아.
@1 그니까 다른 데는 이렇게 긴데 이렇게 모살밧이 잇는 거네예?
#3 물이 싸면 쭉 허게 이제 모래판이 나타나니까.
#1 그게 나온 게 이쪽에도 해수욕장 바닷물이 잇고 저쪽에도 바닷물이 잇고 가운데가.
@1 가운데만 모래톱이 나오는 거지예?

@2 아.
@1 게서 이제 붕 떳다고 붕모살. 정확한진 모르지만.
#3 이렇게처럼, 요 북처럼. 요러케.
@2 아, 북처럼,
@1 북 모양이 나올 수도 잇고.
@2 그럴 수도 잇겟네.
@1 음. 예, 예, 예. 그게 더 타당성이 잇겟다.
#3 이렇게 좀 둥그스름 타원 형식으로.
@1 예, 예, 예.
#3 타원 형식으로.
@1 주변에는 물 잇어도. 근데 여기가 모래가 굉장히 널러예. 방사탑 잇는 그쪽이.
#3 넓죠. 넓어요.
@1 알겟습니다.
#1 옛날 그 방사탑 잇는 데가 지금 방사탑 이외로 세 개로 만든 디가.
@1 예.
#1 전에 두 개 말고 이외로 세 개로 만든덴 디 엿날 큰개라 헤 가지고.
#3 원담이 잇엇어요.
#1 원담이 잇엇습니다.
#3 원담.
#1 그 원담을 제거허면서 그 저 탑도 만들고 그랫는데 엿날은 큰개 안네 멜이 들면은.
@1 예.
#1 신흥리민이 전부 먹어도 남앗어요.
@1 아.
#1 그렇게 개가 큰개라는 뜻. 그러니까 큰개, 큰개 허는 거.
#3 멸치가 많이 들어 왓던 곳이에요. 그디가.

바다 이름

@1 혹시 신흥 그쪽부떠 시작이 뒈는 거 아니우꽈예? 이렇게 나오면 그 바당 이름, 아까 큰개 헷지 안허우꽈예? 큰개 잇고 바당 이름이 그다음에 쭉.
#1 동쪽으로 가면 뒌개.
@1 뒌개.
#1 그 어촌계 해녀 탈의장 옆에는 세벡개.
@1 세벡개.
#1 지금 저 조천 쪽에는 마농개.
@1 마농개.
#1 개가 네 개 잇어요. 네 개.
@1 네 개. 아, 근데 큰개가 제일 큰 거구나.
#3 어, 뒌개ᄁᆞ지. 뒌개ᄁᆞ지.
#1 게메 뒌개도 말헷주.
#3 으.
@1 뒌개, 세벡개, 마농개 네 개예? 게난 이거 다 자연포구 아니라예? 옛날에예?

#1 그렇주.
@1 예. 바당 여 이름이여 이런 것도 잘도 하켜예?
#1 여?
@1 으.
#1 혹심여, 샛섬여, 샛섬여, 혹심여, 막심여. 신흥 앞에 때 물이 나가게 뒈면은 섬이 세 개 보입니다.
@1 아. 그거 섬이 세 개 보이는 걸, 세 개가 아까?
#1 첫째 혹심여.
#2 으. 혹심여.
#2 샛섬여.
#1 샛섬여.
#1, 2 막섬여.
@1 혹, 혹심, 혹심.
#2 혹심여.
@1 혹심여.
@2 혹심여, 샛섬여, 막심여.
@1 또 우리 지역의 지형으로써는 북구룡이라고 잇어요. 북구룡.
#1 북구룡.
#3 북구룡.
@1 예.
#3 용의 아홉 개가 모양으로 뒈 잇다고 하는 돌담으로 처럼 뒈 잇는 언덕.
@1 예.
#3 거 북구룡이라고.
@1 거 북쪽에 잇수과?
#3 요기 지금 올라가면 요 주차장이 잇잖아요이? 함덕고등학교 바로 거기가 옛날에는 바로 금성문. 명칭이.
@1 으.
#3 금성문 들어 봣어요? 금성문?
@1 예.
#3 금, 성, 문. 옛날 성담을 쌓앗다고 하는 곳인데.
@1 예.
#3 정확한 역사적으로 기록으로는 삼벌초 때 이루어진 건지 언제 이루어진 건지 그건 모르겟어요. 옛날 그 성담 잇어서 물이 잇엇다 그럽니다. 옛날에.
@1 예.
#3 그런데 그것을 금성문이라고 이름을 지엇엇어요.
@1 금성문.
#3 그래서 지금도 명칭은 금성문이라고 허는 것이.
@1 남아 잇고.
#3 우리 신흥 곧 들어오는 입구.
@1 예
#3 그 남쪽으로 보면 요렇게 그 돌담 언덕으로 뒈어 잇는 곳이 보여요.

@1 예.
#3 그것이 북구룡.
@1 북구룡.
#3 북구룡. 용이 아홉 개가 누워 잇는 모습처럼 생겼다 헤 가지고 만들어진 이름이 북구룡.
@1 예.
#3 그래서 우리 신흥에 인물이 많이 낫잖아요. 교육감 출신도 우리 신흥 사람입니다.
@1 옛날 그 김○○ 교육감?
#1 김○○ 교육감.
#3 으, 김○○ 교육감 신흥에.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조천읍장도 신흥 사람들이 이제 두 사람 헷고. 나도 옛날 새마을중앙회 북제주군 지회장도 나도 이제 지낸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그 북구룡의 정기로 인헤 가지고 우리 도의원도 신흥에서 두 번이나 헷고.
#1 두 번.
#3 군의원도 우리 신흥에서 군의장ᄁᆞ지 지낸 사람이 잇고.
#1 감사원장.
@1 예.
#3 어 그렇게 헤 가지고 이렇게 인물이 많이 탄생한 곳. 지금 감사원장이 신흥 분 아니에요?
@1 손○○.
#3 손○○이. 잘 아시네.
#1 도의원 두 번 하고.
#3 도의원 두 번 하고. 그게 다 우리 북구룡, 북구룡 정기를 이어받은 그 인물이 탄생뒌 분들이에요.

하단제

@2 아까 하단제 할 때도 상 출립니까?
#1 상 출리지 안허고 여기 저 뭐가 잇어요.
#3 상, 자그마한 상 하나 놔 가지고.
#1 돌로 만들어진.
@2 제단석.
#3 그래서 포제 때 지내난 음식덜 잇잖아요? 뒈지고기 삶은 것들 이런 거 다 갖다 놓고.
@2 음.
#3 막 여러 사람 잡구신들에게.
@2 에, 에.
#3 먹어서 가십시오. 이제 막 입담으로.
@2 아.
#1 어떵 포제에 관심 잇는 모양인데.
@2 아니, 절은 안 하고 그냥 음식만 출립니까?
#1 아니, 절도 헤.
@2 절도 헙니까?
#1 절은 누가 허느냐면 이 저 전사관. 전사관이엔 관한 건 뭐 엿날은 그 분이.
#3 근디 포제 지낼 때는 이제 뭐냐면 여자 분들은.

@2 못 가잖아예?
@1 못 오게.
#3 못 오게 뒈 잇어요.
@2 예, 그니까.
#3 오게끔 뒈엇으면 초대를 허겟는데.
#2 여자는 못 오지.
@2 예, 구경 올 건디.
#3 못 오게 뒈 부니깐. 구경도 못 허고 말이지.
@2 남자분 보내쿠다.
@1 나 가시나물 포제헐 때 갓다 왓수다.
#3 (웃음)
@1 밤에, 자시에.
#1 아, 취재허는 걸로 헤 가지고 오민 뒈어.
@1 조사.
@2 예, 그니까.
#3 으, 으.
@1 가시나물 저 갓다왓수게.
#3 아.
#1 언제게 옛날게 엠비씨에서 훈번 왕.
#3 우리 전부 뭐 무신거로 저 촬영헤 논 거 잇어. 그대로.
@2 찍은 거 잇수과?
#1 으?
@2 찍어 놘마씨?
#1 찍은 거 잇는데 하도 찍은 시간이 오래니까 어디사 다.
@1 아니, 사진은 이실 거 아니마씨?
#1 아, 사진 요거 부친 거 잇주.
@1 예, 사진 우리 멧 개 빌려 가쿠다. 그 우리 요거 담을 때 게도 같이 사진 잇으면.
#3 으, 우리 저 리사무소 이장신디 얘기허면.
@1 예, 예. 그거 이제 하면 뒐 거 같고. 아이고, 어쨋든 고맙습니다. 오늘.

6. 구좌읍 송당리

- 조사 일시: 2021년 10월 28일
- 조사 장소: 제보자 자택
- 조사자: @1 김순자 @2 김미진 @3 최연미 @4 오경임 @5 권미소
- 제보자: #1 김수생 #2 김민순

일월

@2 겡 그 송당리에 세시풍속에 대헤서 물어볼 건데예? 일단 처음에 정월 뒈민, 정월 멩질 헙니께? 정월 멩질.

#2 응, 정월 멩질 허주.

새벡국시

@2 정월 멩질 출리젠 허믄 이디 새벡이 뭐 국시 헹 올리지예?

#2 어.

@2 그거 ᄒᆞ꼼 ᄀᆞᆯ아줍서. 어떵 헹 허는 건지. 새벡국시 허는 거?

#2 새벡국시 어떵헤여게. 모밀ᄀᆞ루 ᄒᆞ여근엥에 떡 ᄆᆞᆯ듯 ᄆᆞᆯ앙, 이젠 안반에 놩 밀엉, 펭으로. 펭으로 밀엉 이젠 이렇게 썰어.

@2 음.

#2 똑똑ᄒᆞ게 이제 ᄌᆞᆷ질이 국술 썰엉.

@2 음.

#2 겡 헹 이제 뒈지고기나 무시거 놩 이제 막 끌이다가.

@2 음.

#2 그 떡국 썬 거 놓면은 익으민 국시라.

@2 음.

#2 겡 헹 아침 새벡국시라고.

#1 새벡국 조상덜이.

#2 조상덜이 새벡이 오멍.

@2 음.

#2 고셍헷다고.

#1 힘들게 온다.

@2 음.

#2 힘들엇다고. 새벡이 국시를 헤영 논다고 옛날 하르방들이 그렇게 ᄀᆞᆯ앗어. 우리도 들엇어.

@2 아.

#1 나 옛날 하르방덜 그 어른들 다 와난 알암서? 그자 짐작으로 귀양 오신 분들이 다 선셍

님들이거든. 명인덜.
@2 예.
#1 그분덜이 다 이 제사 멩질도 다 순위를 놓앗수다.
@2 음.
#1 놓아노난 그분들이 시긴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 명인들의 말을 듣지 아녈 수가 엇읍주.
@2 음.
#1 이 무이촌에는.
@2 예.
#1 무이초든 해안가든.
@2 어.
#1 그 양반들이 명인들이거든. 뭐 그 귀양이야 왓지만은 것도 나라에서 반역자가 뒈니까 귀양을 보낸 거죠. 게야 그 어른들이 시를 이 제주도 무시거, 무시거 찾기. 제주 마을 찾기헤서 방송에도 나오기는 허는데 그 선셍님들이 우리도 모른 것을 전부 나타나긴 헙디다.
@2 음.
#1 예, 경 허는디 그자 요건 대략적인 거다. 실지 이거 경험을 헤봐야 뒈는데.
@2 음.
#1 경험은 그분들이 안 헤십주.
@2 음.
#1 사삼ᄉᆞ건이든, 대동아전쟁이든, 육이오든. 그 분들은 아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기서 살면서 겪어십주. 예는 좌익파 우익파 게서 그 사삼이 나왓는데 확실리 좌파 우파가 이섯어요.
@2 예, 예, 예. 새벡국은 식구들만 헹 먹는 거꽈?
#2 으, 식구만.
@2 식구만. 음, 그믄 멩질상 출리기 전이?
#2 으. 멩질게 ᄒᆞ기 전에 그 일찍셍이 새벡이.
@2 음.
#2 새벡이 멩질 그 국시멩질은 집이 식구만 헹 먹어.
@2 국시멩질이옌 골읍니까?
#2 야, 야.
#1 경 ᄒᆞ민 국시는.
@2 음.
#1 그자 뿔리 오는 ᄌᆞ순은 먹고.
@2 음.
#1 겨아녀민 못 먹읍니다.
@2 음.
#1 그 식으면은양 또 맛이 변헤불어.
@2 아.
#1 예, 딱딱 부떠불어.
@2 지금 떡국처럼 헙니까?
#2 야.
@2 아니면 칼국수처럼 허는 거꽈?

#1 칼국수.
#2 칼국수ᄀᆞ찌 ᄒᆞ는 거.
@2 아, 칼국수추룩.
#2 어, 칼국수.
#1 떡국은 아주 제로.
@2 음.
#1 건 그 중간부터 나온 거난.
@2 음. 그 새벡국 허는 디가 이 동쪽에만 허드라고마씨.
#2 음.
@2 이 구좌예, 성산 이쪽까지만 하고예? 저 서쪽에는 그런 거 안 해.
#1 으, 없어. 전혀.
@2 그믄 저 멩질날 아침이 새벡국 헤나민 그다음엔 진설허는 거꽈?
#1 으, 진설헤영.
#2 으, 그다음에는 출리주게.
@2 음.
#2 멩질 홀 거를.

정월 멩질
@2 그믄 아까 새벡국 먼저 긇아 불어수다만은 그 전날 게민 멩질 출릴 거 아니꽈예?
#2 응.
@2 전날 출리젠 허민 뭐뭐 준비헙니까?
#2 미시거, 미시거 준비헤여게. 뭣 적갈도 허곡, 묵도 쑤곡.
@2 음.
#2 뭐 콩ᄂᆞ물, 고사리 뭐 그런 거 보끄곡. 뭐 그런 거 ᄒᆞ는 거주게.
@2 음.
#1 콩나물.
#2 바닷고기도 굽곡. 뭐 다 출리는 거.
#1 이녁냥으로 놓아서 헤야지.
#2 아침에 ᄒᆞ는 거.
#1 ᄑᆞ는 게 엇엇수다. 그땐.
@2 예, 맞아마씸.
#2 그 옛날은이 콩나물 그런 게 ᄑᆞ는 게 엇어낫주게. 게난 이녁냥으로 콩 헤영.
@2 음.
#2 매일 아침저냑 물 주멍 키와.
@2 음.
#2 경 헹 그거 콩ᄂᆞ물.
@5 음.
@2 음, 메칠이나 키우민 뒙니까?
#2 그거?
@2 음.
#2 ᄒᆞᆫ 십 일.

@2 훈 십 일?
#2 으.
@2 음, 게믄 멩질ᄒᆞ기 훈 십 일 전부터 콩ᄂᆞ물부터 키워야 큰게예?
#2 어. 콩ᄂᆞ물 놓앙.
@2 음.
#2 콩주름이라고 옛날은.
@2 옛날 말로 콩주름예?
#2 옛날 말은 콩주름.
@2 콩주름 헷구나예?
#2 어, 콩주름.
@2 시리에 놩?
#1 시방은 콩나물로 ᄒᆞ주만은 콩주름.
@2 맞아. 콩주름예.
#2 으.
@2 그 적갈은 무신 적갈 무신 적갈?
#2 무신 적갈게. 그 옛날은 뭐 뒈지고기 기자, 소고기 그거주 뭐.
@2 음.
#2 옛날.
#1 생쉐 잡곡, 생도세기 그때는 도세기 질루니까.
@2 음.
#1 똥뒈지라고 질루니까, 그거 헤다근에.
@2 추렴헹?
#1 그렇게양? 추렴.
@2 음.
#1 추렴. 그 다 멧이 짜근엥에. 게 돈이 벅차니까.
@2 음.
#1 짜근엥에 제숙ᄒᆞ곡.
@2 음.
#1 에그, 나 그때 세상을 막 셍각ᄒᆞ민. (모두 웃음) 시방은 돈만 가지민 나야덜 놈의 거 베라벨 거 다 잇는디 말이여.
@2 그 뒈지고기 쉐고기는 겅 허고, 추렴헹 허고.
#2 으.
@2 바닷고기는 어떵 헹 헙니까? 이디 송당은 웃드르라부난.
#2 웃드르 그것도 저 어디게. 해벤 가근엥에 나끈 고기 사오주.
@2 아.
#2 사와.
@2 그믄 미릿 헹 헤야켜예?
#2 그 옛날도 고기 나끄는 사름들 만헤나서. 옛날도이.
@2 음.
#2 게난 고기 나끈 것 강 사당.
@2 음.

#2 배 탕.
@2 음.
#2 소금 헷당.
@2 음.
#2 좀 벳디 시둘랑.
@2 음.
#2 경 헹 구워.
@2 어디 잘 간수헹 나둬야 뒐 거 아니?
#2 으.
@2 어디 놧둡니까?
#2 어디 놔둬. 그냥 기자 뭐 살레에도 놓곡. 옛날은 살레 이서낫주.
@2 예.
#2 살레 알아져?
@2 예, 찻장 닮은 거예?
#2 응, 그런 살레에 놧다근에게.
@2 음.
#2 벳디 이젠 좀 물류와 가지고 경 헹 굽곡게.

ᄀᆞ루묵
@2 음. 묵은 무슨 묵 쑤는 거라?
#2 묵은 무시거 모물ᄀᆞ루. 모물쏠.
@2 음.
#2 저 모물쏠도 이제는 기곗방에 강 굴아주민. 그때는 돌ᄏᆞ레.
@2 음.
#2 ᄀᆞ레에 이제 모물쏠 굴아.
@2 음.
#2 체루 쳐.
@2 음.
#2 겡 헹 묵 쑤는 거.
#1 정ᄀᆞ레, 정ᄀᆞ레.
@2 묵은 ᄀᆞ루묵? 아니민.
#2 ᄀᆞ를, ᄀᆞ를.
@2 아, ᄀᆞ를로.
#2 ᄀᆞ를로. 지금은 뭐 모물쏠이민 짜가지고 묵을 허지만은.
@2 으.
#2 그 옛날은 그 짤 충도 몰르곡. 그런 거 홀 충도 몰르곡.
@2 어.
#2 게난 무조건 그냥 ᄀᆞ레에 굴아.
@2 음.
#2 돌ᄏᆞ레에 굴아근엥에 ᄀᆞ루 체로 쳥.
@2 음.

#2 경 헤영 묵 쑤주게.
@2 아. 그 뭐 후라이판에 지지는 거 아니고?
#2 아, 지지는 거 아니고.
@2 영 무신 걸로 젓으멍.
#2 남죽.
@2 남죽으로 젓으멍예?
#2 어, 남죽으로 불숨는 솟디 불숨아가멍.
@2 어.
#2 낭 때영 불숨아가멍 묵을 쑤는 거야.
@2 예. 그건 계속 젓어줘야 뒈여?
#2 계속 남죽으로 계속 젓어사주게. 게 안 허민 눌어 불곡.
@2 혼착으로만 젓어야 뒙니까? 반대로 젓으민 안 뒌덴 골아라만은.
#2 아이게 버쳐가민 두 개로도 허곡게. 혼짝으로 못ᄒᆞ민 막 뒈여가민, 묵이 뒈여가민 뒈게. 게민 혼착으로 못 젓으민 두 개로 젓어.
@2 아니, 두 개로 젓어도, 한 방향으로 이렇게만 저어야 뒈? 이렇게 허민 안 뒈?
#2 이렇게도 ᄒᆞ곡, 저렇게도 ᄒᆞ곡.
#1 좌으로 우으로 이게.
#2 막 경 헤여.
#1 잘 젓질 아녀민 모드레기, 모드레기 알아?
@2 예. 뭐 그거 생겨불어.
#1 그거 져 불주게.
#2 체암에, 체암에 쑬 때 잘 안 젓으면은.
@2 음.
#2 문트락문트락 ᄌᆞ베기ᄀᆞ찌.
@2 아.
#2 경 뒈불어. 게난 무조건 ᄒᆞ곡 젓어야 뒈여.
@2 음.
#2 묵이 팍팍 뒐 때ᄁᆞ지.
@2 음.
#2 뒐 때ᄁᆞ지 무조건 젓어야 뒈여.
@2 아.
#2 이렇게도 젓곡, 영도 젓곡 기자.
@2 음.
#2 경 아녀민 저 ᄌᆞ베기 뒈불어.
@2 아.
#1 어, 식게 임제 각시가 못 젼디긴 헷구나만은 묵은 졸바로 못 쒓저, 영 헤여근에가 옛날 하르방 하르방덜 와근에 곧주게.
@2 아, 으.
#1 묵 쑨 거 봐근에 딱 알아.
@2, 5 음.
#1 종손각시든 원 주순각시든.

#2 묵은 ᄀᆞ루묵은 두루 쑤면은 묵이 먹젠 ᄒᆞ민 는잘는잘는잘헤.
@2 아.
#2 똑똑ᄒᆞ지 아녕.
@2 예.
#2 게난 묵은 무큰ᄒᆞ게 오래 쑤어야 뒈여.
@2 음.
#2 금방 쑤면은 두루 쒀졍.
@2 아.
#2 먹으민 막 는잘는잘 맛이 엇어.
@2 아. 그 멩질 준비허젠 허민 줌도 못자곡 헙니께예?
#1 반줌 자주, 반.
#2 아, 그거게 새벡국 ᄒᆞ젠 ᄒᆞ민 걱정 뒈어 가지고 줌도 잘 못 자주게.
@2 어.
#2 새벡국 ᄒᆞ젠 ᄒᆞ민.
@2 우리 어릴 땐 눈썹 희여분덴 허멍 자지 말렌 허멍 ᄀᆞᆯ아나신디.
#2 (웃음)
@2 경 안 헤수과?
#2 우리도 아이덜ᄏᆞ라 빨리 일어나라게 눈썹 흰다. 늦엉 일어나민 눈썹 희영헤 분다. ᄒᆞᆫ저 일어나라 영. (웃음) 겡 헤영 막 아이덜 다울려낫주.
@2 예.
#2 눈썹 흰뎅 ᄒᆞ멍 뭐.
@5 음.
@2 밥은 곤밥 헤살 거 아니예?
#2 곤밥 헤사주게. 아이구 지금이야 뭐 메날 곤밥이주만은 그 시절에는 곤밥이 어려와.
@2 음.
#2 조팝이 젤 하영 먹곡.
@2 음.
#2 좁쏠에 보리쏠 논 사람덜은 부젯칩이라. 보리쏠도 보리도 엇어근엥에.
@2 음.
#2 조팝만, 감저 놓곡 헹 조팝만 헤영 먹언.
@2, 5 음.
#2 게영 우리 아이덜토 이디 학교에 그때 뎅길 때는 집에 강 점심 먹엉 오렌 보내여.
@2 아.
#2 게영 낮이 오민은 조팝에 살락살락ᄒᆞ지 감저 놩 헤영 내불민.
@2, 5 음.
#2 게영 우리가 밧디강 왕 보민 감저만 먼 둥구령 내비뒁, 그 밥만 다 봉가 먹어.
@2, 5 음.
#2 겡 헤영 우리 아이덜 컷다고.
@2 예.
#1 감저를 그 직어근엥에 그 조팝에 영 버무리민 그게 풀이 나서 먹을 수가 잇는데 감전 또 임시 무수 썰 듯 두쿨락두쿨락ᄒᆞ게 썬단 말이여.

@2 예.
#1 썰어 놓민 그걸 막 골려 부려. 게민 좁쏠이라도 좁쏠밥만 살락헤도.
@2 음.
#1 살락헤도 그 밥만 굴령 먹다 보민은 밧디 강 왕 보민 감저 둥구렝이만 낭푼이에 둥구럼단 말이여.
@2 예. (모두 웃음)
#1 게민 어차피 우리는 그걸 치워야 뒌단 말이여.
@2 게난 아방 어멍은 그것만 먹고.
#1 아이, 그거라도 먹어야주게.
@2 어.
#1 경허난 그거 뭐 먹고 사는 디는, 아이고.
@2 곤밥 허젠 허민 그믄 곤쏠, 뭐 나룩쏠은 엇일 거고예?
#2 그때는.
@2 산디쏠?
#2 에, 갈산디쏠.
@2 갈산디쏠?
#2 젤 존 게 석상베.
@2 어.
#2 석상베 밥은 ᄒᆞ면은 ᄎᆞᄀᆞ랑ᄒᆞ곡.
@2 음.
#2 갈산디 ᄒᆞ영 갈산디밥ᄒᆞ민 밥이 살락살락 풀이 없어.
@2 음.
#1 찹쏠.
#2 옛날은 찹쏠도 엇곡.
@2 음.
#1 그게 석상베가 찹쏠 닮은.
@2 아.
#2 ᄎᆞᄀᆞ랑ᄒᆞ주게. 석상베 밥은.
@2 예.
#2 갈산디 밥이라고 그 갈산딘 거멍ᄒᆞ주.
@2 음.
#1 그 앞서, 그루후제 낫은 게 녹산디라고 노랑ᄒᆞᆫ 산디가 또 이수다.
#2 밥이 살락살락헤여.
@2 예.
#1 그건 밥이 사납질 아녜여.
@5 음.
#1 예.
@2 거믄 것도 찰기가 이서마씨? 녹산디도?
#1 그게 최고로 ᄒᆞᆷ주. 석상베도.
@2 석상베보다 더 좋은 거구나.
#1 석상베도 젤 나중에 나온 거우다.

@2 어.
#2 우리 시절엔 그런 거 아이 봔. 우린 석상베, 갈산디벳긔 몰라.
@2 ᄀᆞ찌 안 삽디가? (모두 웃음)
#2 ᄀᆞ찌 살아도 우린 그런 거 아년.
@2 게믄 국은? 겡은?
#2 겡은 무시거게. 뒈지고기.
@2 아, 뒈지고기로?
#2 뒈지고기로만, 그때는.
@2 아.
@5 음.
#2 바닷고기도 어려왓어게.
@2 이디 웃드르라 부난예?
#2 으. 해변 가야 어디 나끈 거 알아근에 강 사오지.
@2 으.
#2 그때는 바닷고기도 어려와.
@5 음.
#1 어려웟주만은.
#2 게난 겡국은 뒈지고기.
@2 아.
#1 불각제기.
@2 예.
#1 그거 놔근엥에 겡 끌령.
@2 아.
#2 각제기 놩 갱 끌린 일이 엇어.
#1 경 것도 경 많이 주민 ᄒᆞ지만은 말이여 겡국이라고 헤서 ᄒᆞᆫ 직썩. ᄒᆞᆫ 번 들이싸불민 매기라. 이건 우리 정도. 시방이민. (모두 웃음)
@2 어.
#1 매긴데. 것도 ᄒᆞᆫ 직썩 준단 말이여.
@2 예.
#2 옛날은 방상에 제서 먹으레 가민은.
@2 음.
#2 국도 주곡 밥은 ᄒᆞᆫ 서너 숟구락벳긔 안 줘.
@2 음.
#2 지금은 어디 가민 밥을 ᄒᆞᆫ 사발 ᄒᆞᆫ 공기썩 주지만은.
@2 음.
#2 그 옛날에는 제사 먹으레 가도 밥을 많이 안 줘. 쭤끔 그자.
@2 음.
#2 경 헹 국도 쭤끔 밥도 쭤끔.
@2 음.
#2 경 헹 줘.

차례상
@2 그믄 상에 올려살 거 아니꽈예?
#2 으.
@2 진설은 남자가 헙니까? 여자가 헙니까?
#2 아, 남자 신 집이사 남자가 ᄒᆞ주, 뭐.
@2 아, 아까 적꼬지도 남자가 헤?
#2 으.
@2 그 화리에서 굽고 허는 거?
#2 으, 으, 으. 묵 꿰는 것도 남자가. 그때는 여자 필요 없어.
@2, 5 어.
#2 지금은 여자냥으로도 ᄒᆞ곡, 남자 어디 가불엉 엇으민 여자냥으로 영 상에도 놓곡 ᄒᆞ지.
@2 음.
#2 그 시절에는 여자는 못헤.
@2 아.
#1 그때 대장부 말이 나왓주. 그 명인들이.
@2 으.
#1 그 말을 썻주.
@2 으.
#1 대장부라고. 남자, 남자 말을 듣고 모든 것을 남자를 위주로 헤서 살아라.
@2 게 삼춘이 상에 진설헐 거라예?
#2 으.
@2 게믄 진설헐 때.
#1 음.
@2 어떵 어떤 순서대로 헙니까. 무신거부터 올립니까?
#1 아, 거 게니까.
@2 멩질날, 정월 멩질날.
#1 게 그 우리 손지가.
@2 음.
#1 핸드폰에 찍어다 놘. 찍어다 놘에, 진설허렌 ᄒᆞ난 그거 아져단 보멍 진설을 ᄒᆞ는디.
@2 으.
#1 그거 뭐 그냥.
#2 젤 몬여 올라가는 게 떡.
@2 아, 떡부터 올립니까?
#2 어. 그 옛날은 떡 몬여 놔.
@2 아.
#2 지금은 과일부터 몬여 놔.
@5 음.
#1 과일이 아니고 묵 놓곡.
@2 음.
#1 적 놓곡.
@2 음.

#1 해어 놓곡.
@2 음.
#1 육지광은 틀려.
@2 음.
#1 이 명인들이 와 가지고 제법도 명인들이 다 가리친 거라.
@2 아.
#1 이 옛분들안티 들으면은 다 거 긑아주게 뒌 거.
@2 음.
#1 게서 그다음에 이 떡 ᄀᆞ뜬 거.
@2 음.
#1 떡 ᄀᆞ뜬 거 어디서 제물 들어와시민 제물도 기자 ᄒᆞᆫ두 개.
@2 음.
#1 영 올려놓는 거.
@2 음.
#1 게난 거 해어나 저 육식이나 ᄒᆞᆫ 줄, 딱.
@2 음.
#1 게난 세 줄 아니민 다섯 줄이나.
@2 예.
#1 아, 게난 이 줄도 그 숫자, 저 멧 뭣을 맞촹 놔야 뒈여.
@2 예.
#1 게난 소소ᄒᆞᆫ 디는 석 줄.
@2 예.
#1 겨 아녀면은 다섯 줄이 뒐 수가 이서.
@2 음.
#1 밥 놓곡.
@2 음.
#1 그 밥 가운데 잔 놓곡.
@2 음.
#1 잔 다음에 묵, 고기들 놓곡.
@2 예.
#1 그다음에 저 탕쉬라고, 이 잡채니 요즘 무시거 놓는 거.
@2 예.
#1 그거 ᄒᆞᆫ 줄.
@2 예.
#1 경 ᄒᆞ면은 또 나머지가 뭐이냐면은 이 제물떡이 이서. 제물떡.
@2 음.
#1 이녁 집이서 멘든 떡이든 빵떡이든 들어온 거.
@2 음.
#1 게난 이 우짝에는 언제나 큰 어른이 앉앙 잇곡, 이 ᄎᆞᄎᆞ 밑으로는 족은 사람이라, 언제나.
@2 아, 예.

#1 급수가.
@2 예.
#1 경 허면은.
#2 에, 에. 뭐 경 코치코치 무시거꽈? 대충 굴주 원 나 원 무신.
#1 경 ᄒᆞ면은 이 제물떡은 집이서.
#2 그런 거 다 곧젠, 나 원.
#1 ᄒᆞᆫ 거는.
@2 음.
#1 통차 헹 전부 올리곡.
@2 예.
#1 겨니까 이제는 그게 엇어졈서. 절벤, 솔벤.
@2 음.
#1 에, 세미. 이것이 엇어져 불엇어.
@2 예.
#1 게 꼭 그걸 헤낫주.
@2, 5 아.
#1 응, 헤나면은 지름떡ᄁᆞ지.
@2 예.
#1 헤난디 이젠, 이젠 송편 ᄒᆞ나만 동글락동글락ᄒᆞ게 놔근엥에 이 둑세기 전기 헹 ᄀᆞ찌 헹 올리는데 이게 떨어지지 못ᄒᆞ게.
@2 음.
#1 옛날 하르방덜이 뭔 말을 헷냐면 상에 잇단 소주 비와근엥에 진설헤낭 절을 헤난 다음에 파제를, 제서를 홀 때는 파제를 끗나젠 ᄒᆞ민 열두 시.
@2 예.
#1 인일은 뒈면은 야튼 어떻든 열ᄒᆞᆫ 시 넘어야 ᄌᆞ시가 뒈야 뒈.
@2 음.
#1 경 헤서 그 꼭 그 시간에 기다령은엥에 ᄒᆞ젠 ᄒᆞ당 보면은 이 떡이 떨어져 부는 수가 이서. 몰라근엥에.
@2 아.
#1 몰랑. 게난 그 둑세기 전기로 연결을 시겨. 진설ᄒᆞᆯ 때.
@2 예.
#1 솔벤, 절벤, 친떡, 세미, 뭐 무시거. 에 이 옛날 그 떡 이름은 다 잊어벳구나만은 그거 뭐 복잡ᄒᆞ게 ᄒᆞᆯ 필요가 없는 거.

잡담

#1 견디 그 명인들이, 귀양족들이 왕 그걸 시견. 그거 그 양반이여 상놈이여, 이제는 천방지축마골피라고 이건 완전이 이 쉐 벳기곡, 개 벳기곡 ᄒᆞ는 놈들인디.
@2 예.
#1 또 그다음에 온 귀양족 도지사분들이 그거 이제 그런 곱은 필요 없수다, 그걸 다 취소시기라.
@2 음.

#1 게난 나 천○○ 국회의원으로 나올 때 저 저런 건 나라에서 저런 건 몰람신가 경 ᄒᆞ주.

@2 어.

#1 게난 이 사람이엔 ᄒᆞᆫ 게 포태양생 에, 무병장수 ᄉᆞ병세장이라고 ᄒᆞᆫ 건 삼십 년인지 ᄉᆞ십 년이지 걸 확실이 그 첵을 아이 봐노난, 하르방들이 이 일생 나서 에, 삼십 년 동안은 펜안ᄒᆞ게 살곡 삼십 년으로 또 삼십 년ᄁᆞ지는 호강스럽게 살고. 또 삼십 년으로 칠십 년으로부떠 ᄒᆞ민 구십 년, 백 년 헹 백년 삼십 년이민 이건 ᄉᆞ병세장이다 ᄒᆞᆫ 거. 병들어서 죽을 때가 뒀다 헤서 이 구호들을 내여놘에 ᄒᆞ는디, 시방 제주도에 그 명인들 나와근엥에 방송국에서 제주 찾기 헤서 그 정신자 그거 나와근엥에 무시거 ᄒᆞ곡 ᄒᆞ는디. 보민 이 조끔 경험이 이신 사름덜은 세밀히 뭘 곧는데.

@2 음.

#1 겨 아년 건 몰라.

@2 예.

#1 게 맞질 안허여.

@2 예.

#1 겨난, 우리는 그런 명인들을 시에 살아질 때면은 그런 걸 알겟는데 우리는 여기서 낳고 죽을 거기 때문에 그런 그 문화 시민에 잇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가보질 못헤십주.

@2 음.

#1 못헷는데, ᄒᆞ난 이 그 명인들이 나와근에 그 설득을 헙니다만은.

@2 우리 남자 삼춘은 너무 아는 게 많으셔 가지고예, 한자도 잘 쓰시고.

#1 겨난 예법은 육지가 묽고 제법은 제주가 묽다는 거우다.

@2 아하.

#1 제주ᄒᆞ고는 제법이 완전이 틀려, 육지는.

제 지내기

@2 음, 그믄 제 지내젠 허민 어떵 헤마씸? 무시거부터 헙니까? 제 지내젠 정월 멩질 상 출리민 그다음에 제는 어떵 지냅니까? 순서가.

#1 순서가?

@2 음.

#1 아이 게난게 거 삼헌 헤사주 삼헌.

@2 으, 누게가 삼헌 뭘 철이꽈? 이 집이서 허민.

#1 게난 큰아덜이 초헌.

@2 음.

#1 아헌.

@2 음.

#1 종헌.

@2 아덜 셋은 이서야켜예?

#1 으, 게난 나머지 집사는 사름이 시면은 집사질을, 종헌이 집사질을 ᄒᆞ곡. 게 아녀민 손지나 아주 젤 가까운 놈.

@2 음.

#1 또게 아녀민 집에 사위.

@2 음.

#1 사위도.
@2 멩질날은 사원 안 올 거 아니꽈? 멩질날.
#1 으, 멩질날은 안 오주. 경 ᄒᆞ면은 이녁 손지나.
@2 으.
#1 종헌이, 겨 아녀민 ᄌᆞ식 ᄒᆞ나만이나 두 개만이민 종헌이 헤야뒈.
@2 아.
#1 삼헌 사, 종헌이.
@2 딱 사근에 절허여?
#2 게민 멩질 때는 궨당칩이 이디도 먹으레 가곡, 저디도 먹으레 오거든.
@2 맞아, 맞아.
#2 겨민 궨당도 ᄒᆞ곡게.
@2 음.
#2 궨당도 ᄒᆞ주게.
#1 앞으로 ᄉᆞ춘이 엇어져 가.
@2 맞아예. 웨아들이라 부난, 다.
#1 웨아들이라 노니까. 겨니까 에, 우리도 언제나 사위가 집사질을 허엿는데 이젠 사위 ᄎᆞ지 아이가. 손지들이 막 하노니까. 손지가 집ᄉᆞ질을 ᄒᆞ곡, 아방은 바빠근에 진설허레 오질 못헤여.
@2, 5 음.
#1 게 헤서 요ᄒᆞ루기도 ᄋᆞ둡 시 뒈사. 이거야. 초헌, 아헌. 아헌 살 놈이 두 번짜 놈이주.
@2, 5 음.
#1 허허, 두 번짜 놈이 종헌 살 놈은 족은아덜은 미리 오고.
@2 음.
#1 경 ᄒᆞ난.
@2 이디서 멩질헴구나예? 집이서예?
#2 멩질ᄒᆞ주게, 집이서.
#1 아헌 아덜이 커부난 핸드폰 아젼 완에 게난이 베와서 놈 주는 거 아니라.
@2 예.
#1 이녁이 알고 넘어가야 뒈.
@2 예, 예.
#1 이 진설법도.
@2 게 그런 거 이수게. 홍동백서 막 이런 거 이수게.
#1 어?
@2 홍동백서. 그런 거 이수게. 벌겅헌 건, 사과는 동쪽에, 배는 서쪽에 영 허는 거 이수게예?
#1 음 경 헌데, 그게 시방 그게 육지서 그게 그걸 나왓는데.
@2 음.
#1 여기 그 시인덜 귀양족들은 그렇게 시기지 안헷어.
@2 아.
#1 뭐 홍동백서여 개대명이여 그거.
@2 으, 으.
#1 게난 그자 머리 긁인 제숙.
@2 음.

#1 그거 순서대로 그걸 분명히 헤야 뒈. 이 해어가 일로 체면은 납작ᄒᆞ지 아녀양?
@2 예, 예.
#1 게 통차 올려지민 좋은데 통차 건조를 못 ᄒᆞᆫ단 말이여.
@2 예.
#1 이것이 이 일 년간 먹을 그 고기 제숙ᄒᆞᆯ 고기를 세우리바굼지에 헹 담앙, 걸엉 놔둡니다.
@5 아.
@2 세우리바굼지마씨?
#1 그 제숙 ᄒᆞ젠. 그 구엉 해어, 무신.
@2 음.
#2 옛날은 쪼꼴락ᄒᆞᆫ 차롱.
@2 음.
#2 뚜껭이 맞인 거 헤영 그것에 요렇게 끈 둘앙.
@2 으.
#2 끈 둘앙 영 두러메영 밧디 밥도 담앙 가곡.
@2 으, 으.
#2 무시거 먹을 것도 담앙 이렇게 뚜러메영 가곡.
@2 으, 으.
#1 냉장고 역할이주게.
#2 그런 차롱에 담앙 영 둘아메영 놔두는 거.
@2 그걸 세우리바굼지엔 ᄀᆞᆯ읍니까?
#2 으, 세우리차롱.
@2 아, 세우리차롱.
#2 으, 세우리차롱.
@2 아니 우리 먹는 세우리도 이신디. 그거영은 다른 거지예?
#2 테우리?
@2 아니, 세우리, 세우리. 부추.
#2 세우리차롱이엔 ᄒᆞ는디. 그것이 테우리덜이 두러메영 뎅기는 거.
@2 아. 테우리바굼지구나게. 테우리차롱예?
#2 어, 쉐 보레도 가곡, 물 보레도 갈 때민 그것에 무시거 놩 두루메영 가곡.
@2 맞아, 맞아.
#2 지금은이 이런 가반도 잇곡 뭐 잇주만은 그 옛날에는 무신 가반이 셔, 찰리가 셔게.
@2 음.
#2 문딱 그런 기자 테우리차롱 새끼 끈 둘앙.
@2 테우리차롱이구나게? 음.
#2 경 헹 두러메영 뎅기주게.
@5 음.
#2 게민 집이서도 그런 것에 무시거 놩 공젱이 둘아메영 놔둬.
@2 아.
#2 ᄑᆞ린 안 들어가거든.
@2 맞아.
@5 음.

#2 ᄑᆞ리 안 들어 가.
@2 쏠통 쏠독에도 보리쏠 소곱에도 놔뒀덴 헙디다. 아니? 그건 아니?
#2 보리쏠?
@2 보리쏠항에.
#2 어.
@2 그 바닷궤기 해어들 영 놔근에 놔뒀덴.
#2 어. 그거 저 무시거게. 물류와.
@2 거난 물린 다음에.
#2 물륜 거는 보리항 소곱에 놓넨 ᄒᆞ주. 보리항 소곱에.
@2 거난. 으, 으으.
#2 그 시절에는게 보리 헤오민 바싹 물류와.
@2 으.
#2 고팡에 항에 담앙 놔두주게.
@2 음.
#2 게민 그 보리 소곱에 강 노면은 버렝이가 안 일어.
@2 음.
#1 좀, 좀이 막 박섹이 일주게.
@2 음.
#2 경 ᄒᆞ민 아무데나 내불민 버렝이 일어.
@2 게난.
#1 막 싯엉 물에 ᄒᆞ민 다 떠근엥에 둥글둥글 떵 물에 넘어가주게.
@2 어, 어.
#1 막 잘 밀어근엥에.
#2 보리항 소곱에 놔두주, 보리항 소곱에.
#1 잘 밀지 아녀민 밥ᄒᆞ민 그놈의 게 나와. 이땅.
@2 음.
#1 게 뭐 좀도 내불어. 것도 보리쏠도 먹곡 곤쏠도 먹는 거난에 뭐 그거 궂인 거 아니라, 영 ᄒᆞ멍 이.
#2 지금은 좀이 잘 안 일주만은 그 옛날에는 웬일인지 쏠에도 막 좀 벙뎅이.
#1 그런 거나 들민 아이 먹주게 밥을.
#2 그 좀벙뎅이만 골령 영영 보비믄은 다 벌거지, 버렝이.
@2 아.
#2 지금은 벌거지엔 헤도 그 옛날은 버렝이.
@2 버렝이.
#2 버렝이.
@2 으, 옛날 말로 골아줘야지.

멩질떡

#2 버렝이 일어.
@2 떡은, 삼춘, 옛날엔 아까 솔벤, 절벤도 헷덴 헨게만은 무신 떡 무신 떡허는 거마씨?
#2 아이구, 옛날도이 절벤, 솔벤 ᄒᆞ는 집이 ᄒᆞ주 매 집이 아녀.

@2 아.
#2 곤떡ᄒᆞ곡, 세미떡.
@2 음.
#2 그거주. 친떡ᄒᆞ곡.
@2 곤떡은 무신 거라? 게민.
#2 뭐뭐 송펜이주게. 옛날은게.
@2 아.
#2 옛날은 송편도 요렇게 요렇게 전을 돋져.
@2 아.
#1 조개송편이 잇고.
#2 지금은이 떡집이서 전 안 부쪄. 기냥 동글락ᄒᆞ게 만들아 불주.
@5 맞아, 맞아.
@2 게믄 침떡허고.
#2 곤떡ᄒᆞ곡.
@2 곤떡허고.
#2 세미떡ᄒᆞ곡.
@2 세미떡허고.
#2 으, 그거주게.
@2 지름떡은?
#2 으, 옛날도 지름떡은 헤서.
@2 지름떡도 허고.
#2 으.
@2 그믄 떡은 네 개 헤나수과?
#2 으. 지름떡 부쪄사 네 가지. 지금은 하간 튀김덜 헤도 그 옛날은 튀김도 엇엇어.
@2 맞아, 맞아.
#2 옛날은 그자 지름떡 하나.
@2 음.
#2 계랄전 하나, 그거.
@2 아.
#2 그거 헷주 원.
@2 세미떡은 어떵 헹 멘드는 거꽈?
#2 세미떡은 무시거게. 영 보시로, 동글락헌 보시로 똑ᄒᆞ게 떠가지고 국시 ᄒᆞ듯이 막 이 안반에 밀어.
@2 으.
#2 얄루릉ᄒᆞ게 밀어놔 가지고 동글락ᄒᆞᆫ 보시로 꼭 ᄒᆞ게 뜨면은 동글락허게 나와.
@2 으.
#2 게민 그것더레 쉬 쪼끔 놔서 영 꼬부려 가지고 이렇게 줍으면 세미.
@2 아하.
#2 옛날은 세미떡.
@2 음. 쉬는 무신 쉬 놔?
#2 풋.

@2 풋쉬, 으.
#2 풋쉬. 곤떡에도 풋.
@2 어, 곤떡에도 풋.
#2 어, 세미에도 풋.
@2 으. 그믄 그거 영 상에 올리젠 허민 영 영 올려야 헐 거 아니꽈예?
#2 응.
@2 그 쌓젠 허민 젤 밑에는 무신 거?
#2 친떡 놓고 그다음은 송펜 놓고.
@2 그다음 송펜 놓고.
#2 그다음 세미떡 놓고.
@2 세미떡 놓고. 그다음 지름떡 놓고.
#2 지름떡 놓고. 계랄전 엎으믄 말아.
@2 아, 기름떡 우에 다시 계란전 엎으는 거꽈?.
#2 어. 계란전 더꺼사.
@2 계란전은 어떵 헹 멘드는 거?
#2 어떵 헹 멘들아. 저 그 옛날에는 솟뚜껭이.
@2 으.
#2 지금은 후라이판 잇주만은 그 옛날은 후라이판도 엇엉.
@2 으.
#2 솟뚜껭이에서 솟뚜껭이에서게 저 뭐.
#1 무쉐솟뚜껭이, 무쉐.
#2 불숨앙.
@2 맞아, 맞아.
#2 알로 불숨앙. 나무 때영. 겡 헹 솟뚜껭이에서 지지주게. 계랄.
@2 계란만?
#2 으.
@2 뭐 고사리나 이런 거 안 놓고?
#2 어어어. 그 옛날엔 뭐 고사리 놓곡 뭐. 지금은 고사리 놓곡 헴주만은.
@2 어. 계란전은 그냥 계란만 동글락허게?
#2 어, 동글락허게.
@2 가운데 뭐 고망 뚤라져?
#2 고망 안 뚤라져.
@2 고망 안 뚤라져. 그냥 계란으로 동글락허게?
#2 으.
@2 음.
#1 게, 게난헌디 계란전 지질 땐 고사리 숢은 거, 그거 영 허영 혼 겁씩 가운드레 놓주게.
#2 지금은 놔. 지금은.
@2 예.
#1 겡 아녕 막 추렴이나 헤난 땐 간 ?튼 거 사당 놧당, 간 썰엉 놧다근엥에 그레 톡톡 그 계란 지지는 디레 가운더레 놓곡.
@2 어. 간전 뒈겟네예? 음, 그믄 기름떡 우에 계란전을 놓는 거?

#2 으.
@2 계란전? 아니면 계란전기?
#2 아니, 지름떡을 문여 놓고, 그다음에 계랄 노민 마지막.
@2 아. 거까지?
#2 어.
@2 거난 이거는 계란전이엔 헙니까?
#2 어. 둑세기전. 옛날은.
@2 둑세기전.
#2 으, 둑세기전.
#1 그거 잊어불엉 아이 굴앗어.
@2 으.
#1 옛날 하르방덜이 그걸 멩심헹 고ᄒᆞ여산다.
@2 으.
#1 그 상에 전부 진설헤 놩 그 파제ᄁᆞ지 기다리당 보민 이땅 떡이 ᄆᆞ르는 수가 잇어.
@2 예.
#1 ᄆᆞ르민 그 떡이 떨어져 부려.
@2 예.
#1 떨어져 불민 그게 하르방덜이 굴은 말이, 진설 ᄒᆞᆫ 디서 떡 ᄒᆞ나 떨어지민 ᄌᆞ순 ᄒᆞ나 떨어지는 법이여.
@2 아이고.
#1 이게 막 겁난 말이라.
@2 게난.
#1 알고 보면은. 게서 나도 아이덜안티도 지름떡 ᄀᆞ뜬 거 저 계랄전지 ᄀᆞ뜬 것을 ᄎᆞᄎᆞ 연결ᄒᆞ면서 떨어지지 않게끔 잘 올려라.
@2 어떵 연결허여?
#1 걸 연결을 이 석공덜 돌 싸듯이 그게 연결이 뒈어, 그게.
@2 예.
#1 그게 젤 써운ᄒᆞᆫ 말이라.
@2 맞아예.
#1 ᄌᆞ순 ᄒᆞ나 떨어진덴 ᄒᆞᆫ다. 떡 ᄒᆞ나 떨어지민. 상에 올린 거.
@2 음.
#1 거 뭐, 요즘은 뭐 그렁저렁 헤영 치와불주만은.
@2, 5 음.
#1 게 떨어지는 게 좋질 아년 거라.
@2 맞아마씸.
#1 알고 보면은 겨난 천성 ᄌᆞ순덜안티는 진설ᄒᆞ는 ᄌᆞ순은 겨난 뭐이든지 그런 제법에 묽은 사름을 천성 진설을 들어가.
@2, 5 음.
#1 겨난 손지놈도 모르난에 핸드폰에 문 찍엇단 그거 보멍 헨 올렷는데.
@2 으.
#1 절대 난 아이덜안티 곧는 게 진설ᄒᆞᆫ 디서 제물 ᄒᆞ나라도 떨어지면은 안 뒌다.

@2, 5 음.

#1 어떻든 거 돈돈이 연결을 헤서 걸 올려야 뒌다. 그렇다고 헤서 뭐 눌리엉 그걸 올리라는 건 아니다.

@2 예, 예.

#1 자동으로 노면은 ᄎᄎ 그게 연결뒈영 헤싸지질 안허여.

@2 아.

#1 그 하필이민 그 이 멩질 때엔 ᄒᆞ주만은 제사 때 막 하영 올려.

@2 맞아마씸.

#1 하영 올리면은 그게 좋은 거지만은 할망 하르방덜이 이거 요만이나 먹어가는 건 아니라.

@2 음.

#1 그냥 적당히 바레기 좋게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안전허게끔만 올려라. ᄎᆞ례가 묵부떠 올리곡, 그다음은 소고기 적갈, 그다음은 뒈지고기 적갈, 그다음은 해어.

@2, 5 음.

#1 그 뭐 홍동백서여 무신 동쪽에 노라, 서쪽에 노라, 이게 완전히 다 틀린 거.

@2, 5 예.

#1 사름광 귀신은 이 완전이 꺼꾸로 뒈야 뒈.

@2 예.

#1 이 우리는 ᄂᆞ단짝으로 먹게 뭐를 영 ᄒᆞ주만은 이 구신은 완전히 반대, 우리ᄒᆞ고 반대.

@2, 5 으.

#1 이, 묵을 심는 디도 우린 이짝으로 ᄂᆞ단짝으로 심지만은 구신덜은 다 반대이기 때문에 꺼꾸로 놔야 뒈.

@2, 5 어.

#1 게난 이 생인ᄒᆞ고 이 구신은 제물 ᄀᆞ뜬 건 모든 건 다 반대로 논다 헤서, 밥도 갱국도 다 꺼꾸로 놔, 다.

@2 예.

#1 우리, 우리식이 아니라.

@2 아.

#1 육지는 우리식으로 ᄂᆞ단 식으로 ᄂᆞ다 놔근에 모든 걸 제를 지내더구만은.

@2 아.

#1 겨난 육지는 게 유식한 하르방덜이 제법은 육지가 묽고, 아 저 예법은 묽고, 제법은 제주 ᄀᆞ찌 묽은 듸가 엇다. 어 이 말을 헤난 걸 자꾸 늘 들어수다. 이 종손안티 우리가.

@2 게난 삼춘네, 멩질헐 때 메는 멧 개난 올립니까?

#2 멧 개나 올려게. 그 옛날에는 상에 이제 할망 하르방이민 두 개 올리고.

@2 음.

#2 또 안네라고 옛날은이.

@2 으.

#2 안네 하나 놓곡, 문전에 놓곡 그거주게.

@2 안넷상은 어떵 헹 출려마씨? 어디 출려?

#2 그냥 아래 영.

@2 상 아래?

#2 아니, 상아래도 아니. 요거는 큰상, 요거는 큰상, 그담엔 요디 안네.

@2 으.
#2 그다음에 요거 문전. 경 놓는 거.
@2 어.

문전제

#1 문전이 젤 큰 뭐이주.
@2 문전이 젤 큰 거꽈?
#1 어, 문전이. 겨난 이 요즘덜 보민 멍청ᄒᆞ게 문전에 하직덜을 헤여.
@2 하직은 뭐라?
#1 마주막 잘 먹엉 갑서 ᄒᆞ는 마지막 인사.
@2 어.
#1 문전은 언제나 그 집을 지키는 신이라는 거우다.
@2 으.
#1 할로산 나무를 케서 강태공 서목시라고.
@2, 5 음.
#1 겡 헤서 그 그 요즘 그 심방덜, 그 내력을 알런지 말런지 모르주만은 할로산에 그 강태공 서목시라고 헤서 서목시가 낭을 끈어 와서 집을 짓엇기 때문에 들어오는 문전에 쳇 번 이 그 대문에 입젱이가 나무가 들어갑니다.
@2 예.
#1 게난 문전은 하직이 없고.
@2 음.
#1 이녁 조상들은 하직을 헤얍니다.
@2 아하.
#1 절을 헤영.
@2 예.
#1 잘 드시고 뭘 헤수다, 헤영근엥에 조심히 가십서. 영 헤서 하직을 ᄒᆞ곡, 문전에는 하직이 없어. 두 번벳긴 절.
@2 아, 절 두 번만 헙니까? 문전은?
#1 어, 세 번은 아니 혀.
@2 아.
#1 세 번은 아니 혀. 그 세 번은 문전을 그 다시 오지 맙센 허는 건디. 문전은 언제나 그 집안 목심이 들어 잇는 거.
@2 국은, 문전에 국은 올립니까?
#1 에?
@2 문전에 국도 헤?
#2 국 올리주게.
@2 안 올리는 집도 이수다.
#2 아니 올리는 디가 잇넨.
#1 밥만 올리는 디가 이서. 겨니까.
#2 응, 갱 안 올리는 디도 잇넨.
@2 맞아, 맞아.

#1 묘허여. 계속 제도 문전부떠 몬여 지내여, 제도.
@2 예, 예.
#1 여기는.
@2 음.
#1 경 ᄒᆞ는디. 그 갱을 아니 올리는 디가 이서. 우리 방상에도 잇어, 건.
@2 예, 예.
#1 게서 요즘은 시대가 바쁜 세상이난 열 시 뒈민 절 ᄒᆞ영 파제 끗나고 열훈 시 뒈민. 이게난 ᄌᆞ축인묘로 계산을 ᄒᆞ면은 ᄌᆞ시는 그 귀신이 활동홀 시간이라 이거라.
@2, 5 음.
#1 밤이 깊으니까.
@2, 5 음.
#1 경 헤서 이 ᄌᆞ시를 택헤근엥에 자정이여 무신 시방 오시여 영 헹 방송에도 ᄒᆞ는데,
@2 음.
#1 이 오시 정이여, ᄌᆞ시 정이여 이 방송에도 ᄒᆞ는데, 이거 정은 맞인 말이라.
@2 음.
#1 다 맞인 말인데 이 집안에 제사 때 그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 영 ᄒᆞ영 십이간지로 헤영 나오는디, 제서 때 집안에 인일이 세 번을 들면은 그 집안 망훈덴 헷어.
@2 뭐가 세 번 들민?
#1 제사 하는디.
@2 무시거 세 번 들민?
#1 인일.
@2 인. 아, 인일.
#1 어, 인일.
@2 호랑이날.
#1 어.
@2 어.
#1 인일. 경 ᄒᆞ니까, 이따근에 경 ᄒᆞ는 집안이 만허여.
@5 아.
@2 식게, 식게가.
#1 어.
@2 인일에 들면 안 뒈는 거꽈?
#1 으, 식게.
@5 아.
#2 게난 열두 시 넘엉 허지. 옛날은.
#1 요 미깡덜 ᄒᆞ나씩 먹으멍.
@2 예, 예.
#2 인일이 들면은 열두 시 넘어야 헤여.
@2 아, 그때 허지 말앙 새날에.
#2 어, 새헤, 새날에.
@2 새날에 식게 허렌.
#1 어, 이 밤광 저 밤새에 헤야 뒌다 이거라.

@2 음.
#1 게 그렇게 궤로왓다니까 그 옛날 풍습으론.

감주
@2 음. 삼춘, 감주도 헤낫수과?
#2 응. 감주도 헤난.
@2 감준 어떵 헹 허는 거꽈?
#2 감쥐? 감쥐도 저 골, 골 집이서.
@2 무신 걸로? 무신 쏠로?
#2 저, 주넹이보리.
@2 음.
#2 옛날은 주넹이보리 셔나서. 주넹이보리로 그 보리를 물에 커서.
@2 음.
#2 그거 빼죽빼죽 나면은.
@2 음.
#2 그걸 막 널엉 벳디 물류와.
#1 물류와. 벙뎅이 흔 거.
#2 메날 널어근엥에 그걸 이젠 물류와근에 ᄀᆞ레에 ᄀᆞᆯ아.
@2 예.
#2 ᄀᆞ레에 ᄀᆞᆯ앙 흐린좁쏠. 감쥐도 흐린좁쏠이라사.
@2 아.
#2 흐린좁쏠 헤영 밥 헤여. 이젠 무신 단지에나 무시거 밥 퍼 놩.
@2 음.
#2 물 놓앙 막 젓엉.
@2 음.
#2 그레이 골을 놩 젓엉 놔두민 그놈으 게 이제 부글락부글락 궤여.
@2 음.
#2 그때민 체로 걸러 가지고 그걸 딸려.
@2 어.
#2 경 ᄒᆞ민 감쥐.
@2 아, 경 허민 감쥐.
#1 게 딸리면은 그 ᄃᆞᆫ기가 나오는 거주. 설탕이 없엇어. 어디 설탕이 이서서게.
@2 어.
#2 경 ᄒᆞ민 ᄃᆞᆯᄒᆞ여. 골만 잘 물령 잘 ᄀᆞᆯ아근에.
@2 아.
#2 ᄀᆞᆯ루로. 골 놓앙[노앙] 놔두민 그것이 부글락부글락 궤여.
#1 뒈게 쑬수록 그 감미가 ᄃᆞᆯ아.
@2 음.
#1 엿 ᄒᆞ는 식으로. 집안에서 엿 멘드는 식으로.
@2 감주 오래 딸리민 엿 뒈는 거?
#2 감쥐 헤영 오래 딸리민 엿 뒈주게.

@2 어. 그디 무신 펑이나 도세기나 놔근에.
#2 어, 그런 뭐 고길 놓나 펑을 놓나 둑을 놓나 헤영.
@2 거믄 둑엿, 펑엿 영 뒈는 거?
#2 어. 어, 어. 겡 헹 막 딸리민 엿이여.
@2, 5 음.
#1 것도 이 웨정 말기에 웨놈들이 손 들러 부난 헷지. 그때도 기곗방이 셔시민 그런 거 가정 강 기계에 강 굴아오면 좋는디 이놈의 정ᄀᆞ레가, 예이 그땐 예펜덜이 춤 못 젼뎟주.
#2 옛날도 기곗방은 셔낫어.
@2 아, 셔낫수과?
#2 어. 우리 김녕 간 때 기곗방은 이서낫는디 그거 헤끔ᄒᆞᆫ 거 아정 기계에 굴레 안 가.
@2 으.
#2 ᄀᆞ레에 굴아.
@2, 5 음.
#2 ᄀᆞ레 도구리에 디려놔근엥에.
@2 예.
#2 경 헹 굴아, 굴아.
@2 음. 그믄 멩질은 멧 밧디나 강 먹어낫수과?
#2 멩질 뭐, 누게 옛날은게 권당 하민 뭐 여라 밧디 가곡.
@2 이디 김칩이.
#2 지금 우리 김칩이?
@2 으.
#2 우리 김칩이도게 옛날은게 우리 셋어멍 셋어멍도 와나고 말젯어멍네 집이서도 오곡.
@2 으.
#2 서문에 또 권당칩이서 오곡.
@2 어. 게믄 삼춘네 멧 번째 헤낫수과?
#2 우리가 두 번짜?
@2 두 번짜?
#2 어.
@2 그믄 젤 종손이 젤 나중에 허는 거?
#2 어. 종손이 젤 나중에.
@2 어.
#2 이 알가지 문딱 ᄒᆞ영 그디 문 다 담아지는 거.
@2 어. 그믄 그디 사람들도 이디 왕 제 지내곡, 헹 이 집이 갓닥 저 집이 강 제 지내곡.
#2 어. 지네 집이 강 ᄒᆞ곡.
@2 지네 집이도 강도 허곡 헹 종손집이 젤 마지막에 가는 거?
#2 어, 마주막에. 젤 마주막에.
(중략)

과세

@2 게믄 과세도 드리레 가곡 허지예?
#2 으, 옛날은 막 과세ᄒᆞ레 가주.

(중략)
@2 옛날 과세할 때 과세허레는 어디 어디 갑니까? 과세.
#2 과세허레는.
@2 정월 멩질날.
#2 젤 높은 집이 가주게. 높은 하르방덜신디만.
@2 아.
#2 할망이나 하르방이나 방상에서 젤 으뜸.
@2 음.
#2 그런 디만 가.
@2 음. 할망 하르방 이신 집은 다 가는 거 아니?
#2 응. 방상에 다 시민 다 가야주게.
@2 어. 상 논 디도 갑니까?
#2 상 논 디도 가주.
@2 상 논 딘 가민 상에 과세허는 거꽈?
#2 상에도 과세ᄒᆞ곡, 또 그디 나이 든 어른덜 시민, 아이들신디, 나이든 어른들신디 가곡게.
@2 음.
#2 지금도 과세사 헴주.
@2 예, 헴주마씨.
#2 지금도 헴주. 나이 든 사름신디만.
(중략)
@2 거난 사돈칩인 세배 안 갑니까?
#2 사둔칩이도 저 우리보단 나이가 들면은 가지.
@2 음.
#2 할망덜은 안 가고. 남자는 가. 사둔칩이.
@2 아.
#1 실린다. 이디는 춥나. 여기는. 내가 언제나 올 적마다 굴읍주. 아들뚤덜안티라도. 메누리안티라도. 아이덜 꼭 내의 입젱 와야 뒈. 겨울에 들어가민 여기는 틀리다고 말이라.
@2 예.
#1 게난 오민 바싹 얼덴 ᄒᆞ곡.
@2, 5 음.
#1 이것덜이.

옷

@2 그 멩질날 과세 가젠 허민 남자 어른덜은 무신 옷 입엉 갑니까?
#2 후루메.
@2 후루메.
#2 응. 옛날은 후루메.
@2 바지저고리에 위에 후루메만 입읍니까?
#2 응, 바지저구리 입곡 후루메 입곡.
@2 아. 후루멘 두루마기영 뭐가 달라마씨?
#2 두루마기엔 ᄒᆞᆫ 거는 그 후루메 보고도 두루마기엔 ᄒᆞ주게.

@2 어, 어.
#2 겐디 후루메, 옛날은.
@2 옛날은 그냥 두루마기엔 안 헹 후루메.
#2 으, 으.
@2 여름 것도 후루메?
#2 여름 거는 뭐, 여름 것이 두루메기엔 ᄒᆞ는가?
@2 거 팔월 멩질에 입는 그 두루막은?
#2 아이, 저 팔월 멩질에도 저 그냥 후루메 입어.
@2 팔월 멩질에도 후루메 입어?
#2 으, 후루메 입엉 절ᄒᆞ곡. 제보곡게.
@2 아, 제볼 때도 후루메 입엉 허는 거꽈?
#2 어, 제볼 때 후루메. 옛날은.
@2, 5 음.
#2 후루메 안 입는 사름은 엇엇어. 나이 들면은 문 후루메.
@2 아. 그거는 한 겹짜리 아니고 두 겹짜리꽈?
#2 응.
@2 한 겹은 두루마기?
#2 응, 두루메기는 ᄒᆞ나, 웨겁.
@2 응.
#2 후루메는 두 겁.
@2 예, 이런 데 다른 데 모양 똑같고?
#2 응. 모양은 ᄀᆞ따. 후루메나 두루막이나.
@2 응, 제 지낼 때 입는 옷은 또 따로 잇지 안허꽈? 도복 뭐 이런 거 잇지 안허꽈?
#2 아, 도복이엔 ᄒᆞᆫ 건 큰옷.
@2 아, 건 큰옷.
#2 응, 큰옷.
@2 응.
#1 에이 경 ᄒᆞ난양 시방.
@2 할아부지 저 후루메도 미리 다 세답헤근에 장만헤 놔둬야 뒐 거 아니?
#2 응. 팔월 멩질이나 정월 멩질이나 제보젠 ᄒᆞ민 다 풀ᄒᆞ곡 옛날은.
@2 음.
#2 풀헤영 다리미로. 지금은 뭐 무시걸로 다렴주만은 옛날은 다리메라고 영 ᄌᆞ룩 돋은 것에 불살랑 숫 헤영.
@2 어, 다루웨 아니고? 다리메?
#2 다리웨. 다리메, 다리메.
@2 다리메?
#2 어, 다리메엔 ᄒᆞᆫ 거. 지금 후라이판 닮은 거. ᄌᆞ룩 돋은 거.
@2 어, 어. 숫불 놩예?
#2 그것에 숫 헤영 불살라. 경 헹 옷 다리주게.
@2, 5 음.
(중략)

@2 아기덜 옷도 멩질 돌아와 가민 허곡.
#2 응, 멩질 돌아와 가민게 곤옷 헷당 입지주게. 입엉 뎅기단 건 벳겨동게 ᄒᆞ쏠 곤 걸로게.
@2 게난.
#2 곤 걸로.
@2 정월 멩질벳긔 안 헤신디. ᄒᆞ꼼 쉬엇당 허카?

벨롱겡이

@2 음. 정월 멩질 끗나민, 그다음 무신 거 헙니까?
#2 정월 멩질 끗나민 무시거 허여? 이월둘에는.
@2 아니, 정월에 허는 거 또 이실 거라.
#2 정월에 ᄒᆞ는 거 없어.
@2 뭐 저 벨롱겡이도 허고.
#2 아, 그거 벨롱겡이.
@2 으.
#2 ᄒᆞ는 집인 벨롱겡이도 ᄒᆞ곡. 그것도이 삼월둘에 ᄒᆞ는 디 잇곡.
@2 아.
#2 정월둘에 못 ᄒᆞ면은 삼월둘에도 헤.
@2 아, 음력 정월에 허는 거 아니꽈?
#2 음력 정월에 ᄒᆞ는디 정월에 그거 집이 일 냉겨사 홀 걸, 일 냉겨사 홀 걸 ᄒᆞ멍 심방 빌어당 ᄒᆞ는 건디.
@2 음.
#2 거 정월에 ᄒᆞ는 사름도 잇곡.
@2 음.
#2 정월에 못 ᄒᆞ민 삼월에 ᄒᆞ는 사름도 잇고.
@2 아.
#2 우린 그런 거 아녀봐 부난 몰라.
@2 음. 그 문전, 문전코시.
#2 문전코시.
@2 조왕제.
#2 그거주게.
@2 그거 벨롱겡이영 똑ᄀᆞ튼 거꽈?
#2 어, 어. 벨롱겡이엔 ᄒᆞ민게 문전코시라고게 문전코시 ᄒᆞ곡.
@2 아, 음.
#2 조왕제 ᄒᆞ곡.
@2 벨롱겡이 헐 때 허는 거구나예?
#2 어.

정월 대보름

@2 정월 대보름 뒈민 뭐 방쉬ᄒᆞ는 거 엇수과?
#2 정월 대보름 뒈면은?
@2 어.

#2 뭐 ᄒᆞ는 집인 ᄒᆞ고, 우린 그런 거 아녀봐 부난 몰라 원.
@5 음.
#1 겨난 박사님양, 시방 심방을 무형문화재로.
@2 음.
#1 제주에 시방 놓겐 ᄒᆞ는디.
@2 예.
#1 포제란 게 이수다. 포제.

포제

@2 맞아마씨예. 정월에 포제도 허지예?
#1 예. 게난이 그게 우리가 두 설 때, 두 설 때쯤 호열자 들어완. 호열자는 그 설사병이우다.
@2 예.
#1 가시줄을 싸고 웬ᄉᆞᆺ 끼완에 다 부락마다 시방, 시방 이거 국병인데, 코로나가양.
@2 음.
#1 그와 마찬가지로 전렴들은 다 사름이, 하르방들이 지켠 다 통제 시겨낫수다.
@2 예.
#1 그게 엇어져 부렴서. 시방.
@2 음.
#1 그것도 알앙 놔둬야 뒈. 포제.
@2 예, 예, 예. 이디 포젠 어떵 헤나수과? 송당리.
#1 포제는 아주 중요한 젭주.
@2 예, 예.
#1 이 부락을 위헤서 ᄒᆞ는 거기 때문에.
@2 음.
#2 포제란 ᄆᆞ을제주게 ᄆᆞ을제.
@2 예, ᄆᆞ을제. 그거 허젠 허민.
#1 뒈지 산 차 두 개. 두 개 이상.
@ 음. 이상?
#1 산 차가 아니고 통차.
@2 음.
#2 잡지 아녕.
#1 숣지 아녕.
@2 음.
#2 기슬롸근엥에 반찍 단장헤영, 그냥 산 차 그냥 강 올려. 잡지 아녕.
@5 아.
#2 포제.
#1 뭐이던지 생걸로.
@2 아.
#1 ****.
#2 포제 말만 들엇주. 포제 ᄒᆞ는 건 아이 봐봐서게.

@2 삼춘은 거보지 안헨?
#2 두린 때난 무신 가볼 말이라?
@2 포제 저 헌관도 허지 아녑디가? 제관 안 헷수과? 포제헐 때.
#2 옛날 우리 아버지는 포젯 제관으로 들어가니까.
@2 으.
#2 흔 집이 흔 멧 사람 모다 앚앙 밥 먹으레 못 와.
@2 거난.
#2 경 헹 어멍이 밥헤주민 조반 앗당 안네곡, 또 정심 때 뒈민 정심 앗당 안네곡.
@2 음.
#2 경헤여. 흔 삼일.
#1 십오 일 살아. 십오 일.
#2 경 헤영 놈이 집이서 막 모다들엉.
#1 집 ᄒᆞ나 빌엉.
@2 음.
#1 포젯 제관을 ᄒᆞ젠 ᄒᆞ민.
@2 어. 삼춘은 게난 안 헙디가?
#2 안 ᄒᆞ여봔.
#1 난 집사ᄒᆞ젠 ᄒᆞ난 ᄀᆞ찌 뎅기긴 헷는데 집사는 젤 쫄병입주. 거기서.
@2 예.
#1 그 거리가 이디서 ᄒᆞ민 아마 흔 오십 메다 쯤 물건을 차립니다.
@2 음.
#1 밤에 들녁에 강.
@2 예.
#1 깨끗한 동산.
@2 포젯단 잇잖우꽈? 이디?
#1 포제 장소가 잇어낫수다.
@2 예.
#1 거 시방 계발 뒈어노난 문 밀어잦혀 불고.
@2 아.
#1 문 뭐 헤불엇수다. 포제 ᄒᆞ는디 그 멩감이라고.
@2 음.
#1 멩감도 헤낫수다. 거 그건 그 가정에 안녕을 비는 겁주. 그 저 멩감이라고.
@2 예.
#1 멩감제라고 ᄒᆞ는 건데 에, 그건 떡 ᄀᆞ뜬 거 헤 강 여기서 제사 모시듯 모시는 거. 그거 멩감제고. 포제는 젤 높은 젠디.
@2 응.
#1 이거 천신에 의헤서.
#2 멩감은 가정에 ᄒᆞ는 거고. 포제는 ᄆᆞ을에서 ᄒᆞ는 거난게. ᄆᆞ을제 거.
@2 음.
#1 이건 고려시대로부떠 흔 거 아이꽈.
#2 멩감은 이제 집이서 ᄒᆞ는 거.

#1 고려시대는 하늘을 믿고 신라시대는 땅을 땅을 믿고양. 천지.
@2 예.
#1 인은 요즘이라 말이우다.
@2 아.
#1 천지인.
@2 예.
#1 땅, 하늘, 땅, 사람이 인운 시대다.
@2 예, 예.
#1 게난 시방은 뭐 나로혼가 올리난 뭐 실패 뒈언 헤도 시방은 인운 시대라 ᄒᆞ지만은양, 인운이 맞아들지 안헤여.
@2 아.
#1 예. 게난 이제 지운도 가불고 천운도 가불고 기자 말은 지구가 변하고 잇다. 그자 경만 경 굴아 냉겨쳐 부는 거라.
@2 포제는 메칠 날 헤? 포제는. 포제 메칠 날 헙니까?
#1 포제?
@2 으.
#1 포제라고 그 멩감.
@2 아, 그난 메칠날? 일월, 정월.
#1 아니, 그거 날 봐야 뒈. 그건.
@2 아. 날 봐야 뒈.
#1 날 봐서 에, 공방일이나 그런 인일만 아이 걸리면은.
@2 음.
#1 것도 밤에 강 헤여. 밤에 강.
@2 음.
#1 것도 막 무서운 제라고 봐야주게.
@2 아.
#1 몸 정성을 잘 헤야 뒈.
@2 어.
#1 육식 먹지 말고.
#2 아, 경ᄒᆞ난 ᄒᆞᆫ 집이 모다졍게 밥헤당 안네고 헷주게 무신.
@2, 5 음.
#2 집일 와 봐서게. 멩감 저 포제 제관으로 들면은 집이 못 와.

멩감제

@2 으. 멩감은 어떵 헹 허는 거?
#2 멩감은 집이서 ᄒᆞ는 거게.
@2 아까 벨롱겡이영 다른 거?
#2 멩감ᄒᆞ고 벨롱겡이ᄒᆞ고 틀린 거주.
@2 멩감 어떵 ᄒᆞ는 거꽈?
#2 멩감이라고이 멩감은 나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네 ᄒᆞ는 걸 봐신디.
@2, 5 음.

#2 멩감 ᄒᆞ젠 ᄒᆞ민 이 멩감에 쓰는 그릇.
@2 음.
#2 뭐 종제기 그런 줍시, 지금은 사라, 사라 ᄒᆞ주만은 옛날은 젭시.
@2, 5 음.
#2 그런 거 장항뒤에 가근엥에 새 꼴앙.
@2, 5 음.
#2 두 일레 열나흘 그 그릇을 발레여. 멩감 허젠 허민.
@2 아. 햇빗에?
#2 어, 햇빗에 막 발레여.
@2 어.
#2 경 헨에 멩감 ᄒᆞ는 거 봐낫어.
@2 그믄 누게 뭐 저 가믄 저 뭐 써근에 옵니까?
#2 심방, 심방 왕 허는 거난게.
@2 것도 심방이 왕 허는 거?
#2 심방이 왕 ᄒᆞ는 거.
@2 심방이 왕은에 무신 거 썽 허는 건 아니고?
#2 어, 심방 왕 ᄒᆞ는 거게.
@2 그것도 저 집안에 그.
#2 집안에 그것도 펜안헤줍서 헤연 비는 거난게.
@2 그니까. 것도 정월에 헙니까?
#2 거 정월에도 ᄒᆞ곡, 삼월에도 ᄒᆞ곡.
@2 아까 벨롱겡이영 똑같은데.
#2 응, 똑ᄀᆞ따. 날 봥 ᄒᆞ는 거난게.
@2 그 뭔가 달라야 뒈는데 다른 점이 뭔고? 벨롱겡이영 멩감은?
#2 멩감이 젤 큰 제주.
@2 아, 멩감이 더 큰 제.
#2 으. 벨롱겡이, 집안에서 ᄒᆞ는 거 젤 큰 제.
@2 으.
#2 조왕제나 문전이나 무시거 그런 거 보다 젤 큰 거.
@2 아.
#2 그런 거 헤불민 문전제고 뭐고 아녀주게.
@2 어, 이거 혹시 사냥허는 사름덜 허는 거 아니? 이 동, 이 저 웃드르 사름덜 아닌가? 멩감?
#2 아멩헤도 웃드르가 하영 ᄒᆞ여. 헤벤보다.
@2 이디 뭐 영 탈 써근에 허는 거 아니꽈? 남자 심방덜?
#2 그때는 심방덜 거 무시거. 것ᄀᆞ라 무시거엔 헤낫저만은. 저 벡지, 창문 불르는 종이 ᄒᆞ영.
@2 예, 예.
#2 영 감티 만들엉 것ᄀᆞ라 뭐?
@2 감티 만들앙.
#2 뭐 소 송아기엔 ᄒᆞ는가?

@2 어.
#2 귀나게 즙앙 멘들앙.
@2 으.
#2 심방 그거 썽 ᄒᆞ여.
@2 아.
@5 음.
#1 에이고, 옛날 뭘 ᄒᆞᆯ 거 ᄒᆞ민 곤정벵이 벗엉 살지 못홉니다.
@2 무신 거 헤근에?
#2 옛날 말 곧젠 ᄒᆞ민 곤정벵이 벗나고.
@2 곤정벵이 벗는 게 무신 말이꽈? 그거. 양?
#2 너미 힘든다고, 곤정벵이 벗나, 이거주게.
@2 곤점벵이가 뭐라?
#2 이런 옷을 벗나, 이거지.
@2 이거 점벵인 아는디 곤점벵이렌? 고운 거?
@5 곱닥헌 거?
#2 곤정벵이 벗나.
#1 겨난 이제 식게도 모두와 불고.
@2 음.
#2 물멩질도 ᄒᆞ당 설러불고.
#1 삼년상도 없어 부리고.
@2 음.
#1 이제 이제는 편ᄒᆞ긴 편헴주양.
@2 음.
#2 어멍이고 아방이고 불에 강 짇어 불곡 무신. 세상이 거 뭐 세상이라? 세상이 아니여, 거.
@2 예, 예.
#2 부모를 어떻게 불에 앗당 짇나? 짇음을.
@2 아이구, 이제 다 화장 헤부난예?
#2 세상이 아니라, 이거 뭐. 개백남의 백정놈이주 이거. 아이 뭔 놈이 세상이 그런 놈의 세상이 이서게?
@5 음.

연날리기

@2 정월 보름에 연날리기도 헤낫수과? 연, 연 만들아근에 날리당 영 보내불곡 허는 거 엇수과?
#2 그런 것도 그 연, 옛날은 연 ᄒᆞ영 띄우는 사름도 셔낫어.
@5 음.

방사

@2 방사로? 방쉬로?
#2 것도 몰라. 방쉬로 띄와 낫는가 원.
@2 음, 그 방쉬로 무신거 이런 굿헤나민 어디 길에 사거리에 갓다 놓고 허는 것도 이수게?

베 멘들아근에.
#2 아, 그런 거 그런 거 저 무시거 경 보통으로 그거 베 멘들앙 놓는 것도이.
@2 음.
#2 무신 도체비구신이나.
@2 음.
#2 무시거 신 집이가.
@2 음.
#2 그런 거 베 멘들아근에 어디 저 베낏디 강 놓주.
@2 음.
#2 그 어디 그런 질에 강 못 놔. 그런 거.
@2 아.
#2 어디 놈 못 보는 디나 그런 베 멘들앙 앗다 놓주.
@2 어, 어.
#2 그런 것도 그 매집이 아녀는 거.
@2 어.
#2 구신이 유다른 구신이 셔야 그런 베 멘들앙 강 ᄒᆞ주.

당제
@2 아. 이디 송당은 요기 당도 잇고 허난 당제도 일월에 헙니께예?
#2 당제, 정월 열사날.
@2 정월 열사흗날. 에, 그건 어떵 헤영 허는 거꽈?
#2 어떵 헤여, 거 저 마을에서.
@2 옛날은? 집이서 돌레떡 헹.
#2 옛날도 그디 ᄒᆞ젠 ᄒᆞ민 문 출령 가나신디, 지금도 출령 가믄 헤도게이.
@2 음.
#2 지금은 옛날 닮지 아녕 지금은 ᄆᆞ을 이장칩이서 국시도 헤당 멕이곡.
@2 음.
#2 옛날은 국시랑마랑 아무 것도 아이 주어낫어.
@2 그디 당에 가젠 허민 삼춘 무신거 출령 가살 거 아니꽈?
#2 당에 가젱 ᄒᆞ민 돌레떡 헹 가주.
@2 돌레떡허고 또 다른 거 뭐 헤?
#2 돌레떡ᄒᆞ곡게 무신 무시거 아녀. 밥ᄒᆞ곡, 곤밥ᄒᆞ곡.
@2 곤밥허곡.
#2 저, 바닷고기 구워 놓곡.
@2 바닷고기 구워 놓곡.
#2 술 ᄒᆞᆫ 펭 ᄒᆞ곡.
@2 어.
#2 그거주게.
@2 독세긴 안 헤?
#2 아, 독세기도 놓는 딘 놓고 우린 놓아지민 놓고, 말아지민 말고.
@2 음. 겡 그거 뭐에 담아근에?

#2 거 구덕에 놓앙 지어아졍 가주게.
@2 어. 새벡이?
#2 으, 아첨.
@5 아침에?
@2 으. 그 당제는 일월에만 가는 거꽈? 당에는?
#2 아이, 이월 열사흘에도 가곡.
@2 이월 열사흘에도 가곡?
#2 삼월 저, 칠뤌 열사흘에도 가곡.
@2 아. 열사흘 날만 가는 거꽈? 보름에?
#2 어. 사흘에만 가는 거.
@2 아.
#2 정월 열사흘.
@2 일월하고 이월하고.
#2 이월 열사흘.
@2 칠월하고.
#2 어, 칠뤌 열사흘에도 간덴 헨게.
@2 백중제예?
#2 어.
@2 그다음엔 또 언제가?
#2 거 매기. 거벳긔 안 가.
@2 시월에 안 가? 시월에.
#2 아이, 시월에 아이 가.
#1 에헤 돌레떡 헹 가는디. (웃음)
@2 그래도 이제는 시월에 당제 헙디다. 시만곡대제 헤근에. 요디 송당에서.
#2 시월에. 몰라 심방 왐신가? 안 뎅겨나부난 몰라.
@2 아.
#1 거 다 엇어져 부난 이제 돌레떡도 구경 못헤여.
@2 이디 송당은 축제 헨에 헙니께.
#2 어? 이제도 헴주. 돌레떡.
@2 그 이제는 이 무형문화재처럼 헤서.
#1 돌레떡이 모밀돌레떡이 맛 좁니다. 거.
#2 문화재에 들어부난. 게나제나 정월 열사흘, 이월 열사흘, 칠뤌 열사흘에는 심방이 와, 왐주게.
@2 어.
#2 심방이 와.
@2 삼춘도 감수과, 그디?
#2 나도 넘은해끄진 가낫는디, 원.
@2 으.
#2 이제는 못가.
@2 이젠 못 가?
#2 걷지 못헤영.
#1 사라흘이엔 훈디 그 돌레떡을 헹 가는디 축사를 축산 위헤서 그 사라흘이엔 훈 디를 갑

니다. 그 송씨 하르방이라고.
@2 예.
#1 겡 ᄒᆞ는디 그 돌레떡을 헤여근엥에 ᄒᆞ는디 이 정월 열사흘 본향 벡ᄌᆞ 저 그 벡ᄌᆞ할망이로구나.
@2 예.
#1 그 할망 ᄒᆞ는 돌레떡을 헤영 갑니다.
@2 아.
#1 건 이 물ᄆᆞ쉬 안정ᄒᆞ게.
@2 건 언제 가는 거꽈?
#1 잘 키와줍서 ᄒᆞ는 거 사라흘이라고.
@2 언제? 칠월에?
#2 동짓ᄃᆞᆯ.
@2 동짓ᄃᆞᆯ에?
#2 으. 동짓ᄃᆞᆯ 초일뤠.
@2 동짓달.
#2 초일뤠 사라흘.
@2 사라흘?
#2 으.
@2 사라흘이.
#2 사라흘이엔 헌 디 가민 무시거 저 담 동글락ᄒᆞ게 다와근엥에.
@2 이딘 산이꽈? 오름이꽈? 사라흘은.
#2 응, 사라흘 오름 아니.
@2 게민 뭐?
#2 어디 저 마장 안에.
@2 아, 마장 안에.
#2 으, 마장 안에 담다와졍 잇주게. 그런 디가.
@2 아.
#1 일 년에 ᄒᆞᆫ 번 그 저 세공식 헤노민.
@2 게 무신거엔 허여? 이건 무신거엔 굴읍니까?
#2 무시거라, 사라흘이주게.
@2 그냥 사라흘이라 이게?
#2 그냥 사라흘 가민 심방이 와.
@2 아.
#2 거기도. 거기도게 돌레떡 ᄒᆞ곡게 바닷고기 구워 놓곡 밥이나 허곡 헤영게.
@2 백중에도 가지 안헤? 칠월 열사흘.
#2 백중?
@2 응. 백중제.
#2 백중은 매집이 아니혀.
@2 아니 쉐 키우는 사람덜.
#2 어, 쉐나 물이나 ᄒᆞ는 사람덜.
@2 이거 사라흘은 이것도 ᄆᆞ쉬 아니?

#2 사라흘도 이것도이 물ᄆᆞ쉬 ᄒᆞ는 사름덜 물도 펜안ᄒᆞ여 줍서, 쉐도 펜안히 키와줍서 ᄒᆞ는 거 이거, 사라흘이라고.
@2 음.
#2 이것도 매 집이 안 가는 거.
@2 아.
#2 물ᄆᆞ쉬 ᄒᆞ는 사름.
@2 음, 그믄 백중에도 가고 사라흘에도 가는 거꽈?
#2 응. 물ᄆᆞ쉬 ᄒᆞ는 사름, 백중은 출리주.
@2 예.
#2 백중 출령 그건 이녁만썩.
@2 음.
#2 이녁만썩 쉐나 물이나 논 디.
@2 음.
#2 논 디 강 ᄒᆞ는 거게.
@5 아, 사라흘은 심방이 오고.
#2 응, 심방이 오고.
@5 백중은 이녁만썩 허고.
#2 으. 백중은 이녁만썩.
@5 아.
@2 게난 사라흘은 이 땅 이름이 아니고 그런 날 보고 사라흘이엔 ᄀᆞᆫ는 거꽈?
#2 어, 사라흘. 건.
@2 사라흘.
#2 으, 사라흘. 그건 동짓ᄃᆞᆯ 초일뤠에 가는 거. 사라흘은.
@2 아, 물 키우는 사람, 쉐물 키우는 사람덜?
#2 으, 으. 쉐물 키우는 사람덜게.
@2 마장에?
#2 으, 마장에.
@2 그디 가민 제 지내는 디 이서? 아니면?
#2 제 지내는 디게, 담 동글락ᄒᆞ게 다와진 디 잇주게.
@2 음.
#2 게민 강, 그디 강 보민 영 돌로 펜펜ᄒᆞ게 뭐 상 닮은 거 돌로 놔져.
@2 음.
#2 경ᄒᆞ민 그.
@2 이 송당 사람들 다 모돠당 갑니까?
#2 그 사라흘도 심방이 오주.
@2 으.
#2 그레 저 돈이영, 쏠에 돈 놩 가민 쏠도 그 심방이 아졍가곡, 돈도 아졍가곡.
@2, 5 음.
#2 경 ᄒᆞ난 심방이 오주. 사라흘 뎅길 때도.
@2 음.
#2 이젠 사라흘도 엇어져 불어.

@2 예, 처음 들으멘.

#2 엇어져 불언 이제.

@2 백중만 헌덴 들어신디.

#2 어, 백중만. 백중은 이녁만썩게 쉐 ᄒᆞ는 사름은 쉐신디 가곡, 물 ᄒᆞ는 사름은 물신디 가곡.

@2 으.

#2 거 이녁만썩 출령 가는 거.

@2 음.

#1 그것 저것 합쳔에 유교엔 헌 겁주. 엉덕 위허는 디도 이수다. 엉덕 위헤근에 이녁만 모르게 가는 디.

@2, 5 어.

#1 거 게난 요즘 말로 사이비 종교라고 경헤서 말을 ᄒᆞ는데 건 개인도 모르게 그 엉덕을 위헤근엥에 메칠 날 ᄇᆞ름날이민 정월 ᄇᆞ름날 날 지정헤근에 그 돌레떡 멘들앙 가근엥에 코ᄉᆞᄒᆞ곡 그자 몸 부정 안헤영 그자 그런 디가 위허는 디가 이수다덜.

@2 아.

#1 야. 겨난 그런 거 보고 사이비 종교라고 헤근에 이것 저것 모다 논 잡탕 귀신이엔 헤여. 잡탕 귀신. 게난 우린.

정월 대보름

@2 정월 대보름쯤에는 이것 저것 일 년 동안 뭐 점 치고 허는 거 엇수과? 뭐 보리도 뽑아근에 영 봉 무신거 저 뿔리가 멧 개여, 영 허곡. 떡도 영 쳐근에, 시리떡 쳐근에 아이고 올린 누게 안 좋으키여 영 허는 거 엇수과? 헤낫지예?

#2 몰라. 우린 옛날에도 그런 거 ᄒᆞ는 건 아이 봐난.

@2 아. 이디 송당에도 뭐 방사탑이나 이런 것도 이수과? 뭐 액막이, 액 막는 거.

#2 액 막는 게 그게 그거주게. 문전코시, 조왕제. 그런 거 ᄒᆞ는 집이게. 그거.

@2 음.

#2 액 막아근엥에 저 정월 보름에도 가민 액 막, 액 막지라. 정월 보름에도.

@2 예.

#2 저 시라목 ᄒᆞᆫ 필 헤 놓곡.

@2 으.

#2 쏠 ᄒᆞᆫ 낭푼 놓곡.

@2 으.

#2 돈 오만 원 놓곡.

@2 으.

#2 겡 헹 가민 그걸로 액 막아주는 거.

@2 어디? 당에?

#2 당에. 정월 열사흘이나 이월 열사흘에나.

@2, 5 음.

#2 액 막젠 ᄒᆞ민 그런 거 헤영 가.

@2 음.

#2 게민 그거민 일 년 열두 둘 액 막아지는 거주게.

@2 아.

#1 허허, 거 게난 그디덜.

#2 게난 지금은이 문전코시 ᄒᆞ는 디도 엇고 조왕제 ᄒᆞ는 디도 엇어. 옛날이주, 이젠 원.

#1 말젱이 말덜이주. 할망은 금백ᄌᆞ 할망은 정월 열사흘은 사근에 기다리곡, 이월 열사흘은 앚앙 기다리곡.

@2 어.

#2 칠월 열사흘은 누웡 기다리곡.

(모두 웃음)

#1 누웡도 삼월인가 이월인가 야간 누웡 기다린덴 ᄒᆞ는 건, 건 와도 좋고 말아도 좋다 ᄒᆞ는 식이라고 거, 거 심방 입에서 나온 말입주게.

@2, 5 아.

#2 게난 정월 열사흘에 못 가민 이월 열사흘에 가오면은 걸로 끗.

@5 음.

금기

@2 그 포제헐 때 아까 웬ᄉᆞᆺ 헨에 금줄도 허지예? 사람들 오지 말렌.

#2 으. 그 사름덜 저 몸 비린 사름, 몸 궂인 사름 뎅기카 부덴.

@2 음.

#2 ᄉᆞᆺ 메주게.

@2 예.

#2 집이서도 그런 멩감이나 무시거 ᄒᆞ젠 ᄒᆞ민 올레에 ᄉᆞᆺ 메여.

@2 아,

#2 몸 궂인 사람 오지 말렌.

@2 음.

#1 포제는 막 그 엄격헙니다.

@2 아, 뭐 붉은, 뻘겅헌 흑도 막 뿌리곡 헌덴 헨게만은. 붉은 흙. 포제헐 때 흑 뿌립니까? 뻘겅 헌 거.

#2 아니, 저 우리 옛날 두린 때 멩감, 우리 어머니네가 헤낫는디.

@2 음.

#2 벌겅ᄒᆞᆫ 저 오름에 강 송, 벌겅ᄒᆞᆫ 거, 송 담아당 올레로 저 이런 무뚱ᄁᆞ지 뿌려낫어.

@2 아. 것도 나쁜 거 오지 말렌 허는 건가?

#1 박사님덜이 그 축을 요즘 축 쓸 사름이 별로 멧 엇일 거우다.

@2 예, 예, 예.

#1 이게 조축이라고 ᄒᆞ는 게 이것 저것 모돠 놔근에 ᄒᆞ는 축이.

@2 음.

#1 견디 이 포제 축은 엄격ᄒᆞᆸ니다.

@2 아.

#1 게난 이 박사님덜이 그런 걸 잘 알앙 놔둬야 됩니다. 앞으로. 포제가 뭐여, 포제가 뭐여ᄒᆞᆯ 사람덜이 하우다.

@2 맞아마씸.

#2 포제엔 ᄒᆞ민 우리 아이덜토 모를 걸. 포제가 무시거산디.

#1 포제는 그 ᄆᆞ을을 위ᄒᆞ고 전 도를 위헤서 ᄒᆞ는 겁주.

세배

@2 음. 그 정월 멩질 끗나민 그 동네에서 세배도 허지예? 서로서로.

#2 응.

@2 마을에 모영 헙니까? 다? 마을이?

#2 아니, 모으지 아녀.

@2 옛날에는 마을훼관에 모여근에 세배 드리곡 헤나신디 요즘엔 안 헴수과? 코로나라부난 인가?

#2 에에 이제 무신 코로나 때문이나 이제 지금은 원.

보리밭 밟기

@2 음. 이월에, 정월에 보리밧도 ᄒᆞ꼼 불라줘사주예?

#2 몰라. 해변이나 그런 거 잇주이. 웃드린 엇어.

@2 이 동넨 보리밧, 보리 잘 안 뿌립니까? 안 뿌렴수과?

#2 보리 아이 갈아. 보리 아이 갈아.

@2 아, 보리 아이 갈아.

#2 어, 옛날이주. 해변도 보리 아이 갈암주게.

@2 으, 이젠 안 갈암지. 옛날.

#2 게. 옛날이주, 옛날. 이렌 보리 아이 갈아.

걸궁

@2 음. 걸궁. 걸궁도 헤낫지예?

#2 걸궁도게 ᄆᆞ을에서 걸궁이라고 헤낫주.

@2 어떵 헹 허는 거꽈? 그건.

#2 거 몰라. 우리는 그거 ᄒᆞ는 거 아이 봐봣어.

@2 남자 삼춘은 알 거 닮아. 걸궁.

#1 걸궁?

@2 음.

#2 젊은 사람들 모당.

#1 시방 농악이엔 ᄒᆞ는디. 야, 건 엇어져 불 건디 건 오래고.

@2 거난 옛날 헐 때 어떵 헤수과?

#2 건 노리개주게. 노리개.

#1 옛날에도 마찬가지. 시방ᄀᆞ찌 기자.

@2 어떵?

#1 시방ᄀᆞ찌 이 똑ᄒᆞ는데 이 꽹과리 치는 것도.

#2 에, 이 걸궁이라고 옛날 것도 ᄆᆞ을에서.

@2 음.

#2 ᄆᆞ을에서 그것도 헤낫는디 우린 그거 원 ᄒᆞ는 거 봐나도 아녀고.

#1 포수도, 포수도 틀려 홈치. 에, 완전이 이 총 가졍 ᄒᆞ는 거난.

@2 포수가 뭐? 포수 이서마씨? 걸궁 헐 때?

#2 걸궁이라고 노리개주, 노리개.

@2 포수도 걸궁에 나옵니까?

#1 야, 야. 걸궁에 나옵니다. 포수덜.
@2 아, 꽹과리만 치는 게 아니고?
#1 예. 이 꽹과리도 헹 다 나오고, 대양도 헹 다 나오고. 똑ᄀᆞ찌 나오는데.
@2 음.
#1 이 포수가 틀립니다.
@2 예.
#1 이 사농젱이. 남총으로 총 멘들곡 헤근엥에 바로 가죽옷 입어근엥에.
@2 예.
#1 가죽옷 입어근엥에 막 ᄀᆞ찌 막 휘젓읍니다예.
@2 집집마다 영 돌아다닙니까?
#1 야, 야야. 이 마당에 들어왕게 돈도 한 사름은 하영 주고.
@2 어.
#1 엇은 사름은 족영 주고.
@2 음.
#1 또 겨 아녀면 아니 줘도 무신 흉은 엇읍니다.
@2 음. 그믄 집이 왕 그거 막 치민.
#1 집안에 액 그자.
@2 없애주는.
#1 다울리는 거다 헤서 그자 야 게난 가정에 따라서 거 돈도 그때 주곡 헤나수다.
@2 포수는 멧 멩이나, 몃 명이나? 한 사람만?
#1 포수는 훈 사람만.
@2 아, 포순 훈 사름.
#2 야.
@2 포수하고 꽹과리 치는 사람하고 대양 치는 사람허고 그다음 또?
#2 막 젊은 사람덜 하주.
@2, 5 어.
#1 그건 여라이 여라이 영 이십니다. 야.
#2 건 젊은 사람덜이 모다졍 ᄒᆞ는 거난게.
@5 음.
#2 걸궁이라고 옛날도.
@2 대양이 뭐 이만큼 큰 거? 징 닮은 건가? 대양?
#1 대양?
@2 음.
#2 낭푼 닮은 거주. 낭푼 닮은 거.
@2 낭푼 닮은 거? 꽹과리는 요 쪼끌락헌 거고.
#2 어.
#1 그 꽹과리.
@2 꽹과린 족은 거고, 대양은 큰 거?
#1 야.
#2 대양은 낭푼만이 ᄒᆞ주게.
@2 낭푼만이.

#2 응, 낭푼만이 헤여.
@2 이만이?
#1 그보단 더 커.
@2 이보다 더 커?
#2 대양은 이보다 더 커.
@2 징, 징. 으.

새철

@2 그다음에 입춘 뒈민 새철 드는 날 무신거 하지 말라 헙니께? 새철 드는 날.
#2 새철 드는 날은 어디 놈이 집이 못 가주게.
@2 입춘, 입춘.
#2 새철.
@2 으, 새철.
#2 새철날은 놈이 집이 못 가.
@2 어. 놈이 집이 가믄 어떵 헤?
#2 놈이 집이 가민 검질 짓넨.
@2, 5 아.
@2 여자만?
#2 어.
@2 남자는 괜찮아?
#2 곡식 깔앙 놔두민 새철날 예펜 뎅이민 검질 짓넨 ᄒᆞ멍, 놈이 집이 못 가게 헤낫어.
@2 음.
#2 놈이 집이 못 가.
@2 놈이 집이 못 가게예?
#2 남저들은 가주게.
@2, 아, 여자 몰라근에 여자가 놈이 집이 가서.
#2 이제도 경 확확 ᄒᆞ영 놈이 집이 못 가. 새철날.

방엣불 놓기

@2 음. 저 방에도 부쳐낫수게예? 산에 불 놓는 거.
#2 산에 불 놓는 거?
@2 오름에.
#2 아, 방에, 방에 놓는 거?
@2 방에 놓는 거.
#2 옛날은 방에 놔놧주만은 지금은 무신 방에 놓는 디가 이서?
@2 옛날에, 옛날에. 방에는 무사 놓는 거?
#2 아, 그 드르에게 뎅기멍게 덤벌 깨끗ᄒᆞ렌 불부쪄 불엄주게.
@5 음.
#2 고사리 꺾으레 가도게 가시 덤불 셩 고사리 못 꺾으카 부덴 옛날은 방에 부쪄 불민게 깨끗ᄒᆞ주게. 고사리도 잘 나곡게.
@2 아.

#2 게영 고사리 꺼끄레 뎅기젠 ᄒᆞ민 깨끗ᄒᆞ곡게.
@2, 5 음.
#2 경 ᄒᆞ난 불부쪄 불어낫주게. 방에라고.
@2 ᄆᆞ쉬들도 풀.
#2 그 불부찐 디 풀 나면은 ᄆᆞ쉬도 좋아.
@2, 5 으.
#2 튿어 먹기가 깨끗ᄒᆞ영.
@2 음. 이 송당리선 어디 어느 오름 불부쪄낫수과?
#2 몰라. 이 송당은. 나 온 후젠 불부쪄나는 거 몰라.
@2 하르버진 옛날에 불부쪄낫일 거라예?
#2 방에.
@2 방에.
#2 우리 옛날은 우리 덕천 살 때는 북오름에도 방에 부떵 불부쪄나고 뭐.
@5 음?
@2 북오름?
#2 으, 북오름.
@5 아.
#2 또 쉐 놓는 마장 안네 케 안네도 불부찌곡.
@2 케 안네도 불부찌곡. 음.
#2 ᄆᆞ쉬덜 깨끗헤영 먹기 좋렌[조렌]. 뎅이기 좋곡. 가시덤벌 다 케와 불어근에.
@2 아.
#2 겡 헹 방에 부떠낫주게.

이월

@2 예. 이월달에는 영등, 이디도 영등 헤낫수과?
#2 영등 안 헤여[아헤여]. 해벤이나 영등 ᄒᆞ주.
@5 음.
@2 게 영등 안 헤도 이디 이월달 영등 들어왓젠 헤라 허믄 뭐 허지 말라 허는 것도 잇곡 헤낫수과?
#2 아이, 이디 이디 완은 영등 아년. 나 김녕 살 때는 영등굿 ᄒᆞ는 거 봐낫어.
@2 아.
#2 김녕은 꼭 저 이월 열사흘에 영등굿 헤낫어.
@2 음. 송당은 그런 거 안 허는구나예?
#2 그런 거 아녀주게. 웃드리라 부난 아녀주게.

삼월

한식

@2 음, 옛날엔 한식도 헤낫수게?
#2 한식도 헤낫주게.

@2 그건 어떵 헹 허는 거꽈? 한식 멩질.
#2 거 한식 멩질도 오월 멩질이나 정월 멩질이나 똑ᄀᆞ뜨주게.
@2 음. 한식에는 불 안 쓰는 거꽈?
#2 한식?
@2 으. 밥, 차가운 밥 먹고 영허는 그런 건 엇어마씨?
#2 그런 거 엇어.
@2 아. 한식은 언제까지 허단에 설러붑디가?
#2 우리 한식 헤나신가? 한식 안 헤낫주? 우리.
#1 어?
@2 한식.
#2 한식 멩질 헤난? 우리? 안 헤낫주?
@2 한식 멩질.
#1 삼식?
#2 한식, 한식.
#1 이 영혼에 상식 말이라?
@2 아니, 아니.
#2 한식 멩질. 한식 멩질 우린 안 헤난 거 아니?
#1 어, 아녀.
@5 음.
#1 한식, 오월 단오 없어지건 디가 이 오래수다.

청명
@2 아, 그 청명에 산담 손질도 허곡. 한식, 청명헐 때 산에도 가곡 헙니께.
#2 쳉명, 한식에?
@2 으.
#1 산에 안 가.
@2 산에 안 갓수과? 산에.
#2 산에 안 가. 쳉명.
#1 안 가.
@2 한식 헐 때.
#2 한식이구 쳉명이구 어디 안 가.
#1 그게 차례라고 ᄒᆞ는디.
@2 음.
#1 언제나 조상은 종손 몸에 부떠서 다닌다, 옛 하르방덜이 ᄀᆞᆯ아 노니까.
@2 예.
#1 우린 차례 아이 가봐봇어.
@2, 5 음.
#1 요즘 세대덜은 가는 모냥입디다.
@2 어디마씨?
#1 산에.
@2 산에.

#1 예. (웃음)

사월

사월 초파일

@2 음. 그 그다음엔 초파일. 사월 초파일. 절에도 뎅겨낫수과?
#2 ᄉᆞ월 초파일에 가민 등 싸곡게.
@2, 5 음.
#2 메, 다섯 식구민 다섯 식구 다 등 싸고.
@2, 5 음.
#2 돈 내여근엥에 경 헤여낫주.
@5 음.
@2 이젠 안 헴수과?
#2 안 헤.
@5 음.
@2 사월 초파일날 아이들 머리도 까까줘?
#2 머리도 가끄는 사름은 가끄곡게. 뭔 머리사 아무 때나 가까부난 무신.
@2 경헤도 사월 초파일날 머리 까까주민.
#2 사월 초파일에 기다리지 못헤.
@2 이때 머리 까끄민 머리 곱게 난덴 허멍. 경 ᄀᆞᆯ읍디다만은 경 안 헙디가?
#2 아니헤.
@2, 5 음.

오월

단오 멩질

@2 단오 멩질.
#2 오월 단오게.
@2 단오 멩질엔 무신거 허는 거꽈?
#2 오월 단오에 무시걸 헤여? 일ᄒᆞ다근에 보리 비곡 보리나 장만허당 오월 단오날은 ᄒᆞ루 쉬는 거주, 무신.
@5 음.
@2 보리는 언제까지 다 비어야 뒈어?
#2 오월 훈 덜에 다 헤야 뒈주게. 보리는.
#1 보일러 틀어불 걸 아이졋구나.
@5 음.
#1 아이구 잊어불언.

소 올리기

@2 쉐는 언제, 언제 목장에 올리는 거꽈?
#2 쉐?

@2 어. 언제쯤 뒈민 올립니까?
#2 삼월, 삼월돌 나민 쉐 다 올려 가주.
@2 음.
#2 이월돌ᄁᆞ지는 목장에 놩 먹을 게 엇어.
@2 음.
#2 삼월 나야. 삼월 나믄 물은 계속 그냥 목장에 놩 내부는 거난 그냥 놩 내부는디 쉐는 집이 왕 다 메엇다가.
@2 삼월에?
#2 으. 삼월 나사 쉐덜은 나가.
@2 아, 목장에 올려?
#2 으, 목장에 올려.
@2 게믄 집이 쉐 하나만 놔둬뒁?
#2 집이 하나 무시거 허레? 아, 밧 갈젠 ᄒᆞ민?
@2 으.
#2 밧 갈젠 ᄒᆞ민 하나. 아이 목장에 놧당도 밧 가는 건 강 심어 오주게.
@2 아. 다 올렷당?
#2 으, 옛날은.
@2 강 심어 왓당 밧 가는 거구나예?
#2 으. 밧 가는 건 강 하나 심어 오주게.
@2 음.
#2 쉐마다 무신 밧은 갈아져? 그디 밧 가는 쉐가 잇주.
@2 어. 잘 가는 아이가 잇구나예?

망종

@2 그 보리는 망종 전이 다 비어야 뒌덴 허멍마씨?
#2 으. 망종 전이 다 ᄒᆞ주게. 망종 넘은 곡석게 그 무신 망종 안에 다 비게 뒈어 가주게.
@2 어, 망종 넘으민.
#2 우리 이제 상강일 전이 미깡도 탄다, 무신 저런 콩도 ᄒᆞᆫ다 ᄒᆞ주게이.
@2 으, 으.
#2 게난 상강일 넘어 부난 시방 콩덜 멘딱 헴주. 선 콩이 셔게.
@2 아.
#2 상강일 넘으민 콩도 선 거 엇곡.
@2 으.
#2 보리도 마찬가지. 망종이 넘으면은 그 망종 안에 다 뒈주게. 다 뒈여.

농사일

@2 으, 이디 아까 보리를 많이 안 하면 저 곡식 씨 산디나 이런 건 씨 언제 뿌립니까? 피나 이런 거는? 몃 월에 뿌려?
#2 산디는 ᄉᆞ월.
@2 산디는 ᄉᆞ월.
#2 어. 산디는 ᄉᆞ월 초파일 뒈 가민.

@2 으.
#2 산디는 다 갈곡.
@2 어.
#2 으, 보리는 구월둘에.
@2 구월에 갈고, 으.
#2 보리는 구월둘 뒈민 다 갈곡.
@2 이디 피도 하영 헷수게? 피.
#2 피도 그 저 거시기 마찬가지.
@2 몃 월에?
#2 흔 오월둘 나민 조도 갈곡, 피도 갈곡.
@2 아, 조도 갈곡, 피도 갈곡. 오월에?
#2 으, 피도 갈곡. 오월둘에.
@2 그 모멀은?
#2 모멀은, 모멀도 유월에 가는가?
@2 메밀은 유월에?
#2 으.
@2 게믄 우리 밧이 하나 이시민 그 밧디 보리 갈아난 다음에 조 갈아?
#2 으. 보리 갈아 나민 조 갈아.
@2 그믄 보리 안 간 밧은 어떵 헙니까?
#2 보리 안 갈은 밧도 게난 조 갈아. 건 봄갈이라고. 봄갈이.
@2 아. 봄갈이? 음.
#2 으. 그 저 보릿그르 보릿그르에 가는 건 보릿그르라고 ᄒᆞ고.
@2 으.
#2 보리 안 갈아낭 그냥 밧 내분 디 가는 거는 저 봄갈이.
@2 음.
#2 봄갈이, 봄갈이에 조 갈아사키여, 헤.
@2 아. 그믄 산디는 보리 헤난 디 못 갈키여예? 먼저 갈아야 뒈난.
#2 보리 헤난 디 못 갈주게.
@2 게난.
#2 산디 갈젠 ᄒᆞ민 그냥 내벳당 산디 가는 거.
@2 게난예. 그 밧디 보리 갈아난 밧디 못 허크라예?
#2 어, 못헤여.
@2 먼저 갈아야 뒈니까예?
#2 어, 못 ᄒᆞ여.
@2 모멀, 모멀은 보리 갈아난 디도 갈아질 건가?
#2 모물, 으.
@2 늦게 허난예?
#2 모물 보리 갈아난 디.
@2 으.
#2 ᄒᆞ쏠 늦일 거주, 늦어.
@5 아. 보리 ᄒᆞ쏠 늦게 허는 거 늦농사렌 헤낫수과? 늦농사엔도 삼춘 써난마씨?

#2 봄용사엔 ᄒᆞ주. 봄용서.
@2 봄용서.
#2 으, 봄에 ᄒᆞ는 거.
@2 봄에 허는 건 봄농서.
#2 으, 봄농서라고.
@2 여름에 허는 건?
#2 그 여름에는게 뭐.
@2 조영 이런 거 뿌리는 건, 여름농서?
#2 건 여름에주게. 여름에 ᄒᆞ는 거난.
@5 음.
#2 여름에 뿌려사 구월 나민 다 ᄒᆞ는 거.
@2 으, 으.
#2 가을 들엉.
@2 영 가을 들엉 구월에 수확허는.
#2 으, 으.
@2 으, 보리 허기 전이, 보리 씨 삐기 전이.
#2 으? 조 헤져사 보리 갈곡게.
@2 음. 조도 그믄 뿌려 나민 밧 불라야 뒐 거 아니꽈예?
#2 옛날은 조 갈젠 헤도 막 물 빌엉, 물테 빌어당 불리곡.
@2 으.
#2 산디도 갈젠 ᄒᆞ민 물테 빌어당 불리곡.
@2 아.
#2 경 헤낫어.
@5 음.
#2 밧 불리젠 ᄒᆞ민 사름도 강 빌어 와사 뒈여. 사름 엇으민.
@5 음.
@2 사름도 불라? 사름으로?
#2 아이게, 물 물곡, 물도 영 막으렌 ᄒᆞ민 막곡.
@2 아하.
#2 ᄒᆞᆫ 서너 너인 헤사 밧 불려.
@2 으.
#2 ᄒᆞᆫ 사름은 앞이 사곡, 물테나 ᄒᆞ민 조름에서 둘리 물아 가곡.
@2 음.
#2 물 저레 가가민 저 물 막으라 ᄒᆞ민 물 막곡.
@2 물테우리한티 밥도 막 맛 좋게 헤줘사 뒌덴 허멍?
#2 게, 밧 불리젠 ᄒᆞ민 풋 놓앙 곤밥.
@2 아.
#2 풋 놓아근엥에 곤밥 헹 가사주게. 보리쏠 숢앙.
@2 음.
#2 풋 놓앙 보리쏠 숢앙.
@5 음.

#2 거 곤쏠 놓앙 밥헹 가주게.
@2 반찬은 무신 반찬 헤줘?
#2 반찬은 무시거게. 바닷고기나 지지곡.
@2 아하. 밧 불리기 전이도 제 지냅니까?
#2 밧 불리기 전이 무신 젤 지내어?
@2 제석할망제.
#2 에에, 거 밥헹 간 걸 그자 케우리민 뒈주.
@2 아, 케우립니까?
#2 테우리 나시 술 상 가민 술 비와 놩 밥 거려 놩 저레 앗앙 케우리주게.
@2 그 누게 나시로 주는 거라? 누게 먹으렌?
#2 누게 먹으렌. 그디 뭐 제석할망이나 먹으렌 주는 거주.
@2 제석할망 먹으렌 주는 거꽈?
#2 으.
@2 제석할망은 밧 직허는 할망이꽈?
#2 어. 용ᄉᆞ 잘 뒈게도 ᄒᆞ곡. 제석할망이라고.
@2 아. 따로 뭐 이렇게 저 제를 지내거나 허진 않고?
#2 ᄯᅮ루나 무시거 제 지내는 건 아니고.
@2 케우리기만?
#2 으.
@5 음.

유월

독 잡아먹는 날

@2 독 잡아먹는 날.
#2 독 잡아먹는 날 무신.
@2 유월 스무날.
#2 유월 스무날도 옛날 독이나 질롸사 잡아먹주. 그 무신 매 집이 잡아먹어졋어?
@2 이디 삼춘네도 독 질롸근에 애기덜 하나씩 잡아 주고.
#2 으, 우리도 옛날에 저 빙애기 깨왕.
@2 으.
#2 빙애기 깨왕 빙애기가 ᄒᆞ쏠 커가민.
@2 음.
#2 ᄒᆞᆫ 사름이 하나썩 잡안 주어낫어.
@2 어, 집이서예?
#2 으, 집이서.
@2 그 빙애기는 멧 월달에 깨운 걸 헤야 유월에 잡아먹어 집니까?
#2 빙애기도게 일찍 앚졍 ᄒᆞᆫ 이월쯤 나근엥에 빙애기 ᄂᆞ려오면은게 유월 스무날은 먹젠 ᄒᆞ민 미리.
@2, 5 음.
#2 미리 빙애길 내류왕 키와사주게.

@5 음.
@2 어디서 ᄂᆞ류우는 거라?
#2 어디서 ᄂᆞ류와? 저 구덕 ᄒᆞ영 대구덕 이만이 ᄒᆞᆫ 큰 것에 영 저 어디 굴묵에, 옛날은 굴묵 지어나서이.
@2 예.
#2 굴묵드레 들어가는 디 ᄃᆞᆯ아메영.
@2, 5 음.
#2 그디 ᄃᆞᆨ세기 놩.
@2, 5 음.
#2 내불민 암ᄐᆞᆨ이 그디 올라강 안앙 앚앗당 이젠 또 줏어먹으레 ᄂᆞ려왕. 무시거 줏어먹어아정 또 올라가 거기.
@2, 5 음.
#2 게 ᄒᆞ민 그게 빙애기가 뒈민 빙애기가 ᄆᆞᆫ딱 커근엥에 말룽말룽 나왕 ᄋᆞᆨ아가민 그 텅에 차 ᄂᆞ려와다근에 빙애길 마당에 풀어 놓주게.
@2, 5 음.
#2 게민게 그게 이젠 멧 ᄃᆞᆯ 뒈어가민 크주.
@2 아까 그 빙애기 놓는 그 저 ᄃᆞᆨ세기 놓는 건 텅에.
#2 텅에.
@2 텅에.
#2 으.
@2 그다음에 마당에 영 돌아다닐 때 누게 와근에 저 새가 와근에 영 채가불기도 헙니께예?
#2 차가불주. 매.
@2 매예?
#2 으, 매.
@2 소로기?
#1 ᄃᆞᆨ텅에예?
@2 어, ᄃᆞᆨ텅에. 어, 소로기, 똥소로기?
#2 똥소로기.
@2 으.
#2 똥소로기가 왕 차가불주. 빙애기.
@2 으. 그 차가지 못허게 영 무신 것도 만들어줍니께.
#2 게, 옛날은 경 헷주. 옛날은 저 베염도 와근엥에 빙애기 언주왕 감아가 불어.
@2 아이고.
#2 베염.
@2 어, 어. 그믄 그거 못 허게 하는 건 ᄃᆞᆨ 집도 짓어주지 안헙니까?
#2 ᄃᆞᆨ집게 무시거게. 망 쳐근엥에.
@2 으.
#2 옛날도이 구물, 옛날도 구물 이서낫어.
@2 음.
#2 구물 치주게. 구물.
@2 음. 거 무슨거엔 ᄀᆞᆫ는 말은 엇어? 그냥.

#2 그냥게 마당에 그냥 구물 치민게 그 똥소레긴 왕 못 차가주.
@2 예. 뱀은 겅 헤도 와지켜예?
#2 둑세기 놓는 텅에에도 베염은 들어간덴 ᄒᆞ난.
@2 아.
#2 그 둑세기 강 문 언구아낭.
@2 예.
#2 베염 들어강.
@5 아이고야.
@2 음.
#1 베염이 알앗을 경우엔 그게 사람이 환장허메.
@5 음.

조농사

@2 그난 조는 유월 언제쯤 뿌리는 거꽈?
#2 무시거?
@2 조.
#2 조?
@2 뿌리는 거. 불르기 전에 뿌릴 거 아니꽈예?
#2 게. 뿌려사주.
@2 밧 갈아 놩 뿌려?
#2 갈아 놩 뿌리주게. 보릿그르 나사 조 불리는 거난.
@2 음. 그디는 걸름은 안 헤?
#2 조에는 걸름 아녀. 보리 갈 때나 걸름 ᄒᆞ주.
@2 무신 걸름 헙니까? 보리 갈 때.
#2 쉐걸름이나. 도세기 걸름이나.
@2 아.
#2 오줌도, 오줌 허벅에 지엉 강 보리밧디 강 뿌리곡. 우리도 그거 오줌 허벅 지엉 가근에 뿌려낫어. 김녕서.
@5 음.
@2 이디선 안 허고?
#2 응, 이디선 안 허고.
@2 으. 그 유월절이엔 헤근에 유월절 전후에 뭐 조 허는 거여 헨게만은 겅 안 헙니까?
#2 조가 유월, 유월에 불렴실 거라. 조가.
@5 음.

유월절

@2 삼춘은 잘 알 거 닮아. 남자 삼춘은. 유월절, 유월절.
#2 유월둘에 뭘 ᄒᆞ여게. 검질이나 메쥠주.
@2 아니, 유월절.
#1 유월절에 무시거, 거 유월둘에 뭐 ᄏᆞᄉᆞᄒᆞ는 것 뭐 잇긴 잇다고.
@2 어.

#1 ᄒᆞ는 딘 ᄒᆞ는디.
#2 유월돌에 ᄒᆞ는 거 우린 안 봐봐서.
#1 우린 그런 거 못 들엇어.
@2 음.
#1 보질 못헤 노난 그러 거.
@2, 5 음.
#1 경 무시거 ᄎᆞ레 출려근엥에 홀 정도가 아니랏수다, 우리.
@2 으.
#1 나 살아온 결과는.

칠월

@2 칠월에는 칠석, 칠석 때는 절에 갓수과?
#2 칠석, 칠석에?
@2 으. 안 간?
#2 칠월 칠석에 무시거 아녀난.
@2 칠석제 허는 거 엇어?
#2 엇어.

백중제

@2 그믄 백중에?
#2 백중에는 백중 ᄒᆞ는 사름덜게 백중 ᄒᆞ레 가주게.
@2 아까, 저 산에?
#2 으.
@2 ᄆᆞ쉬 ᄒᆞ는 사름덜?
#2 으, ᄆᆞ쉬 ᄒᆞ는 사름덜. 지금도 감주. 쉐물 ᄒᆞ는 사름덜.
@5 음.
@2 삼춘네도 가낫수과?
#2 우린 백중 ᄒᆞ레 아이 가봣어.

물맞이

@2 물 맞이레도 가지 안 헨?
#2 물 맞이레?
@2 어.
#2 물 맞이레, 것도 옛날이주게.
@2 게난, 그디 어디 절물 갑니까? 이디.
#2 절물, 절물.
@2 으.
#2 절물이엔 ᄒᆞᆫ 디 물 맞이레 가봣어.
@2 갈 때 어떵 헙니까?
#2 갈 때 어떵 허여?

@2 뭐 가졍가?
#2 무시걸 아졍 가? 이녁 옷 골아입을 거나 아졍 가주.
@2 그디 강 메칠 밤 자멍 물 맞이멍 헷덴 헙디다예?
#2 으, 오래 사는 사람은 흔 삼일도 살곡, 오일도 살곡.
@2 게믄 밥 먹을 것도 다 가졍 가?
#2 으. 이녁 먹을 거 다 헹 가사주.
@2 그믄 무사 물 맞이레 가는 거?
#2 아, 그 옛날에는게 벵완도 엇고게 의원도 엇고 아무 것도 엇으난게 이런 디 풀도 아프민 물 강 맞곡게. 다리 아파도 물 맞이레 가곡.
@2 으.
#2 겡 헷주게. 옛날은 무신 어디 침쟁이가 셔, 무신 한의원이 그런 게 이서게? 벵완도 엇곡게.
@2 음.
#2 옛날은 무사산디 경 아무것도 엇어 노난.
@2 음.
#2 웃둑지 아파도 물 맞이레 가곡, 다리 아파도 물 맞이레 가곡.
@2 으.
#2 경만 헷주게.
@2 이 동넨 침 주는 사람 엇어낫수과?
#2 침 주는 사름 엇어난.
@2 음. 모레찜질도 헙니께예?
#2 모래뜸 ᄒᆞ는 사름덜토게 그거 저 어디 뻬 아프민 모래뜸 ᄒᆞ곡.
@2 어디 강 헙니까? 이딘.
#2 종달인가? 어디 가나실 거라.
@2 아, 종달 가낫수과?
#2 우린 것도 헤나지 아녀부난 몰라.
@2, 5 음.

팔월

벌초

@2 팔월 벌초.
#2 벌초게, 팔월.
@2 벌초허젠 허민 어떵 헤?
#2 벌초ᄒᆞ젠 ᄒᆞ민 무시거 뭐 제물이나 ᄒᆞ곡.
@2 음.
#2 술이나 ᄒᆞ곡 헤영 가민 뒈주 뭐.
@2 아니, 벌초허젠 ᄒᆞ민 사름덜 빌어근에 아, 사름덜 모영 다 모영 갈 거 아니? 모둠벌초 허민.
#2 이젠 아녀. 이녁만썩.
@2 옛날엔 모둠벌초 헷수게?

#2 아, 이제도 저 모둠벌촌 잇주. 방상에, 문중벌초라고.
@2 예.
#2 게난 우리 아덜덜이나 가주. 무신 누게.
@2 음력 초하루? 팔월 초하루?
#2 팔월, 팔월 초ᄒᆞ룰 옛날은 헤낫는디.
@2 으.
#2 이제는 일요일날.
@2 음.
#2 팔월 들엉 일요일날.
@2 음.
#2 옛날은 어디 아이 뎅기난게 팔월 초ᄒᆞ룰날 헤낫주만은.
@2 음.
#2 지금은게 아이덜 ᄆᆞᆫ 직장 뎅기고 무시거 ᄒᆞ난 경 팔월 초ᄒᆞ룰날 헤젬서게.
@2 게난예.
#2 게난 기자 일요일날.
#1 게난 우리 박사님 고향이 어디시꽈?
@2 저는 덕수마씨. 안덕면 덕수리.
#1 아, 덕수리.
@2 예.
#1 으, 한경면.
@2 안덕, 안덕.
#1 안덕?
@2 예.
#1 으, 안덕. 덕수리. 게, 그레 모르는구라. 여기는예, 이 곡식 이름도 모르는 사름이 저 서르레 하우다.
@2 음.
#1 피, ᄀᆞ랑조 거.
@2 예.
#1 야. 어느 선생님덜 올 때 ᄀᆞᆯ앗수다. ᄀᆞ랑조ᄒᆞ고 피를 모른다고 말이여.

농사일

@2 예. 피는 이 동네밖에 안 허드라고마씨.
#1 어 허허.
#2 피도 두 가지라. 갱피도 잇곡.
@2 무신 피?
#2 갱피.
@2 갱피허고 또 무신 피 이수과?
#2 또 피ᄒᆞ고.
@2 그냥 피허고.
#2 으. 피도 피도 두 가지라.
@2 피껍질이 겅 벗기기 힘들덴 허멍마씨?

#2 어.
@2 발로 막 불라난?
#2 발로 그건 고리 놓.
@2 고리 놓.
#2 저을 들민.
@2 어떵 헹은에 고리 놓는 거라?
#2 저을 들민 알로 봉덕에 불살랑. 봉덕이라고 옛날은 정제에도 검질 꼴곡. 봉덕 영 네귀반뜩ᄒᆞ게 돌 박앙.
@2 정지에.
#2 봉덕에 멘들아. 게민 이디 나무 놓 불살라. 영 네귀반듯ᄒᆞ게 이젠 낭 찔러근엥에 발 멘들앙 그 우터레 큰 대구덕 닮은 거.
@2 음.
#2 큰 거 이제 고리라고 거보고.
@2, 5 음.
#2 그거 이제 그 낭 우터레 톡 ᄒᆞ게 놓면은 핏고고리 그것에 담앙 게민 막 이 알로 불숨아 가민게 불짐에 딧딧헤 가민 그게 막 딧딧ᄒᆞ주.
@2 예, 예.
#2 게민 그거 이젠 어염드레 멍석 꼴앙.
@2, 5 음.
#2 멍석드레 고리차 비와 놓 그걸 다 발로 보볏다고. 엿날은.
@5 아.
@2 무사 방에에 안 허곡 그건 경 헷수과?
#2 아, 방에엔 가민 무신 방에에서 걸 굴아줘?
@2 안 뒈어마씨?
#2 안 뒈주.
@2 보리난 이런 건 경 허잖아?
#2 보리도 다 집이서 도께로 두드렁 가주게 게난 무신 어디.
@2 게 도께로 두드린 다음에 방에에 강은에.
#2 방에에 게 굴젱 헤사 방에에 가주게. 굴젱 헤사.
@2 피는 무사 경 헤야 뒈는 거꽈?
#2 아, 게 물리지 못ᄒᆞ난 저을 들민 물리질 못ᄒᆞ난 고리에 물리멍 그 고리에 논 피밥은 밥이 코소롱헤여.
@2 음.
#2 밥이 쿠싱ᄒᆞᆫ 게.
@2 거난 보리는 그냥 물령 방에에 가민 뒈는디.
#2 어. 물리왕 것도 도께로 두드렁.
@2 으.
#2 굴젠 헤사 방에에 졍 가근엥에 물도 질엉 가고.
@2 어, 피는 무사 막 강 고리에 헹 헤야 뒈는 거라?
#2 고리에 그거게 피는 저을 들엉게 물류지 못ᄒᆞ난.
@2 음.

#2 이 가을이, 가을 들어근엥에 피용시 헤다 놩 그거 피 고고리 다 톧아 놓민 그걸 이젠 두드령 물류와사 홀 거 아니라게.

@2 예, 예.

#2 게난 물류지 못ᄒᆞ난 고리에서 물류는 거.

@5 음.

@2 산디는 겅 안 하잖아?

#2 산디는게 그거 뭐 날 존 날에게 도께로 다 두드난게,

@2, 5 음.

#2 다 도께로 두드러.

@2 피는 껍질이 되게 여러 겹 아니꽈?

#2 음, 두 겁인가 세 겁인가 뒐 거라.

@2 그난 보리나 산디보다 껍덕이 두껍지예?

#2 어.

팔월 멩질

@2 팔월 멩질.

#2 팔뤌 멩질 뭐 마찬가지주 무시거.

@2 팔월 멩질에 상에 올리는 건 정월 멩질에 똑ᄀᆞ틉니까?

#2 똑ᄀᆞ따, 똑ᄀᆞ따.

@5 음.

@2 팔월 멩질에 특별하게 허는 건 엇수과?

#2 특별나게 ᄒᆞ는 거 엇어게. 그거 저 새벡국이나 아니영 펜안헴주.

@2 새벡국은 정월 멩질만 허는 거예?

#2 어. 정월 멩질만.

@2 음. 이디 팔월 멩질날은 달구경도 갑니까?

#2 에, 달구경 무신.

@2 옛날에 모영 노래도 불르곡, 놀고 헤나지 안헷수과? 팔월 멩질에?

#2 팔월 멩질에 경 무신, 팔월 멩질에도 놀 저르가 셔? 일만 ᄒᆞ당 보민.

@2, 5 (웃음).

#2 촐, 팔월 멩질 부지런히 헤 먹엉 촐 무끄레 가야 뒈지. 촐 비레 가야지.

꼴 장만

@2 어. 촐은 언제부터 비는 거라?

#2 어디 놀 저르가 셔게. 팔월 나민 촐 헤야 뒈주게.

@2 멩질 허기 전이?

#2 어, 멩질 ᄒᆞ기 전이도 ᄒᆞ곡게. 겡 헹 다 멩질 전이 다 못ᄒᆞ민 멩질날도 비레도 가야 뒈곡.

@2 멩질날도?

#2 으. 멩질 부지런이 헤 먹엉, 촐 무끄레도 가야 뒈곡. 경 ᄒᆞ주게.

@5 아이고.

@2 촐은 좀호미로 헙니까? 아니면 낫으로 영.

#2 낫, 낫.
@2 낫으로.
#2 으. 지금은 ᄉᆞᄆᆞᆺ 기계덜 헹 비엄주만은 옛날은 낫으로만.
@2 음.
#2 낫으로만 비어놓민 그걸 강 무껑, 모두앙 눌곡. (웃음)
@2 비는 사름 따로 무끄는 사름 따로?
#2 으. 남저는 비곡, 무끄는 건 예펜만 무끄주.
@2, 5 아.
#2 놉도 빌엉 강 무끄곡 경ᄒᆞ주게.
@2 낫은 영 사두서 허는 거지예?
#2 으. 낫은 사둠서.
@2 음.
#2 ᄒᆞᆫ 뭇 ᄒᆞᆫ 뭇 비어 놓민게 이제 그걸게 다 무꺼야 뒈어.
@2 무신걸로 무꺼?
#2 무시거 헤여. 그걸로 께 내멍.
@2 그냥 그 촐로?
#2 으.
#2 촐로 께 내엉 무끄곡 그런 거 께 못ᄒᆞᆯ 촐은 어디 강 새 비어다근에 껠 데와.
@2 어.
#2 께 데왕 ᄆᆞᆫ 무껑 밧딜 아졍 가.
@2 께 데우는 거 무신거꽈? 무신걸로 데우는 거꽈?
#2 새, 새.
@2 그니까 영 돌리는 거 뭐 호렝이?
#2 아이, 이 손으로.
@2 아, 손으로.
#2 호렝이 ᄒᆞ는 건 줄. 저 집이나 일젠 ᄒᆞ민 호렝이로 ᄒᆞ주.
@2 으, 으.
#2 그런 께 내우는 건.
@2 손으로?
#2 손으로 ᄆᆞᆫ 께 데와근엥에.
@2 어떵 영 데우는 거꽈?
#2 아, 영 영 데왕 영 ᄒᆞ민게 훽 ᄒᆞ게 오그라지주게.
@2, 5 아.
#2 게민 이젠 그거 아졍, 그런 거 헹 가민 촐 무끔이 쉬와.
@2, 5 음.
#2 빨리 무꺼져.
@2 아. 맞아. 무끄믄.
#2 그걸 그디서 께 내왕 ᄒᆞ젠 ᄒᆞ민 오래 걸리곡.
@2 오래 걸리고.
#2 께 데왕 강 무끄는 건 빨리, 빨리 무꺼져.
@2 ᄒᆞ루에 얼마나 무끕니까? 가민.

#2 아이고 ᄒᆞ루에 무꺼 보민게 ᄒᆞᆫ 열 바리도 무끄는 사름도 잇곡, ᄒᆞᆫ 댓 바리 무끄는 사름도 잇고.
@2 ᄒᆞᆫ 바리는 멧?
#2 마흔 뭇.
@2 ᄒᆞᆫ 바리는 마흔 뭇.
#2 으. 마흔 뭇이 ᄒᆞᆫ 바리.
@2 그믄 거기서 댓 뭇, 아니 댓 바리 허젠 허민.
#2 으.
@2 ᄒᆞᆫ 사벡 개 사벡 뭇은 무끈덴 헌 말이네예?
#2 으. 무끄기가 좋아사. 것도.
@2 아, 무끄기가 좋아사.
#2 으 무끄기가 좋아사 많이 무끄주이. 무끄기 궂엉은 만이 못 무꺼.
@2 음. 그믄 그거 다 무끄민 쉐에 시꺼근에 집이 아졍 오는 거꽈?
#2 집이, 게 밧디 모두왕 눌엇당.
@2 밧디 눌엇당.
#2 으. 쉐에 시껑. 옛날 쉐에 시끌 때는 우리 시절이라. 우리 두린 때.
@2, 5 음.
#2 우리도 우리 아버지네 촐 비영 밧디 가면은 쉐예 시꺼.
@2 음.
#2 쉐에 시껑 쉘 집이 몰아다동 오렌 헤여.
@2 예.
#2 게민 쉐가 굳작 집일 들어와.
@2 아, 지가 알아근에.
#2 으. 촐 시끄민.
@2 으.
#2 게민 나도 쉐 몰앙 뎅여낫어.
@2 아하, 집이 그거 시꺼근에.
#2 경 헹 집이 오면은 집이 사름 잇다근에 촐을 다 풀어근엥에 ᄂᆞ리와 줘.
@2 어.
#2 ᄂᆞ리우민 또 쉐 몰앙 가주게. 밧디.
@2 왓다갓다.
#2 응, 왓다갓다.
@2 이때 저 촐 허젠 허민 자리젓이나 뭐 반찬도 막 준비 헹 나둬야 뒈키어예?
#2 옛날은이 옛날은이 자리젓도 잘 엇곡이, 멜첫은 셔낫어.
@2 아.
#2 멜첫.
@2 멜첫으로 반찬 헤?
#2 멜첫으로 반찬 헤.
@2, 5 음.
#2 경 ᄒᆞ곡 저 옛날은, 옛날 고기가 각제긴 셔낫어.
@2 으, 아까 불각제기?

#2 으, 불각제기. 그거 헤여다근엥에 몰류와근에 영 저 무시거 산디찝 헤영 ᄒᆞ나 놩 영 무끄곡 또 하나 놩 영 무끄곡 허멍 ᄒᆞᆫ 열 개썩 무껑 영 돌아메영 몰류와.

@2 예.

#2 게민 그거 밧디 아졍 강 밧디서 불살랑 구워.

@2 아.

#2 밧디서 구워근엥에.

@2 불각제긴 족은 거꽈?

#2 불각제기엔 ᄒᆞᆫ 건 젠젠ᄒᆞᆫ 거주게. 요즘도 각제긴 줄지 아녀게?

@2 예. 큰 것도 잇고 준 것도 잇고.

#2 그거주게, 그거. 옛날도. 옛날도 각제긴 지금 각제기나 마찬가지라.

@2 어, 무사 불각제기엔 헤신고?

#2 불각제기라고게 그거 젠젠ᄒᆞ고 하부난 불각제기, 불각제기.

@5 음.

#2 이 하르방은 그런 쉐 짐 시껀 몰앙 뎅겨보지 아녓어. 나난 몰앙 뎅겻주. 아니 진짜.

@2 부잣집 하르방이꽈?

#2 부잣집 하르방이 아니고 쉐도 아녀고게.

@2 아.

#2 아부지 옛날에 일본인가 가부난에게 어멍ᄒᆞ고 아덜ᄒᆞ고게만.

@2 귀헌 아들이라낫구나.

#2 응, 경 ᄒᆞ난에 쉐도 안 ᄒᆞ곡 무시거도 아녀난에 밧만. 우리는 어머니네 아버지네가 쉐 헤나부난 쉐도 몰앙 뎅이곡.

@2 음. 이디 송당은 사람들 매 집이 쉐 허는 거 아니라낫수과?

#2 매 집이 아년.

@2 아.

#2 쉐 ᄒᆞ는 집이 잇주.

@2, 5 음.

#2 지금도 마찬가지. 쉐 ᄒᆞ는 집이만 헴주. 게난 매 집이 쉘 헤졈서?

@2 이젠 겅 헤도 옛날엔 송당 허민 다 허는 줄 알앗지.

#2 아니, 아니. 옛날도 경 쉐.

#1 그 저 그 곡석 종자를 그 이름을 ᄀᆞᆯ안 놔두건 지도소에 강 농촌진흥원에 가근엥에 요것만은 잊어불지 말앙 제주도에선 이건 아는 사름이 별로 없다, 제주도도. 에 게서 그걸 조꼼 오래 놔두게끔 헤주세요. 거.

@2 무신거마씸? 무신거?

#1 피ᄒᆞ고, ᄀᆞ랑조.

@2 피허고 ᄀᆞ랑조?

#2 예.

@2 ᄀᆞ랑존 어떤 거마씨?

#1 ᄀᆞᆯ아서 어떻게 먹느냐 이거ᄁᆞ지.

@2 아.

#1 먹을 때ᄁᆞ지 이걸 어떻게 장만하느냐 헤서 진흥원에 강 ᄒᆞᆫ 번 이걸 꼭 지와불지 못 ᄒᆞ게끔.

@2 으. ᄀᆞ랑존 어떵 헌 조꽈? 그냥 조하고 뭐가 달라?
#1 이건 연자방아에서 ᄀᆞ는 거우다. 큰 ᄀᆞ레.
@2 음.
#2 ᄀᆞ랑조엔 ᄒᆞᆫ 거는 그냥 조만이 고고리가 훍으지 아녀.
@2 아.
#2 그냥 조는 고고리가 훍직훍직ᄒᆞ게 나오지만은.
@2 으.
#2 이 ᄀᆞ랑조엔 ᄒᆞᆫ 거는 막 밧 궂인 디 ᄒᆞ는 거.
@2 아.
#2 밧도 궂인디.
#1 산디 이 벼, 벼도.
#2 게난 ᄀᆞ랑조엔 ᄒᆞᆫ 건 그 고고리에 터럭이 복삭ᄒᆞ여. 터럭이 복삭ᄒᆞ여.
#1 갈산디, 녹산디 석상베.
@2 터럭이 복삭허여, 어.
#1 에서 이거 또 이 제주도에 그 벼 말도 세 가지가 이수다.
@2 예.
#1 야. 겨난.
#2 피도 두 가지주게. 피, 갱피.
#1 진흥원 놈덜 어떵 아는지. 농약 사용도 ᄒᆞᆯ 줄 몰랑 ᄒᆞ는 것들. 아이고 아이고.
@2 갱피. 피는 갱피하고 피하고 뭐가 좋은 거꽈?
#2 그냥 피는 고고리가 훍은훍은 헤여근엥에 피가 조면은 든직든직ᄒᆞ곡. 갱피엔 ᄒᆞᆫ 건 고고리가 젠젠.
@2 아.
#2 고고리가 젠젠헤여 갱피엔 ᄒᆞᆫ 건.

창 불르기

@2 음. 팔월 멩질 허젠 허민 창호지도 불르곡, 문에.
#2 게 청소도 ᄒᆞ곡게.
@2 게난예 헤야 뒐 거 아니꽈예?
#2 여름 넘으민게 집이 청소도 ᄒᆞ곡.
@2 으.
#2 방도 불르곡, 문도 불르곡. 헤사주게.
@2 이건 일 년에 ᄒᆞᆫ 번만 허민 뒙니까?
#2 일 년에 ᄒᆞᆫ 번벳긔 아녀주게.
@2 으, 뭐 이 년에 ᄒᆞᆫ 번 허는 디도 잇덴 헨게마는 아니고 일 년에 ᄒᆞᆫ 번만.
#2 일 년에 ᄒᆞᆫ 번은 헤사주게. 방도 불르곡 창문도 불르곡게.
@2 음. 그 옛날엔 종이도 엇어실 건디 무신걸로 불라수과?
#2 옛날?
@2 으.
#2 옛날 문은 이제도 그 창호지 이서.
@2 으.

#2 백지라고 백지.
@2 아.
#2 그 이제도 백지 이서.
@2 아.
#2 그 백지로 창문 붙르곡게.
@2 으. 벽에는?
#2 벡에는 옛날에이 마분지라고 거멍헌 종이 셔낫어. 마분지.
@5 음.
#2 그거 마분지로 붙라근엥에 그 우터레 또 옛날도 종이, 종이 픈는 디 이서낫어. 장에 가민.
@2 으.
#2 옛날도 방 도비ᄒᆞ젠 ᄒᆞ민 장에 가민 종이 이서낫어.
@2 으.
#2 붙라 주레는 안 뎅겨낫주. 지금은 뭐 붙라 주레 돈만 주민 ᄒᆞ는디.
@2 예, 예.
#2 옛날도 종이 사당 이녁 냥으로 붙라야 뒈여.
@2 이디 장은 김녕장 갑니까?
#2 아이, 지금은 서화장.
@2 지금은 세화장이고, 옛날엔?
#2 옛날에은 김녕장 이서낫어.
@2 아, 옛날엔 김녕장 가수과? 이디서.
#2 서화리두 이서낫주 옛날도.
@2 음. 주로 다니는 데가 김녕?
#2 김녕. 겐디 지금은 주로 가는 디가 세화장이주, 세화장.
@2 음. 이디 방바닥도 뭐 붙르는 거는?
#2 방바닥? 옛날은 방바닥도게 무신 영 장판지난 무시거 셔낫어게.
@5 음.
@2 그믄 뭘로 붙라?
#2 부억에는 검질만 꼴아낫주게. 방만 붙라.
@2 방에는 무신 종이로 붙라?
#2 게난게 장에 가민 사당.
@2, 5 (웃음)
@2 똑ᄀᆞ타? 거기에 여기에 허는 거영?
#2 으, 으. 장에 가민.
@2 이디 무신 기름이라도 칠헤야 뒐 거 아니꽈?
#2 무신 지름을 칠ᄒᆞ여?
@5 마릿널에.
@2 이디, 아니 마릿널 말고 이 방에? 이건 어떵 ᄒᆞ민 영 빈찍빈찍헹 허는 거라? 옛날에.
#2 옛날에 무신 부억이 빈찍빈찍 헤여?
@2 부억 말고 방에.
#2 옛날에 부억은 검질만 꼴아나난.
@2 으, 부억은 검질만 꼴고 방에 건?

#2 방에는 무시거 빈찍빈찍홀 게 이서?
@2 뭐 유치름 불르곡 허지 안헨?
#2 옛날은 유치름 안 불라.
@2 무시거 불라?
#2 초석 꼴안 살아낫주.
@2 아, 그냥 초석 꼴안.
#2 으, 초석 꼴안.
@2 음.
@5 삼춘, 벡토는 뭐마씸? 벡토.
#2 으?
@5 벡토.
#2 벡토?
@5 으.
#2 벡토가 뭐라?
@5 뭐 바르는 흑?
@2 벽에 집 이디 벽 집짓을 때 그.
#2 아, 저 무시거 풀?
@2 풀?
@5 흑 말고?
#2 풀 헤영 종이 불랏주게.
@2 아, 그거 허기 전이. 흑질헐 때.
#2 흑질홀 때 무시거 저 산디찝 놓앙 흑 뀌여근엥에 흑 불르주게.
@2, 5 음.
#2 경 허영 흑 불라낭 그 우터레 그 옛날 마분지라고 이서낫어.
@5 음.
#2 이젠 그 종이 엇어.
@2, 5 음.
#2 거멍흔 마분지라고.
@2 예, 예.
#2 으, 그 흑 우이는 마분지 헤당 불랑 그 우터레 종이 불라.
@2 음.
#2 이젠 그 마분지, 마분지엔 헌 종이도 엇어.

십일월

동지

@2 으. 동지엔 풋죽도 쒕 먹엇지예?
#2 으?
@2 동지 풋죽.
#2 동지에 풋죽 쑤웡 먹는 디가 쑤워 먹주, 무신 매 집이 풋죽 아이 쒀 먹어. 풋은 무신 매 집이 ᄒᆞ는 거라?

@2 겅 헤도 어디 뭐 감기 걸리지 말렌덜.
#2 에에.
@2 삼춘도 픗죽.
#2 몰라. 우리 그런 거 아녜 보난 원.
@2 뭐 이때도 픗죽도 언제 쒀먹는 동지여, 언젠 안 쒀먹는 동지여 헙디다?
#2 몰라. 우린 동지에 픗죽 아이 쒀보난 몰라.
@2, 5 음.

장 담그기
@2 장은 언제 담금니까?
#2 장?
@2, 5 음.
@2 멧 월에?
#2 장은, 정월 나민 담아사주.
@2 정월 나민?
#2 으.
@2 멩질 허기 전이? 일월 정월 멩질 허기 전이?
#2 아, 지금은 멩질 허기 전이 그믐 뒈영 담는 사름 지금도 셔.
@2, 5 음.
#2 나도 장년ᄁᆞ지는 장 담앗는디 올리부떤 안 담앗는디.
@2 음.
#2 콩도 엇고, 콩 아이 갈아부난.
@2 메주는 게믄 언제 언제 헹 허는 거꽈? 메주 쑤는 거.
#2 메주?
@2 어.
#2 메주도게 ᄒᆞᆫ 여름, 씨 ᄒᆞ당 남아도 숣으곡.
@2 으.
#2 ᄒᆞᆫ 팔월ᄃᆞᆯ 나면은 메주 숣아사주게.
@2 으.
#2 시월에도 숣으곡, 구월에도 숣으곡. 그 뭐 ᄒᆞᆫ 엇어.
@2 지금 콩 나민, 이제 이제.
#2 콩 나오민 이제 시월 나민 숣아사주.
@2 으, 숣아근에.
#2 숣아사 ᄒᆞᆫ 섣달 구물어가민 장 담아.
@2 그전이 저 곰팡이도 ᄒᆞ꼼 시쳐야 뒐 거 아니꽈?
#2 그전이 ᄒᆞᆫ ᄒᆞᆫ ᄃᆞᆯ 전이 곰셍이 피여.
@2 으.
#2 ᄒᆞᆫ 열흘만 뒈민 곰셍이 피어.
@2 으.
#2 메주 숣앙 동글동글ᄒᆞ게 헤영 멘들아 놔두민 ᄒᆞᆫ 열흘만 뒈민 곰셍이 피민.
@2 으.

#2 이젠 그놈으 걸 벳디 널어.
@2 으.
#2 널엉 흔 메칠 몰루와.
@2 으.
#2 경 허영 몰류와근엥에 장을 담아사.
@2 음, 장 막 하영 담을 땐 얼마나 담앗수과?
#2 흔 다섯 허벅.
@2 다섯 허벅?
#2 으, 허벅으로 다섯.
@2 콩은 멧 말이나 뒈는 거라?
#2 콩은 흔 서 말, 너 말.
@2 아이고, 음.
#1 할망도 모른 걸랑 들어, 나안티.
@2 예, 예.
#1 덕천광 틀리난에. 덕천ᄒᆞ고 송당도 틀려.
@2 맞아마씨.
#1 가뜬 멘이라도.

십이월

엿 하기

@2 그 엿 만드는 날도 이서낫수과? 납평날이라고?
#2 엿 만드는 날?
@2 음. 엿, 엿.
#2 엿, 무신. 날 보멍 헤여게? 아무 때라도 헤지민 ᄒᆞ는 거주게, 무신.
@2 아니, 남자 삼춘은 알거 닮아. 남평날.
#1 어?
@2 남평. 엿 담그는 거. 남평날. 십이월에 엿 담그는 날. 엿. 꿩엿.
#2 엿은 우리 먹는 엿 멘드는 거?
@2 예, 예. 그거 만드는 날.
#2 엿 만드는 날 엇어게.
#1 거 딸령 국물로 골을 놔야 뒈, 골.
@2 음. 남평날 아니? 남평날?
#2 아이 엿 만드는 날, 만드는 날 엇덴 ᄒᆞ난.
@2 남평, 남평.
#2 우린 그거 들어 보지 아이서.
#1 남평날?
@2 예, 남평날.
#2 들어보지 아녓다고.
#1 그 낭은 모르겟는디.
@2 낭 아니고 남. 십이월달에. 응, 안 들어봣구나예?

#2 으. 아녀봐서 그런 거.

신구간

@2 다음에 신구간.
#2 신구간에사 이서도 ᄒᆞ곡게 뭐 ᄒᆞ는 거주.
@2 음, 삼춘 신구간엔.
#1 음, 그걸 알아야 뒈. 우리 박사님도.
@2 예.
#1 박전일호라고.
@2 예.
#1 박전, 아주 불모의지.
@2 음.
#1 농사 못 짓는 땅.
@2 예.
#1 그것이 이제 일토가 뒈어불고.
@2 예.
#1 하늘광 농사지엉 싸우고 태풍광 뭐 이겨내는 일토지는 박전이 뒈여불엇어.
@2 아.
#1 겨난 박지광 순지가 틀려 불엇어.
@2 바꿔 불언예?
#1 겨난 말이 시방 박전일호.
@2 음.
#1 박전 아주 사나운 지대는 일토가 뒈어불고.
@2 음.
#1 순수ᄒᆞᆫ 일토는 박전이 뒈여 불엿어.
@2 아. 이사 갈 때, 멘 먼저 가져가는 거 무신거마씨?
#2 이사 갈 때 젤 몬여 가는 게?
@2 으.
#2 화리에 불살라.
@2, 5 으.
#2 그거ᄒᆞ곡 가스가 젤 몬여 가는 거.
@2 아, 불이 맨 먼저 가는 거? 음.
#2 불이 일 듯 일엉 잘 뒈라 ᄒᆞ는 거지.
@2 아.
#2 불 일 듯 일라.
@2 예. 어디 이사 가젠 허민 어떵 헹은에 집은 구허는 거꽈?
#2 어떵 헤영 구ᄒᆞ여? 놈안티 들젠 헤도 어디 알아보멍 기자 빈집 잇젠 ᄒᆞ민 집을 빌어사 ᄒᆞ는 거주.

집일기

@2 으, 으. 아, 이거 허기 전에 지붕 이는 거 이수게. 지붕 새 이는 거.

#2 아, 저 무시거. 집이는 거.
@2 으, 그거 언제 허는 거꽈?
#2 것도 이제 새 발앙 새 비어다근엥에 뭐. 흔 섣둘에도 일고 뭐. 정월 나도 일곡 뭐. 건 아무 때나 일어.
@2 건 일 년에 한 번? 아니면?
#2 일 년에 흔 번.
@2 일 년에 한 번.
#2 어.
@2 정월에도 일고 섣둘에도 일고?
#2 응. 새, 새 이제 빌 거주. 앞으로 얼마 엇엉.
@2 으, 이제 새 비어근에.
#2 어. 새 비어근엥에 줄 놓아근엥에.
@2 으
#2 재기재기 일을 출령. 줄이영 다 놓아지면은 흔저 집 일어비사키여 영.
@2 으.
#2 집을 일주게.
@2 음.
#2 거 집도 아무 때나 이는 거.
@2 으, 그 누게 집 삿저, 영 허민예? 그 집이 놀레 갈 때 요즘에는 막 화장지도 가져가곡 슈퍼타이도 가져가고 허는디, 옛날은 뭐 헤낫수과?
#2 옛날은 아무것도 안 아졍 가. 무시걸 아졍 갈 말이라.
@2 경 헤도게 뭐 영 불.
#2 불곽이나 상 가주.
@2 불곽이나 하나 상 가? 으.
#2 불곽이나 하나 상 가주.
@2, 5 음.
@2 게민 그디 온 손님들안티 이젠 막 답례품도 주고 허는데. 옛날엔 그런 건 엇엇수과?
#2 에에, 옛날 그런 거 이서 간 디는 답례품 안 줘.
@2 아.
#2 잔치나 영장이나 소상이나 ᄒᆞ젠 헤사 답례품 주지.
@2, 5 음.
#2 답례품 아니 줘.

소한과 대한

@2 아. 그 소한이여, 대한이여 막 추운 때 이수게.
#2 소한이여, 대한이여 ᄒᆞ민 무시거, 추운 때난 뭐 ᄀᆞ만이 고냥에나 박아졋주.
@2, 5 (웃음)
@2 그 무사 소한에 나간 사람 뭐 찾아보지 말라, 영 헌 말도 잇잖으꽈?
#2 어. 너미 추워 부난.
@2 으.
#2 너미 추워 부난 소한에 나간 사름 찾아보지 말라, ᄒᆞ는 거.

@2, 5 음.
#2 너무너무 추워 부난.

윤달
@2 으. 윤달엔 무신거 헙니까? 윤달.
#2 윤달에 무시걸 ᄒᆞ여?
@2 뭐 호상옷도 멘들고.
#2 에, 호상옷도 아무 때나 헤도 아뭉토 아녀.
@2 삼춘, 호상옷 헹 놔둡디가?
#2 으. 어떵 경 윤둘에만 춪아져게?
@2 언제, 언제 헤수과? 호상옷은.
#2 우리 ᄒᆞᆫ 십 년도 넘엇어.
@2 무신걸로? 멩지로 헨?
#2 멩지로.
@2 어.
#2 호상옷 헤 놔부난 오래 살아지는 셍이라.
@2 아하. 그건 윤달에 허렌 헙디다. 경 허난.
#2 게 윤둘에 헤지민 윤둘에 ᄒᆞ지만은 우린 아무 때나 기자 서화리 가지민 바농칩이 멧겨.
@2, 5 아, 아.
@2 그 삼춘 이제도 살앗수과? 서화리 바농칩이 삼춘?
#2 죽어 불엇어.
@2 아이고.
#2 그 사름 죽어 불언.
@5 음.
@2 게믄 이젠 호상옷 안 만드는. 이젠 저 맡기젠 허믄.
#2 호상옷 ᄒᆞ는 사름이 셔? 이젠 호상옷 ᄒᆞ는 사름 엇어.
@2 어.
#2 뭐 병원에 가민 뭐 호상도 헤주고 다 헤영 입정. 돈만 주민 뭐.
@2 하긴예.
#2 게. 돈만 주민 다 ᄒᆞ는 거 아니.
@2 경헤도 삼춘은 남자 삼춘 거영 다 헹 놔두지 안 헨?
#2 응. 다 헤 놘. 건달 돈만 들엿주뭐.
@2, 5 (웃음)
@2 아이, 저 그 어디 저 장례식장 거 별로 안 좋은 거라.
#2 게, 허기사게.
@2 으.
#2 게난 헤 논 거 다 입져 줨신가?
@2 굴읍서게. 이거 헹 입져 주라, 헤근에. 이디 놔뒀저. 아들안티 굴아 줘야지.
#2 헤 논 거 다 입져 줨신가?
@2 경 안 허민 이제 저 장례식장 거 그냥 입정 보냅니다예. 딱 굴앙 놔 둬사주.
#2 굴아사주.

@2 으.
#2 굴아사주.
@2 그거 헹 놔두난 오래 살아지는 셍이라.
#2 게메게.
@2, 5 (웃음)
#2 십 년 넘엇어.
@2, 5 아.
#2 헤 놓건 디가.
@2 음.
#2 이 하르방 건 흔 십오 년이나 뒛주.
@2 아하. 먼저 헷수과?
#2 문여 헷주.
@2 음.
@2 윤달에는 그 호상옷 허는 거 말고 다른 거 엇수과?
#2 윤둘에 무시거 ᄒᆞ는 게 이서게?
@2, 5 음.
#2 일만 ᄒᆞ당 보민 윤둘사 넘엄신디, 무시것사 넘엄신디.
@2 무슨 일을 경 하영 헙디가?
#2 일만 ᄒᆞ레.
@2 이딘 무신거 젤 하영 헙니까?
#2 아이고. 지금도 일허레 뎅이는 사름덜?
@2 으.
#2 마농 싱그레도 가곡, 마농밧디 검질도 메레도 가노라 뭐.
@2 음.
#2 무신 당근밧디도 검질메레 감저.
@2 아.
#2 더덕 파레 감저. 더덕밧디 검질메레 감저. 뭐 뭐. 홀 일이 천지만지라.
@2 요즘엔 겅 허고. 옛날엔 주로 송당에선 뭐 헤낫수과?
#2 옛날은 기자 산디밧디 검질, 조팟디 검질.
@2 어.
#2 보리밧디도 검질.
@2 검질메레 그자예?
#2 으, 검질 원.
@2 검질, 남자들은 안 메지 안헤?
#2 무사, 남자도 메주.
@2 아, 남자도 멥니까?
#2 남자도 메여.
@2 남자 삼춘도 ᄀᆞ치 강 메낫수과?
#2 검질 아이 메봣어.
@2, 5 (웃음)
#2 검질 아이 메봣어.

@2 어, 안 시켯구나. 여자 삼춘이 혼자만 다 허고.
#2 나만 나만 그냥.
@2 에고, 고생만 막 하영 헷구나.
#2 아이고, 말도 말아. 우리 살아온 거 생각ᄒᆞ민.
@2 으.
#2 일만 허민 살아질 거카부덴.
@2 음.
#2 일만 허민 살아질 건가, 기자.
@2 겅 헨 잘 살앗수게, 이제.
#2 아이고.
@2 이제까지 영 아이덜 잘 키우멍 살앗주.
#2 아이고, 아이고.
@2 멧 남매꽈? 게난 아이덜은.
#2 이제 아덜 세 개, 뚤 두 개.
@2 다섯 남매.
#2 오 남매.
@2 으, 다 제주도 이서?
#2 으.
#2 하나 족은뚤은 육지.
@2 족은뚤은 육지 살고. 나영 동갑이 족은뚤?
#2 으.
@2 하나 밑에가? 이제 쉰 난 아이가 족은뚤?
#2 족은딸.
@2, 5 음.
@2 다 시에 살암수과?
#2 으. 너 오누이는 시에.
@2 어. 큰아들은 멧 살? 게난.
#2 큰아덜은 쉰ᄋᆞ둡.
@2 쉰ᄋᆞ둡, 딸이 더 위에꽈?
#2 으. 큰뚤이 이제 육십둘.
@2 아. 큰뚤이 육십둘. 에이고.
#2 ᄀᆞ찌 늙엄주.
@2 게난.
#1 겨난 박사님도 걸 알아야 뒈. 우리 제주도도 한경으로 서귀포ᄁᆞ지는 밧담이 엇지 아녀꽈?
@2 아.
#1 밧담.
@2 예.
#1 밧담이 엇어. 무장전이라.
@2, 5 음.
#1 엇지만은 우리 이 제주시로 동드레는 밧담이 다 잇다 말이우다. 밧담.

@2 예, 예.

#1 예, 이것은 그 제주도 탐라로 생길 때 목장, 목장 일수장, 이수장, 삼수장, 그 ᄆᆞ쉬 방비 위헤서 잣담이 생긴 거고, 이 동드레는 밧담이 잇은 것은 소물덜이 막 방목 헹 내붑니다. 기냥.

@2 음.

#1 제네 멋대로 강 뜯어 먹어라, 풀.

@2 예, 예.

#1 경 헤도 곡석밧을 먹어불카부덴 이 밧담이 셍긴 거우다. 이 동쪽에는.

@2 예.

#1 게 서르레는 저거 정석비형장 잇는 ᄉᆞ신 밧담도 엇고 그딘 농사도 콩ᄒᆞ고 고구마. 당근도 아이 뒈고.

@2 예, 예.

#1 콩도 잘 아이 뒈고.

@2 음.

#1 기자 무수 배추 ᄀᆞ뜬 거.

@2 음.

#1 그 담 엇은 고단은 그 농사덜만 헙니다.

@2 아.

#1 견디 여기는 벨 오만 가지를 다 허기 때문에.

@2 아.

#1 소물이 그 헤영이 땅에 말목 박앙 베 메영 저 젓줄이라고.

@2 음.

#1 그 도망가지 못헤영 그 안에서만 먹어라.

@2 아.

#1 영 ᄒᆞ는 식으로 헤여근엥에 소물을 걸려서 말ᄐᆞᆨ 박앙 거 ᄒᆞ는 통에, 이 만약에 그 베를 끈어졍 나강 곡석 먹어불카부덴 밧담을 전부 헌 거우다.

@2 아.

#1 이 동쪽더레.

@2 예.

#1 이 밧담이 구태여 필요가 없는데, 이제는 소물이 놓앙 내부는 게 엇으니까 이제는 밧담이 엇어져도 뒈고.

@2 예.

#1 이제는.

@2 예, 예 예.

#1 경 허난 그것만은 압서. 제주도 또 동쪽허고 서쪽이 틀리다.

@2 예, 맞아마씨.

#1 지대가.

@2 예, 예, 예.

#1 게서 그 농촌지도소에 꼭 가근에 그거.

@2 알앗수다.

#1 지와불지 맙서. 이거 멧 벡년이 가도 이건 알아야 허여게.

@2, 5 아.

#1 이 곡식 이름은 알고 먹어보지 않은 사름은 몰릅니다.

@2 예, 맞아마씨.

#1 이 할망네는 피밥, ᄀᆞ랑조팝 아이 먹어봐실 거우다.

@2 피밥 막 맛 좋덴 허멍마씨?

#2 아이 무사, 피밥 먹어봣주 우리. 피밥을 아이 먹어 봣어? 피밥 안 먹어? 우리 갱피밥은 안 먹어봣어.

@2 아, 갱피밥은 안 먹어봣어?

#2 ᄀᆞ랑조밥도 아이 먹어보고, ᄀᆞ랑조.

#1 피밥이 막 소화 잘 뒈곡.

@2 어.

#1 예, 부담감을 아이 갑니다.

@2 음.

#1 아무리 많이 먹어도예.

@5 음.

@2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7. 구좌읍 김녕리(1)

- 조사 일시: 2021년 10월 28일
- 조사 장소: 구좌읍 김녕리 노인회관
- 조사자: @1 김순자 @2 김미진 @3 최연미 @4 오경임
- 제보자: #1 강순배

조사 마을

@1 자, 그러면 이 김녕은 그 멧 개 동으로 이뤄젼마씨? 지금.
#1 팔 개동.
@1 팔 개동예. 팔 개동 한번 골아줘 봅서.
#1 남흘동, 한수동.
@1 예.
#1 대춘동, 용주동.
@1 예.
#1 봉지동, 신산동[신산똥], 청수동.
@1 청수동.
#1 동성동, 여덜 개.
@1 동성동.
#1 예.
@1 남흘동, 한수동, 대춘동. 용주동.
#1 봉지동.
@1 봉지동, 신산동, 청수동, 동성동.
#1 세 봅서, 멧 개고?
@1 하나 둘, 여덜 개 맞수다.
#1 여덜 개, 여덜 개.
@1 게 남흘동은 저기 옛날 서문하르방 잇는.
#1 예, 예, 예.
@1 섯동네부떠 들어오는 거지예? 예, 거믄 거기는 남흘동이렌 헷고.
#1 예.
@1 한수동은 옛날에 이름은 뭐우꽈? 한수동 말앙.
#1 한수동, 그냥 한수동.
@1 그냥 한.
#1 예.
@1 여기는 대춘동.
#1 대춘동?
@1 으.

#1 대춘동은 옛날 대춘거리.
@1 대춘거리.
#1 예, 김녕에서는 아주. (웃음) 중심, 중심지랏주, 여기가.
@1 예.
#1 대춘거리가.
@1 대춘거리예?
#1 대춘거리.
@1 으, 대춘거리. 용주동은 무신 거렌 헤서마씨?
#1 용주동은 그냥 그 용주동. 용주동은 그 해안가 부뜬 디가 글쎄 용이 나왓다 헤서 용주동을, 해안가 그, 그 바위가.
@1 예.
#1 용, 용머리라 헤 가지고 용주동을 부쪗다는 여러 말이 많아, 거기도.
@1 으, 그다음에 봉지동은?
#1 봉지동은 그 새가, 봉황새가 그 우물이 잇어낫는데, 거기가.
@1 예.
#1 봉황새가 와서 앉앗다 갔다 헤서 봉지동, 새 봉 제[쩨] 써 가지고 봉지동.
@1 아, 신산동은?
#1 신산동[똥]? 신선이 놀다 갓다 헤서 신산동이고예.
@1 신선 노는 데 신산동.
#1 어, 신산동.
@1 으, 그다음 청수동?
#1 청수동은 그디 청수동은 그 굴에 물이, 물이 좋아, 거기는. 굴, 굴에서 나오는 물이. 게 청굴물, 청굴물허는디 이제 청굴물이 이젠 청수동으로 뒛주. 청굴물 맞는 말이라, 물 수 제[쩨] 쓰니까.
@1 예, 예.
#1 물이 나오니까.
@1 그 밑에.
#1 어, 굴 아래, 굴 아래.
@1 굴 아래예? 아, 청굴물 맞다예?
#1 청굴물.
@1 동성동은?
#1 동성동은 맨 동쪽.
@1 으.
#1 김녕의 동쪽에서 동, 동성동.
@1 동성동예. 예, 알앗수다. 게믄 이 지금 여기 김녕리 주민들은 멧 명 정도 뒈마씨?
#1 지금 혼 삼천, 한, 이백 뒐까?
@1 삼천이백 명. 외지에서도 하영 들어와수과?
#1 에, 외지에선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와서.

오름

@1 으, 외지에서는 안 들어오고예. 그, 그러면은 혹시 이 동네 오름도 잇수과?
#1 오름.

@1 예.
#1 임오름, 입산봉. 입산봉보고 오름이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보이는 디가.
@1 예.
#1 오름, 여기가. 공동묘지. 이젠 이제 김녕 공동묘로 사용허는 디가 입산봉, 입산봉.
@1 입산봉 옛날 이름은 무시거우꽈?
#1 오름, 게난 오름.
@1 아니, 오름 말고 다른 이름 잇지 안헤?
#1 몰라, 그건.
@1 궤살메.
#1 고살미?
@1 예, 고살미.
#1 고살메는 묘산봉. 요기 바로 두에.
@1 묘산봉은 지경이 어디우꽈?
#1 묘산봉, 입산봉.
@1 아.
#1 묘산봉은 저 아니, 묘산봉은 그 한자로.
@1 예.
#1 그 고양이 묘 자를 써 가지고.
@1 예.
#1 그래서 고양이가 누운 형태라 헤서 묘산봉을 부찐 거라, 여기가.
@1 으, 거기를 원래는 고살미렌 허지 안헨?
#1 으, 고살미. 이게 산이 아니주, 여기는.
@1 예, 그다음에 입산봉은 아까 무신 오름마씨?
#1 임오름, 임오름.
@1 으, 예.
#1 임오름은 지금 김녕 그 저 뭐고, 공동묘지로 사용을 헷주.
@1 예, 여기가 공동묘지.
#1 등록뒈는 거니까.

물

@1 으, 그다음에 이, 이 동네 이제 유명헌 게 또 물들예?
#1 물?
@1 옛날 보니까, 으, 물이 하드라고. 보니까.
#1 예. 물이 하.
@1 물. 아까 청, 청굴물부떠 헤 갖고, 물들 쫌 골아줘 봅서.
#1 물은 가만히 잇어. 서김녕부떠 허믄.
@1 예, 저쪽 밑에서부떠 서문하르방 옆에.
#1 영등물. (잡담) 영등물 저, 적읍서.
@1 예.
#1 영등물.
@1 영등물.

#1 모랫발[모래빨]이, 모랫발.
@1 모랫발.
#1 모랫발물.
@1 예.
#1 그다음 수감물.
@1 수감물.
#1 고냥물.
@1 고냥물.
#1 흐른물.
@1 흐른물.
#1 이젠 이쪽으로 돌아오믄 하늘렛, 하늘렛물이 뭔고? 하늘레물. (웃음) 하늘레.
@1 하늘레예?
#1 으, 하늘레, 하늘로, 하늘레.
@1 예.
#1 그다음 청굴물.
@1 청굴물.
#1 거뿐이라.
@1 이거뿐인가마씨? 경헤도 물이 하, 한 거. 여기 영등물은 영등하르방 잇는 데구나.
#1 예, 예.
@1 서문하르방 이신 디예? 으.
#1 으, 서문하르방.
@1 아직도 그 물이 잇수과?
#1 예.
@1 나중에 이거 다 찍어놔야 뭘 것들예. 그다음에 이거는 나는물들이잖아예? 아니, 그냥 판 물도 잇어?
#1 아니 거 물이 막 지금은 물이 ᄲᅳ따비언, 나는물은 아니라.
@1 아, 옛. 으, 그래도 그 청굴물, 청굴물은.
#1 청굴, 청굴은 잇어.
@1 예.
#1 청굴물은.
@1 거기는 물 핫수과?
#1 유독 거기는 물이 계속 거긴 물이 고여.
@1 다른 데는 그냥 ᄲᅳ뜨기도 허고.
#1 예, ᄲᅳ따, ᄲᅳ따 불언.
@1 ᄲᅳ따 불언예, 옛날 으, 지하수 허멍.
#1 저 서쪽으로 영등물은 쪼끔 물이 고이긴 고이는데, 거 나는물은 아니라.
@1 으.
#1 물 막 브따 불곡.
@1 저 바당 쪽에서도 나는물 이십디다예? 옛날에.
#1 다 이거 바다 쪽이라, 이거.
@1 다 바당 쪽예?

#1 다 바다 쪽.

당

@1 예. 그다음에 이 김녕 허면 돗당도 유명허고, 당들.
#1 당?
@1 예, 여기 궤네깃당 유명허지 안헙니까?
#1 으, 아으 다 유명헤, 여기는.
@1 예, 여기는 다 큰당예? 당 이름은 어떤 거?
#1 서, 서, 서문당 잇고.
@1 예, 서문당 잇고.
#1 서문당, 이제 궤네깃당.
@1 궤네깃당.
#1 궤네깃당. 게난 또 성세깃당.
@1 성세깃당.
#1 으.
@1 여기 본향당 잇지 않우꽈?
#1 어?
@1 큰당?
#1 큰당? 큰당이 궤네깃당이주.
@1 아니, 중학교 옆에.
#1 아.
@1 본향당.
#1 거 무슨, 그 이름은 잘 몰라, 거기는.
@1 거기가 본향당 아니우꽈?
#1 본향당이 아닐 거라. 궤네, 궤네깃당이 젤 크주.
@1 옛날 제 기억으론 큰당, 큰당 헷던 거 같은데예?
#1 거기도, 거기도 많이 뎅기긴 뎅겻주, 중학교 뎅일 때.
@1 예.
#1 거기.
@1 거기 이름 한번 확인헤 줍서. 이거 중학교 옆에 당 이름은 무시건지예? 왜냐면 거기가 본향. (전화) 게난 당도 아직도 이렇게 하영 잇는 거잖아예?
#1 예.
@1 그 서문하르방당은 언제 가마씨? 이거는.
#1 서문하르방, 서문하르방도 다 정월달일 거라, 것도.
@1 으.
#1 다 정월달.
@1 그건 또 나중에 또 저기 물어봐야크라.
#1 으.

포제

@1 그 포제도 여기 지냅니까?

#1 마을, 마을, 마을제. 으.
@1 마을제, 언제 그거는?
#1 정월, 정월달에, 거는 야튼. 보름 전에라도 거 날을 택헤야 뒈어.
@1 으.
#1 택일을 봐야 뒈어.
@1 예, 보통 어느 날 택헙니까?
#1 뒈지날, 뒈지날. (웃음) 정월, 정월 보름 전 뒈지날.
@1 으.
#1 으.
@1 역시 돗당이 잇어서 그러네예. 이거 그, 게믄 요거는 어디서 지내마씨?
#1 ᄆᆞ을에서.
@1 마을 어디에서?
#1 저 지내는 디가 잇주게.
@1 아, 포제단이 따로 잇수과?
#1 포제단이 따로 잇어.
@1 게난 그 포제단을 여기서는 뭐렌 불러마씨?
#1 포제청.
@1 으, 포제청예. 아, 포제청이 또 따로 이제 뒈고.
#1 으.
@1 게믄 이거는 마을에서 중심이 뒈서 하고. 당들은 여자들이 중심이 헤서 하고. 궤네깃당은 어떵 헙니까?
#1 당은, 당은 보통 이제 당에 가는 거는 뭐 옛날에 거 심방이라고 헤서 무당덜 잇자녀.
@1 예, 예.
#1 무당덜이 다 장악을 헤여.
@1 으.
#1 게니까는 사월 초ᄒᆞ룻날은 어디서 서문당이다 또 초 메칠날은 또 궤네깃당이다, 또 메칠날은 요 큰당이다.
@1 으.
#1 그 사름덜이 다 저기허주, 뭐.
@1 그러면 그 당 이 동네는 서순실 심방이 잇잖우꽈예?
#1 누게?
@1 문순실, 옛날. 서순실 심방.
#1 으, 으, 으, 으.
@1 그 저기 그 선생님이 다 헙니까? 아니면.
#1 아니, 그 사름은 안 다녀.
@1 아, 누게가 헤? 게믄.
#1 이제는 그, 그전이 우리 어릴 때는 큰 심방이 잇엇는데 다 돌아가셔 부난.
@1 예.
#1 몰라, 지금.
@1 그 잠수굿 허는 거는?
#1 으, 그 사름이 마탕 허여.

@1 서순실 심방 허잖우꽈예?
#1 으, 그 사름 마탕 허여.
@1 거기 어머니도 저 심방이라나지 안헷수과?
#1 본래 심방이라.
@1 예, 기지예?
#1 어멍이 좀 얼굴이 얽어낫주.
@1 으, 게믄 여기 궤네깃당 헐 때는 다른 그 서 심방 말고 다른 심방이 허여?
#1 이젠 안 다녀, 심방들이.
@1 심방들이 안 다녀마씨?
#1 무당들이 엇어, 이제는.
@1 경헤도, 게믄 다니긴 헐 거 아니?
#1 게난.
@1 제는, 제는.
#1 다니는 사름은 다녀, 다니는 사름은. 다니는 사름은 버리질 못허지.
@1 으.
#1 가서 공들. 거기는 공들이는, 공들이러 가는 디 아니라게.
@1 예, 예.
#1 그러니까 다니는 사름은 다녀.
@1 다니는 사름은 다니고예?
#1 다 다니는 건 아니고. 마을 전체가 다니는 건 아니고.

문화재

@1 으. 그런 식으로 헹은에 이젠 뒈고예. 그리고 이 마을에 문화재가 잇잖우꽈예?
#1 문화재.
@1 어떤 문화재들이 이신고예?
#1 멸치후림.
@1 예, 멸치.
#1 멜치후림. 멜치후림.
@1 예. 멜치후림은 누게가 전승헴서마씨?
#1 그 돌아가신 김○○ 씨가 처음으로 시작헷는데 돌아가신 김○○ 씨가.
@1 예.
#1 지금은 저 리장, 임○○ 현 리장.
@1 예.
#1 현 리장 임○○이가 후계자로 허연 저 저거하고 잇주.
@1 아, 이.
#1 보유자로 헤 가지고.
@1 그 저기 예전에 여기 김○○ 할망.
#1 으.
@1 그 담뱃집예? 거기 하고 임○○ 씨허곤 어떵 뒘수과?
#1 거 멤버들이라.
#1 아, 기우꽈?

#1 으.
@1 거기 딸도 잇잖우꽈?
#1 으.
@1 한 누게.
#1 으, 맞아.
@1 아, 그헹 그 팀덜이구나.
#1 으. 같은 팀들이라.
@1 아.
#1 지금토 거기도 또 후계자 하나 나왓주, 임○○이 각시가. (웃음) 이름은 몰르는데.
@1 으.
#1 후계자 등록뒈실 거라, 그 애도.
@1 아, 기우꽈?
#1 젊은 사름인디.
@1 아이구. 김○○ 하르방 저 만낫엇는데, 옛날.
#1 으.
@1 조사 온 때. 탐라문화재, 한라문화재 허믄 이 하르방이 강예, 연출도 허고 허는데.
#1 맞아.
@1 게믄 멸치후림은 이 동네서는 안 허여?
#1 지금?
@1 예.
#1 지금은 소규모로.
@1 예.
#1 무슨 행사 때.
@1 예.
#1 소규모로.
@1 아, 행사 때 소규모로 헙니까?
#1 요런 거, 요런 거다 허영 보여주는 거뿐이주게.
@1 으.
#1 옛날 멜치후림은이 저 우리 제주도에서 그 첨 일등 헤 가지고 성남 가서도 우리 저 큰 상은 못 받아도 그때 당시는 그 저 양정규 의원네덜, 그 원내 총무로 잇을 당시 아니라? 그디 가서 저 쪼끄만 상은 받앙 왓주. (웃음)
@1 으, 회장님도 ᄀᆞ치 갓구나?
#1 우리도 가낫주마는.
@1 원래 게믄 이 바당 앞에서 멜 후리는 걸 하영 헷수과? 옛날.
#1 저, 동김녕 가믄 그 저 해수욕장.
@1 으.
#1 해수욕장이 옛날, 옛날 말로 농겡이와당, 농겡이와당. (벨 소리)
@1 농겡이와당, 예.
#1 어, 농겡이와당 들어봣는디 안 들어봣는디 모르지마는.
@1 들어봣수다.
#1 들어봐서?

@1 예.
#1 거기가 농겡이와당 거기서 그, 그 범위가 널르니까 멜이.
@1 예.
#1 이 조류에 따라 다니니까. 모 그 이 조류가 안으로 들어오니까 멜이 안으로 또 감도는 거라.
@1 으.
#1 걸 보아 가지고 그물을 쳐 가지고 멜을 잡아서 농겡이와당.
@1 으.
#1 농겡이와당.
@1 으, 농겡이와당예?
#1 으.
@1 아, 농겡이와당이.
#1 예.
@1 그 이름이구나, 이거.
#1 (웃음)
@1 민요 속에 나옵니께게.
#1 나와.
@1 예. 게믄 문화재는 그거 잇고.
#1 으.
@1 그다음에 다른 문화재덜은 엇일 건가? 김녕에. 서문하르방도 문화재로 지정이 뒈 이실.
#1 뒈신가? 그 서문하르방도.
@1 예, 거기예, 미륵도 잇고 영.
#1 으.

일월

정월 멩질

@1 자, 이제부떠는 본격적으로 정월 허젠 허면 정월 멩질은 언제 헤마씨? 여기는.
#1 정월 초하루게, 음, 음력 정월 초하루.
@1 예, 음력 정월 초하루예?
#1 초하루.
@1 예. 그러면 정월 멩질을 허젠 허면 준비허는 건 뭘 헤야 뒐 거우꽈?
#1 준비?
@1 예.
#1 무슨 떡, 뭐 제육, 과일, 뭐 다 그 등등 그거지, 뭐.

떡국멩질

@1 으. 과일하고예? 옛날에 혹시 멩질날, 여기 그 본 멩질허기 전에 국멩질이엔 헹도 헤낫수과?
#1 떡국멩질.
@1 아.

#1 섣둘그뭄날.
@1 예.
#1 으, 그 섣둘그뭄날 으.
@1 으.
#1 자시, 영 시. 영 시를 기준으로 헤 가지고 걸 많이 헷어. 떡국, 떡국, 떡국멩질. 것도 요즘은 뭐 밀가루 뭐 찹쌀 허주만은 옛날엔 ᄆᆞ밀.
@1 예.
#1 으, ᄆᆞ밀로. 메밀로 그 갈아 가지고 멘든 거라.
@1 으, 게믄 그 ᄆᆞ밀로 헤서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
#1 반죽헤 가지고 썰엉, 썰엇지, 짤, 짤라 가지고.
@1 칼국수추룩.
#1 으, 떡 칼국수 식으로 짤라 가지고.
@1 으, 게믄 그거는 몃 누구한테.
#1 조상들한테.
@1 조상들한테. 게믄 멧 개?
#1 우리 조상이 열, 열 사름이다 허민 열 개 올리곡. 또 우리가 어렷을 때 말은 어떤 웃어른덜, 웃어른덜이 하는 이야길 가만히 들으니깐.
@1 예.
#1 정월 초ᄒᆞ룰날 그날 뭐 과세 들이고 뭐 헤서 나이가 먹는 거 아니라.
@1 으.
#1 섣둘그뭄날 그 자정에 떡국멩질 먹어야 나이가 먹는다는 거라.
@1 아.
#1 것도 일리가 잇는 말이 드라고.
@1 게믄에, 삼춘예. 떡, 섣둘그뭄날 자시면.
#1 으, 영 시를 기준으로 헤 가지고.
@1 영 시잖아? 섣둘그뭄 영 시우꽈?
#1 영 시.
@1 건 일월 일일이 아니잖아?
#1 일월 일일 새벽 때지, 게난.
@1 그난 자시에예? 아.
#1 새벽 뒈는 거라.
@1 게믄 열한 시에?
#1 그때 안 일어나민 눈썹 희덴 허여. 열한 시부떠, 열한 시부떠 헤서 한 시는.
@1 한 시까지니깐.
#1 으, 한 시까지는 야튼 영 시가 뒈는 거지, 건.
@1 으.
#1 이? 우리가 그 육갑을 지퍼 봐도 영 시가 뒈는 거라. 거는, 으.
@1 게믄 이제 섣둘그믐날 이제. 게난 정말 초ᄒᆞ루 시작허는 때 허는 거구나?
#1 으, 맞아.
@1 결과적으론예?
#1 그때부떠 시작이라. 시작이 뒈는 거. (웃음)

@1 예, 예, 예, 예. 게난 섣둘그믐이 아니라 그때 허는 거네.

#1 으.

@1 그 밤에 그거를 먹엇어예?

#1 맞아. 밤에 걸 먹어야 뒈어.

@1 올렷당 그걸 먹곡. 그 아까 저 삼춘이 섣둘그믐날 줌자면.

#1 눈썹 희영 헤분덴. (웃음) 게난 거 다 거 하나의, 그 속, 농담이주마는. (웃음) 아이, 옛날 어디, 어디 그런 말이 잇어.

@1 예.

#1 하도 그냥 손자덜이 그냥 밤이 줌을 안 장 그냥 뭐 음식 만드는 거, 거만 먹젠 허니까. 자라 자라 헹 허니깐 이, 자질 안허니깐. 이젠 너희들 게믄 흔번 헤 보렌 헨 말이여, 이젠 그 새벽 뒈난 줌자 불 거 아니라? 게니까 밀ᄀᆞ루 앚당 눈썹에 칠헤 부니까 너네 봐라, 줌자 부난 눈썹 희지 안헷나, 그런 말을 헷다는 거라. (웃음)

@1 아, 우시개로예?

#1 으, 우시개로게.

@1 예. 아, 여긴 떡국멩질을 헷구나예?

#1 아유, 몰라. 지금도 허는 디 잇을까? 거는 잘 몰르크라.

@1 선흘 가난 헙디다. 근데 삼춘넨 이젠 안 허여?

#1 아녀, 아녀. 오랫어.

@1 으, 안 헌지.

#2 안 헌지가 오랫어.

@1 게난 언제 적까지 헌 거 닮으우꽈?

#1 몰라, 거 몰라.

#2 팔십년대 초꺼진 헷어.

#1 팔십 년도꺼진 헷는지 몰르크라. 우리 안 허니까. 건 자세힌 몰라.

@1 으, 팔십 년대 초까지는예? 예. 그러고 멩, 이제 옛날에는 또 멩질허젠 허면 옷들도. 옷 준비, 여자들은예?

#1 으.

@1 멩질, 으.

#1 사전에 준빌 헤야주, 뭐 한복.

@1 예.

#1 보통 한복.

@1 한복 헤영근에. 여기는 제복이렌 헹 따로 안, 안 헙니까?

#1 허는 집안이 잇어.

@1 아, 허는 집안 잇고.

#1 저, 남흘동 안칩이, 안칩엔 그 관복이렌 허주, 관복.

@1 으.

#1 남흘동 안칩에 잇고. 음.

@1 으. 그런.

#1 으, 제복이 잇주, 제복이.

@1 예, 제복예. 그렇게 헤서 하기도 하고.

#1 제볼 때만 입는다 헤서 제복.

@1 으, 그다음에 이제 새베들은 언제 드려마씨? 게믄 아까예, 어, 떡국멩질 헌 다음에.
#1 으.
@1 본 멩질은 어느제 헤?
#1 게니까 그 세배 문제가.
@1 으.
#1 그니까 옛날에 나 이야기를 그 중간에 짤랏는데. 떡국멩질 끗나면은.
@1 으.
#1 세벨 헌다는 거라.
@1 아, 밤에?
#1 으, 떡국멩질날. 그래 그래서 나가 생각헐 때는 아, 이 떡국멩질이 원칙이다, 이거.
@1 으.
#1 그 군적, 구정 초ᄒᆞ루멩질이 이, 이게는 다음이고.
@1 예.
#1 이제, 이제는 그 통상으로 뒈지 안헤서, 이제는. 떡국멩질 안 헤부니까 멩질 끗나근에 이젠 세밸 드린단 말이우다.
@1 예.
#1 이건 잘못뒌 거 아니냐. 옛날 어른들이 맞아, 맞는 말이라.
@1 으.
#1 떡국멩질, 떡국 거 올려난 거 내려 가지고 먹은 다음에, 아, 먹기 전에.
@1 으.
#1 먼저 세배부떠 헤야 그 떡국을 먹엇다. 이거여.
@1 으, 게난 삼춘네도 그렇게 새베헤난?
#1 으, 우리도 헤서, 우리도 헤서 우리도.
@1 게믄 그때는 떡국멩질헐 때는 친척들도 다 와마씨?
#1 아니, 다 가족 단위. 이젠.
@1 가족 단위로?
#1 가족 단위로.
@1 아, 그 당시에 떡국멩질.
#1 으. 밤에.
@1 게믄.
#1 밤에 그 왓다갓다 할 수는 없는 거주게.
@1 아, 게난 가족 단위로 하고.
#1 조용히 헤서 가, 그 집이서만 조용히 제사 지내는 거주.
@1 으.
#1 그거.
@1 게믄
#1 맞는 말이라.
@1 본멩질은 언제 헤마씨?
#1 무슨 멩질?
@1 그 멩질.
#1 멩질은 이제 새벽 뒈야지 뭐.

@1 으.
#1 새벽에.
@1 아니, 거난 떡국멩질 끗난 다음에?
#1 끗난 다음에 이젠.
@1 예.
#1 새벽 뒈얄 거 아니라. 야튼.
@1 예.
#1 헤가 떠야, 헤가 떠야.
@1 으. 헤가 떠야.
#1 그때부떠 뭐 흔 일곱 시 반이나 여덜 시. 게난 것도 저 이제 형제지간 많은 집은 이제 막둥이집부떠 이제 꺼꾸로 올라가지야, 츠츠츠츠. 게난 큰 장손칩이 가믄 오후가 뒈 비어. 우리도 말이여 장손집에만 가믄.
#1 열두 시가 뭐여, 세 시 네 시가 뒈 버려, 진짜.
@1 으.
#1 (웃음).
@1 족은집부터 오니까예?
#1 으, 족은집부떠 올라가니까.
@1 예, 예. 그추룩 헹은에 하고. 옛날에 그 과세들 드리레 뎅기지 안헷수과예?
#1 으.
@1 에.
#1 우리 어린 때 과세 가민은 뭐 줄 게 잇어야지. 요즘은 돈이 많으니까 돈도, 돈 주지만은 옛날은 떡. (웃음).
@1 예.
#1 호주머니에다가 아이구, 첨.
@1 그땐 무슨 떡들 줍디가?
#1 뭐 곤떡, 만뒤떡, 상웨떡 다 그런 거주게.

차례상

@1 으, 그 상 저기 멩질날, 정월 멩질에 그 상에 올리는 거는 무슨 떡 올려마씨? 이 동네는.
#1 제.
@1 올려봅서, 한번. 제물.
#1 제 맨 밑엔 제펜.
@1 예.
#1 시리떡, 제펜. 그다음 뭐 곤떡, 만뒤떡, 뭐 지름떡 요거주 뭐.
@1 몃 가지를 올리는 거라마씨?
#1 뭐 한 네 개, 네 개 다섯 갠 올라갈 건데.
@1 곤떡은 무시거우꽈?
#1 하얀 거, 똥골똥골헌 거, 송편.
@1 으.
#1 으.

@1 여기는 솔벤, 절벤 이런 거 안 헤마씨? 이 동네.
#1 구좌 저 동쪽으로 가면 졸벤(?)끄지 다 잇어. 저 남군 지역에.
@1 예.
#1 여기는 그런 거 엇어.
@1 여기는 그냥 송편 하나예?
#1 으.
@1 그걸 곤떡이렌 헹예?
#1 으.
@1 예. 동복도 가니까 경 굴읍디다, 똥글랑헌 거.
#1 어, 동복이나 김녕도 마찬가지.
@1 어, 게믄 이제 네 개.
#1 여기서 월정, 행원, 행원 지나가믄 뭐 무신 약궤 뭐 졸변(?) 뭐 이상헌 말 많이 허더라고.
@1 여기는 이상헌 말 아니고 딱, 옛날부떠 그냥 제펜?
#1 어.
@1 멧 개 올려?
#1 제펜?
@1 으.
#1 멧 개 올려?
@1 예.
#1 어, 건 조상이 많으면 다 올려야지.
@1 다, 따로따로 올립니까?
#1 으, 따로따로, 어.
@1 아, 떡을 게믄 여기 만약에.
#1 그럼.
@1 할망, 하르방, 그 웃대허면은.
#1 어.
@1 다 따로 올려예?
#1 다 따로. 과일도 따로.
@1 아.
#1 잔, 잔도 또 따로따로.
@1 으.
#1 그렇게.
@1 그냥 우리 저쪽에 보면 떡은 큰 거에 이렇게.
#1 한 군데 올려?
@1 예.
#1 거 제삿법이주, 그거는.
@1 아.
#1 건 제숫법이라.
@1 제숫법은 경허고.
#1 제숫법은 하나에 큰 거 올려.

@1 멩질하고 뚜나예?
#1 올려, 올려근에 놓잖아이.
@1 예.
#1 건 제삿법이고. 명질은, 차례는 그거 아니주. 다 조상이 열 개믄 열 개 다 따로따로 다 올려.
@1 아이고, 게믄 잘도 하영 헤야 뒈켜예?
#1 으.
@1 으, 게믄 그거는 뭐 게믄 혼 빗 헤 갖고 영 올리는 거?
#1 예, 차곡차곡 올려야주게.
@1 으, 반 허듯이예? 그다음에 과일 같은 경우는 여기는 뭘 썻수과?
#1 뭐 홍동백서 뭐 마찬가지 오과. 뭐 삼과 이상.
@1 으.
#1 삼과 이상, 오과.
@1 으, 여기 혹시 비자 같은 것도 올렷수과? 이 동네.
#1 비자가 거 진짜 과일이야, 과일이야. 우리가.
@1 으.
#1 옛날 그 저기 헌 말로 그 오관가 칠과 올리는 덴 비자가 들어갓는데 이 이젠 비잔 옛날에 귀헌 거주게, 진짜 거는.
@1 예.
#1 그건 이젠 안 올려, 안 올려.
@1 게난 삼춘네 집이는 무신 과일 올려?
#1 뭐 배, 사과, 뭐, 감귤, 무슨 또 밤, 대추. 요, 요, 요것 뿐이주, 뭐. 뭐 오과 보통.
@1 밤허고 대추를 올려서예?
#1 으.
@1 이 동네에서는예?
#2 예.
@1 으. 알앗수다. 그렇게 하고. 그 멩질날 특별 음식이렌 허믄 무슨 건고예?
#1 특별 음식이 별다른 게 엇어, 다 떡이나 뭐 과일 그런 거 뿐이주, 뭐.

제수

@1 제숙은 뭘로 헷수과? 여기는.
#1 뒈지고기나 소고기 뭐.
@1 으, 그다음에 바닷고기는?
#1 바닷고기는게. 뭐. 옥돔, 우럭, 돔. 으, 고등어, 고등어 ᄀᆞ튼 거는 비닐 없다 헤가지고. 비닐, 근데 저쪽으로는 거 이상헌 고기덜, 여기 우리가 안 쓰는 고기를 올리더라고.
@1 으.
#1 그쪽으로는.
@1 으, 으.
#1 상어, 상어도 올리고. 상어, 상어도.
@1 상어도 올리고. 상어는 어떤 식으로 헹 올립니까?
#1 적, 적 헤 가지고.

@1 으.
#1 뒈지고기 식으로 짤라 가지고.
@1 그 상어 종류가 여기 읏라 개 아니우꽈예? 뭐 비께여 뭐여 이런 말.
#1 으.
@1 으.
#1 우리 어린 때 보믄 뭐 어잇.
@1 무시거마씨?
#1 어잇, 어잇, 어잇이 싯고, 어윗.
@1 예.
#1 또 어우내기.
@1 어우내기.
#1 어우내기는 뭐, 뭐 집만썩 헌 거라, 나까온 거 보믄, 으.
@1 예.
#1 뭐 그런 거주, 뭐. 비께, 상어 뭐. (웃음)
@1 어잇하고 어우내기렌 헌 고기가 잇어예?
#1 틀려, 틀려.
@1 예.
#1 틀려?
@1 어떵.
#1 어잇은 비닐이 잇는 거고.
@1 예.
#1 거 옛날 사름 말이 잇어. 어잇 비늘 하나믄 옛날 저 쌀 훈 말 줘다고. 보리쏠 훈 말 줘다고.
@1 아.
#1 그 고기가 비늘이, 고기가 그렇게 귀헌 고기라. 저거, 으. 그렇게 귀한 고기라고 말이주. 비늘 하나에 보리쏠 한 말 줘다는 걸 보니까.
@1 으, 어우내기는?
#1 어우내기는 상어 종류, 상어 종류.
@1 아, 어잇은 상어가 아니고 돔?
#1 상어가 아니고 돔. 돔, 돔 형태주 그건.
@1 으, 돔이고예? 으, 그 아까 삼춘 여기 옥돔 올렷덴 헷는데, 옛날도 옥돔 올렷수과, 여기?
#1 옛날도 올련.
@1 옥돔 안 나는데?
#1 옛날도 올렷어.
@1 아, 여기서.
#1 우리 바다에, 우리 밤에 그 오징어 나끄레 가면 옥돔 나까와, 밤에 가서. 여기도 옥돔 나, 가끔, 겐디.
@1 요 구좌 쪽에는 안 나, 저기 함덕이나 요런 데는 우럭이나 이런 것들 올렷덴 헨 게마는.
#1 여기도 우럭도 올리고 옥돔도 올리곡.

@1 예.
#1 뒈는 대로 허는 거주.
@1 뒈는 대로예?
#1 으.
@1 게믄, 경헤근에 이제 차례상 하고. 여기 술 같은 것도 헤신가마씨? 멩질 때.
#1 술, 옛날 우리 어린 때는 밀주.
@1 예.
#1 감저, 감주.
@1 예, 감주.
#1 골감주라 헤서이.
@1 예.
#1 그 좁쌀로 만든 골감주.
@1 으.
#1 그다음은 밀주.
@1 으.
#1 으, 뭐 그. 그거주, 뭐.
#2 청주.
@1 청주도 하고예?
#1 으.
@1 그다음에 그 멩질날, 그 떡국멩질은 헷지만 요즘은 떡국들은 안 헤마씨?
#1 아니, 아니.

금기

@1 안 허고예. 으, 게믄 정월 멩질에 뭐 허지 말라 허는 이런 거 잇수과?
#1 엇어, 엇어. 정월 멩질에 허지 말렌 헌 거 뭐 잇어?
@1 어디 놈의 집에 가지 말라라든가.
#1 아니, 건. 에, 새철 드는 날이지. 또, 또, 또 그게 유언, 유래가 잇어.
@1 예.
#1 저, 이 달력에도 보믄 그 저 입춘.
@1 예.
#1 입춘.
@1 으.
#1 입춘이 우리말론 이게 사투리론 새철 든다, 새철 든다 허주.
@1 예, 새철 든다.
#1 으, 그날은 놈의 집 가지 말라. 그 시간이 잇어, 시간. 시간과 초가 잇어, 이. 만약에 열두 시, 열두 시 멧 분 멧 초. 그 시간에는 가지 말라.
@1 으.
#1 으.
@1 거는 잇당 입춘 때 들어볼 거고예.
#1 으, 입춘, 입춘.

정월 대보름

@1 그다음에 정월 대보름에는 뭐헨마씨? 여기는.

#1 굿 헷주, 굿.

@1 아.

#1 큰굿을 헷주, 정월 보름.

@1 큰굿예. 이 굿은 어디서 헌 거?

#1 굿은, 그 무당네, 무당네 집이서 헷을 거라. 무당네 집이서, 만ᄉᆞ(?)허영.

@1 으. 그 큰굿 허고 정월대보름에.

#1 정월대보름.

@1 아, 이 동네는 정월대보름에 굿허는 날?

#1 예, 굿허는 날로.

@1 그때 뭐 방쉬허거나 이런 액막이들 안 헤신가마씨?

#1 정월. 정월, 정월대보름, 정월대보름날이 아니고. 소금이영 풋영 헤근에 뿌려. 작대기 헤 여근에.

@1 예.

#1 것도 어디 가서 날을 봔에 헷을 거라.

@1 으.

#1 이, 즉 말허믄. 강 보믄, 우리 어릴 때 강 보믄 그 마을 ᄒᆞᆫ 네커리 정도 뒈 보는 어디 담 에염에다 거기다 이상헌, 이상헌 걸, 뭐는 눈에 보이긴 보여, 그런 건.

@1 예. 거 방쉬, 방법으로 헤 갖고.

#1 방법으로.

@1 방법으로 헤 갖고예?

#1 요즘은 그런 거 저, 욕, 욕먹지, 그런 거 헷당은.

@1 으. 게난 네커리나 이런 데 가믄.

#1 으.

@1 그거 차롱에 영 헙니까? 어떤 식으로?

#1 아, 그 차롱에 놓고.

@1 그냥, 그냥 영 놓고.

#1 허는 게 아니라 곁에도 담에염에 세왕, 세우더라고이.

@1 아, 어떤 거를 세웁디가? 거기는.

#1 그 저 찝으로 사람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1 허멩이? 으.

#1 그런 식으로.

@1 아.

#1 다른 거 아니고.

@1 게난 그런 거 이제 방쉬허는 방법예. 허멩이 멘들앙 영 저기.

#1 으.

@1 헷구나게, 찝으로.

#1 찝으로.

@1 그다음에 정월대보름날 여기 뭐 연날리기 허거나 이러지는 안 헷수과?

#1 옛날엔 헷을 거라, 아마도.

@1 으, 연으로도 방법헌덴?
#1 (웃음). 맞아, 방패연, 방패연엔 헤근에 맞아, 헷을 거라, 그 헷어.
@1 으. 그런 건 허고예? 그다음에 그 혹시 이 정월에, 그 점치는 거.
#1 점?
@1 예, 왜냐면 예전에 사주, 그 뭐렌 헙니까, 그 신수, 운수 보는 거.
#1 보통 정월, 것도 보름이 지나서 봣을 거라, 저 토정비결.
@1 예.
#1 (웃음) 토정비결 본다 헤 가지고.
@1 예.
#1 에, 정월 보름 지나 가지고 봣을 거라. 그건이.
@1 보름 지낭예. 예, 보통 그렇게.
#2 아니, 저 포제 지나야 허여.
@1 포제 지낭예?
#1 으.

포제

@1 게믄 포제는 언제 허는 거우꽈? 이 동네.
#1 게난 아까 적지 안헤서게, 야튼.
@1 예.
#1 구정 지나 가지고 야튼 보름, 보름이나 야튼 한 달 내에 야튼 뒈지날을 택헤 가지고.
@1 으.
#1 으, 마을 제사니까. 마을 제사니까 그렇게 지내는 거주.
@1 뒈지날예?
#1 으.
@1 뒈지날 이렇게 하면, 혹시 포제. 이제 왜냐면 제관일 거니까, 회장님이니까. 그 제물들은 어떤 거 헤마씨? 그때는 포제 헐 때는.
#1 뒈지도 통차.
@1 예.
#1 뒈지도 한 마리 통차이.
@1 그 으, 희생이렌 헹예?
#1 희생, 희생, 희생이렌 허여.
@1 으, 뒈지. 그 뒈지는 어떤 뒈지를 씁니까?
#1 까만 뒈지.
@1 아.
#1 흑뒈지.
@1 흑뒈지로예? 옛날부떠?
#1 옛날부떠.
@1 으, 그다음 검은돗 헹은에 하고.
#1 예.
@1 그다음에 또 무시거 올려?
#1 그다음에 과일.

@1 으.
#1 저 메, 메, 메라 헤서 밥은.
@1 예.
#1 저 산메 진다고 산메, 산메 허주.
@1 산메예?
#1 산메.
@1 예.
#1 뭐 조.
@1 으.
#1 보린 안 들어 가드라고.
@1 으.
#1 또 뭣고. (웃음) 피, 피쌀, 피쌀.
@1 아, 피쌀도 허고예?
#1 옛날도 어떵 헹 피쌀이 거 가공허기 힘든 건데, 피쌀로 거 올라, 올렷더라고.
@1 예.
#1 지금도 피쌀 어디서 나와 가민 피쌀밥은 허여.
@1 예. 아, 지금도예?
#1 으.
@1 조허고 피하고.
#1 아, 백메허고.
@1 백메예, 아.
#1 으, 거. 훈 세 개.
@1 세 개 헤 갖고 산메 친덴 헤 갖고.
#1 산메.
@1 이거는 밥을 찌잖아예? 직접 허지 않고.
#1 찐 게 아니고.
@1 예.
#1 그냥 그릇에다 놔 가지고 물, 쌀 쪼꼼 놔 가지고 물을 맞촹은에 그냥 그 통차 놓는 거라.
@1 예.
#1 찜통에다.
@1 찜통에다.
#1 게서 밥을 만드는 거.
@1 으. 게 거 산메 친덴 허잖아예?
#1 산메, 거 산메.
@1 산메. 그렇게 이제 하고. 채소들은 어떤 식으로 헙니까?
#1 채소 뭐, 콩나물, 뭐 고사리, 또 뭐야, 시금치라면 시금추, 아니믄 미나리.
@1 으.
#1 거뿐이주.
@1 이 채소들은 어떤 식으로 올립니까?
#1 이 저며 가지고게. 삶아 가지고 짤라근에 그릇에.
@1 아, 저 익은 걸로?

#1 익은 걸로 삶아, 삶아.
@1 으. 삶아 갖고예? 익은 걸로 하고.
#1 생찬 아니.
@1 그다음에 고기 같은 거, 해어 이거는 안 써?
#1 안 써.
@1 아.
#1 안 써. 해어는 안 들어가.
@1 다른 동네는 해어 이렇게 하면 놀궤기로예?
#1 아.
@1 생차 쓰던데.
#1 우리 마을은 거 안 써. 바릇, 저 뒈지고기만.
@1 뒈지고기만 으.
#1 뒈지 한 마리, 뒈지고기가, 뒈지 한 ᄆᆞ리.
@1 한 ᄆᆞ리.
#1 통차.
@1 어, 희생예?
#1 창자만 헤텅 통차 올리는 거라.
@1 게믄 그거하고 과일하고 산메하고.
#1 으.
@1 채소만 놩예?
#1 거뿐. 예, 거뿐.
@1 아.
#1 간단허주.
@1 여기는 해어는 안 쓴다고예?
#1 해어는 안 써.
@1 여기 돗당 잇어서 그런가?
#1 근데 제주에서도 이, 저 포제, 마을 제사 지내는 데는 가지각색이라.
@1 예.
#1 동복도 그러고, 송당도 그러고, 거긴 굿을 헤여.
@1 예.
#1 이 우리가 듣기론 굿을 헌다, 동복도 마찬가지고 송당도 큰굿을 헌다는 건디. 또 어떤디 월정 같은 디는 뒈지, 뒈지머리 하나만 사다가 마을 제사를 지낸다는 거라.
@1 으.
#1 뒈지머리만 사다가. 뭐 가지각색 그건 가지각색이라.
@1 겡은에 그렇게 헤서 포제 끗나면 그 뒈지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헷수과?
#1 그날 그 제관들, 제관들 이제 것에 삶지, 삶아. 이제 제 이제 포제가 끗나면 다 내려 가지고 이제는. 그 도감이라는 사람이 이젠 그 고길, 술안주, 술 한 잔 먹기 위헤서는 이제 고기 숢아얄 거라.
@1 예.
#1 창자하고.
@1 으.

#1 그래서 먹다 보면은 날이 새부는 거라. 거기서.
@1 으.
#1 (웃음) 겨믄 이제 그 포제청, 포제 제관덜 이제는 쪼끔씩 먹을 만큼씩 짤라주곡.
@1 으.
#1 뭐 그렇게 헌 거라.
@1 동네 잔치는 안 하고?
#1 안 헤여.
@1 아, 건 안 허여.
#1 한 마린디 동네 잔치 어떵 한 마리. (웃음)
@1 어쨋든 제관들한테만예?
#1 으, 제관들.
@1 그럼 제관이 멧 명 정도 뒙니까?
#1 제관 많지.
@1 으.
#1 으, 대축, 대축, 알자, 홀기, 홀기, 어,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또 집사 둘, 어. 여덜, 여덜 뒈는가? 여덜 으.
@1 예, 여덜.
#1 여덜. 집사 둘ᄁᆞ지 헹.
@1 게믄 여덜 명이 이렇게, 며칠부터 준비헙니까?
#1 에, 입사, 입사헤 가지고 보통 한 삼 일, 삼 일. 옛날엔 일주일씩 우리, 우리 어린 땐 일주일씩 헤낫어.
@1 으, 게믄 포제 전에는 거기 뭐 금줄 메거나 영도 헤마씨?
#1 으, 다 헷어.
@1 으.
#1 이제는 금줄 메는 건, 입구 쪽에만 하나지, 옛날은 아까 그 물 잇을 거라, 그 수감물.
@1 예, 예.
#1 그, 거기도 여자덜 출입 못 허게. 다 금줄 다 메서.
@1 으, 그 물 떠당은에 제 저기 헙니까?
#1 그 물은 아이라.
@1 으.
#1 여자들이 출입 못 하게 허는 거라, 야간.
@1 아.
#1 으, 포제허는 건.
@1 으.
#1 또 이제 제관들이 가 가지고 그 정월달에는 눈이 오드레도 강 그 냉수 마찰헹 와야 뒈어.
@1 으.
#1 그 물에, 거기 가서.
@1 어느 물에 가, 청굴물?
#1 아니, 아니. 여기는 그, 저 고냥물도 잇고 수감물도 잇고. 저 흐른물도 잇고 거기 가서.
@1 으, 그냥 다른 쪽예? 청굴물은 그냥 먹는 거니까 거기는 안 하는구나예?
#1 아무래도 저 동김녕은, 동김녕은 저 거기ᄁᆞ진 안 왓을 거라.

@1 으, 그러면은 포제는 이 김녕리, 동김녕, 서김녕 다 합쳥은에 허는 거우꽈?

#1 그전에는 동서김녕, 행정상으론 두 군데지 이제는 김녕도.

@1 예.

#1 옛날 왜정시대에 이 놈들이 통솔하기가 귀찮으니까 이젠 안 뒌다, 헹 이 마을은 두 개로 갈르지 않는다 헤 가지고 동김녕, 서김녕 저기 행정동도 그리 뒀어. 동김녕, 서김녕.

@1 예, 예.

#1 이제는 뭐 저기 하니까 이제 뭐 안 뒌다, 이거는. 김녕은 하나지 뭣 놈의 두 개가 뒐 수 잇냐고 헤서 하나로 헤 부니까 한 군데서 이제.

@1 한 군데서 하고예? 게믄 옛날 동김녕, 서김녕 헐 때는 포제단이 뚜르 잇어난마씨?

#1 또르, 또르, 다 틀려.

@1 게난 그거는 지금은 안 헴신가?

#1 아녀.

@1 안 하고예?

#1 게난 이제 서쪽에 왕 헤불지. 옛날 동쪽에는 저 해수욕장 막 거리가 멀더라고. 우리도 잘 몰랏는데 한번 그리 갓다 보니까 그디가 포제청이라고 허더니. 막 그 모래, 모래판이니까 겨울에 바람 불민 막 모래가 날리고 헐 곳이 아니대.

@1 으, 기구나예?

#1 으.

당제

@1 그렇게 헤서 이제 하고. 당제 허는 거는 알아지쿠과? 삼춘. 옛날 큰당 제 허거나 이런 거?

#1 큰당.

@1 굿허는 거?

#1 큰당제, 저 어디 여기서 아, 그, 저.

@1 궤네기 말고.

#1 궤네기.

@1 저 중학교.

#1 중학교 몰라, 거 심방들이나 아니믄.

@1 으.

#1 누게가 헐 사름은 없는데.

@1 그다음 궤네깃당은?

#1 궤네깃당도 옛날 마을에서 헷던데 이젠 안 헤, 안 헴주.

@1 으, 거기가 희생, 저기, 저기 돗 잡아 갖고.

#1 으.

@1 희생 헤 갖고 헌덴 헙디다?

#1 희생, 맞아.

@1 으.

#1 그런 유래가 잇주.

@1 언제까지 헌 지는 모르고?

#1 몰라.

@1 으, 건 모르고예? 이렇게.

#1 지금도 그 궤네깃당 그 아래 내려가민은 그때 뭐 거, 그릇이나 뭐 무슨 뼈, 뼈들이 지금도 잇다 그래. 우리는 안 내려갓는데.

@1 예, 옛날 거기 발굴도 허고 헷덴 허난.

#1 발굴도.

@1 안 가봅디가? 이 동넨디.

#1 (웃음) 그것에 내려갈 뭐 잇어. 입구에 강 쳐다보다가 올라와 불지.

조왕제

@1 그다음에 여기.

#1 (기침)

@1 그 집에 그 안택 허는 거예? 올레코시나 뭐 벨롱겡이나 이런 말은 안 들어봅디가? 왜 정월 초에 허면 요즘은 뭐 스님 빌어당은에 기도도 허곡 허는 이런.

#1 아, 아.

@1 집안에.

#1 조왕, 뭐.

@1 으, 조왕제렌?

#1 조왕제, 조왕제. 조왕제렌, 조왕제. 조왕은, 조왕은 옛날 부억을 말하는 거라.

@1 부억.

#1 부억을.

@1 예.

#1 이. 조왕제렌 헷어. 조왕제.

@1 으.

#1 (기침) 조왕젠 허는 거 봣는데 다른 거 저기는 뭐 안 헤봣어.

@1 조왕제는 언제 헙니까?

#1 것도 다 정월달에 허더라고.

@1 정월달에예?

#1 보통은.

@1 예, 게민 이거는 여자 삼춘들이 알앙은에 허는 거?

#1 으, 여자들이 알앙 허주, 남자들 관심 안 둬.

@1 그런 건예?

#1 허든말든. (웃음)

@1 허든말든. 게난 여기 또 혹시 칠성, 이런 것도 모십니까?

#1 칠성은 거 모시는 집은 없어, 칠성에는.

@1 으.

#1 에, 옛날 그 저 옛날 할라산에 강은 남을 베어다게 배를 멘드는 사람덜.

@1 예.

#1 그런 사름덜이 그 칠성, 뭐, 저기를 헷다는데 그런 사름 못, 못 봣어, 우리는.

@1 으, 아, 그 배 짓는 사람들이 한라산에 강은엥.

#1 한라산에 강 나무 헤다가.

@1 예.

#1 그 나무를 이제 배를 지엇다는 거라, 이제는. 옛날도 그 즉 말허면 터위목.

@1 예.
#1 뗏목, 뗏목.
@1 뗏목.
#1 그런 것덜, 이제 자그마헌 거 소형 어선들 헷당 헤가지고 제헷다는 말인데. 것도 확실히 뭐 어떤 저, 뭐, 우린 뭐.
@1 배 안 허니까.
#1 으, 나도 선박 생활 나가 이십이 년 헤긴 헷는디.
@1 아, 기우꽈? 으, 게믄 그게 칠성에 허는 거?
#1 으, 칠성으로 헤 가지고 거 제를 봣다는 말이 잇긴 잇어.

문전제
@1 아, 이거는 한번 확인헤 봐야 뒐 저기네. 그다음에 이제 뭐 문전제 이런 것도 헤마씨?
#1 예.
@1 문전제는 언제 허는 거?
#1 문전제, 저, 제ᄉᆞ날도 허고 다 허지.
@1 아.
#1 뭐 그 영장 때만, 영장 때만 아녀고. 대소상 다 허고. 대소상 때도 문전제, 문전 올리고. 문전젠 나그네, 나그네 먹고 간다 헤 가지고 문전제주.
@1 으.
#1 먼저 올리지 아녀, 또. 보이, 저 우리 조상부떠 몬저 올려얄 건디.
@1 예.
#1 나그네가 몬저 왕 앚은 덴 허영 문전제, 문전제부떠 먼저 올린단 말여.
@1 예.
#1 또 제사 먼저 까는 것도 문전, 문전부떠 먼저 파제헤 불곡.
@1 어.
#1 거, 희안헤.
@1 제 벌이는 것도 문전부떠?
#1 문전부떠 올려야주.
@1 으, 으.
#1 몸제[쩨]부떠 올려야 원칙인데 우리 생각에는.
@1 예.
#1 (웃음).
@1 아, 게믄 그거는 영장 때만 안 헙니까?
#1 돌아가신 때는 문전제 안 허지.
@1 으.
#1 그 돌아가신 그 스, 분도 옛날에는 그랫다 허여, 생운.
@1 예.
#1 살아잇는 사람으로 인정허기 때문에 건 필요없다, 으.
@1 으.
#1 으. 우선 무덤, 무덤으로 간 후에 이제는 망인이 뒈는 거지.
@1 예.

#1 아직은 몸은, 시신은게, 저기 헤도게 살아잇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라?
@1 그거를 생운이렌 굴아?
#1 생운, 생운이렌 곧주기.
@1 으.
#1 생운.
@1 생운.
#1 옛날 읖집에서 제사나 뭐 저기 허민 옆엣 집에 상 모시면은 그 생운 집이 앗아가라, 앗아가라 경. 생운칩이 보낸단 말이여.
@1 아, 삼년 전에를 생운이렌 헤예?
#1 으.
@1 예, 요즘은 사십구재 전에는 어쨋든 살아잇는 사람처럼 그 숟갈 이런 거 놓는 것도 똑같이 한덴 허드라고예. 그 삼년 지나야 거꾸로 이렇게.
#1 에고. 옛날 뭐 다 마찬가지라. 우리 어린 때는 부모가 돌아가셔도 삼 년을 봉양을 헷어, 삼 년을.
@1 예.
#1 매달 초ᄒᆞ룰보름, 삭, 삭망일 제헤야 뒈.
@1 예.
#2 아침밥, 정심밥 다 올리곡.
#1 보름을. 또 소상, 대상. 또 소상 대상 끗낭 뭐, 뭐 무슨 뭐 또 그 제가 또 많아. 아이고.

보리밟기

@1 맞수다. 혹시 여기 보리, 여기, 여기도 바람이 쎄난 보리밟기도 헤봅디가?
#1 보리밥?
@1 아니, 보리밧 불르는 거.
#1 아이구, 옛날 보리밧 불랏주기, 다.
@1 보리 언제 불릅니까? 보리 불르는 거는.
#1 그거는 정월 뒈야 뒈어.
@1 아, 것도 보리 불르는 것도예?
#1 으.
@1 예.
#1 정월에.
@1 으.
#1 저 봄 오기 전에 북삭허지 말렌 붋아주는 거. 요즘은 보리 불르는 것도 뭐 차 앗앙 강 싹 돌아 불민 뒈는디. (웃음)
@1 아.
#1 눌러지는 거주.
@1 예, 예.
#1 겨울에.
@1 예.
#1 그 눈이 오곡 저기 허면 땅이 올라, 곳아 부, 곳아 분다 허주.
@1 예.

#1 올라왕.
@1 예, 예.
#1 게 이걸 눌러줘야 보리가 뒈어서 차 앗앙 다려 부는 거주.
@1 아, 요즘은 차로 헹은에 다려예?
#1 으, 싹 돌믄게.
@1 옛날에는.
#1 밟아주고.
@1 다, 다 밟아주고.
#1 옛날에는 말이나 소 잇는 사름은 걸로도 밟앗지.
@1 아, 소하고 말로도.
#1 으.
@1 발란마씨?
#1 으.
@1 정월에?
#1 으.
@1 으, 그렇게 보리 갈 때는 안 밟잖아예?
#1 안 갈아.
@1 예.
#1 조는, 조는 밟아야 뒈어.
@1 으 조는 밟.
#1 여름에. 바람에 불려 불카부덴.

걸궁

@1 으, 여기 이 동네, 걸궁도 헷수과?
#1 헷어.
@1 걸궁은 언제 헙니까?
#1 것도 정월 보름 전에 한 걸로 알고 잇어, 이, 저 걸궁. 그 포제 끗나민 걸궁 들어가주.
@1 아, 포제 끗나면, 걸궁허는 이유는 뭐우꽈? 무사 걸궁 헙니까?
#1 거, 잡신이니 뭐니 헤 가지고 것도 뭐 하나의 무슨, 큰 뭐 미신으로 생각은 안 허는 것 같아. 그, 저 이제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가면서 거 뭐 첨 봉양을 받아.
@1 예.
#1 거, 재미로 허는 거 닮아. 무슨.
@1 으.
#1 큰 뭐 미신이 잇는 것도 아니고, 어. 옛날 그 놀이주, 놀이.
@1 놀이로예?
#1 즉 말허민 놀이.
@1 게믄 그 걸궁 헐 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헤마씨? 걸궁은 누게네가 허는 거?
#1 그때 리에서 헷지, 리에서.
@1 아, 리에서.
#1 리에서, 리에서.
@1 으.

#1 리에서 헤서. 리에서 헤근에 그, 저 포수가 나와긴에 같이 다니주.
@1 아, 포수도, 포수도 허고.
#1 하나의 놀이 재미로 저기 헌 거지.
@1 으.
#1 무신 그디 신이 잇는 것도.
@1 잇는 건 아니고예?
#1 아니고 그건 아닌 거 닮아.
@1 거난 마을 뭐 기금 마련하거나 이렇게 헐 때는 그추룩 허멍은에.
#1 어, 그걸 수도 잇엇주.
@1 걸궁 헷덴 허멍 헷덴 헨게마는. 으, 그 걸궁은 언제 정도 헌 거 닮수과?
#1 어, 걸궁은 오래 헷어.
@1 으.
#1 뭐 흔 일주일쯤. 흔 일주일 정도 헤실 거라.
@1 일주일 정도예?
#1 으.
@1 게난 집집마다 돌아다니멍?
#1 마을이 크다 보난.
#2 한 칠십 년 뒛어, 엇어진 지가.

새철 드는 날

@1 으, 한 칠십 년 이제 뒈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정월에 잇는 게 절기 허면은 입춘, 아까 새철 드는 날에?
#1 입춘, 입춘.
@1 으, 새철 드는 날은 어떵 헨마씨?
#1 남의 집에 가지 말아야 할 거.
@1 으.
#1 일차.
@1 예. 놈의 집 가민 어떵 헌덴 헙디가?
#1 어?
@1 놈의 집 가민 어떵 헌덴 헙니까?
#1 뭐 소곰이나 물, 물 뿌려 분덴 허주.
@1 으.
#1 뭐허러 왓냐고, 으. 아, 자기네 집이 정성허고 잇는데 줄락허게 가봐게. 오죽 성질날 거 아니라. 그리고 또 무슨, 무슨 소릴 내지 말아야 뒐 거고. 으.
@1 으.
#1 그릇 같은 거 소리나 무신 뭐 깨진 소리나 이런 것도 내지 말아야 뒐 거고.
@1 조용허게.
#1 조용허고.
@1 게난 절기가 새로 들어와서.
#1 으.
@1 그런 거구나.

#1 조용허게 보내야 한다는.
@1 혹시 입춘에 뭐 음식을 따로 헹 먹거나 이런 건 안 합니까?
#1 그런 건 안 헤봐서.
@1 그런 건 안 하고.
#1 으.
@1 옛날 입춘에 보리점은 쳣덴 허는데. 보리 뽑앙은에.
#1 몰라.
@1 건 모르고예?
#1 그런 건 모르고.
@1 에, 게난 어짯든 입춘에는 몸을 쫌 조심허라, 이렇게.
#1 으, 조심헤야 뒈어.
@1 예, 예.
#1 서로 조심헤야주. 게난 여기는 딱 나, 나만 조심허는 게 아니라, 으.
@1 으.
#1 오는 사름도 조심하고.
@1 으.
#1 거 부모덜도 아이덜한티 그 자식들한테도 교육도 시키곡. 남의 집 가지 마라.
@1 으, 요즘도 그게.
#1 아, 이젠 없어.
@1 이젠 엇어마씨, 으.
#1 이젠 뭐 해방이라, 이제. (웃음)

방에부찜
@1 그다음에, 혹시 이 동네도 저기 목장 이런 게 잇수과?
#1 목장 잇어.
@1 아, 잇어예? 예전에 뭐 쉐덜 길랏으니까.
#1 예.
@1 방에 놓는 거.
#1 옛날, 불을 놧주.
@1 예.
#1 거는 저 이 새풀을 잘 나기 위헤서는 불을 부찌는 거라 이제.
@1 예, 으, 새 풀 잘 나게예?
#1 목장에.
@1 뭐 진드기도 없애고.
#1 진드기도 없애고.
@1 건 보통 어느 철에 헙니까? 불 부찌는 거.
#1 그것도 뭐 흔 정이월에 허는 걸로 아는디.
@1 으.
#1 그 새풀이 나오기 전에.
@1 새풀 나오기 전에예?
#1 나오기 전에.

@1 예. 그런 식으로. 그거를 불 논덴 헤마씨?
#1 아.
@1 불 놓고. 게난 여기는 보통 어느 쪽에 목장이 이신 거라마씨?
#1 바로 요쪽에, 남쪽에.
@1 남쪽 그 지경은 뭐우꽈?
#1 남쪽에?
@1 으. 그 목장 지경이.
#1 지경 저 둔짓ᄆᆞ를.
@1 으.
#1 둔짓ᄆᆞ를 또 세난동산.
@1 으.
#1 동쪽에는 또 그 이름 몰라. 동쪽에는 잘. (웃음)
@1 으. 쉐난동산은?
#1 쉐난동산.
@1 무사 쉐난동산?
#1 거. (웃음) 것도 유래가.
@1 예.
#1 에, 어떤 사름은 그 쉐난동산이 조그만 동산인디 그 안에 우물, 우물이 잇어.
@1 아, 거기도 물이 잇어마씨? 으.
#1 게난 소가 임신뒌 소가 그 물 먹으레 들어갓다가 올라오지 못헤 가지고 거기서 새낄 나벼다는 거라, 그래서 쉐난동산 잇고.
@1 으.
#1 또 한 사름은 어떤 어떻게 그 이야기를. 그 물에다 그 녹 녹물, 녹물이 피니까 쒜가 나온다 이거라. 이기서.
@1 으.
#1 그래서 쒜난동산.
@1 쒜난동산.
#1 그런 말도 잇고.
@1 아, 두 가지로 ᄀᆞᆯ암구나예?
#1 두 가지로 ᄀᆞᆯ암서.
@1 둔지ᄆᆞ르는.
#1 둔짓ᄆᆞ르. 거 사람의 등.
@1 예.
#1 굽으믄 등, 등 같은 형태가 뒈서 등짓ᄆᆞ르, 등짓ᄆᆞ르.

이월

영등굿

@1 으. 등짓ᄆᆞ르예. 예. 겡은에 이렇게 정월 끗나면 이월달은 여기서 무슨 달 헙니까?
#1 이월달에 뭐 저기 허는 거 잇어?
@1 영등ᄃᆞᆯ.

#1 영등, 영등굿.
@1 으.
#1 영등굿.
@1 이월에 허는 건 영등굿예?
#1 영등굿.
@1 예, 예. 영등굿은 언제허는 거우꽈? 이거는, 여기는.
#1 영등굿은 보통 정월 끗나면은 이젠 영등굿 다음은 이제 또 해신제.
@1 예.
#1 해신제.
@1 예, 예.
#1 다음은.
@1 으.
#1 그렇게, 그렇게 허더라고.
@1 으. 보통 여, 여기.
#1 해.
@1 영등굿 초ᄒᆞ룻날 영등 들어온덴 허잖아예?
#1 어.
@1 어디로 들어옵니까? 여기서는.
#1 여기서는 서로 와 가지고 보름날 우도, 아, 열나흘날 우도 가서 잠잣다가 나간다는 그런 말, 그런 유언이 잇주.
@1 열나흗날 우도?
#1 열나흘날.
@1 예.
#1 열나흘날 우도 가서 잣다가.
@1 예.
#1 보름날 새벽에 나간다, 그 할망이.
@1 으. 예, 영등할망 그렇게 헹 나가고.
#1 으.
@1 그러면은 어디서 들어온덴 헌 말은 모르쿠과?
#1 어디서 들어온 건 몰라. 서쪽으로 온다는 말은 들어도 어디서 오는지는 몰라.
@1 게믄 여기는 메칠날 영등굿 헙니까? 이 동네는.
#1 영등굿, 여기도 여기도 ᄒᆞᆫ 보름, 보름 뒐 건데. 아, 보름이 아니라.
@1 아니 보름은 나가니깐.
#1 초ᄒᆞ루.
@1 초ᄒᆞ룰날 허고.
#1 초ᄒᆞ룰날 허고.
@1 그다음에 큰굿은 열사흘, 아니면 열나흘.
#1 열사흘, 열사흘 둬겟다이. 열사흘날, 열사흘날.
@1 예, 이런 식으로 허잖아예?
#1 예.
@1 거는 영등굿은 무사 허는 거우꽈?

#1 영등할망 맞이, 할망맞이굿 아니라.
@1 예.
#1 예.
@1 영등할망맞이굿이난.
#1 예, 맞이굿.
@1 이거는 영등할망은 누구를 도와주는 거?
#1 바다에주, 바다.
@1 바다.
#1 해녀들.
@1 으, 해녀.
#1 바다.
@1 바다예? 게믄.
#1 바다. 그 물.
@1 게믄 주관은 누게가 헤? 그 영등굿은.
#1 해, 어촌계에서.
@1 어촌계에서 헤 갖고예?
#1 어촌계, 해녀들 주관이주게, 어촌계니까.
@1 으, 해신제는마씨?
#1 해신제도 마찬가지라.
@1 으. 그 음력 삼월 팔일날 허는 거는 무슨 제우꽈?
#1 해신제 아니?
@1 으. 잠수굿 허는 거를 여기서는 해신제렌 헴구나?
#1 해신제라, 해신제렌.
@1 김녕잠수굿 유명헌덴.
#1 이젠 잠수굿이 엇주. 다 해신제로.
@1 해신제로예? 이게 그 서순실 심방이 허는 거?
(생략)
@1 영등굿 이렇게 어촌계에서 하고 해신제도 하고예. 나도 여기 잠수굿 헐 때 한번 왕 구젱기적예. 이런 거 헹은에 줍디다마는.
#1 으.
@1 게니까 이제 음력 삼월 팔일이지예? 이게예.
#1 예.
@1 음력 삼월 팔일이고. 영등굿은 이월. 게난 그 들어올 때 환영허면서 한 번 허고 나갈 때 송별제 허거든마씨, 보통.
#1 영등굿을?
@1 예. 게난 들어올 때는 족게 허고 나갈 때를 크게 허는 건데.
#1 근데 옛날에 영등굿 헤도 이제 영등굿 허는 말은 엇어.
@1 아, 이젠 영등굿 헌덴 헌 말은 엇어예? 아.
#1 영등굿 허는 말은 엇어.
@1 해신제가 잇어서 이제 통합헷나 보다.
#1 그런 모양이라.

@1 그러면 이렇게 해신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 영등헐 때 무사 금기허는 거 잇잖우꽈? 뭐 빨래허지 말라 허는 말도 잇고.
#1 그런 말은 못 들엇는데.
@1 아, 안 들언예? 우리 저쪽에는 허는 데예?
#1 아, 저쪽에는 허는구나.
@1 영등 들어오면 빨래허면 구데기 인다 이런 말 안 들어봔예?
#1 아, 그런 말 안.
@1 아, 안 들어봔예? 아. 그다음에 이 이월이면, 음력 이월이면 뭐 농사짓는 뭣들 이신가마씨? 영등 올 때 뭐 검질도 메지 말렌 허곡, 아니면 우장 쓴 영등이여 이런 말도 안 들어보고.
#1 으, 우장 쓴 영등. 그, 그, 그 시절에 맞촨 그런 말을 부쪄 놓은[논] 모냥이라. 것도이.
@1 예, 예.
#1 비가 많이 오거나.
@1 예.
#1 예, 우장 우장은 옛날 비 많이 올 때.
@1 쓰는.
#1 거 지금은 우비주만은.
@1 예.
#1 그 옛날에 하르방덜 그 새를 여껴 가지고 만든 게 우장, 우장 헷주.
@1 예, 맞수다.
#1 게난 비가 많이 오는 날 우장 쓴다 헤 가지고.
@1 으.
#1 그런 말들 헌 모양이라.
@1 그런 말들은 좀 잇엇지예?
#1 어.
@1 그면 정, 그 그리고 정이월 검은암쉐.
#1 뿔 오그라진다.
@1 으, 그 완전 추워.
#1 (웃음) 그게 그만큼 추웟다는 거주게, 게난.
@1 으. 그런 말 여기, 이 동네도 허여? (중간 생략) 에, 그렇게 헤서 그 절기.
#1 겐디양.
@1 예.
#1 말이 막 왓다갓다 동으로 서로 왓다갓다 헤부난 나도 막 혼동뒈 부네.
@1 으, 예.
#1 나가 이젠 옛날 구정, 에, 구정 끝에는 이제 이 명질로 딱 갈 거 아니우꽈?
@1 예.
#1 초ᄒᆞ룰 이제 구정을 초ᄒᆞ룰, 초ᄒᆞ룰날 멩질. (전화 소리) 그날은 뭐냐면 오월.

멩질

@1 단오.
#1 단오 멩질 잇엇거든.
@1 으, 게 이따가 들어보젠 헤신디.

#1 게난 그 막 넘어가야지. 이제는 왓다갓다 나도 막 혼동뒈 부네. (웃음)
@1 예. 알앗수다.
#1 단오 멩질은.
@1 으.
#1 옛날은 단오 멩절은 뭐냐믄 보리쌀, 압쌀을 멘들아 가지고.
@1 아.
#1 보리로.
@1 예.
#1 그 압쌀 들어봅디가?
@1 예게, 예.
#1 압쌀, 압쌀은 어떠냐면.
@1 압쌀을 골아줍서게. 여기 모르는 선생님도 이시난.
#1 아니, 보리가 여물을 이제 그 노랗게, 보리가 익으면 노랗게 노란 건데. 그, 그 ᄀᆞ시락이라고 헤 가지고 그걸 파랏을 때, 파랑, 퍼렁헐 때.
@1 다 익지 않을 때니까.
#1 짤라 가지고 걸 부벼 가지고 이젠 솟디다 쪄, 이제는.
@1 으.
#1 쪄 가지고 이제는 걸로 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쌀을 오월 단오날 명질 헷다 이거라. 으. 하긴 뭐 제주에는 옛날 쌀이 잇어서. 솔직이 그런 때주게.
@1 맞수다.
#1 뭐 조팝, 보리밥, 조팝, 보리밥도 귀할 땐디. 그 옛날 어룬들이 그 얼마나 지혜가 넓은 거라, 게난 그걸 짤라다가 삶아 가지고 또 압쌀 멘들아서 멩질을 멘들, 멩질 헷다 허난 참 지혜가 넓으신 분덜 아니라, 옛날 어룬들.
@1 그니까 오월 단오 때도.
#1 단오 때.
@1 압쌀로예?
#1 단오 멩질, 단오 멩질이주게.
@1 예.
#1 그래서 또 지금도 오월 단오는 어디 강원도 쪽인가 어느 쪽인가 하고 잇다 그런 말도 잇어, 그.
@1 이 김녕은 언제까지 헷수과?
#1 아고, 오래엇어.
@1 으.
#1 으.
@1 겡 압쌀로 허영. 그다음엔.
#1 그다음에 이제 또 유두 명절이 잇잖, 유두 명절이라고.
@1 예.
#1 으, 유월달엔가 뭐 허는 거.
@1 예.
#1 유두 명절도, 유두 명절도 헷다는 거고.
@1 이 동네도 유두 명절 헨마씨?

#1 옛날도 헷다고 그러대.
@1 아, 그때 유두 멩질은 뭐헷수과?
#1 유두 명절은 이제 여름에, 아 겨울에 헌 걸 이제는 다 수확허고 난 다음에 이제는 또 여름 농사라도 파종헐 거 아니라?
@1 예.
#1 게난 그 농한기 틈 타 가지고 명절을 지냇다 헤 가지고.
@1 으.
#1 유두 멩질.
@1 걸 어떤 식으로 헹은에 허는 거?
#1 건 자세히 모르지, 우리는 어떤 식으로 헷다는 거는.
@1 어.
#1 유두 명절, 그 유두 명절 우린 말만 든 것뿐이지.
@1 아, 유두 명질이렌 말은 들고예?
#1 아.
@1 예. 그다음에 멩질 허게 뒈면?
#1 그다음엔 이젠 또 뭐 칠석날.
@1 예.
#1 칠월 칠석날.
@1 칠월 칠석.
#1 어. 칠월 칠석날도 제를 지냇다고 그러고.
@1 으, 무슨 제 지냇덴 헙디가? 그때는.
#1 칠석제지 물론.
@1 칠석제예?
#1 칠석제주.
@1 칠석제 헐 때는 어떤 식으로 지냇수과? 그거.
#1 칠석제는 옛날 그 여자들이 그 한복을 소복을 입, 입어 가지고.
@1 으.
#1 제를 지냇다는 그런 말을 들은 거뿐이지, 뭐 우리가.
@1 아, 소복 입어 갖고예?
#1 으.
@1 게믄 칠석에 점도 친덴 허멍예?
#1 점?
@1 어, 무슨 버섯 같은 거 영 헤영.
#1 거는 모르고.
@1 무슨 좀팍 헹. 거는 모르고?
#1 거는 모르고.
@1 그다음 칠석하고.
#1 그다음 이제 팔월 추석 이제 넘어가지.
@1 예. 팔월 추석 하고.
#1 추석 그다음은 이제 뭐 정월달로 넘어가는 거주, 이제는.
@1 예. 멩질은 그렇게 하고. 한식은 안 헷수과? 여기.

#1 한식?
@1 예.
#1 한식 멩질, 한식 멩질은 봄에 뭐 한식 청명 때 허는 거.
@1 으.
#1 건 아녓어.
@1 아, 건 안 허고예? 여기는 단오 멩질을 압쏠 헤 갖고 이제 한다는 거예, 예. 그거는 멩질이고 그다음에.
#1 그러나 아까 그저 칠석날 그 유래를 쪼끔 우리가 들어보니까 에, 남자들은 걸 간섭을 안 허고 여자들이 다 저기헤 가지고 그 제를 지내는디, 그 소복을 입고.
@1 으.
#1 게난 것도 첨 이상헌 말이주마는 소복을 입으민 여자가 팬티를 안 입어. 소복만 입엇다 거라.
@1 아.
#1 게서 제를 지냇다.
@1 아.
#1 그것도 이상허지 안허여, 것도. 우리가 듣기는.
@1 예, 그거는 무사 경 헤신고예?
#1 그니까 우린 모르지, 게난.
@1 아, 팬티를 안 입고.
#1 안 입고.
@1 소복으로, 으. (벨소리)
#1 으.
@1 이것도 풍요 이런 저기를 헷구나.
#1 으, 거 희안허여, 그런 말, 그런 말이.
@1 예, 예. 왜냐면 그때는 제석할망한티 하는 거거든. 제석할망이렌은 안 들어 봅디가?
#1 제석, 제석할망. 들어봐도 제석할망이 어떤 건지 알아, 알아야주, 거.
@1 예, 농사를 잘 뒈게 헤주는.
#1 잘 뒈게 헤주는.
@1 예. 아, 이거 처음 들엇네.
#1 예, 소복 입엇다는 건 처음 들읍디가?
@1 예. 소복 입어근에 이제 저기를 헷다는 말은예?
#1 으.
@1 그다음에 어, 아까 그 정, 정이월 그 ᄇᆞ름살에 검은암쉐 뿔 오그라진다.
#1 뿔 오그라진다. 추웟다는 거주, 그만큼.
@1 예. 게난 그런 말 여기도 헷지예?
#1 으.
@1 으, 그다음.
#1 검은암쉐 뿔 오그라진다. 암쉐, 숫놈이 뿔 오그라진, 암쉐.
@1 예. 검은암쉐.
#1 암소, 암소가.
@1 예, 검은암쉐.

#1 뿔 오그라졋다, 이거라.
@1 예, 예. 정이월 ᄇᆞ름쑬에 검은암쉐 뿔 오그라진다.
#1 뿔 오그라진다. (웃음)

삼월

@1 그다음 삼월 뒈면 아까 한식 명절 안 헷덴 허고. 그 여기 산담 손질허거나 이런 거는 언제 헨마씨?
#1 산담?
@1 예.
#1 산담?
@1 예. 그 청멩에 혹시 벌초헙니까?
#1 이제, 옛날에는 벌초 뭐 일 년에 훈 번 헐까말깐디 말이야. 이제야 시간나는 대로 뭐 지네 조상 산에 강은엥에 기계 가졍 강 싹싹 비어 부난 깨끗허주이. 풀만 올라와가민 거 못 견디게 짤라 데껴부는 디야 뭐.
@1 아, 삼춘네도 경헤마씨?
#1 어, 우리 우리 아이덜 나 안 시켜도 아이덜 강은에 먼저 벌초 헹 왓수다 허민.
@1 으.
#1 그냥 강 보민 깨끗허고.
@1 예.
#1 풀 자란 거보다는 얼마나 보기 좋아.
@1 예, 맞수다.
#1 게난 이제는 공동묘지 아이라 이제는 공원지구라, 공원지구.
@1 으.
#1 강 보믄.
@1 게믄 여기 저기 입산봉?
#1 입산봉, 입산봉.
@1 입산봉예?
#1 입산봉.
@1 아. 이 동네는 거의 입산봉?
#1 다 입산봉. 입산봉도 유래가 잇어.
@1 예.
#1 옛날 못사는 사름은 입산봉에 강 묻어, 묻어, 묻엇다는 거라. 못사는 사름덜은.
@1 예.
#1 또 첨 어느 정도 사는 사름은 그 풍수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명당을 찾아 가지고 다니다가 눔의 밧 가운디 강 산을 써 불곡.
@1 아.
#1 못 살게 말이지.
@1 아.
#1 그게 잘못뒌 거주, 게난.
@1 예.

#1 결국 그 사름덜이 얼로 왓냐면 이제 다시 다 입산봉으로 다 온 거라. 이제는.
@1 으.
#1 으. 게, 이럴, 이럴, 이럴 수가 잇냐 말이지, 게난.
@1 으, 풍수.

청명

@1 예, 맞수다. 겡 그렇게 이제 하고. 게믄 그 옛날 청멩이라든가 한식에는 산소허고 산담 허고 허는 이런 것들은 엇어?
#1 무사게. 청명 한식 허게 뒈믄 산에 강 풀도, 풀도 저 까시도 캐곡.
@1 으.
#1 산담 헐 사름, 산담도 허곡. 뭐 그렇게 헷주.
@1 그런 거는 헷지.
#1 으.
@1 풀 캐는 거예?
#1 으.
@1 예, 그걸 다른 말로 허지는 안헙니까?
#1 다른 말로.
@1 그리고 여기는 쉐 질룰 때 목장에 쉐 올려?
#1 으.
@1 언제 올렷수과? 쉐 올리는 거는?
#1 거 사월에 풀이 나기 시작헤야 올리주게.
@1 으.
#1 먹을 게 잇어얄 거 아니라.
@1 게난예. 그게 청멩 ᄀᆞ르 아니?
#1 청명, 청명 시기.
@1 음력이 삼월이고 양력은 사월이고.
#1 청명 시기에도 목장에는 풀이 나올둥말둥.
@1 으.
#1 나올둥말둥.
@1 게믄 그 이후에예?
#1 그 이후에.
@1 으.
#1 풀이 어느 정도, 뜯어먹을 정도 뒈야 소 올려부는 거주.
@1 예. 겅헤근에 이제 쉐 올리고. 여기도 쉐 ᄀᆞ꾼덴 헙니까? 쉐 질룬덴 헙니까? 이 동넨.
#1 질루는 거.
@1 여기는 질루는 거.
#1 쉐 질루는 거.
@1 어, 저 남쪽 가믄 ᄀᆞ꾸고예?
#1 ᄀᆞ꾸고. (웃음)
@1 쉐 ᄀᆞ꾼덴 허여, 저긴.
#1 거 말이, 제주도 안에서도 희안헌 말들이 많여.

@1 예.
#1 나양 저 애월 가니까 물꾸럭 물꾸럭, 뭔 놈의 물꾸럭이렌 허난 물꾸럭.
@1 여기는 문게.
#1 (웃음). 여기는 물꾸럭 말은 몰라. 이딧 사름들은 물꾸럭을 몰라.
@1 문게.
#1 문어, 문어. 예, 문게.
@1 문게예, 으.
#1 물꾸럭, 물꾸럭. (웃음)
@1 게니까 이거 언어가 재미잇는 거예?
#1 아이고 참, 희안허여. (웃음)

사월

@1 그다음에 삼춘, 여기 초파일.
#1 예.
@1 여긴 또 절들도 한게만은. 초파일에 허는 뭐는 엇어마씨?
#1 어, 초파일은 절에서 뭐 것도 행사주, 하나양.
@1 으.
#1 신도들 가서 기도도 드리고.
@1 으.
#1 여기도 동김녕 절 하나 잇고 서김녕 절 하나 잇고 두 군데 잇어.
@1 으. 그 꿰들은 언제 싱, 갑니까? 꿰. 초파일에 뭐 꿰 갈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1 초파일에?
@1 예.
#1 초파일에 꿰씨를 뿌리기는 뿌려.
@1 으.
#1 근데, 에 이딘 그런 거 엇어.
@1 그런 거 엇어?
#1 에이. 뒈는 대로 막 뿌령, 원.
@1 그 옛날 ᄉᆞ월 입하 이런 말 헷지예? 입하, 입하. 절기.
#1 입하?
@1 예.
#1 으.
@1 그때 입하에는 뭐허는 절기우꽈?
#1 입하가 저기는 이제 여름 절기.
@1 예, 들어가는 거잖아예?
#1 절기, 들어가는 거주기게. 경허난.
@1 예.
#1 그때는 근디 입하나 절기만 정허지, 뭐 그게 허멍도 뭐 엇는데.

오월

@1 으, 그런 건 엇고예? 그다음에 아까 단오 멩질헐 때는 압쏠 헤갖고 이제 하고.
#1 으.
@1 거기 그때 단오 멩질 헐 때는 이 제물이라든가 이런 건 어떤 식으로 헤마씨?
#1 옛날, 옛날은 제주에서도 그 밀을, 밀을 재배헷거든, 밀을.
@1 예.
#1 밀.
@1 으.
#1 에, 밀을 재배허니깐 아마 다 밀떡이지, 솔직이.
@1 으.
#1 밀떡, 다.
@1 이 김녕에 밀떡. 상웨떡 막 유명허지 안헙니까?
#1 상웨떡.
@1 예. 상웨떡도 영 저기 종류가 ᄐᆞ납디다. 동글랑헌 것도 잇고, 네모난 것도.
#1 아니 여기는 똥그란 거.
@1 아, 여긴 똥그란 거.
#1 우리 외가가 함덕이주.
@1 예.
#1 함덕. 우리 어머니가 한씬데. 함덕에 가면 한 씨가 많아.
@1 예, 함덕 한씨 유명허지예? 예.
#1 게난 우리 외할아부지 제삿날엔 우리 어무니허고 나허고 이젠 그 상웨떡을. 옛날 동이 아니라 동이.
@1 예. 동이.
#1 쒜로 큰 동이 허영 수북이 앗아오민. 거 함덕 그 외가 거 하르, 어룬들이 많아, 가믄.
@1 으.
#1 근디 그 팟에 들어갈 구멍이 없는데 이 쪼개 보면은 쏙에 팟이 들어잇는 거라. 아 이거 이상허다, 이거 어떵 팟이 들어갓는고, 그런 농담을 허여. (웃음)
@1 예.
#1 또 가믄 그 김녕서 가져간 떡은 맛이, 맛잇어 놓니깐, 올리믄 그냥 가져 오라, 가졍 오라 허멍 나눠 먹어 부는 거라.
@1 으.
#1 집안 사름들이.
@1 예.
#1 그 우리 외가서. (웃음).
@1 게믄 그 함덕은 상웨떡을 안 헙디가?
#1 아녀.
@1 어.
#1 거 미신 저 밀가루로 허영 넙작헌 거 무슨.
@1 예.
#1 저.

@1 빗상웨.
#1 어. (웃음). 뭐 저 인절민가 찰떡인가, 뭐 인절민가 그런 식으로 헨 만들더라고.
@1 예.
#1 맛도 엇어, 또 심심헌 게.
@1 으.
#1 그추룩 허영.
@1 게난 김녕에 상웨떡이 유명. 옛날부떠 유명허든데.
#1 맞아. (웃음).
@1 요즘도 게믄 식게.
#1 상웨떡 허여.
@1 아, 상웨떡 헙니까?
#1 으.
@1 아.
(부분 생략)
@1 게난 이 동네는 산디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뒈니까. 아까 정월 멩질 때도 상웨떡을 올린 덴 헷잖아예?
#1 으, 다 올려.
@1 다른 데는 정월 멩질엔 상웨떡 안 올리거든마씨?
#1 안 올려? 어.
@1 예. 거난 제주도 널러예?
#1 여기, 여긴 올려.
@1 여기는 꼭 상웨떡허고 곤떡허고.
#1 올릴 게 없는데, 올릴 게 없는데, 거 아니믄.
@1 예. 곤떡도 하나 허고.
#1 으.

망종

@1 그다음에 어 단오, 아까 헷고. 망종.
#1 망종?
@1 보리, 보리허젠 허믄 망종에 보리.
#1 그거 뭐 망종, 망종 때는 에, 소 길루는 사름덜, 제사 지냇, 제를 지냇다주, 망종에.
@1 아, 칠석에 안 하고 망종에?
#1 아니, 아니. 망종에.
@1 망종에. 어떤 제사?
#1 소제사.
@1 소제사를예?
#1 으.
@1 아.
#1 게서 제물을 저기 헤 가지고 산에 가서 제를 봣다 그런, 그런 말이 잇주. 그 김녕에 지금 소 허는 사람 한 사람 잇을 거라. 한 사람.
@1 한 사람예? 옛날에 집집마다?

#1 옛날은 집집마다 헷는데 그 크게덜 헤낫주.
@1 겡 오월 그 망종에 쉐 제사, 쉐 멩질?
#1 쉐, 쉐멩귀(?), 쉐멩귀(?), 쉐멩귀(?)가 헌 거 나.
@1 쉐멩귀렌 헙니까? 쉐제사렌 헙니까?
#1 쉐제사주기.
@1 으, 쉐제사예, 오월, 오월 망종에예?
#1 으.
@1 이건 어디 강 허는 거라마씨?
#1 산에 강.
@1 산에 강. 그 게믄 뭐, 뭐 준비헹 가? 이때는.
#1 그 무슨 떡도 헤 가지고 뭐, 뭐 바닷고기니 뭐 다 헤 갈 거 아니라.
@1 으.
#1 뭐, 뭐 집이서 제사허듯이 다 출령 감실 테주, 거.
@1 삼춘은 헤보진 안허고?
#1 난 안 헤보고.
@1 아, 안 헤보고예? 망종에 그렇게 한덴 허고. 하지에는 뭐 헙니까?
#1 하지는 무슨 뭐. 하지에 제, 하지 저기는 우린 잘 안 들어봣는데 하지.

유월

@1 으. 알앗수다. 게믄 유월, 음력 유월 가면은, 막 더울 때 아니라예?
#1 으.
@1 유월은, 유월에 이 동넨 저기 세시풍속은 뭐 이실 건고마씨?
#1 없어. 없어.
@1 아, 우리 집에서 둑 잡아먹는 날은 언제?
#1 유월, 유월 스무날.
@1 으.
#1 유월 스무날.
@1 집에 둑 잡아 주잖아예? 어떵 헙디가?
#1 (웃음).
@1 검질메레 가면은, 으.
#1 거 몸보신뿐이지 무신, 무신. 닭 잡아먹는 날이니까.
@1 어린 날, 어린 때 어머니가 막 검질메 가면 유월 스무날 어떵 둑 잡아 주켄 헤영은에 먹어 봅디가?
#1 에이구, 것도 살 만큼 살아사 얻어먹든가 허지.
@1 삼춘네는 안 먹엇구나?
#1 안 먹어서.
@1 안 먹고. 그 유월에, 유월에는 앚은 방석도 ᄀᆞ쪄 앚지 않나 헤 갖고 이사도 안 허고 헌덴 헌 말은 안 들어 봅디가?
#1 으. 그게, 즉 말허민 그, 첨 그 유월달에는 그.
@1 유월달에는 집도 고치지 말고.

#1 유월달에는 그 신이 많이 내려온단 거라이, 옛날은 신이.

@1 아.

#1 신이, 그래서 마음대로 만지지 말렌 뭐. 옛날은 화장실이 통세 아니라, 통세.

@1 예, 통쉐.

#1 뒈지 잇는 통세.

@1 예.

#1 통셋담도 건들지 말라. 이 뭐 어디 조왕에 뭐 그 솟, 솟덕도 고치지 말라. 으. 항도 얼로 옮기지 말라. 그레 신이 많이 내려온다고 헤서 그날, 그날은 주의허렌 헌 거벳긴 없어.

@1 그게 유월예?

#1 예. 유월.

@1 게난 유월에.

#1 게난 앚인 방석도 고쳐 앚지 말렌이 그 말이주.

@1 으, 앚은 방석도 고쳐 앚지 말라, 이것도 들어봣지예?

#1 예, 그건.

@1 게난 뭣들 고치지, 손대지 말라.

#1 그 말은 지금도 허는 어른덜이 잇을걸.

@1 어, 게난 삼춘네도 아까 이제 솟, 솟덕도 고치지 말라, 이런 말은 주로 들엇구나.

#1 예, 맞아. 옛날은 그 저 우리 어릴 때는 쥐가 그렇게 많앗다 말야, 쥐.

@1 예, 예.

#1 겡 부억 같은 데 가믄 막 그냥 솟강알에도 그냥 막 고망 뚤라 불곡 말이여. 거는 이제 불 때면 불치만 고망 메꿧지. 게난 그 고망도 메꾸지 말렌 헷어, 쥐가.

@1 아.

#1 쥐가 사나우니까. (웃음)

@1 아, 유월에는예?

#1 어.

@1 고망도 메꾸지 말라.

#1 어.

@1 삼복더위 이기젠 허민 어떵 헤신고예?

#1 삼복더위는 뭐, 그늘만 찾아뎅기지, 더위에 뭐 어디 일을 헤져?

@1 으, 어디 물 맞이레 뎅겨보지 안헨마씨? 여기는.

#1 여기서는 저 저** 땐 말로 우리 어무니도 뎅겻을 거라. 저 절물인가 허는.

@1 절물.

#1 옛날, 요즘은 교통수단이 좋으니까 헷지만은 옛날은 다 걸엉. 뭐 쌀이니 멕에 지엉 가곡. 밥, 밥을 헹 한 메칠 살 거난, 그거.

@1 아, 강 살멍예?

#1 살멍.

@1 그게 이제 음력 유월에?

#1 아, 그때도 경헷주.

@1 으, 아이들은 어떵 헤? 더위 이기젠 허면.

#1 아, 요즘?

@1 아니, 옛날에. 삼춘네 커올 때.

#1 아, 옛날 뭐 바다에 강 해수욕허곡, 뭐. (웃음) 거지 뭐.
@1 으.
#1 피서지가 거벳기 더 잇어?
@1 피서지가예? 예. 그런.
#1 뭐 무신 뭐 선풍기가 잇어? 뭐 에어콘이 잇어? 옛날. (웃음)
@1 으, 게난 옛날 유월절 허면은 이런저런 말들이 하잖우꽈양?
#1 예.
@1 으.
#1 여하튼 유월절이 야튼 조심헤야 뒈, 하여간 또.
@1 으.
#1 집이 많이 뭐 꼭 나에 헤당뒌 그 신, 신이 잇는 게 아니라 다른 신도 와서 덥친단 거지, 게난.
@1 으.
#1 남의 신도 와 가지고 온 사방에 다 돌아뎅겨 가지고.
@1 유월에는 신들이 다니는 날이구나.
#1 어, 주의허는 거주.

조농사

@1 예. 그, 그 농사는 옛날 유월에 조 불렷지예?
#1 예.
@1 이 동네도 조 하영 불렷수과?
#1 옛날 다 여기, 옛날에 뭐 제주에사 조, 보리뿐인디 뭐.
@1 조 불렷던 얘기헤 줍서.
#1 조 불려.
@1 으, 조는 어떵 불려? 조 갈 때.
#1 조?
@1 예.
#1 옛날은 뭐 잠데로 갈앙은에 씨 뿌려근에 이젠 그저 남, 남텐가, 저 소나무 꺼꺼당은에 가지에 그 끄실케.
@1 끄실케.
#1 끄실케로 헤영 어깨에 메영 그냥 돌아뎅기는 거뿐이주, 뭐.
@1 으. 여기는 쉐로 불려보진 안허연마씨?
#1 쉐 잇는 사름은 쉐로도 허고 말 잇는 사람은 말로도 저기 허곡.
@1 으.
#1 또양 이신 사름은 양도, 양으로도 불리고.
@1 아, 이 동네 양도 키왓수과?
#1 으. 양도 많이 키웟어.
@1 으.
#1 (기침) 거라, 우리도 보믄.
@1 양을 어디서 키왓지? 양은?
#1 양?

@1 예.
#1 거 양 많이 키웠다고 여기도.
@1 으.
#1 여깃 사름도.
@1 건 몃 년 정도에 키운 거마씨? 양은.
#1 거 오랫어. 거 여기 저 이북서 내려온 사람이 ○○ 순경이란 사름이 그 사름이 양이 흔 이백 두 이상 가져나실 거라.
@1 아, 게믄 한 천구백오십 년, 육십 년대네예?
#1 으.
@1 이북서 내려왓덴 허는 거 보믄예? 으.
#1 (기침).
@1 양으로도 밧 불리고.
#1 어, 양도.
@1 삼춘 여기 물.
#1 아니.
@1 그다음 예전에 대서, 이런 막 더위 때문에.
#1 더위 때문에.
@1 뭐 어디 나가지 말라 허는 거 이수과? 아까.
#1 으. 그런 말은.

칠월

@1 그런 말은 엇어예. 예. 아까 칠석, 칠월 가면 칠월 칠석.
#1 으.
@1 으. 칠석에 헌 게 아까 그 제 지낸 거, 칠석제.
#1 칠석제.
@1 그 소복 입엉.
#1 소복 입엉 허는 거.

백중제

@1 소복 입엉 허는 거고예? 백중제는?
#1 백중?
@1 예.
#1 백, 백중은 칠, 칠석하고 전엔가 후엔가 몰르겟어, 난.
@1 후, 보, 보름에. 칠월 열나흘날, 칠월 보름.
#1 칠월 보름.
@1 예.
#1 경 뒐 거라.
@1 예.
#1 백중제, 맞아.
@1 그난 아까 그 쉐멩질 허는 거, 쉐제사.

#1 으. 그날 헷주, 백, 백중에 맞춰.
@1 백중에 맞춰.
#1 으.
@1 아까 망종에도 헌덴 허멍?
#1 아이 망종엔 안 헐 거라. 백, 백중.
@1 아까 삼춘 잘못 근 거지예?
#1 아, 잘못 근 거, 잘못.
@1 예. 망종에 쉐제사 허는 게 아니라.
#1 백중, 백중.
@1 백중에 허는 거지예?
#1 벡중, 백중.
@1 예, 맞수다, 으.
#1 백중, 백중.
@1 게난 어떵 특이허게 여기 망종에 헴신고 헤영은에 헌 거.
#1 백중, 백중.
@1 벡중에예?
#1 백중.

모살뜸

@1 쉐멩질예, 예. 그다음에 여기는 여기 저 동김녕 가면 아까 바당 잇엇으니까, 여름에 막 뜨거울 때 모래구침들, 모살구침 허레도 갓수과?
#1 여긴 안 뒈.
@1 아, 여긴 안 하는구나.
#1 김녕에는 그 백사장이라 헤서 저게.
@1 예.
#1 그 모래에다 쒜기가 잇어. 그 가시 같은 게.
@1 예.
#1 이 살 피부에 가믄 뭐 거 모래 만져 나믄 소악소악소악 찔러 분다고.
@1 아.
#1 그래서 찜질이 안 뒈어, 여기는.
@1 아, 바당에 거.
#1 에. 보통 저 삼양 갓지, 삼양.
@1 삼양? 찜질허레예?
#1 삼양모래.
@1 그러면 걸 쒜기렌 헤마씨?
#1 쒜긴가 뭐, 그 유리, 유리, 유리침 같은 거.
@1 예.
#1 살에 박혀.
@1 아, 여기 백모.
#1 으, 백모래는.
@1 백모래는 그런 게 잇어서 저기를 안 뒈는 거로구나.

#1 으, 안 뒈.
@1 으. 그니까 모래에 섞인 찔르는 거를 쒜기렌 헤예? 이 동네서는 거를예.
#1 쒜기.
@1 어. 게믄 그 모래찜 허레 삼양들 가?
#1 삼양.
@1 여름에?
#1 어.
@1 으. 삼춘도 가보고?
#1 어, 나도 뭐 멧 번 가낫주.
@1 거 무사 가는 거우꽈?
#1 양?
@1 무사 가는 거?
#1 (웃음) 거 환자들이 많이 가주, 거기는.
@1 으.
#1 게 우린 뭐 어무니 따라가 가지고 한다 헤 가지고 삽 빌어서 쪼금 파믄. 아, 뜨거, 우린 더워서 못 하겠데, 찜찔. 너무 더워서.
@1 예. 게난 어떤 환자들이 가는 거우과? 보통.
#1 뭐 옛날 환자덜이야 뭐 알아져? 어떤, 어떤 환잔인지. 보통 노인네덜이 많이 가지.
@1 신경통예?
#1 신경통여, 뭐여 뭐. (웃음).
@1 예, 거는 모르고.
#1 건 모르고.
@1 게난 그 저.
#1 넘어가고게, 그런 건.
@1 예, 모살찜 허레 갈 때는 언제 가는 거?
#1 여름이지, 그건.
@1 여름, 한여름?
#1 한, 삼복더위에도 많이 가주게.

처서

@1 예. 한더위예? 그 입추, 처서에 대한 이야기는 혹시.
#1 처서?
@1 예. 처서에 얽힌 이야기는 어떤 거 잇수과?
#1 처서, 처서헤도 처서에도 거.
@1 뭐, 모기도 이빨 오그라진덴 허고.
#1 에, 처서 지나믄 그 그 주둥이 오글라져 분덴. 처서 가까운 땐 그런 속담도 잇는데.
@1 으.
#1 우린 그런 거 몰르크라.
@1 속담. 처서에 모기 주둥이 오, 오.
#1 오글라져 분덴.
@1 오글라져 분덴 허지예?

#1 추워온다는 거주.
@1 검질도, 나단 검질도 안 난덴 허고.
#1 에이그. 검질 안 난 데가 어디 잇수과?
@1 예, 요즘 남구나.
#1 삼백육십일 나오는 게 검질인디 뭐. (웃음)
@1 예, 알앗수다.
#1 (웃음)

팔월

벌초

@1 게믄 팔월. 팔월 초ᄒᆞ루 뭐허는 날이우꽈?
#1 팔월 초ᄒᆞ루?
@1 으. 음력 팔월 초ᄒᆞ룰.
#1 몰라.
@1 옛날 방학도 허고 소분허는 날.
#1 아, 팔월 초ᄒᆞ루. 팔월 초ᄒᆞ루 소분허레 우린 그런 거 엇어.
@1 옛날 벌초 방학허고 영 허지 안헷수과?
#1 아니. 벌초방학은. 팔월달 들어 가지고 팔월달엔 벌촐 헤야 한다.
@1 으.
#1 이 조상 산에 가서 벌초를, 머리를, 머리를 까까야 한다는 그 말이주. 팔월 초ᄒᆞ룰날 정허는 건 엇어.
@1 으. 아, 팔월에는 머리 까끈덴 헙니까?
#1 예. 벌초헤야 헌다는 거주.
@1 아.
#1 그 봉분을 강 짤라야 뭐, 봉분은 머리 아니라.
@1 예.
#1 그 풀을 짤라야.
@1 아, 그 말을 이 동네서.
#1 으.
@1 머리 까끈덴 허여예?
#1 으.
@1 어.
#1 머리 까깐댜?
@1 머리 까깐댜, 영 헤?
#1 거 알아 먹주, 아이덜토. (웃음)
@1 예. 아, 어느 산에 강 머리 까깐댜? 이렇게.
#1 하르방 산에 강 머리 까까둰 완댜?
@1 으, 이제 삼춘이 이제 본 거구나. 하르방 산에 머리 까끈 거예?
#1 으, 으. 옛날에야, 첨, 우리 어릴 쩬 그런 걸 봣어.
@1 으.

#1 우린 옛날 문중에가 우리도 강씨, 강씨들이 김녕에 많이 사니까.

@1 으.

#1 팔월달 뒈 가지고 이제 문중벌초를 헤얄 거 아니우꽈? 이젠. 다 가지마다 틀린 가지, 가지벌초가 잇고.

@1 예.

#1 문중벌초는 웃대손. 웃대 조상들 산이 뭐 다 모다뎅기멍 벌촐 허는데.

@1 예.

#1 우리 어릴 때 싸우는 걸 봐서.

@1 으.

#1 그 벌초, 옛날은 그 벌초 검질로 놓고 싸움을 허더라고.

@1 아. 검질들이 엇어 놓니까.

#1 땔, 땔 땔감, 땔감 아니라. 땔감.

@1 예.

#1 누구는 큰 거. 그 다발, 다 다발이주, 영 무끈 게.

@1 예.

#1 다발로 누게는 큰 거 주고 왜 우리는 족 족은 거 주느냐.

@1 으.

#1 막 눵 둥글멍 싸우는 걸 봣다고. 거 싸울 일이 아니주, 요즘 ᄀᆞ트믄. 아이고, 거 첨.

@1 겨니까게 옛날에는게 다 검질불, 검질불 허니까예?

#1 으.

@1 예.

#1 맞아, 다 검질불인 거. 하, 첨. 옛날 사름덜 거 노는 수, 폼세가 허믄 속상도 허곡. 안 헐 짓을 뭐허레 거, 잘헌 거 놔 가지고.

@1 안 헐 짓이 아니고 옛날엔 그것이 생존이니까.

#1 아, 생존도 말이여, 쪼끄만. 아, 자기 요 지게만 지엉 나가믄 ᄒᆞᆫ 짐 강 헤올 건디 말이여. 벌초, 조상 산에 가근에 싸우곡 자시곡 뭣잇어 거 뭐 잇어 또.

@1 예.

#1 우리, 나도 저 우리, 우리 가지에선 나도 외, 우리 아부지 때부떠 그 외동아들로 딱 내려왓수다마는. 우리 그 나허고 이제 가까운 그 형제들이.

@1 으.

#1 팔촌이라.

@1 아이고야.

#1 그 어른들이 뭔, 뭔 이야기 나한테 꼭 허느냐면 야, 순배야. 너는이, 이걸 잘 알아들어라. 제사 때나 집에 무슨 일이 잇을 때는 아이들안티 욕을 허지 말아라. 으. 절대 이건 금물이다, 으. 제사 때 말이지. 아이들이 그 뭐 떡이나 뭐, 뭐 헤 놓믄 아이들이 몰르게 슬쩍슬쩍 막아 그놈의 아이들이 그거라. 우이로 ᄌᆞ근ᄌᆞ근 앗앙 먹으믄 뒐 건디. 쑥대겨 분단 말이여.

@1 으.

#1 막 아래 거 올라가고 우읫 거 막 속에. 게난 부모들이.

@1 욕 안 헐 수가 엇어.

#1 보믄 욕 안 헐 수가 엇지. (웃음) 특이허단 말여, 근디 그런 거를 욕허지 마라.

@1 예.

#1 먹으믄 멧 개나 먹겟느냐, 으.

@1 그렇지.

#1 다 조상덜 쳐다보는디 욕허믄 조상덜이 안 온다. 아, 그 말도 들엉 보니까 거, 옳은 말이라. 게 우리 그 형님들이 다 그렇게. 나도 이젠 그 아이, 그런 말을 내가 우리 아덜덜안티도 다 항상 전하지.

@1 예.

#1 집이서 허는 거 절대 아이덜 욕을, 욕허지 마라. 으. 이건 꼭 너희들 기억헤 놔두거라. 이건 꼭 실천에 옮겨라 헤 가지고, 딱 유언, 유언헌 거라.

@1 예.

#1 그 말이 옳은 말이라.

@1 예, 맞아. 그 싸움질허는.

#1 어, 싸움질.

@1 큰소리 내지 말렌 허지 안헙니까? 겐디 꼭 그때덜 하영 싸우드라고 보니까.

#1 그 하찮은 거 놩 그 싸움이라.

@1 (웃음).

#1 또 특히나 형제들 많은 디 또.

@1 예.

#1 동서들 많은 디.

@1 예, 예.

#1 싸움은 여자들끼리 싸움이여, 동서들끼리. 남자들끼리 싸움은 요즘 뭐 재산허고 싸움이 주마는.

@1 으.

#1 요 중간에 보믄 여자들, 동서들끼리만, 동서들끼리 뭐 이거여 저거여 그냥 으, 큰굿 족은굿을 다 헤 분단 말이여. (웃음)

@1 게 난리라.

#1 게난 거 제사가 뭬 리가 잇어? 거.

@1 예. 거기서 큰굿 족은굿예?

#1 (웃음), 아이고 첨. 오늘 나신디 말을 베왕 감서.

@1 예, 예. 여기는.

#1 이야기 헙서. 이야기.

@1 ᄒᆞ꼼만 기다리쿠다.

#1 먹을 거 놩 싸우는 건 이해가 가는데.

@1 예.

#1 그 잘난 고사리 멧 뭇 놔근엥에, 그. 크다, 족다.

@1 (웃음)

#1 이거 왜 너넨 큰 거 가지고 난 이거뿐이냐.

@1 으, 게난예. 얼마나 힘들어야 경헙니까게.

#1 어허, 거 첨 거 희안허여.

@1 경헹은에.

#1 젊은 사름은 제발 경허지 마라이.

@1 예.

#1 서로 양보도 허곡, 으.
@1 그니깐 그 문중벌초가 모둠벌초. 여기는 모둠벌초렌 말은 안 씁니까?
#1 안 써. 문중벌초, 문중벌초.
@1 그냥 문중벌초예? 가지벌초.
#1 으, 문중벌초 허민 끗나 부는 거주게. 이젠.
@1 문중벌초하고 가지벌초 이렇게 하고.
#1 으.

팔월 명절

@1 그다음엔 이제 팔월 멩질.
#1 팔월 멩질.
@1 예.
#1 아까 이제 팔월 헷잖아, 팔월 멩질은 혹시 음식도 별도로 허는 거 잇어?
#1 아니, 별도로 허는 거 엇어. 마찬가지, 다.
@1 으
#1 으, 으. 꼭같아.
@1 팔월 멩질 허젠 허면 그 멩질옷 미, 미, 미리 막 준비하곡 풀허곡 영 허는 거는 안 봐 봣수과?
#1 풀헌다는 건 옛날, 옛날에야 그거 저 그 한복?
@1 예.
#1 한복 지금은 푸다짐이엔 허는가, 거보고.
@1 예.
#1 풀허는 거, 푸다짐이엔가 뭐엔가.
@1 으, 푸다짐.
#1 그런 거는 많이 봣주, 푸다짐.
@1 푸다짐예.
#1 옛날 그 윤디로 헤 가지고 다리, 다리미질. 요즘은 다리미가 잇지만 옛날은 윤디, 윤디.
@1 으.
#1 숫 그 윤디다가 그 숫인가 놔 가지고 다리는 거 그런 것도 봣고.
@1 으, 푸다짐.
#1 푸다짐.
@1 예, 그 풀헤 갖고예?
#1 탁 다듬이질허곡.
@1 다듬이질.
#1 어.
@1 게난 이런 그런 큰일 돌아오면 여자들이 허는 일이 너무 많은 거라예?
#1 너무 많지.
@1 예, 예. 그 팔월 멩질 허젠 허민 여자들 허는 일은 어떤 일을 주로 허코예?
#1 다 마탕 여자들이, 남자들이 뭐 허는 거 잇어?
@1 어.
#1 저 술이나 먹곡 뭐 어디 강 화토나 치고. (웃음) 그뿐이지.

@1 그 제사허거나 이렇게 헐 때 적갈들은 남자 안 헙니까? 이 동네.
#1 옛날, 옛날에는 남자가 이젠 옛날에는 그저 화로.
@1 예.
#1 화로가 잇는데 화로도 옛날은 돌로 만든 화로라.
@1 으, 돌화로예?
#1 그 숫, 숫 놔 가지고 헷는데. 적쒜 놔 가지고 남저들이 구웠는데 이제는 뭐 여자들이 축보름에서 다 적도 다 헤부는디, 뭐, 남자들이 헐 일이 없어, 진짜.
@1 으, 시켜야 뒈는디게. 게난 그 삼춘네도 직접 적갈 구워봔마씨?
#1 으, 옛날. 어릴 때주만은.
@1 으, 어릴 때?
#1 으.
@1 으. 아까 여기 그 상어적들 헷덴 헷잖아예?
#1 으.
@1 그거는 팔월 멩질에도 다 헙니까?
#1 다. 다 허여.
@1 게믄 적갈 종류가 멧, 멧 개 허는 거? 팔월에 올리는 거 한번 골아줘 봅서. 팔월에.
#1 아니, 똑ᄀᆞ찌. 팔월이고 정월이고 관계 엇어.
@1 어. 아까 그 정월 멩질 할 때는 다 그 조상 나시 하나씩.
#1 소고기.
@1 예.
#1 뒈지고기.
@1 으.
#1 또 상어.
@1 예.
#1 거 뿐이주, 뭐.
@1 상어도 적갈 이렇게 하고.
#1 으.
@1 그 저기 생선은 궝은에 올리잖아예?
#1 셍성 구웡은에.
@1 적갈은 어떤 식으로 올려마씨? 것도 다 조상 나시 따로 허영.
#1 짤랑, 짤랑.
@1 나시 다 따로 헹은에.
#1 으.
@1 으. 게믄 열, 조상이 열 개면 열 개를.
#1 으, 열 개, 열 개 올려야지.
@1 열 개 올리고예?
#1 또 한 군데만 놔근에 뭐 누군 먹고 누군 말거라?
@1 게난 밥도 채소도 다 따로.
#1 다 따로 따로.
@1 아, 공동으로 올리는 건 엇수과?
#1 엇어. 다른 데는 요즘 우리가 무슨 낭푼에다 뭐 숟갈만 다 꼽는다지만 그런 거 없어, 우

리 동네는.
@1 으. 멩질 때도예?
#1 으. 다, 따로따로.
@1 우리 저는 서쪽인데 서쪽에서는 떡하고 이런 거는 그냥 흠치 하영 올리거든마씨.
#1 아, 모둠으로 게난.
@1 공동으로.
#1 모둠으로, 모둠으로.
@1 에. 모둠으로.
#1 거보고 모둠, 모둠. 여기는 그런 건, 그런 말은 엇어.
@1 엇어예. 게믄 한번 저기 멩질날 허게 두면 제수가 엄청 하영 들켜예?
#1 아고, 많지 뭐.
@1 어, 지금도 삼춘네 집에는 멩질 지냅니까?
#1 예, 어.
@1 으.
#1 팔월 추석허고 정월 멩질은 뭐 허난 기본이 그거난.
@1 예. 그런 거 한번 사진 한번 찍어봐야 뒐 거 같애.
#1 (웃음), 그때 뒈야지, 그때.
@1 게난 멩질 먹으레 한번 와야 뒈는디.
#1 맞아.
@1 멩질 먹으레 갈 디 하다 나. 다 가켄 허영 어떵 헐 거니?
#1 맞아.
@1 겡 멩질헐 때는 요즘은 누구네까지 옵니까?
#1 이젠 다 그 집단으로 아녀.
@1 아.
#1 자기, 자기 각자가 다 자기 허지.
@1 어.
#1 지만썩.
@1 지만썩예?
#1 지만썩.
@1 게믄 당.
#1 예? 해당뒌 사름만.
@1 해당뒌 사람만.
#1 으.
@1 게믄 사촌까지 옵니까?
#1 사촌끼리는 뭐 사촌도 뭐 올둥말둥, 오민 오는 거 말민 마는 거고. 그런 신경 안 써, 이제는.
@1 이제는예?
#1 옛날은 왓저, 안 왓저, 막 이제 큰소리 치멍 왜 안 왓느냐 이 새끼 어디 강 술 먹엇느냐 뭐 화토 쳣느냐, 왜 안 오느냐 허주만은 이젠 그런 거 없어.
@1 으, 딱 그냥 그 가족이 이제 알앙.
#1 으.

@1 멩질 마튼 집이 뭐 열 명이믄 열 명 거 출령은에.
#1 예.
@1 이렇게 딱 허는구나? 아.
#1 첨, 조용히 지내는 거여. 제사나 명절이주. 뭐 조용히 지내는 거.

연날리기, 팽이치기

@1 예전에 여기 팔월 멩질에 둘, 둘 구경도 헷수과?
#1 달?
@1 달맞이.
#1 달맞이.
@1 그날 막 놀고 영도 허지 안헙니까? 팔월 멩질에.
#1 여기선 그런 말은 못 들엇어. (웃음)
@1 아니 달맞이 밤에 강은엥에 막 밖에 강 놀지 안헷수과?
#1 우리 어린 때야 놀앗지. 놀긴 놀지.
@1 예, 무신거 허멍 놀앗수과? 그때.
#1 밤이 연도 날리고.
@1 으.
#1 연도 날리고 뭐 거뿐이지 무슨. 다른 건 엇어.
@1 연을 밤에 날려?
#1 으. 그 팽이도 치곡.
@1 예.
#1 으, 거뿐.
@1 팽이도 치고.
#1 으.
@1 이게 팔월 멩질에 헌 거 아니라예?
#1 으.
@1 곱을락도 허고.
#1 으. 곱을락. (웃음) 곱을락. (웃음)

구월

@1 그다음에 구월, 백로, 상강, 이럴 때 농사헐 때는 뭐 엇고예?
#1 으.
@1 음. 그다음에 굿도 구월에 헐 텐데.
#1 아, 아니.
@1 그것도 이제 모르고.
#1 몰라.

시월

@1 시월, 입동.

#1 입동.
@1 소설.
#1 입동, 건 절기로만 부찐 거지.
@1 예. 그거.
#1 으.

십일월

@1 게고 십일월 뒈면은 풋죽 헹은에 어떵.
#1 동지, 동짓날 풋죽을 쑤주게.
@1 어, 십일월 동짓날.
#1 어.
@1 십이월. 게니까 이거 양력은 십이월이고.
#1 양력은 십일월. 아, 십이월이 뒈고.
@1 음력은 십일월 뒈고.
#1 으.
@1 으. 거난 양력이 십일월 이십, 동지가 이십이일?
#1 이십일일인가, 이십이일.
@1 예. 게난 풋죽 헤 갖고 영 동네, 저기 집 주변에 뿌리고 허는 거 안 봣수과? 풋죽은 헤 먹고?
#1 예, 풋죽은 헤 먹고.
@1 아, 옛날부떠 풋죽은.
#1 예, 풋죽은 헤 먹고.
@1 근데 풋죽을 못 쑤는, 풋죽 안 허는 동지도 잇잖우꽈?
#1 몰라.
@1 애기동지 헤 갖고.
#1 애기동진 건 애기동, 애기동은 절에서 찾는 거주기.
@1 아, 이 민간에서는 안 하고.
#1 안 헤.
@1 으.
#1 애기동지여 뭐여. 그 저 저 절간에서.
@1 예.
#1 그걸 찾는 거지 뭐, 집에서.
@1 예.
#1 집에서.
@1 여기선 안 하고예? 예. 알앗수다. 뭐 대설 관련 헤 갖고 뭐 속담, 이런 건 엇수과? 그런 건 몰르고. 그다음에 여기 집은 언제 일엇수과? 옛날 초집헐 때.
#1 다 새해 낭.
@1 으.
#1 이삼월에.
@1 아.

#1 이삼월에. 정월달은 이제 마을, 마을제가 잇어 부니깐, 뭐.
@1 으.
#1 건들지 못하고.
@1 예.
#1 이삼월에.
@1 아, 집을 이삼월에 일어예?
#1 이삼월에.
@1 가을에 이는 게 아니라.
#1 아니. 이삼월에.
@1 저쪽 서쪽 가면 집 일어야 일 다 끗낫덴 허는데.
#1 거 남자덜 일이고.
@1 예.
#1 (웃음) 거 남자덜 일이고.

장 담그기
@1 장 담는 건 언제허여?
#1 장?
@1 예.
#1 장도 동지, 동짓둘인가 섣둘에 담는 거 아닌가, 난 몰르는디.
@1 섣둘에.
#1 섣둘에.
@1 예.
#1 으, 경헹 아는데. 으.
@1 혹시 엿헤 먹는 납평날이렌 허영 들어봅디가? 그런 말은 안 들어보고예?
#1 안 들어보고.

신구간
@1 여기는 신구간은 언제우꽈?
#1 신구간은 새해 들엉은에 뭐 그 날짜는 잘 몰르겟는데, 신구간 날짜는.
@1 어. 대한 후 오일부터 입춘 전 삼일까지.
#1 삼일까진가?
@1 예.
#1 으.
@1 옛날은 신구간들 세어서예?
#1 신구간에 이사, 이사도 허곡 다 그렇게.
@1 으. 무사 그때 이사헌덴 헙디가?
#1 신구간이라믄 그 기간에는 나도 이 귀신이.
@1 으.
#1 없는 거 아닌가, 다 올라가 분 거 아닌가. 나 그, 그 사이에 이살 허든가 저기 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들어.
@1 으, 귀신들이예. 신들이 하늘로 다 올라강은에.

#1 으.

@1 으.

#1 게서 이젠 그 저 이 택일 보레 가믄 공방일이렌 허여. 공방일.

@1 공방일.

#1 으, 공방일.

@1 예.

#1 공방일, 공방일에는 이 모든 땅 구신이나 뭐나 다 올라가 분다 놀러가 분다 이거라.

@1 으.

#1 게 옛날 역사 그 말 들어서. 그 말 들엇나 안 들엇나 몰라. 딱 이제 택일을 보게 뒈민 멧 월 메칠날 공방일, 그날 공방일인 날 거 아니우꽈?

@1 예.

#1 그믄 이젠 산을 이젠 나가 이묠 허게 뒛는데.

@1 으.

#1 가서 축을 고헐 거 아니라.

@1 으.

#1 메칠날 와서 낼쯤 와서 이묠 허겟습니다, 헤근엥에 저기. 그믄 이젠 산을 파레, 파레 가면은.

@1 으.

#1 그 시간에 이 토지지신이.

@1 으.

#1 놀러가 분다 거라, 얼로.

@1 으.

#1 으. 놀러가 불면은 그 놀러간 시간에 맞춰 가지고 빨리 이걸 다른 데로 이동시켜야 뒈어.

@1 으.

#1 그믄 이 귀신이 갓다와 보니깐 엇거든, 이 벌써 엇거든. 그래서 이젠 곁에 그 버드나무간 잇으니까 버드나무한테 물어보니깐 뻣뻣허게 서 가지고 야, 이놈아, 이디 친구가 어디 갓느냐, 나 몰라. 으. 겡 이제 또 그 미신, 미신 놋쉔가 뭔가안티 물어보니까, 물어보니깐 이 무쒜 같은 놈도 나 몰라, 나 몰라. 보니깐 이젠 그 계란인가 뭐 하나 꿩독세긴가 물어보니깐 아이놈이 나도 몰르키여 허멍 도망가 분 거라.

@1 으.

#1 그래서 그 역사 유래가 그 뭐 천리 헤나믄 버드나무도 그 자리 꼽는다, 무쉐도 갖다 꼽는다, 계랄도 갖다 풋에 갖다 논다. 다 유래가 잇는 모양이라, 것도.

@1 으, 으.

#1 우린 실지 그런 건 안 헤봣지만 이번도 우리 헷주만은. 그래서 그 공방일은 귀신이 토지지신이 어디 놀레 간 틈에 빨리 이거 옮겨 불어야 헌다 헤 가지고.

@1 으.

#1 공방일을 찾는 모양이라.

@1 공방일.

#1 공방일.

@1 게난 그 좋은 그 하는 날을 공방일이렌.

#1 공방일.
@1 허는구나예.
#1 공방일을 택허는 거, 좋은 날은.
@1 으, 공방일.
#1 공방일.
@1 예. 공일이구나게.
#1 으. (모두 웃음)
@1 방, 방이, 방이 없는예.
#1 예.
@1 공방일. 아, 게난 이번에 저기 천리헐 때 겡 버드낭도 꽂이고.
#1 으, 이젠 버드나무 엇수다, 이제는.
@1 이젠 없고.
#1 저 뭣고, 팟하고 계란.
@1 팟하고 계란 헹은에. 계란을 거기 묻어예. 으.
#1 풋은 삐어 불고 헤 가지고 계란은 묻어 불고.
@1 게난 거기 천리헤난 그 자리에 이렇게 묻어주는 거잖아예?
#1 예, 묻어준 거.
@1 예, 아.
#1 게 구신이 왕 물어볼 거 아니라?
@1 예, 예.
#1 이거 어디 갓나 헹은에 몰라.
@1 몰라, 몰라 헤 갖고.
#1 몰라 몰라 다 모르켄 헐 거 아니? (기침)
@1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게난 이사헐 때는 옛날엔 신구간에 헷주만은.
#1 신구간.
@1 요즘은, 요즘은.
#1 이제는 뭐 삼백육십오일 다 이사 시겨부는디 뭐. (모두 웃음) 다 헛뒌 일이라, 진짜 에이구.

소한

@1 게난 이제 십이월 허면 소한엔 또 경 춥덴 허멍예?
#1 소한.
@1 예, 경헹 옛날 속담.
#1 소한에 나간 손님 무신, 무신 대한에 얼어죽넨 헨가 뭐인가.
@1 예, 예.
#1 그런 말이 잇어.
@1 그런 말도 잇고.
#1 예.
@1 그다음, 아까 섣달그믐 하는데 이제는 삼춘.
#1 으.

농사일

@1 옛날 그 농사지엇다고 하니까, 일월 전체적으로예, 농사를 한번 지어 봅서. 일월에 허는 일, 이월에 허는 일, 삼월 헤 갖고 옛날 거 튼내 갖고.

#1 일월에.

@1 예, 일월에 농사헐 때는 무슨 일을 헤신고예?

#1 일월에 농사지을 게 엇주.

@1 예, 일월엔.

#1 일월엔 보리밟기나.

@1 예, 일월에는 보리밟기.

#1 보리밟기, 으.

@1 이월에는.

#1 이월에는 영, 영, 영, 영등, 영등하르방 들어오는데 영등할망 들어오는, 바다에 강 바다에 가근에 뭐 무슨 뭐 해초나 떼당, 따당 먹곡, 바릇잡이나 영 허곡 거뿐이라.

@1 해, 해초도 따고.

#1 으.

@1 바릇잡이.

#1 바릇잡이.

@1 이월에예. 예, 삼월에는?

#1 삼월에는 이젠 밧듸 강 강 검질도 메야지, 이제는. 풀이 올라가니까.

@1 예, 검질메고.

#1 검질도 메곡. 어, 거.

@1 그다음에 검질, 이때는 무슨 검질메는 거우꽈?

#1 보릿검질이주.

@1 이건 보리검질예?

#1 보리검질.

@1 예, 그다음에 사월에는?

#1 사월에는 검질메는 게 엇어. 보리가 올라와 불믄 검질메는 거 엇어.

@1 예, 검질은 안 메도 뭔가 싱거야 뭘 거 아니?

#1 으.

@1 사월에.

#1 콩, 콩.

@1 아, 콩 싱그고.

#1 콩.

@1 예, 콩 갈고.

#1 고추, 뭐.

@1 예.

#1 그런 거주, 뭐.

@1 으, 이런 거 하고.

#1 으.

@1 그다음 오월에는?

#1 오월에는 으, 보자. 오월에는 꿰도 갈고.

@1 예, 꿰 갈고.
#1 또 마늘도 수확허고.
@1 마늘 수확허고예? 유월에는?
#1 유월?
@1 예.
#1 유월은 뭐 양파 수확, 거주.
@1 양파 수확. 이제 여기는 양파가 이제.
#1 예, 양파.
@1 칠월.
#1 칠월, 여름, 여름농사로 가야주, 이제.
@1 예. 여름농사 뭐허는?
#1 콩.
@1 콩.
#1 콩 파종.
@1 예.
#1 보통, 콩 파종.
@1 아까 사월에 콩 간덴?
#1 아니. 거, 그 콩도 여러 종류고.
@1 아.
#1 으.
@1 이, 이.
#1 이.
@1 칠월에 허는 거는?
#1 칠월에 허는 거는 저 두부용.
@1 어.
#1 저기 콩나물, 콩나물콩.
@1 주름콩 허는 거구나? 예, 두부용하고.
#1 두 군데.
@1 콩나물콩예.
#1 요 사월엔가 헌 거는 이제 뭐 앚은베기콩이라고 막 굵은 거 잇잖여, 빨간 거.
@1 아, 두불콩 헌 거.
#1 두불콩.
@1 그거를 무슨 콩이렌 허여? 여기서.
#1 앚은베기콩.
@1 앚은베기콩.
#1 앚은베기콩. (웃음)
@1 으, 앚은베기콩.
#1 어, 어. 앚은베기콩. 그게 맛잇어, 또.
@1 예, 이거 두불콩. 두불콩을 여기서는 앚은베기콩.
#1 앚은베기콩.
@1 예, 예. 그 그다음에 팔월에는?

#1 팔월에는 헐 거 엇고.
@1 으, 팔월에는 농사허는 거 엇고.
#1 어.
@1 구월에는?
#1 구월에는 콩 수확도 들어가야지.
@1 예, 콩 수확.
#1 콩 수확. 마늘도 심고 마늘도 정식허고.
@1 예, 마늘 심고예?
#1 양파도 이제, 양파 종자도 파종, 저 파종헤야고.
@1 양파도 파종하고.
#1 예.
@1 양파 파종허고.
#1 으.
@1 그다음 시월에는?
#1 시월도 이제 정식으로 가야지, 이젠.
@1 예.
#1 양파 정식.
@1 양파 정식.
#1 야.
@1 그다음에?
#1 이젠 엇수다. 이젠 농한기라 다.
@1 아, 이제는.
#1 어.
@1 십일월은?
#1 엇어, 이제는.
@1 없고. 십이월은?
#1 십이월도 엇고.
@1 없고.
#1 일월달 엇고. 이젠, 농한, 농한기지 이젠.
@1 여기는 귤 이런 건 안 헤마씨?
#1 귤? 여기는 귤이.
@1 으. 그다음에 이거는 요즘 농사고, 그 예전에 보리는 언제 갈앗수과?
#1 보리?
@1 예.
#1 보리가 시월, 상강 전이주게. 이제주, 이제 한참 파종헐 때라.
@1 으, 상강 전에 보리예?
#1 으.
@1 으.
#1 전 삼 일 후 삼 일이주, 상강.
@1 아, 보리는, 상강.
#1 전 삼 일 후 삼 일.

@1 전 삼 일 후 삼 일.
#1 예.
@1 자, 보리는 그렇게 갈고 수확은 언제 헤? 보리는.
#1 수확은 오월, 오월달에 수확헤야주.
@1 예.
#1 으.
@1 예, 오월에 이제 보리 수확예?
#1 으.
@1 그다음에 삼춘, 예전에 조는 파종 언제?
#1 유월에게.
@1 으, 조는.
#1 유월, 유월 스, 유월, 유월 초에 헤 가지고 유월 스무날, 게난 더 막 더운 때 아니라.
@1 예.
#1 그땐 밧디도 안 가주, 게난. 검질메레 소끄레도 안 가고. 조 소끄레도 안 가고.
@1 으.
#1 (웃음).
@1 유월 초부떠 스무날 동안은?
#1 아니, 유월 스무날만.
@1 아, 유월 스무날.
#1 유월 스무날은 젤 덥덴 헤 가지고.
@1 예.
#1 고넹이도 무신 코에.
@1 고넹이.
#1 고넹이코에 똠난덴. (웃음)
@1 게난 아까 앚은 방석도 고쳐 앚지 말렌 헌 게 유월 스무날 아니라예?
#1 맞아.
@1 예. 게난.
#1 그런.
@1 고넹이 코에 무시거 헌다고?
#1 땀이 앚은, 땀난덴.
@1 땀난덴.
#1 젤 덥다는 거주.
@1 으, 유월 스무날엔.
#1 고양이가 웬만헤선 땀이 안 나는 모양이라. (웃음).
@1 으.
#1 (기침) 아이고, 말도 첨.
@1 그게 유월 스무날이구나예?
#1 유월 스무날.
@1 예, 게믄 조 파종은 유월에 허고.
#1 으.
@1 그다음에 유월에가 뭐, 것도 전 삼 일 후 삼 일 헤 갖고 간덴 헌 말은 뭐지? 이거는.

#1 게난 절기에 맞춰 아까 나온.
@1 유월절. 으.
#1 보리 가는 것도 마찬가지, 유월도 마찬가지.
@1 예, 예.
#1 절기상으로 다 전 삼일 후 삼일 그레 맞춰 허는 거.
@1 으, 망종.
#1 너무 늦어도 안 뒈고 빨라도 안 뒌다는 거주기게.
@1 으, 망종에예?
#1 으.
@1 예, 그다음에?
#1 게난.
@1 콩, 게믄 저기 조 수확은 언제 허는 거? 삼춘.
#1 조 수확?
@1 예.
#1 이제 구월 나야.
@1 구월에 조 수확하고예?
#1 으.
@1 그다음엔 예전엔 감저들도 하영 싱그지 안헷수과?
#1 고구마?
@1 예. 그거는 언제 파종허여?
#1 고구마가 에, 음, 흔 오월달에.
@1 보리 수확헌 다음에?
#1 어.
@1 헐 거지예?
#1 오월달에, 오월달에 야튼 고구마 심엉.
@1 으.
#1 어, 어. 이제, 이제 수확헤야 뒈.
@1 상강 전에.
#1 상강, 상강 전에.
@1 으.
#1 상강, 상강 전에 상강. 심어 가지고 빨리 파종, 저 수확 아니 허영 상강 넘으믄 빨리 썩어 분다 헷주게, 옛날 속담에.
@1 예.
#1 그만큼 추웟다는 거주, 상강에도이.
@1 상강에도예?
#1 상강 전에 수확을 허라는 거라.
@1 그러면 감젓메는 언제 놔마씨?
#1 그 뭣 말이라?
@1 그 저기 고구마 심젠 허면 감젓줄 놔야헐 거 아니우과?
#1 어, 어.
@1 감젓줄 놓는 거?

#1 거 줄 놓는 거 봄에.
@1 봄에 언제?
#1 사월 초나 그 정도 뒈야주. 사월 초에 놔야 뒈어.
@1 아, 그렇게 늦게?
#1 어.
@1 이월이 아니고?
#1 어.
@1 으.
#1 이거는 사월, 사월 초에 놓믄 빨리 올라오주.
@1 아, 감, 감젓메 놓는 거예?
#1 이젠 고구마는 그 겨울에가 가만이 놔두면이 그 싹이 나와, 자연히.
@1 예.
#1 순이 나와.
@1 으.
#1 그 시기에 빨리 심어야 순이 이제 착착 올라오는 거.
@1 아. 게난 옛날에는 너무 일찍 헹은에 막 그 까라(?)허고.
#1 게난 그때 옛날에 그 순 나오기 전이 미리 제기 헤 불믄 그래서 많이 썩어 불기도 허고.
@1 으.
#1 그런 거라.
@1 그런 식으로 이제, 이제 하고 여기 산디는 언제?
#1 산디?
@1 예.
#1 산디는 여기 헤보지 안헷수다게.
@1 아.
#1 저 덕천, 산간, 산간 마을에 헷주.
@1 으. 아까 밀은? 밀은 언제 갈아?
#1 밀은 그 저 보리헐 때.
@1 예.
#1 보리, 보리 파종헐 때 같이 헤.
@1 아, 보리 파종헐 때 밀하고.
#1 어, 밀허고.
@1 수확도?
#1 어. 수확도 꼭같아.
@1 꼭ᄀᆞ따예?
#1 으.
@1 그니까 여기 밀을 이 동네는 하영 간 거구나.
#1 으, 으.
@1 여기는 ᄆᆞ믈 같은 거는 안 갈아?
#1 ᄆᆞ믈도 다 웃드, 웃드, 웃드르하고 산간 마을에.
@1 산간 마을예?

#1 그쪽에 많이.
@1 게난 이 바당 동네니까 이, 이쪽에 저기.
#1 염분기도 많고 허니까 저 ᄆᆞ믈이 잘.
@1 으.
#1 지금도 여긴 ᄆᆞ믈을 갈긴 갈앗*** 안 보여. 거 ᄆᆞ믈이. 안 뒈, 잘 안 뒈.
@1 으. 양파들은 염분기 잇어도 뒈는.
#1 어.
@1 모냥이라예? 어.
#1 마늘, 양파는 염분기 잇어도 뒈어.
@1 음, 게믄 마늘은 언제? 여기 마늘도 아까 헌덴 헨게. 마늘은 언제 싱거?
#1 마늘 이제 구월달에 다 끗낫지, 이제.
@1 이제 다 심엉예?
#1 으, 으.
@1 마늘 심고예?
#1 정식이 다 끗나 비엇주게.
@1 으, 으.
#1 마늘이 이제 이만큼이 올라왓는데, 다.
@1 예.
#1 싹이 다 올라왓는데.
@1 게믄 마늘 수확은 언제 헙니까?
#1 오월 중순부터 수확헤야지.
@1 으. 아까 오월 마늘 수확 이렇게.
#1 으.
@1 예. 게난 요즘 허는 게 마농, 양파.
#1 으.
@1 주로 그거 헴구나? 여긴.
#1 김녕은 보, 주 작물이양 마늘, 양파.
@1 예. 마늘 양파예?
#1 김녕 마늘이 게도 전국적으로 젤 알아줄 거우다. 이제는.
@1 으.
#1 어떠냐 허믄 에, 제주도에서 강정 마늘이, 모슬포 강정 마늘이 그 구가 크다 헷는데.
@1 예.
#1 나도 그 농협 이사도 헷주만은. 그때 우리 일 년에 한 번씩은 이사헐 때는 그 가락동 시장에.
@1 예.
#1 시장 조사도 가고 헷는데. 가믄 그 거기 관계자들이 그런 말을 허여. 김녕 마늘은 구는, 구는 적어도.
@1 으.
#1 하, 일주일 간 그냥 깐마늘 놔둬도 변, 변질이 안 간다 거라.
@1 아, 염분이 잇어서 그런가?
#1 그런, 그건 우린 몰르지.

@1 으.

#1 게서 이젠 그 가락동에 나와 가지고 바로 곁에 그 현대백화점 가보니깐 그런 납품허는 델 가보니까 그 담당 직원이, 여기 담당 직원 여기 말뿐이지, 여기 잇질 못헌다 거라. 웬고 하니 김녕 마늘만 찾아 버리니까 이 사람이 못 견디게 헌다는 거라.

@1 으.

#1 왜, 우리도 여기 고객인데 왜 다른 사람은 주고 우리는 안 주냐고 막 싸움이 난다 거라.

@1 어.

#1 겐 물어보니깐 강정 마늘이 구가 커도 이삼일이믄 변질이 누런색이 나온다 거라. 김녕 거는 저 옥이라는 거라, 반들반들헤.

@1 아.

#1 으, 일주일 이상 가도 그 김녕 마늘은 특이성이 하나 잇다 헤 가지고 최고로 알아주는 거.

@1 으, 그렇구나예?

#1 으.

@1 김녕 마늘 상 먹어야쿠다게.

#1 아니, 아니. 그런 유래가 잇어.

@1 예.

#1 가락동 시장가믄 그런, 그런 이야기 헤.

@1 예. 그러면 요즘은. 그리고 이 여기가 동쪽인데도 이 저쪽 한동이나 이런 데는 그 뭐꽈? 당근 허는데, 이 동네는.

#1 당근.

@1 또 당근을 안 허더라예?

#1 당근도 요 해수욕장 쫌 지나면 쪼금, 쪼끔허여.

@1 쪼끔허고.

#1 어, 쪼끔허여.

@1 으.

#1 모래밧디 쪼꼼 허여.

@1 쪼끔하고.

#1 당근밧은 이 흑밧딘 안 뒈고. 왜냐믄 돌이 잇어 가지고.

@1 예.

#1 자갈.

@1 예.

#1 이상허게 그 이거 저기 잇으면 기형아 같이 생겻버리거든.

@1 예.

#1 당근이.

@1 아.

#1 당근은 무조건 무나 당근이나 미인이 뒈야 뒈어.

@1 으.

#1 착착 나와야 허는데 그 돌이나 잇으면은 그 기형아 ᄀᆞ치 이상허게 또 이상케 나와 불민 거 안 뒈어. 상품이 안 된다 이거라.

@1 게서 모래밧데예?

#1 모래밧데.
@1 어.
#1 모래밧덴 돌이 없으니깐.
@1 거, 이 맞아, 여기는 완전 돌팟이지예?
#1 다 돌팟이지. 이디.
@1 여기 돌팟예, 맞아. 근데 밧들이 너무 조그만 조그만헹은에.
#1 조그만 조그만.
@1 으, 어쨋든.
#1 농경지는 많은 거 닮아. 같아도.
@1 예.
#1 실, 실지 실소유는 얼마 안 둼, 조그만 조그만. 손바닥만썩.
@1 그러니까.
#1 (웃음).
@1 경헹 요 어디우꽈? 요기 계장님네 앞인가, 그 밧, 옛날 진드른가 뭐.
#1 진머를.
@1 진머를. 거기 밧 만들엇덴 헙디다. 나 조사헐 때 보난.
#1 으, 그때도 왓다갓구나.
@1 예게, 아까게 이천사년에.
#1 예. 거기가 저 에, 이번 거 농업기술센타에서 그 저 하우스단지가 뒐 거우다. 거기가.
@1 으, 진ᄆᆞ를 그게.
#1 진ᄆᆞ루.
@1 만든 밧이렌 허드라고예. 예.
#1 마을, 마을 밧인데.
@1 마을 밧이구나.
#1 마을, 마을 거우다. 개인 사유지가 멧 개 안 둼어.
@1 예, 토지를 만든 거니까. 어쨋든 요런 식으로 헹은에 하고예. 우리 모른 거는 또 다음에. 여자 삼춘들한티도 ᄒᆞᆫ번 영 저기 들어봐야크라. 여자들이 허는 일들은.

8. 구좌읍 김녕리(2)

- 조사 일시: 2021년 12월 20일
- 조사 장소: 제보자 자택
- 조사자: @1 김순자 @2 김미진 @4 오경임
- 제보자: #2 이삼년

일월

정월 멩질

@1 삼춘 옛날에 저기 정월 멩질에.

#2 으.

@1 정월 멩질허젠 허면 어, 뭐 준비헨마씨?

#2 고사리도허곡 콩나물허곡. 요새는 콩ᄂᆞ물, 고사리.

@1 예.

#2 그다음 메쏠.

@1 으.

#2 겡거리[겡꺼리], 제숙도 몰른제숙.

@1 예.

#2 또 구웡 올릴 거 저 무시것고, 적헐 거 뒈야지고기, 소고기.

@1 으.

#2 바닷고기도 허는 사름은 허곡 엇인 사름은 말곡.

@1 으. 게믄 건 언제 메칠 전부떠 준비헙니까?

#2 메칠은게. 낼 헐 거민게 모리헐 거민 오널부떠 준비허는 사람 잇곡. 또 낼 헐 거 오널 허는 사름도 싯고. 거 들으 엇나.

@1 으.

#2 들으 엇어.

@1 직접 삼춘이 저기 콩ᄂᆞ물도 놘?

#2 콩ᄂᆞ물 옛날엔 놘 헷주.

@1 으.

#2 겐디 이젠 놤샤? 다 사멍덜 헴주.

@1 옛날 콩ᄂᆞ물 놀 땐 어떤 식으로 놘마씨?

#2 콩ᄂᆞ물도게, ᄒᆞ룰, ᄒᆞ루 물 두 번 세 번은 줘사주기.

@1 으. 그 콩ᄂᆞ물 놓는 콩이 ᄯᅮ납니까?

#2 아니주만은. 물 컷당은에 물, 물울민 건져근엥에 무신 시리에나 뭐 무신 뭐 아무 것에라도. 소코리라도 놔근엥이 물 우이 자꾸자꾸 물 주민 뒐 거주.

@1 으. 그렇게 헤근엥에예?

#2 으.
@1 게믄 그 정월 멩질 전날은 무시거 헤마씨?
#2 전날은 무시거 허여? 전날 무시거 아년다.
@1 으.
#2 멩질 전, 멩질 전날 출렴셰.
@1 예.
#2 으. 그때 다 제물이고 제숙이고 다 허주게.
@1 게난 그날 허는 거, 저 제물은 무신거 헤마씨? 집에서 헐 때.
#2 곤떡허고.
@1 으.
#2 만뒤떡, 지름떡, 제펜.
@1 으.
#2 제펜이영 다 헌다게. 만, 만뒤떡, 곤떡, 지름떡. 전기 지지곡.
@1 으.
#2 묵 쑤곡.
@1 이게 다 전날 다 허여예?
#2 으.
@1 으. 곤떡은 무신거우꽈?
#2 곤떡?
@1 으.
#2 곤떡, 곤쏠로.
@1 곤쏠로 어떻게 만든 게 곤떡?
#2 옛날엔 셍펜이엔 헹 이젠 조개셍펜 헹 동글랑허게 허는디, 옛날엔 그추룩 안 헤낫저게이. 이젠 동글랑허게 이젠 헴셰게.
@1 예. 옛날에는 곤떡을 어떤 식으로 멘들안?
#2 곤떡은 영 소랑하게 세 세 세 세워, 세모나게 헤셰.
@1 옛날엔 세모나게, 조개송편 헷수과? 옛날에는.
#2 으.
@1 여기, 이 동네도예?
#2 으.
@1 겐디 요즘은.
#2 으.
@1 이 이렇게 동글랑헌 거는 뭐, 무신거렌 헤?
#2 이제사 헴셰. 이제사 그건.
@1 이제사.
#2 으.
@1 으.
#2 옛날엔 경헷주만은 이제사 동그랑헌 건 이제사 헴저.
@1 예. 그거를 여기서는 그냥 곤떡이렌 허고예?
#2 으.
@1 으.

#2 이제 셍편, 셍펜 헷주, 조개셍펜, 조개셍펜.

@1 조개셍펜. 게난 그 저 곤떡헐 때 쉬도 놔?

#2 으? 순메 놧주, 순메. 만뒤떡에도, 만뒤떡에. 만뒤떡엔 저 ᄆᆞ믈쏠, ᄆᆞ믈ᄏᆞ루로 만뒨 헌다 만은이.

@1 예.

#2 이젠 이신 사름은 거 ᄆᆞ믈ᄏᆞ루로 만뒤 허곡. 곤떡으론 곤쏠로 곤떡 허주만은. 이젠이 허는 사름은 허곡 만뒤떡은 아녀는 사름은 아년다.

@1 만뒤떡은 안 허고예?

#2 허는 사름은 헌다게.

@1 으, 지금도예?

#2 으.

@1 지, 지름떡은?

#2 지름떡은 기냥 춤쏠로 허는 사름은 춤쏠로 허곡. 또 기냥 멥쏠로 허는 사람은 멥쏠로 허곡.

@1 삼춘네는 무신걸로 주로 헙니까?

#2 우리?

@1 으.

#2 기냥 기냥 앚앙 첨 아무 거라도 헌다게. 기냥 확 사당도 허곡.

@1 사당도 허곡. 삼춘 언제부떠 사당 허연?

#2 그거 사오건 디 오랫저게.

@1 오래연? 으.

#2 이거 어는제고.

@1 (웃음) 제펜은 어떤 식으로 멘들아?

#2 으?

@1 제펜.

#2 제펜?

@1 으.

#2 제펜은게 시리 허영 허주게.

@1 으, 쏠로만 헙니까?

#2 쏠로만 헤영 제펜 헌다.

@1 저, 순메 안 놩?

#2 순메 놩.

@1 아, 순멘 놓고?

#2 으, 으. 순메 놔사.

@1 순메는 보통 무슨 순메 놔?

#2 풋으로, 풋 논다, 풋. 풋.

@1 풋예. 경헹 제펜을 허고.

#2 으.

@1 그때는 풋 다 저 뿟앙은에 헙니까?

#2 으.

@1 으.

#2 막 뼛앙.
@1 여긴 전기떡은, 전기떡도 멩질 때 헤?
#2 전기떡이엔 헌 건 뭣고, 지름떡?
@1 아니 아까 정기떡, 빙떡 헌덴.
#2 빙떡?
@1 으.
#2 빙은이.
@1 으.
#2 그냥 먹젠 지지는 사름은 지지곡. 경 아니 허민 제 제ᄉᆞ엔 경 올리지 아년다.
@1 안 올리고. 전은 어떤 거 허여?
#2 으?
@1 전, 전. 전 짓는 거.
#2 전기, 전?
@1 예.
#2 전, 계랄전.
@1 으.
#2 계랄전허곡.
@1 계랄전은 꼭 헤예?
#2 으. ᄆᆞ믈ᄏᆞ룰 허영 묵도 쑤는 사람도 싯곡 두부 허는 사람도 잇고.
@1 아.
#2 두부로 묵 허곡 둠비로, 두부, 두부.
@1 둠비로. 으.
#2 ᄆᆞ믈ᄏᆞ룰로 쒀근에 적 허는 사름도 잇고. 묵 허는, 묵 허는 사름도 잇고.
@1 예.
#2 두부로 허는 사름도 잇고.
@1 게난이 아까 이런 떡이영 적이영 이런 걸 문딱 다 전날 허는 거?
#2 으.
@1 멩질 전날.
#2 멩질날은 전날.
@1 멩질 전날.
#2 식겟날은 그날 헤도.
@1 으. 게믄 멩질날은 게믄 밤 늦을 때까지 막 준비헤야켜예?
#2 수주 웃쉬나 하민 늦게, 늦으 늦두룩 허주게.
@1 으.
#2 으, 수지 하지 아년 사름은 간단허게 허젠 허민 경 하영 웃쉬나 하지 안허민 하영 아년 다만은게.
@1 으.
#2 웃쉬나 한 딘 막 적 허누라 떡허누라 막 그 헌다게, 전날.
@1 으, 삼춘네는 어떵 허여?
#2 우리 전날 다 헌다.
@1 전날 다 허고예? 예.

#2 으.

새벡국

@1 그 멩질날 아침이 일찍 헤근에 그 칼국수 헹은에 올리기도 헙니까?
#2 새벡국.
@1 새벽국.
#2 으.
@1 그걸 어떤 식으로 헌 게 새벽국이우꽈?
#2 ᄆᆞ믈, ᄆᆞ믈ᄏᆞ루로 헹은에 썰엄셰.
@1 으.
#2 썰엉. 썰어근에 새벡국, 이제 샛날 들민.
@1 예.
#2 샛날 들민 썰엉 그 국수헹 웃쉬에 올린다.
@1 거는 멧, 멧 시에 헤마씨?
#2 혼 혼 시나 두 시나 뒈민.
@1 아.
#2 새날 뒈엉.
@1 새날 뒈엉. 새날 딱 돌아오면예?
#2 으, 으.
@1 거는 게민 조상 나시 전부 다 허는 거?
#2 으, 전부 올려. 열 열이민 열 올렴주게. 열 사름.
@1 아.
#2 열 그릇.
@1 열 그릇예?
#2 으, 수 이녁 웃쉬대로.
@1 그 우, 웃쉬대로예. 게믄 웃대에 이렇게 딱 헤갖고.
#2 으.
@1 게믄 누게부떠 올려마씨?
#2 큰하르방덜부떠 올리주게.
@1 으.
#2 웃대 때 하르방덜부떠게.
@1 하르방, 할망, 하르방. 웃대부떠 헤 갖고.
#2 이녁, 이녁 식게허는 건 다 올린다.
@1 예.
#2 이녁 식게허는 건.
@1 식게허는 건.
#2 새.
@1 그걸.
#2 새벡국.
@1 새벽국예. 게믄 그거는 ᄆᆞ믈칼국수 헹은에 허는 거?
#2 으, ᄆᆞ믈.

@1 ᄆᆞ멀칼국수는 어떤 식으로 멘들아마씨?
#2 썰엉, 썰엉. 납작허게 밀어근에 썰엉.
@1 썰엉.
#2 으. 칼국수주게, 칼국수.
@1 칼국수예?
#2 으.
@1 겡 그거를 무슨 국 헤?
#2 으?
@1 새벽국이렌만 헹, 칼국이엔도 헙니까?
#2 무시거, 놓는 거?
@1 으. 놓는 거 뭐 놔?
#2 게, 소고기도 놩 허는 사름도 싯곡이.
@1 으.
#2 또 아니 놩 허는 사름도 잇고게. 으.
@1 으. 혹시 꿩고기로도 헤봅디가? 여기도.
#2 꿩?
@1 으.
#2 무사, 꿩 우린, 우리 세곈이 꿩 아년다.
@1 아, 꿩 안 허고.
#2 그자 저.
@1 송당은 가난.
#2 저렌 꿩 헴실 거여. 우리 세곈 꿩 아년다게.
@1 여긴 꿩 안 허고예? 아, 새벡국을 꼭 하는구나. 게믄 요즘도 새벽국.
#2 요새, 요샌 새벡국 안 헴셰, 옛날은 헷주만은.
@1 으.
#2 이젠 새벡국 설러분 때 오랫저.
@1 언제까지 헌 거 닮아? 삼춘.
#2 새벽국 허고 설르건 디 막 거자 흔, 흔 오십 년 뒌 거 닮다.
@1 아.
#2 오랫저, 오랫어.
@1 오랜예?
#2 새벡국 허단덜이 다 설러 비어라.
@1 으, 겡 새벡국 헹 올령 그다음에, 게믄 또 좀자당은에 일어낭은에 저기 허는.
#2 좀자민 무시거 좀자. 그 설거지 허누라 무시거 허느라 허민 또 아침 멩질헐 거 출리누렌 허민 좀잘 어의 엇나. 설거지 허곡 무시거 허고.
@1 으.
#2 그 그릇 다 씻어사 다시 멩질허곡, 허여.
@1 으. 새벽국 여기도 헷구나예? 그다음.
#2 겐디 이 이젠 새벡국 안 헴셰.
@1 예. 옛날은 정월 멩질 허면.
#2 정월 멩질에만 새벽국 허주게. 다른 멩질엔 아년다.

@1 정월 멩질에예?
#2 으.
@1 정월 멩질 허젠 허면 옷들도 준비헤야 뒈지 안헤?
#2 게 옷도게 헤.
@1 어떤 식으로 헷수과?
#2 옷도 헤영 허영 입는 사름은 입곡. 이신 거 그냥 입는 사름도 잇주게.
@1 으.
#2 옷사.
@1 경헤도 삼춘.
#2 곱닥허게 입젠 허민들 아이덜이영 정월 멩질에 입을 것덜 허는 사름은 허주만은양, 아긴. 이젠 경 헴샤, 맨날 곤옷덜 입어부난.

과세

@1 이젠 맨날 곤옷예. 예, 맞아. (웃음) 옛날 과세들도 하영 뎅겻지예?
#2 옛날은 과세 뎅겻주마는 이제, 이젠 과세 설러 비엉 안 허지 안헴샤?
@1 예. 옛날 과세헐 땐 어떤 식으로들 헤낫수과?
#2 과세허는 땐 그냥 막 절허여근에 허민 무시거 술이나 무시것고, 그 안주 헹은에 먹으렌 주주기.
@1 으.
#2 게믄 먹엉 간다.
@1 세뱃돈도 줜?
#2 으?
@1 세뱃돈.
#2 세뱃돈도게 잇당 줄 만헌 손지덜이나 누게 오민 주곡.
@1 으.
#2 또 경 아년 사름은 아녀고.

차례상

@1 으, 으. 그 삼춘, 세배, 그 멩질날예? 상 영 출릴 때.
#2 으.
@1 떡 궬 때는 어떤 식으로 궵니까? 떡은 뭐가 젤 먼저 놔?
#2 젤 앞이 안넨 알르렌 제펜 올려난 다음에이.
@1 예.
#2 곤떡, 만뒤떡, 지름떡은 젤 우이 경 올린다.
@1 계랄전은?
#2 어?
@1 계랄, 계랄전?
#2 계랄전은 또 정기, 저, 저, 전대로 ᄯᅳ르. 정 흔 쟁반 하나 허영 또 올리곡.
@1 아, 건 떡에?
#2 ᄯᅳ르.
@1 떡에, 떡에 올리지 않고.

#2 으.
@1 따른 쟁반에 헹.
#2 으 으.
@1 올리는 거예. 계랄전.
#2 계랄전.
@1 으.
#2 또 멩질 때엔이.
@1 예.
#2 웃쉬 한 디덜은이 그 흔 웃쉬에 흔 쟁반 적이영 막 계랄전이영 무시거영이 적도 적도 두 가지민 두 가지, 몰린제숙이영 다 ᄀᆞ찌 놩 걸 올리, ᄠᅳ르 헹 올리곡 올린다게.
@1 예.
#2 식게 때엔 엄지(?)로 허주만은.
@1 으.
#2 멩질엔.
@1 멩질에는.
#2 각각이 올리는 사름은 각각이 올린다.
@1 각각이 올리기도 하고예?
#2 웃쉬, 웃쉬 대로.
@1 웃쉬 대로. 으, 그 여기는 몰른제숙은 무시거로 몰른제숙 헙니까?
#2 우럭이나게 볼락이나게.
@1 으.
#2 요새 요새엔 흰조기덜 나부난 흰조기나게 헴셔. 무신 옥돔 ᄀᆞᄠᅳᆫ 것덜 경 헌다.
@1 근데 원래 이 동네는 그 우럭이나 볼락예, 거의?
#2 옛날은 이딘 보통 우럭.
@1 아, 이 동넨 우럭?
#2 우럭, 우럭 헌다.
@1 으, 아까 삼춘은 몰른제숙은 이런 거 허고. 그다음 몰른제숙 말고 바닷고기로 허는 것도 잇수과?
#2 바, 바닷고긴 적덜게.
@1 적덜.
#2 으.
@1 어떤 적덜 허는 거? 그걸로.
#2 적게, 뒈야지고기적이여 소고기적이영.
@1 으.
#2 바닷고기적이영 이신 사름은 다 헤영 올린다게.
@1 바닷고기는 뭐, 상어로 헙니까?
#2 상어로 허는 사름도 싯곡게. 무시거 부리 ᄀᆞᄠᅳᆫ 거 허는 사람도 싯고. 또 아녀는 사름은 아녀곡.
@1 부리?
#2 부리.
@1 부리는 어떤 거우꽈? 부리.

#2 부리옌 허는 건 방어 아니가, 방어.
@1 부시리, 부리.
#2 방어, 방어ᄀᆞ라.
@1 방어.
#2 부리렌 헴저, 옛날.
@1 으. 방어를 부리렌 헨예?
#2 으, 방에. 방어ᄀᆞ라 이 부리옌 허는 셍이라.
@1 으, 제방어, 옛날 큰방언가? 그거.
#2 으, 그런 걸로 적헌다.

금기

@1 예, 적예. 적, 그걸로 헷구나게. 부리. 그 정월 멩질에는 어디 그 뭐 허지 말라 허는 이런 말도 이십니까?
#2 무시거 허지 말렌.
@1 게도게 정월, 놈의 집이 가거나 이런 거는. 뭐 바농질허지 말라라든가.
#2 거 새철날.
@1 샛절날.
#2 새철날 어디 놈의 집이 새벽 칩이 가지 말라.
@1 으.
#2 새철날.
@1 또 저기 섣둘 그믐날 줌자면 눈썹 흰덴 이런 말도 허여?
#2 옛날, 옛날 할망덜 ᄋᆞ, 밤 늦게 저 잠자민 눈썹 흰덴 헨게, 거 옛날말이주게. 옛날말.
@1 예. 그런 말 삼춘도 들어봔예?
#2 으.

정월 대보름

@1 이 동네는 정월 대보름에 뭐 허는 것도 잇수과? 정월 대보름에.
#2 대보름에이 잇당 운수나 나쁘덴 헌 사름은.
@1 예.
#2 저, 방ᄉᆞ헌다게.
@1 으.
#2 겐디 옛날은 그런 거 잇어도 이딘 이제 방ᄉᆞ허는 사름 엇어.
@1 으. 방ᄉᆞ허는 거는 어떤 식으로 허는 걸 방ᄉᆞ허는 거우꽈?
#2 몰라.
@1 으.
#2 영 옷 앗앙 강 또 영 웃옷 헹 강이 술아 부는 사름도 싯곡.
@1 으.
#2 또 기냥 무시거 영 대강 보민 허제비, 허제비 멘들앙이.
@1 으.
#2 또 헹 강 아무도 몰르게시리 강 세왕. 그 딴 사름 놀레게시리 허는 거라. 거 원칙은.
@1 으.

#2 세왕 가불, 에, 몰르게 확헤영 놔둬 가부는 사름은 가곡 헌디. 우린 그런 거 아녀봐 부난 몰라.
@1 삼춘 안 헤봣구나. 게믄 그 방, 허제비 멘들앙 놓는 거는 어디 강 놔? 보통.
#2 세커름에이.
@1 세커름에, 예.
#2 그 방ᄉᆞ허는 거 세커름에.
@1 으. 거는 새벽이 강 놔부는 거?
#2 방ᄉᆞ?
@1 방ᄉᆞ허는 거예? 으.
#2 액막는 거게, 그거.
@1 액막는 거. 게난 그 액막는 게 정월 대보름허는 거 아니라예?
#2 으, 대보름에.
@1 대보름에. 그 그걸 이 동네도 뭐 벨롱겡이 이런 말도 헙니까?
#2 으?
@1 벨롱겡이렌 말 골아? 그런 말은 안 허여?
#2 이디?
@1 으.
#2 그런 말 엇나.
@1 그냥 액막이.
#2 으, 액막이.

연날리기

@1 액막이 하는 거예. 건 정월 대보름날. 정월 대보름날 혹시 뭐 여기 연날리고 헹은에 불테왕 올린덴은 말도 들어봅디가?
#2 아니 그런 거 우린, 우리 세젠 그 불살랑 올리는 건 엇어라.
@1 으, 그건 엇고.
#2 으. 막 놈들은이 애 헹덜, 아이들 허는 띄우는 건 봐낫저.
@1 예.
#2 게주만은 불테운다 무시거 헌다 허는 건 안 봐봐서.
@1 안 보고. 그냥 방ᄉᆞ들은 하영 헷구나.
#2 으?
@1 방ᄉᆞ허는 것들은 하영.
#2 방ᄉᆞ허는 사름도 막 멩심헌 사람이나 허주게. 경 아무나 아년다게.

조왕제

@1 으. 혹시 집에 그 정월에 집에 안택 허거나 이런 것도 헤봅디가?
#2 뭐?
@1 집에서 그 집안 편안하게 헤줍서 헤근에 뭐 심방.
#2 조왕제, 조왕제.
@1 아, 조왕제?
#2 으.

@1 조왕제는 언제 허는 거, 삼춘?
#2 조왕은, 정월 나민이.
@1 예.
#2 날 봥 헌다게.
@1 날 봥?
#2 으.
@1 보통은 어느, 어느.
#2 아이덜 이녁 집에 아기덜 영 영 나 놔근엥이.
@1 으.
#2 경헹 날 봐근에이 그 셍기 맞인 날 조왕에 불싼다게.
@1 조왕에 불싸는 건 누게가 불싸는 거우꽈?
#2 기냥 심방 빌어당 허는 사름 싯고.
@1 으.
#2 또 시님 빌어당 허는 사름도 싯고.
@1 예.
#2 또 이녁 냥으로 또 글 안 사람은 또 천 미신 그 조왕경, 조왕경인가 뭐 익는 사름이 잇곡 경 헌다.
@1 아, 조왕경예?
#2 으, 조왕경.
@1 삼춘네는 어떤 식으로 헤난?
#2 난 난 기냥이 저 요샌 안 헷주만은 옛날 헐 댁엔 기냥 나 냥으로 기냥 헤영이.
@1 으.
#2 기냥 말명도 아녀곡 그냥 절만 헹 말앗저.
@1 게믄 어디에? 조왕에.
#2 조왕에서 불 쌍.
@1 조왕에 그 초예. 으.
#2 으, 조왕에 밥헤영이.
@1 예.
#2 저 밥자 솟디 그냥 꼽앙이.
@1 예. 아, 밥을 허고.
#2 으. 밥 솟디서 허민.
@1 예.
#2 옛날 검질불 솜앙 밥 안 헤샤게.
@1 예, 예.
#2 게민 솟, 솟뚜껭이에 읋앙.
@1 으.
#2 밥자 그레 영 꼽아.
@1 아, 밥헌 거에?
#2 숟구락 꼽듯이.
@1 예.
#2 꼽앙 경 헤영이. 조왕경 익는 사람은 조왕경 익고. 또 경 아년 사름은게 펜안허게 헤줍

센 헤영 절만 허는 사름은 절만 허곡.
@1 아.
#2 물 올리곡이.
@1 예.
#2 경 헤근에. ᄉᆞᆼ키도 올린다, ᄉᆞᆼ키.
@1 아, ᄉᆞᆼ키. ᄉᆞᆼ키는 무신거 올려?
#2 콩ᄂᆞ물이나 고사리 영 헤여근에 올령 헌다게.
@1 으.
#2 경 헤근엥이 저 미시것고, 그 밥자에 그냥 그 밥 그 ᄒᆞ쏠 떠내여근에 저 우이로이.
@1 예.
#2 그냥 떠내영 그 숫, 불치 이신 디 잇지 아녀냐.
@1 예.
#2 ** 솟뚜깡드레이.
@1 으.
#2 뚜깡드레 톡톡 영 세 밧드레 영 톡톡 튿아 논다.
@1 으.
#2 경헤영 만다게.
@1 아.
#2 톡톡.
@1 게난 솟에 이렇게 헷당.
#2 으.
@1 나중에 이거를 불치에 이렇게 세 군데.
#2 으. 세 영 솟뚜깡드레게.
@1 솟, 예.
#2 솟뚜깡드레 톡톡 세 밧드레 영 영 거려 논다게.
@1 솟강알에.
#2 솟강알에 아니.
@1 불치.
#2 솟뚜깡드레.
@1 뚜깡드레.
#2 으.
@1 으.
#2 경헌다, 조왕제 헤나민.
@1 조왕제 헤나면. 게난 밥허고 채소만 영헹 국 같은 건 안 허고?
#2 밥, 국은 아년다.
@1 안 허고예?
#2 조왕에 국은 아년다.
@1 아.
#2 물만 허영. 무사 제비쏠도 올리곡이.
@1 거기도?
#2 으.

@1 으.
#2 제비쏠도 올리곡게 멩세도 돈게 앗아 누게 앗아가 불지 아녀는 거난이.
@1 으, 으.
#2 올렷당 또 내리곡 경 헌다.
@1 으. 겡 거 삼춘 멧 술 때까지 헨?
#2 으?
@1 그 조왕제는 멧 술 때까지 헤봅디가?
#2 몰라, 흔 쉬남은ᄀᆞ장 헤신가?
@1 자식들 다.
#2 으. ᄒᆞ꼼 인칙 허단에 기냥 설러 빗주게.
@1 예. 게난.
#2 옛날엔 막 덜 ** 헨게이 이젠이.
@1 으.
#2 막 ᄒᆞ꼼 무시거 헌 사름이나 허주. 이젠 허는 사름 엇어.
@1 예. 이젠.
#2 으.
@1 게도 이제도 허는, 이실 거라예?
#2 이제도 허는 사름 이실 거여.
@1 으.
#2 으.
@1 불쌍은에. 겡 삼춘은 뭐 심방 빌어 보진 안허고?
#2 나, 심방 빌언 안 헤, 안 헤 봔.
@1 그냥 삼춘대로?
#2 나대로 그냥 헤연.
@1 으. 거난 잘 들어줍디가?
#2 으?
@1 잘 들어줍디가?
#2 아, 어떵사 헨 헤신디 기냥, 기냥저냥 넘어가세게.
@1 게난 자식덜 다 잘 뒈곡게.
#2 그냥 넘어갓저.
@1 으.
#2 자식들은 어디 난 애기 키와져샤만은게.
@1 으.
#2 기냥저냥 넘어갓주게.
@1 예, 겡은에 이거는 날 받앙은엥에 헹 조왕제렌 헹은에 헷구나.
#2 으.
@1 헷구나.
#2 조왕제 날 받앙 저 아기덜 여녕 놩이.
@1 예. 겡은에 이거는 보통 게믄 정월에.
#2 으. 정월에나 삼월둘에나.
@1 정월에나 삼월에나예? 겨.

#2 대강 경 헌다.
@1 으. 겡 그 이름을 조왕제렌 허는 거예?
#2 조왕제.
@1 예. 그다음에 이 동네도 뭐 저기 방사탑 같은 거 잇수과?
#2 뭐?
@1 탑, 답, 답, 답. 거욱대 같은 거. 탑 영 동네 영 세운 것덜 잇어?
#2 무시거 세운 거?
@1 으. 돌, 돌로 영 탑 쌓은 거.
#2 그런 거 엇어.
@1 그런 건 엇어예?
#2 으.
@1 그다음에 액막이는 하고.
#2 저 당, 당에덜 뎅기느네. 당에덜.
@1 당.
#2 정월에, 정월에.

당

@1 정월에 언제 당에 뎅겨마씨?
#2 정월, 정월 열사흘은 큰당이엔 헹은엥 가이.
@1 예.
#2 요 우리 김녕ᄆᆞ을 직헌 당엔 허영 가곡.
@1 예.
#2 열사흘 제일에.
@1 열사흘 제일에.
#2 어. 열사흘 제일에 가곡. 또 열 저 열ᄋᆞ드레.
@1 예, 열ᄋᆞ드레.
#2 그건 저 어디 성세기.
@1 예.
#2 성세기, 배에 뎅기는 사름이영 갯것이 뎅기는 사름이영 펜안허게 헤도렌 헤근엥에 그디 저 당에 가곡.
@1 예.
#2 경허곡 ᄯᅳ시 일뤳날은 정월 열일뤳날은 또 저 일뤠.
@1 예.
#2 일뤠할망 아기 낳은 나는 할망, 할망당이엔 헤근에 간다.
@1 그 할망당은 어디 이수과?
#2 저, 서 서김녕 저 서, 남흘동네이.
@1 예.
#2 그 절간 앞 에염에 잇저.
@1 예, 예. 아, 그게 열일뤳당이우꽈? 그저 그 백련사 앞으로.
#2 으.
@1 그 길로 헹은에 간 디.

#2 질로 헹 간 딘 그건 기냥 아기덜 못 낳나 무시거 허민 공들이레덜 경 그딘 가곡.
@1 예.
#2 제일이엔 헌 딘 또 요짝에.
@1 맞은편에.
#2 이짝드레 잇어, 이 저 절간 바로 절간 앞이.
@1 예. 예, 예. 그 저기 윤동지 영감 헌 딘 어디?
#2 으?
@1 서문하르방 헌 딘?
#2 서문하르방은 가는 사름은 가곡 안 가는 사름은 안 간다게.
@1 아, 서문하르방은 날 받앙 가는 건 아니구나예?
#2 으, 으.
@1 게믄 열사흘날은 큰당.
#2 으.
@1 그다음 열여드레는 성세깃당.
#2 성세깃당.
@1 열일뤠날은?
#2 일뤳날은 일뤳당.
@1 일뤳당예. 아, 건 그냥 일뤳당이렌 골암구나예?
#2 으.
@1 게믄 세 군데 가는 거, 이 사람은, 이 동네에서?
#2 으, 일뤳당.
@1 으. 게난 정월에 가고.
#2 정월에 가곡.
@1 또.
#2 또 정월에 하영 간다게, 정월에.
@1 으.
#2 또 저 어디고 그 제일엔가, 열사흘 제일엔 헌 딘이.
@1 예.
#2 저 육지서 와도 가곡이.
@1 으.
#2 정월에만 안 간다.
@1 으.
#2 또 어디레 또 육지라도 가젠 헹은에 또 공들영 가젠 허민 강 왕 가곡 경 헌다.
@1 으. 그다음에 삼춘, 저기 돗당도 잇잖우꽈? 돗제 허는 디?
#2 돗제 허는 디?
@1 예.
#2 이젠 돗제 허는 디 뎅기는 사름 엇어.
@1 아. 거기는 누게네가 뎅겨난 디우꽈? 돗제 허는 디?
#2 몰라, 옛날, 옛날 말명만 경 헷주이.
@1 으.
#2 그디 강 허는 사름 엇어고. 어, 우리 윽은 후제 본 디 엇다.

@1 아, 그냥 삼춘네는.
#2 옛날.
@1 으.
#2 옛날 할망덜 기자 경 헷젠 말만 들엇주.
@1 그 궤네기당예?
#2 으. 궤네기.
@1 으.
#2 원 무시거 원 모신 것도 엇고 아무 것도 엇엉게게.
@1 으. 게난 삼춘네가 직접 가보지는 안 헷구나?
#2 안 가봣저.
@1 으.
#2 안 가왓저.
@1 게난 삼춘네 여기 본향은 큰당?
#2 큰당.
@1 으.
#2 으, 큰당에 허고 성세깃당에.
@1 예. 삼춘도 물질허연?
#2 으. 물질헤낫저.
@1 으, 거난 성세기당 이제 가고예?
#2 으.
@1 예. 으, 으.
#2 주로 베 허는 사름 하영 간다, 성세깃당은.
@1 배 허는 사람예?
#2 으. 배 허는 사름.
@1 예. 게믄 일 년에 흔 번만 갑니까?
#2 일 년에 성세깃당은 일 년에 흔 번 더 가는 사람은 더 간다.
@1 예.
#2 자꾸 가는 사람은 간다.
@1 그다음에 그 저기 줌, 줌수굿도 허지 안헙니까?
#2 으?
@1 줌수굿도 허지 안헙니까? 이 동네.
#2 줌수굿 삼월 초여드레.
@1 으.
#2 삼월 초여드레 저 갯것이서 헌다. 갯것이서.
@1 예.
#2 삼월 초여드레 언제라도 헌다.
@1 으.
#2 해마다.
@1 그 큰당은 누게가, 어느 심방이 헴수과?
#2 다 그 심방이 그 심방.
@1 뭐 여기 저 서순실 심방이 허멘? 이젠 전부?

#2 그 심방이 그 심방.
@1 으. 성세기 허는 것도.
#2 으.
@1 그 어, 어머니가 헤나지 안헷수과? 옛날에.
#2 어멍, 으, 어멍 허단 어멍 죽어 부난에 똘 허여, 똘 허여.
@1 아.
#2 옛날엔 또 다른 심방 헤낫저게.
@1 예.
#2 게 다 죽어 부난덜게 그, 그 이름 무시거산디, 가의.
@1 서순실.
#2 으, 거.
@1 문순실 헤난 사람.
#2 그거 마탕 허여.
@1 아, 일뤳당도 거기가 다 허곡?
#2 으, 다 간다게. 벌 거난 안 가느냐?
@1 으.
#2 허이구, 성세깃당에쯤 갈 때쯤은 막 성이여 아시여 아주망이여 다 간다.
@1 으.
#2 막 부름씨덜 허레.
@1 부름씨. 성세깃당 가는 게 크구나예? 이 동네는예?
#2 으. 성세깃당허곡 저 열사흘제일이 큰다게.
@1 으.
#2 게민 막 아시덜이영 다 가메.
@1 아, 심부름허레?
#2 부름씨허레.
@1 예.
#2 벌레.
@1 부름씨허레예? 그렇게 헹은에 당 하고. 삼춘은 멧 살까지 당에 뎅견?
#2 당에 ᄒᆞ, ᄒᆞ꼼 오래 뎅겨서게. ᄒᆞᆫ 거자 으, ᄒᆞᆫ 칠십댓ᄁᆞ장 뎅겨실걸.
@1 아.
#2 으.
@1 당에 갈 때는 무신거 헹 가마씨?
#2 무시거 경 안 헤영 간다게.
@1 거기, 거기.
#2 밥하곡.
@1 으. 밥허곡.
#2 물른, 물른제숙이.
@1 예.
#2 우럭을 구웟던 원 멩텔 구웟던 경 구워 놓곡 계랄이나 또 서너 개 숢아 놓곡 종이이.
@1 으.
#2 종이 지전 또 물왕 또 댓 장 또 놔지민 놓곡. 소주 그 서넉 잔 헤놓고.

@1 으.
#2 경허연 거뿐.
@1 떡은 안 헹 가?
#2 떡헹 가는 사름은 떡헹 가곡 밥헹 가는 사름은 밥헹 가곡.
@1 아, 밥이영 떡이영.
#2 아니, 아니.
@1 ᄀᆞ치 안 허여?
#2 으.
@1 아.
#2 떡 백시리떡이, 영.
@1 예.
#2 흔 뒈 들엄직허민 쪼끄락헌 시리가 잇나.
@1 예.
#2 그것에 쳥 가는 사람은 가곡 밥헹 가는 사람은 밥헹 가곡.
@1 으, 삼춘은 무시거 헹 간?
#2 으?
@1 삼춘은 주로 무시거 헹 간?
#2 우리?
@1 으.
#2 우리 어린 땐이.
@1 으.
#2 막 그 큰 정월쯤엔이.
@1 예.
#2 흔번 떡 쳐 보게 헹 ᄉᆞ망일게 뒈민 떡 오그락허게 잘 익넨 헹이.
@1 으.
#2 떡도 쳥 가보곡, 어떤 땐 밥도 헹 가보곡 경.
@1 으.
#2 경, 경헤낫저.
@1 예. 게난 그 당에 갈 때는 그, 그 구덕도 당에 뎅기는 구덕만 ᄯᅳ르 잇지 안헤?
#2 으, 구덕이 잇주게.
@1 예.
#2 당에 뎅기는 거게. ᄀᆞ는대구덕 영 놧당 톡허게.
@1 톡허영에. 그것만 딱 가정 가잖아예? 차롱도 거기에 놩예. 으, 으.
#2 제비쏠도 놓곡, 그것에도.
@1 으 제비쏠도 놓고.
#2 으.
@1 그 아까 삼춘, 조왕제 헐 때 제비쏠 올린덴 헷잖아양?
#2 제비쏠 올린다.
@1 게믄 그 제비는 누게가 봐?
#2 제빈게 누게가 봐. 이녁 냥으로라도 영 헹 기자 이레영 저레영 줍아놩 말암주기.
@1 아, 그냥 영 허영 봉은에 먹진 아녀고.

#2 으. 경도 헐 땐 헌다마는.
@1 (웃음) 왜 심방이 허면 그 주면 먹잖아예?
#2 으, 심방은 오민 제비 줍아보주게.
@1 예. 경 헹 삼춘도 그 제비 직접 줍아봔?
#2 영 줍아보민게 영 에고, 멧 술 난 거 이제 영 줍아 보앗닥 영 아들 줍아봣당 뚤 줍아봣당 헐 때 허주기.
@1 멧 개가 좋은 거우꽈?
#2 ᄋᆞ섯 방울이 제일 좋은 거렌. ᄋᆞ덥 방울이나 ᄋᆞ섯. 짝 맞인 거.
@1 아, 짝 맞인 게 좋은 거?
#2 으. 경허여.
@1 겡 여섯 방울이나 여덜 방울이 젤 좋은 거.
#2 으.
@1 게믄 이렇게 헷당 딱 이렇게.
#2 영허영 육, 육, 육간제비가 젤 좋은 거엔 헌 거주.
@1 예.
#2 ᄋᆞ숫 방울이.
@1 예. 그래서 육간제비가 나온 말이구나게.
#2 으.
@1 예.
#2 ᄋᆞ섯 방울 줍아지민 건 좋, 막 좋은 거, 좋덴 헌 거주.

안택

@1 예. 아이고, 올해 우리 쑬 줍아 보자, 제비쑬. (웃음) 그렇게 헹 허고. 여기 문전코시 같은 건 안 헤마씨? 올레코시 이런 건?
#2 올레에 식게, 식게 헤낭이.
@1 예.
#2 케쿠리는 사람은 케쿠리레 가곡 아녀는 사름은 아년다.
@1 아, 올레.
#2 막 잡식 헤영.
@1 예.
#2 올레 강 비와 부는 사름은 비와 분다게.
@1 으.
#2 경헌디이 막 보기 싫고 무시것덜 허난이 이제 잘이 올레에.
@1 으.
#2 우린 올레에 안 데껴봣저.
@1 올레 안 허고예. 삼춘네 멩질허거나 이러면.
#2 으.
@1 그 안네 놓넨 헌 말허잖아예?
#2 으.
@1 그 저, 저기 고팡에도 놔봅디가? 그런 것도 허여?
#2 고팡에?

@1 예.
#2 고팡에 안네옌 헤근에가 안네 올린다게.
@1 아, 지금도 올립니까?
#2 으, 올리는 사름은 올린다게.
@1 아.
#2 요새 아니 올리는 디 하. 올려.
@1 으. 게믄 만약에 멩질 때도 다 허잖아예?
#2 으.
@1 게믄 멩질제 큰상허고.
#2 큰상게 저 무시것고. 안네에 잇당 욮이.
@1 으.
#2 바닥데레.
@1 아, 바닥에 그냥예?
#2 바닥에 저 종이 페왕.
@1 예.
#2 똑 그레 헤영 올리는 사름 싯곡 또 항 우이 강 올리는 사름 잇곡 경 헤.
@1 아, 지금도 조왕에 헹, 그런 거 헴구나.
#2 조왕에 헤낫저, 아니 조왕이 아니고.
@1 안네. 안네.
#2 안네. 으.
@1 예. 문전도 허지 안헙니까?
#2 문전은 쳇거장(?) 제보는 거 아니가?
@1 으, 젤 먼저예?
#2 우선 상 벌려근엥에 제, 제볼 때엔 문전에부떠 문여 올리느녜.
@1 으.
#2 문전에부떠.
@1 아, 벌일 때도 문전상부떠 올립니까?
#2 으. 문전에부떠 문여 논다.
@1 문전상하고. 그다음 큰 본상하고.
#2 으.
@1 그다음 안네 헐 거는 바닥에?
#2 안네, 안네 헐 건 상 엇인 사름은 바닥에 영 백지 꼴앙 논다게.
@1 예.
(전화 소리)
#2 막 어떤 집들은 두, 두이 올리는 디도 잇고 흔나 올리는 디도 잇어.
@1 아, 두 개 허는 디도 잇어예. 삼춘, 전화 왓수다. (생략)

포제

@1 겡 그런 식으로, 여기 포제도 헙니까? 이 동네.
#2 포제 헌다.
@1 포젠 어디 강?

#2 정월에.
@1 정월에, 어디서?
#2 저 드르에서.
@1 아.
#2 드르레 포제 제 지내는 허는 디 집 짓엇저.
@1 아. 그거는 포제는 어느, 어느 시절에 헤?
#2 정월에 헌다게.
@1 정월에예, 건 날.
#2 정월에이.
@1 날 받앙 허고.
#2 제관덜이.
@1 으.
#2 저 여녕 수, 영 맞추왕.
@1 으.
#2 멧 술 난 사름, 멧 술 난 사람 헹이 집 제관, 삼제관 다 뽑으곡. 게민 그 여녕 다 맞추왕 헌다. 생기 맞추왕 곧, 저, 맞은 사름 허영 헌다.
@1 게, 포제단은 어느 쪽에 잇수과?
#2 저 그 집 짓인 디 강 출린다. 나강.
@1 으.
#2 나강. 집이서 이 안네서 안 출린다.
@1 집이서 안 허고예?
#2 드르에 나강 그 출리는 집이 다 잇저.
@1 아.
#2 저, 서 이 옛날엔 동김녕, 서김녕 뚜르뚜르 헤나신디 이젠 훈 밧디만 헨에 서김녕 저 고살미 에염에 집 짓엉.
@1 고살미 잇는 데예, 으.
#2 고살미, 고살미 앞이라라.
@1 아, 게 가봣구나, 고살미 앞이예?
#2 으.
@1 으, 아, 포제도 허고예. 당제도 허고.
#2 포제도 허고.
@1 으.
#2 저 좀녀굿도 허곡.
@1 좀녀굿도 허고. 이 동네 그런 게 허는 게 하예?
#2 다 허여.

보리밭 밟기

@1 그다음에 옛날 여기 보리갈 때 보리밧도 불라난마씨?
#2 에구, 불르는 사름 불르곡 아니 불르는 사름은 안 불른다.
@1 그건 언제쯤 불릅니까? 보리.
#2 정월에.

@1 정월에 것도.
#2 막 북삭북삭 정월 저 보리.
@1 땅 긋아부난.
#2 페기 앚질 때.
@1 아, 보리 페기 앚일 때.
#2 으, 으.
@1 불르는 거라예. 예.
#2 나 놩 페기 앚일 때.
@1 으, 페기 앚일 때 헹은에.
#2 막 땅 긋이지 안허느냐게.
@1 예.
#2 북삭헤부난이 거 불르는 셍이라라.
@1 으, 삼춘네도 불르레 뎅겨봔?
#2 아이구, 안 다녀 봣저.

걸궁
@1 안 뎅겨 보고. (웃음) 이 동네 걸궁도 헤낫수과?
#2 으?
@1 걸궁.
#2 걸궁?
@1 으.
#2 막 옛날에 걸궁 헤라.
@1 어.
#2 으.
@1 그 걸궁은 무사허는 거우꽈?
#2 몰라, 그 돈, 돈 거둡젠 허는 거 아닌가?
@1 으.
#2 으.
@1 거는 마을에서 허는 거?
#2 으.
@1 으.
#2 게메이 막 이신 집인 강 막 기냥 하영 내노렌 막 도랑춤 허곡이.
@1 으.
#2 막 헌다게.
@1 으, 으.
#2 경허민 하영 내놓는 사름은 내 놔.
@1 삼춘, 아까 도랑춤 허는데 도랑춤은 어떻게 허는 게 도랑춤?
#2 게난 막게 이레이레 영영영.
@1 돌면서.
#2 돌아가멍게 막 도랑춤 춤추멍 거 말이주게.
@1 예. 게난 그거는 그땐 심방들이 가는 건 아니잖아예?

#2 동네 사름덜. 아니.
@1 동네 사람덜 아니.
#2 으.
@1 아, 이 동네 사람덜 아니?
#2 동네 사람덜, 청년덜. 그 동네 사름덜.
@1 으.
#2 으.
@1 청년들이 중심뒈엉 헴구나?
#2 어. 청년덜이영 늙은이덜이영이.
@1 으.
#2 막 헌다게.
@1 보통 남자덜이 주로 헙니까?
#2 으, 남자덜이영.
@1 어.
#2 막 예펜덜도 허곡.
@1 아, 예펜들도 허곡?
#2 으. 막 경헌다.
@1 예, 것도 정월에?
#2 아, 정월에 헤신가? 아, 정월에 아니라.
@1 정월에 아니.
#2 으.
@1 으.
#2 정월엔 아니라.
@1 언제쯤 헌 거 닮수과?
#2 어는제사 헌 지 몰라도 정월엔 아니, 정월엔 아니라.
@1 으.
#2 정월엔이 막 일덜 발르곡 막 무시거 허곡 헤부난이 그런 거 안 헤서.
@1 으.
#2 정월엔 일 발룬 집이 한다.
@1 아.
#2 조왕제 지내져, 무시거 허져이.
@1 예.
#2 칠성제 지내는 사름, 조왕제 지내는 사름, 막 막 솟멘 집이 한다.
@1 아.
#2 경허난 그때 솟메는 집인 들어가지 아녀는 것 때문에 그 걸궁은 정월에 안 헤서.
@1 아. 기, 기라예. 왜냐면 그 집 일 발룬 사람들이 하 놓니까.
#2 으. 경, 경헌 거 닮아.
@1 게믄 그 솟은예, 메칠 전부떠 메여?
#2 뭐?
@1 그 저기 조왕제 허젠 허면 메, 메칠 전부떠 솟 멥니까?
#2 아, 메칠 전. 사흘 메민 뒈주게.

@1 사흘 전.
#2 으.
@1 부떠.
#2 훈 사흘.

칠성제
@1 삼춘, 아까 칠성제는 언제 허는 거?
#2 어?
@1 칠성제는?
#2 칠성제도게 정월에 허난게.
@1 칠성제허고 조왕제허고는 어떵 ᄐᆞ나마씨?
#2 뭐 칠성은 하느님 뭬시 허는 거 아니가?
@1 으.
#2 칠성제영 조왕제영 ᄀᆞ찌 헤, 헤 허는 사름은 헴실 거여. 훈날에.
@1 으. 훈날에.
#2 발루민.
@1 발루민.
#2 칠성제 헤난 다음에 조왕제 허곡 경 헴실 거여.
@1 칠성제는 뭣ᄀᆞ라 칠성제렌 허는 거우꽈?
#2 칠성제렌 헌 거, 칠성님네 뭬시는 건 하늘님 뭬시는 거 아니가?
@1 예.
#2 난 그거 닮은디. 것이 젤 높은 데주. 칠성제가.
@1 칠성제가예?
#2 으, 으.
@1 게믄 칠성제는 집에 안에서 헤, 아니면 어디서 헤마씨?
#2 집이서 허여, 집이서.
@1 집이서.
#2 으.
@1 으. 뭐 집 두에서 허거나 이러진 않고?
#2 아녀, 경 아녀.
@1 아.
#2 집이서 헤라, 집이서.
@1 집이서. 게믄 심방 빌어당 허는 거구나예? 칠성제는.
#2 심방 빌어당 허는 사름도 잇곡 또 또 기냥 시님도 빌어당 칠성제 허는 사름도 싯곡.
@1 으.
#2 또 이녁 냥으로 또 허는 사름도 잇곡.
@1 예.
#2 경허, 경허여.
@1 예. 게난 조왕제허고 칠성제도 허고예?
#2 으.
@1 예.

#2 거 허는 사름 허곡 아녀는 사람은 아년다.
@1 으.
#2 칠성제.

새철 드는 날

@1 새철 드는 날은, 삼춘?
#2 새철?
@1 예.
#2 새철 드는 날은 무시거 허여? 새철 드는 날은 저 예펜 저 쉐 허는 집이 예펜 아침이 가민 쉐 서, 연장 밧갈레 가근에가 벌, 벌러 먹으나 꺼껄 먹으나 헌덴 들어가지 못허게, 곧, 가지 아년덴 골아.
@1 아, 쉐 연장 벌러진덴예?
#2 예, 으, 으, 으.
@1 예.
#2 으. 하근에 아는 예펜들에 왕 가가민 그 쉐에 연장 고장난덴 새철날은 경 가지 못허게 허곡. 저 못 오게 허는 거 닮아.
@1 으.
#2 경헌덴 골아라게.
@1 이 동네도 쉐 질루는 사람이 하낫수과?
#2 막 하, 하낫저게. 한디 이젠 엇에.
@1 으.
#2 막 우린 집이서도 질루고 창고 허영 밧디도 막 쉐막 헨 질루고 하영 헤낫저마는. 이젠 아무것도 아녬저.
@1 으, 게난 그렇게 쉐 허는 집이 특히 가지 말아야 뒈어예?
#2 으.
@1 저기 바농질도 안 헌덴 허멍, 그날.
#2 바농질?
@1 예. 새철 드는 날.
#2 하, 바농질은 몰라. 바농질.
@1 몰라.
#2 바농질은이.
@1 으.
#2 그 바농질허민 미신 바당에 강은에 솔치 쏜덴 허던가, 뭐 헌덴 곧더라게.
@1 예, 맞아예.
#2 게난게 무신 그런 것사.
@1 그런 것사. 겡 어쨋든 새철 드는 날은 놈의 집 가지 말렌 허잖아예?
#2 으. 인칙 가지 말렌 헌 거주.
@1 으. 거난 혹시 그날은 뭐 제허거나 이러진 안헙니까?
#2 새철 드는 날은 제허거나 무시건 아년다.
@1 겅 안 하고.
#2 으.

@1 말만.
#2 말만.
@1 그날 뭐 보리점도 쳣수과?
#2 으?
@1 점, 보리발로 헤 갖고 그 운수도 봔? 새철 드는 날.
#2 무시거 들어봐?
@1 운수, 운수.
#2 으?
@1 운수 보는 거.
#2 운수?
@1 으.
#2 운수는 섣둘에 하영 보는 사름은 하영 본다게.
@1 섣둘에.
#2 으.
@1 으. 아, 저 정월이 아니고 섣둘에 봅니까?
#2 으, 으. 섣둘에 본다게. 게민 정월 나민 저 그 나쁘덴 허민 액막이 헴주게.
@1 아.
#2 경 헹.
@1 겅허난 액막이 허는 거. 섣둘에 운수 봥예?
#2 으. 운수 나쁘덴 허민 조왕제 헐 때 액막이를 허나, 또 경 아녀민 또 무시것고, 허렌 헌다게.
@1 예.
#2 경허민 경헐 때 허젠 허는 거지.

백중제

@1 삼춘네 쉐 그 밖에서도 하영 질롸난?
#2 으.
@1 방에도 부쪄 봅디가?
#2 방에?
@1 으, 목장에.
#2 목장에.
@1 으, 불도, 불 놓는 거, 방에.
#2 방에 그런 거 안 헤봣저마는이.
@1 예.
#2 저 어느고, 무시것고, 것ᄀᆞ라 뭐렌 허느니? 저 쉐 허는 사름도 고ᄉᆞ 지낸다.
@1 예.
#2 백중, 백중.
@1 백중.
#2 으.
@1 으.
#2 칠월[칠뤌] 백중.

@1 예. 백중에 지내는 거지, 거는예?
#2 으.
@1 예, 으.
#2 백중, 쉐영 물영 하영 허는 사름은 백중에이.
@1 예.
#2 백중 저 열나흘날이.
@1 열나흘날.
#2 열나흘날 제 지내레이, 막 상웨떡 허영 짊어지곡. 건 상웨떡, 주로 상웨떡 헤라.
@1 아.
#2 막 부글부글 궤렌사 헤염신디사이, 상웨떡 헤영 헤 앗앙 산에 가근에 허민, 막 고운 동산에 강이 막 물, 물이고 쉐고 이시민 다 몰아당 그 동산에 다 놔라게.
@1 예.
#2 나도 부름씨 헹 가왓주.
@1 으.
#2 견디 그디 다 동산에 모다 놔근엥이 제 지내라.
@1 으.
#2 것도 거 이녁만, 이녁 냥으로.
@1 이녁 냥으로.
#2 으.
@1 으.
#2 허민 이녁 그 쉐 임제덜 냥으로.
@1 예, 예.
#2 경 헨에 헤난 거, 헤나서. 우리도 헤나서.
@1 으, 건 칠월.
#2 백중에.

이월

영등제

@1 백중에예. 건 열나흘에. 건 잇당 한 번 더 들어볼 거고예. 삼춘, 여기 여기는 영등제도 헤? 이 동네.
#2 으?
@1 영등굿.
#2 영등?
@1 예.
#2 영등배[빼] 놓는 사름은 심방덜 놤셰. 영등배게.
@1 아. 거는 언제 놉니까? 영등배는.
#2 영등둘, 영등 정월 그물엉 저 보름 넘엉.
@1 예.
#2 보름 넘엉 저 영등배 논다.
@1 으.

#2 저 배 놓는 날이 잇주.
@1 배 놓는 날예?
#2 으.
@1 으.
#2 건 심방덜.
@1 심방들.
#2 으.
@1 그날은 따로 굿허거나 영은 안 허여?
#2 경 아년다.
@1 아.
#2 몰라, 영등굿 허는 사름은 심방 헴신가, 모르주.
@1 으. 영등배 놔예?
#2 영등배 놔.
@1 영등배 놓는 거.
#2 으.
@1 건 이월에.
#2 게믄 보름 넘으민, 보름 넘으민 영등배 놔.
@1 이월 정월 보름이 아니고 이월 아니? 삼춘.
#2 정월에 놓지 안 헴신가? 몰르켜. 정월에.
@1 이월 초ᄒᆞ룻날 영등 들어오난.
#2 이월 초ᄒᆞ룻날 영등 들어왕 삼월 나민 나감신가 보다.
@1 이월 보름에 나간덴.
#2 이월 보름에 나간덴?
@1 예. 게믄 이월에 헴실 거우다. 그거 게믄에.
#2 이월에.
@1 으.
#2 영등둘에.
@1 예. 예, 겐디 여기는 영등굿 헌덴 말은 안 들엇던 것 같애, 이 동네는.
#2 영등굿은 안 헤봐서.
@1 좀수굿을 크게 허니까예?
#2 우린 그런 거 안 헤봐서. 그건 어디서 어느 동네가 잘허는 거 몰라.
@1 영등굿은 저쪽 서쪽이 하영 허는.
#2 서쪽에?
@1 예, 시에 허고.
#2 우리 세곈 영등굿 허는 건 안 봣어.
@1 예, 여기는 좀수굿을 크게 허니까.
#2 좀수굿 허는 건 봣어.
@1 예. 좀수굿을 크게. 게난 좀수굿 헐 때 저기 배 허는 사람도 하영 가는 거지예?
#2 으, 으.

사월

한식 멩질

@1 예, 그니깐 영등굿을 거의 안 허는 거야, 여기는. 자, 그다음에 삼춘 여기 한식 멩질도 헤낫수과?

#2 으?

@1 한식.

#2 한식은 우리 아년다, 이디. 이 세겐.

@1 아, 여, 안 헷수과?

#2 으.

@1 단오는?

#2 단오는 오월 멩질 아니가?

@1 예, 예.

#2 안 헴세.

@1 아, 옛날은 헤난?

#2 어, 옛날은 헤난.

@1 게믄 한식 멩질도 옛날은 헤낫수과?

#2 으.

@1 으.

#2 이제 아녀. 우리 이제 오월 멩질 아녀.

@1 이젠 안 허고예?

#2 으.

@1 옛날에 헐 때는 한.

#2 똑게 팔월[팔뤌]이나 정월이나 ᄀᆞ뜨게 출린다게.

@1 아, ᄀᆞ뜨게 출려예?

#2 으.

@1 으.

#2 게난 멩질이난 ᄀᆞ찌 출린다.

@1 언제 그만둬신고예? 그거는, 한식은?

#2 저, 오랫저. 오월 멩질 설러분 건지도 거자 ᄒᆞᆫ 오십 년 닮다.

@1 아.

#2 우리, 우리도 헤낫주.

@1 아.

#2 게난에 ᄒᆞᆫ 오십 년 뒈서.

@1 예. 게난 그 한식보단 오월 멩질이 컷구나예?

#2 으, 오월 멩질이 크주. 한식은 무시거 안 헷저.

@1 안 허고.

#2 으.

@1 그다음에 여기 뭐 산담 손질허거나.

#2 으.

@1 거 강 산에 강 풀 캐거나 허는 건 언제 가?

#2 산에?
@1 예.
#2 저 오월 단오에 감신가?
@1 청멩은 언제우꽈?
#2 한식.
@1 한식예?
#2 으.
@1 청, 청멩.
#2 한식.
@1 한식. 으.
#2 으, 그때 산에 강 하근것들 허주.
@1 으.
#2 쳉명 한식.
@1 청명 한식에예? 산에 강 허고.
#2 으.
@1 쉐들 올리는 것도 그때 헙니까?
#2 건.
@1 목장에.
#2 ᄉᆞ, 삼월 그물어 가민 노는가?
@1 으.
#2 풀 나와 가사.
@1 풀 나와 가사예?
#2 ᄉᆞ월, 삼월 그물어가 삼월 그물어 가민 쉐 놤, 놤실 거여.
@1 게난 이 동네도 목장들은 어디 잇어마씨? 이 동네 목장은.
#2 저, 어디고 저 뭐, 목장엔 헌 거 저 어디고, 거 가마귀산전이여 무시거여 허연 거 몰른다게.
@1 으.
#2 가마귀산전이여, 무신.
@1 으.
#2 뭐 어디여.
@1 송당 쪽으로도 갑니까? 여기?
#2 으, 으. 송당 짝드레.
@1 송당예.
#2 으, 덕천 짝드레 아니, 간다게.
@1 덕천에.
#2 으.
@1 거기, 거기에 가마귀산전이 잇어낫구나.
#2 으, 덕천 짝드레.

묘제·시제

@1 덕천, 덕천 짝으로예. 으, 묘제는 언제헙니까? 삼춘.

#2 묘제?
@1 으.
#2 거 삼월에 헐 거여, 삼월.
@1 삼월에.
#2 으. 삼월에 헐 거. 거 산에 강 허는 거.
@1 예.
#2 삼월에 헐 거여.
@1 삼춘, 묘제허고 시제허고는 어떵 ᄃᆞ난 거우꽈?
#2 또 식게ᄀᆞ치.
@1 시제, 시제, 으.
#2 식게ᄀᆞ치.
@1 식게ᄀᆞ치허는 거고.
#2 으.
@1 것도 다.
#2 거 시제옌 헌 건이.
@1 예.
#2 초상덜이 다 식게도 아녀곡이 아녀는 사름 시제로 모두와 놔근엥에이.
@1 으.
#2 제 지내는 거.
@1 요즘도 헙니까? 그러면 그거는 묘제, 묘제는 또 다르잖아예?
#2 으, ᄃᆞ나.
@1 묘제허고 시제는 ᄐᆞ난 거 아니예?
#2 으, ᄃᆞ난 걸 거여. 묘, 묘제 ᄃᆞ나고 시제 ᄃᆞ날 수가 시젠 시월에 헌다. 시월 보름에.
@1 아, 시제는 시월 보름에 하고?
#2 으, 묘제는 몰라, 삼월에 헴신가?
@1 아, 묘제는 또 앞에 하고예?
#2 시젠, 시제옌 헌 건 멩질도 아녀곡 식게도 아녀곡이.
@1 예.
#2 지제헤분 초상덜.
@1 으.
#2 묘제, 모돠놩.
@1 모돠놩에, 시제에. 그니까 막 조상덜 합디다.
#2 으.
@1 한 번 나 시제허는 집 갓당 보니까.
#2 으, 막 건 조상덜 한 딘 덥덜덜 다 모영 허는 거난 한, 한다게.
@1 예. 덥덜덜은 방상이우꽈?
#2 으?
@1 덥덜은 방상ᄀᆞ라 덥덜이엔 허는 거?
#2 으, 방상ᄀᆞ라 덥덜.
@1 예.
#2 그 시제헐 땐 막 궨당 다 간다.

@1 예.
#2 이.
@1 거난 막 방바닥에 그냥 막 저 상 안 출령 헙디다.
#2 으.
@1 으.
#2 막 그냥 구둘에 막 출린다게.
@1 게니까.
#2 식게ᄀᆞ찌.
@1 경 헙디다게.
#2 으.
@1 상 안 출령예?
#2 으, 거 상은 웃쉬가 하부난 상에 못 놓난 다 아래 헷주.
@1 으. 게난 방구석에 하나가 다.
#2 기여게.
@1 으.
#2 경 헌다.
@1 이 동네도 경허는 사람 잇구나, 아직도예?
#2 요샌이 시제, 시제 대강 허는 사름은 헴서.
@1 으.
#2 식게 아녀는 디 시제로 헤분다게.
@1 예. 그다음에 삼춘도 쉐 ᄀᆞ꾸레 하영 뎅견?
#2 으?
@1 쉐 ᄀᆞ꾸레 하영 뎅깁디가? 쉐 멕이레?
#2 쉐 멕이레?
@1 으. 삼춘 뎅겨 봔?
#2 쉐 멕이레, 쉐 드르에 놩 내불민 누게 멕이레 가?
@1 으.
#2 드르에 놩 내불민.
@1 그냥 내불민 뒈어?
#2 내벼뒁 보레만 감주.
@1 보레만.
#2 으.
@1 으.
#2 건 아방만 감주, 무신 어멍은.
@1 아, 남자들이 주로 갑니까.
#2 예펜들은 잘 안 간다.
@1 예, 예, 예.
#2 갯것이 가곡 그디 갈 어의가 어디 시니?
@1 맞아. 바당 가니까예?
#2 바당에 가곡.
@1 예.

#2 잇당 막 일러 먹엉 춪지나 못허민이.
@1 예.
#2 곶 ᄀᆞ뜬 디 어떤 때 훈번이나 가주, 안 간다.
@1 어, 건 남자들이 허는 거고.
#2 으, 남자들만 가주.
@1 삼춘 절에도 뎅겨 봅디가?
#2 절엔 잘 안 뎅겻저.
@1 잘, 잘 안 뎅견? 겡 초파일에 뭐 가거나 안 헷구나, 부처님 오신 날.
#2 난 절에 안 뎅겨 봣저.
@1 으.
#2 우리 똘 ○○인 절에 막, ᄉᆞ뭇 막 뎅겨.
@1 예. 막 잘 열심히 헙니다. (웃음) (중략)

오월

오월 멩질

@1 겅 헹, 이제 사월 초파일 그렇게 하고. 그다음 오월 단오 멩질헐 때?
#2 단오 멩질은 다른 디 아녀 부난 헴샤? 단오 멩질도.
@1 으.
#2 팔월 멩질이나 똑ᄀᆞ따.
@1 으.
#2 정월 멩질이나.
@1 정월 멩질이나 똑ᄀᆞ뜨게.
#2 출리는 건 똑ᄀᆞ따.
@1 예.
#2 올리는 거고 무시거고 똑ᄀᆞ따.
@1 예.
#2 웃쉬 다 올려.
@1 으.
#2 새벡국만 아녀주, 다 ᄀᆞ따.
@1 새벡국만 안 헹예?
#2 으, 다 ᄀᆞ따.

유월

@1 예. 그다음에 삼춘, 유월 나면 유월엔 뭐 이사도 안 뎅긴덴 영 허지예?
#2 유월에 유월절 들민.
@1 예, 건 무사 경 굴암신고예?
#2 몰르커라. 그땐 아, 유월절 들민 앚인 방석도 고쳐사지 말렌 헌다.
@1 예.
#2 무사 경헴신디 경허여이.

@1 앚은 방석도 고쳐사지 말곡.
#2 으.
@1 게도 그 시기에는 막 밧디도 하영 가는 시기 아니예?
#2 게, 칠, 칠월에 하영 가불주.
@1 으, 그 유월에 둑 잡아먹는 날, 옛날 언제가 둑 잡아먹는 날이우꽈?
#2 둑 잡아먹는 날, 이제 섣둘에 하영 잡아먹나마는. 거 이녁 냥으로 날 봥 헴주 건 아무 날이나 잡앙 먹어.
@1 유월 스무날.
#2 으?
@1 옛날 유월 스무날은 무사 둑 잡아먹는 날 헤신고?
#2 유월 스무날?
@1 예.
#2 둑 잡아먹는 날.
@1 예.
#2 으, 그건 저 보신탕엔 헹덜 잡아먹는 거.
@1 으. 보신허게 막 더우니까.
#2 막 기냥 ᄋᆞ름에이 더워 부난.
@1 으.
#2 더위 먹은 거 헤, 해제허젠 그거 헴신가?
@1 게난. (웃음)
#2 모르케. 게난 아는 말인가, 건.

조 불리기

@1 그 옛날에 조 불리는 거는 보통 언제 조 불련마씨?
#2 유월에.
@1 유월에 것도?
#2 으.
@1 으, 삼춘네 여기도 조 불령, 조 하영 불렷지예?
#2 막 그 조, 보리 헹 살아셰게.
@1 예.
#2 옛날에.
@1 조, 보리 헹 살안예?
#2 으, 조 허영.
@1 그 조 불릴 땐 어떤 식으로 불련마씨?
#2 그냥게. 좁씨 삐어놩 물로 막 밧 데깍허게 불렵네.
@1 으.
#2 멘짝허게.
@1 멘짝허게.
#2 으.
@1 이 동네도 물덜 하영 질롼마씨?
#2 으.

@1 으.
#2 막 멘짝허게 불린다.
@1 여기도 막 땅들이 그냥 푸석푸석헌 땅이구나예?
#2 으, 으.
@1 으.
#2 멘짝허게 불린다.

칠월

@1 예, 그다음 칠월허면 칠석날은 뭐헤?
#2 으?
@1 칠석에.
#2 칠석날?
@1 예.
#2 칠월 칠석?
@1 예.
#2 칠석날도 몰라, 무시거 허는 공들이는 사름은 들염신가?
@1 으, 절 가는 사람은 가고예?
#2 절에 가고.
@1 뭐 당에 칠성에 당에 가, 당엔 안 갑니까?
#2 나 당에 안 간다.
@1 아, 예전에도 칠월에, 정월에도 당에 가주마는 칠월에도 당에 가지 안헙니까?
#2 칠월에도 가는 사람은 갈 거여.
@1 열나을날.
#2 당에 가는 사름은 간다.
@1 으. 게 삼춘은 정월에만 갓구나.
#2 으, 정월에만 가.

백중제
@1 예. 아까 백중제 굴아줍서.
#2 으?
@1 백중제.
#2 백중에.
@1 예.
#2 백중엔이 경 크게 아년다, 이딘.
@1 으.
#2 이제 이 세곈이 백중 경 크게 아녀. 물, 쉐물 허는 사름 백중허주.
@1 으, 그난 아까 그 쉐물 헐 때 상웨떡 헹 간덴 헷잖아예?
#2 으, 으.
@1 멧 개 헹 가? 게믄, 그때는.
#2 몰라, 막 하영 헹 가.

@1 아.
#2 막이 물 수정덜사 하부난산디이 막 하영. 막 구덕에 헤영 짊어졍 가라.
@1 으.
#2 하영, 하영 헹 가라.
@1 예.
#2 헹 강 막 올려라.
@1 예.
#2 막 가운디 막 벌여 놔근에 막.
@1 으.
#2 제주영 허영 벌려놩.
@1 제주도 놓고.
#2 으.
@1 게믄 뭐 그 헐 땐 밑에 뭐 깔앙은에.
#2 끄, 꼴앙게.
@1 으. 게믄 전부 저 뭣도 가졍 가는구나.
#2 으.
@1 초석 이런 것도 다 짊어졍 가는 거구나?
#2 으, 앗앙 강 다 꼴앙이 제, 바로 제 지내라.
@1 으. 겡 말명도 헤마씨?
#2 말명은 무신 말명게. 쉐 영 도리도리 영 동산에 모여다 놔근엥에 그냥 그 앞이서 그냥 제만 지내라게.
@1 아, 쉐 앞에서예?
#2 예, 쉐 앞이.
@1 예.
#2 동산에 막, 곱닥헌 동산에 쉐덜토 모다다 놩 그레 모돠 놓고이.
@1 으.
#2 헹 그 동산에서 지내라.
@1 으.
#2 막 고운, 고운 디 강.
@1 고운 디 강예?
#2 경허여.
@1 게믄 상웨떡허고.
#2 상웨떡만 헨게게.
@1 다른 제숙 같은 거는 안 헤?
#2 다 제숙허고 술은 앗앙 감주기.
@1 으. 술허고예? 그때도 게믄 우럭 궝 가?
#2 으, 우럭, 제숙 그 궝 가.
@1 으.
#2 술 올리민 제숙은 올려사주게.
@1 채소도 헙니까? 게믄.
#2 어?

@1 채소, 채소, 채소.
#2 채소는 안 헤봐서.
@1 아, 채손 안 허고.
#2 아녓어.
@1 딱 게믄 상웨떡허고.
#2 으.
@1 제, 저기 몰른제숙허고.
#2 몰른제숙허고.
@1 술허곡.
#2 술허곡.
@1 딱 그 세 가지.
#2 계랄이나 뭐 숣앙 가신가?
@1 으, 계랄은 하영 헹 감저예?
#2 몰라. 하영 헹 가신가? 계랄 숣아 간 건 기억 나.
@1 예, 어떵 허난, 제 당에 갈 때도 계랄 숣앙 가고.
#2 으.
@1 무사 계랄을 그렇게 제숙으로 썸신고예?
#2 몰라, 계랄도 거 제숙으로 허는 거 아니가?
@1 예.
#2 제숙으로 허는 거주.
@1 거난 무사 제사 그 계란은 하영 썸신고?
#2 나 어디 하영 앗앙 감시냐마는 거 제숙으로 올리는 걸 테주, 하기사.

물맞이

@1 으, 맞아예. 여기 물, 그 여름에 막 허면 물 맞이레도 뎅겨마씨?
#2 물 맞이레 가는 사름은 가곡 안 가는 사름은 안 간다. 날ᄀᆞ찌 허릿병이나 이신 사름은 물 맞이레 감주.
@1 언제 간? 물 맞이레는.
#2 물 맞이레, 여름에 그냥 백중에 가는 거 아니가?
@1 백중에예?
#2 으.
@1 여기서는 어디 뎅깁디가? 삼춘은?
#2 한라산에 간에.
@1 한라산에?
#2 으.
@1 한라산 어디?
#2 한라산게 저 한라.
@1 아.
#2 우리 제주 한라산에.
@1 제주 한라산.
#2 저기.

@1 어리목에?
#2 으.
@1 으.
#2 그디 가는 사름은 가.
@1 으.
#2 나도 두어 번 가왓저마는이. 에이고. 허리 좀이랑마랑.
@1 (웃음)
#2 ᄀᆞ무깐 것도 좋느냐?
@1 너무 너무 일 하영 헤부난 옛날 어른들은.
#2 게 요새에 이거이 독무릅도이 ᄒᆞ꼼 덜 아팡게이 막 영 걸어가난이 아프다.
@1 예, 오늘 강 막 일헹 와부니까. 그다음에 그 밧ᄇᆞᆯ릴 때 테우리 나시 헹은에 고사도 지냅니까? 밧 ᄇᆞᆯ릴 때.
#2 어떵?
@1 테우리고사도 지내? 테우리 몫 허영.
#2 어, 어. 물 저 제숙헹 간다.
@1 밧.
#2 밧 ᄇᆞᆯ릴 때.
@1 밧 ᄇᆞᆯ릴 때도?
#2 으.
@1 어, 그 조 ᄇᆞᆯ릴 때예?
#2 으, 제숙헹 간다.
@1 그때는 어, 무슨.
#2 저 우럭, 우럭 하나 우럭 굽곡.
@1 으.
#2 술이영 헹 가근에이 영 케쿠린다.
@1 아, 케쿠려예?
#2 으. 경헹은에 먹나게.
@1 경 헤근에 먹기도 허고.
#2 으.
@1 으, 그리고 저기 테우리 나시는 또 막 밥도 자 체, 대접헤야 뒌덴 허멍예?
#2 게, 테우리도 먹을 거주게.
@1 예. 아, 밧 ᄇᆞᆯ리기 전에 저기 케우려둥 밧 ᄇᆞᆯ려예?
#2 어 게난 그 케쿠려둥 먹는 거주게.
@1 으. 그 그렇게 허는 것ᄀᆞ라 뭐렌 헤?
#2 물테우리?
@1 으.
#2 ᄀᆞᄉᆞ주 ᄀᆞᄉᆞ.
@1 ᄀᆞᄉᆞ.
#2 ᄀᆞᄉᆞ 지내는 거.
@1 그냥 ᄀᆞᄉᆞ렌 헙니까?
#2 응, ᄀᆞᄉᆞ.

@1 응, 케쿠려뒁 먹어예?
#2 그건이 경 무시거 안 헐걸.
@1 으.
#2 이런 것에 안 들어갈 거여.
@1 건 안 들어가고 거난 밧예, 맞아.
#2 밧, 밧, 밧 불리는 건 안 들어갈 거여.
@1 예, 예. 그다음 삼춘 저 모살구침 허레도 뎅겨봔?
#2 모살구침 허레 저 저 저 저 삼양인가 어디 가와봣저.
@1 예, 건 어느 계절에?
#2 것도 ᄋᆞ름에 가는 거, 막 ᄋᆞ름에게.
@1 것도 백중 ᄀᆞ리에예?
#2 으.
@1 예.
#2 백중 ᄀᆞ리에.
@1 으.
#2 막 모살 더운 때 가는 거 아니가.

팔월

벌초

@1 예. 백중 ᄀᆞ리에 헹 모살 저 구침도 허고예. 옛날엔 벌초들도 큰일이라예? 벌초.
#2 벌촌 팔월[팔뤌].
@1 으.
#2 팔월에.
@1 초ᄒᆞ루.
#2 팔월 초ᄒᆞ룰 뒈민 벌초 헤사주.
@1 예.
#2 으, 멩질도 보름 전이.
@1 보름 전이. 으, 그 벌초도 두 가지가 잇지 않우꽈? 모돠졍 허는 벌초도 잇곡.
#2 문중벌초?
@1 문중벌초렌 헤?
#2 으.
@1 으.
#2 거는 궨당덜 웃대 조상덜.
@1 으.
#2 헤간 문중벌초 다 궨당덜 막 모돠가곡.
@1 예.
#2 이녁만 허는 디도 벌촌 이녁만 가곡.
@1 이녁만 허는 벌초는 무신거렌 ᄀᆞᆯ아? 여기서는.
#2 어?
@1 이녁만 허는 벌초는 무신 벌초렌 헙니까?

#2 벌초게 벌초.
@1 벌초.
#2 어, 벌초.
@1 가지벌초렌 말은 안 헤, 이 동네?
#2 문중벌초.
@1 아, 문중벌초. 가지렌 안 허고 문중벌초예?
#2 어, 문중.
@1 예, 문중벌초.
#2 문중벌초.

팔월 멩질

@1 음. 삼춘 팔월 멩질에는 특별허게 허는 음식 잇어?
#2 팔월에 특별허게 헌 거 엇어.
@1 무사 저기 정월엔 떡국도 허잖아예?
#2 으, 으.
@1 떡국 허는 것처럼 팔월에는.
#2 팔월엔 무시거 안 헤라.
@1 송편, 요즘 팔월, 육진 허면 송편 허잖아예?
#2 으.
@1 팔월에. 우리는 곤떡은 일월에도 허곡 팔월에도 똑ᄀᆞ따?
#2 으, 팔월에도 허곡 다 헤여.
@1 음식, 음식이 달라진 건 엇수과?
#2 어.
@1 뭐 햅쌀로.
#2 오월 멩질에도 송편 허곡.
@1 으.
#2 팔월 멩질에도 송편 허곡, 정월에도 송편 허곡.
@1 똑ᄀᆞ타?
#2 으, 다.
@1 으. 팔월 멩질 허젠 허면 그때도 막 옷도 허고 집안 도비도 허고. 창호지도 불르고.
#2 팔월에?
@1 예.
#2 게 ᄏᆞ콜이 막 창문도 불르곡 헌다게.
@1 예. 팔월에 보통 허잖아예?
#2 으.
@1 정월에 허는 게 아니고예?
#2 팔월에.
@1 예. 어떤 식으로 헷수과? 그건. 팔월 헐 때는.
#2 거 코 그 저 막 청, 쳉결 옛날 쳉결 쳉결 허난 청소허는 식이주게.
@1 예.
#2 초상덜 올 거난이.

@1 예, 겡 옷도 헹은에 옛날 막 그.
#2 팔월에이.
@1 한복헐 때, 막 저기 옷들도 허지예?
#2 팔월에.
@1 팔월에.
#2 팔월 멩질에 입을 거.
@1 으.
#2 에이구, 이젠 그땐 옷이나 기냥 뎅김이나 다 곤옷덜 입어 부난.
@1 예. 옛날에는 맨날 밧데만 가곡 허난.
#2 으.
@1 겡 보통.
#2 막 멩질에만 곤옷덜 입어.
@1 예.
#2 으.
@1 어떤 주로 어떤 옷을 준비헷수과?
#2 조선옷, 조선옷.
@1 조선옷, 으.
#2 그 무사 아이덜토게 치메저고리 허곡 아녀사?
@1 예. 게난 ○○이 선생님네도 어렷을 땐 치메저고리 헹 줜?
#2 에고, 헹 줘져신지 어떵사 헤신디. 그때에. 우리 살렴에 바빵, 어이구.
@1 으.
#2 똘덜 옷헤줌이랑마랑.
@1 아들은 옷 헤주고.
#2 아들도 마찬가지주게.
@1 (웃음) (생략) 그치룩 헤근에 허고, 게믄 팔월 멩질 하는 거는 똑가타예? 음식도예.
#2 으, 똑ᄀᆞ따, 똑ᄀᆞ따.

구월

@1 예. 구월에는?
#2 구월에 무시거 이샤? 구월에 엇어.
@1 구월에, 음력 구월에 당에 안 갑니까? 이 동네.
#2 구월에. 구월 제일에 가는 사름은 간다.
@1 구월 제일은 언제마씨?
#2 구월에 마찬가지. 초여드레, 열여드레.
@1 으.
#2 또.
@1 열.
#2 열사흘.
@1 으.
#2 그거. 경 헹 간다, 그거, 구월.

@1 일레 허면 열일레?
#2 열일레.
@1 열일레예?
#2 열여드레.
@1 예, 열일레, 열사흘 헤 갖고. 게믄 세 군데 다 그렇게 가는구나?
#2 가는 사름은 간다.

십일월

@1 예. 그다음 삼춘 이제 십일월 허면 동지예?
#2 으, 동지도.
@1 시, 시월에는 뭐 엇고. 동지 때는 뭐헨마씨? 예전에.
#2 동지 때야 무시거 아년다. 동지불공허잖아이.
@1 예.
#2 집이선 허는 거 엇어.
@1 게도 옛날에 풋죽들은 쒕은에 뿌리거나 허지 안허여?
#2 동지, 저 절간에서 풋죽 쒀근엥에 헌덴 허는디 이디서 풋죽 쒀근에 먹는 사름은 먹넨 곤다.
@1 으.
#2 겐디 우린 아녀 봣어.
@1 삼춘네는 영 풋죽 쒕은에 뿌려보진 안허여?
#2 에, 안 헤봔, 안 헤봐서.
@1 아, 안 헤봔예.
#2 아녀는 사름은 막 거 어떵 어디 다른 저 어드레, 몰라, 웃드렌 헴신가이, 이디선 허는 사름 엇나, 우리 세젠.
@1 으.
#2 풋죽 쒕 뿌린다 무시거 헌다, 헤라마는.

십이월

집일기

@1 이 세계는 경 안 하고. 그 집은 언제 일어마씨?
#2 으?
@1 집은 언제 일어?
#2 집?
@1 예.
#2 집, 묵은해에 인다.
@1 으.
#2 훈 동지둘 내지 일지 안헴시카?
@1 동지둘에예?
#2 으, 새해 오곡 무시거 허곡 허민 집덜 인다.

@1 으, 이 동네는 일 년에 훈 번 일어수과? 이 년에 훈 번 일어수과?
#2 일 년에 훈 번.
@1 일 년에 훈 번.
#2 으.
@1 해마다?
#2 아니 저, 작년에 인 집은 올리 아녀, 아녀곡. 가우리가우리.
@1 이 년에 훈번.
#2 으, 가우리가우리 허멍.
@1 으.
#2 안팟거리 가우리가우리 허멍 허여.
@1 아, 안팟거릴 가우리가우리 헤예. 맞아, 것도 큰일이난 것도예?
#2 으.
@1 음, 게믄 여기들은 새왓들은 하난마씨?
#2 새왓?
@1 으.
#2 새왓 이녁 새왓 이신 사름은 허곡 엇인 사름은 사멍 다 허곡. 옛날은 새 뽑아당도 허곡. 아이고, 엇인 사름은 경헤셔.
@1 놈의 거 도둑질도 헤당 허곡.
#2 도둑질덜도 헤당 허곡, 어이구.
@1 삼춘도 새 뽑으레 뎅겨봔?
#2 새 뽑으렌 안 뎅겨 봣저, 이녁 밧덜 잇어 부난이.

장 담그기

@1 아, 삼춘네는 저기 잇어구나예? 밧이예. 장은 언제 담아마씨?
#2 으?
@1 장.
#2 당?
@1 장, 장. 뒌장.
#2 뒌장?
@1 으, 장 숢는.
#2 뒌장 삼월에 담을 거여.
@1 으, 게믄 콩 숢고 허는 건 언제?
#2 콩도 묵은해 숢아얄 거주. 동지둘 나민 메주 다 숢아야주.
@1 아, 동지둘에 메주 숢아?
#2 으, 으.
@1 어, 건 언제? 동지둘 언제 숢읍니까?
#2 아, 건 날 안 본다.
@1 으.
#2 기냥 막 무신 베염날이나 그런 날만 아녀주, 그 아무 때라도 숢앙.
@1 으.
#2 메주 헤영 놧당은에 삼월 나민 메, 메주 들이친다.

@1 아, 삼월에 들이쳐예?
#2 아, 들이칠 땐 정월에 들이친다.
@1 정월에.
#2 메주 몰령 저 정월 그뭄날 밤이.
@1 예.
#2 섣둘그뭄날 밤이.
@1 섣둘그믐날 밤이.
#2 밤중에 가근에이 아무도 몰른 때 강 딜이쳐 불민 버렝이 안 권덴.
@1 아.
#2 쉬ᄑᆞ리 안 싼덴.
@1 그래서 섣둘그뭄날 저 메주 들이치는 날이구나?
#2 경 허영 경 헌덴 헌다게.
@1 아.
#2 겡 밤이민 강 똥끄렝이 출령 놔뒀당 밤인 강 톡톡 딜이쳐 불민이 무신 쉬ᄑᆞ리 안 싼덴 ᄀᆞᆯ아.
@1 아.
#2 옛날 할망덜. 경헹 삼월 나민 장 거리곡.
@1 삼월 거리고예?
#2 으.
@1 거난 섣둘그믐에 멩질 다 출려 놔둰은에.
#2 어, 어.
@1 으, 으.
#2 경헌다.
@1 예, 거.
#2 거 메주 똥그렝이 씻엉 놧다근엥이 군물 ᄀᆞᆯ앙 놧다근엥이 톡허게 강 헤분다.
@1 으, 그렇게.
#2 옛날엔게 막 메줄 기냥 뒌장을 하영 헤셰게.
@1 예.
#2 뒌장 막 콩 댓 말썩 숣지 아녀느냐? 이디 초원에 집이덜은.
@1 으.
#2 수정 한 딘 하영, 식귀 하나가 ᄒᆞᆫ 말 먹넨 허여.
@1 ᄒᆞᆫ 식구가예?
#2 으.
@1 예.
#2 옛날.
@1 반찬이 다 뒌장밧기 엇이니까.
#2 뒌장국이고 무시거고 뒌장 헤부난.
@1 예.
#2 ᄒᆞᆫ, ᄒᆞᆫ 사름이 ᄒᆞᆫ 말 먹넨 ᄀᆞᆯ아, 옛날.
@1 예. 겅헷덴 헙디다.
#2 경헌덴 헤서. 옛날 할망, 옛날 할망덜 경 ᄀᆞᆯ아.

@1 겡 허고. 예전에 엿들도 하영 헤 먹어서예?
#2 엿?
@1 으.
#2 엿들 섣, 막 묵은해들 하영 헌다.
@1 묵은해.
#2 허는 사름은 허영 먹어.
@1 그 엿허는 날은 무슨 날이렌 골아마씨?
#2 아무, 아무 날이라도 허여.
@1 아무 날.
#2 으.
@1 남평날이엔 헌 말은 들어봅디가?
#2 어?
@1 납평날.
#2 얍평, 얍평날?
@1 예.
#2 몰라 거, 약이나 딸려신가?
@1 으.
#2 우린 그런 거 안 헤봣저.

신구간
@1 건 안 헤보고예. 예, 건 엿 헐 때. 삼춘 여기 신구간은 언제가 신구간이우꽈?
#2 신구간, 새철 들민 신구간 된 거 아니?
@1 으. 새철 들엉은에, 으.
#2 새철 들민 신구간일 거여.
@1 새철 들기 전에예?
#2 으.
@1 사흘 전에.
#2 으.
@1 으. 게믄 삼춘도 이사도 뎅겨봔?
#2 이사는 우리, 난 안 뎅겨봣저.
@1 안 뎅겨봔예?
#2 으.
@1 여기 이 집에 계속.
#2 으.
@1 으.
#2 그냥 이 집이 완 이거 살건 디가 칠십 년 넘지 안헤신가?
@1 으.
#2 우리 ○○이 나 스물하나에 완에 이거 구십하나 뒈난 멧 대고?
@1 예, 칠십 년.
#2 으, 칠십 년 다 뒘지이?

바당일

@1 으, 겡 신구간 허고. 으, 그예, 삼춘 이제는 바당일 삼춘 헷잖아예?

#2 으.

@1 바당에 정월에는 무슨 일 헤마씨?

#2 무시거 정월에 무시거 허여?

@1 정월에는 바당에 간 때 무신 일 헙니까? 정월에 바당에서 허는 일 잇어?

#2 허는 일 엇나.

@1 엇어?

#2 소라 잡주 뭐.

@1 정월엔 소라예?

#2 으.

@1 그 여기서는 소라, 구젱기?

#2 구젱기지.

@1 구젱기예?

#2 으.

@1 구젱기 정월에 잡고.

#2 정월에 잡고.

@1 이월에는?

#2 이월ᄁᆞ장 헐 거주게.

@1 이월에 구젱기?

#2 으.

@1 그 저기 몸 이런 건 언제 나?

#2 몸 이제 몸 엇어 부난 아년다마는.

@1 옛날에는?

#2 구젱기가이.

@1 예.

#2 이월ᄁᆞ장만 ᄌᆞ물암샤?

@1 언제까지?

#2 우미, 우미 헐 때ᄁᆞ장 ᄌᆞ물주.

@1 우미는.

#2 오월ᄁᆞ장 허여, 오월ᄁᆞ장.

@1 아, 오월까지 구. 구젱기 ᄌᆞ물아예?

#2 으.

@1 예, 그다음 우미는 언제 허여?

#2 우미, 게메 오월, 오월 칠, 우미가 칠월[칠뤌], 칠월ᄁᆞ장 마감이고. 우미가 서넉 둘 ᄌᆞ물지 아녀카? 서넉 둘 ᄌᆞ물걸.

@1 으, 게믄 유월에도 우미.

#2 우미, 우미 ᄌᆞ물주, 우미.

@1 칠, 칠월에도 우미. 그 삼춘 우미 이런 거는 이건 양력이우꽈, 음력이우꽈?

#2 에, 음력으로 허주게.

@1 음력으로예?

#2 으.
@1 음력으로 헤 갖고 칠월. 팔월에믄 이제 끗나고.
#2 팔월[팔뤌]은 끗나고?
@1 으. 팔월에는 뭐헤?
#2 팔월에 무신거 헤? 구젱기 ᄌᆞ물걸.
@1 그 저기 영 저기 바당 갇혀부는 거 엇어?
#2 갇혀분다.
@1 금채기.
#2 ᄋᆞ름엔 우리 구젱이 안 잡은다.
@1 으, 겨난 오월까지만 허고.
#2 으.
@1 바당 갇혓당은에 팔월부떠.
#2 칠월.
@1 예.
#2 이제 양력으로 시월 초사흘날부떠 구젱기 시, 시, 시작이라.
@1 아, 시월 초사흘부떠예? 양력으로.
#2 으, 칠월둘ᄁᆞ장 ᄌᆞ문다.
@1 예. 그 금채기하고. 시, 시월 초사흘부떠 구젱기 헤 갖고 오월까지.
#2 아니, 칠월ᄁᆞ장 ᄌᆞ물걸.
@1 칠월까지.
#2 아니 오, 칠월엔 아니. 그저 우미 ᄌᆞ물아, 우미.
@1 예.
#2 오월ᄁᆞ장 ᄌᆞ물 거라, 오월ᄁᆞ장.
@1 으. 아까 오월까지.
#2 으.
@1 그니까 양력으로믄 유월이지.
#2 으, 경 ᄌᆞ물 거라.
@1 예. 칠팔월 갇히고예. 그다음 삼춘 여기는 우미만 허여? 바당에 거.
#2 우미, 우미벳기 엇다게.
@1 우미.
#2 으.
@1 옛날에 메역 헐 때는 언제 헤낫수과?
#2 메역은 삼월.
@1 삼월에?
#2 으.
@1 으, 삼월 게믄 삼월 십오일. 옛날 삼월 십오일 물찌 잇지예? 보름 물찌.
#2 삼월 초ᄋᆞ드레부떠 허는 사름은 헌다게. 게난 삼월둘에부떠 메역 ᄌᆞ문 트는 거여.
@1 으.
#2 트민 훈 ᄉᆞ월, 오월ᄁᆞ장 메역 ᄌᆞ물주.
@1 오월ᄁᆞ장예?
#2 으.

@1 게난 옛날 삼월 팔일부떠 헹은에 메역 ᄌᆞ문 트는 게 삼월 팔일부떠 허여?
#2 으.
@1 으. 삼월 보름 물찐 뭐우꽈?
#2 삼월 보름 물찐 물 잘 싼덴 허는 말이주게.
@1 으.
#2 물 잘 싼덴 허는 말이라.
@1 겡 그, 그때는 뭐 안 허여? 물 잘 싸난.
#2 뭐 아년다.
@1 여기는 안 하고. 으.
#2 아무 것도 아년다.
@1 메역은 언제까지 헤수과? 여기는.
#2 물 잘 싼덴 허는 말이주.
@1 이 동네는 톳, 이런 것도 안 나?
#2 어?
@1 톳, 톳.
#2 톨 어디 헴샤?
@1 안 헴수과?
#2 으.
@1 으.
#2 톨도 삼월ᄃᆞᆯ 나민 톨 헐 거주게.
@1 삼월에?
#2 견디 삼월에 허는디 어디 톨 헴샤?
@1 이제는 안 헤예?
#2 으.
@1 옛날은 게도 헤지 안헤?
#2 으?
@1 이제는 딱 두 가지밖에는 안 헴구나예?
#2 톨 아년다.
@1 이젠 톨 안 하고. 몸도 안 나고.
#2 몸도 엇어.
@1 엇어.
#2 하도 ᄒᆞ꼼에, 바우에 나는 것덜 하영 톤아 부난이 이젠 씨가 엇다.
@1 예.
#2 우리 세곈 씨 엇어.
@1 으. 몸은 이월에 난덴 헨게마는.
#2 몸 정월에 몸 날걸. 경 헌디 엇어.
@1 엇어예? 으.
#2 정월 이월에 막 날 거주게, 이실 거주게.
@1 기지예?
#2 삼월ᄁᆞ장도게.
@1 으.

#2 겐디 엇임으로.

밭일

@1 예, 그다음에 바당에는 경허고. 밧디는 밧디. 용시예? 농사지엇던 거.
#2 으.
@1 일월에 허는 농사가 잇어마씨?
#2 일월에 허는 농ᄉᆞ 엇다.
@1 게믄 보리는 언제 갑니까?
#2 구월둘에 갈주.
@1 음력 구월에?
#2 으.
@1 어, 음력 구월에 갈고.
#2 으.
@1 수확은?
#2 수확은?
@1 으.
#2 수확은 구월에 갈민 보리 수확은 보리는, 곳사 보리엔 골아샤?
@1 예.
#2 저 오월 나민 빌걸.
@1 예, 음력 오월예?
#2 어.
@1 으, 망종 전에?
#2 어?
@1 망종 전에예?
#2 으.
@1 으, 음력으로.
#2 또 조는 에, 유월에 불리민.
@1 유월에 불령?
#2 팔월 구물어 가민 하여튼 구월둘엔 조ᄀᆞ실허주.
@1 예.
#2 구월둘에.
@1 조ᄀᆞ실허고예? 그다음에 산디는? 삼춘.
#2 어?
@1 산디.
#2 산딘 누게 산디 헴시게.
@1 옛날, 옛날 안 헤난?
#2 옛날은 나도 산디 헷주만은 산딘 더 말짜에 헤서.
@1 언제?
#2 게메 ᄒᆞᆫ 산딘 ᄒᆞᆫ 시월둘에나 허지 안헤시카?
@1 시월하고.
#2 어.

@1 삼월에 갈아?
#2 산디 정월에 갈아신가?
@1 정월에는?
#2 하도 오래부난 알아지크냐?
@1 예, 정월에 안 갈앗던 거 같고. 감저도 여기 하영 싱거수과?
#2 어?
@1 감저, 고구마.
#2 감전 오월에 논다게.
@1 오월에?
#2 으, 오월에 논다.
@1 으.
#2 오월에. 구월 나민 팜저게.
@1 구월 파고예. 감저 씨 묻는 거는 언제 헤마씨?
#2 삼월에 심거, 삼월에.
@1 그 감젓메는 삼월에?
#2 감저 묘종 놔.
@1 으, 감저 묘종예? 요즘은 이런 거 아무 것도 안 헴지예? 이런 농사.
#2 아무 것도 아녀.
@1 요즘 여기 농사짓는.
#2 감저 어디 강 줄 사당은엥에 ᄒᆞ꼼 놩덜 말암주.
@1 어, 줄 사당 그거는 허는 거고.
#2 으.
@1 요즘은 이 김녕리에서 농사허는 건 무신거우꽈?
#2 어?
@1 김녕에서 농사짓는 거는?
#2 농사짓는 거 뭐 다마네기 싱그곡.
@1 으.
#2 마농 싱그곡 허주.
@1 마농하고.
#2 다마네기허곡.
@1 다마네기허고.
#2 요새 요샌 또 당근 나 부난 당근허곡.
@1 당근허고. 요거, 요 정도?
#2 그거허고 어, 무시거 헴샤? 조도 잇당 가끔 허는 사름은 허곡.
@1 으.
#2 보리도 허는 사름은 허곡 마는 사람은 말곡 헴주.
@1 조 보리 쪼끔 허고예?
#2 으.
@1 주로가 양파.
#2 콩허고, 콩허곡.
@1 아, 콩하고.

#2 으.
@1 콩은 언제 갈아마씨?
#2 콩은 오월둘에 갈암신가?
@1 으, 게 수확은?
#2 수확은 구시월 나민 헴실걸.
@1 구시월예?
#2 으.
@1 으, 수확하고. 삼춘, 양파는 모종 언제 놔? 양파는.
#2 양파 모종? 양력으로 구월둘에 모종 놤실 거여.
@1 양력 구월 모종 놔서.
#2 으.
@1 싱그는 거는?
#2 싱그는 거?
@1 으.
#2 싱그는 것도 흔 양파 모종 구월, 시월둘 나민 싱검실 거라.
@1 시월예?
#2 오십일 만이 싱근덴 허는디.
@1 아, 모종 놩 오십일 만이예. 으, 아. 그 수확은 언제헤? 양파는.
#2 수확은, 수확이 유월둘에 헤졈시카?
@1 유월. 마농은마씨?
#2 마농도 ᄉᆞ월 구물어 가민 멤실 거여.
@1 사월 구물엉 메고, 싱그는 거는? 싱그는 거. 마농 영 싱그는 거.
#2 뭐? 싱그는 거?
@1 으.
#2 싱그는 거, ᄉᆞ, ᄉᆞ월, 아니 ᄉᆞ월에 마농 파종허곡.
@1 예. 파고.
#2 팔월[팔뤌], 팔월, 팔월.
@1 팔월에예?
#2 팔월 초싱에 싱거.
@1 팔월 초에 심고예? 당근.
#2 으?
@1 당근은 삼춘?
#2 당근은 언제 갈암신디사. 것도 당근이 언제 갸느냐 허민 흔 칠월둘 칠월에 갈암신가?
@1 으.
#2 유월에 갈암신가? 갈암실 거여.
@1 예, 유, 유.
#2 우리 세겐 당근 잘 아녀부난에.
@1 아, 그 이제야 허는 거지예?
#2 으.
@1 게근에 파는 거는 요즘 파멘? 당근은.
#2 이제 팜서, 이제 팜서.

@1 으.
#2 당근 이제 팜셰.
@4 유채나물?
@1 예. 유채는 어떵 헙니까?
#2 으?
@1 유채는 옛날은 유채.
#2 유채는 기냥 막 아무 때나 가는 셍이여. 이제 이제 뭐 비는 것도 잇고이.
@1 으.
#2 이제 또 가는 사름도 잇고이. 비어 난디이 또 가는 데 잇고.
@1 채소로 허니까예?
#2 으.
@1 으, 옛날은 제지로 헤 갖고 유채씨 헷잖아예?
#2 으.
@1 그때는 언제 갈안마씨? 유채 헐 때는.
#2 유채, 유채 볼써 비엄셰.
@1 으.
#2 겐 저것이 어느제 싱거, 어는제 갈아신고? 혼 구월둘에 갈아신가, 팔월에 갈아신가?
@1 으.
#2 콩 비어난 다음에 유채도 갈곡. 콩 비기 전이도 유채 갈곡, 경 헤라.
@1 으.
#2 이 인칙 갈민 인칙 비고. 늦게 갈민 늦게 비곡 허는 셍인게.
@1 예.
#2 이제사 나는 것도 잇저.
@1 게난 옛날엔 익엉은에 비는 게 아니고. 익엉 비는 게 아니고.
#2 으, 으, 으.
@1 다 채소로 헹은에 나가는 거예?
#2 풀, 풀, 풀.
@1 풀ᄂᆞ물로?
#2 풀로 비어 부난.
@1 풀로 비어 부난.
#2 이제사 이제 크는 것도 잇고.
@1 으.
#2 다 비어져, 다 비어 분 밧디 잇고.
@1 예.
#2 비어 불민 이제 또 돋아나민 또 비곡.
@1 으.
#2 경 헴셰.
@1 삼춘네 옛날에 그 쉐 하영 질롸시난 촐도 하영 비여실 거 아니라예?
#2 촐도 비엇주게.
@1 촐은 언제 비어마씨?
#2 팔월에 빈다게.

@1 팔월에.
#2 으.
@1 음력 팔월예?
#2 음력 팔월에.
@1 으, 그 멩질 고비 헹은에 빕니까?
#2 막 바쁜다, 팔월둘에.
@1 으, 팔월에예? 으.
#2 촐 허젠 허민 막 바쁜다.
@1 삼춘네는 멧 바리나 비연?
#2 으?
@1 멧 바리나 빕디가? 촐.
#2 촐?
@1 예.
#2 에구, 촐. 촐 시작허민 훈 보름 비어야 뒈어.
@1 으.
#2 보름 비어야.
@1 보름 비어예? 겡 쉐는 멧 ᄆᆞ리나 질롼?
#2 기자, 우리 쉐.
@1 예.
#2 쉐 막 하영 질롯저.
@1 으.
#2 쉐 훈 열서너 개 질루지 안헤시카?
@1 예.
#2 열서너 개 더 질롸실걸.
@1 으.
#2 저 창고에도 훈 질루고 집이도 질루고 헤셰. 옛날엔이 그런 거 허멍 살아셰게.
@1 게난 경허영.
#2 쉐도 질루곡 물에 메역도 ᄌᆞ물앙 풀앙 쓰곡.
@1 으.
#2 경 헷어.
@1 남자 삼춘은 쉐 질루고.
#2 경 허연. 쉐 풀앙이.
@1 예.
#2 쉐 풀아근에 아덜 풀멍 고소가이 씨곡. 그추룩 허멍 살아셰게.
@1 예.
#2 게난 우리 집이가 쉐 풀앙근에 아이덜 학비도 허곡 고소가이 쓰곡. 물에 들엉 또 허영도 허곡 경.
@1 으.
#2 경허멍 아기덜 공부시겻주기.
@1 예. 거난 애썻수다게.
#2 에이구.

@1 옛날 어머니들이 다 이치룩 살앙은엥에.
#2 다 그거여, 다 그거.
@1 예.
#2 겡 난 하르방이 하도 ᄋᆞ망진 하르방이라 부난이 난 부름씨만 헤셰.
@1 예. (웃음) 저기 ᄋᆞ망진 하르방 저기.(웃음)
#2 으. 하르방이 막 무시거 헌다게.
@1 똑똑허고예? 이 동네 일도 하영 보고.
#2 쉐 기냥 쉐.
@1 으.
#2 쉐 주사도 이녁 냥으로 콱콱 놔라.
@1 으.
#2 새끼도 쉐 새끼 못 낭 헐 때도이.
@1 예.
#2 막 다 줍아뎅기멍 내와라.
@1 으.
#2 막 쉐 새끼 나젠 허민 허젠 허민 막 웅웅허는 소리 나라게.
@1 으.
#2 나민 석 가근엥에 영 석 메는 디서 빠짝허게 메영이.
@1 으.
#2 ᄀᆞ만이 석만 심엉 영 사렌.
@1 으.
#2 게민 아기가 들어갓닥나왓닥 헤라.
@1 으.
#2 경허민이 줍아 뎅겨라.
@1 아. 여기 저기 딱예. 당신 업이니까 그거지.
#2 에이, 잇당 경허는 ᄉᆞ나이 어른덜 잇어.
@1 예.
#2 잇당 빌어당 허는 사름은 빌어당 허곡, 이녁 냥으로 허는 사람은 이녁 냥으로 허곡.
@1 아이고, 오늘 삼춘, 일허레 갓당 왕 막 버친디 이추룩 애쓰게시리 또.
#2 다헤샤, 이젠?
@1 예. 다헨마씨, 고맙수다.
#2 무시거 졸바로 뒈, 허여져신디.
@1 아니, 잘 ᄀᆞᆯ아줜마씨.

9. 구좌읍 종달리

- 조사 일시: 2021년 11월 3일, 11월 10일
- 조사 장소: 구좌읍 종달리 복지회관
- 조사자: @1 김순자 @2 김미진 @3 최연미 @4 오경임
- 제보자: #1 우봉선 #2 김수길 #3 문군삼 #4 이병생 #5 양승필

조사 마을

@1 한 분씩 그냥 굴아 주문 뒈예. 녹음허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 저기 회장님한티 들어보쿠다.

#2 예.

@1 이 종달리에 대헹은에 좀 굴아 줍서. 종달리는 어떤 동네우꽈?

#2 아, 종달리라는 디는 뭐 옛날부떠 우리 뭐 소금밧을 많이 허, 이 전부 뭐 다 소곰밧이니까, 소곰을 위주로 헤 가지고 뭐 노력덜도 많이 헷지만은. 또 못사는 사름, 잘사는 사름 할 거 없이 다 모다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헤내야 자식 공부도 시기고 생애를 으, 헤 나가면서 헌다는 그 단합이 또 잘 뒈요. 이, 저, 우리 이 저 종달리라는 디가. 또 집단으로 살기 때문에 뭐 딴 부락 같은 데는 보면은 막, 막 떨어지고 떨어지고 가옥이 떨어져 가지고 허는데, 우리 종달리 만큼은 전부 집단으로 잇기 때문에 단체가 좋고 그렇게 에, 협동심덜이 좋아요.

@1 예.

#2 예, 그런 거.

@1 게믄 몃, 이 원래 종달리는 옛날 이름은 무신거우꽈?

#2 예?

@1 옛날에, 이 동네 그냥 종달리, 종달리 헷수과, 종달이, 종달이 헷수과?

#2 종, 종달이 종달이. 그 사투리로 헤서 종달이, 종달이 헷주.

@1 예.

#2 어, 어. 그때는.

@1 멧 개 마을로 이뤄젼마씨? 여기.

#2 다섯 개 동네.

@1 다섯 개 동네 이름이 뭐우꽈?

#2 동동[동똥].

@1 예.

#2 동중동[동중똥], 중동[중똥], 전수동, 서동.

@1 다섯 개예?

#2 섯동.

@1 으.

#2 게난 다섯 개.

@1 게믄 옛날도 동수동이렌 굴안?

#2 예?
@1 옛날 사투리론 무신거렌 불러수과? 그 동네 이름덜이.
#2 아니, 사투리나마나 그, 그거주게, 동동네.
#1 엇수다게, 아주바님 그건 나 중간에양.
@1 예.
#1 그 전수동이라는 건.
#3 전수물.
#1 전수물.
@1 으.
#1 우리 하르버지네가 불럿던 것이.
#3 으, 전수물.
#1 그 이얘기가.
@1 으.
#1 언어가 다 틀려.
@1 예.
#1 언어가 틀려.
@1 으.
#1 전수동, 아니 전수물이주게.
@1 예.
#1 할머니네가 얘기헐 때.
@1 으.
#1 거 아니 전수동, 우린 전수물.
@1 전수물.
#1 전수물.
@1 예.
#1 으, 거기가 물이 내렷다는 거라.
#3 아니, 아니.
#1 뒤에.
#3 우물, 우물.
#1 우물. 아, 거 무사게.
#3 학굣집 뒤에.
#1 학굣집 뒤에.
#3 예, 우물.
#1 그 물을 따라서.
#3 전수물이, 전수동이.
#1 이얘기를 허는 것 같아요.
@1 예, 예. 맞수다.
#3 전수물이라.
#1 우리가 얘기를 들을 때.
@1 다시 또 들어보커라. 게믄 전수물 잇고.
#1 어.

@1 옛날 불럿던 이름 뭐 잇어? 마을 이름.
#1 마을 이름.
@1 아까 동동네는 뭐렌 골안, 동동은?
#1 그리고 그건 뭐.
#3 동동네가 동쪽에 잇어 부니까 난 동동으로 생각허는데.
#2 어, 어.
@1 예.
#1 으.
@1 예, 그다음. 섯동은.
#1 섯동.
#3 섯동은 또 서쪽에 잇으니까.
#1 아니 섯동.
@1 동카름, 서카름 안 헙디가?
#1 섯, 저 섯동넨 우리가 어릴 때 이제 얘길 들은 거민 서쾃동네, 그 말이.
@1 예.
#1 언어가.
@1 으.
#1 그렇게 얘기헷다니까, 하르버지네가 우리 어머니네 시절에.
@1 예. 어, 뭐라고?
#1 서캇동네.
@1 서캇동네.
#1 어, 그 섯동엔 헌 말을 석콰로 부쪗더라고요.
@1 예.
#1 게난 우린 어린 때 국민학교 뎅길 때, 왜 섯동네, 분명히 우리가 국민학교 뎅길 때 섯동 나오세요, 이제 운동헐 때민.
@1 으.
#1 동네, 동네 허는데 어떵 헨에 서쾃동네까지 서 자를 부쪗는가.
@1 으.
#1 으, 이제 생각을 이제 지금도.
@1 예.
#1 이제 팔십이 다 뒈 가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1 그럼 동쪽에는 동캇동네렌 허여?
#1 어, 몰라, 그것ᄁᆞ진 모르는디.
@1 석콰.
#1 내가 살앗던 곳은 서쾃동네렌.
@1 예.
#1 어린, 아부지가 굴앗던 얘기, 그거.
@1 예.
#2 그거벳긴 엇어.
@1 예, 예. 게난 그렇게 다섯 동네로 이뤄진 거예? 예.
설촌

@1 으. 게난 이 그 종달리는 성씨들은 어떤 식으로 뒌 거마씨? 여기에.
#2 어?
#1 성씨가 많주마씨.
@1 성씨, 그 설촌헐 때?
#2 성씨?
@1 으.
#3 원래 이 종달리가 우리 집안에서 젤 문저 들어왓다 그래요. 문 씨가.
#1 문 씨가, 맞아.
@1 문 씨가, 으.
#1 그 기록이 잇어.
@1 몃, 호수는 어느 정도 뒙니까? 인구.
#3 지금 현재 제주, 아, 저 종달리요?
@1 예.
#3 그건 저 사무장 그런 사름덜이 알주. 우리야 그거 파악 못 허지.
@1 아니, 게도 옛날에 우리 노인회장님은 알 거 같애.
#5 옛날에는 삼백 호라고 헤낫는데.
#3 게 쪼꼼 이시니까 삼백오십 호로 뒈고.
@1 으.
#2 에.
#1 이랫다가 저랫다가.
#3 자꾸 올라가니까.
#1 으.
@1 으.
#2 웨지에서 자꾸 들어오니까.
#3 지금 사백 호가 넘을 거라.
#4 넘고 말고.
@1 예. 게난 옛날 얘기헐 때는 종달리 삼백 가오렌 헷구나예?
#1 어, 어. 삼백오십 가호.
#3 예, 대충 그렇게 얘기헷어요, 어.
#1 대강 그냥.

오름

@1 예, 알앗수다. 우리 종달리허면 상징, 오름이 잇잖우과예?
#1 예.
@1 오름 몃 개 잇수과, 여기?
#3 저거 하나뿐.
@1 이름, 오름 일름 뭐우과?
#1 이름 하나뿐이주.
#3 지미봉.
#1 지미봉.
#3 지미오름이엔도 허고.

#2 지미오름이엔도 허곡, 지미봉이엔도 허곡.
@1 예.
#1 말산봉도 제주도 저 종달리 아니?
#3 저건 시흥리 반 그자.
#1 그래도 말산봉.
#3 옛날 남북군 헐 때 저 저기 요기 보이는 산.
#2 물미.
@1 예, 예.
#3 물민디.
#1 남군 북군.
#3 요거 산이믄 반은 남군, 반은 북군.
@1 그 물미오름이마씨?
#3 에, 에, 에.
@1 게믄 물미 반착은 종달리 거?
#3 예, 종달리.
#1 종달리, 반착은 종달리.
@1 아.
#1 말을 놧수다게, 거기.
@1 예.
#1 말을 놔, 영. 갈라진, 땅이 갈라졋주게, 지금 현재.
@1 예.
#1 남쪽 서쪽 바로 이렇게 종달리 지역, 시흥리 지역 이렇게 헤서.
#3 그게 남북군으로 뒈엇어, 바다도 게니까.
#1 갈라지고.
@1 으.
#3 우리 다음 저쪽에가 시흥리 마을인데.
@1 예.
#1 그렇게 다 갈라젼.
#3 저 저기 시흥리부터는 서귀포시.
#1 어.
@1 으.
#3 종달부터는 또 제주시. 또 옛날 저 남북군헐 때도 종달리는 저 북군, 저쪽에는 남군.
@1 예. 게난 여긴 모관.
#3 아, 모관.
#1 아, 모관.
#3 모관.
#1 그런 거 우리 잘.
@1 (웃음) 그 말은 안 허는 디 어쨋든 아는 거.
#1 어, 어. 할머니네들 흔 번썩 쓰고. 쓰는 사람 잇어, 모관이여, 무시거.
@1 예, 예. 그 여기 지미오름을 옛날 어른들은 미시거렌 불러수과?
#1 여기서 불를 때는 오름.

#3 아이구 뭐, 그대로 오름, 오름 헷주. 그때는 무신 뭐.
#1 종달오름.
@1 지미 안 부쩡예?
#3 어.
#1 기냥 종달리오름.
@1 으.
#1 이렇게 헷는데.
#3 명칭이 그때는 그대로 오름에 가자, 뭐.
#1 어, 그런 걸로만 생각헌 거.
#3 오름 뒷밧디여 미시거여 밧 찾아가젠 허민 이런 식으로.
#1 신경도 안 쓰고 그냥.
@1 으.
#1 그냥 오름이다, 저건.
@1 예, 동네서야예?
#3 예.
@1 오름 이렇게 하고.
#2 게난 소 질룰 때에덜 이제 옛날에는 소 목장거치 이제, 어.
#1 올렷다가.
#2 저레 올령 내 불면은.
#1 내려오고.
#2 물 먹고 싶으면은 또 거기 밑에 물이 이시니까 물 먹으레 자동으로 내려오주게.
#3 저기 불 많이 낫어요.
@1 으. 옛날도 저추룩 낭이 지깍헤나수과?
#3 아니, 아니, 아니.
#2 아니.
@1 언제적 저렇게 헌 거우꽈?
#3 아, 이젠 산도 저기 가믄 인제 뭐냐, 노루가 이빠이.
@1 아.
#3 궹장히 노루주. 사름 다니지 못허여, 완전 숲.
#2 다니질 못헤.
#3 아이, 밀림 뒈불언, 밀림.
#2 밀림.
@1 으.
#2 밀림 지대 뒈 가지고.
#1 저 산이 우리가 생각헐 땐, 우리가 국민학교 이삼 학년 때에 벌목으로.
@1 예.
#1 이제 해체헤 가지고 이제 땔감으로 쓰겟다 헤서 동네벨로 그 놈을 짤라 가지고 갈라.
@1 으.
#1 동네마다 갈라 놓고 또 우리 개인으로 갈라주곡. 그럴 때에 우리가 어려서 그 솔가지 하나 질 수도 엇는 때에 어머니들 따라가서.
@1 으.

#1 그걸 이제 막 어머니네가 내려 끗어놓고 그, 그 바로 그추룩허연 비어놩 그때 저 그르가 난 거라.
@1 으.
#1 그때부떠.
@1 그때부떠.
#1 그렇게 생각헤.
@1 예.
#1 어, 그렇게.
#3 저기서 어떤 사건이 낫나 허믄 한헤 불이 나가지고.
#1 다 카 버리고.
#3 다 타 버리니까.
#1 또 새로 나고.
#3 정부에서 거 소나무 그 묘종 나와 가지고 심으레 올라간 거라.
#1 어.
#3 게 여자덜 가 갖고 막 허는데, 우선 애들 놀다 돌을 굴러 불엇어. 거 섯동네 사름인데.
#1 사람이 죽엇어.
#3 맞아 죽어거든.
#1 사름도 죽고.
@1 으.
#3 그런 사건도 잇엇어요.
@1 예.
#1 어, 어, 장난으로 아이덜 올라가서 돌 던져 버려 가지고.

물
@1 그리고 아까 그 물도 잇엇덴 헷잖아예? 이 동네도 나는물들이 이신가마씨? 종달리.
#3 저디 가민 엉물이라는 데 잇고.
@1 엉물.
#3 예.
@1 예.
#1 개금물.
#3 저쪽에 가민 개금물이라고.
@1 예.
#3 지금 요, 요 요즈금 지킴이라고 잇잖아요.
@1 예, 예.
#3 거, 거 하고 잇어요. 저 저는 개금물 거 거 가서.
@1 담당.
#3 지키고 잇고.
@1 으.
#3 서이 아니면 너이 다섯 이렇게 지키고 잇어요, 지금.
@1 예. 물은 게믄 나는물은 두 개?
#3 아니죠, 에, 개금물도 멧 군데냐 하면 원래 알개금물, 웃개금물이라고 양쪽에 잇엇는디

거기서 양쪽 다 여탕, 남탕이 다 잇엇어요.
@1 으.
#3 여기도 여기 엉물이라는 데도 여기도 여탕 남탕이 잇엇는데.
#1 맞아, 잇어낫고.
#3 남탕 없어지고 저기서 또 여탕 엇어져 불고. 또 한 곤데 알개금물은 완전히 없어져. 도로 그 우에 길 잇죠?
@1 예.
#3 도로 뽑으면서 거 다 없어졋어요, 그게.
@1 없어져 불고예?
#3 예.
@1 예, 그다음에 그 다른 물은, 아까 그, 그 어디 어느 동네? 그 삼춘네.
#1 으.
@1 그 물 잇엇덴 헌 거.
#2 동동네 옹지못이엔 헷는데.
#1 동동네.
@1 예.
#2 옹지못.
@1 옹지못.
#2 이제는 없어져 볏지만.
#3 거, 거 거기는 물이 나오는 데가 아니고 고이는 데주.
@1 으.
#1 소를, 소를.
#3 고이는 데, 고이는 데.
#2 고이니까.
@1 으.
#1 비가 내리면.
#2 이 저 요 산이, 지미봉이 전부 저 송이란 말이여, 송이.
@1 예, 예.
#2 송이로 둰 잇는데, 알로 솟는 디도 잇고, 뭐 우천으로 인제 비가 오면은 고이고.
#3 그 웨에 물 많이 잇지, 또, 음.
#2 그러니까 소들은, 소들은 딱 물 먹고 싶을 때에 기냥 정확허게 내려와서 또 먹고 또 올라가고 그래요.
@1 예. 거기가 옹지못예?
#2 옹지못이라고.
@1 예.
#1 견디 그거 한 마디.
#2 그리고.
#1 또 잘못둰 거우다.
@1 으.
#1 왜냐허면은 우리가 내가 결혼을 헤서 이자 두문일 갓잖아요, 예? 그래 가지고 그 지역이, 옹지못 가기 전에 지역이, 왜냐허면은 그 옛날 그 ○○할망네 밧이 잇엇수다게. 거기, 논

에.

#3 으, 게, ○○할망네 살아낫주.

#1 ○○할망네 논이 잇는데 우리가 이제 나가 결혼헤서 씨아버지허고 이젠 논을 가서 이제 그걸 이제 서스렁으로 파가지고 이제 모를 심엇잖아요?

@1 예.

#1 그러면은 내가 가만이 보면은 이 땅이, 이 땅이 물이 나가 버리면 이 물이 땅에서 내려.

@1 으.

#1 그 옹지못이라는 땅이. 또 물이 들면은 같이 물이 덤덤허영 같이 어울려.

#3 바닷물이.

#1 바닷물이.

@1 으.

#1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이고야, 이상헌 디여이. 야, 이상헌 디여이. 춤 이상허다. 왜, 왜 물이 나가면은 아래서 땅에서 그 산에 물이 내려. 그러면 난 아, 이거 비가 내리니까 그 비에서 물이 숨어져서 요렇게 내리는구나. 이렇게 헤서. 아고야, 이상허다. 그러면 모종을 헐라면은 바닷물이 나가서 모종을 허젠 허면 땅이 딱딱헤서.

@1 못허고.

#1 모를 못 싱그니까. 이제 우리가 그때 장비가 없으니까 삽으로 신랑허고 파고 궹이로 찍고 그래서 그 물을 막 치대겨. 내리는 물을.

@1 으.

#1 그것은 바로 반물이라.

@1 으.

#1 이제 왜냐하면은 짠물 반, 돈물 반.

@1 예.

#1 그런 물이 이젠 알로 졸졸졸졸 내리면은 우리는 그 데서 구뎅이를 파 가지고 막 치대기면서 그 모를 싱것던. 지금 이거 흔 사십 년 전에 헷던 일을.

@1 예.

#1 기억헴수다게.

@1 게난, 게난 그런 게 중요헌 거마씨.

#1 어.

@1 게난 돈물하고 짠물 반씩 서껴졋덴 허영 반물이엔 골안?

#1 어.

@1 어, 예.

#1 그래서 이제 허면은 우리가 아이고, 요거 파근엥 허민 치대기민 땅이 촉촉허잖아요. 게민 골각지로 좀 지프진 안헤도 요렇게 싱경 놔두민 그 모가 살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생조를 우리가 지금 헤오는.

@1 예.

#1 것이, 지난 세월이 아, 진짜 이거 이상하다, 참 묘하다.

@1 예, 예.

#1 하나를 생각허민 참 묘하구나.

@1 게난 그런 것들을 이제 골아주고.

#1 어.

@1 기록으로 냉경 놔둬야 뒈는 거예.
#1 어, 어. 그러니까.
@1 예.
#1 겡 지금은 현재 집이 짓고 잇어요.
@1 예.
#1 매립을 헤 가지고.
@1 매립헤 불언예?
#1 예, 매립헤 가지고 그 땅에 지금 도로로 뒀잖아요.
@1 으.
#1 지금 현재, 땅 메우니까.
@1 예.
#1 그 어머니가 헷던 어머니가 늙으니까 일본에 가서 딸이 일본에 간 살아니까 자식이, 아들이 없어 가지고. 우리 집안입니다게.
@1 예, 예.
#1 경허난 그 사람이 이제 딸이 어머니를 모시기 때문에 걸 이제 다 팔아 가지고 허니까 이제 육짓 분들은 와가지고 걸 싹 메와 가지고 그 흔적이 없어.
@1 예.
#1 그래서 옹지못이라는 이름도 걸쳐졋고.
@1 으.
#1 그 물을 나왓던 우리 알아.
@1 으.
#1 어 그때, 그 당시에. 흔 사십 년 뒀잖아요. 우리가 그디 스물하나에 결혼헤서 내가 칠십 일곱인데. 이거 한 육십 년, 거자 오십오 년이 지나가고 잇잖아요.
@1 예, 예. 우리 제주돗말로 그냥 굴아 줘도 뒈고예?
#1 예, 예.
@1 예, 물이 게믄 아까 엉물, 개금물.
#1 옹지못.
@1 옹지못.
#3 또 저디 생이물도 잇지예?
#1 으, 생이물은 하지 안허여게.
#3 아니, 이, 저 어디 신속곶.
#1 으, 하도 아니?
#3 아니 신속곶.
#2 응, 신속골.
#3 예.
#1 그디 물 잇어.
#3 또 저디, 저 어디우꽈게? 이제 저.
#2 헤길이못.
#3 어, 헤길이못.
#2 어.
#1 나도 거기 막 뽈레허레 가낫어, 헤길이못.

#3 어, 헤길이못.
@1 헤길이못.
#3 예, 헤길이못.
@1 헤길이못.
#1 헤기못도 막 물 내렴구나, 이제. 내려낫구나, 옛날에.
#3 아니, 예. 물 막 나왓수게, 거기.
#1 아.
#3 거깃 거 그 물 밧디 갓당 그 물 먹기도 헷는디.
@1 으.
#1 아.
#3 다 먹엇는데.
@1 게난 이제 사진 찍을 수 잇는 물은 멧 개 이신 거?
#3 아이고, 아고.
@1 아이고, 아고.
#1 막아져.
#3 하나, 둘 두 곤데?
@1 으.
#3 두 군데.
#1 엉물.
@1 엉물.
#3 엉물 하나.
@1 어, 개금물 하나.
#3 저 개금물 저 웃개금물 거기 하나.
@1 어.
#3 거, 그거벳기.
@1 그것벳기허고, 다른 건 엇어?
#3 저 어디도 물이엔 허지 안헙니까? 저 작제물. 시흥리 가당은에 보민 작제물.
#2 으.
#3 작제물.
#1 시흥리도 종달리로부터 시작, 그 작제물?
#3 예.
#1 으, 그디도 땅 아래서 물 내려서.
#3 거 작지물이라고.
@1 작지물은.
#3 거 막 바 바다, 거 바로 바다예요. 바다.
@1 예.
#1 거기도 바다도 영 내려오민.
@1 으.
#1 내려오다가.
#3 우리 어릴 때 밤에 불 키고 가면 장어 거기서.
#1 어, 어, 어.

#3 작살로 저 잡고 그랫는데.
@1 작제물.
#3 예, 작지물.
@1 것도 저기 종달이예?
#3 예, 예, 예.
@1 예, 게믄 세 개를 사진은 찍어질 거구나.
#3 겐디 물은 안 흘려요.
@1 예, 안 내려도 그 흔적은예?
#3 예, 예, 예, 예.
#1 흔적은 잇지.

당

@1 알앗수다. 게믄 나중에 그 물 세 개 저기 헤주믄 뒐 거고예. 그다음에 당은, 여기 종달리도 당이 몃 개 잇잖우꽈? 저기 셍게, 셍, 셍깃당도 잇고.
#1 어, 새당도 잇고.
@1 예.
#3 당 거기 잇고, 요기 저.
@1 당은 뭐, 뭐 이수과?
#3 아, 견디 것ᄀᆞ라.
#1 워낙 오래부난.
#3 아니 저.
#1 틀목, 틀목.
#3 틀목당.
@1 어.
#3 틀목. 틀목당.
#1 건 너무 오래서게.
#3 예. 틀목당.
#1 건 우리가.
#3 또 경허고 개금물 ᄌᆞ끗디예, 거기 하나 잇엇수다. 조그만허게 허영은에.
#1 어, 어.
#3 거 저 뭣고, 저.
#1 그디도 잇어낫어.
#3 거저, 저.
#1 건 우리 잘 몰라.
#3 저 무슨 나무냐, 아이고 저.
#1 아니 뎅겨부난.
@1 으.
#3 무궁화꽃이 무슨 나무예요?
@1 아, 황근.
#3 아, 아니.
#1 거 장소 알아? 그디 들어가는 디 알아?

#3 예, 예, 예, 예, 예. 그 족은 길로 가는 데. 예, 개금물 조끔 우트레 올라가민.
#1 어.
#3 엇어져실 거라, 거기.
#1 예.
#3 예, 거기 다 길도 뭐 뒈어 불고.
@1 당 잇어나고.
#1 할머니네가 거기.
#3 거, 거, 거.
#1 종잇장 걸어난 디.
@1 으.
#3 동백낭 잇는 디도. 동백낭 이신 디. 거기.
@1 예.
#1 또 이디 저 거세기도이 우리 종이 걸어난 건 몰라.
#3 어디.
#1 이 저기.
#3 틀목?
#1 한ᄆᆞ르.
#3 틀목게, 요디.
#1 틀목에도 한ᄆᆞ르옌 헤서.
#3 아이, 아니.
#1 틀목.
#3 ○○이네 밧, 그 밧이영 ᄀᆞ찌 부떳주.
@1 으.
#1 그 당엔이 우리 뎅겨.
#3 틀목.
#1 큰 남이 잇어 가지고 아 저것은 당이다, 이렇게만 헷주.
@1 으.
#1 우리가.
#3 우리 어린 때 뭐.
#1 어머니 따라 가도.
#3 끈 같은 것덜 막 메달곡 헷는데.
@1 예, 예.
#3 요지금은 뭐, 그런 디.
#1 하도 오래난.
#3 쳐다보지 안허여.
@1 아.
#3 당이.
@1 그리고 요기.
#3 요기는 막 크게 헤요, 요기는.
@1 예.
#3 저건 뭐 제주도에서 제일 큰당이거든요.

#1 어디?
@1 집, 집 짓고.
#3 아, 거 어디게. 저 두문이개 그 저 어디꽈? 그 당 잇잖우꽈게.
#1 으.
#3 아래 바당에 막 부뜬 디.
#1 으, 으. 그 당은 우리가 이제.
@1 거는 개당, 셍개.
#3 예, 예.
#1 셍개낭.
#3 셍가낭.
@1 셍개남.
#1 셍가낭.
@1 셍게낭당.
#3 거기 크게 헤요, 지금.
@1 으.
#1 그 당은 우리가 알기론 어떻게 헷나면은 이, 이 지역에 요 당이 아주 집중으로.
@1 으.
#1 우리가 이제 일월둘 나면 초이틀, 초사흘부떠 시작헤 가지고 일주일, 일렛당, 열나흘당.
@1 으.
#1 요런, 요런 걸로 우리가 생각헤 가지고 그 당엘 뎅겻낫주게.
@1 예, 예. 일레하고 열나흘에?
#1 으. 열나흘당을.
@1 예.
#1 그렇게 헤서 다녓는데 우리가 셍가남당은 우리가 생각허기엔.
@1 으.
#1 어떻게 헷냐 허면은 바다에 나가서 풍파가 들까봐.
@1 예.
#1 이제 배 사는 사름덜 무사히 잘 돌아오십시오.
@1 맞수다.
#1 그리고 우리가 해녀로서 뭐 허진 못헤도 오늘 무사히 우리를 잘 보호헤 줍서, 요렇게 헤서 이제 그 요왕제.
@1 예.
#1 요왕제를 드린다 헤서 그디 가서 영허고. 그것도 또 잇지만은 배 허는 사람은 이제 그 뭐 선앙.
#3 선앙.
@1 선앙.
#1 이름이, 선앙이라는 이름 제[째]로 그디 가서 이제 베를 우리가 허다가 팔아 불면은 요놈의 선앙이라는 거는 요만헌 곽에다가 이제 뭐 요런 거 하나 놓고 말이지, 잘 무사히 남편 고기 잡으레 가서 잘 돌아 오십서 헤서. 어, 십오일에 혼 번씩 제 지내는 사람도 잇고. 일 년에 혼 번썩 제 지내는 사름, 건 자기 나름으로.
@1 으.

#1 그렇게 헤서 우리도 배를 헤낫지마는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바다를 요왕전에개 빌면서 이제 그 제를 지내고 그랫던 당[땅]이 우리가 생계 유지허다가 이자 팔앗잖아요.

@1 예, 예.

#1 우리가 힘드니까 팔게 뒈면은 요 관을 그대로 내보낼 수가 엇어.

@1 으.

#1 그 배 안네다가 요만헌 그 관을 놔 가지고 무사히 이제 고기도 잘 잡게 헤 주십서, 우리 남편 잘 돌아오게 헤 주십서, 요렇게 헤 가지고 지내던 관을 떼서.

@1 예.

#1 팔게 뒈면 배는 팔고 그디 가서 이제 다 절허고.

@1 으.

#1 술잔 드리고 메 세고 떡은 아녀도 다 제가지고 돌고냥.

@1 으.

#1 돌고냥 요러요러요렇게 파가지고.

@1 으.

#1 거 관을 탁허게 놔가지고, 놔가지고 기자 그 일 년에 훈 번씩 요왕제 드릴 때는 우리가 그 제를 그디 가서 자기 것도 드리곡 거기도 그런 겁니다게.

@1 예, 예.

#3 또 하나 잇잖우꽈. 지금 하는 건 뭐우꽈? 한칩이라고.

#1 몰라게, 게난.

#3 아, 지금도.

#2 몰라.

#3 지금 허는 거.

#1 몰라게.

#3 아, 저 오름 옆이 그거 집 지어 가지고 저 뭐냐.

#1 나 봐나보지 안허연.

#3 정월 때, 음력 정월 때.

#1 아, 거 이전에 이전헷잖아요, 게.

#3 뭐.

#1 이전헤 갓수게게.

#3 그 저디서 헴주게.

#1 이제도 허, 허는 디, 그건 당이.

#3 종달리도 헌덴 허니까.

#1 그건 당이고.

#3 게.

#1 저짝에는 요왕당이라는 거라게.

@1 으, 예.

#1 게.

#3 게난 지금도 게난 이거를 말을 허까말까허는 거라.

#1 그것도 헤야지.

@1 헤야지.

#1 (웃음).

@1 건 종달리 본향.
#2 정월 나면은 전부 이디 가던데.
#1 어, 게난 나가.
#3 지금 나가 얘기허는 게 정월 나면.
#1 열나흘당.
#3 거기 가요.
@1 예.
#1 일주일당 그렇게 허고.
@1 게난 그 종달리, 그 지미봉 옆에.
#1 으.
@1 집 지어진 디 잇잖우꽈예?
#3 으, 거기, 거기.
@1 그 당 일름은 무시거우꽈?
#3 그디 난 당엔 아녀고 한칩이, 한칩이엔도 허고.
#1 이름이?
#3 어.
@1 한집 모신디.
#3 예.
#1 으.
@1 한집예?
#3 모시진 않고 그자, 저 저 그.
#1 심방이 와 가지고.
#3 심방이 와 가지고.
#1 요령 허멍 영. 게난 것도 종달리를 이제 종달 사람덜을 무사.
#3 지금 거기.
#1 무사 헤도렌 허는 거주게, 알고 보면.
@1 으.
#1 옛적부떠 내려온 거라게. 때문에.
#3 심방이 저 지금 종달리 사람인데.
@1 아, 누게우꽈? 이름.
#3 고영남.
@1 고.
#3 영남.
@1 고영남. 남자 심방이구나예?
#3 남, 남. 남자.
@1 으. 게난 그 분이 이월 열나흘날 굿헙니까? 여기. 건 본향당?
#1 본향당.
@1 예, 마을, 마을 안녕을 비는 데가 이제.
#3 아니, 아니.
@1 으.
#3 저 개인적으로덜 가요.

@1 개인적으로?
#3 예. 예.
@1 아.
#2 개인으로 다 가.
#3 개인적으로 가요. 개인적으로.
@1 예.
#1 개인적으로.
#3 게니까 누구 말쩨라로 저 쌍말, 쌍말이 아니고 사투리로 예비당에 뎅기는 사름은 안 다니고 그런 디.
@1 으, 으.
#3 게니까 나 여기 본토베기덜 그대로 이, 저 뭐냐 이 저 뭐, 뭐 유교나.
@1 예.
#3 이 이런 사람덜 거, 거 거기 가요.
@1 개인적으로예?
#3 남잔 안 다니고 여자만 가요, 여자만.
@1 여자만예? 아.
#3 예.
#1 게난 그것은 이얘길 우리 허지 안헷수과? 삼월 이제 날짜를.
@1 으.
#1 이제 보면은 이제 초사흘날부떠 우리는 심방이 하여간 심방, 심방이.
@1 예.
#1 어느 때쯤 헤야 뒈쿠과게? 우리가 들으면은.
@1 으.
#1 마을이, 사람이 돌아가서 비리면은.
@1 으
#1 안 뒌다 허고.
#3 연기허곡.
#1 연기허고. 사람이 안 돌아가서 헐 때 깨끗허다고 그래 가지고 이제 우리가 초청을 신식 이제 심방이라서.
@1 으.
#1 심방, 어떵헐 거우꽈게? 우리 어느 때 가야 뒈쿠과게?
@1 으.
#1 영허면은 아무 날 옵서.
@1 으.
#1 게민 어느 때부떠 시작헐 거우꽈게? 허민 저. (전화 소리) 나흘날이나.
@1 으.
#1 나흘날부떠 십오일까지.
@1 으.
#1 게난 일찍 가는 사름은 일찍 가고, 우리가 미쳐 출리지 못헌 사름은 냉중에 가곡게.
@1 예, 예.
#1 경헨에 우리가 오늘날까지, (잡담) 이제 오늘날까지 그렇게 이제 살아오면서 이제 허는

거게.
@1 아, 그난 여기는.
#1 으.
@1 그 동네에서 딱 날 정헹 허는 게 아니라.
#1 어, 어.
@1 초사흘부떠.
#1 어.
@1 이제 열나흘까지.
#1 어, 시작.
@1 헤 갖고.
#1 어, 시작헤 가지고.
@1 허는구나예?
#1 게난 우리가 옵서, 갑서 심방한티 물어봐서.
@1 으.
#1 아무 날 옵서. 그렇게 헤서 우린 이제 다니는 이제.
@1 으.
#1 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2 여기 한칩이가 거 누게, ○○이 아덜 허는디?
#5 으.
#2 거기 얘기허는 거.
#5 으.
#1 당, 당, 당, 당.
@1 그 당 일름 뭐우과?
#1 당.
#2 한칩이, 한칩이엔 허여.
#5 종달리 신당이엔 허는가?
#3 아니, 한칩이엔 허여.
@1 예.
#5 한칩?
#3 으, 한칩이엔 허여.
#1 당이엔 허주게, 당. 그냥 당.
#5 종달리 신당이주게. 아 요번에 왕 다 조사헹 갓다니까.
#1 이름이 그냥 당.
@1 당.
#5 맞수다.
#1 당.
@1 종달리 본향당.
#1 본향당. 그냥, 당.
@1 예, 그냥 당이우다.
#1 이구, 우리 당에 가게게. 어느 때 갈 거고게.
@1 으.

#1 에구, 심방 어느제사 올탸? 우리 물어봐사 헐 거 아니냐.
#5 이쪽에 잇단 거 저쪽으로 옮겻네.
@1 예, 오름 밑에 집 지어진, 예?
#1 어.
@1 예, 예, 거기 한 번 나 간적 잇수다.
#1 예.

곡궁배
@1 그다음에 포제도 지냅니까? 이 동네.
#3 옛날에 헷던 게 없어진 지가 한 멧 십 년 됏어요.
@1 아.
#1 한 삼십 년.
@1 마을제를 안 헤마씨?
#3 어, 안 헤봣어요.
#1 삼십 년, 삼십 년.
#5 그게 뭐 마을제랑 비슷헷어요.
#1 삼십 년 넘어서.
#3 삼십 년 넘고말고.
@1 예.
#1 떠나분 지가.
#3 저 바닷가에 가근엥에.
#1 건 포제라는 이름으로.
@1 예, 예.
#5 **에 강 허는디 첨.
#2 포제옌도 허곡 곡궁배옌도 허곡.
@1 아, 잠깐만예, 삼춘, 아까 그 이 동네 헷던 게 곡궁배렌 아까 헷잖아예?
#3 어, 곡궁배옌도 허곡 포제옌도 허곡.
#1 이름이 곡궁배.
@1 으.
#1 거 만들젠 허민.
@1 포제 이름 안 허고 옛날 어른들은 곡궁배를 헌 거라예?
#1 곡궁배.
#3 예, 예.
@1 정월 보름날.
#3 예.

문화재
@1 이따가 거는 다시 한번 들어보쿠다예. 이 마을에 문화재가 이신가마씨?
#1 이 마을에 문화재.
#3 문화재가 엇어.
#1 아니 무사 엇어나신가.

#3 어디 문화재가 잇어?
#1 아, 언제 남.
#3 아, 지금 현재 이수과 들어보는 거 아니우꽈?
#1 아니, 옛날 헤난 거 아니.
@1 옛날에 문화재는.
#1 옛날에 무사 안 헤나시냐, 걸궁엔 헌 이름이.
#3 아, 건 나도 헤난 거 아니우꽈? 그것사.
#1 아, 게난 그대로 걸궁.
@1 예. 게난 그 옛날에 그 걸궁 이름으로 헌 거라예?
#1 이름이라는 게 걸궁.
@1 예, 걸궁.
#3 걸궁 뭐이, 뭐냐 이제 ᄀᆞ트민 연극.
@1 예.
#3 그런 거 많이 헷어요.
#1 연극.
@1 자, 걸궁 잇고.
#1 이름은 틀리주게.
@1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뒌 거는 아까 우리 김수길 저기예, 어르신 헌 거.
#3 그거.
#1 진토.
#5 진토굿파는소리.
@1 으.
#1 진토굿놀이.
#5 저 ○○이 형님예, 그때 악단도 잇엇고예.
#3 어.
#5 연극도 잇엇고예.
#3 게.
#5 그다음 아까 걸궁도 잇엇고.
@1 으.
#3 저 사름 저 이장 그저 작은아버지가 거기서 많이, 많이 헷주.
#5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 벳주만은 종달리만의.
#1 사라졋주.
@1 예.
#5 특이한 문화재라예.
#1 으.
@1 예.
#5 겨니깐 예를 들엉 악단도 시골에 그런 악단이 잇인 데가 거의 없던.
#3 옛날에 종달이뿐.
#5 으, 제일교포들 보내와 가지고 하고.
#3 나가 듣기로.
@1 예. 자 삼춘 게면, 그 악단 일름은 뭐라마씨?

#3 아이구, 거까진 모르켜.
@1 거까진 모르고, 아무튼 종달리 악단이 잇엇다.
#3 예.
#1 걸궁, 걸궁이라는 말을 많이 썻주게.
@1 예, 걸궁.
#5 건 아니고.
#3 그건 아니고. 걸궁허고 틀린 거마씨.
@1 아, 알앗수다예.
#5 종달이 악단.

일월

정월 멩질

@1 게믄 거기까지 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예. 정월에.
#1 어.
@1 정월 초ᄒᆞ룻날은 뭐헙니까?
#3 허긴 뭐 헤서 뭐, 멩질이나 헤 먹주.
@1 으.
#1 멩질?
#3 으.
#5 으, 멩질 때주.
@1 그.
#1 멩질.
#5 멩질 세시헐 때 동네마다 집안마다 막 돌아뎅이멍.
#1 어, 어. 먹는 거.
#3 게게, 경헷주게.
#5 어.
#1 집안, 집안.
#3 친척들 집은 전부 다 돌아다니곡 경헷주.
#5 그런.
@1 자, 이장님은예, 속솜허고. 자, 정월 멩질을 헐 거라예.
#3 으.

멩질 준비

@1 정월 멩질 준비허젠 허민. 이건 여자 삼춘이 준비허젠 허민 메칠 전부떠 준비헙니까?
#1 메칠 전부떠민 열흘 전부떠.
@1 예, 어떤 거 준비헤?
#1 어떤 거.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허느냐 허면 잇는 사람은.
@1 으.
#1 뭐 오늘 강 헤도 뒈고, 오늘 강 사당 헤도 뒈고, 사흘 전부떠 사당 허지마는. 우리가 어려운 사람은 미리.

@1 예.

#1 미리, 어디 강 구헤당 거 일을 헷든 뭐 헷든. 돈을 생기면 아이고, 멩질 헤먹어살 건디 어떵 허민 좋고. 섣둘그믐은 다 돌아와가는디.

@1 으.

#1 이걸 제기 출려야 뒈난. 내 우리 쳇 배 장에를 가면은 고기부떠.

@1 으.

#1 어떻게 마련헤사 젤 마음 놓는 거.

@1 으.

#1 두 번짼 쌀집이 가서 쌀을 구헤사 우선 밥허곡 이젠 국허곡 고기 올리는 것이 젤 대중삼앙 걸 헤놓고. 그 나머지는 이제 과일도 허곡 채소곱도 갈르곡 이렇게 헤서 열흘부떠 이 정성을 어떻게 허겟느냐.

@1 으.

#1 가진 사람은 존데.

@1 으.

#1 우리가 부모들 못살곡 정말 없는 덴 미리.

@1 예.

#1 미릿 허여 가지고 우리가 이 멩질을 헤 먹어살 거 아니가? 경 헤근에 영 우리가 살아온 거주게.

@1 예, 열흘 전부떠 영 준비를 헌 거라예?

#1 준비를 미릿게, 미릿.

@1 게믄 그 멩질 섣둘 그 그뭄에.

#1 으, 섣둘.

국멩질

@1 자정에 저기 국멩질도 헤수과? 이 동네도.

#3 어, 많이 헷주.

#1 헤낫어.

#3 에, 많이 헷주.

#1 에.

@1 국멩질은 어떤 식으로 허는 거우꽈?

#1 국멩질.

#3 이제 ᄀᆞ뜨민 떡국식으로.

@1 예.

#3 그거 헤근에 뭐 같이 이제 식구들끼리 ᄂᆞ놔 먹엇주.

@1 으. 게난 국멩질은 멧 시에 허연?

#3 흔 새벽이, 아주 아주 캄캄헌 때.

#1 새벽이 허는 거추룩 말헹 안 뒈주게.

@1 예.

#3 새벽이주게.

@1 자, 우리 여자 삼춘이 이제.

#1 이제 어떵 허냐 허면은.

@1 준비를 헤 봅서.

#1 우리가 이제 준비를 딱 헤 놓고 이제 초상덜이.

@1 예.

#1 네 시쯤은 뒈면은 부모님들이 우리가 이걸 대접헤야 뒈겟다 허영 메밀가루.

@1 예.

#1 이제는 우동은 아녀고 메밀가루로 이제 썰어 가지고 이제 그 메밀가루로 이제 그 국수를 만들어서.

@1 으.

#1 그래 가지고 딱 제 지내 놓고.

@1 으.

#1 이제 거 다 정리헤 놓고 그거는 친촉을 안 불러.

@1 으.

#1 친촉을 안 불러서, 짝허게 이제.

#3 딱 각 가정에.

#1 각 가정마다. 으, 신위 멧 사름 이신 걸로 딱 이제 젓가락 놓고 다 헤난 다음에 이제 네 시쯤은 시딱 붉아가믄 가만히 여자들이 이제 중심을 잡앗다가.

@1 으.

#1 잠도 안 자.

@1 으.

#1 이제 잠도 뭐 열두 시 뒈민 이제 이걸 마련허젠 허민 야, 애기덜 다 줌자곡.

@1 예.

#1 줌자곡 이녁만 일어낭 신랑도 줌자곡.

@1 으.

#1 게민 내가 어려웟던 말을 허는 거, 이거.

@1 예, 예, 예.

#1 어렵게 살아온 말로 내가 얘기허는 거.

@1 으, 으.

#1 으.

@1 그런 게 중요헤.

#1 다른, 다른 집은 어떻게 살아왓는지 몰라도. 어느 가정은 잘살아, 어떻게 살아왓는지 몰라도 우리가 없이 살아온 가정에서 내가 말허는 거.

@1 예.

#1 경허난 그래 가지고 이제 그걸 다 대접헤 놓고 이제 다 헤낭 이제 첨 집안 사름 모시젠 허면은 이제 일곱 시로부떠 또 제 지낼 거. 이제 밥허곡 멩질 지낼라고 이제 그런 거. 그거주게.

@1 게난 국, 그 국멩질은 보면은 한 새벽 네 시에 올렷구나예?

#1 어, 네 시에 올려근에 내려두곡 다른 집안은 몰라도.

#3 그게 새벽입주, 뭐우꽈?

@1 예.

#1 새벽, 새벽 걸 올렷다는 거, 그거.

@1 게 그 일름을 국멩질이렌 헙니까?

#1 어, 국멩질. 그것이 그런 건 아니고 그 말은.
@1 어디.
#3 멩질제 말고 앞에 허는 게 그 우리 허는 거.
@1 예.
#3 그걸, 그걸.
#1 그걸 말을 우리가 그냥 그렇게 헌다는 말만 들엇주.
#3 그리고.
@1 으.
#1 따로, 따로 얘기는.
@2 으.
#3 멩질날이 낼 모레 글피민.
@1 예.
#3 오늘은 떡ᄀᆞ루 ᄀᆞ는 날.
@1 으.
#3 내일은 떡허는 날.
#1 섣둘그뭄날 떡허는 날.
#3 모리는 저 뭣고, 멩질날. 그렇게 얘기를 헷는데 우리.
@1 아, 떡ᄀᆞ루를 삼일 전, 게난 이틀 전에.
#3 어, 어.
@1 예, 아.
#3 그다음은 떡허는 날.
@1 예.
#3 그 뒷날은 떡허는 날, 그다음은 멩질날.
@1 으.
#3 우린 그렇게.
@1 예. 떡ᄀᆞ루 뻣는 날예?
#1 떡ᄀᆞ루 뻣는 날.
#3 예.

추렴

@1 여기 뭐 저기 제숙헐 고기, 저기 추렴들은 안 헷수과?
#3 무사마씸, 아이고.
#1 아이고, 억수 많이.
#3 옛날에 무신 정육점이 잇엇어요, 없어. 아무 것도 없는데.
@1 으.
#1 옛날은양?
@1 추렴은 언제 허여?
#3 예?
#1 나 곧건 들읍서. 요거 요것에 대헤서는양, 이건 또 재미져양.
@1 예, 예.
#1 하, 동네 뒈지를 잡아. 동네 고, 뒈지를 기자.

#3 집집마다 뒈지가 잇엇거든요, 집집마다.

#1 견디 잘 길루는 사람도 잇고 못 길루는 사람도 잇고 자그마한 뒈지도 잇고 큰 뒈지도 이시믄. 우리가 동네서 모여 가지고. 남자덜, 여자는 안 끼고.

@1 으.

#1 남자덜끼리 뭐라 하면은, 야, 느네 집이 도세기 이신 거 멩질 제숙으로 내놓라, 영 허믄.

@1 으.

#1 지네끼리 내놓겐 허는 사람도 잇고 안 내놓겐 허는 사름도 잇젠. 게믄 어떵 허코? 어떵 허영 이 돈은 어떵 누가 책임질 거고? 영 허민. 지네끼리.

@1 으.

#1 경허민 에, 우리 집잇 사람 메역 ᄌᆞ물아당 메역 풀아근에 (전화 소리) 주민 뒐 거 아니가? 잇는 사름은 내놓곡 없어서 그날 현찰 없는 사름은 외상에.

@1 으.

#1 뒈질 잡아 놓곡 앞다리 뒷다리 다 앚앙 뒷다리는 나 가져 가켜, 싼 걸로.

@1 으.

#1 쫌 맛 좋음직헌 건 돈 잇는 사름 요건 나 가져 가켜, 막 지네끼리 막 그냥 영영 허는 거라.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안첩은 이제 숣아 가지고 술 혼 잔씩 먹곡 그자.

@1 으.

#1 그렇게 헤서 제숙을 헤오주게.

@1 게, 그거는 보통 메칠 전에 헤마씨?

#1 닷새, 사흘.

@1 아, 닷새.

#3 아니마씸, 누님. 거, 거, 거 잘못 계산이우다.

#1 어, 어.

@1 으.

#3 썩어불민 안 뒈 부니까.

#1 어, 어. 경헤도.

#3 떡허는 날 아니민 저 떡ᄀᆞ루 ᄀᆞ는 날.

@1 어.

#1 아이고 게도 미릿 막 헤세게.

#3 아니마씨. 옛날 무신 냉장고가 잇엇수과, 뭐가 잇엇수과게.

#1 아니, 우린 고팡에 막 그추룩 헤나세.

@1 알앗수다. 혹시 도세기 잡으면.

#1 어, 어.

@1 아까 안칩도 얘기허고 뒷다리도 허는데 그 부분 명칭도 알아지쿠과?

#3 예.

@1 ᄀᆞᆯ아 봅서.

#3 머리는 저 머리엔 그 대가리엔 허고.

@1 예.

#3 그다음 이거 전각.

#1 전각.

@1 전각.

#3 앞다린 전각.
@1 예.
#3 뒷다린 후각.
#1 어.
@1 예.
#3 요 배, 배 이거 숭.
#1 숭, 목도리.
#3 게 목도린 요거.
#1 어. 똥딴빼.
#3 건 비피엔 헷수다. 똥딴빼 비피라고 우리 헷고.
#1 우린 똥딴빼, 똥딴빼 헷주게.
#3 그다음 그 우이 뼈가 일훈.
#1 일훈, 으.
@1 비피 우에가.
#3 예, 일훈.
@1 일훈.
#3 그 우인 또 갈리.
#1 갈리.
@1 예.
#1 삼겹살이주, 것이.
#3 그게 열두 개로 나옵니다, 그게 뼈가.
@1 아, 열두 뻬예.
#3 예. 열두 뻬로 만듭니다, 그거를.
@1 으.
#3 그 옛날 어떤 ᄀᆞᄉᆞ ᄀᆞ뜬 거 지낼 때 꼭 열두 뻬로 만들어 가지고 헷어, 옛날에는.
@1 으, 열두 뻬.
#3 예.
@1 아까 삼춘 비피를 무신거렌 ᄀᆞᆯ안?
#3 똥딴빼.
#1 똥딴빼. 아이 우린.
#3 그건 완전히 사투리, 진짜 완전 사투리.
#1 것이 사투리라, 것이.
@1 다시, 다시 한 번.
#3 똥딴빼.
#1 똥딴빼.
#3 뼈, 뼈.
#1 뼈를 놔서 똥딴빼.
@1 똥딴빼.
#1 어, 거 말이 재미져, 말이.
@1 으, 게난 그 말이 더 중요헤.
#1 어. 도세기 잡으믄 난 똥딴빼. 어멍덜이 난 똥딴빼 앗어왓저.

@1 으.
#3 겨고 또 기억나는 게.
#1 이 똥꼬망 돌른 거.
@1 으.
#1 돌른 거.
@1 게난 똥구멍 돌른 거.
#1 돌른 거.
@1 으.
#1 똥딴뻬.
#3 이 전각허고.
#1 우리 그런 말들.
#3 요 목도리허곡 이 갈리 ᄀᆞ뜬 건 조금 비싸요.
@1 예.
#1 비싸주, 옛날도 비쌋주. 맛이신 디.
#3 예를 들어 가지고 똥딴뻬 ᄀᆞ튼 거는 예를 들고 한 근에 천 원 허면은 그다음 부위는 갈리 ᄀᆞ튼 거, 전각 ᄀᆞ뜬 거 숭 ᄀᆞ뜬 거는 천 한 이백 원.
@1 으.
#3 그렇게 헤서.
#1 그 당시에.
@1 예.
#3 갈라먹을 때 그런 식으로 헤서 갈란, 갈라갓거든.
@1 예. 겡 그런 식으로.
#1 재미져. 옛날 헤난 말들이.
@1 맞수다. 게난 정월 멩질허젠 허면 멩질도 중요허지만 이런 준비허는 과정이 더 재미져예?
#1 하이고, 오래 경덜.
@1 예.
#1 게난 어릅게 어릅게덜 살아와부난. 하나하나를 다 헹 오는 거주.

멩질상

@1 게난 그 상은 어떤 식으로 출려수과? 멩질상은.
#3 조상덜, 저 예를 들어 가지고 하르버지 할머니 그 전부 다 그 올려야주. 그 메.
@1 한 명씩?
#3 에, 한 명씩, 전부 올려야주.
#1 각자 각자가 다 올려.
#3 게니까 많은 집인 이거 방이민 메가 이렇게 빵 돌아가요.
#1 어.
@1 아.
#3 전체 다 허젠 허믄.
#1 신위 열이면 열 개 그릇을 올려.
@1 게난 신위 밥 국도 열 개.

#3 어, 어.
@1 반찬도.
#1 아니 반찬은.
@1 따로따로.
#1 겸헤서 우리 먹듯 겸헤서 놓곡.
@1 으.
#1 우선 밥은 죽허게 놩.
#3 밥허고 국허곤 꼭같이 쭉 돌아가주.
#1 떡도 대강 흔 사름에 ᄒᆞ나씩.
@1 아.
#1 적도 다 그렇게. 많이 헤사 뒈어. 적게 허민 안 뒈어. 신들이 누군 많이 주고 누군 적게 주느냐 허는 식으로 골고리 이제 상을 출리는 거 같애, 난 그런 거 잘 몰라, 여자라 부난게.
@1 예, 게난 그 정월 멩질 할 때 그 상을 한 번 출려 봅서. 뭐, 뭐 올려신지, 거기에.
#3 우선 메허고 국.
@1 예.
#3 메허고 겡이주, 겡.
@1 겡예?
#3 어.
#1 겡, 국, 국. 고기국.
#3 그다음은 거.
#1 채소.
#3 생각허는 건 해어, 바닷고기.
@1 예.
#1 채소.
#3 구워근에 올리는 거.
@1 해어는 주로 무신걸 올려?
#3 보통 우럭 많이 썻어, 옛날엔.
#1 으, 우럭.
@1 우럭 하영 쓰고예? 예.
#1 우럭허고 저기.
#3 그다음 뒈지고기, 쉐, 소고기.
@1 예.
#1 으.
#3 그다음 떡 종류주, 뭐.
#1 또.
#3 과일하고.
#1 전, 전. 전도 올리고.
@1 으, 전.
#1 계란전.
#3 요새 같이 뭐, 뭐냐 그 저, 거 요런 것덜 뭐.
@1 지지는 거.

#3 지지미 허는 거, 옛날엔 거 그런 거 안 헤서.
#1 생각도 안 허연.
#3 그런 건.
#1 아, 동그랑땡게, 동그랑땡.
#3 동그랑땡 같은 거, 옛날엔 그거 없엇어요.
@1 예.
#1 기름떡허고.
@1 그다음 삼춘, 아까 해어는 우럭 헷잖아예? 그거는.
#3 예, 거의가 우럭.
@1 그거는 제숙이렌 헙니까?
#3 제숙.
@1 제숙.
#1 으.
#3 으.
@1 게믄 그 뒈지고기 소고기 헌 거는 뭐렌 골아?
#3 것도 제숙이엔.
#1 적, 건 적.
@1 으.
#3 아니 그건 아니 첨. 적, 에이구. 아니 원 아뭉케나 헙서만은.
@1 예.
#1 아, 적으로 생각헷는데.
#3 아니, 저 말은.
@1 으. 자 적이고 제숙이고.
#1 제숙이고, 어.
@1 으.
#1 것도 말헤서.
@1 잠깐예. 적 할 때 올릴 때 세 가지 올리지 안헙니까?
#3 아이, 우리 집은 뭐 마, 많죠, 엇엇어 그거지.
@1 으. 게난 보통 뒈지고기, 소고기.
#2 잇는 대로, 으.
@1 잇는 대로.
#2 으, 잇는 대로 다.
@1 이 동네 상어는 안 올렷수과?
#3 무사, 상어도 올리주. 지금도 제사 때덜 허는 사람덜 많이 잇주.
#1 우리도 이제.
#3 뭐 상어 ᄀᆞ뜬 거, 또 옛날엔 저 뭣고, 갈치도 헹 꿴 올려나서. 우리 어릴 때 보믄.
#1 으.
#3 갈치도, 없으면은.
@1 없으면은예?
#3 또 가오리 ᄀᆞ뜬 거.
#1 없으니까.

#3 그런 고기도 저 꿰 가지고 올려나고.
@1 으.
#1 우리가.
#3 요지금 또 뭘 허느냐 허게 뒈믄 한치.
@1 어.
#3 고기 거.
@1 예.
#3 한치도 이제 꿰 가지고 올리고.
#1 이 지금은 막 현대로 다.
#3 지금도.
#1 소리도 올리고.
#3 예.
@1 지금은 소라들도 올리고예?
#3 예.
#1 옛날은 그런 것이 엇이니까.
@1 예, 게난 옛날에는.
#3 비싸근에 안 헷주.
@1 갈치 같은 거는 해어가 엇어 부니까 그거 적으로 헹은엥에.
#3 어, 어, 어, 어.
@1 올렷구나예?
#3 그런 식으로.
#1 어릴 때 엇어부니까. 먹을 것이 엇어 놓니까.
@1 그다음에 저기 채소는 뭐렌 헙니까? 여기서, 채소를. 상에 올리는 채소.
#3 세 가지를 뭐 기준으로 허주. 에, 고사리.
@1 예.
#3 저, 콩나물.
#2 콩나물.
@1 으.
#1 미나리.
#3 미나리 ᄀᆞ뜬 거.
#2 미나리.
#3 거 채소로 그레 들어가고.
#1 무, 호박.
#3 무우도 들어가고 뭐 호박 ᄀᆞ뜬 거 많이 잇어요, 그런 거는.
@1 예. 보통 세 가지, 세 가지.
#1 철에 딸랑.
@1 철에 딸랑예?
#3 예, 예.
#1 철에 딸랑.
@1 게믄 그 채소를 여기는 채소렌 굴읍니까, 탕쉬렌 헙니까? 매물이렌 헙니까?
#2 탕수.

#3 탕수, 탕수. 어, 탕수.
@1 여기는 탕수렌 헤여예?
#3 어, 탕수.
#2 탕수.
@1 어, 저기 상에 올리는 거예?
#3 어, 탕수.
@1 예, 탕수. 그다음에 아까 계랄전도 올려?
#1 어, 계랄전도 올려.
#3 계란전.
@1 계랄전은 어떤 식으로 올리는 거라마씨?
#1 계랄전은.
#3 전기엔 헤근에 똥글랑허게 튀겨근에.
#1 그건 저.
#3 아주 납작헤요.
@1 으.
#3 그.
#2 계랄전?
#1 으 그.
#3 계랄전게.
@1 예.
#1 계랄전은.
@1 계랄전은 어디에 올려? 따로.
#1 떡 우이.
@1 아, 떡 우에? 예.
#1 떡 우이.
#3 아니, 어, 거 많아요.
@1 예.
#2 떡 우에도 올리곡 따로 올리고.
#3 떡 우에도 올리곡.
#1 접시에도 올리곡.
#3 예, 따로도 올리곡. 뭐 어떤 때는 저 뭣고 바닷고기 우에도 올릴 때가 잇고.
#1 아, 그 뭐가 지역이 틀리니까, 자기.
#3 예.
@1 예, 예. 집안마다예?
#1 취향대로 틀려.
@1 으.
#1 요 사름네 그 가정을 틀리고 우리 가정을 틀리니까.
#3 겨니까 뭐냐 그게 왜 그렇게 뒛느냐 허면 쟁반이지 쟁반, 거 올리는 독고.
@1 예, 예, 예. 동그란 거.
#3 요것이 많이 엇으면 겸헤서 올리고.
@1 으.

#3 에, 많이 잇으면 따로따로 올리고 그랫죠.
@1 예, 그것도 조상 나시 하나씩?
#1 어.
#3 예, 예, 예.
@1 어.
#1 아니, 건 큰 우리는 그래 안 허여. 큰 이제 하나에 겹친 그 그릇 하나가 잇어. 다 올려도.
@1 예.
#1 이제 우리가 모둠치기 먹읍서 헌 식으로 이렇게 많이 떡도 착착착착 올령 이만이 올려 가지고 그 우트레 올리는 수도 잇고 다른 집인 모르고.
@1 예.
#3 게니까 이게 뭐냐. 메 그릇이 많으면은 흔 멧 곤데 놔가지고 적, 적 따로, 뭐.
#1 허는데.
#3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놓고.
@1 어.
#3 또 조그만이 잇으면은 또 메 하나만 놓을 때도 잇고.
#1 게 가정이 틀려 놓니까.
@1 예, 가가례예, 맞수다.
#1 가정이 틀려 놓난.

멩질떡

@1 삼춘 떡은 어떤 거 헤수과? 종달리에서는.
#3 송편.
#1 떡은.
@1 떡은 맨 밑에, 이제 궤어보게. 맨 밑에는?
#1 떡.
#3 옛날엔 침떡 아니면 상웨떡.
#2 상웨떡이엔 헷주, 상웨떡.
#1 것도 철에 따랑 헙니께.
#3 상웨떡.
@1 예.
#3 그다음 송편.
@1 예.
#3 첨 종달인 뭐 안 헤여예. 그저 뭐냐, 거.
#1 견디.
#3 저 반달 그 지름떡 건 아녀이.
@1 으.
#1 반달?
@1 그런 건 안 허고.
#3 저쪽드렌, 저쪽드레 가면은 많이 허는데.
#1 송편? 송편?

@1 으.
#1 그 우리는 이제.
@1 삼춘네 집엔 뭐 올려?
#1 우리는 이제 저.
#3 묵.
#1 그 이 집안도 가정이 다 틀리잖아요.
@1 예, 예.
#1 잘사는 가정은 침떡도 허고 이제 헌디. 우리는 이자 내가 시집와서 하도 못사니까.
@1 으, 으.
#1 친떡 허질 못헤 가지고 빈.
@1 빈.
#1 으, 빈을 이제 지져 가지고.
@1 으.
#1 묵, ᄆᆞ밀, 메밀묵.
@1 묵.
#1 메밀묵 이제 허고, 지름떡.
@1 예.
#1 그런 것만 올리곡 그런 것만 허는 사름이 잇고. 이제 쪼꼼 여유가 이시민 친떡 헤 가지고.
#3 설귀떡이라고.
#1 설귀떡.
#3 요런 식으로 뒌 거, 요런 식으로.
@1 예.
#1 으.
@1 예, 설귀떡.
#1 으, 그거 올려 가지고 뭐.
#3 설귀떡, 그건 아주 부젯집이나 안 허면은.
#1 그추룩 허곡. 우리는 못살으니까.
#3 다 상웨떡헤서 상웨떡.
#1 만뒤떡이라고 허영.
@1 예, 만뒤떡.
#1 만뒤떡.
@1 으.
#1 만뒤떡허곡 조개셍편이 잇잖아요.
@1 예.
#1 그거 삐져 가지고 그렇게 헤서 이제 친떡은 안 허고. 다른 집덜은 보면은 친떡도 허고 이것저것 헌데 우리 ᄀᆞ뜬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빈도 헐 때가 잇고 친떡도 헐 때가 잇고 만뒤떡도 헤 가지고 영 ᄒᆞ꼼.
@1 으.
#1 묵도 헤 가지고.
@1 게난 떡은 보통 멧 종류 올려 봣수과? 삼춘넨.
#1 아이고, ᄒᆞᆫ 네 종류도 허곡, 지름떡은 허민 네 종류.

@1 네 종류.
#3 여유 이신 딘 많이 허곡.
@1 예.
#1 그렇지 안허영 못사난, 하도 못살아 놓난게.
@1 옛날에 그 묵들도 헹 올렷잖아예?
#1 묵게, 으.
@1 묵은 꼭 올리는 거지예?
#1 묵은 꼭 올려.
@1 으.
#1 지금도.
@1 지금도.
#1 변함이 없어 건.
@1 으.
#1 꼭 묵은 원.
#3 지금은 저 묵도 허는 집이 잇습니다만은.
#1 지름떡허고 묵은.
#3 요지금 다 어디 그 공장으로 가서 맡기기 때문에 묵도 영 요런 식으로 조꼼씩벳기 안 나와요.
@1 예.
#3 예.
@1 옛날에는 묵 크게 올려낫수과?
#1 아니, 네 개.
#3 요 정도 잘라 가지고 꿰는 거 저 뭐냐.
#1 네 개.
#3 ᄆᆞ믈 그 저 뭐냐 그.
#2 적꼬지에 다 꿰곡.
#3 어.
@1 적꼬지에 꿰엉예?
#3 예. 그래 가지고 또 화리에 굽어 가지고.
#2 넉 점, 넉 점을 꿰는 거주, 넉 점.
#3 예.
@1 넉 점.
#3 넉 점 꿰어.
#1 넉 점.
@1 저쪽 서쪽보단 이 동쪽이.
#1 으.
@1 묵을 크게 썰읍디다.
#1 어, 크게 썰어.
@1 크게크게 헤영.
#1 적도 크게 허곡.
@1 아, 적도 크게 허고예?

#1 어, 것도 막 번들번들.

@1 아.

#1 지금도 나는이 이거 오십 년을 이제 스물일곱에 가서 제ᄉᆞ를 헷는데. 저가 이런 말 골으면은.

@1 으.

#1 우리 씨아주버님이 저 교를 믿어.

@1 으.

#1 겐디 나는 큰메누릴 들어 가지고 스물일곱에 애기 나면서.

@1 으.

#1 이거 한 오십 년 간 제를 지낸, 지금. 그래도 지금까지라도 찹쌀 헤다가 갈아 가지고 지름떡 만들고.

@1 으.

#1 조개셍펜 헤다가 뭐 허곡. 절대 사는 음식은 안 헤.

@1 아, 지금도 헤예?

#1 지금도.

@1 아.

#1 지금도 다 나는 놈들이 사당헤 불라게, 사당헤 불라. 에구 복잡허게 사당헤. 야, 사당허민 뒈느냐. 밤이 줌 안 자니까.

#3 지금 사당허는 사람이 팔십 프로 이상 뒘직허여.

#1 으. 줌 안 자근에이 떡 만들어사주, 야의. 그거 비싼 떡 사도 먹어볼 거 하나 엇곡게. 자기 냥으로 쏠 반 뒈만 적져도 쏠 흔 뒈만 적지민 차롱으로 조개송편도 하나고야, 무사 거 허느니. 내 지금도, 지금까지.

@1 예.

#1 지금까지.

@1 으.

#1 이제도 돌아왐주만은 다 이제 쏠도 골아다가 보관헤고. 응, 그렇게 살아.

@1 식게예, 이제 식게 돌아왐수과?

#3 이 종달린 다 방엣간에서.

#1 어, 식게 돌아오는디.

@1 식게 언제?

#1 십육일날.

@1 십육일.

#1 어.

@1 몃 시에 식게 헙니까?

#1 (웃음) 한 시, 흔 열 시 넘어가민 제 지내주게.

@1 열 시 넘엉예?

#1 어. 겐디 난 그렇게 살아온 사름.

@1 으.

#1 원래.

@1 그 아들도 옵니까?

#1 아들도 오고.

@1 어. 그거 상 한번 찍엉 떡 저 찍엉은에 우리한테 사진 보내주렌 ᄀᆞᆯ읍서.
#1 우리 집의 아들신디 찍엉 보내렌 허카?
@1 예, 예. 나 명함 주커메.
#1 으.
@1 그 딱 헹 그 상차림 헌 거영.
#1 어, 어, 어.
@1 상 저기 찍엉예, 떡이랑 허영.
#1 어, 어.
@1 보내주렌 ᄀᆞᆯ읍서예.
#1 어.
@1 으, 알앗수다. 자, 그다음에 멩질 겅 ᄎᆞᆯ리고 그다음에.
#1 제사 지내고.

차례

@1 하이고 이거 일월 일일이 아직도 안 강 이거 어떵헐 거니? (웃음). 그다음에 멩질은 멧 시에 저기를 헤?
#1 멩질은?
@1 예.
#1 아, 보통 ᄋᆞ덥 시부떠 시작헌덴.
#3 아니 그때예.
@1 예.
#3 멩질은 각 자기네 그 저 뭐.
#2 집안.
#3 예, 집안 사름덜이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헷거든.
#1 으, 경허난.
#3 그니까 시간을 정헐 수가 없어, 이거.
#1 으.
@1 아.
#3 요 집이서 오래 불민 또 요 집이 오래 불고.
#1 쪼꼼 오래어 시간이.
#3 그리 뒈니까 지정이 안 뒈어.
#1 쳇 번엔 ᄋᆞ덥 시부떠 시작허민 아홉 시, 열 시, 뭐 열두 시까지 마무리.
#3 그자 모여지는 대로.
@1 으.
#3 시간 정헤지지 안헷어요.
@1 거난 족은집부터 ᄎᆞ례ᄎᆞ례.
#1 예, 예. 허는 집도 잇주게, 다. 돌아가멍 영.

과세

@1 그 옛날 과세.
#3 겐디.

@1 들은 어떵 헷수과?
#3 아이 다 헷지.
#1 그것사.
#3 난 이 여기 매형 뭽니다, 여기.
@1 아, 기우과? 아.
#3 난 영 올리도 갓다왓는데.
#1 과세는 이디가 젤 잘 알아.
#2 꼭 와, 해, 해마다.
@1 게난 과세는 어떤 식으로 헷수과?
#1 옛날.
@1 예전하고 요즘하고 비교하면.
#2 아, 옛날은.
#1 이거 이거 우리 다 나올 거 아니?
#2 노인이, 노인이 노인덜 잇으면은 집에 직접 찾아가서 이제 과세를 헤야 뒈고. 또 요즘에는 뭐, 뭐, 노인당에서.
@1 으.
#2 이제 뭐 초이틀날이나 삼일날이나 날을 정헤 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이제 나와서 같이 합동 세배허는 식을 또 이제 허고 잇습니다, 지금은.
@1 아, 이 동네에선 합동세배 헴구나예?
#2 요즘은, 예.
@1 예.
#2 겐디 그전에야 그거 뭐 메칠 간 뭐, 뭐, 뭐 닷새고 잊새고.
#3 삼일, 삼일 삼일, 삼일.
#2 원칙이 삼일이지만은 이제 못 본 디 잇으면은 아이고, 거기는 꼭 가봐야 뒐 건데 허면은 오 일 뒈도 가야 뒈거든.
@1 으.
#2 가도 꼭 과세를 허고 온단 말이여.
#3 거기 뭣고. 거기서 미스뒌 게 뭐 잇냐 허면은 사람이 돌아가시게 뒈면 삼년상.
@1 예.
#3 거 지내기 전에는 그 집에 가 가지고 그 상에 절을 헷어요.
@1 예.
#2 꼭 가야 뒈.
#3 지금은 그거 없어져서.
#1 없어진 지 오래여.
@1 게난 그 상에 가갖고 절허는 거는 뭐렌, 뭐 헌덴 헙니까?
#3 과세.
#1 과세.
#3 그것도 과세옌 허여.
@1 그것도 과세렌 허고예?
#3 어, 그것도 과세.
@1 예, 예.

#3 예.
@1 삼 년 전까지는.
#1 말이, 말이 과세.
@1 게난 그 상 논 디부터 먼저 뎅기지 안헙니까?
#3 원래 그랫주. 또 그리고 에, 나도 뭐허겟는데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오늘 이제 소상이다.
@1 으.
#3 그러면은 명단 하나 적어, 우리 동네 우리 종달리에서 누구네 집이 상 싱근 체 잇다. 삼년상이 안 넘엇다. 전부 다 적어 가지고 여자들 시켜 가지고 짊어지곡 배달을 헤요, 거기.
@1 아.
#3 뭐 술 한 사이다에 뭐, 뭐 떡 ᄀᆞ뜬 거 뭐허고.
#1 (웃음)
#3 뭐 요새 그거 없어요.
#1 그거이.
#3 그만이 인심이 박헤분 거예요.
#1 그거이 나 ᄀᆞᆯ으마.
@1 으, ᄀᆞᆯ읍서.
#1 나 잘도 재미져, 허, 우리가.
@1 예.
#1 내가 우리 환경에 살아온 사람, 나가.
@1 예.
#1 이제 어릴 때 아버지 돌아가고 우리 어머니 바다를 육지로 나가.
@1 으.
#1 게민 내가 열네 술부떠 제ᄉᆞ를 지낸 나이라.
@1, 2 아.
#1 사람이라.
@1 예.
#1 그러면 다른 아이덜은 덩글덩글 막 놀고 같이 놀고 헌디 어머니가 가면서 야, 작은년아, 나가 딸을 세 갠데.
@1 으.
#1 언니덜은 다 바다 물질, 육지 나가고 나가 젤 막내곡 오빠 공부시키면서 동셍 데령 살면서 ᄀᆞᆫ는 말이 우리 어머니 ᄀᆞᆫ는 말이 야, 작은년아, 나 이거이 육지 감시난이 이제 삼월에 나갈 건디, 사월에 제사라 부난 사월 초나흘날 제사라부난 작은년아, 나 이거 밀가루 ᄒᆞᆫ 뒈 놤시난 쏠 ᄒᆞᆫ 뒈 놓곡 헴시난 느 제ᄉᆞ 오빠영 지내지크냐? 영 허더라고.
@1 으, 아이고.
#1 아, 경허난 열네 술에.
@1 예.
@2 아.
#1 그땐 게난 오 학년꺼지벳기 국민학굔 안 뎅긴 거라.
@1 으.
#1 동셍도 둘앙 뎅겨.

@1 으.

#1 어멍은 육지 가지. 오빤 이제 고등학교 다니곡 허난. 열네 술에 아무 분시, 지금 막 뛰어 놀 때라. 게난 어머니 말을 이제 그렇게 어머니 말을 잘 들어.

@1 으.

#1 내가, 어떵. 느 오늘 가자리 좀 캐오라. 국 엇어부난이. 반찬 엇어부난 가자리. 가자리 캐레 가곡.

#3 가자리국 좋지.

#1 어, 야 오늘 물똥 강 줏어 오라 허민 물똥 줏어다 놓곡.

@1 으.

#1 불땜 헐 거 솔입 걷어, 솔입 걷어. 게나제나 학교 열네 술에 학교는 안 가고 그냥 그 열세 술, 열두 술에 그냥 그거 막 그거 허레 어머니 도와주길로 허영 살림을 살안.

@1 예.

#1 하나론 허민 바로 가정소년처럼.

@1 예.

#1 그렇게 살아왓는데, 환경이 경 뒌 집이야, 우리 집이가.

@1 으.

#1 내가. 어릴 때, 게민 동네 사름덜은 아고야, 쩨끄만헌 아이가 영 살렴도 잘 살암저. 느 우리 집 시집오라이. (모두 웃음) 느 나 메누리 헤사켜. 막 그런 사름덜끼리 졸졸졸졸허여.

@1 예.

#1 게민 이젠 오빠허고 ᄁᆞ찌 이젠 농사를 지면서 허면은 씨를 뿌리면은 요새ᄀᆞ찌 벌레들 다 먹어 불민 그 씨를 엇어 불민 그 씨 쪼꼼 이신 것에 것 뽑아다가 자기 밧에 싱근다고. 조 싱거야 우리 먹엉 살 거엔 허연에 어머니 허던 거, 거 심어, 건 떠나고. 제사를 허게 뒈민 이젠 어머니가 제사를 이제 허난 고기가 없잖아요.

@1 어.

#1 돈이 엇으난. 내가 이젠 그거 하도 우스와, 이제도. 하도 어이 엇언. 게 밀ᄀᆞ루 허영 제사를 다 지낼 걸로 어멍 쏠 훈 뒈허고 밀가루 한 뒈 헤다 놓고 이젠 이런 제사를 열나, 이제 사월 초읏샛날, 잊어 불지도 안헤집니다게, 경 헤단 헌데.

@1 예.

#1 친구 하나가 나ᄀᆞ찌 걸랑걸랑헌 아이가 하나 이시난. 야, 느 나영 바당에 강 모살치 거리게. 무슨 모살치? 야, 우리 물 졸졸졸졸.

#3 요만썩 고기 잇어요.

#1 어, 고기 요만썩헌 고기. 그거 사당, 그거이 거리레 가게게. 게민 그걸 거리레 가민 베 하나 놓곡 베 앚고 산디칩 무끄는 거.

@1 으.

#1 그거 앚곡 이제 바당에 듬북. 듬북엔 헌 거 잇어게.

@1 예.

#3 나도 많이 헷주.

#1 으. 그놈을 이제 짝 베 놓, 아래 듬북 놓고 이제 그 듬북을 놓고 베를 놓고 그 우에 이제 듬북을 놓고 허민 똑똑 졸라메어.

@1 예.

#1 졸라메영 훈 세 발쯤 만들어. 게믄 그 물 창창창창 그 조개왓이엔 헌 디 이수다게, 지

금.
@1 조개왓.
#1 조개왓.
@1 예.
#1 조개왓디 가가지고 이자 그걸 띄웁는 거라. 띄와 가지고 어떻게 허느냐 허면 이제 그릇을 어떵 가져완. 자그마한 대바구니새끼에.
@1 예.
#1 작박을 놓는 거라.
@1 예.
#1 우리가 국 거려먹는 작박, 잊어 불지도 안허여.
#3 요런 식 뒈는 거주. 요 이걸 끌어와 가민.
#1 아이구, 생각헤가민 너무 기가 멕혀.
@1 아.
#1 내가 왜 어릴 때 이런 일을 헷던가, 공분 안 허고.
#2 모살치.
#3 으.
#1 환경이 아주 못살아 놓니까.
@1 으.
#1 아이.
@1 그물을 만든 거네.
#3 어.
#1 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가의도 끗고 나도 끗고. 이젠 그 고길 웨웁는 거야.
@1 으.
#1 잘잘 물은 잘잘잘.
#3 옛날에 그거 많앗주.
#1 창창창창 내려, 게난 우린 다 본 거.
@1 으.
#1 게믄 물은 막 그 골 지잖아요, 골.
@1 예, 예.
#3 아, 나도 많이 잡앗수다, 거.
#1 영 영 가의도.
#3 아, 맛이 궹장히 좋아, 그게.
#1 가의도 끗고 나도 끗엇어. 이렇게 이렇게 막 흘러가면 궤기들은 가다가 고개 꺼꺼 가지고 이제 우리와 같이 졸졸졸졸 가민 확 엉구와.
@1 으.
#1 확 엉구와 가지고 이제, 그 작박으로 이젠 그 놈을 이젠.
@1 으.
#1 멧 마리, 흔 보시쯤, 흔 보시쯤.
@1 으.
#1 흔 보시쯤 가이허고 갈라 가지고 가이신디 말도 안 허고.
@1 으.

#1 우리 이거 제사 지낼 갱거리여게 경은 안 허곡. 이젠 나 속으로만.
@1 으.
#1 돈이 없으니까.
@1 으.
#1 장에 못 가니까. 아이고, 이제 그거 잡앙 가이 갈라줘 두곡 걸로 제사를 지내낫저게.
@2 아이고.
@1 겡거리로.
#1 그런 일이 잇엇어.
@1 예.
#1 (웃음) 게난 기가 멕혀.
#2 아이고.
#1 기가 멕힌다고.
@1 근데 이런 경험들이 잇으니까 또.
#1 어.
@1 우리들은 기록으로 남길 수 잇는 거고예?
#1 어. 그런 여자가 잇엇다는 거라, 나는.
@1 네.
#1 아이고 참말로.
@1 경헹 겡거리도 하고.
#1 어이 엇언 나 원.
@1 그다음에 정월랑 그 정도로 헹은에 가고예.
#1 (웃음).

정월 대보름
@1 대, 정월 대보름날, 이 동네, 아까 곡궁배.
#1 곡궁배.
@1 예. 그걸 골아 줍서. 정월 대보름엔 뭐 헤수과?
#1 대보름에는.
@1 으.
#1 우리가 어릴 때.

모둠떡
@1 예.
#1 흔 열서너네 술에 모둠떡이라는 게 잇어낫주게.
@2 으.
@1 이 동네 모둠떡 헷구나예?
#1 모둠떡.
@1 예.
#3 많이 헷주.
@1 아.
#1 으, 건 전래로 내려온 거.

@1 예, 모둠떡이.
#1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1 예, 굴아 줍서. 모둠떡.
#1 아이구 게난 우리가 이젠.
#3 남전 안 허고 여자들만.
#1 그땐 이 움막에다가 마을마다 물구랑이라는 이름이 잇어낫주게.
@1 예, 물ᄀᆞ랑.
#1 물구랑, 잘 알지.
#3 방앗간이주, 방앗간.
#1 게난 조, 좁쌀을 그것에 이제 물 커 가지고.
@1 으.
#1 다섯 사름, 열 사름, 아니 한 사름 두 사름 허민 안 뒈고. 흔 일고ᄋᆞ덥이 야, 우리 모둠떡허게게, 모둠떡허게.
@1 으.
#1 경헨 떡을 하도 그 저, 없는 때난 게민 이제.
#3 좁쌀로.
#1 좁쌀, 검은좁쌀.
@1 으.
#1 검은좁쌀 이제 한 뒈씩 모여 가지고.
#3 흐린좁쏠.
#2 흐린 거.
#1 이제 어멍네신디 어멍 보민 우리 저.
#3 거 맛 좋앗어예?
#1 받아온 쏠에 어머니 떡 헐 거, 떡 헐 거, 우리 허크라, 허크라. 허민 야, 낼 저녁쏠도 엇인디 무신 떡 말이니? (모두 웃음)
@1 그치.
#1 그거 나가 재미진 사름이난.
@1 으.
#1 원래 어릴 때부떠 이상헌 건 많이 허니까.
@1 경허난 이렇게 모셧수게.
#1 아니, 아니, 아니. 것이 아니고. 원 어의 엇언. 또 들은 베도 많고.
@1 예.
#1 어멍덜 ᄀᆞᆫ는 말도 잘 듣구, 기억도 잘 허고.
@1 으.
#1 나대로 아니고. 지금. 아 겐 모둠떡 허겐 허민 일고ᄋᆞ덥이 학교 뎅긴 사람 안 뎅긴 사람, 으, 그런 이제 애기 업은 사람, 애기업게. 이런 친구덜이 섯동네서 많이 이시난 지금 막 ○○○네, ○○네 다 우리 ᄀᆞ뜬 뭐라게, 지금.
@1 으.
#1 이제 그.
#3 우리 갑장 그, 저.
#1 으, 가네덜 다.

#3 ○○○.
#1 각자로 다 시집가난 헷주.
@1 으.
#1 흔 열이 잇어낫주게.
@1 예.
#1 야, 걸랑궁이라. 막 연극도 허고 우리 냥으로 꾸미면서.
@1 으.
#1 ᄉᆞ나이덜이영 흔디 막 이디들이영 ᄀᆞ치 놀고 막 난장에 매덜 맞고 영 허연.
@1 으.
#1 아, 모둠떡을 허겐 허민 쏠 받으레 갈 거 아니.
@1 예.
#1 이제 ᄇᆞ른구덕. 그땐 찰리도 엇고 ᄇᆞ른구덕에 관뒈 놓곡 헤근에.
@1 으.
#1 어머니 가근에 떡 헐 거라, 무슨 놈의 떡 말이니, 낼 저녁쏠도 엇인디 또 아이고 아니허민 안 뒈어, 안 뒈어. 막 발도당 치멍 막 우는 아기라.
@1 으, 발도당 치고.
#1 으, 발도당 찍어. 아니헤 주켄 허민 어멍이 안 내주켄 허민 막 발도당 켱. 아, 경허민 이젠 쏠을 어떵 허여근에 이제 두 말을 모돠. ᄋᆞ덥이민 두 말 아니, 여덜 뒈 아니.
@1 으.
#1 이젠 어느 집이, 느네 집이서 떡 허라게. 떡 허민이 느넨 흔 찍 더 줄 거 아니가게.
@1 으.
#1 말이.
@1 흔 찍 더 주는구나.
#1 으, 불르로 더 줘. 그디서 만들언 수고비로.
@1 예.
#1 그 ᄀᆞ찌 우린 흔 찍 갈르민 는 두 찍 줄 거 아니가. 게민 경 허라게 헨. 겡 흔번은 우리 집이서 헌 거라. 나가 이제 막 초청을 허니까, 헨 겐 떡을 헨 그 ᄀᆞ레에다가.
@1 으.
#1 글고 체 놓고 그땐 무신 그릇이 셔. 무신 남북 닮은 그릇 헤다가 체로 치멍 우리끼리.
@1 으.
#1 우리끼리 이제 막 그거 돌면서 떡을 허면은 이 떡을 어떻게 허느냐, 시리를 잇어.
@1 예, 시리.
#1 시리, 시리 가지고 흔 징 놓면 흔 사람 글 썽 그레 부찌곡.
@1 예.
@2 아.
#1 또 흔 사람. 게난 요걸 칭으로 허게 뒈면 우리가 계산을, 우리 어릴 때도 요걸 ᄋᆞ덥, ᄋᆞ덥 칭을 가느냐, 일곱 칭을 가느냐.
@1 으.
#1 이제 뒈로 이젠 솔박으로 이젠 마련헤여.
@1 으.
#1 이, 이것에 딱 놓면은.

#3 여덥 개로 갈랑.

#1 으, 요, 요만큼 허면은 이 사름 두 개.

@1 으.

#1 요렇게 허면 두 사름, 여덜 사람 아니라. 게서 얘기는 어떤 얘길 허느냐 허면은 이젠, 야, 떡 헤당이 마음 좋곡이 뭐헌 사름은 떡도 잘 익곡.

@1 으.

#1 심설 궂이곡 말 안 듣는 사람은 떡 안 익으메.

@1 으. 그런 말 굴으멍예. (모두 웃음)

#1 경허민 에구야, 난 어떵 안 헤낫저.

@1 으.

#1 아이덜끼리이.

@1 예.

#1 난 어떵 안 헤낫저, 난 말도 잘 듣곡이.

@1 으. (모두 웃음)

#1 거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게.

@1 예.

#1 에고, 어리석음도 말도 못 허여.

@1 거 어리석은 거 아니, 읏망진 거.

#1 (웃음). 게민 떡시리 헤근에 그냥 떡 뒈왁세기로 그 ᄀᆞ루 이젠 빼내영 물 헤근에 이제 시루떡, 부모들 허는 거 봉.

@1 예.

#1 아뭇 분시 몰른 사름덜이. 솟 앚져근엥 시리헤근에 이제 뱅뱅 바위 김 안 나사 떡을 잘 익나 헤근에 이제.

@1 예.

#1 허민 그 떡을 이제 헤영 이젠 익엇다 이젠 고지로 찔러.

@1 예.

#1 게민 안 익은 건 들어가지 아녀곡 이제 쑥쑥쑥쑥 네 군데 찔렁 쑥 들어가. 아고 뒛저, 이젠 떡 잘 뒛저, 잘 된 거 닮다. 막 손뼉덜 치멍 에이구, 나 날랑, 날라근에 잘 익게 헤 줍서예. (모두 웃음)

@1 맞아, 으.

#1 아이덜게 ᄎᆞᄎᆞᄎᆞᄎᆞ.

@1 으.

#1 아이 경허민 이젠 그걸 이젠 식으민 이젠 탁 어프는 거라.

@1 으.

#1 우리 냥으로 이젠 어떵 어떵 어펑 영 칼로 비는 거라, 비민.

@1 으.

#1 아, 가당 보민 중간에 또 선 것이 잇어게.

@1 으.

#1 왜냐, 고지를 잘못 찍어서사 헷는디, 쭉허게 허민 그 시리 고냥은.

#3 거 누님 이름 써진 거 아니라? (모두 웃음)

#1 경헤실 거라, 게난 그 고지를 떡을 놔서.

@1 으.
#1 반쯤 둼 가민 고지를 딱 찔러 가지고 맞촤 가지고 고냥을 통헤야 둼는디.
@1 으.
#1 통허지 못헌 건 선 걸로 봐야주게.
@1 으.
#1 우리가 생각허기에.
@1 예.
#1 그 고냥이 여섯 고냥인가 멧 고냥일 거라게.
@1 시릿고냥예?
#1 시릿고냥이. 게민 찔르당 보민 엇갈려근엥 영 비틀어지게 간 놈은 설곡.
@1 으.
#1 제라허게 찔르면 곧작 간 건 익은 걸로 판단헤사주, 이제 생각허민.
@1 예.
#1 게민 헤삭허게 나가.
@1 으.
#1 선 건 베살베살.
@1 예.
#1 에구야, 난 ᄁᆞ딱도 안 헌디 떡은 설엇저게.(모두 웃음)
@1, 2 아이고.
#1 나 이름 부찐 거이.
@1 으.
#1 겨민 우린 에에, 선 거랑 돌라둰은엥이 우리 영영 허게게.
@1 으.
#1 너무 재미진 말덜.(웃음)
@1 예, 그런 식으로 헹 모둠떡을 정월 보름에.
#1 으.
@1 밤에.
#1 으, 밤에.
@1 예.
#1 에고 참말로.
#1 게믄 정월 대보름, 딱 모둠떡을 하나 헷고.
#1 어.

액막이

@1 그다음에 방쉬들도 허지 안헷수과? 정월 보름에.
#3 에?
@1 뭐 이런 이 동네는 뭐 코시 이런 거 안 헷수과? 정월에.
#3 아, 그런 것은.
#1 엇어. 뭐 안 헌 거 닮아.
@1 벨롱겡이 이런 말 안 헤?
#3 아이, 안 헤.

@1 아, 그런 건 엇고예. 어디 강 이렇게 액막이허는 거는 안 헷구나.
#1 액막이허는 건 이제 그 보름날.
@1 예.
#3 아까 말헌 거 저, 당에 가근에.
#1 당에 강 궂덴 허민.
@1 으.
#1 둑 헤다근에.
@1 으.
#1 에, 요왕님신디 빌어주는 것도 허곡. 집안에서.
@1 집안에서.
#1 집안에서 이제 우리 아덜 나쁘우다. 심방 입에서 좀 넉들여사쿠다. 좀 무시거 궂인 거 걸렷수다게, 영 허민.
@1 으.
#1 맘 놓지 못허잖아요.
@1 예, 예.
#1 아이고, 어떠민 좋고, 그땐 소지 종이 사오고, 으, 페벡 끄차당 놓고 불초 사다 놓고 떡헤 놓고 헤주십시오, 우리 아덜 어떵 헤줍서. 뭐 대학시험 봐주게 헤주십시오, 경.
@1 그거는 집안에서?
#1 집안에서도 허고 막 궂덴 헌 사름은.
#3 정월, 정월 때쯤은.
#1 막 궂덴 헌 사름은.
#3 누님넨 그 떡헹 먹주만은 우린 닭서리 많이 뎅겻수다.(모두 웃음)
@1 아.
#1 게, 것도 몰르주게, 우린게.
@1 예.
#1 여자라부난게.
#4 남자들은 경허는 거우꽈?
@1 남자들은 닭서리, 정월 보름에.
#3 아, 그때 막 추울 때.
@1 예. 요런 식으로 하고. 아까 게믄 그거는 이제 정월에 그 당에 강. 나쁘덴 허면.
#1 나쁘덴 허면 그런 이제.
@1 그런 식으로 헤영.
#1 액을 멕이는 거주게, 액.
@1 예.
#1 액이주게, 액게, 게민.
@1 으.
#1 막 나쁘덴 허민 둑 헤당, 장에 강 막 비싸 둑.
@1 예.
#1 지금은 돈이 흔전허난에, 옛날엔 참 어려와서. 쏠 두 말 깝 줘 가지고 좁쌀 두 말 깝 줘 가지고 닭을 사. 장둑.
@1 아.

#1 그때, 그때가 그 당시가 우리가 어떻게 헷냐면, 유채 한 마가, 한 말이 백오십 원.
@1 예.
#1 쌀, 좁쌀 한 말에가 삼백오십 원.
@1 으.
#1 기억을 이제 지금 허여.
@1 예.
#1 그것이 우리 때가 살아온 길이 바로 그렇게 돈이 어려와근에.
@1 으.
#3 거보다 더 나쁘덴 허민 굿도 허곡.
@1 으. 굿도 허곡.
#1 아니, 건 아픈 사람, 건 아픈 사람
@1 아픈 사람.
#1 아픈 사람은 거 심방 빌엉 굿허는 거고.
@1 으.
#1 굿덴 허민 액 경, 춤 벳겻듸 저 물에 가근에.
@1 으.
#1 바다에 강 허는 사람도 잇곡 집안에서 허는 사람도 잇고 이렇게.
@1 그것도 정월에 허는 거잖아예?
#1 정월에.
@1 예.
#1 그렇게 허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1 그런 액막이허는 이름, 별도에 이름은 엇구나. 여기에서.
#1 액맥이.
@1 액맥이.
#1 예.
@1 아, 액맥이.
#1 액맥이.
@1 액맥이도 정월.
#1 우리 아들 액맥이헤 줍서, 심방신디 강.
@1 으. 정월 보름에예, 것도예?
#1 굿덴 허민 날짜 봐근에 심방 입에서.
@1 으.
#1 메칠날 헙서, 막 밀려라 허민, 아무 날 헙서, 이월 메칠날 헙서, 무슨 날 헙서. 생기 놔 가지고.
@1 으.
#1 그 이제 이렇게게, 그렇게 헌 거.
@1 이.
#3 무사게 정월둘에 허는 게 그때 보면은.
#4 요왕맞이 아니, 요왕맞이도.
#3 아니 거 아니라.
#1 요왕맞이 틀리고 액막. 액맥이.

토정비결

#3 저 또 뭘 많이, 토정비결 보레 많이 뎅겻주.
@1 아, 토정비결도 보레, 봐야 뒈고.
#3 토정비결 많이 봐서.
#1 토정비결 ○○○ 하르방신디 잘 가낫주.
#3 아이, 그때는 책도 나와서 요거.
@1 으.
#1 아이, 그 하르방신디 가, 그 하르방신디 강 그 책도 나오고게.
@1 점들, 점들 본 거 아니라예?
#3 그런 식이라, 그런 식.
@1 토정비결예.
#3 토정비결 보러 갓주.
#1 ○○이 할망.

연날리기

@1 연은 안 날렷수과?
#3 예?
@1 연은 안 날려? 여기는.
#1 에구, 무사.
#3 무사 안 날려.
#1 잘 날려낫주. (모두 웃음)
#5 연, 팽이 뭐 이디 이 동네 요즈금.
@1 노는 것들은 잘 헷구나.
#5 여기서.
#3 진짜 종달린 유명헙니다.
#5 여기서 마을에서 막 저 성산포 저 바다ᄁᆞ지 막 그냥 연싸움허곡.
@1 으.
#5 보통 뭐가 아니라.
@1 아, 게믄예.
#5 폭총.
@1 잠깐만, 그 연싸움을 여기서는 뭐렌 골앗수과?
#3 연싸움이엔벳기 더허여?
#1 이름이 엇인가, 몰라. 난 잘.
@1 아니, 연, 연타발 이런 말은 안 헤?
#1 연날리기.
#3 뭐 허는 거?
@1 연싸움허는 거. 연타발 이런 말 안 씁니까? 이디.
#3 그런 말 아녀.
#1 으.
@1 아, 안 쓰고. 여기는 연싸움예.
#3 그때는 뭘로 많이 헷냐면은 그 연씰 안 헷어요.

@1 예.
#3 씰에 이런 유리, 저런 유리, 막 갈믄 가루가 뒈잖아요.
#1 어.
#3 요걸 밥풀에 막 쥑여요, 이걸.
#1 어.
#3 헤 가지고 연씰에 걸 무쳐.
#1 어, ᄂᆞ실게.
#3 어, 겡 바싹 말랑 허면은 다른 씰은 그거 안 멕인 씰은.
#1 다 끊어져.
#3 이 씰 갖다 대면 다 딸라져 불어, 이거.
#1 끊으민 놀아나.
#3 (웃음).
@1 게난 그 연씰에 그 유리헹은에 그 멕이는 걸 뭐렌, 뭐 헌덴 헙니까?
#3 아 거ᄀᆞ라 뭐옌 헷다만은, 아.
#1 거 알아지크라, 하도 오래 부난덜.
#3 우리 많이 헷는디, 거.
#1 많이 헷주게, 이디도 잘 헤낫주.
#3 그게 밥 엇이민예.
#1 (웃음).
#3 거 멩질헤난 묵, 묵.
#5 으.
@1 묵.
#1 아.
#3 묵, 묵으로 헹은에예 묵으로 헨에덜.
#1 그것도이 바싹 몰르민 쎄어.
#5 쎄어.
#1 ᄂᆞ실아.
#2 게난 **헤야 실에다가.
#3 바싹 부떵 헹 발라놓민 뭐. 다른 건 갓다민 바로 날라, 날라기 비어.
@1 으.
#3 거 이겨야 일 등이니까.
@1 으.
#3 무조건.
#1 그창 데껴 불민게 살아잇는 것만 이기는 거주게.
@1 거보고 ᄀᆞᆯ리 멕인다 이런 말 안 합니까?
#3 아, 거 무신거 뭐 잇엇는데 뭐. 기억이 안 나네.
@1 사개나.
#1 아이고, 웃으왕 못 살켜.
#3 아, 사유 멕인다, 사유 멕인다.
#5 어, 사유 맞아.
#3 어, 사유 멕인다.

@1 여기는 사유 멕인다.
#3 예, 멕인다.
@1 사기 멕인다가 아니라 사유 멕인다에?
#1 이상헌 거 둘아다 놓고 재미졈저.
@1 자, 이렇게 헤서 이제 연싸움도 하고.
#5 그다음에.

곡궁배

@1 아까 곡궁배는 언제 헤수과?
#3 것도 정월 보름 그, 그 시기라, 그 시기.
@1 게난 곡궁, 곡궁배는 어떤 식으로 허는 거라마씨? 이건 누게가 주도 헙니까? 곡궁배헐 때는.
#3 거의가 이장이 헤야주.
@1 으.
#1 아니 것도 다 저 제관을 만드는 거주게. 어디.
#3 그 당시 이.
#4 어디 뭐 저.
#3 종달리에 우리 막 많이 기억나는 게 이 쪼꼼 올라가기 우물금 없어졋는데, 큰 우물이 잇어요. 요 동네.
@1 예.
#3 ** 동네도 큰 우물만 잇엇는데 일주일 동안 할라면은 제관이 멧 사람 잇는데 마누라허고 자지도 못헤요.
@1 으.
#3 그 한 집에 가 가지고.
#1 정성.
#3 생활을 일주일 동안 하면서.
#1 정성. 정성, 정성.
#3 거기서 모욕 다 허고 뭐 집, 집에 못 가고.
#1 정성.
@1 으.
#3 그 저 우물에 가믄은 그 노 저.
@1 예, 예, 예.
#3 끈 헤 가지고 다 둘려 가지고 뭐, 뭐 숫.
#2 숫
#3 숫, 으 숫 메어 가지고.
#2 숫 메어.
#3 숫도 다 달아메고.
#1 어, 정성.
#3 일주일 동안 뭐.
#1 일주일 정성, 일주일 정성.
#3 조용허주. 그러다가 한참허다가 한 낼 쯤에 할 거민, 할 거민 오늘 어디 장 낫다, 사람

이 돌아가셧다, 연기헤요.
@1 으. 연기.
#3 예. 몸 비렷다 헤 가지고 연기헤 가지고.
#1 그게 정성 다. 게난 그렇게 정성을.
#3 다시 또 날 봐요.
#1 그렇게 정성으로 허여.
#3 그런 식으로 헷어요.
@1 게난 날 봥은에 허는 거잖아예?
#3 어.
@1 보통 어느 날에 헤수과? 곡궁배 헐 때는.
#3 글쎄, 그건 뭐.
#1 그거ᄁᆞ진 몰르고.
#2 글쎄 그거는.
#1 것도 날봥 좋은[존] 날로 헤실 거라.
#2 날이.
#3 지금 ᄀᆞ뜨민 심방신디 가 가지고 날을 보는 거주.
@1 으.
#3 이제 ᄀᆞ뜨민 철학관 ᄀᆞ뜬 디 가 가지고 그렇지. 날 보듯이 그렇게 허는 거주.
#1 신이, 신이 들어오는 날로 그냥.
@1 첫정일이여 뭐 이런 표현들은 안 헤마씨?
#1 그건 우린 잘 몰라.
#3 그런 말은 모르겟는데.
@1 모르는데 곡궁배를 헷다.
#1, 3 어.
@1 이게 오늘날 포제 같은 거라예?
#1 어.
#3 예, 포제, 포제.
#2 포제주.
#3 포제, 여기서도 포제라 그랫어요.
#1 이름이 포제.
#3 포제옌도 하고 곡궁배렌도 허고.
#1 들은 말이주, 우린 들은 말 기냥.
@1 게믄 이 곡궁배 헐 때는 그 제물은 멩질 제물허고는 또 ᄐᆞ나지 안헙니까?
#3 도세길 잡주.
#2 아, 틀리주.
#1 그건 어.
#3 뒈질 통차 잡앙.
#2 머리차 허니까.
#1 건 어느 집이서 정성을 헤야 뒈걸.
@1 예.
#3 뒈질 잡아 가지고 잘르는 거 아니고 통차 놔요.

@1 으.
#3 통차로.
@1 희생으로예?
#3 으, 통차 놓고 뭐 음식 많아요. 거, 뭐.
@1 뭐, 뭐 잇수과?
#3 뭐 뭔지 알아져? 원 제사 지내는 그 음식 그대롤 거여.
#1 우리 여자는 일절 다니지 못허게 헤. 옛날은.
#3 어.
@1 여자는 다니지 못허게.
#1 어.
#5 포젯당이엔 헤수과?
#3 부정 탄다고 안 뒈어.
#1 일절 다니지 못허여.
#5 포젯당이엔 헤수과? 저쪽에. 포제터? 포제당?
#1 그.
#3 아니, 아니.
@1 포제청.
#3 곡궁배.
#1 곡궁배, 으.
@ 곡궁배단.
#5 저기, 저기 뭐옌, 뭐옌 부르대.
#3 할망쪽발(?)이 거기 잇엇주게.
#5 아 게난 걸 포젯단이엔 헷어.
#1 지금도 잇어.
#5 으, 그러니까.
#1 지금도 흔적은 잇어, 돌 잇어난 흔적. 난 넘어가당 그 지방에 살아부난.
@1 으.
#1 그 아 이 자리는 곡궁배 헤난 자리로구나.
#5 거기 천막덜 쳥은에.
@1 으.
#1 그 저 거 뭣이 엇어게.
#3 할망쪽발(?)이 잇어나서게.
#5 예, 예.
#1 거 저 사름 앚앙 그 바로 아래 지금 단이 잇어.
@1 어.
#2 그거 저 팔각정인가 놓은[논] 디.
#3 어, 어 거기. 예, 그디 맞수다. 예.
#5 회장님.
#3 예, 바로 팔각정 잇인 디주.
#2 ○○이네.
#3 ○○네 밧듸, 밧디.

@1 으.
#1 겐디 나는예 거기 넘어가민 좀 무서와.
@1 예.
#4 어 그러니까.
#1 어, 왜냐하면 이 땅이 말이지, 신이 잇엇다.
#5 으.
@1 으.
#1 이 우리가 이거 멧 십 년을 살아도 밤에도 그레 넘어가민 좀 신이 앚아난 땅이다.
@1 으.
#1 생각이.
@1 그런 생각이.
#1 어, 신은 엇지마는 마음에서.
@1 예.
#3 이거 진짜 헐 말은 아닌데.
#1 어.
#3 옛날에 종달이 귀신이 많다 그랫거든요.
#1 어.
@1 아.
#3 밤에. 이 여기 본인.
#2 흐.
#3 이 양반이 집이 저 두문포 바닷가엿어.
#1 어, 우리영 ᄀᆞ찌 사니까.
#3 추렴 허민 아까 제숙덜 헌 거 뒈지덜 잡아 가지고.
#1 으, 으, 으, 으.
#3 한 다리 딱 울러메곡.
#1 으, 으, 으.
#3 술 이만이 먹곡 내려가는데.
#1 으, 메달앙.
#3 한참을 가졍 갓지. 근데 어느 새 날이 새 가는 거라. 보니까 그 밧만 뱅뱅뱅 돈 거라, 밤새도록.
#1 신이 부떤, 신이.
#3 그랫지.
#2 웨냐면은.
#1, 3, 4 (웃음).
#1 재미져.
#2 그 밧이 밧데다가.
@1 예.
#2 보리를 갈앗는데.
@1 예.
#2 이만씩 다 낫거든.
@1 으.

#2 새파랗거든.
#1 그땐 흔 이월둘이라양?
#2 근데 운동화를 나가 그때 또 새 거를 신엇다고.
@1 으.
#2 새 운동화를.
#1 우스왕 못 살켜.
#2 그러니까 발자국을 보면은.
#1 옛날 이야기, 너무 재미져덜.
#2 알게 뒈 거든.
@1 으.
#2 아, 그래 가지고 이렇게 갈 길을 요 샛길로 거 귀신이.
#1 뎅기는 거라.
#3 듕겨비엇구나.
#2 헤가는 거라, 이제 이리 오라 헤 가지고.
#1 거 고기 먹젠 뎅겻수다.
#2 가서 담 넘어가도 하나 멀어지지 않고.
@1 으.
#2 어떻게 넘어갓는지도 몰라, 이거.
#3 놀안 넘어가실 테주.
#2 게난 왓다갓다 그 밧을 전부.
#1 돈 거라.
#2 불르고.
#3 보리밧 불라줫구나게.
#2 어.
@2 (웃음).
#2 보리밧 불랏는데.
#1 돈도 다 데껴 불고.
#2 이젠 그 절벽 우이, 저쪽에는 영 절벽 뒛다 말이여.
@1 예.
#2 게 그 우이로 올라가서 두문포 오는, 가는 길 아 오, 올라갓어.
#1 저, 어디 안 데껴분 것도, 아이고.
#2 나가서 딱 가는 게 또 이 연뒷동산으로 또.
#1 ᄂᆞ려완.
#3 돌아완.
#2 돌아와.
#3 잘 헷수다.
#1 막 미친놈 ᄀᆞ치 뒈는 거주게.
#2 막 돌아오는데 앞이다가 불이 이만헌 것이 기냥 턱허게 나타나는 거라.
#1 아.
@1 아.
#2 게서 그때는 아이고, 나가 속아졈구나. 그때, 정신 나는 거라.

#1 아이고, 어떠민 좋고 허영.
#2 아이고, 이거 귀신 만낫구나.
@1 으.
#2 헤 가지고 그때는 그래도 저 성냥개비도 나가 갖고 다녓거든.
#1 어.
@1 으.
#2 그때야 무신 성냥 케곡 뭐허고 허니까.
#1 (웃음). 붉아벼서.
#2 저, 불이 돌아서.
#3 종달리 그런 거 많앗어요.
#2 그 이쪽에 불 그 이쪽에 그 저, 저.
#1 도체비가 많앗주.
@1 아.
#2 그 저 소낭 나무 헌 밧 잇잖여이, 저쪽에이.
#1 게, 기가 쎄난 살앗주.
#2 그레 싹허게 들어가는 거라.
#1 메껴벳어, 메껴벳어.
#2 그레.
@1 으.
#2 그래서.
#1 놀라서.
#2 아이구 나가 구신에 홀렷구나 헤 가지고.
#1 어. 정신이 나서.
#2 다 붉아야 이제 집에 들어가 가지고 인제 저 기신새.
@1 예.
#1 어.
#2 기신새.
#1 기신새, 아이구 아이구.
#3 뽑안.
#2 집엣 거를 이제 뽑아가지고 뭐.
#3 불 부쪄.
#2 불을 피워근에 이제 영 헌다고 그 말은 들엇거든게이.
#3 에, 그때 죽을 거주게.
#2 하. (모두 웃음)
#1 굿도 안 헙디가? 그땐. 신도 안 풀고.
#2 게서.
#3 그때 소문나서, 종달 사람덜 전부 다.
#2 아이고 그 때 술, 술은 나가 췌고로 잘 먹엇주게.
#1 감젓공장, 감젓공장게.
@1 게난 그신새 뽑앙 어떵 헙디가?
#2 양?

@1 그신새 뽑안 어떵 허연?
#1 불 부쪗주게.
#2 불 부쪗주게, 불 부쪄근에 것이.
#3 불 부쪄근에 거 방ᄉᆞ허는 거, 방서.
@1 방ᄉᆞ.
#3 방ᄉᆞ허는 거.
#2 에, 몰라.
#1 게도 기가 쎄난 살앗수다.
#2 게서.
#1 어떤 사람은 아파.
#2 집에 들어갓는데.
#3 그땐 누님, 기엔 허난 성주가 쎄덴 헤나서.
#1 성주가, 으, 맞아.
#3 성주가 쎄다.
@1 성주가 쎄다.
#3 성주가 쎄다.
#2 막 헛말을.
#3 게난 귀신 앞이 성주가 쎈 사름은 귀신 앞이 이긴다.
#1 다른 사름은 이렇게 허민 죽어, 에이고.
#2 게서.
#3 죽고말고마씸게.
#2 뭐, 뭐, 뭐, 누게가 돈 주렌 헤 가지고.
#1 * *앗다, *앗다.
#2 돈 뭐 멧 푼 주고, 멧 푼 주고.
#1 에이구.
#2 다 거 우리 집사름 살아 이실 때니깐 다 이얘기허고.
#1 아고, 아고.
@1 으.
#2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젠 집사람은 막 겁이 나가지고.
#3 궹장헤낫주게.
#2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거지.
#1 그 당시에 몃 시에 나와신고.
#2 나가 그냥 막 헛말을 헤 놓니까.
#1 감젓공장에서 멧 시에 나와신고, 열두 시에 나와신가?
#3 감젓공장이라, 무신. 저 여기서 뭐.
#2 감젓공장.
#3 여기서 저.
#1 감젓공장서 저울젭이 허단에 나오란에 경 헷젠.
#3 아니마씸게, 저, 저, 죽.
@1 추렴.
#3 도세기 추렴 헤난에게.

#1 아, 아.
#3 돗다리 하나 둘러메곡 헹 허연 가단에.
#1 아이고야.
#3 옛날부떠 귀신이 뒈지고기엔 많이 달라 부뜬다 그래.
@1 예, 도체비.
#2 어.
#1 어이구, 도세기궤기 먹젠 허난 그거?
#3 아니 것만 줘둬 가불지 안헤 가지고. (모두 웃음).
#1 에이구 노릇도.
#2 아니, 갈비, 갈비 그것도이.
#1 에구 노릇도.
#2 거 코시롱허잖아게.
#3 게게.
#1 에구.
#2 기시린 뒈지니까.
#1 에유, 시절도.
#2 그러니까 그거 씹어먹어 가면은 말이지, 어떻게 고소헌지.
@1 으.
#2 맛이 잇어.
#1 아고, 아고. 맛이 잇어.
@1 으.
#2 술 취헌 김에 이제 저 연딧동산 넘어갈라면은 저 그거 헷젠 갈비 한쪽을 삿는데 나가, 나 적시, 그걸 다 먹고 빼다구만 집일 가졍 갓어.
#1 아이고.
@1 아.
#5 밤새이.
#2 살을 막 뜯어먹곡.
#3 창지도 창지여.
#1 생고길 먹은 거라?
@1 그.
#2 어.
#1 생고기, 구우멍.
@1 거난 이제 들리니까.
#3 아니마씨, 그대로 튿엉.
#2 아니 기자 생차, 생차게.
@1 들린 거예?
#1 아이고.
#2 생차 가면서.
#1 생차 가면서 걸 뜯어 먹언?
#2 어.
#1 이야.

@1 게난예, 그 들리니까 경허는 거주예?
#1 어. 경 생ᄆᆞ음사 경 허여져게.
#3 하튼.
#5 특이헌 경험하셧네.
#2 경허고 또 술을 많이 먹어 놓니까, 그때는.
@1 예.
#3 이 양반이 옛날에 나허고, 이.
@1 정월 오늘 끗남직허다.
#5 (웃음)
#3 처남매부 뭐거든. 뭐 뒈는데, 한라문화재 잇죠.
@1 예.
#3 구좌에서도 한라문화재를 한 적이 한번 잇어요. 그 하도 오래니까 모르겟는데. 각 마을에서 다 출연을 헷거든요.
@1 예.
#3 종달리에서 여자 그 사람들은 여자허고 뭐허고. 나허고 같이 나갓는데 나는 장고 치고 이 양반은 저 노래 불르고 헷는데 구좌에서 다른 마을에 상 하나토 안 갓어. 전부 다 종달리와.
@1 으, 여기는 흥도 잇고.
#5 아, 이 동네가.
#3 야튼 이 양반 노래라, 노래라 하면은 뭐 청이 커가지고 따라올 사람이 없엇어요.
@1 아.
#3 다른 마을에서도 말을 못 헷어. 잘못 뒛다 말을 못 헷어.
#1 이제양 내가 중간에 말을 허쿠다만은. 이 분이.
@1 예.
#1 지금에 이제 첨 뭐허난 헴주, 옛날쯤 베왕 이제 다른 사름 다 잦혀. 그 정도로 자기.
@1 청이 좋구나.
#1 청이 좋고 참 베웁지 안헤도.
@1 예.
#1 자기 음반으로 나온 것이 기가 멕힌다니까.
@1, 2 음.
#1 아주 그냥 우리 저 놀멍으로 노래방에서 흔번 허민 아주버님게, 노래 불릅서, ○○이아버지, 노래 불릅서, 허민 흔 모금만 빼줍서게. 흔 번, 다 자빠져.
@1, 2 아.
#3 옛날에는 결혼식하면은 밤에 놀잖아요.
@1 예.
#1 너무 아까분.
#3 악기가 잇어, 뭐 잇어?
#1 아주버님.
#3 이 양반허고 나라.
@1 으.
#3 노래, 장구.

@1 으.
@2 아.
#3 밤새껏 그냥, 밤새껏.
@1 으.
#3 그런데 이 양반 목청이 쉬질 안허여, 희안허게.
@1 다른 동네 가면 잔치허민 여자들이 저기 허벅 장단 치멍 놀앗덴 헨게만은.
#3 여긴 장구, 거의 장구.
@1 장구.
#1 겐디예.
@1 남자가 이제 초청 가수.
#1 내가.
#3 게니까 어디 결혼식 잇다 허면 초청이 와.
#1 게믄 난이.
#3 아예, 어느 날 뭐 헌다, 와 주시오, 이런 식으로 헤요.
#1 나는 다른 노래는 다 들어도. 아고, 경헌가 영 대강허는디. 이 아지버님이 노래를 어떤 노래를 불르냐 허면은 우리 이제 이 할망칩알, 이 우리 자무질허잖아요.
@1 예.
#1 지금 자무질헴수다게. 할망바당.
@1 으.
#1 할망바당이라서 물이 야파.
@1 예.
#1 게민 못 허는 사름도 들어가서 그냥 허고.
@1 으.
#1 그 뭐 허는 사름은 이제 잘허는 사름은 바다에 배 타면서 나간디 우리가 젤 쫄짜라.
@1 으.
#5 똥군, 똥군이엔 허주게.(웃음)
#1 똥군.
@1 똥군.
#1 겐디 나도 육지도 혼 삼 년.
#3 상군, 하군 헷주.
#2 으, 으, 상군, 하군 맞아.
#1 삼 년 다녀봣지만은 바다일을 허고 싶질 않아.
@1 아.
#1 다른 사람들은 바다에 가민 막 내가 이걸 헤서 뭐 헌다 헤도 암만 못 살아도 바다에만 딱 들어가민 내가 왜 이 고생을 헤야 뒈느냐.
@1 으.
#1 생각이.
@1 특이허다, 이 종달린데예?
#1 어. 다른 사름은 혼 망사리 허곡, 혼 망사리 헤도 나는 걸 부럽지 않아.
@1 아.
#1 난 적어도 좋다, 이거라. 내 몸만 건강허민 좋은[존]데. 나는 이런 직업을 안 허겟다.

@1 으.

#1 이디 살아도. 오십 년을 살아도 지금도 마찬가지라. 고동을 많이 잡고 천초를 많이 헤도 부릅지도 안 허고이. 바당에만 들어가면 왜 내가 이 고셍을 헤야 뒈냐.

@1 어.

#1 숨차면서 이거 무슨 짓이냐.

@1 바당이 안 테웟구나게.

#1 어.

@1 (웃음).

#1 나는 밧디일은 헤 먹어서.

@2 으.

#1 농사를 지면서 말이지 내가 살지, 절대. 경헹 바다를 싫어.

@1 예.

#1 경헌디 이 아주버님이 노래를 딱 부를 땐 어떤 노래를 불럿느냐 허면 그걸 기억을 허여. 어떵 허냐 허면 성산서. (잡담) 이제 성산서 오는 애길랑 할망칩 알레서 소멸시겨 줍서. 딱 막 오래가.

@1 으.

#1 딱 나가 기억에.

#3 원 민요란 민요, 가요라민 가요.

#1 그 노래가예, 난.

#3 엄청.

#1 난 아주버님이 이걸 알아. 이건 아주버님 냥으로 지와낸 거야. 건 뭐 책에서 낸 것도 아니고.

@1 으.

#1 우리 밧, 아주버님 알지예? 바다에서 우리가 자무질헤서 무사히 우리가 으, 잘 으, 해초도 건져 오십시오, 바로 이 노래라.

@1 으.

#1 성산포서 우는 애길랑 할망칩으로 막아줍서. 이 노래가 내가 그것에 아이고.

#3 반헷구나.

#1 어.

@1 으.

#1 다른 건 노래에 뭐 이렇게, 이렇게 불어도 뒈는데.

@1 으.

#3 아무튼 싸가지 엇이 잘헤여. (모두 웃음)

#1 다른 사름은 경허여.

@1 아까 매형이렌 헨게 매형한테 경 골아도 뒈는 거우꽈? 어떵.

#3 아 주끗듸 매형이엔 허니까.

@1 어.

#2 그래서, 그래서.

#1 어.

@1 예.

#2 그래서, 그래서 이 누님을.

#1 어.
#2 나가 낚아챈 게 그거 아니냐.
#1 아.
@1 아.
#2 그래서 아니, 처음에 이제 에, 약혼을.
#1 이제 다 어둑엄직허다.
#2 헷어요.
@1 예.
#2 약혼을 헷는데.
#1 에구, 어멍도 노래 잘 불러.
#2 아, 이제.
#1 두 부부가 그냥 ** 헤비어.
#2 나가 워낙 집안이 우리 집이 너무 가난헤 가지고.
@1 예, 예, 예.
#1 에구, 가난도. 가난도, 가난도.
#2 옛날엔 정말로 누구 사돈 딸 주렌 허면은 주지 안헐 정도로.
#1 에구, 에구.
#2 그래 가지고 아, 결혼을 못 허켄 허잖아.
#1 어.
@1 으, 약혼헤신디.
#2 그래 가지고 그 바로 뒤에 이제 저 누게 채칩이.
#1 으.
#2 바로 집 뒤에 가.
#1 어. ○○○ 씨.
#2 아니 저 그 어이구, 남자 이름 잊어벳구나, 죽어 비어난에.
#1 채칩이난게.
#2 아니게.
#3 요디 살 때 아니?
#2 아니. 두문포 그 저 처가칩 바로 두에게.
#1 으. 뭣옌 헤신디 굴읍서. 어영 굴아 붑서.
#2 겨니까 이제 그, 그 거기 가서 거기 잔치가 잇엇어.
#1 어, 잔치.
#2 잔치가 잇엇는데 살장구 둘러메고 인제 노는데.
#1 아이구, 뛰어난 사름이주.
#2 나가 겡 결혼 못 허켄 허니까.
#1 (웃음).
#2 환장헌 소리가 나올 거 아니?
#5 (웃음)
#2 그때는 바로.
#5 그렇지.
#1 그때도게 에이구.

#2 그래서 노래를 그냥 장구 치면서 나가곡.
#1 막 때리고.
#2 노래를 그냥 막.
#1 술 흔 잔 걸쳐놓고 뭐.
#2 불러대는데.
#1 어느 놈 이제 들어오라.
#2 동넷 사람들 전부 이제.
#1 다 모여 놓고.
#2 가 가지고. 왜냐면은 저 딸 주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 장인 어른신디 말허는 거지, 지금.
@1 예, 예.
#2 딸을 안 주면은 어유, 저 사름 저, 저 병이 나겟다.
#1 아우. (모두 웃음)
#2 병이 나겟다.
#1 상사병 나겟다 헤실 테주게.
#2 노래허는 거 보니깐 이거.
@1 으.
#1 아이구. 노래.
#2 줘야지.
@1 으.
#2 딸 안 줭은 안 뒈켄.
#1 천생인?라 타고난 팔저.
#2 그런 소문이 인제 자자헷어요.
@1 처용가여.
#2 그래서 인제 그래서 인제는.
#1 타고난 팔저, 타고난 팔저.
#2 결혼 그대로 헐 걸로 또 헷어요.
#1 아이고, 재미진 말.
@1 예.
#2 겨니까 그 노래 하나로 헤서 나가 결혼을 헤서 이젠 정말.
#1 반허연, 반허연.
@1 예.
#2 집잇사름 돌아가셧지만은.
#3 게난 싸가지 엇인 집안이 맞네예.(모두 웃음).
#1 싸가지 엇인 거, 에 일등이주.
@1 그치룩 허영은에, 어디 허당 이까지 와불엇수과?
#3 (웃음).

금기

@1 곡궁배, 아까 곡궁배 허당은에 곡궁배 헐 때 이제 음식 얘기헷는데 뭐 금기허는 이런 것도 이십니까? 뭐 허지 말라. 아까 그 숫 멘덴 헷잖아예?
#1 어.

#5 예.
#3 그거 아까 얘기, 말허듯이 뭐.
#1 금지주게, 금지.
@1 으.
#3 마누라허고 잠자리도 말고.
#1 금지주, 정성.
#3 우선은 그런 거 어디서 뱀 죽은 걸 봐도 안 헤요.
#5 목욕재개허고.
#3 아무튼 뭐 불길헌 거 보믄 안 뒈요. 뭐.
#5 피, 피 ?뜬 거.
#3 무조건 연기여.
#5 피도 보면은 거 뭐, 제, 제관에서 빼 불지 안헤수과?
#1 어, 빼불어.
#2 제관, 제관.
#5 거 아예. 자격이 없어.
#1 죽은 것도 보아서는 안 뒌다.
#5 그런 사람은 아예.
@1 예.
#3 안 뒌다 이거.
#1 막 그냥 정성은 정성. 거 막 뭐, 증싱 죽어도 안 뒌다. 경헹 다 가두왕덜게 영 살앗주.
@1 예.
#1 가두왕덜.
@1 가두왕덜.
#1 일주일간.
#3 한 집에서 뭐 어디 바깟듸 나오지도 못허게.
#1 나오지 못허게 가두와서 이제.
#3 거기서 먹고 자고.
#1 예, 그런 걸로 헷덴 허는 거주.
#3 그자 누게 말로 옛날에 화토나 치곡.
@1 으.
#3 나오지도 못허여.
#1 우린 본 건 엇어도 그렇게 정성헷다. (잡음)

멩질 옷 준비
@2 또 긑으쿠다예?
#1 으.
@2 아까 정월 멩질 헐 때.
#1 으.
@2 허기 전이 아기덜 옷들도 헤줘야 뒐 거 아니예?
#1 하이고 사사헐 거.
@2 멩질 허젠 허민.

#1 사사주게, 그날 어디 저 친촉집이.

@2 음.

#1 잔, 저 멩질 먹으레 가젠 허민 게도 깨끗허게 신발도 하나 사곡, 이. 옷도 그냥 저 좋나 궂으나 ᄒᆞ나 상 입져근엥이. 얼굴 시쳐근엥 느네 멩질 먹으레 갓당 오라.

@2 (웃음)

#1 게곡 올 때랑 떡도 받앙 오라.

@2 으. (모두 웃음) 게, 애기아방 옷도 옛날에는 막 두루마기영 이런 것도 헹 입져나지 안헤수과?

#1 두루막은 아녀고이, 옛날은 그 우리는 우리 시절은 우리가 어령 ᄒᆞᆫ 열다섯쯤은 그냥 저고리 치마 입어낫주게.

@2 음.

#1 아랜 껌은치마. 어깨다리 치곡.

@2 음, 음.

#1 느네 몰를 거여마는. 머리 단발머리 영헹 뒤에 영허곡.

@2 응.

#1 이제 흰저고리나 그때는 벨롱겡이, 노랑저구리에 빨간댕기 이신 노꼼이. 그렇게 헤산디. 우리가 이제 결혼헐 때까지 막 한복으로만 입엇주게이.

@2 음.

#1 한복으로만 입엇는데 우리가 애기를 이제 나면서 자식을 헐 땐이 다 거 샤쓰.

@2 아.

#1 그냥 도꼬리.

@2 으.

#1 그런 거 다 입젼에 보내낫저.

@2 아.

#1 그 저이 젊은 때 그 저 뭐 한복 ᄀᆞ튼 거 만들어보진 안허고.

@2 아.

#1 그냥 세화장에 강.

@2 음.

#1 세화장에도 가젠 허민, 야야, 돈 이시냐? 걸엉 세벽이 걸엉.

@2 음.

#1 애기 옷 사레 가근에 ᄒᆞ루 ᄌᆞ물앙 걸엉. 우리 뭐 정심을 먹느냐? 국수, 그때도 육지 사름덜 막 장서헤낫주게.

@2 음.

#1 육지 사름덜, 국수장서 막.

@2 예.

#1 거적이 쳐근에게 옛날게.

@2 어.

#1 막 거적이 쳐근에 막 못살아부난. 거기 들어강 국수도 하나 못 사먹곡이. 빈입에 강 아침이 ᄒᆞᆫ 일곱 시에 걸엉 강 ᄒᆞᆫ 열두 시꺼지 들어와이.

@2 으.

#1 경허멍 살아 왓저게.

@2 음. 게 옛날 저 삼춘 어렷을 때는 어머니가 옷도 다 만들어주고 경헤낫을 거 아니예?

#1 옷덜 저고리들, 저고리들 만들엉.

@2 으.

#1 저구리 만들고 치메 만들엉.

@2 으.

#1 이제 그거 허곡. 샤쓰 ᄀᆞ뜬 거 헤당 입곡이. 그추룩 헤낫저게.

@2 아, 남자 어른덜 옷은 막 도복이나 이런 거, 제보내, 제보낼 때, 제볼 때 입을 것들 것도 미리.

#1 어, 그땐 한복[한뽁] 남자 한복덜[한뽁덜]이 그거 헷다근엥이 저 입어근엥이 후루메.

@2 응, 후루메.

#1 후루메이, 후루메, 흰후루메민 흰후루메.

@2 으.

#1 팔월[팔뤌]엔 흰후루메.

@2 아.

#1 또 이제 멩질 땐 검은 후루메. 그 철에 딸랑 그추룩 헤근에.

@2 아, 천이 다른 거우꽈?

#1 천은 그땐 그 당시엔.

@2 멩지?

#1 멩지 아니고 광목[강목], 광목.

@2 아, 광목으로?

#1 광목, 광목후루메 입은 사름도 잇곡, 멩지후루메 입은 사름도 잇곡.

@2 아.

#1 건 이제게 자기네 가정 따라서.

@2 으.

#1 딸덜토 육지 뎅기멍 잘 헤온 집은 그렇게 입곡, 못사는 사름덜은 그저 광목후루메. 이제 대도룽, 대도룽.

@2 대도룽은 어떵헌 거꽈?

#1 대두룽은 나이롱 반 허꺼진.

@2 아.

#1 그 미녕에다가 광목에다가 조금 이제 질기게.

@2 으.

#1 그런 거 허연 입어난 거주게, 옛날.

@2 음.

#1 그런 거 헹 후루메 만들앙 멧 년 놧당.

@2 응.

#1 그땐 뽈앙 푸다시 헤영 방멩이로 두두령.

@2 게난.

#1 그추룩 헤영 다듬앙.

@2 허.

#1 윤디로. 윤디 아닌 이 그 뭐 잇지 않으냐? 그거.

@2 다루웨?

#1 다루웨 불 살랑 작작 영 마주 심엉.
@2 으.
#1 그 형제간.
@2 잘 알암신게게 삼춘예? (웃음)
#1 영 헤근에 직, 직, 직, 직.
@2 어렷을 때 경 헤나수과?
#1 어. 어린 때, 우리 옷도 광목옷이민이 다 다령. 꾸불꾸불허주게 입으민이.
@2 음.
#1 부모덜이 그렇게 헤 왓더라고.
@2 으.
#1 게믄 우리도 어릴 때 쩨끄만헤도 거 다린다는 게.
@2 아.
#1 막 허곡. 팔월[팔뤌] 멩질 나민 광목, 그거 저고리 시커멍허지 안허냐게?
@2 예.
#1 쏢아. 그 쏢는 것도 어떵 쏢은 줄 알암댜?
@2 무신걸로?
#1 비누가 엇어.
@2 응.
#1 그거 저 이제 ᄀᆞ뜨민 조옌 헌 나무 잇저. 조, 조.
@2 으, 조.
#1 그 저 차조 ᄀᆞ뜬 거, 무사 좁쌀. 그 나무.
@2 예, 예.
@3 조낭?
#1 조낭, 그거 솔앙.
@ 아.
#1 그거 솔아근에 불치가 잇잖아?
@2 예.
#1 게믄 그걸 이제 물에 놩 막 허껑, 허꺼근에 이제 그거 빠뒁, 그것에 숣으민 비누가.
@3 하양허게.
#1 비누시리 뒈어근에이. 숣당 어디 갓당 무시거 허레 ᄂᆞ물 허레 국 끌렴젠 우영에 갓당 왕 보민 케왕.
@2 헤.
#1 흔번은 오라방 고등학교 뎅길 때주. 것도 우리 누나, 우리 성님 신랑이 하도 못사난, 에고, 야, 저 동승아 이거 너 멩질날 입으라, 아이고 와이샤쓰 하나 헤 왓더라고.
@2 음.
#1 그땐 나가 멧 살이냐믄 열세 설이라이.
@2 예.
#1 게난 이거 보난, 모각지도 누렁허고 깨끗허지 아녀난, 야 이거 쏢앙 오빠 쏢앙, 곧진 안 헤도 이거 옷헤영 영 보난 궂어. 나 눈에도 궂이난 멩질 먹으레 가젠 친촉신디 멩질 먹으레 가젠 허민.
@2 음.

#1 추접허게 헷젠 허카부덴 어릴 때도 어멍네 헤난 거 보멍. 그거 이제 숣지 안헤샤? 겨고 어디 뎅기단 보난 어, 야각지도 다 케와불고, ᄉᆞ미도 다 케와불고.

@1 헤, 아이고.

#1 문딱 헹 영 보난 반착벳기 엇어. 아이고, 어떠믄 좋으코, 오빠신디 아이고 큰일낫저. 이제 학교 갓당 오민 나 죽나. 경허멍 헨 이젠 오랑 저 오랑 곧는 말이, 저 오빠 이 옷을 숣안 곱닥허게 허젠 허당 영 케와 부난 나 오빠 앞이 매 맞을 거라, 허난에, 내불라게 안 받은 걸로 허주.

@3 음.

#1 어떵헐 거고, 경 허멍이.

@2, 3 으.(웃음)

#1 아이고, 경 허멍 헤낫저.

@2 으.

#1 어린 때.

@2 으.

#1 겐디 가정소년으로 살앗기 때문에 그런 건 헤야 뒈여.

@2 (웃음) 예.

#1 원래 헤야 뒈여. 안 헤면은 안 뒈고.

@2 으.

#1 어머니 헤여 왓던 걸 내가 자꾸 보면서.

@2 음.

#1 거난 어머닌 왓단 어머닌 내가 아까도 굴앗주만은 어머니가 이제 떡을 이제 밀ᄀᆞ루 한 뒈허고 쌀 한 뒈 주멍 이거 허여 오렌 허난 그 떡은 어떻게 험이냐?

@2 게난.

#1 부모님 허는 걸 봣거든. 솟뚜껭이에다가.

@2 으.

#1 불에 장작불 떼영.

@2 어.

#1 밀ᄀᆞ루 물안, 그레 지졍이.

@2 으.

#1 영 헹 우리 이제.

@2 빙 지지듯이?

#1 빙 지지듯 지졍. 두껍게도 아녀고 얍게도 아녀고. 조금 뜻뜻뜻허게 헤근에 뒈쌍. 작박 무신 그 뒈쓰는 거 잇더라고.

@2 예, 예.

#1 영 뒈싸근에 바쁠 땐 칼로도 뒈쓰곡. (모두 웃음) 확확 안 허민 카 불카 부덴.

@ 으.

#1 경 헤근에게 이제 부모들 허듯 다 썰어.

@2 음.

#1 것도 써는 것도 질게 이제 떡에다가 질게 올릴 건 질게 끈고.

@2 아.

#1 쩨그만허게 끈을 건 또 반착썩 딱딱딱 끈어근에게 이제 갈라 먹기 좋게, 그렇게 찍고.

@2 으, 거 떡 대신에?

#1 떡 대신에. 그추룩 허곡이. 그 밀ᄀᆞ루로.

@2 으.

#1 이젠 반죽을 헤여. 반죽도 어떻게 허느냐. 어멍 헌 거 봥. 물 하영 놓민 안 뒈고 쪼꼼씩 놓멍.

@2 으.

#1 물도 ᄯᅮᆺ허게 데왕, 것도 생물[쌩물]로 허면은이 딱딱헤영 안 뒈.

@2 예.

#1 멘도롱 ᄯᅮᆺ헤사 것도 홀랑헐 거 아니라.

@2 으.

#1 영 헤근에 영영영영 헤근에 멘들앙 뀌어.

@2 음.

#1 뀌어근에 이제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멘들앙 똑똑 줍앙. 이젠 그놈을 이젠 삶아.

@2 음.

#1 물 팔팔 헌 디 삶앙 건졍 식화[시콰]. 이젠 또 이젠 그렇게 헤서 이놈을 또 이젠. 부모님 헌 것만 본 거라 어릴 때도.

@2 잘 봣저, 잘도예?

#1 어, 잘도 보곡. 빈틈엇이 본 거라, 빈틈엇이.

@2 으.

#1 어멍이영 살앗기 때문에 같이. 육지 강 잇당 오민 그자 어멍이, 이그 나똘 에이고 어떵 살아시게. 이그 나똘 불쌍허다게. 영 허민 그자 바렘만 허멍이. 공분허렌 허민 바둑아 바둑아 천상골로. (모두 웃음) 벵아리, 벵아리 노랑 벵아리.

@2 으.

#1 바로 우리 시절은 그렇게 베웁더라고.

@2 으.

#1 꼬안(?) 대로도 매도 잘 맞곡. 그축 허멍 이제 허난. 그 떡도 헤 오민 그 지름떡도 허민 또 ᄂᆞ물치름 놔 가지고 또 지져 노리룽허게.

@2 음.

#1 지져근에 부뜨지 안허게 지졍 허곡이. 고기는이 그때 화리가 잇어낫저게, 불 담는.

@3 화리, 화리.

@2 예, 예. 화리, 화리.

#1 화리에다가 그렇게 헤서 적쒜 탁 걸쳥 고기 굽곡.

@2 아하.

#1 게난 부모님 허는 대로 허니까 나는 어머니가.

@2 잘도 잘 봣저.

#1 헷단에 육지로 간 거라. 이렇게 너가 제사를. 게난 어머니를 도와준 거주게.

@2 게난.

#1 어머니가 그걸 나가 어멍 못 허쿠다 헤시민 사월ᄁᆞ지 물질허레 가면 사월은 기한이 넘어 벼. 물건ᄀᆞ찌 좀수들이 이제 전도금을 탕 어머니가 전도금을 탕 육지 가게 뒈민 그 에운 사름 데려만 가젠 헤여.

@3 음.

#1 메칠날 작업헐 거니까 육지 가야. 그 사름도 벌어 들여야 뒐 거 아니라?

@2 예, 예.

#1 거난 그때 사월꺼지 잇질 못헤여, 어멍이. 잇엉은.

@2 식게 허젠 허민.

#1 어. 거기서 ᄀᆞ찌 그 사름네영 ᄀᆞ찌 가사 물건을 헐 거라 부난.

@2 음, 음.

#1 게 전도금을 탕 가주게. 전도금을 탕, 이제 그 겨울내낭 거 생활허단 다 먹엉, 갈 때민 밀ᄀᆞ루에다가 쌀 한 뒈 놔뒁 어멍 가 불민 그걸 이제 딱 먹지도 안 헹 놧다가 제사허면서 지름떡 짖곡.

@2 (웃음)

#1 으, 고기 적쒜에다가 부모님 허는 것만. 어릴 때부떠 어릴 때부떠 보아 왓다는 게 내가 그렇게 헌 거라.

@2 음. 이 정월 멩질 땐 여자들이 잘도 바쁘켜예?

#1 바쁘주게, 그땐.

@2 옷도 준비허고, 떡도 헤야 뒈고.

#1 옷도, 으, 옷도 빨아야 뒈고.

@2 콩ᄂᆞ물도 놔야 뒈고.

#1 다듬아야 뒈고. 민나리도 민나리 케레 족족이 뎅겨냐? 제서가 우리 어머니가 제서가 ᄒᆞᆫ 열 번이라.

@2 음.

#1 게민 이젠 뭐이 섣덜엔 어떵 아녀고, 이 섣덜 땐 엇이난. 사월만 나강 삼월엔이 아버지 제사, 뭐 하르버지 제사, 누구 제사 허면은 나신데레, 작은년아 나 딸, 딸이 이제 서이니까. 나가 제일 막내로, 작은년아 논밧디 강 민나리 케엉 오라 허민.

@2 음.

#1 벗도 안 허고 나만, 갈대[깔때]밧디 강. 갈대[깔때]. 그땐 이제 민나리가 ᄒᆞᆫ 이월 땐 요만 썩벳기 아니주게.

@2 음.

#1 삼사월이 뒈사 이만이 커 가지고 케기도 좋은[존] 디.

@2 예.

#1 영 봐레멍 칼 앗앙 강.

@2 음.

#1 조막만이 이제 켕 왕, 그거를 이제 잡, 콩ᄂᆞ물에 ᄀᆞ찌 놩 얼구엉 먹곡.

@2 음.

#1 또 이제 하도 못사니까 그땐 미역을.

@ 예.

#1 미역을 줘야 돈도 잇고 쌀도 뒈는 거라. 엿날.

@2 예. 그땐예?

#1 어. 게민 태풍이 그냥 불어 오면은 그 일월달에 난 메역이 삼월 뒈민 막 올라와.

@2 아.

#1 경허민 이제 구덕에다가 고에기 놓곡 구덕에다가 지어 가지고 이 바다 말앙 저 바다. 물쌀 땐 막 ᄒᆞ루 기냥 세 시간 네 시간 휘젓어 가지고 뎅기멍.

@2 음.
#1 그 미역을 줏는다고.
@2 아.
#1 그거 헤서 주어 가지고 자기 국도 끌여 먹고 팔고.
@2 어, 물속에 안 들어 가도예?
#1 안 들어가도, 그냥 쌩차 바당에 강.
@3 음.
#1 들어온 물건을 나갈 땐 주워[쭈워] 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런 제도 잇어나고. 이상케 살아왓저게.
@2 아니, 잘, 그땐 다 겅헷주마씨게.
#1 에, 에.
@2 이런 정월 멩질 그 헐 때 정월 그 섣덜그뭄날 좀자민 뭐 눈썹이.
#1 머리가 흰다.
@2 아, 머리가 흰다? 눈썹 흰다 아니고?
#1 아니, 머리 흰다.
@2 머리 흰다?
#1 눈썹 흰다 하더라고.
@2 예. 겡 잠 못 자게 막예?
#1 어. 눔 헌 디는 자지 말라, 자지 말라 허고, 이제 그 우리는 그렇게 허더라고. 할머니 때 곧는 말이.
@2 음.
#1 섣덜그뭄이민 잡신을 들어온다. 체를 걸라. 체.
@2 체?
#1 ᄀᆞ는체.
@2 어, 어.
@4 아.
@2 어디 걸어?
#1 문전에 걸라.
@2 아하.
#1 그런 법도 잇엇더라고.
@2 거믄 그거 걸민 잡신이 안 들어와?
#1 그거 걸민 잡신 안 들어온덴.
@2 아.
#1 귀신이 안 들어온덴 망을 쳣다고.
@1 아.
#1 그런 것도 잇어낫더라고. 우린, 겡 우린 걸어낫저.
@4 음.
@2 체를예?
#1 체로. 거 동글랑헌 체 무사 쌀 영 사각지는 거난, 것도 좀진체.
@2 좀진체로 얼멩이 말고.
#1 으, 그거 체도 ᄋᆞ라 가지여야.

@2 예, 예,
#1 보리쏠 걸르는 체, 훍은체.
@2 으.
#1 또 하난 무신 무신것고? 그 대, 나무로 헌덴 그, 저 그 대로 짠 거 얼멩이.
@2 얼멩이.
#1 얼멩이. 뭐 으, 대체.
@2 으.
#1 ᄀᆞ는체.
@2 으.
#1 중체.
@2 근데 좀진체로 이디 문전에 걸렌 헤엇다예?
#1 문전에 걸렌. 으, 할머닌 건 땐 우리 할머니가 그 당시엔 우리가 어릴 땐 멧 년 하면 칠십 쯤 뒌 할머니드라고.
@2 음.
#1 경허난에 그 할머니가 궂인 거 들어오지 못허게 대문 앞이 그 체를 걸라.
@2 아.
#1 그래서 우리 걸어난 베가 잇어.
@2 음.
#1 자꾸 걸진 아녀고.
@2 예.
#1 그렇게 헤낫저.
@4 예, 섣덜그뭄날예?
#1 섣덜그뭄날.
@2 어.
#1 그런 방법이 잇더라고.
@2 게난예. 그런 방법들은 또 엇수과? 다른 건?
#1 아이고, 그런 건.
@2 생각나는 건 엇어?
#1 그런 건 엇어. 그추룩 헌 거는.
@2 아까 그 모둠떡허는 거추룩.
#1 으.
@2 그 농사, 올헨 농사 잘 뒈켜 막 영허는 거 점치는 거, 뭐 엇수가?
#1 아이고, 저이.
@2 뭐 보리도 영 뽑앙 보고.
#1 그건 어떻게 허느냐 허면이. 우리가 저 부모님 영 보난 가만히 보니까 농사를 지레 가.
@2 음.
#1 농사를 낼을 질 거라이. 질 거면 오늘은 이제 농사를 지레 가는 날이야.
@2 음.
#1 가만이 보니까 어멍이 밥을 헤서, 밥을 허곡 고길 허고 물허고. 이 고팡이라는 이름이 잇어게.
@2 음.

#1 엿날 무사게 상방에 너(?) 고팡 엇샤게?
@2 예. 예
#1 그런 데다 밥을 올리더라고.
@2 아.
#1 밥을 올려. 나는 웨 밥을 올리는가, 에 어릴 때도 나는이 어려도이 그 저 관심이 많더라고.
@2 게난 어머니 허는 거 잘 봐신게예?
#1 어, 어머니 허는 거 시장 보젠 허믄 이제 ᄀᆞ뜨민 헷든 말앗든 영 헐 건디.
@2 맞아.
#1 어머니가 나를 가져다가 메껴두고 육지를 가 부니까.
@2 으.
#1 어머니 허는 행세를 나가 허는 거야.
@2 아.
#1 알고 보면은.
@2 으.
#1 누가 뭐 어멍이 밥이 올렷는지 뭣이 올렷는지 몰라이.
@2 맞아.
#1 겐디 밥을 올렷더라고. 웨 밥을 올렷는가 헨에 나도 또 올려.
@2 그게 고팡젠가?
#1 고팡젠가 구신인가 몰라도.
@4 음.
@2 그거 언제 올리는 거꽈?
#1 가기 저, 이제 정심 때 나민 몰덜이영 뭐영 밧 갈레 감저[쩌].
@2 으.
#1 그 사름을 빌어 가지고 농사지레 감젠[쩬] 허면은 밥을 헤영 정심을 먹어야 뒐 거 아니?
@2 으.
#1 정심 때 올리더라고. 혼 아홉 시, 열 시.
@2 맨날 맨날 올려?
#1 아니, 그 가는 날만.
@2 아, 일허레 가는 날만.
#1 음, 가는 날만.
@2 아.
#1 올리더라고.
@2 밥만? 국은 안 허고?
#1 국은 아녀고. 술하고.
@2 술하고.
#1 제숙, 물른제숙 ᄒᆞ나.
@2 물른제숙 하나 하고.
#1 것도 큰 이제 항에게. 젤 으뜸 뒌 항 우에다가.
@2 항 우에다?
#1 어, 그렇게 하더라고 제가. 것이 바로 한아름(?) 제지.

@2 예, 예, 예.
#1 그렇게 허는 법을 나가 봣어.
@2 음.
#1 게난 나도 이제, 아고 그러는가 그러는가 헌디. 씨집은 와서 안 허고. 내가 사는 건 아녀고, 어머니 살아올 때까진 헷어.
@2 아.
#1 거기서.
@2 어머니 대신에.
#1 어머니 대신에 거 헷다. 꼭 그 조 불리레 가는 날.
@4 음.
@2 아, 이거 조 불리레 가는 날에 허는 거로구나.
#1 조, 조, 조. 옛날 조허고 보리 헷잖아?
@2 예, 예, 예.
#1 그때만 허는 거.
@2 아, 맨날 허는 거 아니고예?
#1 아니, 아니. 조 불리레 가는 날, 이제 조를 잘 뒈 주십시오 헴신디.
@2 아, 경헹은에 고팡에서예?
#1 으, 그런 제가 잇어낫어, 나가. 그런 걸 헤낫다니까. 나 손으로 헤낫다니까.
@2 아하.
#1 으, 그런 거 잇어. 게난 다른 사름덜은 그렇게 헷는지 안 헷는지 몰라도.
@2 음.
#1 으, 나는 이제 그렇게 헤낫다는 걸 굴아 주는 거지.
@2 음, 음. 게난, 뭐 보리 뽑앙 영 뿌리가 뭐 세 개민 뭐 어떵 허고, 네 개민 어떵 허고, 영 허는 점도 쳐낫덴 굴읍디다, 사름덜. 그런 건 안 헤 보고?
#1 어떵어떵 헌 거?
@2 보리, 강 뽑아 보민.
#1 어, 어.
@2 뿌리가.
#1 으.
@2 멧 가닥이여, 영 헤근에 올힌 뭐 뭐 운 좋으켜 영 허고, 그다음 뭐 저 무수 놈삐.
#1 음.
@2 영 꺼꾸로 헤근에 실 영 메달아근에 뭐 그런 것도 헤낫저, 막 경 헨게마는 그런 건 안 헤 납디가?
#1 아니, 그런 건 엇곡. 우리 시절은 우리 허는 건, 몰라 다른 집인 어떵 헌 지 그런 건 안 헤나곡.
@2 음.
#1 나가 헷던 것만 굴아주는 거야.
@2 예, 예. 맞아마씨.
#1 으, 나가 헷던 것만 굴아 주는 거주.

당

@2 게난 삼춘은 당에 안 뎅겨 봅디가?

#1 아이고, 무사 안 뎅겨게.

@2 언제, 언제 주로 가는 거우꽈, 당에는?

#1 당에게 가근엥게, 혼 일렛날도 가고이. 일렛날도.

@2 응, 일렛날.

#1 사람이, 사람이 많이 가면은 그 점치는 것이 오래주게이.

@2 음.

#1 게민 ᄒᆞ쏠 한걸헌 날.

@2 으.

#1 잡아근에 어느 때 이거 사름 앞이 들어보주게. 어느 때 끗낫젠 험이니? 멧 사름이나 가서니?

@2 으.

#1 멧 사람 간에 오늘은 혼 삼십 명, 오십 명 간 다 헹 갓저, 에유 게민 낼은 나도 가켜 헹 강은에 한걸헤여이.

@2 으.

#1 가믄 곧 곧 헹 와이.

@2 으.

#1 게민 그축 헤근에 가민 떡헹 다 앗앙 가주, 곳곳이.

@2 으.

#1 제숙 두 개 굽곡, 과일 서너, 네 개 놓곡 밥허고 숟가락 세 개민 세 개를 꽂곡, 이제 촛불 허곡 소짓종이 허곡. 또 광목, 광목 ᄀᆞ튼 거 헹 허면, 광목은 가면 올리곡.

@2 으.

#1 이 소지는 술곡.

조왕제

@2 으.

#1 밥은 올렷다가 이제 제 지내나민 가졍 갑서 허민 가졍 오곡. 돈 놓면서 제비쏠도 받주게. 그, 심방덜이. 제비쏠 뽑앙 궂이쿠다, 좋쿠다. 애기마다 다 차 이시민 차 이름 골앙 줍으멍 이제 좋수다 궂수다 허곡. 또 그 중에도 어느 애긴 궂이쿠다 어느 애긴 좋쿠다 허민.

@2 으.

#1 아유 게민 집이서 조왕제, 조왕제라는 이름이라이.

@2 으, 으, 으.

#1 정월둘이나 이월둘 나거들랑 ᄒᆞᆫ번 집이서 제 지내, 문전제 지냅서. 거민 그 말 들엉 왓다근에 이젠, 하유 헤영 오민 궂덴 허민 이건 ᄆᆞ음을 못 놓는 거라.

@2 맞아, 맞아.

@4 음.

#1 가족들이 건강헤야 뒐 건디, 아이고 어떵 허민 좋으코? 애기들은 오망오망. 학교 가는 놈, 중학교 가는 놈, 국민학교 뎅기는 놈, 아방 배에 가는 놈. 이거 어떵 허민 좋으코. 이젠 또 그걸 이젠 마련허젠 허민 심방 돈도.

@2 음.

#1 으, 마련헤야지.

@2 맞아.
#1 떡 헐 것도 허지. 준비가 하주게.
@2 음, 음.
#1 종이여, 소줏종이여, 무신 뭐 종이여. 제숙이여.
@2 맞아마씨, 맞아마씨.
#1 과일이여 곳곳이 헤영 콩ᄂᆞ물이여. 그 사름덜 오민 심방 오라근에 먹을 것도.
@2 으.
#1 그날 정심이라도 거 헤나민 먹을 거라도 허영 출리젠 허민 유달허게시리 뭐 바당에 강은 소라 헌 거 숣앙.
@2 음.
#1 만드나 경 아녕 그 사름네 밥 먹엉 갈 거 만들고. 그것도 술이여, 초여, 뭐여 막 그축허여 와근에 그 사름덜 왕, 아유 그 집 간 보난 이제 이상허게 헷드라 그런 말 안 듣젠.
@2 으.
#1 막 돈 엇인 돈 구헤다근에 거 허멍 그축헨.
@2 일월달에 허는 거꽈? 그거 정월달에?
#1 정월 보름 안네도 허곡.
@2 으.
#1 그뭄에도 허곡.
@2 아.
#1 경 아녀민 삼, 이월은 궂인ᄃᆞᆯ이엔 허영 안 허민 삼월낭.
@2 삼월에도 허곡?
#1 삼월낭에도 허곡, 오월 허곡. 우리 경허멍 헷저게 여기.
@2 게난 그거 조왕제렌 굴읍니까?
#1 조왕제[쩨]
@2 아.
#1 조왕대신.
@2 조왕대신?
#1 으. 그 문전대신. 경허멍 다 올린다게.
@2 아.
#1 올리고, 안칠성, 밧칠성.
@2 으, 그것도 헤낫수과?
#1 어.
@2 어, 집이서?
#1 집이서.
@2, 4 음.
#1 그대로 거느려, 그 사름덜이.
@2, 4 음.
#1 이제 그 음식을 출리잖아?
@2 예.
#1 음식을 상에다가 출리면 이제 솟 잇는 디 메.
@2 음.

#1 메, 메. 국은 아녀고.
@2 응.
#1 메허곡 제숙허곡 과일, 계란이.
@2 으.
#1 그렇게 헹 물. 물 헤영 그레 허곡. 또 안네.
@2 으.
#1 안네라는 건 뭐냐 허면은 이제 그 고팡에.
@2 예.
@4 음.
#1 이제 만약에 신 잇다곡, 이제 올 금년 농사 잘 뒈엉 헛뒈게 농사짓지 말앙 제라허게 먹고 살게끔 헤줍서이.
@2, 4 음.
#1 그런 걸로 이제.
@4 안네.
#1 안네 놓고. 문전은 먹고 살젠 허민 헛말, 헛말 허지 말앙.
@2, 4 음.
#1 곶인말로 잘 봐 줍서.
@2 음.
#1 겨고 또 문전은 가멍들멍 허는 거 조심허게시리 헤 줍서.
@2 예.
#1 그축헤영 허는 거게.
@2 음. 안네는 상을 저기 조왕에나 고팡에 강 출리는 거꽈?
#1 아니, 베낏디서
@2 어디, 어디 출립니까?
@4 아까 문전이렌.
#1 문전, 문전 바위. 문전 뚜루, 고팡 뚜루, 조왕 뚜루 헌 차반지에.
@2 아, 차반지에?
#1 차반지에 똑똑 놔근엥.
@2 으.
#1 이제.
@2 건 큰상 옆이?
#1 아니, 큰상은 딱하게 찰리고.
@2 으.
#1 이제 그 큰상 ᄌᆞ끗디 문전으로 흔디 끼고.
@2 으.
#1 이제 또 조왕은 싱크대 에엠에 바로.
@2 씽크대 에엠에.
#1 젯자리 페왕.
@2 예.
#1 그거 헤영 촛불 싸곡. 거 간 디마다 촛불 싸는 거라.
@2 아, 그게 조왕예, 조왕에 올리는 거고.

#1 조왕대신 앞이 허는 거주게.

@2 으.

#1 게고 안칠성 밧칠성 허는 식으로 영 허곡. 애기 날 때 애기들 조망조망헐 땐 애기 삼승할망.

@2 예. 할망상예?

#1 상, 상 할망 삼승할망상, 그거 거 허곡 경 허는 거.

@2 음.

#1 그추룩 허멍 경 걸 시집가도 다 헷다니까.

@2 아하.

#1 스물일곱에 시집간 식게 허멍 다. 시집이 강.

@2 어.

#1 게난이 걸림페 엇이 헌 거라. 나가 착착착착 제서도 잘허곡.

@2 음.

#1 그렇게 헤서 인생을 살아온 거라. (웃음)

@2 누게 ᄀᆞᆯ아 주지 안헤도.

#1 ᄀᆞᆯ아 주지 안헤도 어릴 때에 부모님 앞이 그 배운 걸 가져다가 시집와도 놈 앞이 ᄀᆞᆯ아 주지도 아녀고, 이녁대로 착착착착 헤 가는 거라.

@2 음.

#1 그렇게 헤.

@2 칠성제는 어디서 지내는 거꽈?

#1 칠성젠 뭐라?

@2 아까 안칠성, 밧칠성.

#1 그디선이 할망들이 영영영허멍 영영영영허멍 올 금년 영 무시거 헤여 줍서, 어떵 헤여 줍서.

@2 으, 상을 따로 안 출려? 아까 차반지.

#1 차반지에.

@2 그 차반지에 허민 어디 갖다 놔?

#1 바로 그 저 고팡짝더레게.

@2 아, 고팡짝더레.

#1 게믄 엿날은이 어떵 허냐면이 내가 완 보니까.

@2 음.

#1 우리 집은 친정은 그렇지 않은디?

@2 음.

#1 시집인 완 보니까 눌에다가 조져. 웨 놀레라는 거 몰라? 쉐 무껑.

@2 음.

#1 애껭 그레 놔 가지고 집구석에 놔 가지고 놀레ᄀᆞ치.

@2 ** ᄀᆞ치룩?

#1 돌 질둘랏다고. 그디 가민 밧칠성 안칠성 헤난 그 농사짓는 할망이 그디 앚앗다고, 그디 강 헤낭 뭘 제헤난 거 그레 놔.

@2 아, 우영에?

#1 우엉에. 우엉 혼짝 구석에.

@2 아.

#1 우리는 친정에선 그런 거 엇엇는데.

@2 시댁에?

#1 씨집인 간 보난 그런 거 잇드라고.

@2 아.

#1 게민 씨아버지가 이제 허단 데껴부난, 가 부니까.

@1 으.

#1 이제 우린 뭐 저 집 ᄒᆞ나 헤 놔둬 가 부니까. 아, 이추룩 헐 때 영 헤둬 허는 거구나 허민 (전화 소리) 안칠성 밧칠성 헌 그, 그 귀신이주, 하나는 귀신이주게.

@2 음.

#1 우리가 생각헐 땐. 그디 가서 음식 퍼다당 그레 부수고.

@2 음, 헤낫구나예?

#1 헤낫어, 헤낫어.

@2 어.

#1 헤난이 우리가 이젠 집을 그 집을 팔아두고 이젠 딴 디 이동헷거든.

@2 음.

#1 씨아버지 물려준 집이난 막 초가집, 막, 막 어렵게 어렵게 살아 부난. 그냥 애기 나멍 돈 엇지, 집도 허물지, 비가 내려서 새도 못 헤오지 허난에. 아이고, 씨아버지영 어떵 살단 보난에 사이가 안 좋안에 에이, 떠나겟다 헨 베낏디 따로 나완.

@2 음.

#1 이제 스라브 짓엇젠 살암저게. 경 허난 그 눌도 다 내 불곡.

@2 음.

#1 게난 간 사름은 또 어떻게 헷는지 몰라도. 그렇게 제주도 풍십이 그거주게.

@2 그거는 언제 일월달에, 이월달에 언제 허는 거 잇수과?

#1 그 뭐?

@2 그 아까 그 안칠성, 밧칠성.

#1 안칠성 밧칠성 헌 땐 그날 생기 받아근에 그날 저 이제 그 뭐헌 날 조왕제 허켄 허는 날 받앙 허는 거.

@ 일월에? 정월.

#1 일월덜, 삼월덜에도 허곡.

@2 아, 일월덜에도 허곡, 삼월덜에도 허곡.

#1 어. 건 이녁이 이 물자를 맞촤주는 데꺼지. 맞촤질 때 구헤 가지고 심방신디 곧주게.

@2 예.

#1 삼춘 어느 때 헤 줄 거? 허민 느 어느 때 헐티? 생길 맞추아, 생길 맞추아.

@2 생기 맞추는 게, 태어난 난 날 난 시 그거?

#1 생기는 느량 아덜 멧 설.

@2 어.

#1 메칠날 난 거, 아방 멧 설, 메칠날. 당에도 강 다 그 숫자 다 적엉 가.

@2 예.

#1 게민 심방이 내가 말헐 땐 이 사람이 아덜은 멧 설이고 어멍은 멧 설이우다.

@2 (웃음) 심방추룩 허멘.

#1 어, 경 허난 잘 보아 줍서. 오늘이나 내일.
@2 아이고, 아이고 이거 헤난 삼춘 닮다 이거.
#1 아이고, 나이 심방 소리도 잘헤여.
@4 어, 어.
#1 노래도 잘 부른다. (생략)

보리밟기

@2 삼춘 정월, 정월에 보리밧도 볼라낫수과?
#1 어. 볼라.
@2 건 어떵 헨 볼르는 것과?
#1 건 밧을 튼튼허렌.
@2 으.
#1 보리 여무렌. 어멍 따라강 볼랏주게.
@2 그 뭐 다른 사람들 빌어당 허진 안허고?
#1 안 허고. 밧이 쩨끄만헤 부난.
@2 음.
#1 어머니가 보리를 이제, 이제 육지 가 불민 어머니가 보리 갈레 못 와.
@2 아.
#1 이 구월, 시월꺼지 물질허당.
@2 음.
#1 어머니가 우리영 산 지가 잘하면은 훈 석 덜 넉 덜 살아민 그냥 육지로 사십 년을 다녀서, 사십 년. 어멍이.
@4 물질허레?
#1 물질허레. 게난 그 물질헤사 생계 유지 헐라고. 아덜 공부 시켜. 재산은 엇고이. 제사 멩질 열 번.
@2 아이고.
#1 아들 공부 시키저, 먹지 입 먹지. 헤, 그레 밧은 쭸끄만한 밧덜 그냥 헤 가지고 우리신디 농사지렌 내 불고. 농사지어 나뒁 갈 때도 잇곡, 안 갈 때도 잇곡 허면은 이제 일월들 나면 육지 가게 뒈민 보리밧 볼르레 가낫주게.
@2 음, 음, 음.
#1 보리밧 볼르레 가난에 이제 보린 젠젠하고 일월덜 보리 줄주게.
@2 예.
#1 줄고 거난 삼월 이월덜에 간 거라. 보리 볼르레. 보리가 늦은 거라.
@2 으.
#1 너무 ᄒᆞ쏠 큰 놈 작은 놈, 큰 놈 작은 놈.
@2 어.
#1 일월덜엔 쭉허게 골른디, 이놈이 일 한 덜 뒈가민 보리가 요만이 컷당 족앗닥족앗닥 밧이 얼룩덜룩헤서.
@2 예.
#1 비료 엇어서.
@2 으.

#1 비료 살 돈 없어서 이제 보리가 정월둘에 비료를 뿌려야 뒈어.

@2 아.

#1 원래 보리밧은. 경헤야 이제 성장헐 건디. 어머니가 돈이 없어서 안 뿌리난 보리가 하난 크고, 하난 족고, 하난 족고. 쩨깐헐 때 어멍 따라강. 어머니, 으, 올힌 무사 보리 영 작앗수과? 허난, 에이고 비료 안 줘 부난 줄앗주게. 에이고, 어머니 우리 밥 한때 못 먹어도 비료 사당 뿌려야 뒐 거 아니?

@2 (웃음)

#1 우리 어머니가이 아이고, 나보단 낫다.

@2, 4 (웃음)

#1 이 쪼끄만헌 것이.

@2 게난 밥이 더 좋지. 쪼끄만헌 땐예?

#1 어. 졸졸졸졸 일고ᄋᆞ덥 설 춪아간에. ᄀᆞ치 똘랑 간디 보리가 큰 거 작은 거, 게난 그것이 얼마나 기억력이 시니이? 나가이 어릴 때.

@3 게난.

#1 보리가 하나 족고 하나 크고 ᄒᆞ난 땅속에도 올라오지 아녀고.

@2 예.

#1 하난 쪼짝, 하난 허고, 드물고, 밧이 밧 아니라이. 검질은 잇고. 어머니 무사 영 보리 ᄏᆞ찡 아년?

@2 음.

#1 하난 크곡 하난 족고. 에이구야 비료 엇언에이.

@2 음.

#1 걸름도 졸바로 아녕 가난. 야 비료 엇언에 이거 아니가? 어머니, 우리 먹엉 살젠 허민 ᄒᆞᆫ땐 못 먹어도 비룐 쳐야 뒐 거 아니?

@2 으.

#1 게난 어멍이 그 말 들엉 왕 놈신더데 야아, 나 이상헌 말 들엇저. (모두 웃음) 친구덜신디 ᄌᆞ꼿디 동녯 할망덜 그디 하낫주게. 둘망둘망덜 막 이제 닮지 아녕 막 졸졸졸졸 할망덜 늙어가는 할망덜이 빈네 쪄근에 빈네 쫄라메곡 갈베옷 입은 것광. 한*** 요샌 거지주게.

@2 (웃음)

#1 할망덜이 말젯 허리 준둥에나 몸빼 입고 우에 감옷 입곡, 허리 준둥에 낭 그자 이젠 보민이 에휴, 너미 불쌍헤. 할망덜. 그렇게 살아왓구나 헌디.

@2 음.

#1 아이구야 우리 족은년 ᄀᆞᆯ은 말, 우리 족은년 헷주 난.

@2 음.

#1 에이고 우리 족은년 ᄀᆞᆯ은 말, 난 하도 웃엇주게. 우리 어멍이, 어떵 헤연 게난, 아이고 나신디 보리 볼르레 ᄀᆞ치 가겐 헹 둘앙 가난 나신데 시겨라, 시겨. (모두 웃음) 어멍을 시겨라.

@2 비료 ᄒᆞ끔 주렌.

#1 어떵 시깁디가? 허난, 아멩아멩헨 시겨라, 허난에. 아이고 보라. 저거 쩨끄만한 것이.

@2 음.

#1 으, 어머니, 이 보리 준준허민 어떵 헐 거라, ᄒᆞᆫ때 굶어도 허당 헤심 보리 커근에 우리 하영 먹을걸.

@2 예.
#1 경 헤낫저.
@2 음.
#1 게난 이거 삼춘 헛뒌 말 허는 거 아니?
@2 아니마씨, 아니마씨. (웃음) 이딧 말 굴아 주는 거.
#1 게난 요새 아이덜 경 못 헤여.
@2 몰르주마씨. 무사 밥 안 줘시녠만 허지.
#1 밥 안 줘시니. 둘랑 가근에 어멍신디.
@2 그 말 굴아집니까게.
#1 그 말 굴아져. 아이구.

걸궁

@2 아까 이 동네 걸궁 막 유명헤낫덴 허는디 걸궁은 어떵 헹 허는 것과?
#1 걸궁은이 우리 생각허면은이.
@2 음.
#1 그 곳사 이장 아방 선허게 생각허면은 이제 그 걸궁이라는 게 막 꼿들 모저 영 쓰고 둘아메는 꼿 영 헹 막 이런 사, 사물놀이 식으로이.
@2, 4 음, 음.
#1 사물놀이 식으로 막 꿩멕이 치멍 막 영영영 영영영영 허멍 영영영영.
@2 (웃음)
#1 막 그축 헹 뎅겨근에 집집마다.
@2 집집마다?
#1 못사는 집은 안 가고.
@2 아.
@4 음.
#1 쪼끔 밥이나 먹엄직헌 집은 돈.
@2 아.
#1 우리가 이렇게 출려시니까 좀 희사허시오.
@2 어.
#1 이렇게 헤서 그 곳사 이장 아방.
@2 으.
#1 ᄒᆞ쏠 하르방이 육지 사름덜이라, 저 사름이 원래.
@2, 4 아.
#1 아버지네가 육지, 육지. 겡 하르버지대가 육지 들어와 가지고 하르방 똑똑헤.
@2 음.
#1 저 사름 돌아갓주. 양씬디. 겐디 그 하르방이 막 모저 써근에 삼춘, 삼춘. 게믄 우린 막 졸졸졸졸 또꼬망에.
@2 따라 다녀.
#1 따라 뎅겨근에 막 꿩멕이 치는 것도 재미지고 옷덜토 재미져.
@2 음.
#1 겅허멍 헤난 것만 보주이. 그건이 기어코이 아니 헨. 저거 헤여낫저게.

@2 그 돈 모은 건 마을 공동.
#1 공동으로이.
@2 쓰는 것과?
#1 마을이, 이장덜끼리 뭐 이렇게 헤난 셍이라, 뭐 어떻게 그런 거 가고 사는 건 모르고게.
@2 음.
#1 우리가 저렇게 헷다는 것만 이제.
@2 음, 음.
#1 걸궁 또꼬망에 졸졸졸졸.
@2 쫓아 다니고.
#1 쫓아 다니고이.
@2 으.
#1 우리 어리 땐 또 하나가 기억이 잇나게. 아이, 가만히 아기덜이영 우리영 그 신발도 엇이, 에, 기냥 팔방을 헤여. 고무줄 허고이 그렇게. 이제 느네 고무줄 몰라이? 그거 뛰어놀아난 거이?
@2 헤낫수다게, 나도.
#1 고무줄 놩 뻴록뻴록 튀멍 영영영영헹 영 그것에 노래 부르멍이.
@2 음, 음.
#1 그런 것도 허곡, 팔방.
@2 팔방은 뭐?
#1 팔방은 이제 이 땅에 그령 먹대기로 발 차멍.
@2 음. 방칠락, 으, 으, 으.
#1 그림, 그림, 그림 영헌 디서 맞추멍 이제 허민 잘허민, 는 이기고 난 졋저 허는, 그런 거 헤낫저. 어릴 때.
@2 예, 예. 돌로 헤근에 발로 차멍.
#1 돌로 발로 차멍.
@2 예, 예.
#1 밀어 가는 거라게.
@2 예, 예, 예.
#1 그런 거 막 장난허멍, 이제 그런 거 놀멍 허민. 그 어릴 때도 연극을 잘헤여.
@4 음.
@2 연극은 어떵 허는 거꽈?
#1 연극은이 마을에서.
@2 음.
#1 이제 일월돌 나민.
@2 으.
#1 일월돌 나민 일월돌이 재미지더라고.
@2 예.
#1 이 살아오는 게. 아, 어느 날은 가만 이시민, 야, 연극 꾸밀 거라.
@2 음.
#1 뭔 연극이라, 마을에서 크게 이제 학교 안네 이제 걸상덜 쭉쭉쭉쭉 놩 멍석 꼴아 놩.
@2 으.

#1 이 아래는 우리 바로 이런 식으로, 이 알로, 요 노픈 딘 연극허는 집이라. 연극허는 무대라.

@2 음.

#1 무대민 포장헤영 쫙 허영 허민, 그 안네서 막 할망, 할망, 하르방 살아온 이제.

@2 오.

#1 그런 걸 연극을 헤여. 게민 우린 이젠 어릴 때 훈 어릴 때 어떡헤시민 이제 국민학교 뎅기멍 마농을 파, 애기 때.

@2 음.

#1 일학년, 이학년, 그땐 마농을 받더라고, 달래.

@2 음.

@4 꿩마농?

#1 어, 꿩마농. 그걸 받는데 그걸 훈 다섯 쪼지, 여섯 쪼지 헹 왕 풀면은.

@2 음.

#1 그땐 일 원, 이 원. 둑세기 ᄒᆞ나에 일 원 오십 전 그런 시절이더라고.

@2 조지는 얼만이꽈?

#1 뭐 조지?

@2 아까 꿩마농 훈 조지, 두 조지 허민.

#1 조지 아니고 근으로 저울령.

@2 아, 저울령.

#1 저울려근에 허민

@2 훈 근, 두 근 허는 거꽈?

#1 훈 근, 두 근 헌 거.

@2 으.

#1 키로 아니고 훈 근, 두 근 허면은 그걸 이제 훈, 훈 이 삼 원 오 전 오십 전 그추룩. 그때 빨간 종이더라고.

@2 음.

#1 그런 거 주면 그거 한 장 주면 그 당시에 사탕이 멧 개, 저 비가 열 개쯤 줘라.

@3 헤

#1 그 당시에.

@2 어.

#1 게난 이제 생각은 하나에 천 원 정도. 게믄 그거 이제 파레 뎅기당 어느 날은 친구들이, 야 연극헐 거라, 언제, 막 지꺼정 구경 가젠. 언제? 허믄, 아무날 연극 헴서. 아, 게믄 가겐. 어른덜은 안 시켜 주곡 아이덜은 못 들어오게 헤여.

@2, 4 (웃음)

#1 쳇날은.

@2 어.

#1 게믄 그 연극은 어떻게 허느냐면 우리 살아오는 일상적으로 연극 허는 거라.

@2, 4 음.

#1 어머니한테 욕든 거.

@2 어.

#1 씨어멍 메누리가 싸운 거.

@2 어.
#1 막 엿날엔 육이오 때에 총 맞앙 파바바바방허민 죽엉 자빠지는 식.
@2, 4 음. 어.
#1 그 연극을 마을 안네서 청년들이 모영.
@2 청년훼에서?
#1 청년훼에서.
@2 오.
#1 청년허곡 중간 삼춘네질 멧멧 좀 유지급덜.
@2, 4 음.
#1 그런 사름덜이 연극을 꾸미더라고.
@4 육이오 지낭은에마씨?
#1 육이오 지난. 육이오 지난, 좀 육이오 지나고 사삼사건 끗낭.
@4 어.
@2 음.
#1 그거 헌 거주게.
@2 그 전에는 안 헤나곡? 아, 삼춘이 모르겟구나.
#1 헤난지 안 헤난지 모른디.
@2 예.
#1 이제 한창 어릴 때에 국민학교 뎅경 일이학년 때 마농 파러 뎅기당.
@2 음. 그거 보레 가고예?
#1 그거 보레 강 보민, 뭐, 뭐 그 헌병 그 엿날.
@4 음.
#1 뭐 엇샤게, 북한놈덜 모저.
@2 예, 예.
#1 그런 거 멘들앙 총 쏘민 파바바바바빵허민. (모두 웃음) 그런 것들 보레 가민 막 재미졍.
@2 어.
#1 야, 연극헐 거라. 아이구야, 우리 보레 가게. 아이 밥 인칙 먹어근엥 뭐 일곱 시 뒈민 강 허민 아이새끼덜은 못 허게 허고 어른만 디물량. 낼은 뒷날은 아이새끼들 볼 거옌.
@2 음.
#1 아이고 어떵, 어떵헹 ᄀᆞ만이 그거 끗낼 때ᄁᆞ지. 이젠 그걸 마지막에 흔 잘허면 서너시간 덜 연극헤난 거 끗날 때 맛뵈기로, 너네들 들어와.
@2 어.
#1 경허민 그땐 들어강 막 지꺼졍은에.
@2 아.
#1 헤영 보아놩, 뒷날은 허지도 안허고. (모두 웃음) 아이고.
@2 아이들 안 보여 주는구나.
#1 속아.
@2 속안.
#1 아이고, 경허민 이상헌 사름들이라. 저 사름들 이상한 사름들.
@2 (웃음) 건 언제까지 헤낫수과, 그건?
#1 아이고, 거이.

@2 삼춘 멧 설 때까지?
#1 근때 흔 열두어 설쯤 뒈서. 거 기억헤 지크냐?
@2 으.
#1 어릴 때주게, 국민학교.
@2 그 그때만 허고 나중엔 안 헷구나예?
#1 경허민이, 무사 해년마다 헤낫주게, 허긴.
@2 게난 언제까지 헙디가? 그거는?
#1 그것도 아이구야 근때도이 우리 흔 열다섯쯤 뒈난 설러 베더라고.
@4 음.
@2 아, 열다섯 때까진 허고.
#1 흔 삼 년 허당 그냥. 겐디 그날도 희사를 받더라고.
@2 아.
#1 그 안네서. 그 안네 연극헹 꾸민 그 경비를 뽑을려고.
@2 어.
#1 막 희사 허렌, 막 허민 웨상 희사야, 것도.
@3 (웃음) 웨상이 희사.
#1 어. 돈 주면서 걸 이제 우리 ᄀᆞ뜨민 뭐 돈을 내여근에 이거 얼마다 허주마는.
@2 음.
#1 그냥 누게는 얼마, 누게는 얼마 줄줄이 돌아멩.
@2 아.
#1 돈은 받앗는디 말앗는디.
@2 으.
#1 그자 경헤도 모안.
@2 겡 그걸로 마을 돈 헌 건가?
#1 어. 경허민이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중학, 국민학교 사학년 오학년 육학년. 우린 공부허당 아녀부난 ᄉᆞ나이에덜 지집아이덜 서꺼근에. 야 우리도 연극허게. 그 하르방덜 연극 허여나세? 삼춘들 연극허난 우리도 흔 번 허게. 경 게민 연극을 어떻게 허민 좋으리. 담요덜 가졍오라 헤영. 이젠 나가 이제 주동 삼앙, 담요들 가졍. 담요 허민 바농으로 꼬메야 뒐 거 아니가?
@2 음.
#1 ᄀᆞ세로 꺼껑 문착문착 끈엉 것에 줄 메엉 이런 데 돌아메여근에.
@2 (웃음)
#1 겨민 누게 아인 하난 나ᄀᆞ라, 야 게민 제목은 어떵 헤영 만들 것고 허민.
@2 음.
#1 헤, 난 잇당 삼 년, 삼 년 흘러간 삼 년 세월 허게. (모두 웃음) 제목도 엇이.
@2 아.
#1 거 헤 놓은[논] 거 보라.
@2 게, 무슨 내용을 헷수과, 어떤 내용?
#1 흘러간 삼 년 세월 허게. 그거 그 제목을 만들엉 우린 연극을 허게, 게민 경 허게. 이제 경헤근에게 이젠 이런 국민학교 뎅기난. 이제 종이는 좋아이.
@2 예.

#1 엿날은 똥종이 닮은 거 잇어낫어게.

@2 맞아. 옛날엔.

#1 연필도 보민 막 칼로 까까근에 꿈 불랑 뭐 허곡, 지우개도 막 밀곡.

@2 으.

#1 으, 필통도이 막 나쁜 거 허고이. 종이도 나쁘고이.

@2 으.

#1 경허민 이런 거 작작 버령 부쪄근에 그 사름덜 헌 거 뽄 내어근에 이젠 숫으로, 숫으로 이젠 그건 쩨끌락헌 걸로는 보지 못헤도 숫이 어사. 그런 걸로 봉가다근에 막 술랑허게 밀엉. 흘러간 삼 년 세월, 글 딱 썽 딱 부쪙, 이제 오늘은 연극허는 거라 허민, 그날 그 시간에 이녁끼리덜.

@2, 4 아.

#1 넌 하르방 헤여, 넌 할망 헤여이.

@2 아. (웃음)

#1 넌 애기 헤여, 애기업게 헤여.

@4 아.

#1 우리가 살아온 일상생활로 그런 그추룩허당 보민 그디 동네 머심아이덜 허민, 야 그거 누게네, 누구네 집에서 연극헴젠. 아, 연극허레 오랑 고냥으로 영 보당 우리 연극헴시민 저 뭣 놈의 연극이냐, 그냥 포장 다 끄창 데껴 둬 요강도 벌러 둬 가벼.

@2 (웃음)

#1 할망 누는 요강덜. 아이고, 어떵 허민 좋으코, 큰일낫저, 게난 그날부떠 어멍 앞이 욕 들언. 따신 연극허지 말렌.

@2 (웃음)

#1 으, 너네들 연극헷당 우린 할망 요강만 벌러 둬 갓젠, ᄉᆞ나이덜.

@2 어.

#1 ᄉᆞ나이덜 담아들엉. ᄉᆞ나이고 지집아이[지집빠이]고 막 흔디 막 난리라, 이건.

@2 응.

#1 국민학교 육학년, 오학년, 삼학년, 그땐이 막 던덕이라. ᄀᆞ찌 막 연극허레 왓다 허민 여자덜 허는 거 방헤로.

@2 음.

#1 그런 시절도 잇어낫저게.

@2 어.

#1 아게, 재미져. 그 당시는이 무엇이 그렇게도 뭐 헷는지. 아주 재미셔.

@2 아이, 연극헌 거 처음 들엇수다. 여기저기 다 들어도.

#1 어, 우리끼리 연극헤여근에이.

@2 응, 이 동네.

#1 난이,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도 아니 제목을 어떻게 흘러간 삼 년 세월.

@4 (웃음)

@2 그니까, 아니 소꿉장난도 아니고.

#1 어, 그렇게 헤근엥이 수건 졸라멩이 그땐 수건이 많앗주게. 수건 졸라멩이 춘향아, 춘향아.

@2 (웃음)

#1 춘향아, 춘향아, 살아나. 춘향아, 춘향아, 오늘 약 먹지 말고 우리허고 놀자 그추룩.
@2 (웃음)
#1 이녁 멘들멍.
@2 게난.
#1 하이고, 멘들멍. (웃음) 막 ᄌᆞ미져낫저.
@2 음.
#1 그거 ᄌᆞ미져난. 그거이, 하이구야 희한허다. 놈을 뽄 본 걸 그냥.
@2 게난.
#1 어떻게 헤서 흘러간 삼 년 세월을 어떻게 만들엉 말을 헷는지. 으, 흘러간 삼 년 세월 제목은 적엇주만, 삼 년 세월을 만들지도 못헌 것덜이. (모두 웃음) 아이구, 아이구, 아이구, 아이구, 아이구.

입춘
@2 삼춘, 이제 입춘. 입춘날은 놈이 집이 가지 말라 허고.
#1 어, 새철.
@2 음. 새철 드는 날예?
#1 새철날은 우리가, 야, 여자 집이 남자 놈의 집이 가면 저 검질 짓나.
@2, 4 음.
#1 욕들민 ᄒᆞ루종일 욕든다.
@2 어.
#1 이런 식으로 말헤난 거.
@2 그 여자만 놈의 집이 가지 말렌 헙니까?
#1 가지 말렌.
@2 남자는?
#1 남잔 어떵 안 허고.
@2 헤, 남잔 어떵 안 헤?
#1 어, 여잔이 그디 가민이 검질 짓다.
@2 어.
#1 여자는 짐을 많이 메기 때문에.
@2 으.
#1 그런 말이 써낫저게.
@2 으.
#1 입춘이. 새철.
@2 으, 새철.
#1 새철.
@2 그 이 앞에 집 대문에 막 무신 것도 막 썽 부쳐?
#1 아니, 그런 건 엇어낫어, 우리.
@2 그런 건 엇어난? 요즘엔 막 입춘대길 영 막 썽 부칩니께?
#1 그런디 친구 집에 간 보니까.
@2 음.
#1 이제 그날은 이제 친구 집에 가니까는 욕을 막 든 거라.

@2 무사?
#1 우리가.
@2 새철날?
#1 어무니가, 새철날 왓젠.
@2 아.
#1 놀기가 막 워낙 좋아 놓니까.
@2 으.
#1 쭐락허게 간 거라. 야, 누구야, 허멍 가난.
@2 으.
#1 그 아가 곧는 말이 아이고 우리 어멍 엇이난 헷주. 우리 어멍 이시민 욕 들언.
@2 음.
#1 아이고 게메게. 새를 그 베를이.
@2 으.
#1 그집인 간 보난에 베를 뺑뺑뺑뺑 감앗더라고.
@2 어.
#1 감안 마당에 놧더라고.
@2 예.
#1 그 사름덜은 어디 어멍이 어디 사름이냐면 선흘 사름이더라고 어멍이.
@2 어.
#1 어멍이 선흘.
@2 어, 어.
#1 제주시 가는 디 선흘 가는 디.
@2 예, 예. 조천.
#1 그디 그디 살던 온 어멍이야. 그 딸이 어멍 우리영 ᄀᆞ뜬 친군디. 그 아이가 이름이 ○○이엔 한 아이주게.
@2 으.
#1 국민학굔 우리보단 앞서 우린 삼학년 헤부난 사학년 뒈곡 헌 아이더라고. 막 사름이 좋더라, 가의가. 어릴 때도 경헌데. 베를 뺑뺑뺑뺑뺑 부쪄놧어. 그때 노끗겡이로 꼬안에.
@2, 4 음.
#1 산뒤찝 그거 베가 잇어낫주게.
@2, 4 음.
#1 게난 뺑뺑뺑뺑헨에 돌을 지둘롯더라고.
@2 음.
#1 난 발로 영 건들멍 이건 무사 이거 만들언? 에이고, 새철날이 구렁이가 우리 집이 담 넘엉 오지 말렌.
@2 어.
#1 그 구렁이 방쉬로 베를 이렇게.
@2, 4 아.
#1 뺑뺑 꼼짝허지 말렌. 그렇게 머져 잇다, 아이구야 경 헴다이?
@2 오.
#1 게믄 내년은 나도 우리 집도 경허켜, 경헤난. 그런 말도 들어낫저.

@2 어.
@4 음.
#1 옛날. 그 할망이 어디서 왓냐, 거세기서.
@2 선흘.
#1 선흘에서 왓더라고. 거 베염이 많은 곳인가. 그런 말도 들어낫저.
@2 아.
#1 우리가 내가 본 건 본대로 곧는 거라, 쭉쭉.
@2 예, 예.
#1 그런 법도 잇더라고, 그 선흘. 선흘 저 조천 선흘.
@2 예, 예. 선흘 으.
#1 그런 것도 잇어난.

이월

영등달

@2 그다음에는 이제 영등달에는 여기도 영등제 헙니까?
#1 영등제[쩨], 영등?
@2 으, 영등 들어왐저, 허민 뭐?
#1 아, 영등 들어왐젠 허민이 밥헤당.
@2 으.
#1 이제.
@2 이월 초하루에?
#1 영등제는 우리가 바다에 제 지내는 날.
@2, 4 으, 으.
#1 요왕님한티.
@4 으.
#1 이제 거세기 그건 어떤 식으로 말허냐 허민 이 바다에 가근에 저 뭐 허는 거게.
@2 으.
#1 제 지내는 거. 그 아이고 잊어비엇저, 그거.
@2 요왕제?
#1 요왕제로 말을 아녀고 그건. 잊어벗저.
@3 아까 곡궁배?
#1 곡궁배 허는 그것도 말고 저 거세기.
@2 해신제?
#1 아니, 그것도 아니고. 바다에 강 제 지내는 건 아이고, 거 잊어 비엇저. 그거이.
@2 으.
#1 강 제 지내는 거 잇어.
@2 으, 으, 으. 언제쯤?
#1 요왕맞이.
@2, 4 요왕맞이.
#1 요왕맞이.

@2 으, 음. 언제쯤에 허는 거꽈?
#1 건이 그 영등하르방 들어왓젠 허민 나가는 날.
@4 으.
@2 나가는 날.
#1 나가는 날.
@2 이월 보름에?
#1 어, 게난 그것도 어떻게 말을 허느냐 허면은 막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이.
@2, 4 음.
#1 바람이 불면 에이구 메누리 돌앙 들어왓저.
@2, 4 음.
#1 비ᄇᆞ름 치멍 그냥 바당이 뒤집어지고 헐 땐 우리가 굴앗던 말로 할머니.
@2 메누리.
#1 메누리.
@2 돌안 들어왓저.
#1 돌안 들어왓저. 바다가 잔잔허민, 야, 딸 돌안 왓저이.
@2 음.
#1 (웃음) 그런 말이.
@2 어.
#1 우리가 들어왓주기게.
@4 잠깐만 바람이 쎄면.
#1 바람에 비바람 치멍.
@4 아.
@2 메누리하고 ᄀᆞ치 왓덴.
#1 메누리영 들어완 악허게 들어왓다.
@2 음
#1 또 바다가 잔잔허면.
@4 음.
#1 딸 돌안 들어왓저.
@2 음.
#1 겨고 떠날 때는 연평 고지로 연평.
@3 우서, 우도.
#1 우도 끗으로 나감저[쩌]. 게난 많은 걸 우리가 젤 지냉 하라방신디 시껑 나가라.
@ 음, 음.
#1 시껑 가멍 먹읍서.
@2 아.
#1 그런 식으로, 그런 표현으로.
@2 으.
#1 헷다는 거주게.
@2 아, 영등 들어왐저 허민 뭐 허지 말라 허는 거 잇수게.
#1 뭐 허지 말라?
@2 빨래도 허지 말라, 뭐.

#1 그런 거 엇어.
@2 아, 그런 거 엇수과?
#1 그런 건 그런 건 들어본 역사 엇어.
@2, 4 음.
#1 그냥 하르버지 메누리 들어왓저, 똘 들어왓저, 비ᄇᆞ름 치민 그런 거.

요왕맞이

@2 그믄 요왕맞이 허젠 허민 어떵 헤근에 허는 거?
#1 요왕맞이 허젠 허민.
@2 해녀들 어촌계에서 헙니까?
#1 아니, 이녁만썩 개인으로 막 헤낫저.
@2 아.
#1 심방 빌어당.
@2 어.
#1 경 아녀민 이녁만이라도 강 오늘 잘 봐 줍서, 좋은 날로 왕 봐 줍서.
@2 아.
#1 저 물른제숙은 아니 상 가고. 계랄, 과일, 종이.
@2 으.
#1 이제 그건 요왕은 바다에서 나오는 거라 부난.
@3 게난.
@2 거니까 헤어는 허믄 안 뒈는 거다예?
#1 어. 제숙은 안 허고.
@2 오.
#1 또 물에서 돌, 돌아간 사람은 갱도 안 허잖아.
@2 아.
#1 바닷고기 안 쓰잖아.
@2 식게헐 때?
#1 식게헐 때.
@2 어.
#1 말른 걸로.
@2 음.
#1 허주. 저 제숙은 올려도 국은.
@2 아, 소고기국이나 뭐 이런 걸로.
#1 응, 그런 걸 허주. 이제 그 물른 걸로 아년덴 헤.
@2 생선으로 안 헌덴예?
#1 생선으로 안 헌덴. 바다에 가서 억울허게 죽엉 궤기 베 들어갓다고.
@2 아.
#1 할아버님이, 그 시체가 뎅기다가 고기 베에 갓는지 어떤 그런, 그런 생각으로.
@2, 4 음
@2 게 종달린 저 요왕맞이 아 마을에서 ᄀᆞ치 안 헙니까?
#1 ᄀᆞ찌 안 허여.

@2 해녀들 ᄀᆞ찌 안 허고? 그냥.
#1 아니, 이제는이 올히는이 사람이 많이 사고 낫주게.
@2 으.
#1 경헤 부난 오늘 막 심방 빌언에 사, 올히 이거 삼 년을 헴저.
@2 아.
#1 삼년 허고이 심방도이 올히 허난에, 가난에 해녀가 돌아가겟다, 심방이.
@2 예.
#1 멩심ᄒᆞ라 헌디, 돌아가서.
@2 아, 진짜로?
#1 ᄋᆞ, 천초허다가 돌아갓어.
@2 아이고, 아이고.
@4 언제마씨?
#1 사월ᄃᆞᆯ에, 어머니날.
@3 올해?
#1 이번에.
@2 아이고, 참. 음, 음. 올헤, 올헤 오, 오월에?
#1 이번에, 이번에.
@2 오월에.
#1 견디 종달리 사름 사고난 것에 네 사람 돌아갓저, 해녀덜만.
@4 아, 올?
#1 차차. ᄒᆞᆫ 삼 년 잇당 돌아가고, 삼 년 잇당 돌아가고.
@2 아.
#1 올히는이 어머니날 자기 혼자 친구영.
@2 으.
#1 자기 냥으로 이제 천초바당 헤난 다음에 다 놀앗거든.
@2 음.
#1 어머니날이난 놀앗는데 어머니날 둘이가 욕심헤연.
@2 허.
#1 우리 남 안 헐 때 쪼끔 헤 오게 헨 갓단에.
@2 아이고, 아이고.
#1 죽언.
@4 멧 살 난 어른인데마씨?
#1 팔십, 팔십.
@2 아.
#1 팔십 돌아간.
@2 아, 게난 그 경, 경 무신 일 이시민 심방 빌엉 영 마을이 ᄀᆞ찌허고?
#1 어, 게난 올히ᄁᆞ지 삼 년을 제, 심방 빌엉 막 여자덜이 어멍덜이.
@2 어.
#1 글덜 씨곡 강 절허곡 음식 바찌곡 그 사람 앞이 돈 놓고 신수 보고 궂으쿠다 좋쿠다 멩심헙서 헤영.
@4 게난 그때 영등제 헐 때 심방 헤신디도.

#1 어, 어.
@3 심방 헐 때 이제 해녀.
#1 헐 때 이얘길 헌 거주.
@4 죽으쿠다 허난에.
#1 죽을 거난 멩심헙서.
@4 멩심헙센 헤신디.
#1 잘 딱 알진 아녀더라고. 칠십하나카? 칠십 멧이카? 성이 뭣이카? 영 헌디.
@2, 4 음, 음.
#1 그건 뜰려도.
@2, 4 음, 음.
#1 죽엇어.
@2 어디서 헙니까 제는?
#1 어?
@2 그런 거 헐 때, 심방 빌엉 헐 때.
#1 저기 해녀촌 잇주게. 잠수덜 탈의장.
@2 아, 탈의장. 거기서. 음.
#1 거기서 훈 잠깐 훈, 아, 훈 아홉 시로부떠 시작헤여근에 열훈 시까지 ᄆᆞ치주게.
@2, 4 음.
#1 그날은 막 도세기 고기 잡앙 해녀들신디 오렌 헤영 먹고.
@2, 4 음.
#1 해산물 헤근에 심방덜 멕이고.
@2 음.
#1 또 부지도 좀 어촌계서 받곡, 이런 식으로.
@2 아, 음.
#1 허는 거라.
@2 옛날에도 헤낫지예?
#1 옛날은이 옛날은 이제, 이제 그 우리가 영 생각허민이 이제 심, 큰 심방.
@2 으.
#1 심방 빌어서. 이제 생계유지를 허기 위헤서 이월돌에 메역씨를 뿌려.
@2, 4 음.
#1 이 메역을 뿌려 가지고 이 해녀들을 먹고 살렌 허는, 그냥 심방이 그냥 막 둥글멍 씨 뿌리고, 멩텡이에 씨 뿌리곡 이렇게 이렇게 헷지. 사람이 돌아가서 이건 으, 이제 그런 걸로 생각 아녀고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아이구야 굿헴저게, 허민.
@2 음.
#1 에이고 우리 굿 구경 가게, 경허민 심방덜이 막 무당옷 입고이.
@2 음, 음.
#1 빨간 거 시민 우린 파싹 ᄆᆞᄉᆞ왕. 떡도 주민 소금 안 놓은[논] 떡이주게. 동글랑훈 거 허민 뻥허게 잡아 데끼민 그때도 저 떡 먹으민 아픈덴 헹 안 먹곡.
@2 어.
#1 거 굶은 시절에도. 줏어 먹질 안헤여.
@2, 4 음.

#1 그 떡 먹으렌 그냥 심방은 막 먹고 가라, 자고 가라, 먹고 가라, 자고 가라, 허멍 막 잡아 데껴도 암만 배고파도이 그 자기가 액맥이를 먹을까봐.

@2 아.

#1 궂인걸 부뜰까봐 안 먹어낫어.

@2 우.

#1 그런 때지. 사람이 사고 때문에 이렇게 헌 건 엇고.

@2 아.

#1 지금은 사고 때문에 헤여.

@2, 4 음.

#1 삼 년을 허고 잇어, 이제. 겡 우리도 다 강 ᄀᆞ치 절허고, 아 갓다가 오고, 그렇게.

@2 게난 옛날엔 헤나신디 중간에는.

#1 끈어져서.

@2 개인이 허단에 끈어졋단 으, ᄒᆞ꼼 사고 나난.

#1 어.

@2 ᄒᆞᆫ 삼 년 헌 거구나예?

#1 겨고 우리도 이제, 이제 오빠덜이 우리 남영호 잇잖아?

@2 으.

#1 남영호에서 이제 오빠가 돌아갓어.

@2 헤, 아이고.

#1 서른하나에 돌아가서게, 우리 오빠가.

@2 어.

#1 나가 그때 그 당시에 멧 설이 뒀느냐면 서른, 서른 쯤에 오빠는 나가 스물다섯인가 우섯 땐디 우리 오빠 서른하나에 해양경찰 시험 봔에 저 부산에 간 죽엇주게. 가단 죽엇주.

@2 음.

#1 저 남양호 전사 저 성산포서. 경헨 헤 부니까이 가다오다가 ᄒᆞᆫ번썩 제 지내러 간다게.

@2, 4 음.

#1 메 헤 놓고.

@2 음.

#1 이제 메도 어떻게 허냐면은 이제 밥에다가 밥 낭푼 큰 낭푼 ᄒᆞ나 허고 소짓종이 이제 열 개쯤 끈어 가지고 것에 밥 놓고 계랄 놓고 사과 놓고서 뺑뺑뺑뺑 딱 헤 가지고 우이 놔 가지고 영 헤 가지고 바당더레 들이치면서, 요왕님, 우리 오빠 잘 봐 주십세요, 제 지내.

@2 음.

#1 그런 것사 ᄒᆞᆫ번썩 허고 잇저게, 이제도.

@2 그 오빠 그 남영호 돌아가신 그때 맞춰근에 허는 것과? 그건. 오빠 식겟날?

#1 아니, 맞진 아녀고 그냥 아무 때라도 때 조고, 물 조고 이제 생각날 때.

@2 음.

#1 오빠가 이제 그 바다에서 돌아가, 전살허니까.

@2 음.

#1 이 형제간이기 때문에 그런 제를 지내는 거주.

@2 음.

#1 내가 바다에 다니면서 무사헤 줍서.

@2 음, 음, 음.

#1 그런 식으로, 그런 사름이 많아게.

@ 에.

#1 부모덜 돌아간 사름이, 베 타다가 엿날이 하르버지 돌아간 사름, 그런 것들 잇다. 이 제주도 풍습이.

@2 예, 예, 예.

#1 그거주게. 거 아무디도 헐 걸. 제주돈 다 경 헐 거야.

@2 그 저 베 허는 사람들은 또 따로 제 지냅니까? 배에 지내는.

#1 배 지내는 건 잇주게.

@2 건 언제 허는 것과?

#1 그건 자기네 알아서 십오일날이믄 십오일날, 그뭄날이믄 그뭄날, 한 덜이믄 한 덜. 그 허는 사름덜은 어떻게 허냐면 우리는 헤낫저.

@2 음.

#1 십오일에 혼 번씩.

@2 아, 매달 십오일에 혼 번씩?

#1 어.

@2 허, 삭망허듯이?

#1 삭망허듯이. 그건 밥허곡 것도 뒈게 궤롭나야.

@2 어.

#1 딱 날짜 보름날, 초ᄒᆞ를날.

@2 어.

#1 그런 때 막 헤낫저.

@2 그건 어떵 헹 허는 거꽈?

#1 그다음에 배 짓어분. 그거는이 그 베 안네 인칙에 굴아실 걸? 그 말 안 굴안?

@2 으.

#1 우리가 배를, 배를 허잖아?

@2 으, 으.

#1 배를 허게 뒈민 고기잡이, 해녀벌이[해녀뻐리] 이렇게 허면은 그 짜끄만헌 거 그 관.

@2 아, 아까 관? 어, 어.

#1 관에 욮이 놔. 게민 오널 아방 오널 배 타레 강 ᄉᆞ망일게 고기 많이 잡게 헤 줍서. 무사이 돌아와 주게 헤 줍서.

@2 음.

#1 또 해녀덜 바다에 가서 메역 ᄌᆞ물 때도 해녀덜토 무사헤 줍센 쪼끄만헌 관헤영 그레 종제기 놩 술 놓곡 밥 놓곡 그것이 제라.

@2 어.

#1 그렇게 헤낫저.

@2 그거 집이 놧두는 거꽈? 아니면 베에라도.

#1 배에서.

@2 아, 배에서? 배 안에서?

#1 안네서 제를 지내여이, 지내여놩 보레 시민 그레 영 비와 뒁, 다 헤영 깨끗이 시쳥 그레 놧당 또 그거 허곡 허는 거.

@2 관이엔 헌 말은 상자꽈?
#1 상자새끼게. 눈갑 닮은 이제 요만헌 곽.
@2 어, 눈갑 닮은?
#1 곽을 짓엉.
@2 낭, 낭으로?
#1 나무로 만들엉 그레 둘아메주게 안네.
@2 아.
#1 사람이 건적 안 허는 트멍에.
@2 으.
#1 그런, 지금도 헴실 거여.
@2 어.
#1 큰 배덜은.
@2 어.
#1 게민 그 나가 안 곧아냐? 그게 난 이제 그놈을 이젠 배가 자기가 사용허다가 이제 남으 손에 가게 뒈민.
@2 음.
#1 우리가 이젠 그만허주 헹 보내게 뒈민 그거 관을 꺼내여이.
@4 아.
#1 관을 내놔근엥 헷단 걸, 그 본당 엇어냐, 본당?
@2 음.
#1 그디 저 그 바다에 그 당.
@2 음.
#1 그디 가서 돌멩이 파 가지고 그 속에 놔 가지고 혼번썩 그디 강 또 그 제를 지내와낫저게.
@2 바당에 당은 아까 생기남당인가?
#1 생가남당.
@2 아.
#1 그디가 그 해녀도 무사헤 줍서. 이제 게난 그 지금은이, 지금은이 그것이 어떻게 뒛냐 허면은이. 우리가 뎅길 때도 뎅겻주만은 우린 이제 늙어가부난 이젠 덜 뎅겨이.
@2 음.
#1 첨 뭐 허는디. 아이 심방들이 온다네, 거길.
@2 음.
#1 심방 와 가지고 돈도 올리곡.
@2 음,
#1 술도 올리곡 종잇장도 올리곡 이렇게 헤서 가.
@2 음.
#1 제주도 전체 돌아뎅기멍 그 사름덜. 멧, 멧 둘에 혼 번썩 와.
@2 우.
#1 그런 디가 그런 디야. 그디가 지금 현재.
@2 우
#1 그러면 그놈들이 다 신 부뜬 사름덜이야.

@2 음.
#1 왓다가는 사람덜이.
@2 음.
#1 그냥 정상헌 사람 아니고, 뭐 철학과나 그렇지 아녀민 이제 뭐 어, 굿 허레 둘랑 뎅겻던 사름덜, 그런 사름덜이 지금도 오고 잇어.
@2 거 무사 왕은에 허는 거마씨?
#1 아, 게난 하여간 건 문화옌 헨 오는 거주게.
@2 으.
#1 그디 오랑 그축헤둰 간덴 허더라고. 우린 소문만 들언.
@2, 4 음.
#1 겡 우리가 거기서 감태를 이제 감태.
@2 음.
#1 감태옌 헌 건 막 말령 팔주게.
@2 으.
#1 어촌계서 허영 강 보민. 막 그냥 꼿도 둘아메고 뭣 종잇장 험벅 뭐 허곡, 갓다 뭐 막 이상망상 옷덜 입은 남자 택시로 딱 와 가지고 내려 가지고 그디 왕 절허고, 돈 올리고. 그 지금도 헤여.
@2, 4 음.
#1 그런 디가 지금도 헤여 잇어. 겅 헌다게. 이제도 그런. 게난 거 막 사진 찍곡 겅허여, 이제도.
@2 어.
#1 겅 험셰.
@2 음. 그 뭐 경칩, 춘분 영 허는 건 그땐 특별하게 허는 건 엇지예? 이월달에 영등 말고, 따른 건 허는 건 엇지예?
#1 그때부떤 엇어.

삼월

한식 멩질

@2 으, 삼월 뒈민 한식 멩질 옛날에 헤낫수과?
#1 안 헤난.
@2 한식 멩질.
#1 이제 오월 멩질도 안 헌다. 오월 단오도 안 헌다.
@2 으. 옛날엔 헤낫수게예?
#1 몰라. 헤난 거 안 헤난 거 우린 기적 엇고.
@2 아.
#1 우리 그거꺼지 생각하지 못헨.
@2 그믄 한식 때 그 청명에 산담도 강 손질허고, 봉분도 허곡.
#1 그런 건 허는 셍이라. 다듬는 사름은 다듬곡.
@2 으, 으.
#1 그거는이 뭐냐면은 이제 그건 쳉멩.

@2 으.
#1 말이 쳉멩이라이.
@2 으, 으.
#1 게믄 부모 산에 흑이 낫던, 뭐 그 안에 뭐 고냥이 똘라져서 무슨 중이가 들어갓덴 허민.
@2 음.
#1 테를, 테를 가까 가지고 치와 두곡, 곤 테로 그렇게 만든다는 건디, 그거 헤여.
@2, 4 어.
@2 쳉명에예?
#1 쳉명에 나무 끈곡.
@2 으, 나무도 끈고?
#1 나무도 끈곡, 이제 집안에 손도 보곡.
@2 으.
#1 이제 만약에 으, 방에 뭐 잘못뒌 거나 옆이 잘못뒈나 나무 끈곡, 그런 거.
@2 으, 으.
#1 쳉멩엔 이제 신이 하늘에 올라갓다 허는 뜻으로 손 엇는 날이다 이거라.
@1 아.
#1 그런 걸로 헌다게. 그거주게. 우린 그거 들음 베벳기 엇곡 그날은 우리도 집중헤영이.
@2 으.
#1 이제 엿날 부억 헐 때 솟단지도 바로 앚지고 ᄐᆞ라지단 거.
@2 어.
#1 그 날은 손 엇덴 헤영. 또 쉐막에다가 이제 고망 나민 흑 헤다가 착 부지데경 고망도 막곡.
@2 어.
#1 나무도 이제 아이고 거 끈으레 가야 뒐 거민. 손이 엇나, 엇다 헤서.
@2 음.
#1 귀신이 엇다 헤서 하늘 옥황 다 올라 강.
@2 아.
#1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그런 걸 헤 왓주게.
@2 아.
#1 다른 건 엇고.
@2 예, 예.
#1 겐디 이 삼춘도이 아는 건 하다게.
@2 게난.
@3 게난.
@2 아는 거 한게. (웃음)
#1 느네 굴아가는 대로이.
@2 으, 으.
#1 이? 하나라도이?
(부분 생략)
#1 아이, 곧는 건 엇어도 재미져.
@2 예. 그 삼춘 쉐도 질롸낫수과?

#1 쉐는이 막 새낄 나낫주게. 하영은 안 길롸도 멧 년을 길뢋어이.
@1 어.
#1 쉐 길르는 것도 힘들주게.
@2 맞아예?
#1 촐 멕이저 무시거 허저. 게난 우리는 이제 거 소를 길를 때.
@2 음.
#1 하르버지가 물을 헷대. 시집완 보니깐.
@2 아.
#1 말을 헤 가지고 말테우리.
@2 어.
#1 그대로.
@2 으.
#1 에, 말테우리 저 쉐테우리.
@2 으.
#1 (웃음) 우리가 그렇게 말헤여이.
@2 으.
#1 ** 만이 베웁지 못헌 것들이 저 쉐테우리 뒛저, ᄉᆞ나이신데레.
@2, 4 아.
#1 동네 사름덜.
@2 욕허는 걸로 허는 거구나.
#1 욕허는 걸로. 무시거 잘못허민 저 쉐테우리 닮은 거여. (웃음) 경허멍 우리가 막 어릴 때 경허난.
@2 으.
#1 어른 뒈도, 에이고 벱지 못허난 소 멕영 좋다게. (웃음)
@2 (웃음)
#1 그축 허멍이
@2 으.
#1 헌디 내가 씨집을 와 가지고 우리 남편이 곧는 말이, 저이 하르버지 살 때는이, 저이, 이 ᄆᆞ쉬 가졍, ᄆᆞ쉬엔 허여.
@2 음.
#1 엿날 ᄆᆞ쉬.
@2 음.
#1 그냥 ᄆᆞ쉬가이 저이 떡 헤영이 백중날은이 떡헹 올려사이 저 쉐도 잘 뒈곡이 농사도 잘 뒈는 거 아냐?
@2 으, 으.
#1 게믄 떡을 어떵 멘드는 거라? 무시거게 멘드는 거게 느 떡 잘 멘들지 안 허느냐?
@2 (웃음)
#1 (웃음) 게믄 어떵 멘들아? 밀ᄏᆞ루로이 부꽈근에이 빵도 잘 만들어 나가.
@2, 4. 으.
#1 기지, 요새는이 워낙 빵덜이, 빵덜이 정말 잘 만들어이. 재료가 워낙 좋으니까.
@2 예.

#1 우리 옛날은 어떵 허냐 하면은 이제 그 기지.

@2 으.

#1 이제 그 하나를 허면은 이제 이녁 집이서 만들엉. 기지를 만약 보리밥 쎅영.

@2 음.

#1 보리밥 쎅영 누룩 놩 그거 걸렁 이제 그렇게 떡을 만들엇덴디. 지금은 그걸 끗나서 보니까 그 떡 만드는 약이 잇더라고.

@2 예.

#1 그 ᄑᆞ는 약이 잇어.

@2 아, 아.

#1 요샌 뭐냐면은 내가 만들고 잇는 떡 맛이 엇어. 웨 맛 엇느냐, 이제 제주 막걸리.

@2 으.

#1 또 하나론 허민 막걸리하고 또 설탕은 뭐냐 허면 설탕마랑 무시거 어샤게? 그거.

@4 사카린?

#1 사까린 대신 나온.

@4 당원?

#1 당원.

@2 으.

#1 그거 헤다 놓곡

@2 예.

#1 우유.

@2 예.

#1 우유 놓곡 이제 그것도 이제 이녁이 만들어나난 그거 놔 가지고 빵을 만든디. 요새 빵이 기계로 그냥, 영 보니까 기계로 막 달롸 가지고 이제 막 달롸 가지고 떡이 부드럽고.

@2 음.

#1 우리는 손으로 이제 이렇게 이렇게 힘없지, 이렇게 이렇게 만드난 떡이 비살져.

@2 음.

#1 게난 우유 놓곡 당원 놓곡 우유 놓곡 헤서 뀌난 맛은 엇더라, 떡이. 엿날 떡.

@2 음

#1 거찌 맛이 엇어. 그저 에 허난 이만썩 만들어.

@2 음.

#1 떡을. 요만이도 안 만들고 이만썩 만들어.

@2 (웃음)

#1 만들어 가지고 쪄 가지고 대보름만썩. 그래 가지고 이제 ᄒᆞ쏠 먼 밧데 쪼금 노픈 산에 가서 거 제 지어난.

@2 음. 백중제구나예?

#1 백중으로, 그런 하르버지 소 길롸난 그 뭐가 그렇게 헤서 곡석도 잘 뒈곡 소도 잘 뒌다 헤서 제 지내낫다. 한번 헤난 거벳기 엇어.

@2 음.

#1 게난 이 ᄆᆞ쉬 안 길르는 사름은 헴신디 말암신디 몰라도 그렇게 헤낫다.

@2 음.

#1 그거뿐.

@2 아니 봄 뒈민 이 쉐 목장에 올려 보내고 이런 것도 헤낫수과?
#1 우린 목장엔 아녀고 이제 개인으로만.
@2 개인으로만?
@4 음.
#1 으, 쪼꼼게 하나 두 개 길롼게.
@2 아, 집에서 기르니까?
#1 으, 집에서 그냥 나가근에 그냥 멕영 들어오고.
@2 음.
#1 촐밧디 좀 놓곡, 줄 메영,
@2 으.
#1 영 또.
@2 물 멕이레도? 게민.
#1 물 멕이레도 ᄒᆞ루 ᄒᆞᆫ 번썩 멕이고.
@2 어.
#1 낮이도 밤이도 촐 주곡.
@2 음.
#1 낮이는 물 ᄒᆞᆫ번 멕이고. 촐 그루 헤당 어둑으민 촐 빵 주곡이.
@2 음.
#1 그추룩허멍 그추룩 헤낫저게.
@2 음.
#1 많인 안 허고 ᄒᆞᆫ 십년?
@2 (웃음) 게 쉐로 밧갈 때난예? 옛날엔예?
#1 으, 소로 밧갈 땐 허곡, 정운끼 나난 정운끼로 허곡.
@2 그니깐.
#1 정운끼 끗나난 트럭타로 허고이.
@2 음.
#1 겅 허멍 살앗저게. 부지런히 살아왓저게.
@2 그땐 쉐 엇이민이 농사를 못 지으니까.
#1 어. 겨난 소이 다 정운끼 나 가고, 또 그 트럭타 나 가난에 소 다 풀아 비언, 힘들주게.
@2 맞아마씨.
@4 음.
#1 물 멕이저, 소 멕이저 아오.
@2 예. 예.
#1 그러, 그렇게 살아왓저.

사월

@2 그 사월 초파일.
#1 으.
@2 그땐 절간에 가는 거꽈?
#1 으. 초파일은 등 싸레이.

@2 으.
#1 그거.
@2 삼춘은 어느 절에 뎅겨난?
#1 난이, 난 생각허는 게 경 생각헤진다게. 종달, 이 사람덜이 다 각자가 생각이 틀려이.

잡담

@2 음.
#1 우리 어무니가 옛날 육지 다니면서 이 노랑교 물 먹는 노랑교엔 헌 교가 잇어.
@2 으.
#1 천지대안교라는 이름이.
@4 음.
#1 노오랑헌 노오랑헌 집만 짓고 노오랑헌 옷만 입고 헨에 허는 그 교가 잇어게.
@2 어.
@3 음.
#1 그런 딜 다니는디 훈 삼십 년을 다니더라고.
@2 어.
#1 삼십 년을 다닐 때 뭘 허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오는 일상생활이 건강헤야 뒐 거 아니?
@2 음.
#1 아, 이 어멍이 보면, 문전도 아니 허고, 당에도 뎅겻다가 말앗다가 헤여.
@2 음.
#1 그래서 이제 허는디 할망이 이 교를 다니면 덕을 봐야 뒈는데.
@2 음.
#1 내가 어릴 때도 어머니 허는 걸 웨 그렇게 간섭을 잘 헷는지, 모든 게 다 간섭이야.
@2 음.
#1 웨냐허면 보리밧 불르레 가도 어머님 무사 밥 훈 때 굶어 가지고.
@2 (웃음) 비료 사지.
#1 비료 안 삿다니, 어머니가 준 으, 쌀 한 뒈에 밀가루 한 뒈 가지고 나를 가져다가 제사를 지내라고 메끼고.
@2 음.
#1 이런 생활 속에는 나는 모든 게 다 간섭이야.
@2 음.
#1 어머니, 어머니처럼 대를 이은 거야. 알고 보면은. 이 한 가정의 딸이라는 사람은 이미 씨집가서 떠나야 헐 건데.
@2 음.
#1 내가 지금까지 어머닌 심바람만 허면서 신경도 쓰고, 어머니 헷던 건 보고 듣고 보고 듣고. 음, 누게 말쩨라도 모살치 거려다가 제삿국도 끓이고.
@2 음
#1 이건 웨 내가 그랫을까이.
@2 으.
#1 그런 생각 들리면서, 아 나는 잘헷다.
@2 음.

#1 부모님 공을 갚아서 나는 잘헷다. 정말 잘헷다 이렇게 생각헤서 항상 나는 말이지 자식들신더레라도 부모 가슴은 아프면 너희들이 악귀를 안 먹, 먹질 안헌다. 가다가 발도 안 차도 부모님에게 잘허면은 발도 안 차니까. 부모님에게 잘허면은 하늘이 감동헌다.

@2 음.

#1 이렇게 생각을 헤, 지금도.

@2 음.

#1 부모를 너무 내가 이 좋은 몸을 테와 줘서 말이지,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헤여.

@2 음.

@4 삼춘은 노랑교 안 다니고?

#1 안 뎅겨. 게난 우리 어머니가 노랑교 뒈면서 덕을 못 본 거라. 겐디 내가 다른 사름은 미신을 막 백 프로 믿거든.

@2 음.

#1 아, 나는 안 믿어. 웨냐, 우리 어머니가 그런 덕을 못 봣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이 죽엇잖아. 남영호에. 어머니가. 어머니가 죽저살저 지암(?)을 파 봐도 살아오나? 죽엇잖아. 우리도 가슴 아파 울고지고 막 결혼헤 가지고 애기 나면서도 어머니를 너무 불쌍허거든. ᄉᆞ십 년은 바다에 가서 말이지 해초 허레 다니면서 사십 년 세월 아무것도 안 닮아도 거 오렌 세월이여.

@2 그렇주마씨.

#1 한 헤만 강 객지에 강 살아와도 집이 펑펑 거지가 뒈는데. 자그만헌 딸 하나 메껴 놓고 아들 메껴 놓고 말이여, 바다 물질로 나가 가지고 허난에. 이건 아니다. 나는 남은 백 프로 신들을 뭐 육십 프로, 사십 프로, 오십 프로 믿어도. 나는 반벳기 안 믿어. 신이, 무슨 숭이 잇느냐고.

@2 (웃음)

#1 신이 없다.

@2 으.

#1 절대. 우리 제주도는 신이 너무 많아. 돌신, 남신.

@2 (웃음)

#1 어, 느 무사 웃엄디?

@2 맞수다, 맞수다.

#1 게메 중간에 굴암주만은이 우리 아덜 서울 강 공부헤도 우리 어머니 겁나덴 허여. 너무 똑똑허다.

@2 음.

#1 말허는 것도. 나가 틀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헤.

@2 음.

#1 말을 허면 그냥 영 굴아가면 찰찰 곧고 영 굴아가면 찰찰 곧고. 느네신디 허듯. 겨믄 우리 아덜도 가만이 들어 겅. 우리 어머니 똑똑한 어멍이라, 무식헤도. 엿날 베와시민. (웃음) 겨민 어떤 땐 나 칭찬해. 아덜안티 버림 안 받아.

@2 음.

#1 무식헤도. 베운 건 엇어도. 경헤근에이 허는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제주도가 신으로 말이지 돌신, 물신, 무신 거리신 막 다 헤도 나 생각으론 무슨 신이 죽으면은 말이지 으, 묻어 불곡. 제라허게 신이 잇더라면 죽어간 아덜 살릴 수 잇지, 경 생각헌다게.

@2 음.

#1 경헨 허연 지금 나는이 이거 이상헌 말 헴주마는이 나 자신은 그렇게 생각허멍.
@2 음.
#1 살앙 오래게 거 그거.

사월 초파일

@2 초파일 곧단 그디까지 갓수다.
#1 어.
@2 초파일날, 절에 강 등 싸고.
#1 절에 강 등 쌍. 게난 그걸 허다가이 산신교라는 교가 산신님 믿은.
@2 예.
#1 할머니가 잇엇저게.
@2 예.
#1 그딘 막 정성 들영 잘 뎅겻주.
@2 으.
#1 그 할머니가 돌아가.
@2 으.
#1 돌아가 부난 글로부떠 끗, 안 뎅겨.
@2 아.
@4 음.
@2 이 초파일날 아이들 머리도 까까 주고 뭐 영 헤낫수과?
#1 으, 애기 때, 물아기 때.
@2 어. 머리 까까 주민 어떵?
#1 세 송이 낭 잘 큰다 헨에.
@2 머리가 잘 나?
#1 잘 나곡, 깜곡.
@2 거멍허고?
#1 까망허게, 까망허게 올라온다 헤서, 배아지, 배아지에서 나온 그 애기가, 애기가 나오잖아. 그래서 그 애기 머리를 이제 가까 주는 거.
@2 아.
#1 가까 준다 헤서.
@2 게난 초파일날예?
#1 초파일날 가까 준디 우리 안 가까 줘 봣저. 미와허카 부덴. 가까 불민 애기 당분간 미웁잖아?
@2 예. (웃음) 게 안 가까 줍디가?
#1 안 가까 줜, 그대로.
@2 아니, 뭐 아들, 딸, 딸이야 그렇다 치고.
#1 딸? 딸 둘에.
@2 아들, 아들, 아들은?
#1 아들도 안 가까 줜.
@2 으.
#1 미와서 안 뒌덴 헨.

@2 경 헌덴 말은 들어도 삼춘 안 헌 거?
#1 으, 안 까까 줜. 아까 줜.
@2 아.
#1 그런 건 절대 안 가까 줜. 밉다고.
@2 음.
#1 예뻐야지 미우면 안 뒌덴.
@4 음.
#1 겐디 요새 가끄는 사름 이샤?
@2 없, 요즘에 잘 안 까낀 하는데, 그 절에 다니는 사름 동자승 이렇게 헤 가지고 애들 쪼끔 하긴 허는.
#1 으. 까까.

오월

오월 멩질
@2 으, 오월 단오.
#1 으.
@2 단오 멩질 옛날에 헐 때.
#1 단오 멩질이 헌덴만 헷지. 헤 본 역사도 엇고.
@2 아, 허는 거 보지도 안 헙디가?
#1 안 허고.
@2 어.
#1 헌다는 말만.
@2 멩질은 안 헤도 단오 때 뭐 허는 거 잇수과?
#1 엇어.
@2 뭐 옛날, 따른 디는 막 그네뛰기도 헷저.
#1 어, 엿날에 그네 뛰는 건 장승강게, 장난 비슴허게 헤나긴 헤낫저. 건 잊어불고.
@2 아, 무신 머리도 곰아낫저.
#1 잊어 불고. 일절 엇어. 그런 거.
@2 그런 거 엇어예? 제주돈 단오 때 무신 거 허는 거 엇어예?
#1 엇어, 엇어. 여긴 엇어.
@2 단오 땐.
#1 몰라. 다른 사름덜은 헤신디.
@2 아니, 제주도는 잘 없고예. 육지는 그런 디 많이 헤낫덴 허는디.
#1 음.
@2 이 단오 때 단오쯤 뒈민.
#1 음.
@2 뭐 보리 빌 철인가?
#1 음. 보리 비어. 단오주. 맞주. 보리.
보리 베기
@2 그때쯤이지예? 보린 비젠 허민 뭐 뭐 준비헤야 될 거 잇수과?

#1 보리 비젠 허민?

@2 으.

#1 보리 비젠 허민 무신 보리 비는 거 뭐, 우리 냥으로 비어근에 홀탕 지어 오는 거. 거뿐이주.

@2 놉도 빌어근엥 헤?

#1 놉도 빌어근에. 놉도 빌엉 허민 그 전엔 허단 기계로 비어 부난 그냥, 테작.

@2 이젠 이젠 기계로 하곡.

#1 으. 우이로 훌터 가곡 그자 거 간단허게.

@2 옛날에 헐 때는?

#1 옛날에 헐 때는 보리 비어근에 무꺼근에 홀테로.

@2 으.

#1 홀테로 헤여근에 이젠 기계 빌엉.

@2 음.

#1 그 기계가 잇잖아. 통통 기계 막 두드려 올리는 거. 글겡이로 올리는 거. 거고 마당질.

@2 으.

#1 마당질헤낫저, 어릴 때.

@2 으.

#1 조도 때리곡 보리도 때리곡.

@2 음.

#1 그런 건 어릴 때 어멍네 집이 살 때.

@2 예, 예, 예.

#1 이 마당에다가 이제 막 치와 가지고 안네 ᄀᆞ시락 뿌려 가지고 쌀이, 고망에 박아지카부덴 막 뿌령 불려근에. 경헤영 뿌령 도께로. 어기야 홍아 어허어 어기야 홍아 아.

@2 (웃음)

#1 노래 불렁, 쩨끄만헤도이.

@2 으.

#1 어멍네 따랑. 조도 때릴 때 어기야 홍아아 어허 어기야아 홍아. 겨고이 정ᄀᆞ레ᄀᆞ는노래도 쪼끔 불러저. 이어어어 이어도 ᄀᆞ레에.

@2 (웃음)

#1 이렇게 쪼꼼 헤. 경헨 내가 내 자랑이 아니고.

잡담

@2 음.

#1 할망네 저 놀레 가민 나신디 재밋덴 헤여.

@2 음. 경 허크라.

#1 어, 재밋덴 헤여이. 웨냐면이 ᄀᆞᆺ사 아저씨 앚안에 얘기헷잖아. 나가 칭찬헷잖아.

@2 예.

#1 할머니 돌아간 디 ᄒᆞᆫ 오 년 됏저게.

@2 음.

#1 자기 냥으로 밥 먹고, 옷 챙기저, 참 피곤허주게.

@2 음.

#1 혼자이. 젊어 감시민 좋아이. 우리도 지금 힘든 세상에. 이제 팔십이 넘어 가니까 먹는 것도 그렇고.

@2 으.

#1 먹는 것이 젤 힘든 거주게. 자기 냥으로 헤 먹는다는 게 거 보통 일 아니어게.

@2 음, 음, 음.

@4 맞수다.

#1 내가 헤 줜 아방 이제 지금 우리가, 우리 집의 아방 이제 일허레 갓저. 사무실, 읍사무실에 무신 폣벵 요런 거. 멜라진 거 거수허는 사름이라, 둘이가. 어디꺼지 가냐 봉개꺼지 돌아.

@2, 4. 아.

#1 스물다섯 밧디. 여녕이 멧 설이냐면 칠십여덜.

@2 허.

#1 막 건강해.

@2 흔 설 차이, 으.

#1 어, 건강허고 약도 안 먹어.

@2, 4 어.

#1 약 먹는 것도 엇어. 일도 최고야. 일도 잘허고. 지금 우리 이제 이제도 이제 오천 평 농사졋어.

@2 크.

@4 아이고. 무신?

#1 당근 이천 평에다가 콩 삼천 평.

@2 아이고.

@3 허, 아이고.

#1 콩은 기냥 기계로 때려 오고. 이제 또 이제 흔 밧디 쪼끔 때려올 거 잇고. 농사젼 안 뒈부난 밧 하나는 이제, 이제 뭣이 중간에 말헴저만은 이제 봄부떠, 봄부떠 내가 오백만 원에 나올 걸로 헨 때려 불고. 하난 이제 천 평짜리 막 좋아.

@2 음.

#1 나가 검질도 다 메고. 이레 다리 두 개 수술 다 헷저.

@2 허.

@3 음.

#1 경 헹 헤도 일 년간 헤연게. 사름덜 빌언 허고 나만 앚앙 방석 깔안 영 뽑안. 지금 오천 평 농사지엄저게.

@2 헤.

#1 게난.

@2 아이고.

#1 겨고 나는 이제 저 쓰레기 줏는 디.

@2 음.

#1 장애, 이제 장애로 주는디 뎅기고, 아방은 또 그디 일허레 갓저만은 아방도 그추룩 허영 허는디. 여기 놀레 가도 막 내가 재밋덴 허여.

@2 (웃음)

#1 아까도 이 하르방을 칭찬헌 건 뭐냐. 노래가 너무 좋아 놓니까 내가 감동헌 거야.

@2, 4 음.

#1 감동헤여 가지고 딱 찍은 게 뭐냐, 다른 건 몰라. 다른 건 모르는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면 일월둘에 심방신디 가지, 집안에 문전허지, 으, 이것저것 또 심방신디 다니지.

@2 음.

#1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2 예, 예.

#1 당에도 뎅기지, 뭐 어디 요왕도 다니지, 뭣도 다니지, 우리 문전도 허지, 제사도 지내지. 우리가 첫짼 뭐냐. 돈도 돈이지만 건강헤야 뒘.

@2 맞아, 맞아.

#1 가족들이 다.

@2 음.

#1 느네도 마찬가지야.

@2 예. 맞아마씨.

#1 우리가 건강헤야 돈이 잇고.

@2 맞아.

#1 내가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없어이?

@2 예.

#1 아무것도 없잖아. 돈이 얼만 가져도 내가 벵원에 누워신디 뭘 하겟냐?

@2 그니까.

#1 내가 그 돈을 먹고 죽을 거냐?

@2 음.

#1 겐디 내가, 느네 막 좋앗저, 지금. 육십다섯꺼지도 용기가 좋아.

@4 음.

@2 (웃음)

#1 내가 저 건물 내가 짓고 싶어. 이런 생각을 들어.

@2, 4 음.

#1 땅도 사서 아덜 주고 싶어.

@2 으.

#1 칠십다섯이 넘어나니까 그것이 다 사라져 가는 거야.

@2 어.

@4 음

#1 웨냐? 이제는 나는 이것으로 만족허다.

@2 음.

#1 이렇게 생각허고 지금 아버지허고 나허고 노후 대책을 엄청 만들아 놧어.

@3 음.

@2 뭘로 헐 거꽈? 노후대책.

#1 다 돈.

@2 (웃음) 돈 다 은행에 다 헤 놧구나.

#1 돈에 다 저금헷고, 땅이 한 부부가 산 것이 흔 사천오백 평 사 놧어.

@3 음.

#1 좋은 집 짓고.

@2 아.
#1 그래서 동네에서 살면서도 무시 안 헤. 이렇게 다녀도 무시 안 헤.
@2 음, 음.
#1 저 사름덜은 베웁진 못헤도.
@2, 4 음.
#1 내가 당당허거든.
@2 음.
#1 용기도 잇고.
@2 음.
#1 (웃음) 느 재미지지 안허냐?
@2 (웃음) 재밋어마씨.
#1 아이, 재밋잖아?
@2 예.
#1 바레긴 얼굴이 이렇게 무식허고 못나도.
@2 아이고, 아니마씨. 무사?
#1 (웃음)

천초
@2 저 아까 천초는 멧 월달에 허는 거꽈?
#1 뭐?
@2 천초.
#1 오월, 오월 오일.
@2 오월 오일날?
#1 오월 오일날부떠 시작.
@2 시작.
#1 유월 유일, 유월 훈 십오일까지.
@2 아, 훈 덜 반 정도?
#1 어. 뭐냐? 두 번에 끈어이.
@2 어.
#1 일반초, 이반초.
@2 어.
#1 그것도.
@2 뭐가 차, 뭐가 다른 것과?
#1 일반촐 헤나면 뜯어난 그 잡텡이가 커.
@2 어.
#1 다음엔 어린 것덜 크잖아, 바다에서.
@2 예.
#1 큰 건 막 그차 와서 이제 헤다 널고.
@2 으.
#1 이제 훈 닷새 잇새쯤 다 뜯어 와.
@2 어.

#1 흔 잘허민 열흘꺼지 뜯어 와. 열흘간 뜯어도 흔 덜을 보관헤. 바당을 놔.
@2 음.
#1 쉬어. 쉬어가면은 그 뜯어난 굽텡이가 커.
@2 음.
#1 거 새끼 깨왕 주낏디서.
@2 음.
#1 준준허게. 준준헌 것들이 뿌리 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막 크거든.
@2 음.
#1 또 두 번차 헤.
@2 음.
#1 그래 가지고 일반초, 이반초.
@2 어느 게 좋읍니까?
#1 큰 것이 좋지.
@2 일반, 첫 번 헌 것이 좋아?
#1 첫 번 헌 것은, 첫 번 헌 것은 적을 안 부떠.
@2 아.
@4 음.
#1 배추ᄀᆞ찌 이렇게.
@2 ᄋᆞ.
#1 바각허민 막 으으.
@2 음.
#1 허고 준 거는.
@2 으.
#1 아래서 적이 부떠.
@2 아.
#1 적이 달라부떠.
@2 다 떼야 됌? 손으로?
#1 아니. 게난에 망뎅이로.
@2 아.
#1 냅따 후려서.
@2 으, 으, 음.
#1 좀 보기 좋게 헤 가지고.
@2 음.
#1 겨고 공판도 잘헤 줘. 해녀들은 불쌍허다잖아. 수협에서가이.
@2 예, 예, 예.
#1 경헤 가지고 그 놈을 이제 따로따로 담아.
@2 아.
#1 존 놈은 존 놈.
@2 어.
#1 나쁜 놈은 나쁜 놈.
@2 음.

#1 궂인 놈은 궂인 놈. 세 가지로 놔 가지고 공판을 때리거든.
@2 아.
#1 일차, 이차, 삼차. 일, 누구 말쩨로, 그 순번대로.
@2 예, 예.
#1 일등, 이등, 삼등 이렇게.
@2 어.
#1 등외.
@2 으 으.
#1 네 가지로 뽑아 가지고 우리 공판헤 줘.
@2 음.
@4 어.
@2 그믄 천초는 바당에서 그거 헤 오민 그다음 어떵헙니까?
#1 널어. 느네 천초 안 헤 봔댜?
@2 안 헤 봣주마씨.
@2, 4 (웃음)
#1 아아.
@2 그거 헹 그냥 널기만 허믄 뒈?
#1 널어. 뒤집어.
@2 어.
#1 깨끗이[깨끗치] 정리헤여.
@2 어. 메칠간 동안 물려야 뒈?
#1 ᄒᆞ루나절, ᄒᆞ루.
@2 ᄒᆞ루나.
#1 ᄒᆞ루도 안 강 벳 막 존 날은 ᄒᆞ루도 안 걸령.
@2 아.
#1 담앙. 그냥 그날 담앙 그날 뜨는 수도 잇곡.
@2 오.
#1 연평은 그날 헹 그날 뜨잖아.
@4 그렇게 금방, 금방.
@2 아, 금방 하는구나예?
#1 아홉, ᄋᆞ답 시에 들어 강 열 시, 열 시 반에 열 시에 나오잖아?
@2 예.
#1 두 시간 딱 경계 놔.
@2 음.
#1 연평은. 그래 가지고 막 뜯어 가지고 아방들이 막 사름들 빌엉 쫙 널엉 딱 허면은 조합에서 와 가지고 할망덜 강 너무 지치다고 헤서.
@2 음.
#1 우리가 다 허겟습니다 헤서 담앙, 그날 탁탁 저울인덴.
@2 오.
#1 우리는 그렇지 않아. 연평은 그런 그렇게 그 좋대. 사름덜 대우가.
@2 ᄋᆞ.

#1 할머니덜은 가만이 앚아 가지고.
@2 여긴 어떡해? 게믄?
#1 여긴 우리가 다 헤.
@2, 4 음.
#1 우리가 다 허고, 우리 이제 남편이 다 허고.
@2 음.
#1 그렇지 아녀민 다 아들덜이 허고 이렇게.
@2 음.
#1 많이 아녀 오주게. 잘허민 두 봉다리 정도이.
@2 아.
#1 돈 액수는 흔 삼십만 원이.
@2 어.
#1 이 돈으로 액순 삼십만 원.
@2 하루 일당 삼십만 원이면 크주마씨?
#1 커. 삼십만 원. 거 허채헐 때 삼십만 원이. 십만 원, 이십만 원이.
@2 음.
#1 경 헌다. 우린 보통 하나 반 허면은 흔 사십오만 원.
@4 음.
#1 어머니네게, 어떤 날은.
@2 ᄒᆞ루에?
#1 어, 삼십만 원. 그때도 물때가 좋민 허곡.
@2 으.
#1 바람이 불면 쪼금만 허고.
@2 어떤 물때에 강 허는 거꽈?
#1 흔물 두물.
@2 흔물 두물에?
#1 물이 나가지 아녈 때.
@2 아.
#1 잔잔할 때.
@4 음.
@2 그믄 저 망사리에 헹 담앙 와?
#1 담앙 막 어흐흐 어흐흐.
@2, 4 (웃음)
@2 그 천초.
#1 막 지치주게.
@2 예, 천초 허는 망사린 막 큽니까?
#1 큰 거 허영.
@2 아.
#1 큰 거 헌 사름, 작은 거 헌 사름이.
@2 아.
#1 연철 삼십, 저 삼 키로 차 보라. 사름 죽인다.

@2 게난예.
#1 어이고. 연철.
@2 으.
#1 허리에 차. 게난 허리가 다 거꺼지곡 오리발 신고 야야.
@2 음.
#1 빠지면은 많이 헐라고 그냥 어이야 디여 산이로구나. (모두 웃음)
@2 그것도 딱 그 시간 그때만 허는 거잖아예?
#1 어.
@2 그거 끗나민 또 못허는 거지예? 허지 못허게 허잖아?
#1 금지헤여.
@2 금기허여예?
#1 어, 어촌계가 딱 시기거든.
@2 어.
#1 바다에 너무 이제 오래 살면 안 뒌다. 호룰레기 딱 불면서 빨리 나가라고. 사고 나지 아녀게.
@2 음. 옛날에도 천초 헤낫수과?
#1 옛날.
@2 몃 살때쯤부떠 헌 거 닮우꽈?
#1 우리 엿날은 헐 땐이 미역만 막 대중헷주게이.
@2 그니깐예?
#1 미역을 아녀민 밥벌이가 안 뒈여이.
@ 음, 음.
#1 게난 미역이 사라져 가난 천초가 나오더라고.
@2 아.
@4 음
#1 희한헤, 바다도이.
@2 게믄 삼춘 멧 살 때쯤부떠 천초 헤진 거 닮우과?
#1 아이구야, 흔 이십 년 헷저이.
@2 어.
#1 반절, 반절헌 거 닮아.
@2 음.
(부분 생략)

유월

@1 게니까 그 유월은.
#4 으.
@1 저기 어떤 일을 헤신고예? 음력에.
#4 으.
@1 음력 유월?
#4 유월?

@1 예.
#4 으, 우리 물질헤난 거?
#1 아니.
@1 물질헤도 좋고.
#4 으.
@1 밧디 일 헤도 좋고.
#4 으, 으, 으.
@1 유월에 헌 거마씨.
#4 옛날 헤난 거이.
@1 예.
#4 나가이.
@1 예.
#4 그때이 열두 술에이 이제 바당에서 물질허는디 그때는이 고무옷이 엇엇어. 그대로이 속곳만 입엉 헤난디 그 열두 술에부떠 물질을 베왓어.
@1 으.
#4 베완에이 한 오십에 전에이, 사십 멧 술 이제 그만뒀어. 겐디 고무옷 입언에 훈 삼 년허고.
@1 으.
#4 이 그다음은 또이 나이도 하고이 쪼꼼 살아지니까 설레벳주게.
@1 으.
#4 경헨 헌디 이제 그때는 나가 열두 술에 이제 물질헐 때는 옷을 안 입으니까이, 이제 막 추워근에.
@1 으.
#4 막 고생허멍 헷주게.
@1 으.
#4 겨곡 농사는이 이제 어머니 아버지영 살 때 이제 헐 때니까 열ᄋᆞ섯 술에부떠 농사를 진 거라이.
@1 으.
#4 지면은 그때는 이제 쌀은 없어, 이. 좁쌀, 보리쌀, 그것만 농사지어근에이 먹어.
@1 으.
#4 겐디이 그것도이 부지런 아녀민 못 먹어. 막 베고파근에이.
@1 예.
#4 응, 경헤도 그거 헤도 부족허는 거라. 그때 당시에는이 돈도 엇지. 보리, 저 제ᄉᆞ 때도이 쌀이 없어. 겡 쪼꼼 헤다가 이젠이 허곡이 그렇게 못살아 가지고 고생 막 많이 헷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실 때는이.
@1 네.
#4 겐디 지금은이 그것이 아니라이.
@1 예.
#4 으, 그렇게 살아온 거라.
@1 예. 우리 유월절이엔 허지 않읍니까? 유월 뒈면예?
#4 으.

@1 유월절에는 뭐 허지 말라 허는 것들도 하예?
#4 어. 으, 유월절에는이.
@1 예, 예.
#4 이사도 허지 말라, 으. 이제 가급적이면 뭐, 빨래 ᄀᆞ뜬 것도 숧지 말라, 견디 지금은 그것이 아니잖아.
@1 예.
#4 으, 으. 유월절에는 또.
@1 겐디 무사 이사허지 말렌 허고 빨래 숧지 말렌 허는 거마씨?
#4 그때는.
@1 유월절에는.
#4 으, 신구간 뒈면은 우리가 이사 가는 것도이.
@1 으.
#4 날 보나 안 보나 좋고. 이제 유월달에는 어디 움직이지 말라.
@1 움직이지 말라.
#4 옛날엔 그렇게 헷어. 으.
@1 으.
#4 겐디 지금은 그것이 아닌디. 이제 경헤도 여기서는이 제주도 풍식은.
@1 으.
#4 이제 것도 신구간 춪아.
@1 예.
#4 으. 이제 이사 가는 것도 신구간 어느 땐고이 헌 거를 춪아.
@1 으.
#4 견디 유월절도 춪곡. 견디 느네 세대는이 그런 거 안 춪아.
@1 예, 예.
#4 으.
@1 거난 삼촌네는 그 유월절 춪앗잖아예?
#4 으, 우린 춪아져, 이제도.
@1 유월절은 언제가 유월절이우꽈?
#4 유월 육일, 유월 한 이십일 뒈면은.
@1 으.
#4 음력으로.
@1 음력으로.
#4 으, 스무날쯤 뒈민 유월절 들어.
@1 아.
#4 게난 집에 남이 잇잖아이, 옛날 나무 시끄젠 헤도 우리도, 우리 집에 남이 막 그 많아.
@1 예.
#4 많은디 나무 하나 끄치젠 헤도이 그 옛날 남이니까.
@1 으.
#4 이제 유월절에 못 그쳐.
@1 으.
#4 신구간에 기차.

@1 아.
#4 으, 게난.
@1 유월절엔 아무 것도 허지 말렌 헌 거예?
#4 으, 으, 으.
@1 예.
#4 게난 우리는 그거 엿날 법으로이 지금도 헤져.
@1 으.
#4 게난 옛날 그 할마니네덜 백 년 뒌 나무덜이.
@1 예.
#4 아이, 무ᄉᆞ와근에이 날을 딱 봐. 겡 날 봐근에이 신구간에라도 날 봐. 신구간에도이 좋은 날이 잇고 나쁜 날이 잇어.
@1 으.
#4 겨난 신구간에도 날 봥 낭 그치곡이. 또 아이덜한티 이 유월절 이사 가지 말라. 으, 우린 나가 아들 성제 뚤 하난디.
@1 예.
#4 다 여기 안 살아. 서울 살아.
@1 아.
#4 으.
@1 여기는 삼춘만 살멘?
#4 으, 여기는 나만 살고.
@1 으.
#4 으.

유월 스무날

@1 게믄 옛날에 유월절에 ᄃᆞᆨ 잡아먹는 날도 잇잖우꽈?
#4 유월 육일, 저 유월 스무날.
@1 으, 그때는 무사 ᄃᆞᆨ 잡아먹어신고?
#4 아, 그거는이.
@1 예.
#4 이제 옛날 할망덜 감기 걸리지 말곡 이제 방ᄉᆞ로 그걸이 유월 스무날.
@1 예.
#4 음력으로 유월 스무날 ᄃᆞᆨ 잡아먹는 거주게.
@1 아, 방ᄉᆞ로예?
#4 으. 방ᄉᆞ로. 으, 그거 게믄.
@1 감기 걸리지 말라.
#4 으, 그거 헤 먹으민 좋다. 그 옛날 할머니들 헤나니까. 이제도, 이제도 그 풍식은 잇어.
#1 지금도 잇주게.
#4 으, 나도 이제 노인회.
@1 으.
#4 여자 회장도 이제 한, 으, 삼 년 헷는디. 우리 그 회원 할머니들 아, 유월절에라근에게 ᄃᆞᆨ 사당 숣으라게 숣으라. 유월 스무날이주게, 음력으로.

@1 으.
#4 헹 둑 사다근에 숣으라, 숣으라 헤근에 숣아근에 드려.
@1 으.
#4 으. 게난 유월절은 여기도 우리가, 우리 연령은 지켜 오는디.
@1 예.
#4 이제 느네 세대들은 그런 거 아니 생각허잖아.
@1 아, 예. 경허난 옛날 삼춘네 헤난 것들 우리가 기록허는 거마씨.
#4 으, 으. 그렇게.

삼복

@1 요즘 게믄 삼복에도 허여?
#4 으.
#1 삼복?
@1 삼복, 초복. 뭐.
#4 초복, 으, 으. 거 그 우리 세대들은이.
@1 예.
#4 무사고 초복에 무시거 먹곡 삼복에 무시거 먹곡 오늘은 무시거 허고 막 그런 것덜 허여.
@1 으, 초복에 뭐 먹어마씨?
#4 으.
@1 초복은 언제가 초복이우꽈?
#4 초복은 그 초복도 유월달일 거라. 유월달.
@1 유월달예?
#4 으, 으.
@1 으.
#4 음력으로 유월달은이 아무튼 멩심헤야 뒈어.
@1 아, 멩심헤야 뒈어예?
#4 으, 칠월절 들면은.
@1 예.
#4 뭐 궨차녀는디, 유월달에는 쫌 이 할망덜 조심허렌 허주게.
@1 예, 유월둘이에.
#4 으.

조 불리기

@1 그러면 옛날에 농사헐 때는 또 유월에 조도 불립니까, 이 동네?
#4 어, 어.
@1 농사헐 때.
#4 농사헐 때도 그때도 이제 그 시기가 잇주게.
@1 예.
#4 조 불리는 농사, 보리 가는 농사.
@1 으.

#4 것도 뭐 보리 조 ᄀᆞ찌 허는 것이 아니라.
@1 예, 예.
#4 으, 조는 여름에 허곡 이제 보리는 겨울에 허여이.
@1 으.
#4 이제 허곡 그렇게 허는 거.
@1 농사는 나중에 한꺼번에 또 들어보커라예.
#4 으.

칠월

@1 게민 칠월절은 언제가 칠월절이우꽈?
#4 칠월은 칠월 초 칠월 아, 칠월 초싱에.
@1 으.
#4 칠월 칠일날쯤에 들 거라.
@1 칠월 칠일쯤에예?
#4 으.
@1 으.
#4 음력으로, 양력으로 아니고.
@1 으. 예, 음력으로 칠월 칠일.
#4 으.
@1 게믄 그때가 칠석 아니라예?
#4 으, 으.
@1 칠석에도 뭐허는 거 이신가마씨?
#4 으, 허는 사람 허고 아녀는 사람 아녀고.
@1 으, 삼춘네는 헤난? 칠석에 어떤 거 헙니까?
#4 칠월 칠성에?
@1 으.
#4 으. 아. 우린 아녀부난 몰라.
@1 으, 허는 사람들은 어떤 거 헤신고?
#4 허는 사람은 뭐 칠성에 가근에 절간에도 가곡.
@1 으.
#4 또 교회도 가고.
@1 으.
#4 겐디 대강 절간에 많이 가주.
@1 칠성에예?
#4 으. 교 믿는 사람들은, 천주교나이.
@1 예.
#4 천주교는 제ᄉᆞ 멩질허고.
@1 으.
#4 그자 교회는 제ᄉᆞ도 잘 아녀잖아.
@1 으.

#4 게난 칠월 칠성에는 저 불공헌다고 헤근에 절간에 많이 가.
@1 예, 그때는 누게를 위한 불공헙니까? 칠월 칠석에는.
#4 칠월절에는?
@1 으.
#4 거 몰라.

백중

@1 거 모르고예. 삼춘, 백중옌도 들어봔?
#4 어?
@1 백중.
#4 배추?
@1 백중제, 백중제.
#4 백중날은 칠월 보름날.
@1 예.
#4 아, 칠월.
#1 열나흘날.
#4 음력으로 칠월 열나흘날이 백중.
#1 백중으로 세주게.
#4 으. 칠, 저 음력으로 칠월 열나흘날이 백중.
@1 예.
#4 으.
@1 백중엔 뭐헙니까?
#4 백중에는이.
@1 예.
#4 대, 대충 이제 태풍이 와.
@1 으, 태풍.
#4 백중에는 대, 대, 대충 그 이제 저 태풍이 오는디.
@1 예.
#4 아니 올 때도 잇고. 올해히는 안 왕 넘어갓는디 백중에 팔월 또이 저 추석에.
@1 으.
#4 그 태풍이 많이 오면이 농사진 것도이 막 파궤뒈고이 막 경허느녜.
@1 으.
#4 으.
@1 그 삼춘은 당에는 안 뎅겨봅디가?
#4 당에? 아니.
@1 안 헤보고예? 삼춘은 당에 뎅겨봔?
#1 으.
@1 으, 백중에 뭐 당에 강 허는 건 엇수과?
#1 당에 간 건양, 저 우리가 저 일월달, 이.
@1 으.
#1 일월달 헐 때 이야기 안 헷수과게.

@1 예, 예, 예.
#1 그때 허는디.
@1 으.
#1 이 당엔 특별히 몸이나 아프나 이 가정에 안 좋[조]나 허민 아이고, 심방 훈번 춪아봐살 건디 어떵 허민 좋고이.
@1 으.
#1 그때 헤영 그때 훈번씩 가봣주. 백중날엔 헹 특히나 가본 건 없고.
@1 아. 다른 동넨 가면 마불림제렌 헨예.
#1 어.
@1 허는데 여긴 안 허는구나.
#1 틀리주게.
@1 예, 예. 맞아예.
#1 어, 어. 가는 사름은 가도 우리 거 가봐도 여녕도 어리고.
@1 (기침) 으, 혹시 삼춘네 그 쉐 질룰 때 백중에 쉐멩질 허거나 영은 안 헤마씨?
#4 아니.
#1 우린 헷수다, 우린.
@1 아, 그건 어떤 식으로 헌 거우꽈?
#1 우린 헨. 어떤 식으로 헤냐면이 나가 이제 시집을 완 보니까 우리 하버, 하르버지가 이제 소를 춤 말을 길롯덴.
@1 어, 어.
#1 초상이. 말을 갈롯는데 그때 우리 작은아버지가 잇고 허난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씨아버지가 허는 말이 백, 말을.
@1 으.
#1 말 허는 게.
@1 으.
#1 백중날은 하르버지 ᄆᆞ쉬 헤나부난 저 떡 헤여근에 저 산에 강 올려야 뒈어. 경헤사 뭐 헤여. 허간 허난. 아, 들은 말은 잇고. 아이고, 어떵 허민 좋고, 야. 우리 훈 번 헤보카? 아방신디. 우리 훈 번 헤보카? 게도 초상이 헤난 거난. 우리 훈 번 허영. 느 헤질탸? 느 떡 헤질탸? 떡 헤지주게.
@1 으.
#1 떡 무신 상웨떡 못 헤여? 경 허난 이젠 상웨떡을 허연, 허연 이만썩, 크게.
@1 으.
#1 크게 허여근에 메허곡 허여근에 노픈 산에 강 올려난 기록은 잇어.
@1 으.
#1 내가.
@1 아.
#1 아, 그건 확실허여.
@1 그건, 그거는 언제 헤십디가?
#1 그 거시기헌 날게.
@1 백중날.
#1 백종날.

@1 백종날예? 예.
#1 그거 헤난 건 나가 직접 헤나기 때문에.
@1 예.
#1 거 아버지가, 하르버지가 굴아부난 허렌은 안 허고.
@1 으.
#1 그런 뭐가. 우리 하르버지, 씨아버, 씨하르버지가 막 물테 헤낫덴.
@1 게난, 물테 허연.
#1 테, 테 테오리.
@1 예.
#1 옛날 뭐 테오리엔 헤냐 뭐냐.
@1 테오리.
#1 으, 그런 뭐가 지금 전설이 잇주게.
@1 예.
#1 우리 씨하르버지는 물테우리 헷다.
@1 예, 예.
#1 그런 뭐가 잇어난. (웃음)
@1 예, 예. 맞아.
#1 그거, 그거 헷어.
@1 여기.
#1 그추룩 헤낫주.
@1 이 종달리는 모래밧도 하잖아예?
#4 어, 모래밧.
@1 여기는 모살찜 같은 건 안 헙니까? 여름에.
#4 으.
#1 모살찜은 안 허고.
@1 여긴 안 허고, 흰모래니까예?
#4 으. 저 염분이 만헤서이 안 뒈어.
@1 아.
#1 그런 뭐가 엇고.
@1 다른 동네에 뭐 물 맞이레 가거나 영은 안 헤마씨?
#4 안 헤, 그거는 옛날 헷주, 이제는 안 헤.
@1 옛날에, 삼춘.
#4 옛날은 서귀포 물 맞이레도 가곡.
@1 어.
#4 할머니덜이.
@1 예.
#4 견디 지금은 그런 거 엇어.
#1 아니게, 무사 성님은 몰랏주만은 우리 어릴 때.
#4 으.
#1 막 어릴 때라게. 혼 열서너너 술에 이제 아이덜영 ᄀᆞ찌, 야, 우리 물 맞이레 가게 허민 그 서느렝이렌 헌 디.

#4 으, 으.
#1 그디 물 맞이레 가난 거 막 알아지주게.
@1 어디?
#1 서느렝이 헌 디가 잇어.
#4 여기, 여기 종달리.
#1 하도, 하도 넘어가민.
@1 예.
#4 종달리 가면은.
#1 개금물, 개금물 뒤에.
#4 이제 으, 으, 뒤에 거기 잇어낫어.
@1 으.
#1 그거, 그거 우리 막 강 돌아가멍 맞고 막 천둥 울민 어퍼지멍 그 물 맞이레 가난 것이 기억나주게.
@1 어, 천둥, 천둥 울면 어퍼졍은에 물 맞아.
#1 우리가 막 어퍼져근에 허민 이젠 노레여근에 헷당 그 물이 착착착착 내려. 경허민 그디서 히엉은에 헤난 거, 어릴 때.
@1 으.
#1 어릴 때 막 하도 개구젱ᄀᆞ찌 놀아 놓니까.
@1 으.
#1 거 이젠.
#4 거, 여유, 여유 잇는 사람덜은 옛날도 쪼꼼 잇는 사름은 서귀포.
@1 예.
#4 천지원에이.
#1 으, 그런 디 가고.
#4 그 물 막이 크잖아.
@1 예.
#4 게서 그디 많이 가낫어.
@1 아.
#4 우리도 가낫어, 옛날에.
@1 어.
#1 성님네 땐 가나도 우린 그런 디꺼진 못 가고.
@1 예.
#4 여유 잇는 사람덜은이 그때는 차비도 엇잖아.
@1 으.
#4 없는 사름은 거난 쪼꼼 여유잇는 사람 가면은 그 물이 아주, 서귀포는 스물네, 막 하루 종일.
@1 네.
#1 팡팡팡팡.
#4 매날 지금도 허주만은이. 그 물은 맞으민 막 시원헤.
@1 으.
#1 거주.

#4 막 우에서 막 내려오니까이.
@1 예.
#4 으, 견디 것도 추워 가지고이.
@1 예, 예.
#4 멧, 멧 시간 못허겟더라.
@1 으, 어디, 어디 물 맞아?
#4 거, 여기도 맞도 여기도 맞고.
@1 아니, 그 물 맞인 데가.
#4 서귀포 천지원에.
@1 천지연에?
#4 으, 으.
@1 어.
#1 그런 디 가낫젠 헴주.
@1 예.
#4 서귀포 천지원은 이제 알아주는 데 아니?
@1 예.
#4 제주도적으로.
@1 맞수다.
#4 에.
@1 그렇게 이제 물 맞이는 거는 이제 여름에.
#1 여름에.
#4 으, 여름에.
@1 보통 백중 전후 헤 갖고 허지예?
#1 경허주게.
#4 어, 유월달에, 음력으로 유월달에.
@1 음력 유월에.
#4 으.
#1 더워 부난 간 거주, 더워 부난.
#4 으, 더워 부난.
#1 똠떼기, 똠떼기 남다 허영 간 거게.
@1 예.
#4 으, 몸도 좋주만은 더우니까.
#1 으.
@1 음력.
#4 게도 뭐 저이 얼마 못 맞아, 추웡.
#1 못 맞아.
@1 추워예? 맞아.
#1 갓덴 말 뿐이주, 얼마 맞지 아녕 오곡.
@1 예. 그다음에 처서 허게 뒈면 뭐 처서에는 검질도 안 난덴 허멍예?
#4 으.
@1 그런 속담 잇지예?

#4 으.
@1 어떤 속담 잇수과?
#4 몰라, 그건.
#1 거 처서라는 건.
@1 으.
#4 처서는 그거는.
#1 이제 조를.
@1 으.
#1 거 우리가 그 유월둘에 유월절 전에 이제 조를 뿌려.
@1 으.
#1 조를 뿌리민 거 체서에 그 전에 검질 다 메고, 처서는 기자 그 조를 핀다 헤서.
@1 으.
#1 조가 나와. 요만이 메쪽메쪽메쪽 나와. 에고 처서에 조 폇저이.
#4 우린 그런 거 생각 안 헹 살아부난 몰라.
@1 예, 저.
#1 그런 말 들언.
@1 예, 처서에 조가 펜 거라예?
#1 조를 피엇다. 피어 감다.
@1 으.
#1 에구, 조 피어 감저야. 아이구야, 고구리 숙엿저이.
@1 으, 고구리 숙엿저, 어.
#1 에, 경.
@1 맞아예?
#1 어. 그렇게 이제 이얘기를 우리가 허면서 이제 어릴 때.
@2 예, 예.
#1 그렇게 이제 워낙 우린 어릴 때 농사만 그냥.
@1 으.
#1 어려도 농사 밧디 어멍이영 언니들은 뚜로 앗아근에 그냥 헤나부난 그런 기억이.
#4 거 조 불릴 때는이.
@1 으.
#4 유월달인데 너무 더워.
@1 으.
#4 그 김메레 가, 검질 이제 제주도 검질메는 거 너무 더워 가지고이.
#1 메지 못허여.
#4 죽지 아녀민 살기라.
#1 게.
@1 으.
#4 너무 더워, 으.
#1 경헤.
@1 맞아, 옛날 어른덜은 그렇게 허멍 일헨예?
#4 그 좁쏠 그거 아녀민 밥을 못 먹고이.

@1 으.
#4 거 그거 헤다가 이제 또 겨울에 보리 갈 때는이 관차녀.
@1 으.
#4 조 볼릴 때는 너무 고셍헨.
@1 아, 조 볼릴 때가.
#4 으.
#1 조 볼린 땐 하도 더워 놓니까.
#4 나 그거 솎아줘야 그건 농사가 뒈주게.
#1 어.
@1 예.
#4 것도 씨 뿌렷다고 뒈는 것이 아니라. 것도 간격이 요만큼 뒈야 뒈고. 요만큼 뒈야 허는 건디.
#1 게고 그.
#4 안 가지도 못허곡 막 으, 가렌 허곡.
@1 으.
#1 조를 볼려 놓면.
@1 으
#1 씨가 요만씩 헹 꼭 이제 요만씩 헤가면은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도 지치니까.
@1 으, 으.
#1 노래를 불르면서 어떤 노래를 불러왓느냐, 허면.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앞멍에야 들어오라.
@1, 2 으.
#1 뒷멍엔 나고 가라. 이렇게 허면서 그 노래를 그 지친 몸 말이지 이렇게 허면서 불러왓다는 거라.
@1 예. 혹시 삼춘 그 노래 불러지쿠과?
#1 어, 쪼곰 불러져.
#4 불러. 불러.
@1 어, 쪼꼼 불러봅서. 거 사대렌 허지 안헤여?
#1 어, 사대.
@1 예.
#1 제기 제기 헤 지크라? (모두 웃음)
#4 아, 불르민 뒈주게. 앞멍에야 들어오라.
#1 앞멍에야 들어나 오라, 뒷멍엘랑 나고나 가라. 우리 어멍 날 날 적에 무슨 날에 나를 나아 놓고. 둘도 헤도 없는 날에 요 조팟디 앚앙 요 검질메렌.(모두 박수)
#4 그렇지, 이거는.
@1 으.
#4 이제 노래 불르는 것도 좋지만 뜻을 알아야 뒈어.
@1, 2 예.
#4 왜냐하면은이.
#1 노래를 불럿단 말.
#4 이제 그 김메면서이.

#1 불럿다는 거.
#4 너무 더웁고이.
@1 으.
#1 지쳔.
#4 막 고셍허고 허니까이 하소연허는 거.
#1 어. 그거, 그거.
#4 게난 우리가 김을 영 메면은.
#1 어.
#4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앞멍에엔 허고.
#1 게난에.
#4 또 뒤로 허는 건 뒷멍에엔 허주게.
#1 이렇게, 이렇게 허는 거.
#4 게난이 이제 어머니 아버지한테 하소연을 못 허고.
#1 (웃음).
#4 나가 무신 날에 난.
#1 어.
#4 이런 이 더운 데서 이 고셍허멍이.
#1 그렇게 헷덴, 어르신덜.
#4 게난 자기가 이제 막 속이 상허니까 이 노래가 나온 거라.
@1 예.
#1 어, 어릴 때, 어릴 때.
#4 어린 때.
@1 겡 한탄들, 다 신세 한탄들 허멍예?
#1 어, 어, 어, 어.
#4 으.
#1 그렇게 헤서 우리.
#4 게난이.
#1 이제 부업허는 거.
#4 우리는이, 나가 삼십칠 년이난 지금 이제 팔십다섯인디.
@1 예.
#4 우리 세대는 이제 저 학교를 초등학교 헷어.
#1 어.
#4 견디이 그 옛날에는이 돈이, 야네도 막 부제곡 다 돈덜 막 잇어도이 거 일을 시킬랴고 이 학교 안 시키는 어멍, 아버지가 잇엇어, 옛날에.
@1 예, 게난.
#4 없어서 아녀는 건 아니.
#1 어, 어, 어 어.
#4 일 밧데 가서이 이제 그 앞멩에야 들어오라 허는 그런 일 시키져, 뭐 이거.
#1 애기볼락.
#4 으.
#1 애기볼락.

#4 따시 어디. 그 옛날에는 아궁이 헤근에이 불 때근에이 방을 뜨겁, 뜨겁게 허면은 그 나무허레.
@1 으.
#4 그런 거 다 시킬랴고이 이제 학교를 안 시키는 거라.
@1 예.
#1 역불로 안 시켜.
#4 게난 이제 우리가 동창도 종달이 멧 사름 없어.
@1 으.
#4 학교 안 시기니까.
#1 일 회.
#4 으.
#1 제주도 여기 종달리 일 회.
@1 아.
#4 난 일 회.
#1 어, 일 회.
@1 예, 아이고, 게니까 이.
#1 야넨 다 초등학교 나왓지만은 야넨 막 우리 앞에 막 후배.
#1 난 초등헥교 안 나완.
@1 후배니까.
#4 후배고.
@1 예.
#1 막 게난 일 회.
#4 난 일 회 졸업생.
#1 으.
#4 그때 일 회는 여자들은 멧 명 엇어시크라예?
#4 멧 명 엇어, 한 오 명인가.
@1 으.
#4 오 명인가 육 명벳기 없엇어.
#1 으.
#4 학교를 안 시켜.
#1 잘허민 경헤도 흔 이십오 명은 뎅겨실 거우다. 근때, 남저 여자 합쳥.
#4 으, 남저 여자 이십 오. 남저덜은 많주, 견디.
#1 첫, 첫, 첫 번 시작허연, 첫 번 시작.
#4 게난이 일 시킬랴고.
@1 일 시킬랴고예?
#4 으.
#1 일 회 졸업생.
#4 게난 돈이 없어서 안 시긴 게 아니고 일 시길랴고.
#1 으.
#4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1 일 시킬라고.

#4 게난 냉중엔 후회헷주게, 이제.

#1 아이고, 후회만 헷수과게, 베와나시민 어떵.

#4 게도이 이 나도 노인장에 할머니들 흔 사십 명, 오십 명 거느려근에 이제 오늘도 이제 무신 급식헤당 멕일 건디 핸드폰을 이제 소리나민 받곡.

@1 으.

#4 이젠 나한티 핸드폰을 필요허민 헤주는 거 몰라.

@1 으.

#4 게난 소리 떼끄릉께 나면은 누게고 헹 받곡. 나한티 전화 헙센 허민 못허여.

#1 어.

#4 글 몰르니까.

#1 글을 몰르니까.

@1 예.

#4 그렇게 할머니들 살아.

@1 예.

#1 게난, 게도 다 이거 핸드폰은 가져, 가지민 전화번호 멧 번이우꽈? 몰라.

@1, 2 으.

#1 어머니네 이 성님네 또랜 몰르주게.

@1 예, 예.

#4 몰, 몰라.

#1 몰른 사름 하영 살암주게. 안 베워 놓니까.

@1 아, 맞수다. 자, 경허고.

@2 삼춘 그때 백중 때, 바당에 강 힌 거 잇수게.

#1 어, 어, 어, 어.

@2 그거 굴아줍서, 어떵 헹 헤신디.

#4 야읜 바당에 열심히 헷주, 우리보단.

#1 (웃음). 아니 열심이 어릴 때에 그거 놀앗다는 거, 그거주게.

@2 예.

@1 으. 그거 굴아 봅서. 백중에 강 바다에 강 논 거.

#1 백중에, 백중에 어떵 헹 놀아신고 허민. 공부도 어머니네 때문에 공부도 졸바로 아녀곡 허니깐 그냥 으, 어린 아이, 우리가 또래가 그냥 흔 여남은 잇어 놓니까. 막 아주 재미져. 게민 요 앞이 ᄃᆞ리 에염에 물이 솜빡 들곡 둘은 훤허게 비치민 우리 바당에 강 히카이? ᄒᆞ쏠 더웁지 아녕 막 서누룽헤도.

@1 으.

#1 우리 히레 가겐. 막 그냥 히멍덜 막 영영영영 허당 보민 물은 요만이 허여.

@1 으.

#1 아 게민 얼민 나오랑 옷덜 멘딱 벗엉 담고냥에 다 찔러근엥 이젠 히당 보민 읖잇 하르방이 기냥 나왕 웨는 소리에, 그때 누구냐허민 ○○이 아방.(전화벨 소리)

@2 (웃음).

#1 ○○이 아방엔 헌 하르방이 나왕. 너네덜 다 나와, 허민 우린 아고게 어떵 허민 좋고헹 나가. 줄줄줄 사민. 어, 너네덜 이 밤이, 저, 물왓디엔 헌 건 엉 아니우꽈게, 엉에. 그디 강 히지 왜 꼭 우리 앞이서만 히느냐, 어? 경허민 우린 주적주적 영 사근엥 욕헤가민 주적주적 삿

당은에 그추룩허멍 히민 훈 오 일간.
@1 으.
#1 그 백중 떠나 비어도 그 달이 이시니까.
@1 으.
#1 그냥 히곡.
@1 으.
#1 그땐 물이 너무 좋아. 막 그냥 물이 솜빡 들어오니까 그거.
@1 으.
#1 그거, 그런 거.
@1 으, 백중에 가면.
#4 겐디 그때는 그 당시에는이.
@1 예.
#4 백중에 우리가 이디 앚는데.
@1 으.
#4 이디 물이 들어와나서.
@1 으.
#4 이거, 이거, 이거.
@1 으.
#4 매립헤 가지고.
#1 이 자리.
#4 이거 동사무소 지은 거난. 백중에 우리가 그때가 훈 열두 술엔가 열세 술에 쯤에이.
#1 어, 어, 어.
#4 백중에 이제 물이 들어오니까 밤에는 막 야의 말적 아니라도 달도 허곡 물이 막 궨찮여, 이 자리가 이제.
@1 으.
#4 이제 옷 다 벗엉이.
#1 어.
#4 빤스도 안 입곡.
#1 어, 막.
@2 (웃음).
#4 이제 히면은 몸이 좋덴.
@1 으.
#1 거 똠뚜데기가 낫인덴.
#4 그때는 뭐 피부에 무신.
#1 어.
#4 허물 ᄀᆞ뜬 거 나도 그 여기 왕 히민 좋다, 좋다 헤근에.
#1 짜다 헤서, 바닷물이 짜다 헤서.
#4 게난 게허고이.
@1 으.
#4 또 야의도 알다실피이 여기서 그때민 한 사 한 오백 메다쯤 거리가 잇어. 경허면은이 옷을이 그때는 고무옷 엇일 때.

#1 어.
#4 이제 이 속곳을이 이젠 머리에다 영 잉영.
#1 잉영.
#4 이젠 뭣이 그 아무것도 안 입엉, 빤스도 안 입고 그거 내의를 이젠 대가리 이렇게 헤서 졸라메근에 그 섬에 히어 가는 거라.
@1 으.
#4 히어가민 그디 가민 이젠 다 가민 이젠 옷을 젖이민 추우니까.
@1 으.
#4 이젠 대가리에 잉이니까이 옷을 안 젖을 거 아니. 고개는 이만큼 허면.
@1 으.
#4 겡 히어가. 그 몸여 히어갈 때게.
#1 어, 소라 잡아.
#4 대가리, 으.
#1 소라 잡아.
@1 으.
#4 이제 저 넌 옷 허고 밑엣 거 허곡 이젠 이렇게 대가리에 영 졸라메근에 그 여에 히어가근에 갈아입으민이 옷도 안 입곡 ᄒᆞ꼼 뚯아.
#1 으.
#4 이제 경 헹 그렇게 우리 열 훈 열다섯에.
#1 ** 어린 때.
#4 주로 경헤 낫수다.
#1 예, 예. 맞아.
#4 이제 그렇게 헤서이 이렇게 허멍은에 영헤근에 이제.
#1 무꺼.
@2 무꺼근에. (웃음)
#1 게 테왁도 안 허고, 그자.
@1 어.
#1 허우작허우작허우작허우작 바다드레.
@1 어.
#1 허우작허우작. 어떵어떵 히어 강 경헨에 그디 강.
#4 경 그 섬에 가민이 고동도 잇곡 뭐 뭣도 잇고 뭣도 잇고 전복 새끼덜토 잇고.
@2 어.
#4 겡 많이 헹 와.
#1 그렇게 따와 낫주게.
#4 으, 경허는디 이제 그렇게이 저 허멍 살앗어.
@1 으, 게 백중 ᄀᆞ리에 것도?
#4 어.
#1 백중 ᄀᆞ리곡 이제 꼭 ** 가고 싶다 허면은.
#4 게난 백중 넘으면은이.
@1 으.
#4 여기선 이제 백중 전에는 고동이나 보말 잇잖아이. 그런 것들 살지는디, 백중 넘으민 줄

어.
@1 아.
#4 어. 살이 딱 빠져비여.
@1 살이 백중 넘으믄 빠져예?
#4 어.
@1 예.
#4 백중 전에는 허는디, 백중 넘으면은이 먹을 것이 벼랑 없어.
@1 경헤근에 이제 백중 칠월, 음력 칠월 지나고.
#1 어, 지나고.

팔월

벌초

@1 팔월 허면은 이제 벌초, 옛날 소분들.
#4 으, 으. 팔월.
@1 팔월 초ᄒᆞ루에.
#4 팔월달 나면은이.
@1 예.
#4 으, 그 팔월 보름 전에 그 추석 전에이.
@1 예.
#4 다 벌초 허잖아. 경헌디 추석 넘엉은 아, 그 가족 엇인 사름이나 헷주, 이제 팔월[팔뤌] 추석 전에 다 벌초 다 허여.
#1 끗나. 끗나.
@1 벌초 다 허고예?
#4 으, 으.
@1 벌초는 어떤 식으로 헤마씨?
#4 벌초는 뭐 우리도 이제 자식덜이 다 서울 사니까.
@1 으.
#4 나가 날을 받아. 으, 가네들은게 다 직장 잇기 따문에 토요일허고 일요일날밖에 노는 날이 없잖아이. 게믄 금요일날 저녁에 오렌 허여.
@1 으.
#4 헤근에 와근에 토요일날 허고 일요일날 헤근에 일요일날 저녁엔 올라가는 거.
@1 으.
#4 그렇게 뒌 거.
@1 그거는 요즘 벌초고. 옛날엔들은 어떵헤마씨? 옛날에 그 가지벌초도 허고.
#1 어, 가지벌초 허여.
#4 으, 으.
#1 문종, 문종.
@1 문종벌초도 허고.
#4 으, 문종.
#1 문종이라는 것이 즉 집안에.

#4 어, 어.
#1 하튼 이제.
@1 예.
#4 문종은 야네도 가족장 좋안게.
#1 으.
#4 이렇게 가족장 헤 가지고이.
#1 흔디 모영.
#4 허는 사름 잇고.
#1 모영.
#4 가족장이 돈 없어서 엇이민 요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1 어, 각자.
#4 허면은 이제 저 아이덜이 이제 우리가 이실 때 정리를 딱 헤근에 하나 공동묘지 헤가지고 딱 이제 열이믄 열, 스물이믄 묻어줘야 뒈는디 돈 없은 사름들은이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 뭐 성읍리도 하나 손당도 하나이. 그렇게 헤근에 허는 사름도 많아.
#1 어.
@1 으.
#4 게고 또 우리 아이들은 다 서울 사니까이.
@1 예.
#4 이제 서울서 또 내려왕 허곡.
@1 으, 삼춘네는 어떤 식으로 벌초허여?
#4 야넨 가족장.
#1 우리도 이제 그런 식으로 그냥.
@1 으.
#4 가족장 허니까이 그 문중에서 다 남저들 나가근에.
#1 남자들 허고 이녁 각자로.
@1 으.
#1 이제 이녁네 거, 그 만약에 하루에 허질 못허니까.
@1 예.
#4 ᄒᆞ루는 이제 문종 소분 ᄯᅳ르 이제, 어, ᄒᆞᄊᆞᆯ 오랜 그 저 가지 먼 ᄒᆞᆫ 이십 촌 먼저 하르버지 쭉 내려왓잖아요.
@1 예.
#1 ᄂᆞ려오민 거 ᄂᆞ려온 이제 가족끼리 헤고, 또 자기만, 자기들만 또 허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 이제 가차운 건 이녁, 또 우리 가족만 기자 신랑허고 우리만도 허고 아들 데리곡 허는 것도 잇고.
@1 으.
#1 각자. 두 번.
@1 그건 가진벌초렌 허는 거?
#1 으, 가지벌초옌 허고 저 같이.
@1 같이 허는 거는 문종벌초.
#1 문종벌초.
@1 예.

#1 문종, 가뜬 문종이다 헹 걸 벌초. 흔디 모이는 날이 잇어.

@1 예.

#1 칠 저, 팔월 초ᄒᆞ루민 초ᄒᆞ루다 허영은에 우리 그날랑 헙시다 허민 또 그날 이제 못허민 또 다른 날로 정헤근엥 또 허곡. 그날 나머진 이젠 다문 아버지 산, 당 하르버지, 하르버지 산, 이런 산은 또 이녁 각자로.

@1 으.

#1 이제 우리 가족끼리도 허곡.

@1 예.

#1 그추룩헤.

@2 벌초헐 때 제물도 헹 갑니까?

#1 제물은 이제, 우리는 나는 이제 그때 워낙, 이제 그런 아버지, 이 씨집완 보니까 이 시부모들이 워낙 못살고 허니까 그런 법은 엇고. 지금 현재 아들들은 올 때 빵도 사 오곡 이제 또 과일도 상 오고 이제 어머니 이추룩 헴수다 허곡. 또 다른 집안엔 이제 막 음식헤근에 올령 허는 것도 닮곡.

@1 으.

#1 여러 가지주게.

@2 삼춘넨 안 헷구나예?

#1 으, 나는 안 헤보고.

@2 으.

#1 아들들만 왕 이젠 현재 뭐 메누리영 왕 첨 떡도 상 오곡 음료수도 상 오곡 술도 상 오고 허영.

@3 다른 집에 보면은 제사 안 하는 조상묘는 음식 출령 강 하고 제사하는 데는 그냥 간단하게 하고 그렇게도.

#4 으, 으. 그렇게 헐 수도 잇어.

@1 으, 게난 제사 안 허민 미안하니까.

#1 미안하니까.

#4 으, 그렇게 헐 수도 잇어.

@1 예, 그런 식으로 헤근에 이제 벌초허곡, 혹시 옛날에 그 팔월 멩질 전에 벌초 안 허면 조상들이 뭐 썽은에 온덴 이런 말들?

#4 아니, 아니.

@1 건 아니?

#4 나가, 나가 생각헐 때 벌초를 예를 들엉 안 허면은 나가 그런 말헹 아이덜 웃는디.

@1 으.

#4 벌초를 이제 아년다이. 가족이 없어 아녀면은 겨울에 뚯잖아, 벌초 아녀니까이.

@1 예.

#4 또 여름엔 또 그것이 이제 그늘치니까 시원헤여. 게난 벌초 안 헤도 좋다. (모두 웃음) 그렇게.

@2 신식인데.

#4 경 안 허나게? 여름에는 시원허고 겨울에는 뚯잖아.

#1 그건 말로 멘든 거주게.

#4 으.

@1 예.
#4 견디 대강 보면은이.
@1 예.
#4 거 벌초 아녀는 그 이제 미국을 가던 어디 먼 디 가서 아녀는 사람 잇잖아. 한국에 이제 가족이 없으니까이. 허면이 대강 그런 벌초 아년 산이 잘살아. (모두 웃음)
@2 맨날 벌초 안 허니까.
#4 벌초 잘헌다고 잘사는 거 아니.
@1 예, 알앗수다.
#4 겐디 나는이, 나가 생각인디 우리 아이덜한티 유언헷어. 나가 이제 죽나이, 죽으면은 절대 술지 말렌.
@2 아.
#4 그대로, 그대로 묻어주라.
@2 아.
#4 술지마.
@2 아.
#4 경헷주켄.
#1 이젠 법으로 다 술암주, 미신.
#4 겨난 이젠이.
@1 무사 술지 말렌 헴수과?
#1 저.
#4 으, 게난에 이제 헤줄지 안헤줄지 유언을, 유언은 헷어.
@1 으.
#4 게난 모르주.
#1 땅도 잇고.
@1 예. 유언은 지킬 거우다게.
#1 땅도 이시곡.
@1 예, 이시난예?
#4 땅도 이시난에게. 자기 땅 이시니까.
#1 땅이 이시난게, 땅이.
@1 경허고 이제 구월에는 여기는 당에들 이제 잘 안 가니까, 삼춘네는. 으, 구월에, 음력 구월에는.
@2 팔월 멩질 안 헤신디.
#4 당에? 아니.
@1 아고, 가장 중요헌 거 안 헷수다게.
@2 팔월 멩질 안 헤둰 구월 가불엇수다게. (웃음).

팔월 멩질

@1 게, 팔월 멩질. 우리 그 멩질 중에 그 설허고예, 정월 멩질허고 팔월 멩질이 젤 크잖아예.
#4 으. 두 번.
@1 팔월 멩질 허젠 허민 준비는 어떵헨마씨?

#4 아, 팔월 멩질. 정월 멩질?
@1 예.
#4 꼭ᄀᆞ치 허주.

멩질 준비

@1 게난 팔월 멩질 준비헤 봅서, 삼춘. 어떤 식으로, 메칠 전부터 준비허고.
#4 아, 이제는이 다 맞추와서 허는 거라. 집에서 허는 사름 잇주만은이 다 마트에 강이.
@1 으.
#4 뭐 다 헤오기 때문에이 이 제ᄉᆞ, 멩질허는 것도 막 힘들진 아녀.
@2 옛날 헤난 말.
#4 이제 낼 이제 기다 허면은 오늘 강 맞촷당은에이 가져오곡.
@1 으.
#4 다 가져당 허기난, 집에서 옛날ᄀᆞ치. 이제 콩ᄂᆞ물 ᄀᆞ뜬 거 고사리 거뜬 거이 그런 거 적 거뜬 거 그런 것만 허주. 그 다 맞춰서 떡집에서 다 맞춰은에.
@1 게난 삼춘네는 팔월 멩질에 이제 허잖아, 집에서예? 멩질을.
#4 아, 나는이 아녀잖아.
@1 아, 삼춘넨 안 허여?
#4 어. 아덜덜 잇기 때문에.
@1 아, 서울로 다 보내버렷수과?
#4 으, 서울 가 부니까이.
@1 으, 아, 기구나게.
#4 야, 야의.
@1 우리 삼춘은 팔월 멩질?
#4 야의가 허주, 야의가 그건 잘 알주.
@1 예. 팔월 멩질 준비허는 것부떠.
#1 삼춘은이.
@1 으.
#1 팔월 멩질만 돌아와 가믄이.
@1 예.
#1 닷새 앞서 아이고, 장을 봐야주게, 어떵 허코 영 허여이.
@1 예.
#1 걱정이 벌써, 생각이. 아이고, 제숙을 사와야 뒐 거이, 뭣도 헤야 뒐 거 허고. 이제 요새 ᄒᆞᆫ 삼 년은 이제 남으 떡을, 이제 만든 떡을 사완에 지냇는데, 그 전에는 자기 냥으로 ᄆᆞᆯ앙.
@1 으.
#1 (벨소리) 그 탁베기에다가 우유다가이 그렇게 이제 밀가루에다가 말아 가지고 이제 떡을 요 정도로 올리게 좋게시리 허고. 자기 우리 또 너무 뭐 허민 이제 요만썩 헤서 이제 먹을 거, 그렇게 헤서 떡을 이제 허고. 상웨떡도 이제 어떤 식으로 허냐면 두 가지.
@1 으.
#4 지름떡, 동글동글헤당 만들어.
@1 예.
#1 만들어가지고 피와 가지고 이제 떡을 이제 헤낫주게.

@1 으.
#1 게난 그 상웨떡을 내가 만든 것이 훈 사십 년.
@1 예.
#1 내 손으로.
@1 게믄예, 삼춘, 상웨떡 사십 년 만들엇덴 허난.
#1 으.
@1 상웨떡을.
#4 으.
@1 한번 만들어 봅서. 이 준비허는 거부떠.
#1 준비허는 건.
@1 밀ᄀᆞ루부떠 상, 으.
#1 밀ᄀᆞ루부떠 어떵 허느냐 허면이.
@1 예.
#1 쳇 번은 뭐냐 허면은이 가루를 이제 놓을 거 아니? 우유 헤다 놩 썩썩허게이.
@1 으.
#1 그 냉장고에 변허카부덴 썩썩허게 헹 놓고 저 파구다.
@1 으.
#1 약 쪼끔.
@1 으.
#1 사 가지고 허곡. 또 이제 탁베기.
@1 으.
#1 탁베기 놓고 이제 ᄯᅳᆺ헌 디 놔 가지고 이제 멘도롱 ᄯᅳᆺ헤 가지고 저거 ᄀᆞ찌 젓어가지고 이제 알맞게시리 다 그릇에 놔 가지고 이제 게민 요걸 요렇게 영 헤봐. 너무 딱딱허게 헤, 저 말아져신가, 흘랑허게 물아져신가 이렇게 생각헹 영영 저, 요것도 팔월 나가민 좀 추워.
@1 예.
#1 날이, 뜨시지 아녀고. 이불을 푹 더껑. 이불을 푹 더끄민 그놈이 영 올라와.
@1 으.
#1 그 떡이 피와 가지고.
@1 으.
#1 힘으로 이제 그 떡 힘으로.
@1 부풀어예.
#1 부풀면은 글로부떤 막 이제 막 미는 거야.
@1 으, 달롸.
#1 막 달롸. 삭삭삭삭삭삭. 나는 어릴 때에 그 제사를 헤낫기 때문에 간단헤여.
@1 으.
#1 걸 막 어룹게 생각헹 아이구, 이걸 어떵 허코 헌디. 어릴 때 열네 살부떠 제사를 헤낫기 때문에 이건 뭐 그냥 간단허게 그냥.
@1 예.
#1 그냥 막 막 밀어 가지고.
@1 달롸.
#4 달롸.

#1 달롸 가지고 달롸 가지고 멘짝허게 밀어 놩 돔베에다가 싹 놓고. 어, 그 미는 걸로 싹 밀어 가지고 이제 딱딱허고. 또 지름떡은 이제 그 짤르는 그.

@1 으.

#1 그 영 양철 닮은 걸로 딱딱 짤라 가지고 이제 그렇게 헤서 바드레로 쪄 가지고 허면 북삭허게 올라와.

@1 으.

#1 그렇게 헤서 또 요 놈도 또 익엇는가 안 익엇는가 확인헐 땐 손으로 딱 뒤집어 봐. 물적졍 딱허면은 그것이 설면은 밀랑허게 들어가고.

@2 예.

#1 이 떡이 빵빵허게 잘 익엇다 허면 기냥.

@4 아.

#1 손가락 건드려도.

#4 건디 그.

@1 아, 물로 헤 갖고 이렇게예?

#1 손을 뜨거우카 부덴.

@1 으.

#4 건디 그것이.

@1 예.

#4 집에서 그렇게 헌 것이 맛잇주게.

@1 예.

#1 그렇게 헤서 이제.

#4 사오는 것보다, 팔기도 허주만은이.

@1 으.

#4 집이서 헌 것이 맛잇고 또 가급적이민 집이서이.

#1 어.

#4 그렇게 헌 것이 성의가 좋은[존] 거주게이.

@1 맞아.

#1 그렇게 헤서.

#4 자기도 자기 손으로 만드니까 으, 겨난.

#1 경허영 이제 조개셍펜도 만들고.

@1 으.

#4 으.

#1 또 이제 팔월[팔뤌]은 나민 묵도.

@1 으.

#1 밀가루에 으, 밀가루에. 그전에는 이제 이 우리가 시월돌부떠 시작헤근에 메밀가루 나올 땐.

@1 예.

#1 겨울 메밀가룬 자기가 쑤고. 팔월은 나민 ᄉᆞ락지게 메밀 허민 는달는달허니까 음식이.

@1 예.

#1 이제 안 좋[조]니까. 이젠 빈철에다가 딱 그 밀가루를 지어 가지고 이만썩 짤라 가지고. 게난 제사라는 건 내가 훈 열네 술부떠 어머니가 육지 다녀 가지고 이제 그 살아온 길이 간단

허게 생각헤여. 고사리고 뭐고 뭐 못허는 것이 엇이 착착착착 그냥 다 헤내는 거야, 나가.
@1 예. 고사리는 어떤 식으로 장만허여?
#1 고사리는 쪼끔 물커근에 깨끗이 물컷당.
@1 으.
#1 이 고사리라는 것은 또 어쩌면 그 빨간 물이 독이 잘 나오더라고.
@1 으.
#1 게민 삶다가 한번 딱 그 꺼꺼와 가지고 깨끗이 시쳐 가지고 삶으민 영 문직아봥 ᄒᆞ쏠 물랑허게 숢아사주, 딱딱허민 그냥 또 딱딱헤여.
@1 으.
#1 게민 어느 정도 너무 딱, 너무 흐려도 안 뒈고 너무 딱딱헤도 안 뒈고 적당히 숢앙 이제 널어근에 또 다음에 또 허젠 허민 또 숢젠 허민 깨끗이 시쳥 또 이제 그걸 삶아 놩 삶다가 영 보민 물이, 물이 불그룽허민 그 물 버려두고.
@1 으.
#1 또 물 놩.
@1 으.
#1 또 ᄊᆞᆷ앙 그축헤서 적당히 숢앙 물컷당은에 고사리 보끄고, 그렇게 허는 거.
@1 으.
#4 고사리는이 우리가 쪼꼼 우리가 산에 올라가민 고사리가 나.
@1 으
#4 게도 나도 이제 아이덜한테는이.
#1 어.
#4 고사리 꺼꺼 가지고 야의 아까 이얘기허듯이 다 삶아근에 그렇게 말려 가지고.
#1 으.
#4 서울로 보내여.
@1 음.
#4 게민 그 아이덜이 그런 거는 걱정 아녀도 뒈주게.
@1 예.
#4 내가 스스로 강 고사리 꺼꺼다가 집에서 삶아 가지고 말려근에 서울로 이제 부찌는 거라. 택배로이.
@1 으.
#4 게민 이제 멧, 멧 년 동안.
#1 고사린 누구나 다 고사린.
@1 요즘도 고사리 보내고예?
#4 예.
@1 으.
#4 쪼꼼이 올라가민 산이 잇어.
@1 예.
#4 고사리 꺼끄는.
#1 꺼끄는. 경 헷주게, 경. 그거.
@1 그다음에 그 콩ᄂᆞ물. 여기는 콩주름이엔 헷수과? 옛날에.
#4 어?

#1 콩ᄂᆞ물.
@1 콩ᄂᆞ물.
#1 어.
@1 콩ᄂᆞ물도 집에서 놔 봔?
#1 어, 콩ᄂᆞ물 놔 봣주게. 어릴 때.
@1 예.
#1 놓면은 이 콩ᄂᆞ물, 잘 뒈질 안허여.
@1 아.
#1 왜냐허면은.
#4 어떠.
#1 꼬불꼬불꼬불헤서 이제, 이제 왜냐허면은, 우리 어머니네가 우리 어머니 어릴 때 보면은 요만헌 그 사기그릇에 콩ᄂᆞ물을 이제 물컷다가 영 놓앙은에 허영 저 그 새를, 새를.
@1 으.
#1 이제 영 뒈와다가 그레 탁 더꺼 가지고 우이 그 포장을 탁 더꺼근에 이제 물을 주면은 이 거꾸로, 거꾸로 이제, 그릇을 거꾸로 허면은 물 잘잘헷당 영 보면은 ᄒᆞᆫ 십, ᄒᆞᆫ 열흘쯤 뒈가민 콩이 잘 뒈질 아녀.
@1 으.
#1 겐 어머니 허단 것에 나도 에이 요걸 나가 이제 ᄒᆞᆫ 번 어머니 헷단 거 ᄒᆞᆫ 번 헤보주. 콩을 많이 허니까, 우린.
@1 예.
#1 기냥.
#4 거 독거노인 나가 혼자 사니까 독거노인인디 거 콩ᄂᆞ물 ᄀᆞ뜬 거이 키우렌이.
#1 어.
#4 뭐 공부 ᄀᆞ뜬 거 헙센 헤근에 그런 것들 그 허는 아이가 잇어.
@1 어.
#4 겐디 콩ᄂᆞ물 키우는 거 갖다줘도이 크긴 커.
@1 으.
#4 경헤도이.
#1 잘 뒈진 안헙디다, 잘 안 뒈어.
#4 으, 으. 그거 헤근에 기자 멧 번이.
#1 어.
#4 것도 사진 다 찍은 것이.
@2 (웃음).
#4 콩ᄂᆞ물 키우는 거민이.
@1 어.
#4 가의도 실적 올릴랴고.
#1 어, 어, 어.
@2 (웃음).
#4 이제 그거 사진찍어 가민이 아이고 삼춘, 잘 키왓수다, 헹은에 또 자기도 실적 올리는 거 아니? 겐디 그것이 잘 안 뒈더라고.
@1 잘 안 뒈.(웃음)

#1 게난 난 이젠 콩ᄂᆞ물항 장에 가민 뭐 쑥쑥 빠 가지고 말이지.

@1 으.

#1 아이고야, 이 콩은 어떻게 약으로 어떻게 이걸 헴주, 우리가 기술로는 도저히 생각 아녀고, 나는 콩을 워낙 많이 올리도 콩을 많이 헷주.

@1 예.

#1 삼천 평 농사지녜.

@1, 2 아.

#1 지금 뭐허고 잇주만은, 나가 콩을 자꾸 연, 연구를 생각헤여.

@1 으.

#1 어떤 연굴 허면은 이 콩을, 이 콩을 우리가 그릇에 길르는 것보다 내가 요 흙에다가 구뎅이를 파서 요놈을 산디칩을 물 적정 놔 가지고 콩을 뿌려서 요걸 포따리를 더꺼서 욮이는 이제 그 뭘로 헤가지고 요걸 허면은 얼먹게 이 콩을 얼만을 크고 잇느냐, 자꾸 연구 생각을 헤져게.

@1 예.

#1 헤 보진 못헤도.

@1 으.

#4 (웃음)

#1 요 콩이라는 게 요건 하여간 묘허다, 으. 왜 우리가 키우는 콩은 안 뒈고. 으, 업자가 키우는 콩은 뒈느냐, 이제 지금 경 생각허여.

@1 예.

#1 어, 지금도 경 생각허고.

@1 경 생각허고.

#1 어.

@1 이 창의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 (모두 웃음)

#1 어.

멩질떡

@1 게 팔월 멩질에 허게 뒈면 삼춘 아까 그 상웨떡도 이렇게 네모난 것도 한덴 헷잖아예?

#1 어, 어, 어, 어.

#4 어, 네모, 어.

@1 이거는 무신 상웨 헙니까?

#1 어, 이름이?

@1 예.

#4 상웨떡.

#1 기냥 이름이 상웨떡이주.

#4 이름이 상웨떡이주.

#1 똔 이름은.

#4 없어. 상웨떡이주.

#1 생각허는 건 엇어.

@1 다른 덴 가난 빗상웨렌 헨게마는.

#1 몰라. 건 자기 냥으로 빗상웨 올리는 상웨 허주만은 우리 어머니네 곧던 말은 그자 상

웨떡.
@1 상웨떡.
#1 어.
@1 이렇게도 만들고 동글랑허게도 만들고.
#1 어, 동글랑헌 거는.
#4 상웨떡 허는디.
#1 빵, 빵.
@1 빵.
#4 어.
#1 거 동그랑헌 건 빵, 이름이 빵.
@1 아, 이 동그랑헌 거는 빵이렌 허고.
#1 빵 이름이라 허고.
@1 네모, 이렇게 직사각형헌 것은.
#4 상웨떡이엔 헤야 뒌다게.
#1 기냥 상웨떡.
@1 상웨떡예?
#4 으, 상웨떡.
#1 단순히 이름이 상웨떡.
@1 으.
#1 그것만 들엇주, 다른 것에 뭐 요 헌 건 들어본 역사가 엇고.
#4 건 건 상웨떡인디 것도 만드는 과정에 읏라 가지라.
@1 으.
#4 동글랑허게시리 만들 수도 잇고.
#1 어, 빵도 만들 수 잇고.
#4 또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 수도 잇고.
@1 어.
#4 또 아니면은 영 질게이.
#1 어.
#4 이렇게 질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이.
@1 설귀떡 모냥으로.
#4 거믄 제에 올리는 거이.
@1 예.
#4 게난 상웨떡도이 한 가지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1 어, 어.
#4 여러 가지주.
@1 예, 예.
#4 이렇게 질게 만드는 거. 이렇게 동글랑허게 만드는 거,
#1 잔잔헌 건.
#4 이렇게 네모나게 만드는 거.
#1 잔잔허게 먹기 좋게, 그 잔잔헌 건 먹지 좋게 허고. 끊엉 먹지 아녕 영 잔잔허게 먹기 위헤서 우리가 영 조막조막.

@1 하는구나.
#1 어, 그런.
@1 그 상 위에 올리는 거는.
#1 질게 허곡.
@1 질게 허곡.
#4 어, 질게, 질게.
@1 아.
#1 그거, 그거, 완전히 그거라.
#4 또이 그걸로이 상웨떡으로 기름떡도 헐 수 잇어.
@1 어.
#1 어, 상웨떡으로 지름떡.
#4 기름떡, 기름떡.
#1 그 딱 찍어근에.
#4 우린이 기름떡 허민 우린 그거 좋아헤져.
#1 어, 그거.
@1 호떡추룩.
#4 요, 요, 요만큼 헤근에이.
@1 예.
#4 동글동글허게 헹.
#1 경헤여.
#4 헹 또 그걸 또 후라이판에서이 또 굽는 거라.
@1 어.
#1 구웡 올려.
#4 경 올리민.
@1 아, 게난 이제 옛날 다른 데 가면 찹쌀로 허는데 여기는 밀가루 이제.
#4 상웨떡으로.
@1 그 반죽으로, 으.
#4 으, 으, 으. 그렇게 요만큼, 요만큼 헤. 게민 그 후라이판에서 또 그걸 구워.
#1 찹쌀지름떡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일월, 뭐 오월ᄁᆞ지 이 상웨떡 아녈 때, 상웨떡 허기 전에 그 지름떡을 허고.
@1 으.
#1 이 상웨떡을 이제 헐 수 잇다면 상웨떡 그 재료로 이제 또 이렇게 만드는 거.
@1 지름떡을 만드는 거라예?
#1 어.
@1 예.
#1 그 철에 따라서 이제 좀 이제 허는 거지.
@1 으, 게믄 팔월 멩질에는 그 저기 밀가루 헌 걸로.
#1 어, 우리, 우리는 만들엇어.
@1 으.
#1 남은 몰라도.
@1 예.

#1 내가 ᄀᆞ뜬 기지로 요걸 만들겟다 허연 만든 거고.
@1 어, 거난 그건 삼춘네도 경헷지만 삼춘도 그렇게.
#4 으, 다 헐 수 잇어.
@1 그것도 올리고예?
#1 어.
#4 어, 어.
@1 어.
#4 게난 가급적이면은 내 손으로 헹 올린 것이 좋은[존] 거주게.
#1 어.
@1 예.
#1 그렇게 허고.
@1 조개솔벤은 뭘로 멘들앗수과?
#1 조개솔변?
@1 으.
#1 조개솔변은 손으로.
@1 겨난 손으로 헌디, 건 재료가 뭐?
#1 재료가 그디 저 풋도 놓곡.
@1 으.
#1 난 요즘은 뭐냐면은 설탕에다가 깨.
@1 예.
#1 깨 헤 가지고 이렇게 헤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 어릴 때부떠 만드난 잘 만들어.
@1 게믄 조개솔벤은 곤쏠로 허여?
#4 아니.
#1 조개솔벤이 아니고.
#4 아니.
#1 곤떡 그냥 조개셍편.
@1 조개셍편.
#1 어, 이름이 조개셍편이엔 허여.
@1 어.
#1 조개솔벤이 아니고.
@1 예, 조개송펜.
#1 조개셍펜.
#4 조개셍펜인디 우리 밥헹 먹는 걸로 만들아야 뒈어. 찹쏠로 만들민 안 뒈어.
@1 아, 쌀로예?
#1 쌀로.
#4 으, 우리 먹는 걸로.
@1 이건 흰쌀, 곤쏠로.
#1 어, 곤쏠로 만들엉.
@1 곤쏠로예.
#4 지름떡은이 찹쌀로 만들곡.
#1 찹쌀로 허곡.

@1 어.
#1 그렇게.
#4 우리 밥헹 먹는 걸로 조개, 조개송편 만들어야주, 안 뒈어.
#1 어.
@1 예.
#4 찹쏠로 만들면은이 안 흐려 가지고 안 뒈어.
@1 그러니까 어쨌든 팔월 멩질에 이제 제물 허는 거는.
#1 어, 그렇게.
@1 그 상웨떡허고.
#4 어.
@1 조개송편하고.
#1 조개송편.
#4 으.
@1 지름떡허고.
#4 어, 또 이.
#1 묵허곡.
#4 야네덜은 잘허는 거 아니가, 빈.
@1 예.
#1 빈도 겨울 들민 빈 허고.
#4 으. 빈, 빈을 이제 그거 물아 가지고이.
#1 으, 쉬워.
#4 그 빈 허는 과정도이 무우 놓곡이, 거기다가 이제 쪽파도 썰엉 놓곡 그 무우 저 데와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말앙 헌디.
#1 막, 맛잇어, 양념 잘 허영.
#4 힘들어, 거.
@1 힘들어.
#1, 4 어.
@1 우리 삼춘은 아주 신식으로 이제 살고, 우리 삼춘은 어리지만 옛날식으로 허고.
@2 (웃음)
#1 으, 옛날식으로 그냥 고대로 그냥.
#4 견디이 맛싯긴 헌디 거이 아무나 허젠 안 허여, 힘드니까.
#1 게난 힘드니까.
@1 맞아예? 예.
#4 것도이 후라이판에서이 것도이 거 물 맞춰 그거 이렇게 마는 것도이 너무 뒈어도 안 뒈고.
#1 예.
#4 너무 얄롸도 안 뒈곡. 그것이 상당히 힘들어.
@1 어.
#4 게난 그거를 이렇게 말젠 허면은이 너미 뽀짝헤도 이렇게 허믄이.
#1 으.
#4 너미 버짝헤도 안 뒈어.

#1 재료, 재료가.
#4 또 이제 영 마는 과정에서이 얄롸도 안 뒈어.
@1 으.
#4 그거 딱 맞춰야.
@1 예.
#4 겡 거기다가 이제 무우 놓고 쪽파 놓고 당근 놓고 이제 그레 담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허다 보면은.
@1 예.
#4 이제 또 친구들 왕 하나 먹으렌 주곡 또 읖잇 아이도 하나 주곡 허당 보면.(웃음)
#1 막 어륩주게 막 공들어.
@1 공들어예?
#4 게난이 이제 오늘이라도 우리가 헤당 느네 줘시민 좋켜게. (모두 웃음)
#1 게메게, 아이고.
@1 그렇게 헤서 이제 팔월 멩질하고. 제숙은 뭐 준비헷수과? 팔월 멩질에는.
#4 팔월 멩질에.
#1 그냥 요샌 나는 거.
#4 바닷고기허고.
#1 바다고기허고.
#4 따시 상에, 상에는 적 허고.
@1 으.
#4 뒈지고기허고.
@1 으.
#4 또 소고기허고.
#1 상어고기.
#4 으, 상어고기허고.
#1 상에고기도 잇지, 장에 가민 날 때.
@1 예.
#4 또.
#1 날 땐 허곡.
#4 또 우린이 여기 고동이 십 키로에 오만 원 허여.
#1 소라.
@1 으.
#4 게난 소라.
@1 으.
#4 그 소라적허고.
#1 어.
@1 소라적도 허고예?
#4 으, 그렇게 헤.
@1 저기 문게는 안 헷수과?
#4 문에도 허여.
#1 문어도 기냥 자기가 사질 땐 사 허곡게.

@1 어.
#4 문어도 허곡.
#1 다 헤여.
@1 문어도 허곡예? 예. 옛날 어른들도 그런 거 헤신가마씨?
#4 옛날엔 경 아녀.
#1 엇어 부난게.
@1 엇어 부난예.
#4 으, 거 살 돈이 어디셔게.
#1 엇어 부난게.
@1 맞수다.
#4 거 다 야네들은 잠수니까 다 이녁 냥으로 헤당 허는 거.
@1 그다음에 그 여기 바, 바닷고기예, 요런 거는 뭘로 썬? 보통.
#1 보통?
#4 보통 저 조기, 조기.
@1 조기예?
#4 조기 그거.
#1 조기도 쓰곡 요새 수입뒌 그 뭐라. 그, 그, 무신 오투미고기.
@1 오퉤미고기도 하고. 보통은 조기 하영 헷구나? 여기.
#4 으, 저이 팔월 멩질날은이 오투미는이 잘 굽지 못허더라.
#1 칠칠헤연.
@1 으.
#4 막 으, 칠칠헤 가지고.
@1 으.
#4 정월 멩질이 좋아.
@1 으.
#1 정월 멩질.
#4 으, 게난이.
@1 아, 오토미는 정월이 좋고.
#4 으, 우리도이 팔월 멩질에 헤단에 허니까 안 뒈어, 흘락허연.
#1 찰찰허연. 굽기가 그렇게 힘들어.
#4 게난이 조기는이 좋고.
#1 고기가 물러.
#4 으, 물러, 물러.
#4 흘터 가지고.
@1 게난 칠칠헌 말은 무슨 말이우꽈?
#4 어?
@1 칠칠헌 말.
#1 흐리다 헌 말이주게.
@1 흐리다.
#1 내리.
@1 제대로.

#4 으, 제대로.
#1 우리 거, 바로 이거 새털이라양?
#4 으, 으.
#1 칠칠허다 헌 말이.
#4 으, 으
@1 칠칠허다.
#1 잘 안 쓰는데 이 말.
@1 아.
#1 우리나 썸주, 칠칠허다.
@1 맞아.
@2 (웃음).
#1 깜짝 놀래언?
@1 경허영 팔월 멩질하고 구월 가면은 이제 절기가.
@2 선생님, 잠깐만. 팔월에 밤에 달구경 안 하셧어요?
#1 밤에?
@2 으, 놀앗, 여기 잘 놀앗을 거 닮아.
#1 구월에?
@2 아니, 팔월 멩질날 밤에.
@1 팔월 멩질에?
#1 아고, 무사 안 놀아게.
@2 예.
#1 장단덜 치멍 어릴 때게 막.
@2 예.
#1 허벅 장단 치멍 어릴 때, 아주 아주 어릴 때게.
@2 으.
#1 어릴 때, 개구쟁일 때. 막 노랑옷 입고, 어, 빨간 댕기 메곡게. 색동저고리 입은 거게, 춤 추멍 막 어린 시절엔 헷주만은 그건 이제 결혼험 시작허난 안 허고게.
@1 으.
#1 으, 그렇게.
@1 뭐 그네뛰기 이런 것도 안 헤보고?
#1 어, 그런 것도 이제 벨로 그네도 무사 저 학교도 헷주만은 성님네 시절에는 그네도 잇엇주만은 우린 누게 메주지 아녀민 또 것도.
@1 달구경은 안 헨마씨?
#4 으? 아니.
@2 둘 보레.
@1 둘 보레, 달. 둘밤에덜 뭐 놀 거나 영 안 헷수과?
#4 아니, 이젠 옛날은 헷주게.
#1 옛날은 다.
@1 옛날은 헤낫수과?
#4 게 옛날.
#1 어린 때 막.

#4 옛날은 막이 아이고, 우리도 막 그.
#1 겁나게 놀앗주.
#4 어디 나뎅기는 거 좋아헤 가지고이 막 헌디, 이제는이.
@1 으, 팔월 멩질엔 어떵 나뎅깁디가?
#4 팔월 멩질에는이, 여기가 그때.
@1 으, 바당에.
#4 이제 소곰헐, 소곰 이, 우리가 이 종달이 소곰바치 아니야.
@1, 2 예.
#4 소곰헐 때민이 이제 그때는 물 안 들어오게시리 소곰바치 헤연 헐 때난. 팔월 멩질에는 이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그 옷을이 헤 줘. 헤 주민 거 입엉이 여기 와근에이 막 노는 거라, 여기서 막이.
#1 여기서 막 놀고 놀고.
#4 한 열일고읏덥 술에.
#1 으.
#4 그 팔월 멩질에 우리 이디 앚은 디 소곰밧 허는 디. 우리 이, 이, 이 앚은.
@1 이디 소금밧예?
#4 으, 으. 옛날 소곰밧. 여기 소곰밧. 소곰밧 헤 가지고 이제 허다가 이젠 정부에서이.
@1 으.
#4 그때는 쌀이 없으니까 이제 나룩밧으로 만들다, 만들안에. 그거 안 허영이 옛날 그거 소곰밧으로 허영 여기 물 들어와시민이 저 제주도서 종달 최고라.
@1 예.
#1 게.
#4 여기 물 들어와근에.
@1 으.
#4 이제 여기 가면은이, 한 삼백 메다쯤 가면은 또 집이 잇어. 그때도이 이 저 돌담으로 이렇게 다리 놔근에 거기 물 이시니까, 다리로 헨 건너가낫주게. 겡 헹 제주도 이제 종달이가 최고 좋을 건디 이제 논밧 헤가지고.
@1 으.
#4 정부에서 논밧 만들안 거 쌀 먹으라고 헨 만들아 부난에 종다리 망헤 비엇어.
#1 권찮을 건디.
@1 으, 소곰헐 때는 좋앗는데예?
#4 으, 소곰헐 때는이 이거라나신디.
@1 근데 삼춘네는 소곰도, 소곰 허는 거 헤봔?
#4 못 헨.
@1 안 헤봔?
#1 안 헤납데가?
#4 으.
#1 소곰 안 헤난?
#4 으.
@2 삼춘은 헤난 거 닮은게, 아는 거 닮아.
@1 으.

#1 난이 소곰을 어떻게 헷느냐면이 뭐 기가 멕혀. 소곰 헤난 거, 왜냐면은 이제 우리 어머니가 육지만 뎅기단 보난 소곰밧을 헌 거라. 이 소곰이라는 건 왜냐하면은 이제 그 이렇게 소곰밧에 딱 이시면은.

@1 으.

#1 이제 요것에서 소곰 이제 허영 물 헤영 물 놔근에 이제 그 이제 물 이제 허는 거, 터를 만들어져십디다게.

@1 예.

#1 터를 만들어지면은 요 노픈 터를 만들어진 건디, 이 터를 갖다다가 막, 막 그냥 긁어.

@1 으.

#1 긁엉 이 바닥드레 널어.

@1 으.

#1 이 가만이 보니까양.

#4 으.

#1 터를 널민 그 터를 널어 잇어서 이제 터를 막 널민 그놈은 도막도막도막 산테로 헤다가 도막도막 난**하고 양쪽에 딱 놓면은 또 그거 헤치는 것이 이십디다게, 나무로.

@1 으.

#1 헤쳐 가지고 짝 헤쳐 가지고 또 긁는 그릇이 잇어. 딱 영 막 긁엉 물릴려고. 물리왕 이제 허민 그걸 이젠 그 소곰을 헤다가 그거 뿌려 가지고 물 뿌리고, 물 뿌리고 막 허멍 헌디, 아 우리 어무니가 어떵 헤시냐 허민 그 모래를 이제 물린 모래를 엄창허게 크게시리 놀 훈, 놀래가 훈 열 개쭘 헤연에 돌 영 다 저 거세기 눌어십디다게, 누난 이젠, 우리 어릴 때에, 거 눌게 뒈면은 그 어릴 때가 왜냐 하면은 욱앙은 육지 가젠 막 헤부난.

@1 으.

#1 허곡 바로 이 열, 열다섯 술, 열여슷 술 그 당기에 이 모래를 허는디 아이 산테를 들르렌 허민 들르지 못헹 손 아팡 오라방이영 ᄀᆞ찌 들르젠 허민 걸 들러다근에 널저, 그걸 모둡저, 널저, 모둡저. 날 궂이 ** 또 몯아야 놀레 더끄곡. 그걸 이제 소곰을 만들 거라부난. 아히고, 이제 손은 다 끄차지고 이젠 물은 이젠 ᄇᆞ뜨는 날은 할망칩알 강 주 그 낭푼 헤근에 그 물 질어당 뿌릴 거는 어멍이 나신디레 물 강 질어오렌 허민 그 할망칩알 요디서 할망칩바당 강 물을 질어오젠 허민예 야게기가 다 ᄇᆞ따져.

#4 할망칩알엔 헌 거는이.

@1 예.

#4 바다 이룸.

#1 바닷물, 바닷물.

@1 물.

#4 바다 이름이 할망칩알.

@1 할망칩알.

#4 으

#1 이름이.

@2 어.

#1 할망칩알에 강 물을 질어왕 그 요만헌 통에다가 물을 질어오민 어멍은 거 뿌리곡 허멍 막 앨 먹어낫주게. 그걸 얼먹어난 건디 지금도 그 기억을 잊어지질 안헤게.

@2 으.

#1 그 어머니가 그 물 져 오라, 물 져 오민 거 뿌려야 뒐 거 아니가. 경헤서 그 뿌려근에 몰류왕 그 큰 눌에다가 눌어난 건이 지금 눈에 생생헤.

@1 으.

#1 이 성님은양, 원냑 ᄒᆞ쏠 고급으로 살앗주게.(모두 웃음)

@1 고급으로 산 거 닮아, 얼굴도 보난.

#1 아, 고급으로 산디, 우린 그냥.

@3 여기가 다 소금밧이구나. 다 계획뒌.

@1 으, 여기.

#1 우린 기냥 아주 험허게 산 거라.

@2 으.

#1 어릴 때부떠, 왜냐.

@1 으. 삼춘넨 완전 부자라낫구나.

#1 어.

#4 어머니가 잘살아 부니깐.

#1 어머니가 잘살고 호강헹 산디.

@1 으.

#1 나는 이 개차ᄀᆞ찌 산 모양이라. (모두 웃음)

#1 완전이. 성님, 경 안 헷수과게?

#4 맞다.

#1 경헨 살아왓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 허는 것도 보고 또 이젠 어머니가 어떵 허민 소금 굴려고 이제 그 다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가매에다가.

@1 으.

#1 불을 때 가지고 성님, 소곰을 굽는디, 어멍 따라간에 앚아수로 먹을 게 하도 엇이니까 나신디레 곧는 말이, 저 깅이 와글와글 기엄시녜. 강 보난 그때 왕깅이가예, 그 막 고냥에 들어갓닥 나왓닥나왓닥 헙디다게. 게 그짓 걸 잡아서. 잡안 이제 그 새껍에다가 그 놈을 꿰언. 그 소금 구웡 와글와글와글 소곰이 줓아가는 것에 탁 들이쳐 가지고 걸 꺼내서 밥 먹어난 거.

@2 맛 좋겠다.

@1 왕깅이난.

@2 어.

#1 왕깅이 빨강케, 우리 경도 헤낫수게게.

@1 으.

#1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헤여.

@2 으.

@1 저, 저기 깅이 기엄덴.

#1 어, 깅이 바글바글 기엄시난 저것 강 저 잡앙 오라, 잡앙 와근에 저거 어떵허코, 난 잡앙 오랑 그거 그거 막 어떵 허영 홈푸멍 막 잡앙 새껍에다가 허영 와시민 어멍은 그놈을 그냥 들이치민 안 뒈곡.

@1 으.

#1 새껍에다가 이렇게 찔러 가지고 꿰어 가지고 적고지ᄀᆞ찌 찔러 가지고 소곰 바글바글허는 디 탁 ᄃᆞᆼ가 가지고 걸 우리에게 이거 먹으라 허연 발 뜯어 먹어난.

@1 으, 아이고. 거 좋은 추억이네. (웃음)

#1 거 지금도 머리에 생생헤여.

구월

@1 예. 게믄 이제 구월에 가보게마씨? 구월에는 별로 헐 거는 엇주만은.
#1 으, 구월에는 조주게, 조. 조 때려난 거.
@1 조 때린 거.
#1 으.
@1 으, 게믄 조 때리고 콩도 구월에?
#1 콩도 때리고. 콩도 까고.
#4 이제 콩 이제 콩, 콩 다 꺼껏주이?
@1 상강 전에예?
#4 으. 다 꺼꺼서, 다 꺼꺼서.
@1 예.
#1 어릴 적에사.
@1 구월에는 별 다르게 막 허는 건 엇다예?
#1 어, 엇주게.

시월

@1 시월에 입동, 엊그저께 입동 이제 와신디, 음력 시월에. 시월에 뭐 허는 건 엇인 거?
#1 시월에 벨로 무신거 엇인 거.
@ 거 엇어예?
#4 엇어.
@2 보린 언제 갈아?
#1 보린 시월에.
@1, 2 으.
#1 구월 그뭄, 구월 혼 스무날부떠 시월 안쪽으로 시작헤영 보린 갈곡.

십일월

@1 으, 보린 갈고예, 예. 농사는 나중에 한번 한꺼번에 물어보게. 그다음에 십일월 나면.
#1 십일월은 동짓둘이주게.
@1 동짓둘.
#1 어.
@1 동짓둘은 뭐우꽈?
#1 죽을 쑨다.
#4 동짓둘 나면은 동짓둘.
#1 동지날 죽 쒕 먹어.
#4 동지, 동지죽 쒕 먹주게.

#1 으.
@1 동지죽 쒕 먹어예?
#1 어.
@1 예.
#4 으.
@1 그 동지죽 쒕 먹으민 어떵 헌덴 헙니까?
#4 감기 안 걸린덴.
@1 아, 감기 안 걸린덴예?
#4 으.
@1 그.
#4 우리 노인정에서 죽 쒀.
@1 그 동지에도 죽 쑤는 동지 잇고.
#4 어. 아, 아, 애기.
#1 애기동지.
#4 애기동지 잇고.
@1 으.
#4 그자 일반동지 싯기 때문에 애기동지에는 죽 안 쒀.
#1 어.
@1 애기동지는 뭐가 애기동지우꽈?
#4 거난 예, 옛날부떠 뭐, 뭐 게난 안 좋덴 허는 거주.
#1 이유가 건 몰르고.
@1 으.
#1 건 이윤 모르고 그냥 동지.
#4 게난 애기동지가이 잘 안 들어. 멧 년에 혼 번썩 들주.
#1 저 동지날에 죽 쒕 먹주 그것이 뭐주. 그것에 무시거 다른 것 헷당 헌 건 잘 들어본 적도 없고 듣지도 안 허고.
@1 삼춘네는 동지헐 때 새알도 만듭니까? 여기, 즈베기.
#4 어, 어, 어, 어. 으.
@1 동글랑허게.
#1 어, 동글랑헤게 놩은에 먹어.
@1 거는 무사 거 만든덴 헙니까?
#4 몰라, 그거는 어떤 식으로.
#1 맛 좋게 허는 거 아니?
@1 으.
#1 맛잇다 허여근에.
@2 으.
@1 맛 좋게 헤근에예?
#1 맛잇게 허는 거 닮아.
#4 게난 거 싫어허는 사름은 싫어허더라고, 것도.
@1 아, 싫어허는 사람 잇고예?
#4 으.

@1 혹시 삼춘네 동짓날 동지죽 쒀 갖고.

#4 으.

@1 집 주변에 영 뿌리는 것도 봐봅디가?

#1 어, 뿌려, 우린 뿌려나서.

#4 으.

@1 뿌려.

#1 걸양 성님, 어떵 허냐면.

#4 으.

#1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걸 이제 뭐 우리 어머니 헤 본 것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에게 허렌 헌 것도 아니고 옛날 그 벵원장 할망 그 여자 벵원장 할망 잇어낫수다게.

#4 으.

#1 그 할망덜 어디서 내려왓느냐면 고잡에서 ᄂᆞ려온 거라.

#4 으.

#1 겡 우리영 ᄀᆞ찌 친구가 잇엉 가의 이젠 그 첨 뭐 헌디. 가의네 집이 강 보민 곧는 말이야, 우리 동지죽 쒀, 동지죽 낼 쑬 거라 허민, 에구게 맛 좋켜이 허민. 경 헹 이젠 그 집인 이제 동지죽을 이젠 우리가 친구 헹 강 보민. 야, 동지죽은 어떵허는 거? 먹으민 어떵 허는 거? 허민, 우리 어머니 곧는 말이 마귀들 오지 말렌 뿌련에, 우리 막 뿌려서. 우리 어멍 막 뿌려서. 그런 말은 들어난 적이 잇고. 우리가 내가 직접헤근에 뿌린 건 엇고.

@1 으.

#1 그런 말로. 그 들어근에 에고야, 거 잡귀를 집에 들어오지 말라. 동지라는 풋죽은.

@1 예.

#1 이제 잡귀들 들어오지 말라고. 만약에 우리가 이 산소에 가서 산을 이제 파가분 디 이제.

@1 으.

#1 예를 들엉 요걸 이제 집을 치와야 뭠직허다 어떵 허민 좋고, 아방이영.

#4 ᄒᆞ꼼 크게 ᄀᆞᆯ아불라게.

@1 으.

#1 우리도 경 곧주, 올리도 요 밧데 산을 하나 이신 건디 산을 파가 불어서. 파가난 아방이 저거, 아이고 저거 치와사주게, 어떵 허민 좋고 허민. 난 저 아방이 치와 불켄 허민 아이고 난 겁낭 아이고 그디 신 부떠서, 신 부떠 부난 거 아멩이나 치우지 말고 나가 방ᄉᆞ헤 주커라.

@1 으.

#1 나가 방ᄉᆞ헤 주커라. 허면 이제 방ᄉᆞ허주, 무신 방ᄉᆞ허젠 허난 아방도 분시 몰른 사람. 미신 방ᄉᆞ허젠 허민 아방일랑 강 방ᄉᆞ허는 거 뭐냐면 저 지름.

@1 으.

#1 지름 앗앙 강 무데기에 이제 그 저 검질 앗앙 강 담앙 그 기름을 비왕 그것에서 이제 폭팔을 시기라.

@1 으.

#1 폭팔을 시기고 내가 또 이제 그 방법을 허는 건 나가 ᄯᅳ르 허켜, 허쿠다 허난에 게민 느가 알앙 허라 허민 장에 강 풋 반싱 사.

@1 으.

#1 반싱 사곡 소곰, 소곰 상 강 그디 강 둘레에 다 뿌려.

@1 으.
#1 그 방법이잖아.
@1 예.
#1 그렇게 이제.
@1 옛날 토신제 헐 때도 그렇게 어, 저기 집 지을 때도 뿌리잖아예?
#1 어, 어.
@1 이사헐 때도 뿌리고.
#1 풋이라는 것도 이 방법이 좋은[존] 겁디다게.
@1 예.
#1 우리가 경허고.
#4 아.
#1 그렇게 허고 이제 집안도 이제 우환이 들엉 이제 궂인 사름들 왕 무시거 헐 때 소곰.
@1 으
#1 소곰을 이제 무사이 이제 소곰 아무 소식 엇이 무신 말허지 말렌, 소곰 뿌리고.
@1 으.
#1 이제 우리 제주도 풍십은 이런, 그런 것이 좀 잇주게.

장 담그기

@1 예, 예. 경허고 장 담젠 허면 메주는 어는제 쒀마씨?
#4 메주?
@1 예.
#4 메주는이.
#1 성님 잘 알아.
#4 그, 으, 메주는.
@1 으.
#1 거 일월둘에 허는 거 아니우꽈?
#4 그 우리 저 가정에 이제 장 담는 거 아니?
#1 으, 일월둘에.
@1 예.
#4 으, 메주를 삶아 가지고 이제 에, 무신 잘리에다가이 뭐에다 담아. 담아근엥에 이제 막 그거를 깨끗허게시리 이제 잘리에 담아 불롸. 불라근에 이젠 이렇게 만들아이.
#1 만들아.
#4 동글랑허게 만들아근에 나룩찝 잇잖아이.
@1 으.
#4 나룩찝 헤근에 이젠 그 한, 한 덩어리썩 이젠 헤 가지고 이젠 이런 가에이, 달아 멧당은에 것이 한 두 덜만 뒈민은 허는디, 우리는이 날 안 봐 가지고.
@1 으.
#4 어, 음력으로 섣둘그뭄날, 장 담으민 좋아.
@1 으.
#1 대강 그날.
#4 날 안 봐 가지고. 게민 그거는 한 저 한 뒈가이 거 네 뒈가 한 말이주게.

@1 예, 예.

#4 겐디 우리는 나만 사니까 이제 한 말만 헤도이 먹어. 먹고 또 서울도 보내주곡 허는디. 겐디 이제는 것도이 실퍼 가지고이 못 헤.

@1 으.

#4 게난 이녁대로 장 담앙 먹으민 좋긴 좋아.

@1 으.

#4 음, 경헌디 이제 메주 이만큼 헤근에 이제 두 둘만이, 이런 가에 달아 메면은 이제 장 담아근에 섣둘그뭄에 담아근에 허민 두 둘만 이시민 것이 익어. 겡 갈라 가지고 이제 간장은 간장대로, 또 이제 뒌장은 뒌장대로.

#1 대강 헌 거주게, 간장은 간장.

#4 이제 헷다가 먹으민 좋는디, 이제는 허기 싫어.

#1 허기 싫어.

@1 뒌장 허면 메주 숢으는 거는 언제 숢아마씨? 보통.

#4 메주 숢는 건 또 말날.

@1 물날?

#4 으.

@1 으.

#4 그 날, 날이 잇어.

@1 예.

#4 개날 무신 토끼날, 무신 헌디, 근디 대충 물날.

@1 으.

#4 물날에 삶으면은 어데 거 날 봐야 뒈, 그거는.

@1 으.

#4 경 아니면은.

@1 보통 두 달 정도.

#4 으.

#1 ***, ***.

@1 섣달이면 시월에 게믄.

#4 으.

#1 시월둘

@1 ** 허켜예?

#4 으.

#1 시작헐 거주.

#4 시작헐 거, 겨난 날 봐사주, 날 안 보면은 그것도 안 뒈어.

@1 으.

#4 겐디 담는 날은 섣둘그믐날 담으민 딱 좋아.

@1 예. 담는 거는 섣둘그믐이고 메주 숢는 거는 날 봥은에.

#4 어. 물날에.

@1 물날에예?

#4 토끼날 무신 개날 잇잖아이.

@1 예.

#4 뒈지, 그런 거 허는디 그런 때 허민 안 뒈어. 몰날에 담으민 헤도.

@1 그때, 그럴 때 허면은 안 뒈는 이유는 무신거라마씨?

#4 것이 안 뒈는 것이 어떵 헹이 집이이, 이제 만약에 우리 집에 뭣 일이 나젠 헤도이 장이 잘 안 뒈어.

@1 으.

#1 푸리룽을 허던가.

#4 이 무슨 속이 큰일이 나던이 무신 속이 상헐 일 시민이 장 담아 보민 알아.

#1 벤, 벤헤여, 벤헤여.

#4 어떻게 장이 이제 고리던지 또 아니면 이제 어떻게 시퍼렁헤 가지고이 간장도 안 뒈던지, 뭔 일이 잇어.

#1 맛이 틀리지 안헙니까게? 맛이.

#4 으. 경헷다가 이제 그해에 이제 저 재수가 좋앙 올헤 금년에 좋다 허면은이 장 담아보민 알아.

#1 으.

#4 장이 잘 안 뒈면은 그 헤에 궂, 좋지 아녀.

@1 으. 게믄 사람들은 옛날 어른들은 그믄 장 담은 거보고도 이제 이렇게.

#1 어, 어, 어.

#4 으, 으.

@1 이렇게 집안 운수도.

#1 어.

@1 보고예. 점치고.

#4 으, 으.

@1 그렇게 이제 하면.

#1 그렇게 살아온 거주.

집 일기

@1 집은 언제 입니까? 여기는.

#4 집?

@1 예. 새 비고 그 집 일젠 허민 준비는 언제허여?

#4 그 옛날에 그 초가집 이는 거?

@1 예.

#4 으, 초가집 이는 거는이, 저 산에 가면은 그 저 뭐가 잇어, 새 나무, 그거 헤다가 이제 그거는이 이제 이녁이 이제 생각 잇는 대로이 그 야네덜은 차도 잇고 허니까 산에 가근에 이제 자기 밧도 잇고 허난 헤당 허는디, 우린 밧도 엇곡 허민 막 남의 거 훔쳐다근에이.

@1 으.

#4 인제. (웃음) 막 훔쳐단에 그.

#1 그 시절이 잇어낫주.

#4 으, 그 시절에. 막 남의 거 훔쳐다근에이 한 그 이만큼 무끈 거이 한 오십 단이민이 집 일어.

@1 으.

#4 으, 훈 오십 단이민. 그거 헤다근에 이젠 막 이 이렇게 줄이.

@1 으.
#4 줄 이렇게 비면은.
#1 새끼 꼬와 놧당.
#4 나가 그 줄 비는 거이 그거를 나가 잘헤져.
@1 으.
#4 거 이렇게 줄 놓는 거이.
@1 어.
#4 경 헹 이제 그거 헹은에 허면은 이제 집이 영 뒛잖아.
@1 예.
#4 영 뒈면은이 이 영영이 가로 뒌 거는 사십 개, 사십두 개.
@1 사십두 개.
#4 으, 이렇게 이렇게 헌 거이.
@1 으.
#4 그 쫄른줄, 진줄 잇잖아게.
@1 예.
#4 게민 영 헌 거 사십두 개, 또 여기 이렇게 이렇게이.
@1 예. 진 거.
#4 질게 헌 거는 또 이제 삼십오 개.
@1 어.
#1 거 집에 따라서게이.
#4 어, 집에.
#1 큰 거, 작은 거 이시난.
#4 어, 어. 경 헤근에이 집을 이는디 거 남저덜 훈 서너이 빌어야 뒈. 네 사름을 빌어야 뒈어.
#1 어.
#4 왜냐 허면은 이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까는 사람.
#1 어, 어. 무끄저, 졸라메저.
#4 또 이제 요쪽에 요쪽에 요쪽에 요쪽에 하는 사름은 저 줄, 줄 메는 사람.
@1 으.
#4 게민 이젠 그 사람덜은 이제 허면은 일당은 안 줘도 이제 담배 한 갑썩 사주곡.
#1 밥 멕이곡.
#4 정심 멕이곡 이제 그렇게 헹 이제 동네서 헤줘.
@1 으.
#4 견데 이제 그 후에는 쓰레뜨집 나니까이 초가집이 하나썩 하나썩 엇어졋잖아. 경헌디, 이젠 초가집이 이신 디 없어이.
@1 예.
#4 하나 잇구나, 종달이이.
#1 누게네 집이 셔?
#4 ○○○ 성네 집이. 한 집 잇어, 한 집.
@1 아. 한 집 잇어예?
#4 겐디.

#1 그디 어디 밧거레?
#4 아니, 안거레, 겐디 이제.
#1 이수꽈? 이제도.
#4 으, 잇어. 견디 일지 안허민 처단 못 허겟더라.
#1 에이구, 에이구.
@1 으.
#4 으, 옛날에 경허엿주게.
#1 예쁘게 예쁘게 헤사 뒐 거.
@1 게난 진줄은 서른다섯 개, 쯔른 줄은 마흔두 개?
#4 마흔두 개.
@1 삼춘네 헐 때는.
#1 잘 알암저이? 성님 기억력 좋다.
#4 으, 으. 우리. (웃음)
#1 성님 기억력 좋다.
@1 줄 놔나니까.
#1 어.
#4 게난 나가이.
#1 성님네 집은 헤나부난.
#4 으, 헤나부난.
@1 예.
#4 게난이 이제 그 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호렝이 영 비는 거.
#1 비는 거.
#4 야의가 막 비는 거라. 야의가, 야의가 이렇게 비, 이거 영 심어봐. 영 비면은 나는 또 이제 영 줄 놓는[노는] 사름이라.
@1 예.
#1 난 영영 허는 사름.
#4 야읜 이렇게 허는 사람.
#1 막 훈둘리는 사람.
#4 게난 이젠.
@1 삼춘 줄 놓는 사람이라낫구나?
#1 어.
#4 야네덜은이 그 밧이 잇고 차가 잇어.
@1 으.
#4 게난이 에, 자기 거 허주, 우리는이 막 남의 거이 막 훔쳐오는 거라.
#1 (웃음)
@1 으.
#4 밤에 가서.
@1 밤에 가서.
#4 으.
#1 욕 들고, 욕 들고.
#4 밤에 가서 이제 훔쳐다근에게 이젠 한 네 번만 갓다오민 뒈어.

#1 아이고. 그 시절이 어느 때우과?
#4 둘이, 둘이서 강.
#1 기자 삼십 년 후, 사십 년이 뒌 일인디.
@1 예.
#4 ○○○이허고 ○○○이 각시허고 우리 집이 살아낫주게.
#1 예. 나.
#4 게민, 서이가이 밤에 세 번 갓다 오난 헤지더라.
#1 에고, 에고, 에고. (모두 웃음)
@1 에고. 서이가.
#1 도둑질허레 가낫주게.
@1 새, 옛날에 새 도둑덜예?
#1 새 도둑.
#4 예, 새 도둑.
#1 옛날엔 새 도둑 헤낫주게.
@1 예.
#1 얼마나 못 살아야 새 도둑허고.
#4 어.

엿하기

@1 삼춘 엿들도 헤 먹엇수과?
#4 어?
@1 엿, 엿.
#4 엿?
@1 으.
#4 엿은이.
@1 엿은 언제 헙니까?
#4 으, 엿은 아무 때라도 자기 허고 싶은 대로 허주게.
#1 것도 섣둘그뭄에 헌덴.
#4 엿?
@1 그 납평날은 뭐우꽈?
#1 엿도양 성님양 어떵 허냐면 것도 이유사 이십디다. 어떵 허난양 우리 어머니 곧는, 우리 할머니가 곧는 말이, 엿도 일월둘엔 헹은 안 뒌다 이거야. 집안이 이제 막 이 ᄇᆞ따간다는 거라. 이 마음이 졸영. 겐디 이 엿도 섣둘그뭄 이 섣둘에.
#4 아.
#1 그렇게 헤야 좋지, 이 새헤 낭 이제 일월둘 낭, 이월, 삼월 나가민 이 우리 마음이 졸인다는 뜻으로.
@1 으.
#1 엿을 막 헤가민 졸여야주게.
@1 예.
#1 그런 의미로 그것도 잇더라고.
@1 예, 거난 납평날이엔 헹 들어보진 안헙디가? 엿 허는 날.

#1 아니, 그런 건 안 들어봐.
@1 안 들어봔?
#1 우린 안 들어봔.
@1 예. 게난 그게 저기 섣둘에 납평날이엔 헹 엿 허는 날이 잇거든예?
#1 아.
@1 으. 그건 안 들어보고, 어떤 엿 헤봅디가? 삼춘네는.
#1 좁쏠엿.
@1 좁쏠엿. 어, 어떤 식으로 허여? 엿은.
#1 좁쏠엿, 좁쌀 만들엇주게.
#4 좁쏠, 좁쏠밥헤근에.
@1 으.
#4 그.
#1 골 놩.
#4 저 골, 뭐 보리쌀로이 이제 그 뭐 콩ᄂᆞ물 주름ᄀᆞ찌 놧다근에 것이 나왕 그거, 그걸로 헤근에 이젠 갈아다근에 이젠 밥헤 가지고 거 서꺼 가지고 걸러근에 이제 거기다가 이젠 엿허는 거주.
@1 으.
#1 보리싹 내왕.
@1 보리싹 내왕은에.
#1 보리싹 내와근에 이젠 그 보리싹을 이제 그것이 이제 엿가루렌 허는 거주게, 이름이.
@1 예, 골.
#1 이름이 그대로 골.
@1 으.
#1 우리가 ** 헤시민 골, 엿 가루.
#4 이젠 안 허주게. 이젠 허는 사람 엇일 거라.
#1 에고 나 이제도 식혜 헹 먹읍니께.
#4 아.
#1 식혜.
#4 아, 식혜.
#1 아, 나대로 헹 먹어.
@1 식혜는 어떤 식으로 헤? 우리 제주도도 식혜를 헤마씨?
#1 나가 헤여, 나다로 헹 먹어.
@1 으.
#1 우리 언니네 보민 강완도 강 보민.
@1 으.
#1 식혜를 만들어근에 먹으민 경 파는 것만이 맛엇어도.
@1 으.
#1 궨찮여, 나 요자기도 헨 먹언.
#4 아.
#1 식헷가루를 우리 딸내미가 저 육지서예, 식혜가루 저.
#4 에, 둘앙 못 먹크란게.

#1 둘아, 아이고 건 뭐 놔 부난 거주게. 경헌디 그 골가루, 이름이 골가루.
@1 예.
#1 골, 그 게난 그것이 식혜 가룬디 보리싹 피와근에.
@1 으.
#1 널엇당게 갈앙 헌 것이.
@1 으.
#1 겨난 그건 그대로게 밥게. 밥헤 놩 뜩똣허게 헤놩 그 가루 놩은에 흐지령 ᄀᆞ만이 놔두민 것이 보골보골보골 살아.
@1 으.
#1 살아허민 체로 걸렁 거 삶앙.
@1 으.
#1 그거. 그추럭 허영 적당히 물 맞촹 그추룩.
@1 으.
#1 게 자기가 설탕 놩 먹젠 허곡 그대로 먹젠 허민 먹곡.
@1 예.
#1 그런 식으로.
@1 그런 식으로 헹은에 이제하고.
#1 으, 식혜.
@1 으.
#1 그대로 이름이 식혜.

신구간

@1 우리 신구간은 언제우꽈? 삼춘.
#1 신구간.
#4 신구간이?
@1 으.
#1 섣둘에.
#4 음력으로, 음력으로 섣둘.
#1 어.
#4 스무.
#1 메칠날 드는 데가 잇주게.
#4 스무, 스물, 아 올리 들어 부니까 석둘 스무나흘날, 아 스무닷샛날부떠.
#1 어.
#4 으.
#1 일월둘까지 허여.
#4 으, 으.
@1 게난 신구간은 아까 이사허는 거예?
#1, 4 으, 으.
@1 으, 신구간에 대헹은에 골아줘 봅서.
#1 그냥 신구는 이사헌다는 거, 그거주게.
@1 으.

#1 솟단지 앗앙은에.
#4 섣달에 이사허는디이 날 안 봥 가는 거.
@1 아, 날 안 봥은에 신구간에는?
#1 어.
#4 어, 신구간에. 게난 신구간 츶는 거주게.
@1 예.
#4 인칙에 말 안 헤냐게.
@1 겨난 신구간엔 집 고치는 것도 다 신구간.
#1 어, 신구간에 허곡.
@1 으.
#4 유월달에는 이사 아녀곡.
#1 이사 아녀고.
@1 으.
#4 신구간에는 날도 안 봐 가지고.
@1 으.
#4 이제 야네 집이 가고프민 야네 집 가고 우리 집이 오고프민 우리 집이 오고. 뭐 동서남북 다 가는 거주.
@1 다 가는 거.
#4 으, 신구간에는.
@1 무사 그때는 그추룩 날 안 봐도 간덴 굴읍니까?
#4 어, 신구간에.
#1 신구간엔?
@1 으.
#4 옛날 하르방 할머니덜이 다.
#1 신이 없다고 하늘 옥황에 올라갓덴 허영 그.
@1 하늘로 옥황에 올라가불언?
#1 올라가부난 신이 없어서 신 없는 날 헌다고 저 그거 아니?
#4 교회, 교회 뎅기는 사름덜은 그런 거 안 골려.
#1 안 골려, 빵빵 그냥 아멩이나 허곡.
@1 안 허고예.
#1 옛날 이제 다 옛날 풍십 엇주. 이젠 그대로 딱딱 이사허고.

소한, 대한

@1 이제 섣둘에 허면은 절기. 소한허고 대한 때는 어떵 헙니까?
#4 으, 으, 으, 으. 대한 소한에 나간 사름 츶아보지 말렌 허주.
#1 으, 사람이 힘들다는 거주, 죽어 분다.
#4 으, 어디.
@1 무사?
#1 너무 추워서.
#4 으, 으.
@1 너무 추워서.

#1 어.

구중절

#4 또 구월 구일날 잇잖아이.
@1 예, 구월 구일.
#4 구월 구일날은 이제 예를 들어근에 우리 이제 가족이 하나 어디 나갈 거 아니.
@1 예.
#4 게민 소식이 없는 거라이.
#1 으.
#4 게면은 구월 구일날 제ᄉᆞ허는 거.
#1 제사허는 거.
@1 아. 음력 구월 구일.
#1 게난.
#4 으, 으.
#1 찾아오지 아녀 불민 이제.
#4 겨난에 이제 우리 가족이 하나 어디 나갈 거 아니? 나가면은 소식이 없어.
#1 행방불망 헷다. 행방불망 헷다.
#4 으, 어디 어디 간 처레 몰르면은 이제 나가이 이제 구월 구일날 그 제사를 헤 주는 거.
#1 으, 구월 구일.
#4 으, 게난 구월 구일날은 행방 헹 어디 엇는 사름 제사헤주는 거.
#1 제서헤 주는 거. 행방불명 헤서.
@1 아.
#4 것도 느네 알아야 뒈.
@1 예.
#4 으.
#1 행방불명.
#4 것이 젤 중요헌 거라.
@1 게난 구월 구일날 그 제사허는 날은 그 날은 무슨 날이렌 굴읍니까? 그래도.
#1 구월 구일날 아니?
#4 그날, 그날은이 그날은이 달력에 보면은이 한글날도 뒈고.
@1 으.
#4 또 무신날도 무신날, 막 여러 가지 뒈더라고.
#1 아니 그건.
#4 우리, 우리 집의 주연이, 우리 집의 하르방, 우리 집의 주연이.
@2 음력으로.
#1 음력, 음력. 음력, 음력.
@1 예.
#4 우리 집의 주연이 고등학교 선생 헷어.
@1 으.
#4 경헨 팔십에 돌아가신디.
@1 으.

#4 구월 구일날이 제사라.
@1 으.
#1 아.
#4 구월 제ᄉᆞ, 구월 이제.
#1 그날 돌아갓수과?
#4 으. 아니 그날 제ᄉᆞ라.
#1 ᄋᆞ.
#4 제산디이 우리가 그 제ᄉᆞ 날짜를 달력에 딱 페기 헹 놓면은.
@1 으.
#4 어떤 땐 한글날도 들고.
#1 어.
#4 으, 그때.
#1 거 돌아가는 거주게.
#4 그때 돌아가멍 헤부니까이 거 잘.
#1 날짜가.
#4 게난 구월 구일날은 어디 행방헌 사람 제ᄉᆞ헌다 허는 건 너네 참고적으로 알아야 뒈어.
@1 예. 그러면은 이 동네도 구월 구일날 제사허는 집 하켜예?
#4 으.
@1 그래도 옛날에 바당 강도 못 춪고 못 묻고 헌 사람도 이실 거 아니?
#4 으, 게난.
#1 우리도 헤난.
@1 아, 구월 하루만 헌 게 아니라 맨날 헤? 아니면 어떤 식으로.
#4 거난.
#1 해 년마다.
#4 으.
@1 해 년마다.
#1 해 년마다 나가, 우리가 저 결혼을 헨 보니까는 하르버지가 곧는 말이, 씨아버지가 어느 하르방, 어느 하르방 제술 허라. 예게 제ᄉᆞ허쿠다, 영 허영 허연디 이제 곧는 말이 어느 하르버지는 언제 떠난에 육지에 갓는디 돌아오질 안헷다. 게난 자기가 아버지, 하르버지 제ᄉᆞ를 구월 구일날 헴다, 영허난 우리가 마탕 그냥 헌 거고.
@1 으.
#1 돌아간 날짜에 경헌 사름은 또 그날 허고.
#4 견디이, 이제 젊은 아이덜도 그건 알아야 뒈어.
#1 제주도 풍십이 바로 그거라.
#4 예를 들어근에이 이제 그 가족이 아무도 없잖아이.
#1 어.
#4 엇엉 그 이제 제ᄉᆞ헐 사름이 없어.
#1 어.
#4 그런 제ᄉᆞ허는 사름이 잘 뒈어.
#1, @1 으.
#4 이 가족이 아무도 딸도 아들도 엇고 아무도 엇이면은 우리가, 우리 시아주방이 예를 들

엉은에 자식이 없잖아이.

#1 어.

#4 경허면은 우리 아이덜한테 거 느네 큰하르, 족은하르방에 자식이 없는데 제ᄉᆞ헤 주라. 허면이 요새 젊은 아이덜 제ᄉᆞ 잘 안 헌젠 허주게이.

#1 아녀젠만 어떵 어떵 안 허젠만.

#4 겐디이 이제 제ᄉᆞ를 허면 그런 제ᄉᆞ허민 잘 뒈어.

@1 으.

#4 임제 엇는 제ᄉᆞ.

@1 임제 엇는 제ᄉᆞ예?

#1 영혼이 없는, 아무 것도, 친촉 엇고게 자식 엇고게.

@1 그걸 임제 없는 제ᄉᆞ렌 헴구나.

#4 으, 으.

#1 임제 없는 제ᄉᆞ.

섣달그믐날

@1 그러면 잘 뒈고예. 자, 그다음에 섣달그믐에는 뭐 헷수과? 섣둘그뭄날.

#4 어?

@1 섣둘그뭄날.

#4 섣둘그뭄날은게 그자게 섣둘 뭄날은 좋은[존], 좋은[존] 날이주게.

@1 으.

#4 뭐 장도 둠곡 또 이사도 허고 이제 아주.

#1 멩질도 허젠 허곡.

#4 으. 겨난 아주 좋은[존] 날이주, 섣둘그믐날은.

@1 멩질도 준비허고.

#4 으, 게 뒷날은, 뒷날부떠는 이제 초ᄒᆞ를, 우리는 대강이 초ᄒᆞ를날 기분 나쁘민 막 기분 나빠.

#1 어.

@1 으.

#4 대강.

@1 예.

#4 게난 섣둘그뭄날이 모든 거 다 헤여야 뒈어. 게 정월 초ᄒᆞ를 때 뒈면은 조심허야 뒈곡.

@1 으, 거난 정월 초ᄒᆞ룰날은 뭐 싸우지 말라 헌 이런 말들도 잇고예?

#4 으.

#1 그런 말이 늘 곧주.

@1 아.

#1 부모덜은.

@1 예.

#1 꼭 겨난 이제 거세기 뭐 부모님한테 들어온 말이 그 말.

@1 으, 으.

#1 이 새철이여, 새, 이 정월 초ᄒᆞ룰날허고 새철 전이는 이제 싸웁지도 말라. 애기들 ᄀᆞ치 형제간에 뭣도 허지 말라. 이제 그날 초ᄒᆞ룰날 울어나민 또 운다, 이제 그날랑 싸웁지 말라,

막 기분 좋게 놀라이. 초ᄒᆞ룻날 젤이 이 소중허게 생각허더라고.
#4 섣돌그믐날은이.
#1 어.
#4 예를 들엉 느가이 시집에 에, 잘 이렇게 뒈 가지고 잘 안 가잖아.
@1 예.
#4 게난 섣돌그믐날은 찾아가야 뒈어.
@1 아.
#4 시집에.
#1 안 시집, 안 살아난 시집도 춪아가사 허는디.
#4 게난이 시집에 이렇게 뒈어 가지고이.
#1 자기가 살고 싶으면.
#4 제ᄉᆞ 명절에도 안 가곡 헷다가이.
#1 으.
#4 아, 자기가 반성허는 거라.
@1 으.
#4 아, 안 뒈겠다. 경 헤근에 섣달그믐날은 그 느가 이제 씨집이 춪아가는 그런 방법이.
@1 으.
#4 그런 것이 팔십 프로라.
@1 아.
#4 으, 것도 알아야 뒈어, 느네들이.
@1 예, 예, 예.
#1 거 제주도 풍십이 다 거주게.
#4 으, 으. 씨집에 좋지 안헤 가지고 잘 제ᄉᆞ 명절 때도 안 가곡 막 그렇게 허는 사름 잇잖아이? 보통으로.
@1, 예, 예, 예.
#4 보통으로. 경 허면은 에이구, 섣돌그믐에는 우리 메누리 왓구나, 허주게.
@1 으.
#4 씨어멍덜이.
@1 예.
#4 게난 그때는 찾아가야 뒈어.
@1 으.
#1 자기가 살고 싶으면 춪아가고게.
#4 그런 날이라, 그 섣돌그믐날이.
@1 예. 모든 것이 좋은 날이라예.
#1 어.
#4 게난 정월 초ᄒᆞ룻날 못 가잖아.
@1 예.
#1 으.
#4 섣돌그믐에 가근에 찌지미라도 하나 헤주곡 뭐 도와주곡 섣돌그믐 가야이 이제 우리도 아이고 우리 메누리 왓구나, 허주만은 다 출린 다음에 정월 초ᄒᆞ룰날은 가민은 안 뒈잖아.
@2 (웃음).

#4 이녁 양심이.
@1 예. 게난 화해허는 날이구나게에?
#1 어, 풍속이 풍속이.
#4 풍속이 그렇다는 거라.
#1 제주도 살아오는 풍속.
@1 으.
#4 옛날 풍십이.
#1 할머니네 살아온 풍속.
@1 예.
#4 게난 에이구, 섣둘그믐날은 누게네 메누리 와낫젠.
@1 으.
#4 할머니들 경허여.
#1 와서라게, 와서라게.
@1 와서라게.
@2 (웃음)
#1 에고 와서라.
#4 게민 그때부떠는 이제는 화해뒈는 거라. 집안이.
@1 예.
#1 화해뒈는 거.
#4 으, 그 옛날 풍십이 그레낫주.
#1 마음도 놓고게. 에구야, 갓단 메누리도 와서라.
#4 으, 으.
#1 섣둘 떡, 떡도 헹 가시녜게.
@2 (웃음).
#4 으, 게난 우리가 지금이 여기서 이렇게 대화를 허는데.
#1 으.
#4 안 뒐 말 잇고, 뒌 말도 잇잖아이.
#1 (웃음). 게난 뒌 말만.
#4 으, 이. 으, 게난 뒌 말만 이제 이렇게.
@2 예, 예.
@1 예게.
#4 헤야 뒐 거 아니라이?
@1 예.
#4 이 말 저 말 골아도이 이 말이 다 이제.
#1 안 뒈어.
#4 인식허지 못허는 거 아니?
@1 예.
#1 안 뒈어.
#4 게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헌 것만.
@1 예.
#4 이제 뭣 텔레비에 나왓던 뭐, 뭐 어디 방송에 나왓던.

@1 으.
#4 중요헌 것만 허곡 그다음에는 안 뒌 건 빠불곡.
@1 예게, 맞수다.
#4 그렇게 허는 거이.
@1 예.
#1 틀린 것도 핫주게.
#4 우리도이 이것이 훈두 번 아니라, 나도.
@1 예.
#4 계속 이제 뭐 방송.
@1 여기 저기서 오지예?
#4 으. 계속 이거 허여. 게믄이 안 뒌 건 빠 불주게, 말이. 안 뒌 건 빠 불곡.
#1 맞아.
#4 이제 뒌 건만 또 영 허곡 녹음헹. 이건 또 방송에 나올 거?
@1 방송에는 아니고예?
#1 글 쓸 거주, 글 쓸 거.
@1 그냥 저기 책에.
#4 아, 책에.
@1 예.
#4 으.
#1 오늘 막.

농사일
@1 삼춘 그 옛날 농사지어 난 거예?
#4 으.
@1 삼춘네도 농사 하영 지니까. 이 일월부터 십이월까지. 일월에는 무슨 농사 헤마씨?
#1 일월에.
@1 일월에는 농사허는 거 엇수과?
#4 아니.
@1 일월에는 무신 일 헷수과? 게믄.
#1 일월에는 그냥 놀만 헷주, 거 농사허다가 추워 부난 눈 오고 뭐헤 부난.
@1 엇고.
#1 일월둘엔 엇어.
@1 여기는 막 저기 보리밧 불리거나.
#1 그런 건.
#4 아니.
@1 이런 건 엇어예?
#4 으.
#1 그런 건 저 가끔이민 허고.
@1 어.
#1 거 대중허게시리 뭐 꼭 헤야 뒌다 허는 것이 아니고 좀 보리가 좀 눈이 많이 오니까.
@1 으.

#1 눈이 많이 오고 어니까 땅이 부꺼, 부꺼.
@1 으.
#1 겨난 거 ᄒᆞ쏠 붋아사켜, 그거주.
@1 으, 거는 정월에 허여?
#1 으, 정월에.
@1 예.
#1 정월에.
@1 보리 밟기예?
#1 붋아사주게. 그거 우리 그추룩 헤낫수다. 보릴 갈면 부각허게 눈 왕.
#4 게난 밟아야주게.
#1 밟아사주, 튼튼허게.
@1 예.
#1 보리가 염질 안허여, 여긴 또 흑이 저레 닮지 아녕이.
@1 뜬땅?
#1 어, 저 검은흑이라부난이.
@1 으.
#1 막 눈 와나민 들러게.
@1 예.
#1 경허난 아이고, 저 보리밧 불라사주게, 걸라, 보리밧 불르레 가게, 영.
@1 으. 그게 정월에?
#1 으, 정월에. 이런 뭐가 잇어낫주게.
@1 으, 이월에. 그 혹시 보리점 헹은에 뿌령은에 보리점은 안 봐봣수과? 거 뿌리로 헹.
#4 아니.
#1 뿌리점이 어떤 거라?
@1 보리 영 난 거 영 헹은에 뿌리 멧 개 나민 (벨소리) 좋다, 안 좋다. 이추룩 헌 거.
#4 아니, 아니.
#1 아니, 아니. 그런 건 엇어.
@1 이월에는 뭐 헙니까?
#4 이월에?
#1 이월에 검질메레 뎅기주게.
#4 검질메는 거주게.
@1 보리밧 검질.
#1 어. 보리밧 검질.
#4 이월 말 뒈가민.
#1 어. 막 계속 메주, 건.
@1 이월 말예. 다 음력예?
#1 어.
@1 삼월에는?
#4 삼월에는.
#1 삼월에도 그냥 어진저진 메곡게, 바다에, 여긴 바다일이라 부난.
@1 으.

#1 미역도 ᄌᆞ물레 가저, 듬북도 허레 가저, 여기는.
@1 예.
#4 삼월에 바빠.
#1 바빠. 그런 식으로 삼.
@1 삼월이 바쁘구나예?
#1, 4 어.
@1 게믄 바당 미역허고.
#1 미역허고 그 저 잡초 뜯고 거.
@1 듬, 듬북.
#1 거 듬북, 듬북.
#4 또 우밋가사리도 허곡.
#1 바람 불민.
@1 우미도 삼월에?
#1 으.
#4 으, 다시 또.
#1 아니 건 사월 나민 건 저 우무는 오월 오일날 넘어사 천초 그 ᄌᆞ물레.
#4 으. 천초는 오월, 오월 팔일날 정도.
#1 넘어사.
@1 아, 천, 천초는 오월 팔일.
#4 팔일날.
#1 어, 거 넘어가사 거 시작이라이.
@1 예.
#1 그축 허곡 이 삼월돌에는 미역 캐곡.
#4 소라.
@1 으.
#4 소라, 소라.
#1 으, 소라도 잡주만은 소라도 금지헙니다.
@1 어.
#1 거보고 저 뭣이.
@1 듬북허고.
#1 듬북, 듬북. 바람 불민 듬북 기냥 막 허레 뎅기곡, 듬북.
@1 으.
#1 옛날은 듬북을 막 미어 가지고 베로 헤와 가지고 막 밭에.
@1 어.
#1 걸름으로 헤낫주게.
@1 아. 그게 삼월에 미역헐 때 ᄀᆞ치 허고예?
#1 어, ᄀᆞ치 헤여근에 그냥.
@1 어, 우미는 아까. 사월에는 무신 일 헤?
#1 사월에는 그냥.
#4 그리저리 그리저리.
@1 초파일 뭐.

#1 뭐 성기덜 해녀덜 성기 잡곡 그자.
@1 으.
#1 뭣이 천초 허기 전에.
@1 예.
#1 성기 잡곡 이제 그런 거 허당 이제. 오월 오일 넘어가민 이젠 천초 허젠 막 발바둥쳐근에 해녀덜은.
@1 으.
#1 해녀들은 그렇게.
@1 그 농사는? 삼월에 허는 농산 엇어?
#4 농산 다.
#1 농사는 삼월둘에 허질 아녀고 감자.
@1 예.
#1 감자가 메 놓면 혼 이월 혼 십오일.
@1 예.
#1 그때부떠 이, 저 그 저 감자, 그냥 감자.
@1 묘, 묘종.
#1 감저 묘종.
@1 예.
#1 그거 그거 막.
@1 감저 묘종예?
#1 그런 묘종 싱곡 강넹이도 심엉 우리 먹곡 콩도 심곡.
@1 으.
#1 이제 그런 잡텡이 ᄀᆞ튼 거.
#4 또이. (벨 소리)
#1 허영 우엉에 그런 거 허고.
#4 그때 뒈가민 무우도 작업 끗나고.
#1 작업 끗나고.
@1 어.
#4 당근도 긋고 작업 끗나고.
#1 어, 작업, 작업 헤갓주게, 끗나.
#4 끗날 때 그건.
#1 끗나가민.
@1 언제면 다 끗나는 거?
#4 어?
#1 삼월 혼 중순 뒈가민 이제.
#4 거의 끗나주.
#1 끗나근에 다 정리.
@1 으.
#1 이제 무우도 다 끗나가고 그런 거.
@1 그러면.
#1 그런 거 허는 거, 거 삼월둘에.

@1 삼월에는 당근허고 무 수확허는 거구나예?
#1 어, 수확허영 다 끗나는 거, 끗나가는 거.
@1 끗나가는 거예?
#4 끗나가는 거.
@1 으.
#4 이제 무우허고 당근 시작은 이제 일월달부떠 시작헐 거주.
#1 어.
@1 아, 일월부떠 무허고 당근허고예?
#4 당근.
@1 예.
#1 어.
#4 시작, 시작, 시작. 게 삼월 말까지.
#1 삼월 말에 끗나가는 거.
#4 삼월 말까지.
@1 예. 그다음에 사월에 허는 거는?
#4 사월돌에는 그리저리 허는 거.
#1 사월 뒈가민, 사월 넘어가민.
#4 밧 정리허고.
#1 감자를 케 가는 거. 감자를 케젠 이젠. 아이고 이제 감자 케고 이제 오월 훈 초싱ᄁᆞ진 감자 다 케야 뒈어.
@1 아, 지실.
#1 지실.
@1 아, 게믄 아까 감저 묘종 논 건 이월에는.
#1 어.
@1 지실 논 거구나.
#1 어, 어. 지실, 그런 식으로.
@1 지실. 감자예?
#1 어. 그런 식으로.
@1 어. 사월 오월에 감자 케는 거예?
#1 어.
@1 옛날 고구마는 묘종 언제 놔?
#1 감저 모종은?
@1 으.
#1 건 사월에광 오월달에. 중순.
@1 아, 사.
#1 오월광 사월광 중순.
@1 중순에 이제.
#1 어, 오월까지 놓고.
@1 고구마 묘종 놓는 거예?
#1 어.
@1 으, 그다음에 유월에는 농사를 뭐허여?

#4 감자.
#1 농산 검질메는 거. 검질메는 거게, 건. 아, 유월은?
@1 으.
#1 유월은 대강 그자 얼랑얼랑 그자 천초 이제 해녀덜 천초도 ᄌᆞ물레 뎅기곡게.
@1 으.
#4 그리저리허는 거라.
#1 그럭저럭허는 거고.
@1 보리는 언제 헷수과?
#1 보리 어느 때, 보리 케는 거?
@1 어.
#1 보리 케는 건 오월둘에.
@1 보리 비는 거는 오월에?
#1 어, 오월광 오월 오일, 오월 ᄒᆞᆫ 십오일ᄁᆞ지.
@1 으.
#1 유월가기 전에 그거 케, 저 비어 잦형.
@1 예, 보리 비기예?
#1 어.
@1 아, 그다음 유월에는 아까 검질.
#1 어.
@1 무슨 검질멧수과? 저기 검질메는 건.
#1 검질메는 건 뭐냐면 이 밧디 뎅기멍 약도 치곡 그냥 밧 정리허는 거.
#4 밧 정리허는 거게.
#1 어.
@1 조 불리는 건 언제 허여?
#1 조 불리는 건 유월게.
@1 유월.
#1 유월, 유월절 전에.
@1 으, 유월절.
#1 전에부떠 이제 불리는 거.
@1 으.
#1 유월, 칠월 나민 검질메는 거, 이제 그추룩.
@1 치, 칠월에는 이제 조 검질.
#1 조피 허당 초복인가 무신 복엔간 조 나오는 거, 이제 그추룩 허는 거.
@1 조 나오는 건 언제 나와?
#1 그때 어디고 초복인가?
@1 초복?
#1 으.
@1 으.
#1 그추룩험도 허멍 우린 그냥 들은 베주, 거게 우리가 무신.
@1 예, 예, 예, 예.
#1 뭐, 어.

@1 그다음에 팔월에 용시허는 거는?
#1 팔월에 용시허는 건 팔월에 용시허는 건 대강 구월 나사 유채 뿌려.
@1 아.
#1 유채씨.
@1 구월은 유채씨 뿌리곡.
#1 어. 유채씨 뿌리멍 그자 살아가곡. 팔월은 나민 씨 뿌리는 것이 엇어. 거돠 들이젠 기냥 콩도 익어샤, 설어샤 보레 뎅기곡.
@1 으.
#1 이제 그런 거주.
@1 예.
#1 이제 뭐 특별히 뭐이.
@1 으.
#1 싱그는 건 엇곡 구월 나민 이제 보리도 갈젠 덜렁거리고.
@1 으.
#1 유채도 갈젠 떨렁거리고 이젠 그런 작업이주게.
@1 어. 구월에.
#1 어. 불려.
@1 유채, 보리 갈고예?
#1 어. 보리 갈곡 기자 불, 거 시월, 시월둘까진 갈아.
@1 어.
#1 구월은 너미 일르고.
@1 예.
#4 으.
#1 시월 나민 보리 갈곡 이제 고구마 페난 다음에.
@1 어.
#1 이제 유채 갈곡 이제 그렇게 살아온 거주게.
@1 으, 그다음에 시월에 고구마 케고.
#1 어.
@1 그다음에 고구마 케난 다음에 유채씨 뿌리는 거?
#1 어, 유채씨, 유채씨 뿌리는 거.
#4 으, 으.
@1 으. 유채씨예?
#1 으.
@1 그다음에 십일월에는?
#1 십일월은 거돠 들이는 거주게.
@1 아.
#1 거 뭐라도게. 뭐 거돠 들엿다는 거주.
@1 예.
#1 콩도 거돠 들이고 이제 으.
@1 예.
#1 이제 콩도 거돠 들이고 고구마도 다 거돠 들이고 이제 그거,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거.

@1 예. 콩 거.
@2 양력 십일월 아니예요? 그건. 너무 늦은데. 음력 십일월이면.
@1 으, 상강. 아까 시월.
#4 으.
#1 우리 콩도 안직, 안직도 안 거둔디.
@1 이제 안 거둰예?
#1 어.
@1 지금 그니까 음력으로 시월.
#1 어, 안 거돠 들엿어. 이제. 이제도. 기계로 허니까.
@2 양력 십일월이구나.
@1 으.
#4 이제이 미깡 타는 거주, 미깡.
@1 요즘은 또.
#4 어.
#1 것사 다 알주마는.
#4 십일월이.
@1 예.
#4 십일월 십오일부떠 미깡 시작헤여.
#1 으.
@1 십일월 십오일부떠예?
#4 으.
@1 으, 시작하고.
#4 미깡 타는 거.
#1 으.
@1 그다음에.
#1 미깡이 대중이주게.
#4 앞으로 미깡 타는 거주.
#1 요새 미깡이 대중이주게, 시작이주.
@1 십일월. 미깡은 주로 언제부떠 언제까지 땁니까?
#4 미깡?
@1 어.
#4 일월달까지.
@1 일월까지.
#1, 4 으.
@1 시작헤서 일월까지예? 그 이 종달리도 과수원덜 좀 잇어마씨?
#4 좀 예, 과수원 많이 엇어, 쪼꼼, 쪼꼼.
#1 멧 개 엇어. 하나 두 개?
@1 하나 두 개예?
#4 으, 쪼꼼.
@1 게믄 미깡 따레 뎅기는 건 놈의 동네 뎅기는 거?
#4 으, 저짝 우리 서귀포 쪽으로 저쪽 남군에이 거 타레 가.

@1 아.
#4 거기.
@1 삼춘도 미깡 타레 다니고?
#4 으, 나도 흔 십사 년 뎅겨서.
@1 아, 미깡 따레예?
#4 으.
@1 그다음에 아까 바당엣 거, 오월에 천초 헐 거 아니우꽈예?
#1 어.
@1 유월 뒈면 바당에 허는 게 바당일 허는 게 무시거 잇수과?
#1 천초.
@1 유월부떠.
#1 두불, 두불천초.
@1 아, 두불천초.
#1 어.
#4 으, 오월달.
@1 게믄 처음허는 천초는 무슨 천초렌 헤?
#4 음력, 아.
#1 두불.
#4 양력으로 오월달에이.
@1 으.
#1 양력으로.
@1 처음허는 건 초불 천초헨 헙니까?
#1 초불 천초. 오월 오일 넘어상 허는 건 초불.
@1 예.
#1 두 번차 놓은[논] 건 이제 두 불차, 두 불차 헴저, 헌 거.
@1 어, 건 유월에예?
#1 어, 유월에.
@1 칠월에는?
#1 칠월에는 거, 저.
@1 칠월.
#1 그럭저럭 바당 놀아.
@1 어.
#1 더우니까.
@1 예, 칠월에.
#4 거난에 바당도이.
#1 막 뜨거와.
#4 바당도 매일 가는 거 아니.
@1 으.
#4 이제 쉬멍 가는 거라, 날짜를이.
@1 칠월에는.
#1 놀젠.

@1 놀고. 팔월에는?
#1 팔월에는 그 저 그럭저럭, 팔월도 그럭저럭허당게.
@1 저기 해경은 언제 헙니까?
#1 어?
@1 소라.
#1 소라 잡으는 시월 일일부떠 시작헹.
@1 시월 일일. 양력 십, 시월 일일예?
#1 양력 시월 일일부떠 시작.
#4 이 바당에도이 매일 가는 거 아니.
#1 으. 매일 가는 거 아니. 그저 ᄒᆞᆫ, ᄒᆞᆫ 시 놀앗당.
#4 한물, 한물, 두물, 서물, 너물, 다섯, ᄋᆞ섯, 일곱물 허주게.
@1 예.
#4 겨면은 한물부떠 일곱물까지만 헤근에 아녀는 거.
@1 아.
#1 것도 바당이 쎄면은 안 허고.
#4 어, 바당.
@1 으.
#1 불민 헤보당.
#4 일곱물꺼지 허면은 바당에 아녓다가 다음에 또 이제.
#1 또 쉬엉 허고.
#4 또, 또 쉬어서 또 한물, 두물, 서물, 너물, 다섯, ᄋᆞᆺ, 일곱물까지.
#1 으.
@1 게면은 저기 한 달에 한 보름 정도 물질허켜예?
#4 놀고, 어, 쉬고.
@1 예.
#4 어, 어. 또 허고.
#1 십오일은 놀고 십오일은 허고.
#4 으, 으.
#1 이런 식으로.
@1 아, 종달리는 (벨 소리) ᄒᆞᆫ물부떠 일곱물까지만 물질헴구나예?
#4 으.
#1 아니 ᄒᆞᆫ물부터 아녀영 조금부떠 헙니께.
#4 조금부떠.
#1 으, 조금부떠.
#4 아끈조기부떠.
#1 이 한물 전이부떠 시작허여.
#4 겐디 대강 ᄒᆞᆫ물부떠 시작허주.
@1 으.
#1 물이, 물이 이제 뭐냐면은.
#4 매일 허는 거 아니.
#1 막 물이 창창 가주게.

@1 으.
#1 물이 너무 쎄 부니까.
#4 견디.
#1 잔잔헐 때.
@1 으.
#1 물이 섬섬헐 때 시작으로 ᄒᆞ쏠.
#4 근데 지금이 이제 어린 아이덜 물질헐 아이덜이 없어. 이제 야네 이제 물질허는디 야네 세대 끝나면 줌수가 없어.
@1 으, 이 동네 멧 명이나 잠수 이수과?
#1 아이구, 종달리도 암만헤도 오십 명은 뒐걸.
@1 으.
#1 다, 종달 전체. 많이 떨어졋주게.
@1 오십 명.
#1 으, 늙어 부난 못 헴주, 이 저 안 베운 사름이 엇어부난. 안 베운 사름이 엇언.
#4 이제.
#1 안 베와 부난 엇어져 불언.

조사 마을
@1 종달리에 두목새렌 헌 디 잇지예?
#4 으.
#1 두목세?
@1 으.
#1 두목세가 뭐라?
@1 그 바당.
#1 두문포?
@1 으?
#1 두문포?
@1 두문포.
#4 야이가 두문포주게.
@ 아.
#1 나가 두문포주게.
@1 아, 두문포 살멘?
#1 어.
@1 두문포는 뭐를 두문포렌 허는 거우꽈? 거기는.
#1 포구.
#4 아, 거 이름이 옛날 이름이.
#1 포구, 포구. 포, 포.
@1 게난 그 두문포에서 우도갈 때.
#1, 4 어, 어.
@1 베 하는 디가 두문포구나?
#1 포, 어, 어, 어.

@1 으.
#4 게난이 우리 저 종달리도이.
@1 으.
#4 동네가 오 개 동네라.
@1 으.
#4 에, 어디냐 허면은이 우리는 전수동.
@1 예.
#4 섯동[똥].
@1 으.
#4 중동[똥].
@1 으.
#4 동동[똥].
@1 예.
#4 이제 동중동[똥], 야넨.
@1 동중동.
#4 동중동[똥] 두문이개라, 오 개동.
@1 무슨 개?
#4 동중동이 야네 동동, 동동.
@1 아까, 아까 두문포를 무슨 개?
#4 동동, 동중동.
@1 두문이개?
#4 으.
#1 아니 두문포.
#4 동동.
@1 으.
#4 동동.
#1 두문이개엔 헌 건.
@1 으.
#1 옛날 하르버지네 곧던 말.
#4 게난 그.
@1 하라버지들이 곧든 말이 무슨 말.
#1 두문이개.
@1 두문이개.
#1 어, 겐디 두문포, 포, 포구가 잇어부난. 포라.
@1 예, 예, 예.
#4 겨난 야네가이 두문폰디 동동이라.
@1 동동.
#4 으.
@1 으.
#4 우리 종달리 오 개 동네주게.
@1 예.

#4 어, 우리 사는 거는 저 우리는 학교 동네, 저쪽에.
#1 성님, 나 성님신디 하나 물어보저. 종달리에서이?
#4 으.
#1 우리가 종달리에서 살앗잖우꽈? 성님, 이거 멧 십 년을 살아오고 성님도 멧 십 년을 살아왓는디, 성님이 이제 그 우리 동네에 그 누게 말짜라도 하나를 허면은 이제 응? 이 뭐가 잇잖우꽈? 섯동네믄 섯동네다 허질 아녀고 무슨 동네?
@1 옛날 이름으로.
#1 옛날 이름, 할망덜 골앗던 이름 미시거, 나.
#4 전 그거.
#1 아니 그냥. 흔번 골아 봅서.
#4 으.
#1 성님 나도 골앗주만은 골아나서. 나도 골아낫는디 성님은 또 나보다 또 유달르게 또 말이 으, 누게 말짜에도 하나를 허면 뭐 종, 제주돗말로. 그 제주도 그 사투리말로.
@1 으, 여기 할머니가 골아난 말로.
#1 사투리로 무시거옌 헷수과? 섯동넨 무슨 동, 섯동넨 섯동넨디 것도.
#4 으.
#1 전수동이.
#4 아니, 전수, 건 섯동.
#1 으.
#4 섯동.
#1 으.
#4 우리 전수물.
#1 전수물예?
#4 으, 으. 전수물.
#1 전수물.
#4 전수물.
#1 또 섯동네 무시거 헷수과. 벨호가 하나 잇지 않우꽈? 하나. 하나론 허민.
#4 몰라 나는.
#1 무시거 벨호.
#4 그런 거 잘 몰라, 난.
#1 몰라?
@1 전수물. 섯동넨 미시거?
#1 섯동넨 서쾃.
#4 그자 섯동네, 그자. 우리.
#1 서쾃동네.
#4 우리 동넨 전수물 동네.
#1 전수물, 이 어른은 전수동인디 전수물이엔 헌.
#4 또 이디.
#1 이제 그 말이 잇어나서.
#4 어. 또 이제 중동은이 동산동네.
#1 으.

#4 동산동네.
@1 동산동네.
#4 어.
#1 이름이 벨호가 잇어, 재미진 말덜.
#4 으. 동산동네.
#1 어, 어.
@1 동동은 뭐렌 허여?
#4 으.
#1 동동은 엇고.
#4 동동은게 두문이개에.
@1 으.
#1 으.
#4 동동은 야네 동네주.
#1 두문이개.
@1 두문이개.
#4 느네 동네는 이름 엇어?
@1 두문이개.
#1 무사 엇어.
#4 두문이개.
#1 그냥 두문이개게. 옛날 두문이개. 야, 두문이개 갓당 오라게.
@1 으.
#1 그거.
@1 두문이개지예?
#4 어, 두문이개. 으.
@2 동중동은?
@1 동중동은?
#1 동중동은 엇어이.
#4 으. 게난에. 에, 동중동은 동중동은.
@1 서쾃동네.
#1 서쾃동네.
#4 동중동은.
#1 게난 성님, 서쾃동넨 안 굴암신게.
#4 동중동은이 야, 저 동중동은 큰동네.
@1 예, 아. 동중동은.
#4 큰동네.
#1 건 동네가 커부난 거.
#4 으, 으.
@1 큰동네.
#4 큰동네.
@1 예, 맞아. 이 이게 전수물, 서쾃동네, 동산동네, 두문이개, 큰동네.
#4 어, 어.

#1 어. 건 사투리주게 하난이.
@1 이런 게 우리는 더 중요헤.
#1 어, 사투리주게.
#4 어, 어.
@1 예.
#1 섯동넨디 서쾃동네.
#4 으.
#1 전수동은.
#4 야네가이, 야네가이 야의가 섯동네서 살단, 살단 그 두문이개 시집갓주게.
@1 아, 경허난 잘 알암구나게.
#1 아이고, 종달리서 나고 종살리서 커부난.
@1 으.
#1 이 종달리 내막은 그냥 들은 것 뿐이주게.
@1 예, 예게.
#1 들은 걸로 곧는 거주 무신 나가 무신걸 아는 거꽈게? 그거주게.
@1 게난 들은 걸 우리한테 굴아주는.
(부분 생략)

소금

@2 소곰허는 거 한번만. 저기 몃 월 달에 허는지?
#1 무시거?
@2 소금은 몃 월 달부떠 몃 월달까지 허는지?
(생략)
@1 옛날 종달 하면은 소곰 아까도 얘기헷지만, 소곰 헷잖아예?
#1 으.
@1 소금은 어느 철에 멘듭니까? 보통.
#4 봄에, 봄에. 삼월둘에.
#1 삼월광 시월, 동짓둘ᄁᆞ지 헷주게, 겨울 내낭.
#4 삼월부터.
@1 그래도 장마철은 막 힘들잖아예?
#1 에이구, 그땐 못 헷주게.
@1 게난 못 허잖아예?
#1 어, 물, 물이 덤덤헤부난.
@1 으.
#1 소곰이 안 나와.
#4 견디이 소곰이이.
@1 으.
#4 허는 것이 간단헌 것이 아니라.
#1 어. 소곰이 안 나와.
#4 저 산에 가서.
@1 예.

#4 막 그 나무 잇잖아.
@1 으.
#4 나무를 막이, 야넨 차 이시니까 이제 그 나무를 많이 헤다가 이젠 이렇게 큰 디서 막 그 불을 때어 가지고.
#1 그 뭐가 터거리가 만들어졋주게.
#4 그 소곰 허는 과정이 족, 족지 아년 거라.
@1 아.
#4 나무헤다근에 막 그걸이 밤새낭.
@1 으.
#4 밤새낭 밤새낭 불을 때 줘야 뒈어.
#1 걸 ᄌᆞ촤사.
@1 조촤사예?
#4 물이.
@1 으.
#4 물이 이제 막 ᄲᅳ따 가지고이 하양허게시리 막 ᄲᅳ따 가지고 그 소곰이 뒈는 거.
@1 예, 맞아.
#1 짜게 멘들앙.
#4 거 나무헤오는 것이 문제.
#1 남이 엄청 들어.
#4 나무 헤당 막 일로 아궁으로 불 때근에 허민.
#1 어.
#4 그거이 막 ᄌᆞ촤 가지고이 이제 냉중이민 이렇게 하양케 나와.
@1 으, 으.
#4 나오민 것이 소곰이라.
@1 예. 그리고 종달 소금은 다른 소금하고 ᄯᅮ나서 여기는 곤소곰이렌 허멍?
#4 어. 아니, 아니, 아니.
@1 곤소곰 아니?
#4 아니, 아니. 저 줌진 거.
#1 게 것이 줌진 거주게, 줌진소곰.
@1 예, 줌진소금.
#4 으.
#1 것이 곤소곰이주게.
@1 으.
#4 줌진 거.
#1 특이헤, 특이헤.
@1 거난 다른 데는 흙은소곰인데 여기는.
#1 어.
#4 경허민.
@1 줌진소곰이렌 허더라고.
#1 어.
#4 경허민이 옛날, 옛날 할머니들이 경허면은 이제 그 소곰을 옛날은이 이 마다리도 엇잖

아.
@1 예.
#4 그거 나룩찝으로 만든 그거, 저 뭐가 잇어. 그 멕이렌 멕.
@1 예.
#4 그것에 이젠 담아 가지고 이젠 등에 져근에.
#1 에구, 에구.
#4 저 산간 부락에이 어디 손당이나 어디 수산드레 가서 이거 파는 거라.
@1 으.
#4 겡 가면은 이젠 돈도 받고 쌀도 바꽈 주곡이 경 막 그걸 지곡 풀레 다녀.
#1 게난 소곰장수.
#4 이 집 저 집 느네 집이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1 소곰장수.
#4 소금 사쿠과? 안 사쿠과?
@1 으.
#4 안 사쿠다. 경허민 허곡 또 사쿠다 허민 또 사곡.
@1 으.
#4 겡 그거 풀아당은에 먹어셰게.
@1 예.
#1 게난 옛날 소곰장시, 저 종달린 소곰장시.
@1 여긴 소곰장시, 소곰바치들.
#4 어.
#1 소곰바치.
#4 소곰바치.
#1 저거 소곰바치 똘 아니가? (모두 웃음) 우리 어릴 때.
#4 게도이 그 옛날에 게도이 종달이는, 종달이는 게도이 소곰바치 헨에 경헨 사난에 게도 밥을 먹어서.
@1 예. 게난 이 소곰.
#1 소곰바치 똘, 아아.
@1 소곰바치 헐 때는 그래도 거기에 일허는 사름들이 할 거 아니우꽈?
#4 으.
#1 일허는 사름이?
@1 으, 멧 명쯤 일허여.
#1 아이고.
@1 다 요만씩 이건 우리 소금밧, 요건 누게네 소금밧 헐 거 아니?
#4 으, 으, 으.
#1 소곰밧을 쫙 갈라졋덴, 옛날.
@1 으.
#1 요건 누게네 밧.
@1 예.
#1 요건 누게네 밧 영헌디, 힘 잇는 사름은 소곰도 허곡, 혼자 잇는 사름은 소곰들 못허고.
#4 못허여.

#1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소곰으로만.

#4 아이구.

#1 널엇다가 재엿다가 널엇다가 재엿다가. 이 서슬 안에다가 헤다가 물 놔가지고 그 짠 물알로 빼 가지고 그렇게 헤서 중물 미신 하물. 걸 딱 빼 가지고 숣은 거, 숣은 거.

#4 밧을이 삼백 펭이면 삼백 펭.

#1 어 구역을 다 짱 누게 말쩍으로.

#4 딱 이제 분할헤 가지고. 요 요만썩 요만썩 요만썩 요만썩 허민 요만썩 영 허민. 야의넨 요만이 허민 이딘 우린 요만이 허민 또 이디 딴 사름은 딴 사름. 그렇게 다 쪼꼼썩 갈라서. 한 삼백 펭썩 갈라준 거라.

#1 그렇게 다 턱거리를 다 만들어, 자기 것은.

#4 또 그것도이 이제 못 허는 사름은 못 허여.

#1 못 헤여, 혼자 사는 사름은 못 헤여.

#4 줘도이, 에구 난 못 헌덴 헌 사름은 안 허고.

#1 어 기냥.

#4 허겟다 헌 사름은 이제 가져서이. 냉중에 이제 밧이 뒈니까 돈이 뒈는 거라, 지금은.

@1 으.

#4 땅이 비싸니까.

#1 으.

#4 옛날은이 허, 허지 못헐 사름은 아녓어.

#1 허질 못허여, 흠치, 여자는 엄두도 못 내고.

@1 예.

#4 남저 엇이민.

@1 왜냐면 바다에 강 물질어당 거기에 뿌려야 뒈난예?

#1 뿌려서 이렇게 갈아서 말려서 또 뿌려서 말려서 또 뿌려서 말려서 **를 딱 만들어서 쌓이곡.

@1 으.

#1 그렇게 헤서, 아이. 엄청, 엄청.

조개

@1 여기 삼춘, 한 가지만 더예. 이 여기 종달리 하면 옛날에 조개.

#1 어.

#4 조개, 조개밧.

@1 그 맛조개렌 헌 걸 이 동넨 뭐렌 불럿수가? 그거.

#4 조암조개.

#1 조암조개.

@1 조암조개예?

#4 대조개.

@1 예.

#1 대조갠 시흥서 난 거고.

#4 어.

#1 물콥조개.

#4 물콥조개.
#1 말콥조개.
@1 예. 물콥조개.
#4 으.
#1 또 거세기 것ᄀᆞ라, 것ᄀᆞ라 하나 조개는 ᄯᅳ로 무시거더라. 멩지조갠가? 멩지조개.
#4 멩지조개도 잇어.
#1 으, 멩지조개도 잇고.
@1 멩지조개예?
#1 으, 저.
@1 여기는 워낙 저기 모래가 너르니까.
#1 어, 널러.
@1 거기는 해수욕은 안 하잖아예? 그냥.
#4 아니, 못 허여, 물이.
@1 으.
#4 항상이 싸지 아녀 가지고 담앙 이시민 관광지가 뒐 건디, 물이 쌋다가 들엇다가 헤부니까 관광지가 안 뒈.
@1 아.
#4 게난.
@1 물이.
#4 물이 항상.
#1 빠져 빠져.
#4 물이 항상이.
#1 빠졋다가 들엇다가, 빠졋다가 들엇다가.
#4 물이 항상 그 ᄀᆞ만이 잇어야 뒈는디 경허민 종달이가 최고 좋을 거라.
@1, 2 으.
#4 겐디 그 물이 쌋다가 들엇다가 쌋다가 들엇다가.
@1 요즘도 조개잡이 헙니까? 여기.
#4 으.
@1 옛날에 종달리 조개체험장.
#4 이젠 조개 잘 안 나.
@1 이제는 다 잡아가 불엇구나?
#4 다, 이제 외리에서 왕 다 잡아 불고이 이, 저 조개가 잘 안 나.
#1 게고 저.
@1 한동안 조개체험어장 하영 헷잖아예?
#1 조개체험 어장 헐 때에 우리 밧 아래, 체험어장을 허여게.
@1 으.
#1 헌디 체험어장 헤근에 딱허게 그 오랑 신, 발도 씻고 뭐헌 디도 다 만들고 이 벤소도 저거 뭐, 화장실도 만들고 허는데 조개가 그때는 이제 그 어촌계장이 누구가 어촌계장이 종달리 ○○. ○○ 그 아주버님이 조개헌디. 조개 생산을 헤왓더라고. 헤와 가지고 막 밧으로 이제 나와 가지고 돈 주크메 갈렌 허민 그 조개씨 요만썩 헌 거 육지조개 막 뿌려.
@2 (웃음).

@1 으.

#1 뿌리민 그걸 어떻게 허민 살릴려고.

#4 으. 그런 건이.

@2 어.

#1 살릴려고 그, 그 저 허난 우리도 조개 강 뿌령 돈 받곡 허젠 조개 뿌리레 가민 그 조개가 그 땅에 살질 아녀.

@1, 2 아.

#1 게난 조개 허민 이제 조개 살카 부덴 이제 허당 보민 흔 일 년을 가돠 가지고 허당 보민 가둡긴 커녕 기냥 빠, 물싸민 아이덜 왕 장난헹 빠 오곡 미시거 허난 완전 엇어져 분 거라게, 이 땅이.

@2 으.

#1 이, 나 첨 요자기도 굴앗주만은 거 그 조개밧이라는 게 하도 해안이 널러.

@1 예.

#1 이 저 성산포 시흥리, 오조리, 종달리 허면은 바로 항아리처럼 크게 막 비헹장이나 험직헌 땅이라.

@1 으.

#1 겡 물을 싹 나가민 요레 골을 짝허게 물을 솜빡 들어다가 이 골을 치면서 바다에 골치면서 이렇게 큰 바다레 나가기 때문에 나가 으, 첨 열네 술에 그 모살치를 거려서.

@1 으.

#1 겡거리 헷다는.

@2 예.

#1 막 웃지 안헤서게.

@1 예, 예.

#1 바로 그런 이제 땅인디 물이 솜빡 들엇다가 나가고.

@1 으.

#1 또 솜빡 들엇다가 나가고 바로 그런 땅인데 조개는 안 살아.

@1 으.

#1 조개 잘 안 나, 지금은 잘 없어.

@1 예.

#1 그것이 잘 살질 못헤, 모래가.

@1 게난 옛날에는 그 조개가 한 거잖아?

#1 으.

@1 아까 그 조암조개도 잇고 대조개도 잇고.

#1 거 자기 스스로 많이 잇더라고.

@1 옛날에는예?

#1 옛날은.

@1 예.

#1 우리가 그냥 어릴 때 흔 일고ᄋᆞ덥 술 학, 국민흑교 뎅길 때, 졸바로 아녀면서도 조개 파레 가민 저 대강 관뒈로 하나쯤은 파.

@1 으.

#1 그 조개를.

@1 예.
@2 삼춘 발로 영영영 헤근에 헌 거.
#1 어, 발로 영영영영영 허민 몽클락허민 빵 보민 조개라.
@1 아.
#1 그 시절이 어느 때냐면은 우리가 흔 열서너 술.
@1 예.
#1 그때ᄁᆞ진 막 왕상헤여.
@2 아.
#1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혼헤서 이디 살단 보니까. 뭐 엇어져 가니까 그것이 왜냐면 밧디서 농약이 나온 거라.
@1, 2 으.
#1 이 뿌리는 농약이.
@1 예.
#1 제초제니 무시거니 그래서 이제 그 농약을 허당 보니까 또 논에다가 또 그 살충제.
@1 예.
#1 그거 뿌리다 보난 그 논이 약이 바다로.
@1 바당으로 다 간예?
#1 흘러가니까 그 조개덜이 엇어진 거라.
@1 으.
#1 지금.
@1 게난 한동안 그 맛조개 헐 때까지가 조개가 이신 거구나?
#1 조개가 이신, 소곰 영 찔렁 콱 우트레 올리민.
@1 예, 예. 맛소곰 헤 갖고 이거 올라.
#1 어, 어. 그때ᄁᆞ지도 우리 알아이.
@2 예.
#1 그때도 바다가 살앗다는 거라.
@2 아.
@1 예.
#1 그때도 바다가 살앗는데.
@1 구십년대, 그때가.
#1 어, 게난 우리가 이제 거기서 밧 아래서 강 조개나 하나 파 보카 허영 굴, 굴각지로 콱 콱 찔렁 작작 긁으민은 아래 뻘이 잇어.
@1 예.
#1 그것이 뭐냐면 바다가 죽어간 거라.
@1 으.
#1 살아 시면은 조개가 어떻게 우리가 부떠 가지고 살주만은 그 조개.
@1 뻘이 나와예?
#1 바리기는 하영헌 모살로 이렇게 더퍼 잇주만은 굽에는 으, 그 병이 들어잇다는 거라.
@1, 2 으.
#1 그 바다가.
@1 예.

#1 병이 들어 가지고 아, 이거 병이 들엇구나. 겐디 나는이 가만히 뎅겨도이 그런 걸이 생각을 잘 헤져.
@1, 2 으.
#1 원래이.
@1 예.
#1 하고 왜 바다가 썩어가는가, 이런 누게가.
@1 맞아.
@2 이 조개는 어떻게 달르는 거마씨? 조암조개영 물콥조개영 이런 멩지조개는 어느 게.
#1 아니, 물콥조개라는 건.
@2 으.
#1 그 이제 이디서 나질 아녀고 물콥조개란 건 바르 이 바다에서 난 거주게.
@1 으.
@2 예. 어떵 생견?
#1 이 바다에서 난디. 왜 이 물쿱조개가 잇엇느냐면 우리는 이제 어릴 때에 막 영영영영영 허당 보민 새카망헌 것이 바로 물쿱조개, 물ᄀᆞ치.
@1 물발 저.
#1 물발짝ᄀᆞ치 뽕끌락허게 나온 것이 우리 입에선디 할망네 입에선디 건 물콥조개.
@2 네.
#1 경 헹 알아낸 거지, 물쿱조개.
#4 너네 종달리 조개밧은 안 봐봣지?
@1 아니, 봐봣수다.
#4 아, 봐봔?
@1 예, 예, 예.
#1 그거, 그거 그거주게. 그거. 겐디 저 바다에는.
@1 멩지조개는 막 곱닥헌 거고예?
#1, 4 어.
@1 멩지조개는.
#1 멩지조갠 곱닥허영 준 거.
@1 줄고.
#4 멩지조개는이 ᄒᆞ꼼 요렇게 요렇게 뒌 거.
#1 어
@1 예.
#4 요렇게 요렇게.
@1 아.
#4 영 ᄒᆞ꼼 길어.
@1 길어예.
@2 조암조개는?
#4 조암조개는 맛 좋아.
#1 조암조개는 육지조개 ᄀᆞ치 그냥 조암조개.
@2 아.
#1 그 가다고게.

@1 조암, 손 이렇게 저기.
#1 어, 몽클락허게 나왕.
@1 몽클락. 우리 그 시흥 가면.
#1 어.
@1 그저 죽, 조개죽 헹 먹지 안헙니까?
#1 어. 건 대조개. 이름이.
@1 건 대조개. 그 시흥 하는 건 대조개?
#1 어, 시흥리 대조개.
@1 어, 어.
#4 대조개 거는.
@1 우리 그 저기.
#4 종달리도 대조개 잇어, 잇기는.
#1 잇주게.
#4 시흥리 바당에, 시흥리.
@1 바지락 허지 안헙니까?
#4 시흥리만이 엇지.
#1 바지락이렌 허민 조개 이름 아니?
@1 예. 조개 이름인데 그 저 바지락은 여기선 뭐렌 헙니까? 그런 조개를.
#1 기냥 물, 그냥 조암조개.
@1 그게 조암조개예. 바지락헌 게예?
#4 으, 으. 것이 조암조개.
@1 으.
#1 조암조개, 이름이 조암조개.
@1 으.
#1 우리 조암조개 파레 가게, 영 헤난 거.
#4 이젠 조개가 엇어이.
#1 조개가 엇다는 거주.
@1 맛조개는 요렇게 네모난 거.
#4 아니 맛조개는이.
@1 으.
#4 느 그 연필 닮은 거주게.
#1 으.
#4 영 요 수룸헌 거, 요만이.
@1 소롬헌 거.
#4 맛조개.
@1 요, 요 요만큼 이렇게 뒌 거.
#4 으.
#1 어게.
@1 예.
#4 그렇게 뒌 건디.
@1 예.

#4 맛소금을이 요기다 톡허게 놔.
@1 예.
#1 게믄 우트레 올라왕 겡 싹허게.
#4 맛소곰을 요렇게 톡허게 놓면이 이것이 나와.
#1 원 엇어졋저, 하나토, 엇어, 엇어.
@1 엇어져 불언예?
#1 엇어.
#4 맛소곰 놔서.
@1 이 맛조개는 여기선 뭐렌 불런?
#4 것도 여 뭐.
#1 거 무시거니, 나 요지금 알아지크라.
#4 것도 여러 가지 헹 먹주게.
@1 으.
#1 건 몰르켜. 난 조개 잡아보지도 아녀고.
@1 그냥 건 맛조개.
#4 으.
@1 (웃음)
#1 조암조개.
@1 조암조개
#1 마리조개. 마리조개도 잇어.
@1 어?
@2 마리조갠 뭐라?
#1 마리조개.
@1 마리조갠 어떤 거우꽈?
#1 마리조개는이 빤찍빤찍빤찍헌다.
#4 마리조개는이 마리조갠 이렇게 영 뒈 잇언게.
#1 빤찍빤찍.
#4 멋진 거라.
#1 멘들랑헌 게.
@1 멘들랑혀?
#1 어, 어.
@1 으.
#1 그 조개 껍질도 만헤서.
@1 아, 기우과?
#1 어. 마리조개, 거 이름이.
@1 마리조개.
#1 이름이 기냥.
@1 아고, 이게 뭔고이. 눈으로 봐야 아는데.
#1 아이고 막 예뻐. 멘지락헤근에이 납작헐수록.
@1 예.
#1 그 조갠이 잘, 잘 나오지 아녀.

@1 으.
#1 그 옛날엔 우리 막 파낫저게.
@1 으.
#1 막 파고 서킹이도 깅이도 팔 때양, 그디 강 그 서킹이 잡으멍 그 마리조갤 파난.

게
@1 서킹이?
#1 서킹이.
@1 서킹이는 어떤 거우꽈?
#4 서킹이엔 헌 거 잇저게.
#1 저 그 뚜껑이, 뚜껑이.
#4 이렇게 뒌 거.
#1 뚜껑이 바로 저 거북선ᄀᆞ치록.
#4 이러, 이렇게 뒌 거.
@1 으.
#1 거북선ᄀᆞ치 막 놀스라.
#4 거난 그거는이 발로이 불르민 허는 거, 영.
#1 놀아가멍, 놀아가멍.
#4 발로 강 발로이 영영 허민이 뭉클락허여.
#1 어, 어. 곱앙 돌멍 곱으민 영 잡곡.
#4 양말도 신지 말곡.
@1 예.
#4 맨발에.
@1 어.
#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막 걸어. 걸어가민 어디 뭉클락헤근에 영 허민.
#1 이름이 그냥 서켕이지.
@1 서켕이.
#1 으, 서켕이.
@1 게믄 얼만큼 커? 거는.
#4 요만이, 요만이.
@1 아, 큰 거구나.
#4 요 정도.
@2 아.
#4 이렇게 뒌 거. 바로.
@1 아, 알아져.
#1 이름이 그런 거주.
@1 어떤 요런 모양이 요런 식으로 서켕이.
#4 그거이 대개 맛셔.
#1 얼굴도이 거 뚜껑 얼굴도 얼룽벵이. 얼룩얼룩허여.
@1 얼룩얼룩 얼룩배기.
#1 얼룩얼룩얼룩얼룩.

@1 어.
#1 고와, 것도 점 찍어진 거 ᄀᆞ찌 속속속속.
@1 예, 예, 예.
#1 그런 건디 지금은 것도 잇어.
@1 아, 잇어?
#1 어. 잇어도 잡지 아녓주, 모래에 곱앙 앚주게.
@1 아, 모래밧디.
#1 어, 모래밧디 곱앙 앚아근에이 그거이 불름불름불름만 허여.
@1 모래, 모래에 사는.
#1 모래만 살아.
@2 으.
@1 저 깅인가 보다. 서켕이가.
#1 겐디 입이 이런 것도 말 놀실곡.
@1 으.
#1 이런 것도양 막 놀실아근에 잡아먹젠 허민 사름. 깅이끼리 잡아먹젠 허는 거는 다 지가.
@2 아.
#4 것도 물민 아파이.
#1 아이구 거 막 놀씹니다. 바래기도 놀씨라.
@1 놀, ᄂᆞ시라예?
#1 어.
@1 게난 겡이 종류도 여기 하지 안허연?
#1 겡이 종류는 그냥, 게 그냥 깅이.
@1 예, 깅이.
#1 창깅이.
@1 예.
#1 서파리깅이.
@1 서파리깅이.
#1 어. 거 이름 그거.
@1 서파리깅이는 어떤 거우꽈?
#4 춤깅이도 잇고.
#1 어.
@1 춤깅이 잇고.
#1 춤깅이, 서파리깅이엔 헌 건.
#4 넙작헌 거, 넙작헌 거.
#1 엉상, 엉상헤라.
@1 으.
#1 엉성허영.
#4 저 곳게 닮아. 곳게주, 그 곳게.
#1 으.
@1 아, 서파리깅이는 곳게 닮은 거예?
#4 으, 으.

#1 엉성헌 게 그냥.
#4 곳게주게 그건.
#1 다리 진진허곡.
#4 게난이 곳게, 곳게.
@1 예. 꽃, 꽃게란 게 서파리깅이, 여기는.
#4 어, 어, 어. 곳게.
@1 게믄 하진 안허켜예? 육지처럼예?
#4 으.
#1 여기서도 하긴 하. 영 들렁 보민.
@1 식킹이도 잇지 안헤?
#1 몰라, 그건이 영 돌 일령 보민이 건이 우리가 저 연허지 안헤부난.
@1 아.
#1 깅이가 연허질 안허여. 춤깅이는 아주 연허는디.
@1 으.
#1 먹어도 아주. 그건이 ᄒᆞ쏠 쎄부난.
@1 으.
#1 경 잡젠 아녀주게.
@1 아.
#1 겐디 몰른 사름덜 오랑 막 잡아.
@2 (웃음).
#4 끗나지 안헤샤?
@1 예. 끗낫수다, 이제. 어쨋든예, 삼춘, 고맙수다.
#4 아이, 느네가 고맙다게.

구술로 기록하는 제주의 세시풍속 조사 사업 1
- 구술 자료집(제주시 동부지역)

새철 드는 날 끄넷기 아졍 뎅기민 베염 난덴 골아

발행인 김순자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처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시 동광로 51(이도1동) 3층
전화: (064)726-5623, 모사전송: (064)747-6140
누리집: www.jst.re.kr
발간등록번호 11-B553921-000016-01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밝혀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